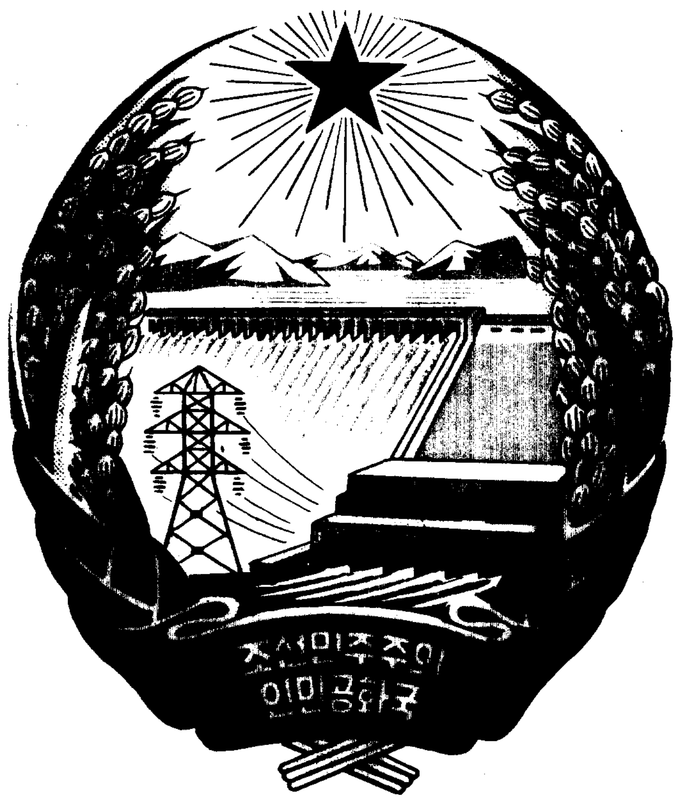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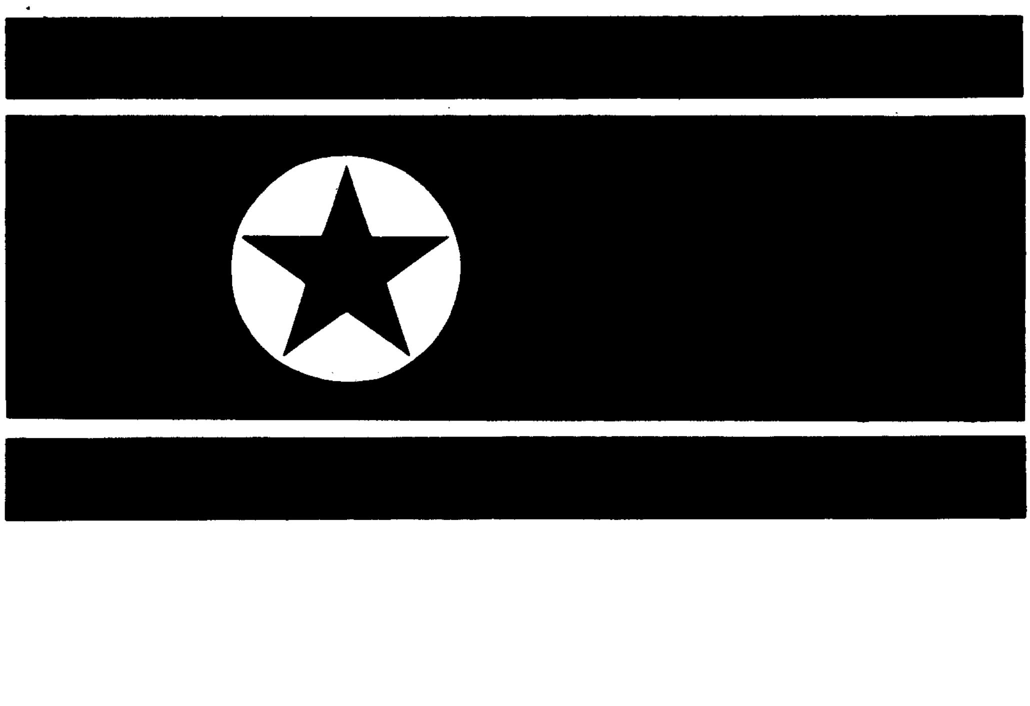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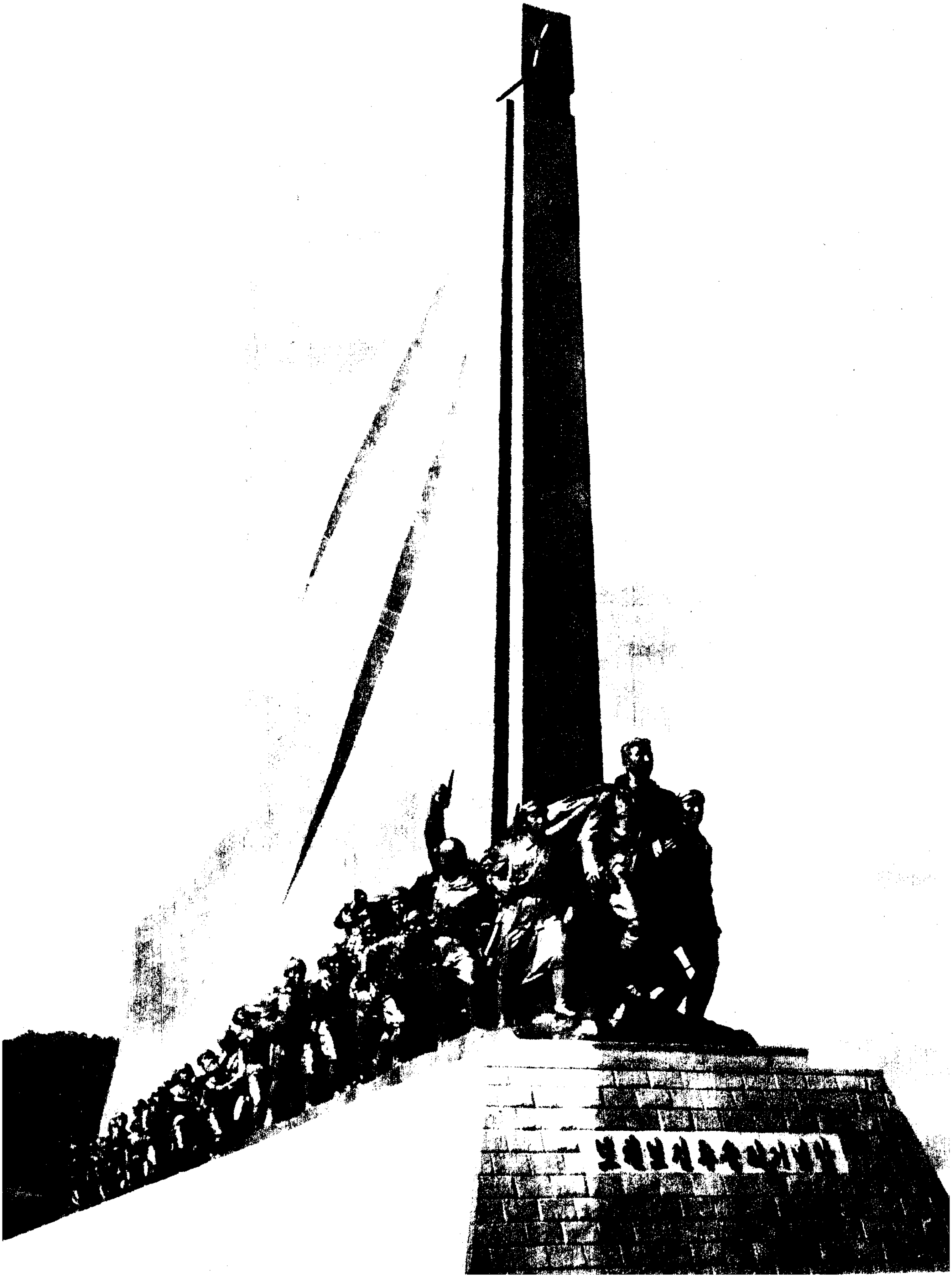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 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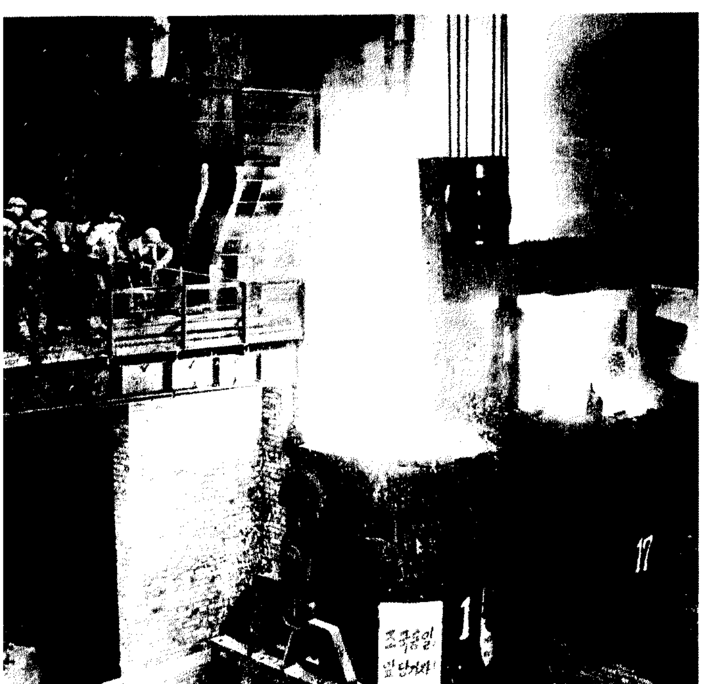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는 **김일성동지**



황해제철소에서 현지지도를 하고계시는 **김일성수상**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붉은 용해공들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폐지로 조세부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우리 나라의 협동벌



소년단련합단체회의에 나오신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린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실시에
기뻐뛰는 어린 학생들





전사들속에
계 시 는
위대한수령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돌격 앞으로! 맹훈련을 쌓는 로농적위대원들



일당백의 조선인민군병사들



웰남민주공화국 경제대표단 단장 려청의와 담화하시는 **김일성수상**
←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평양시환영대회 주석단에서 답례하시는 **김일성수상**과 대표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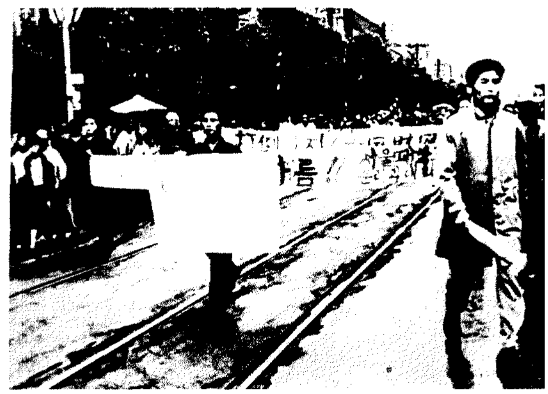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공산당 대표단 단장 미야모도겐지와 담화를 나누시는 **김일성수상**
←



매국적《한일협정비준》을 결사반대한다 .



매국적《한일회담》을 박살내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시위



《부정부패》의 원흉 박정희는 물러가라고 웨쳐나선
서울 문리과대학생들의 시위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여 매국노 박정희도당의
주일대표부에 밀려든 재일 조선청년들의 시위대렬





4천만 조선
인민의경애
하는수령
김일성수상
의 자애로
운품에 안
겨 행복하
게 자라날

차 례

문 헌

1965년도 주요문헌

1966년도 주요문헌

서 술

국 내

국 제

부　록

문헌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로

1965년

김일성수상의 신년사

(1965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난 1964년에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찬 업적을 돌이켜보면서 더욱 큰 희망과 용기와 신심을 안고 새해 196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과 우리의 전체 동포형제자매들에게 새해의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계속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공업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 공업의 물질생산적토대가 현저히 확장되였으며 그 기술장비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대규모의 강계청년발전소가 새로 조업하였으며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제1계단 공사가 완성되고 여기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신도갈석지개간공사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강선제강소의 인발강관공장, 황해제철소의 분괴압연직장과 화학직장,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 등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새 공장들과 직장들이 건설되여 멀지않아 조업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뿐아니라 평양화력발전소와 운봉발전소, 일련의 화학비료공장들의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 탄광, 광산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고 적지않은 중소규모 탄광, 광산들이 새로 개발되였습니다.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기존기계공장들이 정비확장되여 그 생산능력이 장성하고 새 기계공장들이 더 건설됨으로써 인민경제 각부문에 더많은 기계설비들을 생산공급할수 있게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로서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건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한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과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평양—신의주간의 철도전기화가 단시일에 완성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교통운수의 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앙경공업공장들이 더욱 개건확장되고 지방공업의 기술장비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수많은 중공업공장들에 생활필수품직장이 꾸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품종이 확대되고 제품의 질이 더욱 제고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집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대규모의 압록강관개와 신계관개, 청천강 및 순화강의 제방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새로 6만정보의 논면적이 확장되였으며 우리의 농업을 한재와 수재로부터 더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촌에서 영농기술이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특히 2모작의 도입에서 큰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우리는 2모작의 도입에서 이미 시험단계를 거쳐 그 면적을 수십만정보로 확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태풍으로 인하여 수십만톤의 농작물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생산에서 1963년수준을 견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농업생산토대의 견고성을 단적으로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신에 따라 당과 국가는 농촌을 계속 강력히 지원하였으며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작년말까지 현물세의 납부를 면제받은 협동농장수는 전체 농장의 약 절반에 달하였습니다. 국가는 또한 협동농장들에 이미 지어준 문화주택건설비와 농장들의 국가대부금을 완전히 면제하여주었으며 동시에 국가자금으로 각종 생산시설들과 문화주택들을 새로 많이 건설하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로동계급의 강력한 국가적지원과 농민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한해동안에 사회주의조국의 가일층의 번영을 위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해마다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고있으며 더욱 큰 업적을 쌓아올리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움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이 더 아름답게 꾸려지고 인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좋

아지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의 각전선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보건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안전원, 로농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의 이 아침에 커다란 신심에 넘쳐 조국의 더 훌륭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뜨거운 심정으로 남반부형제자매들을 생각합니다. 남반부동포들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압박과 생활고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반부인민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매국도당을 반대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도처에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지고 광범한 농민대중이 미제와 지주, 반동관료배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떨쳐나서고있으며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의 지향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있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영웅적항쟁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를 시위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청년들이 쌓은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들과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은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하며 혁명력량을 계속 축적하고 장성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침략과 박정희집단의 매국정책을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용감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결국 남조선에서 쫓겨날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반부동포들과 혁명투사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북반부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형제적성원과 인사를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60만 재일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에로의 자유래왕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유리합니다.

세계사회주의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계속 발전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으나 그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반제국주의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당과 인민은 대외관계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과 자본주의국가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였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대외적관계는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열렸던 아세아경제토론회와 그리고 수많은 정부대표단들과 경제문화대표단들의 호상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정책이며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

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인민들과 단결하고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사회주의국가인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내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남부윁남인민들과 꽁고인민들,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떨쳐나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꽁고(브)공화국 정부대표단, 인도네시아과학자리사회의학자대표단, 기네공화국 국립방송국대표단 여러분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더욱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7개년계획의 수행에서 다섯번째해에 들어섭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7개년계획의 상반기에는 이미 축성된 중공업기지를 정비보강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며 하반기에 가서는 우리의 중공업을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할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년동안에 7개년계획의 상반기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그 하반기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물론 최근 2~3년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예견하였던것보다 일정하게 지연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중공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7개년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며 또 능히 완수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철, 강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흑색금속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현존용광로들의 개건확장공사를 강력히 추진시키고 황해제철소에 제3호용광로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진행하는 동시에 강철생산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제철, 제강 공장들에서 기술장비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생산량을 훨씬 더 증가시키며 강종과 강재의 규격을 확대하고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할것입니다.

화학공업에서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화학비료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아오지노소공장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화학공장들의 신설확장공사를 더욱 촉진하여 그것들을 빨리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연료동력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력고지와 석탄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와 운봉발전소의 건설을 시급히 완성하도록 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계속 광범히 건설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탄광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그 생산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하여 광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철광산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유색금속광산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특히 대규모광산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광산들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천선광장을 비롯한 새 선광시설들의 건설을 촉진하며 모든 광산들에서 기술개건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철, 동, 연, 아연 등 각종 광물의 생산량을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최근년간에 이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멀었습니다.

우리는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높이며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가까운 1~2년내에 소비품의 품종확대와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일용품이 곱고 질기고 모양있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식료품이 깨끗하고 맛좋은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발전은 우리앞에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우리는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건설된 관개시설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물관리를 더 잘하여 논면적을 더욱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모작을 광범히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논 전작으로 사료작물을 많이 심으며 밭에서 알곡 2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농촌기술혁명을 위하여서는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농촌에 더많은 화학비료를 공급할것입니다.

특히 토지정리를 잘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 대수를 증가시키고 그 수리기지를 더욱 확장하여 뜨락또르와 각종 련결농기계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것입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선진적인 집약농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작물배치를 개선하고 육종사업을 강화하며 밭갈이와 씨뿌리기로부터 걷어들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위당수확고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농촌경리부문에 제기된 7개년계획의 과제를 수행할뿐아니라 테제에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강령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투자의 분산을 방지하고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건설하는것입니다.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산업건설에 기본투자와 건설력량을 집중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택건설을 계속 광범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7개년계획은 전면적기술혁명의 계획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경제를 더 전진시킬수도 없습니다.

중앙공업, 지방공업, 농촌경리, 건설, 운수 할것없이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새 기술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현존기계설비들과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조하며 설비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현대적기계화, 자동화로부터 소기계화와 기술공정의 간단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로력을 절약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여주며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기술적 진보의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농민들이 모두가 다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고 힘을 합쳐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자들을 옳게 배치하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지어줌으로써 모든 기술자들이 기술혁명의 수행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력조직을 더욱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증가시키며 현존공장, 기업소들의 로력을 절약하여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로력을 충당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긴장된 전투는 지휘관들의 능숙한 지휘를 요구합니다. 중앙경제관리기관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고 간부들과 군중을 발동시켜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며 현지에 나가 아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간부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더욱 튼튼히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것없이 정치학습과 경제기술학습을 배합하여 일상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지도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분렬되여있으며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습니다. 우리앞에는 남반부인민들을 도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만도, 사소한 안일성도, 해이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혁명적기풍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

습니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체 근로자들을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더 촉진하며 전인민적방위태세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1965년을 7개년계획의 하반기과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의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한층더 빛내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1965년 10월 10일)

김 일 성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을 기념합니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혁명을 위하여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당원들과 전체 우리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원쑤들의 파쑈적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우리 동지들과 그리고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나는 해외에서 오래동안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적권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국제주의적지원을 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위대한 공산주의사업을 위하여 수많은 혁명투사들이 희생되였습니다. 나는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자기의 고귀한 피와 생명을 바친 우리 당원동지들과 당밖의 민주인사들과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이 남긴 공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20년이란 한개 정당의 력사로서는 긴 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면모를 새롭게하는 위대한 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지켰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옳바른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임을 얻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지 스무해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전반적력사로 본다면 결코 나어린 당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첫 공산당이 조직되였던 1925년부터 세더라도 조선공산주의운동은 40년이란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고 튼튼하여졌으며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과 많은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으며 보수와 침체를 반대하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나아갈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러고 확신성있게 령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1

동지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자기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까지에는 곡절이 많은 오랜기간의 투쟁경로를 밟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때에, 특히 조선로동계급이 점차 투쟁무대에 나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오래동안 봉건적압박과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싸우던 우리 인민은 10월혁명의 승리에서 커다란 충격과 고무를 받았으며 비로소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습니다.

벌써 1918년부터 우리 나라의 선진적애국투사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심한데다가 로동계급이 매우 어렸던 관계로 맑스-레닌주의는 널리 보급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민의 해방투쟁은 부르죠아민족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10월혁명의 영향밑에 1919년에 일어난 전민족적 3.1봉기는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 정력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면에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3.1봉기의 실패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3.1운동이 있은뒤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은 점차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자라나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내의 여러 지방에서 맑스-레닌주의소조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의 영향은 대중속에 빨리 퍼져갔습니다. 수많은 로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들이 나오고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비롯한 군중적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습니다.

공산당의 창건은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6. 10만세시위투쟁이 벌어진것을 비롯하여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탄압이 심하고 당자체가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게 되였습니다. 당지도부에는 거의다 맑스-레닌주의를 잘 알지 못하고 계급적립장도 튼튼하지 못한 소부르조아출세주의자들이 들어앉아있었으며 당조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더우기 종파분자들의 심한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수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건된지 3년만에는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실패와 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하였으며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를 말하여주는것이며 그때 이 운동의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투쟁은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습니다. 당이 해산된 뒤에도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우리 나라가 해방될때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지하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주로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일제의 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합법적투쟁의 온갖 가능성이 말살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의 폭력적탄압에 항거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투쟁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원산부두 로동자들의 총파업, 신흥탄광과 평양고무공장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룡천 불이농장과 단천 및 영흥 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광주학생사건은 이 때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어난 대중적폭력투쟁의 대표적인 실례들입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대중의 폭력적투쟁형태를 발전시키고 일반화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넘어가는것은 조선인민의 해방투쟁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였으며 이 요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실현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 항일유격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

향은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반적반일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일제의 폭압밑에서도 국내 여러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하투쟁이 계속되고 혁명적 로조운동과 농조운동, 로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의 폭력적진출은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조선로동계급은 민족해방운동의 앞장에 튼튼히 서게 되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이 강화발전하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널리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되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군은 중국인민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오랜기간의 공동투쟁을 하였으며 또한 일제를 반대하여 쏘련인민과 같이 싸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군대는 15개성상이나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를 때려부시는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간고한 유격투쟁의 시련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령도핵심이 이루어지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이 꾸려졌으며 우리 혁명의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이 서게 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기간에 걸치는 반일민족해방투쟁행정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장성강화되였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할수 있었던것입니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

2

동지들!

8.15해방후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내국외에 있던 반동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으며 어제날의 일제의 앞잡이들이 다시 미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져 조선인민을 반대하여나섰습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반대하며 조선인민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할뿐아니라 북조선에까지 자기 세력을 뻗치려는 미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은 할수없이 얼마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투쟁형식으로 벌어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북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과업은 자기 대오를 빨리 정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그루빠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엄격히 서서 당을 다시 창건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자기의 통일적당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혁명조직들에서 흩어져서 투쟁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드디여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태여났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높아진 혁명적열의와 적극적인지지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다음 인차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하며 민주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습니다.

당은 먼저 각 당,각 파, 각계각층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일제의 낡은 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새 형태의 정권기관을 세워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정권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참가밑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민주개혁들이 실시된 기초우에서 경제문화건설이 빨리 추진되고 인민생활도 안정되였습니다.이와 함께 우리 당은 오랜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육성단련된 혁명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인민무력을 창설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후 한두해밖에 안되는 동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끝났으며 북반부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새생활을 건설하는데서 이룩한 첫승리였습니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혁명력량을 꾸리는것, 다시말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입니다.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끌어들이도록 하는것이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은것은 당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끌어들이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워 혁명과업 수행에 동원하였기때문입니다. 다른 편으로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이 강화되고 대중속에서 당의 신망이 높아졌으며 광범한 대중이 당의 두리에 뭉치였습니다.

우리 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합당의 결과로 우리 당은 로동계급뿐만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운 대중적정당으로 되였습니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은 당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가들의 대렬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수 있게 하였습니다.그것은 또한 두개 근로정당의 존속으로 근로인민의 혁명력량을 갈라놓을 위험성을 없애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더욱 튼튼히 하게 하였습니다.

동지들! 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변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담보로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내였습니다. 우리 당은 강대한 적을 반대하는 힘겨운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을 원쑤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대는 중국인민지원군과 협동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영웅적투쟁을 벌려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쳤으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켰습니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

을 폭로하였으며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것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전쟁에서 입은 커다란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련속적으로 새로운 타격을 받고있으며 오늘 더욱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전쟁을 통하여 더욱 강하여졌으며 자기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였을뿐아니라 가렬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검열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습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단련되고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이 단련되였으며 당과 인민이 더욱 굳게 뭉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강력한 혁명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오랜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로혁명간부들과 함께 전쟁의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새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비상히 확대강화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자신의 위대한 힘을 깊이 자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굳게 뭉쳐 싸워 나아갈 때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승리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3

동지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입니다.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버림으로써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데 기초하여 이미 전쟁전부터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후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북반부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조국통일과 전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것이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정전후 사회주의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높이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내놓아 나라의 경제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당은 또한 복구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적극 밀고나가는 방침을 취하여 생산력을 빨리 복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전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그리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기의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여 전후복구시기의 매우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끝냈습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이 전쟁전수준을 회복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여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개조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당은 전후복구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는것이였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의는 전례없이 앙양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나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습니다. 이러한 혁명적고조속에서 이미 1958년에는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났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련이어 혁신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은 빠른 속도로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천리마운동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아 놓았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중공업기지가 창설되고 경공업도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농촌경리는 튼튼한 사회주의적농촌경리로 되였으며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있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

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렸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정전직후 원쑤들은 북조선이 백년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 10년동안에 재더미우에서 경제를 복구하였을뿐아니라 력사적으로 넘겨받은 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자기 나라를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도시와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의 승리를 말하는것이며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전후의 10년은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건설의 10년인 동시에 또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10년이였습니다.

우리 당 제3차대회와 제4차대회도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대회들은 우리 당의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후시기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였을뿐아니라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복구건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난관과 궁핍을 이겨내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라 계급투쟁은 매우 날카로와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투쟁은 당안에도 반영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안에서 이러저러한 기회주의적조류가 머리를 쳐들게 되고 당은 이를 반대하는 힘찬 투쟁을 벌리게 되였습니다.

전후시기 당내사상전선에서 우리가 한 주되는 투쟁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지도 오래지 않았고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였으며 또한 신민당과 합당하여 빨리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였던 관계로 당대렬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가장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당핵심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묶어세우면서 당의 통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절대다수의 견실한 당원들은 투쟁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뭉쳐진 반면에 소수의 견실치 못한자들은 타락하여 당을 반대하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투항주의자들과 패배주의자들 그리고 당을 와해시키려는 취소주의자들이 나타나 반당종파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당은 투쟁을 통하여 이를 이겨내지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반당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였습니다. 지난날부터 파벌싸움에 버릇된 고질적인 종파분자들과 일부 견실치 못한자들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당에 도전하여 나섰던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반당종파분자들의 음모활동을 폭로분쇄하며 종파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힘찬 사상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통일을 좀먹는 온갖 표현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당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당에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의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견결히 지키면서 이와함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여나아가는 창조적립장을 지켰습니다. 당은 언제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이와함께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아가는 자주적립장을 지켰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이며 방침입니다.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환경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많은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수준이 어리고 혁명투쟁경험이 적었던 탓으로 처음에는 당안에 교조주의의 영향이 적지않았습니다. 당은 꾸준한 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교조주의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은 계속 당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사업에 해독을 끼쳤습니다. 우리 당안에서 나타난 종파분자들도 례외없이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사대주의자들이였습니다.

전후에 와서 이런자들의 교조주의는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려고 하지않을뿐아니라 자기인민의 력사와 문화, 혁명전통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하는 민족허무주의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것이 아니라 남만 쳐다보고 남이 하는대로 덮어놓고 따라가려하였으며 자기 나라 자체의 힘을 믿지않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1955년에 교조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교조주의적사상조류의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언제나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와 전통,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푸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드는데 따라 종파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정주의는 국제적수정주의조류에 편승하여 발생하였으며 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통하여 밖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우리 당과 인민이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였으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공업화로선, 특히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반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압력을 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목적은 결국 우리 당을 자기들처럼 맑스-레닌주의를 저버리고, 혁명을 저버리고, 반미투쟁을 집어던지고 우경투항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항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였으며 당안에서 현대수정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은 1956~1957년무렵에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는 당안에 숨어있던 소수의 반당종파분자들과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이 수정주의의 기초우에서 서로 결탁하여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당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전례없는 반동공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다 크게 오산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고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세련되였으며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는 우리 로동당이 한줌도 못되는 반당분자들의 작간이나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하여 흔들릴수 없었던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기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지에 의거하여 적들의 반동공세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당은 기회주의를 짓부시기 위한 힘찬 당내사상투쟁과 적들의 반혁명책동을 반대하는 전인민적정치투쟁을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이와 같은 전당적, 전인민적사상정치투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은 또한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공격을 철저히 짓부실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공세를 무찔렀을뿐아니라 종파주의, 교조주의,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스무해동안의 력사에서 조국해방전쟁이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준엄한 투쟁이였다고 하면 전후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적을 반대하는 가장 심각한 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혁명진지를 더욱 굳게 다졌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사업에 더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를 결정적으로 때려부시고 자기 대렬의 튼튼한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을 지켰으며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웠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수준은 한계단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와 어긋나는 온갖 기회주의를 가려낼수 있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더 잘 결합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이 높아졌으며 그들의 창발성과 재능이 더욱 발양되게 되였습니다.

대중속에서 당의 위신은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더욱 튼튼히 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었습니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로선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전진하는것은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중로선을 구현하려면 한편으로는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다른편으로는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우며 일군들로 하여금 관료주의를 없애고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커다란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군중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하고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 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되여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군중로선의 관철,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빨리 확대강화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의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우리 사회의 더한층의 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평화적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언제나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커다란 사업을 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지킬수있는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북반부에 힘있는 혁명대오를 꾸려놓았습니다. 당대렬에는 160여만의 당원이 뭉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뭉치였습니다. 우리의 당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의 진군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된 혁명가들이며 당과 혁명에 충직한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은 인민이며 자기들의 사활적투쟁경험을 통하여 당을 끝없이 믿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고야말 결의에 가득찬 혁명적인민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굳게 뭉쳐 싸워나아가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이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날로 더욱 번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것이 지난 스무해동안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업적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4

동지들!

우리 당은 언제나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조선혁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있으며 북반부를 온나라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로 보고있습니다.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혁명기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제국주의가 망한지 2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미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계속 식민지적 및 봉건적압박과 착취를 받고있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에서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올라앉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 지난 스무해동안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에서 실시하여온 모든 정책은 그의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온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지배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날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총독정치를 하였는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욱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남조선을 통치하고있는것뿐입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정부》는 미제국주의의 군사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철저히 종속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인민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두세력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생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그것은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스무해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북반부인민들의 위대한 성과와 그들의 힘있는 지원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망하자마자 남조선에서도 북조선에서와 같이 인민대중의 혁명적잠재력이 화산처럼 터졌으며 애국적민주력량은 빨리 자라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나오고 공산당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이 창설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변혁을 요구하여 거듭 대규모의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1946년 8월 광주 화순탄광로동자들의 투쟁과 하의도농민폭동, 남조선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 10월인민항쟁, 1948년 2.7구국투쟁, 5.10단독선거반대투쟁, 려수군인폭동을 비롯하여 련이어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항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의 해방투쟁력사에 빛나는 페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또한 공산당의 지도부에 기여든 미제의 간첩들과 종파분자들의 파괴활동으로 말미암아 한때 좌절되였으며 어려운 시련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안팎의 원쑤들로부터 협격을 받은 남조선혁명세력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1949년에 이르러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마사졌습니다.

반동의 공세가 심해지고 혁명운동이 일시적퇴조기에 들어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지하에서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리승만정권의 부정선거를 반대하여 마산시민들이 벌린 영웅적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정권을

때려엎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다시 한번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4월봉기가 있은뒤에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갔습니다.

이에 질겁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파쑈적폭압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을 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사태발전은 원쑤들의 군사적탄압도 결코 인민들의 투쟁을 막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박정희매국도당의 가혹한 탄압을 박차고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1964년의 6.3투쟁과 올해 8월에 또다시 일어난 시위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매국도당을 때려부시기 위한 반제, 반파쑈애국투쟁이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으며 그 앞잡이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을 항시적인 계엄상태에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의 위협》에 있다고 떠벌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선전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은 남조선의 위기가 바로 미국의 식민지통치 그자체의 산물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박정희무리들은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공산주의》의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가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성공할수 없으며 그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습니다. 우리와 남조선괴뢰들과의 대립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립인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노와의 대립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탄압으로써도, 어떠한 속임수로써도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막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며 나중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제도를 매장하고야 말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을뿐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가 그대로 남아있는한 미제의 한 괴뢰를 다른 괴뢰로 바꾸는것으로써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근본적으로 없애며 인민들이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쥘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남조
은 또한 자유와 해방은 인민들자신의
쟁취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일떠서 싸운다면 강대한 원쑤라도 얼마
워 이길수 있다는 신념을 점차 가지게
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스무
투쟁을 통하여 피의 대가로 얻은 가
교훈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투
되고있으며 조직화되여가고있습니다.
민들은 괴뢰정권을 반대하며 지주, 매판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면서 점차 투쟁의 예봉을 주되는 원수
주의에 돌리고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자
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이
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생,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들
들과 밀접히 결합되고있으며 남조선인
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멀지 않아 자기들의
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반미구국의
에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묶어세움으로
선인민들의 힘있는 지도력량으로 나설
남조선혁명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
상대로 하고있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다. 그러나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온갖
이겨내고 자기의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결국에 가서 반혁명적폭력을
수있는 강대한 혁명력량을 준비할것이
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
혁명에서 남조선인민들을 승리에로
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 국
력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전통을 가
니다. 임진조국전쟁, 갑오농민전쟁, 3
동, 6.10만세투쟁, 광주학생운동을 비
많은 애국투쟁과 혁명투쟁에서 전체 조
함께 남조선인민들이 발휘한 숭고한 전
우리 조국의 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습
러한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
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에
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간고한 혁
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입니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투쟁에서 외
니다. 그들은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
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인민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
것이며 그들과 함께 우리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견결히 싸울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에서 승리하고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통일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의 힘있는 지원밑에 영웅적으로 싸워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5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혁명운동의 한 고리로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온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 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혁명가들과 혁명적당들을 온갖 기회주의적류파들과 갈라놓는 첫째 표징으로 됩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세계평화를 지킬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적공존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여기에 반제국주의투쟁을 녹여버리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제국주의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 투쟁에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싸울것입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단결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ㄹ
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
지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
우리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와 아세아의
역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아세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더욱 굳
싸울것입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치렬한 반제국주의투쟁전선으로 되였습
세계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
투쟁에 응당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
적극 지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언제나 피
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해방투쟁
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으며 그들과 손을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니다. 우리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메리카 인민들과의 련대성은 날로 강화
며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과의 친
조관계는 계속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의 공통된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싸우는
민들과의 진정한 친선과 단결, 호상협조
하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
주는것입니다.

현시기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초미의
웰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
파탄시키며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지원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 더많은
무기를 끌어들여 침략전쟁을 더욱 강
으며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토를 야수적으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지나뿐만아
세아의 넓은 지역에 전쟁을 확대하려
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
대한 도전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모든 나라 인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웰남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의진영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
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정
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나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인민들
한 의무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웰남인민의 투쟁을
투쟁으로 여기고있으며 웰남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적월남인민의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성원할 것이며 월남형제들과 영원히 함께 싸울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그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할것입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반제국주의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대수정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미제국주의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그 앞에 무릎을 꿇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집어던지고 그와 타협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며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억누르고 약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수정주의는 의연히 주되는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당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우경투항주의를 단호히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나아갈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것은 결국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국제무대에서 혁명운동의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리익과 그리고 국제혁명운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립장에서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또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1957년선언과 1960년성명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계속 원칙적인 투쟁을 벌릴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전체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여 투쟁할것이며 모든 사회주의나라 및 공산당, 로동당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현시기 월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고 월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힘을 합쳐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반제전선을 강화하고 싸우는 월
계 더욱 큰 힘을 줄것이며 나아가서는
렬의 진정한 통일단결의 길을 열어
니다.

우리 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과의 공동투쟁을
키며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단결
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
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
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
의 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아갈것

6

동지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
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않습
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일은 아직
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
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
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공산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
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
리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
속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의 당면한 가장 큰 과업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혁명기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남조선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국제
과의 련대성을 계속 강화하여 남조선을
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
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의 모든 혁
건설사업을 더욱더 힘있게 밀고나아가
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
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
합니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당과 인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을 건전하게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의 규률과 의지에 따라 늘 투쟁하도록 하는 기본조건으로 됩니다. 당세포생활을 강화하고 당생활에서 민주주의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모든 당원들이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누구나 할것없이 당이 맡긴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며 언제나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야 합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당기관들과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간부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잘 료해하며 간부들을 늘 꾸준히 교양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고착시키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부들은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당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을 세우고 계급적각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며 우리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더욱더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혁명투사로 될뿐아니라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견결할뿐아니라 경제건설도 잘 할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제지식을 가지며 새기술을 배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
레닌주의경제리론과 선진적과학기술을
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계속
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갈라진 조건에서 미제
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
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
다에서, 특히 아세아에서 더욱 미쳐날
니다. 다른 편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
속 높아가고있으며 아세아와 다른 여러
민들의 반미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건설
한으로 다그치면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당의 일관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
잘 배합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
려워 경제건설을 잘하지않는것도 잘못
제건설에만 치우치고 전쟁에 대비하지
잘못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 그에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와
화적건설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
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경제건설
와 사회와 인민의 재부를 늘이고 나라의
술적토대를 튼튼히 할뿐아니라 로동
여 인민들을 교양하며 단련시키게 합
제건설을 잘 하여야만 인민들의 복리를
그들을 더욱 묶어세울수 있으며 혁명
미 얻은 승리를 튼튼히 하고 그것을
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장성시켜야만 남조선인민들에게 더 큰
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해미
딸라씩 밀어넣으면서 계속 증강하는 남
미군 및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과 맞설
군사부담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고있
이런 형편에서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여야만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
할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
계획의 웅대한 목표에 다닫으기 위하여
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
널어놓지말고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입니다. 국가자금을 동결시키지 않도록
기본건설은 제때에 끝내며 투자된 자금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제품의 질이 높지 못하고 원가도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기술발전을 다그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물자를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관리와 기술준비를 잘하며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공급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것을 더좋게, 더 값싸게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며 건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것을 건설하였으며 조국의 강토를 더욱 아름답게,풍요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 철길, 차량, 항만, 배, 관개시설들과 학교, 병원, 구락부, 공공건물, 주택 그리고 농경지, 산림, 강하천, 길을 비롯한 모든것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력을 계속 튼튼히 하는것과 함께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온갖 안일성과 해태증을 반대하고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한 사상투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상적으로 준비될뿐아니라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군사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군사교육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의 항일무장투쟁경험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들의 혁명전쟁경험에서 배워야 하며 특히 지금 벌어지고있는 웰남인민의 해방전쟁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혁명적유격전쟁의 경험들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처할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우리의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로농적위대를 강화하며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더욱 철벽같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사회주의를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쑤들이 감히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때려부실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여 앞으로 다가올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것이며 반드시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 단결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제국주의의 앞잡이들과 반동을 반대하여,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스무해동안의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힘을 증명하였습니다.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옳바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승리의 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뭉쳐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싸워나아가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하신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 일 성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가 통치하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또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해방후 남북조선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인민이 주권을 잡은 북조선은 민족적독립과 진보의 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온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남조선은 또다시 식민지적예속과 반동의 길에 떨어졌다. 우리는 나라의 절반땅을 해방하고 여기에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으나 아직도 절반땅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하여 강점당하고있으며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는 두가지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 하나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통일적인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자기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우리 당은 전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지금 북조선과 남조선은 서로 다른 정세에 놓여있으며 남북조선에서 혁명은 그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혁명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기에 있어서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서로 다른 혁명과업이 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당면한 혁명과업이지만 남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당면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남조선이 미제의 강점밑에 있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였다고하여 북조선에서도 남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다른 편으로 우리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만 생각하고 그 성과에 만족하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어버리는 온갖 편향들을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는 언제나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기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지켜왔다.

1.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우리 당은 주권을 잡은 첫날부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이미 해방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것과 함께 여기에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림으로써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가 북반부에서 하여온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일관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것이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 한두해동안에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리하여 북반부는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 기초우에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전후시기에 와서 주객관적조건들이 더욱 성숙되는데 따라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으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세력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가렬한 전쟁을 겪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조선정전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안정시켜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섰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

으리만큼 심한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조선에 한평방키로메터당 평균 18개의 폭탄을 퍼부어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공업, 농촌경리, 철도운수 할것없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다 마사졌다. 인민들은 주택과 가재도구를 거의다 잃어버렸으며 먹을것과 입을것도 매우 모자랐다.

사실 그 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형편이 어려웠으며 우리앞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나섰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똑똑히 정하며 중심고리를 옳게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넣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내세웠다. 당은 공업, 특히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때 우리 나라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고 경제적효과를 빨리 나타낼수 있는 부문들부터 먼저 복구하도록 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실시하면서 전후시기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였던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하여 알곡생산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바로 이러한 로선과 방침에 따라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1954～1956년)이 세워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그 수행에 달라붙었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에 대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분자들, 국내외의 수정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시비가 많았다. 그들은《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거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거니 하면서 우리 당의 로선을 비방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지 모든것을 당면한 소비에 돌려야 한다는것이였으며 결국은 우리나라자체의 경제토대를 닦지 못하게 하려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주장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가 택한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갔다. 여기에서 당의 의도는 령락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면서도 어떻게 하나 짧은 시일에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적밑천을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물론 모든것이 다 마사지고 모든것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경제토대를 닦으면서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함께 푼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여 혁명의 요구를 저버릴수는 없는것이며 일시적인 안일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희생시킬수는 없는것이다.

당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을 믿었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나라의 모든 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이 과업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여 겹겹이 가로놓인 난관을 이겨내고 전후 3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생활이 훨씬 개선되였으며 공업과 농업생산은 전쟁전수준에 올라섰을뿐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게 되였다.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특히 농업협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때 우리의 성과는 초보적인것이였고 우리의 경제형편도 아직 어려웠지마는 그때도 우리는 전후복구사업을 끝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마련하여놓은 밑천으로 살아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3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 우리는 1957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되였다. 이 5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끝내기 위한 계획이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낼 과업을 내세웠다.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데 있었다. 전후 3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인민경제의 복구시기로부터 기술적개건기에 들어섰다. 당은 5개년계획을 기술적개건의 첫단계로 정하고 이 시기에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쌓음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앞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민생활에서 기본으로 되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알곡생산, 방직공업, 주택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였다.

5개년계획의 수행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게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56～1957년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현대수정주의가 광범히 머리를 쳐들고 이를 계기로 하여 세계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이 대대적인《반공》깜빠니야를 벌리던 때이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국제적《반공》깜빠니야에 발을 맞추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동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당안에서는 또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밖의 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공격하여나섰다. 당안의 반당분자들과 다른나라의 그 지지자들인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을 반대하는데서 한짝이 되여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뒤집어 엎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거기에다 또 우리의 경제건설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방대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려니 자재와 자금이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그때는 아직 어려웠다.

무엇에 의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 복잡한 정세를 뚫고 나아갈것인가 하는것은 우리앞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는 오직 자기의 당원들과 인민에게 의거하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 당은 자기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자기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공세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의도는 조성된 정세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분발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모든 공세를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사업에 더욱 넓은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인 전원회의로 알려지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당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가 있은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공장과 농촌들에 나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근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들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지지옹호하여나섰으며 당의 부름에 따라 눈부신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전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많은 예비와 가능성들을 찾아냈으며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로력적위훈을 세우고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공업생산이 한해동안에 40~50%씩 높아지고 농촌경리에서는 련이어 풍작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은 날마다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빨리 높아졌다.

이렇게 되니 적들의 《반공》공세도 반당분자들의 공격도 다 날아났으며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수그러지게 되였다. 반면에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내부는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화를 복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발단된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고조와 천리마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방대한 5개년계획을 기한을 훨씬 앞당겨 끝내였다.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벌써 1958년에 거의 함께 순조롭게 끝났다. 생산분야에서는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밖에 안되는 동안에 완수하였으며 현물지표별로도 4년동안에 완수 또는 넘쳐완수하였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일적지배를 확립하게 되였으며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닦아지고 농촌경리도 튼튼한 생산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생활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1961~1967년)을 내놓았다. 7개년계획기간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결정적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이는데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시기에 기술혁명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우리는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여 생산력의 발전, 특히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또한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쌓아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물

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7개년계획에 와서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이 중심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7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될것이며 우리 나라에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체계가 서게 될것이다. 인민생활에서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더욱 원만히 풀릴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이미 지난 4년동안에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물론 우리의 7개년계획이 매우 방대한것이고 또 우리가 국제국내적으로 복잡한 정세에서 경제건설을 하고있는만큼 이 계획을 완수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2~3년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은 예견하였던것보다 일정하게 늦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7개년계획을 반드시 완수할것이다.

2.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에 대하여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없애거나 개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수립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소유를 빼앗으며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없앤 기초우에서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과 같은 일련의 혁명적변혁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으며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나라들에서 농촌의 사회경제적관계를 변혁하는것은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방직후 우리앞에는 농촌에서 지배적이던 봉건관계를 없애는것이 가장 긴급한 혁명과업으로 나섰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하여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였으며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였다. 이것은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뿐아니라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나라의 전반적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변혁이였다.

그러나 봉건관계를 없애는것은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우리 농촌에서는 소상품생산적개인농민경리가 지배하게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농촌에서 소농경리가 지배하는 한 생산력의 발전이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으며 착취와 빈궁이 완전히 없어질수 없다. 농업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전후시기에 가장 성숙된 요구로 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가 몹시 마사지고 토력과 축력이 매우 적어진 조건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할수 없었고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할수 없었으며 특히 전쟁때에 더욱 늘어난 빈농민문제를 풀수 없었다. 그때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는 도대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다른 편으로 우리 인민경제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적국영경제는 개인농민경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었으며 특히 우리는 사회주의공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의거하여 농민들의 협동화운동에 물질적방조를 줄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로 보더라도 전쟁에서 부농들의 경제토대가 마사져 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반면에 우리의 근로농민들은 오랜기간의 혁명투쟁과 가렬한 전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있었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우리 당은 정전직후 농업협동화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농민들의 열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엄격히 서서 그리고 당과 국가의 힘있는 지도방조에 의하여 전후 겨우 4~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처음에 우리는 협동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빈농들과 농촌의 당핵심들로써 경험적으로 매개 군에 몇개씩의 협동경리를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였다. 어떠한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는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경험이다. 더우기 농업협동화와 같은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자체의 일정한

경험도 쌓음이 없이 남의 경험에만 매여달리거나 또는 단순한 주관적욕망에서 출발하여 처음부터 널리 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경험적단계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협동화의 형태와 방법, 속도를 옳게 정할수 있었으며 간부들로 하여금 이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경험을 쌓게 하고 신심을 가지게 할수 있었다. 또한 우리자체의 경험에 의거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대중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게 할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는 농민들을 사회주의적집단화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꾸준한 정치사업을 하였으며 조직된 협동경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협동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국가의 힘있는 물질적방조는 전후의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제도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다른 나라의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한 우리 나라의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시비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는 농업을 협동화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한자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자들이였다.

만일 우리가 농업협동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가장 성숙되였던 때를 놓쳐버리고 현대적농기계를 많이 생산할수 있으리만큼 공업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농업협동화를 제때에 하지 않았더라면 농촌경리를 빨리 복구할수 없었을것이며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훨씬 더 늦어지게 하였으리라는것은 뻔하다.

우리의 경험은 현대적농기계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농업협동화를 얼마든지 할수 있으며 그렇게 조직된 협동경리도 개인경리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도시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수립은 농촌에서와는 다르게 진행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경제에서는 일제자본이 공업을 비롯한 중요부문들을 독차지하고있었으며 민족자본의 발전은 매우 억제되여있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우리앞에는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는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들을 국유화하여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전체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것은 외래제국주의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국영경제를 창설케 한 력사적변혁이였다.

산업국유화를 한 결과 우리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국영경제는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원래 미약하던 자본주의적상공업은 더욱더 부차적인 역할밖에 할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국영경제를 빨리 확대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끌어들이며 그들의 경리를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전후시기에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더욱 성숙된 요구로 되였다. 전쟁피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상공업은 얼마 남지 않게 되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수공업이나 소상업과 거의 다름없는 령세한 경리로 굴러떨어졌다. 정전직후 우리 나라의 기업가, 상인들은 사회주의경제에 의거하지 않고는 또한 자기들의 힘과 자금을 모으지 않고는 경리를 복구할수도 없고 생활도 개선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공업자 및 소상인들과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로 개조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을뿐아니라 기업가, 상인들자신의 리익에도 맞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기업가, 상인들이 우리 당의 협동화방침을 받아들였으며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전후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되였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놓았다.

3.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하여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체계적으로 높일 의무가 있는것이다. 경제건설을 잘 하여야만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풀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혁명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튼튼히 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 특히 우리 나라 북반부의 경제건설은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조국통일의 담보인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일제때의 우리 나라 공업은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일제자본의 독점적지배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수공업마저 다 파산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다만 조선의 자원을 략탈하며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원료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약간의 공업을 건설하였을뿐이다. 가공공업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특히 기계제작공업은 거의 없었다. 공업의 기술장비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것은 이와 같은 식민지공업이였으며 그것조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마사졌다.

이런 형편에서 이미 있던 공업을 단순히 복구발전시키는것으로써는 현대적공업을 창설할수 없었다. 우리는 공업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며 그 기술장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직후 중요산업을 국유화한데 기초하여 우리 당은 공업건설을 힘있게 내밀었으며 특히 전후시기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전후 1954년부터 1963년까지의 10년동안에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34.8%에 이르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약 11배, 해방전인 1944년에 비해서는 13배이상으로 높아졌다.

공업생산이 빨리 높아진 결과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46년에 28%이던것이 1964년에는 75%로 되였다.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의 물질적기초로서 그것 없이는 자립적민족경제란 말할수 없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없다.

중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의 로선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주로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며 그리고 우리 인민경제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곧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중공업을 창설하는 로선이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로선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는것이였다.

우리에게 있었다는 중공업이란 기술장비가 뒤떨어지고 기형적이고 혹심하게 마사진것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이것을 버릴수는 없었다.

우리 당은 이미 있던 중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복구하며 새 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확장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없던 공업부문과 기업소들을 신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은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기에 힘썼다.

이리하여 우리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우리의 중공업은 기간적부문들을 다 갖추게 되였으며 새 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12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440만톤의 석탄, 134만톤의 선철과 립철, 113만톤의 강철, 75만톤 이상의 화학비료, 260만톤의 세멘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중공업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한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분업》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우리 당의 중공업건설방침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광석과 그밖의 다른 원료나 생산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의견에 따라갈수없었다.

우리 당은 이미 전쟁시기부터 지하에 기계공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후에 기계공업을 빨리 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경제에 요구되는 중소기계설비와 부속품들뿐만아니라 대형기계설비들도 될수록 자체로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제작공업을 널리 발전시켰다.

우리에게 경험이 없고 기술이 모자란 조건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제작공업이 발전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없었다는것은 뻔하다. 우리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처음으로 생산할 때 설계로부터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차례로 하지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많은실패도 거듭하였지마는 이를 악물고 투쟁하여 끝끝내 이러한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그것을 많이 생산하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공작기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군중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기계제작공업의 로대를 빨리 늘이는것과 함께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기계나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제작공업은 이와같이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창설되였다. 그대신 이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고 자기의 힘과 재능을 더욱 굳게 믿게 되였으며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기계설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에는 우리 나라에 기계제작공업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발전설비, 화학설비, 야금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엑스까와또르와 같은 대형기계설비들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경제에 필요한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있다. 1964년에 공업생산에서 기계제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8%였으며 기계설비의 국내자급률은 94.3%에 이르렀다.

오늘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을 확고히 보장하는 믿음직한 물질적토대로 되였다.

경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문의 하나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닦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렸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우리 당의 정책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는 경공업에서 골간으로되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공장들을 적지 않게 건설하는 그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적극 늘였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대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한꺼번에 많이 지을수도 없었고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는 경공업의 락후성을 빨리 없앨수 없었으며 빨리 높아지는 인민들의 수요를 도저히 보장할수 없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소비품생산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킬것을 결정하고 매개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다. 온 나라 모든 지방의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섬으로써 몇달밖에 안되는 동안에 국가자금도 별로 들이지 않고 지방의 유휴자재와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여러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2,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그 기술장비도 훨씬 강화되였다. 우리의 지방공업은 전국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맡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의 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전반적인 공업을 빨리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특히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으로 이루어진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닦음으로써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비품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방직공업만 보더라도 천생산이 해방전에 비하여 195배로 늘어 인구 한사람당 25메터의 여러가지 천이 차례지게 되였다. 식료품공업과 일용품생산도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의 소비품은 아직도 질이 높지 못하고 그 품종도 요구되는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모든 소비품이 자기 손으로 만든것이라는데 대하여 긍지를 느끼고있으며 그것을 매우 즐겨쓰고있다. 우리는 소비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품종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문제를 가까운 시일안에 풀것이다.

농촌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에 관한 문제이며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에 관

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의 완성은 이 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이 제도를 계속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야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농촌경리는 공업에 비하여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도시주민들의 문화수준보다 낮으며 농민들은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에서 뒤떨어져있다. 또한 도시에 비한 농촌의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오직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농촌문제가 종국적으로 풀린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한 다음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농촌사업을 하여왔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가 거의 없이 협동화가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농촌기술혁명은 협동화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가 끝나가고 공업이발전하는데 따라 지체없이 농촌기술혁명을 하는데 달라붙었다.

당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정하고 먼저 수리화부터 시작하였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지리적조건, 특히 기후조건에 많이 달려있는만큼 수리화는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는 전후시기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농촌경리에서 가물과 큰물 피해를 기본적으로 이겨내게 되였으며 흉년을 모르고 튼튼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적지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지고있는 뜨락또르 대수는 2만대(15마력환산)로서 경지 100정보마다 한대씩 차례지며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정보마다 300키로그람정도이다. 해방전에는 우리 농촌에 전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체 농촌리의 95.5%, 전체 농가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갔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우리는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특히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계속 빨리 발전하였다. 알곡생산은 해방전보다 2배로 늘었다.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도 크게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식량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렸으며 우리는 벌써 몇해전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고있다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촌에서 문화혁명과 사상혁명이 힘있게 진행된 결과 우리 농촌의 면모가 달라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자각성과 의식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도 합리적인 체계가 섰다.

물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방대한 과업에 비해볼 때 농촌사업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아직도 초보적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우리는 또한 자기자신의 성과와 경험으로부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푸는 옳은 방향을 찾았으며 앞으로 농촌사업에서 하여야 할 일을 똑똑히 알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미 얻은 성과에 기초하여 그리고 설정된 방향과 과업에 따라 농촌문제를 계속 훌륭히 풀어 나아갈것이다.

뒤떨어진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민족간부를 키우는것이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민족간부, 그가운데서도 기술간부가 매우 적었으며 이것은 국가관리와 경제문화건설에서 가장 큰 난관의 하나였다. 그렇기때문에 민족간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앞에 언제나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꾸리는데서 오랜 인테리들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의 건설에 끌어들이는가 못들이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혁명의 첫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거의다 유산계급의 출신이며 그전에는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식민지나

라의 인테리로서 외래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아왔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본래부터 혁명성이 있었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과 우리 인테리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방직후부터 그들을 포섭하고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절대다수의 오랜 인테리들은 당의 이와 같은 방침에 힘을 얻어 해방후 인민의 편에 돌아섰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으며 계속 큰 기여를 하고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특히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오늘에 와서는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개조되였으며 중요한 민족간부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 당은 민족간부의 대렬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는 경험도 없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해방직후 종합대학을 비롯하여적지 않은 대학들을 세웠으며 각급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가렬한 전쟁시기에도 계속 민족간부를 키웠으며 전후에는 이 사업에 더욱 큰힘을 돌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1956년에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될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9,000여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맞먹는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그가운데 대학생만도 15만 6,000명에 이른다

교육사업과 간부양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방침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중등교육체계를 고쳐 기술교육체계를 세우고 교육의 내용도 더욱 개선하여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과학의 기초에 대한 일반지식과 함께 일정한 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야간 및 통신교육망, 공장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널리 실시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등 및 고등 기술교육을 받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더 빨리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에 이와 같이 커다란 힘을 돌렸다. 그 결과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꾸릴수 있었으며 앞으로 새 간부들을 더욱 많이 길러낼수 있게 되였다. 1964년 10월현재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전문가 수는 29만여명이나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현대적공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전적으로 우리자체의 민족기술간부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을뿐아니라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으로 꾸려나아갈수 있는 경제문화적토대를 쌓아놓았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이것은또한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려놓은것으로서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4.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령도에 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우리 당이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아가는 자주적인 립장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있다.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이다. 조선의 현실을 모르고 그것을 떠나서 조선혁명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도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여야만 우리 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며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조선혁명을 하여줄수 없다는것은 뻔하다. 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이다.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투쟁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당도 있다. 그러나 모든 당은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그러한 기초우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매개 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운동의 원칙에 맞는것이며 거기에서 직접 흘러나오는것이다.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나섰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과 함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한다.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속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리로운 경험은 받아들이고 필요없고 해로운 경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인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태도, 특히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시종일관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현대수정주의를 단호히 반대하여 투쟁하되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 투쟁을 하고있다. 이와 같은 립장을 견지하여야만 반수정주의투쟁을 옳게 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무디여져 어떠한 창발성도 낼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덮어놓고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할수 있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사업을 망쳐버릴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에는 간부들가운데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은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우리 사업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하였다. 이런자들은 남만 쳐다보고 남의 본을 따는데만 버릇이 되다보니 나중에는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굴러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사상전선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해석선전하는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외우기만 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까지 부인하는데로 나아갔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우리 학자들의 창조성을 마비시키며 교육에서도 남의것을 통채로 따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문학예술에서도 민족적인것은 다 집어던지고 다른 나라것만 보급하려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에 가장 뚜렷이 드러났으며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뿐아니라 우리는 이 시기에 교조주의를 통하여 수정주의적조류가 들어온다는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55년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강한 사상투쟁을 하여왔다.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투쟁에서 1955년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우리는 또한 사실상 이때부터 사회주의진영안에서 나타난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게 되였다.

주체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학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자기 당의 사상으로,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

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그들속에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대렬이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뭉쳐있을 때에는 교조주의도 이겨낼수 있고 수정주의가 들어오는것도 막을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당이 의도하는대로 훌륭히 할수 있다는것을 우리의 경험은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지난날과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전통과 문화전통에 대한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을 비롯한 사상전선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며 민족적전통을 살리고 우수한 민족유산을 계승발전시키며 다른 나라들의 선진문화도 통채로가 아니라 우리의것으로 소화하여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우리 사람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크게 높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운 결과 과학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고 교육 및 간부양성 사업에서 질적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우리 당은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로선을 튼튼히 견지하여왔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위업을 수행할수 없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하며 자기의 로동과 국내자원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있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지지성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필요한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올것만 바라면서 자체의 혁명투쟁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를 배격한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밖으로부터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전후복구시기에 우리 나라는 형제나라들로부터 약 5억루블 (5억 5천만딸라)에 맞먹는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았으며 이것은 물론 우리의 복구건설에 큰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형제나라들의 원조도 효과적으로 쓰기에 힘썼다. 실지로 전후복구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우리자체의 힘이였다. 그 이후시기의 우리 나라의 경제 건설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닦아놓았다.

경제적자립은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없다.

사회주의는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불평등을 완전히 없앤다는것을 의미하며 경제와 과학기술의 전면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우리는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경제협조》와 《국제분업》을 구실로 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게 얽어매려는 대국주의적경향이다. 우리는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수 있다고 인정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써 충족시키고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무상통하며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서 대외무역과 그밖에 여러가지 형태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음으로써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수 있는 자체의 경제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경제적자립은 또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의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아갔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도 지방산업공장들의 건설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도 재더미로 되였던 도시와 농촌의 복구건설도 모두다 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밑에 군중적운동으로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문학예술도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문예활동이 배합된 기초우에서 날로 활짝 꽃피고있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주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에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은 커지는것이다. 우리 당은 해방후 창건된 첫날부터 정권을 령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지난날에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렸다. 당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나선 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히 힘썼다.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방법으로 불리우고있는 사업방법은 바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청산리방법을 보급하는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그러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정치사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제기술적인 실무에만 매여달리며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지 않고 물질적관심만 내세우는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이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정책을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집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의하며 높은 정치적각성과 열의를 가지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였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군중을 동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만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당사업의 기본인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쥠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으며 그들속에서 대중적인 영웅주의와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계각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정치적통일과 단결은 북반부에서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일뿐아니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북반부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한 정치적력량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렬, 특히 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매우 복잡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성분이나 사회정치생활이 복잡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순결한 사람들만 가지고 혁명을 할수는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극소수의 악질분자들을 내놓고 모든 사람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승리하였으며 당의 힘이 결정적으로 커졌고 군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신망이 움직일수 없는 튼튼한것으로 된 조건에서 우리는 적대계급출신의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분이나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도 그가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낸다면 그를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며 그에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도록 하였다.

생활은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증하여주었다. 우리는 이 방침을 관철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할수 있었으며 또 계속 성과적으로 교양개조하고있다. 우리 주민들의 구성이 복잡하고 우리가 적들과 날카롭게 맞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고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명랑하고 앙양된 분위기가 지배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전인민적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가장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여있다. 이 로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발전시킬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더 다그칠것이다.

5.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군사적침략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남조선《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괴뢰정권을 통하여 그리고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을 자기 손에 틀어쥐였다.

그들은 《공동방위》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 거이 6만명에 이르는 미국침략군대를 직접 밀어넣고있다. 그뿐아니라 미군사령관은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남조선군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죄없는 남조선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며 모욕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핵 및 로케트 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늘 위협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침략과 략탈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부터 1964년까지 남조선에 약 120억딸라의 《원조》를 주었는데 그가운데서 경제《원조》는 36억딸라이고 나머지는 다 군사《원조》이다.

미제의 군사《원조》는 60여만에 이르는 남조선괴뢰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사비의 일부로서 쓰이는것이다. 남조선군대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고용군대이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조선괴뢰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데는 미군 한개사단을 유지하는것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비용이 드는것이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미제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지출을 굉장히 《절약》하며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 또한 그들은 자기 군대대신 방대한 괴뢰군을 고용함으로써 마치도 남조선군대가 그 어떠한 민족적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처럼 가리우며 자기자신들을 그 어떤 《원조자》로 가장하고있다.

미제의 경제《원조》도 남조선경제를 미제의 군사적침략과 식민지적략탈의 목적에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자금》을 괴뢰정부의 예산체계에 넣음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완전히 틀어쥐고 이 자금을 융자하는 형식으로 남조선의 금융기관들과 기업체들을 통제하고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남조선 재정예산의 45～50%, 금융자금의 30%를 틀어쥐고있으며 원자재공급의 70～80%, 수입무역의 80%를 독점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얽매여있으며 남조선의 재정, 경제 기관이나 기업체들은 미제의 《원조》만 떨어지면 움직일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미제국주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다음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에 더 유리한 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적관계를 더러 다시 편성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침략하는데서 자기 나라 잉여상품처리의 중개자, 미국사자본침투의 안내자, 자원략탈과 일부 군수품의 현지조달자의 역할을 맡게 할 예속자본을 키우는데 제일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일제가 가지고있던 재산을 거의 거저 개인자본가, 투기업자들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미제가 남조선에 밀어넣는 《원조》물자의 구입과 판매권을 독점하여 폭리를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속자본의 지반을 닦아주었다. 그리하여 일제통치시기에 남조선 예속자본의 비중은 남조선중요산업의 구성에서 겨우 6%를 차지하던것이 오늘은 약 500명 안팎의 예속자본가들이 남조선제조공업의 약 40%, 채취공업의 약 80%, 대외무역의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에 유리한 남조선농촌의 봉건적착취체계는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이른바 《농지개혁》을 하였으나 이것은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에 고무된 남조선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뒤에도 남조선 농촌에서는 의연히 봉건적착취관계가 지배하고있으며 농민들의 경리는 그전보다도 더욱 령세화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140만호의 농가를 착취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수확고의 50～60%를 소작료로 바쳐야 하며 거이다 지주와 부농의 고리부채에 얽매여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지배체계를 세웠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전례없는 군사독재정치를 하고있다.

남조선에 경찰관료집단만 하여도 15만 5,000여명에 이른다. 남조선인민들을 반대하여 지금 37만에 이르는 정치특무들이 날뛰고있다.

이러한 식민지적인 사회정치경제체계는 남조선 경제의 발전과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전면적으로 파산되였고 공업생산수준은 해방될 때의 85%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농업생산량은 해방될 때에 비하여 3분의 2로 떨어졌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남조선이 오늘에 와서는 해마다 80만～100만톤의 알곡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만성적기근지대로 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 수는 약 700만명에 이르며 매해 춘궁기마다 100만호이상의 농가가 절량에 허덕이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양식이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모든것을 좀먹고있다.

인민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테로와 폭압밑에서 살고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경제적파국과 인민들의 비참

한 사회적처지는 심각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을 낳고있다.

현단계에 있어서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 사이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셔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없애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도 남조선사회의 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도 이룩될수 없다.

이리하여 남조선혁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에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이다. 또한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

우리 당은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의 지원밑에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동원하여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억센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남조선혁명뿐만아니라 전반적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의 근원은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에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남조선이 단순히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서나 혹은 전략자원의 공급기지로서만 요구되는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남조선이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쏘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며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요충으로 필요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오늘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서 막다른골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처지에서도 태평양륙군의 절반이상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혁명은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미제와 같은 강대한 적을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다.

남조선은 국내반동의 집결처이며 소굴이다.

북조선에서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해방후 일제잔재세력이 숙청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닦기 위하여 일제잔재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그러모았다. 지난날의 친일세력이 지금은 친미세력으로 되였고 그것이 더욱 늘어났다.

또한 북조선에서 혁명투쟁이 심화되면서 반혁명분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게 되자 북조선에 있던 일부 지주, 예속자본가들, 친일주구, 민족반역자들, 악질관료배와 파쑈분자들이 남조선에 도망쳐 남조선반동세력과 합치였다.

그뿐아니라 해외에 널려있던 반동력량도 적지 않게 남조선으로 기여들었다.

이와 같이 집결된 국내반동세력은 외세와 결탁하여 반혁명력량을 이루었으며 혁명력량과 맞서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에는 《반공》사상이 뿌리깊이 박혀있다.

주민구성에서 소부르죠아계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대중의 문화수준이 매우 낮은데다가 지난날 36년동안 일제가 악랄하게 《반공》사상을 불어넣었으며 해방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반공》선전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가 진격하여 해방지역의 인민들에게 일정하게 사상적계몽을 주었으나 짧은 기간이였던만큼 그 영향은 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직도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들의 《반공》선전에 속고있으며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발전에 하나의 큰 장애로 되고있다.

이 모든 사정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은 매우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며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여왔다.

8.15 해방직후 남조선에서는 로동운동이 빨리 앙양되였으며 그 영향밑에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높아졌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의 혁명적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북반부에서 실시한것과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1946년 9월에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미군정의 온갖 폭압의 즉시 중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여 벌린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은 10월에 전인민적인 반미항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약 230만의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뒤에도 미제가 꾸며낸 《유엔조선위원단》이 들어오는것을 반대하여 진행된 1948년 2.7구국투쟁과 5.10망국단선반대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계속 억세게 벌어졌다.

투쟁은 괴뢰군병사들속에서도 벌어졌다. 실례로 1948년 10월에는 려수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만행을 반대하는 군인폭동이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이 지대 인민들까지 힘을 합쳐 괴뢰정권기관을 쳐부시고 한때 려수시가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들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국내반동들의 매국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견결히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그 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48년 5월 남조선괴뢰단독정권의 조작과 그뒤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파쑈화정책에 의하여 일시적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은 대중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최신형무장으로 장비한 미군부대를 동원하였으며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때 남조선로동당의 지도부에 기여들었던 종파분자들과 간첩분자들을 리용하여 혁명세력을 안으로부터 분렬와해시키기 위한 간교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남조선에서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혁명력량이 흩어지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다.

1960년 4월에 일어난 남조선학생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인민봉기는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의 괴뢰정부를 뒤집어엎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첫승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

리승만괴뢰정부의 파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모든 반인민적인 정책들과 악명높은《북진》소동의 파산을 의미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이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보여주었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였다.

4월인민봉기가 있은 뒤에 남조선정세는 빨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기세가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밑에 남북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4월인민봉기가 있은 뒤에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에 큰 위협을 느낀 미제는 군부의 파쑈분자들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꾸민 다음 제2의 괴뢰정권이였던 장면정권을 박정희군사파쑈정권으로 바꾸는 흉계를 꾸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학생청년들의 대규모적인 반제반파쑈투쟁이 일어났다.

이 투쟁은 처음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을 반대하며 《한일회담》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반《정부》적성격을 띠고 박정희정권을 때려부시는 투쟁으로 나아갔다.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70여일동안에 걸친 학생청년들의 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투쟁은 박정희도당과 미제에게 또하나의 큰 타격을 주었다.

미제와 박정희정권은 오늘 학생청년들과 인민대중의 진출을 말살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서두르고있으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세아 《반공》공동방위체계를 세우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정권의 이러한 책동은 날이 갈수록 심각화되여가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결코 걷잡을수 없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기세를 꺾지는 못할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와 반동, 애국적인 혁명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은 날로 고립약화되고있다.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가고있고 반미감정이 빨리 높아가고있으며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기운이 날로 커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풍부한 정치적경험을 쌓으며 더욱 조직적으로 뭉쳐지고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한편,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장성시켜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린다는것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핵심대렬이 자라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이 높아가고 그들속에서 혁명력량은 계속 늘어가고있다.

혁명적당을 꾸리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는 기초우에서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이루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을 결합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이와 함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혁명력량의 장성강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화는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고무하고있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마침내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시기가 오면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혁명력량이 강화되여야만 그것이 승리할수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혁명이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평화적으로 실현될것이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장성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돕는것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이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약화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신생독립국가들과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여기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모든 아세아인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아세아인민들의 이 공동투쟁에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인도네시아공산주의자들, 인도네시아인민과의 뉴대와 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우리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언제나 굳게 뭉쳐 싸워나갈것이다.

8.15해방 20주년경축연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의 귀중한 외국손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 동해안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원산시에서 강원도근로자들과 함께 8.15해방 2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해방의 명절에 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과 이곳 강원도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선적인 대표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벗들을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수많은 외국동지들과 벗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우리의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하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간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입니다.

해방후 20년동안 우리 당과 인민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준엄한 시련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였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류례없는 전쟁피해를 퇴치하고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개선되고 그들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2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서 허물수 없는 권위와 신임을 획득하였으며 대중을 자기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기초를 닦았으며 나라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담보로 되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굳건히 꾸려놓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인민들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이루어놓은 이와 같은 업적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를 가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곳 강원도에도 사회주의 새생활이 꽃피여가고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강원도근로자들은 전체 우리 인민과 함께 조국의 자유독립과 새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강원도내 인민들은 인민군대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향토,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명승지들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끝끝내 지켜내였습니다.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도내의 수많은 전적지들에는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지켜 피흘려 싸운 강원도인민들의 불멸의 위훈이 깃들어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강원도근로자들은 피로써 지킨 자기의 향토를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락후한 산간지대의 하나였으며 더우기 전쟁으로 인하여 그 어느 지방보다도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가 오늘에 와서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면모로 아름답게 꾸려지여 인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강원도근로자들은 해방 20주년을 경축하는 로력투쟁과 각종 행사들에서 비상한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당과 조국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위훈을 떨친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북반부인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 조선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준 사회주의국가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달성된 성과에 자만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공업과 농업생산력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과학, 기술,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으나 아직도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의연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적억압과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새로운 침략음모를 꾸미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혁명력량과 제국주의반동세력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전우인 웰남인민은 지금 미제국주의무력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

하고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부단한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국가계획을 완수하며 초과완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고 이 진영의 통일과 세계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모든 나라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싸우는 웰남인민을 계속 견결히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 그리고 평화와 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국가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의 20년간의 투쟁력사와 전세계해방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반동세력은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며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전체 우리 인민이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계속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뜻깊은 해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더욱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대표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벗들, 그리고 각국의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김일성수상의 회답서한

미국 워싱톤 8엘리코트거리 2907번지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김룡중 앞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도 알다싶이 우리 민족은 벌써 20년째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조선간의 접촉과 래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민족분렬의 인공적장벽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오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마저 점차 서로 달라져가고있습니다.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력량을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분렬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전민족의 번영을 기대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도탄에서 구원할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나라를 통일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고 부르짖고있으며 민족적량심을 가진 많은 인사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더는 지연시킬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당파나 특권층의 리익을 위하여 민족적리익을 희생시키면서 통일문제의 해결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통일은 어디

까지나 어느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함이 없이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의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의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당국자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진지하고 허심하게 협상할것을 항상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그러한것처럼 앞으로도 인민의 념원과 민족적리익에 부합되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할것이며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그 누구의 의견이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합니다.

당신의 편지에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미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 있는 일련의 방안들과 많은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여온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반드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며 전조선을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허용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할수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능히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의 근본적장애물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며 전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하에 철저히 예속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파멸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

북조선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1958년에 북조선에서 주동적으로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유엔의 간판을 쓴 미국군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구실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 강토에 외국침략군대가 있는한 어떠한 독립도 자주성도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만일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전민족적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일체 애국력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는 당신의 제의는 정당한것입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조건하에서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으로 실시되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총선거는 인민들의 의사표시를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모든 조건들을 배제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분위기속에서 실시되여야 합니다. 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침해와 애국적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선거란 생각할수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위하여서는 우선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한다고 하여 검거투옥한 일체 정치범들은 무조건 석방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민들은 정당의 소속과 정견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전조선 어느 지역에서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서만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상인, 기업가 등 각계각층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소위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대하여 떠들어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1948년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에 강요된

소위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조선인민의 반역자 리승만의 당선이 날조되고 장면의 집권이 조작되였으며 박정희의 권력탈취가 합법화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인민에게 강요된 식민지제도를 북조선에까지 확장하려는 그들의 침략적흉책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유엔은 미국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여왔습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의 집권자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선거에 의한 조선의 통일정부수립을 계속 반대하고있는 형편에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앉아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만 있을수는 없었으며 나라의 통일에 리로운 온갖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하기 위한 방도를 탐색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전이라도 긴급하게 제기되는 민족의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오래전부터 제의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제의하고있는 련방제는 남북조선에 수립된 현존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쌍방의 호상 협조와 교류를 도모할 목적으로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들로써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통일위원회는 우리가 말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류사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련방제형식을 취하지 않고라도 남북조선대표들로 구성되는 그 어떤 다른 형태의 통일적인 기관을 창설하여 남북간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에 걸쳐 남조선당국이 련방제를 접수할수 없다면 당분간 정치문제는 제쳐놓고라도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를 실현함으로써 분렬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습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북조선의 공업과 남조선의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자립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이며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소생시키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을 열어줄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조선에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건설하여 놓았으며 독립국가의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축성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라가 통일된후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수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하면서 항상 전민족의 리익과 장래발전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때나 남조선동포들을 잊지않고있으며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도와주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민족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경제교류를 실현하는 동시에 또한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각분야에 걸친 문화적련계를 회복하며 남북간의 인사래왕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반대하며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반대하며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까지도 반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남북간의 련계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서신거래라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이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있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킬데 대한 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는것은 선차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남북조선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것을 남조선당국에 루차 제의하였다는것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의 방대한 군사력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의 무력을 축소하는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거대한 일보전진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선군대를 국내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대의 수준에까지 축소할데 대한 당신의 제의를 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밖에도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것이라면 어떠한 대책이라도 취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조선당국이 외국과 체결한 일체 군사조약과 협정들을 철폐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을 폐기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체결당시에 이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던것입니다.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립된 자주적인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외세에 의존한 일이 없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대내외정책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해당한 조치를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바쳐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이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도 그들이 민족적립장으로 돌아설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민족의 재난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구국방안들을 루차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분렬정책에 추종하면서 민족의 절실한 념원을 무시하고 우리의 간곡한 권고를 들으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은 그 책임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과 반동관료배들, 정상배들과 협잡군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힘을 단합할것을 덮어놓고 거부하면서 외래침략세력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들이며 다만 자기 개인의 리익과 외세와 결탁한 일부 특권층의 리익만을 옹호할뿐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략탈하고, 압박하고, 모욕하고, 학살하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고있는 미국침략군대를 옹호하고있으며 그의 영구주둔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이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조종하에 남조선의 매국노들은 동족간의 접촉과 합작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기 위한 범죄적인 《한일회담》의 결속을 서두르고있습니다.

일제와 결탁하는데 앞장서는자들은 과거에도 일제에 충실히 복무한 주구들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죄과를 깨달으려 하지않고 오늘 또다시 미제국주의와 옛상전인 일본군국주의의 앞잡이로 되고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힘을 단합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매국노들과 반동관료배들, 정상배들과 협잡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통일의 념원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무조건 거부하는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적단결을 도모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군의 철거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길에 들어선다면 문제는 달라질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사상의 차이, 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력량이 단합한다면 우리는 능히 남북간의 접촉과 협상의 길을 열고 호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할수 있으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성취할수 있을것입니다.

단결과 투쟁이 없이는 미국침략군대를 쫓아낼수도 없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할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상인, 기업가 등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을 더욱 견결하게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누구의 《보호》나 《감시》도 철저하게 반대하고 우리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전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외세의 《보장》도 필요없이 나라의 위력을 굳건히 할수 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반드시 통일되고야 말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1965년 1월 8일 조선—평양

일본교도통신사 전무리사 이와모도기요시가 제기한 질문에
김일성수상 대답

문: 웰남전쟁은 제2의 조선전쟁, 나아가서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웰남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당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웰남사태와 관련하여 당신이 표명한 우려에 나도 동감입니다.

오늘 웰남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행위에 의하여 야기된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수년째 남부웰남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왔습니다.

남부웰남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부딪쳐 패배를 거듭하고 궁지에 빠지게되자 미국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웰남민주공화국을 공격하며 전쟁을 한걸음한걸음 확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웰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강도적침략행동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이미 수차에 걸쳐 웰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은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과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폭격과 포격을 즉시 중지하고 남부웰남에서 모든 군사인원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남부웰남문제는 남부웰남인민들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웰남의 통일문제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웰남 두 지대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적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싸우는 웰남인민들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자기의 정당하고 영웅적인 투쟁으로 하여 전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웰남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자기의 범죄적인 침략행위로 하여 전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패배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문: 사회주의제국의 단결을 위하여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회주의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투쟁대렬에 결속되여있습니다.

오늘 일부 사회주의나라들간에 의견상이가 있으나 그것은 한가정내의 일시적불화와 같은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것이며 이 투쟁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단결할것입니다.

문: 남조선(대한민국)의 웰남파병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이 집중되고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주지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대의 남부웰남파견은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국대통령 존슨의 직접적명령에 의한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소위《국제화》하며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여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하여왔습니다.

미국이 남조선군대를 제일먼저 남부웰남침략전쟁에 끌어들인것은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이야말로 미제의 첫째가는 괴뢰라는 사실을 더욱 뚜렷이 폭로하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세계여론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대를 남부웰남에 끌어들였다는것은 그가 남부웰남괴뢰군만으로써는 침략전쟁을 수행할수 없게된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그러나 딸라로 사들인 고용병들로써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억누를수는 없습니다.

남조선청년들은 남부웰남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대포밥으로 리용되는것을 절대로 참고만 있지않을것입니다.

미국은 남부웰남에 남조선군대를 끌어들인데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될것입니다.

문: 일한회담에서 현안의 제문제가 원칙적으로 합의되였는데 귀국과 일본의 장래 및 남북조선 통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한일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립장은 이미 두차의 성명을 통하여 명백히 표명되였습니다.

원래 《한일회담》은 미국이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목적에서 꾸며낸것이며 여기에서 일본정부는 미국의 침략계획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침투

하려고 획책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지배의 옛꿈을 실현하여 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박정희정권은 남조선을 미국과 일본의 2중의 식민지로 팔아넘기면서라도 무너져가는 자기의 괴뢰통치지반을 유지하며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시키고있습니다.

《한일회담》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대외팽창을 실현하려는것으로서 조일량국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다같이 배치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추동밑에 남조선괴뢰정권과 일본정부가 꾸미고있는 이와 같은 음모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일회담》에서 론의되고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남조선당국과 일본정부가 그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하여도 그것은 전적으로 무효입니다.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은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괴뢰정권으로서 그것은 절대로 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습니다.

조일량국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산생된 문제들은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할수 있는 통일된 조선인민의 정부가 수립된후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합니다.

지금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는《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분노에 찬 투쟁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특히 남조선학생청년들의 강력한 반일, 반정부 시위들이 또다시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인민들속에서도 광범히 전개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범죄적인 《한일회담》은 분쇄되여야 하며 조일량국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평화와 우의에 기초하여 정상화되여야 합니다.

문: 귀국의 경제실정 및 그와 관련하여 량국의 무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근면한 로동에 의하여 부단히 상승발전하고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생산이 크게 장성하였으며 지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인 기술혁명과 광범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축성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관계를 대대적으로 확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와의 무역관계는 계속 확대발전하고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정부당국이 조일량국간의 무역관계발전에 인위적장애를 조성하지 말며 비우호적태도를 취소한다면 량국간의 무역은 발전할수 있을것입니다.

문: 현재의 아세아의 정세하에서 일본에 대하여 어떤 기대 혹은 요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 우리는 일본이 미제국주의 예속하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평화애호국가로서 아세아린접국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게 될것을 기대합니다.

문: 귀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린접국가인 일본과의 정상적관계를 수립하며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량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현단계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남조선당국과 비법적으로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가조인한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할것입니다.

1965년 4월 21일

《니홍게이자이신붕》기자 사까이다쯔오, 후세미찌오의 질문에

김일성수상 대답

첫째, 지금 진행중에 있는 일한회담에 대한 귀국정부의 기본립장과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우리 두 나라들간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를 즉 일본뿐만아니라 귀국과 남조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를 위하여 일본측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셋째,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진영은 현재 진행중인 일한교섭이 남북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있습니다.

조선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김일성수상은 4월 19일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날 교도통신 전무리사에게 준것과 동일한 내용의 대답을 주고 셋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일본사

회담과 공산당 등 혁신진영의 주장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한일회담》은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의 2중적인 예속에 밀어넣음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고착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 인물들이 거듭 로골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한일회담》은 또한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전제하에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일회담》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엄중히 방해하는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며 뒤흔들리는 남조선 박정희정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본군대를 남조선에 파견할데 대해서까지 미국정부와 비밀리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세력이 아무리 결탁하여도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기구가 무너지고 조선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것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진행되는 남북조선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느때나 남북조선간의 협상을 실현할것을 제의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주장은 미제와 남조선 당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날로 커가는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물질적담보로 되는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년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반미구국투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것입니다.

구경 조선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해방투쟁을 거쳐 남북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됨으로써 해결될것입니다.

1965년 4월 19일

꾸바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김일성수상 대답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꾸바의 《오이》지 보도국장 가브리엘 몰리나와 《레볼루시온》지와 《보에미아》지의 기자 루이스 바에쓰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문: 수상동지께서 금년 1월에 제기한 방안에 기초하여 서신거래, 경제적교류를 통한 통일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포함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전망은 어떠합니까?

답: 당신들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은 의연 지속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간판을 쓰고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있는 미국의 조선내정간섭과 분렬책동에 전적으로 기인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조선의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미국군대를 철거시킨후 남북조선을 통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총선거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조선정부를 수립할것을 남조선당국에 루차 제의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이 제안은 그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극동과 세계평화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정권은 우리의 이 정당한 방안을 반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선거에 의한 조선통일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있는만큼 우리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며 점차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련방제를 실시할것과 남북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서신거래만이라도 실현함으로써 국토의 량단으로 인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 제의마저도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은 고사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간에 서로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미제의 조종하에 박정희괴뢰정권은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일련의 매국적《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조국통일도상에 더욱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여놓았습니다.

금번 《한일회담》에서 조인된 《조약》과 《협정》들은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골간으로 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일층 강화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침략적목적에 복무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이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정책입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남아있을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 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결속함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체적력량이 강화되고 반미구국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가 일층 강화될 때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되면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언어와 풍습이 같은 단일민족으로서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조선인민은 분렬되여서는 살수 없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에서도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우리 인민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반드시 통일할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영웅적꾸바인민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것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거대한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사회주의혁명통일당과 혁명정부와 영웅적꾸바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 당신은 우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간의 현관계와 또한 량국간의 무역 및 문화 관계의 확대를 위하여 현재 존재하고있는 가능성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답: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간의 관계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두 나라간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새형의 국가관계입니다.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과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전선에서 어깨겯고 싸우는 전우이며 친근한 형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두 나라 인민은 호상간의 처지를 잘 리해하고있으며 서로 동정하며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꾸바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꾸바인민의 편에 서서 꾸바혁명을 교살하려는 미제의 부단한 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꾸바사회주의혁명통일당과 혁명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꾸바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호상지지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오늘 조선과 꾸바간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것이며 무역관계도 확대될것입니다.

우리는 꾸바와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량국간의 문화교류도 일층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으며 다같이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문화교류는 인민들간의 호상리해를 도모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인민들이 서로 배움으로써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간에 정치, 경제, 문화, 각방면에 걸친 친선협조관계가 일층 확대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체계적인 공격과 남부웰남에 대한 남조선의 파병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남부웰남에서 선전포고 없는 《특수전쟁》을 벌려놓고 독가스와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을 발광적으로 강화하면서 전쟁

을 점차 확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전쟁은 침략전쟁이며 침략자를 항거하여 웰남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며 해방전쟁입니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동은 모든 사회주의진영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부딪쳐 참패를 거듭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부웰남에 자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추종국가들의 고용병까지 끌어들이면서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2천여명의 괴뢰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였으며 또다시 수만명의 병력을 증파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반역행위이며 모독행위입니다.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파병은 그들이 미제의 철저한 괴뢰이며 아세아에 대한 미제침략의 하수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희도당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침략전쟁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인민의 원쑤일뿐만아니라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원쑤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였습니다.

오늘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견결히 규탄하고있으며 웰남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를 격파하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할것이며 미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문: 웰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사회주의진영의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할 립장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웰남인민자신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견결히 반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효과적인 원조를 줄 응당한 의무가 있으며 웰남인민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웰남인민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발광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3월 22일부 성명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와 정부가 제시한 웰남문제해결의 4개 항목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3월 26일부 성명을 통하여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 남부웰남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원조를 주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지원병을 파견하겠다는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와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결정을 통하여 이 립장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웰남인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전개되고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웰남전선에 지원병으로 보내줄것을 탄원하여나섰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웰남인민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것을 결의하고있는 우리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의 정의의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문: 당신은 산토 도밍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어떠한 국제적후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지난 4월 도미니카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을 전복하고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도미니카인민의 쌓이고쌓인 울분의 폭발로서 도미니카인민자신의 내정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산토 도밍고에 자기의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미주국가기구》의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여 도미니카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면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류혈적탄압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 대한 도전이며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은 도미니카에 대한 미국의 횡포한 내정간섭과 침략행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독립과 진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거대한 고무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들에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워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국주의의 지반은 자유와 독립을 위

한 이 지역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습니다.

미제는 꾸바인민의 혁명적전취물을 말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로골적인 침략행동을 감행하여왔으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군사파쑈적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여왔습니다.

미제는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도미니카인민들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굴복시키지 못할것입니다.

미제가 침략과 탄압을 강화하면 할수록 미제에 대한 도미니카인민들과 전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적개심은 더욱 고조될것이며 미제는 더욱 철저히 고립되여 수치스러운 패배를 면치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도미니카인민들이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끝까지 용감히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문: 당신은 공화국북반부에서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실수 있습니까?

답: 우리 당 제4차대회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7개년계획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7개년계획의 첫 4년간에는 이미 축성된 중공업기지를 정비보강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중공업을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인민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동안 7개년계획의 상반기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부터 하반기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2～3년동안 미제가 아세아와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방력강화에 적지않은 자금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7개년계획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제철, 제강공업,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등 기간적공업부문들을 더욱 완비하고 개건하여 그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력량을 집중하여 7개년계획을 반드시 완수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규모공장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절약제도를 일층 강화하여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하고 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가하고있습니다.

경지가 적고 척박한 우리 나라 형편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러나 전후 우리 당이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결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및 화학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됨으로써 농업생산은 급속히 증대되여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현재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화학화에 주요한 힘을 돌리고있습니다.

지난해말에 있은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당전원회의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로동행정사업과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기업관리운영을 일층 개선하고 더 많은 예비를 동원함으로써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지금 7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동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7개년계획의 상반기과업수행에서 성과를 달성한것처럼 하반기계획도 반드시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꾸바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으며 특히 사탕수수생산에서 금년도에 기록적인 수확을 거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나는 전체 꾸바인민이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혁명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것을 축원합니다.

1965년 7월 6일

아련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김일성수상 대답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아련의 《알 아흐바르》지 대외보도주필 싸아아드 엘 타이예, 멘통신사 대외보도주필 가말 아메드, 《알 굼후리아》지 대외보도편집원 모함메드 엘 에자비, 《알 아흐람》지 대외보도편집원 모함메드 하키, 《알 아흐바르》지 대외보도 편집원 아메드 엘 감리가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

문: 각하, 당신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우리의 립장과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루차 천명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킨후 민주주의적으로 실시되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인민의 대표를 망라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제기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그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극동과 세계 평화의 리익에도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선거에 의한 조선통일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있는 조건하에서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며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량단으로 인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남북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서신거래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인민생활을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보내주겠다는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이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남조선 거리를 방황하는 고아들을 받아들여 양육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이 정당한 제안들의 실현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입니다.

그러므로 조선통일의 선결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는것입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있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파쑈적테로통치를 실시하고 우리 동포들을 야만적으로 유린학살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빈궁과 기아를 가져다주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주구들을 시켜 한사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으며 남조선을 북반부와 중국,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만약 남조선에서 미군이 쫓겨나간다면 남조선인민들은 즉시로 자기가 원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식민지통치에 얽매여 둘수 없을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지향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감에 따라 앙양되고있습니다.

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기세는 계속 높아가고있습니다.

미국강점자들은 어떠한 폭압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억제하지 못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항상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아랍련합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그리고 출판보도계인사들에게 사의를 표시합니다.

문: 각하, 사회주의뽈럭내에서의 사상적론쟁에서 당신의 립장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 사회주의진영내에 의견상이가 있지만 사회주의국가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할것입니다.

문: 각하, 조선에서 이미 해결한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이며 북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길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우리 나라는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였으며 해방후에는 또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곤난도 많았으며 우리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 새생활을 창조하는데서 적지않은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조선의 북반부에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청산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공통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며 단란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제 힘으로 살아나가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수 있는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아놓았습니다.

우리는 기계설비의 거의 전부와 필요한 자재, 원료들을 대부분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있습니다.

대중소비품도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식량도 자급자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힘을 넣어 민족간부를 양성함으로써 자기의 간부로 나라를 관리하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생활도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비록 풍족하지는 못하나 의식주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게 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업자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청소년들은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더 훌륭히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나라를 통일한후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최대의 과업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조선인민의 가장 절박한 민족적념원입니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계속 공고화하고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공업화를 실현하며 농업의 기술적장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것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것입니다.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 힘있는 담보로 됩니다.

문: 북부웰남을 돕기 위하여 언제 지원병을 보내려하십니까? 군대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웰남문제가 전동남아세아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전쟁은 국제법의 온갖 규범을 유린하고 웰남의 자주권을 횡포하게 침해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입니다.

오늘 미국침략자들은 남부웰남에 계속 군대와 무기를 더 보내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강화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전쟁을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확대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사회주의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국가인민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전체 웰남인민이 전개하고있는 영웅적인 항전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진보적인 민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고상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지원군을 파견할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이 계속되는한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웰남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성명한바와 같이 미제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모든 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며 웰남문제를 웰남인민자신이 처리하도록 그들에게 맡기는것뿐입니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의 정당한 요구와 세계각국인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한다면 그들은 더 큰 참패를 면치못할것입니다.

문: 각하께서는 우리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국주의교두보로, 아랍의 진보와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강화하고 있는 서방의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우리 량국인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해방되였고 다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전선에서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새생활을 창조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서로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새생활의 건설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나라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는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기치밑에 날로 더욱 강화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에 기여하는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재능있고 영웅적인 아련인민과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아련인민의 모든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잘 리해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근동에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전초기지로서 아랍의 진보를 방해하며 아랍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영 및 서독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아련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팔레스티나의 해방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전체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교두보로 아련과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미영 및 서독제국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이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생활의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1965년 9월 14일

우리 나라방문 쏘련대표단을 마중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65년 2월 11일)

존경하는 쏘련 내각 수상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동지!

친애하는 쏘련대표단 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매우 기쁜 심정으로 형제적쏘련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을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친근한 벗인 꼬씌긴동지와 쏘련대표단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쏘련인민은 위대한 레닌의 령도밑에 10월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함으로써 인류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았습니다. 쏘련인민은 자기 조국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오늘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쏘련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의 영웅적투쟁업적을 무한히 존경합니다. 우리 인민은 쏘련인민이 달성하는 모든 성과와 쏘련의 륭성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꼬씌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쏘량국인민간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쏘련인민에 대한 그들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뚜렷이 보게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귀중한 손님들인 쏘련대표단동지들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몸 건강히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낼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의 영구불멸의 친선단결 만세!

위대한 쏘련인민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련맹 만세!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만세!

공화국내각이 쏘련대표단을 위하여 2월 11일에 베푼 환영연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꼬씌긴수상동지!

친애하는 쏘련대표단원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쏘련 내각 수상 꼬씌긴동지와 그가 인솔하는 쏘련대표단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하며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쏘련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쏘련인민은 사회주의 10월혁명을 수행한 인민이며,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인민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하고있는 인민입니다. 쏘련인민은 1917년 불멸의 영재인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이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걷게 된 쏘련인민앞에는 허다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쏘련인민은 항상 레닌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내외의 간악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였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락후하였던 자기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영웅적쏘련군대와 쏘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독일과 군국주의일본을 격파함으로써 자기 조국을 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 구라파와 아세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을 파쑈의 노예화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레닌주의의 조국인 쏘련이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앞에 지닌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를 영예롭게 수행한것으로서 인류해방력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입니다.

오늘 쏘련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쏘련의 경제적위력은 강화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쏘련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전세계인민들을 경탄케 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쏘련인민이 달성하는 모든 성과를 기뻐하며 10월혁명의 조국이며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인 쏘련이 더욱더 륭성발전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은 끊을수 없는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쏘련인민은 우리 인민을 일제

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여주었으며 우리에게 물심량면으로 커다란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쏘련인민이 준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원조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수호하며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쟁속에서 맺어졌으며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조쏘량국인민들간의 전통적인 친선과 단결은 영구불멸할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라의 경제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동시에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근 2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의 도탄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남북조선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과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전체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이 굳게 단결하며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최근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군사적침략책동은 전세계인민들속에서 격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다년간에 걸친 범죄적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침략전쟁을 북부웰남에까지 확대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협정들과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웰남인민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전이며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발입니다.

이번에 꼬씨긴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준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기여로 됩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과 함께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형제적웰남인민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남조선괴뢰군대를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흉악한 음모와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영용한 남부웰남인민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사활적사업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반대하여 발악하면 할수록 세계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것입니다.

오늘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존경하는 꼬씨긴수상동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고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방문이 우리 량국인민들간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을 강화할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우리의 공동의 위업에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조쏘량국인민의 영구불멸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쏘련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꼬씨긴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쏘련대표단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쏘련대표단의 귀국에 제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65년 2월 14일)

존경하는 꼬씨긴동지!

친애하는 쏘련대표단 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꼬씨긴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은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이제 곧 귀로에 오르게 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의 공동위업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우리들간의 상봉과 의견교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더 잘 리해할수 있게 하였으며 조쏘량국인민들간에 맺어진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형제적쏘련인민의 친선의 사절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여준데 대하여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은 공산주의건설과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쏘련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친근한 형제이며 전우인 쏘련인민에 대하여 언제나 친선의 정을 품고있으며 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귀국하면 전체 쏘련인민에게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념원을 전달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나는 꼬씨긴동지와 쏘련대표단 전체 동지들이 귀로에서 몸 건강할것을 축원합니다.

조쏘 량국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만세!

세계평화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 만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국가방문하기 위하여
4월 10일 쟈까르따에 도착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대통령각하!

친애하는 벗들!

우리는 이번에 수카르노대통령각하의 친절한 초청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안고 당신들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력사적인 반둥회의 10주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된것은 우리의 방문을 더욱 의의깊게 하여줍니다.

나는 우선 우리를 초청하여주었으며 또 우리를 환영하는 따뜻한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를 환영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인도네시아정부지도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뜨거운 사의를 표시하며 아울러 쟈까르따시민들과 전체 인도네시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유구한 력사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진 인도네시아인민은 오늘 자기의 민족적영웅인 수카르노대통령의 령도밑에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들고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견결히 수호하며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위대한 신흥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평화의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륭성발전을 기뻐하며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어깨를 겯고 싸워나아가는 전우이며 새생활의 건설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아가는 형제입니다.

작년 가을에 있은 수카르노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으며 우리 량국인민의 친선관계발전에 력사적기여를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인민과 상봉하려는것은 나의 오래전부터의 념원이였습니다. 이번에 이 념원이 실현된것을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방문이 늦어진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인민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과 그의 영용한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이며 거기에서 많은것을 배우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이번 방문이 우리

두 나라 인민간에 맺어진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반둥정신에 기초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영광스러운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영웅적인도네시아인민 만세!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간의 친선단결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 만세!

세계 인민들의 친선과 평화 만세!

인도네시아 수카르노대통령이 4월 10일에 베푼 환영연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대통령각하!

친애하는 벗들!

나는 이와 같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우리를 환대하여주는데 대하여 당신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행장과 연도에서의 친선의 정에 넘치는 쟈까르따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은 조선인민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민의 뜨거운 우정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매우 감동케 하였습니다.

지금 수카르노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친근한 벗들과 다정하게 마주앉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헤여졌던 친형제들을 다시 만난것과 같이 즐겁고 유쾌합니다.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오래전부터 굳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간고한 해방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호상간의 처지를 리해하고 동정하였으며 언제나 서로 고무격려하고 지지성원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반제, 반식민주의의 공동전선에서 어깨를 겯고 싸워나아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친선은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간의 친선이며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전우들간의 친선입니다. 우리의 친선은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완전한 평등과 호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은 량국인민의 공동의 리익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이러한 친선은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량국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대발전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당신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모든 벗들을 기쁘게 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인도네시아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벗들!

인도네시아인민은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온 영웅적인민입니다.

세계제국주의자들은 풍요한 인도네시아령을 탐내고 그 무진장한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수백년동안 계속 이 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용감하고 강의한 인도네시아인민은 여러개의 제국주의국가들을 상대로 장구한 기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수마트라의 사방으로부터 서부이리안의 메라우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의 전지역을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하였으며 강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민의 승리일뿐아니라 전체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인민은 반제, 반식민주의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위대한 새 인도네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수카르노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선언》에 따라 진보적인 사회개혁들을 실시하며 자주자립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나사꼼》을 핵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인민의 민족적단결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들의 애국적열성은 계속 높아가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시종일관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반둥회의의 발기국입니다. 수카르노대통령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반둥정신에 기초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조직하는 반둥회의의 10주년 경축행사가 반둥정신을 구현하며 더욱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저애하며 인도네시아인민의 과감한 반제투쟁이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미치는 고무적영향을 말살해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반대하여 《말레이시아》를 조작하고 각종 침략적군사뿔럭을 강화하고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유엔까지 리용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전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심히 오산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유엔이나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거하고있는것이 아니라 1억 500만의 인도네시아인민과 자체의 무진장한 부원에 의거하고있습니다. 자기자신의 힘으로 인도네시아땅에 굳건히 서있는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신식민주의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고있습니다.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인도네시아를 위협하며 모욕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한 인도네시아인민의 단호한 반격에 부딪쳐 오히려 그들자신이 수치와 패배를 당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유엔탈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인도네시아인민의 반《말레이시아》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허물어져가는 식민지체계를 구원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동남아세아에서 가장 횡포한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습니다. 남부윁남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강화하며 인도지나에서 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행위는 멸망하여가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상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있으며 윁남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민족적해방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력사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불피코 멸망할것이며 력사의 흐름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용감하고 견결한 인도네시아인민과 함께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의 종국적붕괴를 위하여,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할것입니다.

나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도네시아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간의 불멸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수카르노대통령의 건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지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애하는 여러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대통령을 위하여 4월 14일에 베푼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대통령각하!

친애하는 형제들과 벗들!

나는 나와 우리 일행의 인도네시아방문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며 더욱 의의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수카르노대통령각하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아름다운 나라에 온지는 불과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도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인도네시아인민의 혁명적기세와 번영하는 새 인도네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신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인민협상회의에 참가하여 수카르노대통령의 훌륭한 연설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신식민주의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며 자력갱생하여 부강한 새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민에게 커다란 힘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의 반제, 반식민주의투쟁은 우리를 고무하여주며 그들의 승리와 성과는 우리를 무한히 기쁘게 하여줍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인민이 수카르노대통령의 령도밑에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것을 열렬히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조선인민의 사절인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맞이하여주었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시종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극진하게 환대하여주었으며 쟈까르따, 반둥, 보고르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도네시아인민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환영하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의 얼굴마다에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친선

의 정이 넘쳐있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워나가려는 굳은 결의가 어리여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민의 우의와 련대성의 표시로서 우리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신흥국가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영웅적인 인도네시아인민은 우리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은 친선적인 회담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의 상봉과 회담은 우리들간의 호상리해를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립장과 견해의 공통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금번 인도네시아방문이 우리 두 나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것을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인민과 손을 맞잡고 싸워나아갈것입니다.

나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륭성발전과 인도네시아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수카르노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외교대표들과 여러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명예박사칭호수여식(4월 15일)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인도네시아종합대학 총장 수만뜨리 브로죠네고로박사!

친애하는 벗들!

나는 우선 수만뜨리 브로죠네고로박사를 비롯하여 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나의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전에 수카르노대통령각하는 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최고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나와 동행한 성원들에게도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오늘 또 당신들은 나에게 인도네시아의 명예박사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준 이와 같은 영예를 조선인민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민의 친선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인도네시아인민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의무를 지어주는것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위대한 신흥국가로서 급속히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금번 인민협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인민에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도네시아혁명을 완수하며 자기의 힘으로 번영하는 새 인도네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라는 수카르노대통령의 호소는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피압박민족들은 오직 자기자신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전취할수 있으며 해방된 나라 인민들은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자체의 힘을 믿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국내의 모든 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로 인하여 뒤떨어졌던 나라들도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고 부강한 독립국가로서 힘있게 일떠설수 있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해방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떠벌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선전으로써 결코 인민들을 속일수 없습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증명되였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이 원칙에 따라 새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은 1억 500만의 애국적인민들과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진 강대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이미 자기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오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인민이 수카르노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종합대학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훌륭한 민족간부를 양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며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는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

축하에 있던 나라 인민들이 새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하는 동시에 사상문화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정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만 자기 나라의 우수한 민족유산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부단히 새로운것을 창조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성과도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발양시켜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길이며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간부양성에서도 주체를 세워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복무할 훌륭한 민족간부를 길러낼수 있는것입니다. 국내에서 양성된 자기 인민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민족간부야말로 신흥독립국가들의 가장 고귀한 자본이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믿음직한 담보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는 과학문화의 발전과 민족간부의 양성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과학자들은 자기 나라의 자연과 사회를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체로 길러낸 민족간부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그들은 인도네시아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의 모든 과학, 교육 기관들이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당신들에게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벗들!

자력갱생은 결코 국가들간의 경제문화적협조에 모순되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지어줍니다.

우리와 당신들은 다같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동시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신흥국가들간의 경제문화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이 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신흥국가들은 호상간의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부족한것을 서로 보충하고 모르는것을 서로 배움으로써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수 있는것입니다.

해방된 모든 나라 인민들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도네시아인민과 더욱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와 과학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인도네시아인민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인도네시아인민 만세!

수카르노대통령 만세!

꽁고(브) 공화국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을 마중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65년 8월 26일)

존경하는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대단히 기쁜 심정으로 꽁고 (브)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부인 및 여러 귀빈들을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하는바입니다.

조선인민은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꽁고 (브)인민을 존경하고있으며 그에 대하여 뜨거운 친선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꽁고 (브)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오늘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령도밑에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꽁고 (브)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독립국가의 건설에서 꽁고 (브)인민이 달성하고있는 모든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인민은 꽁고 (브)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량국간에 맺어진 형제적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새로운 기여로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을 고무할것입니다. 우리의 친선과 협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귀중한 손님들을 가는곳마다에서 친형제와 같이 열렬히 환영할것이며 당신들은 우리 근로자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형제적꽁고(브)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우정을 뚜렷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체류가 즐겁고 유쾌한것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꽁고 (브)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과 꽁고 (브)인민들간의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 만세!

전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세계평화 만세!

꽁고(브)공화국 알퐁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위하여 8월 26일에 베푼 환영연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알퐁스 마쌈바 데바 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꽁고(브)의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마쌈바 데바대통령을 비롯한 꽁고(브)의 여러 벗들과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앉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꽁고(브)공화국의 탁월한 지도자인 알퐁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꽁고(브)의 여러 귀빈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이 자리에서 당신들을 통하여 꽁고(브)인민에게 우리 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조선과 꽁고(브)는 대양과 대륙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을 같은 전선에 서있는 전우로 되게 하였으며 친근한 형제로 결합시켰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깊이 리해하고있으며 서로 동정하며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량국간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꽁고(브)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또 하나의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그것은 우리 량국간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친애하는 벗들!

꽁고(브)인민은 장기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1963년 8월혁명은 꽁고(브)인민의 력사에서 새시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이때로부터 꽁고(브)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유롭고 독립된 새 꽁고(브)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8월혁명의 승리는 비단 꽁고(브)인민의 앞길에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거대한 고무적영향을 주었습니다. 꽁고(브)인민은 혁명승리후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영도밑에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습니다. 꽁고(브)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전복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국가건설에서 당신들이 달성한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신들이 달성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또한 간섭자들을 반대하여 당신들이 취한 단호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꽁고(브)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새 꽁고(브)를 전설하기 위한 당신들의 투쟁과 싸우는 아프리카형제들에 대한 당신들의 지지는 아프리카의 해방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으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력량관계는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 불리하게,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변화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자진하여 력사의 무대에서 물러나려하지 않고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신구식민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무장간섭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범죄적침략전쟁의 격화로 말미암아 아세아와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험에 직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윁남에서 발광적으로 자기의 무력을 증

강하면서 전쟁을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확대하려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가장 흉악한 침략자이며 전쟁방화자이며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줍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감히 대대적으로 전쟁을 확대한다면 그들은 더욱 심대한 패배를 당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고수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보위하는 위업에 기여하고있는 형제적웰남인민에게 계속 온갖 형태의 정신적 및 물질적 지원을 줄것이며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지원군을 파견하여 웰남인민과 어깨겯고 싸울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벌써 수년째 벨지끄식민주의자들과 공모하여 당신들의 형제인 꽁고(킨)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꽁고(킨)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무장간섭을 규탄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꽁고(킨)애국자들의 영웅적항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미제국주의는 그가 저지른 죄행으로 인하여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에서조차 이전과 같이 마음대로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가 힘들게 되였습니다. 인종차별과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반대하여 일어난 미국흑인들의 폭동은 미제국주의가 극복할수 없는 심각한 내부적위기를 겪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는 흑인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중적학살과 탄압을 규탄하며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떠선 미국흑인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궐기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횡포하게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이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침략자들에게 공동으로 반격을 가하는것은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자기의 벗으로 여기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꽁고(브)인민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당신들의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꽁고(브)인민의 친선과 단결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량국 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민들의 해방위업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우리는 꽁고(브)인민이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나는 화기와 친선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 자리에서 꽁고(브)인민의 행복과 꽁고(브)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꽁고(브)인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각하와 그의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꽁고(브)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꽁고(브)공화국 알폰스 마쌈바 데바 대통령의 귀국에 제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65년 8월 29일)

존경하는 알폰스 마쌈바 데바 대통령각하와 대통령부인!

존경하는 꽁고 (브)공화국 귀빈 여러분!

우리는 며칠전에 꽁고 (브)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일행을 여기에서 맞이하였는데 오늘은 벌써 우리의 귀빈들과 작별하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들간의 우의와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잘 리해하게 되고 더욱 친근하여졌으며 우리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수 있게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꽁고 (브)인민의 뜨거운 우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신들과의 상봉에서 받은 깊은 인상을 오래도록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마쌈바 데바대통령각하와 꽁고 (브)귀빈들이 이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 준데 대하여, 그

리ㅁ 꽁고 (브)인민이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있는데 대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전체 꽁고(브)인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과 협조관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귀국하면 꽁고 (브) 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꽁고 (브)공화국의 번영과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위업에 헌신하고있는 대통령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꽁고 (브)인민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와 대통령부인과 꽁고 (브)의 여러 귀빈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조선인민과 꽁고(브) 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꽁고 (브)공화국과 꽁고 (브) 인민 만세!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각하 만세!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을 마중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65년 10월 4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매우 반가운 심정으로 캄보쟈왕국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그의 부인과 기타 캄보쟈의 귀빈들을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캄보쟈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오늘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나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시하누크친왕의 령도밑에 미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나라의 독립을 견결히 수호하고있으며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있습니다. 캄보쟈왕국정부와 인민은 반제국주의전선에 튼튼히 서서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투쟁은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의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체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투쟁에 기여하는것이며 우리 조선인민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캄보쟈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친왕전하! 우리는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로 될것이며 나아가서 신흥세력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캄보쟈인민과 친왕전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경과 두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친왕전하와 그의 부인과 캄보쟈의 여러 귀빈들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부디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낼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만세!

전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아세아와 세계평화 만세!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그의 부인을 환영하여 10월 4일에 베푼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오늘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비롯한 캄보쟈의 귀빈들과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앉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그의 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여러 귀빈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에 대하여 뜨거운 친선감을 품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다같이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고통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반제반식민주의의 공동전선에서 함께 투쟁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자신의 행복한 새생활을 건설하며 평화를 보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투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을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형제로, 친근한 벗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친선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의 호상존중에 기초하고있으며 호상지지와 협조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협조관계는 각방면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캄보쟈왕국 정부와 캄보쟈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기여를 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친왕전하!

친애하는 벗들!

캄보쟈인민은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근면하고 재능있는 인민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는 용감한 인민입니다.

캄보쟈인민은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거쳐 마침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캄보쟈의 독립은 캄보쟈인민의 빛나는 승리였을뿐아니라 인도지나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된 캄보쟈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국가원수의 령도밑에 신생 캄보쟈의 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려는 캄보쟈인민의 헌신적인 로동에 의하여 캄보쟈의 경제와 문화는 날로 더욱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부단한 침략과 위협과 공갈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고수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영웅적기상에 감탄하고있으며 국가건설에서 캄보쟈인민이 달성하고있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캄보쟈왕국 정부는 시종일관 인도지나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캄보쟈왕국 정부의 반제평화애호적대외정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에게서 높은 찬양과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이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캄보쟈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캄보쟈의 독립을 위협하고있는 미제국주의는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20년동안이나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계속 방해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결탁시키는 《한일조약》을 조작함으로써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무력으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고있으나 그들은 결코 구국항쟁에 궐기한 남조선인민들을 굴복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아세아와 세계의 도처에서 미제의 침략행위는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동시에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월남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기만적인 《평화적협상》의 간판밑에 남부월남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고 월남민주공화국의 령토를 더욱더 발광적으로 폭격하면서 전쟁을 한걸음한걸음 확대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영웅적월남인민의 더욱 강력한 항쟁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자기들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걷어가지고 월남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월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의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있으며 결국은 자기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혁명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키고있으며 호상간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격파하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캄보쟈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것이며 그의 믿음직한 벗으로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나는 화기와 친선의 정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캄보쟈왕국의 륭성과 캄보쟈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세계진보적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그의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이 10월 9일에 베푼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전하!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끝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이 성대한 연회에서 우리에게 따뜻하고도 고무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친왕전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큰 경사였습니다.

이 며칠동안 우리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은 기쁨에 넘쳤으며 흥분과 감격으로 휩싸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친형제와 같이 반가이 맞이하였으며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캄보쟈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친선감을 표시한것입니다.

방문기간 당신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에게 캄보쟈인민의 두터운 우정을 가져다주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그의 부인과 그 일행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은 친선적인 회담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서로 더 잘 리해하게 되였고 더 친근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이 가져온 이 모든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과 단결이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벗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의 친선단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의 일환입니다. 우리 량국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될뿐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의 공통성을 자각하였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피압박민족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으며 그것을 파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분쇄하고 호상간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것입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을뿐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의 위업에 이바지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은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캄보쟈인민과 손을 맞잡고 영원히 싸워 나아갈것입니다.

나는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번영과 캄보쟈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의 귀국에 제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65년 10월 10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전하와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우리의 귀중한 손님들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일행은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고 이제 곧 귀로에 오르게 됩니다.

작별을 앞두고 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의 귀빈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과의 상봉에서 받은 감격과 인상을 잊지않을것이며 당신들이 가져다 준 캄보쟈인민의 친선의 정을 언제나 귀중히 간직할것입니다. 당신들의 이번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과 두 나라 인민들간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당신들을 다 같이 기쁘게 하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헤여지지마는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은 영원한것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이며 더욱 진밀히 협조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령도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귀국하면 캄보쟈인민에게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념원과 열렬한 인사를 전달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친왕전하와 부인과 캄보쟈의 여러 귀빈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캄보쟈왕국과 캄보쟈인민 만세!

노로돔 시하누크국가원수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결정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발광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3월 22일부 성명과 4월 10일 각국 국회들에 보낸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오늘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통일과 령토완정을 위한 전인민적항전에 한결 같이 궐기하고있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탄압과 학살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침략자들을 날로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북부웰남인민들은 미제의 어떠한 침공도 단호히 분쇄하고 조국을 수호하며 남부웰남인민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침범하는 미제공중비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거듭되는 패배와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자기의 전투부대들과 신형무기들을 더욱 대량적으로 남부웰남에 증강하며 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날로 우심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련일 북부웰남에 침범하여 폭격과 기총사격을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이 모든 군사행동은 웰남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횡포하게 유린하며 국제법의 온갖 규범을 철저히 파괴하는 강도적인 침략행위이다.

미제의 이 침략행동은 모든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의 철저한 파괴자이며, 전쟁도발자이며, 침략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협정들과 국제관계의 온갖 규범들을 파렴치하게 유린하고 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침략전쟁행위는 마땅히 제재와 징벌을 받아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전체 웰남인민이 전개하고있는 영웅적항전은 자위적인 애국전쟁이며 정의의 해방전쟁이다.

웰남인민이 진행하는 이 해방전쟁은 웰남인민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제를 괴수로한 제

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및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일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직접 조선인민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그를 견결히 규탄하며 형제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전력을 다하여 지원할것을 결정한다.

웰남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진영의 불가분의 일환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행위를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온갖 국제적규범들을 제멋대로 짓밟고 발광적으로 강도적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국가들은 침략자를 제재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무기와 지원군의 파견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줄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이 또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직접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조건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줄 권리를 가지고있다.

모든 사회주의진영나라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리행하며 형제적웰남인민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서있는 전우이며 형제이다.

조선—웰남 두 나라 인민은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와 동남방초소에 어깨겯고 서있으며 미제에 의하여 조국을 량분당한 동일한 민족적불행을 겪고있다.

웰남인민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원쑤들의 침해는 곧 조선인민에 대한 침해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곧 조선인민의 투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발표한 3월 26일부 성명에서 형제적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웰남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다할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정세하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때나 지원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는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가 각국 국회들에 보낸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본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과 결정들을 일치하게 찬동하며 승인한다.

지금 조선인민은 전국 도처에서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산과 절약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있으며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웰남전선에 지원군으로 갈것을 열렬히 탄원하여 나서고 있다.

본회의는 형제적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전인민적운동을 각방으로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전쟁확대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은 사실상 절망적인 무모한 투기행위이며 죽음의 함정에 스스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행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무조건협상》을 운운하는것은 전쟁확대를 위한 연막이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은 전세계인민들의 더욱 격렬한 분노와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미제자신을 더욱 비참한 패망의 궁지에 몰아넣고있을뿐이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은 그의 동맹국들 속에서까지 배격당하고있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끝내 웰남에서 제2의 조선전쟁과 같은 무모한 침략전쟁을 벌려놓는다면 그 전쟁은 미제침략자들자신의 멸망의 무덤으로 전변될것이다.

남북웰남 전체 인민은 미제의 야만적침략행동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욱 높여 전인민적항전을 견결히 전개하고있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전에 부딪쳐 미제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는 또다시 산산쪼각이 났다.

웰남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하고있는 승리는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에 거대한 고무적모범으로 된다.

남부웰남 전령토의 5분의 4와 1천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이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기치하에 해방되였다.

남부웰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의 강력한 타격하에 남부웰남괴뢰통치기구는 사분오렬되였으며 실제에 있어서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앞으로도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만을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하게 진정한 대표로서 인정할데 대하여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현시기 웰남의 평화를 회복하며 웰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남부웰남에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웰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령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 요구조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영웅적웰남인민이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통일과 령토완정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본회의는 현정세하에서 전체인민들이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전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적침공에 어느 때나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도록 더욱 만단의 준비를 튼튼히 갖출것을 호소한다.

본회의는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이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군대를 더욱 대량적으로 남부웰남에 파견하려하며 남조선청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제공하고 남의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방해를 놓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과 《국군》장병들이 박정희도당의 이러한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호소한다.

전체 인민들은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 마치와 낫을 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일으키고있는 천리마의 대고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전선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65년 5월 20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결정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하여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정부와 남조선괴뢰정권간에 진행되는 범죄적《한일회담》은 지금 결속단계에 도달하고있다.

그들은 이미 매국과 침략의 흉정을 끝마치고 소위 《기본관계조약》과 《재산청구권문제》, 《어업문제》, 《재일 교포법적지위문제》등 제반문제에 관한 《협정》에 가조인하였다.

《한일회담》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산물로서 시초부터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조종되고 있다.

미제는 전후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재생시켜 그를 골간으로 아세아의 괴뢰들을 하나의 군사동맹에 묶어세움으로써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아세아인민들을 예속화하기 위하여 더많은 침략전쟁의 대포밥을 조달하며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책동하여왔다.

최근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결탁시키려는 《한일회담》의 결속을 촉구하는것은 남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거듭되는 참패와 남조선과 아세아도처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침략적아세아군사동맹을 시급히 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해외팽창정책을 적극 추구하고있으며 침략의 첫걸음을 남조선에 들여놓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책동에 무조건 아부추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매국반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강도적목적에 따라 조작된 《한일회담》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철두철미 비법적인 협잡놀음에 불과하다.

《회담》의 진행과정은 그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본질과 비법적인 성격을 더욱 명백히 립증하고 있다.

일제통치의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인 대일배상청구권문제를 그들은 다만 몇푼의 돈을 주고받는것으로써 처리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엄중한 죄과에서 벗어나려는것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회피할수없는 배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박정희도당이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호하면서 그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적극 열어주려는것이다.

박정희도당은 《한일회담》에서 남조선 100만어민의 생명선인 전통적인 민족어장과 령해를 팔아먹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까지 일본군국주

의자들에게 떠넘기려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야합하기 위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희생시키는것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박정희도당이 가조인한 소위 《기본관계조약》은 을사망국조약의 재판이다.

《한일회담》이 결속된다면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더욱더 지연되고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는 가일층 격화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줄것이며 아세아의 모든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를 파탄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남조선에 엄중한 민족적재난이 박두한 정세하에서 전민족적투쟁으로써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한일회담》에서 토의결정되는 어떠한 문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매국노의 집단인 박정희도당이 일본당국과 조인하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도 그것은 하등의 법적근거도 없는것으로서 무효로 선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찬동한다.

《한일회담》에서 취급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며 그것은 오직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된 조선정부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일제의 오랜 충복인 박정희도당에게는 이 문제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자격도 없다.

우리는 남조선괴뢰도당들과 일방적인 음모의 방법으로서는 조일량국간의 미해결문제를 절대로 처리할수 없다는것을 일본정부에 엄숙히 경고한다.

조선인민은 대일배상청구권을 계속 보유하며 이 엄연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 대한 자기의 배상의무를 결코 회피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해와 전통적인 어장에 대한 그 누구의 침범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자기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결코 침략자의 손에 내맡기지 않을것이다.

60만 재일 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이다.

그 누구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침범할수 없다.

일본정부는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외국인으로써의 응당한 대우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할 법적의무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박정희매국도당을 타도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용감히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도당의 매국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령해와 어장을 사수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60만 재일 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간직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과업은 분렬된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는데 있다.

조국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견과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와 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굳게 단결하여 전인민적구국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매국적《한일회담》을 분쇄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간으로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일본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전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에게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것을 호소한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나라인민들과 단결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고 민족해방투쟁력량과 단결하고 국제로동운동력량과 단결하고 세계평화애호력량과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들이 우리의 호소에 호응하여 《한일회담》을 분쇄하고 박정희도당을 타도하며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65년 5월 21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조선 괴뢰군을 또다시 남부월남에 파견하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1월 8일 남조선괴뢰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밑에 2천여명의 남조선괴뢰군을 또다시 남

부웰남에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남부웰남에 파견되는 이 병력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부대에 의하여 곧 수송될것이라고 한다.

주지된바와 같이 박정희도당은 이미 1964년 9월에 소위 《의무부대》라는 이름으로 100여명의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금번 또다시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끌어가기로 한것은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아세아전역에 확대하며 아세아침략에서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흉계를 직접 실천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엄중한 침략행위일뿐만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도발행동으로 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 무분별한 범죄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성명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날로 걷잡을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자 오래전부터 이 침략전쟁을 소위 《국제화》하며 그에 자기들의 《동맹자》들을 끌어들일것을 획책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의 이 흉계는 그의 다수 《동맹자》들로부터도 랭대를 받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이제 자기들의 직접적인 지휘명령계통하에 있는 남조선괴뢰군을 가장 값싸게 또 용이하게 동원할수 있는 대포밥으로 간주하고 그를 본격적으로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청장년들과 인민들에게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또하나의 참을수없는 민족적모독행위이다.

미제의 주구 박정희도당은 우리 민족의 력사상 일찌기 보지 못한 가장 추악한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인민을 기아와 빈궁의 도탄속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민》의 명목으로 구미각국에 팔아넘길뿐만아니라 동족을 미제국주의강도배들의 대포밥으로까지 팔아넘기는 극악한 반역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청장년들을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터에 끌어가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흉책에 커다란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파견하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부웰남인민들의 투쟁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박정희와 기타 자기의 괴뢰들을 아무리 규합하여도 오늘 아세아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남부웰남문제의 해결은 남부웰남인민자신에게 맡겨져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한다는것은 그들자신이 남부웰남에서나 남조선에서나 할것없이 패배와 죽음의 함정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것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오늘 전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싸우는 남부웰남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남부웰남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시종일관 전적으로 지지하여왔으며 웰남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전체 웰남인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원히 웰남인민과 함께 나아갈것이며 해방과 독립과 통일을 위한 전체 웰남인민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파견하는데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1965년 1월 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미제의 지시밑에 남부웰남에 괴뢰군대를 파견하며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주구 박정희 일당의 정체를 폭로하여)

1965년 1월 8일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은 미국의 지시밑에 2천여명의 남조선군대를 또다시 남부웰남에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남조선군대를 남부웰남에 끌어가기로 한것은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아세아전역에 확대하며 아세아침략에서 아세아인끼리 싸우게하려는 흉계를 직접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성명은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박정희정권의 범죄적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이 남부웰남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것은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를 비

듯하여 기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과 정부들속에서도 응당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사실상 금번 박정희가 남부윁남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또하나의 씻을수 없는 반역행위일뿐아니라 윁남인민과 전체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용서할수 없는 도전행위이다.

오늘 남부윁남에서 무엇이 진행되고있는가하는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수년째 수만의 미군과 수십만의 남부윁남괴뢰군을 동원하여 남부윁남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식민지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남부윁남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오래전부터 이 침략전쟁을 소위 《국제화》하려고 획책하여왔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은 남부윁남에서의 식민지전쟁을 윁남민주공화국에까지 확대하려고 더욱 빈번히 도발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을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을 유린하는 범죄적침략행위이며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남부윁남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항전을 전개하고있다. 남부윁남인민들의 이 정의의 투쟁은 해방과 독립과 평화를 위한 전체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의 일환으로 된다.

오늘 반제, 반식민주의 공동전선에 서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남부윁남에서의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싸우는 남부윁남인민들에게 지지와 동정을 보내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형제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은 미국침략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에게 남조선청년들을 값싼 대포밥으로 제공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의 주구로서의 박정희일당의 정체를 더욱 똑똑히 폭로하여준다.

원래 남조선정권은 미제의 총검의 위협하에 소위 《유엔 감시하의》 협잡선거를 통하여 날조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한개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조선정권은 리승만시기부터 박정희에 이르는 전력사를 통하여 일관하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주구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평화를 교란하는것을 전업으로 삼아왔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서도 이는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1956년 영, 프랑스, 이스라엘 3개국이 애급에 침공하였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애급인민을 지지성원하여나섰다.

그러나 남조선괴뢰정권은 파렴치하게도 애급인민을 반대하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지지하여 지원병을 파견할것이라고 떠들었다.

그 당시 애급과 남조선당국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렇게 행동한것은 오직 그가 제국주의의 충복이기때문이다.

1958년 인도네시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반란도당들이 반혁명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남조선괴뢰정권은 인도네시아정부와 인민을 반대하고 반란도당들을 지지하여 지원병을 파견할데 대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도네시아정부와 인민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있는것이 동남아세아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불간섭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는 그 자신의 멸망을 가져오게 할것》이라고까지 망발을 하였다.

역시 1958년 이라크에서 혁명이 일어난것을 계기로 미 영제국주의자들이 레바논과 요르단에 상륙하자 남조선당국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침략과 간섭행위를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남조선당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매 침략행동에 적극 가담할뿐아니라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쁠럭불가담과 중립정책을 선포하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모든 신생독립국가들을 공공연히 《적대국가》라고 불렀다.

미국정부는 리승만과 같은 괴뢰들을 규합하여서라도 재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둘수 없었다.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행동은 도리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샀을뿐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봉기에 의하여 리승만정권이 타도된후 미국은 그 주구들로 하여금 수법을 바꾸게 하였다.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미국은 남조선괴뢰정권에 새로 들여앉힌 박정희로 하여금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소위 《친선》과 《접근》을 제창케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가장하여도 제국주의주구로서의 그 본색은 결코 달라질수 없다.

박정희정권이 소위 《친선》과 《접근》의 간판을 내들고있는것은 미제의 지시대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대가정내에 끼여들어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을 반대하는 각종 파괴활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오늘 꽁고(킨)의 쫌베일당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되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이 쏨베일당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고 그와의 굳은 친선관계를 맹약하고있다.

1964년 11월 미국, 벨지끄,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콩고(킨)의 스탠리빌지역에 대하여 야만적인 무장간섭을 감행하여나섰을 때에도 박정희일당은 서슴없이 그것을 《인도적인 조치》라고 찬양하여나섰다. 박정희일당은 쏨베를 축하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콩고애국자들의 투쟁을 《새까만 만행》이라고 비방하였다.

쏨베와 한짝이된 박정희일당의 이러한 행동은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오늘 아랍세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침략의 도구로서 전체 아랍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되고있다.

박정희정권은 이 이스라엘과 대사를 교환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공모하여 전체 아랍인민의 리익을 반대하는 각종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격으로 박정희일당은 제국주의의 죄행이 감행되는 모든 곳에 발자취처럼 붙어다니고있다.

오늘 미국의 지지밑에 영국이 조작해낸 신식민주의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전체 동남아세아인민들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이 말레이시아와 공동전선을 펴기 위하여 박정희정권은 소위 《친선방문》의 명목으로 말레이시아에 군함들을 파견하였다.

지난해 쿠알라 룸푸르에 찾아간 박정희정권의 외무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분쟁이 확대된다면 한국정부는 말레이시아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떠들었다.

박정희정권은 이처럼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위하여 제꺽하면 지원병을 보내겠다고하는것을 자기들의 《도의적의무로 간주》한다고 감히 공언하고있다.

이뿐아니라 박정희일당은 그의 수중에 있는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계속 부절히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이 나라들의 대내외정책, 자립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 심지어는 그의 전통적생활풍습에 대해서까지 중상을 퍼붓고있다.

례컨대 박정희일당은 캄보쟈가 미제의 침략적《원조》를 용감히 거부하여나섰을 때에 《캄보쟈는 비교적 소국이오, 저개발국가인 까닭에 타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있는 국가》이라고하면서 진정으로 미국이 캄보쟈에서 손을 뗀다면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없어질것이라고 위협하였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를 배격한후 캄보쟈의 경제 및 재정 형편은 더욱 호전되였다.

박정희일당은 버마인민을 《자치능력이 없는 인민》들이라고 비방하였다. 박정희일당은 오늘 아랍세계에서의 분규의 화근으로 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비호하기 위하여 《아랍격동의 근원지는 아련》이라고 비방하고있다.

박정희일당은 나이제리아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식민지통치를 극구 찬양하였으며 케니아에 대하여도 영국이 계속 식민지통치를 하여야만 경제적발전과 정치적안전을 가져올수 있다고 떠벌리였다.

박정희일당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광범한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회회교에 대하여 《해만 뜨면 단식하는 거지의 교리》라고 비방하고있다.

이러한 실례를 다 렬거한다면 부지기수이다.

이 모든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박정희로 말하자면 일찍부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군대장교로서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 적극 복무한 일제의 충실한 주구였다.

일제가 패망한후 미제가 남조선에 상륙하자 박정희는 곧 그의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였다.

박정희는 미국첩보기관의 장교로서 남조선군대내의 수많은 애국적장병들을 밀고하여 학살당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매국배족행위를 다 감행하고있다.

박정희정권이 금번 남부웰남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것도 그의 전형적표현의 하나이다

그들은 이번 파병이 미국대통령 죤슨의 직접적명령에 의한것임을 자랑삼아 내놓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소위 《원조》를 더 받아들일데 대하여 뻔뻔스럽게 론의하고있다. 이것은 동족을 대양건너 침략자들의 대포밥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팔아넘기는 피값을 추악한 흥정판에 올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박정희는 미제의 명령지시라면 어떤 죄행이라도 서슴없이 감당하기에 준비되여있다.

지금 미국은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체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생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핵심으로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괴뢰들을 규합한 단일한 군사블럭을 형성하려고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책동의 한개 고리로서 박정희정권은 미국정부의 사촉하에 옛상전인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미국은 《한일회담》을 하루속히 결속시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의 결성을 완성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하여 남조선에 재침하며 아세아대륙과 동남아세아에 다시 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미국은 침략적군사블럭형성을 촉진시킴과 함께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또

한 그의 괴뢰들로 하여금 소위 《아세아제국 외상회의》를 진행케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박정희일당은 지금 이를 위해서도 앞장에 서서 광분하고있다.

제반사실은 박정희일당이 미제의 수중에 장악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비수로서 날로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박정희정권이 감행하고있는 상술한 모든 범죄적행위를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박정희일당이 미제의 주구로서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를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고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아세아,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정부들 및 인민들과 단결하여 공동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는바이다.

1965년 1월 22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공중비적들이 2월 7일과 8일 웰남민주공화국을 수차에 걸쳐 폭격한것과 관련하여)

2월 7일과 8일 미국비행기들은 미국대통령 존슨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웰남민주공화국 령공에 침입하여 광 빈주 소재지인 동 호이시일대와 빈 린지역에 있는 콘 코섬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폭격과 기총사격을 감행하였다. 이 결과에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금번 미제가 또다시 감행한 이 대규모적인 침공은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전쟁도발행동이며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행위는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무력침공에 격분을 표시하며 이를 용허할수 없는 범죄적침략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웰남민주공화국과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려고 책동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8월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한 이후에만 하여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20여차에 걸쳐 웰남민주공화국의 령공과 령해에 침입하여 도발 및 파괴행동을 감행하였고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확대하였으며 캄보쟈령토를 침범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비롯한 자기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여 이 전쟁을 소위 《국제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금번의 강도적침공행위를 계기로 미제는 남부웰남에 자기의 각종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있다.

미제의 이 모든 발악적인 침략행동은 동남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들은 미제의 이 무분별한 불장난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두차의 성명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목표로 단결되여있는 자기의 형제이며 전우인 웰남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자들의 전쟁행위와 관련하여 발표한 2월 8일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전체 조선인민은 금번 웰남인민군과 인민들이 또다시 미제공중비적들에게 영웅적반격을 가하여 달성한 혁혁한 전과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공동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제적웰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전쟁행위로써도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있는 웰남인민들을 놀래울수 없으며 침략적야욕을 달성할수 없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공행위는 그들의 강도적면모를 더욱 자체 폭로하며 자신의 패망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과 인도지나전역에서 감행하고있는 전쟁 및 도발행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 끌어들인 모든 군사인원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평화애호국가 정부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침략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다.

1965년 2월 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비행기들이 또다시 웰남민주공화국에 폭격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3월 2일 미국 비행기들은 또다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기안강류역의 주민지구와 빈 린의 서부지역들에 폭격과 기총사격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네번째로 감행한 폭격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만적전쟁행위를 거듭 감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앞으로 계속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철저히 유린하고 남부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웰남민주공화국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국가들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의 횡포무도한 새 전쟁도발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두차의 성명을 통하여 형제적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새로운 엄중한 전쟁행동을 규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3월 3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침략적도발행위에 더욱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시하며 침략자를 반대하는 형제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한다면 결국 더욱 비참한 패망을 초래하게 될뿐일것이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확대로써 그 누구를 위협하려하며 남부웰남에서의 궁지에서 빠져나오려는 미제의 타산은 헛된것이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미제가 야만적인 침략과 전쟁도발행위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웰남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은 더욱 불타오를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날것이다.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의 금번 폭격시에도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섬멸적타격을 가할 투지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혁혁한 전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미제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써도 웰남에 대한 강도적침략자로서의, 또한 흉악한 국제헌병으로서의 정체를 가릴수 없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개시한 장본인이다.

오늘 웰남에 조성된 엄중한 새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부웰남문제를 해결하는길은 무엇보다도 우선 남부웰남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는데 있다.

웰남문제는 웰남인민자신에게 맡겨야 한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일체 군사인원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하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전쟁행위를 계속 감행하여나선다면 침략자들은 인민들의 결정적반격에 직면하여 무릎을 꿇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것이며 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버리고 말것이다.

1965년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3월 22일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3월 22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반대하고 남부웰남을 해방하며 북부웰남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한 필승의 결의를 표명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이 성명에서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한 전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주의국가들, 국제기구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무기와 기타 각종 전쟁물자를 포함한 물심량면의 모든 원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와 전쟁물자를 사들일 권리를 보유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의 침략군대와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계속 남부웰남에 증강하며 전쟁을 북부웰남과 라오스에까지 확대하려한다면 공동의 원쑤를 소멸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군대를 남부웰남에 파견해줄것을 각국 인민들에게 호소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또한 미제가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형편에서 필요하다면 정화협정에 따라 북부웰남에 가있는 남부웰남의 아들딸들을 소환하여 그들로하여금 나라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적을 소멸하는 항전에 참가하도록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에서 천명된 모든 주

장과 호소는 극히 정당한것이다.

남부윁남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해방전쟁에서 전체 사회주의국가를 비롯한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모든 형태의 원조를 요청하며 그것을 받을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남부윁남인민들이 전개하고있는 애국전쟁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당당한 권리행사이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자위적인 정의의 전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의 3월 22일부 성명을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윁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야만적침략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노예로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이라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야수적이며 략탈적인 원쑤들을 종국적으로 분쇄해버리기 위하여 영웅적항전을 전개하고있는 전체 남부윁남인민들에게 가장 숭고한 전투적경의를 표시하며 그들을 백방으로 지원할데 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는 바이다.

남부윁남의 현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윁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의 파괴자이며 흉악한 전쟁도발자이며 야수적침략자이며 윁남과 인도지나 및 전세계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는 윁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조인된 첫날부터 이 협정조항들을 하나하나 위반하면서 남부윁남에 침입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며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학살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왔다.

남부윁남에서 침략전쟁을 개시한 이후 10여년간 미제침략자들은 남부윁남전역을 하나의 군사적감옥으로 전변시키고 남부윁남인민들을 반대하여 나팜탄과 유독성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무기와 전쟁수단을 다 사용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탄압과 학살행위에 참을수 없게 된 남부윁남인민들은 남부윁남의 해방과 독립, 민주주의, 평화 및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연 손에 무장을 들고 전인민적항쟁에 궐기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싸우면 싸울수록 남부윁남인민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더 큰 승리를 달성하였다.

남부윁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는 이미 남부윁남의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부윁남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직면하여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더욱 약화되였으며 남부윁남의 괴뢰통치기구는 절망적인 혼란상태에 빠졌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궁지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남부윁남에서의 범죄적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며 이 전쟁의 불길을 윁남민주공화국과 나아가서는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전역에 확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남부윁남에 유도탄과 전략폭격기 등 각종 신형무기와 전투부대를 계속 증강하면서 심지어 독가스까지 공공연히 사용하고있다.

이미 2천여명의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윁남에 끌어간 미제는 앞으로 사단급 이상의 남조선괴뢰군과 기타 추종국가군대를 더 많이 대포밥으로 동원할것을 흉책하고있다.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미제는 날로 더욱 빈번히 대대적으로 강도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미제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북위 17도선에서 19도선을 넘어 윁남민주공화국의 령토깊이 침입하여 들어오고있다.

미제는 윁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데 대하여 더욱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국제관계에서 모든 규범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백주의 날강도와 같이 제멋대로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전쟁행위는 다만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행위일뿐만아니라 직접 사회주의진영전체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윁남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진영의 불가분의 일환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 침략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다.

정세발전은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지체없이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의 본토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윁남땅에 륙해공군의 대부대를 공공연히 침입시켜 파렴치한 강도적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조건밑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은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윁남인민들을 지원할 응당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있다.

전체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은 남부윁남인민들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조를 제공할뿐만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병을 파견할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북부윁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한가정형제인 남부윁남동포들을 모든 수단을 다하여 지원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전쟁확대책동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국가들과 전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남부윁남인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줄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 및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형제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편에 서있었으며 앞으로도 형제적웰남인민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금번 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형제적웰남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지원을 다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는것을 이에 공표한다.

지금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형제적웰남인민을 지원하기위한 전인민적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있다.

특히 수많은 인민들이 싸우는 남부웰남인민들을 직접 돕기 위하여 지원병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여 나서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정세하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때나 지원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것을 언명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무모한 전쟁확대행위는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발광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의 확대로써 그 누구를 위협하려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위협으로써 동방인민들에게 침략적야욕을 강요할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영원히 지나갔다.

웰남인민의 영광스러운 반제투쟁의 승리를 기록한 덴 벤 푸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여주며 미제의 침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이 준엄한 력사적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계속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것은 원쑤격멸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킬뿐이다.

만약 미제가 또다시 오산하여 웰남에서 제2의 조선전쟁과 같은 무모한 침략전쟁을 벌려놓는다면 3천만 웰남인민들은 전체 사회주의진영나라인민들과 민족주의국가인민들 및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침략자들을 멸망의 무덤속에 처넣고말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남부웰남에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하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남부웰남문제는 남부웰남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영웅적웰남인민이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남부웰남을 해방하며 북부웰남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1965년 3월 26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한일회담》의 범죄적 내막에 대하여

미국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일본정부와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은 오래동안 진행하여오던 《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속짓기 위하여 서두르고있다.

일본정부와 박정희정권은 지난 2월 20일 서울에서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가조인한데 뒤이어 4월 3일 도꾜에서 《한일회담》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협정요강들에 가조인하였다.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은 이 문건들에 정식 조인하게 될것이라고한다.

이 협정들이 정식 조인되여 실천에 옮겨지면 2차대전에서 패망하였던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비호하에 공공연히 남조선에 재침입하게 되며 남조선은 실질적으로 미일량국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다.

그것은 조선의 분렬을 더욱 고착시키고 평화적통일을 방해하게 될것이며 조선에서 새로운 긴장상태를 조성하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남조선재침을 개시하며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선다는것은 일본이 재차 극동에서의 새 전쟁의 발원지로 전변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 일본이 《한일회담》에서 추구하고있는 침략적목적과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앞에 폭로규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본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조선과 일본간에는 력사적으로 루적된 중대한 미해결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결과에 산생된 문제들이다.

일본은 이미 19세기후반기부터 구미자본주의렬강과 함께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반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1905년 무력적위협과 공갈로 《을사보호조약》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였으며 1910년 8월에는 소위 《한일합병》을 통하여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였다.

그후 36년간 일제는 조선에서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살륙하고 무제한의 착취와 략탈을 강행하였다.

식민지통치의 말기에 이르러 일제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조선민족을 영원히 말살하려고 조선어와 조선문자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조선인민의 고유한 모든 생활양식을 파괴하려고 발악하였으며 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강제동원하였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결과에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은 우리 인민의 원한 많은 피로써 물들었으며 황폐화되였다.

일본이 조선에서 식민지통치기간에 략탈하여간 재물은 실로 헤아릴수 없는 방대한 액수에 달한다.

1945년 패망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근 반세기에 걸친 탄압, 학살, 략탈도 부족하여 조선인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공장, 광산, 발전소, 철도, 체신, 항만 및 기타 시설들을 대량적으로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였을 때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모든 죄과들은 응당 국제법의 제원칙에 따라 정당히 결산되고 조일량국간에 새로운 정상적인 관계가 수립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선이 인공적으로 분렬되고 통일이 지연되였으며 일본역시 미제의 강점과 예속하에 놓이게 된 조건하에서 그리고 또한 일본지배층이 조선인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태도를 취한 조건하에서 량국간에 조성된 미해결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되였으며 국가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1951년 미국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소위《한일회담》을 개최하고 남조선당국과 일방적으로 공모와 협잡의 방법에 의하여 조일량국간의 력사적문제들을 처리해 버리려는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전적으로 비법적인 행위이다.

우선 조선이 아직도 분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일본정부가 조일량국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고 량국인민의 전반적리익에 관련되는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남조선당국 일방만을 상대로하여 해결하려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정권은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허수아비로서 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다.

소위 《대한민국》이란 정치적자주권도 경제적자립성도 군사적통수권도 없는 순전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기구에 불과하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조일량국인민들의 전반적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겠는가?

조선에는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조일량국인민들이 다같이 념원하는것은 불행한 과거의 력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일량국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평화와 우의에 기초하여 정상화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일본정부가 조일량국간의 관계를 진정으로 조일량국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게 또한 아세아와 세계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공명정대하게 해결하려한다면 응당 조선이 통일된후에 량국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남조선당국과 더불어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우호적태도를 지속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회담》을 집요하게 추진시켜왔다.

이러한 비법적행위의 리면에는 바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적목적이 숨겨있는것이다.

(2)

《한일회담》은 처음부터 미국이 그의 극동침략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발기한것이다.

일찌기 1951년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하루속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재생시켜 조선전쟁에 인입할 목적으로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할것을 요구하였다.

1951년 10월 당시 일본에 있던 《맥아더사령부》의 외교국장 시볼트는 일본과 남조선의 량측대표들을 불러다가 《일본의 한국진출은 미극동정책의 기본구성》이며 《조선전쟁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열고 《한일국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하여 일본과 남조선의 결탁을 실현하면 그를 밑천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며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는 그의 기본전략을 실현하려하였다.

1951년 쌘프랜씨스코에서 미일

단독강화조약이 체결될 때에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다음과 같이 로골적으로 말하였다.

《태평양에서 방위를 위한 지역적협정들이 발전하면 창설되는 일본방위군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방위군과 련합하게 될것이다.》

1964년 4월 미국방차관 길패트릭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군은 일본이 태평양서북부의 방위분담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담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이 장래 조선반도의 일부를 포함한 구역을 수호하는데 충분한 〈감시적인 전투력〉을 가지게 될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다시 한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사단들의 재증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것이다.》(워싱톤 1964년 4월 17일발 《로이터》)

미제는 벌써 전후초기부터 패망한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장차의 아세아침략에 리용하려고 타산하였다. 이 목적밑에 미국은 포츠담선언과 기타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 일본독점재벌을 소생시키며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을 석방하며 조선전쟁을 도발한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군대를 재무장시키며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장군 로버트 아이첼버거는 1950년 12월에 미국잡지 《뉴스위크》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미국군대는 력사상 돈이 많이 먹는 군대이나 일본군대는 눅게 먹는 군대로 될수 있다》, 《우리는 현재 조선전쟁에서 우리의 몇몇 정규군부대내에서 조선인들을 사용하고있는것처럼 미일군대가 보다 긴밀한 하나의 완전체로 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명령 하나이면 2~3백만의 군대는 즉시로 소집할수 있다.》(《뉴스 위크》 1950년 12월 4일 및 12월 18일)

1951년 9월 8일에 미국은 이미 비법적 대일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앞서 동년 8월 30일에는 필리핀과, 1953년 10월 1일에는 남조선과, 1954년 12월 2일에는 장개석과 각각 《호상방위》조약들을 체결하였다. 이들을 《동북아세아군사동맹》과 같은 다각적인 군사동맹체계에 묶어세우는데 있어서 남은 문제는 오직 남조선과 일본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것이였다.

1954년 8월 24일 당시의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기자단회견에서 《한국, 일본 및 대만을 미국이 지원할 단일한 반공동맹으로 결속시키는 구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에 있어서 《장애물》은 《특히 한국과 일본간의 현재와 같은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워싱톤 1954년 8월 24일 발 《에이피》)

미국출판물들도 《동북아세아집단방위협정의 성공여부는 오직 한국과 일본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워싱톤 1954년 9월 10일 《아이엔에쓰》)

그러나 《한일회담》은 처음부터 조일량국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 직면하여 실패를 거듭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후 아세아에서 위기에 처한 그의 침략정책을 수습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59년에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콘론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이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미국의 압력내지 조종은 분명히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전반적리해관계와도 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문제이기때문에 위험성을 무릅쓰고 추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

《한일회담》의 주모자이며 조종자로서 미국은 회담의 급속한 결속을 독촉, 독려할뿐만아니라 회담에서 론의되는 현안문제들의 해결방안까지도 직접 제시하였다.

1962년 5월 3일 케네디는 도미중의 전 일본수상 요시다에게 《한일회담》의 조기결속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케네디대통령, 해리맨국무차관보 등 미정부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측이 강하게 한일회담의 추진에 대하여 요시다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미국측이 요시다에게…강조한것은 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제였다고하며 얼마나 미국이 극동의 정치전략체계상 한국의 장래를 우려하고있는가를 볼수 있었다. 문제는 다만 일한관계의 정상화라는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화에 기초하여 장래 일본이 주체가 되여 한국에 본격적으로 원조를 주며 한국의 정치, 경제의 재건을 실현하면 좋겠다는것이였다.》(《아사히신붕》 1962년 5월 12일)

이에 앞서 1961년 11월《미일무역경제합동위원회》 《하꼬네회담》에서 미국무장관 러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아세아의 중심문제는 한국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세아정책의 큰 중심과제로 되여있다. 남부웰남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비관할 상태가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시 실패한다는것은 미국의 위신에도 관계된다.…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동북아세아정세를 개선하는것은 일미공동의 목표이다. 이 경우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속히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일본잡지 《에꼬노미스트》 1961년 11월 11일)

1962년 12월 3일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제2차《일미무역경제합동위원회》회의에 참가하였던 일본각료들 앞에서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을 기본으로 한 아세아침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을 강요하면서 《앞으로 수개월내에 일미량국이 협력자로서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

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1964년 1월 미국무장관 러스크는 직접 일본과 남조선을 방문하여 《2월중에 본회담을 열어 5월 국교정상화가 성취될수 있게》할것을 요구하였다. (1964년 1월 30일 남조선통신 《동양》)

미국의 적극적인 독려와 로골적인 간섭밑에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은 제6차 《한일회담》을 1964년 3월에 이르러 결속짓고 4월에 조인하며 5월에 비준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1964년 3월 24일부터 남조선전역에 걸쳐 일어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좌절되였다.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6월에 이르러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선포케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지휘하에 있는 2개 사단의 전투부대를 동원하여 학생들의 투쟁을 진압케 하였다.

그후 사태수습을 위하여 서울주재 미국대사 브라운은 10여차에 걸쳐 박정희와 밀의를 하며 《한일회담》을 속개할데 대하여 촉구하였다. 9월~10월에는 미국무성 극동담당차관보 번디가 일본과 남조선을 방문하였다.

일본에서 번디는 일본외무차관 오다에게 《일한량국의 관계정상화에 대해서는 힘껏 원조를 줄것》이라고 하면서 《일한량국에 각각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있지만 반드시 량국간에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964년 9월 29일 《지지》)

남조선외무부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 번디는 《한일문제를 성공적으로 결속시킬수 있도록 미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표명한바를 재확인》한다고 하였다.

1964년 11월에 미국무장관 러스크는 미국주재 남조선대사를 불러 《래년봄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결의》를 다시 확인받았다. (워싱톤 1964년 11월 27일 《유피아이》)

1964년 12월에 제7차 《한일회담》이 도꾜에서 개최되였다.

1965년 1월 미국대통령 죤슨은 일본수상 사또와의 회담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최종적인 비밀합의를 하였다.

죤슨은 일본이 미국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재침하여 지배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주기로 하였다.

사또는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의 옛구상을 다시 피력하고 아세아에서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며 유사시에는 일본인을 지휘관으로 하여 남조선과 일본의 공군과 륙군을 통합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비밀합의에 근거하여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은 급속히 회담을 추진시켰다.

3월말과 4월초에는 련일 철야협의까지 하면서 가조인을 서둘렀다.

이제 6월이나 7월중으로 정식 조인을 끝마칠것이라고 그들은 떠들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한일회담》의 결속과 그에 따르는 《동북아세아동맹》의 결성을 얼마나 초조하게 추진시키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체계가 뒤흔들리고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에서 날로 더욱 궁지에 빠져들어가게 되자 이렇게 서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출판물들이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한일회담》이 성사되면 《한국군 60만과 대만의 장개석군 50만을 일본의 자위대 30만과 통합》하고 거기에 《필리핀군과 타이군을 첨부》하여 《미국의 지휘하에 일본을 제1선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약 250만의 군대》를 형성할것을 미제는 획책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부활시켜 일본을 또다시 극동에서의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전환시키고있는 범죄의 장본인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확증하여준다.

(3)

일본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을 떠받드는 대가로 남조선에 재침하여 다시 지배권을 수립하며 그를 발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한일회담》에 적극 참가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일본이 《한일회담》에서 취하여온 립장과 그에서 발로된 침략적본성은 이를 여실히 실증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적죄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죄하려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식민지통치가 조선에 혜택을 입혔다는 전제밑에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고 지배하는것을 응당한 일로 내세우려하고있다.

일찌기 1953년 10월 《한일회담》초시기에 벌써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 강이찌로는 《36년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것은 한국민에게 유익하였다》고 공언하였다. (1953년 10월 15일 제3차《한일회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근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형태로 나타났다.

1958년 6월에 《한일회담》일본측 수석대표 사와다 렌조는 《우리들은 일어나서 38도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조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이것은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말하였다. (1958년 6월 11일 제4차《한일회담》에서)

얼마전에도 《한일회담》의 신임 일본측 수석대표 다까스기 싱이찌는 《일본이 20년쯤 한국을 더 가지고있었더라면 좋았을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형이 된 셈치고 큼직하게 먹어치워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1965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 일본측 대표들이 이렇게 계통적으로 떠벌리고있는 침략적폭언들은 일본지배층의 속심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일본정부의 력대수상들과 지도적정치가들이 체계적으로 이러한 침략적언행들을 서슴없이 토로하고있다.

례컨대 1960년 당시의 일본수상 기시 노부스께는 《일본의 자위권이 남조선과 대만까지 확장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1960년 1월 23일 중의원회의에서)

1962년 1월 전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이 이도 히로부미(조선을 강제합병한 자)의 길을 따라 조선을 부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산께이신붕》 1962년 1월)

1962년 4월 23일 당시의 일본수상 이께다 하야또는 《지난 40년간의 한국점령기한중 일본이 한국을 개발시켜놓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수를 지고있지 않다고 느끼고있다》고 말하였다. (1962년 4월 23일 《동화》)

현 일본수상 사또 에이사꾸와 외상 시이나 에쯔사부로 역시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과 아세아 인민들앞에서 저지른 침략적 죄행들을 어떻게 해서나 비호하며 찬양하고있는 군국주의사상의 적극적신봉자들이다.

현 일본수상 사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공영권》이란 말과 함께 아세아제패의 야욕을 표시하여 사용하던 《팔굉일우》라는 말을 극력 변호하면서 《전후에 이 <팔굉일우>가 제국주의의 표현이라든가 또는 침략주의의 별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암만해도 <팔굉일우>라는 진의도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세까이》 1962년 6월 198호)

시이나는 《일본이 명치이래 대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합병하였으며 만주에 5족공화의 꿈을 실현하여보려고 한것이 일본제국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제국주의다》라고 주장하였다. (시이나 에쯔사부로 저 《동화와 정치》 1963년)

일본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제국주의적침략야망은 《한일회담》에서의 현안문제토의시에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였다.

일본측은 1905년과 1910년에 총칼로써 조선에 강요한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들을 무효로 선포하는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다시말해서 그들은 과거 근 40년동안 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통치가 합법적이였다는듯이 주장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강도적론리에 근거하여 과거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지불의 의무마저 거부하고 도리여 조선인민으로부터 식민지통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것을 주장하였다.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문제에서도 일본측은 응당 리행하여야할 자기들의 의무는 극력 회피하고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민족적차별과 각종 정치적박해, 나아가서는 그들을 임의로 강제추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데 대해서 주장하여 나섰다.

재일 조선공민들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갖은 고역을 강요당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국제법에 규정된 외국인으로서의 대우와 그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 회피할수 없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지통치시기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재일 조선공민들의 인권을 부단히 유린하며 그들에 대한 살상폭행을 적극 조장시킬뿐만아니라 재일 조선공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며 남조선당국과의 정치적흥정의 미끼로 삼으려고 책동하였다.

제2차대전후 20년이 되는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다시 대두하여 과거 조선과 기타 아세아린접국들에 대하여 감행한 그들의 침략행위가 침략이 아니였고 선행이였다는듯이 떠들게 된것은 실로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어제날의 패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복수를 꿈꾸며 깨여진 옛식민지제국의 재건을 망상하고있다.

1959년 1월 일본의 현집권당인 자유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는 《한국 및 대만을 포함한 <일본합중국>이 되기전에는 극동에서 안전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잡지 《쥬오고롱》 1959년 12월호)

이것은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동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침략한다고하던 그 론조와 아무 차이도 없는것이다.

최근년간 일본에서 짙어가는 과잉생산의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팽창야욕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1962년 9월 일본외상 오히라 마사요시는 미국무장관 러스크와 《한일회담》문제에서 일련의 합의를 본후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많은 매장을 말은 백화점판매원과도 같은 격으로서 그 외에도 훌륭한 매장을 가지고있어 한국이라는 매장에까지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인듯하다.

그렇다면 방침을 명백히 결정하고 매장을 일본에 내맡길만한 용의가 있기를 바란다.》(1962년 9월 미국무장관 러스크와의 회담에서)

일본은 지금에 와서 그들의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수법과 경험을 자랑하기까지 하고있다.

전 수상 이께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민족에 대한 일본의 연구가 미국보다 훨씬 앞섰는바 일본

은 한국과 관련하여 40년 이상이나 경험을 가지고있다.》(《도꾜신붕》1963년 4월 5일)

오늘 일본은 실제행동으로 남조선에 적극 침투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모든 준비를 악착하게 추진시키고있다.

《친선사절단》, 《시찰단》, 《견학단》, 《조사단》 등 각종 명색의 간판을 가진 수천명의 일본관리, 기업가들이 침략의 사도로서 분주히 남조선을 드나들고있다.

과거 조선을 착취략탈하던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도모》 등 일본의 이름난 독점재벌을 비롯하여 70여개 일본상사들이 남조선에 무동록거류하면서 치외법권적영리활동을 하고있다.

《미쯔비시》상사 하나만도 벌써 남조선의 40여개 상사들과 년간 2천 500만딸라에 달하는 상거래를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의 한개 수단으로서 《창가학회》,《천리교》 등 일본종교까지 남조선에 전파하여 친일사상을 고취하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사적측면에서 남조선에 재침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1962년 가을에 일본방위청은 남조선과의 《국교정상화》후 즉시 《서울에 방위주재관을 상주시킬 방침을 결정》(《도꾜신붕》 1962년 10월 1일) 하였으며 군사협력체계의 일환으로서 남조선군대의 병기를 수리보급하고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며 비상시에 조선해협을 공동봉쇄할것 등을 예견한 소위 《한일군사제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놓았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폭로된 일본방위청의 극비문건 《세개화살작전계획》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군과의 공동작전으로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하고 남조선에 일본군대를 파견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및 쏘련에 대한 공격작전을 진행할 준비까지 면밀히 추진시키고있다. (일본잡지 《에꼬노미스트》 1964년 10월 20일호)

일본군대는 조선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산악전을 가상한 대규모군사연습을 진행하고있으며 군대내에서 조선어교육까지 시키고있다. (일본잡지 《젱에이》 1962년 12월호)

이미 조선전쟁당시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수행을 적극 방조하였다.

일본은 미제침략군의 후방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본군대는 실제상 《지원병》의 명목으로 조선전쟁초기부터 출동하였다.

1950년 7월 27일 로이터통신은 2만 5천명의 일본군인이 미군을 위하여 조선에서 참전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일본정부는 재군국화를 더욱 급속히 추진시키고있다.

1966년에 끝나는 《제2차방위계획》에 의하면 일본의 병력은 현역륙군 13개사단, 해군함선 229척에 14만 3천 700톤, 공군 1,060대 등 총 29만 4천 500여명에 달할것이 예견되고있다.

현재 일본군대의 화력과 기동력은 전전 1936～1937년 수준에 비하여 각각 5배 내지 7배이상으로 증강되였다.

이러한 군비확장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출병》을 적극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에 교활하게 가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미 알려진바에만 의하더라도 800여명의 일본선원들을 남부웰남에 있는 미해군에 제공하였다. 이 일본해원들은 지난 3월 미해병대의 다낭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웰남신문 《인민》 1965년 4월 1일)

조선전쟁 때와같이 일본독점자본은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각종 전쟁물자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다.

오늘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이 《한일회담》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화를 촉진시키고 일본인민들을 미제의 침략정책의 희생물로 내몰며 아세아인끼리 싸우게하려는 미제의 범죄적흉모에 적극 가담하려는것은 조일량국인민들과 어제날 일제의 침략을 당하였던 모든 아세아나라 인민들 및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4)

전체 조선인민은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한일회담》을 첫날부터 견결히 반대하여왔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제국주의와의 침략적결탁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의 리익을 희생시키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적흥정의 롱락물로 삼고있는데 대하여 격분하고있다.

일찌기 60여년전 미국은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을 통하여 필리핀을 점유하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강점을 적극 지지하고 방조하였다. 오늘 미국은 또다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가능성을 보장하여주는 대가로 그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날로 더욱 조선에 대한 옛식민지통치의 《유익설》을 고창하며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을 다시 지배할데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분노를 폭발시키고있으며 일제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정희정권은 그 어느 선행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한일회담》을 추진시키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마음대로 남조선에 드나들어 정치, 경제,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배권을 수립할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있다.

박정희일당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야만적식민지략탈통치의 후과에 대한 조선인민의 막대한 배상청구권을 몇푼의 딸라를 받아 사복을 채우는데 충당함으로써 상쇄하려는것을 비롯하여 일본측의 온갖 간교한 술책과 강도적인 요구에 순응하여 조

선민족의 리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서슴없이 팔아넘기고있다.

박정희정권이 《한일회담》에서 일본과 가조인한 협정들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을 능가하는 매국협정이다.

박정희일당은 오직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 뒤흔들리는 그의 매국정권을 유지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어떤 추악한 매국배족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원래 박정희로 말하자면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부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군대장교로서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 적극 복무한 일제의 충실한 주구였다.

일제가 패망한후 미제가 남조선에 상륙하자 박정희는 곧 그의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였다. 박정희는 미국첩보기관의 장교로서 남조선군대내의 수많은 애국적장병들을 밀고하여 학살당하게 하였다.

1961년 5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여 남북조선간의 접촉과 협상의 기운이 성숙되였던 바로 그때에 박정희는 이를 진압할데 대한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남조선괴뢰정권을 총칼로써 탈취한 박정희일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여나섰던 모든 사회정치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학살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매국배족행위를 다 감행하고있다.

조선인민의 반역자이며 파쑈테로분자이며 미일제국주의의 주구로서의 박정희의 정체는 그가 1961년 11월 12일 미국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려 전 일본수상 기시 노부스께 등과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일본의 명치유신 때의 근왕파와 같은 정신에서 투쟁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명치유신의 력사를 연구하고있다. 나는 일본륙군사관학교의 졸업생인데 나는 굳센 군인을 기르기에는 일본의 방법이 가장 훌륭한것이라고 믿고있다.》(1961년11월 13일 《유피아이》)

《나는 정치를 모른다. 당신들에게서 배우고 싶다.》(1961년 11월 12일 《유피아이》)

심지어 박정희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부자지간》을 자처하는 것까지도 꺼려하지 않았다.

1962년 12월 박정희는 서울에서 일본자유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만났을때 오노가 《자네와 나는 형제지간》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형제지간이 아니라 부자지간》이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1962년 12월 14일)

그렇기때문에 1963년 2월 오노 반보꾸는 박정희의 소위 《대통령취임식》을 축하하러 서울에 갈 때 《박정희와는〈피차에 부자지간〉이라고 자인할만큼이나 친한 사이》이다. 《아들의 경사스러운 자리를 보게 된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라고 하였다. (《아사히신붕》 1963년 2월 2일)

1965년 5월 미국방문시에 박정희는 상전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어도 아세아에서 성조기와 더불어 언제까지나 함께 행동할 전우는 다름아닌 한국이리라》고 수치도 모르고 떠벌리였다. (워싱톤 5월 17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남부윁남침략전쟁에 남조선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남의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방해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규탄하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애국적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3월 20일 이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시위투쟁은 남조선의 여러 곳에서 경찰들의 탄압을 박차고 부단히 전개되고있다.

1964년 3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발단되였던 남조선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박정희매국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한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하였었다.

당시 2개월여에 걸쳐 전개된 이 투쟁에는 남조선의 42개지역에서 53개의 대학, 173개의 중고등학교학생들, 그리고 시민 등 31만여명이 참가하였다.

격노한 군중들은 《한일회담을 반대한다》, 《박정희정권을 타도하자》,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하지 말라》,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 《일본제국주의를 박살하라》고 절규하면서 적수공권으로 중무장한 경찰과 군대들을 물리치며 《국회의사당》으로, 《중앙청》으로 밀고 들어갔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두개 사단의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간신히 학생들과 인민들의 봉기를 진압하였으나 《한일회담》을 조속히 결속하려던 책동은 좌절되고 말았었다.

오늘 박정희도당의 처지는 그때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심화발전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박정희매국도당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것이다.

이상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한일회담》은 남조선과 일본간의 그 어떤 국교정상화만을 목적하고있는 그런 단순한 회담이 아니다.

《한일회담》은 조일량국인민에게 대해서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을 위협하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일대침략적공모의 일환이다.

조성된 정세는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며 재생한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책동의 위협성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의 박정희정권과 일본정부간에 《한일회담》에서 체결되

는 그 어떤협정도 무효로 인정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일량국인민들의 전반적리익에 다같이 배치되는 《한일회담》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미 가조인한 협정들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바와같이 조일량국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력사적현안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조일량국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게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할수 있는 통일된 조선인민의 정부가 수립된후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지고있는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일제의 남조선재침기도를 분쇄하며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하며 하루속히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오늘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인민들속에서도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아세아에서 붕괴되고있는 식민지체계를 구원할수 없으며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미 깨여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다시 꾸면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선다면 그들의 앞길에는 도조 히데기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있을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침략과 재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재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결의를 표명한다.

1965년 6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미제에 의한 조선침략전쟁도발 15주년과 관련하여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벌써 15년이 지났다.

전세계인민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바와같이 3년간이나 계속된 조선전쟁은 류례없이 가렬하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은 이 침략전쟁에 자기의 15개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여 온갖 만행을 다하면서 발악적으로 침공하였으나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결국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이미 12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재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미국은 정전후 전쟁의 화약냄새가 채 사라지기도전에 재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여왔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할뿐만아니라 극동과 아세아 및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전쟁도발의 범죄적진상을 다시금 밝히며 미국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각국 정부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범죄자이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후 미국은 일본을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전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아세아대륙과 사회주의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자주적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지향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갔다.

미국은 리승만을 사촉하여 북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계속 떠들어대는 한편 6.25 전쟁개시 오래전부터 38연선에 대병력을 집중시켜 빈번히 38선이북지역에 대한 도발적침공을 감행하였다.

서울해방시에 조선인민군이 리승만의 비밀문서고에서 입수한 많은 비밀문건들과 리승만괴뢰정부요인들의 발언과 기타 허다한 사실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여왔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1949년 9월 30일 리승만은 미국인 정치고문 로벨트 오리벨에게 보낸 비밀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당신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서한을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는 우리 환경에 대하여 당신에게 간단히라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이 공격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방어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되게 될 그때에는 우리의 처지가 100%로 좋게 될것입니다.

강과 백두산을 계선으로 한 지역적방어선은 만일 상당한 수효의 비행기와 이 두 강의 하구에 2~3개의 쾌속정과 또는 해안과 제주도를 방어할 전투비행기들을 가지게 된다면 불가침의 방어선으로 되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할것을 허락하여준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해결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리승만의 비밀문서고에서 입수한 문건들중에서)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리승만괴뢰군대의 증강에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은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에 1억 9천만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제공하였다.

전쟁준비의 일환으로 1950년 1월 26일 미국은 리승만괴뢰정부와 소위 《한미호상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도발할 군사적충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만들어놓았다.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얼마전인 1950년 5월 9일 《이. 씨. 에이》 한국원조처장 존슨은 미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미국의 무장으로 장비되고 미국인에 의하여 훈련된 10만명의 남조선군대장병들은 자기의 준비를 끝마쳤으며 임의의 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수 있다.》

미국의 전쟁도발준비는 1950년 상반년에 아주 급속도로 진척되였다.

1950년 2월 리승만은 일본에 있는 미극동사령부를 방문하여 맥아더로부터 동년 7월 이전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할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미군정시 씨. 아이. 씨 고문이였으며 리승만의 정치고문이던 문학봉의 발언에서)

이에 앞서 1950년 1월 중순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는 남조선 《국방장관》실에서 있은 회의에서 《북벌은 기정계획이다. 그리고 실천할 시기는 멀지 않았다. … 물론 이북에 대한 진공은 우리가 먼저 착수할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일층 더 추진시킬것을 지시하였다. (본회의 참가자인 리승만괴뢰정부의 전《내무부장관》 김효석의 발언에서)

1950년 6월 9일에는 38선 전연선 및 남조선전역에 《특별사찰경비》가 실시되고 11일에는 비상경비에 대한 남조선《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이 발포되고 13일에는 《준비상계엄령》이 선포되였다.

1950년 6월 중순 미국방장관 죤슨과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들리는 도꾜에 와서 미극동군총사령관 맥아더와 더불어 조선전쟁도발과 관련한 특별비밀회의를 련일 진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쟁상인 덜레스는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를 사명을 지니고 1950년 6월 17일 직접 남조선에 날아 들었다.

덜레스는 6월 18일 38선 일대를 시찰하면서 전호속에서 《북벌》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에 물심량면의 원조를 주기 위하여 준비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북조선에서 지배를 상실할것이다.》 (서울 1950년 6월 19일발 《유피》)라고 떠벌렸다.

38선에서 서울에 돌아간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시기가 성숙되였으니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 만약 2주일만 견디여 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서 유엔으로 하여금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리승만정부의 전《내무부장관》 김효석의 발언에서)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계획적으로 도발하였다는것은 그후에 드러난 여러가지 사실들에 의하여서도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미국기자 죤 간자는 1950년 6월 25일 일본에서 맥아더사령부의 한 장교가 그에게 《큰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북조선을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쓰고있다. (죤 간자 저 《맥아더의 수수께끼》 뉴욕 1951년)

1951년 6월 5일 미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무성예산에 관한 토의행정에서는 미국무성이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유엔에 제출할 《조선전쟁》에 관한 《결의안》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되였다.

즉 이 회의에서 당시의 유엔담당국무차관보 죤 히키슨은 상원의원 파가슨의 질문에 대답하여 조선전쟁이 일어나기전에 벌써 국무성은 이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가서 《어떤것을 이야기할것인가 하는것도 개략적으로는 정해 놓》았다고 실토하였다. (아이. 에프 스톤 《조선전쟁비밀사》 뉴욕 1952년)

미국잡지 《라이프》는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있은 례를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썼다. (《라이프》 1950년 8월호)

사실상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조선전쟁을 6월 25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였었다.

그들은 38선 이북에 대한 무장공격을 무수히 감행하는 한편 평화적주민들을 랍치, 학살하며 농

가에 방화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하여갔다.

1949년도에만도 이러한 무장침습사건은 1,836회나 발생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여주고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은 드디여 리승만도당을 사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리승만도당이 38선전역에 걸쳐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을 때 동족상잔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모한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조성된 긴박한 정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결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뒤집어쓰고 소위 《유엔의 경찰행동》이라는 구실밑에 미륙군의 3분의 1,공군의 5분의 1, 함대의 주요부분을 동원하는 한편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여 도합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전투기자재를 투입하여 전쟁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전례없는 야만적이며 파괴적인 전쟁을 진행하였다.

미국무력침공자들은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에 무차별폭격을 감행하며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국토를 황폐화하는것으로써 조선인민을 놀래우며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무수한 평화적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조선의 온강토는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인민의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미제는 북조선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기간에만도 수십만의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학살하였다.

미제는 리승만도당이 무력침공을 개시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부터 평화적주민지대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여 1951년말까지에는 평양을 비롯한 북반부의 각 도소재지와 시,군소재지들까지도 페허로 만들었다.

전쟁기간에 미국침략자들은 북조선에서 8천 700여동의 공장과 생산시설, 60여만호의 주택, 5천여개의 학교와 수천개소의 문화보건후생시설들을 파괴소각하였다.

지어 미제침략자들은 화학 및 세균 무기를 대량적으로 사용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만행으로써도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궐기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결국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는 미국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심대한 패배였다.

조선인민은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공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사회주의진영나라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특히 중국인민은 《항미원조》의 기치밑에 지원군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피로써 원조하였다.

미제침략자를 격파한 조선인민의 승리는 동시에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이다.

조선전쟁의 경험은 인민들이 단결하여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끝까지 용감히 투쟁한다면 그 어떤 간악한 제국주의침략자라도 능히 격파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2

미국은 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에서 정전이 성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후 시종일관 정전협정을 충실히 준수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은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지 못하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군사적강점을 지속하면서 침략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데 전적으로 기인된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광란적인 새 전쟁준비의 길에 들어섰다.

1953년 8월 8일 미국은 정전후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정한 정전협정을 배신하여 미군의 남조선《무기한주둔》을 예견한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리승만도당과 체결하였다.

미국측은 군사인원의 증강과 조선경외로부터의 증원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ㄷ, ㄹ 목을 각방으로 위반하면서 남조선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남조선군대는 1956년에 벌써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확장되여 그 병력은 70여만명으로 증강되였다.

미국측은 정전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한 남조선출입항들에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고있는 중립국시찰소조의 활동을 극력 저애하였으며 1956년 6월 동 소조를 남조선에서 축출하였다.

그리고 1957년 6월에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일방적폐기를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중립국시찰소조를 축출하고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일방적폐기를 선언한후 공개적으로 남조선에 원자 및 유도무기를 대량적으로 반입하였다.

1957년 미국은 《작전지휘의 단일화》를 기한다는 구실밑에 도꾜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켰으며 1957년 7~8월에 남조선주둔 미군사단들을 원자사단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동년 10월에는 일본주둔 미제1기갑사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이를 또한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그후 《오네스트존》로케트 및 280미리원자포대대와 유도탄《마타돌》전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나이크 헤르쿨레스》, 《호크》 및 《라크로스》유도탄을 비법반입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무력증강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미제8군사령부 대변인은 《남조선에 있는 이러한 원자병기는 백악관의 지령이 있는 차제 30분이내에 북조선내의 선정된 목표를 강타할 준비가 완전히 되였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59년 5월 3일)라고 공공연히 떠벌렸다.

이와 같이 미국측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강화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극력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이 예견되였으나 이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정치회의소집을 파탄시켰다.

그들은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된 1954년 제네바외상회의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극히 명백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항상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킨후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남북조선을 통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총선거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조선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조선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공화국정부는 통일문제해결의 방도를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남북조선당국자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협상할것을 주장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에 당장 응할수 없다면 남북간의 리해를 촉진시키며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의 하나로서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기하였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도 접수할수 없다면 당분간 정치문제를 제쳐놓고 남북조선간의 경제문화교류만이라도 실현함으로써 국토량단으로 인한 민족적고통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할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것을 루차 제의하였으며 그의 실천적모범으로써 조선인민군무력 8만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합리적인 방안들과 적극적인 조치들은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나아가서는 극동과 세계평화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서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촉하에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무조건 모조리 거부하였다.

지어 그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간의 서신거래, 남북조선주민들의 자유로운 래왕,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를 수습하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생활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호물자마저도 접수하는것을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부대를 계속 증강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군사징집과 군비확장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고있다.

1961년 6월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렘니쩌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수를 밝힌바에 의하더라도 1961년에 그것은 1만 5천여명이 더 증가되였다. (워싱톤 1961년 6월 14일발 《에이피》)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괴뢰정부로 하여금 소위 《국방력강화 4년계획》(1960～1963)에 따라 《징집적령》범위를 20～30세로부터 18～30세로 하고 《전시사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14～40세까지 이를 확장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병력증강과 함께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자기 군대와 남조선군대에 대한 신형장비의 공급을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군대에 《에스. 에스. 이 대전차유도탄》과 《오네스트존》로케트, 《호크》, 《나이크 헤르클레스》, 《싸이드 와인더》 등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를 이미 제공하였으며 구축함과 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대소함정과 대공유도탄을 장치한 《에프 5에이》형 제트전투기를 공급하였다. (남조선방송 《서울방송》 1965년 1월 21일,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2월 18일, 1965년 6월 7일 남조선통신 《동양》,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5년 3월 20일, 1965년 4월 21일 남조선통신 《동화》, 1965년 4월 5일 남조선통신 《합동》)

《유엔군》사령관 하우즈가 말한바에 의하더라도 미국은 1964년 1년동안에 남조선괴뢰군에 175미리포를 비롯하여 《호크》유도탄 등 신형무기와 2천 400대의 신형차량, 1척의 순시함, 4척의 쾌속정, 《에프 5에이》형 전투기들을 공급하였으며 광주와 수원에 새 군용비행장을 건설하였다. (1964년 12월 30일 남조선통신《합동》)

미국은 금년에 들어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있다.

1965년도에 미국은 남조선에 1억 5천만딸라의 군사원조(1965년 5월 18일 남조선통신 《합동》)를 제공할것을 예견하고있으며 지난 5월 22일 미국회 세출위원회는 남조선에서 군사기지건설비로 901만 8천딸라를 새로 지출할것을 승인하였다.

미국대통령 존슨은 1965년 5월 워싱톤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 강력한 미군을 계속 유지할것이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군과 련계하에 한국군을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지원할것》을 확약하였다. (워싱톤 1965년 5월 18일발 《유에스아이에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지속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새 전쟁도발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추진시키려하고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무력을 증강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있다.

미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근방에서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으며 비무장지대와 륙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에 대하여 엄중한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비무장지대와 우리측지역에 대하여 총포를 란사하며 군사인원과 무장간첩을 침입시켜 습격, 살인, 방화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며 우리측 령공에 군용비행기를 부단히 침입시켜 정찰행동과 도발적공격을 감행하며 우리측 연해에 각종 함선을 침입시켜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과 선박들을 습격하며 평화적어민들을 살해, 랍치하여가는 등 갖은 강도적만행을 다하고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성립된 이래 현재까지의 기간에 우리측에 대하여 감행한 이러한 각종 적대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조선군사정전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된것만 하여도 무려 3만 1천여건에 달하고있다.

무모한 도발책동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금년에 들어와서도 우리측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있다.

1965년 2월 10일 미국측 무장집단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하여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에 대하여 무장공격을 감행하였다.

1965년 4월 28일 《아르비—47》형, 5월 18일 《엘—19》형 미군정찰기들이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모두 격추되였다.

1965년 5월 26일, 27일 량일간에 걸쳐 미국측 경호함 2척, 소해정 1척, 중형상륙함 1척이 우리측 령해에 침입하여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부단한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조선정전은 더욱더 불안전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조선에서의 사태의 엄중성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은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수습하며 아세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행할 목적으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일본과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결탁케 하려는 범죄적음모책동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미국이 박정희도당과 일본반동들로 하여금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일련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게 한것도 주요하게는 일본, 남조선 기타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일본을 아세아침

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데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배층은 이에 대하여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1963년 9월 미국무차관 번디는 일본과 남조선을 방문한 다음 《일단 38선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무장력량이 출동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동년 12월 일본자유민주당출신 국회의원 나까가와 이찌로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은 반드시 자기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될것》이라고 떠벌렸다.

1965년 1월 미국대통령 존슨과 일본수상 사또간에 진행된 워싱톤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정식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금년 2월 일본국회에서 폭로된 196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전 미국방차관 길패트릭 등 미군사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일본방위청통합참모회의에서 비밀리에 연구작성된 《세개화살작전계획》은 이를 더욱 명백히 실증해 주고있다.

이 범죄적계획은 공군력과 대륙간탄도탄 및 폴라리스잠수함의 3대 공격력에 의거하여 아세아대륙을 침공할것을 예견한 미국의 《세개화살작전》계획의 일환으로서 미제의 지휘하에 일본《자위대》가 남조선괴뢰군과 합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를 규정하고있다.

이 계획이 폭로되자 일본수상 사또는 이 사실을 극력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방위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공언하였으며 이 계획작성자중의 한 사람인 이전 일본륙군중장 다나까 요시오는 이 계획이 결코 《공상적계획》이 아니라 《실천적계획》이라고 떠벌렸다.

이것은 미국이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공모하에 아세아에서 새 전쟁도발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고있다는것을 확증해 주고있다.

미국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남조선을 자기의 유일적군사지휘체계하에 놓고 각종 형식으로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박정희도당을 군사적으로 결탁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진행할때마다 미국은 일본《자위대》도 동일한 전투태세를 취하게 하고있다.

일본잡지 《세까이》가 《현실적으로 일본과 남조선 그리고 오끼나와는 미제5공군의 관할하에 놓여있다.

이로부터 벌써 좋전쉽전간에 일본과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련결되여있다.》(일본잡지 《세까이》 1964년 2월호)고 쓰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오늘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락되고있으며 조선과 극동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오늘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일층 격화시키고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로서 군림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류례없는 가혹한 탄압과 민족적멸시와 비인도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정전후 《북으로부터 남침의 위협》과 《공산주의위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에서 그의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은 그의 식민지통치도구인 리승만괴뢰정권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격당하게 되자 군사경찰통치의 강화와 《북진통일》의 소란스러운 전쟁소동으로써 이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1960년 4월 남조선에서 전인민적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타도된후 미국은 리승만《정권》을 조작하던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장면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부추겨 세우기에 갖은 애를 다 썼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교활한 책동도 남조선에서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었다.

1961년 5월 미국은 재생활과 재정치를 요구하여 궐기한 남조선인민의 투쟁이 계속 앙양되자 《유엔의 감시하의 선거》에 의한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하던 장면《정권》을 전복하고 공공연한 군사파쑈테로통치에로 넘어갔다.

군사정변후 미제와 군사파쑈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켰으며 언론출판기관들을 폐쇄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나선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으며 극형에 처하였다.

미제와 군사파쑈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야만적탄압과 범죄행위는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박정희도당이 총검으로 정권을 탈취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군사파쑈통치로써도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63년 11월 《민정이양》극을 벌려놓고 군사파쑈도당을 사복으로 갈아입혀 괴뢰정권에 계속 들어앉혔다.

《민정이양》후 박정희괴뢰정권의 살벌한 군사파쑈통치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의 폭압속에서 남조선은 더욱 무시무시한 공포와 암흑의 천지로 전변되였다.

지난 2년간 미제와 박정희정권은 남조선에서 군대, 경찰, 감옥을 대대적으로 증설확장하였으며 남조선천지를 첩보망으로 뒤덮어놓았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조선전역에 박아넣은 특무들의 수는 무려 37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박정희파쑈정권의 폭압하에서 남조선사회는 병영으로 전환되였으며 인민들은 그 어떤 사소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고사하고 보고 듣고 말할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고있다.

외국출판물들도 박정희파쑈정권의 탄압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립장에 서서 본 자료 이외》 그 어떠한 국제국내정세도 《알아서는 안되도록 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지난 3월에 파견된 2천명의 한국부대중 이미 두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1개 중대가 멀지않아 증파된다.

1~2개 사단을 증파한다는 소문도 집요하게 류포되고있다.

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여진다.

〈부산일보〉라는 신문이 일본 〈마이니찌신붕〉에 련재된 기자 버체트의 베트콩종군기를 전재하였다는 리유로 편집국장이 체포되였다.》 (일본신문 《마이니찌신붕》 1965년 6월 16일)

군사정변후 간신히 남아있는 언론출판기관마저 각종 구실밑에 강제로 페쇄당하고있다.

1964년 상반기에만 하여도 박정희도당은 《사이비언론에 대한 재정비》라는 명목밑에 44개의 출판사에 대하여 정간 또는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37개의 출판사에 경고처분을 가하였다.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4년 7월 25일)

박정희파쑈도당들은 《반공》과 《승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말만하여도 혹독하게 탄압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가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돌아간 미국경제학자 마이켈 뭉그가 《한국은 급속히 공업화되고 있는 북조선으로부터 고립한다는 고가의 희생을 금후에도 갚지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은 북조선에 도망치려한 자에게는 7년의 징역을, 북조선도망에 성공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자에게는 10년의 징역을 규정하고있음)

그리고 또한 한국은 곤난에 허덕이는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생활향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되여있는 통일운동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못하게 금지하고있다.》 (일본잡지 《세까이》 1962년 5월호)고 한데서도 알수 있다.

그들은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으로 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애국적인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였다.

1964년 6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만명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최루탄과 총포를 란사하며 닥치는대로 수많은 인민들을 검거투옥하였다. 《에이피》 통신이 전하는바에 의하더라도 《계엄령》이 선포된 1주일동안에 무려 6천 300여명의 인민들이 검거투옥되였다. (서울 1964년 6월 10일발 《에이피》)

가혹한 탄압하에 있는 남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남조선잡지 《사상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름아닌 자기 나라의 국가적리익을 위하여 시위에 나섰던 어린 학생이 백주에 경찰의 곤봉에 맞아 죽어야 하는것이 지금 이 땅의 암담한 현실이다. …슬프게도 〈근대화〉의 슬로간을 팔아먹는 박정권은 4년간에 근대화된 것이라고는 정보정치법과 부패의 수법과 민중억압의 기술밖에 없다…무수한 〈부정과 부패〉는 바로 이 정권의 상징이 되고말았다.

오늘 이 사회에 정치적불안정이 있다면 그 책임은 모름지기 이 정권자신에게 돌려야 하는것이다. 오늘 이 나라가 가는 길은…바로 파멸과 예속의 길이다.》(남조선잡지 《사상계》 1965년 6월호)

오늘 남조선땅은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의 폭압속에서 문자그대로 숨막히는 식민지감옥으로 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온갖 민족적멸시와 비인도적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미군이 짓밟은 조선땅에는 원한 많은 조선인민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있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인민에 대한 살상폭행을 일상사로 삼아왔다.

아무 리유없이 미군에 의하여 민족적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상당한 조선인민의 수효는 일일이 헤아릴수 없다.

벌써 조선전쟁전인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독립을 요구한다하여 무려 10만 9천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기간에 조선인민을 굴복시켜 보려고 일찌기 력사상 류례드문 야만적인 전쟁범죄행위를 감행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기간에 감행한 가지가지의 전률할 만행은 히틀러도당을 릉가하는것이였다.

조선정전후에도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강간, 재물략탈 등 각종 만행을 제멋대로 감행하고있다.

인종우월감과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사람들에게 아무 까닭도 없이 총질을 하며 심지어 주민들을 사격연습과 야수적인 렵기심을 충족시키는 목표로 삼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이 보도한 사실중 몇가지만 들어도 다음과 같다.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안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제1기갑사단 8련대 디중대소속 하사

토니 외 수십명의 미군은 40여명의 나무군들을 《포위하여…흡사 오리사냥하듯》 렵총과 《엠원》 총으로 마구 사격하여 그중 황광길(25세)과 류기용(28세)을 죽였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1962년 2월 10—11일) 1963년 11월 21일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곳 주민들이 나무하러 마을 뒤산에 올라간것을 보고 과녁삼아 원자포탄을 발사하여 유길섭(25세), 박덕규(40세), 리영철(20세), 전두복(27세), 장복계(20세)등 5명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고 10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1963년 11월 22일, 《조선일보》 1963년 11월 22일)

인간살륙과 략탈과 패덕에 습성이 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부녀자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1959년 12월 31일 미제7사단 40전차대소속 중대장 토마스일당은 막사의 근처를 지나가던 조선녀성 2명을 캄캄한 창고에 몰아넣고 가죽채로 무수히 때린 다음 그들의 옷을 벗기고 등과 하반신에 황색뼁끼칠을 하여 부대밖으로 내쫓았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0년 1월 19일)

1963년 6월 30일 미군 1등병 데크 등 3명은 길가는 처녀 윤모(19세)를 랍치하여 미군부대까지 끌고가서 륜간하였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3년 7월 12일)

미제침략군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주민가옥들과 부락을 습격하고 가장집물을 략탈하며 상점에 뛰여들어 상품을 강탈하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1957년 4월 16일 파주에서 미제24사단 헌병중대장 스미스는 자기 대원 80명을 총동원하여 부근 부락을 습격하고 집단적강탈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185세대의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가재도구들을 모조리 군수품이라고 규정하고 총 2천 324점의 재물을 략탈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57년 4월 23일)

1965년 3월 28일 미군 제1기갑사단의 상등병 텐리서와 1등병 아이세스터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있는 한 조선인 식당에 뛰여들어 행패를 부리면서 연거퍼 두개의 최루탄을 발사하였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3월 30일)

이상의 몇개 사실들은 정전이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무수한 만행들중의 일부 실례들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군의 폭행은 계속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하여 얼마나 극악한 비인간적방법으로 살상폭행을 함부로 감행하고있는가하는것은 남조선 《인권옹호협회》가 보도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똑똑히 알수 있다.

《피해자 리씨…는 씨중대 철조망밖을 거닐었다. …미군인 7～8명은 리씨를 짚차에 짐짝같이 싣고 올라타서 때리며 중대사무실까지 옮겨갔다. 그 곳에서 세멘트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발로 가슴과 손을 내리 밟았다. 그때 졸도하여 15분간 의식이 없었다. 미중위들은 리씨를 로프로 목을 매여 중대사무실 문지방에 매달고 총가목, 권총으로 후려갈겼다. 또다시 실신하였다.

모진 매에도 부족한지 그들은 발가벗겨 거꾸로 전주에 매달고 얼굴과 배에는 겨자같은것을 발랐다. 땅에 닿아 아픔을 참느라고 흙을 움켜잡으니 손밑에 돌을 깔고 손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고하여 발굽으로 내리찍었다. 》(서울 1962년 6월 1일발 남조선통신 《동양》)

보는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감행하고있는 만행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아메리카대륙에서 토착민을 살륙한 그 야만성과 노예매매를 일삼던 그 잔인성과 오늘 미국내에서 벌어지고있는 인종차별의 악습에 물젖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전률할 만행도 당연한것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거기에서 희열을 찾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당국은 자기 휘하 장령들의 이 극악무도한 야수적만행을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묘사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모욕적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있다.

이것이 바로 《원조》와 《선의의 조력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진면모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한 남조선인민은 단 하루라도 편안한 날을 보낼수 없다.

4

오늘 남조선은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파국을 겪고있으며 민생고는 더욱 가중되고있다.

미국의 식민지략탈정책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남조선은 미국의 잉여상품시장으로, 원료원천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백만의 미국딸라가 해마다 한국에 배당되였다. 그러나 남한은 오늘 배부른 나라로 되기는 고사하고 한심하게 가난한 나라로 되였다. 200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과 같은 도시에는 실업자가 들어찼으며 농촌에는 식량부족 파국 불행이 휩쓸고있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 1964년 7월 15일)

공업은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으로 인하여 계속 생산이 감퇴되고있으며 파산의 위기에 처하여있다.

남조선공업의 9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중소기업육성책》을 운운하였으나 《육성은 고

사하고 스스로 잡아먹는 격이되여》(남조선신문 《산업경제신문》 1965년 4월 19일) 현재 중소기업체의 가동률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서울 1965년 3월 3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그리하여 남조선공업의 생산수준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보잘것 없었던 그것에 비해서 85% 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농촌경리도 더욱 황페화되였다.

미군에 의한 농토징발, 농업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남조선 경지면적은 1962년에 해방전 1945년에 비하여 20만정보나 축감되였으며(남조선년감 《조선경제년보》 1948년판, 남조선잡지 《한국경제》 1963년 3월) 파종면적은 1930—1936년간의 평균면적보다 40만정보나 감소되였다. (남조선년감 《농업년감》 1961년,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3년 3월10일)

남조선농촌경리는 아무런 물질기술적토대도 없는 원시적상태에 있는바 논면적중 관개수리답은 겨우 19%이며 《농민들이 사용하고있는호미, 쟁기, 괭이 등 상비농기구는 1000년도 이전에 물려받은 거의 그대로의 것》이며 (남조선신문 《부산일보》 1964년 3월 23일) 영농방법은 《원시적인…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신문《조선일보》 1963년 3월 12일)

그러나 남조선괴뢰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으며 《다만 하늘만 쳐다보고 요행에 기대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남조선신문 《산업경제신문》 1965년 5월 27일)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농업은 자그마한 가물과 홍수에도 피해를 면할수 없으며 금년도같은 한발에 벌써 남조선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흉작중에도 대흉이 들어 혹여나 굶어죽는다는 아우성이 나오지 않을가 하는〈기근공포〉가…앞서》 고있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5월 18일)

남조선《농업연구회장》 주석균도 인정한바와 같이 해방전에는 평균 800만석(약 120만톤)의 쌀을 수출하던 농업한국이…1964년 미곡년도에서조차 외곡 750만석(112만톤)을 도입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잡지 《비지네스》 1964년 8월)

남조선은 해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춘궁》을 겪고있을뿐만아니라 수확이 끝난 가을에 벌써 식량이 떨어져 《동궁》을 겪어야 하는 참상을 빚어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2월 농촌에서 당장 구호를 기다리는 절량농민의 수효는 70만세대에 달한다고 하였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5년 2월 16일)

현재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은 700만의 실업자와 반실업자들로 넘치고있으며 102만 3천여명의 결식아동들이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5년 2월 16일)

남조선경제의 파탄상은 항시적인 인플레의 위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금년 5월 중순에 벌써 남조선당국이 정한 《통화억제선》인 485억원을 25억원이나 넘어선 510억원대로 팽창하였다. (1965년 6월 1일 남조선통신 《합동》)

설상가상으로 남조선경제는 미국이 작년 5월 미국딸라와 남조선화폐 원과의 환률을 130대 1로부터 255대 1로 대폭 인상한데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물가의 《상승지수는 살인적이라는 국민의 원성이 매일같이 높아가고있》으며 《못사는 사람들에겐 실로 죽느냐사느냐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5월 15일)

경제는 파괴되고 일자리는 없고 실업자만 늘어나는 조건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년간소득은 1인당 40딸라 미만으로서 《세계 최하위》수준에 있으며 《어민의 경우에는 불과 29딸라밖에 안되는 한심한 처지에 있다. (남조선신문 《부산일보》1964년 4월 9일)

일본신문 《산께이신붕》은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에 대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는 한국, 거리에 범람하는 거지들》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에 한걸음 발을 들여놓으면 깜짝 놀란다. 그것은 거지가 하두 많기 때문이다. 그것도 네살정도로부터 중학생까지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

〈…아침 일찌기 서울시내의 주조업자집앞을 지나가보니 2~30명의 주부들이 손에 사발을 들고 렬을 짓고있었다. 술찌끼를 얻으려왔다고 주부들은 말한다.

쌀을 구할수 없으므로 이것을 밥대신에 먹고있는것이다.

…사정은 지방에서도 매한가지이다. …〉

식사는 보리가루에다 나무순이나 풀을 섞어서 끓인 죽이 대부분이다. 지방어린이들의 80%가 결식아동들이다. 그러므로 영양실조로 몸이 누렇게 부어오른 어린이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이런 생활이 벌써 몇년간 계속되였는가, 리승만정권이 타도되여 4년 2개월간 특히 3년전에 군사혁명이 있은후 날이 갈수록 생활은 악화되고있다. 군사혁명정부는 민생고해결을 공약했지만 그 결과는 이꼴이다. 더는 참을수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일본신문 《산께이신붕》 1964년 6월 5일)

남조선잡지 《신세계》도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한국에서 볼수 있는것은 자유세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압축해 놓은〈빈곤과 락망의 전형〉을 볼수 있을따름이다.》(남조선잡지 《신세계》 1963년 12월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 대한 수탈만 일삼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새 전쟁준비와 70만명의 괴뢰군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지출을 부단히 증대시

키고있으며 인민들을 더욱더 출혈적으로 략탈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직접적군사비는 1963년에 1954년에 비하여 3.6배로 증가하였으며 남조선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964년에 27%, 1965년에는 33%였다. (《한국은행조사월보》 1963년 5호,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3월 6일) 인민들로부터의 각종 조세수탈은 1963년에 316억원, 1964년에 350억원, 1965년에 421억원에 달하였다.

실로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것이지 결코 《사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4년 12월 12일)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극도의 생활고는 남조선사회에서 가지가지의 참극을 빚어내고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은 남조선사회에서는 예상사와 같이 벌어지고있으며 지어 자기의 몸과 귀여운 자식마저 매매하는 참담한 인간비극이 도처에서 속출하고있다. 이러한 참상의 일단에 대하여 남조선신문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올해 들어 3월 초순까지 시내 여러 병원 안과에는 눈을 팔겠다고 말해오는 사람이 많아 서글픈 세상을 반영하고있다. …자기의 멀쩡한 눈을 사 주기를 바라고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에 쪼들며 살아갈수 없으므로 눈이라도 팔아서 목숨을 이어 나가야 하겠다는것을 그 동기로 삼는다고 전한다. …생활밑천이 될수 있는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은 그것이 그 사람만이 걸머져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느껴야 할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정치행정이 잘못된 조치요 필경은 위정자에게 책임있는것이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1964년 3월 16일)

오늘 남조선경제의 혹심한 파국과 극심한 생활고는 바로 미제의 20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의 직접적결과이다.

미국이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에서 략탈한 재부의 총액은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의 《경제원조》의 2.4배에 해당하는 80억딸라에 달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은 실로 수백억딸라에 달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남조선경제를 미국경제에 완전히 예속시켰으며 그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군사적부속물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신문들도 남조선의 경제의 예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우리 나라는 스무해동안 37억딸라라는 어마어마한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고도 자립경제는 커녕 예산의 40%,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불구자로 되였다.》, 《잉여농산물도입이 조금만 늦어지면 국민의 식생활에 혼란이 일어나고 2천만딸라정도만 원조가 감액되면 정치, 경제의 불안이 심각해지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소비시장으로 화해 간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5년 1월 16일)

미국의 《원조》야말로 남조선을 략탈하고 예속화하는 미끼이며 수단이라는것은 남조선출판물들에서도 광범히 인정되고있다. 잡지 《신세계》는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과오는 이 땅에다 자립자활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원조가 아니라…만년토록 남에게 의존하는 타성을 순치시키는 무서운 독소를 내포한 그런 원조를 주어온 그것이였다.》(남조선잡지 《신세계》 1963년 12월호)고 하였다.

잡지 《사상계》는 《〈미국의 대외원조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데 있어 꼭 중요한 무기〉이며 따라서 원조는 원조국을 위한것이지 수원국을 위한것이 아니다. …수원국은 원조국의 현대판식민지에 불과하다.

…원조는 새로운 식민지지배방법에 대응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남조선잡지 《사상계》1964년 1월호)

미국은 《원조》의 미명하에 남조선에서 막대한 자원을 략탈하고 민족경제를 파괴하였을뿐만아니라 민족문화를 여지없이 말살하였다.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문화의 침습으로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은 말살되고 고귀한 문화유산은 계속 파괴략탈당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있다.

《자기를 상실하고 남의 가락에 정신없이 춤을 추고있는 꼭두각시의 생활 이것은 바로 식민지적생활양식에 물들어가는 서글픈 한국의 한가닥 자화상이다. …

우리 사회를 냉정히 돌려보면 정치, 경제, 학문,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의 식민지근성이 나날이 뿌리를 펼쳐가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식민지적풍조는 이제 구석구석으로 뻗어갔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5년 1월 19일)

살인강도, 절도, 폭행, 사기, 횡령, 패륜, 패덕 등 온갖 사회악이 오늘 남조선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 〈민생고〉의 해결, 〈부패일소〉 등 화려한 구호를 내세웠으나 〈이 공약은 간곳 없고〉 〈부정과 부패〉는 박정권 4년간에 고질화되여 이제는 풍토병으로 간주되여가고있다.》(남조선신문 《령남일보》 1965년 5월 16일)

오늘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인민들이 살아나갈수 없는 암흑세계로 전변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 경제적 파국과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에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겪은 실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는한 오늘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수없다는것을 확신하게된 남조선인민들은 자생자결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반미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남조선전역에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남조선각계층인민들은 강력한 반미반일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

투쟁에 궐기한 그들은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 《일본제국주의는 물러가라!》, 《박정권을 타도하라!》, 《민족분렬을 일삼는 독재정권은 물러가라!》, 《4.19정신으로 민족단결을!》 절규하면서 괴뢰정권의 본거인 《중앙청》과 《청와대》로 육박하였다. 남조선 인민의 이 투쟁은 미제와 박정희파쑈정권의 폭압하에서 쌓이고쌓인 울분의 폭발이며 남조선에서 20년간 미국이 실시하여온 식민지략탈정책에 대한 강력한 전민족적분노의 표시이다.

미제는 남조선인민의 애국투쟁을 박정희괴뢰정권의 총검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떤 횡포한 탄압과 흉책도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의 붕괴를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반미감정의 불길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열망을 억누를수 없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며 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여온 미국침략자들은 그가 감행한 모든 범죄적행위에 대하여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야 말것이다.

5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자이며 박정희괴뢰정권은 그의 식민지통치도구이며 아세아침략의 하수인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지배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은 미국의 통치기구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미국《대사관》, 《주한미국제개발처》,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부 등에 집중되여있다.

실지에 있어서 오늘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은 사실상의 총독부이며 《주한미국제개발처》는 남조선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자이며 《유엔군사령부》는 남조선괴뢰군을 통솔하는 미국의 군사집단이다.

외국출판물까지도 《오늘 주한미대사관은 〈조선총독부〉》이며 《유솜》(《주한미국제개발처》의 전신인 《주한 미 경제협조처》)은 《동양척식》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신문 《마이니찌신붕》 1965년 6월 16일)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하나도 미국침략자들의 간섭의 손이 뻗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그들의 지휘와 감독없이는 크고 적고간에 어느 한문제도 처리될수 없다.

미국대사는 괴뢰정부로부터 《국방문제전반에 걸친 현황》을 보고받으며(서울 1964년 9월 8일발 남조선통신 《동양》) 《각지방도청에서 도정에 관한 브리핑》까지 직접 듣고있다. (서울 1964년 6월 1일발 남조선통신《동양》)

심지어 미국대사는 남조선《정부》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통제감시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거일동에 뒤따라 다니고있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합법적정부》라고 하는 남조선괴뢰정권의 국무총리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1일간의 지방시찰을 할것이며 그때마다 버거대사와 동행》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있다. (서울 1964년 5월 15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남조선괴뢰정권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 국가예산의 수립과 생산활동을 진행할수 없으며 지어 전기료금이나 담배값을 제정하는 것마저 미국의 결재없이 제마음대로 할수 없다.

《뉴욕타임스》기자도 《미국정부는 이 나라를 크게 좌우할수 있는 경제원조라는 무기를 휘여잡고있다》고 썼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3년 4월 6일)

금년도 남조선의 소위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한미경제협력위원회》에서 《통화량한도》와 《외화보유고한도》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남조선통신들은 전하였다. (서울 1965년 5월 15일 발 남조선통신 《동화》)

외국출판물들도 《한국정부는 원조자금분배위원회에 지나지 않았다. 주한 미경제협조처가 한국의 막뒤에 숨어있는 정부》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잡지 《쥬오고롱》 1962년 2월호)

미국이 남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하였으며 남조선《정권》이 미국의 수중에 장악된 순전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그들간에 체결된 각종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1948년 9월에 체결된《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은 《재조선 미군정청의 일체의 현행법률, 법령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의무를 괴뢰정권에 지우고 《미국정부가 재한국재산 및 그 첨부물을 취득》할것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략탈을 《합법화》하였다.

1956년 11월에 체결된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1년 2월에 체결된 《한미경제 및 기술협정》은 남조선에서 일체 자원의 처리와 생산 및 배급의 통제, 통화의 발행과 재정 및 신용에 대한 통제, 외화의 거래와 일체 수출입에 대한 통제, 미곡의 강제수집과 량곡배급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남조선경제생활전반에 대한 관리권은 물론 치외법권적인 특권까지 행사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950년 7월 미국과 남조선 당국간에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국은 남조선군

대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다.

오늘 미국은 군사고문들을 남조선괴뢰군의 련대급에까지 배치하고 남조선군대의 편성과 장비, 그의 이동과 배치, 장교의 승진과 사병의 휴가승인에 이르기까지 통제감독하고있다. 이러한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약과 협정들은 1948년 남조선괴뢰정권이 수립된 이래 무려 60여건이나 된다. 이 《조약》과 《협정》들에 의하여 미국은 남조선괴뢰정권을 철저히 얽매여놓고있으며 남조선괴뢰정권은 미국상전의 지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은 미국이 제아무리 유엔의 간판까지 도용해가면서 남조선괴뢰정권을 《대의제정부》니 《합법적정부》니 하고 미화분식하여도 박정희괴뢰정권이 미국상전의 지시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가릴수 없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통치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세아침략의 적극적인 하수인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그것은 박정희도당이 리승만《정권》때로부터 시작하여 10여년 이상이나 끌어오던 범죄적《한일회담》을 드디여 결속시킨데 의해서도 여실히 폭로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제2의 리완용이 되고 역적소리를 듣더라도 한일회담만은 꼭 끝을 맺겠다.》(남조선잡지 《사상계》 1963년 9호)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여 궐기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미국과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조선과 전아세아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매국문서에 도장을 찍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는 금년 5월 미국방문시 《적어도 아세아에서 성조기와 더불어 언제까지나 함께 행동할 전우는 다름아닌 한국》 (워싱톤 1965년 5월 17일발 남조선통신 《동화》)이라고하면서 웰남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남부웰남에 이미 2천여명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계속하여 수만의 병력을 증파할 흉책을 꾸미고있다.

오늘 박정희괴뢰정권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흉악한 원쑤로 등장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대가정에 끼여들어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1958년 인도네시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반란도당들이 반혁명반란을 일으켰을 때 남조선괴뢰정권은 반란도당들을 지지하여 지원병을 파견할데 대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62년 4월 박정희 《정권》은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인도네시아와의 분쟁이 확대된다면 한국정부는 말레이시아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보낼 용의가 있다》느니 인도네시아의 반말레이시아대결정책은 《령토확장을 노리는 인도네시아신제국주의》라느니 하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떠선 인도네시아인민들을 중상위협하였다.

또한 그들은 캄보쟈가 미국의 침략적《원조》와 간섭을 용감히 배격하여나섰을 때에 《캄보쟈는 비교적 소국이요, 저개발국가인 까닭에 타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있는 국가》라고 하면서 캄보쟈를 비방하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찬양하였다.

1956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3개국이 애급에 침공하였을 때 남조선괴뢰정권은 애급인민을 반대하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지지하여 《지원군》을 파견할것이라고 떠들었다.

박정희《정권》은 이스라엘과 대사를 교환하고 그와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의 군부가 이웃 아랍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사기, 훈련, 지휘능력 면에서 우수한 덕분에 아랍권세계를 견디여낼수 있었던것이다…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대무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있다》 (남조선신문 《령남일보》 1965년 4월 1일)고 떠벌리면서 아랍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박정희《정권》은 꽁고(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지지하고있으며 꽁고인민들과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숌베에 대하여 《사실 아직 꽁고에서는 숌베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드물다》(남조선잡지 《사상계》 1964년 8호)고 하면서 그를 부축하기에 급급하고있다.

지어 박정희도당은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하여 갖은 인종적멸시와 모독을 가하고있다.

그들은 아프리카제국들이 《워낙 새까만 사회이니 정치, 경제, 문화의 뚜렷한 선은 없다…그런데 검둥이는 건망증이 심해서 셈을 셀수가 없고 장사는 못할 민족이다. 아프리카 대통령치고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은 없다…아프리카사람들은 아직 미개하여 99%는 맨발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도, 예술도 없다…문맹은 전체 인구의 100% 정도이다. 뿐만아니라 력사도 없는 민족이며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호적등본도 없다》(지난 4월 아프리카제국을 순방한 괴뢰사절단성원인 한대영의 귀한보고에서)고 중상비방하였다.

조선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반역과 모독행위는 남조선괴뢰정권이야말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충실한 침략도구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 *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전쟁이 도발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가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조선의 평화적통일과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정책에 있다.

미국은 정전후에도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않고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각방으로 반대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엄중한 정치경제적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항상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실시되는 자유로운 총선거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모조리 거부케 하고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며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할 목적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범죄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남조선괴뢰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에 《조약》과 《협정》을 체결케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미국은 침략적인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최종적으로 결속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미제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를 교란하며 파괴하는 장본인이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킴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으며 조선의 평화적통일도 실현될수 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야 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한일회담》을 통하여 박정희도당과 일본정부간에 비법적으로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반대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괴뢰경찰의 가혹한 탄압을 박차고 용감히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고 확신한다.

1965년 6월 2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일본반동정부와 박정희도당이 범죄적《한일회담》을 결속하고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에 정식으로 조인한것과 관련하여)

1965년 6월 22일 일본정부와 박정희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와 조일량국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디여 범죄적《한일회담》을 결속하고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금번 박정희도당과 일본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은 미제가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저애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식민지예속상태에 얽매여놓으려는 음모책동의 일환이다.

《한일회담》의 직접적조정자는 미제국주의자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던 때인 1951년에 일본반동과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한일회담》을 벌려놓게 하고 그후 이를 결속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체계를 수습하며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교살하며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우며 그를 골간으로 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할 목적으로 《한일회담》을 조작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남조선재침을 저들의 해외침략의 첫걸음으로 간주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광분하여왔다.

원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강대세력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을 감행하는데 습성화되였다.

일찌기 1902년 《일영동맹》을 체결한 일제는 영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을 감행하였으며 1905년에는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을 맺고 미제의 지원하에 조선을 침략하고 혹독한 중세기적인 탄압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1940년 파시스트 독일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아세아나라들을 강점하고 이 지역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늘은 미국과 결탁하여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또다시 아세아재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그리고 일본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이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금번 《한일회담》에서 박정희도당과 일본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이 무효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일본정부와 박정희도당간에 조인된 《조약》과 《협정》들은 조일량국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고 량국인민의 전반적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미해결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일본정부가 조일량국간의 관계를 진정으로 조일량국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게 또한 아세아와 세계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공명정대하게 해결하려한다면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박정희도당과 공모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이 아니라 응당 조선이 통일된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끝내 조일량국간의 현안문제를 남조선당국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범죄적음모책동을 감행하였다.

금번 조인된 《대일재산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야만적식민지통치의 후과에 대한 조선인민의 막대한 배상청구권을 박정희도당에게 단 몇푼을 던져주는것으로써 흥정하여 버렸다.

그것마저도 《경제협력》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일본정부는 배상의무로부터 벗어날뿐만아니라 《원조자》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어 저들의 팽창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민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인적물적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리행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대일재산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본당국과 박정희도당사이에 주고받는것은 사적금전거래에 불과하며 결코 배상금의 지불로 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일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는것을 일본정부에 거듭 경고한다.

일본정부는 《어업협정》조인을 통하여 조선의 전통적어장을 독점하고 대대적으로 수산자원을 략탈하며 남조선해역에서 공공연한 해적행위를 할수 있게 《합법화》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 100만 명 세어민의 생명선인 광대한 수역의 어장을 불과 몇딸라의 《어업차관》을 받는 대가로 일제에게 팔아넘겼을뿐만아니라 일본무장선박과 항공기들이 남조선해역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함으로써 그 수역을 일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군사적목적의 실현에 내맡기려하고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어장과 령해에 관한 문제인 《어업문제》는 조선인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한일회담》과 같은 매국흥정판에서 론의될수 없다.

조선인민은 령해에 대한 주권과 자기의 어업권을 당당히 행사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조선인민의 령토인 독도를 빼앗으려하고있으며 박정희도당은 그것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내주려하고있다.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고유하고 신성한 령토이다.

일본정부는 《재일 교포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을 포함한 재일 동포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정치적박해를 가하며 나아가서는 마음대로 추방탄압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 《협정》에 《대우》라는 문구삽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기만술책이다.

박정희도당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일제에게 팔아넘기였을뿐만아니라 그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고 괴뢰정권《국내법》을 적용시켜 남조선괴뢰군징집의 원천으로 삼으려하고있다.

이것은 재일 조선공민들을 사분오렬하려는 행동이며 일본정부가 재일 조선공민들을 보호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며 그들을 박정희도당에게 떠넘기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일본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도의적책임을 다 행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하여 응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 과거 조선을 침략한 죄

파로부터 벗어나며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들어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고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이 《조약》과 《협정》들에서 일제와의 결탁을 《합법화》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과 일본을 지주로 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기구를 조작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닦아주었다.

금번 《한일회담》에서 일본정부와 박정희도당간에 조인된 《조약》과 《협정》들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협잡문건들이다.

박정희일당은 이 문건들에 조인함으로써 자기들의 무너져가는 괴뢰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며 사리와 사욕을 채우려는 야망으로부터 옛상전앞에 굴종과 구걸을 거듭하면서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도당이야말로 을사오적을 릉가하는 극악한 매국역적들이다.

조선인민은 박정희도당의 이 매국배족행위에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일회담》에서 날조된 추악한 매국문건들을 불길속에 처넣을것이며 제2을사오적의 무리들인 박정희도당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2차대전의 력사적심판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아세아인민들의 지향을 유린하고 미제에 적극 추종하여 해외침략에 나선다면 그들은 도죠 히데기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일량국인민의 전반적리익에 다같이 배치되며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에 위협으로 되는 《한일회담》의 《조약》과 《협정》들을 당장 페기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정부와 박정희도당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것이다.

오늘 《한일회담》에서 체결한 《조약》과 《협정》들을 반대하는 조일량국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이는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손을 굳게 잡고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군사쁠럭을 조작하며 이 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음모와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자를 몰아내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완강히 전개할것이다.

1965년 6월 2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밑에 또다시 한개 사단의 남조선 괴뢰군를 남부월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밑에 또다시 한개 사단의 남조선군대를 남부월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2천여명의 남조선군대를 남부월남에 파견한바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남조선군대를 대량적으로 남부월남에 끌어가는것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발악적책동이다.

이것은 월남인민뿐만아니라 직접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도전행위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행위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준렬히 규탄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더욱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월남에 자기들의 전투부대들과 현대적살인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남조선괴뢰군을 비롯한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 박정희와 남조선괴뢰국방장관을 워싱톤과 호노룰루에 각각 불러놓고 남조선괴뢰군의 남부월남파견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모범》으로 된다고하면서 저들의 범죄적침략전쟁에 남조선군대를 더 많이 제공할것을 지시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군대의 남부월남파견이 《미국의 신망을 굳게 하였다》고 파렴치하게 떠벌리면서 상전의 지시대로 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박정희도당은 한개 사단의 병력을 남부월남에 파견하기 위한 전투부대의 선정과 그의 편성 및 남부월남주둔《합동사령부》의 설치를 위한 준비사업을 서두르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이와같이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을 대포밥으로 밀어넣음으로써 그 대가로 몇잎의 딸라를 더 얻어먹으려고 흉책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용서할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이 사실은 또한 박정희도당이야말로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는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원쑤이며 평화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남부월남에서 침략전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폭격과 포격을 날로 확대하고있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최근 월남민

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근방의 공업도시 남 딘시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떠한 발악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수치스러운 패망을 모면할수 없다.

미제의 범죄적책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전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번질것이며 침략자들에게 더욱 치명적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날로 확대하고있는것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남조선괴뢰군과 기타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더 많이 끌어가면 갈수록 형제적웰남인민의 편에 더욱 굳건히 서서 그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싸우는 웰남의 형제들을 지원할데 대한 자기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조선인민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남조선괴뢰군을 대량적으로 남부웰남에 파견한다면 그것이 사단이건 군단이건 증파되는 그 병력수에 해당하게 남부웰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제공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성명한다.

이와 함께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터에 남조선청장년들을 끌어가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흉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국군》장병들은 결연 일어나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병계획을 단호히 파탄시켜야 한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할것이며 미제의 추악한 주구 박정희도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것이다.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당장 중지하고 남부웰남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로 계속 끌어간다면 그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면치못하리라는것을 경고한다.

1965년 7월 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성명

(남부웰남에 또다시 5만명의 미침략군을증파하며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할데 대한 미국대통령 존슨의 결정을 규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8월 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지난 8월 2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남부웰남에 또다시 5만명의 미군을 증파하며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할데 대한 미국대통령 존슨의 결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정부가 웰남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부웰남에 수많은 전투부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하려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미제가 10만명, 20만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군을 파견한다하여도, 투쟁이 10년, 20년 또는 그보다 더 걸린다하여도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데 대한 웰남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웰남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이 확고한 결의와 정당한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남부웰남주둔미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며 전쟁을 확대할데 대한 존슨의 결정에 뒤이어 미국군벌들은 그의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론의하고 지금 본격적인 집행과정에 있다.

미국정부는 이미 남부웰남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지상전에 미군을 투입할데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7월 한달 동안에만도 8천여명의 해병대를 남부웰남에 파송하였으며 현재 출동준비를 갖추고 대기태세에 있는 근 10개의 전투사단을 보내려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1개의 전투사단을 비롯하여 자기의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남부웰남에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온갖 흉책을 꾸미고있으며 일본령토를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군사기지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는 자기의 비행기와 군함들을 웰남민주공화국의 령공과 령해에 침입시켜 남 딘시를 비롯한 공업지구와 주민지대들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국내에서 청장년들을 징집하여 새로운 사단들과 려단들을 편성하며 어떠한 《궁극적사태》에도 대응할수 있도록 예비역군인들의 동원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제는 《웰남작전을 위한》 군사비를 대폭적으로 증가하며 세금징수, 식량배급 및 임금통제 등 전시체제개편준비와 전쟁분위기를 소란스럽게 고취하고 있다.

오늘 미제의 이러한 모험적인 전쟁책동은 남부웰남에서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불길을 웰남민주공화국과 나아가서는 아세아전역에로 확대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웰남인민의 민족적권리를 극히 엄중하게 침해하는것이며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전세계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부웰남에 침략군을 증파하며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과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할 목적으로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그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제의하였다.

최근시기에만도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의 기초로서 4개 조항의 제안을 제기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이 제안은 웰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이며 웰남인민과 평화를 념원하는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웰남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제안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웰남인민과 전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을 무시하고 웰남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수적폭격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특히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에 직면하여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게 되자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확대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무조건협상》을 내놓고있다.

미국대통령 죤슨이 금번《성명》에서 또다시 떠벌린 《평화》와 《무조건협상》은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이며 세계인민의 여론을 기만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인민들은 미제의 그 어떠한 음흉한 책동에도 결코 기만당하지 않을것이며 미제는 그들의 면전에서 자기의 추악한 침략정체를 가릴수 없다.

죤슨이 금번 《성명》에서 《군대를 증파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떠벌린데서도 웰남에 대한 그의 침략적정체와 《평화》의 기만적본질은 다시 한번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미제는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리행하고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웰남은 웰남인민의것이며 웰남문제는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에 매달린다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만약 미제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투쟁하려는 웰남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세계인민들의 정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심대한 타격을 받을것이며 종국적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전세계평화애호국가들, 세계인민들, 대중단체들, 진보적인사들에게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각방으로 되는 시기적절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미제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이 호소는 정당한것이며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미제는 전세계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이며 민족적독립과 해방투쟁을 탄압하는 국제헌병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평화의 파괴자이다.

오늘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진영의 동남방초소를 보위하며 아세아와 전세계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저지시키고 그들 남부웰남에서 내몰아야만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조성된 현정세는 모든 사회주의국가들, 민족독립국가들, 전세계평화애호국가들, 대중단체들, 세계인민들에게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항전에 궐기한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그들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누차 천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형제적웰남인민에게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강화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인민을 포함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분쇄하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1965년 8월 7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제2차아프리카아세아 회의와 관련하여)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 상설준비위원회는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를 연기할데 대한 일련의 나라들의 제의를 수차 심의하였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 외상회의는 예정된 10월 28일에 소집된다고 한다.

이것은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반둥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서 제2차 아프리카아세아회의에 기대를 가지고있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소집문제가 결정된 이후 처음부터 그를 적극 지지하며 이 회의의 성과적진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왔다.

지난 6월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가 소집되게 되였을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선참으로 알제리에 도착하여 회의사업에 이바지하려는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였었다.

당시 조성된 정세로 하여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가 연기되게 된 이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계속 이 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후 정세발전은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소집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일련의 정세발전은 예정된 기일에 아프리카아세아회의를 진행한다면 이 회의가 자기앞에 제기된 력사적사명을 수행할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회의의 가장 훌륭한 성과를 일치하게 확신할수 있는 그러한 시기까지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알제리정부와 상설준비위원회성원국들에 통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를 연기할데 대한 의견이 일련의 나라들로부터 제기된 이상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응당 인내성있게 계속 토의되여 그에 대한 합의점이 발견되도록 하여야한다고 인정한다.

합의를 보지 못한채 일부나라들만이 일방적으로 모여서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고 호상협조를 발전시킬것을 목적한 아프리카아세아회의의 기본리념을 훼손하는것으로될것이다.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는 반드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회의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못한 경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2차 아프리카아세아회의의 외상회의에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2차 아프리카아세아회의소집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달성되고 회의의 성과적진행에 필요한 조건이 하루 속히 성숙될것을 희망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할것이다.

1965년 10월 27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침략적《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파쑈적으로 날조하고 아세아침략의 길에 나서기 위한 책동을 일층 로골화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미제의 조종하에 침략적《한일조약》의 국회비준을 서둘러오던 일본사또정부는 11월 12일 야밤에 강권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한일조약》을 견결히 반대하는 조일량국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오늘 일본사또정부가 그들자신이 제정해놓은 국회운영질서마저 뒤집어엎고 《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파쑈적으로 날조해냈다는 사실은 《한일조약》의 침략적인 본질을 스스로 더욱 폭로하여주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일조약》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전반적침략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미제는 《한일조약》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결탁시켜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자기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유지하려할뿐만아니라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여 절망적인 궁지에 빠지고 아세아도처에서 그의 식민지통치지반이 붕괴됨에 따라 금년에 들어와 《한일조약》을 하루속히 성사시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한일조약》을 체결케 한후 지난 8월에는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으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의 치렬한 반대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괴뢰국회에서 강도적으로 이 《조약》을 통과시키게 하였으며 금번 일본국회에서도 류사한 수법으로 《한일조약》을 파쑈적으로 통과시키게 하였다.

이것은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바삐 서두르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를 기회로 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재침하여 하루속히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려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하기전에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한일조약》을 강압통과시키는 폭거를 서

合없이 감행하여나섰다.

이것은 또한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야욕이 얼마나 로골화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한일조약》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그것은 조일량국인민들의 근본적리익을 완전히 침해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게 된다.

지금 일본인민은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대규모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이 투쟁에는 일본의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들이 참가하고있다.

일본인민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당했던 그러한 치욕의 재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결의를 시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민의 이 정의의 투쟁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다.

일본사또정부는 과거 일본군국주의가 당한 패망에서 력사적교훈을 찾아야 하며 일본인민의 운명은 일본인민자신이 해결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두차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사이에 비법적으로 체결된 《한일조약》은 무효이며 조선인민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성명한다.

조선인민은 일본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침략적《한일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완강히 전개할것이다.

만약 일본사또정부가 조일량국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조약》을 방패로 무모한 침략적책동을 감행한다면 그는 조일량국인민들의 준엄한 력사적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1965년 11월 16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로데시아에서 스미스도당이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소수 백인정부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남로데시아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스미스도당의 소수백인정부는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짐바브웨인민들과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식민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스미스도당의 일방적인 《독립》선포는 짐바브웨인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말살하며 아프리카에서 치렬히 전개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의 단적 표현이다.

이것은 또한 남아프리카에서와 같이 남로데시아에서도 야만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며 인종격리주의를 부식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계획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번 스미스도당의 일방적《독립》선포를 인정하지 않는듯이 교활한 기만극을 연출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기만책동은 짐바브웨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더욱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이다.

남로데시아에 소수백인정권의 일방적《독립》을 선포한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은 짐바브웨인민과 전체 아프리카인민의 커다란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은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로데시아에서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도당의 범죄적인 도발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그를 반대하는 짐바브웨인민과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제국주의주구인 스미스도당의 비법적정권은 짐바브웨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것이며 짐바브웨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1965년 11월 17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사또정부와 박정희괴뢰정권이 지난 12월 18일 서울에서 침략적인 《한일조약비준서》의 교환놀음을 강행하고 소위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과 일본간의 《비정상적관계》의 종말과 《한일국교정상화》의 개시를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 박정희괴뢰정권은 지난 12월 18일 삼엄한 폭압망으로 둘러싸인 서울에서 침략적인 《한일조약비준서》의 교환놀음을 강행하고 소위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과 일본간의 《비정상적관계》의 종말과 《한일국교정상화》의 개시를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울 한복판에 일본 《대사관》을 설치하고 그의 개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끌어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결탁을 성사시키고 침략적《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제에게 대대

적인 남조선재침과 해외팽창의 길을 열어주었다.

조선인민은 조일 량국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조약비준서》교환을 강행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나라와 민족을 팔고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복무하고있는 박정희도당을 준렬히 단죄한다.

《한일조약》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에로 내몰기 위하여 비법적으로 꾸며낸 사실상 침략적인 군사조약이며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민족의 리익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내여맡긴 매국문건이며 《제2을사보호조약》이다.

이것은 또한 일본사또정부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사기와 협잡, 강권으로 파쑈적으로 날조해낸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협잡문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사이에 비법적으로 체결된 《한일조약》은 무효이며 조선인민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거듭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인민은 일본당국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계속 보유하며 앞으로 언제든지 이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것이며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앞에 지닌 법적의무로부터 벗어날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를 재생, 재무장시켜 그를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는것은 미제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며 《한일조약》은 바로 그의 이러한 침략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제는 《한일조약》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결탁시켜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유지하며 침략적인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하고있다.

력사적으로 강대세력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을 감행하는데 습성화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미제의 이러한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을 재침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전아세아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박정희도당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는것으로써 위기에 처한 괴뢰정권을 유지하며 자기 일당의 더러운 사리사욕을 채우려하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본격적실현에 옮긴다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커다란 파멸적처지에 처하게 될것이며 조선의 통일위업에는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고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이 《합법화》됨으로써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적인 지배와 예속하에 놓이게 될것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의 교두보로 전변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일한련방론》, 《일한운명공동체론》과 같은 침략적망언들을 떠벌리면서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조약》을 방패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다.

벌써 수십개의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경제의 중요명맥들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그의 지반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남조선시장에는 미국상품과 함께 일본상품이 범람하고있으며 어장에서는 일본어선들이 판을 치고있다.

물밀듯 쓸어들어오는 왜풍은 남조선도처에 파급되고 《천리교》와 같은 일본종교까지 들어와 친일사상을 고취하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의 각종 장비의 보급과 훈련을 담당하고있을 뿐만아니라 《일한군사동맹》을 결성하며 그의 지휘권을 장악할데 대하여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현사태는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60년전 을사년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을사망국조약으로 인하여 피어린 수난을 강요당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의 가지가지의 쓰라린 력사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고미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않고있다.

그러나 만고역적 박정희도당은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인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의 제물로 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미국상전이 시키는대로 《한미일3각협력체계》의 형성과 《반공》 군사뿔럭조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벌리면서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대를 대량적으로 파견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이야말로 을사오적의 무리들을 릉가하는 매국역적들의 집단이며 아세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려는 미제의 추악한 하수인이다.

조선인민은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재침책동을 강화하면서 이미 파산당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재현시켜 보려고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는 길에 공공연히 들어서고 있다.

최근 폭로된 일본방위청의 극비문건 《세개의 화살작전》과 《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과 공동작전으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쏘련에 대한 공격작전을 진행할 준비까지 면밀히 수립하고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도달하였는가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대륙을 침략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수많은 아세아나라들을 강점하고 이 지역인민들에게 막대한 희생과 재난을 들씌웠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오늘 되살아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파산당한 침략의 전철을 따라 무모하게 행동하면서 복수주의와 배타주의를 고취하며 《대동아전쟁긍정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국내에서 파쑈화와 해외파병을 위한 《헌법》개악음모를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오늘 일본군대는 각종 현대적무기로 장비되고있으며 그의 화력과 기동력은 전전수준의 수배에 달하고있다.

일제는 일본령토를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의 기지로 떠맡기고있을뿐만아니라 미국침략군의 군수물자의 생산과 남부웰남에로의 그의 수송을 담당하고있으며 지어 상륙정승무원의 형태로 전투인원까지 직접 파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교활하게 위장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자처하면서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제반사실은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전쟁의 근원으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인끼리 싸우게》하려는 미제의 침략계획에 따라 조선, 웰남 등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에 공개적으로 가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이 60년전의 을사년이 아니라는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의 력사적심판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조일량국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에 적극 추종하여 계속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그들은 도죠 히데끼 등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일량국인민들의 전반적리익에 배치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으로 되는 《한일조약》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오늘 《한일조약》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일본과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와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필승불패이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단합된 인민들의 위력앞에서 반드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일본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침략적《한일조약》을 분쇄하며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재침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파탄시키며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1965년 12월 21일

평 양

1966년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의 보고

동지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더욱더 발악하고있으며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며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맞게 당의 대내외활동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표자회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토의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세계를 창조하는 혁명위업에서 새로운 승리들을 달성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혁명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일정한 곡절이 없을수는 없으나 전반적정세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아직도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54년의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남부윁남에 더욱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이미 하노이와 하이퐁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계단식전쟁확대》 정책이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인민중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의 이와같은 책동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며 전반적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광하고있는것도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력량이 장성하고 반제혁명운동이 치렬하게 전개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앙양되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와 제국주의의 완전한 멸망은 불가피한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은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현시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립장을 검열하는 중요한 척도로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에 대하여 더 팽팽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문제들에서 원칙을 버리고 미제와 타협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하여 여기에 반제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미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를 반대한다고 큰소리만 치고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구체적행동을 취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더우기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실재적인 대책을 취하는데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지 못할뿐아니라 도리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오만하고 횡포하게 만들며 결국 그들의 침략행위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야만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킬수 있으며 평화를 수호할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 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는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려고 획책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전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완

화가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다른 전선에서 침략을 강화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더욱 큰 위험으로 됩니다.

현정세에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재생되고있으며 일본과 서부독일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반대하며 그것을 적극 추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독일인민의 투쟁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구라파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는 동시에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구라파에서 미제와 그 동맹자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처럼 아세아에서도 응당 미제와 그 동맹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제와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쌍무적군사협정들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있습니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의 적극적인 가담자로 되고있으며 미국의 주문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각종 무기를 비롯한 많은 군수기자재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일본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특히 일본사또정부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제국주의와 일본지배층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일관계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습니다.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고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본지배층에 대하여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아무러한 기대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사또정부와 가까이 하는것은 사실상 일본지배층의 해외팽창을 고무하여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나 일본지배층과 정치적문제를 가지고는 어떠한 흥정도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또정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의 리익과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오늘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일본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남조선에 대한 그의 침략은 단호히 저지되여야 하며 미제의 조종밑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페기되여야 합니다. 일본은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과 민주주의의 길로 발전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웰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비단 웰남인민을 반대하는것일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줌으로써 미제를 곤궁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이미 국토의 5분의 4와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였으며 북부웰남인민들은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폭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있습니다. 남북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습니다.

나는 본대표자회의 이름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항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있으며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는 형제적남북웰남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웰남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미제의 웰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가 안하는가,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됩니다. 웰남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민족리기주의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해방전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이 미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미제와 더욱 날카롭게 맞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요와 소극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응당 힘을 합쳐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여야 할것이며 공동으로 미제의 웰남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은 호상간의 의견상이로 하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웰남인민을 괴롭히고있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웰남민주공화국이 미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이 시각에 형제당들은 웰남문제를 가지고 론쟁만 하고있을수 없습니다. 웰남문제의 주인은 웰남로동당입니다. 웰남로동당외에 그 누구도 웰남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형제당들은 웰남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웰남로동당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웰남로동당의 립장을 지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웰남민주공화국에 주는 형제나라들의 원조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도 웰남로동당이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있으며 형제당들은 그것을 응당 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쏘련이 단독으로 혁명하던 때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아직 세계에 다른 사회주의나라가 없었던만큼 쏘련은 무기를 비롯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지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대한 사회주의진영이 있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웰남인민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어려운 전쟁에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이 주는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원조를 줄 의무가 있으며 웰남인민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인민에게 주는 원조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된다면 그것은 오직 좋은 일이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웰남에서 미제를 패배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형제나라들이 웰남민주공화국에 더 많은 원조를 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실지로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적립장이며 진정으로 웰남인민을 돕는 국제주의적립장이라고 인정합니다.

지금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인민을 정치적으로만 지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여야 합니다. 미제가 자기의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끌어들여 웰남민주공화국에까지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진영의 동남방초소를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웰남에

지원병을 파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적 웰남인민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그 누구도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에 지원병을 보내는것을 반대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인민을 도와 미제의 웰남침략을 분쇄한다면 미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빠지게 될것이며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의 혁명운동은 크게 앙양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하여 웰남형제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웰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 성명입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웰남인민의 이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새로운 전쟁확대음모를 가리기 위하여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어떤 기만술책으로도 자기의 추악한 침략적정체를 가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협상》에 관한 그들의 기만책동을 규탄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들은 더욱 커다란 참패를 당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웰남인민의 편에 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은 반드시 패망할것입니다.

현시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입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입니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서 확고하게 전진하고있습니다. 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형제적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의 리익을 최고의 법칙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은 꾸바에 대하여 결코 달리는 행동할수 없습니다.

꾸바가 사회주의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형제당, 형제나라들은 그것을 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혁명의 리익이 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꾸바가 처한 사정과 꾸바공산당의 립장에 대하여 충분한 리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꾸바문제는 누구보다도 꾸바공산당이 잘 알며 꾸바공산당만이 꾸바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주의나라든지 꾸바공산당의 정책을 존중하며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꾸바공산당과 인민에게 압력을 가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기치를 들고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꾸바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또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꾸바공산당 및 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입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전례없는 앙양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달성하였으며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식민주의의 억압밑에 있는 나라 인민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으며 신생

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기 위한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내부를 와해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는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들을 매수하고 규합하여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려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로 하여금 내부적으로는 혁명력량을 탄압하며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반제력량을 와해시키는데로 나아가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로서 인도를 들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인도의 반동세력은 나라를 더욱더 우경에로 이끌어가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장성하고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의 헐벗고 굶주린 인민대중에게 미칠것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도의 반동세력은 국내에서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들은 국내에서 심해가는 사회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덮어버리고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며 외부에서 혁명적영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반동세력이 국내의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적대행동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인도네시아사태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익반동세력에 의하여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이 비법화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고있으며 계속 반공소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일환으로서 그의 추동밑에 진행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공산당과 민주력량에 대한 우익반동세력의 탄압과 학살행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우경에로 돌려세우려는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진보적력량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태발전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각한 교훈으로 됩니다. 그것은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력량이 장성하면 할수록 이것을 말살하려는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발악이 더욱 심하여진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있을수 있는 적들의 폭압에 대처하여 언제나 조직사상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할것입니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 오직 혁명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결정적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혁명운동의 이와 같은 경험과 교훈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며 자신의 혁명투쟁에서 그것을 잘 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청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의 길은 간고한 투쟁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도 받게 되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도 겪게 됩니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 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독립, 중립, 령토완정을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콩고(킨), 베네수엘라 인민들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

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최근년간에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는 국제혁명운동의 발전도상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승리하여왔습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한 그 반영으로서 로동운동내에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로동운동내에 나타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사상입니다. 그것은 두 극단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외곡하며 혁명에 해를 줍니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두 전선에서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대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합니다. 그것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합니다. 현대수정주의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각방으로 방해합니다.

물론 현대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받고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수정주의가 완전히 극복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수정주의는 아직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큰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앞에서 나약성을 보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소극적으로 대하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좌경기회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풀이하며 초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에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것은 당을 군중으로부터 리탈시키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며 주되는 적에 공격을 집중할수 없게 합니다.

좌경기회주의가 조장되면 그것도 개별적당이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현대수정주의에 못지 않게 큰 위험으로 될수 있습니다.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제력량을 단결시켜 제국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잘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는 다 같이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좌경기회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또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현대수정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으며 국제혁명운동을 힘있게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단결의 기치를 고수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됩니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시기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존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여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며 또 감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진영을 공동으로 보위하는것이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진영이 하나로 굳게 통일되여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진영은 내부의 의견상이로 하여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혁명운동과 국제정세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진영에 혁명을 배반한 자들을 끌어들여도 안되며 사회주의진영에서 이러저러한 나라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여도 안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사회주의진영을 와해시키는 행동으로 됩니다. 우리는 전세계 로동계급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진영을 마사버리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진영의 운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전도와 관계되는 원칙적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진영을 그 어떤 다른 성격의 협동체로 바꾸어놓을수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대렬에 끌어들이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갔으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써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들어올 자격을 잃은지 오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유고슬라비아와 국가적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의진영의 성원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한대렬에 놓을수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오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하는데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회주의진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려는 행동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진영이 둘로 갈라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둘로 갈라지고 모든 당들이 둘로 갈라지는것이 정상적인것으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 좋은 일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단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사상리론적계선을 넘어서 풀기 어려울 정도로 된것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여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문제입니다. 당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조직적결렬에로 끌고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형제나라, 형제당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외곡된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 하며 13개 사회주의나라들중 어느 한 나라도 사회주의진영밖에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밖에 있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나라, 형제당의 지도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의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제국주의와의 관계와 같은 적대적관계로 보아서는 안될것입니다. 형제당지도부가 과오를 범할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비판을 주어 그가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도와주는것이 응당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형제나라들의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 사회의 성격에 대하여 경솔하게 결론할수 없습니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차이를 똑바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에는 사회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은 그 누구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지도자들이 취하는 이러저러한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거나 혹은 완화될수는 있으나 사회제도가 대립되여있는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 소멸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비록 일련의 부정적측면을 가지고있더라도 형제나라를 적과 한계렬에 놓거나 제국주의자들의 편으로 떠밀어버려서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 형제나라에 대한 태도에서 결코 편견이나 주관주의에 사로잡힐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의견상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당과 형제나라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며 시간을 두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측면에 대해서는 비판하여 고치도록 하며 긍정적측면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하는 적극적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계속 혁명대렬에서 전진하는것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에 더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진영은 의견상이로 하여 복잡한 형편에 있으나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은 그 누구도 주관주의적으로 취소할수 없습니다. 그 누가 사회주의나라가 아닌것을 사회주의진영에 끌어들인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나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누가 사회주의나라를 사회주의진영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나라임을 그만둘수 없는것입니다.

사회주의진영은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기초에서 단합되여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건설의 동일한 목적으로 서로 련결된 하나의 전일체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는 다 같이 동등한 성원으로서 사회주의진영을 구성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에 한나라라도 더 많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로 될수 없습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진영이 확대되여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전체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려는 온갖 행동을 반대합니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모든 형제당, 형제나라들과 단결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되지 않고있는 틈을 리용하여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 모든 대륙에서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원하는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투쟁을 세계적범위에서 더 조직화하고 한계단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도 응당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여있습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은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수 있게 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점차 극복하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반제공동행동은 평화위업의 리익으로 보나 혁명위업의 리익으로 보나 절대로 필요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이 개시되자 침략자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일련의 형제당들도 이것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반제공동투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의 의견상이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고 싸우고있는 웰남형제들을 지원할데 대한 당적 및 국가적립장을 수차에 걸쳐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인민에게 경제적 및 군사적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도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련의 문제들에서 의견상이가 있으나 우선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반제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진실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가 아니며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려는 립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쑤와 과오를 범한 벗을 똑똑히 갈라보아야 합니다. 원쑤는 때려야하며 과오를 범한 벗은 비판하여 옳은 길에 돌려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벗들과 힘을 합쳐 주되는 원쑤를 반대하여 싸워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들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견해가 같지 않으며 립장도 서로 각이하며 그 구성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산하에 많은 군중을 가지고있습니다. 더 많은 군중을 반제투쟁에 끌어들이자면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조직들과의 공동행동을 거부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견해상에서의 차이점만 볼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보아야 하며 언제나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어느 한 극단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 국제민주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 산하에 망라되여있는 많은 군중이 반제전선에서 떨어져나가게 될것입니다. 군중을 잃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들과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군중에 접근하여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반제투쟁에 동원할수 있습니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군중과 리탈하여 고립주의로 나가는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편협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결속시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는것은 오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에서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동행동을 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들이 실시한 통일전선정책은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력량이 강화된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살려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다 리용하여 강력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조류로 되였습니다. 수정주의를 하던 사람들도 웰남인민을 지원하지 않고는 세계여론앞에서 견디여낼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지하여나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기의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이 기회에 그것을 씻기 위하여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여 나설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립장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반제투쟁에 합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어떻든간에 이 모든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끌어들이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난 시기의 과오를 웰남문제에서라도 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좋은 일이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한다고 하여도 그것 역시 반제투쟁에 도움으로 되지 해롭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끌어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며 반제투쟁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사이의 계선도 더욱 명백하여질것입니다. 실지투쟁에서 미제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이 밝혀질것입니다. 실천은 옳고 그른것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됩니다. 기회주의도 사상투쟁과 함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극복할수 있는것입니다.

공동행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행동은 덮어놓고 단결하자거나 무원칙하게 타협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반제력량과 보조를 같이하며 힘을 합치자는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회주의적요소들은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들은 지지하고 조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제공동행동이 결코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적극적

인 형태로 되는것입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으로 됩니다.

미제를 반대하고 윁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것은 오늘 전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사회주의나라들이 싸우는 윁남인민을 방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지원병부대를 파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반제공동행동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될것입니다. 우리가 윁남에 국제적인 지원병부대를 파견한다면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윁남침략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민주단체들의 활동에서도 반제공동행동을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민주단체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데 그 활동의 중심을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이 국제민주단체를 통하여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또한 모든 국제민주단체들이 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국제민주단체들의 활동에서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한다면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만으로써는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형제당들 사이에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우선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의견상이를 좁히고 서로 접촉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조건들이 마련되면 형제당들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반제공동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형제당들이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 현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충실하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인정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형제당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규범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각국 당대표들의 1957년 회의와 1960년 회의에서 규정된것이며 이미 생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 규범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규범이 위반될 때에는 형제당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파괴되고 전진도상에 많은 난관들이 조성되게 됩니다.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형제당들간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위반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형제당들의 단결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모든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다른 당들을 존중하고 서로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 어느 당도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각국 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3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어떠한 《중앙》이나 《중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혁명의 《중심》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 왔다갔다 할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더우기 어느 한 나라가 《세계혁명의 중심》으로 되거나 어느 한 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결코 그 어떤 국제적《중앙》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당의 지도밑에 그 나라 인민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그 어떤 《중심》이나 《중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당의 특권적지위를 허용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이

렇게 되면 어떤 당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다른 당들에 지시하고 명령할수 있게 될것이며 다른 당들은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들어야만 할것입니다. 형제당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허용되게 된다면 매개 당들은 자주성을 가질수 없게 되며 도대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없게 될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다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국제혁명운동과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있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혁명에서 전위부대의 역할을 하자면 오직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실천에서 검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며 인류의 모든 진보적사상의 최고봉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매개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며 그것을 실천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다른 당의 지도리론을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할수 없습니다.

매개 당의 지도리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범위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만큼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을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리론으로 내세울수 없으며 그것을 다른 당들에 내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밖에 다른 지도사상이 있을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다른 당들에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 당들이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자기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당들에 강요하며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다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일본공산당에 대한 일부 형제당들의 내정간섭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형제당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있다고 하여 남의 당내의 반당종파분자들을 지지하고 당내부를 혼란시키며 남의 나라 민주운동을 분렬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일본공산당의 활동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은 이와같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종일관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동요없이 일본인민의 혁명투쟁을 령도하여 나아가고있습니다.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대국주의자들은 응당한 반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기 어려웠지만 혁명의 리익과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 마음대로 결론할 권리를 독점한 당이 없습니다. 그 어느 당도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당들에 내려먹여서는 안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여야 하며 서로 합의한 결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매개 당들은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서나 형제당들과의 관계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형제당들을 경솔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형제당들의 립장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하여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더우기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고있는 형제당들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딱지를 함부로 붙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중간주의》, 《절충주의》, 《기회주의》 등의 딱지를 붙이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두 걸상사이에 앉아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자기의 걸상을 버리고 남의 두걸상사이에 불편하게 량다리를 걸고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똑바른 맑스-레닌주의걸상에 앉아있을것입니다. 자기의 옳바른 걸상에 앉아있는 우리를 두걸상사이에 앉아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뚤어진 왼쪽걸상이나 오른쪽걸상의 어느 하나에 앉아있는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비방은 우리 당이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할뿐아니라 좌경기회주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줄뿐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이기때문에 온갖 기회주의를 다

반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하는 거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같이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고있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 견해를 달리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로 리해를 가지고 대하며 진지하게 협의하고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립장이 있으며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줄 압니다. 다른 당들과 련계를 가진다고 하여 덮어놓고 그 당이 다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거기에 추종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남을 의심하는것은 대국주의와 종파주의의 특성입니다. 대국주의와 종파주의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들려고 하지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느 《편》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편》이며 혁명의 《편》이라고 대답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활동을 그 어떤 한개의 틀에다 얽매여 놓을수는 없는것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과업이 다른 조건에서 형제당들의 정책이 같을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적인 로선은 결코 개별적당들의 정책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대국주의를 견제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형제당들이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지 말고 자주성을 가지며 대국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당들이 단결하여 그 누구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국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대국주의를 부린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대국주의는 무력하여질것이며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수 없을것입니다. 대국주의가 없어져야 모든 당들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으며 형제당들간의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고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일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성과 독자성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가 만일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혁명과 건설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활동분야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주의자들이기때문에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다른 당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서로 배우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과의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에 립각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나아가는것, 이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그것은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조성된 난관들을 극복하며

진정한 단결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최근년간 국제정세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여러 사변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결부되여있습니다. 자주로선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과오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높아졌으며 공화국의 지위가 공고히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자기의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더욱더 많은 형제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대내외활동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할것이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것이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의 원칙을 준수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고수하며 전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

2.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데 대하여

동지들!

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력량의 장성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것이 파괴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를 두려워하면서 필요한 경제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없으며 도대체 제국주의가 멸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성하는 전쟁의 위험과 그들이 도발하는 침략전쟁은 우리의 경제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중단시킬수는 있으나 결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는 없는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만 타산하고 국방력을 응당하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리여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은 고사하고 도대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전쟁방지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결코 평화의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험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여도 안되며 과소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설사 전쟁이 일어나 혹심한 파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은 또다시 재생활을 건설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가 준비된 태세에 있을때에만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그들이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침략자들을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이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매시기 정세발전의 추이를 판단하여 거기에 상응하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여왔습니다.

최근년간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동지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국제정세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여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하고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동남아세아와 극동 및 기타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대비하여 우리 당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후의 사태발전은 우리 당이 취한 대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방력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전쟁확대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고있습니다. 정세는 한층더 긴장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져야 하며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것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응당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하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행복한 재생활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더욱 향상시키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달성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됩니다. 그것은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우리 조국의 통일과 장래 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북반부의 경제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습니다. 또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적자립경제의 건설은 나라가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인 동시에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하고 이 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도,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

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도 결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성과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방을 분쇄하고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운동에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후시기에 우리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전개하여 지난 5년동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중공업기지가 보강되고 경공업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은 더 잘 꾸려졌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제4차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창설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전후 10여년동안 방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며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농촌경리에서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원을 계속 강화하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임으로써 알곡생산을 훨씬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예작물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 등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각종 운수사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며 산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앞으로 더욱 대규모적인 경제건설을 전개할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로선입니다. 우리는 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이미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사회주의진영내부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에게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그리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와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아갈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실시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의 경제력도 더욱 강화할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도 효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전진도상에 제기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며 경제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입니다. 혁명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침략군대를 능히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며 세계의 수많은 혁명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 단결되여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습니다.

군대내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은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에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군대내에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자기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원쑤에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며 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용감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군인들을 당과 혁명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며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며 각 방면에 걸쳐 인민군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이 인민군전사, 하사, 군관들을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전 당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지지와 원호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자기의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군인들과 인민들이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비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독소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침공하여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전체 군대와 인민을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일단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민군자체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뿐 아니라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걸러냄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합니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현대전에는 최신무기와 군사기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의 원쑤들은 더욱더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기들을 현대화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위력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들속에서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그들이 모두가 다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잘 보여준바와 같이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면 국방에 심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하여야 하며 현대적무기와 함께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이것은 국방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으며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격파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반석같은 방위시설들을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전쟁경험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공장을 지키고 농촌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농민들은 자기의 농촌을 지키며 전체 인민이 한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계속 훌륭히 건설하여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쑤들이 우리 나라의 어느곳에 침입하여도 그들을 철저히 소탕할수 있도록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특히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당과 인민은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동시에 조국보위의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동지들!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결속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으며 당대렬이 확대강화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여 나아갈수 있는 수많은 혁명가들이 새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인민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자기들의 실지 투쟁경험을 통하여 당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으며 당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

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 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내부에 적대적요소가 없다거나 계급투쟁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기어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을 반대하며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과 그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됩니다. 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며 자기들의 옛처지를 회복하여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대적요소들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원쑤들의 파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투쟁도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근로자들속에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이 조장될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큰 지장을 줄뿐아니라 적들의 파괴활동에 쉽사리 리용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늦추지말고 계속 강력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 나아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도 안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근원은 없으며 우리 근로자들속에서의 지배적인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낡은 사상잔재를 능히 극복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의 동맹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과오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만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우경적과오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약화될수있으며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고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적영향이 널리 퍼질수 있습니다. 결국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 같이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없게 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고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동시

에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과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함에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사회를 개조하는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 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농민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정확한 농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관계를 청산하고 전후에 와서는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여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시켰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기술문화수준도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은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계속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은 농촌사업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개괄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정확한 방침에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농민들의 사상을 더욱 개조하여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인테리는 새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며 과거에는 일본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나라의 인테리로서 외래제국주의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고 그들을 새사회의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 20년동안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자라났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정책과 간부양성정책에 의하여 수10만에 달하는 근로인민출신의 새인테리들이 양성되였으며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각 분야에서 혁명위업에 복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와같이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고 새 인테리들을 길러냄으로써 자기의 믿음직한 인테리대렬을 꾸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인테리들이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승리를 말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인테리들을 더욱 혁명화하여야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테리들에게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여 인테리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더우기 투쟁의 불길속에서 개조되고 단련된 우리 인테리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지않습니다. 인테리를 의심하며 배척하는것은 하나의 종파주의적경향입니다. 인테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이와같은 경향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인테리들을 믿고있으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은 인테리들의 사상개조를 계속 인내성있게 지도하고 도와줄것이며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더 훌륭히 복무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줄것입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당한 당의 전사, 로동계급의 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낡은 사상잔재를 퇴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과 전투성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함께 인테리들은 주로 기술과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며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은 또한 인테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과학지식과 기술을 허심하게 배워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인테리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과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기사, 기수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사업을 다 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간의 창조적협조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래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는 많은 복잡성이 조성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각이한 계층과의 사업을 특별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적대분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성분이나 사상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인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오늘은 그것을 뉘우치고 좋은 사람으로 개조될수도 있는것이며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적대계급출신의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은 결코 자기의 전복기도를 버리지 않는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분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을 믿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당의 불패의 힘과 권위를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그가 현재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그를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며 그에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원쑤들의 온갖 리간책동을 분쇄하고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할수 있게 하며 적대분자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실지 사업에서 정확히 집행하도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립각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정책이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민구성이 복잡하며 우리가 원쑤들과 직접 대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우리 당주위에 결속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더 앙양되고있는 사실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전 사회를 굳게 단합되고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을 단결시킬수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조건을 조성합니

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과 함께 사상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야만 실지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굳게 결속시킬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여있는 복잡한 국제국내정세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은 대중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계속 강력히 진행하며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보지않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못한 새세대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계급교양을 특별히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증오하며 그것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들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에 대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며 그것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할수 있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지원칙성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언제나 견결히 싸울수있도록 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의연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밑에서 신음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무입니다. 우리는 북반부근로자들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와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지않도록 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은 그의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을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없습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반동사상을 퍼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는 락후한 사상요소들을 자기들의 파괴활동에 리용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죠아반동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썩어빠진 부르죠아적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고 가는가 못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자기 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옳게 적용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고수하고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원리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우리의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중심문제로 됩니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사상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의 비방중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각종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나타나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은 우리 앞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는 진당적으로 맑스-레닌주의학습과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반복하여 해석선전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합니다. 누구나할것없이 자체의 학습과 사상수양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정신과 그 진수를 체득하며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 온갖 표현을 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그것을 견결히 지지옹호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를 똑똑히 분별할수 있도록 하며 기회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전당에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원들은 지난기간 국제국내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던 때에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이 국제종파와 결탁하여 당을 공격하여나섰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기회주의적조류가 있고 대국주의적경향이 있는이상 또다시 이러한 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복잡한 정세에 처하여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파주의나 기타 기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대렬내에도 동요분자들이 나타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파주의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을 동요시키며 우리 대렬을 분렬시키려는 내외로부터의 온갖 리간책동과 종파행위를 반대하고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통일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상리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굳게 결속시켜야만 각종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외부에서 들어오지못하게 하고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으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을 고수하며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습니다.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크게 망쳐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매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이 사회주의제도의 강화와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인민의 공동의 재부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양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는동시에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됩니다.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합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입니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

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문화와 민족의 모든 훌륭한 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자기 조국의 산천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자기의 언어와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것을 다 부인하고 말살하는 허무주의적 경향에 빠져도 안되며 반대로 과거의것을 덮어놓고 답습하는 복고주의적경향에 빠져도 안됩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하는데서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큰 지장을 줍니다. 민족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기 민족의 현재와 함께 과거를 잘 알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사랑하게 되는 때에만 그들의 애국적감정이 더욱 깊어질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교육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모든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적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오늘의 사회주의 새생활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은 본래부터 국제주의적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부르죠아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배격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라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여야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통일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혁명적인민들간의 국제적련대성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며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혁명투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업적을 존중하며 그들의 우수한 경험을 겸손하게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과 서로 지지성원하고 서로 배우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세대의 인민들뿐만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세대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물려주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력량이며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입니다.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 헤아릴수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는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없는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요란한 반공소동을 일으키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여가는 자들의 발악에 불과하며 또한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심각한 시련을 겪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진도상에서의 일시적인 곡절

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력사의 발전법칙이 변경될수 없으며 위대한 공산주의리념이 가려질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학설과 력사적사실들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의 멸망과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 그리고 공산주의의 참다운 진리를 철저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어떠한 정세에서나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것이며 우리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킬것입니다. 우리의 당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육성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개조하며 당과 인민의 통일을 더욱더 강화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할것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질것입니다.

3. 남조선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동지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여하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은 원쑤들의 반혁명공세하에서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주구들이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수만명의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배치하고있으며 6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에 대한 《원조》 총액의 40%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 80%이상을 군사장비의 공급과 괴뢰군유지비에 충당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종속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철저히 전쟁정책에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최근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침략기지로서의 남조선과 그 군사적잠재력을 자기들의 전쟁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이 지역에서 급격히 장성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말살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괴뢰군병력이 증강되고있으며 그 군사장비는 더욱 현대화되고있습니다.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이 계속 남조선에 실려오고 도처에서 군사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가 강화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있습니다. 《군사정변》이후 남조선괴뢰정부예산에서 군사비지출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산업부문들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있습니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촉진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업부문들이 자라나고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미제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

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이 미제의 조종하에 조급히 결속되였으며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조작된것입니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며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전쟁에 손쉽게 동원하기 위한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에 남조선을 직접 끌어들였으며 남조선을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그 어느 괴뢰들보다도 먼저, 그 어느 추종국가들보다도 많은 병력을 남부웰남의 전쟁터에 밀어넣음으로써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남부웰남전쟁터에는 이미 수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끌려가 미제의 탄알받이로 되고있으며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침략의 도구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습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전 사회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그들의 파쑈적폭압의 예봉은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 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략이 허용되고있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이 남부웰남의 죽음터로 끌려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러한 《반공》 소동으로써 결코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가릴수 없으며 대중을 속일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탄압과 기만책동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장성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입니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더우기 일제의 재침략책동과 웰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반면에 극소수의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고립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현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백방으로 촉진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세

력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입니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않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추종하고있는 자들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의 주구로서, 안내자로서 복무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는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페기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투쟁은 동시에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력을 증강하고 대량살륙무기를 끌어들이며 군사시설을 확대하면서 새 전쟁도발에 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그것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을 《반공》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며 특히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은 범죄적인 침략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남조선청장년들과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을 지원하며 아세아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남조선청장년들은 남부웰남의 죽음터에 끌려가지않기 위하여 이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군》병사들과 장교들은 웰남파병을 단호히 거부하여 나서며 웰남에 이미 끌려간 《국군》병사들과 장교들은 즉시 귀환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국군》을 자기들의 추악한 침략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국군》장병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청장년들을 이국땅의 죽음터에 내모는 박정희도당은 천추에 씻을수 없는 그의 죄악으로 하여 반드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할수 없고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은 생존의 권리와 자기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며 식민지파쑈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특무테로집단인 현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만 오늘의 저주로운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혁명적대사변을 영접할수 없으며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공세에도 대처할수 없습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대중운동과 투쟁을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옳게 지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국내외정세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벌린다면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축적하는데 엄중한 손실을 주게될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반면에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축적할수도 없고 혁명도상에 조성되는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할수도 없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입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 인테리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진정한 혁명적핵심을 가진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으며 전후에도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가 없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결정적투쟁에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적당조직들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킬수 있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전투적부대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은 어떠한 복잡한 정황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로 꾸려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이와같이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조직으로 될 때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운동을 확신성있게 령도하여 나아갈수 있는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

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합니다.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에 로동자, 농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각성시키며 당주위에 집결시키게 된다면 남조선혁명은 튼튼한 주력군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됩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특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웰남파병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밑에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결속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하는데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련합을 전면적인 련합에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당면한 통일전선의 형성과 군중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당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현실적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은 청년학생, 인테리들과 굳게 단결하여 당면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서나 앞으로 새사회를 건설하는데서나 항상 함께 싸워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말고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키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60여만에 달하는 청장년들이 《국군》에 복무하고있습니다. 남조선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도구로서 인민과 민족을 반대하여 총을 겨눈것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식민지고용군대로서 침략전쟁에 끌려다니고있습니다. 《국군》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인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국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원쑤는 동포들과 부모형제들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입니다. 그들은 동족을 살해하고 인민을 탄압하는데 리용될것이 아니라 외래침략자들과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부모형제들과 함께, 인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은 총부리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자제들이 인민과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미제의 침략에 복무하는 고용군대의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 인민과 민족의 편에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입니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

어 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조직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인민대중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각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사상을 뿌리뽑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일제패망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친미반동세력에 의하여 더욱 깊이 부식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보지 못하고 마치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을것 같이 생각하고있습니다. 미국을 숭배하며 미국에 의존하여 살려는 사상의 영향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을 이러한 반동사상의 영향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발가놓아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 적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대중속에서의 이러한 모든 선전은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인민대중속에 광범히 선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어야 할것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반공》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에서는 특히 남조선 로동자, 농민대중에게 북반부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사회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접수하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될것입니다.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정력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용감성을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혁명도 처음에는 소수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되고 열사람이 백사람으로 되는식으로 점차 광범한 대중이 발동됨으로써 혁명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지도핵심들이 있기만 하면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묶어세워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나아갈수 있으며 마침내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원쑤들을 타도하는 결정적투쟁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습니다. 혁명핵심들이 있고 혁명력량이 강화되기만 하면 인민대중의 지지하에 어떠한 반혁명력량도 타승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기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기 위하여 사상적 및 조직적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폭력적 및 비폭력적인 모든 형태의 투쟁에 혁명군중을 준비시켜야 할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추세에 따라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은 계속 전진하고 발전할것이며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는 부단히 확대강화될것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

으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이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예속을 가져올뿐입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괴뢰도당들은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통일문제는 《70년대후반기》에 가서나 론의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조국통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더우기 《승공》이란 하늘의 별따기를 꿈꾸는자들의 어리석은 잠꼬대에 불과하며 《적화》의 위험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그들의 매국배족적본질을 드러내놓을뿐입니다.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북반부에서 확고한 지도력량으로 되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이 모두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하고 그 기치밑에 행복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조국이 통일된후 우리 나라에 어떠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응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만일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다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통일된 우리 나라에는 물론 그러한 리념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수립될것입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주는 가장 선진적인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공산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할 때 인민을 위하여, 민족적번영과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공산주의사상은 지구상 모든 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고무하고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고 남북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하여 인민들이 살기 좋은, 번영하는 새조선을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4천만의 인구를 가진 큰 나라로, 남부러울것이 없는 부강한 나라로 될것입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이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가로막지 못하는것처럼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가로막을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의 통일을 원하며 통일된 조국을 찾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일본당국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민주주의적, 민족적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저지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전체 조선인민의 격분을 자아낼뿐입니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박해를 단호히 규탄하며 우리 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전개되고있는 조선인민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통일될 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은 조만간 남조선에서 쫓겨날것이며 그들의 지배가 뒤집힐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배격당하고있으며 고립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운명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 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 비호하에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허무니없는 망상입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 말것입니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우리 인민은 승리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

의 위업은 성취되고야 말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한 위업입니다.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현실과 결합시킨 정확한 정책입니다. 당주위에 결속된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이며 이 대오는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면 될수록 자기 대오를 더욱 결속할것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더욱 더 용감하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우리의 전당과 전체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반드시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 명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동남아세아와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범죄적인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웰남인민을 반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도전하여 나서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더한층 확대하는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을 지상으로도 공격할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고있으며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 퍼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고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남부웰남해방군과 유격대들은 령토의 5분의 4와 1천만명의 주민을 해방하였다. 북부웰남인민군과 인민들은 웰남로동당의 령도밑에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폭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있다.

본대표자회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 전체 남북웰남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내며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웰남문제는 오늘 전세계 진보적력량과 반동력량간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 웰남인민이 진행하고있는 반미구국항전은 비단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민족해방혁명과 모든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기여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파탄시키는것은 앞으로의 세계정세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것은 미제를 더욱더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을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앙양시킬것이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형편에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전세계 반제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인민을 돕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30만의 침략군대와 수만명의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남부웰남과 사회주의나라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침략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하여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

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에 지원병을 보내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사회주의진영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자기 힘을 남김없이 발휘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행위도 능히 막아낼수 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와 더욱 날카롭게 맞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침략자를 치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남초소를 보위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두 나라 인민들은 다 같이 미제에 의하여 국토를 량단당하고있으며 민족적불행을 겪고있다.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여기고있으며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언제나 웰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웰남인민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웰남인민에게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줄것이다. 우리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있다.

미제는 웰남에서 피묻은 손을 당장 떼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지하며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한다.

웰남문제는 외세의 간섭 없이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웰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의 원칙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이 정당한 립장을 확고히 지지한다.

모든 형제당들은 웰남문제에서 어디까지나 웰남인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웰남로동당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자기들의 전쟁확대음모를 가리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미제의 이러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종국적패배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들은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것이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전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웰남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과 령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구국항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1966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령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력사적인 혁명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추진되고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현대적기술을 가진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으며 농업생산이 장성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현저히 향상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끊임없는 배려의 결과이며 농민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의 결실이다.

금번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는 농민들에게 국가적혜택을 베풀어주는 조선로동당의 또하나의 거대한 인민적시책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과 함께 단일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을 고률의 소작료와 온갖 가렴잡세로부터 해방하였다.

농업현물세제는 도시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금을 충당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공업이 발전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축성되여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물세률을 낮추었으며 일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는 현물세를 감면하여 주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는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여 공업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된 조건하에서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할것을 결정하였다. 《우

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것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미 대부분의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주었다.

1966년도는 나머지 협동농장들까지 다 현물세를 면제하여주는 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의 결정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우리 나라에서 1946년부터 실시하여오던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는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력사적사변으로서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일층 강화할것이며 토지와 자유를 위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힘차게 고무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협동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거듭되는 배려에 고무되여 농촌경리부문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림춘추

1966년 4월 29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는 튼튼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 발전된 문화를 가진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민교육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는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졌으며 철저한 무료의무교육제가 실현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학교들에서 수업료를 완전히 없애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국가적혜택을 베풀어줌으로써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과 그들의 아들딸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었다.

국가에서는 해마다 많은 자금을 들여 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후대들을 위한 온갖 교육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98개의 대학과 9천 165개의 보통교육부문 각급 학교들에서 260여만명의 학생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재능을 끝없이 자래우고있다.

그리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인민의 오랜 소원은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새 사회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문명하고 각성된 새형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교육체계를 세워놓았다.

기술교육체계를 거쳐 일반지식과 함께 현대적생산의 기초원리를 체득한 수십만의 졸업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많이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고등교육 및 중등기술교육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정규교육체계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길러낸 기술자, 전문가들이 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인민교육분야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 교육정책의 빛나는 열매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전면적기술문화혁명의 시기에 놓여있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무장시킬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와 문명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다.

학교교육사업은 기술문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의 각급학교들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공산주의사상과 도덕, 새로운 문화와 생활기풍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기술을 가진 새사회의 문명하고 각성된 일군으로 길러냄으로써 기술문화사상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7개년계획기간에 7년제중등의무교육으로부터 9년제기술의무교육에로 넘어가는것을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맞게 사회의 전반적교육수준을 높이며 교육내용을 심화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교육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나라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중학교졸업생의 대부분이 기술학교에 진학하고있다.

오늘 전반적7년제중등의무교육으로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에로 넘어갈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성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교육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문화혁명의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1967년 4월 1일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2)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은 4년제인민학교과정과 5년제중학교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은 일반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3)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대상은 만 일곱살부터 만 열여섯살까지의 모든 학령아동들이다.

2.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인민교육체계를 일부 고친다.

(1) 지금 있는 3년제중학교와 2년제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중학교를 새로 내온다.

중학교는 인민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여 중등일반교육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면서 기초기술교육을 주는 첫단계의 중등교육학교이다.

(2) 5년제중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이는 2년제고등학교를 새로 내오며 지금 있는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3~4년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여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하며 기초기술교육을 주는 둘째단계의 중등교육학교이다.

고등기술학교는 중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여 기수, 중등전문가를 길러내는 중등전문기술교육학교이다.

(3)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중등교육체계를 일부 고친다.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중등기술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도록 공장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과 고등기술학교의 재직 및 통신학과의 수업년한을 3~4년으로 한다.

지금 있는 2년제공장기술학교는 없앤다.

(4) 새로운 인민교육체계에 맞게 사범교육체계를 일부 고친다.

5년제중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여 유치원교양원을 길러내는 3년제고등사범학교를 새로 내온다.

인민학교교원은 5년제중학교졸업생을 받아들이는 4년제교원대학에서 길러내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의 교원은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4~5년제사범대학에서 길러낸다.

(5) 특수한 교종의 학교학제는 내각이 따로 정한다.

3. 인민경제 각 부문에 요구되는 기능공을 길러내기 위하여 중학교졸업생을 받아들이는 기능공학교를 새로 내온다.

4. 이 법령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인민과 교육부문일군들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고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빛나게 실시하여 젊은 세대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사람으로 길러내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림춘추**

1966년 11월 24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 명

(남조선괴뢰정부가 미제의 지시에 따라 1개 사단의 전투병력과 1개련대의 보충전투병력을 남부웰남에 증파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괴뢰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1개 사단의 전투병력과 1개 련대의 보충전투병력을 남부웰남에 증파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정희도당은 196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만여명의 남조선 괴뢰군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남부웰남에 보냈다. 이제 새로 증파하는 병력까지 합하면 근 5만명에 이르게된다.

미제는 더 많은 남조선 괴뢰군을 남부웰남에 끌어갈데 대하여 오래전부터 흉책하여왔으며 최근 미국 부대통령 험프리의 남조선 방문시 박정희도당과의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증파하는 대가로 미국 상전에게서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 괴뢰군의 《장비현대화》, 1억 1천만딸라의 경제 《원조》 자금의 년내 제공 등을 《보장》받았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파는 반역행위이며 남조선 청장년들의 피값을 가지고 흥정하여 몇잎의 딸라를 더 얻어먹으려는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을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값싼 대포밥조달의 원천지로 영구히 얽매두려는 미제의 침략 계획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을 미제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고 암흑의 도탄속에 밀어넣고도 부족하여 이제와서는 남조선 청장년들을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포밥으로까지 팔아넘기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부웰남에서 당하고있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고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더 많은 추종국가들을 웰남침략전쟁에 끌어들이며 전쟁확대에 필요한 대포밥을 긁어모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이 범죄적계획의 실천에서 앞장에 서 나가고있다.

최근 웰남침략전쟁의 대포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험프리가 아세아와 대양주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을 때 박정희도당은 미국 상전의 지시를 받고 타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괴뢰들을 찾아가서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데 대하여 떠들어댔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도당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이며 민족해방운동의 교살자인 미제의 하수인이라는것을 폭로하여주고 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은 웰남인민과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전체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조선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가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준렬히 단죄한다.

남조선인민은 박정희도당이 남조선 청장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모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때문에 남조선 청장년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서 스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여야 하겠는가.

미제에 의하여 조선과 웰남은 다같이 국토 량단의 민족적비운을 겪고있는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과 남부웰남에서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며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며 아무거리낌없이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하고있다.

남조선인민과 남부웰남인민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있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과 웰남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두 나라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의 전선에 서 있는 형제들이다. 남조선인민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형제적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을 증파하려는 책동을 단연코 분쇄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은 단 한사람의 혈육도 미제의 대포밥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남부웰남에 이미 끌려간 남조선 청장년들을 즉시 소환할것을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미제의 총알받이로 남부웰남의 죽음터에 가는것을 거부하여 결연히 일어나야 한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자기 강토에 그대로 두고

오히려 그들의 웰남침략전쟁마당에 끌리여간다는것은 민족적수치이며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자기들에게 온갖 모욕과 천대를 가하며 반역과 죽음을 강요하는 《국군》장교들과 미제침략군의 지휘관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하며 그들이 메워준 총부리를 가지고 바로 그 원쑤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남조선 《국군》병사들과 하층장교들은 생존과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의 편에 돌아서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선렬들의 뒤를 이어야 하며 결코 미제침략자와 매국역적에 순종하여 치욕의 운명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남조선인민과 합세하여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책동을 분쇄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을 전복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과 《국군》병사들은 반미구국투쟁에 견결하게 더욱 완강하게 일떠서야 한다. 그리하여 남조선땅을 부모형제들의 붉은피로 물들인 미제와 그의 흉악한 주구 박정희도당에 대한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하며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영원히 벗어던져야 하며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나라와 민족과 인민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남부웰남에 가 있는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자기나라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남부웰남인민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범죄행위를 감행해서는 안된다.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남부웰남해방군의 편에 넘어가서 남부웰남인민과 함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 《국군》병사들은 남부웰남에서의 저주로운 고용병살이를 이 이상 더는 참지 말아야 하며, 자기들에게 미제침략군의 총알받이가 될것을 강요하는 《국군》반동장교들을 모조리 처단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모면하고 삶의 길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애국의 길이다.

박정희도당은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증파할데 대한 범죄적결정을 철회하여야 하며 이미 가 있는 남조선괴뢰군을 걷어와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는 인민의 버림을 받은 남조선의 박정희와 같은 주구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괴뢰군을 아무리 증파하더라도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영웅적웰남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거역하고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계속 증파하는것이 남조선에서 저들을 어떠한 처지에 밀어넣게 될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는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파견하는 책동을 남북 전체 웰남인민을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로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도발행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미제와 박정희도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일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끝끝내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증파한다면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형제적웰남인민의 투쟁에 필요한 온갖 형태의 원조를 계속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이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곧 자기의 투쟁으로 간주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 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과 함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최후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이다.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일체의 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미제는 남부웰남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의 모든 군대 및 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1966년 3월 7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오늘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카리브해역에는 또다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난 5월 21일 꾸바의 관따나모를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꾸바국경초소들에 도발적인 사격을 가하여 꾸바병사 루이스 라미레스 로뻬스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뒤이어 미국방성은 적반하장격으로 지난 5월 23일 《6명의 꾸바군인들이 관따나모기지에 잠입하여 발포》했다고 성명하였으며 미국무장관 러스크는 꾸바정부에 《항의각서》까지 보냈다고 떠벌렸다.

이것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계획적인 침략책동의 일환으로서 꾸바인민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가장 파렴치한 강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이 엄중한 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를 교살하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미치는 꾸바혁명의 영향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여왔다.

그들은 쁠라야 히론에 대한 무력침공과 1962년 10월 카리브해협에서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비롯하여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꾸바공화국의 령공과 령해에 군용비행기와 무장함선들을 항시적으로 침입시켜 강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케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함께 《외교적고립》과 《경제봉쇄》 정책으로서 꾸바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꾸바인민의 전진도상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들은 또한 간첩암해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을 계속 투입하여 꾸바인민의 단결을 파괴하고 내부를 혼란시켜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였다.

미제의 침략책동은 꾸바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파괴행위를 분쇄하고 혁명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최근시기에 와서 일층 악랄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꾸바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을 방지한다는 구실밑에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타국을 침략할 때마다 사용하고있는 하나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최근 관따나모기지에서 10여차 이상이나 꾸바국경초소에 대하여 감행한 도발행위의 책임을 꾸바에 전가하려는 미제의 철면피한 시도는 그의 강도적본성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관따나모기지에서 감행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단죄하고 자기의 정당한 립장을 천명한 피델 까스뜨로수상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관따나모기지에서의 도발사건은 꾸바공화국을 말살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보루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새로운 침략의 구실을 찾으려는데 있다.

오늘 전체 꾸바인민과 꾸바의 무장부대들은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언명한바와 같이 미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마지막 한 알의 탄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미제는 그 어떠한 군사적위협이나 경제외교적압력으로써도 민족적존엄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꾸바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의 온갖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것이며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들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갈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투쟁은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초소를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류의 진보적위업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형제적꾸바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 있을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꾸바인민에게 가능한 온갖 형태의 지원을 다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싸우는 꾸바인민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무모한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꾸바공화

국을 반대하여 분별없는 전쟁모험을 감행한다면 5년전 플라야히론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되풀이하게 될것이며 자신이 질러놓은 불길에서 소멸되고야 말것이다.

사회주의진영의 한 성원이며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꾸바인민을 그 무엇으로써도 놀래울수 없으며 혁명적꾸바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꾸바혁명은 필승불패이다.

1966년 5월 31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미제가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려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려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재천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20여년간 세계인민들과 각국 정부들의 주의를 끌어왔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의 분렬은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20여년간에 걸치는 국토의 인공적량단과 단일한 민족의 분렬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사태는 조속히 제거되여야 한다.

조선문제는 일시적으로 분렬된 국토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 내정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남북조선을 통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총선거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인민의 대표를 망라하는 전조선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선거실시를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남조선을 지배하고있는 파쑈적폭압과 테로통치는 반드시 청산되여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유린된 모든 민주주의적권리는 지체없이 회복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조선의 각계 대표들과 인사들이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지상의 과업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론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에 당장 응할수 없다면 과도적대책의 하나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 련방제는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사회정치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당국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쌍방이 인정하는 동수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광범한 대외적분야에 단일민족으로 진출할것 등을 예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이 남북련방제까지도 접수할수 없다면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조선간의 교역을 실현할것을 제의하였다.

조선통일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남북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킬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당국이 외국과 체결한 일체 군사조약과 협정을 철폐하는 조건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들도 폐기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량단된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기위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처자, 친척친우들간에 서신거래라도 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동포애적심정에서 구호물자를 제공할데 대하여도 루차 제의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제의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에 완전히 부합될뿐만 아니라 극동과 세계평화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들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모조리 거부당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제 나라 제 땅도 마음대로 래왕할수 없으며 부모, 처자, 형제자매들은 서로 지척에 있으면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원자 및 로케트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군을 60여만으로 확장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범죄적인 침범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에 핵잠수함기지까지 설치하려고 흉책하고있다.

미제는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일조약》을 체결케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정치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 결탁시켰으며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광범히 망라한 새로운 침략적군사블럭을 형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지금 남부윁남에서 당하고있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고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윁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이미 근 27만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년말까지 40만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하는 한편 아세아지역에서 더 많은 대포밥을 긁어모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제의 이 대포밥징모계획의 실천에서 앞장서 나가고있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는 이미 3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윁남에 내몰았으며 또다시 수만명의 병력을 증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한 윁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무너져가는 저들의 파쑈통치기구를 유지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박정희는 남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값싼 대포밥조달의 원천지로 영구히 얽매두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이것은 조선통일의 앞길에 더욱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는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력대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주구로서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여왔다.

남조선당국은 1956년 제국주의자들의 애급침공시에 애급인민을 반대하고 제국주의자들을 지지하여 지원병까지 파견할것이라고 떠들어대였으며 아프리카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꽁고(레)의 쵼베도당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와 친선을 《맹약》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공모하여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온갖 파괴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조선의 분렬 특히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전쟁도발책동은 극동과 세계평화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나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토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유엔은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인 결정들을 취소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헌장 그 자체를 유린하고 미국이 조작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원래 유엔은 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규정한 그의 헌장에 비추어보아도 조선문제를 토의할수 없었다.

더우기 유엔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됨으로써 조선문제에 관여할 도의적 권위마저 상실하였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같이 지난 19년간 유엔에서 매년 거듭하여온 《조선문제》 토의는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미국에 의하여 제멋대로 비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는 년중행사에 불과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유엔은 오랜 시일을 두고 《조선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도리여 조선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유엔은 이로부터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한다.

북조선에는 지금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다. 응당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일체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해야 할것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이다.

오늘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을 그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없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미군이 물러가지 않고있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저들의 군사교두보로 영구히 확보하려는데 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은폐하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년례보고》를 날조하는 미국의 조선침략을 위한 도구이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미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자신에게 맡겨야 한다.

2. 조선의 통일문제는 유엔이나 기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조선인민자신의 내정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나 다른 형태의 남북조선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남북조선의 호상 접근과 협상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치적견해와 신앙의 여하,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하는 남조선의 모든 인사들과 협상할 준비와 용의가 있다는 것을 거듭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또한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국가들로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유관국가회의를 소집할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유관국가회의는 남북조선대표들을 포함하여 남북조선당국이 각각 지명하는 동수의 국가들의 대표의 참가하에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강구할수 있을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 및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일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이 세계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1966년 7월 21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가 최근 또다시 월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를 거듭 폭격한 만행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새로운 극히 엄중한 《계단식확대》조치를 취하고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미제공중비적들은 외국대사관들이 있는 구역을 포함하여 하노이시내의 여러 곳과 그 주변의 주민지대에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1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많은 집들을 파괴하는 야수적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최근 10여일간에 네차례에 걸쳐 월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를 폭격하였다.

하노이에 대한 이러한 련속적인 폭격들은 사회주의진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한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지금 미제공중비적들의 하노이에 대한 폭격만행을 견결히 규탄하고있다.

미제는 하노이에 대한 폭격을 본격화함으로써 저들이 월남침략전쟁에서 거듭 당하고있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책동하는 한편 월남인민을 위협하며 굴복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월남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려는 미제의 속심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놓았을뿐이며 최근 그들이 떠벌리고있는 《평화협상》의 파렴치한 기만성과 악랄한 수법을 여지없이 폭로하여 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계단식 전쟁확대정책》은 그들에게 아무러한 도움을 주지못할뿐만아니라 반대로 더욱 커다란 패배를 가져다 줄뿐이다.

어떠한 전쟁확대도 월남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미제를 구원하여 주지 못할것이다.

미제가 아무리 발악하여도 북부를 수호하며 남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궐기한 영웅적월남인민의 견결한 투지를 꺾을수 없다.

월남인민군과 인민들은 월남민주공화국의 령공을 침입하여 행포무도한 만행을 감행한 미국비행기 1천 600여대를 이미 쳐떨구었으며 많은 미제날강도들을 사로 잡았다.

웰남인민은 미국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전투와 생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고있다. 이것은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무분별한 계단식확대정책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져있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들의 종국적패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영웅적인 남북전체 웰남인민은 미제가 발악하면 할수록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더욱 단호하게 맞받아싸워서 승리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웰남민주공화국의 수도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계속되는 폭격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들, 그리고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용서할수 없는 강도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웰남인민에게 더욱 전면적이고 더욱 강력한 지원을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웰남인민과 함께 투쟁할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온갖 형태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하노이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폭격을 규탄하고 미제침략자를 쳐부셔 최후승리를 달성할 확고한 결의밑에 영웅적으로 전진할것을 다시한번 천명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4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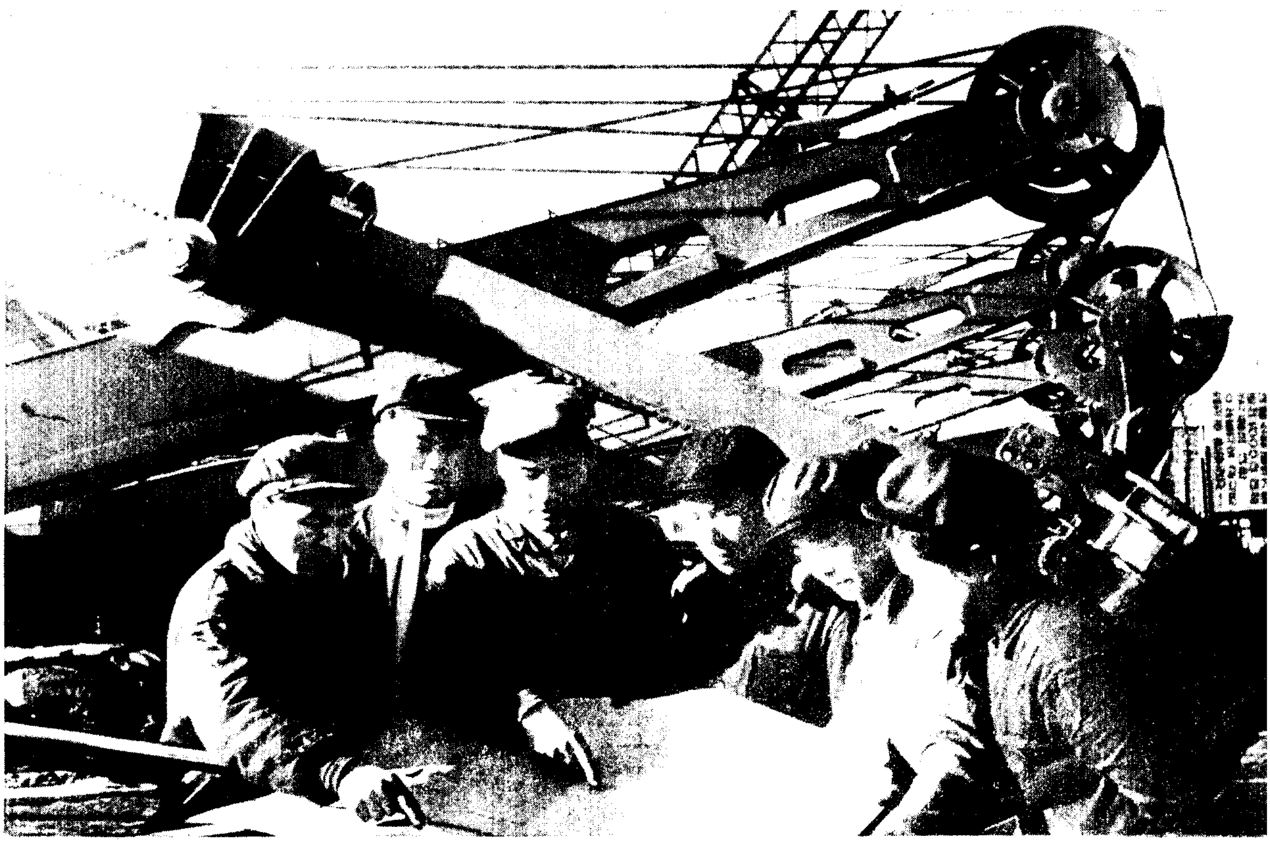
웰남문제는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기타 모든 전쟁행동을 당장 그만두며 남부웰남으로부터 저들의 침략군과 고용군들을 걷어가지고 나가며 남부웰남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웰남인민의 근본적인 민족권리를 엄격히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가 웰남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1966년 12월 15일 평양

국내



대형굴착기들이 많이 생산된다

지 리

자 연 조 건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대륙동쪽 중앙부에서 남북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그 근해에 널려있는 3,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북쪽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00′36″)이고 남쪽끝은 제주도 남서쪽 바다에 있는 마라도(북위 33°06′40″)이다. 서쪽끝은 평안북도 룡천군의 신도서쪽에 있는 마안도(동경 124°11′00″)이고 동쪽끝은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독도(동경 131°52′33″)이다.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 보아 10°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기때문에 북쪽끝에서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남쪽끝에서는 여름이 매우 길고 겨울이 짧다. 동쪽끝과 경도차는 7°41′33″이고 시간차는 약 30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경 135°자오선의 지방표준시를 쓰고있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적으로 북온대의 남부에 위치하므로 네 계절이 뚜렷하게 바뀌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적합하다.

【면적】 령토의 면적은 22만 791km²이며 그중 섬들의 면적은 5,963km²이다. 우리 나라 면적은 지구상 륙지면적의 676분의 1에 해당한다.

남북의 가장 긴 거리(섬을 포함하지 않음)는 825km(자강도 중강북쪽끝—전라남도 장흥반도 남쪽끝), 동서로 가장 넓은 거리는 354km(황해남도 장산곶서쪽끝—강원도 양양 북쪽끝)이다. 섬을 포함한 남북의 가장 긴 거리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는 약 620km이다.

【경계】 우리 나라 주위의 길이는 1만km이다. 그중에서 바다경계선의 길이는 8,693km(국경선까지 포함한 경계선의 약 87%)이고 중국, 쏘련과의 국경선은 약 1,376.82km이다. (쏘련과의 국경선은 16.98km)

【지형】 우리 나라는 전령토의 약 75%가 산지로 되여있으며 평지는 25%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형의 평균높이는 482m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세계륙지의 평균높이 875m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나라의 지형은 매우 낮은 편이다.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이 낮은것은 500m이하의 낮은산이 대부분(65%)이고 게다가 2,000m이상의 높은 산은 매우 적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산지는 북부와 동부에 치우쳐있고 낮은 평야들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다. 그러므로 동해안을 향해서는 급하게 경사지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향해서는 매우 느리게 경사져있다.

산지—우리 나라의 산지는 일정한 몇개의 방향으로 배렬되여있다.

북쪽에는 랑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으며 그 남쪽에는 태백산맥이 남쪽까지 계속되고있다. 이 두 산맥들로부터 여러 산맥들이 갈라져나간다.

랑림산맥의 동쪽은 넓고 높은 산지를 이루고있으며 그 북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 있다.

백두산에서는 마천령산맥이 남동방향으로 뻗어있으며 이 산맥의 거의 중앙에서 북동방향으로 가장 높고 험한 함경산맥이, 남서방향으로는 부전령산맥이 멀리 랑림산맥까지 뻗어있다.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의 북서쪽에는 비교적 완만한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이 있다.

랑림산맥서쪽지역에는 압록강을 따라 남서쪽으로 여러 산맥들이 뻗어있다. 압록강남쪽에는 강남산맥과 적유령산맥이 있고 그 남쪽에는 묘향산맥, 아호비령산맥, 마식령산맥, 북대봉산맥, 멸악산맥, 언진산맥이 있다. 묘향산맥에는 아름다운 묘향산이 솟아있다.

랑림산맥남쪽끝에서는 아호비령산맥과 마식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있다.

태백산맥의 서쪽산지에는 비교적 높지 않은 광주산맥, 차령산맥, 로령산맥, 소백산맥, 경상산맥이 뻗어있다.

태백산맥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1,211고지 등 명산이 많이 솟아있다.

평야—우리 나라 령토의 4분의 1은 평야이다. 평야들은 주로 큰 강들의 중류 및 하류 류역과 해안지대에 있으며 특히 서해안에 넓은 평야들이 많고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평야가 적다.

주요한 평야들로는 서해안에 있는 룡천평야, 운전평야, 안주평야, 평양준평원, 재령평야, 연백평야, 김포평야, 안성평야, 내포평야, 호남평야, 전남평야이다.

동해안에는 수성평야, 길주평야, 함흥평야, 영흥평야 등이 있으며 남해안에는 진주평야와 김해평야가 있다.

이 평야들중 가장 큰 평야는 재령평야, 호남평야, 평양준평원(면적이 각각 500km²)등이며 그다음은 연백평야(면적 400km²), 안주평야, 함흥평야(면적이 각각 300km²)등이다.

【바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이다.

우리 나라 바다들중에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는 동해이다.

동해에는 반도와 만, 섬들이 적다. 비교적 큰것은 호도반도, 경성만, 동조선만, 영일만과 울릉도, 마양도이다.

동해에는 남쪽에서 난류인 동조선해류가 조선해협을 지나서 흘러들며 북쪽에서는 한류인 북조선해류가 흘러온다.

서해는 우리 나라 바다들중에서 제일 얕은 바다이다.

이 바다에는 동해와는 달리 반도와 만, 섬들이 많다. 철산반도, 옹진반도, 태안반도, 무안반도와 서조선만, 강화만, 신미도, 강화도, 안면도 등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큰것들이다.

서해의 중앙부로는 구로시오에서 갈라져나온 난류인 서조선해류가 흐른다.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으므로 해안에는 넓은 간석지가 있다.

남해는 우리 나라 바다들중에서 제일 작은 바다이며 동해처럼 깊지도 못하다.

남해에는 특히 반도와 만, 섬들이 많다. 큰것은 해남반도, 장흥반도, 고흥반도와 보성만, 광량만, 진해만,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 등이다.

【기후】 우리 나라 기후는 비교적 온난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겨울철의 건조기와 여름철의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이 몹시 춥고 여름이 더운 것은 우리 나라 기후가 해양의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기후에서 특징의 하나는 여름과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이다.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습기있고 훈훈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자주 구름이 끼여 날씨가 흐리고 무더워진다. 반대로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메마른 북서풍이 불어와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춥고 메마르다.

봄철과 가을철은 계절풍의 교체기로서 이때에는 주로 따뜻하고 개인 날씨가 많다. 봄철에 기온은 급격히 높아지며 이에 따라 증발량도 많아지므로 이 시기가 년중을 통하여 가장 메마른 시기로 된다. 가을철은 일반적으로 개인 날씨가 많고 온난한 편이며 년중을 통하여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된다.

기온—우리 나라 기온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에 따라 다르다.

우리 나라 년평균기온은 10°C이지만(북부에서 4°C, 중부에서 10°C, 남부해안지대와 해상의 섬들에서는 14°C) 가장 더운 달인 8월 평균기온은 24°C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 평균기온은 −6°C이다.

기온은 지방에 따라서도 다르다.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기온의 차는 겨울에 특히 심하고 여름에는 매우 적다. 남해안지방의 8월 평균기온은 26°C이고 1월 평균기온은 0°C정도인데 북부산지대에서는 8월 평균기온이 16°C, 1월 평균기온은 −22°C나 된다.

해안지방과 내륙지방 사이에도 기온의 차가 있다.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겨울에는 대체로 4~6°C가량 높고 여름에는 1~2°C가량 낮다.

우리 나라의 최고기온기록은 1939년 7월의 39.8°C(충청북도 영흥군 추풍령), 최저기온기록은 1933년 1월의 −43.6°C(자강도 중강)였다.

강수량—우리 나라의 년평균강수량은 1,000mm이다. 년강수량의 50~60%는 6—8월의 3개월간에 내린다.

강수량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년강수량이 많은 지방은 남해안지방(1,400~1,500mm), 중부지방의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사이에 있는 지방(1,300~1,400mm), 북부에 있는 적유령산맥의 남쪽지방 등이다.

년강수량이 적은 지방은 함경북도의 북부지방(500mm)과 해안지방(700mm), 평안남도 및 황해남도 해안지방(800mm)이다.

우리 나라에서 년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강원도 장전의 3,150.3mm였으며 제일 적은 기록은 1924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208.5mm였다.

【강과 호수】 우리 나라의 강들은 서해사면, 남해사면, 동해사면으로 흐르는 강들로 구분한다.

서해사면과 남해사면은 지형이 완만하므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 큰 강들이 흐르고있으며 동해사면으로는 산맥들이 해안에 급하게 경사져있음으로 두만강과 성천강을 제외하고는 긴 강이란 없다.

우리 나라에는 길이가 50km 넘는 강만하여도 30여개나 있으며 이 강들을 통하여 1년동안에 흐르는 물의 량은 97.45km³ 이다.

우리 나라에는 천지와 광포, 장연호, 삼지연을 비롯한 자연호수들과 수풍호, 장진호, 부전호, 연풍저수지, 태성저수지, 서흥저수지 등 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온천과 약수—우리 나라에는 온천과 약수가 매우 많다.

큰 온천은 함경북도의 주을(경성군), 평안남도의 룡강(온천군)과 양덕, 황해남도의 신천, 충청남도의 온양, 경상남도의 동래와 해운대에 있고 좋은 약수는 강원도의 삼방, 평안남도의 강서와 평안북도의 옥호동에서 많이 나온다.

【동식물계】 우리 나라의 동식물계는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식물에는 167과 903속에 속하는 약 4,000여종의 종과 아종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북부고지대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린네풀 등을 비롯한 한대성식물들과 남부지대의 북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의 아열대식물, 우리 나라 고유식물을 비롯한 온대성

식물 등 실로 다종다양한 식물들이 많다.

우리 나라는 특산종이 많은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금강산의 금강초롱, 세계 1속 1종밖에 없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미선나무, 검산령의 검산초롱, 장수산의 장수만리화, 금강산의 금강국수나무 등은 그러한 실례들이다.

우리 나라의 동물상도 역시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척추동물에 속하는것만도 대략 1,100종이며 그중 포유동물은 104종, 조류는 423종, 파충류는 27종, 량서류는 15종, 어류는 520종이다.

우리 나라에는 복작노루를 비롯하여 특산종인 클락새, 특산아종인 산토끼 등 100여종의 특산동물이 있다.

【토양】 우리 나라에는 다종다양한 토양이 분포되여있다. 북부의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에는 산악포드졸토가 발달되여있고 삼림한계선이상의 산정부근에는 고산습초원토양이 분포되여있다.

북부산지대의 1,500~1,600m 높이의 산정부근에는 산악포드졸성토양이 환상으로 분포되여있으며 혼성림과 활엽수림이 생장하는 지역에는 삼림갈색토양이 발달되여있다.

중부온대남부 활엽수림이 생장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낮은 산 및 평지대는 삼림적갈색토양이 발달되여있다.

남부해안지대에는 적색토양 및 황색토양이 발달되여있다.

이밖에 논토양, 충적지토양, 간석지토양, 진펄토양들도 분포되여있는바 논토양은 우리 나라 평야지대 여러 곳에 있으며 간석지토양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여있다.

충적지토양은 강물의 범람과 과거의 충적지였던 하안단구들에 발달되여있다.

자 연 부 원

【지하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은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현재까지 발견된것만 하여도 300여종이나 되며 그중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광물은 약 200종이나 된다.

특히 철, 석탄, 연, 아연, 금, 동, 월프람, 마그네사이트, 흑연은 그 량이 많고 질이 아주 좋은것으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이밖에 망간, 알루미니움, 니켈, 규사, 고령토, 돌솜, 화강암 등 여러가지 유용광물이 많다.

【수력자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력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1,000만 키로와트이상의 출력에 해당하는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다.

수력자원이 많은 강들을 보면 압록강수계, 두만강수계, 대동강수계 그리고 한강수계, 금강수계, 락동강수계이다. 그중에서도 수력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류역(280만키로와트)과 두만강류역(100만키로와트)인바 이 두 강류역은 세계적으로도 수력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는데 서해안에만도 400억키로와트시이상의 발전가능량을 가지고있다.

【산림자원】 우리 나라는 산림면적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그 면적은 1,600만정보로서 이는 전국토의 73%에 해당한다.

산림면적의 58.6%는 북반부에 있고 나머지 41.4%는 남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식물은 1,100여종이나 되며 그중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 산림에는 700여종의 약용식물, 700~800종의 산채류, 450여종의 공업용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산림내에 있는 유용식물들중 중요한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섬유 및 제지용식물로서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닥나무, 노박덩굴, 유지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일식물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매지나무, 염료식물로서는 시닥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용재의 수종으로서는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및 기타 등이 있다.

【수산자원】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서 수산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체되는 지역이므로 한류성어족과 난류성어족들이 모여오는 세계 4대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자원은 650여종이나 되며 그중 530여종은 바다에, 120여종은 호수, 저수지, 강 등에 분포되여있다. 이중에서 자원의 량과 리용가치로 보아 수산업적 의의를 가지는것은 어류 75종을 비롯하여 120여종이다. 그 대표적인것을 들면 서해에서는 조기, 재우, 민어, 도미, 삼치, 갈치, 바스레기, 대합조개, 김, 굴, 미역 등이고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갈치, 재우 등이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북반부이고 그중에서도 함경남도 해안에서는 전조선어획고의 40% 이상이 생산된다.

국 가 기 관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기최고인민회의: 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에 걸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572명으로 구성.

제2기최고인민회의: 1957년 8월 27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215명으로 구성.

제3기최고인민회의: 1961년 10월 8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383명으로 구성.

현 최고인민회의는 제4기로서 1967년 11월 25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457명으로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을 진다.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제1차회의 제3일(1967년 12월 16일)회의에서 선거되였다.

국가중앙집행기관

【내각】

수상 김일성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며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수 있다. 공포한 결정 및 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을 진다.

현 내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1962년 10월 22일 법령으로 개정된 내각구성법)에 의하여 수상, 제1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외 필요한 인원들로 구성한다.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 제3일회의(1967년 12월 16일)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지방주권기관

【각급 인민회의】 도,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각급 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임기에 있어서 도인민회의는 4년이며 시(구역), 군 및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는 2년이다.

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정기회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차씩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인민회의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각급 인민회의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정확히 보장한다.

【각급 인민위원회】 도,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지역에서 모든 국가행정사업을 수행한다.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 시, 군 재판소에서 수행한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3년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도재판소는 3년임기로, 시, 군재판소는 2년임기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해당 인민회의에서 각각 선거한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수 있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며 모든 재판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검찰소】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며 각 성의 성령, 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도, 시, 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당, 사회단체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적인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로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위력한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아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부대이며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며 그 일반적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북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도모하며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인민과 사회주의 제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대중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북조선민주당

창립 1945년 11월 3일

천도교청우당

창립 1946년 2월 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남북조선의 71개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대표 704명의 참가하에 열렸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 조직 (6월 27일)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는 강령과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강령에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발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13개항목의 투쟁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45년 11월 30일 창립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적조직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수행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1947년 5월에 세계직업련맹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세계직업련맹 총리사회와 집행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별 직업동맹

조선금속기계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건설림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운수항만로동자직업동맹
조선광업및동력로동자직업동맹
조선경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상업일군직업동맹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조선공무원직업동맹
조선수산로동자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65년 3월 27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농민들과 국영농목장 및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기관, 직장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원칙에 기초한 혁명적대중조직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우리 나라 농업부문의 근로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적극적인 실천자로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며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46년 1월 17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7일 남북조선의 민청을 통합하였다.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조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단체이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건설의 교대자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한다.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은 1946년 6월 24일에 세계민주청년련맹에 가입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45년 11월 18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1951년 1월에 남북조선 녀맹이 통합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녀성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녀성들을 당주위에 굳게 단결시키고 그들을 혁명위업실천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1946년 10월에 국제민주녀성련맹에 가입하였다.

정 치

1965—1966년에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로선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다. 특히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당의 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력이 과시되였다.

1965년에 우리 인민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제반과업들이 나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수행의 결정적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지도일군들과 모든 당원들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며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깊이있게 구현할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말부터 1965년초에 걸쳐 금속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성, 국들과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요구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새로운 모범을 가르쳐주시였으며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광범히 인입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몸소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이해 당 및 국가 사업에서와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에서는 큰 전변이 일어났다.

성, 국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경제, 문화기관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5월 25일 교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인 인민정권기관(특히 지방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졌다.

다른 한편 우리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졌다. 이해 3월에 우리 나라 농업부문근로자들의 새로운 혁명적대중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창립되였고 9월에는 녀성동맹의 강화발전과 조선녀성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특히 농업근로자동맹의 창립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로농동맹이 공고화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이 일층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서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이 더욱 깊이있게 구현되여 나아갔으며 따라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그 위력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힘있게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따라 우리 전체 근로자들속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7개년계획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차게 지지성원하였다.

특히 이해에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성과로 기념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인민경제 각 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기념일전으로 이해 계획을 끝낼 자기들의 결의를 훌륭히 실천하였으며 년말까지에는 년간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강령적문헌인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의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졌다. 그리고 농업생산도 1964년보다 늘었다.

그리하여 이해에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계속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계속 견지되였다.

한편 이해 우리 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전민족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공화국정부는 수차에 걸쳐 매국적인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규탄하여 성명들을 발표하였으며 1965년 5월 20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는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하여》 로의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더욱 고립되고 놈들의 정치적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1965년에 대외관계도 또한 확대발전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자주적인 로선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종일관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특히 이해에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형제적윁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동시에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1965년에 우리 나라의 대외적관계가 확대되고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졌다.

1966년도에도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성된 국내외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발전을 강력히 촉진하며 국제혁명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1966년에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및 제 1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특히 이해 10월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어떤 폭풍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우리 혁명위업과 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 나아가는 우리 당의 불굴의 의지와 높은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보여준 회의로서 또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당의 강철 같은 통일, 당과 인민의 깨뜨릴수 없는 단결을 시위한 회의로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전반적혁명발전을 강력히 추동한 회의로서 당과 인민의 혁명력사에 뜻깊은 기록을 남긴 사변이였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평가하시고 이에 대처할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에게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강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주었으며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강령적투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자주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에로 불러일으켰다.

1966년에 혁명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사회제도가 더욱 더 공고화되였다. 당과 인민의 통일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올리면서 힘차게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는 한층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사로선을 관철하는데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일당백으로 준비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는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수 있게 더욱 강화되였다.

모든 부문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이 전개되여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더욱더 높아졌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인민들에 대한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당과 정부는 1966년에 국방력강화에 거대한 힘을 돌리면서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당과 정부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1967년 4월 1일부터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들을 발표하였으며 자녀가 많은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일데 대한 국가적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력사적승리의 결실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이와같이 방대한 국가적부담을 요구하는 획기적대책들을 련이어 실시한것은 오로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계속 발전하고 공고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날로 장성강화되는 혁명의 기지—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성과와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하에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물리치고 놈들의 전쟁정책과 윁남파병 그리고 일제의 재침을 반대하며 생존과 민주주의적자유,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대중적인 투쟁

을 전개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이해에도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월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또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일관하게 지지성원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날로 장성강화되는 나라의 위력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위신과 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공고화되였으며 일련의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국제적관계가 더욱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세계에서 자기의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 승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것이다. 우리 전체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령도에따라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불같은 열의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

196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혁명의 강력한 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을 커다란 기쁨과 혁명적열정속에서 기념하였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당의 기발 따라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과 그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에 휩싸였으며 승리자의 긍지높이 지나온 로정을 회고하며 혁명위업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한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력사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왔으며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조선공산주의운동앞에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장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비로소 위력한 혁명의 전위부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지게되였으며 그 령도밑에 조국의 번영과 혁명승리의 찬란한 새력사를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지 20년이 되지만 결코 나어린 당이 아니며 그 력사적뿌리는 매우 깊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발전에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혁명적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였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되고 원쑤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선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오래동안 풍파많은 간고하고 험난한 로정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비로소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확고히 지도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졌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 원천으로 되는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혁명에서 단련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이 꾸려졌으며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과 그의 확고한 통일이 이룩되였다. 또한 당창건을 위한 튼튼한 대중적지반이 꾸려졌다.

장구한 혁명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조선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위신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신뢰를 한몸에 집중시킨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있었고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은 제때에 그리고 견고한 토대에서 창건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이렇게 견고한 토대에서 창건되였기 때문에 그 창건 첫날부터 온갖 풍파와 시련을 뚫고 추호의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길, 자주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는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 우리 당의 존재와 발전도,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인민의 자유와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 20년간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을 선두로하는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혁명을 계속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나라와 인민앞에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우리 당이 걸어온 20년간의 력

사는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과 온갖 반동세력의 책동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쌓은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이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20년이란 짧은 기간에 민족적독립을 달성하였으며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계속하여 온갖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위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은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강유력한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자랐다. 오늘 전체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 그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여있다.

그러기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머니 당—조선로동당 창건 스무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1965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자!》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면서 힘찬 증산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냄으로써 당앞에 맹세한 자기들의 결의를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이와 같이 조선로동당이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을 이끌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환경에서, 온 나라가 전례없는 혁명적앙양과 로력적열의로 들끓고있는 환경에서 1965년 10월 10일 평양대극장에서 당창건20주년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에는 전국각지의 당조직들에서 파견되여온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투사들과 당을 창건하며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로당원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투사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운 동지들,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과학 문화부문일군들 2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조직대표와 일본에서 조국의 통일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재일조선인대표가 참가하였다.

경축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당의 전사로서 당의 기치밑에 싸워 승리한 업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어리여 있었다.

정각 오후 3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국제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조선로동당만세!》, 《김일성동지만세!》를 부르며 경애하는 수령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축대회에서는 우렁찬 박수와 환호소리 대회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김일성동지께서 연단에 나오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보고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지난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당을 창건하고 그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와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심오하게 총화분석하시였으며 오늘 우리 시대가 차한 위치와 그 임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제반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 문헌편 5페지참조)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열렬한 박수로 하여 자주 오래동안 중단되군하였다.

대회에서는 북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강량욱위원장과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박신덕위원장이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업적을 축하하여 연설하였다.

강량욱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 참가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북조선민주당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렸으며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오늘과 같은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일성원수께 다시금 뜨거운 감사와 영예를 드리였다.

그는 또한 지난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잘 살수 있을때까지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울 결의를 말하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전체 조선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다음 박신덕위원장은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 참가

하여 축하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원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충심으로부터의 축하와 영예를 드리였다.

그는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 기아와 빈궁에서 해방시켜주었으며 천도교인들이 오랜세월 꿈꾸어 오던 《지상천국》을 김일성원수께서 창건하시고 조직 지도하신 조선로동당이 실현시켜 주었고 자기들을 오늘의 행복에로 인도하여준 김일성원수와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할것이며 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행복하게 살때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조직대표 장경일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그는 당창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 방방곡곡에서도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산속과 바다에서, 지하와 철창속에서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향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향하여 자기들의 지성어린 축하를 보낸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를 통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강점의 그 암담하던 시기부터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하여 무장을 들고 15성상이나 원쑤와 싸우신데 대하여, 그리고 조국에 개선하시여 20년간 빛나는 항일전통을 발전시켜 조선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시고 오늘과 같은 강철의 당으로,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심장으로, 뇌수로, 나아가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의 하나로 발전시켜오신데 대하여,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현대적 공업—농업국가로 건설하고 공화국북반부에 조선혁명의 최종승리를 담보할 불패의 혁명기지를 축성하여 놓으신데 대하여, 그리고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격파하고 그와 맞서서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수호하여 조선인민의 영예를 온세계에 떨친데 대하여 그이께 남조선 전체 혁명조직과 남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이름으로, 싸우는 남조선 로동계급과 농민, 학생들과 인테리 그리고 전체 남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다함없는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끝으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조선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가일층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다음으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인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장철부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 뜻깊은 경축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전체 재일조선동포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과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특히 우리 재일동포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분을 한번 만나 뵈옵는것을 일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뵈옵고 따뜻하고 육친적인 말씀을 듣게된 그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그 무슨 말로써도 다 표현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수많은 일본인민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당신들이 몹시 부럽다고 진심으로 말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김일성원수님께 의탁하고 있으며 일편단심 그분이 가리키시는 길을따라 싸워나가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음을 전하면서 전체 60만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에게 오늘의 영광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민의 선두에 서시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만고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 올리게 하신 김일성원수님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그는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온 축기를 김일성동지께 전달하였다.

뒤이어 사로청축하단과 소년축하단이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께 축하를 드리였다.

대회는 전체참가자들의 인터나쇼날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경축대회 참가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여 우리 당을 더욱 공고히하며 조국의 자주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철저하게 싸우려는 혁명적 기백과 투지로 충만되여있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

및 기관, 기업소, 인민군구분대들에서도 당창건 20주년경축대회를 일제히 진행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당이 걸어온 혁명적로정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도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라도 극복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싸워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1966년 10월 5—12일)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7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당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로력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10월 5일 아침 9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원이 일어나서 부르는 《조선로동당만세!》, 《김일성동지만세!》의 환호소리와 오래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뒤흔들었다.

조국의 광복과 륭성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해방과 자유행복을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정확히 령도하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의 열정으로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오래동안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다.

당대표자회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1천275명, 발언권을 가진 대표 48명이 참석하였다.

당대표자회는 회의집행부, 서기부, 문헌편집위원회, 대표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3.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의정 첫째문제인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께서 보고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시기 국제국내정세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과 활동방침을 천명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 문헌편 99페지 참조)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한 토론이 10월 6—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전체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 보고는 우리 혁명발전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보고가 복잡한 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형편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하며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과 가장 원칙적이며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원칙 및 방법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게 발전시킨것으로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준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토론자들은 보고에서 제시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또한 대표자들은 토론에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에서 거둔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적자주로선을 천명하고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동요없이 관철하도록 이끌어 주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과 창조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로선을 앞으로도 계속 완강히 관철할것을 일치하게 다짐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침략책동을 날로 적극화하고있는데 대처하여 반제투쟁을 강화하는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전체 대표자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피어린 싸움을 하고있는 영웅적웰남인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특히 당대표자회는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일본공산당의 자주적립장과 그를 선두로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함께 대표자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첫 사회주의혁명의 기발을 든 꾸바혁명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꾸바혁명을 적극 지지하고 보위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라고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반제투쟁의 리익과 전반적혁명위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렸다. 전체 대표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며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보고에서 제시한 과업을 실행할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

현정세의 발전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준다고 하면서 전체 대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백방으로 촉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할데 대하여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보고에서 분석된 남조선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있으며 전반적정세는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조성되여가고있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때려부셔야만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철폐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 견결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월 7일회의에서 남조선혁명조직대표 리남혁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는 뜻깊은 본대표자회에 참가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위원회에 남조선혁명가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인민을 령도하시여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아가시며 나라의 북반부에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축성하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리남혁동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식민지통치를 폭로규탄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북반부인민들과는 정반대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참을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나 그 어떤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북반부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되면서 모든 역경을 뚫고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당대표자회에 전달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남조선혁명운동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으로서 모든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여준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보고에서 제시된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조직을 더욱 공고화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고 혁명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남조선혁명조직대표가 토론을 끝마쳤을 때 모든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조직대표와 굳은 악수를 하면서 남조선혁명가들의 투쟁을 고무하시였다.

10월 8일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 맨처음으로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단장인 로병우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위원회에 60만 재일동포들이 드리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였다.

로병우동지는 60만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자랑을 안고 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면서 축하연설을 마치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 보내는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축기를 로병우단장이 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재일동포들로부터 보내온 축하를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로병우단장과 뜨거운 악수를 하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조직대표 김영희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그는 당대표자회에 참가한 감격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혁명가들과 남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리였다.

그는 특히 우리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자나깨나 북쪽하늘을 우러러 그분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한 기쁨의 시각이나 또는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개를 넘어야할 간고한 시각에나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우리의 앞길을 태양과 같이 밝혀주시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수 있게된 이 기쁨, 이 영광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동지의 보고에서 천명된 사상은 투쟁과 승리의 무기로 된다고 하면서 이 무기를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전할것이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또한 그는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녀성들은 남북조선인민과 녀성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그날을 위하여, 미제국주의야수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영희동지가 토론을 끝내자 그와 굳은 악수를 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모두다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10월 10일 당대표자회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스물한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동지가 당창건 21주년기념사를 하였다. 기념사에서는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였으며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그리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당은 오늘 전당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함께 숨쉬며 행동하는 통일되고 단결된 당으로 되였으며 인민들과 굳은 련계를 맺고 보수와 침체를 모르고 계속 전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좌우경 기회주의를 단호히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전투적부대로 되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를 깊이 신뢰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당이 거둔 이 모든 승리와 성과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선두에 서시여 항상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기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하시였으며 해방후 복잡한 환경에서 정확한 조직로선을 제시하고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공고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 승리적수행에로 전당과 인민을 인도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령도하여 준엄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시였고 조국통일의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기초한 확고한 자주로선을 제시하고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지난 21년간 우리 당이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것이나 김일성동지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고계시는것은 우리 당의 공고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과 우리 조국의 장래운명을 위하여 실로 행복한 일이다.

당대표자회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오늘과 같은 단결되고 강력한 당으로 장성강화시켰으며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모두 일어서서 오래동안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 열렬한 축하와 영예를 드리였다.

김일동지는 끝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확고히 보위하며 그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감으로써 현시기 조성된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위대한 새로운 승리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10월 10일 오전에 김일동지가 의정 둘째문제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보고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당 제4차대회와 이번 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들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개괄하면서 현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여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보고에 뒤이어 토론이 있었다.

모든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구체화하여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가일층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과업들을 정확히 제기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당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하면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문제에 주목을 돌리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에 비추어 응당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7개년계획의 수행을 3년간 연장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조치는 현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출발한 능동적이고 적절한 조치이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찬동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을 늘이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거대한 예비가 있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물자소비기준을 낮추는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한편 그것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할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돌렸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대표자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할데 대하여 주의를 돌렸다.

당대표자회에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10월 12일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정 첫째문제와 둘째문제에 대한 토론들과 전반적인 당대표자회사업을 총화하는 결론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우선 이번 당대표자회가 국제공산주의운동,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남조선혁명 등 중요한 문제들을 심오하게 토의하고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문제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복잡한 현정세하에서 완전히 일치한 의견으로 채택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제시하게 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이와같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당의 로선과 활동을 한결같이 지지한것은 전체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와 완전히 한몸이 되고있음을 시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대표자회에 대한 국내외의 반향에 언급하면서 모든 사실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를 구체적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원칙적이며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고있다는것을 확인하여주고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럴수록 우리 당은 국제혁명운동앞에 지닌 책임이 무겁다는것을 자각하고 전당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와 토론들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으며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나서는 구체적과업에 언급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자기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자기 나라와 자기의 모든 우수한것을 사랑하고 민족적자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또한 사상적준비뿐만 아니라 자주자립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도 더욱 강화하며 과학과 기술, 문화예술 등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외활동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웰남인민을 계속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을 강조하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해서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들의 있을수 있는 침략전쟁에 대처하여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며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당과 인민의 무장력인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민이 한몸이 되여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이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물질적준비를 잘 갖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의 무장화를 더욱 완성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로농적위대의 전투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의 투쟁경험에서 배우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투경험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원쑤들이 어느때 어느곳에 침입하여도 그놈들을 철저히 소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순응하여 당 및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움으로써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돕고 아끼는 고상한 공산주의도덕품성을 갖추도록 교양할것을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생산조직사업을 잘하여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7개년계획에 예견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금번 당대표자회에서 제기한 력사적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 결론을 지지환영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의정 첫째문제인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한 결정서와 의정 둘째문제에 대한 결정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성명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자기 앞에 나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우리 혁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당대표자회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친 전당의 통일단결을 시위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모든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또한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고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전투적기개를 과시하였다.

당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어떤 폭풍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밑에 확고히 전진하며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더큰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굳은 결의와 신심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

1965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1.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중요말씀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인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심중하게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연료와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당은 공업의 첫공정인 연료공업과 전력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연료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열 및 전력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연료와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제반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연료와 전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왔다.

그런데 현실은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인민경제는 현대적인 열 및 동력설비들로 장비되고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있으며 열과 전력의 리용분야가 급속히 넓어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원회의는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이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제기하고 이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열관리사업은 열설비와 연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많은 열을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관리사업이며 기업관리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원회의는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하나의 기술경제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대한 문제로 철저히 인식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혁명적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가지며 열 및 전력관리방법에 정통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열 및 전력관리사업은 기술관리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열관리부문에서는 열설비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개선하며, 석탄관리를 잘하고 보이라용수의 질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석탄과 증기의 소비기준을 낮출것이며, 전력관리부문에서는 설비관리를 개선하며, 기술혁신을 하고 전력소비기준을 낮추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줄이는 동시에 현존 발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일것 등 일련의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열 및 전력관리사업이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요구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에 걸쳐 진행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열 및 전력관리에서 국가의 지도감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성, 국들과 기업소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것과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전원회의결정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열 및 전력관리사업을 한층 개선함으로써 인민경제 내부에 잠재하고있는 거대한 예비를 동원하고 전반적기업관리수준을 더욱 높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인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토의에서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로 하여 민족간부양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은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는데 전당적관심을 돌렸으며 진정한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

특히 전후시기 사회주의건설이 고조됨에 따라 당은 짧은시일내에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고등교육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간부양성의 기지가 확고히 축성되고 근로인민들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부대가 육성되였다. 한편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인테리들은 당의 붉은 인테리로서의 높은 긍지를 가지고 새로 육성된 민족간부의 대부대와 함께 우리 혁명위업의 리익을 훌륭히 담당하고있다.

민족간부양성과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완강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였다. 특히 당은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형태를 창설함으로써 민족간부양성의 가장 효과적이며 선진적인 방도를 찾아내

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을 잘알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있는 근로인민의 인테리부대를 육성할수 있었다.

민족간부양성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 발전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과학분야에서도 주체확립을 위한 일관된 방침에 따라 국내자원에 립각한 자립적경제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제기된 과학문제의 연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원회의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에 부합되게 기술인재양성의 급격한 량적장성에 그 질을 따라세우며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전진시킬 과업과 그 방도 및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대학교원과 과학자들을 비롯한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라고 전원회의는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인테리들의 혁명화를 그들자신의 일로 전환시키며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당의 인테리로 교양육성할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의 질을 높이는것이 현시기 고등교육기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대학교육사업에서 주체를 계속 철저히 확립하며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선하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킴에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강조하면서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형태의 교육사업을 강화할것 등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높일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과학연구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할것을 강조하였으며 매개 과학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교육기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의 사업에서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 부문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가 취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나라의 민족간부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을 더욱 높은 단계로 올려세움으로써 경제건설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앙양과 기술, 문화혁명의 촉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열 및 전력관리사업과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진군을 촉진시키며 7개년계획의 수행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1965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군당위원회 사업과 인민경제 각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 앞서 10여일간에 걸쳐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당위원회 위원장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위원장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우리 당의 말단 지도기관이며 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의 사업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높일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현시기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고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전원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토의된 문제들에 기초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동지들이 토론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의 정치적참모부인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각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에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전원회의는 모든 군당 위원회들을 비롯하여 각급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일군들이 전원회의가 제기한 과업에 근거하여 자기사업을 원만히 조직집행함으로써 군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3차전원회의

1966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3차전원회의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열렸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또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 당중앙 및 도(직할시)당 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실천정형 중간총화에 대하여
2. 당대표자회소집에 대하여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며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협동지가 보고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일치하게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이 실생활에서 그 정확성이 확증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결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당대표자회를 1966년 9월 혹은 10월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전원회의

1966년 10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또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1. 당대표자회결정 비준에 대하여
2.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인 당대표자회결정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비준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문제를 토의하면서 당조직 기구를 일부 개편할것을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당 및 국가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안에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였다.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총비서, 비서 직제로 개편하고 비서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서국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사업을 조직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보선이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김일성동지를 총비서로 하고 10명의 비서로 구성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 창립 20주년

우리 당의 간부육성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는 1966년 6월 1일 자기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뜻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5월 31일 기념회를 진행하였다.

기념회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중앙당학교를 직접 창립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무한한 기쁨과 영광속에서 진행되였다.

기념회는 먼저 전체 참가자들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서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으며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립된 중앙당학교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교양육성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조선혁명의 먼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수많은 혁명간부들을 계통적으로 교양육성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혁명간부들을 육성하고 교양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실지활동은 혁명가들,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한 당적이며 혁명적인 교육교양의 제원칙들을 철저히 구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앙당학교와 각급 양성기관들의 깊은 뿌리를 이루고있으며 그의 전투적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중앙당학교는 바로 이러한 터전에서 자라났으며 그것으로하여 항상 자기 활동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시종일관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중앙당학교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충실하였으며 준엄한 시련의 풍파속에서도 항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당의 기치,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순

결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중앙당학교는 창립이래 20년간 우리 당 건설과 혁명발전의 전 기간에 걸쳐 간부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맑스-레닌주의세계관과 혁명적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을 당, 국가, 사회 단체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부문의 중견간부로 배출함으로써 당과 인민앞에 귀중한 업적을 남겨놓았다.

중앙당학교는 해방직후 온갖 불비한 조건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당 및 국가 건설의 각 초소에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수많은 간부들을 훌륭히 육성하여 당시 긴박하게 제기되였던 간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민주주의적변혁의 성과적수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반 민주개혁이 완수되고 당조직과 당대렬이 급속히 장성됨에 따라 더 큰 규모로 발전한 중앙당학교는 혁명적리론과 이미 축성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으로 특히 사회주의혁명사상으로 간부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과도기에로의 이행을 위한 사상적준비를 갖추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간부들을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혁명임무에 적응하게 교양하고 훈련하였다.

또한 중앙당학교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많은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체의 임무를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수많은 간부들을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시켰으며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에 대한 신심,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교양하여 전선과 후방에 보냄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간부들의 교육교양과 육성을 위한 중앙당학교의 활동은 전후시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시기 당대렬이 확대강화되고 당사업범위가 커짐에따라 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간부양성의 질적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함은 물론 특히 전후복구건설의 복잡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치렬한 계급투쟁, 당내에서 전개된 심각한 사상투쟁 등은 간부들속에서 높은 당성을 요구하였으며 그들의 사상단련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중앙당학교는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교수교양의 총적방향을 학생들의 당성단련에 두고 교수사업과 당생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상을 적극 단련하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학교는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경향들과의 사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항일선렬들처럼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과 습성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되는 위험으로 된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등을 반대하는 투쟁에 견결히 나섰으며 간부들속에서 각종 기회주의사상을 체계적으로 폭로하고 맑스-레닌주의사상을 견결히 수호하며 모든 활동에서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도록하였다.

이리하여 중앙당학교는 당적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제때에 훌륭히 양성함으로써 당사업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우리당과 혁명을 위하여 이루어놓은 거대한 업적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중앙당학교는 지난 20년간에 그러하였던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곤난과 시련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간부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당 및 국가 관리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정치, 리론,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일군들을 더 많이 더 잘 육성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 3기 제4차회의

1965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가 열렸다.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주석단에 등단하시자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총기립하여 오래계속되는 우뢰와같은 박수를 보내였다.

회의의안 1.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2.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4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승인에 대하여

첫째 의안인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지원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부수상인 김광협대의원이 보고하였다.

보고에서는 웰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방안과 제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할것을 자기의 응당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념원과 한결같은 결의를 반영하였다.

회의는 보고에서 제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낼데 대한 제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1명의 편지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를 방문중에 있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느구옌 반 헤우단장이 만장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연설하였다.

그는 먼저 김일성동지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되는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자기의 연설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주위에 굳게 뭉쳐 불굴의 의지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는 남부웰남인민의 높은 전투적기개와 영웅적투쟁모습을 전하였으며 미제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수상만세!》로서 연설의 끝을 맺었다.

연설을 끝낸후 느구옌 반 헤우단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 보내는 축기를 전달하였다.

회의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직접 조선인민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형제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쟁을 전력을 다하여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는 편지 초안작성위원회가 제출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보내는 편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결정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가 형제적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웰남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다할데 대하여 선포하는 동시에 남부 웰남민족해방전선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어느때나 지원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한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가 각국 국회들에 보낸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결정들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과 결정들을 일치하게 승인하고 형제적웰남 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앞으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만을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하게 진정한 대표로서 인정할것을 선포하고 웰남의 평화를 회복하며 웰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남부웰남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웰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둘째 의안인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하여는 외무상 박성철대의원이 보고하였다. 보고에서는 아세아침략정책의 산물로써 처음부터 미제가 직접 조작하고 조종한 《한일회담》의 본질을 규탄하고 남조선에 닥쳐온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며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남조선대표 박성혁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에서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대미문의 학살과 탄압밑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하는 김일성수상을 모시고 회의에 참가한 흥분과 감격을 피력하면서 김일성수상께 남녘형제들이 드리는 뜨거운 축하와 충성의 맹세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랑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간직하고 20년을 굴함없이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이 항쟁에서 피흘린 수많은 영웅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한일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남조선형제들의 굳은 결의를 전하였다.

회의는 《한일회담》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본질과 비법적성격을 폭로규탄하고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매국노들의 집단이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주구인 박정희도당과 일방적인 음모의 방법으로서는 조일량국간의 미해결문제를 절대로 처리할수 없다는것을 일본사또반동정부에 엄숙히 경고하는 동시에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반동정부간에 조작되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무효로 선포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하였다.

최고인민회의결정에서 명백히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인민은 대일배상청구권을 계속 보유하며 그것을 반드시 행사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해와 전통적인 어장에 대한 그 누구의 침범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자기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결코 침략자의 손에 내맡기지 않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인 60만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가 유린당하는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회의는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셋째의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4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1964년도 국가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였으며 1965년도 국가예산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결정관철과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중요한 해로 되는 1965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도록 정확히 작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1964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1965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넷째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와 제4차회의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3기 제5차회의

1966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가 열렸다.

김일성동지께서 회의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래계속되는 우뢰와같은 박수를 보내였다.

회의의안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5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2.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 3. 남조선괴뢰정부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4.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의 성명을 지지할데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승인에 대하여

첫째의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5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이어 예산위원회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1965년 국가예산의 집행정형을 분석하고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국가예산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수행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1966년도 국가예산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들에 따라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할수 있도록 작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지난해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언급하면서 이것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적 로력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인민생활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법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정책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예산의 인민성과 그리고 부단히 장성하는 사회주의경제의 내부축적에 의거하고있는 그의 공고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킴으로써 1966년도 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회의는 1965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1966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둘째의안인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는 내각부수상 김광협대의원이 보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제출된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는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농업정책이 가져온 또하나의 거대한 승리이며 농민들을 조세부담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실현할수있는 진정한 인민적시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해서도 책임지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다시한번 확증해 주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도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수 있게된것은 우리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여 놓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당과 정부의 거듭되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농촌진지를 일층 공고화할것을 다짐하였다.

회의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의 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 의안들인 남조선괴뢰정부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와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의 성명을 지지할데 대하여를 심의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것을 호소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할때까지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워나갈데 대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와 제3기 제5차회의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3기 제6차회의

1966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의안 1.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승인에 대하여

첫째의안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는 내각 제1부수상 김일대의원이 보고하였다.

보고에서는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지난기간 우리나라 인민교육사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고 7개년계획기간에 실시할것을 예견한 우리 당의 인민교육강령이며 문화혁명의 중요한 부문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된것은 인민교육에 대한 당과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 후대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 전체 근로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있는 훌륭한 교육제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이미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강령에서 제기한 고상한 리념의 구현이며 우리 당 교육정책의 빛나는 결실임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 당의 인민교육강령의 빛나는 구현이며 혁명의 더욱 큰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힘과 재능을 정력적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당의 또하나의 현명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제기된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전후 3년만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뒤이어 1958년에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 우리 나라에서 오늘 7개년계획을 일정하게 연기하면서까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여야할 정세하에서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있게 된것은 후대교육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을 철페하고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을 제시하시였으며 이것을 항일유격근거지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인민교육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력사적뿌리를 이룩하시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후대교육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지도와 두터운 배려밑에 우리 나라 교육분야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를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온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거대한 의의와 우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토론자들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될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할 중요한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토론자들은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과학사상성을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육성할것을 다짐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법령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둘째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와 제6차회의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였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련석회의

1965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련석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1964년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아랍련합공화국,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말리공화국, 기네공화국, 캄보쟈왕국을 친선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의 귀환보고가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와 아세아 여러나라 인민들과 조선인민 사이에 맺어진 확고부동한 친선단결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이 지역 신생독립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최용건동지의 방문성과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1965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웰남에 조성된 극히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각국 국회들에 보낸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3기 제2차회의 호소문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전쟁확대의 위험성을 저지시키며 웰남의 평화를 회복할 목적으로 1954년 제네바협정의 기본조항들이 정확히 리행되여야 한다는것을 재천명하고 웰남문제의 가장 정확한 정치적 해결의 기초로서 4개항목의 립

장을 제기한 윁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호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66년 2월 1일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윁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윁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줄것을 호소하여 보내온 서한을 토의하였다.

확대회의는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윁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윁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형제적윁남인민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호지명주석의 서한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의 회답서한을 채택하였다.

1966년 8월 1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량욱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아랍련합공화국,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이라크공화국 및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는 강량욱부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대표단의 아프리카 및 서남아세아, 중근동나라 방문이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이 지역인민들간에 맺어진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에 이바지하였으며 대표단이 자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

1966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할데 대한 우리 당 제4차대회결정과 이를 계단별로 1966년까지 실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을 실생활에 정확히 구현하였다.

결과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의 전체 협동농민들은 세금의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되여 세상에서 아직 그 류례를 보지못한 세금이 없는 농촌에서 살게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이 그렇게도 인민을 생각하시여 농민들에게서 한푼의 세금도 받지않을뿐만아니라 온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농촌을 힘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령도자는 아직 모르고있다.

그런 나라는 이행우에 단하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천리마조선—우리 나라가 있을뿐이다.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이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조세제도를 우리시대에 와서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사변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현물세제는 해방후 토지개혁에 뒤이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민들을 고률의 소작료와 온갖 가렴잡세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였으며 다만 농작물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체처분하게되였었다.

그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이 발전하고 공업화가 추진되여 나라의 경제력이 장성강화됨에따라 당과 국가적 조치로서 현물세를 25%에서 8.4%까지 계통적으로 낮추었으며 해마다 경제토대가 비교적 약한 협동농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그 납부를 완전히 면제하여 오다가 이제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게되였다.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한 이 력사적조치는 항상 인민들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하여주시는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이며 언제나 인민들을 잘살게하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빛나는 구현이다.

그것은 또한 근로인민자신이 나라의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여주는 것이며 전인민적소유의 발전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적으로 돌보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립장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것과 같은 혁명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은것은 오직 항상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 철저한 계속혁명의 사상에 립각하여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협동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은 이 기쁨의 무한한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면서 알곡 정당 500키로 증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1966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우리 나라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력사적인 법령에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있는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고있을뿐만아니라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더욱 큰 승리를 앞당기려는 위대한 지향이 담겨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등의무교육제실시의 성과에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완전히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기술의무교육에로의 이행은 사회주의적교육제도의 가일층의 발전을 의미하며 후대들을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육성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으로 될것입니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 나라를 교육분야에서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라서게 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인 우리 당 인민교육강령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젊은 세대를 혁명의 후비로, 민족간부로 길러내는 교육사업에 대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지출, 자녀교육에 대한 인민들의 불타는 열의와 전체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인민교육은 자랑찬 승리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은 해방된지 불과 10여년만에 그것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3년후인 1956년에 완전히 실시되였으며 련달아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보게되였다.

전반적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김일성동지를 선두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리념과 후대교육에 대한 우리 당의 극진한 배려가 가져온 훌륭한 열매이다.

그것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혁명적교육강령의 빛나는 구현이며 항상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나라의 만년대계인 인민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일에 앞세워온 우리 당의 교육정책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이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됨으로써 우리 후대들은 만7세부터 만16세까지 즉 정상적으로 로동할 나이가 될때까지는 누구나 빠짐없이 정규학교교육을 받아 과학과 기술의 기초지식을 소유한 문명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따라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직업적소년로동의 잔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문화혁명의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더욱 꽃피게 할것이며 전반적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더욱 큰 승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또한 남조선인민들과 교원, 학생들에게 큰 고무로 되며 그들을 생존과 배움의 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세계의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기쁘게 할것이다.

모성로동자들을 위한 극진한 배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성로동자들에게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일하고있는 모성로동자들중 가정부담이 많은 모성로동자의 로동시간을 줄여 그들이 가정생활을 알뜰히 꾸리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내각에서는 1966년 9월 27일 결정 제 23호로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이것을 196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들에서 육체로동을 하고있는 모성로동자들중 만 13세까지의 자녀를 3명이상 가진 자(이하 자녀가 많은 모성로동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기로 되였으며 련속생산공정과 개별적으로 작업에 늦게 착수하거나 먼저 끝낼수 없는 부문에서 일하는 모성로동자들은 한주일에 5일간(하루 8시

간 석) 일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간 쉬게되였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모성로동자들에 대한 식량과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의한 년금보조금의 지불, 정기휴가 등은 8시간 로동을 할때와 같이 보장된다.

이 조치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믿음직한 역군인 녀성들에게 자기의 재능과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더욱 광활한 길을 열어준 극진한 배려이며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또하나의 승리로 된다.

그리하여 전체 녀성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며 인민생활에 깊은 배려를 돌리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에 사는 행복감과 긍지를 더욱 깊이 느끼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인민경제대학창립 20주년

인민경제대학은 1966년 7월 1일 자기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뜻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기념회가 진행되였다.

기념회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인민경제대학을 직접 창건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무한한 기쁨과 영광속에서 진행되였다.

기념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서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으며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인민경제대학은 지난 20년간 자랑찬 업적을 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국가 및 경제관리 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것을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던 그 시기에 조국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통찰하시고 인민경제대학의 전신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온 빛나는 혁명전통의 계승이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오래동안 구상되고 준비되여온 민족간부양성방침의 구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민경제대학은 해방직후와 민주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기와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간부양성정책을 받들고 국가간부들을 믿음직하게 육성하였다.

특히 지난기간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두한 온갖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모진 시련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도 일편단심 김일성동지의 믿음직한 전사로서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였다.

대학은 또한 교수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과학사상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지휘성원들을 육성하였다.

동시에 교원집단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오늘 교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그 사상으로 교수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믿음직한 당의 교육자로, 정치일군으로 자랐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대학은 당의 간부양성정책관철에서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담당할수 있는 사상리론적으로 준비된 튼튼한 당의 간부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

대학의 교직원학생들은 지난 20년간에 그러하였던것과 같이 앞으로 어떠한 난관과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자기들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창립 20주년

1965년 11월 30일 우리 나라 전체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되고 강화발전된 조선직업총동맹창립 2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날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조선직업총동맹창립 20주년기념모임이 있었다.

기념모임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창립 20주년에 제하여 로동계급과 직업동맹 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는 지난기간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직업동맹단체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주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와 성과에로 고무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창립된 첫날부터 우리 나라 로동계급대렬의 통일을 실현하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직업동맹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어떠한 어려운 풍파속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직업동맹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복구발전시키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공고화하는데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김일성동지의 부름에 따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전선과 후방에서 비할바 없는 영웅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간난신고를 용감히 극복하면서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가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는 투쟁과 특히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에서 전면적으로 발현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며 모든 전선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실로 위대한 변혁을 일으켜놓았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직업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직업동맹은 자기 대렬에 전국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망라한 강력한 혁명적대오로 장성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대회

1965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에 걸쳐 우리 나라 농업부문근로자들의 새로운 혁명적대중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창립대회가 전국각지에서 선출된 대표자 1천 494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되였다.

3월 25일 정각 9시,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순간, 장내는 열광적인 환호와 만세로 끓어번졌다.

참가자들은 전원 일어서서 《김일성동지만세!》를 웨치고 그칠줄모르는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의 자유롭고 유족한 생활을 펼쳐주시였으며 농업근로자동맹원의 영예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였다.

의정 1,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농업근로자동맹규약을 채택할데 대하여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대회보고에 앞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창립대회에 보내온 축하문전달이 있었다.

대회는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나라 농업부문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하여 더욱 강력한 혁명적대중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고 동맹앞에 나선 과업들을 토의한후 이에 대한 결정과 동맹규약(서문 7장 50조)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 농민들이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던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에 로동계급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온 투쟁업적들을 총화하였다.

대회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오신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그이에 의하여 우리 농촌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혁들을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였고 농민들을 더욱 광명한 앞날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감사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전체 협동농민들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하여 사회주의농촌을 더빨리 더잘 건설하여 농업증산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수상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신뢰에 어김없이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의 진행정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나라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전투적위력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시위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농촌사회주의건설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열정을 과시하였다.

대회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고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면서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125명과 후보위원 55명,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7명을 선거하였다.

뒤이어 동맹중앙위원회 제1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

거하고 동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선거하였다. 검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창립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농촌진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로농동맹을 일층 강화하여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의 요새로 반석같이 꾸림에 있어서와 농업부문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휘시켜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여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20주년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창건되고 장성강화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전투적인 후비대로서 지난 20년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혁명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을 안고 1966년 1월 17일 자기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사명과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로서,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전사로서, 락후하고 빈곤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오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지체없이 청년들을 동원할수 있는 단결되고 규률있고 전투력있는 부대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청년들은 수령께서 주시는 어떤 임무라도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는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앞날의 새사회건설자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사로청의 장성발전과 그 모든 업적들은 조선청년운동과 우리 청년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1946년 1월 17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사로청의 전신인 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되였다. 이것은 조선청년들의 생활과 청년운동의 발전에서 력사적사변이였다.

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됨으로써 조선청년들은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의 확고한 령도를 받는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청년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청년운동의 중요성과 그 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은 태산도 허물어낼만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들의 힘을 더 키우고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변혁의 거대한 혁명적력량으로 되게하는것이 우리의 청년사업이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의 사명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실천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 그리고 적통치구역들에서는 공청과 반일청년단체들이 광범히 조직되여 근로청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일제와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청년운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확립하고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과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과 업적은 해방후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장성발전하여온 지난 20년간의 력사적행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청조직로선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청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청년들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육성할수 있었으며 민주청년동맹을 더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조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사로청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로부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르기까지 동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당의 후비대로서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오늘 전체 동맹조직과 사로청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

1965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가 1천 766명의 대표들과 많은 방청자들의 참석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 참가한 전체 대표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녀성들을 세기적인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여

주시였으며 그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다 주시고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시였으며 오늘의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정각 9시,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조선로동당만세!》, 《김일성동지만세!》 두손을 높이 흔들며 수령을 우러러보며 환호하는 대표들의 환성으로 끓어 번졌다. 이 가운데 우리 나라 전체 녀성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심을 담은 꽃바구니를 김일성동지께 드리였다. 감격의 환호성은 온 장내를 굽이치고 만세소리는 더욱 고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대표들을 축하하시였다.

대회의정: 1,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민주녀성동맹 규약을 개정할데 대하여 3,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 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첫날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전달이 있었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김옥순제1부위원장이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제2일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

수상동지께서 말씀이 끝나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어서서 환호를 올리였다.

장내에는 우렁찬 박수가 오래 계속되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은 수상동지의 가르침을 관철함으로써 녀맹조직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오후회의에서는 조선윁남친선주간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윁남친선대표단 단원이며 윁남전국부녀련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인 즈엉 티미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의정 둘째문제는 제3일회의에서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민주녀성동맹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 녀성사업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총화하고 녀성동맹앞에 나서고있는 전투적인 과업들을 토의하였으며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동맹규약을 개정하였다.

특히 대회에 보낸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과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에서는 녀성동맹과 녀성들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우리나라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대회는 이 영예로운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우리 나라 전체 녀성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그들로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도록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녀성동맹앞에 나서고있는 기본임무라고 규정하였다.

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녀맹원들과 녀성들을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력히 전개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교양할데 대해서와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자로 교양육성하며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할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박정희도당의 매국매족적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고 남조선녀성들에게 자기들의 해방과 권리를 위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떨쳐 나설것을 호소하여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125명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5명,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7명을 선거하였다.

뒤이어 진행된 중앙위원회 제3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7명)그리고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중앙검사위원회 제3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대회는 녀성동맹과 전체 녀성들이 자기 대렬을 튼튼히 결속하고 혁명임무를 더욱 빛나게 수행하며 혁명과 건설투쟁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또한 대회는 남조선 녀성들로하여금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이 향유하고있는바와 같은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용감히 나서도록 힘차게 고무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창립 20주년

1965년 11월 18일 우리 나라 녀성들은 자기들의 대중적조직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1월 17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20주년기념모임이 있었다.

민주녀성동맹은 김일성수상에 의

하여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걸어온 20년간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위대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온 영광스러운 나날이였으며 녀성들의 완전한 사회적해방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이였다.

민주녀성동맹은 자기 활동의 전행정에서 녀성군중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항상 충실히 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속에는 일편단심 당을 믿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녀성들의 높은 혁명적열정과 창조적로동이 깃들어있다.

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민주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 전투적인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높아졌다.

민주녀성동맹은 273만명의 광범한 녀성들을 결속한 강력한 정치적조직체로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에 광범히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력량으로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2만 5천여명의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있다.

그리고 64명의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을 비롯하여 4만 7천여명의 국가수훈자들이 있으며 700여명의 녀성들이 공훈사양공, 공훈교원, 공훈보육원, 공훈체육인, 공훈배우, 인민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민경제 각 부문과 과학, 문화, 보건 기관들에서 일하는 녀성 학사와 학자를 비롯하여 녀성기술자, 전문가들이 7만명이나 된다.

과거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로동자, 농민의 딸들이 오늘은 사회정치활동가로, 현대적대규모공장의 지배인으로, 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전국보육원교양원대회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66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보육원교양원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열린 전국보육원교양원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아동보육교양정책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 혁명을 이어나갈 후대들을 장차 당과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 잘 키울데 대한 숭고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래우며 마음껏 공부시켜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려는 우리 어머니들의 오랜 숙망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보살핌과 당과 정부의 인민보건시책과 아동보육정책에 의하여 곳곳마다에 아담하게 꾸려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비용으로 튼튼하고 훌륭하게 자라고있다.

전체 탁아소년령기어린이의 근 70%에 해당하는 87만 7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전국 2만 3천 251개의 탁아소에 망라되여있으며 유치원년령기어린이의 약 60%에 해당하는 79만명의 어린이들이 전국 1만 5천 218개소의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후대들을 키우는 일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 국가적시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것이라면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고 훌륭하고 귀중한것을 그들에게 돌리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은 바위밑에서 작전계획을 세우시면서도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양실을 꾸며주시였으며 비록 어른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들에게만은 솜옷과 학용품, 식량을 보장하여주셨다.

어린이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넓고도 깊은 배려와 지극한 사랑은 해방후 우리 당의 아동보육교양정책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제정하고 산전산후유급휴가제를 비롯하여 모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대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벌써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국가적보호를 받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과 모성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부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구체적대책과 함께 전재고아들을 양육하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여주시였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에 들어서면서 어린이들의 행복한 래일과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와 애육원들을 제일 먼저 지어주시였으며 경치좋고 아름다운 곳에 야영소와 휴양소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과 농촌, 가시는 곳마다에서 탁아소와 유치원, 애육원과 학교에 들리시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가, 무엇을 먹고 어떤옷을 입는가, 침구는 깨끗한가, 방은 차지 않은가 등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피시고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 주시였다.

바로 그럼으로 하여 대회보고에서는 어린이들과 모성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그리고 당의 아동보육교양정책의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보육원교양원들의 영예로운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에서는 전체 보육원교양원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만년대계를 이어갈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함으로써 어린이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한 수상동지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할것을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동보육교양사업앞에 나선 과업을 훌륭히 실천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교시로 튼튼히 무장하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상동지의 교시와 의도를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20주년 기념 전국 련합단체대회

1966년 6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스무돐을 기념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모란봉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온 소년단대표들과 평양시내 소년단원들 7만명이 참가하였다.

대회개회가 선포되자 조선소년단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혁명전적지 보천보와 분계선마을 판문점, 금강군을 비롯한 공화국 각지 소년단단체들로부터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전달계주대렬이 입장하여 편지를 올리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동지가 조선소년단창립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직접 창립하여 주셨고 그이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라난 조선소년단은 지난 20년간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의 후대들을 당의 참된 아들딸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 조선의 우수한 소년들은 김일성원수께서 조직하고 령도하신 항일유격대와 조선소년단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유독립과 조선어린이들의 래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우리 나라 혁명적소년운동의 귀중한 전통을 이룩하여놓았다.

이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소년들은 당과 김일성원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자신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하면서 새 조국을 건설하는 사업에서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감히 싸웠다.

해방후 우리 나라 소년들은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배우면서 민주건설에 떨쳐나선 부모, 형님, 누나들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원쑤들의 폭격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열심히 배우면서 전선과 후방을 돕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특히 원쑤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일시 강점하였을 때 애국소년들은 안주, 고성, 린제, 선천, 벽성, 옹진, 영흥 등 여러곳에서 로동당원아저씨들의 지도밑에 소년유격대, 소년자위대들을 조직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전후시기에는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는 한편 《파마5개년계획》과 《파마7개년계획》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소년호렬차》, 《소년호기중기》및 소년호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나라에 보냈으며 소년단창립 스무돐을 앞두고 평양과 신의주를 달릴 전기기관차를 나라에 선물하였다.

오늘 소년단원들은 천리마운동에 발맞추어 《모범분단》운동과 《모범소년단》운동을 널리 전개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화목하게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오늘 조선소년단은 그 대렬에 160만의 소년들을 망라한 큰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여기에는 천리마약수중학교를 비롯한 45개의 《모범소년단》과 502개의 《2중모범분단》, 1만 5천 264개의 《모범분단》, 그리고 소년단원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자랑으로 되는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소년들 429명이 들어있다.

우리의 소년들은 오늘 당과 김일성원수의 따뜻한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셨다.

대회에서 전체 소년들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천리마조선에 태여나 그 넓은 품안에서 자라나는것이 더 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며 자랑으로 간주하고 당중앙위원회가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아동단의 슬기로운 모범을 본받아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

의전설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할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공화국남반부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싸우는 윁남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어 조선소년단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창조한 위대한 운동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전인민적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전인민적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가장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천리마운동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천리마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

이 로선의 본질은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은 항상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정확히 포착하여 우리 혁명을 확고하게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진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의,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는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전한 위대한 운동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운동의 근저에는 강철같이 통일되고 단결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 대중속에서의 그의 결정적인 위신과 영향력이 놓여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지향을 반영하여 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계속혁명의 사상과 확고한 혁명적립장이 놓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사상요새를 점령하는 사상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업이 승리적으로 해결되고있다.

천리마운동은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온갖 낡은것을 깃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촉진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더 찾아내고 있는것은 더 잘 리용하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으로 세인을 경탄케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천리마운동,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자주적혁명로선과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산구현으로 된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통일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이 총체적으로 해결되여 나아가고있다.

특히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사상, 로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소유자들, 주체가 철저히 확립된 혁명가들을 집단적으로, 대량적으로 육성배출하고있으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서고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와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전인민적운동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은 더욱 심화발전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구체적내용을 가지고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보다 더 조직화되였으며 혁명적이고 세련된 청산리사업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대로 발전하게됨으로써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밀어주고 그 위력을 더 잘 발휘할수 있게하고 있다.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밀어주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있으며 그의 혁명적의의는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된데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이며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들이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그의 자각적열성을 발동시키는데서 경제, 문화,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본열쇠를 찾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집단의 교양과 동지적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어제날의 락후분자를 오늘의 선진분자로, 지난날의 보수분자를 오늘의 적극분자로 이끌어올리고있으며 모두다 새로운 공산주의인간으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되고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거울삼아 그들처럼 투쟁하고 생활하려고 애쓰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있다.

천리마작업반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부름에 따라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1965년에 우리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칭호를 쟁취하기 위하여 궐기한 인민경제 각부문의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제10차 및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천리마운동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갔다.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7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며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라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한편 집체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전면적이며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기능공과 고급기능공대렬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또한 천리마기수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참된 주인으로서 열 및 전력을 절약하며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리마작업반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기업관리에 의식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과정에서 창조되고 발전된 직일작업반장제, 내부채산제, 자체정량제 등 새로운 대중적기업관리방법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문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문제, 원료, 자재, 로력을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는 문제 등 경제관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이 행정을 통하여 우리 천리마기수들은 재능있는 관리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자라났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이는 천리마기수들의 생활신조이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그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을 자기의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일과의 첫자리에 놓고 생활함으로써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튼튼히 결합된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자라나고 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생산현장에서뿐만아니라 인민반사업에서 궂은일 내일을 가리지않고 저마다 선참나서서 집단의 힘으로 자기집 자기의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과 기본생산 부문을 기본으로하는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천리마작업반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1966년에도 우리 천리마기수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제12차전원회의와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들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서와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에

서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1966년에 5천 667개 작업반이 영예의 천리마작업반칭호를 받았으며 23만 986명이 새로 영예의 천리마기수로 되였다. 그리고 이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이 영예로운 천리마동의 칭호를 받았으며 이어 평양시 중구역 신암동이 두번째로 천리마동 칭호를 쟁취하였다. 이와 함께 이 두개 동에서 새로 65개 인민반이 천리마인민반칭호를 받았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해를 따라 량적으로뿐만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하고있다.

1966년에 수많은 천리마작업반들에서 2중천리마작업반쟁취에 궐기하였으며 이에 궐기한 작업반들중에서 155개 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받았다. 또한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천리마학교 쟁취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1966년 천리마직장은 20개가, 천리마공장은 7개가, 천리마학교는 4개가 각각 늘었다.

천리마작업반수 장성(단위—개)

	1960	1963	1965	1966
천리마작업반칭호를 받은 작업반수	928	17,057	26,037	31,704
그 인 원 수	21,167	586,403	979,503	1,210,489
그중 로동자, 사무원	21,102	213,376	319,555	408,473
협동농장원	—	232,636	395,627	452,163
학 생	65	140,391	264,321	349,853
2중천리마작업반수	15	179	422	577
천리마직장	—	26	123	143
천리마공장	—	1	21	28
천리마학교	—	3	10	14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고도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산주의적신념에 의해서 스스로 일을 찾고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도, 공명도 없으며 항상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생각한다. 오직 어떻게 하면 당과 수령께 더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하는것—이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1965—1966년도에도 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길을 따라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서 힘차게 전진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1965—1966년도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현실적 방도들에 대해서 다시금 뚜렷하게 밝혀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김룡중에게 보낸 회답서한(1965년 1월 8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합》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같은해 4월 1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같은해 7월), 아랍(같은해 9월)기자들이 각각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하신보고, 특히 1966년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등은 조국통일에 대한 4천만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준 력사적인 중요한 문헌들이다.

조국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우리 인민자신의 내정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자주적인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될수 없는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확고부동한 립장을 견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못하고있다. 미제는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이다. 오직 우리 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냄으로써만 우리 조국의 통일은 실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에 있어서 그 전략적인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결속함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시였다.

이 3대혁명력량중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이며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조선혁명, 조국통일의 위업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주동적력량이다.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날로강화되고 혁명투쟁이 계속 발전하고있다. 남조선 혁명은 원쑤들의 반혁명공세하에서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으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 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위력의 장성과 각국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앙양으로 국제적혁명력량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자주로선과 대외정책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강화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위신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김일성수상께서는 196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들과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은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력량을 계속 축적하고 장성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침략과 박정희집단의 매국정책을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용감히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수상께서 주신 교시를 받들고 1965—1966년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기지—공화국북반부를 더욱 튼튼한 요새로 꾸림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정부》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는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박정희매국도당을 타도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용감히 투쟁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 각지에서 조직진행된 군중대회, 공장, 기업소 종업원집회, 협동농장원들의 집회, 청년학생들의 집회들에서와 각사회단체들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965년도에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이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결속지으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굳게 단결하여 도처에서 파업과 시위를 단행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흉악한 흥정판인 《한일회담》을 짓부실것을 호소하여 3월 2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3월 4일에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3월 8일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3월 10일에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3월 13일에는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3월 16일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각각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하고 민족의 비운을 가시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 4월 14일 평양시 청년학생군중대회와 4월 16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도 호소문을 각각 채택하였다.

또한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8월 24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진행하였다.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일조약》을 비법적으로 날조하고 그 《비준서》를 12월 18일 서울에서 교환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매국적 《한일조약》을 분쇄하고 망국노의 운명에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반미반일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설것을 호소하여 12월 1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12월 2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12월 23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12월 24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호소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남월남에 끌어가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며 원쑤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한결같이 궐기할것을 호소하여 1월 8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1월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각각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남부월남에 이미 파송된 《국군》장병들로하여금 미제침략자들의 명령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총부리를 조월 량국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릴것을 호소하여 5월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1966년에도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을 더욱 힘차게 밀고나아갔다. 특히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로선을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남반부형제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여 광범한 군중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1966년에 북반부의 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미제침략군기관 남조선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그후 계속 일어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군중모임을 가지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1966년1월 14일에는 평양시 철도운수부문 로동자들과 해주시 로동자들이, 1월 15일에는 남포시와 함흥시 로동자들이, 1월 16일에는 청진시와 원산시로동자들이, 1월 17일에는 신의주시와 혜산시 로동자들의 집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집회들을 가지였다.

집회들에서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비참한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다고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투쟁의 불길을 높여 온갖 불행의 화근인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도당을 타도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집회들에서는 싸우는 남녘형제들의 뒤에는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로동자들과 인민들이 있다. 적들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함없이 끝까지 싸울때 승리가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생활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을 반미반《정부》투쟁과 결부시켜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킬것을 남조선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러한 집회들과 함께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성명들이 발표되였다. 성명들에서는 정의의 투쟁에 일어선 미제침략군의 기관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인 성원을 보내면서 미제의 침략정책과 박정희도당의 파쑈적매국배족행위를 규탄하고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단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과감히 싸우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내몰고 박정희도당을 때려부시며 진정한 민주주의적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인민적인 구국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책동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 흉책을 폭로규탄하여

1965—1966년에 공화국정부와 전체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박정희도당의 반인민적흉책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광범히 조직전개하였다.

이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흉책이 더욱 로골화되는것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 및 제5차회의를 비롯하여 공화국정부와 사회단체들에서 성명을 각각 발표하여 그것을 강력히 배격 규탄하였으며 그리고 각지에서는 군중집회를 가지여 준렬히 폭로 규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더욱 파렴치한 침략책동과 류혈적폭압에 미쳐날뛰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의 죄행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온갖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하였으며 특히 남조선에 핵잠수함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남조선인민을 전화속에 몰아넣으며 그곳을 극동 및 아세아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암》으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새로운 책동을 치솟는 분노로 항의규탄하고 이 범죄적흉계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

과 박정희도당을 결탁시키기 위한 《한일조약》을 1965년에 끝내 조작하고 일제침략자들을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며 《한일조약》을 토대로 침략적《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참패를 거듭하고있는 저들의 침략 및 전쟁정책을 수습하려고 발광하였다.

한편 일제는 미제의 추동밑에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지배자로서의 옛지위를 회복하며 《대동아공영권》의 깨여진 망상을 다시 실현해보려고 남조선에 본격적인 침투를 개시하였으며 조선과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한 《세개화살작전계획》까지 꾸몄다.

박정희도당은 미제상전의 지시대로 일제를 다시 업어들였으며 미일제국주의의 2중주구로서 매국배족행위에 미쳐날뛰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친 공식성명을 통하여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에 꾸며진 어떤 조약이나 협정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와 사회단체들에서 발표한 성명들, 각종 군중집회들에서는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하며 《한일회담》에서 날조된 추악한 매국문건들을 불길속에 처넣으며 제2을사오적의 무리인 박정희도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을 선언하였다.

미제의 철저한 주구이며 그들의 침략정책수행의 하수인인 박정희도당은 이해에 미제의 요구대로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밀어넣었다.

공화국정부는 성명들을 통하여 거듭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흉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토의를 규탄: 1965년 유엔총회 제19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장기휴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침략행동을 가리는 방패가 없어지게 되자 종전의 유엔 《결정》을 계속 《유효》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저들의 침략을 합법화하려하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2월 26일 외무성대변인 성명,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려는 미제의 범죄적흉책을 규탄하여 9월 24일 외무성성명,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 비법적으로 상정된 《조선문제》 토의를 앞두고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년례보고》를 발표한것을 규탄하여 11월 23일 외무성성명,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미제의 강요에 따라 또다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한것을 규탄하여 12월 23일 외무성대변인 성명들을 각각 발표하였다. 1966년에도 7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려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재천명하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2월 17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미제가 또다시 날조해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활동을 합리화하는 이른바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없이 조선인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비법적으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것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반대배격: 1965년 2월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련석회의에서 미제의 조종하에 박정희도당과 일본사또반동정부간에 범죄적《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속지으려는 책동이 더욱 악랄화되는것과 관련하여 《한일회담》을 분쇄파탄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한일회담》을 반대배격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2월 20일 공화국 외무성은 박정희도당과 일본사또반동정부간의 《한일기본관계 조약》에 가조인하고 《한일회담》의 최종결속을 서두르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4월에는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도당과 일본사또반동정부가 《한일회담》의 《현안문제》들인 《청구권》, 《어업》, 《재일교포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요강들에 가조인하고 《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속하는 길에 들어선것을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는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일조약》을 비롯한 매국문건의 본조인을 서두르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한일회담》의 본질과 그 흉악한 내막을 폭로규탄하고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할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6월 18일과 23일 공화국정부는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에 정식으로 조인한것을 규탄하여 비망록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해 8월과 9월에는 조선학생위원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들이 《한일협정》을 반대배격하여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단죄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성토대회들을 가지였다.

10월과 11월에는 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반동정부가 침략적 《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날조하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일층 로골화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였다.

또한 12월 21일 공화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간의 《한일조약》의 《비준서교환》놀음을 벌려 그 《발효》를 선포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서 12월 19일에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진행하여 일본군국주의와 박정희도당을 폭로규탄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폭로 규탄하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65년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 15주년과 관련하여 6월 22일 사회단체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공화국정부가 비망록을 발표하여 남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였다.

남조선에 핵잠수함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제의 새로운 음모책동을 규탄하여 7월 15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후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을 방해하고 군사적침략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감행하여온 미제를 단죄규탄하여 9월 5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서, 9월 8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9월 16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사회단체들에서 1964년 5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이르는 기간에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범죄적만행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12월 27일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전세계인민들에게 제소하는 고소장을 발표하였다.

1966년에도 공화국정부와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책동과 남조선에서의 전쟁준비 음모를 폭로규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꾸며진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비망록(6.1)과 성명(6.10)을 발표하였다. 성명과 비망록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소집음모의 진상과 그 침략적인 본질을 폭로하였다.

이해에도 《미제반대투쟁월간》을 맞이하여 6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정책에 기인되며 미제야말로 조국통일의 길을 막은 장본인이라고 규탄하면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국제적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국제기구 및 각국 사회단체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1월 5일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군이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공격과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일층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분별없이 날뛰지말것을 경고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도발행위를 그만두고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의 남부윁남파병을 규탄하여: 공화국정부와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남부윁남침략전쟁에 대량적으로 내모는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65년에 들어서면서 년초부터 박정희도당은 파병을 본격화하여 더욱더 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남부윁남전쟁에로 내몰기에 광분하였다.

1월 8일 남조선 괴뢰도당이 미제의 지시밑에 2천여명의 남조선괴뢰군을 또다시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는 1월 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무분별한 범죄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그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였으며 1월 11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도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폭로규탄하였다. 다른한편 공화국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정체를 폭로하여 1월 22일 공화국정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이해 7월에 박정희도당이 미제의 지시밑에 또다시 한개 사단의 괴뢰군을 남부윁남에 보내기로 결정한것을 규탄하여 공화국정부는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였

으며 7월 12일에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1966년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조선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1966년 3월 7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괴뢰정부가 미제의 지시에 따라 1개 사단의 전투병력과 1개 련대의 보충전투병력을 남부웰남에 증파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부웰남에 남조선괴뢰군을 또 보내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책동은 전체 남부웰남인민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로 된다고 규탄하면서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도발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않을것이라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에게 경고하였다.

또한 3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국군》 증파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분쇄하며 파탄시키기 위하여 결연히 떨쳐나설것을 남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11월 29일 공화국외무성은 박정희도당의 대량적인 남부웰남파병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화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는 로동자 및 종업원들의 집회, 농촌에서의 농장원들의 집회,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의 집회,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들의 집회 등 군중집회와 성토대회를 년중 계속 진행하여 남조선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남부웰남전쟁터에 끌어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행위를 견결히 반대규탄하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확대됨에따라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1965년 사회주의진영국가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였으며 그리고 미제의 조종하에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결탁시키려는 범죄적인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의 조작과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류혈적폭압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3월 24일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은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0일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은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낼것을 전세계 학생들에게 호소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결의를 채택하였거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함과 함께 6.25 15주년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30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왔으며 7월 11일에는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가, 8월 12일에는 몽골인민공화국 외무성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단체인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반일 반《정부》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세계직련, 세계민주청년련맹,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국제기자동맹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과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밖에도 《한일협정》과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한 집회들을 진행하였으며 국제기구들과 각국 사회단체들로부터는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내왔다.

1966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우리 당의 대외적위신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를 지지하는 벗들과 동정자들이 계속 늘어났다.

1966년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대륙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6.25 열여섯돐을 계기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며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해주었다.

1966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꾸바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된 제1차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전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모든 조직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한 운동을 전개할것을 전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모든 조직들에 호소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에게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원우수위원장으로부터 전문을 보내왔다.

전문에서는 미제가 도발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고도의 혁명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국주의와 그의 추종국가군대들을 패배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달성한 것을 지적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박정희도당을 규탄하면서 웰남인민은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계속 보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각국사회단체들로부터도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 편지와 전문을 보내왔다.

1966년 6월 16일 아바나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제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에서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해체하며 자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여 광범한 운동을 조직할것을 기구성원들과 진보적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세계민청뷰로는 6.25 16주년에 즈음하여 자기 성원단체들과 전세계진보적청년들에게 서한을 보내였다. 서한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철거시키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으로 가지게 된다고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조약》의 페기를 요구하며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반대하며남조선괴뢰군의 남부웰남 증파를 반대하며 이미 파병된 괴뢰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전깜빠니야, 군중대회, 집회, 시위 등을 조직하며 남조선청년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고무하기 위하여 련대성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낼것 등을 호소하였다.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에서도 6.25 16주년에 제하여 자기 성원단체들과 전세계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내여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적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 학생들에게 군중집회와 시위 등 각종 형식으로 련대성을 표시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

6월 23일에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월간》 꾸바조직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칠레위원회는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날인 6월 25일부터 정전이 실현된 7월 27일까지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아바나 3대륙인민단결대회결의를 찬동하였다.

6월 25일에는 아.아 기자협회 서기국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를 위한 투쟁월간에 적극 참가할것을 아세아, 아프리카의 모든 진보적기자들에게 호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17일에는 국제민주녀성련맹 서기국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자기 산하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이 밖에 많은 국제기구들에서 호소문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세계 각국에서는 군중집회를 비롯하여 각종 형식의 다양한 행사들이 조직진행되였으며 집회들에서는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편지와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군사적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였다.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적 도발행위와 전쟁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1966년 11월 5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지지하였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꾜에서 열렸던 일본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제10차총회에서는 다른 일련의 결의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제의 군사적도발에 단호히 항의하고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더한층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웰남직업총동맹이 우리 나라 직총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왔으며 캄보쟈왕국정부 외무상은 우리 나라 박성철 외무상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이해에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국가인민들은 미제가 《조선문제》를 또다시 유엔의 토의에 끌고가려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1966년 7월 21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과 12월 4일부 공화국 외무성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또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7월 21일부 공화국정부성명을 지지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는 8월 16일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20일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외무상이, 9월 22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7월 21일부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재천명된 조선통일에 대한 제안과 정당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유엔성원국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나라 외무상들과 유엔상임대표들은 자기 나라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유엔사무총장 우란트에게 서한을 보내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일체 미제침략군대와 기타 외국군대들을 철수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관한 문제를 중요하고도 긴급한 별개의 문제로서 유엔총회 제21차회의 의정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기타 모든 외국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견결히 요구하였다.

세계직련은 유엔에서 《조선문제》 토의를 반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외교부는 12월 8일에, 기네외무성대변인은 12월 9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참가할것을 지지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대변인도 또한 공화국정부대표가 참가할것을 지지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는 12월 4일부 공화국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이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의 이른바 《조선문제》토의를 규탄하였다.

조선인민은 이처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멀지않아 실현될것이다.

조 선 인 민 군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48년 2월 8일 창건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침략에 맞서서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위업을 수호하는 자기의 강력한 혁명적무력을 가지게 되였다.

인민군대는 창건후 지난 18년간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과 업적을 쌓았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근로인민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운 우리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군대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주권도 후방도 없고 혁명군중의 원호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포악한 일제의 대병력을 상대로 하여 15성상에 걸쳐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한 일념으로 영웅적으로 싸웠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마련되고 혁명적무장력건설, 정권문제, 통일전선운동 등 광범한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싸우는 커다란 자부심을 간직하고 어떤 정황하에서나 혁명의 사령부를 확고히 신뢰하고 그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그의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뭉치였으며 유격대의 전대오에는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확고부동한 혁명적사상체계가 수립되여있었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어떤 곤난과 환경속에서도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률, 자주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동지애와 원칙적단결,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산모범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이러한 혁명

전통은 인민군대의 깊은 뿌리를 이루고있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튼튼히 뿌리박고있음으로 하여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반제혁명의 기치,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여 원쑤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혁명군대로 급속히 장성강화되였다.

당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창건되고 육성되였으며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고 당의 자주적인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로동당의 군대이다.

또한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다른 어떤 군대와도 비길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불패의 힘은 바로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진정한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혁명정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 자각적인 군사규률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등은 진정한 혁명군대인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으며 영웅적 인민군장병들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이러한 기본사명으로부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통일단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고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투쟁과업이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있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인민군대는 그 창건 첫날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웠으며 또 싸우고있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로서의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미제는 방대한 륙해공군무력과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동원하여 수적우세와 기술적우세로서 단숨에 우리 나라를 강점할 목적으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혁명군대가 가지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시키고 전술적우세를 보장하여 적의 기술적우세를 분쇄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멸의 위훈과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인민군장병들은 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웠으며 어렵고 곤난할때일수록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추호의 동요도 없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그들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심대한 군사적 및 정치도덕적 패배를 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켰다.

이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용사들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군대가 항일유격대의 튼튼한 뿌리에서 자라나고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음으로해서 어떠한 침략무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이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과 한덩어리로 굳게 뭉친 당의 전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때 어떤 기적적위훈을 세우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대는 더욱더 단련되고 강화되였을뿐만아니라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랐으며 강력한 혁명군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불패의 군대로 장성강화되였다.

당은 전후시기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과 새 전쟁준비에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결합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은 정규무력인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꾸리는 동시에 그를 핵심으로 대중의 힘을 군사분야에 전면적으로 동원하여 철벽의 방위체계를 꾸리는 맑스-레닌주의적군사로선으로서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실생활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3년여에 걸친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인민군대는 전후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훌륭히 준비되였다.

인민군대는 전후 내외원쑤들의 발악이 극심하였던 어려운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였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면서 자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군대를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꽃이 더욱 세차게 타오름으로써 오늘 인민군대는 당정책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않고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붉은 전투집단으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더우기 우리 당 군사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인민군대내 혁명적골간이 더욱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난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난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동안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의 귀중한 핵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렬내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특히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과 군사로선을 옳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다.

당의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방침에 근거하여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꾸리며 군대를 현대적무장으로 장비하는 동시에 전투정치훈련을 정력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민군대를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시키고 높은 군사정치적자질과 령군술을 체득케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 군사기술이 결합되였으며 유사시에 한등급이상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더욱 위력한 강철의 간부군대로 되였다.

실로 오늘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혁명의 대오로, 아무리 강대한 원쑤들이 침공하여도 침략자들을 즉시에 격멸소탕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장력으로 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후방을 일층 공고화하면서 유사시에 대처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임으로써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확립하였다.

당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군사로선에 기초하여 생산에 종사하면서 공장과 농촌을 보위하는 근로자들의 자원적무장조직인 로농적위대를 제때에 조직하고 그 대오를 튼튼히 꾸렸을뿐만아니라 군사훈련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로농적위대는 인민군대와 힘을 합쳐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도록 준비되여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다른 한손에는 총을 틀어잡고 조국보위를 위한 튼튼한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바로 이 모든것은 국방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맑스-레닌주의적 자위로선의 빛나는 결실로되며 위대한 승리로 된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투준비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며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언제든지 침략자들을 일격에 소멸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강건종합군관학교창립 20주년 1965년 11월 17일 조선인민군 강건종합군관학교는 자기의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회를 가지였다.

기념회에서는 먼저 이 학교창립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이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이 있었다.

지난 20년간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 학교가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 새로운 과업을 제시한 축하문에 접한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굳은 결의로 충만되였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하에 창립된 강건종합군관학교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교양육성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조선혁명의 먼 장래를 내다보시며 수많은 혁명간부, 군사간부들을 계통적으로 교양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바로 해방직후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창립한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사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온 빛나는 혁명전통의 계승이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오래동안 구상되고 준비되여온 군사간부양성방침의 빛나는 구현이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군사간부를 육성하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20년간 강건종합군관학교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하에 자기 앞에 부과된 군사간부양성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큰 공로를 세웠다.

강건종합군관학교는 해방직후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에 로동자, 농민출신의 우수한 군관들을 육성함으로써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고 그를 현대적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강건종합군관학교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우수한 군사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여 전선에 보냈으며 전쟁승리를 위하여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전후시기 강건종합군관학교는 당의 군대간부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인민군간부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현대전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줄 아는 유능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지는 크게 기여하였다.

강건종합군관학교가 걸어온 년간의 전투적행로는 우리 당 혁명무력인 인민군대의 영광스운 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자리 차지하고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중앙위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문에서는 강건종합군관학교 전교직원, 학생들이 달성한 훌륭 성과와 그들이 인민무력강화 위하여 이루어놓은 전투적업적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으며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강건종합군관학교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하여 당이 제시한 과업을 영예게 수행할것이다.

대외관계

1965—1966년 우리 나라 대외관계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나라의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국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의 친선 및 우호적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로력하였다.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과 경제 및 문화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특히 1965년 4월 김일성수상 서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방문 반둥회의 기념행사의 참가는 조 인도네시아 인민들간의 친선단 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간의 전투적련 성의 강화와 이 지역 인민들 공동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5—1966년에 조선로동당 공화국정부는 국제공산주의운 의 통일단결과 사회주의진영 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 키기 위하여 적극 로력하였다.

1965년 1월 우리 나라 당대 단의 꾸바공화국 방문, 2월 아 엔. 꼬씨긴수상을 단장으로 하 쏘련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3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 의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방

문, 5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인도네시아공산당 창건 45주년 경축행사 참가와 뉴질랜드공산당 전국위원회 메르빈 하레이 윌리암스 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 7월 우리 나라 당대표단의 로므니아로동당 제4차대회(공산당 제9차대회)참가, 황완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8월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회원 하까마다 사도미의 우리 나라 방문, 9월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뻬떼르 야노쉬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 11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제1부수상 게오르게 아뽀쓰똘의 우리 나라 방문, 8.15해방 2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선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이 있었다.

1966년에도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 알바니아로동당 제5차대회,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들에 참가와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공산당 대표단과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966년도에만하여도 우리 나라는 형제적인 사회주의국가들에 145개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형제적인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161개의 대표단을 받았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정책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영웅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간주하고 형제적웰남인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만약 그들이 요구한다면 지원병으로 달려가 웰남인민과 어깨겯고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공화국정부는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지원병의 파견을 포함한 온갖 형태의 지원을 주는것을 사회주의국가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는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시종일관견지하였으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또한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대치하여 싸우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투쟁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며 이 지역 나라들에서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빈번히 조작하는것으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이 지역 나라들과의 반제통일전선을 강화하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이 지역 나라들과의 보다 친선적인 협조관계를 맺으며 이미 수립된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선 라오스인민들의 투쟁, 나라의 령토와 자주권을 침범하는 미제와 타이, 남부웰남괴뢰군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은 아랍나라들을 침략하며 중근동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아랍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에서 투쟁하였다.

특히 1966년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아랍련합공화국을 비롯하여 수리아, 이라크 등 나라들을 방문하여 아랍인민들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해 우리 나라는 수리아와 외교관계를, 이라크와 총령사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소말리아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콩고(킨)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 서남아프리카, 바스톨랜드, 스워질랜드 인민들의 투쟁 및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 인종차별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인민들의 투쟁, 미제의 무력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도미니카인민들의 투쟁 및 자유와 해방을 위한 과떼말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뻬루 등 전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에 수많은 대표단들과 인사들의 호상래왕이 있었다. 이들

통하여 이 지역의 나라들과 인민들간에 호상리해를 두터이 하였으며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발전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범한 신생독립국가들간에 유무상통하는 경제적협조와 문화교류가 확대발전되였다.

우리 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경제 및 문화교류를 진행하였을뿐만아니라 적지않은 나라들에 우리의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이 지역인민들을 도와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개별상사들은 1966년에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리예, 단마르크 등 나라들에 경제대표단과 무역 및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1965년 8월 1—11일에 평양에서 있은 아세아축구가네포는 가네포 조직을 보다 공고발전시키며 신흥세력인민들과 체육인들간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체결한 범죄적《한일조약》과 남조선괴뢰군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적인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조선인민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남조선괴뢰도당을 결탁시키고 그를 골간으로 침략적인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미제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인민은 《한일조약》과 일본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일본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광범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박해와 탄압책동을 규탄하였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65—1966년에 우리 나라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인민단결대회를 비롯하여 연 170회의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반제공동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많은 국제회의들과 국제기구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들과 전문들을 채택하고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6년에 우리 나라는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를 비롯한 5개의 국제기구들에 새로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1966년말 현재 102개의 각종 국제기구들의 성원국으로 되였으며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방문, 반둥회의 10주년경축행사참가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방문

(1965년 4월 10일－15일)

김일성수상께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국가방문하셨다.

인도네시아방문기간 김일성수상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의 가장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를 받으셨다.

조선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한 인도네시아의 거리와 마을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기쁨으로 들끓었으며 두 나라 인민간의 친선의 정으로 꽃피였다.

쟈까르따와 반둥, 보고르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명절차림한 수많은 군중들은 《김일성수상만세!》 《조선—인도네시아친선만세!》를 소리 높이 웨쳤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을 인도네시아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아세아, 아프리카신생력량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으로 부르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표시하였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인도네시아방문기간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강의를 하셨다.

인도네시아방문기간 김일성수상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전했으며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시였다.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김일성수상께서 반둥회의 10주년경축행사 참가

(1965년 4월 15일—20일)

김일성수상께서는 제1차아세아아프리카회의 (반둥회의) 1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셨다.

김일성수상께서는 반둥회의 10주년 경축식전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주은래총리, 웰남민주공화국 범문동수상,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북부칼리만탄혁명정부 수상 아자하리를 비롯하여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정부수반들 및 국가지도자들과 상봉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셨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이 기간에 민족적해방과 자유독립의 공고화와 새 생활창조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다.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방문과 반둥회의 10주년 경축행사참가는 조선—인도네시아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큰 사변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전선에서 굳게 련결된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력량의 전투적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의 아랍련합공화국,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이라크공화국,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

(1966년 6월 22일－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량욱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아랍련합공화국,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이라크공화국,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친선방문하는 동안 이 나라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이 나라 인민들에게 전하였다.

대표단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아랍련합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에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을 비롯한 아련의 정부지도자들을 방문하여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까히라시내의 력사고적들과 까히라주변의 헬완강철공장, 미스르방직공장, 알렉산드리아시, 룩쏘르, 아스완, 수에즈, 포드사이드시, 사하라사막에 있는 부더리에 태하러드 협동농장 등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니에레레대통령과 부대통령들을 방문하여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탕가시에 있는 《개리너스》농업학교와 《찬카챠니》 야자재배원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 나라 정부와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대표단은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라크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이 기간 대표단은 아레프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정부지도자들을 방문하였으며 이전 대통령묘와 바그다드시내에 있는 무명전사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또한 바그다드시내 문화유적들과 《군대렬사방직공장》, 바비론 옛 성터를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우리 나라와 이라크공화국간의 현존 국가관계를 무역관계로부터 총령사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대표단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대표단은 수리아 국가수반 누레딘 아따씨와 수상 자인을 비롯한 정부지도자들을 방문하여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마스커스시내에 있는 민족박물관과 군대박물관, 수도에 있는 디브스방직공장, 팔레스티나 피난민구역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이 수리아를 방문하는 기회에 우리 나라와 수리아아랍공화국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아랍련합공화국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이라크공화국,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수상의 령도의 현명성과 조선로동당의 자주로선 및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중근동과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아랍련합공화국,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이라크공화국, 수리아아랍공화국간에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였다.

정부친선 및 경제대표단의 버마련방, 캄보쟈왕국,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방문

(1966년 10월 23일－11월 13일)

내각부수상 겸 무역상 리주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친선 및 경제대표단이 버마련방, 캄보쟈왕국,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정부친선 및 경제대표단으로 버마련방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대표단은 버마혁명정부 수상 네윈을 비롯한 지도일군들과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혁명렬사묘지에 화환을 드리였다. 그리고 보석전람관과 랑군부두를 돌아보았다.

1966년 10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은 캄보쟈왕국을 방문하였다.

캄보쟈에 머무르는 동안 대표

단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왕후 코싸마크 네아리 떼아르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를 비롯한 정부지도자들을 방문하여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캄보쟈인민의 전통적인 물명절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인민사회동맹당전람관, 국립박물관, 안동로마에로모범부락을 참관하고 왕궁에서 캄보쟈예술을 감상하였다.

대표단은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정부친선 및 경제대표단으로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상업상 굴람파르크, 외무상 샤리푸딘 피르자다, 동부파키스탄지사를 비롯한 책임간부들을 방문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코히누루방직공장, 바리카방직공장, 택시라박물관, 카라치부두시설, 아담지마애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기간에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대표단의 이 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쏘련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1965년 2월 11일-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쏘련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며 쏘련내각수상인 아. 엔. 꼬씌긴을 단장으로 하고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비서 유. 웨. 안드로뽀브, 민용항공상 예. 에프. 로기노브, 외무 제1부상 웨. 웨. 꾸즈네쪼브, 국방부상인 항공총원수 까. 아. 웨르쉬닌, 쏘련내각국가 대외경제련락위원회부위원장인 상장 게. 에쓰. 씨도로비치, 우리 나라 주재 쏘련대사 웨. 뻬. 모쓰꼽쓰끼로 구성되였다.

대표단은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평양시내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체류한 기간 우리 인민은 형제적쏘련인민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긴밀한 친선단결의 뉴대로 련결되여있는 쏘련인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시하였다.

또한 꼬씌긴수상을 비롯한 쏘련대표단 일행은 조선인민에 대한 쏘련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전달하였다.

방문기간 김일성수상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지도간부들은 쏘련대표단과 회담을 가지였다. 형제적호상리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량당 량국간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현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문제 및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그 결과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쏘련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그 결과는 조쏘 두 나라 인민들간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여로 되였다.

꽁고(브)공화국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우리 나라 국가방문

(1965년 8월 26일-29일)

김일성수상과 부인, 최용건위원장과 부인의 초청으로 꽁고(브)공화국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부부와 함께 꽁고(브)민족혁명운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라보아 들라 레볼류씨옹》지 책임주필인 일레르 문돌르, 외무상 다비드 샤를드 가나오와 그의 부인, 재정, 예산 및 계획상 에두아르 에브까 바바까스, 민족혁명운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에메. 느가싸에, 쏘련주재 꽁고(브)공화국대사 아벨똘리 강가, 꽁고(브)공화국 국민의회 대의원 쥐스뗑 게씨, 꽁고(브)공화국 국민의회 대의원 에두아르 옴뻬따, 대통령사무장 프랑쏘와 마봉구, 민족혁명운동당 청년부 대표이며 《디빵다》지 사장인 쟝 룬다, 민족혁명운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꽁고(브)혁명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인 앙젤리끄 바치꾸까, 국가안전국장 미쉘 빈디 및 기타 꽁고(브)공화국의 고위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머문기간 평양시와 기양지구의 공장, 기업소들과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10여만 평양시 근로자들의 환영 군중대회에 참가하였다.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 일행은 그들을 열렬한 환호로 맞이한 우리 인민에게 꽁고(브) 인민이 보내는 형제적인사를 전하였으며 또한 《영용한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조선의 위대한 통일을 위하여 장구한 기간 전개하고있는 투쟁에 대한 꽁고인민과 그의 당과 정부의 깊은 친선의 정과 무조건적인 련대성》(알폰스 마쌈바 데바)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김일성수상과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간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전선에 서있는 조선인민과 꽁고(브)인민, 나아가서는 전체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국가방문

(1965년 10월 4일－10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의 초청으로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은 국가원수개인고문 뻰누트, 국가원수의 딸 보파 데비공주, 국가원수의 딸 쏘리야 로웅씨공주, 왕족성원 노로돔 께뜨까니아 몸공주, 왕실최고회의 성원이며 국가원수 의례 담당자인 뽀끄 티언과 그의 부인, 캄보쟈왕국공군 총참모장이며 국가원수 기술고문인 느고 후중장과 그의 부인, 조선주재 캄보쟈대사 트루옹 캉, 프랑스주재 캄보쟈대사관 공사급참사 사린 차크, 캄보쟈왕국종합대학총장 풍 돈, 쁨뽕참왕실종합대학총장 께아르촌, 보파 데비공주의 남편 보르노포르노씨 데비, 쏘리야 로웅씨공주의 남편 대표단 의사 메뽀필리, 국가원수 부관 중좌 뽁쌈안과 그의 부인, 부관 중좌 옹 마노린과 그의 부인, 국가원수왕실장 렴 소폰, 국가원수관방전문가 살 메이예와 그의 부인 및 기타 캄보쟈고위급인사들을 동반하였다.

캄보쟈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는 동안 김일성수상과 우리 나라 정부지도 간부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며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각각 10여만의 군중이 모인 평양시와 함흥시 군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평양과 함흥지구의 공장, 기업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또한 그들은 3천여명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4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혁명의 시대》등을 관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시하누크친왕과 그리고 그와 동행하여 온 캄보쟈왕국 사회정치활동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였으며 국가학위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는 시하누크친왕에게 명예박사칭호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제4기 제5차회의 결정으로 평양시 명예시민칭호를 각각 수여하였다.

체류기간 김일성수상과 시하누크친왕간에는 친선과 신뢰 그리고 형제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공동성명이 조인되였다.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나라와 캄보쟈인민간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기네공화국 대통령부인 앙드레 투레녀사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1965년 4월 30일－5월 3일)

김일성수상과 부인의 초청으로 기네공화국 대통령부인 앙드레 투레녀사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앙드레 투레녀사와 함께 기네공화국 국민의회 의원 아리보 화뚜, 조선주재 기네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까마라 마마디와 그의 부인 까마라 오델르, 기네공화국 대통령의 의례책임자 디아가 동행하였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기간에 앙드레 투레녀사와 그 일행은 김일성수상과 부인 김성애동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며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기네의 귀빈들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평양시내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또한 그들은 평양시 환영녀성군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등 각종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앙드레 투레녀사는 체류기간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기네공화국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과 기네인민 그리고 기네녀성들의 열렬하고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였다.

앙드레 투레녀사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기네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을뿐만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아세아와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꾸바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1966년 10월 26일－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초청으로 꾸바공화국 대통령이며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동지를 단장으로 하고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부수상 겸 혁명무력상인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혁명무력부상인 쎄르히오 델바예동지를 단원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

는 동안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대표단은 비행장에서 김일성수상과 우리 나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 비행장에서는 대표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환영의식이 있었으며 최용건위원장과 오스발도 도르띠꼬스대통령간에 연설이 교환되였다.

이날 20여만명의 군중이 연도에 나와 꾸바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김일성수상을 의례방문하였으며 김일성수상의 답례방문을 받았다.

대표단은 모란봉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참가하에 열린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연설을 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대회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대표단단장인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동지에게 드리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3천여명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학생소년종합예술공연을 보았으며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표단성원들에게 공화국훈장을 수여하였다. 꾸바공화국 대통령이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동지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부수상겸 혁명무력상인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각각 국기훈장 제1급을,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혁명무력부상인 쎄르히오 델 바예동지에게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와있는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라싸로 비고아에게 국기훈장 제2급을, 대표단수원들에게 국기훈장 제3급을 각각 수여하였다.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간에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회담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회담에서는 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꾸바간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그 결과에 이루어진 모든 성과들은 조선과 꾸바의 당과 정부와 인민들간의 형제적친선단결과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새로운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또한 두나라 대표단간의 회담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1966년 10월 3일－10일)

소말리아공화국 국회의장 쉐이크 무크다르 모하메드 후쎄인을 단장으로 하고 전원 21명으로 구성된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

대표단은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기념관,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시내 문화기관들과 함흥지구 공장, 농장들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대표단 단장 쉐이크 무크다르 모하메드 후쎄인은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조선인민이 전후 짧은 년간에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의 기세로 자력갱생한데서 이루어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표단단장은 환영군중대회에서 《우리는 조선령토를 가를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령토로 인정하며 또한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인민은 조선인민이 나라의 분렬로 하여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충분히 리해하고있으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후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며 반제투쟁에서의 호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1965—1966년도 우리 나라 대표단과 외국의 대표단간의 호상 래왕이 많았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해서, 식민지 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국가들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 성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구라파의 많은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해서, 이 나라들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표단들을 파견하였을뿐만아니라 동시에 외국 대표단들을 수많이 받아들였다.

호상 래왕에는 당 및 정부대표단, 정부통상대표단, 인민대표단, 친선대표단, 문화대표단, 체육대표단과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대표단, 각종 근로단체 대표단 뿐만아니라 개별적인사들의 래왕도 빈번하였다.

1966년도에만하여도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265개의 각종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는 261개의 각종 대표단을 초청하여 쌍방간의 일련의 관심사로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호상 리해를 더욱 깊이 하였다.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우리 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자신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할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필요한 온갖 형태의 원조와 지지성원을 보냈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문제 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의 성명을 웰남문제해결의 유일하고 정당한 방도로 인정하고 그것을 시종일관 지지하였다.

1965년 5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 제1일회의에서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및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보내는 편지들을 채택하였다.

이해 4월 30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확대회의는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3기 제2차회의 호소문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미제가 조성한 전쟁확대의 위험성을 저지시키며 웰남문제의 해결의 기초로서 4개항목의 요구를 제기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호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월 9일 남조선괴뢰군 2천여명을 또다시 남부웰남에 파견하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2월 9일에는 미제공중비적들이 2월 7일과 8일 웰남민주공화국을 수차에 걸쳐 폭격한것을 규탄하고 미제의 무분별한 불장난을 결코 수수 방관할수 없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미제의 새로운 엄중한 전쟁행동을 규탄한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3월 26일에는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필승의 결의를 표명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3월 22일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다할것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7월 8일에는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이 미제의 지시밑에 또다시 한개사단의 괴뢰군을 남부웰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한것을 준렬히 규탄하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증파하는 남조선괴뢰군의 병력수에 해당하게 남부웰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제공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8월 7일에는 남부웰남에 또다시 5만명의 미제침략군을 증파하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할데 대한 전쟁의 두목 존슨의 결정을 규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8월 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형제적웰남인민에게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강화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여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월 3일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11월 24일에는 남부웰남에 전투부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침략전쟁확대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를 견결히 규탄하며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한 11월 16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외무성대변인은 9월 1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또다시 독가스를 사용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0월 6일에는 남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더 야수적 방법으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3월 27일에 3월 26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지지하면서 《싸우는 웰남의 형제들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만단의 전투적태세를 갖출것》을 전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3월 20일에는 웰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날》에 제하여 웰남에 대한 미제국주의

자들의 무력침략을 규탄하여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인민을 학살하기 위하여 독가스까지 사용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조선민주법률가협회(3. 27),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3. 29),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3. 31), 조선과학지식보급협회 중앙위원회(4. 2)들에서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도당이 남조선괴뢰군 1개 사단을 또다시 남부웰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한것을 규탄하여 7월 12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도 우리 나라 정부 및 사회단체들에서 성명들과 전문들을 수많이 발표 또는 보냈으며 중앙 및 지방군중집회들도 수많이 가지여 미제의 웰남에 대한 침략을 견결히 규탄하고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용전위원장에게 보내온 호지명주석의 1966년 1월 24일부 서한과 관련하여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였으며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회의에서 채택한 최용전위원장의 회답서한에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형제적웰남인민을 적극 지원할것을 표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는 남조선괴뢰정부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웰남에 증파하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책동을 폭로규탄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괴뢰군증파를 규탄하여 3월 7일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군중집회들을 가졌다.

1966년 7월 18일 김일성수상께서는 호지명주석의 7월 17일 호소와 관련하여 그에게 보낸 전문에서 웰남인민의 확고한 투쟁결의를 지지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할때까지 웰남인민에게 지원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의 립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였다.

11월 15일 공화국외무성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엄중한 단계에로 이끌어가면서 미제7함대를 동원하여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며 해안일대의 평화적주민지역들을 포격하는 야수적만행을 로골적으로 빈번히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만을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하고 그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시종일관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부를 접수하고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전 6주년에 즈음하여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주간에 평양시와 각도소재지, 인민군대, 공장, 협동농장 및 학교들에서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영웅적웰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중운동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 특히는 하노이, 하이퐁 지역과 학교 및 관개시설을 비롯한 평화적시설과 평화적주민에 대한 폭격, 독가스 및 유독성화학물질의 산포 등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웰남의 해안선 및 하이퐁봉쇄책동, 미제의 《평화협상》의 기만극, 《호노룰루회의》, 《마닐라회의》 등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폭로규탄하였으며 웰남인민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꾸바인민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꾸바인민과 굳게 련결되여있는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서반구초소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는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5년도 2월초에 제2차 꾸바인민대회에서 채택한 제2아바나 선언발표 3주년을 기념하여 공화국 각지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미제침략책동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면서 아바나선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해 4월 플라야 히론에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친 꾸바인민의 전투승리 4주년을 기념하여 조선꾸바단결위원회의 주최로 평양에서 기념회를 가지였으며 이밖에 공장, 기업소 종업원집회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기념회를 진행하였다. 기념회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단 72시간만에 완전히 섬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승리는 비단 꾸바인민의 승리일뿐만아니라 제국주의및 신식민주의와 투쟁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승리로된다고 높이 평

가하고 조선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꾸바인민의 투쟁에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원히 형제적 꾸바인민과 함께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이해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2주년을 맞이하여 조선꾸바친선주간을 설정하고 7월 19일 개막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평양시와 보천보, 민족보위성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기념회들을 진행하였다. 기념회들에서는 피델 까스뜨로수상을 선두로 한 꾸바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오늘 미제침략자들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혁명적꾸바인민에게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냈으며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은 이해 12월에 꾸바인민의 민족적명절 혁명승리 7주년에 제하여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곳에서 모임을 조직하고 꾸바인민의 승리를 축하하였으며 조선인민과 꾸바인민간에 맺어진 친선단결을 더한층 공고화하였다.

1966년에도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플라야 히론전투승리 5주년과 관련하여 평양시군중대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꾸바인민과 함께 나아갈것이라는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이해 5월 31일 공화국정부는 꾸바의 관따나모를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이 5월 21일 꾸바국경초소들에 도발적인 사격을 가하여 꾸바병사 루이스 라미레스 로뻬스를 살해하는 범죄행동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고 꾸바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였다. 성명에서는 관따나모기지에서 감행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단죄하고 자기의 정당한 립장을 천명한 피델 까스뜨로수상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형제적꾸바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결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꾸바인민에게 가능한 온갖 형태의 지원을 다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시에서는 군중대회를 가지고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은 7월 26일 무장봉기 13주년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들을 가졌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용건동지와 함께 꾸바의 당,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여 꾸바인민의 승리를 축하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라오스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라오스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당장 물러가야하며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1965년 1월 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라오스애국전선당창건 9주년에 제하여 축전을 보내여 조선인민은 형제적라오스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앞으로도 라오스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2월에는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며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라오스사회단체들에 편지를 보냈다.

10월 12일에는 우리 나라 대외문화련락협회주최로 라오스독립 20주년에 제하여 《라오스인민의 혁명투쟁 20주년 사진전람회》를 진행하였다.

1966년 1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확대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정치협상회의선언에 천명된 5개조치들과 4개항목성명의 요구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조선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라오스인민과 어깨겯고 나갈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것이라는 우리의 립장을 밝혔다.

민족보위상은 라오스인민해방군창건 17주년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해방군 최고사령관에게 축전을 보내여 라오스인민해방군과 라오스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라오스독립 21주년 기념일인 (10월 1일)《라오스인민과의 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전선중앙위원회와 아. 아단결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들에서 라오스의 해당한 단체들에 축전을 보내여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캄보쟈인민의 반제투쟁을 지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도발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

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5년 5월 6일 김일성수상께서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취한 캄보쟈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지지하여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전문에서 캄보쟈왕국 정부가 미제의 새로운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단호한 조치와 캄보쟈에 대한 국제회의소집과 관련하여 천명한 세가지 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용감한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1965년 하반기에 미제와 남부웰남괴뢰군 비행기들이 또다시 캄보쟈의 평화적촌락을 공습하고 무고한 주민들에 대하여 야수적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은 1월 24일 캄보쟈왕국 내각수상 겸 외무상 노로돔 깐똘에게 전문을 보내여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캄보쟈왕국 정부의 공보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며 특히 12월 21일 전쟁상인들이 도사리고있는 미국무성이 남부웰남주둔 미제침략군에 임의의 시각에 캄보쟈령토를 공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것을 공포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캄보쟈왕국 정부의 12월 25일과 26일부 성명에서 표명된 정당하고 단호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용감한 캄보쟈인민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6년 4월 12일 공화국외무성은 미제의 사촉하에 타이반동들이 캄보쟈령토에 침입(4월 3일)하여 《프레아 비헤아르》사원을 공격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타이반동들이 캄보쟈령토에 대한 온갖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또한 외무성은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이 캄보쟈의 령공을 빈번히 침범하여 평화적주민지대들을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하며 7월 31일과 8월 2일에 캄보쟈의 틀로크 토타초마을을 여러차례 공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집들을 파괴한것과 관련하여 8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침략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캄보쟈왕국 정부의 8월 3일부 성명에서 표명된 정당한 주장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10월 15일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제와 남부웰남 및 타이 괴뢰군들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캄보쟈의 령토완정과 민족적존엄 및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이와함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캄보쟈왕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외무성에서는 12월 1일 미제와 그 주구들이 또다시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이 또다시 캄보쟈의 프레이벵주의 페암몬테아국경초소에 포격을 가하는 한편 비행기를 동원하여 스바이렝주의 코레크국경초소를 공격하여 캄보쟈의 국경경비대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규탄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케하는 한편 미 제6함대를 동원하여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을 부단히 위협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은 아랍인민들의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지지하여주었으며 팔레스티나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5년 3월 17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랍인민의 단결을 파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남아세아에서의 《력량관계의 균형》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공고화》한다는 구실하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가하며 이곳에 침략적인 군사기지까지 설치하려고 책동할뿐만아니라 되살아난 서독복수주의자들과 이스라엘반동들을 공공연히 결탁시켜 이스라엘을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에로 부단히 내몰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고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5월 15일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자기 조국에로의 귀환과 민족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지지주간》을 맞이하여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1966년

7월 23일 아련국경절 14주년을 축하하여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들을 조직하였으며 강재원동무가 일하는 공장과 아련 미스르방직공장간의 친선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친선모임이 이 공장에서 있었다. 친선모임에서는 아련미스르방직공장에서 이 공장에 보내온 축기와 편지를 전달하였다.

1966년 12월 22일에는 제국주의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한 《승리의 날》 10주년에 즈음하여 김일성수상께서 나쎄르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시여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팔레스티나의 해방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아련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아련인민의 이 승리의 날을 축하하여 남포시에서 군중대회가 있었다.

조선인민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과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수리아정부의 견결한 반제립장을 지지하였다. 특히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수리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한 수리아정부의 5월 10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외무상의 전문을 5월 28일 수리아외무상에게 보내여 미영제국주의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은 시종일관 아련, 알제리, 수리아, 이라크, 예멘 등 아랍인민들의 반제 반이스라엘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꽁고(브), 베네수엘라인민들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우리 당과 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정 전 관 계

조선정전협정은 2년 17일간의 정전담판이 진행된후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되였다.

조선정전협정에는 《조선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정전협정 제12항)하며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지역을 존중》하며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며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지역 및 이 량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정전협정 제14, 15, 16항)해야 하며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그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한다고 규정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조선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실현될때까지 조선에서 정전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정전기간 조선경외로부터 군사인원의 증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의무를 쌍방에 부과하였다. 또한 체약쌍방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임무를 지니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정전후 시종일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전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화하며 나아가서 전아세아를 침략하려는 목적밑에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계속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한편 새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1966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새전쟁준비를 강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빈번히 계획적으로 감행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던 1950년을 방불케 하는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공격과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일층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66년 11월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

1965—1966년도 미제는 남부웰

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남조선괴뢰군을 계속 끌어가는 한편 그로 인한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하에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가하여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조선에서의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65년도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조선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서약하였다.

일례로 1965년 5월 22일 적측 수석위원은 자기들이 1965년 5월 18일 《엘—19》형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불법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것을 확언하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확인서—군사정전위원회 련합국군측은 1965년 5월 18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인민군 군사통제하의 지역상공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엘—19형 01428호 정찰기조종사 중위 팀승상의 시체를 앞으로 이와같은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감행하지않을것을 확인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으로부터 인수하였음

군사정전위원회련합국군측 수석위원
륙군소장 윌리암 피 야보로
1965년 5월 21일

그러나 미제는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적책동을 계속하였다.

1965년 미제는 정전협정서언과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지상 대 공중《호크》미싸일대대를 남조선에 창설하고 《8인치원자포》와 고공《나이크 헤르큘레스》유도무기, 유도무기로 무장한《에프5에이》형 초음속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최신비행기들, 신형함선들과 땅크 등을 대대적으로 비법반입하여 남조선괴뢰군을 무장시켰다. 더우기 미제는 이해 6월 25일 미제핵잠수함《스누크》호를 진해에 끌어들였으며 남조선을 미제의 폴라리스 미싸일핵잠수함의 극동지역기항거점으로 《확보》함으로써 남조선을 핵전략기지로, 침략전쟁확대의 전초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미제는 1965년에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감행하면서 전시체제를 확립하기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림전태세의 확립》, 《실전교육의 강화》 등의 구호하에 원자전을 가상하고 신형무기들로써 륙해공군의 합동연습과 해군의 상륙작전, 대규모적인 공군연습을 《한미합동》으로 빈번히 강행하였으며 전쟁발발을 가상한 예비역군인들의 긴급동원훈련 등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65년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억제하며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조성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비행기와 함선들을 우리측 령공과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인원들에게 총포사격과 무장습격, 수다한 간첩들을 우리측에 들여보내는 등 각종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계통적으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65년에 미제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 회의들에서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해상에서 101건, 공중에서 6건, 지상에서 6천 846건, 총 6천 953건이다.

1966년도에도 미제는 계속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나이크 헤르큘레스》와 《호크》 유도탄 각각 1개 대대, 《엠—48형》땅크 22대, 《8인치곡사포》 34문, 105미리 곡사포 59문, 155미리곡사포 62문, 《에프—5에이》초음속전투폭격기 21대, 《씨54》항공기 22대, 경비행기 29대, 각종 군용차량 1천 270대, 무반충 및 박격포 등 중화기 600문, 수척의 각종 해군함정, 수백정의 각종 수류탄발사기, 레이다장치, 총탄공장 등(서울 1966년 1월 11일발 《동양》)을 대량적으로 비법반입하여 남조선괴뢰군을 장비시켰다.

지어 미제는 1966년 4월 6일 유도탄순양함인 미제7함대기함 《오크란호마 씨티》호 (인천 1966년 4월 6일발《합동》)를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사실까지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에《에프—5에이》 전투기대대와 3개의 유도탄대대를 창설(서울 1966년 5월 5일발 《합동》)하였으며 60만의 남조선괴뢰군병력을 65만으로 증강할 《방침》(서울 1966년 3월 1일발 《동양》)밑에 남조선 청장년들과 제대자들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여 새로운 전투사단들을 편성하는 등 괴뢰군병력을 일층 증가하였다.

그들은 또한 1966년 순천과 광주 등에 《에프—5에이》초음속전투폭격기도입과 관련한 큰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 통신, 도로, 철도, 항만시설, 비행장 등 군사시설들을 확장 또는 신설하였다.

지어 대구 동촌공군비행장확장공사는 미제국주의륙군극동공병대에서 직접 담당수행하였다. (서울 1966년 5월 28일발 《합동》)

지금 남조선 전체 군항은 미제의 잠수함의 기항은 물론 미제7함대까지 입항할수 있는 규모로 확장(1966년 1월 27일 남조선신문 《조선일보》)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비법반입한 대량살륙무기들과 신형무기들을 끌어내여 원자전을 가상한 《한미합동훈련》, 《상륙작전훈련》, 《야간고공락하훈련》 등 대규모적인 각종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66년 5월 미제는 조선 동해일대에서 미제침략군대와 일본군국주의군대, 미제침략군과 남조

선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이미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호크》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유도무기들을 발사하는 광란적인 군사소동까지 벌리였다. 미제는 1966년 1년동안에 이러한 군사연습을 50여차나 벌리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와 해상 및 공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그리고 더욱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1966년 2월 27일 9명의 무장인원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우리측에 도발적인 총사격을 감행케 한것을 비롯하여 비무장지대내에 《엠47》형 전차, 박격포, 고사기관총, 화염방사기 등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부단히 끌어들여 그것으로 우리측에 도발적인 총포사격을 가하며 무장도배와 살인비적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우리측에 대한 야수적인 무장습격을 감행하는 등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적대행위를 계속 부단히 감행하였다.

미제는 비행기와 함선들을 우리측 령공과 령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해군함선들을 동서의 우리측 연해에 집단적으로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에 야만적인 사격을 가하며 평화적인 우리측 어민들을 강제랍치하여가는 해적행위를 계속 감행하여오던 끝에 지어 해군함선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해안일대에 공공연한 함포사격을 가하는 만행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이러한 광란적인 미제의 도발행동은 미제침략자들이 아세아의 괴뢰들과 함께 웰남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전쟁확대를 공모한 《마닐라회의》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목적으로 전쟁두목 존슨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로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로골화되였다.

1966년 10월, 11월 2개월간에 미제가 감행한 무장습격과 총포발사행위는 무려 47차나되며 이 기간에 적들이 쏜 총탄과 포탄수는 8천 200여발로써 정전이후 12년간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미제침략자의 전쟁두목 존슨이 남조선에 왔다간 이후 11월과 12월 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각종 해군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무려 129차에 걸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1965년 1년동안에 감행한 미제의 해상침범사건보다 28건이나 더 많다.

1965—1966년에 미제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회의들에서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하여도 무려 1만 5천599건(1966년 1년간 8,646건)이다.

이로써 정전후 1966년 12월말까지 미제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는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4만 5천 653건이나 된다.

미제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인민군의 강유력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그때마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저지되였으며 한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는 그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의 음흉한 목적과 침략행위가 낱낱이 폭로규탄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우리측의 항의와 요구를 거부하며 회피할수 없는 물질적증거가 있는것도 《고의적이 아닌 위반》이니, 《부주의》이니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엄중한 도발적인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평화적》인것으로 묘사하면서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며 그를 미화분식해보려고 시도하면서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그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책동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1966년 2월에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제222차회의는 3일간, 3월에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제224차회의는 6일간 지연되였으며 특히 5월부터 7월말까지 2개월여에 걸치는 기간에는 군사정전위원회회의 뿐만아니라 비서장회의조차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56일, 비서장회의는 72일만에야 진행).

1966년에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더욱 엄중하고 악랄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 자료에서 명백히 알수있다.

1965—1966년에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공중위반행위—1965년 3월 4일 적측은 《엘—19형》군용비행기 1대를 강원도 두포리 하청송부근일대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

4월 28일 적측은 《아르비—47형》군용비행기 1대를 함경남도 신창, 리원 상공에까지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항공대의 자위적조치로 격추.

5월 18일 적측은 《엘—19형》 01428호 군용비행기 1대를 세포부근 상공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로 평강부근에서 격추.

6월 14일 적측은 《에프. 86 디형》군용비행기 2대를 쌍두두령부근일대 상공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

8월 1일 적측은 군용비행기 1대를 비무장지대 우리측부분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

9월 5일 적측은 《에쓰. 씨 47형》군용비행기 1대를 귀존리부

근상공에 침입시켜 도발적인 군사정탐행위를 감행.

1966년 11월 18일 적측은 《에이 오—1》 군용 정찰비행기 1대를 강원도 고성군 남강하구 부근일대의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

이로써 정전이후 1966년 12월말까지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적측이 위반한 공중침범사건은 722건(1,424대)이다.

1965—1966년에 적측이 감행한 해상위반행위—1965년 1월 6일 적측은 강제구잠함 706호, 중형상륙함 612, 호위구축함 72호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

1월 15일—16일 적측은 경호함 58호와 호위구축함 72호를, 1월 25일, 28일, 29일에는 강제구잠함 707호, 709호, 목제구잠함 203호, 수송선 81호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

2월 9—11일, 3월 23일 적측은 수송선 81호, 강제구잠함 708호 호송경비함 61호와 63호를, 3월 30—31일에는 3차에 걸쳐 강제구잠함 709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4월 30일 적측은 무장선박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 각회도앞 부근해상에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에 야만적인 무장공격을 가하는 한편 어민 2명과 고기배를 강제랍치하여감.

5월 5일—6일 적측의 무장선박이 3차에 걸쳐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

5월 6일—12일 적측은 호위구축함, 중형상륙함, 로케트포함 311호, 전차상륙함 816호등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호송경비함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

5월 26일—6월 2일 사이에 적측은 14차에 걸쳐 구축함, 강제구잠함, 경호함, 중형상륙포함, 소해함 등 14척의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을 동해와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6월 9일 적측은 고성앞부근의 우리측 연해에 경호함 59호와 목제구잠함 203호를 침입시켜 어로작업중이던 2척의 우리측 어선과 30명의 어민들을 강제랍치하여감.

8월 31일 적측은 야밤에 경호함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10월 8—31일 적측은 경호함 58호와 호위구축함 72호를 비롯한 각종 해군함선 20척을 연19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감행.

또한 적측은 11월 2일 구잠함 708호, 호송경비함 66호, 소해함 521호, 11월 3일에는 소해함 521호, 구잠함 708호, 호송경비함, 66호, 11월 11일에는 경호함 1001호, 호송경비함 66호, 소해함 521호. 경찰선 1척, 경호함 52호, 구잠함 707호, 호송경비함 63호, 11월 15일에는 구잠함 707호, 소해함 521호, 경호함 1001호, 호송경비함 63호, 11월 20일에는 구잠함 707호, 중형상륙함 610호, 호위구축함 73호, 11월 23일에는 구잠함 707호, 11월 27일에는 호위구축함 73호, 로케트포함 311호, 경호함 56호, 소해함 525호, 11월 29일에는 해양예선 에이. 티. 에이—3호, 11월 30일에는 2척의 중형상륙함, 1척의 경호함, 2척의 소해함 등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12월 2일, 3일, 7일, 8일, 15일, 17일 적측은 호위구축함 73호 소해함 503호와 595호, 경호함57호와 59호, 중형상륙함 608호, 로케트포함 311호, 구잠함 707호와 708호, 해양예선 에이. 티. 에이—3호, 경찰선, 구축함 91호 등 중무장한 각종 해군함선들을 련속 대규모적으로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1966년 1월 10일 적측은 구잠함 709호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

3월 14일 적측은 경호함 51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5월 21일, 22일, 23일 적측은 경호함 1001호, 구축함 72호, 73호, 로케트포함311호, 구잠함 708호, 709호, 호위구축함 73호 등 불과 3일동안에 무려 13차에 걸쳐 연 13척의 각종 해군함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

6월 1일 적측은 로케트포함 311호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7월 29일 적측은 목제구잠함 202호와 경호함 56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고기잡이를 하고있는 우리측 어선들에 대하여 40미리 및 20미리 자동포를 비롯한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서 무려 수백발의 총탄과 포탄을 퍼붓는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

9월 28일 적측은 목제구잠함 203호와 경호함 56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 고성앞부근 해상에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들에 무려 30분간이나 무장공격을 가한끝에 어민 6명과 고기배를 강제랍치하여감.

10월 24일 적측은 목제구잠함 707호, 708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특히 1966년 10월 미제국주의침략자의 두목 존슨이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이후부터 미제의 해상침범행위는 급격히 늘었다.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동안에 적측은 경호함 55호, 59호, 호송경비함 66호, 강제구잠함 709호 등 13척의 각종 해군함선들을 16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11월 18일 적측은 5척으로 구성된 해군함선단을 동해의 우리측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적측은 이러한 적대행위를

11월 21일에도 감행.

11월 22일 적측은 경호함 57호, 1001호, 호송경비함 64호 등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지대에 수십발의 함포사격을 가하는 로골적인 도발행동을 감행.

적측은 11월 24일 2척의 경호함을, 11월 28일에는 2척의 경호함과 한척의 호위구축함을, 11월 29일에는 경호함 101호와 53호, 패속부대 수송선 82호, 호송경비함 61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

12월 3일부터 15일에 이르는 13일간에 적측은 무려 58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련속적으로 매일 침입시켰는바 이 기간에 미제의 경호함 51호는 9차, 53호와 57호는 각각 1차, 호송경비함 63호는 4차, 패속부대 수송선 82호는 10차, 83호는 11차, 강제구잠함 709호는 6차, 구축함 91호는 7차, 해양예선 에이. 티. 에이—2호는 6차, 3호는 3차 각각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적측은 무려 38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이로써 정전이후 1966년 12월말까지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적측이 위반한 해상 침범사건은 758건(2,196척)이다.

1965—1966년에 적측이 감행한 지상위반행위—1965년 1월 2—28일간에 적측은 7차에 걸쳐 34정의 경기관총과 2문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설치, 1월 20일, 26일, 28일에는 비무장지대내에서 엠완총과 카빙총으로 우리측 인원들을 향하여 4차에 걸쳐 사격.

2월 10일 적측은 2명의 무장인원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침입시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에게 무장공격을 감행하다가 우리측 인원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생포, 생포된 무장악당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1965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사이에 이 자들에게 각종 훈련을 준후 우리측 인원들을 습격, 살해, 랍치하며 각종 증명문건을 탈취해 올 임무를 주어 우리측에 침입시킴.

2월 19일—22일 적측은 5차에 걸쳐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불을 질러 넓은 지역을 불태웠다. 2월 12일—2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내에 16차에 걸쳐 중기관총을 비롯한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여 설치, 중무장을 한 군사인원 39명이 비무장지대내에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감행(2월 12일—16일),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엠완총탄을 발사 (2월 12일).

3월 1—29일 적측은 25차에 걸쳐 13정의 경기관총과 6문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비무장 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 3월 22일 군사인원 6명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 3월 4일, 13일 수십명의 적측의 군사인원들이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태세를 취함, 3월 10일, 13일 10명의 적측의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내에 방화.

3월 28일 적측은 무장간첩집단을 우리측 지역 무등리부근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하다가 우리측에 체포. 체포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1965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기간에 이 자들에게 인원랍치법과 사격훈련 등을 비롯한 각종 첩보훈련과 교육을 준후 우리측 인원들을 랍치하며 군사비밀을 탐지해 올 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3월 10일—5월 12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 12차에 걸쳐 불을 질러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의 넓은 지역을 불타게 함.

4월 1일—15일 적측은 8차에 걸쳐 10정의 경기관총과 1문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

5월 2일—13일 적측은 2문의 중기관총과 3정의 경기관총, 9정의 카빙총을 비무장 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

4월 20일, 5월 12일 적측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카빙총과 엠완총으로 사격.

4월 27일, 28일, 29일, 5월 3일 도합 42명의 완전무장한 적측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전투태세를 취함.

5월 16—20일 적측은 10문의 중기관총, 5정의 경기관총, 10정의 카빙총을 끌어들여 비무장지대내 저들의 초소에 설치하거나 자기 인원들에게 휴대시킴.

5월 19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6발의 예광탄을 발사.

5월 21일—6월 3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저놈들 부분의 12개 지점에 1문의 고사기관총과 9문의 중기관총, 19정의 경기관총을 련속 끌어들여 설치.

6월 1일 비무장지대내에서 적측 군사인원 8명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엠완총탄을 발사함.

6월 11일—7월 9일 적측은 6문의 중기관총과 5정의 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하거나 자기 인원들에게 휴대시킴.

6월 20일 비무장지대내에 지뢰를 매설, 6월 22일 적측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4발의 엠완총탄을 발사.

적측은 7월 14일—8월 25일 1문의 고사기관총, 7월 17일에는 1문의 81미리박격포,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에는 18문의 중기관총, 10정의 경기관총, 10정의 카빙총을 비무장지대내에 끌

어둘여 설치.

적측은 8월 25일—10월 14일 8문의 중기관총과 38정의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 9월 12일—10월 12일 7차에 걸쳐 수십명의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군사훈련을 감행.

9월 1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150여발의 카빙총과 엠완총탄을 발사, 9월 25일에는 20여발, 10월 9일에는 100여발, 10월 10일에는 무려 500여발, 10월 11일에는 9발의 총탄을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발사.

10월 25일 5명의 적측 장교의 지휘하에 30명의 군사인원들이 비무장지대내에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설치해 놓고 우리측을 향하여 전투태세를 취하는 도발행동을 감행, 적측은 또한 비무장지대내 자기측 초소에서 5발의 조명탄을 비쳐놓고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650발 이상의 총탄을 발사, 이에 앞서 10월 22일에는 10명의 장교의 지휘하에 140여명의 무장인원들이 비무장지대 우리측을 향하여 200여발의 총탄을 발사, 10월 23일과 24일 량일간에 3차에 걸쳐 경기관총을 끌어들여 비무장지대 자기측 초소에 설치, 10월 24일에는 자동무기를 포함한 수정의 저격무기로 30여발의 총탄을 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을 향하여 발사.

10월 27일 적측 군사인원 24명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 비무장지대에서 각종 저격무기로 도합 300여발, 10월 31일에는 7발의 총탄을 발사.

11월 14—24일 적측은 4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1천여발의 총탄을 발사, 11월 26일에는 수발의 예광탄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 11월 11일과 26일에는 비무장지대내에 1문의 중기관총과 1정의 경기관총을 끌어들여 설치.

11월 19일, 20일, 24일 3차에 걸쳐 57명의 인원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정찰캐 하는 도발행위를 감행.

12월 8일, 13일, 15일, 18일에 적측은 연 7차에 걸쳐 2문의 중기관총과 5정의 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내에 끌어들여 설치, 12월 17일, 20일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자동무기로 우리측을 향하여 도합 15발의 총탄을 발사.

1966년에도 적측은 지상위반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였다.

1월 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엠14소총으로 우리측을 향해 총탄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

1월 6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불을 질러 계호동부근 우리측의 넓은 지역을 불태웠다.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사이에 적측은 21차에 걸쳐 경기관총 20정과 중기관총 3문을 비무장지대에 비법반입하여 설치.

1월 31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엠완보총으로 우리측 인원들에게 9발의 총탄을 발사.

2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적측은 비무장지대내 자기측 초소에 도합 3문의 중기관총과 4정의 경기관총을 비법반입하여 설치.

2월 16일 적측은 군사인원 32명의 엄호하에 18명을 비무장지대 우리측에 불법침입시킴.

3월 7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엠14소총으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해 도합 11발의 총탄을 발사.

3월 14일 적측은 무장한 57명의 군사인원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집단적으로 침입시킴.

3월 2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불을 질러 비무장지대 우리측의 넓은 지역을 불태웠다.

3월 21일, 26일, 28일 적측은 기관총과 보총 등 각종 저격무기로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해 3차에 걸쳐 135발의 총탄을 발사.

4월 6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적측은 8차에 걸쳐 비무장지대내에 불을 질러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의 광대한 지역을 불태움.

4월 23일과 2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도합 20여발의 총탄을 발사.

5월 18일 적측 무장집단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을 불의에 습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체포됨. 체포된 놈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4명의 살인무장집단들에게 1966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에스. 에이. 에스(SAS)속초훈련소에서 정탐활동과 무장공격행위에 필요한 전문훈련을 준후 우리측의 군사비밀을 탐지하며 인원들을 습격, 살해, 랍치할 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시킴.

5월 8일, 12일, 17일, 20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해 중기관총, 경기관총, 카빙총 등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비롯한 각종 저격무기들로 5차에 걸쳐 1천여발의 총탄을 발사.

5월 27일 적측은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캐 하다가 우리측에 체포, 체포된 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6개월간 그에게 정탐활동에 필요한 전문훈련을 준후 우리측 부대의 배치상태와 부대의 이동상태 및 군수기재들을 탐지하며 각종 기밀문건을 탈취하며 우리측 인원을 습격, 살해, 랍치할 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5월 28일 적측은 무장간첩집단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에 체포, 체포된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5개월여에 걸쳐 이 자들에게 첩보활동에 필요한 전문훈련을 준다음 우리측 군사배치정형을 탐지하며 출로를 개척할데 대한 간첩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5월 29일 적측은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에 체포, 체포된 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그에게 우리측의 군사배치정형을 탐지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우리측에 침입시킴.

적측에 의한 무장간첩침입행위는 6월과 7월에도 의연히 반복감행.

적측은 6월 6일, 6월 15일과 6월 17일에도 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놈들은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모두 우리측에 체포됨.

7월 11일 적측 무장집단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에게 불의에 자동무기로 사격을 감행하다가 체포, 체포된 3명의 적측 무장집단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1966년 4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무장비적들에게 무장습격과 정탐행위에 필요한 각종 전문훈련을 준후 우리측 인원을 습격, 살해, 랍치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8월 3일 적측은 군사인원 20명을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

9월 4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카빙총으로 우리측 부분을 향해 4발의 총탄을 발사.

미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1966년 10월 미제침략자의 두목 존슨이 남조선에 기여든것을 계기로하여 더욱 로골화됨.

10월 2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중기관총으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해 350여발의 총탄을 발사, 10월 3일에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우리측 인원들에게 엠14소총으로 2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

10월 5일 적측 무장집단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에게 자동무기로 불의에 공격을 감행하다가 체포됨. 놈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측은 1966년 2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기간에 각종 정탐훈련을 준후 10월 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우리측 인원들을 습격, 살해, 랍치하며 우리측의 군사기밀을 탐지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10월 18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중기관총, 경기관총, 엠1보총 등으로 3차에 걸쳐 무려 64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 지역을 향해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

10월 20일 적측은 4대의 《엠—47》형 전차를 동원하여 동해의 우리 섬 작도(군사분계선으로부터 1,300메터, 우리 해안선으로부터 200메터 떨어져있음)에 대하여 30여발의 포탄과 수백발의 기관총사격을 감행.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불과 5일동안에 적측은 전차와 박격포, 수다한 기관총과 저격무기들을 동원하여 13개소의 각이한 지역에서 15차에 걸쳐 련속적으로 우리측에 수십발의 포탄과 박격포탄 그리고 수천발의 총탄을 발사.

11월 3일 적측은 중기관총, 경기관총, 카빙총, 엠1보총 등으로 무장한 수십명의 인원들을 서부지역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침입시켜 2천여발의 총탄을 발사하면서 우리측 초소를 공격.

11월 5일 적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중기관총, 카빙총, 엠1보총 등으로 5차에 걸쳐 우리측에 330여발의 총탄을 발사.

12월 8일 적측은 무장한 군사인원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12월 2일 적측은 30명의 인원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킴.

정전이후 적측이 감행한 지상위반사건은 우리측이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4만 4,173건이나 된다.

군사정전위원회회의 및 비서장회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1965년—제198차회의 1월 15일 우리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소집을 부당한 구실밑에 지연시킨 적측의 죄행을 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또한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 3차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없는 사민들을 들여놓은것과 1월 6일 3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킨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 그리고 우리측은 미제의 무력증강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이미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모든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조선경외로 즉시 반출할것을 적측에 강경히 요구.

제199차회의 1월 2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적측의 갖은 책동을 폭로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27척의 신형경비정을 비롯한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를 남조선괴뢰에게 넘겨주려는데 대하여 폭로 규탄, 그리고 1월 15일과 16일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각종 해군함선들을 불법침입시킨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200차회의 1월 28일 적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1월 25일 적측이 3차에 걸쳐 강제구잠함을 비롯한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사건과 1월 20일과 26일에 비무장지대에 우리측을 향하여 3차에걸쳐 감행한 총격사건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201차회의 1월 3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1월 28일 적측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5명의 무장집단을 침입시켜 우리측 인원들에게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한것과 1월 28일과 29일에는 5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각종 해군함선들을 불법침입시킨데 대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제202차회의 2월 12일 우리

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2월 10일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은밀히 침입하여 우리측 인원들에게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하다가 우리측에 체포된 2명의 적측 무장비적들의 도발적무장공격행위와 2월 9일부터 2월 11일사이에 3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들을 침입시킨 도발행위, 비무장지대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협정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계속 책동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

제203차회의 3월 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3월 4일 우리측 령공에 군용 비행기 1대를 불법침입시키는 한편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내에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정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 회의에서 우리측은 또한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들여다놓은 제 0365호로부터 0371호까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제자리에 옮겨세우지 않고있는 적측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표식물들을 제대로 옮겨세울것을 적측에 강경히 요구.

제204차회의 3월 3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3월 28일 우리측 지역에 3명의 무장간첩을 침입시킨 적대행위와 3월 23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킨 사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대행위 등에 대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205차회의 4월 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3월 30일과 3월 31일 량일간에 3차에 걸쳐 구잠함 709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적대행위와 4월 1일부터 4월 6일사이에 비무장지대내에 4차에 걸쳐 중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사건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206차회의 5월 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4월26일 우리측 령공에 불법침입하여 군사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적측 《아르 비—47》형 군용비행기 1대의 침범사건과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인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측의 총공격사건을 비롯한 정전협정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207차회의 5월 1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4월 30일 또다시 우리측의 평화적어선을 습격하여 어민들을 랍치하여간 적측의 해적행위와 5월 5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각종 해군함선과 무장선박들을 동해와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6차에 걸쳐 비법침입시킨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208차회의 5월 2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5월 18일 우리측 령공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계속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적측 《엘—19》형 군용비행기의 침범사건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209차회의 5월 22일 적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5월 18일 우리측 령공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적측 《엘—19》형 군용비행기조종사시체의 인도인수문제와 관련하여 적측의 죄행을 규탄.

제210차회의 6월 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4월 30일 적측 무장선박이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하여 강제랍치하여간 우리측 인원을 그들의 선박과 함께 우리측에 돌려보낼것을 또다시 적측에 요구, 또한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측이 5월 26일부터 6월 2일에 이르는 8 일간에 14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과 무장선박들을 동해와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범시킨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

제211차회의 6월 1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4월 30일과 6월 9일 동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켜 우리측의 평화적어민들을 습격랍치해간 적측의 해적행위에 엄중히 항의하고 우리측 어민전원을 그들의 어선 및 화물과 함께 즉시 돌려보낼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또한 적측이 6월 14일 2대의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킨 적대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

제212차회의 6월 2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또다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위반하고 《나이키》유도탄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하는 한편 원자잠수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 또한 이미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모든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즉시 조선경외로 반출할것과 남조선에 원자잠수함까지 끌어들이려는 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제213차회의 7월 27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12년간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유린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기관들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여온 적측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적측에 강경히 요구.

제214차회의 9월 1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9월 5일 군용비행기 1대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킨것과 8월 31일 해군함선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적대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또한 적측이 8월 25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비무

장지대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 그리고 적측 관리하의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시급히 군사분계선상의 정확한 위치에 세울것을 다시 한번 적측에 요구.

第215次회의 10월 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과 공동경비구역을 적대적인 선전무대로 더욱 로골적으로 악용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또한 적측이 《8인치원자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

第216次회의 10월 2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0월 8일부터 10월 25일사이에 각종 해군함선들을 연16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계속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과 공동경비구역을 적대적인 선전무대로 악용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책임을 추궁.

第217次회의 11월 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사이에 5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각종 해군함선들을 침입시킨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 그리고 우리측은 적측이 공동경비구역을 의연히 적대적인 선전무대로 악용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세번째로 책임을 추궁.

第218次회의 11월 3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 관리하의 제0365호로부터 제0371호까지의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일방적으로 또다시 우리측 지역에 들여다세운 적측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그 표식물들을 즉시 제거하여 군사분계선상의 정확한 위치에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사이에 또다시 22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것과 11월 11일부터 11월 26일사이에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사건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그리고 우리측은 적측이 공동경비구역내에 비법적으로 설치한 일체 적대적선전물들을 즉시 제거하며 공동경비구역을 상대방을 반대하는 악랄한 선전무대로 악용하고있는 부당한 소행을 그만둘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第219次회의 12월 2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사이에 9차에 걸쳐 31척의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킨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또한 공동경비구역을 의연히 적대적선전무대로 악용하고있는 적측의 부당한 소행을 규탄.

—1966년— **第220次회의** 1월 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965년 12월 21일부터 1965년 1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5차에 걸쳐 경호함, 구잠함, 소해함 등 9척의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것과 1965년 12월 23일부터 1966년 1월 3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내에 6차에 걸쳐 고사기관총을 비롯한 중무기들을 비법반입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비무장지대내에 반입한 각종 중무기들을 즉시 비무장지대밖으로 내갈것을 적측에 요구.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1965년 12월 28일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해 6발의 총탄을 발사한것과 1965년 12월 23일과 1966년 1월 1일에 군사인원들을 각각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시킨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

第221次회의 1월 2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가 주둔하고있는 공동경비구역을 적대적선전장소로 계속 악용하고있는 부당한 소행을 규탄하고 공동경비구역내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모든 적대적선전물들을 즉시 철회할것을 적측에 요구, 또한 우리측은 1월 10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킨 적측의 해상침범행위와 1월 13일, 14일, 19일에 비무장지대내에서 적측이 감행한 총사격행위와 3건의 군사훈련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그의 재발을 방지할데 대한 실제적조치를 취할것을 적측에 요구.

第222次회의 2월 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위반하고 또다시 2척의 쾌속구축수송함, 22대의 《엠48》형 중땅크, 30문의 155미리곡사포, 9인치곡사포 그리고 군용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비법반입하려는 책동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남조선어민들을 자기의 추악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달성에 악용하고있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第223次회의 3월 3일 적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비법반입하려고 획책하면서 재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이미 남조선에 끌어들인 살인무기들을 조선경외로 지체없이 반출할것을 적측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2월 27일 비무장지대내에서 합법적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측 인원들에게 총탄을 발사한 도발행위와 2월 25일 호위구축함 73호를 또다시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킨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第224次회의 3월 2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3월 14일 경호함 51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데 대해 강경히 항의.

제225차회의 4월 2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적측이 105미리 곡사포 23문과 155미리곡사포 32문을 비롯한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를 남조선에 비법반입한데 대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이러한 범죄적인 무력증강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남조선에 비법반입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조선경외로 내갈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제226차회의 5월 2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5월 18일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 민사행정경찰들에게 무장공격을 감행한것과 5월 8일, 12일, 17일, 20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도발적인 총사격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13차에 걸쳐 경호함, 로케트포함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킨데 대해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정전협정을 유린하고 남조선에 각종 살인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엄중히 항의.

제227차회의 7월 22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5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무장간첩들을 무려 7차에 걸쳐 침입시킨것과 7월 11일 3명의 무장습격단을 우리측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한것과 5월 31일과 6월 1일 미해군합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각종 신형무기들과 각종 장비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재전쟁도발준비책동을 적극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

제228차회의 8월 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7월 29일 목제구잠함 202호와 경호함 56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들을 공격하는 해적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229차회의 10월 1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9월 28일 목제구잠함 203호와 경호함 56호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들에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여 어선과 그에 탑승하고있던 우리측 어민 6명을 강제랍치하여가는 해적행위를 감행한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장공격과 총사격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230차회의 10월 20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0월 18일 단 하루동안에 세차례에 걸쳐 63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우리측은 또한 9월 28일 적측이 해군함선을 동원하여 강제랍치하여간 우리측 어민들을 의연히 억류해두고 그들을 정치적 악선전의 미끼로 악용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규탄하고 우리측 어민 전원을 그들의 어선과 함께 무조건 지체없이 우리측에 돌려보낼것을 재차 적측에 강력히 촉구.

제231차회의 10월 2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에 13개의 각이한 지역에서 15차에 걸쳐 련속적으로 우리측에 수십발의 포탄과 박격포탄 그리고 수천발의 총탄을 퍼부은 대규모적인 공격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책임을 추궁.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데 대하여서와 10월 24일 2척의 목제구잠함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데 대해 항의. 우리측은 또한 9월 28일 적측이 강제랍치하여간 우리의 어민전원을 그들의 어선과 함께 무조건 지체없이 우리측에 돌려보낼것을 적측에 강력히 촉구.

제232차회의 11월 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우리측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일과 같이 감행한 대규모적인 총사격행위와 11월 3일에 감행한 무장공격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11월 3일 세번에 걸쳐 경호함 56호를 비롯한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제233차회의 11월 1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1월 4일과 5일 량일간에 비무장지대내에서 9차에 걸쳐 우리측 지역에 수백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11월 4일부터 16일에 이르는 13일간에 16차에 걸쳐 경호함과 호송경비함 등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남조선에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재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234차회의 11월 2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1월 18일 군용정찰기 한대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킨것과 11월 18일, 21일, 22일에 호위구축함, 경호함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일대에 함포사격을 가하는 로골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제235차회의 12월 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1월 2일, 24일, 29일에 경호함 53호, 호위구축함 73호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

제236차회의 12월 1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2월 3일부터 15일에 이르는 13일간에 58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킨것과 남조선에 신형 군용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작전장비들을 비법반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제237차회의 12월 2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38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한것과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1965년—

제287차회의 1월 1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제288차회의 1월 27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1월 21일 소집되였던 공동감시소조 제3조회의를 파탄시킨 적측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우리측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여다세운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군사분계선상의 원래의 위치로 시급히 옮겨 세울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제289차회의 2월 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측의 각종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290차회의 2월 1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의 적측의 각종 도발행위와 비서장회의운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적측의 책동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제291차회의 3월 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

제292차회의 3월 1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적측의 최근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내에서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

제293차회의 4월 1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불을 지르며 비무장지대내에 각종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294차회의 5월 1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506건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사건들에 대하여 항의. 또한 적측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비법적으로 들여다세운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바로세울것을 다시금 요구.

제295차회의 5월 21일 적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이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적측 비행사시체 인도인수문제를 광당하게도 비서장회의에서 로의할것을 제기한데 대하여 일축.

제296차회의 5월 2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 《엘—19》형 군용비행기조종사의 시체를 적측에 인도.

제297차회의 6월 1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6월 9일 적측이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들을 침입시켜 평화적어로작업에 종사하고있던 우리측 어민들을 랍치하여간 해적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적측이 강제랍치하여간 우리측 어민들을 그들의 어선과 함께 즉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 또한 우리측은 5월 6일부터 6월 6일사이에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727건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제298차회의 7월 1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위험물매설, 우리측에 대한 총탄발사 등 각종 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299차회의 8월 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300차회의 8월 2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01차회의 9월 2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9월 15일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총사격사건과 군사연습소동 등 각종 도발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302차회의 10월 15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군사분계선표식물을 의연히 군사분계선상의 정확한 위치에 세우지 않고있는것과 또한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제303차회의 10월 21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적측이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304차회의 11월 11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제0364호로부터 제0372호까지의 구간내의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군사분계선상에 정확히 세울 목적으로 파견되였던 공동감시소조 제3조회의를 중단시킨 책임을 추궁.

제305차회의 12월 10일 우리

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우리측 지역에 비법적으로 들여다세운 군사분계선표식물들을 정확한 위치에 세울것을 다시 한번 미국측에 요구.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

제306차회의 12월 3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396건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1966년— 제307차회의 1월 1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08차회의 1월 2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또다시 8차에 걸쳐 10정의 금지된 중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반입한데 대하여서와 비무장지대내에서 도합 176건의 합의위반사건을 발생시킨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

제309차회의 1월 2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서장회의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적측의 비법행위를 규탄하고 그와 같은 부당한 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

제310차회의 2월 1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의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11차회의 2월 2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의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12차회의 3월 1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군사분계선표식물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비법적으로 들여다세운것을 군사분계선상의 정확한 위치에 바로세울것을 다시 한번 적측에 요구.

제313차회의 3월 30일 우리측의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의 총사격행위와 자동무기, 중무기의 반입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314차회의 4월 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각종 정전협정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적측에 책임을 추궁.

제315차회의 4월 2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적측이 총탄을 발사하고 방화한데 대하여 항의.

제316차회의 5월 1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17차회의 7월 2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5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사이에 비무장지대내에 10문의 중기관총과 56정의 경기관총을 비법반입한데 대하여서와 적측의 우리측지역에 대한 침입사건, 비무장지대내에서의 방화사건 등에 대하여 항의.

제318차회의 8월 1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자동무기를 반입한데 대하여서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319차회의 8월 2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20차회의 9월 15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계속 비무장지대내에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법반입하여 그것으로 우리측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강경히 항의.

제321차회의 9월 3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9월 15일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을 향하여 총탄을 발사한데 대하여서와 9월 15일, 20일, 23일, 26일에 3문의 중기관총과 6정의 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반입한데 대하여 항의.

제322차회의 10월 2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 81미리박격포, 중기관총 등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법반입한 적측의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323차회의 11월 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계속 비법반입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24차회의 11월 23일 적측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기간에 408건에 달하는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항의.

제325차회의 12월 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제326차회의 12월 2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적측이 최근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데 대해서와 12월 8일과 18일, 21일 3차에 걸쳐 무장한 군사인원들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킨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12월 5일부터 24일까지의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382차에 걸쳐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위반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항의.

1965—1966년에 상술한 회의외에 53차의 쌍방경무관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들에서 우리측은 적측이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경비구역내에서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를 위반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경 제

7개년계획의 하반기과업은 중공업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것이였다.

조선인민은 1965－1966년간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7개년계획의 하반기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켰다.

1965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는 1965년에 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고리들인 선철 및 강철, 화학비료, 전력, 석탄고지와 알곡고지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면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고 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나섰다.

이를 위하여 당과 국가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는 열 및 전력관리사업을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 사업을 개선강화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열 및 전력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내부에 파묻혀있던 많은 예비를 찾아냈으며 전반적기업관리수준을 더욱 높이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말－1965년초에 걸쳐 금속공업성,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천리마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주요한 성, 국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으로서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성, 국을 비롯한 경제기관들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모든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결정을 실천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 한번 앙양을 일으켰다.

특히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근로자들의 증산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1965년에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많은 힘을 돌렸으며 혹심한 가물로 전력사정이 긴장하였으며 여러차례의 폭풍우로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에서는 기계제작공업, 야금공업, 화학공업 등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65년에 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공업에 큰 힘을 돌리면서도 7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기본건설을 광범히 추진하였으며 내부예비들을 광범히 동원리용하였다.

이해에 국가는 기본건설투자액의 3분의 2를 공업건설에 돌렸으며 공업건설투자의 많은 비중을 중공업부문에 돌렸다.

이에 따라 나라의 중공업기지는 더욱 확대강화되였으며 중공업으로 하여금 경공업과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게 꾸려놓았다.

경공업기지를 또한 튼튼히 꾸렸으며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1965년에 공업부문에서는 공업의 기존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과 더불어 대중소병진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부문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공업내부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예비들을 상당히 동원리용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으로 사상, 문화 혁명과 더불어 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였다.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하여 많은 파종기, 제초기, 탈곡기 등의 농기계들을 공급하고 농기계수리기지들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와 전기화도 촉진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또한 2모작면적을 더욱 확장하고 산간지대의 알곡기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대별로 영농기술대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출이 낮은 땅을 높게 만듦으로써 전반적지대들에서 알곡생산비중을 높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혁실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투쟁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나가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주위에 굳게 뭉쳐 계속혁신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다.

1966년

이 해에 전체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 결정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7개년계획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리여 이 해의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1966년에 공업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1.4배로, 해방직후인 1946년에 비하여서는 41배로 높아졌다.

특히 1966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당의 로선에 따라 국방력강화에 방대한 자금과 인적 및 물적자원을 돌리면서도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전력, 석탄, 철, 화학비료 생산을 비롯한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점령에 계속 힘을 집중한 결과에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채굴공업부문의 대규모갱건설을 광범히 진행하고 중소 광산,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연료, 원료, 동력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화학비료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을 더많이 세워 화학제품을 많이 생산하였다.

금속공업과 기계공업도 급속히 발전시켜 그 생산능력을 더욱 높인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요되는 철과 기계설비들을 많이 공급하였을뿐만아니라 중소규모부속품공장들을 도처에 꾸려 기계설비들의 부속품수요도 보장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새 공장건설을 촉진하고 이미 있는 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생활필수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도 현저히 높였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성과가 컸다.

1966년에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방조가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전국이 달라붙어 농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이 성과있게 추진되였다.

이 해에 특히 농촌경리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한층 개선하였으며 계획화사업과 로동행정사업을 일층 짜고들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이 해에 강한 태풍이 여러차례 불고 장마가 오래 계속되였지만 알곡, 축산, 과수, 유지작물, 남새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당과 정부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특별한 배려를 돌렸다.

이 해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1967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뿐만아니라 육체로동에 참가하고있는 모성로동자들중 만 13세까지의 자녀를 3명이상 가진 로동자들에 대한 6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이 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공 업

전력공업

1966년에 우리 인민들은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자립적민족경제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따라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1965—1966년에도 전력공업의 발전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앞세웠다.

그간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에 기초하여 기존발전소들을 더잘 정비보강하며 전국도처에 대중소규모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데 힘썼다.

특히 당과 정부에서는 1965—1966년간에 어느해들보다 더많은 국가자금을 대규모의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에 돌렸으며 화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 설치되여있는 화력발전소설비들을 새로운 기술장비들로 더욱 튼튼히 정비보강하면서 그것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대시설들도 충분히 보장하게 하였다.

결과 1965—1966년간에 조성된

발전설비의 총 능력장성중에서 화력발전설비의 능력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발전소건설이래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전에 주로 수력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우리 나라 전력공업은 그 생산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그 어떤 자연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사철 높은 수준에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도 이미 착공한 발전소건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기존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에 적지 않은 힘을 넣었다. 기존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는 최신과학성과들을 도입하여 수차효률을 더욱 높였다.

특히 기존 중소발전소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하여 대당출력을 높이면서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도처에 건설하고있는 중소발전소들을 완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두해동안에 많은 발전기들로 보충된 중소발전소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지방동력기지의 자체보급비중을 더욱 높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가리킨대로 유사시에는 나라의 전력계통을 대신하여 상당한 량의 전력을 전시생산에 충당시킬수 있는 밑천이 이미 마련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송배전부문에서는 새로운 동력기지가 창설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송배전망정비사업을 힘차게 추진하였다.

1965년에 한계통의 220키로볼트의 송전선공사, 1966년에 총연장 수백키로메터의 송전선공사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이것들은 이미 조업을 개시한 발전설비들을 단일한 계통에 련결시키며 송배전망을 더욱 확장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송배전부문에서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농촌전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1966년말까지 전체 리의 98.2%, 전체 농가호수의 86.1%에 전기가 들어갔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전기동력에 의한 양수, 탈곡, 사료가공을 비롯한 각종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65—1966년간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금속 및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전력을 아껴씀으로써 강철, 세멘트, 카바이트 등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었다.

석 탄 공 업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채굴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1965—1966년에도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규모탄광과 중소탄광들을 병진하며 갱내 채굴과 로천채굴을 광범히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석탄공업부문의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데로부터 시작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최근년간 발전하는 연료공업의 새 환경에 맞게 지질탐사 및 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하고 탐사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전망이 큰 후보지들에 대한 탐사와 현존 탄광들의 주변 및 심부에 대한 세부탐사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탄광개발을 촉진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세부탐사자료에 근거하여 굴진, 박토 방향을 정확히 확정하고 굴진과 박토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석탄을 확보하는 굴진, 박토비중과 메터당 확보탄량 그리고 갱개발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였다.

대규모탄광들에서는 사갱과 전차갱, 수직갱건설을 다그쳐 생산능력을 계통적으로 높였을뿐만아니라 유망한 대규모의 갱들을 개발하여 년차별로 석탄생산에 돌렸다.

대규모의 로천탄광들에서는 굴착기, 중형자동차, 압축기, 권양기 등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채굴계단과 로천갱구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결과 석탄공업부문의 생산구조는 1965—1966년간에 생산비가 적게 들고 채굴속도가 비교적 높은 로천채굴로 부단히 보충개선되여갔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기존 중소탄광들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중소규모탄광들을 도처에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전국의 석탄총생산량의 적지않은 몫을 중소탄광에서 감당하게 되였다.

도처에 개발된 이 지방연료기지는 유사시에 대규모탄광들을 대신하여 지방연료의 수요를 자체로 상당히 보장할수 있게 꾸려졌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기술혁신과 과학연구성과를 도입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동, 1인 1건이상의 기술혁신 등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면서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였으며 일련의 기술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여 석탄공업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 세웠다.

굴진, 박토 부문에서는 사갱버력적재기를 비롯한 선진기계기술을 도입하여 기계화작업비중을

높임으로써 수직갱, 전차갱, 사갱의 마구리당 굴진속도와 굴착기대당 박토량을 계통적으로 높였다.

채탄부문에서는 지표가 꺼지지 않으며 안전하고 생산능률이 높은 각종 충전채탄법과 장벽식채탄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이 선진채탄법에 의한 석탄채굴량을 높인 결과 채탄장부하률, 채취률을 부단히 제고하였다.

특히 인민경제에서 무연탄을 리용하는 제철제강법과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고열탄생산량과 석탄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힘을 돌렸다.

선탄부문에서는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이미 제기된 합리적인 선탄방법과 선별기들을 도입하여 고열탄과 더불어 굳은 덩어리탄과 굵은 덩어리탄의 생산량을 제고하였다.

한편 탄광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갱목, 화약, 전력을 비롯한 원자재소비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었을뿐만아니라 염화비닐발파모선을 비롯한 유휴자재들을 수집동원하여 인민경제 다른 부문의 원자재로 공급하였다.

광 업

1965–1966년에 광업부문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증대되는 광물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혁신운동과 과학연구사업을 한계단 추켜세우는데 힘썼다.

이를 위하여 광업부문에서는 우선 탐사력량을 강화하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기존광산들의 심부 및 주변에 대한 세부탐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광산개발후보지들에 대한 전망탐사와 예비탐사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개발구역과 굴진방향을 확정한 광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망이 큰 일련의 대규모광산들을 확장하면서 도처에 중소규모광산들을 개발하여 많은 채굴장들을 형성함으로써 나라의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1965–1966년간에 하나의 대규모선광장을 완공하고 여러개의 대규모선광장, 락광정, 사별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을뿐만아니라 기존선광장을 정비하여 선광능력을 급속히 높인 동시에 갱도영구화, 갱도운반능력의 제고, 대형설비들의 공급으로 기존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에 따라 광업부문의 원광, 정광품위와 각종 금속들의 선광실수률이 계통적으로 올라갔다.

광업부문에서는 그간에 공무직장의 역할을 높이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수많은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도입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작업인 버력적재작업을 비롯한 채굴작업의 기계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였다.

광업부문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의 성과를 도입하여 탐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였을뿐만아니라 채굴방법을 지질조건에 알맞게 개선하였으며 새로운 화학시약제에 의한 선광법을 도입하고 각종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흑색광업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마련된 채굴장, 새롭게 정비전설된 선광장과 락광정, 새로 개선된 작업방법들과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장성하는 제철, 제강소들의 철광석수요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흑색광업부문에서는 또한 화학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류화철광을 비롯한 광물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개선된 기술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린회석, 류화철광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높였다.

유색광업부문에서도 건설과 정비사업을 통하여 꾸려진 대규모선광장과 중소선광장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낮은 품위의 광석과 폐잔물에 포함된 유가광물들을 적극 회수함으로써 수많은 광산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특히 광업부문에서는 비금속광산들을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정비확장하여 증대되는 흑연, 형석, 중정석, 운모, 활석 등 비금속광물의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1965–1966년에 광업부문에서 거둔 이 모든 성과들에 의하여 금속, 화학공업의 원료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금속공업

강철전사들은 《강철고지–1211고지를 철저히 고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철을 더많이, 더좋게 뽑아내려는 일념으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다.

금속부문의 근로자들은 장성하는 인민경제의 선철과 립철, 강철과 강재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며 강종과 강재의 규격을 확대하며 그것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금속공업부문의 방대한 과업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해마다 증가되는 막대한 국가기본건설자금을 돌려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5년에 제철제강부문에서는 용광로개건확장공사를 완공하고 평로, 전기로들을 증설하였을뿐만아니라 각종 압연설비들을 새로 설치하였다.

1966년에는 금속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문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높은 정치적열의를 발휘하며 힘찬 로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금속공업앞에 부과된 선철과 립철, 강철과 강재의 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특히 1965－1966년간 금속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한 결과 강철, 강재의 생산비중이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1966년에 강철전사들은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생산품의 품종구성을 개선한 전년도의 성과에 기초하여 압연기의 공형설계 그리고 로의 기술관리와 강종별 원료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강괴와 강편에 대한 기업소호상간의 교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수십종의 강종과 규격강재를 더 생산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또한 2차가공제품생산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많이 쓰는 와이야로프, 가스관, 아연도철판 등을 다량 생산하였다.

1965－1966년에 금속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선진기술과 수만건의 기술혁신안을 완성도입하여 기술경제적지표들을 해마다 갱신하였다.

특히 금속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리용률을 높이는 것을 생산장성의 기본고리로 인정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술공정과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널리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 결과에 용광로의 내용적립방메터당 1주야선철생산량, 평로로저면적평방메터당 1주야강철생산량, 제강전기로변압기키로와트당 1주야강철생산량, 각종 압연기의 시간당생산량이 계통적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강철톤당 전력소비량, 선철톤당 콕스의 소비량을 비롯하여 단위당 원자재소비기준과 생산원가가 내려갔다.

금속공업부문의 이러한 성과는 1965－1966년도의 기계제작공업과 기본건설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경제의 기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나라의 화학화와 전기화를 실현하는 기본열쇠로 되였다.

기 계 공 업

기계공업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기계공업기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의 생산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대안전기공장, 문평혁동무가 사업하는 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공장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중심적역할을 담당수행할 기계공업의 현시기 발전방향과 그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축성하여놓은 기계공업의 기종간균형을 더 높은 수준에서 맞추며 최신과학성과를 부단히 생산기술공정에 도입하여 그의 가공능력을 높이며 생산의 협동화, 전문화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으로 기계공업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부터 강화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선 금속절삭기계의 기종간의 균형상태를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계렬생산공작기계, 개별생산공작기계, 특수공작기계, 자동공작기계들을 비롯한 새설비들로 보충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놓은 기계가공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기종간균형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 부문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 재봉기, 드릴 등의 생산공정에 자동선, 흐름선과 같은 최신과학성과를 도입하였을뿐만 아니라 축류와 련결요소를 비롯하여 다량적으로 생산하는 제품공정들에 자동반, 반자동반을 널리 도입하여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특히 대규모기계공장과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병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볼트, 나트, 발브를 비롯하여 다량적으로 요구되는 부속품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수십개의 중소기계공장들을 새로 조직하였다.

이것은 대규모기계공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질 좋은 각종 기계설비들의 생산을 적극 보장하게 하였으며 부속품생산에 종사하던 수많은 수리공장과 공무직장들을 다른 예비부속품의 생산에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기계가공능력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상당한 힘을 국방력강화에 돌리고도 대규모 공장, 기업소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들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개건에 들어가는 방대한 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우선 1965－1966년간에 시추기를 비롯한 탐사설비들과 착암기와 버력적재기, 압축기와 굴착기, 전차와 콘베아를 비롯한 탄광, 광산 설비생산을 높임으로써 채굴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우게 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풍년호－75형뜨락또르와 자동차, 련결차를 비롯하여 양수기, 전동기 등 각종 농업용기계기구류를 생산공급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촉진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교통운수부문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며 철도운수의 통과능력을 높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반수송기재뿐만아니라 60톤급 화차와 10톤급 화물자동차, 전기기관차

와 디젤기관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용광로의 개건과 평로의 증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비롯하여 7개년계획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백개의 건설대상설비생산을 성과있게 보장함으로써 그 조업개시기일단축에 기여하였다.

1966년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국가계획외에 1만여대에 달하는 수십종의 현대적랑곡도정설비들과 수십만개의 부속품들을 만들어 전국의 정미공장들을 꾸려주었다.

화학공업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면서 화학비료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데 대한 방향을 가르쳐주셨을뿐만아니라 몸소 새로운 비료공장건설의 터전을 잡아주셨으며 시공행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구체적인 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화학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1965－1966년간에 이미 있는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새로운 공장과 직장들을 하루속히 건설하여 조업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다각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를 도처에 창설하면서 기존화학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짐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일층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선 해마다 그전 시비년도에 비하여 더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이 쏟아져나와 사회주의농촌의 알곡증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비날론, 스프, 인견사 등 화학섬유를 더많이, 더좋게 생산하여 경공업부문에 공급한 결과 질좋은 양복감과 여름철 옷감이 많이 나왔다.

특히 1965－1966년간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각종 화학원료와 보조약재들을 다량적으로 생산하여 경공업부문에 보냄으로써 일용품의 질을 더욱 높이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병진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도처에 중소규모의 화학공장, 분공장들을 일떠세우고 그 관리를 개선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선 중앙화학공장들에서는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들과 더불어 갓생겨난 중소규모화학공장들과 분공장들을 맡아가지고 공장의 기술과제, 기술관리, 제품의 분석 등 기술문제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화학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 꾸린 공장, 분공장들에 기술적인 지도를 정상적으로 주게 하면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규모화학공장들에서는 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였으며 적지않은 화학원료와 대부분의 보조약재들을 인민경제에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1965－1966년 기간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당과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제약공업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생산을 증대시킬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건재공업

1965－1966년도 건재공업앞에 제기된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재생산량과 그 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와 미적감정에 맞게 건재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것이였다.

이해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우선 례년보다 더많은 그리고 국가기본건설투자구성에서 그 비중이 훨씬 장성된 건설자금을 리용하여 건재품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그리하여 세멘트원료를 생산하는 각지 광산들의 갱건설을 앞세우면서 대형계단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대규모의 건설전망과 수요에 맞게 대리석과 화강석, 사문석과 응회석들을 대담하게 개발하였을뿐만아니라 슈라크직장과 휠트직장, 규조토보온재와 단렬벽돌생산시설 등을 건설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성별로 진행되는 건재생산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기술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재공업부문 호상간의 련계와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선진과학기술을 더욱 광범히 도입하였다.

결과 새로운 건재품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이 부문에서는 새 화학건재품들과 유리 및 자기 건재품, 목재가공건재품들로 건재생산의 질적구성을 개선하였으며 건재품종들을 급격히 확대하었다.

특히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건재공장과 중소규모건재공장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도처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각종 건재원료들과 천연원료들을 더많이 개발하면서 중소건재공장들을 더많이 내왔다.

그리하여 우선 세멘트공업부문에서는 원료생산을 앞세우고 소성로에 질좋은 내화벽돌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소성로와 크링카분쇄기의 리용률을 높여 백색세멘트, 급결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세멘트의 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결과 인민경제 각부문의 건설

장들의 세멘트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요업부문에서는 각지 요업공장들의 단렬벽돌, 규조토보온재 생산시설전설과 함께 전설자기공장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벽돌과 건축타일, 위생자기와 내부조명장치, 장식품 생산량을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각지 합성수지공장과 화학공장, 수지건재직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정비보강하고 경질수지합판과 수지판, 비닐용접봉과 부속판, 레자와 레자분을 비롯한 화학수지건재를 많이 만들었다.

이와함께 각종 건재도료와 건재약품생산을 발전시켜 생산에 도입한 결과 건축물의 문화성을 높이였을뿐만아니라 시설물의 수명을 훨씬 연장하였다.

나무건재부문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공장들을 정비하고 그 생산능력을 일층 높인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목섬유판, 목삭판, 목재합판을 많이 만들어 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렇듯 화학건재와 목재건재, 자기건재의 생산량을 높이고 그 품종을 확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건축물의 질과 문화성을 한계단 더 높이였으며 공공건물과 주택들의 비품생산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경 공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경공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당과 정부에서는 1965-1966년에도 경공업의 발전에 많은 힘을 넣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그 질을 높이며 품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료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우선 비날론, 스프, 염화비닐등 화학제품생산능력과 갈밭을 비롯한 자연원료기지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확장하여 경공업부문의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동시에 강화되는 원료기지에 상응하게 이미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정비확장하였을뿐만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통하여 이미 착공한 직포직장과 염색직장들을 조업시켰으며 모방직공장, 장공장, 당과직장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백개의 중소화학일용품공장들을 꾸렸으며 중앙공업공장들에 생활필수품직장들을 더많이 조직하여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

특히 중소공장들이 확대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품종별전문화를 더잘 조직함으로써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더욱 확대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방직 및 피복공업】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직물고지점령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5-1966년에는 각종 직물의 품종을 계절별, 성별, 용도별에 맞게 더욱 세분확대하며 특히 봄, 가을, 겨울용직물과 어린이용직물을 더 많이 더좋게 생산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조직을 전문화 협동화한 각지 방직공장과 제사공장들에서는 부문간, 공정간의 생산기술조직을 개선강화하여 지표별에 따르는 직물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연사직물의 생산비중과 수지가공, 실염색능력을 높이면서 방수가공, 마셀가공 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직물의 생산구성을 개선하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입는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였다.

한편 1965-1966년간에 편직사 생산능력을 급격히 증가하고 그 질을 개선한 결과 직물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면서 인민들의 새로운 편직물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다.

그간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세타, 자케트류의 생산비중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돌리고 방직공장들에 편직사생산계렬을 따로 조직하면서 그 규격별생산을 전문화하였으며 편직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질좋은 직물의 공급, 생활향상에 따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갖가지 옷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겨울옷과 어린이옷, 작업복생산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또한 각급 학교학생, 어린이들의 옷을 색갈별, 규격별, 년령별로 만들어 사회적인 합평을 조직한데 기초하여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일용품 및 제지 공업】 일용품공업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결정에 따라 일용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신발공장들에서는 신발의 문수별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며 어린이용신발생산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질기고 모양있게 만드는 투쟁을 통하여 가죽구두와 함께 비닐신발과 어린이용신발생산수준을 훨씬 높였다.

합성수지일용품의 생산량과 그 품종이 또한 많이 늘어났다. 가방류와 비옷류는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질량적으로 충족시켰다.

법랑철기 및 철제일용품공장들에서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질을 높이는 투쟁을

전개한 결과 1965－1966년간에는 질좋은 재봉기, 소리가 밝은 라지오, 수명이 긴시계 등을 비롯한 각종 철제일용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유리 및 도자기 공장들에서는 모든 공정들에 대한 표준검사, 실험측정사업을 조직하여 경질자기와 강질도자기제품의 생산비중을 계통적으로 끌어올리였다.

목재가구공장들에서는 수지전재, 전구류, 목삭판, 목섬유판의 생산이 장성함에 따라 가구제품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이면서 그 생산을 증가하였다.

특히 각지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전통이 있는 왕골, 초물, 옻, 석재 등의 지방특산물, 명산물, 기념품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일용품과 공예, 세소상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였다.

제지공업부문에서는 문화혁명의 급속한 촉진과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앞두고 장성하는 종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팔프용재와 갈짚 등을 군중적운동으로 동원하였다.

특히 각지 제지공장들에서는 기술장비를 개선하고 종이품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문지와 필기용지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도지, 감광지, 려과지를 비롯한 특수용지의 생산을 현저히 높였다.

지방산업제지공장들에서는 창호지, 장판지, 도배지 등의 생산에 주력하여 지방주민들의 종이수요를 보장하였을뿐만아니라 지방신문들의 신문용지도 충족시켰다.

【식료 및 기호품 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료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녀성들의 가정로동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는 식료가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1965－1966년에 식료 및 기호품공업부문에서는 우선 투자한 국가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존 식료공장들과 정미공장들을 정비보강하였으며 당과직장과 장공장 등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대규모의 수산기지와 과실기지들에 과실가공공장들 그리고 저장실들을 건설하였으며 상업류통부문에도 간이가공, 랭동, 랭장, 저장, 건조, 시설들을 꾸리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장, 기름, 육류는 물론이지만 수산물랭동품, 과실가공품, 남새가공품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부엌일을 더는데 기여하였다.

림 업

1965－1966년에 림업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12차, 13차 전원회의들과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더많은 원목을 생산하며 모든 산을 록화하고 산림을 잘 보호육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원목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림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며 산판로동의 기계화를 완성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두해동안에 이 부문에서는 수백키로메터씩의 림산철도와 림산자동차길을 새로 닦았으며 수로, 물동, 사각두지를 비롯한 많은 구조물공사를 완성하였다.

또한 이 부문에서는 림업기계설비들도 많이 공급받았는바 그중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기계톱, 뜨락또르, 자동차, 공작기계 대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림산사업소 공무동력직장들의 수리력량을 강화하고 작업소와 산판들에 소수리기지들을 꾸려 림업기계설비들에 대한 중소수리를 자체로 보장함으로써 림업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현저히 높였다.

림업부문근로자들은 개선강화된 기술장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증산투쟁을 강화한 결과 자연기후조건이 전례없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림업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잘 수행하였다.

원목생산에서는 순환식채벌방법에 의한 집중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탐사한데 기초하여 순환주기와 채벌순위, 년차별채벌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나무의 성숙정도, 지형 및 운재조건 등 산림상태와 계절적조건에 맞게 생산을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하였다.

원목생산분야에서는 또한 대규모사업소들과 중소규모사업소들을 병진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림업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중소규모의 채벌사업소를 튼튼히 꾸려주고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강화하여 원목생산에 기여하게 하였다.

1965－1966년에 림업부문에서는 목재의 종합적실수률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돌린 결과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이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목재를 극력 절약하며 림산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수상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초두목과 절두목의 리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매년 수천만립방메터씩의 잡목을 제지공업원료로 공급하였다.

동시에 도처에 중소 목재가공공장과 화학원료생산공장, 직장과 분공장들을 꾸리고 제재공장과 목재가공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가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테레핀유를 포함한 화학제품들을 만들었다.

1965－1966년에 림업부문에서

는 림업부문에 대한 일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산림보호육성과 그 지도통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확고한 전망계획에 따라 식수조림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수 산 업

1965－1966년에 수산부문에서는 서호, 남포, 원산지구들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결정들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으며 수산물의 질적구성과 수산물가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산부문에서는 국가로부터 대형랭동선을 비롯하여 심해 및 원양 어업에 필요한 현대적 선박들과 중소어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선박들을 많이 공급받았다. 이에 따라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의 기관선보유척수는 현저하게 장성하였다.

어구생산과 수산부문로동자들의 로동보호물자생산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중 각종 그물과 섬유로프, 고무옷과 고무장화, 잠수복과 어로용방수의는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였다.

조선소와 선박수리공장들에서는 5일, 10일, 15일 수리체계에 따라 전문화, 집중화의 방법을 심화발전시켜 수리속도와 그의 질을 높였으며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공무동력직장의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선박의 중소수리를 자체로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배들을 어장에 내보냈다.

수산부문에서는 직접공의 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을뿐만아니라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어로, 하륙, 운반 등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다.

1965－1966년에 원양어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우리의 어로공들은 먼바다에 진출하여 청어, 이면수, 가재미를 비롯한 고급어족의 생산비중을 높였으며 원양어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서어장들에서는 통일적이며 유일적인 해상지휘체계에 따라 집중과 분산어로전, 추어전을 광범히 배합하면서 300일이상 출어운동을 전개한 결과에 어로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대형어업과 함께 중소어업도 줄기차게 벌리여 정착어족과 더불어 계절별로 밀려드는 물고기들도 적지않게 잡았다.

1965－1966년에 담수양어부문에서는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양어장을 짓고 알받이와 새끼고기키우기를 잘하여 해마다 수억마리씩을 호소, 저수지, 강, 하천에 놓아길렀다.

천해양식부문에서도 해양수역의 특성에 맞게 조개류, 해삼류, 해초류 등의 양식장을 대담하게 늘이고 알심들여 관리함으로써 비교적 빨리 자라는 미역과 김 생산량을 더욱 높이였다.

1965－1966년에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젓갈들과 각종 절임, 졸임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우리 나라 주요 수산기지들과 주요 도시, 로동자구들에 랭동공장들이 광범히 전설되여 은을 내기 시작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사철 물좋은 생선을 공급하였다.

농 업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1965－1966년에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였다.

정부에서는 농업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방대한 자금을 이 부문에 투자하여 농촌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수리화에서 기존 관개시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며 건설중에 있는 관개공사들을 앞당겨 완성하여 관개면적을 더욱 확대하며 토지를 더 잘 보호함으로써 알곡증산에 기여하였다.

우선 매개 물공급단위로 그 능력과 예비들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논을 더 풀수있는 대상들에는 보충적공사들을 진행하였으며 관개면적에 따라 양수설비들을 조절배치하여 기존 관개시설의 리용률을 훨씬 높였다.

또한 압록강과 신계지구관개공사 등 대규모관개공사와 수많은 저수지, 양수장을 비롯한 중소관개공사들을 광범히 진행하여 해마다 관개면적을 수만정보씩 확장하였다.

특히 이른 봄과 가을에 강하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강하천을 정리하여 합장강, 무진천 제방공사를 이미 끝냈으며 청천강, 대령강 호안공사를 비롯한 수백키로메터의 제방과 해안방조제를 구축하여 수많은 농토를 홍수와 조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였다.

1965－1966년에 기계화에서는 품이 많이드는 밭갈이, 써레치기, 토지정리, 운반 등 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넣었다.

1965년에 농기계작업소들을 증설한데 뒤이어 두해동안에 수천대석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을 비롯하여 련결농기계, 탈곡기, 분쇄기 등 농기계, 농기구들을 협동농장들에 공급하였다.

또한 농기계작업소의 수리직장들의 기술장비를 보강하여 대수리까지 담당하며 종전의 전문수리공장에서는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농기계작업소들에 공급하는 공장으로 개편함으로써 농기계수리기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큰 기계에 의한 기계화와 함께

중소기계화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대적조건과 농사방법에 적합한 중소농기계들을 더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매개 도에 도영농기계공장들을 꾸리고 도내에서 창안된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생산보장하였다.

1966년에 뜨락또르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뜨락또르들을 영농작업에 더 효과적으로 썼을 뿐만아니라 전기화와 화학화도 촉진하였다.

1965－1966년에 국가부담으로 수천개소의 고정탈곡장과 건조장, 축사, 창고를 비롯한 생산시설들과 주택,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을 포함한 문화후생시설들을 지어주었다.

또한 많은 청장년로력을 파견하여 농촌로력의 질적구성을 개선하였으며 영농자재를 싼값으로 공급하여 생산원가를 적게 들이게 하였으며 농기계 작업료를 낮추어(1966년)그들의 열의를 높였다.

특히 1966년에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협동농장들에 《분조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의 온갖 창발적열성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케하였다.

농 산

당과 정부에서는 1965－1966년에 농업생산을 보다 과학기술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물, 토양, 농업기상, 작물배치 등 실태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포전을 규격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토지건설사업과 토지정리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또한 각도 채종농장과 일부 국영농장들을 도영채종농장으로 개편하였고 중앙육종장으로부터 매개 협동농장의 생산포전에 이르기까지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등으로 육종 및 채종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각 지방의 기후조건과 토양풍토에 맞는 논벼, 옥수수, 밀, 보리 등 작물들에서 뛰여나게 좋은 품종들을 심었다.

작물배치와 비배관리에서도 전환이 일어났다. 종래의 단일품종에 의한 작물배치현상이 시정되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주품종과 보조품종을 옳게 배치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각 지방의 경작방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2모작농사지대를 선정하고 그루바꿈체계를 세웠으며 논벼재배에서도 랭상모, 절충모, 수모 등 여러가지 벼모를 배합하여 제때에 내고 김도 례년보다 한번 더 매는식으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여유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온천군, 길주군, 대동군, 룡천군, 증산군, 룡강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논밭정당평균 500키로그람이상의 알곡을 증수하였다.

고산지대 농업발전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고산지대를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 2～3년간에 지대적특성에 맞는 경작방법들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밀보리를 비롯한 알곡작물농사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1966년에 량강도에서는 총파종면적중에서 알곡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산지대농업을 개선하기 시작한 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 그중 밀보리면적은 14.3배로 늘었으며 알곡수확고도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남새 및 공예작물도 적지에 재배하는 원칙에 따라 그 재배지역을 일층 전문화함으로써 그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축 산

1965－1966년에 축산부문에서는 이미 꾸려놓은 축산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축산물생산량을 높이는 동시에 나라의 축산업을 멀지않은 장래에 높이 올려세우기 위하여 축산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우선 사료문제해결에서 성과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사료기지상태를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단백질사료해결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면서 각종 사료작물을 심어 사료기지를 확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야산들과 공한지들에 칡, 아카시아, 싸리 등 각종 자연사료기지도 전망성있게 꾸렸으며 배합사료의 리용대책도 강구하였다.

1965－1966년에 또한 축산업의 전문화에서도 전진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가축품종을 조사한 결론에 따라 품종지역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여기에 맞게 종축생산공급체계를 더욱 완비하였다. 즉 일부 국영목장들을 종축장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축산업을 당의 방침대로 지대별, 가축별로 전문화한 국영목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조성한 사료기지를 잘 리용하여 경리의 방향에 맞게 생산을 집약화함으로써 닭알과 육류, 젖과 꿀, 양털과 토끼털 등의 생산을 증가하였으며 축산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당과 정부에서는 인민들에게 더많은 육류와 닭알을 공급하기 위하여 1965년에 내각국영가금총국을 설치하고 가금목장들에 대한 행정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가진 대규모닭알목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일부 목장들을 조업시켰으며 앞으로 대규모건설을 계속할 기술준비도 착실히 갖추었다.

이미 있던 목장들에서는 전문화와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각 닭목장들에서는 훌륭한 닭종자를 더 많이 받아내는데 힘쓴 결과 종자 닭들을 뛰여나게 좋은 종자로 바꾸었다.

또한 배합사료기지도 여러곳에 꾸리고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면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질적지표들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1966년만 보더라도 알낳이, 알깨우기, 병아리키우기, 닭알과 닭고기 생산계획을 모조리 초과완수하였다.

과 수

1965－1966년에 과수부문에서는 이미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성한 13만 3천여정보의 과수원을 알뜰히 관리하고 과일나무의 모양을 바로잡으며 올과일을 많이 심어 과일생산의 구성을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국가에서는 우선 과수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이 부문에 많이 투자하였는데 특히 기계화에 필요한 각종 기계설비들을 많이 공급하였다. 국영과수농장들에서는 40정보당 1대씩의 뜨락또르가 차례지고있다.

과수부문에서는 《북청과수법》의 선진경험을 광범히 도입하였으며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게 가지모양을 바로잡아 과일들이 크게, 많이 달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말현재 열매가 맺힌 과실면적은 수만정보가 더 늘어났으며 생산한 과일량은 한배반에 이르렀다.

특히 과수부문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약제와 로력을 적게 들일뿐만아니라 자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올과일을 많이 생산하는데 힘썼다.

이 부문일군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과일품종의 구성이 현저히 개선되였는바 총과수면적중에서 올과일이 차지하는 면적은 5분의 1이 남짓하였으며 복숭아, 추리, 살구생산량은 급격히 장성하였다.

한편 기관, 기업소, 학교들에서도 자체로 과수원을 꾸리고 잘 가꾸었으며 협동농장들에서는 정원의 과수로 집집마다 5～6그루씩 심고 정성껏 키웠다.

이와함께 국가에서는 풍작을 이룬 과일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맛있게 가공하기 위하여 과수농장에 과일가공공장을 세우고 사과, 복숭아, 배 등으로 갖가지 통졸임과 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잠 업

1965－1966년에 잠업부문에서는 고치를 더 많이 생산하며 잠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힘썼다.

잠업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조성해놓은 뽕밭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해마다 수천정보씩의 뽕밭을 새로 조성하였다.

잠업부문일군들은 뽕누에합사육과 가지사육, 가둑누에물도랑사육과 가설막사육 등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해마다 단위당 뽕누에고치생산량과 가둑누에고치생산량을 높였다.

교 통 운 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가 급격히 발전하여 화물수송이 현저히 증가될것을 예견하시면서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수상운수, 자동차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이 증대되는 수송요구를 보장할수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교통운수의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인민경제 각 부문간의 생산적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세웠다.

그리하여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당과 정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철도운수】 1965－1966년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현존 운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운수조직을 개선하며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통과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1965년에 라진－청진간 철도와 평양－신성천간 전기철도를 개통한데 뒤이어 1966년에 지하리－성북간 철도, 고무산－차유령간 복선철도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였으며 중요공장들의 철도인입선들도 새로 많이 놓았다.

또한 조차장, 기술역, 중간역들의 구내선을 확장하고 운영시설들을 현대적으로 완비하여 렬차의 편성능력과 편성속도를 높였을뿐만아니라 철도공장, 기관구, 검차구들의 설비를 보강하고 수리체계를 더 잘 세워 륜전기재의 생산, 수리 능력과 생산, 수리량을 훨씬 높였다.

특히 1965－1966년간에 역과 공장구내의 상하차시설을 정비확장하고 철도화물상하차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인 결과에 중요 역들과 공장구내에서 화차가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륜전설비들의 리용률이 계속 올라갔다.

철도려객수송에서도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 역대기실과 려객렬차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였고 로인, 영예군인칸들도 새로 내오고 각종 봉사시설들을 더욱 완비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자동차운수】 이 부문에서는 기술적토대를 공고히 하며 운수 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을 1965－1966년의 중심과업으로 삼았다.

1965－1966년에 자동차운수부

문에서는 화물자동차와 련결차, 려객뻐스와 무궤도전차를 새로 많이 공급받아 수송능력을 높였다.

또한 자동차도로들을 확장하고 도로시설물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주요구간들을 포장하여 그 통과능력을 일층 높이였다.

그리고 자동차수리능력과 상하차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여 운전휴지시간을 단축하면서 자동차실동률을 높였다.

이 부문 일군들은 자동차운수발전에 유리하게 조성된 물질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선 계절별, 지역별로 화물류동상태들을 과학적으로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일련의 지역들에 화물자동차사업소들을 새로 내왔다.

또한 사령지휘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주요화물들에 대한 전문 및 집중수송을 조직하여 계절별, 지역별 수송수요를 보장하였다.

특히 주요도로교차점들과 주요화물운행현장들에 이동수리소들을 새로 더 설치하고 기동적으로 정비보수함으로써 자동차의 실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1965－1966년에 련결차수송비률을 높이고 빈차운행을 없애며 표준조작법을 잘 지킴으로써 수송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었다. 결과 휘발유, 다이야를 비롯한 전략적물자예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려객운수부문에서는 일련의 려객뻐스운행구간을 고치고 새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편리하게 자동차운행시간을 고쳐 려객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수상운수】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철도운수의 부담을 덜며 장성하는 인민경제의 화물수송을 보다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수상운수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렸다.

이 부문 일군들은 부두능력을 확장하고 화물수송량이 많은 항내부두들에 자동적재기를 비롯한 새 설비들을 더 갖추면서 짐을 싣고 부리는 일과 구내에서 짐을 나르는 작업을 더 많이 기계화하여 수상운수량과 수상운수능력을 높였다.

또한 선박수리기지들을 확장하고 예비기관과 예비부속품의 생산을 적극 앞세워 집중수리를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예선완충기를 비롯한 선진기계기술을 도입하여 선박의 기술장비계수를 현저히 강화하였다.

선박들의 능력이 장성함에 따라 항로들도 적지않게 새로 개척하여 철도와의 련대수송이 더 잘 맞물리게 하였다. 철도와 수상운수간의 협동작전이 잘 됨으로써 련대화물수송량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항공운수】 조선민용항공은 1965－1966년에도 국제 및 국내항공수송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간 민용항공은 국내에서 려객 및 화물수송임무뿐만아니라 기상관측과 어군탐색, 지질탐사와 산림보호 등 인민경제 각부문의 긴요한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조선－쏘련간, 조선－중국간의 쌍무협정에 의하여 평양－모스크바간, 평양－베이징간의 국제정기항공이 운행되였다.

체 신

1965－1966년에 체신부문에서는 이미 가지고있는 각종 통신수단들을 정비보강하고 통신망을 리용자들에게 더욱 접근시켜 신속정확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증대되는 통신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통신시설의 기술장비를 개선강화하는데서 1965－1966년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유선통신부문에서는 통신선로를 하나의 계렬로 통합하면서 중앙－도간 회선, 도－군간 회선을 각각 증가하였으며 무선통신부문에서는 중앙과 도, 군을 련결하는 무선전신체계를 세우고 방송출력을 현저히 높였다.

또한 현존 통신선로와 구내통신시설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1급 선로는 전반적으로, 리간 전화선로는 대부분을 모범선로로 정비보강하였다.

방송부문에서는 출력과 그 질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가지고있는 방송설비들을 정비, 개건, 보수하여 방송출력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유선방송부문에서는 전체 리의 62.9%에 단독유선방송기를 설치하고 전체 리의 99.4%에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였다.

우편통신부문에서는 우편물과 출판물을 빨리 전해주며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인 량강도 혜산우편국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우편통신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외적지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와 중립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는 6월 21일－7월 15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사회주의국가체신협조기구 제6차상회의에 참가하여 국제통신교류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나라는 1965년 6월 15일 국제우표수집련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8월 31일 랑군에서 우리 나라와 버마간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과 소포업무에 관한 협정 그리고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이, 10월 21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와 말리공화국간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이 각각 체결되였다.

1966년 1월 6일 프놈뻰에서

우리 나라와 캄보쟈왕국간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이, 7월 18일 알제에서 우리 나라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간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이 각각 체결되여 정상적인 통신련락에 들어갔다.

기 본 건 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결정들과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건설대상에 기본을 두면서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전력, 석탄, 강철, 화학비료를 비롯한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다.

당의 기본건설방침에 따라 공업부문의 기본건설투자를 중요생산적건설대상들에 집중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많은 대상들이 완공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대로 투자를 집중하여 화력발전소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중소용량의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쳐 일부를 조업시켰다.

채굴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탄광, 광산들의 갱건설을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수많은 광산들과 탄광들의 대규모 선광장, 선탄장, 사별장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였으며 수많은 중소규모 탄광, 광산들을 새로 개발하여 나라의 연료,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용광로개건확장공사와 새로운 금속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 각 부문에 소요되는 채굴설비, 금속설비, 화학설비, 농업설비들을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기계공장들과 직장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당과 정부에서는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위하여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의 생산을 높이는것을 경제발전의 중요과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많은 자금을 배당하여 화학공장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1965－1966년간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의 화학공장건설을 마감단계까지 추진하였으며 수많은 중소규모의 화학공장들을 건설하여 생산에 돌렸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으로 경공업과 수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직포직장과 염색직장을 꾸리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당과직장, 장공장, 담배공장건설과 지방산업공장건설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수산기지와 주요도시들에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수산물가공작업장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물좋은 물고기를 많이 공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자립적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모든 공업제품들의 생산능력을 훨씬 장성시켰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밑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 건설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존관개시설들을 정비하면서 이미 시작한 압록강, 신계지구를 비롯한 대규모관개공사와 수백개소의 중소 관개공사들을 추진하였으며 무진천, 합장강을 포함한 제방공사와 청천강, 대령강호안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강하천정리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토지를 더 잘 보호하였다.

각지 협동농장들에 또한 수많은 생산시설들을 건설하였는데 1965－1966년간에 집중적으로 지은 생산시설들은 축사와 창고, 건조장과 고정탈곡장들이 대표적이였다.

특히 당과 정부에서는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국방건설에 상당한 힘을 집중하면서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 학교건설과 문화후생시설건설을 빠른속도로 추진하였다.

농촌만 보더라도 수많은 학교와 교실, 선전실과 구락부, 유치원과 탁아소, 목욕탕과 리발소등의 문화후생시설들을 지었다.

주택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을 상당히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부터 1966년사이에 도시와 농촌에 1,021만평방메터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965－1966년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 및 군소재지들을 더 웅장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평양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1호교사(1965년)와 2동의 기숙사, 영화촬영소를 각각 준공하였다.

또한 릉라도유원지제방공사, 대동강유보도확장공사, 대동강바닥파내기공사들을 다그치면서 공원과 유원지들에 수십만그루의 나무들을 심었다.

특히 주택건설과 상하수도부설공사, 중앙난방과 주택구획정리공사들을 광범히 진행하여 평양시를 더 아름답고 문화적이고 살기좋은 혁명의 수도답게 꾸리였다.

1965－1966년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의 건설공업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의 공업화 비중과 조립식비중을 더욱 높이였다.

또한 건설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많은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였고 그중 대부분을 시공행정에 도입하여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였다.

특히 건설부문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고 대안체계와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건설의 질을 높이고 건설기일을 앞당기였다.

상 업

상업부문에서는 새환경에 맞게 상업망들을 확장하여 주민지대에 더욱 접근시키며 모든상품원천을 더 조성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상응하게 더 많이 더 잘 공급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선 인민들의 식생활과 문화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상품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게 인민경제각 부문에 반작용하였을뿐만아니라 생산된 상품들에 대한 공급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장성하는 상품수요에 따르는 상품원천을 더 공고히 조성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또한 곧바로 보내는 직송공급비중을 높인 결과에 상품들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공급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그밖에 식당, 리발소와 목욕탕, 세탁소와 염색소, 수리소와 수선소 등 편의봉사망을 정비확장하여 주민들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이였다.

1965－1966년간에 취한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상업망이 더욱 확장되고 그 공급량이 증가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도시와 로동자지구는 물론 협동농장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상업망을 신설확장하고 많은 상품들을 농촌주민들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였다. 농촌에 공급한 상품중에서도 피복류, 양말류, 신발류, 화장품류, 사무 및 학용품류는 례년에 비하여 훨씬 장성하였다.

특히 매개 시, 군마다에 건재상점들을 새로 내오면서 도시주변과 농촌에 분점과 위탁판매망을 광범히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생산한 건재들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정연한 건재상품공급체계를 세웠다.

그리하여 1966년에는 건재상품 및 소농기구의 판매총액이 1965년에 비하여 많이 장성하였는데 그중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일반용재, 세멘트, 소석회, 소공구, 종이류들이다.

식료품공급사업도 개선강화하였다.

상업기관과 식료품공장들에서는 매개 상품들의 생산 및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산지에 접근하여 제때에 받아 가공저장함으로써 상품공급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일층 높이였다.

특히 모든 식료공장, 식료상점, 며관, 식당들에서는 가공저장시설들을 남새기지에 신설확장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가공한 결과 년간공급을 정상화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남새생산을 계속 증대시켰으며 1967년 2.4분기에는 례년의 1.8배이상에 달하는 남새를 공급하였다.

또한 수산물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성이 이 사업을 직접 맡은후 도시와 로동자지구들에 수산물직매점과 랭동랭장시설들을 설치운영한 결과 물좋은 생선을 많이 공급하였다.

1965—1966년에 로동자지구 후방공급사업도 개선하였다.

1965년에 황해제철소 현지지도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기지들을 확고히 꾸리였다.

특히 모든 로동자구에 부양가족들로 부업생산반을 조직하고 육류,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공급하였으며 로동자지구의 주변협동농장들을 로동자지구 후방공급기지로 선정하고 근로자들의 부식물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수 매 량 정

수매량정부문에서는 1965－1966년도에 수매품에 의한 공업원료와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량곡보관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낟알의 허실을 방지하며 량곡가공에서 출미률과 그 질을 높이며 근로자들에게 식량을 잘 공급하는데 힘썼다.

이를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수매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부문에 막대한 로력, 설비, 자금들을 돌려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에 황주군 량정사업소, 황해제철소, 온천군량정사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국가수중에 장악된 량곡을 소중히 보관하며 전국의 정미공장들을 보수정비하여 량곡의 도정출미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량곡포장자재를 개선하고 량곡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서 랑비와 허실을 방지하여 국가에 더 많은 여유량곡을 조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매량정부문에서는 이 강령적 교시를 받들고 황주군 량정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고 매개 시, 군의 정미공장들을 그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량곡창고와 량곡가공공장의 주변을 세멘트로 포장하였으며 제품창고를 비롯한 부속건물들을 정비하는 한편 철도인입선공사를 추진하여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체계를 변화발전하는 주민지구

의 재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식량공급소들의 기계화, 자동화비중을 높였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수매가격의 8%에 지나지않는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계속 공급하였다.

수매부문에서는 장성하는 공업원료와 주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량곡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 공예유지작물, 육류 등 농축산물수매와 함께 고자재, 야생과실, 섬유원료의 정상적인 수매공급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해에도 수매부문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받들고 다양한 형식으로 온갖 수매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였다.

특히 각지 수매일군들은 낡은 수매방법을 버리고 선진적인 상업적수매방법을 관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위탁수매, 이동수매, 교환수매 등 다양한 수매형태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광범한 대중들을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하였다.

재 정

1965년과 1966년의 예산들은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국방건설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과업실현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1965—1966년에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잘 집행한 결과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 많은 자금을 넣으면서도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를 가져왔다.

1965년과 1966년의 국가예산수입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들은 례년들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 국가예산수입의 98% 이상이 사회주의경리로부터 들어왔다.

국가의 방대한 자금지출, 인민들의 혁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채굴, 동력공업을 앞세우며 1차가공부문을 비롯한 중요고지들에 계속 큰 힘을 돌릴데 대한 당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 부문의 생산적건설에 기본건설자금을 집중적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전력, 석탄, 광석, 강철, 강재, 화학비료, 농약, 화학섬유 등의 생산능력들이 계통적으로 늘어났으며 인민경제의 확대재생산을 활기있게 보장하였다.

1965년과 1966년의 예산들에서는 경공업과 교통운수, 농촌경리의 발전에도 방대한 자금을 분배하여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결과 수많은 관개공사와 생산적건설을 완공하였으며 대중소강하천을 정리하였을뿐만아니라 문화주택들을 세웠으며 적지 않은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당과 정부의 거듭되는 지원과 방조에 의하여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히 다지였으며 농업생산을 높이였다.

1965—1966년에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의 장성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과 사회적복리증진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1965년에 972개 협동농장들의 현물세를 면제한데 뒤이어 1966년에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수입을 전부 경제, 문화건설과 생활향상에 돌리게 되였으며 조선농민들은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제도에서 살게 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의 준비, 어린이들의 보호, 모성들의 편의 등 사회문화적수요에 따라 교육, 문화, 보건사업에도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켰다.

금 융

우리 나라의 은행체계는 인민경제에서 노는 역할과 경제적 내용에 따라 중앙은행, 산업은행, 무역은행으로 구성되여있다.

1965년에 은행들에서는 개편된 새 은행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새 은행체계와 인민경제발전에 알맞게 사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당의 금융정책을 더 잘 관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1966년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재정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확립하고 재산 및 재정 관리사업을 잘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앙은행】 발권은행으로서 나라의 현금류통을 조절하여 전국의 무현금결제를 조직하며 국가예산자금을 수납지출하며 류동자금과 기본건설자금 및 대보수자금을 공급하며 나라의 고정재산을 화폐적으로 등록하고 그의 리용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민경제 전반적부문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하고있다.

1965—1966년에 중앙은행은 모든 자금공급과 결제사업, 고정재산리용에 대한 감독통제사업들을 기업소 경제관리운영과 밀접히 결합시켜 모든 부문에서 자금을 아껴쓰고 더 빨리 돌려쓰며 재산을 잘 관리리용하는 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조직전개

하여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도록 재정적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였다.

1966년에 중앙은행은 일부지역들의 인민경제적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건설이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새로 5개의 지점을 내왔다.

자금공급; 류동자금공급사업의 개선과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있는 밑천을 더 잘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결과 1965년에도 그러했거니와 1966년에는 1965년보다 더 적은 류동자금으로 장성한 생산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인민경제의 확대발전, 기관 기업소들간의 경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대금결제거래건수는 매년 늘어났다. 1966년의 저금결제거래건수는 1965년에 비하여 109%로 늘어났다.

은행은 기본건설 및 대보수공사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도입하며 건설물의 기술과학적요구와 자금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하도록 기술경제적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설계에서 허식을 없애고 건설에서 랑비를 없애며 철재, 목재, 세멘트 등 물자소비기준을 낮추며 내부예비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고정재산등록 및 감독사업; 고정재산등록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고정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선전해설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비리용을 개선하여 놀고있는 설비, 비품들을 유효하게 동원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나라의 모든 고정재산을 공장, 기업소들에서 폐기하거나 기업소간에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였다.

화폐류통; 로동자, 협동농민, 사무원들의 화폐수입이 증가되는 새 환경에 맞게 현금류통에 대한 계획적조절사업을 옳게 진행함으로써 화폐의 회전속도와 환류속도를 높이였다. 결과 1964년 4.4분기에 수매자금으로 지출되였던 거액의 화폐가 1965년 상반년내에 완전히 은행에 회수되였으며 1965년 4.4분기에 협동농장의 결산분배 및 농산물수매와 관련한 거액의 자금수요도 정확히 보장되였다.

1966년에는 지역단위로 류통에 나간 현금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회수하였으며 류통에 나간 현금량을 늘구지 않고 늘어나는 현금거래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또한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출납에 대한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비생산적지출을 적극 줄이게 하였다.

【무역은행】 중앙은행의 지도밑에 무역 및 비무역 거래에 대한 국제결제를 진행하며 외화교환과 려행행표의 발행 및 대외송금 사업을 담당수행하면서 무역계획의 수행과 외화획득 및 외화지출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외무역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대외결제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 적지 않은 자본주의국가은행들과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외결제액은 매년 늘어나고있다.

무역은행은 수출입상사들에 대한 재정적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외화수입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산업은행】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단기대부와 국내 및 국제 보험, 저금사업과 개인송금업무를 담당수행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재정적지도통제사업을 실시하고있다.

대부사업; 산업은행은 기업소경영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부족되는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대부하여주는 동시에 재정적인 통제와 함께 직접 나가서 도와줌으로써 걸린고리를 풀어주고 기업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자체자금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협동적기업소와 수매상점들에 계절에 따르는 부족자금을 해결하여줌으로써 협동적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보장케하는 동시에 점차 대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통제하였다.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지도와 통제; 협동농장의 재정계획화사업을 강화하여 부기계산체계를 세우고 현금 및 무현금 결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동시에 현지에 나가 재정경영활동을 지도검열하며 걸린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강령적인 과업을 실현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산업은행의 매개 단위들에서는 한개 협동농장에서 재정경영활동에 대한 본보기를 꾸리고 이를 관내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여 화폐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절약하는 동시에 농장의 재산을 애호관리하며 경상계산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인민저금; 우리 나라에서의 저금사업은 산업은행의 각 시, 군 지점과 주민들의 밀집지대에 설치되고있는 저금소와 대리소 그리고 체신분소들에서 하고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두와 농촌에는 저금대리소가 포치되여있다.

산업은행이 수행한 지난 3년간(1964－1966)의 저금수입실적은 산업은행이 나오기전 3년간의 저금수입실적의 143.4%로 장성하였으며 저금평균잔고는 205.7%로 장성하였다.

국가보험: 국가보험업무는 산업은행 시, 군 지점과 그리고 매개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에 배치되여있는 국가보험대리인들을 통하여 수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국가보험에는 재산보험, 인체보험 등이 있다. 이 보험을 통하여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소유와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며 인민들이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 대외보험에는 해상, 철도, 항공 등 운수보험과 선박보험 및 재보험이 있다.

1966년말 현재 보험계약대상자수의 80%이상이 보험에 망라되였다. 인체보험료수입실적은 지난 3년간 (1964-1966)에 135%로 장성하였다.

대외보험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국과 조선보험회사는 국외주요항구들에 자기의 손해사정 및 청산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보험기관대표회의와 아세아 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호련맹 (1964.9 가입)에 참가하고 있다.

국 토 관 리

우리 나라의 국토와 자원, 그리고 부동산을 보호통제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게하는 국토관리부문에서도 1965-1966년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관리체계, 국토계획】 국토관리부문에서는 국토건설에 국토관리를 따라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에 알맞게 국토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관리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다.

각 성, 중앙기관에서 맡아하던 국토관리사업을 한개 성이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1962년 10월에 도로, 강하천, 토지, 산림, 연안, 령해, 자원보호 등의 사업을 맡아보는 내무성을 새로 창설하고 그 기능과 사업수준을 훨씬 높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1964년 2월 10일에 국토관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내무성의 종전의 사업과 더불어 건물, 시설물, 상하수도, 난방시설, 원림, 문화유물 등 도시경영사업까지 유일적으로 관리하는 국토관리성을 조직하고 국토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1964년 4월에 국토관리성을 새로 내오고 국토관리체계를 중앙으로부터 말단기관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세웠다.

1965-1966년에는 이 부문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부문전반에 걸쳐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계획화, 로동행정, 기업관리수준 등을 한계단 더 높였다.

유일적인 국토관리체계의 확립과 그의 심화발전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국토와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건설, 정리, 미화할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국토부문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건설에 앞세우기 위하여 학자, 기술자, 전문가, 대학생들로 국토조사대를 조직하고 매개 행정단위로 국토실태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이미 토지, 산림, 도로, 강하천, 공업, 농업, 주민지 등 15개부문의 전망적배치방향을 규정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국토계획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대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할수 있게 전망과업과 당면과업을 옳게 결합한 국토총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65-1966년기간에 적지 않은 지역국토총계획, 군(구역) 국토총계획, 도(시) 국토총계획들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제적리익과 국방상리익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나라의 모든 지방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있다.

국토부문에서는 국토총계획들에 따라 1965-1966년간의 국토건설과 국토관리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토지, 강하천, 도로관리】 1964년 3월 28일에 공화국의 토지법이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토지법은 조선로동당의 토지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기여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토지보호와 그 관리사업에 계속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농업토지를 잘 보호하고 토지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시, 군 농업기관들에 토지건설대를 조직하고 토지관리사업을 전국가적으로 진행하였다.

1965-1966년간에 토지관리의 중심은 기계화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정리하는 사업과 다락식논밭을 조성하는 사업이였다.

특히 국가에서는 평야지대의 토지정리사업과 더불어 토지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다락논밭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고산지대, 내륙지대들의 농업발전에서 전진을 가져왔다.

강하천정리사업에서도 1965-1966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과 정부에서는 강하천들을 수력자원과 공업, 농업용수원천으로서 리용할뿐만아니라 홍수의 피해로부터 국토와 농경지를 보호하며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국가기업소들에서는 큰 강하천과 중요 강하천을, 협동농장들에서는 중소하천을 담당하게 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강하천건설과 정리사업은 홍수기에 위험성이 있는 대상으로서 농경지와 도시 그리고 철도연선과 도로를 보호할수 있는 대상부

며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였다.

국토부문에서는 강하천제방만 쌓는것이 아니라 돌입히기, 나무심기, 잔디입히기를 배합하고 배수문을 비롯한 구조물들을 튼튼히 만들어 만년대계로 쓸수 있게 정비하였다.

특히 강하천정리사업을 식수조림사업, 사방야계공사와 밀접히 결합하여 수원을 풍부히 조성하면서도 사태를 막으며 홍수를 조절할수 있게 전망적으로 진행하였다.

국토부문에서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건설과 교량개건확장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에 조밀하게 뻗은 도로의 기술상태들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건물, 상하수도, 원림】 공화국정부에서는 1965—1966년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건물과 주택, 상하수도와 원림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거나 조성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국가자금으로 지어준 생산시설들과 문화주택, 문화후생시설들이 많다.

1965—1966년에 도시의 건물시설물대보수사업소와 건물시설물관리소, 군의 국토관리사업소들에서는 건설에 관리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년차별, 분기별 보수계획대로 보수하여 근로자들이 아무 근심걱정없이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생활비의 약 1%에 지나지않는 주택료를 내고 집을 사용하게 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옷장, 찬장, 곤로를 비롯한 가구비품들까지 갖추어지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1966년 7월 6일에 인민적관리체계를 세워 건물과 마을을 알뜰히 꾸린 천리마북새동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건물, 상하수도, 거리, 공원 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관리하였다.

각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받들고 단몇달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수많은 주택의 지붕과 벽체, 온돌을 수리하였을뿐만아니라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였다.

상하수도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상하수도를 문화위생적으로 잘 꾸리였다.

이와 함께 수질이 나쁜 지대들에서는 간이정화시설들을 도입하였으며 수원지들과 펌프장들에서 펌프를 디젤 기타 동력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원림부문에서는 주택구획과 공원, 유원지와 시, 군 소재지, 로동자구와 산업지대들에 원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풍치를 돋구었으며 거리와 마을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으로써 철따라 꽃피게 풍치조성과 그 내부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시들에는 필요한 나무와 꽃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꽃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이를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해마다 많은 자금을 모란봉과 송도원을 비롯한 공원, 유원지건설에 돌려 그 어떤 시, 군, 마을에 가도 알맞는 공원, 유원지들을 수많이 건설케 하였다.

원림조성사업과 함께 동물원, 식물원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천여종에 6만 2천여그루의 식물이 있는 평양식물원과 950여종에 9만 7천여마리의 짐승을 기르는 평양동물원을 비롯하여 각도, 시, 군들에도 동물원과 식물원들을 아담하게 꾸려 주민들의 문화휴식과 과학지식보급에 이바지하였다.

【혁명전적지, 명승지, 문화유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혁명전적지, 명승지, 문화유물들을 전면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더 잘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1965—1966년에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우선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투사들의 슬기로운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1965—1966년에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이 공산주의의 붉은기치, 민족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15성상 피흘려 싸워온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을 집대성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에 진군하는 길에서 일제강도를 족치고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서광을 안겨준 보천보전투승리를 상징한 대기념비—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1939년 5월에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가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던 길에 숙영하던 전창숙영지를 비롯하여 혁명사적지들을 훌륭히 정비하였다.

이밖에도 1940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소조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던 웅기, 라진 등의 항일혁명사적들과 무산지구의 항일혁명렬사묘들을 잘 정비보수하였다.

특히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께서 반일투쟁을 조직하시면서 후대들을 교양하시던 강동군 명신학교, 바위터, 나팔터 등 그이의 고결한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적들과 기념물들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김형직선생의 사적비를 세웠다.

유서깊은 명승지들에 대한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는 명승지들이 가는곳마다에 있어 중요한것만 하여도 100여개소

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국가적으로 지정하고 특별히 보존관리하고있는것은 15개소에 달한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알뜰히 가꾸어진 아름다운 이 명승지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우리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복무하게 되였다.

1965—1966년에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명산들인 금강산, 묘향산들과 유명한 명승지들을 대대적으로 개발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박연폭포, 약산동대 등 수많은 주요 명승지의 탐승로들을 새로 개척하고 문화시설들을 정비확장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조건에서도 민족문화유물을 적극 조사발굴하며 복구보존하기 위하여 1965—1966년에도 이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파괴되였던 금강산의 표훈사, 약산동대의 천주사, 평양의 오순정, 사리원의 경암루, 해주석빙고 등을 복구하였으며 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건축원상이 심히 외곡되였던 평양성의 동문인 대동문, 혜산의 쾌궁정, 상수성의 동문루 등을 바로 잡아 복구하였다.

문화유물의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문화유적의 전반적인 재조사 및 고증과 자료정리편찬사업을 계속하였으며 구주대첩지, 임진의병들의 입명대첩지 등 애국투쟁유적들을 또한 수많이 조사발굴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로 동 행 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로동은 인간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인류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교시하시였으며 **《행복한 사회주의사회는 오직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력에 의하여서만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로동을 관리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경제발전의 매시기마다 정확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힘껏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결정들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로임조직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일층 개선강화하였다.

【로력조직】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오늘 누구든지 로력을 잘 조직하고 이를 절약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될것이다.》**라고 강조하시였다. 나라의 로력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일할수 있는 모든 로력자들을 생산과 건설에 최대한으로 인입하였다.

우선 나라의 경로동부문에 녀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하고 분공장과 가내작업반들을 조직하여 부양가족들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촌출신유가족, 제대군인들을 농촌에 대대적으로 진출시켰다.

결과 농촌로력의 질적구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사회주의농촌의 핵심진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1965—1966년에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 공업과 농업간, 지역호상간에 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을 통하여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대폭 축소하고 생산부문로력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였다.

특히 상업, 수매, 국토관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비생산부문들에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로력배치기준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이 부문의 로력을 줄이고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로력을 결정적으로 늘이였다.

생산부문에서는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면서 기본생산부문로력 그중에서도 직접공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인민경제적으로 채굴로력, 해상로력, 채벌로력을 증가하였다.

1966년 9월에 당과 정부에서는 녀성로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배려를 돌렸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육체로동에 참가하고있는 모성로동자들중 만 13세까지의 자녀를 3명이상 가진 모성로동자들에게 6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근 10만명의 모성로동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480분 로동시간의 완전한 리용, 계절성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의 로동시간의 개정, 가공부문들에서의 합리적인 교대작업의 조직 등으로 로력조직을 더욱 합리화하였다.

【로동보수조직】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1965년에는 임금기능등급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로동자들의 기능등급을 전반적으로 재사정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정도를 료해판정하고 그

것을 정확히 재사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경제부문간, 기업소간, 직종간 기능등급에서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산업부문별 임금표를 정확히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에는 인민경제 전반적부문들에서 작업의 량과 더불어 반드시 질과 절약과제들을 평가하는 로임지불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수 있었다.

탄광, 광산, 림업, 상업, 편의, 수매, 갈생산부문과 국영농업부문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는 종전의 로임지불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하거나 개정하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결합하는 새로운 로동보수조직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1965－1966년에 로동정량사업은 기업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65년에 국가에서는 로동성직속 국가로동정량제정위원회와 그 상설기관으로서 국가로동정량제정소를 새로 내오고 그 지도하에 활동하는 인민경제 각 부문별 로동정량제정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에 각 성, 관리국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의 로동정량사업실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국가표준정량에 엄격히 기초하여 자체의 로동정량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정량표의 작성범위를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농장관리운영수준을 높이였으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동조직과 로동정량사업이 더욱 개선발전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노급제참가률이 또한 급격히 높아졌다.

【기술기능향상】 로력후비양성사업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환경의 요구에 맞게 기술기능학습체계를 개선하였다.

사회단체가 수행하던 기술기능학습체계를 로동행정기관에서 직접 틀어쥐고 추진하면서 고급기능공들에 대한 재교양사업에 힘을 넣었으며 1966년부터는 작업반장학교와 직장장학교를 새로 운영하였다.

1966년말까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수십개석의 기능공학교(고급기능공양성소 포함)와 작업반장학교, 여러개의 직장장학교를 조직하였으며 이 학교를 통하여 수만수천명의 우수한 기능공, 고급기능공, 초급지휘원들을 양성하였다.

1965—1966년에도 기능을 요하는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기능공판정시험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수많은 근로자들이 기능공, 고급기능공으로 자라났다.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각종교육체계를 통하여 또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새로 양성하였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창의창발성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기술혁신과 증산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기술혁신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이에 따라 긴장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갔다.

【로동보호】 로동보호사업을 항상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1965—1966년에 선진기술에 토대하여 로동보호시설을 보다 개선완비하고 이 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웠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각종 로동안전시설을 더욱 늘이면서 로동위생시설과 보조위생시설들을 국가자금과 내부예비로 정비 개선하였다.

1966년부터 당과 정부에서는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솜동복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또 하나의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

국가에서는 솜동복외에도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제 등 각종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였다.

1965—1966년에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도 부단히 개선강화하였다.

독신자합숙, 유치원, 탁아소 등을 개설확장하여 독신자들과 녀성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1965—1966년도에 많은 녀성들과 근로자들이 77일간의 산전산후휴가나 14일—29일간의 정기 및 보충휴가와 정휴양을 받았을뿐만아니라 작업부문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작업중 휴식도 정확히 보장받았다.

물질문화생활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전개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경제의 거대한 발전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유족해지고있다.

1966년에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510원으로서 1962년에 비하여 1.2배로 장성하였다.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과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65—1966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수입이 늘어난 동시에 인민소비품의 소매가격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계통적으로 높아졌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1965—1966년에도 로임이외에 국가로부터 로동보호물자와 우대물자의 무상공급,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식량공급과 주택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생계비지출에서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받았다.

자강도, 량강도를 비롯한 산간지대의 로동자, 사무원들에게는 겨울철수당금을 주는 한편 겨울옷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특히 1966년에 우리 당은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상당한 힘을 돌리면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6년 4월에 소집되였던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을, 11월에 열리였던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각각 채택하였다.

1965년에 972개 협동농장들의 현물세를 받지 않은데 뒤이어 실시한 이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 농민들을 조세부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농촌에서 살게 되였다.

또한 1965—1966년에 공화국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촌문화주택과 협동농장들의 문화후생시설들을 국가자재와 자금으로 수많이 건설하여 주었으며 농기계작업료를 낮추면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여주는 등으로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주었다.

1965—1966년에도 공화국정부에서는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 거액의 자금을 돌렸다.

특히 1966년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고 의무교육년한을 현재보다 2년을 늘임으로써 새세대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의 전반적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있으며 고등기술, 전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까지 주고있다. 또한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부담으로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철따라 교복을 눅은 값으로 공급하여줌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재정적부담을 덜어주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에게도 계속 깊은 배려를 돌려주었다.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1965년에 8억 751만원(일화), 1966년에 8억 864만원(일화)이라는 막대한 교육원조비를 보내줌으로써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준 교육원조비는 도합 53억 1천 736만 5천여원에 이르렀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어머니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가 많은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일데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성로동자들이 그만큼 가정과 자녀들을 더 잘 돌보게 하였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모성들의 편의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치원, 탁아소들을 정비확장하였으며 보다더 많은 원아들을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보호육성하고있다.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 농장원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유급휴가를 보장받고있으며 녀성들은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매년 수많은 로동자, 사무원, 농장원들이 휴양 및 정양을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소년학생야영소들도 운영하였는바 1965—1966년 여름방학기간에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국가부담으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였다.

교 육

교육부문에서는 1965—1966학년도에 학교와 실생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1965년 2월 23일 교동교육성당총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으며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고등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개선강화하였으며 각급학교들의 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들을 현실발전에 맞게 개작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지덕체를 갖춘 훌륭한 새

형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1967년 4월부터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1966년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유치원교육**〕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며 녀성들의 사회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으며 또 돌리고있다.

1965년에는 당 및 정권기관 지도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1965년 5월 25일 교시에 따라 교양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에서 유치원을 광범히 건설하여 유치원을 제일 좋은 건물로 꾸리였다.

우리 나라 도시와 로동자구는 물론 농촌,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녀성들이 일하는 그 모든 곳에 유치원이 설치운영되고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년령기의 약 60%(1966년말)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망라되여 국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훌륭히 교양되고있다.

1966년 10월에 열린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열린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가 있었다.

유치원교육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보육원, 교양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도 훨씬 높이였다.

유치원어린이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일층강화하고 유치원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림으로써 유치원을 깨끗하고 알뜰하게 관리운영하게 되였으며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게 되였다.

〔**보통교육**〕 1965년에 인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에서는 그 내용을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보다 적응시키기 위하여 과정안, 교수요강, 일부 교과서들에 대한 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인민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교육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요강과 교과서를 고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문학, 문법을 국어로 개편하고 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들에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사업과 방식상학이 광범히 진행되였으며 학생들의 학과실력과 공산주의적풍모가 높아졌다.

1966년에 보통교육부문에서는 7년제중등의무교육의 성과를 튼튼히 다지면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이 사업에 필요한 교원양성사업을 년차별로 앞세우면서 이미 있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새학교, 새교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면서 이미 있는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기술학교망이 광범히 설치되였으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수있는 모든 조건들이 성숙되였다.

1966년 11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의무교육년한을 2년 더 늘임으로써 새세대들의 교육수준을 현저히 높이여 사회전반의 문화수준을 더 높일 전망을 열어놓았다.

법령에 의하여 2년제 기술학교와 3년제 중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중학교를 내왔다. 그리하여 1967년 4월부터 4년제인민학교와 5년제중학교를 통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우리 나라 인민교육체계에서 새로 조직되는 5년제중학교는 중등일반교육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면서 기초기술교육을 주는 첫단계의 중등교육학교로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새 사회의 훌륭한 역군으로 길러내게 된다. 여기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본질적특성과 그 우월성이 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새학제에 맞게 과정안, 교수요강을 연구 완성하며 교과서, 참고도서들을 개작출판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각급 학교 교과서편찬사업에 대학 및 각급 학교들과 과학연구기관 해당부문에서 일하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과 현직 교원들을 광범히 인입하여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와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교원들의 정치사상성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그 대렬이 더 잘 꾸려지고 그들의 자질도 훨씬 높아졌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깊이있게 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도록 교양하는데서 적지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성인교육: 1965년에 성인교육부문에서는 근로성인들의 생산활동과 지리적조건에 따라서 근로자중학교를 학습에 편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개편하였다.

근로자중학교의 교육내용을 발전하는 객관적현실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과정안을 작성하고 국어, 산수를 비롯한 9개과목에 걸쳐 교수요강을 개작하였으며 교과서들을 재작성하여 배포

하였다.

1966년에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한 근로자중학교사업에 힘을 넣었다.

근로자중학교망을 정비하고 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강사들을 위한 방식상학, 시범상학 등을 조직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교수에서 주체를 세우고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였다.

〔중등기술교육〕 우리 나라에는 매개 시, 군마다에 여러개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들이 있었으며 그밖에 자연과목교육을 전문으로하는 고등물리학교, 준기사를 길러내는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외국어학교들도 있다.

1965년에는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들의 과정안, 교수요강들을 전반적으로 개작하면서 실험실, 연구실, 실습공장, 실습농목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관계성들과 주요공장, 기업소 및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망라하여 실험실습기자재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웠으며 많은 실습농목장들을 현대적실습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문명한 새로력자들을 길러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설된 이 기술학교에서는 그것이 나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3만여명의 졸업생을 내였는바 새세대들을 충분한 일반지식과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문명한 로력자로 길러내는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완수하고 발전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기술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고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 학교의 선구자로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에로의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로서 우리 인민교육의 력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전국각지에 설치된 고등기술학교에서는 1966년까지 26만여명의 기수, 중등전문가를 길러냄으로써 인민경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기술자수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이제와서는 기술인재를 짧은 기간에 다량적으로 양성하는것보다 더좋게 양성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섰다.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에서는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을 지금의 2년으로부터 2～4년제로 늘이는 동시에 새로 2년제고등학교를 내오기로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중등기술교육: 공화국북반부에는 정규학교외에 근로청년들이 생산에서 떨어짐이 없이 일하면서 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는 교육체계가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과 고등기술학교들에 확립되여있다.

1965년 1월 15일 내각결정 제3호에 의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중요한 공장, 기업소마다에 공장고등기술학교와 공장기술학교를 두었으며 고등기술학교에는 통신학과와 재직간부반을 두었다.

1965년부터 고등기술학교의 통신학과와 공장고등기술학교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형태의 특성에 맞게 수업년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더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적들을 출판하여 우선적으로 배포하였으며 공장, 기업소의 우수한 기사, 전문가들을 겸임교원으로 광범히 인입하여 전문과목교수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1966년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고등기술학교의 학생수는 전체 고등기술학교학생수의 3분의 2에 도달하였다.

× × ×

1966년에 고등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졸업생수는 1962년에 비하여 3.4배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1천명이상의 기술자를 가진 공장, 기업소들이 적지 않으며 협동농장만 하더라도 매 농장에 평균 12명, 매 작업반에 평균 1～2명씩 있다.

〔사범교육〕 1965년에 사범교육부문에서는 각급 학교교원양성의 목적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범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육내용을 보충완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실들을 현대적인 설비들로 정비하고 실험실습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확립하였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서는 발전하는 교육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린접과목과 기초과목에 일정한 주목을 돌리면서 전공과목에 힘을 넣는 방향에서 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들을 전반적으로 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교원대학 학생들의 교육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실습토대로 될 각급 부속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와 지도방법론을 확립하여 각급 학교교원으로 될 학생들을 질적으로 양성하였다.

동시에 각급 학교교원들의 자질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교양원강습, 중학교교원강습, 기술학교교원강습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학교망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교원들이 더 많이 요구되였다. 이와 같은 현실적요구와 새로운 인민교육체계에 맞게 사범교육체계를 개편하는것이 1966년도 사범교육

부문의 중심과업이였다.

그리하여 5년제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의 교원은 고등기술학교를 마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4~5년제사범대학에서, 인민학교교원은 5년제중학교졸업생을 받아들이는 4년제교원대학에서 그리고 유치원교양원은 3년제고등사범학교에서 길러내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과 고등사범학교들을 새로 더 많이 내올 준비를 적극 추진하였다.

매개 도에 정연하게 꾸려질 새로운 사범교육기관은 늘어나는 교원들에 대한 량적수요를 충족시킬뿐만아니라 교종별특성에 맞는 교수교양방법과 학교관리방법을 체득한 유능한 교원들을 길러내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을 모든 학교의 모범으로 꾸릴데 대한 1966년 5월 12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학교관리학연구실, 교양방법연구실을 비롯하여 각 과목의 교수방법연구실들과 실험실들을 새로 꾸리거나 보충정비하였다.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양사범대학에 박사원을, 평양, 순천, 사리원, 청진 사범대학들에는 전임연구원과 통신연구원들을 설치하였다.

한편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통신교육과 검정시험제도를 강화하였다.

〔**고등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당총회에 친히 참가하시여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1966년 7월 4일과 11월 30일에 기계부문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또 이해 11월 7일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해서와 농업기술간부를 더 잘 양성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세워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고등교육사업에서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65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에 걸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공화국내각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1965년 7월 2일)과 각급 학교들에서 외국어교육을 개선할데 대한 결정(1965년 8월 3일)을 채택하고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하여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우선 교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높은 책임성을 자각하고 기술자, 전문가양성에서 교수교양의 질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였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현실과 과학기술성과들을 깊이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 등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 전반적 요구에 맞게 고침으로써 기술자, 전문가양성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험실습 및 설계교육을 강화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한 결과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학생들의 실천능력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1966년 7월 4일과 11월 30일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기계공업부문학과교육내용의 과학사상성을 높이였으며, 이 부문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였으며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실적, 전망적 발전에 맞게 대학들의 실험실습조건과 연구실들을 더 잘 꾸렸다.

교원들과 학생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공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에 정통하여 자질을 더욱 높이였으며 과학연구사업과 현실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공업, 농업, 의학 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교원, 학생들과 대학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명하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농업대학들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지대적특성과 토양조사 및 과학기술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영농체계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을뿐만아니라 그 자료를 교수사업에 적극 리용하여 교수교양의 질적수준을 높였다. 이리하여 고등교육사업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더욱 확고히 세워졌으며 우리 대학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인재양성의 튼튼한 기지로 되였으며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에 이바지하고있다.

1965—1966년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각 대학들에 있는 연구원과 박사원 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에 재능이 있는 유망한 전문일군들로 꾸리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최신과학부문학자와 녀성학자들을 키워내는데 깊은 당적주목을 돌렸다.

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정밀하고 훌륭한 수많은 현대적실험기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대학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렸으며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실험실습 및 과학연구조건들을 더 잘

마련하여주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교육: 공장대학들과 통신대학부문에서는 1965—1966년간에 이 부문교육사업의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공장대학들에서는 리론교육에 중심을 두면서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실험실습을 더욱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에서는 우선 심화발전된 교수교양의 방향에 따라 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들을 개작편찬하여 리론교육과 기초과학교육, 전문과학교육과 실험실습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관심을 높이여 이 대학들의 시설들과 실험실습로대를 더 잘 갖추어 실험실습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공장대학들에서는 공장의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을 인입하여 대학교수사업에 적극 인입하였을뿐만아니라 대학교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여 해당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시키고 그것을 교수에 반영함으로써 리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

공장대학들에서는 또한 배운 리론에 기초하여 공장의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교육과 생산, 대학과 현장 사이의 련계를 강화하였다.

통신대학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교육형태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 참고서, 강의록, 학습지도서 등 교재를 더 많이 주고 그들의 학습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도한 결과 1965—1966년간에 수많은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들을 기사, 전문가로 키워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1966년말현재 42만 5천 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20주년

김일성종합대학은 1966년에 창립 2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종합대학의 지난 20년간의 력사는 과학문화발전의 대로를 개척하여온 창조의 력사이며 우리 당 교육정책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다.

대학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되였다. 우리 인민은 대학의 창립을 커다란 기쁨과 감격속에서 맞이하면서 대학을 창립하신 수령의 이름을 받아 이 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의 사명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우리 대학의 특징은 인민의 아들딸들이 자유롭게 배울수 있으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인민의 조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의 대학이라는데 있습니다.》**

창립이래 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공화국이 낳은 첫대학으로서 나라의 과학문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5년 6월 당중앙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종합대학을 내각에 직속시키는 주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종합대학을 국가의 믿음직한 간부양성기지로 꾸리려는 확고부동한 방침의 구현으로서 대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종합대학은 권위있는 학자들로서 교원대렬을 꾸리고있으며 그의 물질기술적장비도 훌륭하게 갖추고있다.

1948년에 공학부와 의학부, 농학부를 분리시켜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등을 창설하고도 오늘에는 수학력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등의 자연과학학부와 경제학부, 철학부, 법학부, 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등의 사회과학학부가 있으며 그 산하에 수많은 학과, 강좌들이 속해있다.

또한 대학에는 많은 과학연구소와 그밑에 수십개의 연구실이 있으며 연구원, 박사원이 있다.

강좌와 연구실에서는 원사, 후보원사, 박사, 교수, 부교수, 학사 등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를 포함하여 수백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와 교수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학에서는 수천명의 주간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있으며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은 종합대학학생의 큰 영예인 김일성장학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적지않은 학생들은 의복, 신발, 학용품 등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또한 대학에는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있는 여러나라에서 온 수백명의 류학생들이 있다.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창조하기 위한 천리마학부와 천리마학급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1966년말까지 대학에는 2개의 천리마학부와 23개의 천리마강좌, 11개의 2중천리마학급과 186개의 천리마학급이 있다.

교사와 기숙사의 건평은 전쟁전 1950년에 비하여 10배로 늘었으며 특히 1965년 10월에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건물인 1호교사를 준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시설을 훨씬 보강하였다.

1호교사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400여개의 교실들과 각종 실험실 및 연구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며 실험하고있다.

또한 대학에는 잘 꾸려진 도서관과 1년에 800종의 교재를 찍어내는 출판사와 인쇄공장이 있다. 그 밖에 광학실험기구공장과 화학실험공장, 생물과학관, 력사박

물관, 식물원 등 많은 교육, 과학시설들이 교원,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사업에 복무하고 있다.

대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주요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대학으로서 그에 알맞게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교수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웠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실험실습, 생산실습을 더욱 개선하였다.

대학에서는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근거하여 교수교양사업에 힘쓰면서 인민경제에서 제기되는 현실적문제들을 해명하며 새과목을 개척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선 자연과학학부들에서는 촉매화학의 기초리론과 관련된 연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현실적문제들에 대하여 기초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사회과학학부들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조선혁명의 특징, 그 합법칙적발전과정을 밝히며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종합대학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지난 20년간 당이 맡겨준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과 학

과학부문에서는 1965—1966년에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현존 경제로대를 정비보강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이미 이룩한 과학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과학부문에서는 또한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며 기초과학부문을 적극 발전시키기에 힘썼다.

우리 나라 과학연구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서서 계속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나라 과학기관들

과학원: 1952년 10월 9일 창설.

산하에 물리수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등을 비롯하여 금속, 기계, 연료, 화학 등 수많은 연구소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이 밖에 여러개의 과학공장들도 가지고있다.

사회과학원: 1964년 2월 17일 창설.

산하에 경제, 법학, 력사, 철학, 언어학, 문학, 고고학, 고전 등 수많은 연구소들을 망라하고 있다.

농업과학원: 1956년 2월에 농업과학연구원으로 창설, 1966년 1월 11일에 농업과학원으로 되였다.

산하에 평양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 분원들을 두고있으며 육종학, 토양학, 작물재배학, 수의학, 사료학, 축산학, 과수학 등을 비롯하여 농업시설공학, 농업기계화 등 수많은 연구소들을 망라하고있다. 분원과 연구소 산하에 시험소들이 있다.

의학과학원: 1958년 6월에 의학과학연구원으로 창설, 1963년 11월 5일에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였다.

산하에 동의학, 위생학, 림상의학, 약학, 영양학 등을 비롯하여 산업의학, 정신신경학, 방사선의학 등 수많은 연구소들이 망라되여있다.

교육과학연구원: 1963년 12월 27일 창설.

산하에 교육리론, 학생교양, 사회과학교양, 자연과학교육, 기술교육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소들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과학기관으로서 이밖에 각 성산하에 연구소들이 있다.

문 학 예 술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1월 7일 당과 혁명에 복무하여야 할 혁명적작품과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에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작품과 혁명적대작을 창작함에 있어서 우선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형성된 혁명전통을 기본으로하여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뿌리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형상하는데 계속 주력하면서 그것을 계승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사실들도 앞으로 많이 쓸데 대하여 말씀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5년 3월 11일 친히 중앙미술박물관을 참관하시고 혁명적인 미술작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창작하며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60년 11월 27일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장이나 농촌에 내려가 천리마시대의 새형의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보람찬 생활을 잘 형상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할 영예로운 과업을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다른 중요한 주제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남조선인민들을 혁명적사상으로 각성시키는데 기여할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또한 그려내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1965—1966년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창조적재능과 정열을 기울여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바쳤다.

혁명적대작을 창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1965년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형성된 혁명전통을 선차적인 주제령역으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할수있는 혁명적작품창작에 정열을 기울였다.

그 밖에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보위한 조선인민군용사들과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형상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혁명적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에 몸바쳐싸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형상화하고 그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빛나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그 혁명정신으로 교양된 새시대의 혁명가로 자라난 일련의 전형들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혁명적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맑스-레닌주의미학을 오늘의 발전된 현실에 옳게 적용하여 그 혁명적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심화발전시켰다.

혁명적대작을 창작하는 과정에 또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1930년대에 김일성동지가 령도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으며 혁명적작품의 주제적령역을 확대하고 주제의 명확성, 적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개성이 더욱 발양되였다.

1965년에 작가, 예술인들은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인 조선로동당의 창건 스무돐을 맞는 감격으로 하여 창작적정열과 흥분에 더한층 끓었다. 그리하여 이 해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연극부문에서는 경축무대에 수십편의 장막극을 올렸으며 미술부문에서는 수백점의 창작품을 경축전람회에 전시한것을 비롯하여 이 해에 수천점의 창작품을 국내외에서 진행한 전람회들에 내놓았다.

영화부문에서는 이 해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집단에서만도 많은 예술영화를 창작하였다.

1965년에 우리의 작가들은 혁명전통주제분야중에서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할수 있는 혁명적인 작품과 혁명적인 대작을 창작하기에 힘썼다.

이 해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불멸의 형상들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는 우수한 일련의 작품들이 나왔다.

작품들에서는 주제의 명확성과 적극성에 있어서 례년보다 전진하였을뿐만아니라 시인의 창조적개성이 뚜렷하게 살아있으며 시대의 호흡과 맥박이 굽이치고 있다.

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전후편)에서는 애국적청년남녀의 혁명적성장과정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은 1930년대 조선공산주의자 항일투사들의 혁명적지향과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발전한 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천명하였다.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창조한 민족가극 《녀성혁명가》(전6장)는 녀성유격대원의 혁명가적성격을 훌륭하게 심도있게 보여주었다.

관현악과 합창 《영광의 길》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조국의 해방을 달성한 항일유격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서정적인 극적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유화 《1211고지방어전투》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패의 기상을 서사시적화폭속에 성과적으로 묘사하였는바 매개 전사들의 성격을 개성화하고 이를 군상으로 능숙하게 처리함으로써 전투화창작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해방후의 혁명투쟁,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투쟁을 묘사한 문학작품들로서는 연극 《전하라, 비류강아》, 서정시 《인간의 높이를 두고》를 비롯한 작품들이 근로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에서는 천리마기수의 형상에서 지난시기 남아있던 부족점들을 현저히 극복하고 그들의 생동한 성격창조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이 펼쳐주신 천리마시대의 생활의 본질을 천명하여 작품의 주제를 보다 독창적으로 해명하려는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어로부문로동자들의 생활과 로동을 랑만으로 가득찬 장엄한 화폭속에서 묘사하면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준 중편소설 《먼 해구에서》는 서로 각이한 생활경력과 개성을 가졌지만 당의 유일사상으로 뭉친 군상들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을 힘차게 천명하였다.

서사시적화폭을 시화하며 작가의 미학적리상과 주장을 천명하는데 성공한 서사시 《하나의 길우에서》도 역시 기적과 혁신으로 가득찬 우리의 혁명적현실—천리마시대의 면모를 마음껏 노래하

였을뿐만아니라 작품속에 이 위대한 현실을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영화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는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의 요인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 로동계급의 전형적형상을 천리마현실의 시대적높이에서 보여주었다.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음악작품으로서는 경애하는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지상락원에 사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자랑과 기쁨을 노래한 가요 《우리 행복 끝없어라》, 소교향곡 《환희》, 무반주합창 《금수강산》,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관철하려는 인민의 투지를 노래한 《자력갱생행진곡》을 비롯한 작품들이 근로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조선화 《용해공》은 주인공의 성격적면모를 통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밝히는데서 색채적묘사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이해에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남반부인민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혁명전통과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주제의 작품들과 더불어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비중을 훨씬 높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연극 《그날을 두고》, 영화 《성장의 길에서》, 가요들인 《전우여,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의 별》과 같은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평양극장이 창조한 《그날을 두고》는 심각한 모순에 찬 남조선사회를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계급적으로 각성하여가는 로동계급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싸워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주제령역에서 시대와 인민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영화 《성장의 길에서》(1～2부)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주제작품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영화는 의학의 길을 자기의 리상으로 삼았던 남조선의 량심적인 한 청년이 부패한 사회에 항거하는 투쟁의 시련속에서 각성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순에 찬 남조선사회의 병집부터 고쳐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며 점차 의식적인 투사로,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형상화하고있다.

그리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에 더는 참을수 없어 항쟁의 선두에 나선 남조선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투적인 군상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군무 《남녘의 불길》(평양가무단 출연)은 국내인민들은 물론 사회주의나라의 인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이해에 창작된 이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남반부인민들을 남조선혁명의 주인으로 등장시키고 남조선혁명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믿음직한 로동계급으로, 혁명가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싸우는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감옥에서도, 단두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투쟁할뿐만아니라 그들의 뒤를 따라 혁명가들의 대군이 계속 부절히 투쟁전선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시대사상을 제기하고있다.

이해에 창작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에서는 특히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신뢰와 충직성 그리고 공화국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생활력을 심도있게 천명하였다.

그중에서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보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정으로 하여 원쑤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를 족치는 모습을 성과적으로 형상하여나가고있다.

그밖에 작가, 예술인들은 계급교양과 공산주의도덕교양에 이바지하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문학평론분야에서도 1964년 11월 7일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문학창작에 구현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주되는 필봉을 돌렸다.

이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을 계기로 40여편의 시를 수록한 종합시집 《풍랑을 헤치고》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나와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였다.

1965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남북윁남인민들의 혁명적작품들을 더욱 광범히 번역출판하였다.

윁남인민들속에서 널리 읽혀지고있는 단편소설 《허물자리》, 《불길속에서》, 단행본으로 번역된 《남방에서 온 편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이 번역출판되였다.

1966년에도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계속 창조적적극성과 집체적지혜를 발양함으로써 당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한 문학예술의 전투적사명과 그 기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과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1930년대 혁명투사들의 불요불굴의 투쟁모습과 혁명가적기질, 고귀한 혁명정신을 예술적형상속에 구현하기에

창조적재능을 기울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 우리시대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적성격들과 반미구국투쟁에 궐기한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고 심오하게 그리는것을 자기들의 주되는 창작적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해에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소설들과 서정시, 서사시, 영화, 연극, 조형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1966년도에 미술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이 부문 창작가들의 앙양된 열의와 노력으로 하여 례년에 비하여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수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오늘 대중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을뿐만아니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특히 이해 10월에 있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문학예술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이 보고에 접한 작가,예술인들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인 과업실천에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였다.

문예총을 비롯한 각 동맹단체들에서는 전원회의를 열고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문헌학습을 강화하면서 강습회, 미학토론회 등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도에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새로운 성과작들이 나오게 되였다.

이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우선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의 높은 덕성을 구가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유화 《진격의 길에서》는 이 주제분야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작들중의 하나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반부를 해방하는 싸움의 길에 떨쳐나선 인민군전투원들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고무해주고 계시는 수령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이의 고무와 격려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키우며 진군하는 포마병사를 비롯한 보병용사들과 땅크병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훌륭히 그려낸 이 작품은 우리 인민이 걸어온 투쟁과 승리의 로정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옳바른 령도로 하여 휘황찬란히 열리고 다져진 영광의 길임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이밖에도 이 주제분야에서는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또한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을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평북도가무단이 창조한 민족가극 《무궁화꽃수건》을 비롯하여 연극 《청춘의 길》, 교향곡 《백두산》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족가극 《무궁화꽃수건》은 1930년대 동만에서 있은 실화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가극은 주인공 김명순이가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답게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어떻게 꿋꿋하게 혁명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시종 예리한 극적정황속에서 보여주면서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감득하게 하며 관중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일하며 살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한다.

민족가극 《무궁화꽃수건》이 달성한 사상미학적성과는 젖먹이와의 리별, 남편의 죽음과 같은 온갖 비통한 감정을 씹어삼키면서도 일본제국주의타도에 결연히 나선 녀성혁명가의 힘의 원천이 바로 성스러운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부르심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에 있음을 민족가극의 풍부한 형상적수단을 통하여 훌륭하게 보여준데 있다.

1930년대 항일유격대원들의 빛나는 형상과 함께 이 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혁명적락관주의, 불멸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훌륭히 구현한 작품들도 수많이 창작되였다.

이 주제분야에서 미술부문창작가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히 크다.

조선화 《락동강의 할아버지》, 유화 《간호원 조순옥》, 조각 《제멸》 등을 비롯하여 적들의 폭탄과 포탄이 비발치는 긴장된 환경에서도 농작물의 추수를 다그치는 영웅적후방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한 조선화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우리 인민의 강의한 성격과 불굴의 투지를 훌륭히 전형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따라서 이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백을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 가요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서정시 《복수자의 선언》, 5인무 《벼가을》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가요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물려준 총창을 가슴마다 안고 번영하는 조국을 일당백으로 지켜가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백과 시대의 혁명적감정을 힘차게 박력있는 선률에 담아 훌륭히 노래함으로써 공장과 광산, 도시와 농어촌 그 어데서나 불리워지는 대중가요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있다.

이해에는 계급교양에서 이채를 띠는 작품들이 나왔다.

철모르는 남의 집 어린소녀를 빚값으로 앗아가려는 포악하고 음흉한 지주와 소녀의 어머니와의 심각한 계급적갈등을 통하여 일제통치시기 계급간의 첨예한 모순을 생동하게 반영한 유화 《딸》과 사람들에게 계급사회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려주고있는 조각 《과거의 어린탄부》 등은 이의 좋은 실례이다.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모습을 그린 연극 《푸른잔디》와 전세계인민들을 미제야수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도 이 해에 창작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영화는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품고 그들을 진정한 《벗》으로 생각하던 최학신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미제를 믿다가는 가족이건 민족이건 망하지 않을수 없으며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오직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 사상을 훌륭히 천명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예술적성과는 미제와 조선인민간의 첨예한 민족적, 계급적 대결의 마당에서 돌이킬수 없는 생활의 교훈을 찾는 최학신일가의 남다른 극성을 예리하게 추구함으로써 극영화로서의 풍격을 뚜렷이 하고 시대의 진리를 정론적높이에서 밝혀낸데 있다.

1966년도에 문학예술부문에서 거둔 이러한 모든 성과는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과 사회주의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고수하고 높은 예술적창조력을 발휘한데서 이룩되였다.

1966년도에는 문학예술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적작품들이 더욱 활발히 번역출판되였으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영웅적웰남인민을 비롯한 각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이해에 평양가무단은 형제나라들인 몽골, 뽈스까, 쏘련, 꾸바를 순회공연하고 돌아왔다.

울란바따르로부터 와르샤와와 모스크바, 대양건너 멀리 아바나에 이르는 석달동안의 순회공연기간 가무단은 58회에 걸쳐 10만여명의 관중들에게 《황금의 예술》로 불리워지는 우리 나라 예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과 이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 해에 웰남교예단, 꾸바음악단, 게. 게. 웨렙까명칭 우크라이나국립공훈인민합창단, 체스꼬슬로벤스꼬국립민족가무단, 웽그리아민족무용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이 나라 인민들의 예술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군 중 문 화

1965—1966년에 군중문화사업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고무하고 그들에 대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심화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문화성과 각 근로단체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군중문화사업을 통하여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양식,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농촌에 보급하였다.

〔**군중문화회관**〕 각 도, 시, 군에 있는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1965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실천과 관련한 각종 예술공연자료를 만들어 공장, 기업소, 농촌의 예술소조들에 주었으며 직접 생산기업소들에 나가 예술소조사업을 지도하였고 농촌의 문화시설들을 꾸려주었다. 이밖에 생활문화회관운영, 이동전람회, 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6년에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예술소조들에 주었다.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경제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예술에 소질이 있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회원으로 장악하고 그들을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등 부문별로 지도하였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예술리론과 실기를 학습할뿐만아니라 막간극, 재담, 구연, 촌극 등을 창작하여 발표회, 랑독회 등을 조직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매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근로자들속에 침투시키고있다.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예술소조지도자들도 양성하고있다. 1966년에 농촌예술소조지도자들의 창작 및 형상적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등 부문별로 되는 강습을 조직진행하였다.

【도서관】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 도서관들과 시(구역), 군 도서관, 아동도서관들을 운영하고있다. 이밖에 수많은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 또는 도서실들이 있다.

1965년에 각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촌에 도서실을 꾸려주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협동농장도서실들을 많이 꾸리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급 도서관들에서는 이 해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열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대출, 기관대출, 현장순회대출 등 여러가지 창발적인 방법으로 도서를 보급하였다.

1966년도에는 새방법에 의한 독자봉사체계를 세워 도서관사업을 개편하였으며 관내열람사업과 야간봉사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독자들을 대중적독서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방조함으로써 그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다른 한편 자연과학도서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전시회, 전람회, 소개선전사업들을 과학자, 기술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직접 조직함으로써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1966년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도서관일군들의 회의에서는 도서관사업을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철저히 복무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1948년 11월 27일에 창립되였다.

1965년에 도서관에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고있는 과학, 교육, 문화기관일군들의 혁명전통연구사업과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혁신운동을 돕기 위한 문헌자료상 방조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독자에 대한 봉사조직에서도 많은 창조적인 사업이 있었다. 신간과학기술문헌들에 관한 문헌목록발간사업, 전람회조직과 직접 생산현장에 가지고 나가 보급하는 사업들이 수시로 진행되였다.

1966년에는 봉사사업을 한층더 개선강화하고저 장서편성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이 해부터 과학기술문헌통보를 내면서 관내열람사업과 대외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도서목록서지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혁명전통기념일색인, 사회주의애국주의색인, 나라살림살이교양자료들을 출판배포하였다.

1965년 3월 1일부터 련합목록편찬사업에 착수하여 1966년말까지 자연과학련합목록, 민족고전련합목록들을 출판배포하였다.

【박물관 및 기념관】 박물관들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동박물관, 환등, 상봉모임, 강연회 등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정신에 립각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들의 투쟁》 등을 제목으로 1천여회의 이동박물관과 800여회의 각종 군중공작을 조직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로동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11월 3일과 1961년 1월 13일에 박물관발전을 위하여 현지에서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이 박물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자료수집보충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1965년과 1966년에 많은 유물들과 보조자료들이 수집보충되였다.

항일무장투쟁 첫시기의 유물들로는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전사인 항일투사 박경숙동지가 뜨개질을 배운다는 소문을 놀리고 녀성군중들 속에 들어가 사업하던 때 쓰던 뜨개바늘과 레스, 자기와 함께 투쟁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하는 리세진동지를 축하하여 석동수동지가 선물로 새겨준 도장, 조국땅에서 일제를 소탕하기 전에는 어머니앞에 나서지 못하니 이 머리채를 받아달라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가한 박경옥동지의 달비, 적들의 탄압을 무장으로 까부시기 위해 혁명군중을 무장시키던 때에 쓰던 집게와 망치도 있었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에 진군하여 일제의 파쑈테로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조국땅에 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투쟁의 불씨를 안겨준 보천보진투때에 로획한후 계속 일제를 무찌르는 싸움에서 리용하던 보총이 1966년에 들어왔으며 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다른 녀대원들과 함께 김명숙동지가 김일성동지로부터 표창받은 금반지가 들어있다.

유물중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시기에 라진, 웅기, 서수라 등지에서 투쟁할때 오백룡동지가 인솔한 소부대의 대원들이 리용하던 유물들도 있다.

박물관에서는 1952년 6월 24일 김경명동무가 작업하는 공장 주철직장분세포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10명의 당원들이 전시생산에 궐기하던 때에 만들던 수류탄을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진렬실에는 약 1천800여점의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전시된 유물, 자료들은 1930년대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966년에 혁명박물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내용으로 하여 이동박물관을 조직하였으며 이에 배합하여 각종 군중공작을 진행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칠골과 만경대에 분관을 두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부친 김형직선생께서 활동하신 평안남도 강동군 봉화리와 만경대 순화학교를 복구정비하여 개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더욱 이바지하였다.

보천보박물관: 1963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26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하였다.

박물관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초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오랜기간에 전개한 항일무장투쟁, 특히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1937년 6월 4일에 있은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에 관한 800여점의 유물과 자료들을 전시하고있다.

1966년에 보천보박물관에서는 보천보전투를 내용으로 700여회의 이동박물관과 각종 군중공작을 진행하였다.

보천보박물관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관련이 있는 포평, 대홍과 동홍에 분관을 두고있다.

포평분관에는 김일성동지께서 8도구소학교재학당시에 부친의 련락임무를 도와 건너다니셨으며 14세의 어린소년으로서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이긴 후에야 다시 조국에 돌아올것을 굳게 다짐하셨던 포평나루터가 속해있다.

대홍분관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대낮에 국경경비도로인 갑무도로를 지나 적들을 기습소탕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뿐만아니라 국내혁명조직들을 지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킨 유물들과 전적지들이 정비되여있다.

동홍분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1935년 2월 15일 일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의 하나인 동홍에 있던 일제경찰서를 습격한 전투사적들이 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기념관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53년 8월에 창립되였다.

전시품들은 11개의 건물에 28개의 부분으로 나뉘여 진렬되였다.

1호건물에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공산주의의 붉은 기치, 민족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혁명활동을 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가르침에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평화적건설시기자료 그리고 미제에 의한 조국해방전쟁의 도발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2호건물에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작전예술과 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자료들이 있다.

3—4호건물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군사작전과 당정치사업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5—8호건물에는 원쑤 격멸에서 위훈을 세운 군종별, 병종별 투쟁자료들과 미제침략자들의 죄행과 패망상 그리고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진렬되여있다.

그리고 야외진렬장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이 로획, 파괴, 격추한 미제침략군의 비행기와 각종 전차, 포 등 군사기재들과 정전후 북반부에 침입하였다가 파괴된 전차와 격추된 비행기들이 전시되여있다.

이러한 전시체계를 통하여 관람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전략적방침, 탁월한 령군술 그리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군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배우게 된다.

3호건물에 새로 전시된 자료들중에는 청춘의 생명을 바쳐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킬것을 맹세다진 인민군장병들의 편지와 구호, 각종 직관물이 주목을 끈다.

야외진렬장에는 원산앞바다에 침입하였다가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포화에 얻어맞고 떨어진 미제침략군의 비행기잔해가 새로 전시되였다.

신천박물관: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는 이 박물관은 1958년 8월에 창립되였다.

이 박물관은 100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미제침략자들의 침략행위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여주고있다.

박물관에는 특히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일시적인 후퇴시기에 황해남도에서만도 12만여명의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식인종적만행을 폭로하여주는 860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였다.

1965년에 400여점, 1966년에 100여점의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보충하였다.

조선력사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은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연구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미술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되였다. 현대적시설을 갖춘 이 박물관에는 기원 3—4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 창작된 많은 미술작품들이 있다.

그중 1천 100여점이 진렬되여 있다.

1966년에 박물관일군들은 여러가지 미술작품들을 수집보충하였다.

조선민속박물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되였다. 1966년말 현재 박물관에는 수만점의 유물들이 있다.

발굴 및 발견: 1963년부터 시작한 문화유물유적재조사확인고증사업은 1965—1966년에도 계속되였다.

1965년에 함남도 북청군 중리에서 고대선조들이 살던 집자리들과 그들이 쓰던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이 유물들과 유적들은 당시 이곳 주민들의 문화가 고조선시기의 문화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1966년도에 중앙과 지방의 각 박물관들에서 찾아내여 보충한 력사유물, 민속유물, 미술유산들은 수만수천여점이나 된다.

조선력사박물관에서 찾아낸 유물가운데에는 평북도 동창군 학성리에서 무더기로 나온 여러가지 활촉묶음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보는것들이다. 그중에는 길이가 255미리메터, 무게가 125그람 나가는 것도 있어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1966년에 조선미술박물관에 들어온 귀중한 미술유산가운데서 작자들을 알수 없는 《산과 물을 다스리다》, 《평양8경》, 《평양의 봄》, 《서두수강의 떼몰이》 등 폭이 큰 그림들이 이채를 띠고있다.

특히 이번에 강원도에서 나온 《산과 물을 다스리다》는 16세기의 우리 선조들이 산에 큰길을 내고 강에 다리를 놓는 로동의 화폭을 훌륭히 살린 작품이다.

〔**과학지식보급사업**〕 근로자들은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 그리고 수학을 비롯한 일반자연과학지식, 우리 나라의 력사, 생활문화지식과 세계지식 등을 배우고있다.

과학지식보급사업분야에서는 1966년에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으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하는데 각별히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으로부터 기본 생산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과학지식보급체계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직외선전력량을 망라시켰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지식을 보급하였다.

또한 이 해에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위하여 수십종의 각종 과학, 문화 도서와 잡지들이 출판배포되였고 수십편의 과학영화가 제작되였으며 공장, 기업소와 농촌리마다에 있는 과학지식보급실들이 운영되였다.

그밖에 각 도, 시, 군의 군중문화회관, 영화관, 이동영사대, 방송망, 중앙과 지방 출판물들, 각종 전람관, 도서관, 박물관들도 과학지식보급사업에 복무하였다.

과학지식보급사업에서는 강연, 해설, 담화를 비롯하여 막간선전, 발표회, 경험교환회, 야회, 주제모임, 예술소조경연 등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리용하였다.

〔**전람관**〕 **공업및농업전람관:** 1956년 9월 27일에 창설되였다.

공업및농업전람관은 전체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과외교양기관의 하나이다.

전람관에는 중공업관, 경공업관, 농업관이 있고 그외에 야외진렬장이 있다.

매개 관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이 전시되였다.

1966년에 공업및농업전람관을 확장하여 새 제품들을 보충하였고 공업의 발전추세에 따라 낡은 것을 새것과 바꿈으로써 전람관의 면모를 개선하였을뿐만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해에도 평북도를 비롯한 도마다에 있는 공업및농업전람관들을 잘 운영함으로써 도내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였다.

어머니전람관: 어머니전람관은 모든 어머니가 공산주의어머니로 되며 자녀들을 더 훌륭히 키울데 대하여 1961년 11월에 있은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할 사명을 지니고 1961년 11월 17일에 창설되였다.

3개의 기본관으로 꾸며진 전람관의 첫관에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녀성해방을 위한 투사로서의 강반석녀사의 고매한 투쟁정신과 풍모를 보여주는 자료들, 해방후 녀성들에게 광명의 길을 비쳐준 당과 정부의 배려,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투쟁속에서 자란 공화국의 녀성전투영웅들과 로력영웅들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둘째관에는 어린이교양과 관련한 자료가, 그리고 셋째관에는 어머니교양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1966년에 전람관일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자료,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능발달에 대한 자료, 가정에서의 자녀

들에 대한 계급교양, 전쟁과 식생활 그리고 남반부녀성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투쟁자료 등을 새로 보충하였다.

이 해에 또한 전람관일군들은 평양시주변 협동농장들과 가두에 나가 이동전람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동강연, 과학강연들을 수많이 조직하였다.

〔극장〕 **평양대극장**: 우아한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갖춘 평양대극장은 인민을 위한 문화의 대전당으로서 1960년 8월 13일에 준공되였다.

대극장에는 예술창조사업에 필요한 대형 기본무대와 보조무대, 수백개의 배우실을 비롯하여 각종 설비들과 시설들이 있으며 2천 300여석의 관람석이 있다.

국립교예극장: 이 극장에는 둥글게 생긴 현대적인 극장(관람석 1천 800석)과 여러개의 악사실, 대, 중, 소 련습장, 공중준비실, 휴계실, 동물사를 비롯한 부대건물들과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갖추어져있다.

천연대리석바닥에 옥돌로 벽을 한 이 건물안에는 교예예술의 특성에 맞게 어떤 교예종목이던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원형무대, 일면무대, 공중무대들이 있으며 원형무대에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수중교예나 빙상교예도 할수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배려에 의하여 세워진 평양학생소년궁전은 1963년 9월 30일에 개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접 궁전의 터전까지 잡아주셨고 설계와 건설, 관리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제일 좋고 큰 터전우에 세워진 이 궁전은 1천 300석의 관람석을 갖춘 극장, 수많은 관람자들을 수용하고 종합체육경기를 년중 할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대중홀, 유희오락실, 연구실을 가진 큰 규모로 건설되였다.

궁전내부에는 천체망원경, 공작기계, 자동차를 비롯한 수천종의 각종 실습 및 실험기구들과 악기류, 체육기자재, 의상류, 유희오락기구들이 있으며 수많은 도서들과 봉사설비들이 마련되여 학생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야외에는 경기장, 기상관측장, 소동물사, 실습포전 등 활동기지들이 있다.

궁전개관날에 나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 하나의 훌륭한 과외교양기지가 꾸려진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지덕체교양의 종합적학교이며 과외교양의 거점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궁전에서는 학생소년들을 풍부한 과학지식과 고상한 도덕, 국방지식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수령의 참된 전사로 키우고있으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과외교양경험들과 자료, 지도리론들을 종합체계화하여 전국에 널리 보급일반화하고있다.

궁전활동의 대상자는 인민학교로부터 고등기술학교까지의 보통교육부문의 학생소년들이며 대학생들은 이들을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

궁전에서는 1965—1966년에도 학생소년들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구소조활동과 일반적인 문화상식을 주는 대중활동을 조직하였다.

연구소조부문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하면서 사회, 자연, 과학기술, 생물, 예술, 미술, 체육부문별로 100여개의 소조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매일 5천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망라되였다.

대중활동에는 항일투사들과 영웅들 및 사회활동가들과의 상봉모임 그리고 웅변대회, 과학강연, 연구토론회, 창작품발표회와 감상모임, 각종 예술소조경연대회, 영화감상, 유희오락회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이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궁전에는 기사, 기수, 전문가들과 봉사일군들이 있으며 박사, 학사, 예술인 등 저명한 사회활동가들이 직외력량으로 참가하고있다.

1966년에 라지오텔레비실과 예술부소극장을 새로 내왔고 궁전에 부속한 5년제금성중학교를 창설하였다.

학생소년들은 소조활동을 통하여 련마한 예술적소양을 발휘하여 수상동지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극장모자이크와 체육관모자이크를 완성하였다.

〔**예술소조**〕 우리 나라에서 예술소조는 매개 생산단위에서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부문별로 조직운영하고있다.

1965년에 각지 예술소조원들은 기동적인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의 하나인 단막극, 촌극, 인형극, 재담 등 극형식의 작품을 비롯한 자기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였다.

특히 예술소조원들로 조직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부문의 기동예술선동대들은 1965년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을 고무추동하는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966년에 문화성에서는 《붉은기발을 더욱 높이 휘날리자》, 《남녘땅을 해방하리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연자료를 출판하여 예술소조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게 하였다.

이 해에 또한 예술소조들에서는 1964년 11월 7일, 1966년 2월 4일, 4월 30일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조직된 문예

작품현상모집을 통하여 희곡, 가사, 가요, 촌극, 재담, 시극, 노래이야기, 경악극을 비롯하여 수천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전국연극부문예술소조경연은 1965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80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경연에는 예술소조원들자신이 창작한 연극, 인형극, 시극, 이야기, 재담, 촌극, 시랑송 등이 무대에 올랐다.

작품들은 우리 당과 수령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흠모의 정을 노래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진군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반영하였다.

이 해의 경연은 예술소조원들의 연기가 소박하며 진실한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감격을 더욱 깊게 하였으며 그 수준도 높이 올라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연참가작품중 125편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였으며 합창시 《우리는 언제나 초소에 서있다》(특등상)를 비롯하여 16종의 다채로운 형식의 작품이 중앙경연무대를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경축 축전들〕 1965년도에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전국예술축전, 전국소년예술축전, 전국대학교등기술학교학생예술축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전국소년예술축전(7.24—8.5)에는 지방경연에서 선발된 학교학생들이 참가하여 동화극, 인형극, 노래이야기, 합창, 중창, 독창, 기악합주, 무용 등 각종 형식의 작품들을 축전무대에 내놓았다.

축전은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있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의 생활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심사결과 함북도예술소조가 1등을, 자강도예술소조와 평양시예술소조가 각각 2등을, 평북도예술소조와 황북도예술소조가 각각 3등을 차지하였다.

전국대학교등기술학교학생예술축전(9.8—9.14)에는 각 도, 시 경연에서 선발된 학생예술소조원들이 취주악, 가야금병창, 단막극, 스케치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축전무대에 올렸다.

무대에 오른 작품은 그 대부분이 학생들자신이 창작한 작품들로서 거기에는 당의 지극한 배려밑에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고있는 행복한 학생생활과 락천적기백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축전에서는 함흥시예술소조가 1등을, 황남도 예술소조가 2등을, 평양시예술소조가 3등을 차지하였다.

1965년도 전국예술축전은 음악무용부문(7.20—7.30)과 연극부문(9월초순—11월초순)으로 나뉘여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음악무용부문의 축전에는 150편의 음악무용작품들이, 연극부문의 축전에는 15개의 장막극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 해 축전과정은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지난 20년간에 쌓아올린 당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사실주의예술의 발전면모를 훌륭히 과시하였다.

1966년도 전국예술축전은 전국음악무용축전(8.10—9.26)과 전국연극축전(11.1—12.5)으로 갈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각도 가무단들이 참가한 음악무용축전에는 160편의 음악무용작품, 중앙과 지방의 연극단체들이 출연한 연극축전에는 13개의 장막연극작품들이 축전무대를 장식하였다.

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 창작된 우수한 음악, 무용, 연극 작품들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전람회〕 1965년에는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국가미술전람회, 미술작품전람회, 전국예술사진전람회가 조직되였고 그밖에 기술혁신사진전람회 등 각종 전람회가 열렸다.

1966년에는 제9차국가미술전람회, 제14차전국예술사진전람회, 미술작품전람회를 비롯하여 공예및산업미술전람회, 출판화전람회, 공화국창건18주년기념사진전람회, 색채전람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보내온 문화유물전람회 등 여러가지 전람회가 있었다.

국가미술전람회: 1965년에 있었던 조선로동당창건20주년경축 국가미술전람회와 1966년에 있었던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는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1964년 11월 7일 교시와 1965년 3월 11일 미술부문에 주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들인 우리 미술가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열성을 발휘하여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미술창작에 모든 힘을 기울인 결과에 얻어진 귀중한 결실들로 채워졌다.

또한 이 전람회를 장식한 작품들중에는 1930년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전후복구건설투쟁,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근로자들의 락천적이며 전투적인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경축 국가미술전람회는 작품들의 주제의 다양성과 그의 혁명성, 전투성, 형상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빛났다.

조선화부문에서는 전통적인 조선화의 기법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와 기호에 맞게 현실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전진하였다.

유화부문에서는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며 특히 색채표현에서 밝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반영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람회는 또한 조각에서 형상성이 높아졌고 출판화에서 다양한 형식이 개척되였음을 보여주었고 판화에서 색채의 도입, 공예와 산업미술에서 현대성의 구현, 무대및영화미술에서 회화적언어의 표현성이 높아진것 등 조형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성과가 이룩되였음을 보여주었다.

심사결과 유화 《분노》, 공예 《호랑이》, 영화및무대미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 각각 1등에 올랐다.

제9차국가미술전람회: 이번 전람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술양식인 조선화가 크게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를 도와 싸운 인민들의 영웅적기개와 불타는 애국심을 생동하게 그린 《남강마을의 녀성들》과 《락동강의 할아버지》, 《강철의 전사들》과 《풍어》 등 조선화들은 이 분야에서 전투적인 화폭과 로동계급의 생활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음을 명백히 실증함으로써 조선화발전에서 일대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조선화의 전통 특히는 색채화의 우수한 점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혁명적인 주제에 알맞는 회화언어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확증해주었다.

전람회의 또 하나의 성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서사시적화폭을 커다란 구도속에 재현한 《진격의 길에서》, 《딸》, 《간호원 조순옥》과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 사실이다.

조각분야에서는 해방전 로동계급의 쓰라린 생활과 울분,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한없는 증오의 세계를 나어린 탄부의 심각한 성격묘사를 통하여 훌륭히 형상한 《과거의 어린 탄부》를 비롯한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나왔다.

전람회는 1966년 9월 27일부터 1967년 1월 10일까지 열렸다.

심사결과 조선화들인 《남강마을의 녀성들》, 《락동강의 할아버지》, 유화들인 《진격의 길에서》, 《딸》, 조각 《과거의 어린 탄부》들이 각각 1등에 입선하였다.

전국예술사진전람회: 조선로동당창건20주년경축 전국예술사진전람회(1965년 10월)에는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약동하는 현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모습,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을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었다.

제14차전국예술사진전람회: 1966년 10월에 열렸다.

작품들은 주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과 관련한 사진작품들을 비롯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에 일어선 천리마기수들의 투쟁모습,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 등을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하였다.

작품들 속에는 천연색으로 찍은 작품들이 많았다.

보 건

1965—1966년에 인민보건분야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위생방역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할데 대한 당의 방침과 특히는 김일성동지의 1965년 5월 25일 교시와 1966년 2월 19일 교시를 받들고 인민들의 건강을 더 원만히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새로운 사업들을 조직진행하였다.

우선 1965—1966년에 치료예방기관들을 더 잘 정비확장하였으며 의학대학과 고등의학학교를 비롯하여 재교육양성기관들을 통해서 보건일군들도 더 많이 양성하여 배치하고 위생사업을 군중화한데 기초하여 주요 질병과의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의학과학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의학연구사업을 더 힘있게 진행하였으며 각 시, 군 보건기관들과 리진료소들에 보건일군들과 의약품들을 더 많이 보냈다.

1966년에 특히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함으로써 탁아소, 아동병동이 더 잘 꾸려졌으며 보육원대렬이 강화되였다.

또한 봄, 가을 위생월간을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내각의 조치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을 보다 위생적으로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보건정책에 의하여 리병률은 계속 낮아지고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20년이나 늘었다.

〔**위생방역**〕 1965—1966년에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립각하여 예방을 치료에 앞세워 인민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방역사업에 주되는 힘을 돌렸다.

우리 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직할시), 시, 군마다 위생검열원과 위생방역소들이 있으며 이밖에 평양시에는 소독소가, 국경과 해안지대에는 검역소가 있다.

1965—1966년에는 방역과 위생검역에 대한 행정지도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위생방

역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잘 꾸렸으며 그것의 역할을 높였다.

그리하여 위생방역기관수와 위생방역기관의 의사수는 치료에 예방을 앞세울수 있게 해마다 증가하였다.

1965년에는 위생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질병을 더 철저히 예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공중위생, 로동위생, 어린이위생 등 위생사업의 모든 고리들을 전면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했으며 특히 일부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에서의 위생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 부문 작업조건을 위생학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로동보호, 식생활, 일반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였다.

1966년에도 공화국내각의 조치에 따라 겨울과 봄철위생방역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위생지식보급사업과 위생계몽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위생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된 결과 1965—1966년에 9개군이 새로 모범위생군으로 되였으며 많은 모범위생 리(동), 모범인민반들이 나왔다.

방역부문에서는 예방접종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각 구역, 군에 조직된 예방접종대들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을 보다 계획화함으로써 결핵예방약(비씨지, 화학예방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방약을 전체 대상어린이들에게 놓아주었다. 위생방역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질병의 리병률이 계속 줄어들었다.

〔**치료예방**〕 1965—1966년에 치료예방부문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제때에 찾아내여 그에 해당한 의료방조를 보다 실속있게 줄수 있도록 치료예방기관들을 정비하면서 외래의료방조를 각별히 강화하였다.

1965—1966년에 치료예방기관과 입원치료기관수가 현저히 늘었으며 이에 따라 입원침대수와 의사수도 훨씬 늘었다.

이 기간 주민들에 대한 동의의료방조도 확대강화되였다. 동의병원, 동의진료소와 각 치료예방기관들에 동의과들이 정비확장되였으며 특히 동의중앙병원에 동의치료병동이 새로 꾸려져 수많은 주민들에게 동의의료방조를 주었다.

이밖에도 치료예방기관 전문과와 전문과침대수도 확대되였다. 의료봉사조직은 선철 및 강철, 전력, 석탄, 화학 등 주요공업부문로동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특히 채굴공업부문에서 의사들의 갱담당구역제가 실시되였다.

또한 농촌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이 돌려졌다. 군 인민병원이 더욱 전문화되고 농촌에 더 많은 의사들이 파견되였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공급량도 훨씬 늘었다.

이 기간에 광천물리치료부문에서는 각지에 널리 분포되여있는 온천과 약수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이미 개발한 광천에 대한 관리운영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광천을 더 잘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또한 온천과 약수터에 설치된 료양소들과 그 가까이에 있는 병원들에 광천외래과를 둠으로써 전문적인 광천물리치료범위를 넓혔다.

그밖에 공장, 기업소에 있는 료양소들이 운영되였다.

〔**어린이와 녀성들의 건강보호**〕 김일성동지의 1965년 5월 25일 교시와 1966년 2월 19일 교시, 1966년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교시에 따라 보건부문에서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높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제일 좋고 훌륭한것, 가장 귀중한것을 우선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탁아소, 유치원망을 늘이고 더 잘 꾸렸다.

보육원대렬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탁아소의 의사, 준의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각 시(구역), 군들에 있는 보육원양성소들에서는 수많은 보육원을 새로 양성하거나 재교육하였다. 그리하여 탁아소보육원수는 계통적으로 장성하였다.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이후 녀맹단체들에서는 보육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탁아소관리운영, 어린이보육교양에 더 많은 힘을 돌렸다.

한편 어린이들을 보다 튼튼히 키우고 애기어머니들이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각 공장지구와 협동농장들에 수천개소의 아동병동을 새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아과침대수와 소아과외래의사수 그리고 산부인과침대수를 훨씬 늘였다.

이리하여 1965—1966년도 어린이들과 녀성들에 대한 의료방조가 더욱 적극화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근로녀성들에 대한 무료해산방조가 더욱 원만히 해결되였다.

〔**의료기구 및 의약품생산**〕 1965—1966년에 제약및의료기구공업과 생약생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1965년 4월 내각결정 제24호 《생약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생약의 보호관리 및 수매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와 1966년 9월 내각비준 제661호 《제약및의료기구공업부문의 지도체계를 개편할데 대하여》에서 취해진 조치들에 따라 생약생산에서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을뿐만아니라 제약의료기구공업총국을 새로 내옴으로써 전국의 제약및의료기구공업과

생약부문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생약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생약의 보호관리 및 수매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약생산량을 높이고 그 품종을 확대하였다.

특히 더 많은 생약자원을 찾아내여 그것을 보호 증식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생약자원탐사대를 새로 꾸리고 과학 및 전문기술일군들을 배치하여 생약자원탐사사업을 강화하였다.

체 육

1965—1966년에 체육부문에서는 체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1964년 10월 22일)와 이를 구체화한 내각결정 제7호(1965년 2월 19일)를 관철하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체육지도체계를 새 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동시에 군중체육을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체질과 생산로동, 생활환경에 알맞게 개선하였으며 적지않은 종목들에서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발전시켰다.

〔**군중체육**〕 1965—1966년에 군중체육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는 군중체육사업의 내용과 형식, 실시방법을 현실발전에 알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특히 《국방집단체력경기》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완강한 투지와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그리하여 군중체육행사에서 국방체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고 2.8절, 4월 25일 항일유격대창건기념일,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국방체육으로 성대히 맞는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이 경기에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1966년에 평양시내 기계, 경공업, 교통운수, 보건, 상업류통부문들과 학교부문들에서 진행된 교종별 국방집단체력경기에는 50여만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여 체력을 단련하였으며 투지와 집단주의정신을 키웠다.

또한 군중체육사업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근로자들속에서 체육사업이 더욱 조직화된것이다.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조국통일달리기》, 우승기쟁탈 전국통신경기에는 1966년에만도 200여만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의 체육사업도 개선발전되였다.

농촌부문에서는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힘썼다.

한편 각지 공장, 기업소, 학교들에서 협동농장체육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협동농장들에 체육시설을 꾸려주었으며 다양한 체육종목을 보급하고 체육열성자들을 길러내는 등 농촌체육의 면모를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 기간에 학교체육사업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룩되였다.

1965년에 북청고등원예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계획에 따라 하루 한시간 과외체육사업과 과외 《체육의 날》을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체육사업을 운영해 나가고있으며 그 경험은 계속 전국에 일반화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학교체육사업에서 그것의 체계와 기술방법적지도리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우선 이 해에 수많은 모범학교들에서 산간지대, 평지대, 중간지대, 도시와 농촌 등 지대적조건과 학생들의 성별, 년령, 체질, 정서적특징에 맞게 체육운동의 내용과 형식, 수단, 실시방법을 개선하였다.

1966년 7월에 진행된 전국학교체육학술토론회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많은 가치있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1965—1966년에 계절체육사업이 광범히 조직진행되였으며 특히 수영보급사업이 활발하였다. 각급 학교들과 각지에서는 지방의 유휴자재를 동원리용하여 수영장을 만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수영을 광범히 보급일반화하였다.

평양시의 릉라도, 량각도, 반월도, 강원도의 송도원, 함남도의 서호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는 수영장들과 유영장들이 새로 확장 또는 정비되여 매일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해수욕과 수영, 조정, 단정, 욧트, 까노 등 체육으로 체력을 단련하였다.

겨울철 체육으로서는 스케트, 스키, 썰매, 휘거, 빙상호케이 종목들과 설상행군을 비롯한 집단적인 체육활동이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군중체육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의 또 하나는 집단체조가 종래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또는 큰 규모로 발전한 사실이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대집단체조 《혁명의 시대》는 그 규모와 사상예술성 및 체육적기교로 보아 우리나라 집단체조력사에서 최고수준에 이른 기념비적작품이였다.

이것은 지난시기 군중체육의 풍만한 터전우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작들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대걸작으로서 당창건20주년에 바친 훌륭한 선물이였다.

전7장1절(서막 종막포함)로 된 대집단체조 《혁명의 시대》에는 도합 4만 1천여명이 출연하였다.

집단체조는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선렬들의 간고한 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영광스러운 력사적화폭들을 체육예술적으로 재현하였으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그날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특히 이 집단체조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무용적요소들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완전히 체조적인 동작과 률동으로 일관시킴으로써 집단체조를 한걸음 더 전진시켰다. 그리고 배경대의 발전에서도 새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기간에 집단체조지도자대렬도 수많이 늘어 중앙이나 도에서 뿐만아니라 시, 군소재지들과 각급 학교단위들에서까지도 자체로 집단체조를 할수 있게 되였다.

1965년 한해동안에만도 년 1500여개의 각급 학교들과 시군들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되였다. 특히 함경남도 신포시 체육애호가들이 집체창작한 1만 5천여명의 집단체조 《동해의 노래》는 5차에 걸치는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항구도시 신포시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 집단체조는 군적수준에서 그 전형을 창조한것이였다.

〔**인민체력검정**〕 1965—1966년 인민체력검정에는 200여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개정된 인민체력종목과 기준에 합격하였다. 1966년도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보다 전면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까지 진행하던 인민체력검정종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체육구락부**〕 1965—1966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종목으로 수백개의 체육구락부가 조직운영되였는바 여기에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망라되여 해당 종목의 수업과 그 훈련을 받고있다. 교수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재들은 모두 국가부담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였다.

구락부생들에 대한 교수훈련은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유급체육지도원, 체육전문가들이 지도하고있다.

이리하여 체육구락부에서는 매년 유능한 선수후비를 수많이 길러내고있으며 지방체육기술보급의 거점적역할을 놀고있다.

〔**체육기술**〕 1965년과 1966년은 체육의 대중화에 토대하여 체육기술이 한걸음 높이 올라선 자랑스러운 해들이였다.

녀자속도빙상, 남자탁구, 녀자배구, 축구, 녀자롱구, 륙상, 권투, 레스링, 유술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목들에서 우리 나라의 독특한 체육기술을 온세상에 시위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을 경탄케 하였다.

1965년에는 륙상을 중심으로한 70여개의 개별경기종목들에서 94명의 선수가 년 148회에 걸쳐 공화국기록을 돌파하였으며 1966년에는 궁술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한것을 비롯하여 14개종목에서 146명이 180회에 걸쳐 공화국기록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10개 종목에서 89명이 96회에 걸쳐 명수급기준기록을 돌파하였다.

〔**1965—1966년도 우리 나라 선수와 외국선수들간의 경기**〕 1965—1966년에 우리 나라 체육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아세아축구가네포를 비롯하여 일련의 국제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외국선수단과의 경기정형

—1965년도—

우리 나라 가네포위원회의 발기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축구가네포에는 우리 나라와 남부웰남해방청년련맹대표단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중국, 웰남, 캄보쟈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네축구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련맹전으로 진행된 9일간의 경기에서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은 한점의 실점도 없이 14개의 득점으로 5전 5승하여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6월 11일 동평양경기장, 우리 나라 제비축구선수단:인도네시아국방축구선수단, 성적 4:2

6월 13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모란봉축구선수단:인도네시아국방축구선수단, 성적 6:0

6월 16일 개성시종합경기장, 우리 나라 2.8축구선수단:인도네시아국방축구선수단, 성적 10:0

6월 27일 평양시체육관, 우리 나라 모란봉녀자롱구선수단:쏘련《메. 메. 메》녀자롱구선수단, 성적 63:58

7월 5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2.8녀자롱구선수단:쏘련《메. 메. 메》녀자롱구선수단, 성적 51:53.

8월 22일 함흥시경기장, 우리 나라 기관차축구선수단:웰남축구선수단, 성적 1:0

8월 29일 개성시경기장,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웰남축구선수단, 성적 1:1

9월 3일 평양시체육관, 우리 나라 2.8녀자배구선수단:로므니아청년종합녀자배구선수단, 성적 3:0.

9월 5일 평양시체육관, 우리 나라 압록강녀자배구선수단:로므니아청년종합녀자배구선수단, 성적 3:0

9월 9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로동자녀자배구선수단:로므니아청년종합녀자배구선수단, 성적 3:0

10월 5—9일 평양학생소년궁전체육관(5일)과 모란봉경기장(9일)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과 캄보쟈왕국체육대표단선수들과의 탁구, 롱구, 배구 공동훈련

10월 24일 평양시체육관, 평양시체조선수단: 쏘련(백로씨야)체조선수단, 성적 남자 1위 평양시팀, 2위 백로씨야팀, 녀자 1위 평양시팀, 2위 백로씨야팀

—1966년도—

4월 19—27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선수단:로므니아뿌꾸레슈띠축구선수단. 성적 1차경기는 압록강선수단이 1:0, 2차경기는 모란봉선수단이 4:0

8월 16—31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선수단:웰남청년축구선수단과 3차의 경기를 진행. 성적 1차경기 압록강선수단이 4:0, 2차경기 기관차선수단이 1:2, 3차경기는 2.8선수단이 3:1.

9월 6—21일 평양학생소년궁전, 우리 나라 녀자배구종합선수단:쏘련녀자배구선수단과 3차의 경기를 진행, 성적 3:2, 3:1, 3:1.

10월 25일—11월 2일 모란봉경기장,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웽그리아제2축구종합선수단, 2차에 걸쳐 경기 진행.

11월 7—16일 평양학생소년궁전,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로므니아탁구선수단, 2차에 걸쳐 경기 진행, 성적 5:4, 5:3,

12월 14—28일 평양시체육관, 평양청년탁구선수단:쏘련 로련탁구종합선수단, 1차경기—남자단체전에서 우리 나라선수단이 1조 5:3, 2조 3:0, 2차경기—남자 단체경기는 우리 나라 선수단이 5:3, 남자개인경기에서 1, 2, 3위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차지하였다.

남자 복식경기에서 1, 3위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의 국제체육경기참가정형

—1965년도—

세계녀자속도빙상선수권대회 (2월 6—7일, 핀란드) 성적—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우리 나라 제2위, 개인순위에서 제5위, 제8위, 제13위.

제28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4월 15—25일, 유고슬라비아), 성적—단체에서 우리 나라 제3위.

반둥회의 10주년 기념체육행사 (5월, 인도네시아) 성적—우리나라 롱구 제2위, 력기 제1위,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모범유술경기 진행

국제녀자배구경기(6월, 쏘련) 성적—우리 나라 선수들 일본종합팀과 뽈스까청년팀을 각각 3:1로, 쏘련청년종합팀을 3:0으로 이김.

베이징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8월 1—9일, 중국) 성적 우리나라 남자 제2위, 녀자 제3위.

1966년도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아세아지역예선경기(11월 21일, 24일 캄보쟈수도 프놈뻰). 성적—우리 나라팀이 오스트랄리아팀과 대전하여 승리

—1966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 기간에 캄보쟈의 수도 프놈뻰에서 진행된 제1차 아세아가네포경기에 우리 나라에서 18개 종목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30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33개, 계 103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의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륙상—남자 400m 2위, 800m 2위, 1,500m 1, 3위, 5,000m 1, 3위, 10,000m 1, 2위, 마라손 1, 2위, 포환 1, 2위, 높이뛰기 3위, 너비뛰기 3위, 봉고도 1, 2위, 3단도 3위, 4×400계주 2위, 창 1위,

녀자 100m 2위, 200m 1, 3위, 400m 1, 3위, 800m 1위, 80m 장애 2위, 포환 3위, 원반 2위, 높이뛰기 2위, 너비뛰기 3위, 5종경기 3위, 4×400계주 2위.

체조—남자 단체 2위, 녀자 단체 2위.

남자 개인 륜 1, 2위, 평행봉 2위, 안마 3위.

자전거—108km 남자 단체도로경주 3위, 200km 남자 개인도로경주 3위, 24km 녀자 도로경주 2, 3위, 54km 녀자 도로경주 1, 2위,

롱구—녀자 2위

배구—녀자 1위, 남자 2위,

축구—1위

탁구—남자 단체 2위, 녀자단체 2위, 남자 복식 3위, 녀자 복식 3위.

권투—51kg급 1위, 54kg급 3위, 57kg급 1위, 67kg급 1위, 71kg급 2위.

력기—52kg급 1위, 56kg급 2, 3위, 62.5kg급 3위, 67.5kg급 3위, 75kg급 2위, 90kg급 1위, 90kg이상급 1위.

레스링(자유형)—52kg급 1위. 57kg급 2위. 63kg급 1위.

레스링(고전형)—52kg급 3위.

유술—56kg급 2위, 68kg급 1위, 80kg급 1위, 80kg이상급 2위.

격검—남자 에뻬 1위, 후루테 2위.

사격—남자 단체 50m 자유권총 2위, 남자 단체 25m 속도권총 1위, 녀자 단체 50m 소구경보총 2위, 녀자 단체 50m 소구경보총 복사자세 3위, 남자 개인 50m 소구경보총(복사) 3위, 50m 자유권총 2위, 25m 속도권총 2위, 3위, 녀자 개인 50m 소구경보총 3위,

궁술—녀자 단체 3위.

수영—녀자 자유영 100m 3위, 200m 3위. 녀자 배영 100m 3위, 200m 3위, 녀자 나비영 200m 2위, 100m 3위, 녀자 혼영 200m 3위. 녀자 4×100m 자유영 2위, 녀자 4×100m 혼영 2위,

조정—1인조정 2위, 2인조정 3위, 4인조정 2위, 8인조정 1위.

우리 나라 속도빙상선수들은 2월 18일부터 19일 기간에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임에서 진행된 세계녀자속도빙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구라파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종합 2.6위, 1,500m 1위, 1,000m 2위, 3,000m 3위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대학생유술선수단은 6월 21일부터 27일 기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수도 쁘라하에서 진행된 세계대학생유술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63kg급에서 1, 3위, 80kg급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은 7월

12일부터 30일 기간에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제8차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딸리아선수단과의 경기에서는 1:0으로 이겼다.

칠레선수단과의 경기는 1:1 무승부, 다음 쏘련선수단과의 경기를 거쳐 준준결승에 올라가 5~8위권내에 올라섬으로써 우리 나라 축구기술을 온세계에 떨치였다.

우리 나라 남녀탁구선수들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 기간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제탁구초청경기에 참가하여 남자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일본선수단을 물리치고 2위를, 녀자선수단들은 단체경기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1966년에 우리 나라 집단체조전문가들이 캄보쟈와 꽁고(브)에, 우리 나라 축구전문가들이 캄보쟈에, 우리 나라 유술전문가들이 기네와 꾸바에 각각 파견되였다.

출 판 보 도

우리 나라의 신문, 잡지, 통신, 방송, 도서 등 매개 출판보도기관들은 질서정연한 자기의 체계를 가지고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출판보도활동은 출판물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의 전통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출판정책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항상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1966년 11월 1일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전체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관지이며 위력한 사상적기수인 《로동신문》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날 《로동신문》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모임이 있었다.

이 날 모임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로동신문》창간자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로동신문》전체 기자, 편집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1945년 11월 1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 《로동신문》의 전신인 《정로》의 창간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생활에서와 우리 나라 출판력사에서 중요한 사변이였으며 그것은 합법적인 당출판물을 창간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과 념원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혁명적출판물을 가지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으며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인 사상적기수인 《로동신문》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조선근로대중의 의사의 진정한 대변자이다.

《로동신문》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시종일관 견결히 투쟁하였다. 신문은 특히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로 대중을 교양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적선전선동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로동신문》의 20년간의 력사는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에 대한 년대기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한 위대한 업적에 대한 찬란한 기록이다.

1966년도에도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와 《민주조선》, 《소년신문》 그리고 《근로자》, 《조선녀성》은 각각 창립,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였다. 이 통신, 신문, 잡지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지난 20년간에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사상과 의지로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한 자기의 빛나는 행로들을 총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소년신문》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통신〕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는 통신보도기관으로서 국내 및 대외보도사업을 진행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등 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 영문방송,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방향 프랑스문방송, 구라파방향 로문방송 그리고 국내 각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방송을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 몽골, 로므니아, 중화인민공화국, 쏘련, 알바니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뽈스까, 꾸바, 기네, 인도네시아 통신사들과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또한 1965년에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통신사(6.1), 아랍련합공화국의 멘통신

사(11.8), 1966년에는 버마통신사(7.23)와 보도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방송**〕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내 및 대외 방송을 조직한다.

평양시를 비롯한 직할시, 도, 시, 군 소재지에 있는 지방방송국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면서 해당지역의 생활을 소개하는 자체 방송도 조직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54년 11월 29일에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알바니아, 벌가리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 몽골, 뽈스까, 웰남민주공화국, 웽그리아, 꾸바, 일본, 아련, 인도네시아의 방송국 및 단체들과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신문**〕 우리 나라에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비롯한 당 및 정부 기관지들과 함께 사회단체기관지, 기타 각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등 여러종의 신문들이 발행되고있다.

1966년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하고있는 주요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사 발행.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사 발행.

《평양신문》—평양신문사 발행.

《로동청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청년사 발행.

《로동자신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자신문사 발행.

《농업근로자》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농업근로자사 발행.

《교원신문》—보통교육성기관지, 교원신문사 발행.

《문학신문》—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문학신문사 발행.

《소년신문》—사로청출판사 발행.

《평양타임스》(영문) —외국문출판사 발행.

〔**잡지**〕 1965—1966년에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과학부문잡지, 《수학과 물리》, 《금속》을 비롯한 자연기술과학부문잡지, 《조선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새세대》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많은 정기간행물이 발행되였다.

1966년말현재 발간되고있는 주요잡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부문잡지

《근로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사 발행.

《천리마》—군중문화출판사 발행.

《조선녀성》—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조선녀성사 발행.

《새세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학생잡지, 사로청출판사 발행.

《조선》(월간화보)—조선화보사 발행.

《인민교육》, **《기술과학》**—보통교육성기관지, 교원신문사 발행.

《력사과학》—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기관지, 사회과학원출판사 발행.

《철학연구》—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기관지, 사회과학원출판사 발행.

《경제연구》—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기관지, 사회과학원출판사 발행.

자연기술과학부문잡지

《수학과 물리》, **《생물학》**, **《지질과 지리》**, **《전기》**, **《금속》**, **《분석화학》**, —과학원 각 연구소기관지, 과학원출판사 발행.

《건축과 건설》—국가건설위원회 및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건설출판사 발행.

《조선의학》—보건성기관지, 의학출판사 발행.

문학예술부문잡지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문예총출판사 발행.

《조선미술》—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예총출판사 발행.

《조선음악》—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문예총출판사 발행.

《조선예술》—조선연극인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문예총출판사 발행.

《조선영화》—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문예총출판사 발행.

대외선전부문잡지

《조선》—(화보—로문, 중문, 영문 프랑스문, 일문), **《오늘의 조선》** (문, 프랑스문, 일문), **《새조선》**(문, 로문)—외국문출판사 발행.

《조선무역》(로문, 영문)—무역출사 발행.

《조선우표》(영문)—체신출판사 발

이 밖에 **《남조선문제》**, **《고고**속》, 《화학과 화학공업》, **《우리** 무》, 《새희망》, **《어문연구》**, **《자연**호》, **《과학원통보》**, **《농업과학원**보》, **《의학과학원학보》**, **《건설과학**학보》, **《교육과학원학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잡지들이 발행되고다.

〔**도서**〕 1965—1966년에 도서관발간사업에서는 《김일성저작집》(1)과 《현정세와 우리 당파업》, 《청소년사업에 대하여》비롯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문헌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전들이 출판되였다.

또한 《혁명선렬들의 생애와 동》(2권), 《마동희동지의 생애와 활동》, 항일투사의 수기 《밀속의 병원》을 비롯한 혁명전통에 관한 교양자료들과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투쟁실기 《영광스러운 명의 길에서》를 출판하였으며 4.19용사들과 3.24, 6.3 투사들 그리고 해방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용감하게 싸운 남조선애국자들의 투쟁경험을 묶은 《항쟁의 길에서》가 출판되였다.

또한 정치리론도서들과 소설, 평론집, 각종 예술도서 등 문예저돌도 출판되였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정 치

1965—1966년에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를 반대배격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은 보다 앙양되였다. 그로인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는 보다 더 심화되였다.

1965—1966년에 미제는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서의 남조선을 전쟁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일제를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는 동시에 괴뢰군의 대량적인 남부윁남 《파병》을 다그쳤다.

1965년에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의 결속을 다급히 서둘러 조일량국인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조작했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미제와 일본사또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쌍무적군사협정들을 통한 사실상의 3각군사동맹이 형성됨으로써 미제를 등에 업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였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며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에서의 제놈들의 침략전쟁에, 우선 윁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 손쉽게 동원하기 위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윁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에 1965—1966년에 남조선을 본격적으로 직접 끌어들였으며 남조선을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기지로 리용하고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그 어느 괴뢰들보다도 먼저, 그 어느 추종국가들보다도 많은 병력을 남부윁남의 전쟁터에 밀어넣음으로써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이와함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1965—1966년에 파쑈적폭압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놈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 개악하는 한편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놈들은 《반공》의 간판밑에 파쑈적폭압의 예봉을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렸다. 또한 장기집권을 망상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1967년 괴뢰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1965—1966년에 제놈들의 정치적반대파세력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떠한 파쑈적탄압책동으로도 혁명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더우기 1965—1966년에 일제의 재침략책동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윁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혔고 사회적불안은 더한층 증대되였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 빈궁과 무권리를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파쑈도당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1965—1966년에 남조선에서는 미일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을 박차고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일떠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1964년 6.3투쟁에 이어 1965년 2월부터 8월까지 실로 7개월동안에 걸쳐 《한일협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인민대중의 민족적의식은 더욱 각성되였다. 이러하여 1965—1966년에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그 회수와 참가인원수에 있어서나 그 규모와 투쟁형태들에 있어서 지난 해들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이와같이 1965—1966년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장성강화되였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진변되였다.

《한일협정》의 조작과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재침략

아세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위력의 장성과 민족해방투쟁의 발전, 특히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거듭된 심대한 참패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 이것들은 미제의 극동침략체계에 심대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켜 그것을 중심으로 침략적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여 극동침략체계의 위기를 수습하여보려는 속셈으로 1965년에 《한일회담》의 결속을 조급히 다그쳤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여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재침략을 서둘러나섰으며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여 위기에 빠진 괴뢰정권을 유지하며 저희놈일당의 장기집권의 야욕을 채우려고 급급하였다.

우선 《한일회담》을 결속짓기 위한 결정적인 책동은 1965년 1월 12—13일 워싱톤에서 있은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과 일제의 우두머리 사또간의 《회담》에서 꾸며졌다. 미제는 2월 16일 국무성극동부장놈을 보내여 《한일외상회담》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하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지시를 주고 《한일회담》을 속히 결속 짓도록 압력을 주었다.

그리하여 《한일외상회담》이 이해 2월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일제가 조선강점시기에 략탈하여간 《재산청구권》문제, 나라의 령해권과 남조선어민들의 생명선인 남해어장에 관한 《어업》문제 그리고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에 관한 《재일교포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등 《3대현안문제》를 도매금새로 흥정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옛상전인 일제와 주구 박정희매국도당간의 《기본관계》 즉 주종관계를 재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외상회담》은 또다시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한일회담》반대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피해가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였으며 2월 20일 부랴부랴 매국적《한일기본관계조약》에 가조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4월 3일 《재산청구권》, 《어업》, 《재일교포법적지위》 등 조선인민의 민족적판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눅거리흥정으로 떠넘긴데 대한 《합의요강》에 가조인을 하고 6월 22일에는 일제 반동들과 매국적 《한일협정》에 《정식조인》을 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8월 14일 괴뢰국회에서 날치기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2월 18일 일제와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제2의 《을사》매국조약인 《한일협정》을 발효시켰다. 이리하여 미제에 의해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이 《합법화》되였으며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 침략자들의 2중적인 지배와 예속하에 놓이게 되였다.

《한일협정》의 체결로써 남조선재침을 공개적으로 보장받은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하에 박정희역도를 길잡이로 삼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1보로 남조선재침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박정희반역도당은 미제의 조종하에 《원조》라는 명목으로 일제의 경제력을 끌어들여 그의 지반을 강화하는 토대우에서 정치군사적결탁을 촉진시키는 음흉한 방법으로 친일매국외교를 벌렸다.

1966년에 박정희매국도당과 일본반동정부사이에 벌린 《무역회담》, 《경제인회담》, 《한일경제각료회담》(9.8—9.10서울) 등은 그 모두가 남조선에 대한 일제독점자본의 침투, 기술 및 《보세가공》을 통한 경제적침투와 예속화방책들을 모의한것이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의 적극적인 친일매국정책으로 남조선에 침투한 일제독점자본은 벌써 확고한 침략적지반을 닦아노았다. 일제는 남조선에 100여개의 독점상사들을 꾸리고 상업차관과 직접투자, 《보세가공무역》 등의 형태로 이미 3억딸라에 달하는 독점자본을 투하하였다. 이 독점자본들은 남조선의 공업, 농업, 교통운수, 어업, 전력 등에 뿌리를 박기 시작하였으며 금융과 류통부문에까지 발을 뻗치고있다.

이러한 바탕우에서 1966년에 전일본반동수상 기시를 비롯하여 근 200명의 일본군국주의정상배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또한 일본반동정부는 남조선에 《주재무관》을 파견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미 박정희괴뢰도당은 1965년 11월 7일 《일본주재무관》을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일제와 박정희매국도당사이에는 사실상 정치군사적으로 결탁되여있으며 미제가 목적한바 침략적군사동맹인 《미일한공동체제》는 실질적으로 조작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잔당들이 《제2차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상하고 조선을 침공할것을 예견하여 작성한 《3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등은 모두가 이러한 침략적군사공동체제에 기초한것이며 일제의 침략적무력인 《자위대》우두머리들이 《38도선은 극동군사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떠버리고있는것도 바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욕을 드러낸것이다.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은 또한 《천리교》, 《창가학회》 등 군국주의적종교와 반동문학예술을 통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를 받들어 1965년에 매국적 《한일회담》의 결속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잔당들과의 결탁을 기초로 하는 아세아에서의 새로운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앞잡이로 적극 복무하여온 박정희괴

뢰도당은 《한일조약》체결을 계기로 1966년에 그 책동을 더욱 로골화시키였다. 그리하여 주구박정희역도는 《말레이시아》, 타이, 대만 등지로 싸다니 (2.7—2.18) 면서 미제상전이 시키는대로 웰남침략전쟁에 대포밥을 보낼것과 침략적《반공》군사동맹인 《아세아의 지역적집단안전보장체계》의 조작을 짖어댔고 서울에서는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를 비롯한 각종 잡다한 《회의》들을 벌리고 미제의 지시를 집행하기에 날뛰였다.

괴뢰군의 웰남파병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서 날로 걷잡을수 없는 참패를 당하게 되자 오래전부터 이 침략전쟁을 소위 《국제화》하며 그에 제놈들의 《동맹자》들을 끌어들일것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 흉계는 그의 다수 《동맹자》들로부터도 랭대를 받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제놈들의 직접적인 지휘명령계통하에 있는 남조선괴뢰군을 가장 값싸게 또 쉽게 동원할수 있는 대포밥으로 간주하고 그를 본격적으로 웰남침략전쟁에 밀어넣기로 하였다.

또한 박정희반역도당은 미제상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로부터 얻은 괴뢰 《대통령》감투를 유지하려고 1964년 9월 첫 《파병》으로서 남조선괴뢰군 1개 이동외과병원 130명을 몰아냈다.

계속하여 박정희반역도당은 1965년 1월 26일 괴뢰국회에서 괴뢰군 《파병동의안》을 조작하여 《비둘기부대》 2천여명을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내몰았다.

이에 앞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박정희반역도당의 《청부전쟁》을 반대배격하는 기세가 높아져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였는바 이에 당황한 미제는 서울주재 《대사관》대변인이라는놈을 시키여 《웰남파병은 원래 미국이 요청한것》이라는 상례를 벗어난 《성명》을 발표 (1.21)하는 등 발광적인 소동을 피웠다.

그리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5월에 또다시 《보충병력》이란 명목으로 괴뢰군 416명, 8월에 1개 해병려단 (《청룡부대》)과 1개 륙군사단(《맹호부대》)을 웰남에 대한 미제침략의 탄알받이로 몰아냈다.

이와같이 미제의 총알받이로 남부웰남침략전쟁에 내몰린 괴뢰군수는 1965년말현재 약 2만명으로부터 1966년말현재 약 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군사기지일 뿐아니라 웰남침략의 대포밥공급기지로 전락되였으며, 민족의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힌 비분의 땅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반역도당의 천인공노할 범죄적 《청부전쟁》을 반대배격하여 일떠서고있다.

파쑈적폭압의 가일층의 강화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은 《한일회담》의 결속과 괴뢰군의 웰남파병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정부》투쟁을 막아보려고 이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기에 날뛰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1967년에 날조할 괴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파쑈적폭압을 가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이른바 《승공통일》의 간판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렸다.

1965년초에 미제상전에 불리여간 괴뢰 《중앙정보부장》이란 놈은 미중앙정보국 (씨아이에이) 장관, 국무차관 해리맨,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번디 등 미제의 1급형리들로부터 2주일간에 걸쳐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할 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4—5월에는 룻지, 그린, 로스토우 등 미제의 사환군들이 직접 서울에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지시를 주었으며 뒤이어 5월 16—21일에 미제는 주구 박정희역도를 미국에 불러들여 《한일타결》, 웰남파병, 인민탄압을 위한 일련의 지시를 주었다. 이와함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는 괴뢰군경들에게 학생들의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최루탄, 연막탄 및 최신장비들을 공급하였다.

특히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기어코 성사시키려는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은 《한일회담》반대투쟁에 일떠선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하여 종전의 이른바 《먼저어루만지고 후에 탄압》하는 《방법》으로부터 1965년에는 애당초부터 총검에 의한 정면탄압으로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시위군중 10명에 1명이상의 완전무장한 괴뢰군대와 경찰을 대치시켜 최루탄, 연막탄을 퍼부었다.

일본반동정부 외상 시이나의 서울도착 (2.17)과 서울 《한일외상회담》 (2.18—20)에 대비하여 《준비상경계태세》를 실시하였고 4월 19일 괴뢰군국방부는 《위수령》을 내리고 무력으로 학생들의 투쟁은 탄압하였다.

8월 투쟁시기에 와서는 새로이 2개대대의 괴뢰군병력을 탄압에 내몰아 25—26일에 고려, 연세대학을 습격한후 26일에는 제6사단을 서울에 끌어들이고 《위수령》을 발동하여 사실상 계엄상태로 들어갔다.

매국역적박정희도당은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시위에 참가한 학생, 청년, 교수들을 수색, 구금하는데 날뛰였다. 10월 18일현재 각대학 학생회 회장, 《시위주동학생》 81명을 비롯해 수많은 학생들을 잡아가두었다.

또한 《한일협정》을 반대배격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9.17)를 비롯한 각 대학내 학술연구단체와 일련의 학생조직 및 단체들을 비법화하였으며 학원의 자치활동마저 억압하기 위해 파쑈적인 《대학정상화방안》을 조작(9.18)해냈다.

또한 20여명의 량심적인 교수들을 《정치교수》라는 딱지를 붙여 교단에서 내쫓았고 량심적인 교수들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나아가서는 량심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과 출판사들의 강제페쇄를 비롯해서 취재기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집단테로와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와함께 박정희파쑈도당은 괴뢰정부 《내무부》안에 《경찰행정자문위원회》(10.15), 《문교부》안에 《데모수습대책위원회》 등 새로운 폭압기구를 설치하고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대학총장들을 파쑈분자로 갈아채웠다.

한편 이미 만들어낸 파쑈적 《법령》들을 더욱 개악하는 길에 들어서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10.22), 《신문통신 등 등록에 관한 법률》(11.16)등을 개악하였으며 파쑈적인 《민방위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민방위법》조작책동은 일련의 《반공》소동을 배경으로 하여 《임전태세의 강화》책동의 한고리로 추진되였다. 《민방위법》은 《전시를 가상》한 《국가총동원법》의 변종으로서 《민간방위》라는 명목밑에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을 강화하며 일제통치시기의 《경방단》과 같은 《민간방위활동대》를 행정말단인 리, 동단위에까지 설치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파쑈체제를 보강하고 폭압력량을 확대할 목적밑에 《국가공무원법》을 고치고 괴뢰정부 《장관》들을 《민주공화당원》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류례없이 강화하였는바 괴뢰법원 통계에 의하면 1965년에 《구속령장》발급건수는 1964년보다 4만 5천 118건이 더 많은 16만 5천 809건으로 늘어났다.

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은 파쑈적폭압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2개의 경찰서와 209개의 지서, 파출소 및 출장소를 더 내오고 경찰인원도 이해에 5천 800여명을 늘이였다.

특히 혁명력량에 대한 《사찰》기구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최근년간에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급격하게 장성하고 로동운동이 앙양되여가는 조건에서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은 정보사찰활동과 파쑈적탄압의 주되는 예봉을 여기에 돌렸다. 또한 학원과 진보적학생들에 대한 탄압 및 학생운동의 분렬와해를 책동하였으며 《불순기사게재》, 《시설불충분》 등의 구실을 붙여 언론출판물을 봉쇄하려고 날뛰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1967년에 꾸며낼 《총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중간 혁신정당의 진출을 억압봉쇄하면서 보수야당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1965—1966년에도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한사코 방해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박정희매국도당의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반대하며 민족주체적통일을 요구하는 지향이 날을 따라 높아갔다.

남조선반동지배층 내부모순의 격화

남조선반동지배층들은 미제에게 제각기대로의 충성을 보이기 위한,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권쟁탈과 보수정당의 령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개싸움을 벌렸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는 매국적인 박정희괴뢰도당은 1967년 괴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1965—1966년에 파쑈통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세력확장과 어용단체 및 지방행정기구의 정비 등 장기집권을 위한 일련의 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로 말미암아 정치활동을 억제당한 야당파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장기집권책동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더우기 야당파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인민들의 반미, 반파쑈적투쟁기세에 편승하여 1967년 괴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정권을 점탈하여보려고 《민주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벌렸다.

1965년에 《한일협정》반대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편승한 야당파들은 박정희깡패의 여당에 대한 공격을 일층강화하여 격렬한 충돌을 빚어내고 괴뢰국회의 기능을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야당파들은 직접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유세강연》, 《성토대회》 등을 통한 《원외투쟁》을 벌렸다. 야당파들은 1966년 3월이래 도합 64회의 《유세강연》을 벌리고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정책과 기만정책, 부정부패, 《일당독재》의 전횡 등을 폭로함으로써 박정희도당을 내몰고 저희들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아 보려고 하였다.

남조선지배층내에서는 여당 대 야당간의 알륵이 격화됨과 함께 보수야당사이에서도 서로 괴뢰정권을 차지하여보려고 심각한 싸움을 벌리였다.

1965년에 《민정당》과 《민주당》 두 야당파들은 《선거》에 대처하여 5월 3일 《민중당》으로 《통합》했다.

《통합》후 《민중당》은 지도권문제를 에워싸고 《민주》계, 《민정》계 사이에 분쟁을 거듭하였다.

6월 14일 《제1차 전당대회》에서 《민주》계에서 《대표최고위원》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민정》계의 윤보선을 두목으로 하는 《강경파》들이 탈당을 하고 나아가 《온건파》와 란투극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1966년 2월 15일 윤보선이가 중심이 된 《신한당》이 조직된후 《민중당》과 《신한당》은 1967년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대통령후보》를 내세우려는데서 량자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여당, 야당간에, 또는 보수야당호상간에 심화되여가는 싸움과 함께 보수정당내부의 파벌싸움도 심하게 벌어졌다.

박정희군사깡패들의 집단인 《민주공화당》내에서는 1965년에 이른바 《주류강경파》니 《주류온건파》니 《비주류파》니 하는 대립이 계속되다가 1966년에는 《신주류파》와 《신비주류파》로 갈라져 파벌싸움을 벌리였으며 그것은 더욱더 심각하여져갔다.

《민중당》도 당의 요직분배와 《대통령립후보》추천을 둘러싸고 《주류》계렬과 《비주류》계렬로 갈라져 싸웠다.

《신한당》내에서도 《주류파》와 《비주류파》사이에 당내파쟁이 지속되여 그칠사이가 없었다.

괴뢰정권을 쟁탈하기 위한 끊임없는 여당, 야당간의 개싸움과 남조선반동보수지배층내의 분쟁은 식민지괴뢰통치의 추악상을 들추어내고있을 뿐아니라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의 정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의 앙양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의 강화발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남조선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반면에 극소수의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고립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더욱 악랄해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 파쑈적폭압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일방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및 민족부르죠아지 등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간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인민들속에서 재생활, 재정치와 자주적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1965—1966년에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 남조선로동자들은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투쟁과정에서 로동자들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속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장성강화되였다.

1965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규모는 242건에 29만 8천여명을 망라하였으며 그 투쟁은 점차 경제적요구에 정치적요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반제반파쑈적기세를 더욱 높이였다.

이해에 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미제침략군의 보급작업에 종사하고있는 《외국기관로조》산하 로동자와 괴뢰정부의 《관수물자》하역작업에 종사하고있는 부두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전개한 투쟁건수는 1963년의 2.2배, 1964년의 1.4배로서 5.16이후 4년간의 그것에 대등할만큼 급격히 장성하였다.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수도 1964년의 1.5배로 장성하여 전체로동자투쟁참가자수의 30%에 해당하며 투쟁규모도 더욱 확대되였다. 5월 1일 단체계약권과 쟁의권을 인정치 않는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적극적인 파업단행》을 결의한 《외국기관로조》산하 로동자들은 9일 《로동기본권수호궐기대회》를 열고 《쟁의권없는 한미행정협정은 결사 배격한다》고 웨쳤으며 14일 인천지부조합원들은 로동자들의 기본권유린을 획책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두목 존슨과 그 사환군의 반동적제안을 받아들이려는 박정희역적에게 날카로운 항의를 들이대였다.

또한 10월 1일 《외국기관로조미군기관로무단》산하 5천여명의 로동자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비취에게 결사의 자유와 로조지부의 인정을 요구하고 11월 25일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실력행사에 들어갈것을 결정하였으며 미제침략군당국의 위협공갈을 박차고 11월 27일 로동자들은 12월 15일을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하

여나섰다.

이에 앞서 10월 18일 경기도 부평지구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관 고용로동자 500여명은 차별대우를 반대하여 파업에 들어갔는데 미제침략군당국이 이들 전원을 해고할것이라고 위협해 나서자 이것을 반대하여 《외국기관로조》산하 기타 지부로동자 6천여명이 들고일어나 파업결의를 하고 미제침략군의 《보급작업》에 타격을 가해나섰다.

또한 인천,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 부두로동자 2만여명은 11월 10일 파업결의를 다지고 16일에는 인천부두로동자 650여명이 취업을 거부하여 괴뢰정부의 《관수물자》하역작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군산 (11.9—10), 조치원 (11.9), 론산 (11.9) 지구의 운수로동자들도 각각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결의해나섰으며 《운수로조》전라남도지구산하 광주시내 1천여명의 로동자들은 9월 21일이래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해오던 끝에 11월 19일 드디여 파업에 들어갔다. 1965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것의 하나는 《로동조합》의 조직과 《단체협약》체결을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요구가 한계단 강화된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진 한면을 보여주는것으로서 1964년중에 제기한 구호 및 요구중에서 민주주의적권리를 포함하는 정치적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지나지 않았다면 1965년에는 21.9%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반동적인 《로조》간부들의 로동운동에 대한 파괴분렬책동을 물리치면서 로동자들자신의 투쟁조직체를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다. 5월 《외국기관로조》산하 로동자들이 반동적어용 《로조》를 배격하고 자체의 투쟁조직체인 《기본권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한것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마산의 화신산업회사로동자들, 《외국기관로조》부평지부로동자들의 《하청반대투쟁위원회》, 부산철도로동자들의 《재산반환투쟁위원회》 등 독자적인 조직체를 만들고 투쟁하였다.

이와함께 1965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미제침략군기관 고용로동자들의 투쟁에서와 1965년에 진행된 5건의 파업실시가부투표의 그 모두가 절대파업찬성으로 끝난것 등에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완강성과 적극성을 띠고 전진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파업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4년에 22.9%였는데 1965년에는 36%로 장성하였으며 매개 파업투쟁의 참가규모는 860여명으로서 1964년의 약 4배로 늘고있다. 아울러 10월 18일 부평지부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부대내 청소로동자들에 대한 부산기지사령부 전체 외국기관종업원들의 동정파업기세, 광주시내 운수부문로동자파업에 대한 《대한통운회사》로무자들의 호응파업기세 등 호상 련대성과 행동통일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다.

1966년에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련쇄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하였다.

1월 미제침략군기관 및 일제독점재벌들의 상사에 고용된 로동자들과 서울시내 뻐스운전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로동자들의 투쟁은 2월이후에도 자동차운수, 석탄하역, 부두, 해상운수, 탄광 및 일부 제조공업부문 등에 파급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경기,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 각방으로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1월부터 3월까지 92건에 28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주로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 및 쟁의에 참가하였다. 그중 1월에는 44건에 13만 3천여명이였고 2월이후 3월중순까지는 48건에 14만 8천여명이였다.

이와같이 년초부터 거세차게 진출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확대강화되여 1966년도 투쟁총건수는 294건에 달하였으며 여기에 참가한 인원수는 56만여명으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것은 조선정전후—1966년기간에 남조선 로동운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출이였다.

그중에서도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가장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으며 다른 부문의 광범한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긍정적영향을 주었다.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미제침략군을 직접 상대로 1년이상이나 계속 완강히 전개되였다. 《로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인정, 부당해고자의 복직, 로동조건개선 등을 요구하여 1965년 6월부터 시작된 그들의 투쟁은 1966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 (40~65%), 퇴직금루진제의 실시, 가족수당지불을 요구하는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의 전반적투쟁으로 전변되였으며 특히 련대적인 공동진출이 강화되였다.

1월에 인천지구 1천 200여명의 미제침략군 유류공급 로동자들은 부평지구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경비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하여 무기한 동정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3만 5천여명의 전체 로동자들도 동정파업에 들어갈 투쟁태세를 갖추었다. 4월에는 파주지구 2천여명의 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이 문산지구 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의 파업에 공동투쟁으로 호응하였으며 7월에도 인천지구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이 부평지구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에 합류하여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1966년도 미제침략군

기관로동자들의 투쟁건수는 1965년에 비하여 2배로, 투쟁참가인원수는 7만명으로부터 20여만명으로 급격히 장성하여 1966년로동운동에 참가한 남조선로동자총수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또한 1966년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남조선에 다시 기여든 일제독점재벌의 상사에 고용된 로동자들과 웰남침략전쟁에 군수물자를 대고있는 《군납》기업체로동자들이 새로이 투쟁에 진출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9개의 일제독점재벌의 상사들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은 1월에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에 떨쳐나섰으며 2월 3일부터 쟁의에 들어갔다. 이 투쟁은 《한일협정》조작후 일제독점자본의 본격적침투가 시작되자마자 남조선로동자들이 이와 대결하게 된것으로서 중요한 정치적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웰남침략전쟁에 투입될 《군납품》을 생산하고있는 기업체로동자들은 로동시간연장반대, 임금인상과 일요일휴식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웰남침략전쟁과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이와함께 1966년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1964년 《12월쟁의》이후 일시 잠잠했던 전력, 석탄, 철도, 체신, 전매 등 13개 부문의 괴뢰 《정부관리기업체》로동자들이 투쟁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1966년에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과 서울을 비롯한 각 주요 도시들을 포괄하는 대중적투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해의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임금인상투쟁이 기본으로 되고있었으며 로동조건의 개선투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이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경제의 군사화 및 《자유화정책》, 특히는 저임금정책으로 인하여 로동자들의 생활처지와 로동조건이 극도로 악화된것과 관련된다.

1966년 1월—9월기간에만도 소비자물가는 16%, 세금은 평균 52%, 각종 료금은 25~300%나 각각 뛰여올라 로동자들의 한달동안의 최저생계비는 대체로 1만 4천원이였으나 제조공업부문로동자들의 한달 평균임금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에 불과한 4천 700원정도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은 가장 절박한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밀린 임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을 일층 강화하였던것이다.

이와함께 1966년도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이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됨으로써 정치적요구를 제기한 투쟁이 현저히 늘어갔다.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반대, 어용《로조》간부의 규탄, 8시간로동제의 실시, 단체협약체결 등의 요구가 광범히 제기되였으며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감독의 추방, 미제침략군의 탄압반대 등 반미적색채를 띤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 가혹한 착취와 압박,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고있는 로동자들은 《미국정부는 반민주주의적이며 치외법권적인 로무조항을 철폐하라》, 《남조선로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미군은 물러가라》는 반미적구호를 들고 투쟁을 벌렸다.

이해의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또한 밑으로부터의 행동통일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운동을 자주적이며 조직적으로 밀고나가려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였다.

로동자들 속에서는 관제《로조》의 상층어용간부들을 배척하는 기세가 높아졌으며 로동자들자체가 직접 투쟁을 조직전개하거나 반동적《로동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자주적투쟁이 늘어났다.

특히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부대 및 외국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 속에서는 자주적투쟁이 크게 증대되였다.

로동자대중의 행동통일과 밑으로부터의 자주적인 투쟁기세가 높아지고 이에 끌리여 어용《로조》하층간부들까지도 투쟁에 합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단위 기업소내에서의 행동통일뿐만아니라 같은 산업부문들간의 련대적투쟁과 각이한 산업부문 및 린접지역들간의 공동투쟁을 적지않게 조직전개하였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이 인천지구와 부평지구, 파주지구와 문산지구간에 련대적으로 동정파업을 줄기차게 전개한 사실, 자동차운수부문로동자 10만여명이 서울시내 6천여명의 뻐스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동정파업을 선언한 사실 등은 그의 대표적실례이다.

또한 1966년에 남조선로동자들은 적극적이며 치렬한 투쟁형태로써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1월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부평지구경비로동자들은 최루탄을 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720여명의 미군헌병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여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월에 미제침략군에 의한 부당해고와 민족적박해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단행한 파주지구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 1천 100여명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총창으로 찌르면서 달려드는 미제침략군놈들의 류혈적탄압을 박차고 미제침략군병영내에 밀고들어가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투쟁들은 최근년간의 남조선로동운동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완강한 투쟁이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치렬

해지고 완강해짐에 따라 투쟁형태에서 파업투쟁이 차지하는 비중과 요구조건의 관철률이 높아졌다.

이해의 남조선로동운동의 추이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하에서도 로동자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장성발전하였으며 투쟁과정에서 로동자들의 계급적의식과 민족적각성이 제고되면서 점차 더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농민들의 투쟁】 농민들은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가혹한 수탈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5—1966년에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이 장성한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농업시책과 수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빈고농을 비롯한 농민대중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였으며 그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불만과 반항이 점차 증대된데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기간 1961—1966년에 남조선빈농들의 실질소득은 25%가 낮아지고 농민부채총액은 182억원으로부터 500억원으로 늘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농토략탈, 농지세의 증대, 악랄한 저미가정책, 영농자재비의 인상, 농사자금의 강제회수, 쌀, 곡물, 담배, 고공품 수매대금지불의 지연 등은 농민들의 불만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진출을 직접 촉진시켰다.

쌀을 비롯한 곡물의 수매가격이 낮은 반면에 1966년 한해동안에 농지세는 30～40%, 화학비료, 농약, 농업자재비는 6%가 오르고 소비자물가는 16%, 관공료금은 25%나 오른것으로 하여 농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화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1966년 10월말까지에만도 강제매상으로 농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들씌우면서도 농민들이 농사자금을 내지 못한다하여 6만 3천점의 살림살이도구에 《차압》을 실시하며 지어는 농사철에 부림소까지 강제 《차압》하는 등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괴뢰정권과 그의 수탈도구인 관제어용단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분격을 가일층 촉진시켰다.

이로부터 1965년에 남조선농민들은 영농자금의 강제회수반대, 잎담배생산에 대한 보상금지불, 미곡매상가격의 인상 등을 요구하여 박정희괴뢰도당과 근기있게 싸웠다.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과 소양면의 농민 370여명이 3월 11일 전주 《전매청》에 몰려가 잎담배생산에 대한 보상금의 청산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린것은 그 한 실례이다.

1966년 남조선농민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 괴뢰정권과 관제어용단체의 농토략탈을 비롯한 각종 수탈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이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선 남조선농민들은 괴뢰정권의 반동적농업시책과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3월 충남 서산군내 2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당국의 《농경지정리사업》을 반대하여 10여일간 강력히 항거하였으며 60여명의 부녀자들은 불도젤앞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완강히 싸웠다.

4월 경북 대구시주변 5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 경북도청이 진행하는 약 200정보의 농경지정리공사가 약속한 기일보다 늦어졌기때문에 보리파종기를 놓쳤고 모자리설치도 곤난하게 되였으므로 이미 손실을 본 보리 3천여섬을 변상하라고 주장하여 괴뢰도당과 완강히 싸웠다.

4—5월 경남 진주지구내 2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이 남강땜공사를 하겠다고 빼앗아간 농경지 15만평에 대한 땅값보상과 농민들이 타지방에 이주하여 영농할수있는 비용과 조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두달동안에 4～5차나 롱성, 시위투쟁을 벌렸다. 농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한때 공사는 중단되였으며 괴뢰경찰까지 동원되여 수습하려고 했으나 농민들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물러나지 않기로 결의하고 완강히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경북 문경군내 2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이 농경지정리공사장에 4개월동안이나 농민들을 내몰고도 로임을 지불하지 않는데 분격하여 괴뢰 문경군청에 몰려가서 사무실을 완전히 점거하고 《배고파 못살겠다》, 《왜 로임을 안 주느냐》고 웨치면서 완강히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5월 경북 달성군내 농민들은 자체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괴뢰도당에 의하여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기 위하여 《토지를 반환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 대구시청으로 몰려가 달려드는 괴뢰경찰들과 맞서 싸우면서 《빼앗은 땅을 당장 돌려달라》고 웨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6월 전북 부안군내 농민들은 괴뢰 전북도청에 몰려가서 《배고파 못 살겠다》, 《살길을 마련하라》고 웨치면서 시위하였다.

7월 강원도 춘성군 의암땜수몰지구의 농민들은 《농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괴뢰도당의 의암땜건설사무소에 몰려가서 1년이상이나 밀어오는 손해배상을 내라고 웨치며 책상과 전화기를 파괴하고 직원들의 멱살을 쥐여흔들면서 롱성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10월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전북도내 잎담배경작농민들은 괴뢰전매청이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더우기 외상으로 잎담배를 받치라는것을 반대하여 《수납》가격 30%인상과 부당한 등급사정방법을 걷어치울것과 현금《수납》을 요구하여 련대적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해의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농민수탈기관인 박정희도당의 어용 《농업협동조합》 및 《토지개량조합》 (수리조합)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농민들 자신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을 내오려는 시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냈다는것이다.

2월 전남 광산군내 300여명의 농민들은 궐기대회를 열고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과중한 수세부담을 막기 위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인 수리조합을 조직할것을 완강히 요구하여 나섰다.

5월 경북 의성군내 농민들은 어용 《토지개량조합》이 정당한 리유없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데 격분하여 식칼과 마치를 들고 《조합》에 몰려가서 사무실을 까부시고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고 웨치며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12월 전북 김제군내 농민들은 어용 《토지개량조합》이 진행하는 저수지공사로 인한 수몰지피해보상을 요구하여 공사장의 불도젤에 인분, 모래, 흙 등을 퍼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조합》 사무실에 몰려가서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12월 경남 밀양군내 농민들과 부녀자들은 어용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착취하는 기관이다》라고 폭로규탄하면서 시위를 단행하고 《조합》사무실을 모조리 까부시며 완강히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이와함께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과 그로 인한 농토략탈, 파괴행위를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경북 경산군내 농민들은 미제침략군통신대대가 이곳에 주둔하면서 군사시설을 하기 위하여 농경지 15정보를 마구 파헤치며 보리농사를 망치게 하고있는데 분격하여 당장 피해를 보상하라고 완강히 투쟁하였다.

9월 경기도 파주군내 농민들은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는 리유로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 남조선 강점미제침략군기지로 넘겨주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9월 전남 무안군내 300여명의 농민들은 땅을 빼앗아 군용비행장을 만들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에 격분하여 괭이와 낫을 들고 괴뢰도당을 규탄하면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1965—1966년에 남조선농민운동은 현저히 장성강화되였는바 그 투쟁건수는 1961년에 비해 3.2배로 늘어났다. 농민투쟁의 장성강화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들어대는 기만적인 《농업근대화》책동에 타격을 주었으며 농촌에서의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토대를 뒤흔들어놓았다.

【어민들의 투쟁】 1965—1966년에 남조선어민들도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5년에 남조선어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선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황금어장》을 일제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1966년에 들어와서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은 더욱 장성하였다. 1월 부산지방어민들은 매국적인 《한일협정》조작후 12마일 《전관수역》선포로 《황금어장》을 잃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고있는데 격분하여 궐기대회를 열고 박정희괴뢰정권의 반동적인 어업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특히 3월 상어연승어로작업을 하는 부산지구어민 1천여명은 《상어연승어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일어업협정》조작후 밀물처럼 쓸어드는 일제의 어선때문에 상어어장을 빼앗겨 1천여명의 어민과 그의 가족 1만여명이 다 죽게 되였으니 《살길을 마련하라》고 박정희괴뢰정권에 들이대고 완강히 투쟁하였다.

또한 4—5월 전남 완도 및 충남 서산군 어민들은 어항에 방파제가 없기때문에 어선들과 지어 쪽배까지도 륙지에 끌어올려 보관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괴뢰당국에 대해 방파제를 시급히 구축할것을 요구하여 싸웠다.

7월 경남 충무시, 삼천포시 어민들은 현재의 원시적인 무동력선을 가지고는 일제어선들과 맞설수 없다고하면서 박정희괴뢰정권의 반동적어업시책을 강력히 반대하여나섰다.

그리고 11월 강원도 강릉지구 어민 900여명은 포구하나 없는 모래판해안에서 이 이상 더는 령세어업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괴뢰당국에 대해 시급히 강릉항을 축조할것을 요구하여나섰다.

이처럼 1966년도에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은 현저히 장성강화되였다.

【학생들의 투쟁】 1966년도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65년 8월 투쟁이후 파쑈탄압의 예봉을 청년학생들에게 돌리고 학생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한편 《학칙》을 개악하여 학생들의 일체 자치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만 1천 700여명의 진보적인 학생들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애국의 일념에 불타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단히 력량을 축적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1966년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우선 학원의 파쑈화와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학원투쟁으로 전개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매국적인 《한일협정》반대투쟁으로 《처벌》된 학생들의 복교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

할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 투쟁 (3월), 서울 선린상업고등학교와 강원도 평창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질교원과 학교당국의 부정행위를 반대한 투쟁 (3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6.3 봉기 2주년을 맞이하여 4.19기념탑앞에서 《학원자유수호성토대회》를 열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탄압과 학교당국의 간섭을 반대한 완강한 투쟁, 특히 숙명녀자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학원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주구인 민족반역자 김근의 처 방자를 《재단리사장》으로 임명한데 대하여 《게다짝 물러가라》, 《관권은 사학에 간섭말라》 등 구호를 들고 성토대회, 단식, 롱성, 서명운동 등 형태로 3월부터 8월까지 줄기차게 전개한 투쟁 등은 학원투쟁의 대표적인것들이다.

또한 이해에 남조선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려던 《국립대학의 불하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려는 《학제개편안》, 대학 전학년의 학생들에 대한 《학도군사훈련실시안》, 《공납금》의 대폭인상안 등을 반대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는 광범한 사회계와 언론계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함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남부윁남파병을 반대하여나섰다. 3—4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윁남증파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괴뢰군의 윁남증파반대성토대회 및 시위를 진행하려고 활동한 사실, 이로 인하여 퇴학당한 이 학교 정경대학 학생회장의 복교를 요구한 투쟁 등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조직적인 윁남증파반대투쟁을 하였다.

이해의 남조선학생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은 9월부터 11월에 걸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고려대학교, 전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및 《4.19회》 등 청년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한 《삼성재벌》의 사카린밀수사건을 규탄하여 줄기차게 전개한 반매판, 반외세, 반파쑈적성격을 띤 밀수재벌반대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1965년 8월투쟁이후 처음으로 정치성을 띤 대중투쟁으로서 진행되였다.

학생들은 《삼성재벌의 리병철을 즉각 구속처형하라》,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삼성, 사까모도 등 매판밀수재벌들의 악덕재산을 몰수하라》, 《밀수재벌과 관련된 미쯔이를 비롯한 일제독점재벌의 상사들을 즉시 처벌하라》, 《재벌의 꼭두각시 신직수 (괴뢰 대검찰청총장)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재벌을 옹호한 교수들은 교단에서 물러나라》는 구호와 함께 《〈한일협정〉반대투쟁으로 처벌된 학생들의 징계를 즉각 해제하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은 《밀수재벌반대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빈곤의 해방은 대중의 희생우에 살져가는 추한 틀을 격멸하는것이 그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나섰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떨쳐나섰다. 괴뢰도당이 학생들에 대해 부당한 파쑈적인 처벌을 가해나서자 학생들은 즉시 《학원자유수호궐기대회》를 열고 《밀수재벌반대학생투쟁위원회》를 《학생자유수호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졸개인 총장(류기천)의 축출, 처벌학생의 복교, 억압적인 《학칙》의 개정, 학원사찰을 통한 공포분위기의 제거, 대학신문 《새세대》의 복간 등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완강히 펼치였다. 학생들은 11월 8일에 이르러서는 4.19기념탑앞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며 그의 졸개 류기천 《총장》의 축출을 요구하는 성토대회에 이어 단식롱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러한 줄기찬 투쟁을 통해 학생들은 드디여 파쑈적인 악질총장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전국대학교 학생 1천여명은 밀수재벌규탄성토대회에 이어 《매판자본해외추방식》을 갖고 《매판자본》이라고 쓴 허수아비를 사카린봉지와 함께 관속에 처넣었다.

그리고 《4.19회》는 《밀수원흉과 정부의 밀수재벌비호를 4.19정신으로 규탄한다》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망국적인 삼성재벌과 사까모도재벌의 밀수재산을 몰수하라》는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밀수재벌규탄 《범국민운동》을 호소하면서 단식투쟁을 벌렸다.

재벌밀수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학원탄압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과 분노의 발현이였으며 매국적인 《한일협정》조작후 더욱 로골화된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박정희괴뢰도당간의 결탁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다.

【도시 소시민들과 각 계층 주민들의 투쟁】 도시 소시민들과 각 계층 주민들도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도시빈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소시민들은 자기들의 생존수단인 판자집, 로점, 수공업작업장의 강제철거와 가혹한 세금수탈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5년에 서울시내 영등포구주민 150여명과 룡산구수재민 1천 370세대—6천 870명이 강제철거에 동원된 괴뢰경찰들과 관리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항거해나섰다.

1966년에는 서울시내 영등포구 봉천동주민들과 대구시 대연동주민들이 추운 겨울철에 강제로 판자집들을 헐어제끼는 박정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비인간적인 학정에 항거하여 괴뢰관리들과 격투를 하면서 완강히 싸웠다.

인천시 복성동주민들은 자기들의 판자집을 강제철거하려는 괴뢰 인천시청에 몰려가 《시장》놈의 방을 점거하고 달려드는 괴뢰경찰과 맞서 장시간에 걸쳐 완강히 투쟁하였다.

또한 남조선 각 도시의 소상인, 수공업자 등 광범한 도시소시민들은 《세금등살에 못 살겠다》고하면서 과중한 영업세와 각종 잡부금 등 략탈적인 세금정책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하게 일어나싸웠다.

남조선 도시소시민들과 각 계층주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정치적의의를 가진 투쟁은 1966년 9월—11월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한 매판자본인 《삼성재벌》의 밀수사건규탄투쟁이였다.

도시빈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소시민들과 각계층 주민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함께 《악덕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라》, 《매판세력 즉각 처단하라》는 구호들과 《밀수재벌을 비호한 박정희괴뢰정권은 물러나라》, 《재벌의 꼭두각시 신직수 (괴뢰 대검찰청총장)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철회하라》, 《미쯔이를 비롯한 일제독점재벌의 상사를 즉시 추방하라》는 등 구호를 웨치며 투쟁에 떨쳐나섰다.

전북 리리시에서는 2천여명의 각계층군중들이 모여 《삼성재벌 밀수규탄대회》를 가졌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련이어 각계층군중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밀수 《재벌》을 규탄배격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여기에는 약 10만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은 각 신문에 매판 《재벌》들의 밀수행위와 그를 비호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사론설을 실었으며 각계층 인민들의 밀수재벌반대 여론과 투쟁정형을 광범히 반영 보도하였다.

재벌밀수사건을 직접적계기로 일어난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도시소시민들과 각계층주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반매판, 반《정부》, 반외세적성격을 띠고있었다.

그것은 이 투쟁이 매판재벌과 그와 결탁한 박정희괴뢰도당을 증오하는 오래전부터 쌓인 인민의 불만과 분노의 표현이며 또한 매판재벌을 통한 일제독점자본의 침입을 반대하는것이였기때문이다.

《한일협정》분쇄를 위한 투쟁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의 가혹한 파쑈탄압을 박차고 1964년에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3.24, 6.3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1965년에는 《한일협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이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박정희매국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였다.

【《한일협정》조인과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 (1965. 3. 31—8.4)**】**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은 2월 20일 《한일기본관계조약》가조인과 4월 3일 《재산청구권, 어업, 재일교포법적지위 등 3개현안합의요강》에 대한 일괄가조인을 계기로하여 폭발적기세로 펼쳐졌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은 전남대학교(광주)학생들의 시위 (3.31)에 이어 4월 1일 서울시내 13개 대학 학생대표 40명이 투쟁조직체로서 학생련합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남조선적규모에서 《범학생운동》을 벌린것을 계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투쟁위원회는 4월 7일 《재침하는 일본제국주의를 분쇄하고 투쟁대렬에 총집결해서 자유, 정의, 진리의 해불을 높이들고 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고 시위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완전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풀어 평화적인 학생시위에 대해 처음부터 최루탄, 곤봉 등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50명중 1명이상의 비률로 시위대원들을 잡아갔다.

박정희매국도당의 야수적파쑈탄압에 대항하여 학생들은 《데모가 불법이냐, 폭정이 불법이냐》, 《제2을사조약 철회하라》고 웨치면서 투석전으로 완강히 싸웠다.

4월 15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방망이, 최루탄, 련행, 구속으로 우리의 함성을 묵살말라》, 《못된 황소 (박정희매국도당을 지적하는것)민족의 몽둥이로 때려잡자》고 웨치면서 시위에 떨쳐나섰다.

학생들의 투쟁은 4.19 다섯돐을 앞두고 더욱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매국노 박정희역도의 미국방문, 미제의 두목 존슨과 주구 박정희간의 《회담》과 때를 같이하여 5—6월에 걸쳐 투쟁의 예봉은 점차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지면서 반미반 《정부》성격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시위군중은 일체의 외세는 한일흥정을 강요말라, 미제는 《한일회담》에 간섭말라, 미제는 우리의 상전이 아니다, 미제는 약소국을 정치적수단으로 리용하지 말라 라는 강력한 반미구호를 내걸었으며 《신제국주의박살식》, 《일장기화형식》 등을 진행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들이대였다. 아울러 매국외교와 매판세력의 분쇄타도를 웨쳤다.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6월 22일에 매국적 《한일협정》의 정식조인을 끝냈는바 이에 격분한 남조선학생들은 새로운 정황에 적응하여 7월 13일 《한일협정비준반대 각 대학련합회》를 조직하고 《한일협정》을 백지화하며 비준을 저지시키기 위

한 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렸다.

애국적학생들은 단식투쟁, 《한일협정》비준반대서명운동, 일제의 상품안사기운동 등 합법적투쟁에 비합법적투쟁을 배합하면서 개교와 동시에 《실력투쟁》을 펼일련의 준비사업을 밀고나갔다.

이와함께 교수, 언론인들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도 자체의 투쟁조직을 무어 광범하게 나서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단들은 7월 12일 《한일협정비준반대선언대회》를 열고 《추태와 애걸로서 굴욕적인 협정에 조인》한 박정희매국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운명을 전지기 위해》일어서 싸울것을 선언하였다.

량심적인 언론출판계인사들 특히 사회적여론의 앞장에서 싸우고있는 신문기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 《한일협정》조작을 반대하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괴뢰군경들의 파쑈테로와 집단폭행을 반대하여 괴뢰당국에 날카로운 공격을 들이대면서 싸웠다.

가정부인들은 《한일협정》반대투쟁에 일떠선 학생투쟁에 호응하여 《구속학생석방》요구, 《일본상품안사기운동》에 광범하게 떨쳐나섰다.

또한 문화인을 비롯한 기타 각계층 인민들도 공동투쟁조직으로서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2.31)하고 《비준》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한일협정》비준무효화투쟁】 박정희괴뢰정부가 방학을 앞당긴 파쑈적조치로 한때 저조상태에 있던 남조선학생들과 인민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은 개학 첫날인 8월 20일부터 또다시 세차게 펼치여져갔다.

이날 서울의 경희대학교와 부산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매국국회해산하라》, 《일당국회》에서 통과된 비준은 무효다》라는 구호를 들고 탄압에 나선 괴뢰경찰에게 돌벼락을 안겨주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에 앞서 8월 18일 《한일협정비준반대 각 대학련합회》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개학후의 투쟁대책을 결정하는 한편 그 이름도 새로이 《무궁화애호대학생총련합회》로 바꾸었다.

학생들의 《한일협정》무효화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폭압에 대처하여 처음부터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매우 격렬하게 벌어졌다.

8월 21일 서울에서는 《무궁화애호대학생총련합회》에 망라된 대학들에서 일제히 《한일협정비준무효성토대회》를 갖고 《한일협정무효》, 《매국정권타도》의 구호를 들고 일어섰으며 투쟁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시위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날 박정희괴뢰도당은 《특별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막기 위하여 괴뢰경찰력을 총동원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에 항거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울것을 결의하고 각 대학간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련일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8월 24일에는 서울시내 11개 종합대학교중 7개 종합대학교 학생 1만 3천여명과 수천여명의 군중들이 《한일협정》무효화선언대회를 갖고 시위에 떨쳐나와 도처에서 막아서는 괴뢰경찰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싸웠다.

25일에 투쟁은 더욱 고조에 들어가 서울에서 21개의 대학과 2개의 고등학교학생 1만 7천여명이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일제히 시위에 일떠서 무장한 괴뢰군경을 상대로 류혈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정치방학이라는 두달동안의 강제적인 휴교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은 20—26일 동안에 불길처럼 퍼져 바야흐로 사태는 급변해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25일 괴뢰《수도경비사령부》소속 2개대대의 병력을 풀어놓고도 불안하여 괴뢰군 제6사단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습격케하였다. 이어 26일에는 《위수령》를 발동하는 등 파쑈적탄압에 더욱 미쳐 날뛰였다.

무장군인의 학원습격사건은 학생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게 하였다. 8월 25일, 26일에 걸쳐 서울시내 각 대학들에서는 《무장군인학원란입규탄대회》를 가졌고 27일에는 9개 대학들이 련합하여 《학원방위전략본부》를, 그밑에 대학단위로 《학원방위대》를 조직하고 《폭력은 폭력으로》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하였으며 박정희매국도당을 타도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맞서 투쟁하였다.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인민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은 《반외세, 반매판, 반봉건》을 부르짖으며 《민족주체의 확립》등을 요구하여나선 1964년의 3.24, 6.3봉기를 이어받아 발전시킨 장기적인 투쟁의 한 단계였다.

1965년에 일어난 《한일협정》반대투쟁은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그것은 먼저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한데 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비롯하여 각 계층 인민들의 진출도 활발하여갔다.

투쟁과정에서 중심세력인 청년학생들은 조직사상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대렬을 조직화하고 반제반파쑈적인 투쟁목표를 뚜렷이 제기하면서 다양한 투쟁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폭압하에서 적아의 력량관계와 정황에 적응하게 투쟁준비시기에는 학술토론회, 강연회, 성토대회를 조직하였으며 앙양기에는 가두시위, 《모의화형식》, 《모의장례

식》, 《모의재판》 등을 펼쳤고 투쟁의 저조기에는 단식투쟁, 서명운동, 외래품안사기운동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이끌어나갔다.

1965년에 완강하게 전개된 남조선인민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은 미일제국주의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체계를 더한층 약화시키고 지배층내부의 모순과 정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자주적통일기운의 증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결하게 지켜온 자주로선과 그로하여 날로 높아가는 국제적위신,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자립적민족경제의 부강발전과 나날이 늘어가는 인민생활의 향상—이것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며 북반부에 대한 절절한 동경심을 더욱 깊게 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자기자신의 힘으로 나아갈바 길을 비쳐주는 투쟁의 등대로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화국 품안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념원하면서 북반부인민들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반제반파쑈애국투쟁에 용감하게 일떠서고있다.

1965—1966년에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 강화발전됨에 따라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는 자주자립과 민족주체에 대한 강력한 지향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발전하여갔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점차 증대되여갔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증대하고 있는 통일기운을 반영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각 신문들 그리고 잡지들은 1966년에 들어와서 민족주체성과 자주자립에 대한 특집들을 하였다. 이러한 특집론설들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망국적인 미제의 《원조》에 매여달려 나라와 민족을 팔고 예속과 굴종을 일삼는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사대주의를 몰아내고 주체를 확립하는것, 이것이 곧 현시기 남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수행해야할 최대의 《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주체의식에 기초한 자주독립과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곳에서만이 민주주의는 발양하며 《빛을 낸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독립을 반대하는 일체 외세와 파쑈적압력에 굴복할것이 아니라 기백있게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역도들에 《항거해나서야 한다》고 웨치고있다.

특히 《자주성을 옹호하자》라고 제목한 1966년 8월 12일 날자의 《로동신문》론설은 남조선의 사회정치계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8월 17일 《전북일보》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함께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론설내용을 보도한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의 신문들이 뒤를 이어 이 론설의 내용을 해설보도하였다. 이 신문들은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이며 혁명승리의 조직자인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에 깊은 감명을 표시하면서 조선로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론설을 발표할수 있은것은 공화국북반부에 강유력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확고히 건설한데 있다고 힘을 주어 지적하였다.

자주자립과 민족주체에 대한 지향이 장성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현저히 증대되여갔다.

남조선출판물들과 인민들은 거의가 일치하게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이나 《강대국의 결의에 의한 통일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것이라고 결정적으로 규탄하면서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문제를 《유엔의 결의에만 맡길수 없다》고 견결하게 웨쳐나섰다.

8월 20일부 《동아일보》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념불처럼 웨치고 있는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즉 미제와 괴뢰도당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이때까지 《유엔》에서 《언커크의 하품나는 통한결의안의 재확인만을 되풀이》하는것으로 대치시켜왔다. 진정으로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미제의 침략도구로 전락한 유엔이 조국의 통일을 달성시켜준다고는 《믿지않는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남조선의 적지않은 신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통일》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통일문제를 남의 의사에 맡겨버릴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힘에 의거하여 추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주체의식》을 높이여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시급히 촉진시켜 《외국군대를 몰아내고 살자》고 웨침으로써 민족주체적립장에 서서 애국적민주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어나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한 저명한 지식인은 자주적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억센 지향을 반영하여 12월 11일날자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신의 고향 백두산을 동경하여 왔다.… 북에서 남으로 산맥이 뻗어내리고 물줄기 흘러내린다.…어찌 한 덩이 땅의 인연으로만 그렇겠느냐. 한줄기 피의 인연으로 력사를 같이 하고 흥망과 생사마저

같이 한 인연이다. 끊을수 없는 인연이다. 배반 못할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있어야 한다.》

계속하여 필자는 《통일은 민족의 생사문제이다.》라고 제기하면서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체적힘을 길러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웨쳤다.

《우리는 먼저 제 힘을 길러야 한다.…하루바삐 제 힘을 길러야 한다.…

〈시켜주는 통일〉이 아니라 〈제가 하는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을 기르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20여년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하루속히 행복하게 살것을 갈망하고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 만세!》를 웨치면서 《우리도 그이의 정치를 받아야 잘 살수 있다》고 부르짖고있다.

《서울, 부산, 그 어디에든 비록 마음놓고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민중들의 가슴마다에는 저마다 북녘에 대한 동경과 언제는 꼭 서울, 부산으로 오실 김일성원수를 일구월심 기다리고있다》는것이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차고 넘쳐가는 심정의 호소이다.

그들은 절실한 생활체험으로부터 그 진리를 깨닫고 김일성수상의 지극한 사랑과 그이의 가르침만이 바로 그들의 《확고한 라침판이며 등대라는것을 똑똑히 확신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이북의 기치를 들고 궐기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슴속깊이 되새기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박살내고 주체적힘에 의한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날을 따라 급속히 증대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떠한 야수적인 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경 제

1965—1966년에 남조선경제에는 보다 심각한 파국적위기가 조성되였다.

미제는 거듭되는 참패의 전쟁부담을 덜기 위하여 남조선에 실시하여 오던 략탈적인 《원조》를 미제와 일제의 독점자본을 주축으로 하고 군국주의서부독일, 이딸리아, 프랑스 등 해외진출을 노리고있는 제국주의독점자본으로 구성된 다각적인 《국제협의체》를 통한 《차관》에로 점차 바꾸었다. 특히 미제의 이와 같은 흉책은 《한일조약》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1965—1966년간에 외래제국주의독점자본이 침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을것을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명령하면서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는데로 더욱 다급히 내몰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치군사적분야에서 미제의 지시에 따라 웰남침략전쟁에 적극 복무하면서 경제분야에서는 전쟁준비를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쳤다. 그리하여 1965—1966년간에 남조선경제는 외래독점자본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고 민족경제는 철저히 파탄되였으며 인민생활은 더욱더 혹심하게 파탄되고 도탄속에 빠져들어갔다.

× × ×

1965—1966년에 미제는 아세아침략에 예봉을 돌리고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서둘렀다. 이와 관련하여 미제는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와 군사경제적잠재력을 한층더 강화하고 그것을 침략적목적수행에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 관심을 쏟아부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증대되는 경제의 군사적수요를 채우며 작전수행의 기동성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전략적기간산업과 시설에 투자와 융자의 대부분을 밀어넣고 그 확장에 날뛰였다.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자본인 중소기업의 필수품생산을 억제하고 예속자본인 대기업의 군수품생산에 열중하였으며 남조선의 막대한 자원을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책동을 다그쳤다.

괴뢰통치배들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와 종속적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괴뢰도당이 1959년 이후 1966년까지 8개년동안에 실제로 끌어들인 외국독점자본총액은 약 7억 3천만 딸라에 달하였는바 그중 1965—1966년간에 들어온 외국자본총액은 65.8%를 차지하였다.

한편 괴뢰정부는 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자체자본의 축적과 막대한 군사경찰비의 수요를 채울 목적으로 재정규모를 전례 없이 늘이고 인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괴뢰정부가 운영하고있는 각종 《관영료금》을 한껏 끌어올렸으며 그 《완전징수》에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조세수탈규모의 전년대비증가는 1965년에 20.3%, 1966년에는 다시 54.1%가 불어서 1964년의 1.9배로 증대하였다.

각종 《관영료금》은 1966년간에

만도 최고 40%까지 끌어올리여 여기에서만도 괴뢰정부는 재정《세입》을 약 40억원이나 늘일것을 꾀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1966년에 강제저축의 규모를 전년도의 2.5배로 늘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들의 등골을 가혹하게 짜내였다.

경제의 군사적성격은 그 소비적측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괴뢰정부는 1966년에 직접적군사비인 《국방비》에만도 1964년에 비하여 1.7배나 되는 405억여만원을 지출하였고 군사적목적과 관련된 《전략산업》건설을 위하여 전체 재정투자와 융자의 약 80%를 쏟아부었다.

이 밖에도 막대한 량의 전력과 석탄, 석유, 화물차량이 군사적수요에 우선적으로 돌려졌고 미제의 직접적지시로 남부월남전쟁터에 보내진 군수물자와 로력자원만도 1966년에는 1965년실적의 4배로 늘었다.

미제의 식민지경제의 군사화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매국배족적책동은 남조선의 민족경제와 인민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65—1966년간에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우선 경제의 구조면에서 군사적성격이 더욱 강화된 반면에 일반민간부문이 극도로 쇠퇴몰락한데서 나타나고있다.

생산과 민간소비간의 련계도 파괴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독점자본을 마구 끌어들인 결과에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더욱 강화되고 그것은 또한 경제적구조의 불균형성과 편파성을 심화시켰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도입으로 남조선은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들의 채무자로 더욱더 전락되여 남조선은 해마다 상환하여야 할 대외부채만도 1970년에 가서 년간 8천만딸라에 달할것이 예견되며 경제의 주요명맥이 또한 외래독점자본의 손아귀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다.

1966년현재 남조선기간공업에서, 전기기구공업의 전부와 발전시설의 80%, 교통운수의 70%, 금속 및 체신시설의 60%이상이 이미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구라파 서방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되였다.

남조선에 조성된 공업토대는 전적으로 외래제국주의독점체로부터 받아들이는 기술과 시설에 의존하고있다. 그나마 그것은 주로 군사적수요와 관련된 일부부문에만 국한되여있고 기술 및 원료의 토대가 없다. 따라서 남조선경제에서 일찍부터 고질로 되여온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였다. 특히 금속, 기계공업의 침체는 경제의 식민지적구조와 대외적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였다.

1966년에 남조선의 무역결손은 4억 6천 700만딸라로 1961년의 그것의 170%로 불었다.

남조선의 시장은 미제에 의하여 장악되여 있으면서 외국으로부터 얻어들이는 차관이 늘어감에 따라 미국, 일본, 서부독일 등 침략적제국주의독점체들의 공동상품판매시장의 성격을 띠여갔다. 그중에서도 미제의 비호밑에서 《한일조약》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재침을 꿈꾸어오던 일본제국주의독점상품의 남조선침투는 급속하게 확대되고있다. 1966년도 남조선 총수입상품중에서 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37%로부터 41%로 격증하여 남조선의 수입대상국의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일제에 대한 무역결손도 1961년의 4.6배로 늘어났으며 이해 무역결손총액의 48.9%를 차지하였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남조선진출과 그들에 의한 경제예속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그와 결탁한 남조선예속자본의 경제적토대도 급격히 강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저들의 정치적지반을 이루고있는 매판자본가들을 살지우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내세우면서 몇개 특정한 매판자본가에게 외자를 독점시키고 투자와 융자를 집중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삼성재벌》에 《공장건설》이란 미명하에 1966년에 남조선 전체 중소기업에 융자한 금액보다 더많은 11억원을 《특혜융자》한것은 그 한례에 불과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것도 부족하여 사카린밀수입까지 시켜서 수천만원의 결돈을 《삼성재벌》에 안겨주었다.

괴뢰정부의 공개적이며 대대적인 매판자본육성책동은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원자재공급에서의 철저한 억제와 기업체의 강제정비 등 반동적파쑈정책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 부문기업은 문자 그대로 질식상태에 빠졌다.

1966년에 남조선중소기업의 가동률은 종전의 60%에서 54%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계속 파산몰락하였다.

1965—1966년에 조성된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또한 괴뢰정부의 군사경찰비의 무제한한 지출과 군사시설 및 군사경제적잠재력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말미암은 인플레의 격화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괴뢰통치배들의 인민수탈의 강화로 인하여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사회경제적불안이 격화된데서 표현되였다.

1966년말현재 남조선의 통화량은 692억원으로서 1964년말현재에 비하여 60.8%가 더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물가는 매국역도 박정희집권년간에 2.4배로 뛰여올라 인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소득은 례년보다 더욱 떨어졌으며 1966년에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60년의 68.4%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로동자들은 미제와

괴뢰통치배들의 경제군사화정책의 첫째가는 희생자로서 최저생계비의 3~4분의 1이라는 생존이하의 기아임금에 매여있고 농민들은 1966년 한해동안에 100억원이 더 늘은 500억원의 무거운 부채에 짓눌리여있다. 절량농가수는 전북, 충남, 남강원도일대에서 이른 봄에 벌써 13만 4천여호를 헤아렸다.

이리하여 1965—1966년간에 남조선인민대중과 미제와 그 주구들과의 적대적모순은 일층 격화되고 인민들의 혁명적진출도 강화되였다.

공 업

전력공업은 미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다.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고 인민수탈을 강화하는데 중추적부문으로서 전력공업을 리용하고있으며 이 부문에 《원조》와 《차관》을 집중시켜왔다.

특히 《한일》결탁이 마감단계에 들어선 1965년부터는 미제에 의해 재생된 일본군국주의독점재벌들인 미쯔이, 미쯔비시와 그 계렬의 기업체들이 이 부문에 크게 쓸어들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1966년에 이 부문에 《차관》을 던져준 대가로 4월 1일부터 전기사용료를 25%나 끌어올려 인민들로부터 32억원을 짜내게 하였다.

미제는 전력공업을 제놈들의 원유에 더욱 든든히 얽어매놓고 전쟁정책수행을 위한 요구에 순응시키고있다.

전력소비는 직접적인 군수용과 관수용으로 그리고 군수물자조달부문과 전략광물채취 등 산업부문에서 발전량의 84.2%까지를 독차지하고있다.

특히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이 소비하는 전력의 절대량은 1961—1965년간에 약 60%가 늘고있다.

그반면에 남조선의 전등가설정형은 농촌에서 1965년 2월 현재로 전체 농가호수의 겨우 6%밖에 아니되고 도시를 합친 전등가설비중은 1965년말현재로 남조선 전체 세대수의 27.6%밖에 아니되였다.

채굴공업에서 주되는것은 석탄채굴이다.

그밖의 광물생산은 군사적가치가 큰 광종으로서 미제가 독점하고있는 중석광을 비롯한 일부광종에 치중되여있으며 금, 은을 비롯한 유색금속광물들의 생산은 1944년수준보다 낮다.

남조선의 채굴공업은 전반적으로 쇠퇴몰락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는바 괴뢰상공부자료에 의하더라도 탄광을 제외한 일반 광산의 1966년도 가동률은 14%에 불과하였다.

탄광의 경우라할지라도 괴뢰관영기업체인 《대한석탄공사》산하의 일부탄광들에서 생산을 겨우 유지하였을뿐 기타 민영탄광들에서는 생산파동이 심하였다.

남조선 석탄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태백산지구의 군소 민간경영탄광들은 자금난과 갱목부족으로말미암아 《년중휴업위기에 직면》하여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 강원도내 중소탄광의 80%가 페광하고 말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중소민영광업을 강제로 페쇄시켜 이 분야에 외국독점자본이 더쉽게 들어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놓고 년말현재 1천 468만딸라의 차관을 끌어들이였다.

남조선에서 캐여내는 각종 원광은 가공시설이 없는데로부터 미제나 일제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겨진다.

금속공업은 남조선 전체 산업구성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문의 하나이다. 기술설비 등의 형편은 8.15이전이나 다름이 없다. 그나마도 미제의 기간공업말살정책으로 하여 줄곧 휴업 또는 조업단축을 거듭하여왔다.

제철공업의 락후성은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80%이상을 헐값으로 해외에 내팔게 하고있다. 반면에 해마다 1천만딸라분의 선철(1966년에는 16만 7천톤)을 수입하고있다.

군사전략상의 중요성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국자본도입책동 및 미개척상태라는 이 부문의 경제침략적유리성 등을 넘겨보고 미제를 비롯하여 일본, 서독 등 재생된 군국주의독점자본이 1966년에 크게 덮쳐들었다. 그 액수는 1959—1965년까지 7개년간에 끌어들인 금액의 1.5배나 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인천제철》에는 서부독일군국주의자본이, 《한국철강》에는 일제독점자본이 기타 기업들에는 미제독점자본이 도사리고앉아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남조선금속공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있는 주되는 제품은 주로 미국, 일본등지로부터 수입해들인 철선을 잘으거나 늘여서 만든 못, 철선 등이다. 1965년에 계속하여 1966년에도 이 부문 중소기업들은 년중을 통해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속에 묻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기계공업은 본래 보잘것이 없는데다가 미제의 식민지경제정책밑에서 더욱 억압되고 파괴되였다. 따라서 8.15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에는 단하나의 산업용 기계공장도 서지 못하고있다.

지금 있다는 기계제작공업도 수리가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그것마저도 미제와 일제로부터 수입하여들인 부속품을 가지고 괴뢰정부 《직할기업체》 또는 예속기업체들에서 병기와 자동차, 기차, 선박 등 군사적의의가 큰 기재들을 수리하는것이 주가 되고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체들은 원시적인 농기구를 만드는 정도이다.

락후한 기계공업은 미제와 일

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이 팔아넘기는 낡은 기계기구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수입개방정책에 편승하여 쏠어든 외국제품에 눌리여 중소기업은 물론하고 괴뢰관영《직할기업체》들까지 심한 경영난에 빠져왔다. 1966년에 괴뢰《직할기업체》인 《한국기계》는 계획생산액의 겨우 11.5%, 《조선공사》는 11%를 냈을뿐이다.

서울, 인천, 경북일대에 몰키여있는 농기구를 생산하던 중소기업체들도 대부분이 휴업을 하였거나 조업을 단축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락후한 상태는 일본기계제작독점체들의 침투대상으로 되여 이들은 남조선에 자주 드나들면서 《실태조사》와 아울러 투자대상을 고르기에 눈이 벌개 있다.

일제와 함께 미제와 프랑스의 독점체들도 이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화학공업이 남조선 전체 가공업체수와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주로 소비품제조업이 속해있다. 원료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생산공정은 원시적인 손로동에 기초하고있다.

이 분야에도 역시 외국독점자본이 침투하여 그렇지 않아도 원료난, 판로난, 자금난에 허덕여오던 중소기업들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비누공업은 1965년에 《최악의 운영난》을 겪었다. 특히 비누공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공장들은 이해 4월현재 90%까지가 조업을 단축했거나 놀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료난과 자금난은 1966년에 들어서 더욱 심각하여 이 분야에서 공장들의 파산이 계속되였다.

중소고무공장들이 1965년간에 생산활동을 한 기간은 6개월간뿐이였는데 1966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심한 곤경》에 빠져 《갈팡질팡》하였으며 규모가 크다는 공장들도 《극심한 불경기》로 말미암아 년중 휴업하였다. 이밖에 1965년간의 생산활동정형을 보면 가죽공업은 3개월, 제지공업은 1개월이란 참담한것이였다.

1966년에도 화학공업부문 중소공장들의 생산활동은 역시 저조하여서 제약공장들은 괴뢰통치배들의 《기업정비》놀음과 원료난, 자금난에 부딪쳐 《파산위기에 직면》하였고 화장품업체들은 《대량적으로 범람하는 외래화장품》때문에 완전히 판로를 잃고있는데다가 괴뢰정부는 중소공장들을 강제《정비》까지 하였다.

이밖에 남조선의 화학공업으로서는 몇개의 비료공장이 있으나 그것들은 미제와 군국주의서부독일 등 외국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는 예속기업들로서 남조선농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식민지략탈도구이다.

세멘트공업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다지는 동시에 군사적수요를 현지에서 채우기 위하여 운영하고있는 공업분야의 하나이다. 따라서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도 전력공업 다음으로 가장 심하다.

1966년의 세멘트공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침투를 보면 확정된 차관액이 1959—1965년간의 그것의 1.7배를 훨씬 넘어서 그 어느 공업부문보다도 많았다.

《동양세멘트》는 또다시 일제의 자본에 의하여 움직이고있으며 《문경세멘트》는 미제독점자본에 의하여 움직이고있다.

도자기업계에서는 《심각한 불경기》로 계속 허덕였다.

섬유공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종업원수에서 26%, 생산액에서 22%이다. 기업체수에 있어서도 12.1%라는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나 몇몇 예속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요 몇해동안에 예속자본가들을 발판으로 하여 외국독점자본들이 이 분야에 대대적으로 쓸어들었다.

1966년말현재 이 분야에 몰려든 외국독점자본총액은 8천 230만 2천딸라에 오르고있는데 그중 절반을 넘는 4천 603만 7천딸라가 이 한해에 밀려든것으로 그 대부분이 일제독점재벌들의 것이였다. 이리하여 벌써 남조선섬유공업의 30%이상이 일제의 손아귀에 틀어쥐이게 되였다.

남조선의 섬유공업은 그 원료인 원면, 원모, 스프, 인견사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거의 전량을 미제와 일제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또한 그 제품의 대부분은 미제와 괴뢰군의 군복감으로 돌려진다.

1965년의 섬유공업부문 평균가동률은 69.2%로 전년의 72.3%보다 3.1%가 낮았고 이해에 가장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부문의 하나이다.

중소규모공장들의 경영형편은 더욱 참담하여 그 60%이상이 완전휴업상태에 빠졌었다. 특히 중소메리야스공장들은 66%가 조업을 멈추었다. 인견직공장들도 20%이상이나 원료값이 뛰여오르는 바람에 파탄상태에 빠졌다.

식료공업에는 제분, 제당, 양조 등 공업이 망라되여있으며 미제침략군에 대한 《군납》과 괴뢰군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복무하는 전형적인 식민지군수공업이다.

이 부문 공업의 원료공급은 주로 미제에 독점되여있으며 주원료를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이 부문 기업의 특징이다.

이 분야의 기업도 몇몇 예속재벌들에게 독점되여있다.

1965년에 남조선식료공업은 원료공급을 독차지하고있는 미제의 원료가격인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위축상태》에 빠졌으며 중소공장은 특히나 큰 타격을 받았다. 제분업계에서는 이해에 150일밖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시설의 60%를 놀리였다.

1966년에도 원료난과 자금난으로 하여 기업파탄은 계속되였다.

농 업

박정희매국도당은 괴뢰정권을 거머쥔 직후에 빈농과 고농을 희생으로 하는《중농정책》을 들고나왔으나 그의 반인민적본질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로부터《폐농정책》이란 규탄을 받았다. 그후 박정희의 무리들은 허울만 바꾼《농업근대화》정책을 내세우고 남조선농촌의 반봉건적령세농경리를 자본주의적경리형태로 개편하여 지주, 부농의 배를 더욱 불리우며 농업자본가를 키워냄으로써 농촌에서 저희놈들의 정치적기반을 마련하려고 날뛰였다. 반면에 령세농과 빈고농들에게 대하여는 각종 수탈만을 더하였다.

그리하여 1965—1966년간에 남조선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더욱 촉진되고 농업생산은 계속 침체상태에 빠져있었다.

【착취와 수탈도대강화를 위한 책동】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농촌을 군사비와, 군사잠재력강화를 위한 인적 및 물적자원조달원천지로 한층더 다지기 위하여 령세농과 빈고농에 대한 교살계획인《자립안정농가조성계획》을 붙어대면서 부농층과 일부 중농상층에 대한 재정경제적지원을 떠벌였다.

또한 이해에 괴뢰도당은《농업근대화》를 위한 지름길로서 0.5정보이하의 경지를 다루는, 남조선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고있는 령세농들에게 농토를 팔고 떠나갈것을 강요하면서《협업농》,《자립농》,《기업농》의 육성을 떠버리는 등 토지의 수탈과 지주, 부농, 농업자본가들에게 경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선《농지개혁》에서 형식상 제한하고있는《토지소유상한제》(평지대에서 3정보, 산간지대에서 5정보)철폐를 서둘으면서 그 전제적조건을 마련할 목적밑에 1966년 7월 12일에《농지담보법》을, 12월 23일에는《농업기본법》을 꾸며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와 저희놈들의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에서 밀려난 령세농과 빈고농들을 산간벽지로 집단이주시키는 범죄적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러한 책동의 결과는 1960—1965년간에 남조선에서 화전민을 3.5배로 붇게 하였다.

【계속되는 영농조건의 악화】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농촌에서 요구되는 농사자금액은 689억 5천 500여만원이다.

그러나 1965년에 괴뢰도당이 내돌린《융자금》은 그의 15%가 되나마나한 정도였다. 1966년에 그것은 1965년만도 못하여 농민들은 더욱 심각한 농사자금의 가난을 겪었다. 뿐만아니라 이 얼마 아니되는《융자금》마저도 지주, 부농들에게 주었을뿐 령세농들에게는 차례지지않았다.

토질에 맞지않는 미국의《잉여》비료는 남조선농토의 산성화를 촉진시켜왔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경작지가운데서 70%가 이미 산성화되였다.

농민들은 영농기구의 개선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으며 호미나 괭이, 삽과 같은 손로동용도구에 매여달리고 원시적생산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농촌의 수리시설은 일제때에 만들어진것이 압도적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들은 8.15후 20여년동안에 황폐화가 극심하다.

논면적의 24%만이《수리안전답》에 속한다.

관개수리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데로부터 매년 약 50만정보에 달하는 경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사태에 묻치고있다.

더구나 농경지의 감소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책동과 관련하여 농토를 강제로《징발》하여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촉진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196 년 5월에만도《군사상필요》 하여 강원도일대와 경상북 영덕군 영덕면에서 각각 22 5천평과 50여정보나 되는 다 물어가는 보리밭을 농민들로 며 빼앗아갔다. 괴뢰도당이 소하여 발표한바에 의하더라 이해에 농민들로부터《군용지》 강제징발한 경지는 12만 9천 보나 되였다.

【농업생산의 침체】 박정희괴뢰 당은 저희놈들의 괴뢰통치를 지하여 보려는 목적밑에 이전 도통계까지 뜯어고쳐가면서 알 생산량을 늘이여 계산하고있다.

수리시설이 없는데로부터 19 년에 알곡생산은 가물을 입은 다가 병충해까지 겪게 되여 심 피해를 받았다.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일대에 는 6월말까지도 논 면적의 약 %에 모를 내지 못하였으며 남, 호남 등 곡창지대들에서는 월초현재 절반도 모를 못냈다.

병충의 피해는 전라남도에서 도 파종면적의 12%를 완전히 쓰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고 괴뢰정부는 이해의 쌀수확 을 저희놈들이 과장하여 발표 1964년도 생산량보다 4백만석 많은것처럼 꾸며보려하였다. 러나 이것이 탄로되자 하는수 이 전년도보다 336만석이 감수 였다고 고쳐 발표하였다.

1966년에도 알곡생산량을 허 조작하기 위하여 박정희괴뢰도 은 밀, 보리 생산량을 이해 작 이 가장 좋았던 제주도만을《 의》선택하여 조사하고 여기에 산출한 평균치를 남조선 전체 보리파종면적에 확대적용하여 표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에서 종합보고된 실수확량의 %에 해당하는 511만 8천석이 장된것이라는것이 탄로되였다

그리하여 괴뢰도당이《공식 표》한 1966년《식량생산》에서

생산량은 34%, 밀, 보리생산량은 39%가 실수확고보다 과장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농업전문가들은 《공식발표》한 《농업생산통계가 정확한가?》고 괴뢰도당에 따져들고있다. 이에 대하여 괴뢰 농림부는 《공식발표》한 쌀생산량이 638만 5천여석이나 과장되였다는것을 인정하지않을수 없었다.

알곡생산의 침체와 더부러 축산부문도 계속 쇠퇴하고있다. 남조선축산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소는 1963—1965년간에 5만마리, 같은 기간에 돼지는 13만마리가 줄었다. 집짐승을 기르는 농가수도 계속 줄어서 전체 농가수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에 비하여 1966년에 2.4%가 감소하고있다.

【농민수탈의 강화】 경제의 군사화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농촌에 수탈의 마수를 집중하고 년중을 통해 《세금》과 《잡부금》, 《농사자금》의 회수와 《군수와 관수용량곡》확보에 눈이 벌개서 괴뢰경찰들과 집달리들을 내몰아 량곡수탈과 재산차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괴뢰정부는 그의 재정적기초인 조세수입의 69%이상을 농촌에서 짜내고있다.

1966년에 농민들이 현물로 부담한 《농지세》만하여도 30～40%가 올라 쌀 66만석, 밀, 보리 13만 6천석을 비롯해 근 100만석(1965년에는 79만석을 목표로 세웠다)이나 되였다. 이 밖에 괴뢰예산에서 지출되여야 할 《군경원호비》, 《소방대운영비》, 《면의회경비》, 《사친회비》 등 근 60여종에 이르는 잡부금을 농민들에게 들씌우고있는데 이런것들을 량곡으로 환산하면 대체로 매년 《농지세》의 1.5배, 1966년에는 150만석이나 되였다.

또한 1966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매상》, 《미곡담보융자》, 《량곡과 비료교환》이라는 명목으로 5천 750원이나 생산비가 먹은 쌀을 3천 306원씩으로 쳐서 378만 4천석, 1천 827원의 생산비를 먹인 밀, 보리를 절반값도 아니되는 900원 (평균)씩으로해서 151만 4천석, 도합 529만 8천석의 량곡을 빼앗아냈다. 그뿐만아니라 《매상자금이 없다》는것을 핑계로 하여 농민들에게 주어야 할 쌀값을 40%만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5%는 외상비료대로 제끼고 35%는 《예금증서》로 대신하였다.

1965년에는 《수세》를 30%나 올려 여기에서만도 1964년보다 12만석을 농민들로부터 더 짜냈다.

괴뢰정부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수탈외에도 공업상품과 농산물사이에 가격차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등골을 긁어내고있다.

괴뢰도당들에 의해서 생산물을 털리고난 농민들은 하는수 없이 《장리쌀》, 《색결이》, 《변돈》들을 얻어쓰게 되는바 1966년 9월말현재로 남조선농민들이 걸머지고있는 고리채총액은 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93억 4천 400만원이 된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고리채정리》를 떠벌이기 전해인 1960년의 182억원과 대여보면 2.7배나 되는것이며 농가마다 2만 560원의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

수 산 업

미제의 지휘하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일제와 매국적 《한일협정》을 조작한후 원래 보잘것 없었던 남조선수산업은 그나마도 더욱 위축되여가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의 생명선이였던 남해를 중심으로한 《황금어장》이 일제의 손에 들어감으로 하여 어로활동구역이 절대적으로 좁아진것, 박정희괴뢰도당이 일제어선단의 해적행위를 직접간접으로 비호하여나섬으로 하여 남조선연해까지 쓸어드는 일제어선단의 해적행위가 우심해졌을뿐아니라 공공연하게 감행되고있으며 횡포하여진것 등은 더욱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남조선수산업을 업태별로 보면 전업자가 22.9%, 겸업자가 56.6%, 피고용자가 20.5%로 되여있다.

전업자라 할지라도 거의가 다 쪽배 하나에 생계를 매고있는 령세어민이다.

남조선어민들은 륙지에서 가까운 연안어업에 종사하고있다. 그들이 부리고있는 어선들은 남조선출판물들도 보도하고있다싶이 가랑잎과 같은 쪽배들이다. 몇척 있다는 동력선도 10년에서 40년까지 부려먹은 페물들인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류공급롱간으로 말미암아 이 동력선운영마저도 타격을 받고있다.

어망에서는 일부 소규모의 권현망과 전착망이 있으나 원시적인 조망, 소대망, 후리, 들망, 챗배들이 그 전부이다.

기타 어로기구들도 낡고 구식이다.

수산업의 현실태가 말이 아닌데다가 박정희괴뢰도당은 1965년 6월 22일 매국적《한일어업협정》을 조작해냄으로써 어업의 생명선인 어장마저 일제상전에게 넘겨주었다.

《한일회담》재개와 때를 같이 하여 도수와 규모를 증대시켜오던 일제해적선들의 남해어장침범은 《한일타결》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러서는 벌써 100여척의 큰 선단으로 남해어장 깊숙히 몰려들어 물속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쳐 물고기의 씨도 남기지 않고 훑어가는 등 강도질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한일어업협정》조작후에는 500～600척으로 무어진 일제어선단들이 순시선을 앞세우고 매일과 같이 남해어장을 공공연하게 휩쓸게 되였다.

일제는 남의 나라 바다에 머무니 없는 《어로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여기에 남조선어민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일본 해적선들은 남조선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찢어버리며, 문어단지를 들어내여 깨뜨려버리며, 어로기구들을 훔쳐가는 등 갖은 만행을 다하고있다.

더우기 일제의 해적선들은 남조선령세어민들의 쪽배를 일부터 들이받아 갈아앉치는 만행까지 감행하고있는바 1966년 첫 3개월동안에 전라남도앞바다에서 저질은것만하여도 10여척을 침몰 또는 파손시키고있다.

일제어선단이 남조선어장을 휩쓸게 된이후로 남해어민들의 고기잡이는 더우기나 쇠퇴하여가고있다.

남조선어획고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것중의 하나는 외줄낚시로 잡는 오징어이다. 1965년에 동해안일대에서의 오징어잡이는 대흉어를 겪었다. 경상북도해안의 10개 어업조합의 2월중어획고는 오징어잡이에서 강목을 칠음으로해서 전해 같은 달(4천 840톤)의 절반도 못되는 1천 430톤이였다.

남조선의 오징어잡이는 1964년에 4천여톤이였으나 1965년에는 성어기인 7월부터 오히며 생산이 줄어들어 8월까지의 8개월동안에 겨우 800톤밖에 잡지못한 대흉어였다.

제주도일대 어장에서의 1~3월간의 어획고는 전해 같은시기보다 10~20%가 줄어들었다.

도미, 삼치, 방어, 민어, 고등어, 정갱이의 황금어장으로 이름높은 추자도근해에서는 일제의 기선저예망이 판을 치고있는 탓으로 하여 해마다 어획고가 줄어들고있는데 1963년에 3천 130톤, 1964년에 1천 460톤, 1965년에는 1—2월의 성어기가 지난 3월현재 120톤에 불과했다.

《한일어업협정》이 조작된 이후 일제어선들의 대량적인 침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어획량은 급격하게 줄고있다.

1966년 7월말현재 남해어장에서 잡은 물고기는 례년의 같은기간에 비하여 7분의 1밖에 아니되며 개별적지역들에서 본다면 경상남도 삼천포일대는 10분의 1로, 전라남도의 거문도와 홍도 등지에서는 50%로 크게 줄었다.

동해안의 포항, 구룡포 등지의 어획고는 1965년에 비하여 60~80%가 줄었다.

이른바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어로활동은 일제어선단에 완전히 제압되여있는바 1966년 3.4분기간 남조선어민들은 겨우 158톤의 물고기를 잡았을뿐 일제어선단의 어획고 8천여톤에 비해 50분의 1도 못되였다.

1965년초기부터는 일본 시모노세끼를 비롯한 관서지방의 어시장들에 제주도와 흑산도앞바다에서 도적질하여간 생선들이 홍성거리여 《한국선어수출조합》의 일본에 대한 생선수출고가 이해 4월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만딸라나 줄었을뿐아니라 한배에 50만원까지의 손해를 보게 되였다.

남조선의 일본에 대한 생선수출의 태반을 차지하고있는 려수항의 경우에도 1964년 1—4월기간에 1천 625톤으로 59만 5천딸라를 벌어들였으나 1965년 같은 기간의 일본에 대한 생선수출실적은 1천 307톤으로 량적으로는 318톤, 금액적으로는 무려 12만 8천딸라가 줄어들었다.

재 정 금 융

남조선에서 재정금융은 괴뢰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며, 전쟁을 추구하며, 정치적기반으로 되는 매판예속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을 박대하고 수탈을 감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괴뢰도당의 재정예산은 아세아침략에 예봉을 돌리고 특히는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과 관련하여 1965—1966년에 급작스럽게 불어났다.

1965년도 재정예산은 전년도보다 군사파쑈통치기구의 확대강화를 위해 20.6%, 직접적군사비인 《국방비》를 23.1%나 늘이여 총규모에서 22.9%가 팽창하였다. 뿐만아니라 전년보다 증액된 총액가운데 파쑈통치기구강화를 위한 《일반경비》와 직접적군사비인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9%나 되였다.

이밖에 군용철도, 기동도로, 비행장 그리고 군항 등 군사시설과 군사적잠재력강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투하되였다.

전쟁과 파쑈폭압을 감행하기 위한 예산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인민들로부터 전년보다 20.3%가 더많은 세금을 짜내고있다.

이와같은 방대한 예산도 전쟁비용의 지출이 늘어나는 관계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예산을 세번이나 뜯어고쳐 《국방비》 12억 5천 400만원을 비롯해 파쑈통치기구의 강화와 군사잠재력강화를 위해 도합 97억 9천 900만원, 당초예산보다 11.5%, 지난해의 그것보다 35.5%를 늘이고 그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들로부터 세금 114억 2천만원을 더 짜내고있다.

1966년 예산은 1965년예산보다 그 규모에서 43.7%가 팽창되였다.

이와같은 재정예산규모의 급격한 팽창은 1965년 당초예산보다 《국방비》가 37.5%, 괴뢰경찰인원증강과 장비강화를 비롯한 파쑈폭압수단과 기구강화를 위한 《일반경비》가 45.5%나 전례에 없이 대폭 커진데 원인이 있다.

이 방대한 전쟁예산도 늘어가

는《웰남파병》과 전쟁도발을 위한 비용 등으로 해서 집행과정에서 두럭이 나서 두차레나 예산을 뜯어고쳤다. 그리하여 이해 당초예산보다《국방비》19억 9천 900만원,《일반경비》66억 5천 200만원 등 총액 206억 5천 600만원, 16.9%를 늘이였다. 결과에 이해 최종예산규모는 박정희매국도당이 괴뢰정권을 거머쥔 해인 1961년의 당초 예산에 비해《국방비》와《일반경비》는 각각 2.5배로 격증하였다.

전쟁과 파쑈폭압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당초 예산세입에서 세금수탈을 전년의 그것에 비해 54.1%나 늘였다.

이해의 재정예산은 또다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다시 팽창하여 결과에 직접적수탈로 되는 세금수입규모는 1961년에 비하여 3배로 불어났다.

통화는 전쟁예산의 팽창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침략적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구 찍어내는 화페자본이 터없이 늘어난것 등으로 해서 1965년에는 전년보다 135억 7천 300만원이 불어나 31.5%라는 전례에 없는 팽창률을 냈다.

1966년에 통화는 다시 125억 9천 800만원이 더 팽창하여 증가률도 22.2%라는 높은 률을 냈다. 그리하여 1966년말현재 통화량은 692억 2천 200만원을 기록하고 1961년의 2.2배로 붇고있다.

금융부문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은 예속기업들에 터무니없는《우대금융》,《특혜융자》를 실시하는대신에《일반자금》지출은 억누르면서 이미 나간 대부자금을 거두어들이는데만 급급하였다. 따라서 1965—1966년간에 농촌부문과 중소기업부문들에서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군 사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분별없이 날뛰면서 1965년과 특히 1966년에 남조선에서 군사력을 일층 강화하고 새전쟁을 준비하기에 더욱 광분하였다.

1966년에 들어서면서 미제전쟁상인들과 호전광들인 부대통령 험프리(1월과 2월), 국무장관 러스크(7월과 8월), 미제침략군 태평양지구 총사령관을 비롯한 수십명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반역도당과 새전쟁도발을 위한 획책을 연거퍼 모의하였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전쟁두목 죤슨이 직접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면서 전쟁도발을 선동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병력의 증강 그리고 그의 장비의 강화를 위한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비행장, 도로, 철도, 항만의 확장과 군사시설과 설비 등 침략기지 강화와 긴장상태격화를 위한 악랄한 도발소동이 쉴사이 없이 감행되였다.

【미제강점군과 괴뢰군 군사력의 증강】 1965—1966년에 미제는 남부웰남에 대량의 병력을 밀어넣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병력을 더욱더 보강증강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남조선강점침략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1966년 3월에만하여도 남조선에 와있는 예비역장교들과 하사관들을 현역정규군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미제침략군 제7보병사단에 배속되여있는 타이괴뢰군 1개중대를 새로 훈련된 다른 중대로 교체하였다.

이와함께 미제는 남조선강점침략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형기술장비와《특수부대》를 창설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병력은 1966년말현재 수만명에 이르고있다.

1965년에 괴뢰국방부는 미제의 지시에따라 괴뢰군상비병력을 보강할 목적밑에 이 해부터 5년간 매년 22만명의 청장년들을 괴뢰군에 징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해 10월 20일에는《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을 조작하고 12월 29일에는《단기복무장교》를 10년간 더 복무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66년도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웰남침략전쟁의《계단식확대》에 따른 남조선괴뢰군대의 대량《증파》와 관련하여 괴뢰군병력증강에 더욱더 미쳐날뛰였다.

괴뢰국방부는《웰남증파》로 말미암은 병력을 메꾸기 위해《22세이상 31세까지의 제1보충역중에서 5만명을 더 징집할 계획》을 꾸미고《병역의무자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남조선전역에 기피자단속망을 펼쳐놓고 모든 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기 위한 소동을 일으켰다.

이와같이 강제로 몰아들인 병력을 가지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날뛰였다.

1965년《호크유도탄대대》와 3개의 원자포대대를 새로 창설하였으며 1966년에는《32예비사단》을《전투사단》으로 개편했고《제51예비사단》과《해병 제5려단》을 새로 편성했으며 2개의《유도탄부대》를 창설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병력의 증강과 함께 괴뢰군의 기술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나이키헤르쿨레스》대공미싸일, 원자탄두를 쏠수있는 신형《203.2mm 원자포》와 신형전투폭격기《에프5에이》형,《에프5비》형,《엘—19》형 등 각종 비행기들 그리고 레이다가 장비된 경비정을 비롯한 각종 신형 해군함선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비행장 및 항만시설들을 비롯해서 각종 군사시설의 건설

과 확충에 골몰하였다.

【발광적인 전쟁소동】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1965—1966년에 갖은 발광적인 소동을 벌리였다.

놈들은 전쟁도발을 위한 발광에 날뛰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1965년에 《보병, 전차, 포병의 협동공격훈련》, 《군단, 야전군대기동훈련》, 《반잡수합훈련》, 《상륙작전훈련》등을 벌리였으며 1966년에는 한강이남 8개지역에서 감행한 《한미합동훈련》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의 륙해공군과 괴뢰륙해공군합동 《지휘소훈련》, 《한미합동해군 대합사격훈련》등 각종 군사훈련을 50여차례나 벌려놓았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군사정보자료를 정탐하며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무장간첩들을 끊임없이 들여보냈다. 그 파견되는 간첩집단의 규모에 있어서나 그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게 대규모적이였으며 로골적이며 더욱 악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들이 군사분계선일대 지상에서와 해상 및 공중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범행위와 도발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계속 도발소동을 일으켰다.

1965—1966년에 미제가 감행한 정전협정 및 쌍방간의 합의 위반행위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회의들에서 우리측이 미제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하여도 무려 1만 5천 599건이나 된다.

만약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찾지않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은 그들에게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른 불길에 타죽고야 말것이다.

【괴뢰군장병들의 동향】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무모한 전쟁도발소동과 괴뢰군내부생활의 악화로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전쟁공포증과 염군사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널리 퍼지고있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의 웰남파병책동이 심해짐에 따라 《죽을 사람은 우리》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염전염군사상은 급격하게 자라 개별 또는 집단적인 탈주사건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남부웰남전쟁터에 미제의 총알받이로 가있는 괴뢰군장병들속에서는 박정희매국도당이 자기들을 《속여서 웰남에 보냈다》, 《미군고문은 원쑤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날을 따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는바 그들속에서는 《귀국운동》, 지어는 《제3국》을 통하여 그리운 공화국북반부에로 의거할것 등을 모색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사병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적극적행동에 나서고있다.

도망병수는 1961—1964년간에 매년평균 8천여명이 였던것이 1965년에는 35%가 증가한 1만 842명으로, 1966년도에는 이것이 전년보다 약 50%가 더 늘어났다.

또한 괴뢰군장병들은 상관들의 비인간적인 《기합》에 항거하여나서고있다. 1966년 6월 11일 괴뢰군제21사단 21련대소속 한 사병은 부중대장이 가한 《기합》에 항거하여 그를 사살해버렸다. 이러한 사건은 이 해 수십건에 달했다.

매국적인 《한일협정》의 조작, 웰남파병의 강요 등으로 병사들은 반미반괴뢰감정을 퍼뜨리고있으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미제는 돈을 대고 국군은 피와 땀을 대고있다》라고 격분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비난하여나섰다. 그리하여 괴뢰군장병들속에서는 날을 따라 미제와 괴뢰도당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고 《속았다》, 《놈들은 오래 갈수 없다》고 하는 극도의 불신감과 나아가서 반미반괴뢰감정이 부풀어오르고있다.

한편 괴뢰군장병들속에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여 의거하려는 동향이 높아가고있어 1966년에 수많은 의거입북기도자들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사병들이 공화국북반부에로 의거하였다.

사회문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킴과 함께 남조선사회를 암흑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여 남조선인민들을 빈궁과 무권리속에 밀어넣었다. 민족산업의 파멸은 수백만의 실업군을 낳게하였으며 농촌경리의 파산은 남조선에 '만성적인 굶주림을 가져다 주었다.

미제와 식민지괴뢰통치배들의 전횡은 남조선사회에 무질서를 조장시켜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며 패덕과 패륜이 날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사회에는 식량난, 주택난이 차고넘쳐있으며 사고, 재해가 끝일사이가 없게되였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은 상시적인 병마의 위협을 받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퇴폐적인 양풍에 짓밟히고 침략자의 패덕이 지배하는 각종 범죄가 날을 따라 늘어갔다.

더구나 일제의 재침과 웰남파병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존엄은 더욱 엄중한 시각에 처하게되였으며 남조선사회는 미일제국주의의 2중적인 식민지사회로 전락될 운명앞에 놓이게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 첨예화되였으며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괴뢰통치집단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로 떨쳐나서고있다.

【식량난】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식민지수탈정책은 우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만성적 식량난에서 헤여나지못하게 하고있다.

괴뢰정부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5년의 식량부족은 400여만석, 1966년의 그것은 전년의 2배가 넘는 837만석이였다. 따라서 1966년에 년간을 통해 완전기아상태에 있는 인구는 600여만명(부족량을 괴뢰정부가 규정하고있는 1인당 소비기준으로 환산한것)즉 남조선 총인구의 약 4분의 1이였다.

식량생산자인 농민들은 군량미와 일본 등지에 넘겨줄 수출미의 마련을 위해 박정희매국도당이 감행하는 《매상》, 《농지세》, 《교환곡》, 《담보융자》 등등 명목의 수탈과 《반작》, 《분익소작》 등을 강요하는 지주놈들의 봉건적착취로 말미암아 해마다 《추수자절량》이라는 참담한 경영을 되풀이 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에 보도된 일부 단편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호남평야를 끼고앉은 전라북도에서는 1964년말현재로 10만 1천 352호(도내 총농가호수의 39.3%, 59만 3천 392명)가 식량이 떨어져 있었다.

경상남도에서는 1965년 2월초 현재로 13만 2천 549호 (도내 총농가호수의 37.6%, 76만 7천 960명), 충청북도에서는 2월 15일현재 3만 3천여호 (20%), 충청남도에서는 2월 10일현재 1만 5천 739호(9만 1천 180명)가 절량에 빠졌는데 절량농가는 보리고개를 바라보면서 각지방들에서 계속 늘어갔다.

1966년의 식량난은 더욱 심하여 1월하순에 강원도에서 16만 7천 900여명 (도내 전체 농민의 56%), 전라남도 흑산도에서는 전체 농민의 72%가 절량에 빠졌다.

2월초순에 전라북도에서는 6만 5천여호, 충청남도에서는 32만명, 충청북도에서는 3만 2천 304호, 경상남도에서는 5만 1천 200여호, 경상북도에서는 5만 6천여호가, 제주도에서는 년초부터 3천 580여호가 식량이 없었다.

경기도 양주군과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천성리 등에서는 추수한지 두달이 못되여 전체 농민이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였다.

농촌에서 식량난이 극심하여지고 시장에 나도는 량곡이 딸리여 도시들에서도 매년 식량난을 겪는다.

1965년에 량곡시장인 대구시의 서문시장에서도 량곡도매상들이 3월 25일현재 평소의 3분의 1도아니되는 량곡거래를 하였을뿐 그도 매상 반수는 문을 닫았었다.

서울에서도 6월 10일 하루동안에 쌀값이 한가마니에 70～100원씩 뛰였고 목포에서도 50～70원씩이나 올랐다.

학교들에서도 굶는 학생수가 4월현재로 지난해의 2.4배가 되는 186만여명이나 있었다.

1966년에도 년초부터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도시들에서 쌀소동을 겪었다. 지난 년말에 비해 서울시 룡산역앞에 나돌던 쌀은 50%, 대구시 서문시장에서는 매일 평균 300가마니로부터 40～50가마니로 줄었으며 충청남도 대전시에서는 소요량의 절반밖에 쌀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쌀값은 한가마니에 서울시에서는 3천 100원으로부터 4천 500원까지, 대구시에서는 4천 100원으로부터 4천 350원으로, 강원도에서는 5천 500원으로 뛰여올랐다.

그리하여 도시령세민들의 생활고는 더한층 격심해졌다.

【주택난】집이 없는 세대수는 1965년에 120만 6천여세대, 1966년에는 127만 2천 100여세대로 년간에 6만 6천 100여세대가 늘었다. 남조선 총세대수가운데서 집이 없는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 25.3%, 1966년에는 26%였다.

박정희역도가 괴뢰정권을 가로챈이후년간의 집없는 세대의 증가정형을 본다면 1960년에 비해 1965년에는 16만 9천여세대, 1966년에는 23만 5천여세대가 붇고있다.

도시의 평균주택부족률은 농촌에 비해서 4배를 넘는다. 서울과 부산같은 곳에서는 세대총수의 거의 60%까지가 집이 없는 살림이다.

현재 있다는 집들중 도시들에서는 판자집, 움막집, 천막집, 다리밑에 거적을 둘러친 집들이 태반을 차지하고있다. 그런데 괴뢰도당은 집지을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군사적목적을 위해, 《도시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등의 구실밑에 해마다 령세시민들의 《판자집철거》소동을 벌리고 마구 헐어치우고있다.

괴뢰도당은 1965년에 서울시에서만도 1만 6천여세대를 헐어버렸고 1966년에는 부산시에서만도 4만 9천 600여세대를 없애치웠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의 긴장도가 완만하다고 하지만 몇십년씩 묵은 낮은 초가집이 전부이고 인구가 밀집한 지대들에서는 도시에 못지 않은 주택난을 겪고있다.

호남벌에 자리잡고있는 전라북도 김제군에서는 전체 주민의 45%가 집 한간 없이 살고있으며 충청남도 례산군에서도 35%의 주민이 집없는 고통을 겪고있다.

1966년에 집값이 전년에 비해 60%나 비싸졌다. 이에 따라 집세도 2배이상으로 올라 령세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민》】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민족경제의 전면적파탄과 대량적인 실업군중의 사태를 마치나 《인구파잉》에서 오는 어쩌할수 없는 현상으로 묘사하면서 《외지에 가면 땅을 얻어 농사를 지을수 있다》느니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따위의 감언리설의 괴임수를 써가면서 남조선동포를 《농업이민》 또는 《로동력수출》이란 미명아래 죽을

곳으로 내몰아왔다.

1962년 브라질에 92명을 내몬 이래 1966년말현재 《농업이민》총수는 385세대, 2천 129명이였다.

이 밖에 《개인초청이민》, 《국제입양》 등등의 명목으로 도합 1만 1천 761명이 해외로 내몰리였다. 그리하여 《로동력수출》을 제외한 각종 《이민》총수는 1966년말현재 1만 3천 890명에 올랐다.

로동력수출은 1962년에 시작한 이래 1966년말현재까지에 2만 8천여명에 달하고있다.

그중 미제의 윁남침략전쟁과 관련하여 남부윁남에 내몬 《기술로력수출》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는 군국주의서부독일에 대한 《광부수출》 2천 523명, 리베리아, 일본, 기타 등지에 대한 《선원수출》 약 2천명, 미국, 일본, 서부독일 등 15개 제국주의국가들에 《간호원수출》 (1천 400명) 등이 있다.

《농업이민》의 현지생활을 보면 거의가 농토는 고사하고 정착지조차 얻지 못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다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날품팔이로 전락되였다. 남미 14개국에 내몰린 《이민》중 《목적지》에 살고있는 세대수는 브라질에 겨우 74세대 387명뿐 (1966년 10월 현재)이고 기타는 이국의 도시들을 헤매이면서 구두수리, 보따리장사, 식모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정도이다. 생활에 쪼들리는 그들은 담배마저 끊고 겨우 어쩌다 생기는 소금밥으로 주린창자를 달래면서 한데잠을 자고 지낸다.

로동력수출로 군국주의서부독일에 팔려간 광부들은 벅찬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물 한모금 빵 한쪼각 먹지 못하고》있는데 받는 생활비라는것은 돈벌이는커녕 먹고지내기도 바쁜 형편이다. 군국주의서부독일에 팔려간 광부중 3명이 락반사고로 척추가 부러지거나 돌에 묻혀 죽었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났다.

【미제침략군의 만행】 미제 침략군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하고있는 민족적멸시와 모욕, 수시로 감행되고있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등 온갖 야만적인 행패는 최근년간에 급속하게 늘어가고있다.

괴뢰정부 치안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에 215건, 1964년에 224건, 1965년에는 23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있는것을 알수 있다. 더구나 이상의 만행건수에는 이른바 《공무집행상》이란 구실밑에 감행된 고의적인 각종 죄행들이 들어있지 않은것은 말할것도 없고 《공무집행상》이란 구실을 붙일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일반군중들속에서 크게 여론화되지 않은 만행들이 제외되고있다.

1966년에는 미제침략군대의 만행이 더욱 우심하여 1—11월사이에 남조선녀성들에게 가해진 야수적행패 가운데서 치솟는 격분을 참을수 없어 인민들이 공개적으로 규탄한것만도 무려 150건에 달하였다.

미제강점군들의 만행은 우심하여지고있을뿐아니라 그 형태, 수법에서도 더욱 악랄하여가고있다.

미제침략군의 만행이 더욱 포악하여지고 날이갈수록 횡폭하여감에 따라 이를 반대항의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도 억세여져가고있다.

1966년 4월 10일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주민들은 화물자동차로 김광오 (17세)소년을 깔아죽인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격분하여 미제야수 운전수놈과 조수놈을 그 자리에서 돌로 까눕히고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항의가 집단적인 폭력투쟁으로, 반미투쟁으로 거세게 번져나갈 기세를 띠여가자 이에 당황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그들의 여론을 무마기만하기 위하여 1966년 7월 9일, 14년간이나 미루(던 《한미행정협정》을 급작스(《조작》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한미행(정》에서 핵심문제로 되여있는 제침략군대가 저지른 온갖 (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 요구하는대로 사실상 완전 기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치(권적특권을 재확인하여주었 그리하여 《협정조인》이후 미(략군의 범죄적만행은 더욱 (일어났을 뿐아니라 그 횡포(한층 더하고 공공연하게 감(고있다.

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하더라도 《한미행정협정》이 효》한 1967년 2월 9일이후 9일까지의 한달동안에 일어난 제강점군의 만행은 118건으로 근 3년간의 평균만행건수의 (을 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협정조인 미제침략군의 용서 못할 만(지난기간의 최소한 6배이상(붙고있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 이는 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제야말로 한 하늘을 같이 (살수 없는 원쑤이며, 첫째가는 쟁대상이며, 남조선인민들의 갖 불행과 고통의 저주로운 (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하고있(매개 사건을 일일이 다 들(하기 어려울만큼 번질나게 (러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인 행패들에 대하여 남조선(여론은 《민족적인 굴욕감을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우리는 할수 없다》고 격분에 찬 어(지적하여왔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짙어가 반미반정부감정에 비추어 미 강점군의 만행보도에 대해서 엄 한 《관제》까지 실시하면서 미 침략군의 온갖 범죄적만행을 인조장시키고있다. (1965—1(년간개별적만행은 자료편참조)

【범죄】남조선에서 범죄의 본 장은 매국역적박정희역도가 들

않은 《청와대》이다.

138억원을 사취한 《증권파동사건》을 비롯하여 《4대의혹사건》(1962), 《3분폭리사건》 (1963년), 《국유지와 공유지불하사건》(1963—1964년), 《메사돈사건》, 《사카린밀수사건》에 이르기까지 소문높은 범죄사건치놓고 박정희 반역도당이 끼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괴뢰통치배들의 정치부패는 곧 사회적부패를 조장하여 오늘 남조선은 《범죄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 괴뢰통치의 중심인 서울에만도 알려진 조직된 깡패가 27개파, 조직된 소매치기가 80여개파 (남조선총수)나 있다. 그리하여 매년 범죄의 증가률은 세계의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는 17%로, 인구증가률의 6.3배나 된다.

《부정부패》1965년간에 남조선사회의 이목을 어지럽힌 괴뢰지배층의 《부정부패》중에서도 가장 소문이 높았던것은 괴뢰정부 총무처 《공무원》들이 뢰물을 받아먹고 시험문제를 루설한것과 《체신부》직원들이 결탁하여 직원채용시험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꿔치기한 《국가고시부정사건》, 괴뢰 《상공부차관》을 위수로한 직원들이 《특허》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갖은 형태와 방법의 뢰물을 받아먹은 《상공부특허국부정사건》 (이 사건에서는 부정사실을 들춰내야 할 《감사원》까지 한몫 끼여들어 남조선 《공무원범죄사상 하나의 전형》으로 되였다), 괴뢰 보건사회부장관과 《민주공화당》소속 괴뢰국회의원이 제약업자와 결탁하여 《메사돈》마약원료를 대량 밀수입케하고 《10배이상의 폭리》를 보게 한데서 많은 금액을 사취한 《보건사회부부정사건》(메사돈사건) 등이였다.

1966년에도 박정희역적무리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까모도재벌이 괴뢰정권을 등에 업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면속에 11만 4천 269메터(시가 6천만원)의 데트론을 숨겨들이여 폭리를 본 《데트론밀수사건》, 삼성재벌이 비료공장을 건설한다는 구실밑에 사카린 2,400포대(시가 3천만원)를 세멘트로 가장하여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해들여다 폭리를 남기게 한 《사카린밀수사건》, 괴뢰교위철도관리놈들은 남조선 57개역에서 《지능적이며 근대화》된 수법으로 100억원이상의 철도화물운임을 가로채여먹은 《철도화물운임횡령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부정사건》들이 드러났다. 특히 《철도화물운임횡령사건》은 그 조직적규모와 횡령액수, 지능적수법 등에 있어 남조선횡령사건에서 력사상 최고기록을 내였다.

《5대사회악》밀수, 마약, 탈세, 폭력, 도벌 등은 남조선사회의 기본풍조로 되여있으며 이 《5대사회악》의 총본산은 괴뢰정부로서 1965—1966년간에 드러난 《메사돈사건》, 《사카린밀수사건》 등은 그 한례이다.

밀수: 1965년중에 드러난 밀수행위와 밀수입 상품거래는 3천 717건에 4억 6천여만원이란 어마어마한것이였다. 일제와 《국교정상화》를 한 첫1년동안에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입이 급격히 늘어 1966년 1—10월기간에 탄로된 밀수건수는 9천 562건, 즉 월평균 하여 지난해의 3.8배로 늘었다.

마약:1961—1965년간에 드러난 마약관계 범죄는 1만 7천 22건에 1만 8천 949명을 포괄하였고 압수한 물량만도 67만 9천 56그람이나 되였다. 이러한 마약관계범죄는 1966년에 들어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폭력:1966년 1—10월간의 살인, 폭행, 등 폭력범죄는 3만 9천 50건, 월평균 3천 905건으로서 1961—1965년간의 월평균 3천 105건보다 800건이 더 많다.

도벌: 1961—1965년간에 5만 9천 965건에 6만 8천 517명의 도벌관계범죄가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하나의 모리수단으로 되여있는 이 도벌은 괴뢰상층, 경찰, 영림서, 군산림계와 결탁하여 공공연하게 감행되고있으며 이상의 들어난수자는 그 몇분의 1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1964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지리산대도벌사건》에는 괴뢰정부의 우두머리와 《국회》부의장, 《민주공화당》소속 《국회의원》, 《괴뢰농림부 국장》급, 《청와대비서실》련락관들이 한몫 끼여들어 그 피해액만도 2억원을 넘는것이였다.

1966년간에 드러난 도벌건수는 9월말현재 1천 346건이였다.

탈세:남조선에서 거액의 탈세는 매판예속재벌들에 대한 괴뢰정부의 《면세》조치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감행된다. 괴뢰정부는 소형자동차조립시설밖에 없는 《신진공업》에 일본제자동차수입을 허가해주는 외에 관세 8억원을 면세하여주고 정치자금을 받아먹었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제원활유도입에서 1억 5천여만원의 세금을 눈감아주고 막대한 뢰물을 받아 먹고있다.

기타각종범죄 1966년 1—10월기간에 사기, 횡령 발생건수는 2만 2천 869건으로 1965년에 비해서 월평균 7%가 증가하고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들에서는 이러한 범행들이 점차 집단화되여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소년범죄 1965년간의 소년범죄건수는 12만 6천 251건, 1966년 1—11월동안에는 12만 6천 284건으로 월평균에서 1965년에 비해 1966년에 960건이 증가하고있다. 1960년간의 소년범죄건수는 3만 1천 139건, 월평균 2천 595건이였으나 1966년의 월평균은 1만 1천 481건으로, 4배이상으로 불고있다.

소년범죄의 추세는 살인, 강도 등이 매년 10%씩 늘고있으며 점차 강력범으로 변해가고있다. 따라서 그 질도 더욱더 포악하고 지능적인것으로 되여가고있다.

소년범죄가 늘어가고있는 중요한 원인은 미제와 괴뢰도당이 양풍을 조장시키며 부화방탕한 시설, 깽영화, 음탕한 출판물들을

범람시키고있는데 있다.

【사고】 자동차사고: 남조선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사고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준비와 관련한 자동차교통이 붐은것, 사람을 깔아죽이는것을 흥미거리로 하고 자동차를 마구 내모는 미제강점군의 야수적만행, 돈벌이에만 눈이 팔려 수리도 아니 하고 낡은 차를 마구 부려먹는 기업주, 도로시설의 락후 등에 기인한다.

자동차사고의 발생건수는 1965년에 6천 441건, 1966년에는 1만 4천 289건이다. 그에 의한 인명사상은 각각 1만 1천 323명과 2만 233명이다.

1966년도의 자동차사고발생건수와 인명사상자수를 1960년의 6천 342건, 1만 154명과 대비한다면 발생건수는 2.3배, 사상자수는 2배로 불고있다.

1966년의 자동차사고는 하루평균에서 본다면 건수 39건, 사상자는 56명으로 매시간 2~3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있다.

이해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건수는 6천 683건으로 총건수의 46.8%를 차지하고있다.

서울시내 남대문—제1한강교, 동대문—청량리, 아현—로고산, 영등포—로량진을 련결하는 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서울시내 자동차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으며 《4대사고로선》이란 이름까지 나있다.

렬차사고: 1965년에 841건의 사고를 내여 545명이 죽고, 392명이 상처를 입었다. 1966년에는 1—9월동안에 3천 937건의 사고가 일어나 1천 300여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월평균한 1966년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는 전년의 그것들에 비하여 각각 42배와 2배로 증가하였다.

빈번한 렬차사고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하여 물동량이 붐은데다가 시설이 락후하고 조직운영이 란잡한데 기인하고있다.

해상사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빈번한 해상전쟁도발소동, 《한일협정》조작후 더욱 우심하여진 일제어선들의 령해침습과 만행, 해운시설의 불비, 해상기상에 대한 예보의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해상사고가 뻔질나게 일어나고있다.

1965년 2월 7일, 소흑산도 북서쪽 20마일 해상에서 고기를 잡고있던 제13부용호를 미국놈의 상선이 들이받아 부용호의 선원 14명가운데서 10명이 종적을 모르게 된것을 비롯하여 이해 552건의 해상사고가 일어나 364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1966년의 해상사고는 전년의 3배를 넘은 1천 723건이 일어나 421명의 사상자를 내고있다.

폭발물사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이 비져낸 직접적후과의 하나인 폭발물사고는 1965년에 175건이 발생하여 166명이 죽고 224명이 부상을 입었다. 1966년에는 1—10월동안에만도 230건이 일어나 177명이 죽고, 3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은 1965년 한해동안의것보다 건수에서 55건, 인명피해에서 117명이 더 많다.

【재 해】 로동재해: 로동안전을 전연 무시한 락후한 시설과 마구 몰아대는 고된 노예로동의 강요로 말미암아 로동재해는 그칠날이 없다.

특히 탄광, 광산부문에서 그것은 더욱 심하다.

탄광의 경우 괴뢰직할기업체인 화순탄광 하나만 보더라도 1961—1966년간에 총 1만 1천 2건의 사고를 내여 1천 3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것은 매년 1천 834건에 사상 167명을 내여 이틀에 1명씩이 죽어나갔거나 불구 또는 부상을 당했다는것을 말한다.

기타 광산부문에서는 1966년에 3천 500여건의 로동재해가 일어나서 7천 7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해의 사상자수는 1964년에 비해 4천여명이, 1965년의 그것보다 2천 200여명이 불고있다.

풍수해: 1965년에 풍수해로 리재민 29만 58명, 인명사상 915명을 내고 건물 6만 201채와 농경지 14만 3천 141정보를 물에 메웠거나 씻기고 파괴 당하였다.

1966년에는 7월 15일, 불과 4시간밖에 내리지 않은 비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일대에서 6천 430여채의 집이 떠내려갔거나 물에 잠겨 2만 5천여명의 리재민을 냈다. 경작지 피해는 1천 830여정보에 달했다.

이해에 있은 두차례의 비바람에서는 3만 9천 393채의 살림집과 기타 건물이 파괴, 침수, 류실되고, 343명이 죽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리재민 총수는 8만 7천 590명이나 되였다.

그밖의 피해로서는 사태에 묻혔거나 떠내려간 논밭이 무려 20만 7천 616정보나 되고 깨여졌거나 떠내려간 배도 1천 369척이나 있었다.

한재: 수리안전답이라고는 논면적의 2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3일만 비가 안와도 가물을 타는 곳이 남조선농촌이다.

1965년 1월중순에 벌써 1만 5천정보의 보리가 말라죽었고 3월에 있은 가물에는 충북에서 50%, 충남에서 20%, 전남에서 30%의 보리밭이 못쓰게 되였다. 모내기도 7월초현재 례년실적보다 28.8%가 뒤늦었다.

1966년에 가물로 재해를 입은 면적은 11만 6천 695정보였다. 경상남도에서만도 7만여정보에 걸쳐 곡식이 완전히 말라붙어 농사를 망치였다.

화재: 1965년간에 일어난 화재발생총건수는 3천 141건으로 468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이해 화재는 50채이상을 단번에 불살은 큰불이 여섯차례나 있었다. 불살은 집의 총수는 3만 22채나되여 지난해의 그것보다 957채나 많았다. 피해액은 전년도의 2.7배였다.

1966년에는 1월 18일 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단번에 700세대, 465채의 집을 재더미로 만든 큰불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126명의 사상자를 냈고 3천여명의 리재민이 났다.

2월 6일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570여채의 살림집과 가게가 불에 휩싸여 50여명의 사상자와 3천여명의 리재민이 났다.

1966년간에 발생한 화재는 3천 77건이였다. 이 불로하여 3천 482채의 집이 재가 되고 사상자 508명이 났다.

【보건】 1965년현재 병원총수는 전해에 비하여 58개소가 줄었다. 그중 종합병원은 4분의 1이나 줄었다.

의료기관의 도시집중이 심하여 1964년현재 종합병원의 54%까지가 총인구의 12%만을 차지하는 서울에 몰키여있다.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라는것도 그 경영내용과 설비는 엉망이다. 1966년 5월 괴뢰검찰당국이 밝힌바에 의하더라도 시내의 병원가운데서 80%이상이 의사는 없이 병원이라고 차려놓고 자격증없는 조수, 간호원을 두고 《부정의료행위》를 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인구 1만명에 차례지는 의사수는 미제의 주구 박정희역도가 집권한 년간에 체계적으로 줄어서 1965년현재로 2.6명에 불과하며 이것은 1962년보다 1.1명이나 준것으로 된다.

의사의 분포상태는 도시가 80, 농촌이 20으로 비률상 도시가 4배나 된다. 더구나 의사 1명앞에 차례지는 주민수에서 보면 농촌에서는 도시의 5.5배가 되는 1만 주민이 돌아가 도시와 농촌간의 차가 더욱 심한것을 볼수 있다.

1965년말현재 남조선에서 의사가 없는 면 수는 괴뢰들이《일소》를 떠들던 년간에 더욱 불어나 1961년보다 42개면이 더 많은 649개면으로 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부윁남전쟁터에 의사, 간호원, 위생병들을 계속 내몰고있으며 《해외수출》이라는 명목밑에 1965년에 457명, 1966년에는 그 3배가 되는 1천 382명의 의료일군을 외지에 내몰아 보건일군의 부족을 격화시키고있다.

치료비의 인상 괴뢰도당은 1965년부터 서울시립병원 입원비를 하루 100원에서 400원으로, 약값은 하루 90원에서 110원으로 올렸다.

이해 각 《국립병원》이라는것들도 일제히 입원비를 크게 올렸다. 또한 이해 11월에 괴뢰보건사회부는 1966년부터 각 《국립》의료기관들의 입원비를 또다시 더 올려받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의약품《검정료》를 4.5배로 올리여 매건에 5천원씩 받기로 하였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령세주민들은 더욱더 치료를 받을수 없게만 되였거니와 《돈만 아는 곳》으로 되여있는 병원들은 구급환자조차 문턱에 들여놓지 않는다.

서울시 성도구 군자동에 사는 박성근 (7세)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세브란스병원》, 《적십자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구급치료를 간청했으나 수술비가 없다는 리유로 거절당하였다.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에 사는 한 주민은 병이 위급하여 읍내 병원에 이송되였으나 돈이없어 진찰을 거절당하고 병원 문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악화된 주민건강 1965년을 현재로 한 괴뢰도당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주민의 81.5%가 각종기생충병에 걸려있다. 또한 주민의 65% (15세이상은 87.9%)가 결핵에 걸려있으며 그중 83.4%가 전혀 치료를 받아본 일이없었다.

괴뢰정부 로동청은 군국주의 서부독일에 《수출》할 광부 2천 687명 (22—35세)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였는데 그중 66%가 되는 1,706명이 지스토마, 폐결핵, 척주이상, 고혈압을 비롯한 102종의 병에 걸려있음이 나타났다.

1965년 2월 16일 괴뢰국방장관이라는놈은 괴뢰군대내에서 결핵, 성병환자가 《주목할만큼 날로 격증》하고있다는것을 관하에 《특별지시》로 지적하였는데 이날 괴뢰국방부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1964년 1—9월동안에 발생한 결핵환자는 6천 439명, 성병환자는 8천 697명이였다.

1965년간의 전염병발생동태를 보면 장티브스, 뇌염 등 1종전염병이 6천 16명발생에 513명이 죽어갔다. 2종전염병은 1만 2천 490명이 발생하였다.

1966년간 전염병발생동태는 례년보다 일찍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뇌염이 극성하여 3천 600여명에게 발생, 1천여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1965년의 752명 발생에 284명 사망과 대비하면 각각 4.8배와 3.5배의 증가였다.

이해에 지프테리아도 례년에 비해 심하게 창궐하여 11월현재로 서울시에서만도 100여명이 죽었다.

가짜의약품의 범람 남조선의 제약기업체들이란 본래 그 대부분이 시설이 불충분한 령세기업으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여 들인 약품을 세분재포장하는 정도의것이다.

시장에 나도는 약품들도 《부정약품》, 《위조약품》들이 많다.

1965년 9월 괴뢰보건사회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895종의 의약품중 104종이 불량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정의약품》생산의 장본인은 괴뢰정부자신이라는것이 이해에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괴뢰정부는 회충약 산토닌, 설사방지약 베르베린, 해열제 아미노피린, 흥분제 캄파와 크로로포름 등을 대량 해외 (주로 미국, 일본)로부터 수입하여다 제약업계에 내돌렸는데 산토닌은 독성이 강하고 효력이 적어 장내기생충약으로는 적당치 않은

것이였으며, 베르베린은 독성이 강해 사망자를 낼수 있는것이였고, 아미노피린 역시 독성이 강한것이여서 미국놈들 자신도 이미 사용을 금지하고있는 것이였으며, 감파와 크로로포름은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이였다.

1964년에 948키로그람 (1만 2천 220딸라)나 수입하여들인 키니네는 남조선형 마라리아에는 효과가 없다는것이 판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키니네제제를 허가하는 등 괴뢰정부는 반인민적 약사행정을 감행하여왔다. 또한 인체에 암이 생기게 하는 독성이 있는 합성감미료두르진 (년간에 제과 등에 6천톤을 소비한다)을 3년동안이나 두고 시장에 내여돌려 팔아먹었다.

《메사돈사건》괴뢰정부당국의 범죄적약사행정 가운데서도 1965년에 탄로된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은 가장 악랄한것이였다.

메사돈은 1961년 군사 《정권》을 조작한이후 남조선에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64년 11월에는 2천 600키로그람이란 막대한 량이 괴뢰정부에 의해 정식 수입되였다. 이것은 70만명을 중독시키기에 충분한 량이다. 괴뢰정부는 이를 진통제 제제용으로 내돌렸는데 공식추산에 의하더라도 1965년 7월현재 최소한 3만 4천명의 중독자와 수다한 사망자를 낳게 하였다.

【《문화재》의 황폐】 미제의 조종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이 일제와 《한일조약》을 조작한 이후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유산은 미일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더 략탈당하고있다.

1966년 1월—11월 사이에 남조선에 드나든 일제의 정탐배들과 장사치들의 수는 1만 5천 628명, 그중 관광을 빙자한것이 6천 676명으로서 례외없이 상행위와 《문화재》의 략탈을 노리고 드나든자들이다. 이자들의 《문화재》략탈행위가 얼마나 극심한가에 대해서는 김포비행장 괴뢰세관관리까지도 《일인관광객의 태반이 골동품을 들어가고있다》고 말하고있는 사실로써도 잘 알수 있다.

미제 침략자들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문화재》를 략탈 또는 도적질하여가고있다. 그중 현행범의 한가지 례만 들어도 이해 3월 인천 보세창고에서 500년이 상된 고려자기와 족자 등 200여점 (시가 3천만원)이 미국으로 몰래 실려가려던 직전에 발각되였다.

외래침략자들이 《문화재》략탈에 날뛰고있는것을 좋은 기회로 하여 남조선에는 《문화재》만을 전문으로 노리는 《특수절도단》이 나돌아치고있다.

서울시에는 7명이 한패 (그밖에 공모자 6명)가 된 《특수절도단》이 있는바 그 뒤에는 2명의 골동품상과 1명의 대재벌이 도사리고앉아서 《절도단》에 도굴을 지시하고 들추어온 《문화재》를 처분하여주고있다고 전해지고있다. 이 《절도단》이 1966년 한해동안에 도굴한 《문화재》만하여도 무려 500여점 (시가 35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들이 서울시내 56개 골동품점에 흩어져나갔다고 한다.

1965—1966년간에 도난 또는 도굴당한 《문화재》의 일부만을 들어보더라도 1965년에 〈국보〉급 유물 6점,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송관사 《박물관》에 있던 《문화재》 321점, 봉건리조가 쓰던 순금으로 만든 3개의 도장, 론개사당의 유물 16점이 도난을 당하였고 1966년에는 불국사의 석가탑 (경주), 락원사 5층탑 (경북 월성군), 금산사의 6각층석탑 (전북)등이 도굴단에 의해 파헤쳐져 파손되였다. 이 밖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던 모자옥 (시가 20만원) 등 17점의 《문화재》가 도적을 맞았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문화재〉는 황폐할대로 황폐하여 무참한 상태를 드러내놓고 있다.

【교육】 교육의 파쑈화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교육체계전반을 보다 파쑈적으로 개편하고 량심적이며 애국적인 학생들과 교원들에 대한 탄압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매국적 《한일협정》을 반대 배격하는 학생투쟁을 꺾고저 1965년 4월, 6월, 8월의 3차에 걸쳐 이른바 《정치휴교》조치를 강압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25일, 26일에는 괴뢰군대를 동원하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차례로 습격하여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무장군인란동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생운동을 탄압할 목적밑에 강제휴교와 수업중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교육법시행령》을 개악하였다. 이와 같은 반동조치를 토대로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생들의 써클조직 및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공직채용과 취직의 금지, 《정치교수》의 제거 등을 규정한 파쑈적 《대학교육정상화방안》을 조작실시하여 학원에 대한 파쑈적폭압체제를 더한층 강화하는데 광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66년에 《대학연구위원회》, 《학원감사반》, 《학원정화연구위원회》등 학원탄압기구들을 조작하고 이 기구들을 통하여 《보고서》, 《조사서》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그들을 얽어매려고 획책하였다. 그리고 학원을 더욱 군사파쑈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들에 800여명의 괴뢰군장교들을 배치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파쑈적통제를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각급 학교들의 《학칙》과 《준칙》을 제놈들의 비위에 맞게 개악케 했으며 학생

대렬을 분렬와해시키기 위해 학생조직들 내부에 제놈들의 밀정을 박아넣어 그를 어용화하려고 갖은 음모적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극심해가는 학원의 모리화 박정희괴뢰도당은 식민지노예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학부형들로부터 짜내고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공납금》을 해마다 끌어올리고있다. 1965년초에 괴뢰문교부는 중,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50%, 수업료를 20%씩 올렸으며 1966년초부터 또다시 중,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선문학교와 사립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평균 20%, 중, 고등학교입학금을 16.6%씩이나 올렸다. 이러한 《공납금》의 인상으로 하여 남조선의 초중,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1966년에만도 적어도 9억 3천만원이상을 추가적으로 략탈당하였다.

대학들에서의 《공납금》은 1965년에 《국립대학》이 입학금 1천 800원, 수업료 1만 1천 400원(실업계)~1만 3천원(인문계), 사립대학이 입학금 2천 400원, 수업료 1만 8천 600원이였다. 그리고 1966년에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립대학들의 《공납금》은 전년에 비해 신입생은 47~65% 재학생은 25~40%씩 높아졌다.

《국민학교》의 《기성회비》도 해마다 인상되여 보통 200원이상에 달하고있으며 중, 고등학교의 《기성회비》는 1965년부터 50%가 인상되여 3천원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괴뢰도당이 1966년에 긁어낸 《기성회비》만도 26억원이나된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한 학생이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다니자면 공식적인 《공납금》만 하여도 최소한 67만 5천 460원이란 막대한 학비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공납금》외에 이보다 훨씬 더많은 각종 잡부금을 부담해야한다.

각종 잡부금중 일반적인것만을 추려보더라도 괴뢰정권의 비호하에 학원모리배들이 학생들을 뒤문으로 입학시켜주고 받아먹는 《찬조금》, 《기부금》을 비롯해서 담임교사 환영비, 사례비, 송별금, 과외수업비, 학급비, 운동회비, 학예회비, 실습비, 졸업식대 및 《파월장병위문비》등 10여종이나 된다.

서울시내 《국민학교》에서의 담임교사환영비와 사례비를 보면 5~6학년의 경우에는 한달에 2만여원, 아래학년은 한학기에 3만~4만원으로 년간에 10만~3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수업료의 20~70여배나 된다.

잡부금을 짜내는 방법에도 갖가지 교모한것이 있다. 례컨대 학교측과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 및 모리간상배들이 짜고 교과서를 비롯하여 학습장 및 교재등을 엄청나게 비싼값으로 강제판매하고있다. 각종 교과서대금도 해마다 올리고있다. 1966년에 중,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는 15%, 《국정교과서》는 30%씩 각각 올랐다.

이리하여 근로대중의 빈궁화와 수입의 저하에 반비례하는 《공납금》, 잡부금 등 교육비의 앙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는 100여만명이나 된다.

이와같이 돈있는자들만이 다닐수 있는 남조선의 교육제도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시되고있는 전반적인 무료교육제, 9년제기술의무교육과는 근본적으로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교육시설의 부족 1965년초에 《국민학교》의 교실부족수는 1만 9천 643개였으며 1966년에는 그것이 2만 2천 268개로 더 늘었다. 쓰고있는 교실중에서도 낡을대로 낡아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교실이 5만여개나 된다.

그리하여 남조선 《국민학교》들에서는 가교실을 동원하고도 부족하여 5부제까지하는 《다부제》수업을 하고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2개 학년을 한교실에 몰아넣고 《복식수업》을 하고있다.

남조선 《국민학교》들에서는 심각한 교실부족으로 학급정원수를 80명으로부터 120명으로 늘이고 있는 형편에 있다.

교사가운데는 낡은 목조건물이 많다. 이 낡은 목조교사중에는 50년이나 묵은 건물도 있어 화재는 고사하고 비바람에 무너지거나 저절로 넘어지는 등 빈번한 사고들을 내고있다.

교원부족 1966년 5월현재 남조선의 교원부족수는 4만 700명에 달하였다.

각급 학교의 교원부족정형을 보면 괴뢰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민학교》는 14%, 중, 고등학교는 43%나 된다. 《국공립대학》의 교수부족수는 70%에 달하고있다.

교육시설의 부족과 함께 교원의 부족으로 하여 서울시와 같은 데서도 《법정교수시간》의 70%밖에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에 있다.

문학예술 남조선의 반동문학예술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 파쑈화정책에 적극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1965—1966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한일협정》조작과 월남파병책동을 적극화하고 사상문화분야에서 《반공》과 전쟁고취에 발광하면서 어용작가예술인들을 추기여내몰았다. 그리하여 1965—1966년에 남조선반동문학예술은 구미부르죠아반동철학과 문예사상조류의 독소를 한층더 풍기여가면서 전쟁과 《반공》, 민족허무의 진구렁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 사상주제적내용에서는 인간증오와 비애, 허무, 절망과 불안, 공포와 죽음을 례찬하는것들이 주가 되고있다. 특히 색정주의는 여전히 첫자리를 차지하면서 모든 작품들에 끼여들었다.

창작수법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형식주의가 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반동작품들은 남

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반괴뢰투쟁이 강화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들을 혁명투쟁의 대렬에 나서지 못하게 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으로부터 떼여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또한 이 년간에 남조선문학예술계에는 《한일협정》이 조작된것을 계기로 하여 일제반동문학예술이 역적 박정희졸개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침입하여 남조선을 휩쓸 차비를 하였다. 그것은 문학분야에서 왜색류행소설의 내용을 몰래 본따온 서푼짜리소설과 더불어 영화의 《한일합작》, 일본반동무용가에 의한 왜색무용의 보급, 일제어용음악가의 《초빙공연》 등 각종 형식을 통해 공공연하게 감행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류포조장된 구미반동문예사상조류의 횡행과 왜색문학예술의 직접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예술은 쇠퇴와 말살의 엄중한 단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남조선문단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하에서도 량심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진보적경향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였다.

남조선의 진보적경향의 문학작품들에서는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를 더욱더 파산에로 내모는 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폭로하고있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파쑈적으로 탄압하는 괴뢰경찰의 만행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한일협정》조작책동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의 절절한 념원을 담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언론, 출판】 1965—1966년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한일조약》의 체결, 웰남파병, 《한미행정협정》조작 등 매국배족적책동을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항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파쑈탄압을 강화하였다.

다른 한편 이 년간에 남조선의 언론, 출판은 미제의 비호밑에 재생한 일본군국주의의 침습을 심하게 받았다.

1965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한일타결》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괴뢰군경의 집단적만행과 량심적인 언론에 무지막지한 파쑈테로를 가하였다.

4월 6일에 괴뢰 중앙정보부깡패일당이 《경향신문》사를 습격하고 《수색》을 감행하였으며 5월에는 괴뢰군《방첩대》가 군대내에서 일어난 《군일부반정부음모사건》을 취재보도한 괴뢰국방부출입기자 3명을 잡아가는 등의 만행을 부렸다.

한개 전투사단병력을 웰남침략전쟁에 내몰 흉계를 짜고있던 괴뢰국방부는 7월 1일 취재기자들의 활동을 완전봉쇄하였다. 9월 7일과 8일 량일에 걸쳐서는 《동아일보》편집국장대리 사택에 대한 《다이나마이트투척사건》을 일으켰으며 계속하여 《동아방송》제작과장 랍치테로폭행사건, 《동아방송》부국장에 대한 《일가멸살협박사건》 등 폭행, 테로, 협박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1966년에 들어와서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군 《증파》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세를 억누르며 1967년에 있을 《총선거》를 위해서 진보적언론과 야당적언론에 대해 류례없는 탄압을 가하였다. 1966년 4월, 7월에 걸쳐 감행된 《동아일보》기자와 정치부차장, 편집국장에 대한 습격, 테로, 협박사건 등 이른바 《정치테로사건》이 감행되였다. 그리하여 1965—1966년간에 기자와 언론인들에 대한 괴뢰군경과 중앙정보부깡패집단의 테로폭행만도 10여건에 달한다.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강제 페간된 정기간행물은 1965년에 190종, 1966년에 254종이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제의 반동적출판기관과 출판물을 끌어들였다.

1965년 4월현재 남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일제의 신문, 방송, 통신기자만도 8명이나 되며 단기적으로 서울에 드나드는 기자는 년간에 100명을 넘는다. 1966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신문협회대표단》일행 13명을 서울에 끌어 들여 사상문화적 《제휴협력》을 떠버렸다.

서울시내에는 일제서적전문서점이 10여개 (1965년 현재, 서울시내 책방총수의 10%)가 있고 여기에서 파는 일본군국주의도서는 시내 모든 책방들에서 파는 외국서적총수의 80%를 차지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한일협정》조작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신문, 잡지들의 귀중한 소재로 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량심적론조의 중심을 이루었다. 1965년에 남조선신문들은 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을 단죄하는 론설을 비롯하여 여론 묶음, 머리글들을 계속하여 발표하였으며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괴뢰군《파병》책동을 반대하는 사설이 발표되였다.

1966년에 들어와 량심적언론의 동향은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는데로 나아갔다. 특히 《로동신문》이 론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를 발표한이후 진보적언론은 《자주성확립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제기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주체력량을 준비》하며 침략적외국세력에 《기백있게 항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일조선공민

재일조선공민들의 력사적지위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게된 유래】 일본에는 60만의 조선공민들이 살고있다. 그들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일본에 류랑한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하여 갖은 민족적멸시와 박해를 가하였으며 그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거나 류랑하여 간 조선사람은 500여만명이나 된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시기에 전시로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전시징용제도》를 실시하고 334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용하여 전선로무자로 투입하였거나 일본으로 끌어갔다.

일제는 일본으로 끌어간 조선사람을 례외없이 탄광, 광산, 토목공사장, 군사시설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부문에 밀어넣었다.

일제의 공식적자료에 의하면 로동재해가 가장 심하던 일본탄광들에서만도 40만명의 조선인로무자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생활비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가하였다.

일제는 일본에서 지방경찰장관이라는 자를 책임자로하는 이른바 《협화회》를 만들고 조선사람들을 특별감시대상으로 하여 사소한 언행에 대해서도 트집을 걸어 검거투옥하였다.

1933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는 《치안유지법》, 《공무집행방해》등의 죄명을 씌워 재일조선인들을 4만 9천 468명이나 검거투옥하였다.

이뿐만아니라 일제는 여러차례에 걸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사건을 일으켰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시에 일제는 사회적불안과 인민들의 원성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 그리고 테로단들을 동원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대학살만행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도꾜와 그 부근에서만도 6천 600여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되였다.

또한 일제는 재일조선인들을 탄광, 광산들에서 참살하는것을 예상사로 삼았으며 군사시설건설에 동원되였던 조선로무자들을 《비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1938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에 훗까이도탄광들에서 830여명이 학살된것을 비롯하여 1940—1944년간에 일본전국탄광에서 6만여명의 조선로무자들이 학살되였다.

일제는 꾸릴렬도의 《가시마구미》에 동원되였던 5천여명의 조선인로무자들을 참살하였으며 에무지섬에서는 2천 500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와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에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한 학대와 살인만행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오늘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사람들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악독한 민족적멸시와 폭압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나 그의 자손들이다.

【8.15 해방후 재일조선인들의 처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된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은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민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외국인으로서의 재일조선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 법적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더우기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력사적지위에 비추어보거나 그들에 가한 저들의 죄행에 비추어보더라도 재일조선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응당 보장해야 할 도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정부는 일본점령 미제침략군당국과의 공모하에 그들을 《국적이 없다》느니 《제3국인》이니 하면서 재일조선인들에게 갖은 모욕과 탄압을 가하는 등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계속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잔당들은 미에현, 지바현, 교도부, 아오모리현, 훗까이도, 도꾜도,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후꾸시마현, 도야마현 등 일본 각지에서 재일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1945년 8월 24일 일제해군잔당은 훗까이도탄광들에 강제로 끌려갔던 3천 735명의 조선로무자들을 기만과 공갈로 수송선 《우끼지마마루》에 태운후 선박을 폭파시켜 학살하였다. 그후 오늘까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관하게 미제와 공모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민족적차별과 적대정책을 실시하였는바 그들은 무장한 경관대를 대량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적극 비호사촉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부락과 기관들을 습격하였

으며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하고 마구 검거투옥하며 재물을 빼앗는 한편 수많은 재일조선공민들을 남조선에 강제추방하는 등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미제의 지시하에 1948년 3월에 조선인학교들에 대한 《폐쇄령》을 선포하고 수천명의 무장경관을 동원하여 민족교육을 위해 떨쳐나선 재일조선공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고베에서만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옹호해나선 재일조선인 약 2천명을 체포구금하였으며 김태일소년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함에 앞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탄압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했으며 특히 민족교육의 실시를 말살하기 위해 10월 19일에는 500여개나 되던 각급 조선인학교에 《폐쇄령》을 내리고 절대다수의 조선인학교들을 폐쇄몰수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국적을 괴뢰《한국국적》으로 변경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출입국관리령》, 《외국인등록령》을 악용하여 1947년부터 1964년 6월까지의 사이에 21만 1천 449명 (일본당국이 발표한 자료)의 재일동포들을 검거투옥하고 벌금을 들씌우는 등 각종 형벌에 처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령》을 악용하여 1950년 12월부터 1966년 6월까지의 사이에 1만 5천 180여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을 남조선으로 강제송환하여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넘겨주었다.

1962년에 일본경찰당국자들은 아무런 리유없이 150여명의 무장경관을 동원하여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를 습격하였으며 1개월후에는 이 학교가 《원인불명》의 불에 타버렸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1963년 3월 7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 불을 놓아 교사 한채를 태워버렸으며 이에 앞서 1962년 10월과 1963년 2월의 두차례에 걸쳐 총련 쯔시마본부를 비법적으로 습격하여 수색하였다.

1965년에 일본사또반동정부는 미제의 조종하에 범죄적《한일조약》의 체결을 서두르면서 남조선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기관에 대한 파괴암해책동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살상폭행, 인권침해 등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탄압을 강화하는 범죄행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1965년 2월과 3월에 오까야마와 교도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잔당들이 《재일조선인들을 모조리 추방 또는 총살하라》는 내용의 삐라를 뿌린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에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총련을 파괴할 목적으로 권총과 화염방사기로 무장한 미제의 고용간첩을 저들의 비호밑에 총련 아이찌현본부에 침입시켰다.

일본사또반동정부는 《한일회담》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공모하에 재일조선인들의 소위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조작한후 각종 위협공갈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재일조선인들에게 소위 《한국국적》을 들씌우려고 책동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는 1965년 10월 재일조선인들의 국적문제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통일견해》라는것을 발표하여 재일조선인들중 소위 《한국국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으로 변경시킬수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은 국적으로 인정된것이 아니라는듯이 지껄렸다. 이보다 앞서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시, 정, 촌 기관들에 《한국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으로 고치겠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절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내였다.

한편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오래전부터 꾸며오다가 범죄적《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65년 12월 28일에 소위 《문무차관통달》이라는것을 각 도, 도, 부, 현의 지사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들에게 보내여 재일조선공민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들을 인가하지 말것과 재일조선인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할것을 지시하였다.

1966년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한고리로서 재일 조선인들에게 《영주권신청》과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였으며 《외국인학교제도》 조작음모, 귀국사업파괴책동 등 각 분야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았다.

1966년 1월 19일부로 효고현 아마가사끼중앙경찰서장놈의 명의로된 《외국인 (조선, 중국) 세대에 대한 특별순회련락실시에 대하여》란 《비밀통달》이 관하 각 파출소에 하달되였다.

일본경찰은 이 《비밀통달》에서 《호별방문, 미행, 밀고, 직무질문》 등의 온갖 비렬한 수단을 다하여 재일동포들의 일거일동을 감시케 하였으며 불법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뒤이어 3월 13일 총련 오까야마현본부에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일본내정에 간섭》하고있다느니 《일본의 경찰을 협박》한다느니 《치외법권적인 령역》을 만들고있다느니 하는 등의 허황한 내용의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행위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도전자》니 《침략자》니하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 그들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하고 일본인민들과의 리간을 꾀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탄압할 구실을 찾아내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또한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로부터 민족적권리를 모조리 박탈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여 더욱 가혹하게 박해탄압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의 2중의 예속과 억압밑에 얽매여놓으려고 책동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는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사이에 꾸며낸 《재일조선인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방패로 1966년 1월 17일부터 《영주권신청》놀음을 벌려놓고 지방관리들과 경찰, 검찰, 재판소, 공안조사청 등 폭압기구들, 지어는 교육, 금융기관인원까지 풀어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로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총련간부들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검거, 살상폭행, 간첩행위강요 등 야수적인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2월 5일 군마현 구사쯔마찌에서 정윤혈청년이 까닭없이 일본불량배들한테 맞아죽은것을 비롯하여 홋까이도 투모이군 오비라촌에서도 조재사업장에서 품팔이하던 리윤채동포가 일본놈의 감독 나까가와와 그 일당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13일 가나가와현 요꼬스까시 다우라경찰서는 무장경관 100여명을 동원하여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요꼬스까지부 조직부장 최룡국의 집을 습격수색하였다. 또한 5월 11일에 오사까부 히라가다시에서는 경찰놈 6명이 박일장동포를 리유없이 파출소에 가두어놓고 때리고 차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다.

5월 11일 효고현 아마가사끼시에서 일본불량배들이 허태호, 차광신 청년들에게 갈부림을 하여 중상을 입힌것을 비롯하여 일본전국각지에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에게 가해진 폭행사건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또한 이해에 일본반동들은 일본각지방에서 총련에 대한 파괴암해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오까야마현 오까야마지부 사회경제부장이란놈은 리영택에게 간또공안조사국 《조사원》들인 오꾸야마와 우에무라가 간첩행위를 강요하여 그를 자살에까지 몰아넣은 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해에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온갖 선전수단을 다하여 재일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라고 비방중상하면서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이란것을 국회에 상정통과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소위 이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학교설치와 관리운영은 물론 교원의 임명, 교육내용 등 전반에 걸쳐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직접 간섭통제하며 저들의 비위에 맞지않을 경우에는 《반일교육》이라는 딱지를 붙여 어느때나 그 학교들을 페쇄할수 있게 하려는것으로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그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책동과 함께 10월 3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녀학생기숙사에 계획적으로 불을 놓아 완전히 타버리게 하였으며 그후 이 학교에 대한 폭행은 10월 16, 21, 23일 11월 1, 2일의 다섯차례에 걸쳐 감행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이해 8월 23일 《귀국사업이 너무 오래 계속되였다.》는 등 당치도 않은 구실을 붙이면서 7년간이나 순조롭게 진행되여온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앞으로 1년간만 연장하고 그 이후는 페기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롱락물로 삼으려는 행위로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정신에 완전히 배치될뿐만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례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는 비법적이며 부당한 처사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자기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의 실현을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완강한 투쟁이 계속되고 이를 지지하는 내외여론이 비등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하면서 유독 재일조선공민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융자, 원료구입, 판로, 영업인가 등에서 각종 제한을 가하며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기업활동을 극력 방해하는 민족적차별대우를 실시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배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상에 대하여 항상 깊은 육친적인 배려를 돌리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더욱더 악랄하여지는 일본사또반동정부의 비법적인 박해와 탄압책동을 강력히 반대하고 재일동포들의 공민권과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 및 생활권을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6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반동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파괴책동을 감행하며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테로 등 온갖 박해를 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월 7일, 6월 9일 그리고 10월 25일의 세차례에 걸쳐 성명

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에서는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 기관들에 대한 모략적 파괴책동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차별정책을 즉시 중지하며 해당한 범죄자들을 지체없이 적발하여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일본사또반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또한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소위 《한국국적》을 강요하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1월 5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려는 재일조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비법적처사를 즉시 중지하며 국제법의 제원칙에 따라 재일조선공민들의 기본인권을 무조건보장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65년에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원조하기 위하여 세차례(3월, 8월, 11월)에 걸쳐 8억 751만원(일본화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었다.

1965년 5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에 제하여 총련일군들에게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였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조선대학교원들에게 교수, 부교수 학직을 수여하였으며 10월에는 총련산하 문예일군들에게 공화국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하였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에 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공동명의로 축기를 보냈으며 사회단체들에서와 인민들은 수많은 축전, 축하문들과 선물들을 보내였다.

1965년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사업은 계속되여 이 해 11차에 걸쳐 2천 255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왔다.

1966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하며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미일반동지배층과 박정희도당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괴압해, 살상폭행이 계속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월 16일, 8월 25일, 11월 22일 세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에서는 일본반동정부가 《외국인학교제도법》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며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것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에 대한 파괴책동을 즉시 중지하며 그의 부당한 결정을 철폐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66년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원조하기 위하여 세차례(2월, 8월, 11월)에 걸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8억 864만원(일본화페로)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보내주었다. 이리하여 1957년 4월부터 1966년 11월까지 22차에 걸쳐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총액 53억 1천 736만 5천 493원이나 된다.

1966년 공화국정부는 총련결성 11주년과 조선대학창립 10주년 및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20주년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에게 국가수훈과 표창을 하였으며 공화국 국가학위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는 11월 8일에 3명의 조선대학교원들에게 공화국 부교수학직을 수여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교수, 부교수 학직을 받은 교원들의 수는 모두 13명이나 된다. 뿐만아니라 조국에서는 공화국내각축기를 비롯한 수많은 축기와 축전, 축하문, 그리고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었다.

1966년에도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은 계속되여 12차에 걸쳐 수많은 재일조선공민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귀국사업이 시작된 1959년 12월 16일부터 1966년말까지 144차에 걸쳐 도합 8만 6천 783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이 돌아왔다.

귀국자 2만 4천세대중 그 절대다수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귀국공민들의 생활

조국에 돌아온 동포들은 그들이 일본에서 그렇게도 항상 흠모하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직접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베풀어주는 육친적배려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자기의 희망과 기능에 따라 마음껏 일하며 배우고있다.

이국땅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동포자녀들은 자기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 입학하여 무료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근심걱정없이 공부하고있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고있다.

일본에서 고된 로동으로 불치의 병에 걸려 신음하던 수많은 동포

들이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새 희망과 광명을 찾았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귀국공민들에게 문화적인 주택과 살림살이를 마련해주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생활하게 할뿐만아니라 해마다 각별한 배려를 돌려 그들을 휴양소에 보내며 또한 관광 및 견학에 참가시키고 있다.

귀국동포들은 이렇듯 보람찬 생활을 누리면서 당과 수령의 육친적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수많은 귀국동포들을 표창하시였으며 공화국정부는 이미 2천500여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각종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다.

2천 500여명의 귀국동포들은 천리마기수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귀국동포들은 정권기관, 각 사회단체일군으로서 광범한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다.

귀국공민들 가운데는 1962년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과 1963년 12월에 진행된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 당선된 919명의 지방주권기관대의원들이 있는바 이들은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열성껏 사업하고있다.

그리고 수백명의 귀국동포들이 중공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 각 부문의 책임적지위에서 사업하고 있다.

1965—1966년 총련의 제반 애국 사업

1965년에 총련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정부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특히 김일성원수의 신년사와 총련 중앙 한덕수의장에게 보낸 신년축전에서 주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총련중앙이 제기한 10개 주요과업—①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족단합과 반미구국투쟁을 전동포적으로 전개 ②《한일회담》을 반대분쇄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과 국제적련대성을 한층 강화 ③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며 동포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 ④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왕래의 자유실현을 위한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귀국사업을 계속보장 ⑤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질을 일층 높이며 ⑥재일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성인학교사업을 한층 강화 ⑦문학예술활동을 강화하고 중앙예술단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며 체육사업을 적극 군중화 ⑧각계각층동포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총련조직을 더욱 확대공고화 ⑨일군들의 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제고 ⑩총련결성 10주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성과로서 맞이할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다하였다.

1965년은 총련이 자기의 결성 열돐을 맞이한 해로서 총련의 제반애국사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한해였다.

총련결성 10주년을 경축하는 광범한 사업과 함께 이해 2월에 진행된 총련 중앙위원회 제7기 3차회의와 8월에 진행된 총련 중앙위원회 제7기4차회의가 제기한 방침에 따라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전동포적운동이 전개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이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였다.

또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과 조선인민의 8.15해방 20주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서 맞이하였다. 총련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하여 이해의 10개 주요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66년에도 총련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은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김일성원수의 신년축전에서 주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총련중앙이 제기한 7개 주요과업 ①매국적《한일조약》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촉진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사업 ②괴뢰《한국국적》의 강요책동을 배격하고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고수하며 조국에로의 왕래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사업 ③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업 ④재일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선전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사업 ⑤문화예술과 체육사업의 질을 제고하며 그의 군중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한 사업 ⑥일군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사업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업 ⑦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과의 우호친선과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사업 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다하였다.

특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공민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서 맞이하였다.

또한 재일조선공민들은 이해에 있은 총련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와 제6차회의 방침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공민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총련과 전체 재일동포들은 범죄적《한일조약》이 체결된 이후 내외반동들의 총련과 재일동포

에 대한 더욱 악랄하여지는 탄압책동을 물리치면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제반 애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은 조선대학창립 10주년과 재일조선자녀들의 중등교육실시 20주년을 기념하는 광범한 경축행사를 통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정당성과 그 성과를 크게 과시하였다.

총련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이해의 7개 중요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총련조직을 일층 확대공고화하는 사업】 1965—1966년에 총련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체를 김일성원수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전통 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동포들간의 원칙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부단히 힘썼다. 또한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학습과 학습년도계획에 따른 학습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세련된 활동가집단으로 자랐으며 굳게 단결되였다.

총련의 각급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렸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였다. 1965년 6월에 진행된 지부정기대회들을 통하여 지부들의 사업체계가 째이고 말단지도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였다.

총련의 기층조직인 분회가 튼튼히 꾸려지고 분회위원들에 대한 원칙적인 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분회사업이 보다 활발해졌으며 《모범분회》 창조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특히 1965년과 1966년에 진행된 분회열성자 제4차대회와 제5차대회를 계기로 분회사업, 특히 《모범분회》 창조운동이 더욱 발전하였다.

전체 총련분회들의 과반수이상과 수십만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모범분회》 창조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새로 수많은 분회가 《모범분회》의 칭호를 쟁취하였다.

또한 총련의 지도밑에 조청, 녀맹, 상공회 등 모든 산하단체 일군들은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자기 조직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총련의 모든사업에서는 김일성원수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이 구현되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총련사업이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사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 어떤 풍파속에서도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며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대중을 제반애국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불패의 대오로 확대되였으며 공고화되였다.

총련은 48개의 현본부와 3백여개의 지부, 2천여개의 분회 등 정연한 조직체계와 조청, 녀맹을 비롯한 13개의 계층별단일단체 및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 경제 등 13개의 각종 사업기관들을 가지고있으며 자기 대렬에 60만 재일동포들의 압도적다수를 망라하고있는 강력한 민주주의적 민족적조직체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허물수 없는 권위와 영향력을 확립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사업】 1965—1966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의 민족적차별과 박해가 더욱 우심해지는 속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을 전동포적으로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 놀음과 괴뢰 《한국국적》강요책동의 본질을 전군중적으로 철저히 폭로배격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매국배족의 길로 끌어당기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65—1966년에 일본각지에서는 《한국국적》으로 있던 동포들이 《조선국적요청자회》를 조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찾기위한 군중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당하였던 수많은 동포들이 굴욕적인 괴뢰 《국적》을 내던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쟁취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지지하여 1966년에만도 일본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과 도쿄, 오사까, 교도, 혹까이도를 비롯한 94개의 지방자치체의회가 결의를 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고치는것을 인정하도록 자기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1965—1966년에 재일동포들은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의 길을 끊어버리려는 일본반동정부의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고 현행귀국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여 전동포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6년 7월과 8월에 걸쳐 련일 수천명의 재일동포들이 일본수상관저와 후생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몰려가 일본당국의 귀국협정파괴책동을 규탄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투쟁과 내외여론에 눌리여 일본사또반동정부는 현행귀국협정을 1년간 더 연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함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1965년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63년 5월 1일에 이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시작한이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군중집회, 서명활

동, 요청행동, 요청행진, 출판물활동 등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다.

이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여 일본의 1천 62개 지방의회들이 결의를 채택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왕래를 즉시 인정할것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국제단체들이 이 운동을 지지성원하였다.

이와 같이 비등된 여론앞에서 일본당국은 1965년 12월 28일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리인수, 리광훈동포들에게 《일본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게 되였다.

총련은 또한 내외반동들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살상, 폭행, 간첩행위강요 등 인권침해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히 투쟁하였으며 혼인, 상속 등 동포들의 민사상의 제권리를 적극 옹호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의 생활권을 옹호하는 사업을 적극 강화하여 동포들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적용, 주택문제 등 생활상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여주었으며 극빈한 동포들과 재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구원사업을 군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총련은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학원에 새로 많은 동포상공인들을 망라하여 교양하는 한편 상공단체조직들을 더욱 확대공고화하였다.

동시에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당국의 부당한 과세, 강제사찰 등 민족적차별과 박해를 내외에 폭로하며 동포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협동조합들의 사업을 강화하고 융자를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동포상공인들에게 많은 리익을 주었다.

이리하여 동포신용조합들은 보다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의 대중적기반이 일층 확대강화되였다.

총련산하에는 1966년말 현재 28개의 신용조합들이 있는바 이 조합들은 출자금 23억 6천여만원, 조합원 8만 6천여명을 망라하고있으며 예금액 규모는 480여억원이나 된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박해행위가 날로 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총련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1965년에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일본의 각계인사들은 《일조민족교육문제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지지성원하였다.

1966년에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소위 《외국인학교법》을 조작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총련은 이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각종 군중집회와 서명, 가두선전, 항의, 요청 등 전동포적인 투쟁으로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았다.

이해에 400여개의 중앙단체를 포함한 3천여개의 일본사회단체들과 5천 300여명의 일본의 저명한 학자, 교육자, 문화인, 법률가들이 소위 《외국인학교법》의 조작을 반대하며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이해 12월 20일 도쿄도의회가 결의를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오사까부, 교도부, 기후현의회 등 164개의 지방의회들이 결의를 채택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할것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해에 재일조선공민들은 새로 41개의 학교설치인가를 쟁취하였으며 6개의 교육회의 법인인가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설치인가를 받은 재일조선인학교수는 도합 98개이며 법인인가를 획득한 교육회수는 모두 12개이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열성에 의하여 1965년에 도쿄도조선중고급학교 본관이 신축되고 동북지방에서 처음으로 욕까이찌초급학교를 신설한것을 비롯하여 14개 학교가 신축 또는 증축되였으며 1966년도에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호꾸리꾸조선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를 비롯한 10개 학교들의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9개의 학교들에서 신증축사업이 추진되였다.

이리하여 1966년말 현재 총련은 현대적시설을 갖춘 조선대학을 비롯하여 71개의 초급학교, 9개의 고급학교를 포함하여 140여개의 각급 정규학교와 수백개의 비정규학교를 가지고있으며 여기에는 2천여명의 조선인교원들에 의하여 4만여명의 동포자녀들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고있다.

재일동포들과 청년학생들은 조선대학창립 10주년과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2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특히 3천 500명 학생들이 출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등을 창작발표함으로써 동포자녀들을 조국과 수령의 충직한 아들딸로 교육교양하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본질을 천명하고 그 정당성과 우월성을 널리 과시하였다.

1965—1966년에 교원집단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모범교원집단운동》이 더욱 확대발전하여 교원들의 정치사상성과 교수교양수준을 일층 높였다. 1966년말 현재 《모범교원집단 운동》에는 전체 교원수의 96%가 참가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

주의교양이 강화되고 학교내 조청, 소년단사업이 개선강화되였으며 학생들의 학과성적이 한층 높아졌다.

교육회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함으로써 교육회조직이 강화되고 학교신증축사업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학교운영관리사업이 개선강화되였다.

과학자들과 류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강화된 결과 그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인테리집단으로 되였으며 자체를 더욱 단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과 성인학교사업】 1965—1966년 총련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범죄적인 《한일조약》이 맺어진후 내외 반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처하여 총련은 대중정치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주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총련은 선전교양체계와 수단들을 동포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강화하고 그것들을 적극 동원하여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수령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으로 교양하였으며 원쑤를 미워하며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적주체의식을 높이여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간직하도록 교양하였다.

군중교양사업에서 총련은 구두선전에 큰 비중을 두고 매시기 대중교양사업을 체계있게 조직진행하였다.

총련은 1966년 4월에 선전원열성자 제2차대회를 조직하고 조성된 정세와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정치교양사업을 더 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제반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에만도 총련은 대중정치선전사업을 다섯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년 1만 7천여회의 강연회와 좌담회 및 개별담화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60여만의 성인동포들을 망라시켜 교양하였다.

다른한편 총련은 동포들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분회위원, 선전원들에 의한 5호담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개별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모범들이 창조되였다.

총련은 또한 성인학교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성인학교, 청년학교에서는 1965년에 3만명의 동포들을 망라시켜 그중 2만명을 수료시켰으며 1966년에는 3기에 걸쳐 수많은 동포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급 기관들은 조국연구실을 실속있게 꾸리고 동포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비롯하여 조국의 력사와 문화전통,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의 발전모습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1965—1966년 총련의 출판보도사업도 강화되였다. 이 기간에 새로 에스빠냐어 및 프랑스어판 신문 《인민조선》, 《사진속보》가 발간됨으로써 정기출판물은 다섯나라말로 되는 신문들을 비롯하여 29종으로 늘었으며 그 독자수도 장성되였다.

《조선신보》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은 자기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성과 대중성,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의 조직선전자적역할을 더욱 높였다.

1965—1966년 출판보도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도 일층 강화되였다. 이미부터 진행하여오던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청사증축공사는 1966년 3월에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고속도륜전기를 비롯한 최신식기계설비들을 다 갖추어놓았다.

총련은 1966년에만도 100여종, 수십만부의 단행본을 출판배포하였으며 또한 많은 조국의 서적들을 널리보급하였다.

이와 같이 군중교양사업과 출판보도사업들이 강화된 결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쳤으며 내외원쑤들의 온갖 기만선전과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확신성있게 전진하였다.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총련은 1965—1966년에 문화예술과 체육사업의 질을 높이며 그의 군중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은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문학예술과 체육을 개화발전시키고있다.

총련 산하의 작가예술인들은 조국의 벅찬 현실을 깊이 학습하는 한편 동포대중들의 생활속에 들어가 주제를 탐구하고 창작에서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집체적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조국과 수령에 대한 흠모와 충성심, 재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반미구국투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민족적형식에 풍부한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학작품과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였다.

총련의 문예일군들은 1965년에 621편, 1966년에 400여편의 소설, 희곡, 시 등을 창작하였으며 미술가들은 1965년에 249점, 1966년에 800여점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영화부문일군들은 1966년에만도 10여편의 기록영화와 시보영화를 각각 제작하였다.

재일본조선중앙예술단은 사상예술성이 풍부한 공연종목을 가지고 1965—1966년에 년 340여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1966년도부터 지방공연을 하였다. 이러한 공연들을 통하여 총련의 예술인들은 60여만명의 동포들을 관람

시켰는바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도교를 비롯한 각 지방에 조직되여 있는 문선단과 1천여개의 문예소조에는 수만명의 동포들이 망라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우리 노래와 가야금소리가 흥겹게 울려나오게 되였다.

특히 총련결성 10주년과 공화국창건 17주년을 기념하여 재일조선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조국에 드리는 노래》와 음악무용 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내외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과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조국영화상영사업은 지난 기간 7천 700여회에 걸쳐 조직진행되였으며 이를 관람한 동포들과 일본인수는 100만여명이나 된다.

또한 총련은 체육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체육의 군중화를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체육소조수는 천여개에 이르게 되였으며 여기에는 체육을 좋아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망라되였다.

1966년에만도 11개의 종목별 중앙경기대회를 비롯한 300여회의 각종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6만여명의 선수들과 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재일 조선축구단은 조직된 이래 일본각지의 우수한 선수들과의 수많은 경기에서 거의 련전련승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1966년에도 36회의 친선경기를 하여 31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애국투쟁의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였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직장과 가정들에서, 성인학교와 조국연구실들에서, 각종 군중집회들과 모임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과 우리 인민들이 투쟁해야 할 과업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신 김일성원수의 교시와 특히는 1965년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하신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6년에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꾸준히 학습하였으며 그 정당성을 깊이 리해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65년 총련은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있게 촉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정견과 신앙, 소속단체와 과거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동포들과 단결하는것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총련이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총련은 《민단》산하동포들과의 단합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산하동포들은 《민단》산하동포들과 서로 사귀고 동족으로서의 정을 나누며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힘을 모아 해결해주며 의견이 일치된 문제부터 단합하여 해결할데 대하여 의견을 주고 받으며 반미구국을 위하여 그들과 손잡고나아갔다.

총련의 민족단합운동은 《한일조약》의 범죄적정체가 동포들속에 날날이 드러나고 그들에 대한 일본사또반동정부의 차별과 박해책동이 우심해짐에 따라 더욱 폭넓게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총련은 단합행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단합을 확대함과 함께 일시적인 단합을 정상적인 단합으로, 생활상요구에 기초한 단합행동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단합에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재일동포들 속에서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제반조건이 더욱 성숙되여갔으며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그것은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결정과 거듭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들을 지지옹호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한일회담》, 《한일조약》을 반대배격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동포들의 힘찬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해에 매국적《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연 4천여회나 진행되였는바 여기에 연 65만명이상의 동포들이 참가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1966년에도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지도밑에 범죄적《한일조약》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범죄적 《한일조약》을 폭로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였다.

그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박정희매국도당의 남부웰남파병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등 매국배족행위를 철저히 폭로규탄하는 선전사업과 각종 군중집회들을 수많이 조직하였다. 이해 재일조선공민들은 연 3천 400여회에 걸쳐 각종 군중집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53만여명의 각계각층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총련은 1966년에도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려는 민족공동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민단》단체 및 그 성원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갖가지 요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민족단합사업을 적극 강화하였다.

총련은 박정희매국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민단》산하 동포들과 인권, 생활권, 기업권 등을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민족단합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인민 및 세계각국 인민들과의 친선적련계의 강화] 1965—1966년에 총련은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인민들과의 친선적련계를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일본인민들과 세계각국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령도의 현명성을 널리 알리며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대외정책,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 등을 꾸준히 해설선전하였으며 《한일조약》의 범죄적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광범히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총련은 재일조선인민의 민족교육과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국제적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일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와 각계층의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쉬임없이 자세하게 알려줌과 함께 조일 두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범죄적《한일조약》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 등을 폭로규탄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본인민들과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조일 두나라간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의 촉진,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조협회》,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일조왕래자유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회》 등 친선단체들과의 사업도 확대발전시켰다.

그 결과 일본인민들은 재일조선인의 인권옹호문제, 민주주의적민족교육문제, 조국에로의 자유왕래실현문제 등에 대한 총련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견결히 반대하여 나섰다.

총련은 세계 각국인민들과 수많은 국제단체들에도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총련은 일본에서 진행된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 공화국위임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회의들에 참가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파멸적후과 그리고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정체를 날날이 폭로하고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선전함으로써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그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일본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계속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나라와 우호관계에 있는 각국 지도자들과 축전을 교환하였다.

총련의 정확한 대외사업은 1966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공화국의 대외적위신과 총련의 국제적지위를 한층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리하여 총련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서 확고한 위신을 갖게 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외공민단체로서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총련은 사상, 정견, 신앙 및 사회적지위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승인하는 재일조선인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여있다.

총련은 60만 재일동포들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는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삼고있다.

1966년 총련산하에는 48개의 현본부와 3백여개의 지부, 2천여개의 분회가 있으며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을 비롯한 13개의 군중단체와 조선신보사, 조선예술단, 조선신용조합을 비롯한 13개의 사업체들을 가지고있다.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9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조선총련중앙학원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주체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월남인민군

아세아주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아세아대륙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다. 서북지방은 높은 산악지대, 남서부는 산맥을 이루고있으며 동부의 36%는 평야와 구릉지대이다. 전국 해안선의 길이는 1만 4천km이다. 서부지대는 대륙성기후로서 비가 적게 오고 추위와 더위의 차가 심하다. 동남지방의 해안선은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며 기온의 차는 크지않다.

【면적】 959만 7,000km² (그중 대만면적은 3만 5,759km²)

【인구】 6억 5,663만명(1957년 홍콩, 마카오 및 해외에 살고있는 화교제외).

주요민족으로는 한족(약 6억 1천 800만명으로서 주민의 94%를 차지한다), 만주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등이다. 그밖에 위그르족, 묘족, 동족, 표의족, 조선족 등이 있다. 언어는 많으나 중국어가 주로 통용된다.

【수도】 베이징(주민 663만명, 1958년 12월)

정 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이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헌법은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공포되였다. (헌법의 개정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대표의 3분의 2이상이 가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와 군대, 화교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고 1년에 1차씩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는 3천 40명, 상무위원회는 115명으로 구성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을 공포한다.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국무원】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총리는 국가 주석이 지명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 1965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원이 구성되였다.

총리 주은래

【중국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창건되였다.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임기는 5년, 1956년 9월 제8차대회에서 제8기 중앙위원이 선거되였다. 당원수 1, 709만명(1961년 6월)

주석 모택동

【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의 인민민주주의통일전선체로서 1949년 9월에 제1차대회를 열고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앙인민정부조직법 등을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동회의의 상설기관인 전국위원회는 1954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성립될때까지 그의 기능을 대행하였었다. 제4기전국위원회는 1천199명이며 제4기 제1차회의는 1964년 12월 20일~1965년 1월 5일에 진행되였다. 상임위원 159명.

【주요사건】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첫 핵폭발시험을 진행한 이래 1966년말까지 다섯번에 걸친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1965년에는 5월 14일, 1966년에는 5월 9일, 10월 27일, 12월 28일) 1966년 12월 28일 핵폭발시험과 관련한 공보는 중국이 필요한 제한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를 발전시키는것은 전적으로 방위를 위한것이며 그 최종목적은 핵무기를 소멸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중국은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파병을 규탄하여 1965년 1월 13일에 정부성명을, 1966년 3월 11일에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65년 6월 26일에는 《한일기본관계조약》을 결코 인정하지않는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우리 나라 인민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6.25 15주년과 관련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지지월간행사에 참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중국인민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15주년행사에 참가하였다.

조중 량국간에는 1965년에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회의정서(11월 1일),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11월 9일), 1966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12월 14일), 하천운수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12월)이 체결되였으며 1966년에는 수의방역 및 검역분야에서의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6월 1일), 1966년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정서(7월 5일), 1967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12월 3일), 방송국간의 방송협정(12월 30일)이 체결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2월 9일, 13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

제의 폭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베이징에서 150만명의 반미시위가 있었다.

4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세계각국 국회에 보낸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3기 제2차회의 호소문을 토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서는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요구를 전적으로 찬동하였다. 1965년 6월 25일 외교부는 웰남문제에 관한 《영련방평화사절단》의 입국을 거부하였으며 8월 7일에는 웰남문제에 대한 미제의《평화적》음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7월 3일에는 하노이, 하이퐁교외에 대한 미제의 폭격을 규탄하여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2월 꼬씌긴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는 도중 베이징에 들려 중국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상봉하였다. 4월 27일－6월 9일에는 알바니아정부경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6월 8일에는 중국이 알바니아에 차관을 제공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레청의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에 중국은 웰남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 3월과 1966년 6월에 주은래총리를 단장으로하는 중국공산당 및 정부대표단이 로므니아와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기타나라와의 관계 1965년 11월 22일 중국외교부는 미제의 비행기들이 라오스주재 중국기관들의 건물을 폭격한데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66년 2월 19일과 3월 25일에는 라오스주재총령사관과 중국경제문화대표부에 대한 미제의 비행기들의 만행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5월 2일 중국정부는 캄보쟈의 중립과 령토완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소집에 관한 캄보쟈왕국정부의 세가지조건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4월 9일과 8월 7일에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와 타이, 남부웰남괴뢰들의 도발행동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10월 18일 중국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우익분자들이 인도네시아주재 중국무역참사처를 습격한데 항의하여 중국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에 항의각서를 보냈다.

1965년에 주은래총리는 반둥회의 1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4월)를 방문하였으며 알제리(3월), 아련(4월, 6월), 파키스탄(4월,6월), 버마(4월), 탄자니아(6월)를 친선방문하였다. 한편 탄자니아대통령 니에레레(2월), 파키스탄대통령 아유브 한(3월), 소말리아대통령 오스만(7월), 우간다수상 오보테(7월), 버마수상 네윈(7월),캄보쟈국가원수 시하누크친왕(9월)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탄자니아대통령의 중국방문기간에 량국은 우호조약(2월 20일)을 맺었다.

1966년에 미야모또 겐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2월 28일－3월 11일), 잠비아부대통령 루벤 치텐디카 카망가가 인솔하는 잠비아정부대표단(8월), 꽁고민족회의대표단 (9월)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5년에 파키스탄(3월 26일), 아프가니스탄(3월 24일)과 각각 국경의정서를 맺었다.

경제, 사회

중국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철광과 석탄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석유매장량도 풍부한바 해방후 감숙, 청해, 신강등지에서 유전이 발견되였으며 1964년에는 대경에서 새로운 큰 유전이 발굴되였다. 또한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월프람, 몰리브덴, 안티몬, 망간, 주석, 연, 아연, 천연가스, 금, 은, 동, 알루미니움, 니켈, 류황, 린 등이 많다. 산림면적은 약 1억 700만정보로서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다. 그중 동북지방의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고북부에 약 40%가 집중되여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사회의 물질적생활을 위하여 유리한 지리적환경을 가지고있었으나 인민혁명승리전에는 경제적으로 락후한 농업국가였다. 해방전에 반봉건반식민지국가였던 중국의 공업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봉건세력의 이중적압박으로 몹시 미약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현대적공업이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9%(1933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경제에서는 변혁들이 일어났으며 중국은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중국인민은 해방후 3년간의 복구기(1949－1952년)에 인민경제 각부문의 생산수준을 해방전 최고수준에 올려세웠으며 제1차 5개년(1953－1957년)계획기간에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토대를 축성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기 제1차회의(1964년 12월 20일－1965년 1월 4일)는 1965년도의 주요과업의 하나가 1966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이라고 하였다.

1965년도 계획초안에는 농업생산액이 1964년에 비하여 약 5%, 공업총생산액이 약 11% 장성할것을 예견하였다.

1964년의 전국공업총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5%이상, 1957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할것이 예견되였다. 1964년에 강철, 석유, 화학비료, 세멘트, 자동차, 면사, 사탕, 담배 등 주요공업제품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20%이상 증가하였다. 1964년까지 4년동안에 주요공업제품의 품종은 약 2만 4천종이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증가한 것의 3배에 해당하였다. 같은해에 농업에서는 알곡, 목화 담배, 사탕수수, 돼지, 양 등 주요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량이 제1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57년 수준을 릉가하게 되였다.

1964년에 전국의 뜨락또르대수는 1957년에 비하여 5배로, 관수 및 배수설비의 마력수는 13배로, 농촌에서의 전력소비량은 23배로, 국가가 공급한 화학비료의 량은 3배이상으로 늘었다.

1964년말 현재 중국은 120개이상의 나라 및 지역과 통상및문화적관계를 맺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주요신문 인민일보(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

주요잡지 홍기(중국공산당기관잡지), 중국청년.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Бу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улс

쏘련, 중국과 접경하고있으며 서부와 중부는 주로 산악지대이다. 주민은 초원지대와 산림이 많은 북부지방에 많이 산다. 대륙성기후로서 건조하며 우량이 적다.

【면적】 156만 5,000km²

【인구】 112만 700명(1966년말)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23만 9,400명, 1965년말)

정치 사회주의10월혁명후 몽골인민은 인민당(현재의 몽골인민혁명당)의 령도하에 1921년 7월 11일 인민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그 임기는 3년, 현재의 대인민후랄은 제6기로서 1966년 6월 29일에 선거, 대의원수는 287명.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쓰란긴 쌈부

의장 바또치륀 알딴게렐

【내각】 현내각은 1966년 7월 1일에 구성.

수상 유. 째덴발

외무상 므. 두게르쑤렌

인민군상 즈. 르하그바쑤렌

【정당, 사회단체】 **몽골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몽골인민당이 1924년 8월 몽골인민혁명당으로 개칭, 당원수 4만 8천 570명(1966년 6월 현재). **직업동맹** 1927년 8월 16일 창건. 맹원수 17만 1천 300명(1966년). **혁명청년동맹** 1921년 8월 25일 창건 맹원수 7만 5천여명(1963년). **녀성위원회, 평화옹호위원회, 청년단체위원회, 아. 아단결위원회,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 12일 창건, 위원장 므. 르함쑤렌.

【주요국내사건】 1965년 6월 13일 인민대의원후랄(지방주권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자의 99.98%의 찬성투표로서 1만 3천 460명이 인민대의원후랄들에 선거되였다.

12월 17—18일에 진행된 대인민후랄 제5기 제4차회의는 1966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계획초안과 1966년도 국가예산 및 1964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66년 6월 7—11일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유. 째덴발(제1비서)의 당중앙위원회 총결보고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년)에 관한 지시문을 토의하였으며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6월 26일 대인민후랄 제6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전체 유권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99.99%가 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선거결과 287명이 대인민후랄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10월에 직업동맹 제9차대회, 11월에 혁명청년동맹 제1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8월 12일 몽골외무성은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일본 및 남조선반동집단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일본반동정부가 《일한조약》을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8월에 우리 나라 조몽친선대표단이 몽골을, 몽골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1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고 11월 18일 우리 나라와 몽골간에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2월에 울란 바따르에서 우리 나라 교육전람회가 있었다.

1966년 6월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대표단과 몽골인민혁명 45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7월)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10월에 몽골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10월 20일 우리 나라와 몽골간에 1966—1970년 장기통상협정과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사회주의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아. 쉘레삔, 10월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유. 째덴발수상이 4월에 쏘련, 6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6년 1월에는 쏘련공산당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당 및 정부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에 량국간의 우호및호상원조

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3월 유. 째덴발수상이 쏘련공산당 23차대회에 참가하였다.

6월에 진행된 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에서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7월 1일에 제6기 제1차대인민후랄이 하노이, 하이퐁에 대한 미제의 폭격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8일 울란 바따르에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10월 며칠의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정부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3월 몽골과 꾸바간에 1966—1970년 장기통상협정이 조인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4월 30일 울란 바따르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도미니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진행되였으며 5월에는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할데 대한 국제협약에 조인하였다.

몽골은 1965년 4월에 프랑스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경리이다.

주요가축은 양, 말, 염소, 락타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탕그스텐 등이 있다.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년간 알곡과 사료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이 새로운 부문으로 발전하고있으며 공업분야에서는 연료, 동력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발전하고있다. 이리하여 몽골은 목축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66년부터 4차 5개년인민경제및 문화발전계획 수행에 착수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몽골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농업총생산량을 38—40% 증가시키며 공업에서는 연료, 동력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면서 전재생산을 가일층 증가하여 경공업과 식료공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문들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 공업제품생산량을 현저히 증가시킬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6년에 심한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41만 2천800마리의 새끼집짐승을 길러냈다. 축산물의 국가수매에서 일련의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뿔난 집짐승의 굵은털 수매계획은 1.5%, 솜털수매계획은 2.4% 초과수행되였다. 몽골에서는 제4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0년에 가서 집짐승은 2천 500～2천 600만마리로 늘일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6년에 농경지는 46만 900정보에 달하였으며 총 29만 7천 200톤의 알곡을 수확하였다.

그중 국영농목장들에서는 21만 5천 800톤, 농업협동조합들에서는 7만 6천 500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몽골에는 30개의 국영농장과 284개의 농업협동조합, 38개의 축산기계작업소가 있으며 협동경리의 공고화와 그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힘을 기울이고있다.

1966년도 공업총생산액은 100.3%로 수행하였으며 1965년에 비하여 6.6% 늘었다.

1966년에 울란 바따르 자동차수리공장, 내화벽돌공장, 싸이한오브탄광 등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털, 가죽 등이다. 수입품은 기계설비, 화학제품, 일용필수품 등이다. 1966년에 대외무역 총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6.4% 증가하였다.

화폐단위는 뚜그리크이다.

사회, 문화 주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나 1966년 소매상품류통액이 15억뚜그리크에 달함으로써 1965년에 비하여 3.4% 장성하였다.

1966—1967학년도에 671개의 각급 학교에서 19만 8천 8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그중 보통학교수는 462개, 학생수는 16만 5천명이였다. 1965—1966학년도에 비하여 각급 학교수는 15.3%, 학생수는 7.9% 장성하였다. 1966년에 의사수는 1965년에 비하여 8.7%, 침대수는 0.3% 늘었다.

【출판보도】 통신 몽골통신(몬짜메).

신문 우넨(몽골인민혁명당 및 정부기관지), 허덜 머르(직업동맹기관지), 잘로츠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나뮌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인도지나반도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다. 북부와 서북부는 고원지대이며 동북부와 서남부는 평야지대이다. 주요강하로는 메콩강과 홍하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에 속하며 여름에는 우량이 많다.

【면적】 약 33만km²(북부웰남 15만 8,800km², 남부웰남 17만 1,700km²)

【인구】 약 3,000만명(북부웰남 1,700만명, 남부웰남 1,400만명), 대부분이 웰남민족이며 언어도 웰남어를 쓴다.

【수도】 하노이 (64만 3,500명, 1960년), 남부웰남행정중심지는 사이공(140만명, 1961년).

웰남은 1884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그때부터 웰남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에 호지명동지의 령도하에 인도지나공산당이 창건되였으며 그때부터 웰남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인도지나공산당은 광범한 통일전선체인 베트민을 형성하고 프랑스식민주의와 국제파시스트를, 1940년부터는 프랑스를 대신하여 웰남을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44년말 인도지나공산당은 북부 6개성에서 해방지구를 창설하고 인민주권기관을 창설하였다. 웰남인민들은 1945년 8월 19일 일제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전국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켜 반동적인 바오다이정권을 타도하는 8월혁명을 수행하였다. 1945년 9월 2일 호지명주석은 림시정부의 명의로 독립을 선포하고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웰남인민은 1946년 12월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954년 7월까지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하였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협정이 성립되여 북위 17도선이 남북간의 림시분계선으로 되였다.

이 협정은 웰남에 외국군대들과 군사인원 및 각종 무기의 반입과 군사기지의 건설을 금지하며, 웰남을 어떠한 군사뿔럭에도 참가시키지 않을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1956년 7월 전국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적기초 우에서 통일을 실현할것을 예견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은 협정에 규정된 조항들을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동시에 전국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부웰남괴뢰도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총선거를 위한 웰남민주공화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1956년 3월 《단독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남부웰남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인민탄압에 광분하였으며 1961년부터는 남부웰남에서 《선전포고없는 전쟁》, 《특수전쟁》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남부웰남에 대한 《특수전쟁》에서 패배한 미제는 전쟁을 북부웰남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1964년 8월 5일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였으며 1965년 2월부터는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여 북부웰남까지 전쟁을 확대하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은 1959년말부터 도처에서 자위적인 봉기를 일으켰으며 1960년 12월에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발족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의 기치하에 남부웰남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쥐고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북부웰남인민들은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정치군사적패배를 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웰남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대의원은 455명(그중 남부웰남출신 대의원 89명), 임기는 4년, 현인민회의는 제3기로서 1964년 4월 26일에 선거(남부웰남 각 선거구출신대의원 89명의 임기는 연기).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주석은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

주석 호지명

【정부】 1964년 7월에 구성.

수상	범문동
외교부장	원유정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웰남로동당** 전신은 1930년 2월 3일(1960년 9월 제3차대회에서 창건일로 결정)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 1951년 2월 3일 인도지나공산당 제2차전국대표자회의에서 웰남로동당으로 개칭, 당원 및 후보당원수 54만명(1962년).

중앙위원회 주석 호지명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1955년에 조직,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통일전선. **직업총련맹** 1946년에 성립. **로동청년동맹** 1931년 3월 인도지나공산주의청년동맹으로 조직된 청년들의 혁명조직, 1956년에 현재이름으로 개칭, 맹원 120만명(1966년). **녀성동맹** 1946년 10월 성립. **평화옹호위원회, 아. 아단결위원회.**

【주요사건】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당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웰남민주공화국의 자주권과 독립을 횡포하게 침해하면서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파괴적인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66년에만도 미제는 1만 3천회의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하노이 하이퐁시를 폭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웰남민주공화국은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분쇄하면서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1965년 4월 8-10일에 진행된 제3기 제2차인민회의에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와 침략자들을 타승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과업에 관한 보고, 군사정세와 과업에 관한 보충보고, 남부웰남정세와 그리고 미제를 반대하며 조국의 해방을 위한 남부웰남 동포들의 투쟁에 관한 보충보고, 상무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로의할것을 인민회의에 제출함에 관한 인민회의 상무위원회의 보고, 병역법의 수정과 보충에 관한 국방부의 보고, 인민회의사업보고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4월 7일 미제두목 존슨의 《무조건협상》제의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웰남문제에 대

한 1965년 3월 22일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웰남문제의 해결방도는 미제가 1954년 제네바협정을 정확히 리행하며 남부웰남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웰남문제를 웰남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1. 웰남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권리인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여야한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에 엄격히 립각하여 남부웰남에서 자기 군대, 군사인원, 무기, 탄약 및 온갖 종류의 전쟁물자를 철수하며 그곳에 있는 미제군사기지들을 해체하며 남부웰남정권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하며 동시에 남부웰남에 대한 간섭 및 침략정책을 중지하여야한다. 미제는 북부웰남에 대한 모든 전쟁행동을 중지하고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토와 자주권에 대한 모든 침해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웰남의 평화적통일이 실현될때까지 웰남이 잠정적으로 두지대로 분렬되여있는동안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의 군사조항들이 엄격히 존중되여야한다. 즉 두 지대는 외국과의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는 것을 삼가하여야하며 이 지대들에는 외국의 군사기지, 군대 또는 군사인원들이 존재하지 말아야한다.

3. 남부웰남문제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령에 따라 남부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한다.

4. 웰남의 평화적통일의 실현은 외국의 간섭없이 두 지대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인민회의는 이와 같은 정부의 립장을 천명한 서한을 각국 국회들에 보냈다.

6월말에 정부는 미제의 《평화》소동에 복무하는 영제국주의자들의 《평화사절단》을 배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1월 24일 호지명주석은 각국 수반들에게 서한을 보내여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며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려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

4월 16–22일에 진행된 제3기 제3차 인민회의는 정부보고, 1966년도 국가계획에 관한 정부보고, 군사정세에 관한 보고, 반미구국운동에 관한 보충보고를 토의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드시 격멸할데 대한 인민회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9일과 30일에 미제는 하노이와 하이퐁주변을 폭격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정부와 최고국방위원회는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해당한 대책을 취하였다. 7월 17일 호지명주석은 전국의 인민과 전투원들에게 완전승리의 날까지 투쟁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 헌법과 부분적동원에 관한 인민회의 상무위원회 결정에 립각하여 예비역군관 및 하사관들의 일부와 군대의 예비에 속해있으나 아직 군대렬에서 복무하고있지않는 공민들의 일부를 동원할데 대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7월초에 최고국방위원회는 새로운 사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기초우에서 미제의 모든 음모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고 인민무장력과 인민방위력을 강화하며 남부웰남인민을 전면적으로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호지명주석의 7월 17일부 호소문이 발표된후 한달동안에 약 100만명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였다.

7월 22일 《웰남에서의 미제의 전쟁범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였으며 10월 31일 이 위원회는 웰남에서 미제가 저지른 야수적인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2개의 문건을 발표하였다. 12월 14일 정부는 수도 하노이를 거듭 폭격하는 미제의 야만적인 죄행을 폭로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웰남인민은 1966년말까지 미제의 비행기 1천 613대를 떨구어 《미공군의 우세》를 분쇄하고 사회주의 북부를 적극 수호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7월 18일 김일성수상께서는 1966년 7월 17일 호지명주석의 호소문과 부분적동원령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호지명주석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1966년 11월 9일 웰남외교부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일에는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는것을 미제가 방해하고있는데 항의하여, 12월 22일에는 유엔총회정치위원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채택한데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7월 13–16일에 려청의 부수상을 단장으로하는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우리 나라가 웰남에 경제적 및 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동년 8월 9일에는 황문환을 단장으로하는 인민회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1월 15—18일, 8월 30–9월 4일까지 려청의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웰남에 무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과 1966년도 량국간의 상품교환 및 류통에 관한 협정, 1967년도 상품교환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2월 19일 량국간에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사회주의나라와의 관계 1966년에 웰남로동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23차대회(3월), 체스꼬슬로벤스

교공산당 13차 대회(5월), 몽골 인민혁명당 15차대회(6월), 알바니아로동당 5차대회(10월), 벌가리아공산당 9차대회(11월), 웽그리아사회로동당 9차대회(11월)에 참가하였다.

퍼순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당 및 정부대표단이 1965년 4월에 쏘련과 중국을, 1966년 3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5년 6－7월에 걸쳐 퍼칭의를 단장으로하는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 쏘련, 중국,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벌가리아, 민주독일, 로므니아를 방문하고 웰남이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을데 대한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1966년 8－9월에 동 대표단은 쏘련,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원조문제를 토의하였으며 해당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 2월에 쏘련내각수상 아. 엔. 꼬씌긴을 단장으로하는 쏘련대표단이, 1966년 1월에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아. 엔 쉘레삔을 단장으로하는 쏘련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1965년 10월에 웽그리아당및 정부대표단이, 1966년에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5월),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9월), 벌가리아 당및정부대표단(10월), 꾸바당및정부대표단(10월)이 각각 웰남을 방문하였다.

1966년 5월 31일 정부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새 도발행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5년 4월 범문동수상이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반둥회의 10주년기념식전에 참가하였다. 1966년 2월에 미야모도 겐지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웰남을 방문(2월)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것을 선언하였다.

12월에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경제 웰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탕그스텐, 금, 연, 린회석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목화, 땅콩, 옥수수이며 고무, 사탕수수, 황마, 바나나, 야자, 커피, 후추 등도 생산된다. 산림면적은 국토의 60%를 차지한다.

1964년 8월이래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으로 경제시설들과 농경지들이 적지않게 파괴되였으며 전국이 전시태세에 들어갔다. 미제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제1차 5개년계획 (1961－1965) 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였으며 특히 1966년도 국가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1966－1967년도 2개년국가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훌륭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제시설들과 공업중심지들에 대한 미제의 발광적인 공습으로 공업기업소들의 대부분이 여러지방에 옮겨졌으며 전시체제에 상응한 새로운 경제분야들이 생겨났다.

공업분야에서는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반항공망이 설치되였으며 여러 공업부문이 확장되고 특히 기계 및 금속제품생산에서 큰 전진이 있었다. 또한 지방공업 특히 농업에 복무하는 지방공업이 발전되였다.

이리하여 1966년의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29.2%, 1965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6% 늘어났다.

1966년에 지방공업기업소들은 전해에 비하여 5.5～30%까지 증가하였다.

개량농기구, 작은 발전기, 작은 기계 등 농업부문에 공급된 제품은 가격으로 환산하여 1966년에 그 전해보다 44.7%, 1965년에는 그 전해보다 39.2% 늘어났다.

교통운수부문에 공급된 제품은 1966년에 그 전해보다 72.3%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기계 및 전재생산, 식료품가공 등을 위한 지방공업부문들에 대한 투자는 1.9배로 늘어났다. 많은 소규모 공업시설이 건설되였는데 1966년에만도 근 300개가 일을 시작하였다.

농업생산도 계속 늘어났으며 농업생산협동조합들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확대되였다.

1966년말까지 농호의 85%가 더 높은 급의 농업생산협동조합들에 망라되였으며 농업생산협동조합의 37%가 각각 37정보이상의 경작지를 가지게되였다. 1965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의 44.2%가 각각 100호이상을 망라하고있었는데 그 비률은 1966년에 52.6%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1966년에는 매 농업생산협동조합이 평균 198호의 농호와 62정보의 경지를 가지게 되였다.(1965년에는 85호의 농호와 49정보의 경지를 가지고있었다).

1966년에 수리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관개면적이 늘어났다. 하노이주변의 수리관개시설은 전해보다 3배나 늘어났다. 1966년말까지 3천 800개의 농업생산협동조합에 소규모의 농기계작업소들이 설치되였다. 이리하여 자연재해와 싸우며 생산을 높일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1965년에 약 700개의 농업생산협동조합과 7개 군이 한정보에서 년평균 5톤을 거두었다면 1966년에는 1천개의 농업생산협동조합과 16개군 그리고 타이빈주에서는 년평균 5톤의 알곡을 거두었다.

지질탐사, 나무심기, 방풍림조성사업 등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1966년에 탐사부문일군들은 중부지역에서 석탄, 고령토, 석회석과 같은 중요한 매장지들을 발견함으로써 지방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해보다 2억 7천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더 심었다.

사회, 문화 적들의 발광적인 폭격에도 불구하고 쌀, 천, 사탕, 소금, 석유 등 생활필수품이 인민들에게 항상 보장되였으며 식료품, 직물, 학

용품 등 주요물자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보건망은 모든 농촌마을을 포괄하였으며 매개 면과 군에 병원이 설치되였다.

교육시설이 폭격당하고 학교들이 파괴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생수는 계속 늘었다. 1965－1966학년도에는 1만 150개의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이 있었으며 그중 6천 981개는 1급학교, 2천 927개는 2급학교, 243개는 3급학교였다. 1급학교 학생수는 2천 300만명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전학년도에 비하여 8.7%가 증가한 것으로 된다.

1966－1967학년도에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들은 33개, 전문학교는 17개이며 학생수는 도합 16만명, 그중 종합대학 학생수는 전해보다 56%늘어 4만 6천 429명이였다.

공업, 농업 및 기타 생산부문들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중학교 학생수는 전년의 2배로 늘어났다. 또한 5개의 대학과 13개의 기술학교가 새로 설치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월남통신.

신문 인민(월남로동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독립(민주당기관지), 조국(사회당기관지), 로동(직업총련맹기관지), 인민군(월남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월남로동당리론잡지).

남부월남

남부월남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하에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올리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다.

1966년말현재 남부월남 전령토의 5분의 4와 1천만명의 주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제는 저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더욱 발악적으로 확대하였다.

1966년에 미제는 100여만명의 침략무력과 막대한 전쟁장비를 동원하여 남부월남에서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월남전쟁초기인 1961년에 불과 685명밖에 되지않았던 미제침략군은 1965년에 18만 1천명, 1966년에는 그의 거의 600배인 40만명에 달하였다. 1965년에 7억딸라를 지출했던 월남전쟁비용은 1966년에는 200억딸라에 달하였으며 미제의 매일 평균비행기출격은 400회이상에 달하였다. 1965년 6월 17일부터 1966년 6월 18일까지 괌도에 기지를 둔 미제의 《비52》형 전략폭격기들은 남부월남을 350여회 폭격하였다. 이해에 미제가 남부월남에 퍼부은 폭탄은 약 66만톤, 소모된 탄약은 50만톤이였다. 그리고 남부월남에 보급된 군사물자는 1천만톤에 달하였다. 또한 미제는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각종 폭탄과 포탄, 화학무기와 독가스까지 써가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였다.

1963년에 남부월남 45개주중 16개주에서 유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면 1965년에는 26개주로 늘어났으며 농경지와 과수원의 피해는 같은 기간에 32만헥터로부터 70만헥터로 늘어났다.

1954－1965년간에 대소 16만회나 되는 《소탕작전》을 감행한 미제와 괴뢰도당은 1966년 한해동안에만도 년초의 《제1차건조기총공세》, 여름철 《우기공세》 등을 감행하였으며 10월부터는 《제2차건조기공세》를 벌려놓고 40여만명의 침략군을 동원하였다. 이 《공세》에는 《제1차건조기공세》때보다 2배이상의 미제침략군, 근 2배의 추종군대, 거의 2배에 달하는 비행기, 대포, 땅크 및 장갑차, 4.5배에 달하는 함선 등 방대한 군사력을 투입하여 수천회의 대규모작전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작전에 저들의 침략군대와 추종국가군대의 기동부대중 80%를 동원하여 장차 남부월남에서 군사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으려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공세》는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쥔 남부월남해방군과 인민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거듭 실패하였으며 1966년에는 월남전쟁이래 가장 많은 유생력량을 살상당하였다.

인민무장력의 전과 1965년에 약 2만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포로한 남부월남해방군과 인민들은 1966년에 약 4만번의 전투를 진행하여 미제침략군 10만 8천명과 추종국가군대 약 1만명을 포함한 적 26만 8천 200명을 살상포로하였다.

1961－1966년까지 미제침략군의 증강정형과 살상포로, 탈주한 적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년도	미제침략군수	살상포로수	그중 미제침략군	탈주병수
1961	3500	17100	8	32300
1962	15000	50200	256	34800
1963	16500	78900	993	40000
1964	24000	75.00	2140	60000
1965	185000	167500	19200	60000
1966	400000	268200	108000	100000

해방군은 미제침략군을 제1차적공격대상으로 삼으면서 대규모의운동전, 기동전과 함께 유격전, 적군사시설과 집결지에 대한 습격작전을 훌륭히 배합하여 적들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침략군17개 보병대대, 7개 장갑대대, 79개중대, 62개 소대와 추종군 10개중대를 포함한 적 47개대대, 306개중대 및 454개소대를 소멸하였다. 완전히 소멸된 미제침략군중대 총수는 1965년에 비하여 5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적비행기 2천 130대를 떨구었거나 파괴(1965년의 1.5배)하였으며 각종 군용차 3천 300대(1965년에는 1960대)를 파괴하고 합선

97척을 격침하였으며 기관차 43대와 차량 217대를 폭발시켰고 다리 742개를 파괴하고 군구4개, 요새174개 및 초소 170개를 점령하였다.

미제침략군에 타격을 가한 주요공격전투

1965년

2월 7-8일 플레이쿠비행장을 공격하여 미제침략군 375명을 살상하고 비행기 42대를 파괴하였다.

2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크 트랑비행장을 4차나 공격하여 미제침략군 140명을 살상하고 적비행기 96대를 파괴하였다.

2월 10일 퀴 논에 있는 미제침략군숙소를 폭파하여 107명을 죽였다.

5월 11일 송베전투에서 비행장과 포진지를 장시간 점령하고 적군사 및 행정기관들을 파괴하였으며 미제침략군 28명을 소멸하였다.

5월 27일 꽝 남주 누이 탄에서 야간습격, 접근전, 육박전으로 미제의 해병 139명을 소멸하였다. 이것은 해방군이 미제침략군의 거점을 공격하여 처음으로 1개 중대를 소멸한 전투였다.

6월 9-12일 동 소아이에서 미제침략군 50명을 포함한 적 1천 500명을 소멸하고 비행기 16대를 격추하였다.

7월 1일 다 낭에 있는 미제의 공군기지를 공격하여 분사식비행기 47대와 유도무기발사대 3개를 파괴하고 193명을 살상하였다.

8월 18-19일 반 투옹에서 미제침략군 919명을 소멸하고 비행기 15대를 파괴하였다.

8월 23일 비엔 호아에 있는 미제의 공군기지를 공격하여 적 비행기 68대를 파괴 또는 파손하고 미제침략군 약 300명을 살상하였다.

10월 10일 빈 딘주 푸카트에서 미제침략군 363명을 섬멸하고 적기 17대를 격추하였다.

10월 27일 꽝 남주 추 라이에서 미제침략군 300여명을 섬멸하고 비행기 57대를 파괴하였으며 다 낭전투에서 283명의 미제침략군을 섬멸하고 적기 70대를 파괴하였다.

10월 19일-11월 19일 플레이메에서 미제침략군 1천700명(1개대대와 수개 중대)과 괴뢰군 4개대대를 소멸하였다.

11월 8일 비엔 호아주 《디》 항전구에서 미제의 173려단소속 1개 대대(500명)를 소멸하였다.

12일 투 다우 모트주 바우 방에서 미제1보병사단 제3려단을 기습하여 미제침략군보병 2개대대와 2개 땅크 및 장갑차대대 그리고 1개 포병중대를 소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제침략군 2천 40명을 살상하고 땅크 및 장갑차 39대를 파괴하였다.

12월 18-20일 안 케에서 12키로메터 떨어진 지점에서 적들이 감행한 《수색파괴작전》이 파탄되였으며 제1공중기동사단의 미제침략군 352명이 소멸되였다.

1966년

1월 17일 꽝 느가이시에 있는 괴뢰군 제2사단본부를 포사격하여 많은 괴뢰군을 살상함. 사단장의 집과 미제군사《고문》 집 일대가 폭탄세례를 받음.

1월 22일 사이공시내의 미제숙소를 폭격하고 《미경제원조사절단》의 창고들에 불을 지름.

1월 23일 카 마우시에 있는 미제침략군숙소를 폭파하여 미제침략군 93명과 괴뢰군 57명을 살상함.

2월 19일 안케기지를 습격하여 직승비행기 100대와 군용차 50대를 파괴하고 미제침략군 497명을 소멸함.

2월 19일 트라 노크비행장에 박격포 사격을 가하여 비행기 65대를 파괴 파손하고 295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3월 12일 붕 타우에 있는 미제의 비행장과 괴뢰군훈련소를 불의에 공격하여 미제침략군 200여명과 괴뢰군 100여명을 살상함.

3월 17일 소크트랑비행장을 습격하여 300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130명의 적을 살상함.

3월 28일 빈 롱기지를 공격하여 26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146명의 적을 살상함.

4월 13일 탄손 누트비행장을 습격하여 67대의 비행기와 1개의 휘발유창고를 파괴하고 300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4월 21일 플레이쿠기지를 공격하여 40대의 미제비행기를 파괴하고 380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5월 10일 사이공의 미제장교숙소를 폭파하여 5층건물을 파괴하고 수많은 미제장교들을 살상함.

5월 11일 빈딘주 봉손에 있는 미제의 공중기동려단본부를 불의에 공격하여 10여대의 비행기를 파괴함.

6월 4일 로크 닌 비행장을 공격하여 27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200명의 적을 살상함.

6월 22일 소크트랑비행장을 공격하여 27대의 비행기와 7개의 탄약고를 파괴하고 10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7월 7일 트라 노크기지를 공격하여 54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180명의 적을 살상함.

9월 3일 안케기지를 공격하여 40대의 미제비행기를 파괴함.

9월 21일 추 라이기지를 공격하여 30대의 미제비행기를 파괴하고 250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9월 22일 누이 모트기지를 파괴하여 80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1천여명의 미제침략군을 살상함.

10월 28일 사이공동북방 17키로메터에 있는 남부윁남 최대의 미제탄약고를 습격하여 12만 5천발의 폭탄, 포탄, 로케트탄이 들어있는 3개의 탄약고를 파괴하고 5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죽임.

11월 1일 사이공괴뢰들이 《국경절》경축열병식전에 모인 미제

침략군, 괴뢰군 추종국가군대들에 박격포사격을 가함.

11월 11일 타이닌시 서쪽 6키로메터에 있는 미제의 제25보병사단지휘본부를 박격포로 파괴함.

12월 4일과 5일 탄 손 누트비행장을 이틀에 걸쳐 공격하여 90대의 비행기를 파괴파손하고 미제침략군 430여명을 포함한 적 600여명을 살상함.

12월 14일 광 남주 탐키시에 있는 미제침략군연료기지에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25만갈론의 연유를 못쓰게 만듬.

미제를 반대하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투쟁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단호히 폭로 규탄하고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였다.

1965년 3월 22일 민족해방전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폭로하면서 남부웰남을 해방하고 북부웰남을 수호하며 웰남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1. 미제는 제네바협정의 파괴자이며 가장 흉악한 전쟁도발자이며 침략자이며 웰남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2. 영웅적남부웰남인민들은 남부웰남을 해방하며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남부웰남을 건설하며 나라의 재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야말것이다.

3. 용감한 남부웰남인민들과 해방군은 남부웰남을 해방하고 북부웰남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낼 자기들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할것이다.

4. 남부웰남인민들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며 5개대륙의 벗들로부터 무기와 기타 전쟁물자들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선포한다.

5. 우리는 전체 남부웰남인민들을 단결시키고 무장시키며 계속 영웅적으로 전진하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반역자들을 타도할것이다.

6월 9일 민족해방전선은 성명에서 미제침략군을 남부웰남전투에 직접 참가시킨데 대한 전쟁두목 존슨의 공식명령에 항의하고 《만약 미제가 남부웰남전투에 참가하도록 자기군대에 명령할 권리를 오만하게도 자신에 부여한다면 민족해방전선도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도록 필요하다면 북부웰남 및 형제국가군대에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명하였다.

8월 6일에는 남부웰남에 돌아와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할것을 북부웰남에 재집결된 남부웰남동포들과 전투원들에게 호소하였다.

1965년 1월 5일 민족해방전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기만적인 《평화》 공담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려던 미제침략자들에게 또하나의 타격을 가하였으며 그들의 전쟁확대 조치를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수 없도록 철저히 폭로하였다.

2월 11일에는 호노룰루회의에서 미제와 사이공 괴뢰도당이 꾸민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정부들, 단체들, 인사들 그리고 인민들에게 미제를 규탄하고 남부웰남에서 그들의 피묻은 손을 뗄것과 남부웰남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을 긴급히 호소하였다.

7월 7-9일에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미제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증파하여 남부웰남을 직접 침략한 이후의 정세를 분석하고 당면한 반미구국투쟁의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는 민족해방전선의 당면과업은 이미 쟁취한 거대한 승리를 발전시키고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미제의 침략전쟁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군대와 전체 인민을 동원하며 무장투쟁, 정치투쟁 및 적군와해공작을 정력적으로 추진하며 더 많은 적 유생력량을 소멸하며 해방지역을 수호확대하며 대외사업을 강화하여 국제적동정과 지지를 적극 쟁취하며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위업을 완전승리에로 인도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월 10일 중앙위원회는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조인 12주년에 제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는 투쟁에 돌진할것을 남부웰남해방군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7월 20일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해방전선이 호지명주석의 호소문을 《전체 우리 민족의 립장과 의지와 숙망의 표시》로 인정하며 《남부웰남인민들은 전국인민들과 더불어 종국적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5년, 10년, 2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하여도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2월 15일에는 미제가 하노이를 폭격한 만행을 규탄하면서 남부웰남군대들과 인민들은 미제가 북부를 계속 공격한다면 그들에게 5배, 10배로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원우수위원장은 남부웰남해방군과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고야 말것이라는 서한을 호지명주석에게 보냈다.

1965년에 77개나라 정부 및 정당, 사회단체와 22개 국제 및 지역적기구들이 민족해방전선의 3월 22일부 성명을 지지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38개국이 남부웰남에 지원군을 파견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괴뢰정권의 위기 미제는 남부웰남에서의 정치적위기를 수습

하고 괴뢰통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5년에 여섯차례의 정변을 일으켜 6월 21일 느구엔 카오 키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으나 괴뢰정권의 붕괴과정은 더욱 촉진 되였다.

1966년에도 인민들속에서는 반미, 반괴뢰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미제와 그 괴뢰들의 통치지반이 심히 뒤흔들렸다. 이러한 정치투쟁은 도시와 농촌에서 미제와 괴뢰도당들의 반인민적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시위, 군중집회, 파업, 직접적인 무장충돌의 형식을 취하면서 남부웰남전역에 확대되였다.

3월 10일 남부웰남괴뢰군 《제1군단 사령관》 느구엔 챤 티의 축출을 계기로하여 급격히 첨예화된 괴뢰도당내부의 개싸움은 그후 다낭, 유에를 비롯하여 남부웰남전역에 파급되여 그들 각 파벌들간의 무장충돌에까지 발전하였다.

챤 티의 축출은 그의 지지자들속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것을 기화로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강력한 정치투쟁이 남부웰남전역에서 일어났다. 이 투쟁에는 수십만의 미제강점지역 인민들과 함께 수많은 괴뢰경찰들과 괴뢰군인 및 관리들이 참가하였는바 이들은 카오 키정부의 사임을 요구하였을뿐만아니라 《양키는 물러가라!》, 《미제는 간섭말라!》, 《미제는 종족멸살정책을 중지하라!》 등 반미구호들을 들고 수개월간 투쟁하였으며 방송국과 헌병대본부 등 괴뢰기관들을 점령하는데까지 이르렀다.

5월 16일 사이공시 5만명의 로조원들은 경찰의 폭압을 반대하여 반《정부》파업을 단행하였으며 6월 15일과 16일에는 사이공과 유에시민들이 거리에 바리케트를 쌓고 완전무장한 괴뢰경찰의 탄압을 맞받아 싸웠으며 남부웰남주둔 미제침략군사령관과 부대사라는자의 집들을 습격하였으며 인민탄압에 날뛰던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찌프차를 불태워버렸다. 인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에 합류하여 불교도들은 《조속한 민정이양》과 총선거의 실시, 미제침략군의 남부웰남주둔여부에 대한 《인민투표의 실시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였다.

인민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이 앙양되자 《민정이양》, 《선거공약》이니 하면서 인민들의 진출을 무마하려든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저들의 음모가 파탄되자 직접 군대를 동원하여 인민들과 반대파를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공포정책을 실시하였다.

5월 14일 카오키는 2천 500명의 해병대와 1천 800명의 락하산병을 다낭에 출동시켜 다낭의 미제공군기지에 탄압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도시주민들과 반《정부》군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워싱톤에 간 대사 롯지를 황급히 사이공에 급파하는 등으로 《남부웰남내란을 회피》하려하였으나 인민들과 괴뢰들속에서는 반미감정이 더욱 높아졌으며 뒤흔들리는 저들의 정치적 지반을 강화할수 없었다. 위기에 직면한 미제는 식민지통치를 재수습하기 위하여 9월 11일 《제헌의회선거》라는 협잡행위로서 군사깡패들에게 《민간정부》라는 걸껍데기를 씌웠으나 괴뢰정권은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당하였으며 주구들간의 감투싸움은 계속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의 애국력량을 집결한 광범한 반미구국투쟁통일전선이며 남부웰남인민의 확고하고 강력하며 참다운 민주주의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목적은 각 계층 및 소수민족인민들, 종교인, 정당 및 모든 애국적인사들을 단합시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자기의 신성한 민족적권리를 쟁취하며 남부웰남의독립, 민주주의, 평화 및 중립을 달성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있다. 전선은 자기 산하에 3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 라틴아메리카의 13개 나라에 상설대표부를 두고있으며 40개이상되는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갖고있다. 1966년 5월 우리 나라에 정식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상설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한 진정한 대표로서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을 령도하고있다.

위원장 원우수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61년초에 창건된 남부웰남에서의 최초의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중앙위원회대표 보치콩. **급진사회당** 1961년 7월에 창건.

반동정당으로서 **대월당, 국민당, 사회당, 민주당, 공화당** 등이 있다.

해방로동동맹, 해방농민동맹, 해방녀성동맹, 해방청년동맹, 해방적십자회, 아. 아단결위원회, 평화옹호위원회, 애국민주기자협회, 이전항전참가자협회, 모성및아동보호협회.

경제, 사회 남부웰남의 주요 생산물은 벼, 고무, 옥수수 등이고 코프라, 차, 사탕, 담배 등도 생산된다. 산림자원도 많다.

남부웰남의 경지면적은 약 330만정보이다.

해방지역: 남부웰남 전령토의 5분의 4를 차지하고있는 해방지역은 튼튼하고 진보적인 사회, 경제, 문화, 행정기구를 가지고있으며 단순한 《근거지》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민운동의 령도적기초로 되고있다.

해방전선은 인민자치에 기초하여 제조직과 행정을 담당하고있으며 약 200만정보의 논을 토지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였고 30만

정보를 개간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농기술이 고원지대 소수민족들에게까지 보급되였다. 관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중부 토롱보지역 인민들은 총길이 600킬로메터에 달하는 190개의 관개수로를 개통하였으며 1966년 남보지역에서만도 2모작을 한 경지면적은 10만정보로 늘어났다. 곡창지대인 메콩강삼각주해방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그 전해에 비하여 20% 늘었다.

또한 중부지역에서만하여도 1천616개소의 조합들이 조직되였으며 수십만의 조합원들의 참가하에 생산능률과 파종회수를을 높이며 부산물생산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개수로를 굴설하여 제방을 쌓고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경쟁운동을 조직전개하고있다. 미제침략전쟁으로 파괴된 수공업, 지방공업도 복구발전되고있다. 방직, 제지, 생약공장들에서는 각종 물자들이 생산되며 무기공장들에서는 각종 무기와 탄약들이 생산되고있다. 농기계작업소, 제분소, 사탕공장, 인쇄소도 일떠섰으며 방직공장들에서는 해방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천의 4분의 1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있다.

현재 해방지역에는 5천개이상의 학교에서 100여만의 학생이 공부하고있으며 90%이상의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17개의 소수민족들이 자기문자를 창조하였으며 리마다 가무써클이 조직되고 매개 주에는 가무단과 환등대와 영화기동대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수많은 진료소들이 설치되였으며 새로운 의료일군들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들도 있다. 인민적의료망은 해방지역의 모든 리와 부락까지 뻗치고있으며 매개 면에는 간호원, 조산원을 포함한 30여명의 보건일군이 있으며 매개 군과 주에는 병원이 있다. 40여종의 신문과 17종의 잡지, 40여종의 시보들이 발행되고있다.

적강점지역;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적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파종면적은 해마다 감소되였으며 1964년 쌀부족량은 50만톤이나 되였다.

고무, 커피, 차생산이 격감되고 축산업도 파탄되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1964년에 황폐화된 토지는 142만 5천정보나 되였다.

식료품, 담배, 직물, 화학제품, 종이 등이 생산되고있으나 중요공업은 미제독점자본이 장악하고 방직, 제당공업부문에 남아있는 민족자본의 중소기업은 령락파탄되고있다. 1964년에 실업 및 반실업자수는 15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민족해방전선관할하의 통신).

신문 기애퐁 (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기관지), 기애퐁광 (해방군기관지).

방송 해방방송(민족해방전선관할하의 방송).

라 오 스

(라오스왕국)

Royaume du Laos

라오스는 인도지나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내륙국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과 고원지대로 되여있다. 우기는 4—9월이다.

【면적】 23만 6,800km²

【인구】 약 300만명 (1963년) 주민의 대부분은 라오족. 언어는 라오스어.

【수도】 비엔티안 (주민 약 11만명).

정치 제2차대전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수파누봉의 령도하에 라오스애국주의자들은 《라오스 자유민족통일전선》(애국전선당의 전신)에 단합되여 프랑스침략군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구국항쟁을 전개하여 승리하였다. 1954년 7월 21일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성립되였고 1957년 11월에는 3파련립정부가 수립되여 라오스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1958년 5월의 전국선거에서 애국전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미제는 친미반동도당을 사촉하여 다시 내란을 일으켰다. 1961년 6월 쮸리히에서와 동년 10월 힌호프에서 1962년 6월 쟈르평원에서 진행된 세 관계측회담들에서 림시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할것과 정부는 세 관계측의 일치가결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2년 6월 24일 전국에 정화가 선포되였으며 7월 23일에는 라오스의 중립화에 관한 제2차 제네바협정이 성립되였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이해 10월 7일까지 철거시켜야할 천명의 자기의 군사인원을 철거시키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더 끌어들여 무장간섭을 강화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 미제는 우파반동군대들을 애국력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로 내모는 한편 6월 11일에는 직접 미제군용기들을 동원하여 해방지역을 폭격함으로써 《특수전쟁》을 한계단 더 확대하였다. 동시에 미제는 이해 4월 19일 비엔티안에서 당시의 경비사령관 쿠프라시트와 경찰총감 시호를 두목으로 하는 극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3파 민족통일정부를 파괴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애국전선당은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정부를 수호하며 (이해 8월과 9월에는 애국전선당의 노력으로 빠리에서 3파지도자회담이 재차 열렸으나 미제의 파괴책동으로 12월에 결렬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제의 무장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1965년 7월 18일 미제의 지시하에 비엔티안집단은 3파들간의

《쮸리히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일방적인 제한된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와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7월 23일, 8월 15일 수파누봉 부수상과 애국전선당과 진정한 중립파려량출신 상들은 3파 민족통일정부의 성원 자격으로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엔티안집단이 조작한 《정부》를 인정하지않는다고 선언하고 쮸리히 및 자르뎅원협정들에 규정된 자기들의 기능과 과업을 계속 실행하여 민족통일정부의 정강을 수호할것을 결의하였다.

【국왕】 나라의 최고권력자로서 국회의 소집 및 해산, 내각성원의 임명, 긴급명령의 발표 및 법률비준 등 권한을 가지고있다.

국왕 사방 바타나 (1959년 11월 —)

【국회】 량원제, 국민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의원 59명으로 구성, 임기는 5년, 왕국의회는 왕이 임명하는 의원 12명으로 구성, 1965년 7월과 1967년 1월 1일에 비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회를 조작하였다. 애국전선당은 진정한 중립파와 함께 이 《선거들》 비법적인것으로 인정하고 무효로 선포하였다.

【내각】 미제와 우파도당은 1964년 4월, 1965년 1월 군사정변과 1965년 7월 및 1967년 1월 1일 협잡《선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수차 괴뢰정부를 《개조》하였다. 애국전선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1964년 6월까지 내각에서 자기측 성원들을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련립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있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1962년 6월 23일 구성된 3파련립정부는 다음과 같다.

수상 겸 국방상, 재향군인상, 사회상 수반나 푸마, 부수상 겸 경제 및 계획상 수파누봉, 부수상 인시시엥마이, 외상겸 내상 펜 퐁사반.

【정당, 사회단체】 라오스애국전선당 파테트 라오전투부대 (라오스인민해방군의 전신)성원들을 핵심으로하고 각계층인사들로 조직된 라오스에서 진보적인 애국정당이며 라오스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 》을 확대하여 1956년 1월 6일에 창건되였으며 1957년 11월에 합법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중립당** 1958년에 자본가, 지주, 이전정부관리, 장교 및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된 련합당의 후신으로서 1961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수반나 푸마. **평화, 중립, 민족적화목 및 통일옹호위원회** 1960년에 애국전선당, 평화 및 중립정책옹호위원회, 청년단체, 애국적인 국회의원, 정부관리, 각계층 주민대표들로 창건. **라오스청년련맹** 1964년 5월 25일에 창립된 애국적인 청년단체.

【주요사건】 남부웰남전쟁마당에서 심각한 궁지에 빠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지역에까지 확대하려고 날뛰면서 라오스에 미제 및 추종국가들의 군사인원들과 전투부대들을 계속 끌어들였다.

1966년에 미제는 라오스주둔 미제군사인원 및 《고문》수를 5천명으로 늘이고 우파군대를 4만명으로부터 근 7만명으로 증강하였다.

미제는 친미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1천여명의 타이 《특공대》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수많은 《특공대》를 끌어들여 교란활동을 감행하도록하였다.

또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신설하였는바 1966년에는 투앙프라방비행장과 사반나케트주의 세노 및 동남 두안비행장 그리고 파크세비행장을 확장하고 상부라오스에서 전략도로건설에 광분하였다.

또한 미제와 앞잡이들은 《로벌작전》을 감행하는 동시에 약 2만차례나 출동하여 해방지역에 무차별폭격을 하였다. 미제는 1966년 4월이래 《비 52》형 전략폭격기들까지 보내여 라오스에서의 《특수전쟁》에 참가하였다. 미제는 해방지역에 나팜탄, 린폭탄 등 야만적인 살륙수단을 사용하고 유독성화학물질을 뿌려 인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1965년 10월 3－13일간에 진행된 라오스애국전선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는 ...

1. 라오스에 끌어들인 미제와 그 추종국들의 일체 무력, 군사기구와 모든 무기 및 전쟁물자의 철수, 군사기지의 철폐.

2.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 우선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 중지.

3. 비엔티안, 방코크 및 사이공의 미제의 주구들간의 결탁이 계속되지못하게 하며 라오스에 대한 간섭에 타이와 남부웰남령토를 리용하지 못하게 할것.

4. 현존 문제해결을 위한 3파회담의 진행.

5. 민족통일정부의 3파간에 이룩된 조직기구와 일치가결원칙의 회복.

11월 27일 애국전선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이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과 기타 군사행동을 중지하며 라오스에서 모든 군사인원을 철거시키며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66년 1월 17일 애국전선당은 중부 및 하부라오스를 강점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고 라오스인민은 필요하다면 5대륙의 자기 벗들과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줄것을 호소할 권리를 가지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라오스국제감시 및 관리위원회의 인도 및 카나다대표들이 미제의 침략도구로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고 라오스 국제감시 및 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10월 12일에 애국전선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라오스인민이 라오스가 참으로 평화적이며 중립적이며 통일독립된 민주주의적인 번영하는 나라로 될때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을 계속할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제는 우파 공군집단을 사촉하여 10월 21일 공군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실패하였다) 11월에 와서 미제와 비엔티안당국은 1967년 1월초에 《총선거》를 또다시 선포하면서 1965년 7월 18일에 비법적으로 《선거》하여 조작한 《국민의회》를 해산하는 놀음을 벌렸다. 《국민의회》의 해산은 미제의 괴뢰들간의 권력쟁탈전으로 말미암아 비엔티안정권에 조성된 엄중한 알륵을 반영한것이며 라오스에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괴뢰들에 의거하는 미제의 정책이 파탄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11월 4일 수반나 푸마에게 서한을 보내여 비엔티안당국이 또다시 실시하려는 《총선거》는 완전히 비법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라고 언명하고 이 비법적인 《선거》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1월 25일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는 이 《총선거》는 미제가 라오스에 《강력하고》, 《안정된》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인도지나에 침략을 확대하기 위한 저들의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따라서 비엔티안당국은 《총선거》에 참가하라고 라오스애국전선당을 초청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12월 21-27일 애국전선당과 중립파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1965년 10월 제1차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된 이래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성과를 총화하고 라오스애국전선당과 진정한 중립파군이 앞으로 투쟁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내외적으로 쌍방의 위신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15일에 진행된 라오스애국전선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이 달성한 승리를 총화하고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여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라오스애국군대는 1966년에 적 1만 1천 902명을 소멸하고 적기 203대를 쏘아떨구었으며 2천 727정의 무기와 수백톤의 탄약을 로획하였다. 또한 라오스민병들과 유격대원들도 적군 1천 500여명을 살상하였으며 미제비행기 15대를 쏘아떨구었다.

해방지역은 확대되였으며 2만여명의 인민이 해방되였다.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국토의 8%에 지나지 않으며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보석 등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으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옥수수, 땅콩, 담배, 목화,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벼의 경지면적은 약 75만헥터이다.

직강점지역의 경제명맥은 주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으나 1954년이래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프랑스독점자본을 물리치고 점차 라오스의 재정, 금융, 상업, 무역을 장악하였다.

최근년간에 일본독점자본의 진출도 급격히 강화되였는바 1964년까지 일제는 10억원(일본화폐)의 경제, 기술《원조》를 라오스에 주었다.

라오스령토의 3분의 2를 포괄하는 해방지역에서는 경제가 복구되고있다. 광대한 지역에서 벼 2모작이 실시되고있으며 도처에서 품앗이반들이 무어져 공동노력으로 생산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주와 군에 이르기까지 의료망이 설치되였으며 15개의 병원이 있고 200여명의 의사 및 준의, 4천여명의 간호원들이 일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3만 6천 500여명의 중학 및 인민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헌법은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라오 프레스 (라오스어, 프랑스어).

신문 라오 하크사트 (애국전선당기관지), 로드 오브 뉴트랄리티 (중립파계).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 (해방지역방송), 《라오스의 소리》 (진정한 중립파계).

캄 보 쟈

(캄보쟈왕국)

Royaume du cambodge

인도지나반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있으며 웰남, 타이, 라오스와 접경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8°C이다.

【면적】 18만 1,035km²

【인구】 626만명 (1966년말)

주민은 크메르족 (75%), 참족, 타이족, 라오족, 카족, 프논족 등 2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였고 중국과 웰남인 기타 외국인들 52만 5천명이 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며 프랑스어도 통용된다.

【수도】 프놈 펜 (주민 약 60만명).

정치

6세기에 통일적인 캄보쟈 봉건국가가 형성되였으며 9-14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후 캄보쟈는 타이, 라오스, 웰남의 침략을 받았고 1863년 8월 1일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884년에는 《인도지나련방》에 병합되였다. 1940년 9월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였고 1945년 3월에 강점당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후인 1945년 10월 5일 재차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고 1946년 1월 7일 다시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1947년 5월 왕국헌법을 발표(1955년 9월에 수정)하였고 1949년 11월 프랑스련방 내에서 독립하였으나 외교, 사법, 재정 및 군사부문의 실권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쥐고있었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들의 투쟁행정에서 항쟁근거지와 크메르인민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1950년 4월에는 전국해방을 위한 《중앙항쟁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후에 림시정부(항쟁정부)로 개편되였다.

1953년 11월 9일 캄보쟈는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 및 중립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였다. 제네바협정에 기초하여 1955년 9월 11일에 전국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여 시하누크 친왕을 수상으로 내각이 구성되였다. 9월 25일 국민의회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할것을 결정하였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캄보쟈를 중립의 길에서 떼내여 《세아토》에 끌어들이려고 강요하였으나 캄보쟈는 이를 거부하고 1957년 9월 11일 국민의회에서 영구중립법을 채택하였다.

미제는 캄보쟈왕국을 반대하여 캄보쟈의 반역자집단인 《자유크메르운동》을 사촉하여 왕국정부전복음모를 획책하는 한편 남부웰남괴뢰도당과 타이반동집단을 직접 캄보쟈에 대한 침략에 내몰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캄보쟈는 무력으로 국경침범자들을 격퇴하는 한편 타이 (1961년 10월)및 남부웰남괴뢰정권 (1963년 8월)과 각각 외교관계를 끊었다. 또한 미제의 일체 《원조》를 거부할것을 결정 (1963년 11월 19일)하고 1963년 12월에 캄보쟈에 있던 미제의 《군사경제문화원조사절단》전원을 내쫓았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1960년 6월 20일－).

【의회】 왕국회의(상원)와 국민의회(하원)가 있다.

왕국회의는 임명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된 의원 24명으로 구성, 임기는 4년, 국민의회가 제출한 법안을 반대 또는 개정할수있으나 국민의회가 다시 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법안으로 채택된다.

국민의회는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82명으로 구성, 임기는 4년, 립법권과 내각성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현국민의회는 1966년 9월 11일에 선거되였다. 전체 의원이 인민사회동맹원이다.

의장 사우셍 꼭쌀

【정부】 1966년 10월 22일 론놀을 수상으로 새로 조직되였던 내각은 1967년 4월 30일 총 사임하고 이해 5월 1일 시하누크친왕은 7명의 상, 9명의 국무비서 및 부국무비서로 비상내각을 구성하였다.

수상 노로돔 시하누크, 제1상 손상, 외무상 노로돔 푸리싸라친왕, 국방상 두옴 삼올.

【정당, 사회단체】 **인민사회동맹** 1955년 4월 시하누크친왕이 국내의 거의 모든 정당들을 통합하여 결성, 이 동맹은 왕족, 대상인, 관리 및 인테리를 중심으로 약 50만명으로 조직된 광범한 《민족통일운동체》이다. 국민의회의 전체 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사회주의청년동맹** 1957년 9월 5일 결성, 맹원수 약 44만 5천명.

【주요사건】 1966년 9월 11일 제4기 국민의회선거가 진행되여 8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였다.

10월 22일 국민의회에서 론 놀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찬성 73표, 기권 4표)가 진행되였다.

국가원수 시하누크는 10월 25일에 인민사회동맹내에 옹호사트를 수반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재야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는 1967년 4월 30일 론놀내각의 사임을 접수하고 5월 1일에는 조성된 정치경제적긴장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상으로 하는 1－3개월간 존속시킬 비상내각을 구성하였다.

캄보쟈정부는 미제와 남부웰남타이괴뢰도당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 중립 및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65년 3월 15일 정부는 캄보쟈문제에 관한 1954년 제네바회의참가국들의 회의를 즉시 소집할것을 공동의장국들인 쏘련과 영국정부에 요구하였으며 5월 1일 국제회의에 대한 세가지 요구조건 즉 회의는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회의형이라야 하며 회의에는 남부웰남괴뢰들이 참가하는것을 반대하며 캄보쟈문제토의에 웰남및라오스문제를 련관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성명하였다. 6월 8일 시하누크친왕은 어떠한 국제회의에서도 캄보쟈의 중립을 승인하고 령토완정을 존중할데대한 선언만을 채택해야 하며 국경문제자체는 토의될수 없다는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12월 27일 인민사회동맹 29차 전국대회는 《캄보쟈는 일체 전쟁행동에는 전쟁행동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립장을 강조하였다. 3월 22일 왕국군은 《프레아 비헤아르사원》을 강점한 타이 괴뢰들을 몰아냈으며 그후에도 국경을 침범한 미제와 괴뢰를 격퇴시켰다.

1965년 5월 3일에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9월 20일에는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에서 탈퇴하였으며 1966년 1월 25일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프놈 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같은해 8월 13일에는 캄보쟈－미국관계문제토의를 위하여 캄보쟈방

문을 요청한 미제순회대사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12월 27일 캄보쟈정부는 박정희도당과의 일체 관계를 끊고 1967년 1월 20일에는 미제의 정탐기관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총영사관을 프놈펜에서 내쫓았다.

캄보쟈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5년 6월 20일 시하누크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남부웰남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할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웰남인민에게 의약품 45상자를 보냈다. 1966년 3월 19일에는 전어 200상자를 보냈다.

시하누크는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확대를 위한 《마닐라회의》에 캄보쟈는 참가하지않기로 결정하였다고하면서 웰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1954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10월 5일 캄보쟈정부와 중국정부간에 중국군사전문가들을 캄보쟈에 파견할데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5년 4월 시하누크친왕이 반둥회의10주년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10일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으며 10월에 평양에서 캄보쟈전람회가 있었다. 이밖에 1965년에 캄보쟈로부터 부수상 겸 재정경제계획상 손상 (8월), 공업견학단, 공보성대표단, 체육단, 가무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캄보쟈를 방문(10월)하였으며 방문기간 우리 나라가 캄보쟈에 주는 농기계선물 전달식에 참가하였다. 11월 제1차 아세아가네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체육선수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8월과 9월에 캄보쟈 청소년축구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캄보쟈는 1963년 11월 미제의 모든 《원조》를 배격한 후 자주자립을 지향하여 민족경제발전에 노력하였다. 캄보쟈는 《5개년계획》 (1960－1964)을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대외무역과 은행 및 보험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65년과 1966년을 조절의 해로 정하고 민족경제의 기초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캄보쟈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86.6%가 농사를 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의 재배면적을 보면 벼는 241만 4천정보, 옥수수는 약 13만 3천정보, 고무는 약 5만 9천정보에 달한다.

1966－1967년에 벼는 245만 7천 200톤, 고무는 5만 1천 350톤, 옥수수는 1965년－1966년에 13만 5천 800톤 생산되였다. 1966년말 현재 소는 180만마리, 양은 70만마리, 돼지는 100만마리, 가금은 450만마리 있었다. 수산업은 담수어업이 기본이며 1965년 어획고는 약 18만톤이였다. 산림면적은 약 1천 357만정보이며 목재생산량은 약 30만립방메터, 그중 수출량은 7만여톤(1964－1965년)이다.

공업은 발전 첫단계에 있으며 중소규모공장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10년간 (1955－1965)에 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50억리엘이였는데 그중 30억리엘이 국가기업소들에 투자되였다. 이리하여 1955－1965년간에 년산 500만메터 능력의 놈뽕참방직공장, 년산 4천 823톤 능력의 크롬제지공장, 년산 5만톤능력의 캄포로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현대적설비로 장비된 목재, 양주, 비료, 유리, 원유가공, 다이야, 합판, 타면, 뜨락또르 등 국영공장이 건설되였다.

1966년 8월에 년산 1만 2천톤 능력의 에아스틸산염 (화학비료) 공장이 조업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입쌀, 고무, 옥수수, 후추,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자동차, 비료, 세멘트, 강재,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서독 등이다.

교육문화 1965년 교육비는 국가예산액의 20%인 1억 3천만리엘로서 1955년에 비하여 약 44배로, 보건부문지출액은 약 4배로 증가되였다.

1966년말에 초등학교수는 4천 177개, 학생수는 94만 2천명, 중등학교수는 156개, 학생수는 9만 3천명, 기술전문학교수는 47개, 학생수는 7천명, 38개의 학부를 가진 8개의 대학에 대학생 7천 400명이 있었다.

1966년에 44개의 병원과 의사 365명이 있었다. 국교는 불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캄보쟈통신 **신문** 민족주의자 (인민사회동맹기관지), 캄보쟈보 (정부기관지), 조국보.

방송 국립방송국 (캄보쟈어, 프랑스어, 영어, 중어, 웰남어, 타이어로 방송).

일 본

우리 나라의 동남쪽, 동해와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다. 혼슈, 시고꾸, 큐슈, 홋까이도 및 기타 주변에 널려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36만 9,662km²

【인구】 1억 2만 849명(1967년 8월 1일)

【수도】 도꾜 (주민 1천 102만 5,013명, 1967년 1월초)

정치 7－8세기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봉건제도는 1967－1968년에 신흥부르조아세력이 일으킨 개혁 즉 《명치유신》에 의하여 타도되고 일본은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벌써 제국주의단계에 넘어갔다. 그러나 부

르조아지들은 봉건제도의 잔재인 《천황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반봉건적인 지주들과 밀접히 결탁하여 국내인민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파쑈적탄압,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강도적략탈을 감행하였다. 《명치유신》후 일제는 10여차에 걸친 략탈전쟁을 거듭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1875년에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894－1895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배상금과 대만, 팽호렬도 등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았고, 1904－1905년에는 로일전쟁을 일으켜 남부싸하린과 중국의 료동반도, 대련, 려순항을 손아귀에 넣었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막대한 자연부원과 재물들을 빼앗아갔고 조선의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죽였으며 지어는 조선사람의 말과 이름마저 빼앗으면서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다.

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거점으로, 병참기지로 전환시킨 일제는 1918년에 쏘련을 반대하여 7만여명의 침략군대를 씨비리와 싸하린지역에 밀어 넣었으며 1938년 하싼호, 1939년에는 할힌골강지역에서 새로운 반쏘공격을 꾀하다가 실패하였다.

1931년에 일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고무하에 중국의 동북을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조작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였다.

일제는 1936년에 쏘련을 반대하여 나치스독일과 《반공협정》을 맺었고 1937년에는 이딸리아가 여기에 끼여들었으며 1940년에 일본, 독일, 이딸리아제국주의자들의 3개국 군사동맹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일제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전쟁행정에 웰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세아 각국과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강점하고 쏘련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계속 위협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아세아의 전지역을 지배하려고 날뛰였으나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동년 9월 2일 항복문건에 조인하였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제는 첫날부터 제반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본이 처하고 있는 전략적위치와 그의 인적 및 물적 잠재력을 리용하여 일제를 재군국화하고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길러내는데 미쳐 날뛰였다.

미제는 1951년 9월 일제와 일방적으로 쌘프랜씨스코《단독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고 미제침략군의 일본주둔과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의 유지를 합법화하였으며 일제가 재군국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미제의 각간으로 1950년에 《경찰예비대》, 《해상보안대》라는 명목으로 조작된 일본침략군대는 오늘 《자위대》의 명칭으로 재생강화되였으며 일제독점자본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끼여들어 크게 횡재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급속히 촉진하였다.

미제는 1960년의 신일미 《안전보장조약》에서 일제의 재무장을 더한층 촉진시키며 《공동방위》라는 명목밑에 일제군대를 직접 제놈들의 침략에 동원할수 있게 하였다.

전후 미제의 비호하에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으며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의 반동적인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끼여들어 일본을 미제의 웰남침략을 위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내맡기고있다.

【천황】 히로히도 (1926년－) 1947년 새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실권은 없고 명목상의 통치자로 되여있다.

【국회】 유일한 립법기관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중의원 의원수 486명, 임기 4년, 1967년 1월 29일 선거결과 공산당 5, 사회당 140, 민주사회당 30, 공명당 25, 자유민주당 277, 무소속 9.

의장 이시이 미쯔지로.

참의원 의원수 250명,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을 개선, 1966년말현재 공산당 4, 사회당 73, 민주사회당 7, 공명당 20, 자유민주당 141, 기타. 의장 시게무네 유조.

【내각】 현 내각은 1967년 2월 18일 구성.

수상 사또 에이사꾸, 외상 미끼 다께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당은 창건이래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때까지 비합법투쟁을 전개하다가 1945년 12월 1일에 재건되여 합법적투쟁을 하고있다.

1966년 10월 24－31일까지 10차대회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총화기간의 사업을 매듭짓고 당면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출하였다.

1966년 2－3월에 미야모도 겐지서기장을 단장으로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 중국, 웰남을 방문하였으며 5월에는 일본공산당 가스가 쇼이찌간부회원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당원수 30여만명. 1966년 10월에 진행된 제10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간부회원 11명, 후보회원 6명을 선출. 의장 노사까 산조,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조직.

도시를 중심으로한 중소자산계급, 지식인, 사무원, 일부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속에 기반을 두고있다. 제1야당으로서 공산당과 함께 진보적민주주의운동에 참가하고있다. 당원수 약 5만 4천명 (1966년 1월 현재). 위원장 사사끼 고조. **민주사회당** 사회당에서 떨어져나간 우익기회주의분자들로 1960년 1월에 결성, 자유민주당로선에 동조하고있다. 당원수 약 3만명. **공명당** 1964년 11월 17일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체로하여 성립, 《중도정치》를 표방하며 본질에 있어서 반동보수로선을 따르고있다. **자유민주당**(집권당)1955년 11월 15일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 미제에 적극 추종하며 독점자본가, 지주, 고급관료, 군벌 및 부농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특히 농촌에 발판을 두고있다. 민주세력의 진출과 인민들의 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기반이 흔들리고있으며 잡다한 파벌로 뒤엉키여 점차 분렬과 몰락의 징조를 보이고있다. 총재 사또 에이사꾸. **로동조합총평의회**(총평) 1950년 7월 종전의 산업별조직이 통합하여 조직된 진보적인 가장 큰 로동조합이다. 60개산별로조와 420여만명을 망라하고있다. 의장 호리이 도시까즈. **전일본로동총동맹**(동맹) 1964년 11월 12일 그의 전신인 동맹회의가 개편되여 성립, 우익로조의 련합체로서 146만여명을 망라하고있다. 민주사회당의 기반으로 되여있다. **중립로동조합련합회의** (중립로련)주로는 민간회사의 로동자 93만여명으로 조직. 많은 경우에 총평과 공동행동을 취하고있다. **산업별로동조합련합회**(신산별)약 6만명이 망라. **전일본농민조합련합회** (전일농)1957년 9월 결성, 농민운동의 중심이다. **신일본부인회** 1962년 10월 결성, 진보적인 녀성단체. **민주청년동맹**(민청)공산당의 영향하에 있으며 세계민청에 가맹하고있다. **평화위원회, 원자및수소탄금지일본협의회, 일조협회** 1951년 6월 10일 조직.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1958년 결성. **일조왕래자유실현련락회의** 1963년결성.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조선연구소** 1962년 결성.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일조무역회,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1965년 결성.

【주요사건】 《일한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6월 22일 사또반동정부는 박정희괴뢰도당과 범죄적인 《일한조약》을 정식 조인하고 12월 18일 《일한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일한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여 일본인민들은 년중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한조약》의 국회《비준》을 전후하여 공산당, 사회당, 총평 등 민주세력들은 통일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써 이《조약》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6월 19일 공산당, 사회당 등 3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한조약》이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위험한 음모라는것을 폭로규탄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또반동정부와 자유민주당은 1965년 11월 12일 야밤에 관권파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일한조약》의 중의원통과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12월 11일 참의원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등 야당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사회당과 공모하여 이 《조약》을 비법적으로 통과시켰다.

군국화의 촉진 일본반동지배층은 헌법을 개악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나라의 군국화를 촉진하려고 책동하였다.

1965년 말에 자유민주당은 헌법개악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할 목적으로 현재의 중선거구제대신에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여 민주세력의 국회진출을 막고 저들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일거에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사또도당은 또한 1966년에 《명치유신 100주년》을 계기로 하여 군국주의사상을 부식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인간상》이라는 문부상문건을 발표하여 교육의 반동화를 촉진하려고 날뛰였다.

사또도당의 군국화촉진책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쳤다.

1966년 3월 30일 공산당의 주창아래 사회당, 공명당의 3당간에 《헌법옹호, 소선거구제분쇄련락회의》가 결성되였으며 5월 25일과 27일에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또도당의 헌법개악, 소선거구제실시를 위한 음모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인민대중의 줄기찬 투쟁앞에서 사또도당이 집요하게 노려온 헌법개악, 《소선거구제》실시기도는 저지되였다.

민주세력의 진출 1965년과 1966년에 미제와 사또도당의 반동정책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정치투쟁을 통하여 민주세력은 크게 진출하였다.

1965년 7월 4일에 진행된 참의원선거와 7월 23일의 도꾜도의회선거는 민주세력의 현저한 진출을 보여준 반면에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의 쇠퇴를 보여주었다. 참의원선거에서 공산당은 득표률에서 1962년 선거때보다 3.2% 장성하여 4석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당은 8석 늘어난 반면에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득표률에서 39.5%로부터 31.9%로 줄고 의석수는 4석을 잃었다. 특히 도꾜도지방구에서는 일본선거력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당립후보자들이 전원 락선되였다.

1966년에는 8월 국회에서 폭로된 《다나까 쇼지사건》(자민당에

산심의위원장인 다나까가 업자들을 매수공갈하여 수십억원을 략취하고 수억원을 탈세한것)을 계기로 이른바 《검은 안개》라고 불리우는 각종 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폭로되여 련일 국회내에서는 물론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사또도당에 대한 공격과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민주세력과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일관하게 《사또는 물러가라!》, 《국회를 해산하라!》는 구호하에 각종 시위, 파업군중집회 등을 조직하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사또도당은 드디여 1966년 12월 27일 제 54차 국회를 소집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지않을수 없었다.

1967년 1월 국회선거에서는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광범한 진출과 자유민주당의 커다란 패배를 보여주었다. 공산당은 전번선거때보다 32.2%나 더 많은 220만표를 얻음으로써 5개 의석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처음으로 도꾜와 기다큐슈지구에서 새로 의석을 차지하여 정치경제의 중심지구에 당세확장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후 (1967년 4—5월)진행된 지방선거의 결과 도꾜도지사에는 전후 처음으로 공산당과 사회당이 공동으로 추천한 미노베 료끼찌가 당선되였다.

한편 평화와 민주주의 및 생활상권리를 위한 근로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5.1절에는 전국 887개장소에서 650만명의 근로자들이 생활상권리와 군국화를 반대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가지였으며 5월 5일의 사철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하여 봄, 가을의 일제행동을 중심으로 광범한 파업투쟁이 벌어졌다. 7월 20일에는 《웰남 하노이폭격을 항의하는 전국통일행동》이 전개되여 미제의 침략전쟁과 이를 적극 돕고있는 사또도당의 대미추종, 전쟁정책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전쟁반대, 사또정부타도, 생활상권리와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10월 21일 통일파업투쟁은 전국에서 547만명이 참가한 대규모적인 투쟁이였다.

【대외관계】 사또도당은 침략적 《일미안보체제의 견지》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하여 미제의 전쟁 및 침략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고있는 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침략적해외팽창책동을 로골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사또반동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 견지하면서 재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침략적《일한조약》을 조작한 후 사또도당은 1965년 12월에 《주한일본사무소》를 《주한일본대사관》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이른바 《국교정상화》를 꾀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적침략침투를 더욱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본군국주의독점체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등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경제의 여러부문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군국주의문화의 침투를 각방면으로 서둘러댔다. 그러면서 사또도당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의 범죄적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밑에 우리 나라와 다른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세개화살작전》 등의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남조선에 재전쟁준비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군사장비들을 공급해주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및 괴뢰군과의 협동군사련습까지 감행하였다. 또한 사또도당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행위에 미쳐 날뛰면서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해 나섰다. 사또반동정부는 공화국기술자들의 일본입국까지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1965년 7월 제11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10월 13일 도꾜에서 개최된 국제전기공학위원회 제30차 총회에 초청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1966년 8월에는 도꾜에서 열렸던 세계녀자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선수단의 일본입국을 거절하였으며 9월에는 《평신호》사건을 도발하여 우리 나라 선원들을 불법감금하고 박해를 가하는 등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사또반동정부는 또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총련파괴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협정을 1967년 11월까지로 끝맺을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파괴하기 위한 《외국인교육법안》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사또도당은 경찰과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정탐파괴 암해행위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각종 도발적인 테로행위를 거듭 감행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사또반동정부는 미제에 추종하여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적대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자기들의 경제적파국에서 벗어나보려고 일부 나라들에 대하여는 경제적련계를 확장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제의 강요 아래 사또반동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추구하면서 일체 경제관계마저 끊어버렸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웰남침략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미제의 《주문》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각종 무기를 비롯한 많은 군수기자재를 공급하고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보급기지, 공격기지, 수리기지로 복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천 수백명의 군사요원이 직접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참가하고있다. 사또도당은 이렇게 미제에 복무하는 대가로서 미제침략군의 《특수주문》으로 1966년에만도 15억딸라이상을 획재하였다.

1966년에는 《쏘일항공협정》이 체결되여 모스크바—도꾜간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였다.

미제 및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사또도당은 대미 종속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섰다.

1965년 1월 미국에 불리여간 군국주의두목 사또는 전쟁두목 죤슨과의 《공동성명》에서 일미《안보》체계를 견지하며 오끼나와, 오가사하라에 미제침략군이 계속 강점하는것을 허용함으로써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더욱 협력하여 나섰다. 또한 장개석도당을 계속 비호하고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할것 등을 확약하였다.

1966년 3월 9일 군국주의두목 사또는 국회에서 《일미안보조약의 장기 고정화》를 떠벌였다.

제4차(1965년 7월, 워싱톤) 및 제5차(1966년 7월, 도꾜) 《일미무역경제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아세아침략에서의 미일간의 공모와 결탁을 더욱 로골화하여 미제의 요구대로 《동남아개발계획》추진에 적극 협력할것을 확약하면서 그 대가로 미제를 등에 업고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적팽창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고 날뛰였다.

1965년에 사또도당은 대만의 장개석도당에 1억 5천만딸라의 차관을, 남부웰남과 라오스괴뢰들에게는 는년 4억딸라의 《긴급원조》를 주기로 하였으며 5월에는 《말레이시아》수상 라호만을, 7월에는 우간다수상 오보테를 초청하여 경제《원조》를 약속하면서 일본독점체들의 침투를 강화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또한 《아세아중심외교》를 간판으로 하여 1966년에《동남아세아 각료개발회의》(4월, 도꾜)를 비롯하여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6월, 서울), 《아세아개발은행》의 창설(11월),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12월, 도꾜) 등 일련의 반공침략기구들을 조작하면서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에 적극 복무하는 동시에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팽창을 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사또도당은 또한 1966년 9—12월에 걸쳐 외상, 농업상, 통산상 등 졸개들을 동남아세아 각국에 파견하여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더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로골화하였다.

경제 경제전반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고 경제의 군사화가 촉진된 반면에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파산과 농업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거듭되는 물가등귀와 로력의 편중, 근로자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와 대외시장의 제한 등으로 생산과 시장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를 강화하려는 사또도당의 《중화학화》정책에 따라 군수독점체에로의 생산과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더욱 강화되여 경제의 군사화가 더한층 촉진되였다.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도모, 후지, 다이이찌 등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군수독점체들은 전체 공업자본의 72%를 틀어쥐고 제철, 기계, 조선, 석유,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반면에 령세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중소기업은 대독점의 탐욕과 착취의 희생물로 되여 더한층 파산몰락되였다.

1966년의 기업파산 총건수는 6천 187건으로 전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제의 강요에 의한 사또도당의 《자유화》정책에 따라 일본의 경제명맥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미제독점자본과 기술의 침투는 급격히 강화되였다.

1966년 8월 현재 일본의 외국자본도입액중 미제의 자본은 90%, 미제의 기술도입건수는 60%를 차지하였다.

사또도당의 반동적인 《농업구조개선》정책과 미제의 잉여농산물의 수입정책으로 인하여 일본농업은 계속 몰락과 파탄의 길을 걷고있다.

일본농업의 파탄은 주로 사또도당의 토지수탈(공업용지와 비행장, 도로, 군사용지)로 인한 경지면적의 감소,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농촌로력의 감소, 리농가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1960년이래 미제를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의 수입은 약 3배로 늘어나 식량의 자급률은 86%로부터 76%로 떨어졌다. 인위적으로 농산물수매가격은 낮게 설정된 반면에 공업제품 (비료, 농기구, 생활필수품 등)은 비싸며 그우에 무거운 세금으로하여 농민들은 2중 3중의 수탈을 당하고있다.

일본의 농업은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0.9정보에 불과한 전형적인 소농경리가 중심인데 해마다 토지가 줄어들어 최근 5년간 (1961—1965)에 경지면적은 528만정보로부터 509만정보로 감소되였다.

1966년에 수출이 14.4%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20.7%나 대폭 늘어났다. 수출이 늘어난것은 주

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따른 미제의 《특수주문》이 늘어난것과 동남아세아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된데 기인하였다. 미제의 동남아세아에 대한 수출은 수출총액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수입이 대폭 늘어난것은 확대된 생산설비능력과 공업원료결핍간의 모순이 더한층 심각화되고있는것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서 일본의 대외무역은 특히 중화학공업제품의 심각한 판로난에 부딪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주로 대외무역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의 경제구조에 심각한 암영을 던져주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독점자본은 자기의 독자적《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서두르는 한편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적팽창을 강화하려고 더욱더 날뛰였다.

1966년에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독점재벌에 유리하도록 더욱 개악되여 국가예산수입의 주되는 부담은 근로자들에게 더욱더 들씌워졌다.

1966년에 사또도당은 7천 3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공공투자에 충당하였다. 예산지출은 나라의 권력기구 유지비를 중심으로 군국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군수산업, 도로항만시설, 자위대확장에 대부분이 돌려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시책과 중소기업, 농업부문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군사 2차 대전후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재생되고있으며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계획을 짜놓고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등 침략계획을 작성하고 미제의 지휘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을 기도하고있으며 일본, 남조선, 대만을 중심으로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과 나아가서는 《아세아반공동맹》의 결성을 획책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7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방위증강5개년계획》에서 핵무장화와 자국내 군수산업의 대대적인 증가를 획책함으로써 군국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1950년에 《경찰예비대》로 발족한 일본군국주의무력은 《자위대》로 개편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육성되고있으며 여기에 15만여명에 달하는 반동경찰이 합세하여 파쑈적인 폭력기구를 이루고있다.

또한 극우테로단체들이 공공연히 군국주의사상을 류포하고있으며 백색테로를 강행하면서 해외침략을 떠들어대고있다.

사회, 문화 군국화의 촉진과 대내외적인 반동정책으로 사회적혼란과 모순은 더욱 심화되였으며 문화면에서의 부패와 반동화는 한층 촉진되였다.

1966년 정초부터 배급미 값이 또다시 8.6% 올라간것을 비롯하여 3월 5일부터는 철도운임이 평균 25%, 4월에는 우편료금이 25~50% 뛰여올랐다. 1966년에 공공료금과 함께 각종 소비물자의 값이 평균 7%나 올랐다. 반면에 사또도당이 추구한 《산업재편성》과 《합리화》정책, 임금동결, 해고 및 중소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민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살인, 강도,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건수가 계속 늘어났으며 특히는 10대소년들의 불량화가 더욱 심해졌다.

1966년에 각종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수는 1만 3천 319명에 달하여 일본력사상 최고기록을 냈다.

【출판보도】 **통신** 교도통신, 지지통신.

신문 아까하다(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상께이신붕, 니혼게이자이신붕.

잡지 젱에이(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세까이 세이지시료, 세까이, 쥬오고롱, 세까이슈호.

오끼나와

【면적】 2,388km²(류큐제도전체)

【인구】 95만 2,000명(1964년 1월 현재)

【행정중심지】 나하(약 26만명)

정치 오끼나와는 2차대전후 계속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에 있다.

1951년에 조작된 미일 단독《강화조약》에 의하여 미제의 강점이 합법화되였다.

1952년 4월 1일 미제는 류큐정부를 조작하고 오끼나와의 행정, 립법, 사법 등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오끼나와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일대 전초기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시기 오끼나와를 조선침략을 위한 전초기지, 보급기지로 리용하였으며 오늘은 웰남침략을 위한 작전기지, 보급기지, 통신기지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여기에 6만여명의 륙해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으며 해마다 그의 기지망을 확장하고있다. 특히 《메이스-비》로케트를 비롯한 각종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군대를 비롯한 미제의 추종군대의 훈련장으로 리용하고있다.

오끼나와인민들은 일본본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오끼나와시정권의 반환(완전자치의 요구)그리고 일

본에로의 귀속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1966년 2월 15일 오끼나와현조국복귀협의회에서는 정부주석의 간접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현민대회를 열고 이에 참가한 2만 3천명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요구하여 궐기하였으며 3월 20일부터는 일본 각지 인민들과 함께 《오끼나와, 오가사와라의 반환을 요구하는 월간》 투쟁이 벌어졌으며 4월 28일의 《오끼나와의 날》에는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일본복귀를 요구하여 해상대회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집회와 시위들이 전개되였다. 6월 21일 립법원에서는 미제의 횡포한 《재판이송명령》의 철회를 의결하였다.

【정당】인민당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 (집권당), **사회당**.

경제 농업과 수산업이 중심이다. 중요농산물은 벼, 고구마, 사탕수수이고 바나나, 파인애풀 등도 재배한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

아세아대륙의 동남방, 태평양의 서부에 위치하고있으며 7천 109개(가장 큰 섬이 루손도)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우기는 5—10월, 건조기는 11—4월이며 년평균기온은 27°C이다.

【면적】 29만 9,404km²

【인구】 3,234만 2,000명 (1965년).

42개의 종족이 있는데 말라이, 인도네시아계의 필리핀인이 약 90%이상,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이 약 7%이다. 국어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주민의 약 87%가 사용하는 타갈로그어이다.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공용어로 되여있다.

【수도】 케손 (주민 39만 5,000명, 1961년). 1948년에 수도를 케손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기관은 아직 마닐라 (주민 179만명)에 있다.

정치 1521년 뽀르뚜갈인 마젤란에 의하여 발견되였고 1570년대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었다.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필리핀은 미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6년 7월 4일 독립하였다..

미제는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필리핀헌법에 《평등권리법안》(자연부원의 개발, 공공사업분야에서 필리핀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을 첨가시키고 《무역협정》(1946년 7월), 《군사기지협정》과 《군사원조협정》(1947년 3월), 《호상방위조약》(1951년 8월)등 예속적인 불평등협정을 강요하였다. 1954년에 필리핀은 침략적인 세아로에 참가하였다. 1965년에는 바기오에 아세아에 주둔할 미제침략군의 무전련락중심지를 설치할데 대한 협정, 바타주와 잠벨스주에 있는 두개지역을 미제의 해군기지사령부에 넘길데 대한 협정 등 일련의 침략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조약들에 따라 필리핀에는 미제 13공군사령부가 있는 클라크공군기지와 스피크만에 있는 미제7함대의 수리 및 보급기지를 비롯한 29개의 미제군사기지가 있으며 1만 6천명의 미제침략군이 주둔하고있다. 필리핀군대는 《미제군사고문단》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있다.

필리핀은 미제의 남부월남전쟁에 적극 추종하여 1964년 7월 남부월남괴뢰들에게 100만페소의 《원조》를 줄것을 결정하였으며 1966년 6월 국회는 1966년중으로 2천명을 남부월남에 파병할것을 결정하였다. 8월 첫부대가 사이공에 기여들었다.

1965년 1월 25일 마닐라인민들은 미제와 필리핀간의 불평등협정의 폐기를 요구하며 남부월남파병과 미제의 내정간섭을 규탄하여 미제대사관앞에서 강력한 시위를 진행하였다.

1966년 2월말에는 바기오에서 남부월남파병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규모시위가 있었으며 3월초순 안젤레스에서는 3천여명의 인민들이 미제의 클라크공군기지를 향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2월 미제의 전쟁상인인 험프리(부대통령)가 필리핀에 기여들었을때 마닐라에서는 5천여명이 반미시위를 하면서 험프리에게 썩은 닭알과 사과벼락을 안겼다.

또한 미제가 벌려놓은 《마닐라회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력히 전개되였다.

10월 24일 마닐라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미제의 월남침략을 반대하여 대규모의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미제를 타도하자》, 《죤슨은 아세아의 도살자》라는 프랑카드들을 들고 대통령궁전, 미제의 대사관, 침략자의 두목인 죤슨이 머물러있는 마닐라호텔로 행진하였으며 11월 3일과 4일에도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였다.

한편 1966년에는 인민항쟁군의 무장투쟁도 치렬히 전개되였는바 클라크공군기지부근의 큰 도시인 홍이리스는 인민항쟁군의 활동중심지로 전변되였다.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수는 24명, 임기는 6년(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 하원의원수는 104명, 임기는 4년.

【정부】대통령이 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임기는 4년.

현정부는 1966년 1월 5일에 구성.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당】공산당 1930년 11월 7일에 창건되였다. 1957년 7월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헤수스라바(1964년 5월에 체포됨). **국민당** (집권당)1907년에 조직, 친미부르조아지의 정당. **자유당** 1946년에 조직된 반동친미정당.

민족공민당 1959년에 조직된 반미적인 부르죠아민족주의정당. **민주당** 1953년 조직. **레이버당** 1963년 창건. **통일로동당** 1964년 12월 1일 조직, 전신은 로동련합이다.

경제, 사회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은 약 678만 정보이다. 토지의 90% 이상은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지주들과 외국인 및 필리핀인 회사, 천주교 교회들이 가지고있으며 농민의 3분의 2는 토지를 못가지고 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코프라, 담배, 마닐라삼, 벼, 옥수수 등이다.

산림면적은 1천317만정보(국토의 약 14%)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약 17.4% (1961년)를 차지한다.

경제명맥은 주로 미제 (농업, 광업, 림업, 대외무역), 일제 등 외국독점체들이 쥐고있다.

1965년 10월현재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사자본투자액은 5억딸라였으며 1963—1964년에 2억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화폐단위는 페소이며 재정년도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

1964—1965년도에 국가부채는 40억페소라는 최고기록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코프라, 사탕, 야자, 담배, 마닐라삼, 목재 등이며 대외무역의 70～80%는 미국, 일본 등 외국독점체들이 쥐고있다.

1965년 10월현재 250만명의 완전실업자와 600만명의 반실업자가 있었다. 마닐라주민의 4분의 1은 실업자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신자이다.

【출판보도】통신 필리핀 보도사 신문 마닐라 타임스 (영어), 마닐라 크로니클 (영어, 국민당계).

북부칼리만탄

북부칼리만탄에는 인도네시아령토인 칼리만탄(보르네오)과 접경하고있는 사바흐(북부보르네오), 사라와크, 브루네이 등 3개 지역이 포괄되여있다. 이 지역을 강점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브루네이에서 사라와크(1846년)와 사바흐(1877년)를 분할하고 세지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그후 사라와크(1940년)와 사바흐(1946년)는 영제국주의의 직할식민지로되였다.

1963년 9월에 사라와크와 사바흐는 《말레이시아련방》에 편입되였으나 브루네이는 이를 거부하였다.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위원장 아자하리를 수상으로 하는 북부칼리만탄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정부는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을 조직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식민주의자들의 청산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유격투쟁을 전개하고있다. 1965년 6월 27일 민족해방군은 사라와크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들을 죽이고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1965년 3월 인민혁명협상회의에서 북부칼리만탄의 정당, 사회단체, 모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하는 민족통일혁명전선이 결성되였다.

사라와크

【면적】 12만 1,668 km^2

【인구】 약 84만명

말라이인(약 18%), 화교(약 30%), 연해다야크인(약 30%), 기타 종족들이 살고있다.

【행정중심지】 쿠칭(주민 15만명)

【립법의회】 최고립법기관이며 의원수는 43명.

집권당은 **사라와크련합당**(국민전선, 국가당, 보수당, 화교협회 등으로 1962년에 성립)이며 기타 **국민당**, **통일인민당** 등이 있다.

목재, 원유, 보크사이트, 고무, 쌀, 후추 등이 생산된다.

원유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쉘석유회사》계의 《사라와크 석유회사》가 독점하고있다. 영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사라와크에서 매년 6천만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사바흐

【면적】 7만 6,112km^2

【인구】 47만 5,000명(1963년)

【행정중심지】 제슬론(주민 2만 2,000명)

정당으로는 《말레이시아련방》을 반대하는 자유당, 사회민주당과 반동적부르죠아정당인 사바흐련맹당(집권당)이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 림업, 어업에 종사한다.

주산물은 고무, 벼, 야자, 옥수수 등이다. 령토의 80%는 산림지대이며 산림자원과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다.

브루네이

【면적】 5,765km^2

【인구】 9만 8,500명(1963년말)

주민은 말라이족, 다야크족, 화교 등이고 말라이어를 사용한다.

【행정중심지】 브루네이(주민 3만 7,500명)

브루네이는 영국의 《보호령》인 추장국이다. 1959년 9월 29일 재헌법에 의하여 형식상 자치가 실시되고 최고통치자로서 추장(모마르 알리 사이푸딘, 1950년—)이 있기는 하나 외교, 국방, 국내치안에 대한 권한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1963년 7월의 《말레이시아련방형성에 관한 협정》에는 조인하지 않았다.

정당으로는 **인민당** (1956년 8월에 조직, 북부칼리만탄인민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하고있다.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련맹**(집권당)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석유채굴인데 이것은 영미제국주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석유로동자수는 전체 로동자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1964년에 미제독점체인 《크라크회사》가 브루네이 동북지구 700여평방에이커의 지역에 대한 《석유탐사권》을 탈취하였다. 천연가스,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쌀, 야자 등이다. 고무재배면적은 1만 2천여헥타이며 매년 1천여톤의 고무를 수출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사이에 있으며 1만 3천 677개의 섬으로 구성되여있다.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섬들에는 산이 많으며 대부분이 화산맥에 속한다.

평균기온은 25°～27°C이며 평균강우량은 약 2,400mm이다. 적도무풍지대에 있기때문에 태풍은 없다.

【면적】 190만 4,345km²

【인구】 1억 500만명(1965년)

주민은 100여개종족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주요종족은 쟈바족, 순다족, 마둘라족이며 이외에 화교 약 300만명이 있다. 언어는 260여종이 있다.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수도】 쟈까르따(주민 411만 6,630명, 1967년).

정치 인도네시아는 1596년부터 화란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화란식민주의자들은 1602년에 이 나라에 《동인도회사》를 창설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지배하다가 1800년에 정식 식민지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인민들은 1817－1830년, 1873－1919년간에 걸쳐 화란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 5월 공산당이 창건되였으며 1926－1927년에는 공산당이 지도한 인민봉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194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으며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 11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화란식민주의자들의 재침으로 4년간의 류혈적인 전쟁이 있었다. 1949년 11월 헤그협정에 의하여 주권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1950년 인도네시아련방 림시국회는 《단일국가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54년 8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을 해체할데 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미제의 사촉하에 마시우미당과 사회당의 반동들은 1956년 9월이래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후에도 계속 준동하였다.

1959년 7월에 수카르노대통령은 1945년 헌법을 복귀하고 제헌의회를 해산하였으며 대통령제내각을 조직하였다. 1960년 6월에는 임명제의회가 발족되였다.

1962년에 반란도당에 대한 일대소탕작전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인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1962년 8월 15일 서부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넘겨줄데 대한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화란간에 조인되였다. 이 협정에 따라 1963년 5월 1일 서부이리안에 대한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1963년 11월 10－22일 쟈까르따에서 제1차신흥세력경기대회가 있었다.

【림시인민협상회의】 1960년 9월 15일 성립되였다.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헌법제정, 대통령선거,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결정한다. 의원은 610명이다.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협조국회】 1960년 6월 25일 성립되였다. 림시인민협상회의가 결정한 정책을 대통령이 집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의원수는 282명이다.

【정부】 대통령대리 겸 수상 수하르또, 외상 아담 말리끄

【주요국내사건】 1965년 4월 쟈까르따에서 력사적인 《반둥회의》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9월 30일운동》이 발생하였다가 진압되였다.

《9월 30일운동》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제의 추동밑에 우익반동세력에 의하여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이 비법화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였다.

1966년 3월 12일 수하르또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과 그 영향하에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정부를 해산하였다.

1966년 4월 8일에는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협조국회에서 62명,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 106명의 의원들이 제명되였다.

6월 17일－7월 5일에 열린 제4차림시인민협상회의는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종신대통령칭호를 줄데 대한 1963년 5월의 제2차 림시인민협상회의결정을 취소하고 2년내에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67년 3월 7－12일에 진행된 림시인민협상회의 비상회의에서는 1968년 7월 5일부터 있을 총선거에서 《인민협상회의》가 나올때까지 대리대통령으로 수하르또가 임명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4월 16일 인도네시아와 우리 나라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1964년 11월 수카르노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5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국가방문하시였다. 방문기간 김일성수상께서는 림시인민협상회의 제3차회의에 참가하시였으며 《알리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강의하시였다.

15일에는 량국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김일성수상께서는 반둥회의 10주년 기념의식에 참가하시였다.

인도네시아로부터는 1965년에 협조국회대표단(5—6월), 림시인민협상회의대표단(9월), 대통령문화사절단(5월)등 수많은 대표단과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5년 4월 6일 인도네시아협조국회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한일기본관계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 6월 28일 자까르따에서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대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기타나라와의 관계 1966년 6월 1일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정부와 점차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할데 대한 협정에 합의를 보았으며 8월 11일에 《평화협정》에 조인하였다.

1966년 9월 외무상 말리끄는 인도, 아랍, 알제리, 유고 등 나라들을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해외팽창에 혈안이된 일본군국주의자들로부터 1966년에 《긴급원조》로서 3천만딸라의 차관을 6—8월에 받기로 하였다.

1966년 4월 29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에 100만파운드의 《긴급원조》를 제공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66년 5월 19일에는 인도의 제품을 살수 있도록 1억루피의 차관을 주겠다는 인도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9월 30일에는 미제로부터 2천 600만딸라의 장기차관을 받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9월 19일 인도네시아는 유엔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인도네시아가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복귀하며 《아세아개발은행》에 가입할것을 예견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경제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이다. 국민생산액에서 농업이 75%를 차지하고있다.

석유, 주석광, 고무, 원유가 많이 생산된다.

기타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광, 아연 등이 많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경제는 350년간의 화란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략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이 지배적이다.

경제에서 공업은 약 25%를 차지하며 공업에서 채광업은 약 60%를 차지한다. 고무, 정미, 제탕, 세멘트, 방직, 제지공업 등이 있으며 기타 약간의 기계공업과 부속품공장이 있다.

공업에는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의 약 10%가 종사하며 그중 약 40—50%는 소규모기업소들에서 일한다. 공업에서는 채굴공업,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석유채취의 92%(1964년)는 미영제국주의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63년 6월에 정부는 15년내에 정유, 분배, 판매시설을 유상으로 국유화한다는것과 외국회사들은 리익의 60%를 인도네시아정부에 바쳐야한다는 협정을 외국회사들과 체결하였다. 1967년 1월 4일 인도네시아는 미영독점체들의 석유회사들의 영업을 재개할것을 허락하였다.

가공공업의 40%(1964년)는 외국으로부터의 원료와 보조자재에 의거하고있다. 원료의 부족으로 1964년에 자까르따에 있는 기업소들은 자기 능력의 25%밖에 가동하지 못하였으며 동부쟈바에서는 방직공장의 80%가 휴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기후상으로나 토질로 보아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로는 외화획득의 주요한 원천인 생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가 있으며 야자, 사탕, 담배, 쌀, 옥수수, 콩, 감자 등이 많이 생산된다.

무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국가세입의 약 60%를 메우고있다. 무역에서는 국영회사들이 주요한 상품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생고무, 주석, 코프라, 담배, 사탕, 차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쌀, 면직물, 밀가루, 철강 및 그 제품, 종이 각종 기계류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쏘련,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화란 등이다. 1966년에 70억루피아의 적자를 냈다. 외국의 부채는 25억딸라이다.

재정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화폐단위는 루피아이다. 1파운드는 300루피아이다.

교육, 문화 1962년에 인도네시아에는 인민학교 3만 9천 922개, 초급중학교 5천 973개, 고급중학교 992개, 사범학교 590개, 대학 267개가 있었다. 대학생수는 18만 5천명이였다.

주민의 90%가 회교도이다.

타 이

Thailand

인도지나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있다. 북부와 서부는 산지, 동부는 구릉지대, 중부는 평야지대로 구분된다. 년평균 27°C의 열대성기후이다.

【면적】 51만 4,000km²
【인구】 3,059만명(1965년)
타이족(75%), 화교(17%), 말라이족(3.5%), 크메르족 (2%) 등 20여개 종족이 있다. 언어는 타이어.
【수도】 방코크 (주민 190만명)

정 치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무혈정변》을 거쳐 전제군주국으로부터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 (종전에는 샴)로 고쳤다. 1941년 12월 타이는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을 적극 비호하였다. 타이는 일제의 비호하에 2만여평방키로메터나되는 캄보쟈와 라오스의 령토를 강점하였다.

타이는 침략적인 세아토참가국(1954년 9월에 가입, 방코크에 세아토본부가 있다)이며 1950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고 《유엔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파견하고있는 우리의 원쑤이다.

타이는 미제와 1950년 9월과 10월에 《경제 및 기술협정》, 《군사원조협정》, 1962년 9월에는 《특별군사원조협정》, 1966년 5월 29일에는 《친선 및 경제협조협정》을 맺었다.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하여 미제는 타이에 30여개의 공군기지, 20여개의 해군기지 및 군항, 4개의 로케트기지를 설치하고 1967년 1월 5일현재 3만 5천 280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미제는 《군사원조사령부》, 《미국-타이합동사령부》 등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대내외정책을 조종하고있다.

미제와 타이괴뢰들은 인민들의 애국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파쑈적인 반공산주의중앙위원회, 타이-미국헌병사령부, 《타이-말레이시아합동사령부》등을 설치하였다. 1966년 10월 16일에는 미제의 《특수부대》가 오끼나와에서 방코크에 기어들었다.

미제는 1966회계년도에 타이에 대한 《군사원조》를 7천만딸라로 결정하였고 다음년도에는 1억딸라이상으로 늘일것을 약속하였으며 타이의 여러지방에 50개의 타이경찰 《특공대》를 조작하였다.

타이인민들은 미제와 타놈-프라파스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1964년 11월 1일에는 타이애국자들의 단체인 타이독립운동이, 1965년 1월 1일에는 애국력량의 통일전선체인 애국전선이 창설되였으며 타이의 동북부와 남부에서 인민무장대가 조직되였다.

타이인민의 무장력은 3만명으로 장성되여 동북타이의 우도른, 우본, 사콜, 나코른 및 농 카이주와 남부타이의 전역으로 확대되였다. 인민무장력은 1966년 상반년에만도 타놈도당의 군대 및 경찰과 약 90차 전투하였으며 1966년초부터 11월까지 장교 20명을 포함한 적 300여명을 소멸하였다. 1966년 1-9월간에 1만 6천여명의 로동자들이 24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타이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8월 타이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위하여 사타히프비행장(비52형폭격기를 위한)전설기지를 제공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사이공괴뢰도당과 《군사원조및협조협정》을 맺었으며 12월에는 186명의 해병을 남부웰남에 보냈다.

타놈도당은 타이에 있는 캄보쟈의 반역도당인 《자유캄보쟈운동》을 비호하는 한편 1966년 4월 3일 대규모의 무력으로써 캄보쟈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강점한것을 비롯하여 캄보쟈의 령토를 끊임없이 침범하였다.

1966년 4월에는 《미국-타이-라오스합동사령부》를 조작하고 라오스 해방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국왕】 푸미폰 아둘라디트 (1950년 5월-).

【제헌의회】 1958년 10월 군사정변에 의하여 국회는 해산되고 1959년 1월 림시헌법에 따라 2월 5일 국왕이 임명한 240명의 의원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였다. 의원의 대부분이 악질적인 장교, 경찰, 관료배들이다.

【내각】 1963년 12월에 성립, 그후 일부 개조
수상 겸 국방상 타놈 키티카촌, 외상 타나트 코만

【정당, 사회단체】 1958년 10월 20일 군사정변후 일체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고 군인, 경찰, 관료배들로써 신협명당이 조직되였다.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써 결성된 애국적인 반미조직으로서 타이인민들의 무장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애국전선은 타이령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매국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투쟁하고있다. **독립운동** 1964년 11월 1일 애국자들과 민주주의자들로 조직된 반미반정부조직이다. 1965년 11월 1일 애국전선에 가입하였으며 그의 정치적지도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애국청년조직** 미제를 몰아내고 반역적인 독재정권을 타도하며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1965년 2월 15일 창립되였다. 이 조직은 1966년 3월 청년애국자들에게 애국전선의 령도하에 단결하여 구국투쟁을 진행할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경 제 취업인구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1963년에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34%, 광공업이 14%, 기타가 52%를 차지하였다.

경지면적의 약 50%이상은 왕실, 귀족, 관료배, 중, 상층군인, 고리대금업자, 지주 등이 차지하고있으며 토지없는 농민이 56%나 된다. 그리고 농민들은 수확고의 80%까지 소작료로 빼앗기고 있다. 경지면적의 약 95%가 논이며 주요농산물은 벼외

고무이며 그밖에 옥수수, 사탕수수, 코프라, 땅콩, 목화, 담배 등이 재배된다.

국토의 약 60%가 산림이며 북부에서 찌크재를 비롯하여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망간, 주석, 동, 보석 등이 있다.

공업에는 취업인구의 약 2.2%가 종사하며 주요공업은 세멘트, 방적, 제지공업 등이다.

타이경제명맥은 미제침략자들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으며 이 자들은 매년 이 나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고있다. 예산지출의 약 절반은 군사경찰비이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은 세금으로 메우고있다. 화폐단위는 바트이다. 타이의 외국채무액은 1965년 1월현재 96억 6천만바트였다.

【출판보도】 신문 산세리, 방코크 포스트.

말레이시아련방

(말라이, 사라와크, 사바흐포함)

말라이는 말라이반도의 남부, 사라와크와 사바흐는 칼리만탄도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다.

말라이

【면적】 13만 1,287km²

【인구】 723만 2,000명(1964년 11월)

주민은 말라이인 50%, 화교 37%,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 11%이다.

언어는 말라이어, 중국어, 영어를 쓰고있다.

정치 1819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941—1945년에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제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이 다시 말라이에 침입하였다.

말라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결과 1957년 8월 31일 말라이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말라이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대외방위및호상원조협정》을 맺고 영국침략군대에 무기한 주둔권을 주었으며 말라이땅을 영식민주의자들의 군사기지로 내맡겼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1963년 7월 8일 《말레이시아련방 형성에 관한 협정》을 라흐만도당과 맺고 이해 9월 16일 정식 《련방》을 선포하였다.

결성당시 《말레이시아련방》은 14개의 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흐, 사라와크, 각각 한개주)로 구성되였으나 말라이와 싱가포르간의 심각한 정치적, 민족적 및 경제적 모순으로 하여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갔다.

《말레이시아련방》에는 《련방국회》(2원제)와 《련방정부》(수상겸 외상 아브둘 라흐만)가 있다.

1965년에 《말레이시아》는 군사력증강을 위해 1962년의 3배나 되는 5억 8천 900만말라이딸라를 군사비로 배당하여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탄압하였으며 윁남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적극 도우면서 말라이를 미제침략군의 군사훈련장으로, 후방 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1961년부터 1966년 3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3천명의 남부윁남괴뢰군이 《전투훈련》을 받았다.

1966년 7월 10일 말라이청년들이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쿠알라 룸푸르에 있는 미제공보원 도서실을 파괴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10월 30일 미제의 원흉 존슨이 말라이에 기어들자 전국각지에서 광범한 반미시위들이 진행되였다. 10월 30일 쿠알라 룸푸르에서는《미제는 아세아에서 물러가라》는 구호판을 들고 미제의 공보원앞에서 경찰과 류혈적인 충돌까지 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11월 2일에는 5천명의 인민들이 10월 30일의 반미시위때 라흐만도당의 만행으로 희생된 시위자의 장례식을 계기로 미제와 라흐만도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4월 30일에 창건, 1948년 비법화. 말라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총비서 진평. **마화인련맹** 1955년 4월에 봉건귀족, 지주,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3개정당 (말라이민족련합기구, 말라이화교협회, 말라이인도인대회당)이 련합하여 조직하였다. 그러나 매개 당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있다. 집권당은 말라이민족련합기구이다. 당수 아브둘 라흐만. **인민사회주의전선** 말라이인계의 인민당(1955년 창건)과 화교계의 로동당이 련합하여 1958년 2월에 성립된 말라이에서 가장 큰 야당이다. 이 당은 외국자본의 침투와 외국군대의 주둔, 《말레이시아련방》을 반대하고있다. **범말라이회교당, 인민진보당, 말라이사회주의청년동맹, 말라이아.아단결위원회.**

경제, 사회 이 나라의 경제는 고무, 주석,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고있다. 영국독점자본이 주석의 60%, 고무의 70%를 쥐고있다. 고무재배면적은 약 350만에이커이며 이 부문에는 말라이로동자 총수의 약 55%에 달하는 30여만명이 일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일제독점자본이 침투되고있는데 특히 철광업에 대한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주로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고무, 주석, 철광석, 목재, 야자유 등이며 영국, 미국, 일본과 무역한다.

화폐는 말라이딸라이다.

일반적으로 말라이인은 회교를, 중국인은 불교와 기독교를, 인도계주민은 힌두교를 믿는다.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State of Singapore

말라이반도의 제일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들과 인도양에 있는 크리스마스섬 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열대성기후이며 우량이 많다.

【면적】 585km²

【인구】 184만명 (1965년 평가)

중국인 약 140만명, 말라이인 25만명, 인도인 15만명이며 기타 구라파인, 파키스탄인이 있다. 국어는 말라이어이다.

【수도】 싱가포르 (주민 약 154만 9,000명)

정치 싱가포르는 19세기초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67년에 말라이와 함께 영제국주의의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4월에 다시 말라이에서 분리되여 영국의 단독적인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1959년 6월 3일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되였다.

1958년 11월에 공포된 헌법에 의하면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싱가포르의 외교 및 국방권을 가지며 싱가포르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싱가포르정세가 영제국주의자들의 《외교 또는 국방에 위협을 주는 경우》에는 헌법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 그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련방》에서의 령도권문제, 민족문제 등에서 말라이와의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1965년 8월 9일 《련방》에서 탈퇴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대외방위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고 《합동방위위원회》를 창설하며 경제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군사기지들과 기타 시설들을 계속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레이시아》군대에 제공하였다. 또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편입됨으로써 《말레이시아》에 이관되였던 싱가포르에서의 영제국주의자들의 지위는 싱가포르의 탈퇴후 다시 복귀되였다.

싱가포르는 극동에 있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최대의 해군기지이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영국극동륙해공군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남아세아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아세아의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1966년 10월 30일 미제원흉 죤슨이 말라이에 기여들자 싱가포르인민들은 7차에 걸쳐 반미시위를 벌렸다. 싱가포르는 11월에 아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립법평의회】 의원 51명, 임기 5년, 총의석중 인민행동당 37석, 사회주의전선 13석, 인민련합당 1석.

【정부】 1965년 8월 9일 구성.

수상 리콴유, 외상 에스 라쟈라트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 (집권당) 회교도 자본가들과 지식분자들로 1954년 11월에 성립. 당수 리콴유 **사회주의전선** 인민행동당의 반공정책을 반대하여 이 당에서 떨어져나와 1961년에 조직된 좌익적인 야당, 싱가포르에서 반제투쟁을 지도. **인민련맹** 1954년 11월에 창립. 《말레이시아 련방》을 적극 지지. **로동당** 1957년 창건. 식민주의, 영국군사기지, 《말레이시아련방》 등을 반대한다. **통일인민당, 자유사회당, 민주련합당, 싱가포르련맹당, 로조련맹, 전국로동조합회의.**

경제 싱가포르는 국제무역중심지의 하나이며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경제명맥은 영국독점체들이 쥐고있는데 이들은 브루네이의 석유와 사라와크, 사바흐의 고무, 목재 등을 여기에서 가공한다. 1963년 미제독점체들이 싱가포르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최근년간 일제의 독점체들도 침투하고있는바 쥬롱공업지대에는 일제의 자본과 현지자본으로 조직된 합영회사만 하여도 수다히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제독점체들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버 마

(버마련방)
Union of Burma

인도지나반도의 서쪽에 위치하며 중국,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타이와 접경하고있다. 열대 및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더우며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이며 11월부터 2월까지는 건조기이다.

【면적】 67만 8,033km²

【인구】 2,600만명 (1966년).

주민의 약 70%가 버마족이며 샨족, 카렌족, 카친족, 카야족 등 소수민족이 있다.

언어는 카친어, 샨어, 카렌어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국어는 버마어이다.

【수도】 랑군(주민 161만 2,395명, 1965년 11월).

정치 버마는 182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고 1886년에는 영령인도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앙양된 민족해방투쟁의 결과 1937년에 버마는 영령인도에서 분리되여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1942—1945년간에 버마는 일제에 강점당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영국제국주의자들은 다시 버마를 강점하였다.

전후 버마인민들의 반영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여 당시 《반파쑈인민자유련맹》 부주석이였던 우누는 내각수상으로 취임하고 영

국식민주의자들과 담판을 진행하였다.

1947년 10월 《영국-버마협정》이 조인되였으며 버마는 1948년 1월 4일 독립하였다.

버마는 1947년 영제국주의자들과 체결하였던 《영국-버마방위협정》을 1955년에 폐기하였다.

1960년 2월 버마에서 총선거가 진행되여 우누가 수상으로 되였다.

1962년 3월 2일 군사정변으로 《반파쑈인민자유련맹》의 우누정권이 전복되고 네윈을 의장으로하는 군인들로 조직된 혁명리사회가 집권하였다. 1962년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의 조직을 발표하였다.

【혁명리사회】 17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였으며 립법권을 행사한다. 국가원수는 혁명리사회 의장이다.

의장 네윈(1962년 3월 2일-).

【정부】 1962년 3월 9일에 구성, 그후 일부 개조.

수상 겸 국방상 네　윈

외상 우 티 한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 28일 네윈은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버마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집권당), 1962년 7월 4일에 조직, 이 당은 혁명리사회의 정강 《사회주의로 가는 버마의 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위원장 네윈. **버마-조선친선협회** 1963년 8월 14일 창립, 위원장 우 옹 루 윈. **전버마평화위원회** 1949년 10월 창립. **버마아·아단결위원회.**

【주요사건】 1965년 1월 정부는 영국-버마합영기업소인 《버마-유닐레비》공장을 국유화함으로써 버마에서 외국인기업소를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10월 19일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쉬고있는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며 상품에 대한 가격과 운임, 보관료 등의 제정권한을 정부에 주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966년 1월 1일에는 외국어로 발행하는 모든 개인경영의 신문발행을 금지하고 426종의 공업품 및 식료품에 대한 상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월 5일 정부는 685개의 학교를 국유화함으로써 모든 교육체계가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7월 29일부터 혁명리사회는 농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34종에 대한 농산물의 개인매매를 허용하였다.

10월 17일 버마정부는 영파운드지대로부터 완전한 탈퇴를 선포함으로써 버마는 자기 외화를 자체로 보유할수있게 되였으며 자의대로 리용할수있게 되였다.

1966년 10월 27일에 네 윈은 이전 수상이였던 우누 우바쉐를 4년 7개월만에 석방시켰다.

네윈수상은 1965년에 쏘련(9월) 중국(7월)을, 1966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6월), 로므니아(6월), 영국(8월), 미국(9월), 일본(9월) 등을 방문하였다.

1966년 5월 9일 파키스탄과 버마간에 국경조약이 체결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버마간에 총령사관계가 설정되였다.

1965년 8월 31일 우리 나라와 버마정부간에 전신업무에 관한 협정과 소포우편업무에 관한 협정이, 1966년 7월 23일에 조선중앙통신사와 버마련방통신사간에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6년 9월 7일에는 량국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동년 10월 우리 나라 정부 무역및친선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버마로부터는 1966년에 기자대표단(7월), 문화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70~80%를 차지하며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경지는 약 863만 2천정보인데(1965년) 그중 관개면적은 77만 2천 800정보(1964-1965년)이다.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논이며 주요농산물은 벼이다. 벼는 1965-1966년도에 790 만톤 생산되였으며 110만톤 수출되였다. 1963-1964년에 땅콩은 32만 2천톤, 황마는 5만 7천톤, 콩은 32만 7천톤, 목화는 1만 7천톤, 사탕수수는 119만 4천톤, 밀은 3만 9천톤, 담배는 3만 8천톤, 고무는 9천톤(1964년)생산되였다.

버마령토의 60%는 고무, 종려수, 찌크 등 290여종의 각종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지대이다.

버마의 찌크재는 세계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1964-1965년도에 39만톤의 찌크재를 비롯하여 74만 3천톤의 각종 목재를 생산하였다. 목재운반의 주요수단인 코끼리는 1963년에 2천 500마리있었다.

지하자원으로는 연, 아연, 탕그스텐, 주석, 석유(1965년에 60만톤생산)등이 있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20%이다. 공업의 대부분은 농산물과 목재가공, 수출과 관련된 공업이다. 정미, 조면, 제재 등의 공장수는 버마 전체 공장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외에 세멘트, 석유, 사탕공장 등이 있다. 1963-1964년에 전력은 3억 6천 380만키로왓트시, 주석은 800톤, 연은 1만 7천 100톤, 아연은(정광)1만 4천 100톤 생산되였다.

1962년 이래 혁명리사회는 식민주의경제에서 벗어나며 경제적자립과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 공업, 무역, 금융 등은 1963년까지 국유화를 거의 끝냈으며 1964년 3월

부터는 랑군주변의 도매업을, 1965년 1월까지 외국인기업소를 완전히 국유화하였으며 공업의 기간부문, 대외무역, 국내상업, 은행, 교통운수의 대부분을 국유화하였다.

1965재정년도에 국가기업소들의 생산액은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60%이상을 차지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1961년 3월에 발표한 농민의 《권리보호법》과 《토지소작법》에 의하여 농민에 대한 봉건적착취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1964년에 4천 800만캬트의 국가대부를 농민들에게 주었다.

1965년 4월에는 소작료폐지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100만명 이상의 소작인들이 매년 지주들에게 지불하던 도합 1천300만캬트의 소작료를 물지않게 되였다. 또한 농민들은 1965년 4월에 약 280만정보의 비옥한 토지를 넘겨받았다.

기계화도 촉진되여 1966년에 4천대의 뜨락또르가 전야들에서 일하였다.

화폐단위는 캬트(1캬트는 100피아), 외화보유량은 1965년말에 약 1억 6천만딸라였다.

쌀과 쌀제품은 수출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목재, 콩, 생고무, 목화, 보석, 광석 등을 수출하며 주로 기계, 수송설비, 금속제품, 대중소비제품을 수입한다.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쎄일론 등에 수출하며 쏘련, 중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일본, 미국, 영국, 서독 등 나라들에서 수입한다.

혁명리사회는 1964년 5월 29일 대학교육법을 공포하고 이에 기초하여 11월부터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많은 대학을 창립하였다.

1965 — 1966년도에 버마에는 605개의 고등학교와 853개의 중등학교가 있었다.

1966년말에 2만 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민족어의 회복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1964년 11월부터 대학들에서 영어로 교수하던것을 버마어로 교수하며 1965—1966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전공과목으로 되지않게 되였다.

1963—1964년도에 병원은 367개 있었다. 주민의 약 80%는 불교도이며 10만명의 중이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나브, 1963년 7월 설립).

신문 근로인민보 (정부기관지) 가디언, 미러, 비만, 랑군 데일리, 뱅가드, 투두, 한사와디.

네 팔

(네팔왕국)
Nepal

네팔은 중국, 인도와 접경하고 있다. 북부에는 히말라야산맥, 동북부에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이 솟아있으며 령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900메터를 넘는 산악지대이다. 대체로 온대, 한대지역 등으로 구분되여있으며 최고기온은 40°C이상(남부), 카트만두지역은 년평균 약 14°C이다.

【면적】 14만 700km²

【인구】 1,029만명 (1965년)

쿠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 등이 산다. 국어는 네팔어이고 힌두어,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카트만두(주민 약 22만 390명).

정치 181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르카전쟁에 의하여 1816년에 영제국주의의 《속령》으로 되였다.

1846년 장 바하두르 라나가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라나일가의 독재정권을 세웠다. 이리하여 형식상 국왕은 있었으나 실권은 라나일가가 장악하였다.

1923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네팔과 《영구평화 및 우호조약》을 맺었으나 실제상 네팔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는 계속되였다. 제2차대전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인도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네팔에서 영국의 특권도 끝장났다. 1947년 미제는 네팔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네팔의 유용광물개발권을 빼앗았다.

1951년 2월 18일 네팔왕은 네팔대회당과 합세하여 105년간 집권하여온 라나독재정권을 전복하고 립헌군주제를 선포하였다. 1959년 2월 네팔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선거를 실시하여 대회당 내각이 구성되였다. 네팔대회당은 인도의 직접적인 지원밑에 전후 3차의 국회선거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정권을 쥐였으며 1960년 12월에는 국왕을 제거하기 위한 정변음모를 꾸몄다.

미제는 쿠르카당에 많은 무기와 선거자금을 대주면서 국왕과 대회당 내각을 전복하려고 수차 반정부무장정변을 꾸몄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0년 12월 15일 네팔국왕 마헨드라는 국회를 해산하고 1961년 1월 5일에는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자기가 집정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참사회(판챠야트)제도를 채용할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1963년 4월 왕의 실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리사회가 창설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네팔국가리사회 집행위원회 위원 랄리트 챤드 타구르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1965년 8월에는 네팔친선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국왕】 국왕은 전국참사회와 국가리사회를 통하여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1955년 3월—).

【전국참사회】(판챠야트) 1963년 4월 14일 정식 성립된 1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수는

125명, 그중 30명은 국왕이 임명,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 부락, 구역, 지구, 전국의 4단계의 참사회가 있는데 상급기관의 의원은 하급기관에서 선출된다. 전국참사회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왕의 비준을 받은후에야 효력을 가진다.

의장 라제스와르 데브코타(1964년 7월 10일－).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1963년 4월 2일에 정식 성립. 헌법의 조항과 정부의 조치들을 보급한다. 국가리사회에는 고위법관, 전국참사회 의장, 정부의 상, 군 총사령관 및 국왕이 임명하는 성원들이 망라된다. 의원수 75명, 상임위원회는 7～15명으로 구성, 국가리사회는 국왕이 소집하며 집행한다.

【내각】 내각성원은 국왕이 전국참사회 성원중에서 임명한다. 현 내각은 1966년 8월 10일에 구성.

수상 겸 재정, 경제계획, 왕실담당상 수리야 바하두르 타파, 부수상 겸 외무, 교육상 키르티 니드히 비스타.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기전에는 공산당(1949년 9월 15일에 창건), 대회당, 국민대회당, 쿠르카당(친미 친라나계 대봉건지주들의 정당), 통일민주당 등이 있었다. 네팔조선문화련락협회 1959년 11월 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루 칸사칼. 아.아단결위원회.

경제, 사회 네팔은 농업국가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중에서 약 86%를 차지하며 주민의 약 95%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의 97.8%는 남부평원지역에 집중되여있다. 경지면적은 약 456만정보 그중 245만정보가 논이다.

1961년 1월에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였으며 1963년에는 농업개조법이 발표되였다. 농업개조법에서는 20에이커(1에이커는 약 1천 200평)까지의 토지소유는 허용하고있으며 소작료는 50%까지로 규정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옥수수, 콩, 감자, 목화, 황마, 담배 등이다. 알곡년생산액은 약 200만톤(1963년 네팔통계국자료)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철, 운모, 대리석, 석탄, 아연, 금, 은, 석유 등이 있으며 산림자원과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1963－1965년에 3개년계획을 수행한 결과 수력발전소, 방직, 마대, 사탕, 담배, 성냥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건설되여 직물수요의 30%, 소비품 수요의 60%를 국내상품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역의 90% 이상은 인도와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밀, 쌀, 황마, 목재, 양털, 가죽, 유지작물, 양초 등이고 수입품은 기계설비, 철강, 직물, 석유제품, 세멘트 등이다. 통화는 네팔루피이다.

철도의 길이는 130키로메터, 각종 도로의 길이는 약 1천 600키로메터(1964년)이다.

【출판보도】 통신 라스트리야 삼바드사미티(민족통신사, 1962년 창전.)

신문 쿠르카 파트라(정부기관지), 나야싸마즈, 조국(영문), 콤머너 (영문).

방송 네팔방송국(1951년 창건).

부 탄
Bhutan

히말라야산맥의 동남부고원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면적】 4만 6,600km²

【인구】 67만명

주민은 보티아스족 80%, 네팔족 20%이다. 언어는 티베트어

【수도】 푸나카(겨울수도), 팀부(여름수도).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1952년 10월－).

부탄은 1810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다.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다.

1949년 8월 조약으로 부탄은 인도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부탄에는 인도정부의 정치 및 법률고문이 파견되여 있다.

1964년 4월 5일 지그므 도르지 초대수상이 암살되였으며 5월에는 반정부군사음모가 발각되였다. 국왕은 음모자들을 처단하고 수상대리를 하고있던 렌데프 도르지를 파면하고 동년 11월 립법권과 행정권을 직접 쥐였다. 1965년 7월 30일 국왕암살미수사건이 있었다.

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위원회(8명의 고문으로 구성)와 국가회의(30명)가 있다. 정당활동은 금지되여있다.

경 제 목축업이 위주로 되여있다. 농업에서는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지배적이며 자연경제가 우세하다.

주요농산물은 쌀, 인도밀, 보리, 옥수수 등이며 자급자족한다. 그 밖에 고무, 사향 등도 생산한다.

동, 석탄, 석고와 운모가 채취된다. 산림면적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며 소나무, 도토리나무 등이 많다.

주요교통수단으로서는 물소와 당나귀, 말 등이다.

화폐는 인도루피를 사용한다.

시 킴
Sikkim

히말라야산맥가운데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지방과 인도사이에 있는 요충지이다. 시킴과 네팔국경에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킨첸쟝가봉(해발 8,585m)이 있다. 기후는 아열대, 온대, 한대 등으로 구분되며 강수량이 많다.

【면적】 7,109km²

【인구】 16만 2,000명(1961년 3월).

주민은 네팔족, 보티아스족, 라프챠족, 기타 등이고 공용어는 영어.

【행정중심지】 강토크(주민 1만 2,000명, 1964년).

【국왕】 쿠마르 팔덴 톤다프 남갈(1963년 12월－)

시킴은 1817년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 조약으로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인도가 시킴의 외교, 국방, 교통부문을 쥐고있다. 국왕이 립법권 및 행정권을 가지고있다.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20명(14명은 선거, 6명은 국왕이 임명)으로 구성된 국가리사회가 있다.

인도가 파견한 행정회의 의장이 실제상의 수상으로 되고있다. 이밖에 인도적을 가진 재정고문, 기사장을 비롯한 수명의 관리들이 있다.

정당으로는 **국민당**(왕제의 유지를 주장), **국민대회당**(인도와의 합병을 주장) **국가대회당**(보티아스족을 대표)이 있다.

경제는 자연경제가 압도적이다. 경지가 적고 토질이 나쁘며 기후가 차고 교통이 불편하다.

주산물은 쌀, 인도밀, 수수, 과일, 직물, 목재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못한다.

1960년에 설립된 국영광업회사가 동, 아연, 연 등을 채굴하고있다.

자수 및 융단 등 공예품이 생산된다.

털과 가죽을 수출하며 티베트, 인도 등과 교역한다. 국교는 불교나 주민의 60%는 인도교도이다.

1965년에 인도는 인도경내의 시리구리로부터 강토크에 이르는 전략도로건설에 착수하였다.

인 도

(인도공화국)

Republic of India

남부아세아에 위치하고있으며 중국, 네팔, 파키스탄, 버마와 접경하고있다. 남부는 인도양에 돌출한 커다란 반도를 이루고 있다. 지형상 북부의 산악지대, 중부의 인도평원지대, 남부반도의 고원지대로 나누어진다.

【면적】 294만 8,389 km²

【인구】 5억 1,445만 9,800명(1967년 9월),

주요민족은 힌두스탄족, 벵갈족, 텔루구족, 마라티족, 타밀족, 판잡족, 아쌈족 등이다. 언어는 많으나 주요언어로서 14개의 지방어가 헌법에 올려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헌법에 의하여 1965년부터 힌두어(북부인도의 약 2억의 인구가 사용)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수도】 뉴델리(주민 264만 4,000명, 1961년).

정치 1600년에 동인도회사가 창설된이래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었다. 인도인민들은 1857년의 전인민적반영봉기를 비롯하여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장기간의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였다. 영제국주의는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858년에 동인도회사를 해산하고 직접 통치를 시작하였다. 1947년 인도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분할정책으로 인하여 인도,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여 영련방내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0년 1월 26일 인도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도는 영련방성원국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상하 량원 의원들과 각주 하원의원들이 선거, 임기는 5년,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수상이 쥐고있다.

대통령 자키르 후세인(1967년 5월 13일－).

【의회】 량원제. 상원(련방원)과 하원(인민원)이 있다.

상원은 최고 250명으로 구성, 그중 12명은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는 각주의 하원의원들이 선거, 임기는 6년,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바꾼다.

하원은 각주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500명과 중앙직할시에서 선출되는 의원 25명과 기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1967년 2월에 진행된 제4차 총선거에서 총의석중 공산당이 42석, 국민대회당이 286석, 자유당이 42석, 인민동맹당이 35석을 차지하였다.

【내각】 1967년 3월 13일에 조직된 내각은 다음과 같다.

수상 인디라 간디, 외무상 엠씨 챠클라, 국방상 스와란 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국민대회당**(집권당) 1885년에 조직된 인도자본가들의 정당, 독립이래 정권을 독점, 위원장 카마라즈. **자유당, 인민동맹당, 통일사회당, 인민사회당, 드라비다당, 전인도농민로조대회, 인도전국로조대회, 전인도협회,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전국평화옹호위원회, 인도 아.아단결위원회, 인도－조선친선협회.**

【주요사건】 인도정부는 1965년 1월 26일부터 힌두어(인도주민의 44%가 사용)를 정식공용어로 사용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반대하여 마드라스주(타밀어를 쓴다)를 비롯하여 힌두어를 쓰지않는 전체 주들에서 대규모적인 항의시위들이 벌어졌으며 마드라스주출신인 식량상과 국무상이 사표를 제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정부는 영어도 공식용어로 사용할것이라고 선포하였으며 새로운 언어법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일단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언어분쟁은 계속되였다.

인도반동들은 카슈미르의 지도자 쉐이크 아브둘라(이전 카슈미르주수상)가 카슈미르의 독립을 요구하였다고하여 5월에 그를 구금하였으며 카슈미르를 통합하기 위하여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카슈미르에서는 다른 주들과 같이 주지사, 주정부수상제도가 도입되였으며 카슈미르의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은 해산되고 그 당원들은 국민대회당에 망라되였다.

인도반동지배층은 《국방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무릅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방자금》을 긁어모으는 한편 10월에는 《국방금채권》과 《국방공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1965년에 전국을 휩쓴 식량폭동은 1966년에 더욱 확대되였다.

1966년도 식량생산량은 감소되여 식량사정이 가장 곤난한 지방인 비하르주와 북방주들을 포함하여 인도의 15개 주들중 11개주가 엄중한 기근상태에 빠졌다. 1965년 9월부터 일부 지역들에서 실시한 식량배급량은 초기의 성인 1인당 340그람으로부터 년말에는 170그람으로, 1966년 1월에는 그것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1966년 1-3월에 캘커타, 케랄라, 비하르주, 서부벵갈주들을 비롯한 각지에서 기아를 반대하는 대중적시위와 폭동들이 일어났다. 2월 17-3월 5일까지 서부벵갈주에서는 주민들의 기아폭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6만 4천명의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여 40명의 시위자들을 학살하였으며 16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3천 933명을 체포하였다. 인도정부는 식량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많은 식량을 구입하는 한편 국내에서 《식량절약》 조치들을 취하였다.

2월 28일과 3월 1일에 아쌈주 미조지역에서 미조종족들이 인도에서 독립할것을 요구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강력한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미조지역을 《비상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진압하였다.

11월 7일에는 델리에서 수십만명의 힌두교도가 소 도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국회에 몰려가서 경찰과 큰 충돌을 일으킨 《성우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힌두교도로 조직된 인민동맹당이 주최한것인데 이 당은 힌두교도가 신성시하는 소의 도살금지와 보호를 요구하였다. 이 폭동에서 8명이 죽고 20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도내무상 난다는 11월 8일 《성우도살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카슈미르문제 1965년 8월초 카슈미르의 인도관할지역주민들이 《인도군의 기반에서 해방하자》는 구호하에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8월 8일 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8월 10일 리사회는 인도당국이 감금한 카슈미르지도자를 석방하며 카슈미르문제는 카슈미르주민에게 맡기라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인도반동들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이곳 주민들을 탄압하였으며 이 폭동을 《파키스탄의 침투》로 묘사하면서 카슈미르휴전선을 넘어 파키스탄의 일련의 초소들을 점령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을 론박하면서 인도군에 반격을 가하였다. 9월 6일부터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무장공격을 함으로써 량국간의 국부적인 충돌은 전면적인 충돌로 확대되였다.

쏘련의 제의에 따라 1966년 1월 4일 따슈껜뜨에서 량국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쌍방은 분쟁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1일 우리 나라와 인도간에 총령사관계가 설정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6년 7월에 인디라 간디수상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2월 10일 쏘련과 인도간에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을 조인하였다.

미제는 인도를 우경에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966년 3월 인도수상 인디라간디를 불러다가 350만톤의 《긴급식량원조》와 인도에서의 비료공장건설에 5천만딸라, 발전소건설에 2억딸라의 《원조》를 미끼로 던져주었다. 이리하여 미제는 인도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면서 인도내정에 간섭하였다. 또한 미제는 경제적난관과 식량위기를 리용하여 인도에 주던 식량《원조》를 지연시키거나 그 일부만을 주는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인도를 우경에로 돌려세우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경제

총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국민소득(1965-1966년도)에서 농업은 36.8%, 광업 및 가공업은 11.4%를 차지한다.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제도는 의연히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농업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빈농민과 고농, 중농들이 경지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며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지주와 부농이 경지의 85%를 차지하고있다. 봉건적착취가 심하여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 지어는 4분의 3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쳐야한다.

공업에서는 10명의 대자본가들이 전체 개인공업의 약 70%를 독점하고있다(1961년현재). 국가독점자본은 전체 주식회사자본의 30.4%를 쥐고있다. 인도경제는 또한 외국자본에 많이 예속되여있다.

외국자본중 영국이 제1위(77%)이며 그 총액은 1964년말에 4억파운드였다.

1955-1960년간에 인도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근 2배로 늘어났으며(이 기간 영국의 투자는 14.2% 증가) 1963년말에는 3억딸라에 달하였다. 인도의 소위 합영회사 중 5분의 1은 미제자본과의 합영이였다.

인도독립이래 1966년 6월까지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차관은 총 525억 3천 230만루피이며 그중 상환해야할 부채액은 454억 9천 770만루피였다.

인도는 1966년 4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에 농업,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총투자액을 2천 375억루피(그 중 사회적쎅또르에 1천 600억루피, 민간부문에 775억루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기간에 필요한 345억루피의 외화획득이 곤난하였으므로 4차 5개년계획을 1년간 연기하고 그 대신 1966-1967년 비상계획을 작성하였다.

1966-1967년도 국방비는 29억 7천만루피 즉 전 예산의 33%에 해당하였다.

독립후 제철, 전기, 화학 등 중공업을 일정하게 가지게 되였으나 공업의 44%는 령세기업이며 기계설비, 부속품 및 원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최근년간 외화의 부족으로 수입이 줄었으며 많은 공장들이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못하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가동하지 못하는 설비는 30~90%에 달하고 있으며 기계공업에서는 20~80%, 전기기계 및 전기설비공업은 40%, 화학공업은 50%에 달하고 있다.

면화와 전력부족으로 1965-1966년 방사생산은 전년도보다 5천여만키로그람이 줄어들었으며 면직물생산은 2억 6천만메터 줄었다.

군수공업건설에 대한 투자는 1960-1961년의 100억루피로부터 1965-1966년에는 209억루피로 늘었다.

전국경지면적은 1억 5천 213만정보이며 그중 약 4분의 3이 알곡재배면적이다. 주요작물은 벼, 황마, 옥수수, 밀, 보리, 목화, 유지작물이다.

북쪽의 히말라야고산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들에서는 2모작을 하며 남쪽의 일부지역들에서는 3모작을 한다.

6월에 씨뿌리고 9-10월에 거어들이는 작물이 전체 농산물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인도의 자연조건은 농업발전에 아주 유리하다. 그러나 경지면적에서 관개면적은 약 16%에 불과하며 농업기술의 락후성, 비료부족, 봉건적토지소유제, 가물, 미제의 잉여농산물의 투매 등으로 농업은 계속 침체상태에 있으며 매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정상적인 수확년도에도 평균 13%의 식량이 부족되는 인도에서 1965-1966년에는 알곡생산량이 훨씬 줄어들어 약 7천 900~8천만톤에 달하고있는바 부족량은 인도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천 400만~1천 500만톤에 달한다.

인도정부는 미제로부터 잉여농산물을 대량적으로 수입하고있는바 그것은 1956—1961년간에 년평균 272만톤이였다면 1965년에는 713만톤, 1966년에는 1천 500만톤(계획)이였다. 미제의 잉여농산물투매로 1956년이후 인도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여 원래 안되던 농업투자마저 훨씬 더 줄었으며 1958—1961년간에 알곡재배면적은 44만 7천정보 줄었다. 결과 인도의 식량난은 더욱 심하여졌다.

인도정부는 농업발전을 도모한다는 리유로 1966년 4월부터는 자국내 비료공장건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침투를 허용하였다.

무역의 주요대상국은 쏘련, 미국, 영국, 서독, 일본 등이다. 무역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1965—1966년에는 58억 5천만루피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차, 면직물, 면제품, 광물 등이고 수입품은 식량, 각종 기계류와 부속품들이다. 1966년 6월부터 인도루피환률을 40% 인하하였다.

사회,문화 물가의 등귀, 실업의 증대, 식량위기, 과중한 세금의 징수로 인민들의 생활은 계속 령락되여가고있다. 실업자수는 1961년의 800만명으로부터 1966년말에는 1천 700만명으로 늘었다. 1966년 6월에 물가는 전년에 비하여 약 80% 올랐으며 루피가치가 떨어진 6월부터 첫3개월간에는 또다시 39%, 그중 식량은 90%이상 올랐다. 1961—1962년도 각급 학교수는 42만 9천 444개, 학생수는 5천 70만 7천 229명이였다.

전체 로동인구의 7.5%가 15세 이하의 학령아동들이며 대부분의 로동자들(9천 300만명)이 15-34세이다. 1951-1961년에 평균수명은 41.2세였다. 앞못보는 사람은 1천 200만명(1961년 3월)이나 된다. 총인구의 85%가 힌두교도이며 약 10%가 회교도이다.

기타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피티아이).

신문 뉴에이지(공산당계), 인디안 엑스프레스(공산당계), 나브 바라트(국민대회당계), 힌두스탄(힌두어), 힌두스탄 타임스(영어).

파 키 스 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파키스탄은 동부파키스탄과 서부파키스탄으로 갈라져 있다.

【면적】 94만 7,695km²

동부파키스탄 14만 1,157km²

서부파키스탄 80만 6,538km²

【인구】 1억 150만명(1964년 5월).

동부파키스탄 5,530만명

서부파키스탄 4,620만명

동부파키스탄주민의 95%는 벵

갈족이고 기타 몽골족, 도라비다계인종이 있으며 서부파키스탄에는 판자브족, 파탄족, 바로찌족, 로이기족, 이란족, 아랍족이 산다. 국어는 벵갈어 (동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와 우르두어(서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이며 1972년까지 영어가 공용어로 된다.

【수도】 라왈핀디(서부파키스탄에 위치, 주민 34만 3천 명), 새로운 수도 이슬람마바드가 완성될때까지 정부기관의 주요소재지.

정 치

1858년에 영제국주의의 직할통치령으로 되였다.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은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회교도련맹의 총재인 알리 진나가 초대총독으로 취임하였다.

1956년 3월 23일 파키스탄은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정당들의 호상 대립과 동서파키스탄간의 대립 등으로 정세는 불안정하였다.

1958년 10월 7일 미르쟈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와 의회의 해산, 헌법의 폐지, 모든 정당의 비법화를 선포하였다 .10월 24일 당시계엄사령관이였던 아유브 한을 수상으로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10월 27일 아유브 한은 미르쟈로부터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1962년 새 헌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발족되였다. 1963년 12월 25일 국회는 1958년에 파키스탄공화국으로 개칭하였던 국호를 다시 회교공화국으로 고치였다.

파키스탄은 세아토 (1954년)와 쎈토(1955년)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와 1954년에는 《호상안전조약》을, 1959년에는 《쌍무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키스탄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성원국이다.

파키스탄은 중인국경분쟁을 계기로 미제가 인도에 대한 군사《원조》를 강화하는것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적측면들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회】 1원제. 의원수는 156명(동서 파키스탄에서 각각 75석, 녀성의석 6석), 그중 18명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5년, 현국민의회는 1965년 3월 21일에 선거되였다. 회교도련맹이 115석, 야당련합 9석(그중 민족아와미당 1, 아와미련맹 5, 회교련맹리사회 2, 기타 1), 민족민주전선 4, 무소속 18, 기타.

【정부】 1965년 3월에 성립.

대통령 모함메드 아유브 한 (1958년 10월－).

외무상 샤리푸딘 피르자다.

【정당, 사회단체】 1958년 10월의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들이 금지되였다. 1962년 7월 16일에 대통령 아유브 한은 정당금지령을 철회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62년초에 본래의 회교도련맹은 현 집권당인 회교도련맹의회파와 회교도련맹리사회파로 분렬되였으며 회교도련맹리사회파는 민족아와미당과 아와미련맹, 자미티 이스람당, 니자니 이스람당과 함께 1964년 7월이래 야당련합을 조직하였다.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분리되여 창건, 1954년 이래 비법화. **회교도련맹** 1906년에 창건, 대지주와 대부르죠아지들의 정당, 지도자 아유브 한. **아와미련맹** 주요세력은 동부 파키스탄에 있다. 정변전 동부파키스탄의 집권당. **민족아와미당** 1957년 7월 동부파키스탄 아와미련맹 좌파와 민주당, 서부파키스탄의 민주당원들로 조직,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대외정책과 세아토, 영련방에서의 탈퇴를 주장. **로동평의회**(국제자유로련에 가입). **로동련맹**(세계직련에 가입). **전파키스탄녀성협회, 민족청년련맹, 아. 아단결위원회.**

【주요사건】 파키스탄은 1966년 1월 4일 인도와 카슈미르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따슈껜트회담에 참가하였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1월 10일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5일까지 국경선들에서 8월 5일 이전선까지의 두 나라군대들의 철수가 진행되였다.

1965년 5월에 있은 세아토각료리사회 제10차회의에 참가한 부토외상은 미제의 웰남침략정책과 인도에 《원조》를 주어 침략에로 내모는 미제를 규탄하였으며 5월 마닐라에서 진행된 세아토군사연습에 파키스탄은 참가하지 않았다. 8월 파키스탄은 쎈토에 요청한 원조가 부결되자 쎈토본부로부터 자기 인원을 철수하였다.

1966년 7월 아유브 한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였을때 세아토는 개입하지도 시찰하지도 않았으며 파키스탄은 세아토의 방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분쟁이 두나라간의 전쟁으로된 9월 6일(1965년)을 《파키스탄국방일》로 정하였다.

1966년 10월 파키스탄은 미제와 그 괴뢰들이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작한 《마닐라회의》참가를 거부하였으며 11월 캄보쟈에서 진행된 신흥세력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12월 아련부대통령을 위한 연회에서 아유브 한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확대》하며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아유브 한대통령이 중국(3월), 쏘련(4월), 아련(6월)을 방문하였으며 4월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반둥회의 10주년기념식전에 참가하였다.

1954년에 파키스탄은 쏘련과 통상협정, 중국과 국경의정서를 조인하였다. 또한 이해에 로므니아(3월), 벌가리아(1월), 알바니아(7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 및 경제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11월 8일 량국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경제 주민의 87%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2천 450만정보인데 그의 80%는 인구의 4.9%에 불과한 지주들이 차지하고있다.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와 이 나라에 밀려드는 미제의 잉여농산물로하여 농업생산은 억제되고있다. 그리하여 파키스탄은 매년 150만~200만톤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있다. 1966년도에는 농업생산의 감퇴로 220만톤의 식량이 부족되였다. 방직, 황마가공, 제당, 세멘트, 성냥, 담배, 제지 등 경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크롬광, 우라늄광, 철광, 보크사이트, 망간, 석고, 니탄 등 지하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원조》의 68%는 미제가 차지한다. 미제의 독점자본은 파키스탄의 재정, 대외 무역, 원유탐사, 크롬광개발과 전략원료개발분야에 침투하고있다.

최근년간 파키스탄은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적련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파키스탄정부는 경제적락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1960년 7월부터 제2차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1965년 7월부터는 국민소득의 최소한 37% 증가, 기계공업의 육성, 외화획득, 식량생산의 증가 등을 예견한 3차 5개년계획을 실행하고있다. 계획에 의하면 총투자액중 공업에 26%, 농업에 15%를 배당하였다.

주요수출품은 황마, 목화, 가죽제품, 면직물, 양모, 차, 쌀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운수설비, 흑색금속, 유색금속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 인도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파키스탄련합통신사, 파키스탄통일통신사

신문 돈 (영문), 파키스탄 타임스, 모닝 뉴스, 임로제(우르두어), 이브닝 스타, 파키스탄 옵써버.

쎄 일 론

Ceylon

남부아세아의 적도이북에 있는 섬나라이다. 대양주를 련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열대성기후이나 섬나라이기때문에 비교적 선선하다. (콜롬보의 평균기온은 27°C). 5—9월에 서남풍, 12—2월에 동북계절풍이 분다.

【면적】 6만 5,610 km²

【인구】 1,064만 4,809명 (1963년 7월).

주민중 싱할족 68%, 타밀족 23%, 기타 9%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콜롬보(51만 947명, 1963년)

정치 쎄일론은 1798년 영제국주의의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쎄일론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반영민족해방투쟁의 결과 쎄일론은 1948년 2월 4일 영련방내에서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통일국민당이 집권하였다. 1956년 4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을 중심으로한 인민련합전선이 승리함으로써 솔로몬 반다라나이케의 자유당정권이 수립되였다. 1959년 9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솔로몬 반다라나이케가 암살되였다.

1960년 3월 국민당이 집권하였으나 동년 7월의 선거결과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의 자유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자유당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1961년에 석유법을 채택하고 1963년말까지 미영독점체들의 석유회사를 접수하였으며 그밖에 일련의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 자유당은 1964년 6월 평등사회당과 련립정부를 수립하였다. 동년 12월 3일 자유당정부는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1표차이로 패배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회는 해산되고 1965년 3월 22일 총선거가 실시되여 통일국민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독】 국가원수로서 영국녀왕을 대표한다. 총독 윌리암 고팔라와 (1962년 3월—).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30명, 그중 반수는 하원에서 선출, 반수는 총독이 임명. 임기는 6년 2년마다 3분의 1의 의원을 개선 또는 임명, 하원의원은 157명, 그중 151명은 선거, 6명은 총독이 임명, 임기는 5년.

1965년 3월 총선거 결과 하원의석에서 통일국민당이 66, 자유당이 41, 평등사회당이 10, 공산당이 4, 련방당이 14, 기타가 16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정부를 조직한다.

1965년 3월 27일 통일국민당과 타밀대회당, 련방당, 자유사회주의당, 민주당, 인민련합전선 등의 련립정부가 성립되였다.

수상겸국방및 외무상 다들리 세나나야케, 국무상 제이. 아르 쟈야와르데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 **통일국민당**(집권당) 1946년에 결성된 쎄일론의 자본가들과 대지주들의 정당. 당수 다들리 세나나야케 **자유당** 1951년7월 솔로몬 반다라나이케가 통일국민당에서 탈퇴하여 조직. 싱할족민족자본가들의 정당. **자유사회주의당** 1964년 12월 자유당으로부터 분렬되여 결성. **평등사회당** 1935년에 창건된 쎄일론의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정당. **련방당** 1948년에 조직. 타밀부르죠아지

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타밀주의 자치, 련방정부의 수립을 주장. **로조련맹** (1940년에 결성). **로동련합회**(1922년 창립, 평등사회당 산하). **청년련맹**(세계민청가맹). **자유당청년단**(세계민청가맹). **쎄일론 아. 아단결위원회** (1958년 성립, 위원장 테쟈 구나와르다나). **진보녀성협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 결성. 위원장 라트네 데샤프리야 세나나야케.

【주요사건】 1965년 3월 22일 진행된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기타 우익정당들과 련합하여 승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4월 5일 새 국회가 소집되고 신정부의 정책성명이 발표되였다. 정부는 농업에 중심을 두며 이미 설치된 국영기업들을 존속시키면서 개인기업을 중심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을 천명하였다. 대외정책에서 정부는 《반둥회의에서 선포된 불가담원칙》을 확인하고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할 방침을 천명하였다. 세나나야케정부는 미영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에 대한 자유당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악화되였던 미제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구실밑에 국유화된 회사들에 5천 500만루피의 보상금을 지불할것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미제는 1963년 2월에 정지하였던 쎄일론에 대한 《원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63년 8월 17일 정부는 외국자본의 리익 및 리윤의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하는 외국개인투자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1966년 1월 국회상원은 북부 및 동부주들에서 타밀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월 8일 콜롬보에서 타밀어령을 반대하여 대중적시위가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를 내였으며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1월 24일에는 쎄일론 로동운동사에서 가장 큰 67개 상사 사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3주일 이상)이 승리로 끝났다.

12월 19일 정부는 식량위기로 주민들에 대한 쌀배급량을 1주일간 절반으로 줄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 량국간에 령사관계가 설정되였으며 2월 7일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개설되였다.

1964년 4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쎄일론을 방문하였으며 동년 9월에 쎄일론국회대표단이, 1965년 8월에 쎄일론 — 인민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 7월 4일 콜롬보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키며 〈한일조약〉과 모든 제국주의책동을 분쇄하며 남조선괴뢰군의 남부웰남파병을 중지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6년 2월 쎄일론정부는 미제로부터 750만딸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미제의 자본을 보호할데 대한 국제보증협정을 체결하였다.

쎄일론정부는 5월 15일 영국식민주의자들로부터 2천 100만루피의 경제《원조》를 받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8월 미제는 287만 5천딸라, 카나다는 456만딸라의 《원조》를 주기로 하였다.

2월 20일—4월20일까지 수상 세나나야케가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쎄일론은 차, 고무, 야자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경지면적은 약 160만정보, 그중 3분의 2가 차, 고무, 야자재배지이다.

쎄일론의 3대작물인 차, 고무, 야자는 농업생산액의 75%,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나라 로동력의 5분의 1인 60만명의 로동자들이 차 재배에 종사하고있다.

차는 1965년에 22만 8천톤, 고무는 11만 2천톤(1964년), 코코아는 2천 200톤(1964—1965), 코프라는 24만 9천톤(1963년)생산되였다.

식량은 국내수요의 절반이상을 수입한다.

지하자원으로는 흑연이 가장 많으며 전국에 650개의 흑연광산이 있다. 기타 철, 운모, 석고, 자화이아, 루비, 록주석 등이 있다.

소규모공장들의 대부분은 고무, 야자 등 농산물가공공장이다.

최근년간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로 제당공장, 방직공장, 다이야공장 등 일련의 현대적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발전소능력이 확장되고있다.

1964년에 공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5%였다.

차농장의 40%, 고무농장의 20%, 야자농장의 10%, 은행의 68%가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65년 현재 쎄일론에 투하된 외국자본은 약 2억파운드였는바 그 대부분은 영제국주의자본이였다.

통일국민당정부는 자기 정책성명에서 외국《원조》를 더 많이 받으며 그것을 《리용》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통화는 쎄일론루피이다. 무역에서는 쌀, 밀가루, 사탕, 원유, 및 원유제품의 수입과 고무수출을 정부가 장악하고있다. 차, 고무, 야자는 수출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차는 약 63.5%를 차지한다. (홍차수출의 90%는 영국상사가 독점)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수입의 20%, 수출의 30%) 미국, 중국. 인도, 오스트랄리아, 일본, 버마

등이다.

1963년 각급학교학생수는 232만 5천명이였다. 대학으로서는 쎄일론종합대학과 유다야란까라와 유디오데야 불교대학이 있다.

1965년에 실업자는 약 55만명이였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도(570만명)이며 타밀족은 힌두교도(190만명)이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 스리랑카, 포워드(공산당기관지), 쎄일론 데일리 뉴스, 쎄일론 옵써버, 디나미나, 쟈나타, 타임스 오브 쎄일론.

말 디 브

The Sultanate of Maldive Islands

말디브는 쎄일론 서남쪽 640 km 떨어진 인도양상에 있다. 2천여개의 산호초로 되여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약 200개이다. 그중 제일 큰 섬은 말레섬이다.

【면적】 298km²

【인구】 9만 3,000명 (1963년) 인도인, 말라이인, 아랍인 등이 산다.

【수도】 말레 (주민 1만 2,000명).

【추장】 모함메드 화리드 디디 1세(1954년 2월—), 임기 4년.

【수상】 아브라힘 나시르(1957년 12월—).

말디브는 1887년에 영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쎄일론의 속령으로 되였다. 1948년 쎄일론이 독립하자 영제국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2년 말디브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1953년 1월에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동년 9월 정변으로 1954년 2월 군주제가 회복되였다.

1953년 1월 협정으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영해군이 말디브섬 전체를 사용할 권리를 빼앗았다. 이를 반대하는 말디브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자 1960년 2월 14일 영식민주의자들은 30년간(1956년부터)의 간섬 사용권을 빼앗고 그 대신에 말디브에 85만 파운드와 국방 및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그후 영식민주의자들은 기지사용기한을 100년으로 연장할것과 말디브에 사는 영국인들에게 영국군사인원과 같은 대우를 줄것을 강요하였다.

1964년 4월 10일 영제국주의 군함이 말디브 어선을 무장공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말디브정부는 말디브주재 영국고문을 즉시 소환할것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때에는 간섬기지협정을 페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4월에 걸쳐 말디브인민들은 영국군사기지의 청산과 말디브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말디브인민들의 투쟁의 압력밑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말디브정부가 대내외정책을 독립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말디브는 독립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간섬의 기지사용권을 계속 가지게되였다.

말디브는 쎄일론과 력사, 경제, 문화, 종족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쎄일론에 상주대표를 파견하고있다. 1966년 9월 말디브는 쏘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말디브에는 강도, 호수도 없고 땅이 척박하기때문에 쌀도, 밀도 생산되지 않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에 종사한다. 주산물은 물고기와 야자이다. 식량은 수입한다.

물고기가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왕국)
Afghanistan

남부아세아에 있으며 파키스탄, 중국, 이란, 쏘련과 접경하고있다.

국토의 75%가 산악지대인 내륙국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 강우량은 300~400mm이다.

【면적】 65만 5,000 km²

【인구】 1,468만 4,000명(1965년).

주민은 아프가니스탄인(약 800만명), 따지크인(260만명), 우즈베크인(120만명), 뚜르크메니야인 등 20여개 민족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푸슈트어 (농촌에서 주로 통용)와 페르샤어 (도시에서 주로 통용)이다.

【수도】 카불 (주민 약 45만명)

정치 18세기 중엽까지 끊임없이 외래침략을 받아오다가 1747년에 왕국을 창건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38—1842년, 1878—1880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다가 1880년에 《간나마크조약》을 강요하여 이 나라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은 영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여 1919년 5월 2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다시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동년 8월 23일 독립을 성취하였다. 1928년 내란이 일어나 1929년에 나지르 샤호가 왕위에 올랐다. 1933년 나지르 샤호가 암살되고 그의 아들 자히르 샤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회교(주민의 95%가 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 령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으며 국왕은

동시에 회교교주이기도하다.

아프가니스탄은 1931년 6월 쏘련과 중립및호상불가침조약(1965년 8월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간 연장할데 관한 의정서에 조인)을, 중국과는 호상불가침조약 (1960년 8월)과 국경조약 (1963년 11월 22일)을 맺었다.

196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 새 헌법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립헌군주국이라는것과 왕족들이 정치에 관여하는것을 금하며 (수상, 국민의회의원 및 최고재판소 성원으로 되는것을 금지)인민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선거권이있다》고 규정하였다.

1965년 5월에 선거법이 채택되였으며 처음으로 녀성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였다. 같은해 9월 10—25일에 아프가니스탄 력사상 첫 총선거가 있었다. 1965년에 새 국회는 정당창설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1월 2일 마이완드왈이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날 마이완드왈은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적극적인 중립정책과 쁠럭불가담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는 정책성명을 하였다.

1966년 9월 수상 마이완드왈이 아랍련합공화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아련수상과의 공동콤뮤니케에서 미제의 북부웰남폭격정지와 제네바협정에 기초한 웰남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다. 방문기간 두나라간에는 교육, 공보, 보건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1966—1967년도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쟈히르 샤흐 (1933년—).

【국회】 량원제. 참의원(상원) 의원은 84명인데 그중 28명은 왕이 임명(임기 5년)하며 28명은 주의회에서 선출 (임기 3년)하며 28명은 4년 임기로 주민들이 선거한다. 국민의회(하원)의원은 216명(선거)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국회는 1965년 10월 25일에 구성되였다.

【정부】 수상은 왕이 임명하며 국회에서 통과되여야한다. 현정부는 1965년 11월 2일에 구성되였고 그후 일부 변동되였다.

수상 모하메드 하쉼 마이완드왈, 제1부수상 겸 외상 누르 아흐메드 에테마디.

경제, 사회

경제는 농목축업이 위주이며 주민의 약 85%가 이에 종사한다. 국민소득의 약 80%는 농업이 차지한다.

전체농호의 1.5%인 1만 5천호의 지주들이 경지의 절반이상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약 50만호의 농민은 토지를 전혀 못가지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380만정보이며 경지면적의 약 90%는 알곡경작지이며 그중 약 70%에는 밀이 파종된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

주요농산물은 쌀, 밀, 옥수수, 목화, 포도, 과일 등이다.

주민의 약 3분의 1이 목축업을 한다. 양가죽과 양털을 생산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천연가스 등이 있다. 또한 수력자원이 많다.

1964년에 2만 5천정보를 관개할수 있는 남가르하르운하가 건설되였으며 1965년 3월에는 잘라라바드 관개수로가 개통되였다.

1966년 10월 5일에는 나글루수력발전소 제1호타빈이 조업하였다.

공업으로는 옥석제품, 융단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나 2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통하여 약간의 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철도는 없으며 최근년간 도로건설공사들이 벌어지고있다. 1966년 11월 13일에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련결하는 도쉬—쉬르하간의 자동차도로가 개통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융단, 자색양가죽, 목화 등이다. 자색양가죽은 총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무역은 쏘련, 인도, 중국, 미국, 일본 등과 한다.

화폐단위는 아프가니, 1965년 3월현재 441명의 의사와 66개의 병원이 있었다. 회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바크타르 통신

신문 이슬라(정부기관지), 아니스, 헤와드, 모사바트.

이 란

(이란왕국)

Kingdom of Iran

이란은 아세아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하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초원과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로서 더위와 추위의 차가 매우 심하다.

【면적】 164만 5,000km²

【인구】 2,286만명(1964년)

주민은 페르샤인(인구의 50%) 아제르바이쟌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언어는 페르샤어이다.

【수도】 테헤란(주민 230만명)

정 치

전제군주국가였던 이란은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35년에 페르샤란 나라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쳤다.

이란은 1955년 10월에 침략적인 쎈토에 가입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과 군사부문에는 미제의 《고문》들이 배치되여있다.

제2차대전후 이란의 석유를 략탈하기 위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투가 강화되였으며 이란에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1951년에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사디크정권이 수립되여 석유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53년 8월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모사디크정권은 전복되고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그후 친미세력과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여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였다.

국왕은 국내정세를 안정시키고 계급적모순을 《완화》해보려고 1960년과 1962년에 《토지개혁법》을, 1963년에는 개량적인 《사회개혁안》을 내놓았으나 그것을 수습하지 못했다.

지주와 종교상층부 등 봉건세력은 제국주의세력과 결탁하여 1962년 11월, 1963년 3월에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무장반란을 일으켰고 1963년 6월에는 회교도들의 대규모적인 반정부폭동이 일어났으며 1965년 1월에는 수상 만수르에 대한 회교도의 저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배층내부의 모순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 (1941년 9월—)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60명, 그중 절반은 국왕이 임명하고 나머지절반은 하원에서 선거, 하원의원은 200명, 임기는 4년, 현 국회는 1963년 9월 16일에 선거, 인민대회당이 상원에서 대다수의석을, 하원에서 180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1967년 10월 성립.

수상 아미르 아바스 호베이다. 외상 아바스 아람.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투데당)전신은 이란공산당, 1941년 9월에 성립. 1949년에 비법화. 총비서 리자 라드마니쉬. **민족전선** 1949년에 이전수상 모사디크가 창건, 쎈토탈퇴, 중립정책실시, 석유국유화, 인민들의 합법적 권리의 옹호 등을 주장. **신이란당** 1963년 12월에 창건, 국왕의 《사회개혁안》의 실시를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란당, 마르돔당, 범이란당, 사회당.**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수입은 국민소득(석유수입 제외)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1천 800만정보이다. 농업생산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토지의 95%는 각종 봉건지주들이 가지고있는데 그중 지주 및 추장이 75%, 국왕이 5%(토지면적 약 250만정보, 25만명이 이에 종사), 사원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쌀, 담배, 과일, 사탕무우 등이다.

석유, 석탄, 철, 니켈, 동, 크롬, 연, 망간, 대리석 등 지하자원이 있다.

석유는 외화수입의 78%, 국가예산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이란정부는 1953년에 《국제석유회사》(미, 영, 화란, 프랑스독점자본의 련합)와 매국적인 석유협정을 맺고 40년간의 석유채취 및 가공, 판매권을 이 회사에 넘겨주었다.

《국제석유회사》는 이란에서 25만 9천평방키로메터의 유전과 아세아에서 가장 큰 아바단정유공장, 송유관, 발전소, 우편국, 방송국, 철도,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라 석유생산의 99%를 략탈하고 해마다 투자액의 416%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서 4만명의 이란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있다. 1965년 2월에 이란은 미제, 이딸리아, 프랑스, 인도, 화란의 5개나라 석유회사들과 페르샤만의 석유탐사 및 채굴협정을 맺었다. 이나라 가공공업에서 가장 발전하였다고 하는 방직부문에는 약 3만 4천명이 종사하고있다.

화페단위는 리알이다.

인구의 40%는 기아상태에 있으며 40%는 반기아상태에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 신문 메르예 이란, 케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Republic of Iraq

이라크는 서남아세아에 있다 서남부에 아랍고원, 동북부에 르드산악지대가 있으며 서북부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지중해 기후와 류사비 겨울에 비가 내리는것이 특징이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는 11—4월까지 우량이 많다 그러나 여름에는 건조하며 다 북부산악지대만이 평원에 비하습하다.

기온은 일반적으로 높다. 겨은 비교적 따뜻하며 10°C내외다. 가장 더운 지방은 바그다드 근인바 7월 평균기온은 30°C 상이며 최고 50~53°C에 달하 때도 있다.

【면적】 44만 4,442km²

【인구】 826만 1,527명(1965 10월).

대부분이 아랍족이고 쿠르드 (약 16%), 기타 이란, 토이기, 아르메니아인들이 있다. 국어 아랍어이다.

【수도】 바그다드 (주민 212 4,300명, 1965년 10월).

정 치 아랍제국의 일부분이 던 이라크는 17세기초 토이기에 점령되여 오스만제국 일부분으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인 1914 11월에 영제국주의군대가 이라 를 강점하였다.

1920년에 영제국주의의 《위 통치령》으로 되였다.

당시 아랍인민들은 민족적독 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봉기를 으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기를 진압하였으나 장성하는 라크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

압살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식민주의자들은 1921년에 바그다드에서 《국민투표》를 조작하고 주구 파이살을 국왕으로하는 립헌군주제도를 수립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라크령토에 자기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하였다.

이라크에서 앙양되는 민족해방운동에 따라 1932년 《국제련맹》은 이라크에 대한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를 폐기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라크는 정식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이라크는 미제와 비밀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55년에는 침략적인 쎈토에 가입하였다.

1957년에 이라크의 애국적인 민주력량은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며 1958년 7월 14일 카셈을 위시한 군인집단은 민주력량의 지지하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파이살왕조를 전복하고 이라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카셈정부는 1959년 3월 24일 《바그다드조약》에서 탈퇴하고 같은해 3월 30일에는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있던 영국침략군을 철거시켰다. 동시에 미제와 맺었던 3개의 예속적인 협정을 폐기하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1년후부터 진보적인 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개인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1963년 2월 8일 아브델 라호만 모함메드 아레프가 카셈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아레프를 대통령으로 한 정권이 수립되였다.

1963년 11월 18일 아레프대통령은 다시 정변을 일으켜 반대파세력을 내쫓고 자기 정권을 강화하였다.

1964년 5월 26일 이라크—아련련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여 량국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통합대통령리사회와 통합정치지도부(10월 16일 창설)가 창설되였다.

1964년 4월 30일에 채택된 림시헌법은 이라크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단일한 이라크의 범위내에서 쿠르드족의 민족적권리의 보장, 아랍통일과 아련과의 통일을 첫째 목표로 내놓았다.

1965년 9월 립법기관이던 전국혁명리사회는 해산되고 내각과 전국국방리사회가 최고립법기관으로 되였다.

【대통령】 1964년 4월에 채택된 림시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되며 수상의 임면권, 국제협정 및 조약의 비준권을 가지며 군 최고사령관으로된다.

대통령 아브델 라호만 모함메드 아레프 (1966년 4월 16일—).

【정부】 1967년 7월 10일 9명으로 구성되였다.

수상 타헤르 야히야.

외상 이스마일 카이랄라흐.

국방상 샤케트 마흐무드 슈크리.

【정당, 사회단체】 1962년부터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였거나 해산되였다.

공산당 1934년 4월에 창건, 현재 비법화. **아랍사회주의동맹**(집권당)1964년 7월에 창건을 공포. 《민주주의, 자유, 사회적평등, 경제적공평과 법률앞에서의 평등》을 제창하며 이라크의 《아랍사회주의건설》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당수 아브델 라호만 모함메드 아레프. **쿠르드민주당** 1945년에 창건, 쿠르드족의 내부자치를 요구하며 반제구호를 들고있다. **국가민주당** 1946년에 창건, 1959년에 비법화. **국가진보당** 1961년 5월에 국가민주당에서 분리되여 창건, 1960년 비법화. **로동조합총련맹** 1963년에 세계직련가맹.

【주요사건】 1965년 5월 19—25일 첫 이라크—아련통합정치지도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이라크—아련의 방위군대건설문제, 대외정책원칙들, 량국간의 경제계획화, 민족적안전, 문화, 전국지도부문제들을 심의하였다. 5월 26일 이라크는 아련의 국기와 애국가를 이라크의 국기와 애국가로 채택하였다.

1966년 4월 이라크대통령 아브델 살람 모함메드 아레프가 비행기사고로 사망하고 동생 아브델 라호만 모함메드 아레프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18일 바짜즈를 수상으로하는 신정부가 구성되였다.

6월 29일 이라크정부는 쿠르드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행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쿠르드인들의 일체 권리를 인정하는 12개항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투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의 복구사업이 진행되였다.

7월 26일 이라크정부는 《나라의 북부에서의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행동에 참가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동에 협력한》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사령을 승인하였다.

6월 30일 이라크에서 국가정변시도가 있었다. 7월 1일 아레프대통령은 바그다드방송을 통하여 6월 30일 국가정변시도가 《완전히 좌절되였으며 실패한 정변의 모든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벌을 받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체포된 사람들중에는 이전 수상인 아레프 아브델 라자크와 이전 외상이 포함되였다.

8월 6일 바짜즈내각이 사임하고 8월 9일 나지 탈레브를 수상으로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였다.

12월 이라크는 미제의 포드회사와 방송회사 및 코카 콜라회사 등 3개의 미제독점체회사가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거래하고있다는것을 리유로 이 3개회사들과의 모든 거래를 끊기로 결정하였다. 1965년 5월 12일 서독군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1959년 7월 우리나라와 이라크간에 통상및 지불협정, 문화협조협정이 체결되였다. 1965년 11월 20일에는 량국기자동맹간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1965년 3월 우리 나라 친선대표단이, 1966년 7월 17—22일간에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였으며 1966년 7월 19일 량국간에 총령사관계가 설정되였다. 같은해 11월 21일 바그다드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오늘의 조선》이 열렸다.

경제 이라크경제의 기본은 원유공업이다. 석유세수입은 이라크재정예산의 44%,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65년에 외국석유회사들로부터 받은 석유세수입은 1억 3천만 디나르였다.

원유채굴권은 《이라크석유회사》(영국독점자본이 45%, 미제, 프랑스, 화란의 독점자본이 각각 15%), 바스라석유회사, 모술석유회사가 장악하고있다. 이 회사들은 1천937.75km²의 지역에서 원유를 채굴하고있으며 매년 4억 6천만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연, 석탄, 동, 망간, 니켈, 대리석 등 지하자원이 있다. 원유공업외에 방직, 식료, 가죽, 비누, 건재, 담배공장들이 있으며 세멘트공장도 있다.

전력공업은 화력발전소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최근에 몇개의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었다. 10개의 방직공장이 있으며 특히 방직공업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주민의 80%이상이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은 약 600만 정보이고 그중 알곡경작지는 330만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대추, 밀, 보리, 쌀, 야자, 목화, 레몬, 귤, 참깨 등이다.

이라크정부는 1958년 토지개혁법령채택이래 23만 5천정보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4천 857세대의 농가에 나누어주었다. 화페단위는 디나르.

이라크는 주로 석유, 대추, 목화, 양털. 집짐승, 가죽 등을 수출하고 각종 기계설비들과 흑색금속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중국, 아랍국가들이다. 1961—1962학년도에 3천 789개의 인민학교에서 8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중학교수는 383개이며 학생수는 14만명이였다. 직업학교수는 44개, 학생수는 8천명이 있었다.

바그다드시에는 14개의 학부를 가진 종합대학이 있다. 대학생수는 1만 3천명(1961년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 통신 신문 알 사우라 호 알 아라비아 호(아랍사회주의동맹 기관지). 알 마나르, 알줌후리아.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수리아는 아라비아반도의 서북부지중해의 동쪽에 면해있다.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며 동부와 내륙지방은 사막이다.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서부지대는 지중해성기후이며 동부는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9°C이며 6월 평균기온은 26°C이다.

【면적】 18만 4,479km²

【인구】 500만 7,127명(1965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쿠르드인, 드르그인, 아르메니야인, 토르크만인, 써카시아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주민 61만 8,000명, 1966년말).

정치 9세기이전에 수리아는 아랍제국의 일부분이였다. 16세기에는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되였다. 1920년 4월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수리아인민의 반프랑스투쟁에 의하여 1941년 9월 27일 수리아는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군이 계속 강점하고있었다. 1946년 4월 17일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군대가 물러남으로써 수리아는 독립된 주권국가로되였다. (4월 17일은 수리아의 민족적명절로 되고있다.)

1958년 2월 21일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수리아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 수리아는 아랍련합공화국에서 탈퇴하였으며 9월 29일 나라이름을 수리아아랍공화국으로 고쳤다.

【정부】 1966년 10월 17일 구성 국가수반 누레딘 아따시

수상 유세프 자인, 부수상 겸 외상 이브라힘 마크후스, 국방상 하페즈 엘 아싸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58년 11월에 다시 수리아공산당과 레바논공산당으로 각각 분리되였다.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슈. 아랍부흥사회당 (바아스당) 1953년에 아랍부흥당과 아랍사회당이 합당하여 성립, 현재 집권당이다. 당은 아랍통일, 자유, 사회주의건설을 구호로 내놓고 있다. 총비서 누레딘 아따씨. 로동조합총련맹, 농민조합련맹, 녀성동맹.

【주요사건】 1965년 1월 3일 107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조치에 타격을 받은 제국주의자들은 대자본가, 상인들을 매수하여 1월 24일 다마스커스에서 반정부시위를 벌리게 하였다. 1월 25일 정부는 반동적인 자본가들의 일체 동산, 부동산들을 몰수하였으며 2월 17일에는 간첩행동을 한 미제외교관을 추방하고 미제의 간첩집단을 모조리 붙잡았다.

1966년 2월 23일 정변이 일어나 1966년 1월 1일에 구성된 비타르정부가 전복되였다. 바아스당지도부는 림시헌법을 정지하고 전국혁명리사회를 해산하였다. 대통령리사회위원장 하페즈와 수상 비타르는 체포되였다. 3월 1일 누레딘 아따씨를 국가수반으로하고 유세프 자인을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자

인정부는 대상공업기업소들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봉건령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여하였다.

1966년 4월부터 6월까지에만도 6차에 걸쳐 봉건령주들로부터 6만 2천정보의 토지를 몰수하여 5천 104세대의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966년 9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정부정변음모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되였다.

9월 20일 바아스당지역 (수리아)당대회에서 16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역지도부가 선출되였다. 이 지도부는 수리아의 최고립법권, 행정권을 행사하게된다. 10월 16일 22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이 조직되였다. 개조된 정부수반 유세프 자인은 《수리아정부는 사회주의진영나라들 및 신흥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무조건 정력적으로 지지하며 온갖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1966년에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일련의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5월 22일 인민방위최고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5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을 토의하고 근로자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훈련시킬것을 결정하였다.

10월 18일에는 제국주의 및 반동세력의 임의의 침략도 물리치기 위하여 《무장한 인민》의 총동원령을 발표하였다. 11월 2일 다마스커스에서 《팔레스티나에 관한 밸푸어선언》을 선포한 날인 11월 2일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날로 기념하여 수만명이 시위를 단행하였다. 수리아정부는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지원병등록소를 설치하였으며 수리아로동조합총련맹의 호소에 따라 1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인민방위부대에 들어갔다.

12월 8일 수리아정부는 이 나라에 있는 미, 영, 프랑스, 화란 등 제국주의독점자본소속의 《이라크 석유회사》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라크로부터 수리아로 통과하는 이 회사의 송유관을 폐쇄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1월 4일 수리아는 아랍련합공화국과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 5월 13일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독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6년 6월에 모리따니와, 7월에는 민주윁남과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3월 우리 나라 친선대표단이, 10월에는 정부무역대표단이 수리아를 방문하였으며 10월 4일 량국간에 통상및지불협정을 맺었다.

1966년 7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수리아를 방문하였으며 7월 25일 량국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8월 25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경제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주민의 75%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수출의 85%가 농산물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콩, 포도, 담배, 기장 등이다. 관개면적은 약 70만정보이다.

1958년에 발표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1966년까지 약 150만정보에 달하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그 토지의 거의 절반이 땅없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농촌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노력협조반, 시험농장들이 조직되였다.

수리아의 경지면적은 약 600만정보이며 관개면적은 약 60만정보이다.

1965년에 밀은 104만톤, 보리는 69만톤, 목화는 15만 4천톤, 사탕무우는 19만톤 생산되였다.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이며 그중에서도 방직 및 식료가공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세멘트공업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있으며 총생산고의 15%를 수출하고있다. 1964년에 세멘트는 63만 5천톤 생산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석유, 망간, 크롬, 철, 천연가스 등이 있다. 최근년간 북부에서는 큰 석유 매장지 (약 9억톤)가 발견되였다.

공업에서 국영경리의 비중은 1965년 4월 현재 약 80%를 차지하였다.

수리아에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310개의 각종 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 (80%)이다. 그중 목화는 총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밖에 알곡, 섬유제품, 양털 등도 수출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중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등이다.

1960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에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통상총액은 2배이상에 달하였다.

1964년에 소학교학생수는 61만 1천 554명, 대학생수는 3만 1천 174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사.

신문 알 바아스 (바아스당기관지), 알 사우라 (정부기관지).

방송 다마스커스방송.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Republic of Lebanon

동부지중해연안에 위치하며 수리아, 이스라엘과 접경하고있다.

【면적】 1만 400km²

【인구】 222만 7,000명(1963년 12월).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그중 팔레스티나인 18만 5천명, 수리아인 13만명.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베이루트(주민 60만명, 1963년).

정 치 16세기에 레바논은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에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아랍인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41년 11월 레바논에 대한 《위임통치》를 페기하였으며 1943년 12월에 레바논은 독립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군대는 레바논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1946년 2월에 물러났다.

레바논의 많은 정당들이 종교적배경을 가지고있으며 종교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 1943년에 기독교와 회교간의 협의결과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수상은 회교의 시아파에서 선출하며 국회의석과 내각성원은 각 교파의 세력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미제는 레바논과 1954년에는 《경제원조》협정을 맺고 레바논내정에 간섭하였으며 1957년 3월 샤문정부는 미제의 《아이젠하워주의》를 접수하였다.

1957년 5—6월에 레바논인민들은 국회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외정책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단행하였다. 레바논인민들은 전국적인민항쟁을 전개하여 1958년 6월에는 령토의 4분의 3을 장악하였다. 미제는 인민들의 앙양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려고 1958년 7월에 레바논에 대한 무력간섭을 시작하였으나 인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10월에 쫓겨났다.

레바논정부는 1965년 5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독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과의 무역을 중지하였다.

1966년 6월 2일 레바논 국회외교위원회에서는 미제와 이스라엘간에 무기계약이 체결된것과 관련하여 레바논이 미제의 적대적 행동에 맞서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미제는 레바논으로하여금 자기의 립장을 변경하고 《회교조약》을 지지하도록 각종 압력을 가하고있으나 레바논정부는 1966년 10월 17일 미제독점자본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압력에 대항하여 레바논에 있는 150개은행들의 활동을 3일간 중지시킨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6년 4월에 성립되였던 야피내각이 12월 2일 사직하고 12월 7일 라쉬드 카라메가 내각을 구성하였다. 12월 20일 국회에서 수상 카라메는 《레바논정부는 중립, 쁠럭불가담원칙들을 준수하는 기초우에서 친선적인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회】 1원제. 의원수는 99명, 임기는 4년, 1964년 4—5월에 국회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국가원수이며 6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촬스 헬로우(1964년 9월—).

【정부】 1966년 12월 7일 수상과 9명의 상으로 구성되였다. 수상을 제외하고는 각료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없다.

수상 겸 재정상 라쉬드 카라메.

외상 조르쥬 하킴.

내상 겸 국방상 바드러 메우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58년 12월 레바논공산당이 따로 조직되였다. 1947년부터 비법화. **아랍해방당** 1947년에 성립, 북부회교도들과 지주,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 **파랑게당** 천주교도들로 1934년에 구성된 정당. **사회주의진보당** 회교도들로 1949년에 구성된 정당. **인민사회당** 이전 수리아인민당에서 분리되여 조직된 정당. **민족전선** 1958년 5월 정변당시 각 민족주의정당들과 교파들로 결성된 련합조직,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련합공화국과의 협조정책을 주장. **아. 아 단결위원회, 로동조합련합회.**

경 제 경제에서 무역이 위주로 되고있다. 베이루트항은 국제적무역항으로서 구라파와 아세아의 상품교류를 위한 지점으로 되고있다.

국민소득에서 무역은 약 3분의 1, 공업은 15%(1964년), 농업이 20%(1964년)를 차지한다. 약 80만명이 농업에 종사하나 토지의 절반이상을 대지주들이 가지고있다. 경지면적은 27만정보로서 1964년에 관개면적은 4만 6천정보에 불과하였다.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식량의 절반은 수입한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식료, 방직, 세멘트공업이 전체 공업자본의 약 60%, 공업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은행, 철도, 항구, 송유관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독점자본이 통제하고있다.

화페단위는 레바논파운드.

주민의 약 절반이 기독교도(거의가 마론파), 나머지는 회교도.

【출판】 신문 알 무하러드, 알 나다, 알 욜, 아두 두니아, 알 자디다.

요 르 단

(요르단왕국)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요르단은 이스라엘,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와 린접하고있다. 서부는 비옥하나 요르단강 동부지대의 5분의 4는 사막지대이다.

【면적】 9만 6,610km²

【인구】 193만 5,440명(1964년 말).

요르단 인구중 약 65만명이 이스라엘에서 온 피난민이다. 국어는 아랍어다.

【수도】 암만 (주민 약 36만 2,000명, 1964년).

정 치 요르단은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1차대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예속하에 있었고 전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었다. 요르단은 1928년에 대외정책, 재정 및 무역을 영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는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1946년 5월에 요르단은 독립하였다. 1948년 3월 영제국주의자들은 1928년조약의 기한이 끝나자 요르단과 《동맹조약》을 맺고 요르단에서 공군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요르단군대의 지휘권을 쥐였다.

1956년 11월 나불시정부는 1948년 조약을 폐기하였고 영국침략군대는 1957년 4월에 물러났다. 1957년 4월 10일정변으로 나불시정부가 전복되였다.

요르단은 1962년 8월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아랍공화국을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11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호상방위조약》을 맺었다.

1966년 4월 19일 이스라엘이 요르단국경에서 무장충돌을 일으켰으며 11월 13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미제의 지지밑에 요르단국경도시인 사므와에서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11월 18일부터 요르단인민들은 도처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여 반미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침략에 반격을 가하며 아랍인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전선형성을 요구하였다. 11월 26일 내각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모집을 위한 특별군사위원회들을 국내의 모든 현들에 조직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스라엘과의 국경지역에는 무기를 공급할데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국왕】 후세인 1세(1952년—)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25명(국왕이 임명), 임기는 8년(4년마다 반수씩 개선), 하원의원은 60명, 임기는 4년.

1967년 4월 15일 선거되였다.

【정부】 1967년 4월 2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사아드 쥬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1년에 창건, 총비서 푸아드 나싸르. **민족전선** 1954년에 창건된 진보적인 단체들의 련합. **아랍부흥사회당.**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농업에서는 목축업과 알곡생산이 위주로되고있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지이고 나머지는 사막이다.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로 농산물생산수준은 극히 낮다. 유목민은 약 5만명, 반유목민은 약 12만명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콩, 일년감, 포도, 무화과, 바나나, 담배 등이며 주요가축은 양, 염소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영독점체들이 쥐고있다. 미영독점체들은 이 나라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원유개발권을 가지고있다.

예산의 50%는 군사경찰비로 충당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대부분이 고원과 사막지대이므로 주민의 대부분은 좁은 오아시스근방에 집중되여있다. 몹시 건조하고 우량이 적다.

【면적】 160만km^2

【인구】 750만명(1963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고 기타 유태인,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리야드(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정 치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1차세계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속령(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후 이본 사우드 (네지드왕)는 헤쟈즈를 점령하여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군주제국가이며 국회도, 정당도, 로조도 없다.

미제는 《아라비아미국석유회사》를 통하여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다란에는 미제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미제침략군의 《군사전문가》들이 사우디 아라비아군대를 훈련시키고있다.

1962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는 요르단과 《호상방위조약》을 맺고 요르단과 함께 전복된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시작하였다.

1965년 9월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련간에 예멘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할데 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6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침략한것과 관련하여 요르단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6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 인민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미제의 《아랍송유관회사》의 송유관과 리야드에 있는 미제군사사절단본부, 리야드군용비행장, 기타 미영군사기지들을 폭파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드 알 아지즈 알 사우드(1964년 11월 2일—).

【정부】 현정부는 1964년 11월 3일 구성, 국왕이 수상 및 외상을 겸임.

경제, 사회 반유목 반농업국가이다. 주민의 약 절반이 유목 및 반유목생활을 한다. 나라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관계로 경지면적은 약 21만정보밖에 안되며 농업생산은 국내수요의 약 10분의 1밖에 충족

시키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밀, 옥수수, 쌀보리, 쌀 등이며 양, 염소 등 집짐승이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금, 은, 동, 철광 등이 있다.

석유세수입은 국가예산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석유채굴권은 《아라비아미국석유회사》(1933—1999년까지), 일본의 《아라비아석유회사》(1957년부터 40년간), 이딸리아의 석유독점체들에게 빼앗기고있다. 《아라비아미국석유회사》는 이 나라 3분의 2의 지역에서 석유생산량의 94%이상을 채굴하고있으며 정유공장, 송유관, 정보기구, 경찰, 군대 등을 가지고있다.

화폐단위는 사우디 아라비아리알이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지중해에 면하고있으며 레바논, 아랍, 요르단, 수리아 등과 접경하고있다.

【면적】 2만 755km²(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면적은 1만 4,000km²이다.

【인구】 259만 9,000명(1966년 1월).

주민중 유태인이 약 229만 9천명, 아랍인은 30만명이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이다.

【수도】 예루살렘 (주민 17만명) 정부기관의 일부는 텔아비브(주민 45만명)에 있다.

정 치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던 팔레스티나에 아랍국가와 유태인국가를 세울데 대한 유엔결정(1947년 11월 29일)에 따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되였다.

이스라엘은 수립된 때로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서 아랍국가들을 반대하여 전쟁(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시기에 유태인반동집단의 혹심한 박해로 90여만명의 아랍인들이 요르단, 레바논, 수리아 등지에 피난하였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랍인들은 《안전구역》에 수용되여 박해를 받고있다. 1949년에 이스라엘은 교전국들과 정화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미제의 지지밑에 아랍국가들과의 국경문제와 팔레스티나피난민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있으며 아랍국가들을 계속 침범하고있다.

이스라엘은 1953년 9월에 요르단강물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요르단강 개발계획에 착수하였으며 1962년말에는 미제의 《원조》로 수로공사를 시작하였다.

1965년 5월에 이스라엘은 전체 아랍국가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서독에서 핵에네르기의 군사적리용과 핵탄두의 생산분야에서 일할 소위 과학자들과 무기전문가들을 끌어들였으며 1966년 5월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6천만마르크의 장기차관을 받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은 미제로부터 1963년에 2천 500만딸라에 해당하는 로케트무기를, 1964년에는 서독을 통하여 3억 7천만딸라의 《원조》와 미국제무기를, 1966년 3월에는 200대의 땅크를 비롯하여 포, 비행기 등을 받았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의 령해, 령공, 령토를 침범하였는바 1958년부터 1964년 6월까지만도 이러한 도발사건은 1만 9천 717차나 있었다. 1965년 5월 13—18일간에는 22차나 수리아령토를 침범하였으며 1966년 8월 15일에는 이스라엘경비정이 수리아경계선을 침범하고 수리아군진지에 사격을 가하였다. 1966년 11월 13일에는 요르단국경도시와 수리아령토내의 초소들을 공격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수상 에슈콜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수리아와의 《전쟁이 일어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군대를 증강하고 대복무기간을 연장했으며 제일선 무력과 국경부대를 강화하기에 광분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은 의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 대통령 자마 샤자르(1963년 4월—).

【의회】 1원제, 의원은 120명, 임기는 4년.

【정부】 1966년 1월 10일 로동당, 통일로동당, 자유당, 헤무트당으로 련립정부를 구성.

수상 레비 에슈콜.

외상 아빠 에반.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1년에 창건된 팔레스티나공산당, 1948년 10월에 이스라엘공산당으로 고침. 로동당(마파이당) 1930년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태인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우익반동정당이다. 통일로동당(마팜당) 1948년에 성립, 유태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정당. 자유당, 헤루트당, 민족종교당, 공산주의청년동맹, 유태인로동총련맹, 민주녀성련맹

경 제 경제는 미제의 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외국투자액중 미제의 자본은 약 70%를 차지하고있으며 해운 및 은행과 화학, 제당, 석유공업 등을 지배하고있다.

금강석연마공업, 방직, 식료, 제지, 화학, 석유공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원료는 외국에 의존하고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땅이 척박하며 주민의 14.4%가 농업을 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42만 8천헥타르나 관개면적은 15만헥타 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귤, 밀, 보리, 담배, 사탕무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귤, 금강석 등이며 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영국,

토이기, 서독 등이다. 화페단위는 이스라엘파운드이다.

실업자는 1963년말의 5만명으로부터 1966년말에는 8만 5천명으로 늘었다.

쿠 웨 이 트

(쿠웨이트추장국)
Sheikdom of Kuwait

페르샤만 서북부에 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고 물이 거의 나지않는다.

【면적】 2만 5,500km²

【인구】 46만 8,000명(1965년), 인구의 절반이상은 외국인이며 쿠웨이트인의 대부분은 아랍족이다.

【수도】 쿠웨이트(주민 21만명)

정 치 쿠웨이트는 1899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6월 19일 독립하였다. 쿠웨이트가 독립하자 이라크의 카셈정권은 쿠웨이트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를 기회로 쿠웨이트의 독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1961년 7월 1일 군대를 파견하여 무장간섭을 하다가 아랍련맹군의 쿠웨이트상륙으로 물러났으며(동년 10월 9일까지) 그후 아랍련맹군도 철수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1963년 1월 력사상 첫 국민회의가 구성되였다. 선거권은 21세이상의 쿠웨이트공민인 남자만이 가진다. 정당은 없다. 1966년 2월 19일 쿠웨이트국회는 이스라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한 미제의 결정에 항의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7월 26일 쿠웨이트정부는 아프리카식민지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정책을 반대하여 뽀르뚜갈과의 외교 및 령사관계를 끊으며 무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송유관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수리아의 립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1965년 11월 27일—).

【국민의회】 1원제이며 50명, 임기는 4년이다. 1967년 1월 25일선거.

【정부】 1967년 2월 5일 12명의 각료로 구성되였다.

수상 쟈베르 알 아흐마드 아스 사바흐. 외상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아스 사바흐.

경제 석유채취업이 경제의 기본이며 주민의 20%가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이 나라에산의 90%는 석유에서 들어온다.

석유매장량은 1964년말현재 약 87억톤으로 추정되고있다. 1965년에 1억 900만톤의 석유가 생산되였다.

석유공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쿠웨이트석유회사》(1934—2009년까지의 석유개발권탈취)에 쥐여져있다.

일제의 《아라비아석유회사》도 1958년 7월에 44년간의 석유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외국독점체들이 짜내고있는 평균리윤은 투자액의 약 5배나 된다.

산업로동자는 약 1만명, 그중 쿠웨이트인이 약 350명이다.

해변의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채취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콩, 남새 등이다. 화페단위는 쿠웨이트디나르이다.

바레인제도

(바레인추장국)
Sheikdom of Bahrain

바레인제도는 페르샤만에 있는 몇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지고있다. 그중 가장 큰 섬이 바레인섬(556km²)이다.

【면적】 598km²

【인구】 18만 2,200명(1965년)

주민중 아랍인은 약 8만명이고 기타는 아프리카인, 이란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약 7천명)들이 산다.

【행정중심지】 마나마(주민 6만 1,800명).

【추장】 이사 벤 술만 알 할리파(1961년—).

바레인은 1861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추장이 있으나 사실상의 행정권은 영국정치주재관이 쥐고있다. 바레인에는 미제의 해군기지와 영국침략군의 해군 및 공군기지(무하라크섬 및 기타)가 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56년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시와 1958년 오만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폭격시에도 이 기지를 리용하였다.

1966년 2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은 근동주둔 영국침략군사령부를 1968년에 아덴으로부터 바레인제도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바레인제도에서 군사기지건설을 벌려놓았다.

1966년 6월 21일 바레인민족해방전선은 바레인 괴뢰정부가 영제국주의상전과 맺는 그 어떤 협정이나 조약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바레인제도에는 석유자원이 많다. 석유에서 얻는 수입은 국민소득의 약 75%를 차지하며 인구의 4분의 1이 석유로동자이다.

석유의 채굴권은 미제의 《캘리포니아 뉴저시석유회사》와 《테스구석유회사》의 소유인 《바레인석유회사》가 쥐고있다. 이 회사는 바레인제도에 석유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이 섬에서 생산되는 원유외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송유관으로 보내오는 원유도 가공하고있다. 바레인로동자들의 임금은 여기에서 일하는 미, 영로동자들의 임금의 10～15%밖에 안된다.

카 타 르

(카타르추장국)
Sheikdom of Qatar

페르샤만남쪽에 있는 카타르반도에 있다. 반사막지대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101mm이다.

【면적】 2만 2,000km²

【인구】 5만 5,000명(1962년)

【행정중심지】 도 하(주민 4만 5,000명).

【추장】아흐메드 빈 알리 알 타니(1961년—).

카타르는 1916년부터 영제국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국가주권은 형식상 추장에게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영국의 정치주재관이 가지고있다. 카타르에는 미해군기지가 있다. 1965년 12월에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국경협정을 맺었다.

석유자원이 풍부하다. 석유의 채굴 및 가공은 영국, 프랑스, 미제독점체들의 합동회사인 《이라크석유회사》의 분회사인 《카타르석유개발회사》(2010년까지 채굴권 략탈)가 독점하고있다. 석유공업에는 약 7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석유외에 농목축업도 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목민이고 연해주민들은 진주채취도 한다.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를 사용한다.

1964년 8월에 애국적인 《카타르민족투쟁단체》가 조직되여 영식민주의청산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오 만

오만은 아라비아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있다.

【면적】 21만 2,400km²

【인구】 75만명(1964년)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그밖에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산다.

【수도】 니즈와(오만회교교주국 수도, 주민 4,500명).

【회교교주국 교주】 갈리브 빈 알리.

정치 오만은 18세기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13년에 오만내륙지방 인민들은 영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오만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1920년부터 오만에는 독립적인 오만회교교주국과 영식민주의자들의 괴뢰국가인 마스카트추장국이 존재하게 되였다. 1939년과 1951년에 마스카트추장이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불평등한 《우호통상및 항해조약》과 《우호조약》으로 인하여 마스카트추장국은 더욱 영제국주의자들의 예속하에 들어갔다. 마슬라섬에는 영국침략군의 큰 군사기지가 있다.

1955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카트추장국을 사촉하여 오만회교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한후 2만여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켜 오만회교교주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시작하였다. 오만인민들은 영침략자들과 그 괴뢰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1957년부터는 무장투쟁을 하고있다.

1963년에 아랍련맹은 독립을 위한 오만인민들의 투쟁에 효과적인 원조를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까히라, 다마스커스, 바그다드에 오만대표부가 설치되여있다.

경제,사회 이 나라에서는 봉건적인 관계와 씨족제도의 잔재가 지배하고있다.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에 종사하며 주요농산물은 대추(기본작물), 야자, 석류, 남새,밀, 보리 등이고 우량종의 락타가 있다.

금, 철, 석탄, 동, 류황 등 자원이 많다. 1937년에 설립된 《이라크석유회사》(미, 영, 프랑스독점자본)의 분회사인 《오만석유회사》가 1944년에 75년간의 석유의 탐사 및 채굴권을 략탈하였다.

철도는 없고 인력거, 락타가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화폐도 없고 해안지대에서는 인도화폐루피를 사용한다.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Yemen Arab Republic

아라비아반도의 서남단에 있다. 북쪽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접경하고 서쪽은 홍해, 동쪽은 아라비아해에 면하고있다. 지리적으로 3개지역으로 구분하는바 중부고원지대는 전국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해발 2천~2천 600메터나 되는 높은 지대이나 토지가 비옥하며 예멘의 주요농업지대이다. 홍해연안의 평야지대는 사토지대로서 년강우량이 1천미리메터 미만이므로 농업에 불리하다. 동부 사막지대는 기후가 온화하며 토지는 척박하다. 년평균기온이 36°C이며 비오는 시기는 보통 2—8월까지이다.

【면적】 19만 5,000km²

【인구】 600만명 (1965년)

그중 해외에 약 106만명이 살고있다. 주민은 주로 아랍인이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사나 (주민 7만 5,000명, 1965년).

정치 아랍제국의 일부분이였던 예멘은 1517년에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1839년 예멘의 령토인 아덴항을 강점한후 점차적으로 남부예멘의 30여개의 부락을 병탐하고 《아덴보호령》을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후 1923년 로잔조약에 근거하여 예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국으로 되였다.

193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예멘간의 국경

분쟁을 리용하여 예멘의 독립을 《인정》하는 대가로 예멘이 현존 국경을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사나조약》(40년간)을 강박체결하였다.

1956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아현에 대한 무장침공에서 실패한후 예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다.

예멘인민은 1957년에 《사나조약》을 페기하고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1962년 9월 26일 아브둘라 살랄이 왕전군주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와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사촉하여 예멘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아랍련합공화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을 지원하였다.

1965년 8월 24일 아랍련합공화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에 예멘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예멘은 아련과 1962년 12월에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1964년 4월 29일에 발표된 헌법에는 예멘을 《주권을 가진 독립 아랍회교국가》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최고립법기관은 참의리사회이며 그의 임기는 3년,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원수는 150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공화국리사회】 1967년 11월 5일 아브둘 라흐만 알 아리야니를 의장으로 하는 3명으로 구성되였다.

【정부】 1967년 11월 6일 구성되였다. 수상 모신 엘 아이니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동맹**-유일한 집권당이며 1967년 1월 제1차 전국민족대회에서 정식 창설을 공포하고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다. 이 동맹에는 전 왕실가족이나 반혁명적인 왕당파가정의 성원을 제외한 만 16세 이상의 성년들이 참가할수 있다. **예멘녀성협회** 1965년 9월 25일 창설. **로조련맹.**

【주요사건】 예멘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된 국내외 반동들의 부단한 음모책동을 분쇄하면서 부단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였다. 4월에 진행된 내각회의에서는 경제 및 대외무역, 문화와 보건분야에서 계획을 수행할것을 결정하였다.

4월 16일에는 내각을 개조하고 국가 안전체계개편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방성을 륙군성으로 개편하고 체신성과 종족담당 국무성을 새로 설치하였다. 9월 18일 대통령인 살랄을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0월 6일 사나에서 예멘및아련 군대협동사령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예멘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0월에는 나라의 안전문제와 방위적조치를 취할 국방위원회를 창설하였다.

12월 15일에 진행된 인민대회에서 예멘의 정치적조직으로 인민혁명동맹을 창설할것을 토의하였다.

1965년 5월 서독과 외교관계를 끊고 1966년 1월에 민주독일과 총령사관계를 설정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예멘간에 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1963년 8월에 예멘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두나라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되였다.

경제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봉건왕권제도는 예멘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여 있었다.

예멘정부는 이러한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4년부터 1차 5개년계획 (1964—1968년)에 착수하고 이 기간에 주로 경공업공장, 식료품공장,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업소 등의 건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금을 축적하여 점차 중공업기업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농업과 교육에 력량을 돌리는 방침을 취하고있다.

예멘에는 금, 은, 망간, 철, 연, 혹연, 석유, 석탄, 류황, 알루미니움, 석회석 등이 매장되여 있다.

공업기업소로는 수공업적인 제분소,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주물공장 등이 있다. 사나에는 1만 1천개의 방추를 가진 방직공장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1천 300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수공업이 비교적발전하여 금, 은, 보석장식품들과 가구, 융단, 가죽제품 등을 생산하고있다.

농업에는 주민의 95%가 종사하고있다. 전국의 경지면적은 1천 200만페단 (1페단은 0.5정보)이며 1년에 2~3모작을 할수 있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보리, 옥수수, 커피, 면화, 과일, 담배 등이며 최근에 새로 수확성이 높은 일년감, 완두콩, 양배추, 사탕수수, 밀 등이 생산되였다.

옥수수는 예멘인들의 주식물로서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고있으며 년 2—3회 수확한다.

축산업으로는 면양과 소, 락타 등을 사육하는바 육류와 우유는 자급자족하며 가축은 다소 수출한다. 최근년간 저호랍평야에 새로운 가금목장과 가축목장이 건설되였으며 사나에 우유제조소가 건설되고 사나와 타이즈에 종축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정부는 도로건설에 큰 주목을 돌리고 있다.

1961년 6월에 호데이다—사나간의 도로가 준공되였으며 사나시의 주요 도로를 포장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가죽, 목화, 소금, 건포도 등이다. 그외 방직제품, 면직물, 세멘트, 목재 등도 수출한다.

수입품은 주로 직물, 밀가루, 담배, 신발, 사탕 등이며 대상국은 일본, 영국, 서독, 인도 등이

다.

1964년 9월부터 처음으로 년도 국가예산이 수립되였다.

혁명후 정부는 교육발전 10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교육기관건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에 학교수는 급격히 장성하여 소학교만도 총 866개, 학생수는 6만 6천명이였다. 이리하여 학생총수는 12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32개의 각종 병원, 170개의 진료소가 건설되였다. 정부는 1966년도에 의약품생산에 15만영파운드를 투자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예멘소식, (아랍어일간신문), 혁명, 공화국 (주간), 새예멘, 26일 (혁명일을 상징).

방송 사나에 중앙방송국이 있다.

남부예멘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남부예멘은 아랍반도 남부에 위치하며 예멘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접하고있다. 대체로 북쪽은 산악지대이며 긴 해안을 따라 약간한 평야가 있다.

【면적】 29만km²

【인구】 130만명 (1967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아덴.

정치 예멘의 령토였던 아덴은 1839년 1월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37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아덴을 《아덴식민지》와 동서 《아덴보호령》으로 분할하였다.

《아덴식민지》는 아덴항과 소아덴의 2개 반도와 페림도, 쿠리아무리아군도를 포괄하고있다. 《동부아덴보호령》에는 5개의 추장국, 《서부아덴보호령》에는 20개의 회교왕국, 추장국 및 교주국들이 포함되여 있었다.

영식민주의자들은 날로 앙양되는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와해시키며 이 지역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59년 2월—1962년 4월까지 25개의 보호주가운데서 11개로 《남아라비아련방》을 조작하고 1963년 1월에 《아덴식민지》를, 3월에는 2개의 보호주를 《련방》에 병합시켜 도합 14개의 지역을 포괄시켰다. 련방이 조작되자 인민들의 반영투쟁은 더욱 치렬해졌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6월 9일 런던에서 《남아라비아련방제헌회의》의 기만극을 벌려놓고 1968년에 《독립을 부여한다》고 떠벌리면서 남부예멘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려하였으며 영국침략군이 《철수》한후 《유엔군》을 주둔시켜 《유엔》의 기발밑에 영국침략군을 그대로 주둔시키려고 획책하였다.

1966년 8월 22일 《남아라비아련방》의 괴뢰도당은 예멘아랍공화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홍해에 있는 예멘항구들과의 통상거래를 금지하며 《련방》내에 살고 있는 모든 예멘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남부예멘지역을 통치하는 영국고등판무관을 통하여 이 지역을 강점하고있었으며 3만여명의 영국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었다.

지어 영제국주의자들은 아덴항에 중근동륙해공군련합사령부까지 설치하고있었다.

남부예멘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강점된 자기의 령토를 찾기위한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1963년 10월 14일 라드판지역에서 애국자들이 무장투쟁의 첫 횃불을 든 후 인민들은 다시나, 잘라, 아사페하 등 광범한 지역으로 투쟁을 확대하면서 아덴시까지도 위협하였다.

아덴애국자들은 영식민주의자들의 탄압을 박차고 영국침략군대의 주요초소를 공격하고 철도와 결음길 등을 파괴하며 유생력량과 기술기재들을 처부시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6년에 아덴애국자들은 영국식민주의군대와 500차이상의 싸움을 하였다.

1966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남부예멘애국자들은 영국침략군 533명을 죽이고 287명을 부상시켰다. 이 기간 그들이 적병영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와 비행장을 폭파한 회수는 무려 1천 279차에 달하였다.

남부예멘해방전선은 17개의 전선에서 남부예멘인들의 투쟁을 지도하였으며 여기에는 약 2만 5천명의 투사들이 망라되여 무장을 들고 반영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66년말까지 남부예멘의 다섯개 지방을 해방하였다.

남부예멘인민은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1967년 11월 30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정부】 1967년 12월 1일 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카흐탄알 샤아비, 외상 세이프 아흐메드 알 드할라이에, 국방상 알리 살렘 알 바이드흐

【정당, 사회단체】 **남부예멘해방전선** 1963년 창건. 남부예멘에서 영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지도하였다. **아덴로동자련맹.**

경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목축업에 종사하며 연해주민들은 어업도 한다. 경지면적은 약 6 만정보이며 목화, 밀, 보리, 기장, 담배, 커피 등을 재배한다.

아덴항은 13척의 대형선박들이 동시에 연료를 공급받을수 있는 현대적인 항구 (매달 평균 500척의 배들에 급유)인데 이 항구 부근에는 년산 500만톤 능력의 정유공장이 있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다다넬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세아와 구라파 두 대륙에 결쳐 있다.

【면적】 77만 6,980km² (그중 2만 3,500km²가 구라파부분)

【인구】 3,139만 1,207명 (1965년 10월).

대부분이 토이기인이고 동부지방에 쿠르드인이 살고있다.

언어는 토이기어이다.

【수도】 앙카라 (주민 90만 2,000명, 1965년)

정 치 1919년 5월 왕제가 철폐되고 1923년 10월 29일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토이기는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 (1955년)에 가담하였고 1959년 3월에 미제와 《쌍무군사협정》을, 1962년에는 서독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토이기에는 나토의 동남부군사령부와 동남공군사령부가 있으며 11개의 나토 대형군사기지와 100여개의 나토 비행장이 있다.

토이기에는 약 1만명의 미제침략군이 주둔하고있으며 미제는 여기에 120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중근동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적군사거점으로 만들고있다.

토이기는 1963년 12월 끼쁘로스에서 토이기계 주민과 희랍계 주민간에 충돌이 일어나자 《끼쁘로스의 독립》에 관한 조약을 구실로 끼쁘로스내정에 간섭하면서 1964년 8월에는 끼쁘로스촌락을 폭격하는 등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한편 토이기는 나토의 《다각적핵무력》시험함선인 미제의 구축함《크라우드릭케쯔》호에 혼성승무원으로 파견한 자기의 해군훈련단을 철수 (1965년 2월)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남부윁남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미제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앞으로 《평화군》대표들을 자기나라에 보내지 말것을 미제에 요구하였다. 동시에 토이기정부는 자국내에 있는 미제의 《평화군》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6년 11월 7일 아데나에서 6천명의 군중이 토이기녀성들에게 행패를 부린 미침략군 비행사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제령사관, 미제적십자사, 미제보도사 등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토이기 최대의 미침략군기지인 인스리크기지주둔 미침략군의 자동차 45대를 파괴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187명 (그중 150명은 선거,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22명은 종신상원의원), 임기는 6년, 하원의원수는 450명, 임기는 4년, 1965년 10월 10일에 진행된 하원선거결과 정의당이 240명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쉐보데트 수나이 (1966년 3월 28일—).

【정부】 1965년 10월 정의당정부 구성. 수상 술레이만 데미렐, 외상 카글라얀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되였고 1923년부터 비법화되였다. **공화인민당** 1923년에 창건된 친미우익정당. **정의당** (집권당)1961년에 창건, 1960년에 해산된 민주당에 속했던 자들로 구성. 지도자 술레이만 데미렐 **신토이기당** 1961년에 창건. **전국공화농민당,국민당, 로동자련합회.**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7%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토지의 80%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농업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땅콩, 사탕, 목화, 담배, 과일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크롬, 석탄, 철, 망간, 동, 석유 등이 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식료, 담배, 제지, 세멘트, 방직공업 등이 있다.

토이기의 경제명맥은 외국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가공공장들의 조업률은 30~40%에 지나지않는다.

완전실업자는 150만명이며 350만명의 반실업자가 있다.

인구의 98%가 회교도이다. 기타 기독교도 및 유태교도가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톨리아통신.

신문 쥼후리예트, 후리예트, 울루스.

끼 쁘 로 스

(끼쁘로스공화국)
Republic of cyprus

끼쁘로스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이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의 3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이다.

【면적】 9,250km²

【인구】 59만 8,000명 (1966년 3월).

주민중 희랍계주민 82%, 토이기계주민 18%이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이다.

【수도】 니코시아 (주민 10만 3,000명, 1965년 10월).

정 치 끼쁘로스는 4세기말에 희랍제국의 령토로되였으며 1571—1878년에는 토이기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191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섬을 완전히 병합하였고 1925년에는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대전후 끼쁘로스의 희랍계주민들은 끼쁘로스의 희랍복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토이기는 끼쁘로스가 토이기와 희랍계인으로 분할통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쟁끝에 1959년 2월에 영국, 희랍, 토이기간에 쮸리히 및 런던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들에 기초하여 1960년 7월 6일 끼쁘로스는 영국과 《독립조약》을, 희랍 및 토이기와 《동맹조

약》을, 영국, 희랍, 토이기와는 끼쁘로스의 독립과 령토완정 및 안전에 관한 《담보조약》을 각각 맺었다. 이 조약들에 따라 영국침략자들은 2개의 군사기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외에 주요지점 30개소에 특수지구를 설정하고 자유로 리용할 권한을 빼앗았으며 희랍군과 토이기군이 끼쁘로스에 주둔하게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헌법》을 강요하였으며 1960년 8월 16일 끼쁘로스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3월 끼쁘로스는 영련방에 가입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 정부, 국가기관들은 희랍계주민 7, 토이기계주민 3의 비률로, 군대는 6 대 4의 비률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과 내각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쮜리히 및 런던협정의 수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에게 많은 권리를 준 현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반대하여 토이기사람인 부대통령 쿠츄크는 끼쁘로스의 분할안을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두 민족간의 대립은 격화되였다. 이를 기화로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의 반동집단을 사촉하여 1963년 12월 22일 두 민족간의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무장충돌을 구실로 영국침략자들은 끼쁘로스 주둔군을 증가하였으며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3월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1966년 6월 7일현재 4천 687명)을 파견하여 끼쁘로스내정에 간섭하고있다. (1966년 12월 15일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군의 주둔기한을 1967년 6월 26일까지 연장) 그후 끼쁘로스는 《동맹조약》의 무효를 토이기에 통고하였으며 토이기는 1964년 8월 끼쁘로스촌락을 폭격하는 등 적대행동을 감행하였다. 무장충돌이 있은이래 니코시아와 기타 토이기계 자치구들에서는 자신들의 비상행정부를 조직 운영하였다.

1965년 7월 23일 끼쁘로스국회에서 희랍계의원들은 대통령 마카리오스의 임기와 현국회의 임기를 5년동안 더 연장할데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선거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토이기계 끼쁘로스인들이 이를 접수하지 않는한 국회에 참가할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토이기계 끼쁘로스인들은 자기들의 자치구의 의원을 선거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부대통령 쿠츄크와 토이기계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였다. 이리하여 정세는 더 악화되여 두 민족간의 충돌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마카리오스대통령은 1966년 9월에 아련을, 10—11월에는 빠나마, 우루과이, 칠레, 에꽈도르, 꼴롬비아 등을 방문하였으며 꼴롬비아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할데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의회】 의원수는 50명 (희랍계인 35명, 토이기계인 15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1960년 8월 16일—), 부대통령 쿠츄크, 외상 키프리아누.

【주민사회의회】 토이기계주민사회의회 (30의석), 희랍계주민사회의회 (26의석)가 각각 설치되여있다. 각 주민 사회의회는 세금징수권, 종교, 문화 등 각 주민사회에 국한된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성립된 공산당, 1941년에 현재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파파이오아노우. **애국전선** 1960년에 성립, 부르죠아지와 교회의 리익을 대표, 지도자 마카리오스. **민족련맹, 민주련맹, 전끼쁘로스로조련맹**(세계직련 가입), **통일민주청년조직**(세계민청 가입).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토이기계인이 농경지의 4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40만 4천 680정보이며 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목화, 보리, 귀밀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철, 동, 크롬 등 지하자원이 많으며 경제에서 채광업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국광물생산량의 70%는 미제독점체들이 차지한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 인민생활은 곤난하며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난다.

아프리카주

아 편

(아랍련합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아련은 본토와 한개의 반도(시나이반도)로 구성되여있다. 전체 령토의 5.6%에 해당하는 시나이반도는 아세아대륙에, 본토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하고있다. 동부는 홍해, 북부는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서부국경지대에는 리비아사막이 펼쳐져 있고 동부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

아련은 열대성기후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지대인 관계로 나일강은 애급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일강하구 동쪽에는 수에즈운하가 있다. 나일강상류지방의 년평균기온은 26.5°C이고 년평균강우량은 1,600mm이상이다. 나일강류역은 비옥하다.

【면적】 99만 4,300km²

【인구】 3,008만 3,400명(1967년 1월)

인구의 90%가 나일강계곡과 삼각주에 살고있다. 주민구성은 비교적 단일하다. 인구의 96%가 아랍인이고 기타 베르베르족 등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종교는 회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수도】 까히라(주민 419만 6,998명, 1966년 7월)

정 치 애급은 기원 4세기말부터 7세기초까지 로마제국의통치를 받았다.

620년대에 아라비아반도 중부에서 창시된 회교가 아랍국가에 전파되면서부터 애급도 회교화되였다.

17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오토만제국의 한개 주로 예속되여 있었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애급을 침략하기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69년 수에즈운하의 개설과 함께 애급을 예속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1882년 애급에서의 대규모적인 반영폭동을 구실로 영국침략자들은 까히라를 완전히 강점하였으며 1899년에는 영—애 조약을 맺고 애급의 전령토를 강점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토이기가 교전국이라는 구실로 1914년 12월 8일 애급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애급인민들의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22년 2월 형식상 애급을 독립왕국으로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1936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애급왕국에 강요하여 저들의 군대를 수에즈운하에 강점시키는 동특권을 인정받는 《영—애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침략자들의 완전철수, 조약의 폐기,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자 애급의회는 1951년 10월 15일 《영—애동맹조약》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1952년 7월 23일 나세르를 위수로한 애급인민들은 친영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18일에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6월 23일 애급인민들은 가말 아브델 나세르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으며 동년 6월 영국침략군을 애급땅에서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애급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70년간의 군사적강점을 종식시켰다.

1956년 7월 26일 수에즈운하에 대한 국유화법령이 발표되였다.

이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애급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감행하였으나 패배당하였다.

1962년 5월 21일—7월 14일에 있은 《인민력량전국대회》는 《민족해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아랍사회주의동맹》을 창전할것을 승인하였다.

1964년 3월 민족회의선거가 실시되였으며 민족회의는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에서는 아랍련합공화국을 《근로인민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였다.

아랍련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나라인민들을 지지성원하고있다.

아련은 아랍련맹의 주요성원국으로서 《아랍통일》을 주장하고있으며 이스라엘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땅을 도로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민족회의】 민족회의는 국가의 최고립법기관이다. 현민족회의는 1964년 3월에 있은 선거에서 당선된 350명의 의원(그중 72명은 로동자출신, 116명은 농민출신, 162명은 기타 계층의 출신)과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있다. 민족회의는 1원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장 안와르 엘 사다트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권도 쥐고있다. 대통령은 민족회의가 추천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선거된다.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 (1965년 3월 15일)

【정부】 현정부는 1967년 6월 19일에 조직되였다. 정부는 수상과 4명의 부수상 및 상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가말 아브델 나쎄르

외상 마흐무드리 야드

국방및국방공업상 모함메드 아브델 비스쉬리

【정당, 사회단체】 1953년 1월에 발표한 정당금지법에 의하여 일체 야당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아랍사회주의동맹** 1962년 7월 인민력량전국대회의 결정에 따라 민족련맹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결성되였다. 1962년 12월에 나쎄르가 동맹헌장을 발표하고 1963년 5월에는 전국적으로 동맹기층조직위원회선거를 진행하였다. 동맹은 《1952년 혁명의 제원칙을 지키며 반동과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력량을 단합》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규정하고있으며 혁명의 6대과업인 《식민주의청산, 봉건의 소멸, 자본의 통치와 독점의 소멸, 사회적평등의 실현, 강력한 국방력의 창설,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생활의 창조》 등을 자기 활동의 최고목표로 삼고있다. 당원수 600 만명 (1964년), 위원장 가말 아브델 나쎄르. **아랍사회주의청년조직, 로조련합회, 전국평화옹호위원회.**

【국내주요사건】 1965년 3월 15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나쎄르가 총투표수의 99.99%의 찬성투표를 받았다. 그리하여 나쎄르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였다.

1966년 5월 26일 나쎄르대통령은 농촌에서의 진보적개혁실시를 위한 아련정부의 정책에 적대적태도를 표시한 국내 17개주의 대지주 88명의 돈과 재산을 압수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2월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1년 7월에는 총령사관계를, 1963년 3월 21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5년 5월에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아련을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아련정부통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같은해 11월 8일 까히라에서 조선중앙통신사와 아련의 멘통신사간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6년 6월 25일—7월 26일까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아련을 친선방문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3월 아련과 웰남민주공화국은 외교대표부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4월에는 민주독일과 총령사관계를 맺고 초대총령사를 임명하였다.

1965년 8월에 나쎄르대통령이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1966년 5월에는 쏘련내각수상 알렉쎄이 꼬씌긴이, 같은해 11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 끼부 쓰또이까가 각각 아련을 방문하였다.

아. 아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1월 아련정부는 까히라주재 꽁고(킨) 대사관을 페쇄하고 이 대사관 관원들의 출국을 명령하였다. 12월에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인종주의도당과 경제관계를 단절하였다.

1966년 3월 14—17일에 까히라에서 아랍국가수상회의가 열렸다. 아랍국가수상들은 결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공급을 규탄하였으며 서독군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나쎄르대통령은 탄자니아를 공식방문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 강화문제, 두나라간에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뛰니지에서 1965년 4월에 자국대사를 소환하고 1966년 10월에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1966년 11월 4일 아련과 수리아간에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까히라에서 아련, 수리아, 알제리 등 3개국 지도자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는 아랍동방의 정치정세, 세 나라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12월 11일 아련정부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결정에 따라 로데시아에 대한 영제국주의정책에 항의하여 영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아련주재 영국대사관을 철수시켰다. 1965년에 아련정부는 1956년 프랑스침략군의 수에즈침략후에 몰수한 프랑스 재산을 변상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말부터 개시한 아련정부의 반미깜빠니야와 관련하여 미제는 아련에 식량《원조》를 중지하는 등 경제적압력을 가하였다. 1966년 7월 14일 애굽혁명 14주년기념집회에서 나쎄르대통령은 《우리는 미제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획득한 자유를 수호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제가 아련에 강요하고있는 《기아전쟁》을 규탄하였다.

경 제

아련정부는 공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이미 형성된 국가자본에 의거하여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않는 자립경제를 건설하여 외부의 정치, 경제적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힘쓰고있다.

아련은 제1차 5개년계획 (1960/1961—1964/1965년) 기간에 국민총생산액을 25억 4천 790만 애급파운드로부터 34억 7천 410만 애급파운드로 장성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각종 공업기업소는 850개 건설되였으며 공업생산액은 78% 농업생산액은 83% 장성하였다.

국민소득은 12억 8천 520만 애급파운드(1959—1960년도의 가치로) 즉 37% 장성하였다.

1965—1966년도 공업생산은 14억 7천만애급파운드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전년에 비해 6천만애급파운드의 증대를 가져온것으로 된다. 이로써 공업은 국민소득에 3억 8천 500만애급파운드를 기여하였다.

주요공업제품생산량

	1960	1964	1965
전력 (10억 kwh)	2.6	4.4	
원유 (천t)	3 319	6 550	7 500
철광석 〃	249	480	
선철 〃	143	225	
강철 〃	257	372	
압연품 〃	281	320	
세멘트 〃	2 047	2 400	2 400
비료 〃	443	850	
면사 〃	105	125	450
면직물 〃	64	78	88.8

주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여 120만페단(1페단은 0.42 헥터)의 토지가 유상으로 몰수되여 33만 2천호의 농가에 분배(1964년)되였다.

농업생산액은 1951—1952년도에 4억 4천300만애급파운드였다면 1964—1965년도에는 6억 7천 900만애급파운드로 증대되였다. 이리하여 아련의 농산물 수출액은 대외수출액의 70%를 차지하게 되였다.

아련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약 21만 9천헥터의 경지면적이 늘었다. 아련의 총경지면적은 270만헥터이며 파종면적은 보통 460만헥터이다.

아련은 식민주의가 남긴 후과인 목화생산에만 치우치던 현상을 극복하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점차 력량을 기울이고있다. 지금까지 아련에서는 목화파종면적이 총경지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농업총생산액에서 30~55%를 차지하였다. 목화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1위이다.

1965년에 밀은 157만 9천톤, 쌀은 230만톤, 옥수수는 199만 9천톤, 보리는 14만 5천톤 생산되였다.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가금업을 포함)이 차지하는 몫은 20~23%에 달하였다. 1963년에 뿔난집짐승은 380만마리, 양은 170만마리, 당나귀는 100만마리, 가금은 약 7천 500만마리가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목화, 옥수수, 땅콩 등)과 면직물, 원유, 다이야, 사탕 등이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목화(수출액의 약 70%)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흑색금속, 원유 및 그 제품, 석탄, 콕스, 종이, 밀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중국, 민주독일,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일본,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다.

1965—1966년도에 방직, 화학, 금속, 식료, 건재공업부문에서 6천 380만 5천애급파운드의 생산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였다. 1965—1966년도에 38만 5천톤의 목화를 수출하였다.

화폐단위는 애급파운드이다.

1966년의 수에즈운하통행료수입은 9천 516만 7천 660애급파운드였으며 운하를 통과한 선박수는 2만 1천 250척이였다. 정부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1965년 11월부터 포드사이드를 자유항으로 선포하였다.

사회, 문화

아련에서 초등의무교육제와 일부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가 실시되고있다.

회교가 국교임으로 학교교육에서는 회교를 기본과목으로 정하고있으며 까히라에 세계최대의 회교대학이 있다.

1965—1966년도의 학생수는 400여만명이다. 그중 대학생수는 13만명, 각종 기술학교학생수는 40여만명, 초중 50여만명, 인민학교 학생수는 32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경영하는 병원과 진료소수는 1952년의 420개소로부터 1964년에는 1천 421개소로, 그 침대수는 2만 1천 440대로부터 4만 7천 716대로 늘어났다.

젖먹이들의 사망률은 1952년에 1천명에 136명이였는데 1963년에는 105명으로, 아동사망률은 20명으로부터 15.8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민의 약 91%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중근동통신사(멘통신)

신문 아랍어: 알 굼후리아, 알 아흐람, 알마싸, 알 아흐바르,
영어: 에집션가제트.
프랑스어: 르 쥬르날 에짚트.

방송 아련방송국과 중근동지역의 어데서나 들을수 있는 1,000kw의 출력을 가진 중동방송국(1964년 3월부터 개시)이 있다.

수 단

(수단공화국)

Republic of Sudan

아프리카동북부에 있다. 아련, 리비아, 챠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꽁고, 우간다, 에티오피아와 각각 접경하고있으며 서부는 홍해에 면해있다. 북부는 누비아사막과 산지이고 중앙지대에 나일강이 흐르고있다.

【면적】 250만 5,823km²

【인구】 1,318만명(1964년)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북부주민은 아랍인과 혼혈인(아랍인과 흑인)이며 회교도들이다. 약 30%를 차지하는 남부주민은 흑인이며 기독교도 및 원시교도들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신자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하르툼(주민 약 13만명)

정 치

13세기에 수단은 아랍인들에게 강점되였다. 19세기 70년대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수단에 침입하여 1877년에는 영국놈총독이 임명되였다.

1881년 수단인민은 모하메드

마흐므드의 지도하에 영국침략군을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켰으며 영국총독을 살해하고 1885년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영제국주의자들은 1899년에 애급에 강요하여 수단에 대한 영국과 애급의 《공동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수단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946년 3월 수단의 모든 정당들이 하르툼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관리》의 종식과 영국침략군대의 철퇴, 수단과 애급의 정치적련합, 《민주주의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1951년 10월 애급은 일방적으로 영국—애급《공동관리》 협정을 폐기하였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1953년 2월 영국과 애급은 까히라에서 수단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3년기한의 《과도기》를 설정한 다음 자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4년 1월 수단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1955년 11월 수단인민들은 영제국주의침략군을 몰아내는 등 오랜 반영투쟁의 결과 1956년 1월 1일 수단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2월 민족련합당 아즈하리(국가최고위원회 위원장)를 위수로 하는 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다.

1958년 11월 륙군총사령관이였던 아뿌드가 정변을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의 분렬책동에 의한 남부의 흑인폭동(1955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남북간의 반목은 군사정권 수립후 더욱 격화되였다.

1963년말과 1964년초에 미영선교사들이 남부를 북부와 분렬시키려는 반정부음모를 꾸민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300명의 미영선교사들을 몰아냈다. 1964년 10월 남부수단문제를 토의하는 하르툼대학생들과 이들을 해산시키는 경찰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학생들의 투쟁이 반정부폭동으로 확대되여 아뿌드정권은 전복되고 10월 30일 할리파를 수반으로 하는 림시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군사정권시기에 있었던 악법들을 청산하고 국내에서 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수단독립이래 남부수단문제는 국내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남부수단을 수단에서 분리시켜 우간다와의 통합의 구실하에 소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북부인민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킴으로써 남북인민들간에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였으며 이 지역의 흑인단체들을 사촉하여 무장폭동을 빈번히 조작하였다.

정부는 《자결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적방법으로 남북의 총선거를 실시하는것으로 남부수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1965년 12월 17일 수단정부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지지하는 영제국주의와 외교관계를 끊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5년 5월 수단정부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것과 관련하여 서독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1966년 4월 정부는 아덴으로 가는 미제의 군용비행기들의 수단비행장리용을 금지하였다.

1966년 5월 15일에 1만 5천여명의 수도 시민들은 미제와 유태인 배타주의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미제를 타도하라!》, 《팔레스티나 인민은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하였다. 6월 23일 수단외무성은 미제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있는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31일, 9월 2일, 9월 8일 등 수차례에 걸쳐 수단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는 군중집회들을 가졌다.

【최고리사회】 국가수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원은 5명이다.

의장 이스마일 알 아즈하리

【민족회의】 1965년 4—5월에 선거되였다. 선거결과 《알 움마당》 74석, 민족련합당 53석, 공산당 11석, 종교단체 11석, 회교전선 5석, 인민민주당 5석, 무소속 15석, 공석 11석

【정부】 1967년 5월 29일에 《알 움마당》과 민족련합당대표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모하메드 아흐메드 마흐쥬브(외상겸임, 알 움마당)

【정당】 **공산당** 1946년에 창건, 총비서 아브둘 할레크 마흐쥬브 1965년 11월 15일 비법화. **《알 움마당》** 1945년에 창건, 현집권당, 대토지소유자들과 회교도들의 리익을 대변. 위원장 엘 사에드 세디크 엘 마흐디 **민족련합당** 1942년에 창건되였으며 《알 움마당》과 함께 련립정부를 구성하고있는 현집권당이다. 위원장 이스마일 알 아즈하리, 도시인테리, 민족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하면서 아랍국가들과의 긴밀한 뉴대를 주장한다. **인민민주당** 1956년 6월에 창건, 민족련합당에서 분렬되여 나온 당원들로 구성된 종교정당. **《회교전선》** (반동적종교기구), **민족통일전선** 1953년 의회선거시에 각 정당, 사회단체들로 결성. **사회민주주의대회당** 1965년 3월에 창건. 진보적인테리들이 망라. **로조련합회**, **게지라농민협회**, **하르툼학생회**.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총경지면적은 710만헥타이며 그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에 목화를 재배하고있다. 목화생산의 중심은 백나일강과 청나일강과의 사이—게지라지역이다.

그외에 사탕수수, 아라비아고무, 땅콩 등이 생산된다.

광물자원으로는 금, 동, 석유, 우라늄, 연, 철광, 석고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일부 농산물 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착유공장, 양주공장, 통졸임공장, 제분공장,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가죽공장, 제탕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무역총액중 70%는 목화수출에 의한 것이며 기타 수출품으로는 아라비아고무, 땅콩 등이며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서독, 인도, 아련이다.

나라의 경제명맥은 미, 영 독점재벌이 틀어쥐고있다. 독립후 수단은 경공업 및 식료품공업의 창설과 목화재배의 확장에 주력하면서 국영경리를 확장하였다. 국가의 수중에 교통, 체신수단, 목화재배원, 관개체계, 규모가 큰 편의시설들이 장악되여있다.

경제개발 10개년계획(1962—1971년)을 수립하였으며 이 기간에 총 5억 6천 500만수단파운드의 투자를 예견하고있다.

한편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소비품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화페단위는 수단파운드이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80%가 문맹자였으나 독립후 교육문화도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1960—1961학년도에 수단에는 33만 7천명의 학생을 가진 2천 551개의 보통학교가 있었으며 4만 3천 300명이 공부하는 174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다. 또한 3천 100명이 공부하는 21개의 기술학교와 1천 230명이 공부하는 9개의 사범전문학교가 있다. 하르툼에는 하르툼종합대학을 비롯하여 3개의 대학이 있다.

【출판】 신문 에르 디우라(정부기관지), 에르 라이 아르암, 사우드 에르 수단, 에르수단.

리 비 아

(리비아왕국)
Kingdom of Libya

아프리카대륙의 북부에 위치하여 지중해에 면해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며 강이 없다.

【면적】 175만 9,540km²

【인구】 156만 4,360명(1966년 5월)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이딸리아인, 희랍인 등도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트리폴리(주민 20만 2,000명, 1963년), 벵가지(주민 8만 4,000명, 왕의 거처지), 베이다(국회와 일부 정부기관들이 있다), 정부기관은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정 치

리비아는 립헌군주국이다. 19세기초에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11—1912년의 이딸리아, 토이기전쟁결과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과 대전후 영국과 프랑스의 강점하에 있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되였다.

1963년 4월 29일 리비아는 련방제를 없애버리고 중앙집권제국가로 되였으며 나라이름을 《리비아왕국》으로 고쳤다.

1953년에 영제국주의자들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미제와 《기지협정》(20년기한)을 맺고 군사기지와 군대주둔권을 주었다. 미제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핵로케트기지인 헬루스 공군기지를 이 나라에 건설하고 1만 2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트리폴리, 키레나이카, 벵가지 등지에 대규모의 침략적 륙해공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외국군사기지의 철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지자 1964년 3월 16일 국회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은 《우호동맹조약》과 미제와 맺은 《기지협정》을 페기하고 미영침략군의 모든 군사기지와 군대들을 철수할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정과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에 의하여 침략자들은 1965년 12월부터 쫓겨나가기 시작하였다.

1965년 5월 리비아는 아랍국가들에 적대적정책을 실시하는 서독으로부터 자기나라의 대사를 소환하고 서독군국주의자들로부터 받기로된 3천만마르크의 차관을 거부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이드리스 엘 시누시 1세(1951년—)

【국회】 량원제. 상원은 20명(절반은 국왕이 임명, 절반을 지방의회에서 선거), 임기는 8년, 4년마다 반수를 개선. 하원의 임기는 4년, 1965년 5월에 선거.

【정부】 1965년 10월 2일에 구성. 수상 후쎄인 마제크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없고 트리폴리에 로동조합총련맹(약 4만명 망라, 1962년 창건)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는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농경지면적은 약 390만헥터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이딸리아를 비롯한 1천 400개의 외국인농장이 차지하고있다.

농작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남새, 포도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린산염, 철, 주석, 망간,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석유의 채취와 수출은 미, 영, 프랑스, 서독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1962년현재 14개의 미제의 독점회사를 포함한 21개의 외국회사들이 3분의 2의 령토에서 각각 50년간의 석유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식료, 방직, 제혁, 세멘트공장이 있으나 공업은 나라의 총생산액에서 10%에 불과하며 공업의 약 80%가 트리폴리와 벵가지에 집중되여있다.

석유의 대대적인 채굴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든 결과 농업생산은 급속히 줄어들고있다. 식량의 절반을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수출액의 98%), 땅콩, 올리브기름, 집짐승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

국, 이딸리아, 미국, 서독 등이다.

리비아는 파운드지역에 속한다. 화페단위는 리비아파운드이며 1리비아파운드는 100피아스트르 (영파운드와 같음)이다.

주민의 40%는 유목민 및 반유목민이다. 문맹자는 주민의 90% 이상이다.

뜌니지

(뜌니지공화국)

Republic of Tunisia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에 면해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리비아 및 알제리와 접하고있다. 국토의 약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북부의 년평균강우량은 600~800mm, 중앙부는 400mm이하, 남부는 200mm이하이다.

【면적】 12만 5,200km²

【인구】 449만 4,000명(1964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회교도들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뜌니스(주민 약 70만명)

정 치 오로만제국의 속령이였던 뜌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883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히틀러독일의 강점하에 있었으며 1942—1943년에는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뜌니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여 1954년 8월부터는 무장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뜌니지는 1955년 6월 자치권을 획득하였고 1956년 3월 20일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에는 군주제도를 페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에도 뜌니지를 계속 강점하고있으면서 내정간섭을 하고있던 프랑스침략군대는 1963년 10월 15일 비제르따기지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났다.

1964년 5월 11일 뜌니지국회는 만장일치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국인소유토지의 국유화법안을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뜌니지에서 일하던 프랑스인 농업전문가들은 철수되였다.

【민족회의】 1원제이며 의원수는 90명, 임기는 5년이다. 1964년 11월 선거에서 데스투르사회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였다. 민족회의 의장 사도크 모카뎀(1966년 10월 17일 재선)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내각수반이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64년 11월 재선), 외상 하이브 부르기바 쥬니아, 국무상 봉기슬림.

【공화국리사회】 이 리사회는 1966년 11월 18일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공화국 대통령이 그 심의에 제출하는 문제들을 토의한다. 리사회는 공화국대통령이 소집하고 지도한다. 리사회에는 정부성원들과 데스투르사회당 정치국위원들이 망라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 1월에 비법화, 총비서 모함메드 엔나파. **데스투르사회당** 1934년에 조직된 정당, 1964년 11월에 네오데스투르당을 현재이름으로 고침,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집권당이다. 위원장 하비브 부르기바. **로동자총련맹, 공업및상업련맹, 농민련맹, 대학생련맹, 녀성련맹, 자유평화위원회.**

【주요사건】 1965년 4월 아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서독군국주의자들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것을 아랍국가들에 호소하였을때 뜌니지는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주장하면서 아련의 호소를 거부하였으며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화해하여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1966년 7월 뜌니지대통령 부르기바는 서독을 공식방문하였으며 10월 3일에는 아랍련합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뜌니지는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국민총생산액중 농업이 80%, 광공업이 20%를 각각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올리브, 귤, 포도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올리브유, 밀, 각종 광석 등이며 수입품은 섬유제품과 기계류, 설비품, 연료이다. 주로 구라파 《공동시장》 나라들과 무역을 한다.

화페단위는 뜌니지디나르이다.

외국인토지국유화법이 발표된 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2억 1천만프랑의 1964년도《원조》를 중단하자 이에 대처하여 뜌니지는 의무국채법을 발표하였다.

1964—1965학년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62만 7천명이였다. 1959년에 뜌니지대학이 개교하였다. 회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뜌니지아프리카통신사(1961년 11월 설립)

신문 아스 사바흐(데스투르사회당기관지), 쥰 아프리크(아프리카전문주간지).

알제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Democratic and peoples Republic Algeria

아프리카의 서북부에 있다. 남부는 사하라사막이다. 북부연해지대는 해양성기후이며 남부사막지대에서 여름기온은 평균 35~

42°C인데 가장 추운 밤에는 -6°C까지 내렸다가 낮에는 53~70°C까지 올라간다. 연해지대의 년평균강우량은 500~1,000mm이다.

【면적】 238만 4,741km²

【인구】 1,209만 3,000명(1966년 11월)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랍족(60%), 베르베르족(30%)이며 인구의 약 90%는 북부지중해연안에 집중되여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알제(주민 96만명, 1964년초)

정 치

알제리는 1520년 오토만제국에 강점되여 그의 한개주로 되였으며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은 제2차대전후에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부터 산간지대에서 첫 유격부대가 출현하여 도처에 비밀지하단체를 조직하였다. 1954년 8월에 《단결및행동혁명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그 이름을 민족해방전선으로 고쳤다.

1954년 11월 1일 민족해방전선의 지도하에 30여개 지역에서 무장투쟁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1955년에 알제리 전지역에 확대되였다.

1958년 9월 민족해방전선은 까히라에서 알제리공화국을 선포하고 림시정부를 조직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전쟁에 약 80만명의 병력과 83억딸라의 군사비를 밀어넣었다. 미제는 프랑스에 42억딸라의 군사원조와 프랑스침략군대장비의 75%를 제공하였으며 서독군국주의자들은 3만 5천명의 《외인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였으며 20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1962년 3월 18일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알제리인민은 7년간에 걸친 무장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자결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 투표자수의 99.29%가 독립에 찬성투표하였다. 7월 5일 알제리는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28일에 정부를 조직하였다.

프랑스침략군은 1964년까지 쫓겨났으며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침략군용시설도 빼앗겼다.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26명으로 구성(1965년 6월 19일)되였다.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정부】 현정부는 1965년 7월 10일 20명으로 구성.

수상 겸 국방상 후아리 부메디엔, 외상 아브델 아지즈 부테플리카.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당** 1954년에 민족해방전선으로서 창건되였다가 1963년 법령에 의하여 유일한 집권당으로 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알제리인민의 반프랑스투쟁을 지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4년 4월 제1차당대회를 소집하고 당강령으로 《알제헌장》을 채택하였다. 강령은 알제리가 민족민주주의혁명을 거쳐 독자적인 아랍—이스람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지적하고있다. 1965년 7월 17일 당조직개편사업과 당의 정상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당집행서기국이 창설되였다. **근로자총동맹** 1956년 2월 24일에 창설, 민족해방전선의 지도를 받는 유일한 직맹조직, 1963년 7월 25일 국제자유로련에서 탈퇴. **전국녀성동맹** 1963년 1월 21일 조직. **전국학생동맹**

【국내주요사건】 1965년 6월 19일 혁명리사회가 수립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벤벨라를 그 직책에서 해임하였다.

7월 5일 제1부수상겸 국방상이던 후아리 부메디엔이 혁명리사회 의장으로 되였고 7월 10일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7월 12일 수상 부메디엔은 성명에서 국내정책은 개인권력람용의 후과를 청산하고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대외정책은 쁠럭불가담정책이며 이 정책은 아랍—마그레브의 창설과 아랍통일 및 아프리카통일의 실현 그리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련계의 공고화를 촉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966년 1월 알제리정부는 《국립도서출판및보급협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7일 후아리 부메디엔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 의한 4만 5천명의 알제리인대학살사건 21주년에 제한 방송연설에서 알제리정부가 지금까지 외국인개인회사에 속해있던 모든 탄광과 광산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언명하였다.

11월 내각은 사하라사막지대에 있는 주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결정에는 이 주들에서 행정기구를 강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수리화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여있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알제리는 1958년 9월 25일 우리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4년 9월 16일에 문화협정이, 같은해 10월 23일에는 무역및 지불협정이 체결되였다. 1965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사와 알제리통신사간에 보도교환및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5년 10월 우리 나라정부무역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5년 4월과 12월에 후아리 부메디엔수상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5월 14—19일에 기네당및 정부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한데 뒤이어 19—22일에는 알제리 당 및 정부대표단이 기네를 방문하고 공동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보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독립을 공고히하기 위해 반제전선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

고 식민주의 억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중지, 제네바협정의 준수만이 이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태를 회복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알제리정부는 1965년 5월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서독군국주의자들과 12월 19일에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지지하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각각 끊었다.

1967년 6월 6일에는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침략할때 침략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알제리의 기본경제부문은 채굴공업과 농업이다.

독립전에는 외국자본 특히는 프랑스독점자본이 이 나라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있었다. 독립후 정부의 사회, 경제적개혁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프랑스식민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370만헥터가 국유화되여 농민들에게 분여되였다. 국유화된 모든 토지는 빈농과 고농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에 넘겨 농민들이 경작하도록 하였다. 국유화된 450개의 기업소는 《로동자위원회》가 관리하고있다. 1964년초에는 대기업소, 려관, 식당 등이 국유화되였으며 그해 8월 27일에는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반역자들과 투기업자들의 재산이 몰수되였다. 1965년 5월 27일 정부는 운영되고있지 않은 61개의 외국광산들에 대한 리권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전체 경지면적 약 710만헥터중 알곡파종면적은 약 400만헥터, 포도재배면적은 40만헥터이다. 1965년에 알곡(밀, 보리, 귀밀)은 186만톤, 포도는 220만 6천톤, 올감자와 일년감은 37만 4천톤이 생산되였다.

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채취공업이다. 채취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1964년에 철광석은 270만톤, 아연은 6만 4천 264톤, 연은 1만 3천 643톤, 동은 3천 900톤 생산되였으며 1963년에 천연가스는 3억 9천 480만톤이 생산되였다.

원유매장량은 약 9억 6천만톤(1965년)이며 생산량은 1959년의 120만톤으로부터 1964년에는 2천 60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알제에 250만톤능력의 정유소가 있다. 알제리정부는 새로운 국영석유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있다. 사하라의 석유공업중심지 하우드얼함자와 지중해를 련결하는 800키로메터의 제3송유관이 1966년 2월 14일 준공되였다.

독립전에 알제리대외무역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독점되고있었다. 알제리—프랑스간의 무역은 알제리대외무역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가가 식용유, 차, 과일, 남새 등의 수출을 독점하게 되였다.

알제리의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포도주(수출의 72%), 귤, 올리브, 철광석, 가죽, 남새 등이며 수입상품은 기계, 공업제품, 사탕, 종이, 강철, 석탄 등이다.

화폐단위는 디나르(1964년 4월부터)이다. 1966년 1월현재 100디나르는 18루블리 23꼬뻬이까이다.

독립후 알제리정부는 학교들에서 교육의 아랍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정부는 입학범위를 넓히고 장학금을 제공하고있으며 문맹퇴치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있다.

1964년에 소학교는 4천 344개, 중학교 및 중등전문기술학교는 528개, 대학은 11개가 있었다.

1962년에 초등학교학생수가 75만명이였다면 1965—1966학년도에는 그것의 2배로 증가하여 150만명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에 중학교학생은 1만 1천 760명으로부터 4만 4천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생은 1962년에 700명이였다면 1966—1967학년도에는 8천명으로 불었다.

【출판】 통신 알제리통신 (에이피에스).

신문 레볼루시옹아프리켄(민족해방전선당기관지), 《엘 무자히드》(정부기관지).

방송 알제방송(국영)

마로끄

(마로끄왕국)

Kingdom of Morocco

마로끄는 아프리카 서북쪽에 위치하며 지중해와 대서양에 면해있다. 북부의 지중해연안은 산지이고 대서양연안은 비옥한 평야이다. 서부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며 동부산악지대와 남부산악지대의 여름기온은 35～45°C, 년평균강우량은 400mm정도이다.

【면적】 44만 5,577km²

【인구】 1,332만 5,000명(1965년)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 절대다수이며 그외에 프랑스인 약 13만명과 유태인들이 있다.

【수도】 라바트(주민 26만 2,000명), 탄지르(1962년 1월부터 여름수도로 결정)

정 치 마로끄에는 원래 베르베르족이 정착하여 살고있었는데 7세기중엽부터 아랍족이 들어와 살기시작하였다.

19세기 4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마로끄는 1912년 3월 30일에 체결된 프랑스—마로

끄간의 《페즈조약》으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23년 12월 18일에 빠리에서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는 마로끄의 탄지르지역을 소위《국제관리》지구로 만들었다.

1944년 독립당결성이래 독립운동이 전개되였고 1951년 4월 《마로끄민족전선》이 결성됨으로써 마로끄에서의 반프랑스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1951년 11월 10일 카사블랑카에서, 1953년 1월 23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반프랑스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1955년에는 유세프왕의 복귀를 요구하는 투쟁이 전국각지에서 확대되였다.

1955년 11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벤 유세프왕을 복귀시키고 1956년 3월 2일 마로끄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에스빠냐령마로끄도 이해에 귀속되였으며 10월에는 탄지르지역의 《국제관리》도 철폐되였다. (1960년 4월 마로끄에 통합)

1957년 6월 마로끄에서의 프랑스의 치외법권도 철폐되였다.

1957년에 종래의 나라이름인 《크메리미왕제국》을 《마로끄왕국》으로 고쳤다.

1961년에 왕으로된 하싼 2세는 1962년 3월에 전력, 철도, 은행등 기간산업의 국유화정책을 발표하였다. 그해 12월 국민투표로 첫헌법을 제정하고 립헌왕국으로 되였다.

1963년 5월초에 헌법에 근거하여 진행된 총선거에서 왕당파의 여당인 립헌제도옹호전선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선거는 여야당간의 류혈적인 충돌을 빚어냈다.

특히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좌파인 인민력량전국련맹과 우파인 독립당의 대립이 계속되였고 정부도 여러번 개조되였다.

1965년에도 여야당간의 분규와 그리고 로동자들의 파업, 학생들의 반정부진출이 빈번히 일어났다.

국왕은 1964년에 반역죄로서 체포되였던 인민력량전국련맹지도자들을 1965년 5월까지 다 석방하였다.

6월 8일 국왕 하싼 2세는 《민족적단결을 이룩하자는 자기의 호소가 호응을 받지못하고 자기의 정치강령에 대해서 정당들로부터 부정적대답을 받았다》는 리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립법권과 행정권을 직접 자기가 장악하였다. 그 결과 립헌제도옹호전선의 내분과 각 정당간의 충돌은 더욱 표면화되고 심각해졌다.

1965년 6월 국왕이 국회사업의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국회는 해산되였다.

1965년 10월 빠리에서 인민력량전국련맹 지도자인 벤 바르까의 랍치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마로끄와 프랑스는 1966년 1월 서로 대사를 소환하였다.

마로끄왕 하싼 2세는 국왕취임 6주년기념식전에서 《마로끄의 대외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자주권과 그 나라들의 대내적지배형태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 및 국제무대에서의 그 나라들과의 협조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국왕】 물라이 하싼 2세(1961년 3월—)

【국회】 량원제이다. 하원의원은 120명, 그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의원은 120명, 임기는 6년인데 3년마다 3분의 2씩 개선한다. 국회는 1965년 6월 비상사태 선포후 해산되였다.

【정부】 현정부는 1967년 7월 6일 구성.

수상 모하메드 벤히마, 외상 아호메드 알아라피, 국방상 하두 치구에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창건되였다가 1943년에 독자적정당으로 발족, 1960년에 비법화. **립헌제도옹호전선** 1963년 3월에 인민운동당, 민주립헌당, 자유당이 선거통일전선으로 결성, 보수적인 왕당파로서 대부르죠아지와 봉건령주의 리익을 대변. **민주사회당** 1964년에 조직. **독립당** 1944년에 결성되여 마로끄독립운동을 진행하였으나 독립후 우익정당으로 전락, 1959년이후 당내 분파투쟁이 치렬, 대부르죠아지와 중류급부르죠아지들로 구성. **인민력량전국련맹** 1959년에 결성, 좌익적인 민주주의정당으로서 중소부르죠아지와 항쟁운동참가자들의 리익을 대변. **로동련맹, 근로자총련맹, 청년련맹, 대학생련맹.**

경제, 사회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마로끄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프랑스제국주의독점자본의 통제하에 있으며 미국, 서독, 이딸리아의 제국주의독점자본도 침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500만헥터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포도, 올리브 등이다.

남부지대는 목축업이 발전하고 있다.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취공업, 화학공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무연탄, 철광석, 망간, 연, 아연, 코발트 등이 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구라파《공동시장》참가국들과 미국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도 거래한다.

1965년도 무역총액은 51억 6천 700만디르함이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통졸임, 밀, 보리, 옥수수, 망간, 린회석이다.

화폐단위는 마로끄디르함이다. (100마로끄디르함은 17루블리 78꼬뻬이까)

1960년에 주민의 86.2%가 문맹자였다.

【출판】 14개의 일간신문이 있는데 그중 7개는 아랍어로 출판된다. 알 앙바(정부기관지),

이프니
(에스빠냐식민지)

마로고의 서남쪽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서양에 면해있다.

【면적】 1,500km²

【인구】 약 5만 4,000명

【행정중심지】 시드 이프니(주민 약 1만 1,000명, 1961년)

1860년에 에스빠냐에 강점(원래 마로고령토)되였으며 1958년에는 에스빠냐의 한개 《주》로 되였다.

1956년에 마로고가 독립한후 이프니인민들은 마로고에의 귀속을 요구하고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목축업과 어업을 하고있다. 농작물은 밀, 보리와 과실이다.

이 나라의 경지면적을 본다면 보리는 2만 5천헥터, 밀은 4천 100헥터이다.

염소, 양, 뿔난집짐승 등을 기른다.

에스빠냐령사하라

마로고의 서남쪽에 위치하고있으며 세기에 엘 하므(8만 3천km²)와 리오 데 오로(19만km²)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27만 3,000km²

【인구】 약 7만명(그중 유목민 약 3만명)

【행정중심지】 빌라시스네로스(주민 약 3,000명)

1916년에 에스빠냐는 사하라에 식민지통치제도를 수립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최근년간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마로고와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사하라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있는바 1958년 초에는 이곳 인민들의 폭동이 있었으며 1961년 3월에는 남부마로고와의 접경지대에서 무장투쟁이 전개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유목이다. 주요 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이다.

오아시스에서는 보리, 밀, 올리브를 재배한다.

최근에 린회석, 철광석, 카리염, 동 등 지하자원이 발견되였다. 1960년 6월에 미제독점석유회사가 석유탐사권을 앗아냈다.

모리따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La Republique Islamique de Mauritanie

모리따니는 서부사하라사막의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세네갈강까지, 서쪽으로는 에스빠냐령 사하라와 알제리, 동쪽으로는 말리와 접경하고 있다.

기온은 평균 연해에서 20~30°C이며 내지에서는 30~35°C이다. 강우량은 200~600mm이다.

【면적】 116만 9,000km²

【인구】 120만명(1966년)

주민의 75%는 아랍인들과 혼혈한 베르베르족이고 나머지 40%는 흑인종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회교를 믿는다. 헌법에는 국어를 아랍어로, 공용어를 프랑스어로 규정하였다.

【수도】 누아크쇼트(주민 8,000명, 1964년)

정치 11세기초엽에 베르베르족이 북부로부터 들어와 모리따니에 정착하였다. 모리따니는 15세기부터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입을 받았으며 1920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모리따니인민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영용한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결과 1958년 11월 이 나라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11월 28일에는 《프랑스공동체》내의 독립국으로 되였다.

1964년에 정부와 모리따니인민당은 유일당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4년말에 인민당 국회의원단이 제출한 유일당제법안은 1965년 2월에 채택되였다.

모리따니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지지하며 자유애호국가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64년 11월 모리따니는 우리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고 1965년 9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모리따니는 1964에 쏘련, 1965년에는 중국, 로므니아, 민주웰남,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 웽그리아, 뽈스까와 각각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촘베도당이 아프리카—말가슈 공동기구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이 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9월에는 장개석도당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12월에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백인인종주의도당을 지지하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립장을 취하고있으며 그들의 경제적침투를 제한하며 정치적간섭을 배격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모리따니는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민족회의】 1원제. 의원은 40명, 임기는 5년, 현민족회의는 1965년 5월 9일 선거, 전원이 인민당당원이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1966년 8월 8일 재선), 외상 완비란 마마두

【정당, 사회단체】 모리따니인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1961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전국근로자련맹.

경제, 사회 모리따니는 땅이 넓고 인구는 적으나 경제적전망이 많은 나라이다. 남부의 세네갈강류역은 비교적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

주요농산물은 조, 종려, 옥수수, 밀, 땅콩, 당콩 등이다. 조의 년간 생산량은 10만톤이며 종려나무는 80만그루가 있다. 그밖에 전통적수출품인 아라비아고무의 년생산량은 3천여톤이다.

철광, 동광, 크롬광, 석유, 바나디움, 티탄 및 록보석이 이미 발견되여 채굴되고있다. 특히 철광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합자회사인 《모리따니 철광회사》(모리따니,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합자)는 1960년부터 포르구로일대의 철광석(매장량 2억톤, 광석품위 평균 64%)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64년에 450만톤의 철광석을 채굴하였다.

주민의 4분의 3이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1964년에 뿔난집짐승은 144만 7천마리, 양과 염소는 1천 800만마리, 락타는 50만 5천마리, 당나귀는 18만 5천마리가 있었다.

모리따니에서는 년간 25~30만톤의 물고기를 잡고있다.

화폐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독립후 교육이 발전하였다. 독립후 6년동안에 중학교 학생수는 2천 200명으로부터 2만 7천 500명으로 늘어났으며 중학생수는 300명에서 1천 500명으로 되였다.

1964년에 수도 누아크쇼트에 교원대학이 설립되여 1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있었다.

말 리

(말리공화국)
La Republique du Mali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부지대의 중심에 있는 나라로서 북부는 사하라사막을 사이에 끼고 알제리와 서북쪽은 모리따니, 남쪽은 기네, 상아해안, 상부볼따, 서쪽은 세네갈, 동쪽은 니제르와 접하고있다.

년간강우량은 북쪽사막지대에서 200mm를 넘지못하나 기타 지역에서는 700~1,000mm 내외이다.

년평균기온은 35°C인데 가장 더운 4—5월경에는 42°C까지 오른다.

【면적】 124만 150km²

【인구】 457만 6,000명(1965년)

반바라족, 프라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종족 등 30여개의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지방에서는 반바라어(민족어)를 비롯하여 종족어가 많이 사용된다.

【수도】 바마코(주민 약 13만 5,000명, 교외까지 포함하면 약 35만명).

정 치 수단(오늘의 말리)은 16세기말에 가나왕국에서 갈라져 독립국으로 되였다. 19세기 5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95년에 그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6년 《반자치제》가 실시되였다가 1958년 11월 24일 《프랑스공동체》내의 《반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에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으며 1960년 6월 20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같은해 8월 20일 프랑스제국주의의 사촉하에 세네갈이 련방에서 탈퇴함으로써 말리련방은 해체되였다.

1960년 9월 22일 수단련맹당 비상대회는 나라의 이름을 말리로 고치고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였다. 말리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폐기하고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식민지경제기구들을 폐지하고 1961년 9월까지 말리에 있던 프랑스침략군 군대와 관리들을 몰아냈으며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을 철수시키고 민족군대를 창건하였다.

1962년 9월에 있은 수단련맹당 제6차대회에서 모디보 케이타는 말리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제기하였다.

【민족회의】 1원제. 임기는 5년, 의원수는 80명이다. 현민족회의는 1964년 4월 12일에 선거되였고 전체 의석을 수단련맹당이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현정부는 1966년 9월 16일 15명으로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국방상, 발전상 모디보 케이타. 외무상 우수만 바.

【정당, 사회단체】 수단련맹당 1946년 10월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설, 1948년에 수단련맹당으로 발족, 1959년말 《아프리카독립당》 수단지부와 합당하였으며 1962년 9월의 수단련맹당 제6차대회에서 이 당을 유일당으로 선포하였다. 제6차대회에서 채택된 정치문제에 관한 결의는 수단련맹당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혁명적당》이라고 지적하였다. 총비서 모디보 케이타. 전국로동자련맹, 수단청년동맹, 수단녀성동맹, 평화운동위원회.

【주요국내사건】 1965년 5월 24—26일에 바마코에서 말리근로자전국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자력갱생하여 영원히 전진하자》라는 총결의를 채택하였다.

6월 27일부터 대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할데 대한 새 법령이 채택되였다.

9월 22일에 진행된 말리공화국 선포 5주년경축군중대회에서 모디보 케이타는 말리가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남로데시아, 꽁고(킨) 및 웰남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6년 3월 1일에 진행된 수단련맹당 정치위원회는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수호전국위원회를 결성하였다.

3월 15일에 진행된 전국로동자련맹중앙평의회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생산투쟁을 진행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6월 5일 독립후 처음으로 전국 13개 시위원회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들을 선거하였다.

9월 16일 내각개조가 있었으며 발전성과 대통령부 경제기술협조성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으로 농업담당국가비서처와 농업 및 동력담당국가비서처를 새로 내왔다.

10월 17—25일까지 화페교환사업이 진행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1964년 10월에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 위원장이 말리를 방문하였다.

1966년 8월 2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도자기공장조업과 관련한 최종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2월 16일 말리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지지하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2월 28일 바마코에서 가나에서의 군사쿠데타를 규탄하는 바마코시근로자들의 시위와 군중대회가 있었다. 시위자들은 《이 쿠데타는 두말할것없이 형제적인 가나인민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이다》라고 규탄하고 느크루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모디보 케이타대통령은 2월에 말리, 11월에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탄자니아 방문과 관련한 공동공보에서 량국 대통령은 미제의 윁남침략을 규탄하고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계속 원조를 줄 결의를 확인하였으며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정권을 계속 고무하고있는 영제국주의를 규탄하였다. 12월 1—8일에 모디보 케이타대통령은 세네갈을 방문하였다.

수단련맹당은 1966년 3월말에 있은 쏘련공산당 제23차 대회를 비롯하여 구라파사회주의나라 당대회에 자기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경제 농업과 목축업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국가이다. 인구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총경지면적은 135만 3천 800헥타이다. 농업과 목축업은 국민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말리정부는 농업과 목축업의 발전에 주목을 돌리고있다. 경제 및 사회발전 제1차 5개년계획(1961—1965)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액은 투자총액의 26%로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식량은 자급자족한다. 가축의 매년 증가률은 10%이다. 주요 농작물은 조, 수수, 벼, 옥수수, 땅콩, 목화이다.

주요농산물생산량(단위 천톤)

	1959	1965
조	600	710
벼	125	165
옥수수		109
땅콩	100	148
목화	5	54

목축업은 북부의 초원지대에서 발전하고있다. 집짐승마리수는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소는 독립전 1959년 390만마리에서 1964년에는 460만마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양과 염소는 820만마리에서 996만마리로 늘어났다. 그외 말은 12만마리, 락타는 16만마리가 있다.

지하자원은 금, 철,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크사이트 등이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탐사중에 있다.

공업은 초창기에 있다. 이미 건설된 공장들로서는 주로 육류가공공장, 통졸임공장, 기름공장, 담배공장, 비누공장 등 농산물가공공장들이 있다. 그외에 1966년에는 성냥공장, 도자기공장, 사탕공장, 쏘뛰바수력발전소가 조업하였다. 또한 세멘트공장, 방직종합공장 등이 건설중에 있다.

대외무역은 국영말리수출입상사 《쏘미엑스》가 통제하고있다. 말리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세네갈의 다카르항을 통하여 무역을 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프랑스 및 프랑통화지역국가들이다.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늘어나고있으며 프랑통화지역국가들과의 무역은 독립당시의 95%로부터 1965년에는 33%로 줄어들었다. 말리는 1962년 7월 1일 새 화페 말리프랑을 발행하고 프랑통화지대인 《서아프리카화페동맹》에서 탈퇴하였다. (1말리프랑이 금 0.0036그람이였으나 1967년 5월 6일 0.0018그람으로 낮추었다)

사회, 문화 1962년 10월에 교육개혁이 실시된후 민족교육이 발전되였다. 독립직전에 57만명의 학령아동중 겨우 5만 4천명이 학교에 다니고 인구의 98%가 문맹자였는데 1955—1966학년도의 학생수는 거의 17만명에 이르렀다. 1961년부터 문맹퇴치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되여 1965년도말까지 2만 6천여명이 문맹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농업대학을 비롯하여 6개의 중학교를 새로 건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앙당학교와 각 도에 도당학교를 개설하였으며 중앙행정간부학교, 로조학교, 각종 양성소와 강습소들을 통하여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고있다. 동시에 외국에 많은 류학생을 보냈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18%를 교육에 돌리고있다. 이리하여 1천 700개의 새 교실이 전설되였으며 학교수는 독립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

교육개혁이후 3년동안에 1천 800여명의 교원이 양성되였다.

【출판】 신문 에쏘르 (수단련맹당기관지), 바라껠라(말리전국로조련맹기관지).

세네갈

(세네갈공화국)
Republique du Senegal

서아프리카의 서쪽끝에 위치하고있다. 계절은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건조기와 5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로 구분되는데 12월과 1월은 비교적 선선하며(최저 11°C), 3월과 5월은 매우 덥다(42°C).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 남쪽의 까자망스지방의 년평균강우량은 다른 지방의 거의 2배인 1,800mm이다.

【면적】 19만 7,161 km^2

【인구】 349만명 (1966년)

세레르, 월로프, 디오라, 망딩그 말린게 종족들과 약 4만명의 구라파인들이 살고있다. 원주민들의 79%가 회교도이며 5%가 기독교도들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다카르(주민 52만 5,000명)

정 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가나, 수단(현재의 말리)왕국 등의 속령으로 있다가 9세기에 처음으로 국가로 형성되였다. 1445년에 뽀르뚜갈, 그후에 화란 및 영식민주의자들이 세네갈에 침입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1659년에 쎈루이스에 침입하였고 1895년에는 세네갈의 전 지역을 강점하였다. 세네갈은 1946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다가 1959년 1월 말리와 함께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말리련방창설을 선포하였다.

1960년 4월 4일 세네갈은 말리련방의 성원국으로서 독립하였고 그해 6월 20일 《프랑스공동체》내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0년 8월 19일밤 당시 련방의회 의장이였던 쎈고르는 정변을 일으키고 8월 20일에는 말리련방에서 탈퇴하여 세네갈공화국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1960년 8월 25일 세네갈의 첫헌법이 채택되였으며 9월 5일 쎈고르가 초대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세네갈정부는 1960년 4월 4일의 때러협정체결일을 독립일로 결정하였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과의 의견대립으로 수상 마마두 디아가 정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프랑스침략군대를 동원하여 정변을 진압하고 정권을 쥐였으며 디아를 체포하였다. 12월 18일 그는 헌법을 수정하여 수상제내각을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내각을 조직하였다.

1963년 12월 1일 대통령선거에서 쎈고르는 유일립후보로서 대통령으로 피선되였다.

1966년에 쎈고르는 말리, 모리따니, 까메룬, 상아해안, 마로꼬, 튜니지, 아련, 알제리, 챠드 등의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고 이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하였다.

【민족회의】 1원제이며 의원수는 80명, 임기는 5년이다. 현민족회의는 1963년 12월 3일에 선거되였으며 전원이 진보련맹성원들로 구성되여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임기는 7년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외무 담당국무상 두두 띠암.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집권당) 1958년 9월 25일 창립, 1966년 1월에 제5차 대회를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세네갈아프리카련합당과 협정을 맺고 합당하였다. 통합후 당 정치국내에서 10석(30%)을 련합당출신들이 차지하였다. 총비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아프리카독립당** 1957년 9월 15일에 창립, 이 당에는 농민(35%), 로동자(30%), 인테리들이 망라되여있다. 최고강령은 《사회주의》의 실현인데 1960년 9월에 비법화되였다. **전국근로자동맹**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세네갈직업기자전국동맹** 1966년 4월에 창립.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남긴 후과로 하여 땅콩단작경리가 지배적이다. 땅콩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 절반(약 90만정보)을 차지하고있다. 세네갈정부는 농촌경리의 다각화와 공업발전을 위하여 이미 1961년부터 착수한 제1차 4개년경제및 사회발전계획을 1965년까지 수행하고 현재 제2차 4개년계획(1965—1969년)을 실시하고있다.

제1차 4개년계획기간에 81개의 새 공업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특히 지난 시기 식료가공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공업기업소들이 수입원료에만 의거하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국내원료의 비중을 현저히 높이고있으며 광산을 비롯한 일련의 중공업기업소들도 창설되고있다.

농업에서도 땅콩생산을 위주로하던 단작경리를 퇴치하고 수입에 의존하여오던 알곡생산을 늘이고있다.

그러나 세네갈은 1966년에 례년에 드문 한재로 하여 중요농작물의 생산량이 30~40% 줄었다.

절대다수주민들의 주식물의 하나인 기장생산량은 1965년의 55만 4천 56톤으로부터 1966년의 40만 3천 500톤으로, 그리고 세네갈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땅콩생산량은 100여만톤으로부터 70만톤으로, 벼는 12만 2천톤으로부터 11만톤으로 각각 줄었다. 1965년에 세네갈은 2만 2천여톤의 기장, 17만

9천여톤의 입쌀, 6만 1천여톤의 밀과 수수 등 많은 알곡을 수입하였다.

정부는 어업과 축산업발전에도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바 1963년에 양과 염소는 140만마리였다.

화폐단위는 서아프리카프랑이다. 100 서아프리카프랑은 2프랑스프랑 또는 36.7꼬뻬이까이다.

1964년에 소학교에는 3천 948개의 학급에 1천 77교로 소학생수는 18만 2천 893명이였다. 40개소의 국립중학교들에서는 4천 83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이밖에 21개의 사립중학교가 있다. 또한 농업학교를 비롯한 일련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서아프리카에서의 최고학부라고 불리우는 다카르종합대학이 있다. 학생수는 2천 500여명이였다.

세네갈에는 4개의 큰 병원, 74개의 중소병원들과 256개의 진료소들이 있다.

정기간행물로서는 관영일간세네갈통신, 《유니떼 아프리껜》이라고 부르는 당기관지 그리고 일간신문인 《다카르—마땡》을 비롯하여 20여종의 신문, 잡지들이 있다.

감비아

Gambia

아프리카대륙의 서해안에 있는 나라로서 쎈트마리섬과 감비아강류역의 좁은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1만 367km²

【인구】 31만 6,000명(1963년)

【수도】 바더스트(주민 2만 8,000명)

정 치 감비아는 1843년 영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쎈트마리섬)와 보호령(감비아강류역)으로 되였다. 감비아인민들은 영국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9년 6월에 단행된 바더스트시민들의 시위와 1960년 2월 수도로동자들의 파업은 이 나라 력사에 빛나는 기록을 남기였다. 감비아인민의 투쟁이 날로 앙양됨에 따라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4월 27일 감비아에 대한 내부자치를 실시할데 대한 《새 헌법》을 발표하였고(이에 따라 5월에 선거가 실시되고 내부자치정부가 수립됨) 1963년 10월 4일에는 감비아에 완전한 내부자치를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5년 2월 18일 감비아는 드디여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력사, 지리적으로 감비아는 세네갈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다.

【총독】 영국녀왕을 대표한다. 죤 와비톤폴.

【의회】 1원제이며 의석은 39석 인민진보당이 18석, 련합당이 13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수상 다비드 크웨씨 쟈와라.

【정당】 인민진보당 1959년에 성립, 지도자 다비드 크웨씨 쟈와라. 통일당, 민주대회련맹, 련합당 1951년 성립.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22만 1천 헥터이고 주산물은 땅콩(수출의 75%)이다. 땅콩재배면적은 34만 에이커이다.

기타 벼, 옥수수, 콩, 기장, 수수 등이 생산된다. 감비아에는 땅콩가공공장 4개와 정유공장 2개가 있다. 이외에 수개의 선박수리공장과 기타 수공업적인 공장들이 있다. 세네갈과 공동으로 감비아강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학령아동들중 20%밖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의사는 11명이고 병원은 2개뿐인데 그것마저 구라파인들을 위한것이다.

뽀르뚜갈령기네

아프리카대륙의 서쪽대서양에 면해있는 나라로서 세네갈, 기네와 접경하고있다.

이 나라는 대륙부분과 비싸고스제도 등 6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3만 6,125m²

【인구】 52만 7,000명(1965년)

대부분이 반루족이고 그 외에 약 2,500명의 뽀르뚜갈인이 있다.

【행정중심지】 비싸우(주민 2만 7,000명)

정 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471—1475년에 이 나라에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뽀르뚜갈침략자들은 16세기말에 연해일대를 점령하고 이곳을 노예매매기지로 만들었으며 1879년부터는 이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총독통치를 실시하여왔다.

뽀르뚜갈총독이 들어앉은 이후 침략자를 반대하는 폭동은 해마다 일어났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1956년 9월 비싸우에서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인독립당이 창건되였다.

이 당의 령도하에 진행된 1959년 8월 3일 비싸우부두로동자들의 파업(임금인상과 생활상권리를 요구), 1963년 7월의 전국적인 인민봉기, 1964년 2월(2월부터 약 70일간)의 코모로섬격전 등은 식민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주었다.

뽀르뚜갈령기네애국자들은 식민주의자들이 비싸우부두로동자들을 학살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인 1961년 8월 3일 드디여 직접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투쟁행정에서 무장력은 부단히 장성강화되고있는바 1964년에는 해방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정규군

및 예비부대들과 적강점지역에서 투쟁하는 유격대들을 통합하여 정규적인 혁명적인민무장대를 창설하였다.

뽀르뚜갈령기네애국자들은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66년에만도 약 2천명 이상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소멸하고 100대이상의 장갑차와 각종 자동차들을 파괴하였다. 인민무장대는 나라의 3분의 2(남부지역과 북부지역)를 해방하였다. 해방지역에는 새로운 정권기관이 조직되여 경제를 복구하고있다. 적들이 내버린 농장들은 인민관리위원회들의 통제하에 넘어가고 각 구역들에서는 시험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 있다. 또한 위생초소, 상점, 학교들이 건설되고있다.

【정당】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인독립당 1956년 9월에 창건, 민족해방운동을 령도, 당은 민족주의운동의 통일을 위해 1958년에 국내의 기타 애국적정당들과 함께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을 결성. 1964년 제1차당대회 진행, 지도부는 꼬나크리에 있다.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해방운동** 1961년에 북부의 망쟈크족으로 구성. **인민동맹, 해방인민동맹, 아프리카민족련맹** 등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은 세네갈의 다카르에 본부를 두고있다. **뽀르뚜갈령기네민주동맹** 뽀르뚜갈과의 회담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적 정당이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코코아, 종려유, 쌀 등이다. 이외에도 담배, 사탕수수, 목화 등을 재배하고있다.

1965년 농업총생산량에서 해방지역의 몫은 약 50%였다.

석유외에 지하자원으로서 개발된것은 아직 없다.

석유채굴권은 미국, 화란, 서독의 독점자본이 쥐고있다. 수력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전력생산에 리용되지 못하고 교통수단으로만 리용되고있다.

뽀르뚜갈령기네에는 많은 종족이 살고있다. 수단어계렬에 속하는 바란트족과 프라니족, 마닝그족, 만쟈크족 등은 이 나라에서 큰 종족에 속한다.

주민의 60%이상이 원시종교를 믿고있으며 36%는 회교를 믿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문맹자가 많은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있으나 지금 해방지역에서는 100여개의 학교들에서 1만 3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화폐는 뽀르뚜갈의 에스꾸도가 통용되고있다.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대륙서쪽끝 대서양상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4,033km²

【인구】 20만 1,500명(1960년)

【행정중심지】 프라이아(주민 약 3,500명)

149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1951년에는 형식상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되였다.

최근년간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인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되고있다.

1965년에 애국자들은 730명의 뽀르뚜갈침략군병사들을 살상포로하였으며 해방지역을 현저히 확장하였다.

주산물은 커피, 피마주, 귤, 사탕수수 등이며 마니오크, 옥수수, 감자, 바나나가 생산되고 있다.

기 네

(기네공화국)
Republic of Guinea

기네는 서부아프리카에 있다. 서쪽은 대서양(해안선의 길이는 약 300키로메터), 남쪽은 말리, 세네갈, 뽀르뚜갈령기네와 잇닿고있다. 7—10월은 우기이고 12—3월은 건조기이다. 년평균기온은 20~28°C이다. 가장 더운 때는 4월이다.

【면적】 24만 7,000km²

【인구】 350만명(1965년)

주민은 풀베족(46%), 만딩그족(25%), 수수족(14%) 등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주민의 90%는 회교도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풀베어, 수수어 등이 널리 쓰이고있다.

【수도】 꼬나크리(주민 20여만명, 1966년)

정 치

18세기에 회교도인 풀베족의 국가던 기네는 183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시작하여 1860년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885—1887년에 기네인민은 민족적영웅인 사모리 투레의 지도하에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진행하여 프랑스로하여금 강화조약에 서명케 하였다. 그러나 1890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다시 침략을 개시하여 1895년에 기네를 강점하였다.

1900년과 1908년에 프랑스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기네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이 투쟁은 제2차 세계대전후 더욱 앙양되였다. 1957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기네인민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해외령지 《기본법》을 조작하여 기네에 《반자치제공화국》의 지위를 주고 《령지의회》와 《행정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행정권은 여전히 프랑스고등판무관의 수중에 쥐여져있었다. 1957년 기네《령지의회》선거에서 세꾸 투레가 지도하는 기네민주당이 총의석 60석중 58석을 차지하여 령지정부를 조직하였다. 1958년 9월 28일에 있은 투표에서는 94.5%로써 절대다수기네인민들은 프랑스식민

주의자들이 강요한 새 헌법을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기네인민은 세쿠 투레대통령의 령도하에 1958년 10월 2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흉책을 분쇄하고 독립을 전취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헌법을 채택하고 기네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기네는 아프리카독립국가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기위한 《전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으며 이 회의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1964년 11월 8일 세쿠 투레대통령은 당, 국가 및 사회생활에서 주요한 개혁을 예견한 《기네민주당의 투쟁강령》을 발표하였다.

【민족회의】 1원제이며 의원수는 78명(1963년 9월에 선거), 임기는 5년이다. 해마다 3월과 10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다. 현정부는 1964년 11월 8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외무상 루이 란사나 베아보기

국무상 디알로 사이풀라예.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민주련맹》의 기네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기네민주당으로 발족하였다. 기네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총비서 아흐메드 세쿠 투레. **전국근로자련맹** 1940년 5월에 창설, 전아프리카로조련맹에 가입.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1959년 3월 27일에 창설. (기네에서 3월 27일을 청년들의 명절로 기념).

【주요사건】 1965년 11월 22일 기네정부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각료 2명이 기네에서 있은 반정부음모에 가담한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같은해 12월 15일에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지지하는 영제국주의와도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7월에 진행된 전국혁명리사회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규탄하며 기네민주당이 실시하고있는 쁠럭불가담정책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모든 나라들과의 협조정책을 전적으로 찬동하였으며 농업대학과 《민간복무려단》, 민병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29일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회의에 참가할 기네대표단이 아디스 아베바로 가던중 가나비행장에서 억류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군중시위를 열고 미제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특히 꼬나크리에서는 미제대사관, 범미항공회사, 미제대사의 집앞에서 《미제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반미시위를 단행하였다.

11월 8일 대표단의 귀국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세쿠 투레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우리의 자유와 위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네에 있는 미제의 모든 《평화군》은 1주일내로 철수할것과 꼬나크리에서 범미항공회사의 경영을 금지할것을 명령하였다. 5월 14일—19일까지 기네 당및정부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고, 같은 달 19—22일에는 알제리 당및 정부대표단이 기네를 방문한것과 관련하여 5월 23일 공동공보가 발표되였다.

공보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제전선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인민들의 투쟁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중지와 제네바협정의 준수만이 웰남에서 정상적인 사태를 회복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1965년 4월 30—5월 3일 세쿠 투레대통령부인 앙드레 투레녀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6년 5월 11일 량국간에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기네는 독립후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과 모든 은행, 보험회사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순수 및 농업기업소들을 창설하였다.

기네정부는 1960년 3월 1일 프랑지역으로부터 탈퇴하고 민족화폐 기네프랑을 발행하였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였다.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며 국가수입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기네는 이미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7개년계획(1964—1970년)을 수행하고있다. 계획수행에서는 이미 성과를 거두고있는바 1964년에 국영기업소들은 증산투쟁을 전개하여 국가에 25억기네프랑의 순리익금을 주었다.

기네에는 철(철광석 매장량 약 30억톤), 보크사이트(매장량 10억톤), 금, 금강석, 망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기네는 광산을 개발하는 한편 자체의 자원을 원료로 하는 사탕공장, 제염공장, 식용유공장, 통졸임공장, 세멘트공장, 비누공장, 합성수지공장, 담배공장, 성냥공장 등 수십개의 중소규모의 공장들을 이미 건설하였다.

기네정부가 힘을 넣고있는 농업분야에서도 1964—1965년도에 33만톤의 벼, 8만 7천톤의 바나나, 1만 3천톤의 파인애플, 1만 3천 500톤의 커피, 1만 5천톤의 땅콩, 2만 5천톤의 종려를 생산하였다. 벼 재배면적은 약 4만정보이며 7개년계획말에는 8만정보로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대외무역은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인애플, 차, 종려,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과 량곡이다.

기네는 1964년 10월 새로운 기네문자를 발표하고 기네글로 교과서를 출판하고있다.

기네정부는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에 큰 주목을 돌리고있다. 국가는 문맹퇴치전국위원회를 조직하고 나라의 모든 행정지구들에 문맹퇴치기관을 조직하였다. 문맹퇴치의 현단계에서는 민족어로 읽고 쓸줄 알도록 하는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상설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수는 독립후 7년동안에 4배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중학생은 9배로 늘었다.

기네에는 3개의 대학이 있다.

국가는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침을 취하고있으며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1966—1967학년부터 전체학령아동(7—15살)에 대한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출판】 신문 호로야(민주당기관지).

방송 기네혁명의 소리

시에라레온

Sierra Leone

서부아프리카에 있으며 동북쪽은 기네, 남쪽은 리베리아에 둘러싸여있고, 서쪽은 대서양에 면해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340km, 년평균기온은 약 27°C, 해안지대의 년간강우량은 최고 5,000mm이다.

【면적】 7만 2,326km²

【인구】 260만명(1963년)

멘데족과 테하네족을 비롯한 원주민들과 구라파 및 아세아인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프리타운(주민 12만 8000명)

정 치

15세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입에 뒤이어 화란, 영국의 침략자들이 기여들어 노예장사를 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787년에 영국내의 해방노예 400여명을 이주시켜 프리타운을 만들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88년에 프리타운을 포함한 연해지역을 식민지로, 1896년에는 내륙지역들을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시에라레온인민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5년 2월에 있은 프리타운로동자들의 파업은 무장봉기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뒤이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이리하여 시에라레온에는 1956년 립법, 행정평의회가 발족되였으며, 1958년초에는 흑인의회가 수립되였다. 1961년 4월 27일 시에라레온은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2년 5월 독립후 첫 총선거가 실시되여 여당인 시에라 레온인민당이 승리하였다. 밀톤 마르가이의 뒤를 이어 1964년 4월에 수상으로된 알버트 마르가이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도록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1964년 6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은 100만파운드의 차관을, 같은 해 8월에 《국제개발은행》은 380만딸라의 차관을 시에라레온에 각각 제공하였다. 한편 시에라레온은 1963년 2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경제적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65년 12월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과 통상금융관계를 끊었다. 1966년 3월 21일 시에라레온에서 륙군사령관 란사나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3월 23일에는 또다시 장교그루빠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란사나와 이전 수상 마르가이를 감금하고 잭슨 스미스중좌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개혁리사회를 구성하였다. 헌법이 중지되였으며 정당이 해산되고 그 활동이 금지되였다. 민족의회는 해산되고 국가개혁리사회가 립법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총독】 국가원수는 영국녀왕인데 총독이 이를 대표한다. 총독 헨리 라이트푸트 보수톤

【정부】 1966년 3월 23일에 구성된 국가개혁리사회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리사회는 8명으로 구성. 의장 잭슨. 스미스중좌. (재정, 국내방위 및 안전부문담당, 시에라레온군 총사령관도 겸임). 부의장 경찰장관 레이지(외무관계 담당).

【정당, 사회단체】 알버트 마르가이정부는 1965년 12월 인민당이외의 정당을 금지하였고 1966년 3월 23일 군사정변후 국가개혁리사회는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그 활동을 금지하였다. 금지되기전에 있던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인민당**(정변이전 집권당) 1951년에 창건. 부르죠아지와 봉건적종족귀족의 리익을 대표. 지도자 알버트 마르가이. **전인민대회당** 1960년에 창건. 로조의 지지를 받고있는 야당으로서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포하며 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청산할것을 주장한다.

경 제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땅콩, 종려씨, 커피, 코코아 등이다.

시에라레온의 철광석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3위이다. 금강석에서의 배해 국가재정수입은 15%를 차지한다. 그밖에 크롬, 보크사이트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채광업은 영제국주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철광석, 크롬광,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이며 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설비, 직물, 차량, 석유 등이다. 1965년에 정부는 영련방에서 수

입에 가입하는 상품에 붙였던 특혜관세를 폐지하고 수입품의 관세를 높일데 대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1964년 8월에 종래의 파운드를 폐지하고 민족화폐 례온을 발행(1례온은 0.5파운드)하였다.

1966년 2월 식민주의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화폐개혁을 실시하였다.

리베리아

(리베리아공화국)

Republic of Liberia

아프리카대륙의 서쪽에 있다.

【면적】 11만 1,400km²

【인구】 106만 6,000명(1965년 4월)

원주민이 89%, 아메리카니그로가 8%, 백인이 1%이다. 국어는 영어다.

【수도】 몬로비아(주민 8만명)

정 치 1822년 《미국식민협회》가보낸 해방노예들이 세운 나라로서 1847년 7월 26일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모든 정치체계는 미국식이며 미제와 《군사원조조약》을 맺고있다. 모든 실권은 해방노예의 후손들이 쥐고있으며 토착주민들은 무권리상태에 있다.

【국회】 량원제. 상원은 17명, 임기는 6년. 하원은 43명, 임기는 4년. 유권자는 토지를 가지고있는 흑인에 한한다.

【정부】 대통령으로 세번 선거되는것은 금지되였으나 현대통령은 1963년 5월 다섯번째로 선거되였다. 임기는 8년, 다시 선거되는 경우에는 4년. 대통령 윌리암 바사나라트.

【정당, 사회단체】 진정독립당 1869년에 창립, 1878년이래의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국회와 정부내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과 농장주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고있다. 지도자—윌리암 바사나라트. 생산로조대회 성원 7천명.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땅콩, 코코아 등이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고무생산의 90%이상은 미제의 《파이아스톤회사》(토지 약 5만헥터, 로동자 3만 5천명)가 장악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철광, 금강석, 망간, 흑연, 보크사이트, 우라늄, 동, 아연, 운모 등이 있으며 채광부문에서 약 8천명이 일한다. 철광석의 탐사권과 채굴권은 미제의 《리베리아광업회사》와 《리베리아—스웨리예광업회사》가 쥐고있다. 몬로비아항구는 미제독점체회사가 관리하고있다. 고무와 철광석을 수출하고 식료품을 수입한다. 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벨지크, 화란 등이다. 통화는 리베리아딸라(미국딸라와 같음)이다. 주민 5만~7만 5천명에 1명의 의사가 차례진다. 주민의 90%이상이 문맹자이며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10%에 불과하다. 문자를 가지고있지 못하며 종교는 천주교이다.

상아해안

(상아해안공화국)

Republic of the Ivorly Coast

서부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가나와 리베리아 사이에 있다. 지형은 북부가 높고 남부가 낮다. 남부는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북부는 남부에 비하여 습도가 비교적 낮고 비도 적게 내린다.

【면적】 32만 2,500km²

【인구】 375만명(1964년)

바울레, 크루, 말린케 등 수많은 종족들로 이루어지고있는 다민족국가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아비쟝(주민 약 25만명 1964년)

정 치 15세기부터 뽀르뚜갈, 에스빠냐, 화란, 영국침략자들이 상아해안에 침입하여 노예무역과 상아장사를 하였다. 1887—1889년에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되여 그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병합되였다.

1958년 12월 4일 《프랑스공동체》내의 한개 자치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0년 11월 헌법을 채택하고 국회 및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같은해 4월 24일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아해안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압적으로 이 나라와 맺었다. 1961년 5월 31일 민족회의에서 처음으로 군대창건법안을 채택하였다.

1963년 2월 상아해안정부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공민들에게 적용되는 의무로동법을 채택하였다.

상아해안정부는 1966년 3월 4일 가나의 안크라정권을 승인하고 5월 14일 가나와 국경을 개통하였다. 상아해안군대는 1966년 4월 24일, 25일 기네령토에 침입하였다.

상아해안은 1966년 1월 23일 쏘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민족의회】 의원수는 70명인데 전원이 집권당인 민주당 당원이다. 임기는 5년이다. 현민족회의는 1965년 11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선거는 민족회의 선거와 동시에 한다.

대통령이 경제계획 및 재정상, 국방상, 농업상직을 겸임하고있다. 대통령 펠릭스 우프에 보아니, 외상 아르센 우쉐르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1946

년에 창건. 이 나라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당수 펠릭스 우프에 보아니. 민족해방위원회 1958년 9월에 성립, 상아해안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한다. 상아해안근로자총련맹 1962년에 창설.

경제, 사회 농업을 위주로하는 나라이다. 주민의 95%가 농업을 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이다. 기타 종려, 옥수수, 목화, 마니오크 등이 생산된다. 바나나재배는 프랑스제국주의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상아해안에는 커피, 코코아가공공장들을 비롯하여 세멘트공장, 소규모의 방직 및 신발공장, 석유가공공장, 자동차조립공장, 라지오수신기조립공장 등이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망간, 석유, 철 등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이다.

프랑지역나라들 특히 프랑스와 주로 무역한다.

공업, 은행, 대외무역은 의연 프랑스제국주의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으며 최근년간에 미제의 자본도 침투되고있다. 석유채취에서 미제의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이다. 화폐단위는 서아프리카프랑이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30%이며 전국적으로 병원은 3개밖에 없다.

상 부 볼 따

(상부볼따공화국)
Republic of upper Volta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있으며 말리, 니제르, 다오메, 또고, 가나, 상아해안과 접경하고있다.

이 나라는 적도계절풍기후에 속한다. 매년 5—10월까지는 우기이며 년강수량은 840~1,160mm이다. 기온은 12—1월에는 24~26°C이며 4—5월에는 30~35°C이다. 수도 와가두구에서는 매일 평균 41°C이상까지 올라간다.

【면적】 27만 4,000km²

【인구】 465만명 (1965년)

모시족, 보보족, 구룬시족, 로비족, 란비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와가두구 (주민 10만명, 1965년)

정 치 19세기후반기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09년에 그 식민지로 되였다. 1943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가입하였다.

1958년 12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1959년 새 헌법에 의하여 볼따공화국을 상부볼따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5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협조협정》(1961년 4월)을 맺었다.

1966년 1월 4일 상부볼따륙군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와가두구에서는 전 모리스 야메오고대통령이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 의존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10—20%)한것 등을 반대하여 3일간의 폭동적인 가두시위가 있었으며 국내주요도시의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벌렸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나 사태는 수습할수 없었다. 이리하여 전대통령은 쫓겨나고 로동조합대표와 군부의 합의밑에 상구레 라미자나중좌를 중심으로한 군사정권이 출현하게 되였다.

라미자나는 헌법을 페지하고 민족회의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정부】 1966년 4월 6일 8명의 군부인원들과 5명의 민간인들로 구성.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

【정당】 1966년 1월 3일 정변후 정당, 사회단체들은 해산되였다. 정변이전에는 집권당으로서 민주동맹과 야당인 볼따재편운동이 있었다.

경제, 사회 반봉전적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축산업(면양, 염소 등)이고 농업, 어업도 하고있다.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기장, 조, 벼, 땅콩, 마니오크, 바나나, 목화 등이다. 축산물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어류, 땅콩, 목화 등도 수출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망간, 동, 우라늄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소규모의 가공공장들과 벽돌공장, 신발공장, 기름공장 등이 있다.

주요경제명맥은 외국자본 특히 프랑스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장악하고있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프랑스와 상아해안이다.

화폐는 아프리카프랑. 100아프리카프랑은 2프랑스프랑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으며 매년 약 25만명의 주민들이 품팔이로 해외에 나간다.

전체 어린이의 6%만이 학교에 다니며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의사는 주민 7만 7천명에 1명이 해당된다.

가 나

(가나공화국)
Republic of Ghana

서아프리카의 상아해안과 또고

사이에 있으며 기네만에 면하고 있다. 지세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사를 이루고 대부분의 지역이 낮은 평원지대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해안과 중부산림지대에서 22°~3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가장 많은 서부지역에서 1, 500~2,000mm이다.

【면적】 23만 7,800km²

【인구】 784만 1,000명(1965년) 대부분이 아산티족, 판티족, 에웨족 등이며 영국인 85만명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종교는 회교와 기독교외에 원시종교가 있다.

【수도】 아크라(주민 40만명, 1965년)

정 치 15세기말부터 화란, 뽀르뚜갈 등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온 황금해안(오늘의 가나)은 1844년에 영국식민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가나인민은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1807—1901년간에 여덟차례에 걸치는 대중적인 반영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8년에는 영국상품 배격투쟁을 1개월간 계속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54년 4월에 《자치》가 실시되였으며 1957년 3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종전의 나라 이름인 황금해안을 가나로 고쳤다.

동시에 영국의 후견령이였던 서부또고가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0년 4월에 헌법을 채택하고 동년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0년 12월 가나는 기네, 말리와 함께 《아프리카국가동맹》을 형성하고 1961년 1월에 카사블랑카헌장에 조인하였다. 1961년에 가나는 영국놈 고급장교를 해임시키고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1964년 2월에 가나는 인민대회당의 유일당제국가로 되였다.

1966년 2월 24일 느크루마정부가 전복되고 안크라를 의장으로 하는 《민족해방리사회》가 수립되였다.

【정부】 1966년 2월 24일에 설치된 《민족해방리사회》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리사회는 행정, 경제, 대외관계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리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였다.

의장(정부수반) 죠세프 안크라 중장(가나군사령관)

【정당】 1966년 2월 24일 《민족해방리사회》는 집권당이며 유일당이였던 가나인민대회당을 해체하였으며 3월 1일에는 모든 정당을 해체할데 대한 명령을 채택하였다.

【주요 국내사건】 1966년 2월 23일에 가나의 일부군대와 경찰이 느크루마의 외국려행중에 정변을 일으켰으며 24일에는 정권을 잡고 정부와 인민대회당을 해산시키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또한 대통령이 없을때 활동하는 최고집권기관인 대통령리사회를 해산시키고 죠세프 안크라를 의장으로 하는 《민족해방리사회》를 선포하였다.

3월 24일 가나정부는 아크라 주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통상대표부를 폐쇄할것을 명령하였다.

4월 가나정부는 아크라에 주재하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의 모든 대표부(앙골라,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부)를 폐쇄하였다.

6월 10일 윁남민주공화국은 가나에 있는 자기 대사관을 폐쇄하고 전체 대사관일군들을 소환하였다.

8월 31일 가나《민족해방리사회》 정치위원회 부위원장 코피. 아. 부시아는 미제에게 식량 《원조》를 증대하며 도로건설 및 농업증산과 관련된 《원조》를 줄것을 요청하였다.

9월 17일 가나는 이전 화폐들인 파운드, 쉴링, 펜스들이 국내에서 법적인 지불수단으로 되지않는다는것을 공포하였다. 가나에는 새 화폐로서 세디와 펜세바가 있다.

경 제 농업에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종사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코코아생산만을 위주로 한 단작경리를 강요한 결과 농업은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1965년에 가나의 코코아경지면적은 200만헥타였다.

산림면적은 1천 370만헥타에 달하며 림업은 가나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에서는 광업이 위주로 되여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목재, 광물이다.

【출판】 신문 가나 타임스(정부기관지), 이브닝 뉴스(인민대회당기관지), 가나 이브닝.

또 고

(또고공화국)

Republic of Togo

또고는 서부아프리카의 기네만에 면하고있는 나라로서 가나와 다오메 사이에 있다.

3—6월, 9—11월의 우기를 제외한 건조기의 기온은 보통 30°C이다.

【면적】 5만 6,600km²

【인구】 160만 3,000명(1965년) 다민족국가로서 남부에는 반투족계통의 에웨족과 미나족, 북부에는 함족계통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로메 (주민 10만명, 1963년)

정 치 1844년에 또고는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14년 8월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또고의 서부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동부를 강점하였다.

1946년 12월에 또고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영령또고는 1957년 3월에 가나에 통합되였으며 프랑스령또고만이 1960년 4월 27일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1961년 4월 총선거에서 실바누스 올림피오가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63년 1월 13일 군사정변으로 올림피오는 암살되고 니꼴라스 그루니쯔끼(올림피오의 형)가 정권을 장악하고 아프리카—말가슈동맹과의 제휴를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5일 총선거로써 대통령(그루니쯔끼)이 선출되고 민족회의가 나왔으며 대통령권한을 약간 제한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7월 27일 또고는 가나와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하여 국경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1963년부터 지속되여오던 국경분쟁은 끝났다.

1966년 11월 21일 또고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가 6시간후에 진압되였다.

1967년 1월 5일 미제와 또고간에 우호 및 경제관계에 관한 조약비준서가 교환되였다.

1967년 1월 13일 또고군 총참모장인 에야데마중좌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에야데마는 자신이 국가원수로서 민족의회해산과 모든 정당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앞으로 선거후 민간인정부에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에야데마는 유엔, 아프리카통일기구 및 기타 조약들의 준수를 약속하고 외국의 간섭을 배격하였다.

【정부】 현정부는 1967년 4월 14일에 4명의 군인과 8명의 문관으로 구성되였다.

대통령 에야데마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주동맹** 1959년에 설립, 프랑스 및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와 련계를 가지고있다. **또고통일당**, **《쥬벤토당》** 전국적인 《자립정책》의 실시와 《아프리카합중국》의 창건을 주장. **또고전국로조련맹.**

경 제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경작할수 있는 땅은 211만헥타이다. 경지면적은 그것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중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목화, 야자씨, 땅콩, 옥수수, 수수, 감자 등이다.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솜타는 공장, 기름(종려유) 공장, 유리공장, 비누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또고에는 린광을 비롯하여 철광석, 보크사이트, 크롬광, 흑연, 석유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다.

중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린광석이다.

화폐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이 나라의 여러 부족들은 서로 다른 말을 쓰고있다.

정부는 학교를 통하여 프랑스어를 보급시키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원시적인 종교를 믿고있으며 약 27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다 오 메

(다오메공화국)

Republic of Dahomey

서부아프리카의 기네만에 면해있는 나라로서 상부볼따, 니제르와 나이제리아 사이에 끼여있다.

기온은 20~30°C이며 우기와 건조기가 번갈아온다.

북쪽으로 갈수록 우기는 짧아진다.

【면적】 11만 5, 800km²

【인구】 225만명 (1965년)

폰족, 요루바족, 바리바족 등 30여개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뽀루또노보(주민 약 6만명)

정 치 15세기말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프랑스 등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노예시장으로 되였다. 당시 식민주의자들은 다오메와 또고를 합쳐서 《노예해안》이라고 불렀다.

190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독립이래 대통령이던 유베르 마가도당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라를 경제재정적파국에로 이끌어 갔으며 농촌경리를 황폐화시켰다.

마가는 소위 자기의 《다오메의 베르사이유》라는 궁전건설에 공업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며 개인별장들을 건설하고 비싼 미국제자동차들을 사들이고 서구라파유흥장들에서 국가자금을 탕진하였다.

1963년에 20개의 성에 2만여명의 고위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료승차, 무료주택사용 및 기타 특권을 가지고있었다. 이들은 정부예산지출의 3분의 2를 탕진했다.

《행정부르죠아지》로 불리우게 된 이 특권계층은 상업부르죠아지 및 족장들과 함께 다오메를 억압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의 주요한 사회적지주로 되였었다.

유베르 마가도당은 1963년 10월 28일 군사정변으로 전복되였다.

륙군참모장 소글로대좌가 정권을 장악하고 림시정부를 조직하였다.

1964년 1월 선거가 실시되여 아피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64년 9월 25일 다오메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동북부의 파라쿠시에 있던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가 철폐되였으며 9월 26일에는 다오메를 강점하고있던 프랑스침략군대의 마지막부대가 쫓겨났다.

1965년 11월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일련의 정치 및 사회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상이가 격화되였다.

11월 27일 국회는 아호마베그베와 그 지지자들에 의하여 아피티대통령을 해임시키고 아호마베그베부대통령을 림시 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군대, 원로원의 대표들, 로조대표들은 아피티대통령의 제거를 반대하여 나섰다.

11월 29일 륙군사령관인 소글로가 정권을 잡았다. 소글로는 국회의장인 콩카쿠를 림시대통령겸 수상으로 내세웠다가 12월 22일 또다시 군사정변을 일으켜 콩카쿠를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정권을 잡았다.

소글로는 방송을 통하여 일체 정당 및 국회의 해산과 1964년헌법의 정지를 선포하고 이전대통령 아피티와 부대통령 겸 수상 아호마베그베의 사임이 국내의 정치적분규를 종식시키지 못하였기때문에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다오메 새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다오메간의 외교관계를 단절(1966년 1월 3일)하였다.

1966년 6월 3일 코로우에서 쏘련과 다오메간의 1966년도 문화협조계획서가 조인되였다.

다오메내각은 총액 약 700만아프리카프랑에 달하는 1967년도 국가예산을 승인하였으며 다오메군사경각성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3명으로 구성된 상설국을 창설하였다.

【민족재건위원회】 3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정부의 직속하에 협의적기능을 수행하며 1965년 12월에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민족회의를 대신하게 된다.

위원회산하에 국내정책, 국제문제, 경제정책 및 사회문제 분과위원회들을 두게된다.

【정부】 현정부는 1965년 12월 23일 수립, 9명의 각료와 1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

대통령 겸 수상 크리스토프 소글로

【정당】 1963년 10월 군사정변후 각 정당은 금지되였으나 같은해 11월 유일당으로서 민주당이 결성되였다.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1965년 12월 8일 해산되고 민주동맹이 새로 창설되였다.

12월 22일 소글로는 또다시 일체 정당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경 제 원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업과 어업은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 나라의 경제명맥은 프랑스 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식량생산의 85%가 감자류이기때문에 매년 적지않은 쌀을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종려(총경지면적의 50%이상을 차지), 목화, 마니오크, 땅콩, 벼, 바나나 등이다.

철, 크롬 등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고있으며 공업으로서는 소규모의 농산물가공공장들이 몇개 있을뿐이다.

주요수출품은 종려유와 종려씨이며 그 수출액은 년수출액의 약 87%를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프랑스이다.

화폐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1아프리카프랑은 0.02프랑스프랑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으며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학령아동들의 취학률은 약 29%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공화국)
Republic of Nigeria

서부아프리카 기네만에 면하고 있으며 니제르, 다오메, 까메룬과 접경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0~33°C이다.

【면적】 92만 3,722km²

【인구】 5,640만명(1964년)

다민족국가로서 북부에 주로 하우사족, 동부에 이보족, 서부에 요르바족이 살고있으며 이외에 300여개의 종족이 있다.

150여종의 언어가 있으나 주로 사용되고있는것은 호싸어와 요르바어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주민의 약 44%는 회교도, 22%는 기독교도이고 나머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수도】 라고스(주민 67만 5,000명)

정 치 15세기이래 300년간 나이제리아는 뽀르뚜갈, 영국, 에스빠냐, 프랑스, 화란 등 식민주의자들이 노예를 매매하던 곳으로서 《노예해안》으로 불리웠다.

191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나이제리아의 전령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대전후 민족해방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의 국민투표결과 영제국주의의 후견령이던 북부까메룬이 나이제리아에 병합되였다. 1963년 10월 1일 나이제리아는 《영련방》내의 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나이제리아는 북부주, 동부주, 서부주, 중서부주 및 라고스지구로 련방을 형성하였다.

독립이래 각 종족간, 북부주와 남부주간의 대립이 격화되여 오다가 1963년의 인구조사를 둘러싸고 국내분쟁이 더욱 심화되였다.

1964년 12월 30일 독립후 첫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여당측은 민족동맹(북부인민대회당, 민족민주당이 가입)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가하였으나 야당측은 련합진보대동맹(공민민족회의, 행동파 가입)을 형성하고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북부 및

서부에서는 선거가 12월 30일에 끝났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선거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동부주, 라고스지구 등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자는 타협이 이루어져 1965년 3월에 다시 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결과 여당인 민족동맹이 197석, 야당인 련합진보대동맹이 108석, 기타가 7석을 차지하였다.

4월 발레와수상이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966년 1월 15일 라고스에서 륙군의 일부와 경찰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련방수상 발레와는 체포되여 살해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날 군부는 포고령을 발표하여 종족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지방자치주들과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체하였다.

1월 21일 나이제리아에서 아귀이 이론시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군사위원회와 련방집행위원회가 창설되였다.

5월 25일 신정권은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을 나이제리아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7월 23일 나이제리아륙군참모장 야쿠부 고원중좌가 륙군내의 북부주 하우사족출신의 군인들을 규합하여 이론시군사정권을 전복하고 8월 4일 새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후 오쥬쿠를 군정관으로하는 동부주는 련방정부로부터 분리될것을 주장하고 고원의 련방정부에 항거해나섰으며 련방정부와 동부주간에 전쟁이 벌어지고있다. 나이제리아에서 북부주와 동부주간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있는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지속되고있는 종족적, 종교적불화에 기인되고있다. 거듭되는 정치적혼란속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도 로골화되고있다.

【최고군사위원회】 야쿠부 고원중좌를 위원장으로하고 륙해공군 사령관들과 4개주의 군정장관들로 구성.

【정부】 련방집행위원회가 정부의 기능을 대행.

야쿠부 고원을 수반으로하고 륙해공군 사령관들과 경찰총감 및 부총감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24일 이론시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고 1969년까지 정당구성을 금지한다고 성명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종려유, 코코아, 땅콩,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동부주에서 유망한 유전이 개발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콜롬바이트, 주석, 석탄 등이 있다.

1964년에 죠세에 소형야금공장이 건설되고 소코도에서 세멘트공장건설이 시작되였으며 기타 지역들에서 수개의 가공공업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1964년 니제르강의 카인쥐지방에서 수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였다.

1961년에 나이제리아에 대한 외국의 투자액은 3천만파운드였다.

수입은 외국회사들에 독점되여있으며 농산물수출은 국영판매국의 관리하에 있다.

1963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나이제리아의 수출에서 38%, 수입에서 30%를 각각 차지하였다.

화폐단위는 나이제리아파운드인데 영국파운드와 맞먹는다. 나이제리아는 7월 16일 구라파공동시장의 준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6년 4월 23일 나이제리아정부는 자국에 들어오는 일본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또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이제리아에는 1만 7천개의 소학교(300여만의 아동이 취학), 중등학교급의 실업학교 및 보통학교 700개(18만명), 사범학교 35개(3만 5천명)와 40개의 전문학교(8천명) 그리고 5개의 대학(5천명)이 있다.

1970년에 가서 대학졸업생수는 매해 2천여명에 달할것이라 한다. 약 200개의 병원과 산원이 있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Republic of Niger

서부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북쪽은 알제리, 리비아, 남쪽은 나이제리아, 다오메, 서쪽은 말리, 상부볼따, 동쪽은 챠드와 접하고있다.

년평균강우량은 남부지대에서 250∼350mm, 북부에서는 100mm정도이다.

년평균기온은 보통 30°C 내외이나 가장 더운 5—9월경에는 46°C까지 오른다.

【면적】 118만 8,900km²

【인구】 312만 7,565명(1964년)

하우사, 송가이, 제르마 등 흑인이 4분의 3을 차지하며 그밖에 뚜아레그, 풀베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니아메 (주민 5만 2,000명)

정 치 19세기초부터 니제르에 침입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08년에 니제르의 전령토를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하였다.

1957년에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에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11월 9일 아마니 디오리가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니제르는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하였고 동년 4월에 프랑스와 《협조협정》및

쌍무협정을 맺었다.

1964년 9월에 사와바당(1959년에 비법화)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65년 2월, 5월 니제르에서 디오리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였다.

디오리대통령은 《아프리카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아프리카나라들과의 《친선관계의 확대와 통일》을 표방하고있다.

1963년말부터 다오메와 니제르간에 국경분쟁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64년 4월 두 나라는 협정을 맺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65년 1월에 챠드, 상부볼따, 다오메, 상아해안 등 4개국협상회의가 열렸다.

1966년 9월 디오리대통령은 상아해안을 방문하고 량국간의 친선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디오리대통령은 수단과 챠드간의 국경무장충돌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으로서 이 문제해결의 중개자로 나설것을 표명하였다. 10월에 디오리대통령은 뚜니지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다. 공동공보에서 두나라 대통령은 《량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의 하나로서 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을 준수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민의회】 의원수는 60명,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는 1960년 11월 9일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되였으며 1965년 11월 재선되였다. 대통령은 수상과 외상을 겸하고있다.

【정당】 **니제르진보당** 1946년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건, 1958년이래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회의 전체 의석과 정부의 전체 성원을 차지하고있다. 추장, 민족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특히 프랑스와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하고있다. 위원장 부부 하마, 총비서 아마니 디오리. **사와바당** 니제르진보당의 좌익련맹에 기초하여 1951년에 창건, 나라의 완전한 정치, 경제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1959년에 비법화되였다. 사와바당은 1964년말에 자기산하의 로조, 청년 및 녀성단체들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니제르전국로동자련맹** 현정부를 지지한다.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다. 령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기때문에 니제르강류역에서 주로 농사를 짓는다.

주요농산물은 조, 벼, 나무감자, 목화, 땅콩 등이다.

목축업(소, 양, 말)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주석, 우라늄, 석유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공업으로서는 3개의 화력발전소, 3개의 착유공장과 벽돌공장, 랭동공장, 건재공장, 제분공장, 인쇄공장들이 있다. 1966년도에 세멘트공장, 합성섬유공장, 철제가구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였다.

철도는 아직 없으며 도로망도 불충분하다.

니제르는 구라파공동시장국들과 주로 무역을 진행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축산물이다.

화폐단위는 서아프리카프랑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사망률이 높다.

실업난으로 해마다 16만명이 계절로동을 하러 린접국가로 떠난다.

아동취학률은 6%, 주민의 98%가 문맹자이며 85%가 회교도이다.

챠 드

(챠드공화국)

Republic of Chad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는 나라로서 수단, 리비아, 니제르, 까메룬, 중앙아프리카와 접경하고있는 내륙국가이다. 남부의 수림—사반나지대(반사막이라는뜻)는 습하고 열대성기후이며 최고기온은 45°C, 6—7월(우기)의 강우량은 940~1,270mm이며 년평균 강우량은 500mm이다. 건조한 열대성기후를 가진 중간지대에서 최고기온은 47°C, 강우량은 년평균 200~500mm이며 최고 540~940mm이다. 건조한 북부사막지대의 기온은 최고 50°C까지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면적】 128만 4,000km²

【인구】 330만명(1964년)

후라니족, 하우사족, 사라족과 기타 유목종족들이 살고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회교,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라미(주민 15만명, 1966년)

정 치 19세기말까지 바기르미, 와다이 등의 왕국이 륭성하였다. 챠드는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기시작하였고 1910년에는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가 1911년에 적도아프리카가 독일의 관할하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 챠드도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함으로써 챠드는 또다시 프랑스의 관할하에 넘어갔다.

1957년초에 챠드는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 1월에는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1일 챠드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2년 3월 국회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2일 선거에서 프란수와 롬발바예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1962년 1월 18일 대통령은 북부 회교도들을 지반으로 하는 정당인 아프리카민족당과 《아프리카사회주의운동》 및 기타 정치단체들을 해산시키고 1963년 1월 유일당제를 확립하였다. 1963년에 대통령 및 그 지지자들과 북부의 회교도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알륵이 날카로워졌다. 롬발바예정부는 1963년 3월이후 다수의 정치가들이 다른 나라의 회교도들과의 련계하에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리유로 정부와 국회내의 일부활동가들을 체포하고 민족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1964년 4월 29일 민족의회는 3개월이내에 챠드에서의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철폐와 프랑스침략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하였다.

1964년 12월 챠드는 중앙아프리카, 가봉, 콩고(브), 까메룬과 함께 통일관세, 공동개발계획 등을 예견한 중앙아프리카관세경제련합조약에 조인하였으며 1965년 2월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결성에 참가하였다. 1965년 11월 16일 민족의회는 유일당제를 도입할것을 예견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65년 11월 챠드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로데시아의 백인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임의의 효과적인 공동행동도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65년말 일부 상들과 민족의회대의원들이 반정부활동을 하였다 하여 체포되였으며 1966년 4월 16명의 상과 1명의 국무비서를 성원으로하는 내각개조가 있었다.

1966년 8월 챠드는 수단과의 국경을 페쇄하고 정기항로를 단절하였으며 이해 10월에 있은 니아메회담이후부터는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고있다.

챠드는 대외정책에서 친프랑스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민족의회】 1원제. 의원은 85명, 임기는 5년이다. 1963년 12월 총선거에서 진보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였다. 민족의회는 해마다 두 차례 소집한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대통령은 민족의회에서 5년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 프란수와 롬발바예(국방상, 내무상도 겸임), 외무상 쟈크 바룸.

【정당, 사회단체】 **챠드진보당**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1961년에 조직, 위원장 프란수와 롬발바예. **챠드전국근로자동맹** 일련의 로조들이 통합하여 1964년에 조직, 맹원 16만명. **챠드전국녀성동맹.**

경 제 챠드는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농민들은 주로 목화생산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쌀, 땅콩도 생산된다. 챠드호의 주변은 농업생산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목축업이 발전하여 소, 양, 말이 많다.

공업분야에서는 지방원료들을 초보적으로 가공하는 솜타기, 기름, 정미, 양조, 가죽 공장들이 있다. 외국의 원조로 방직, 사탕 공장 등이 건설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집짐승, 육류, 가죽, 땅콩 등이며 구라파《공동시장》준성원국으로서 이 나라들과 주로 무역을 하고있다.

화폐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다. 1965—1966학년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15만명이였다. (독립전의 3배이상)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Cameroun

아프리카대륙서해안의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나이제리아, 챠드, 중앙아프리카, 콩고(브), 에스빠냐령기네 및 가봉과 련접하고있다.

【면적】 47만 4,900km²

【인구】 515만명(1964년)

주민은 반투족(남부), 세미반투족(서부), 풀베족, 함족과 셈족의 혼혈종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수도】 야운데(주민 9만 5,000명, 1964년)

정 치 15세기말부터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온 까메룬은 1884년에 독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군대에 강점되였으며 1차대전후 1919년에 있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영령까메룬(서부)과 프랑스령까메룬(동부)으로 분할되였다. 까메룬인민들은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1928—1931년간에 반식민주의봉기를 련이어 일으켰으며 2차세계대전기간에는 반파시스트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으로 1946년 12월 유엔총회는 까메룬을 영국과 프랑스의 후견령으로 결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까메룬인민은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대파업과 시위를 단행하였다. 1956년 7월 까메룬인민들은 첫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1959년초에 반식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인민동맹과 민주당이 련합)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프랑스령까메룬은 1960년 1월 1일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같은 해 2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후 5월에 아호마두 아히조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여 취임하였다.

까메룬은 1960년 11월에 프랑스와 《협조》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외교, 경제, 교육, 군사부문에서 프랑스와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다. 영령까메룬에서는 1961년

2월 11—12일에 있은 국민투표의 결과 1961년 6월 1일 나이제리아련방에 편입되고 남부는 동년 10월 1일 까메룬공화국에 편입되여 까메룬련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2년 5월에는 《자본투자법》을 채택하여 외국의 자본을 많이 받고있다. 1962년 3월 920만딸라의 차관을 미제로부터 받았으며 1963년 6월에는 서독과 《자본투자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4년에 까메룬은 프랑스와 새로운 재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4년 2월에 쏘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64년 4월에 련방민족의회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으며 1965년 3월에는 대통령 및 부대통령선거가 있었다. 1966년 6월 이 나라 4개정당 지도자회의에서 《까메룬련맹》, 《까메룬민족민주당》, 《까메룬통일대회》 및 《까메룬인민전국대회》를 합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까메룬민족련맹》이 창건되였다.

까메룬은 1966년에 쏘련과 경제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스꼬슬로벤스꼬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웽그리아, 벌가리아, 로므니아와도 무역을 하고 있다.

【련방민족의회】 현련방민족의회는 1965년 6월에 구성되였다. 의원수는 50명(동부까메룬 40명, 서부까메룬 10명)이다. 동서까메룬은 자기의 립법회의(동부의원수 100명, 서부의원수 37명)를 가지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련방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련방성원인 매개국가의 수상과 련방정부성원들을 임명한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아호마두 아히죠(1961년—)

【정당, 사회단체】 **까메룬민족련맹** 1966년 9월 1일 창건. 동서까메룬의 6개정당들이 통합되여 형성. 위원장 아호마두 아히죠. **까메룬민족련맹청년조직, 까메룬민족련맹녀성조직.**

경 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목화 등이다.

자연부원으로 보크사이트, 금, 주석, 철, 반토,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령토의 64%가 열대림이며 유용한 목재가 많다.

1966년에 2개의 섬유공장, 1개의 성냥공장, 1개의 농기구공장 등이 조업하였다.

까메룬에는 2만여키로메터의 도로와 530키로메터에 달하는 철도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알루미니움, 커피, 목재 등이며 주로 구라파공동시장국가들과 무역을 하고있다. 까메룬은 구라파공동시장 준성원국이다.

까메룬은 제2차 5개년계획(1966—1971)수행을 위하여 도합 1천 650억아프리카프랑이 지출될것이 예견되고있다. 화폐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대학으로서는 1963년에 창설된 련방종합대학(1964—1965학년도에 학생수는 1천 150명)이 있으며 아동취학률은 약 50%이다.

1966년말에 인구 2만 9천명에 1명의 의사가 차례졌으며(174명) 수도에서는 3천명에 1명의 의사가 차례졌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사 **신문** 유니떼 (집권당기관지), 라 프레스 뒤 까메룬, 레포르트 까메룬비즈.

야운데, 두알라 등에 방송국이 있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적도아프리카에 있으며 북쪽은 챠드, 서쪽은 까메룬, 동쪽은 수단, 남쪽은 콩고(킨)및 콩고(브)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있다.

기온이 가장 낮은 12월에 21°C 이며 가장 더운 6월과 7월에는 31°C이다.

3—5월과 7—11월은 우기이다.

【면적】 61만 7,000km²

【인구】 132만명(1964년)

방기아, 반다, 잔디 등 8개의 부족이 사는데 대체로 원시종교를 믿는다.

【수도】 방 기 (주민 약 10만명, 1965년)

정 치 1885년 《베를린회의》후 프랑스침략자들이 우방기 샤리에 침투하여 이곳 족장들에게 이른바《보호조약》을 강요하였고 우방기 샤리(현재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편입시켰다. 1911년에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제1차세계대전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또다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우방기 샤리는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나라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60년 8월 1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0년 다비드 다코 대통령은 야당인 중앙아프리카민주혁신운동을 비법화하고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의 1당독재를 확립하였다.

1964년에 있은 대통령선거, 국회선거, 지방자치기관선거를 통하여 집권당인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은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다코정부는 대외적으로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쏘련 (1960년)및 중화인민공화국(1964년)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장개석도당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5년 3월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은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의 결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으며 1966년 6월 5일 이 나라 내각은 말가슈공동기구의 헌장을 비준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군사령관 베델 보카싸대좌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66년 1월 4일 신정권은 나라의 헌법을 페기, 민족의회를 해산하고 국교조사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월 6일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2월 14일 대통령 보카싸는 자기의 정부정책은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아프리카의 통일, 평화 및 안전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보카싸는 대내정책분야에서 정부는 《로동, 질서, 평화 및 공정》이라는 4개의 구호를 제기했다.

1965년 8월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정부】 1966년 1월 3일 10명의 군인 및 민간인들로 구성, 대통령 겸 수상, 국방상, 사법상 장 베델 보카싸, 외상 장 아르뚜르 반디오

【정당】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 1946년에 창설, 1963년부터 유일당,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프랑스공동체》내에 계속 남아있을것을 주장.

경제, 사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는 농업에 기본을 두고있으며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150만 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마니오크, 목화, 옥수수, 기장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금, 철광석, 겔리움, 토리움이 있다. 이밖에도 동, 연, 우라늄, 아연 등이 있는데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금강석의 수매와 수출은 프랑스독점체가 틀어쥐고있다.

솜타기공장, 도자기공장, 벽돌공장, 정미공장, 정유공장, 소형제련소 등이 있다.

철도는 없다.

대외무역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커피, 금강석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프랑스(수입의 60%를 차지)이다.

화페단위는 아프리카프랑이다.

대학(1965년)은 없으며 주민의 90%이상이 문맹자이며 아동취학률은 28%이다. 인구의 35%가 카톨릭교도이며 5%가 회교도이고 기타는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에스빠냐령기네

까메룬의 남쪽(리오므니 2만 6천km²)과 기네만에 있는 여러개의 섬(가장 큰 페르난도포섬은 2천km²)들로 구성되여있다.

【면적】 2만 8,051km²

【인구】 25만명 (1965년)

대부분이 반투족이며 그밖에 약 5천명의 에스빠냐인들이 살고있다.

【행정중심지】 산타 이사벨(주민 3만 7,200명)

1778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12월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토착주민들은 리오무니에서 마니오크, 쌀, 과일, 남새 등을 재배한다. 구라파인들의 재배원(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사탕수수)은 주로 페르난도포섬에 집중되여있다. 세멘트, 가구, 식료품, 목재가공공장 등이 있다. 바트에는 미제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미제의 석유독점체인 《갈프석유회사》가 석유탐사권을 가지고있다.

산 토메도, 프린씨페도

기네만에 있는 화산섬이다.

【면적】 964km²(프린씨페도 140km², 산토메도 824km²)

【인구】 6만 3,700명(1965년)

주민의 90%는 반투족, 8%는 메티스족이며 기타 구라파인들이 산다.

【행정중심지】 산 토메(주민 8,000명)

1485년 이 섬에 침입한 뽀르뚜갈침략자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일단 쫓겨났다가 19세기에 또다시 이 섬을 강점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침략자들은 이 섬을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하고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산토메도프린씨페도해방위원회가 있다. 이 해방위원회는 1963년 8월에 섬주민들의 총파업을 지도하였으며 여러곳에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을 궐기시켜 투쟁하고있다.

이 섬에서는 뽀르뚜갈, 미제, 서독의 군국주의대독점체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가 봉

(가봉공화국)
Gabon Republic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꽁고(브), 까메룬과 접경하고있다.

【면적】 26만 7,000km²

【인구】 46만 3,000명(1965년)

삐그미, 팡, 오미에네, 바코타, 에시리 등의 부족이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리브르빌(주민 3만 1,000명)

정 치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의 일부였던 가봉은 1960년 8월 1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프랑스—가봉 《협조협정》에 의하여 가봉의 대외정책은 《프랑스—가봉위원회》가 결정한다. 프

랑스식민주의자들은 가봉에서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화폐발행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 등을 빼앗았다.

1964년 2월 17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므바대통령이 체포되고 가봉사회민주동맹 총비서 오밤을 수반으로 하는 《림시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2월 19일 프랑스침략군의 개입으로 정변은 진압되고 므바대통령이 복직되였다.

【민족의회】 1원제. 임기는 7년 1967년 2월 16일 민족의회는 헌법에 일련의 수정을 가하였다. 수정된 헌법은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7년에 한번씩 공화국대통령과 함께 선거될 공화국 부대통령직을 새로 내올것을 규정하였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하며 그의 임기는 7년, 대통령 레온 므바(1967년 3월에 재선), 외상 장 마리 므바

【정당】 가봉민주련맹(집권당) 반동적인 민족주의정당, 지도자 레온 므바.

사회민주동맹, 민족통일당 1958년 성립,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할것을 주장.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광업과 림업, 목재가공공업이다. 경제는 프랑스독점체들이 통제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와 서독군국주의 등도 침투하고있다.

무나나지역은 우라늄광매장지로서 프랑스—가봉혼성회사인 《우라늄 프랑스빌》이 개발하고있다.

이밖에 지하자원으로 원유가 생산되며 합판가공에 적합한 오꾸메재가 생산된다.

주요농산물은 목서,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땅콩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석유 기타 광물이다.

화폐는 아프리카프랑이다.

꽁 고(브)

(꽁고공화국)
Republic of Congo

중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있으며 북부는 까메룬 및 중앙아프리카, 서부는 가봉, 동부는 꽁고(킨)와 접경하고있으며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2~27°C이다. 계절의 구분이 없고 우기와 건조기로 나눌수 있으며 년강수량은 1,000~1,600mm이다.

【면적】 34만 2,000km²

【인구】 96만 6,000명(1964년 1월현재)

반루족계렬에 속하는바 꽁고, 바용비, 바레케, 바코타, 우방기, 빌리스, 발라리, 므보쉬족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브라자빌(주민 13만 5,600명)

정 치 고대꽁고는 단일한 계렬의 반루족이 형성한 왕국이였다. 이 왕국의 령토는 현재의 꽁고(브), 꽁고(킨), 앙골라지역과 모잠비크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 15세기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1875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0년 9월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10년에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꽁고(브)인민들은 오랜기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꽁고(브) 인민들의 투쟁은 무장항쟁의 형태를 띠고 확대발전되였다. 특히 꽁고의 민족적영웅이며 애국자인 마조카의 령도하에 1934년부터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무장투쟁은 9년간이나 계속되였다. 1934년 마조카는 체포되여 무참히 학살당하였으나 투쟁은 계속 지방적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꽁고는 드디여 1960년 8월 1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꼭두각시 율루피뢰정부를 조작하여 꽁고의 실권을 계속 장악하였다. 친프랑스적인 율루피뢰정부는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63년 8월 애국적인 꽁고인민은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피뢰정부를 타도하고 8월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꽁고인민들은 8월 13, 14, 15일을 《영광스러운 3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민족적명절로 맞이하고있다.

1963년 12월 8일 꽁고(브)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채택하고 민족의회를 새로 구성하였으며 12월 24일에는 마쌈바 데바를 대통령으로하고 파스칼 리쑤바를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8월혁명후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은 꽁고혁명의 전취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일련의 음모사건을 기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꽁고인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하여 분쇄되고 말았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1966년 4월에 리쑤바내각이 사직하고 5월 7일에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대통령】 1963년 헌법에 의하면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수상과 상들에 대한 임면권과 민족의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대통령 마쌈바 데바.

【민족의회】 1원제이며 임기는 5년, 의원은 55명, 의장 앙드레 무야비(1966년 5월 10일 선거됨)

【내각】 리쑤바내각이 사직하고 1966년 5월 6일에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암부무아즈 누마잘라이,

외상 다비드 자를레 가나오.

【정당, 사회단체】 **민족혁명운동당** 1964년 7월 2일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 총비서 알폰스 마쌈바 데바. **꽁고중앙통일로조련맹** 4개 로조단체의 련합체로서 1964년 11월에 창립. **민족혁명운동당청년부** 1964년 2월 8일에 창립. **혁명녀성동맹** 1965년 3월 3일에 창립.

【국내주요사건】 1965년 12월 31일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독자적조치에 의하여 내각개조가 진행되였다. 이 개조에서 대통령부비서제가 폐지되였으며 국방 및 수림담당비서인 다끄스따를 상으로 조동시키고 청년및스포츠담당비서 느말라를 해임시켰다. 그리고 일부 성들의 담당 부문을 변경시켰다. 그후 대통령은 좌파세력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1966년 5월 6일에 다시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였다. 마쌈바 데바대통령은 1966년 5월 6일 민족혁명운동당 제1정치비서인 누마잘라이를 수상으로하는 새로운 내각구성을 발표하였다. 수상으로 된 누마잘라이는 정부의 대외정책을 천명하면서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남로데시아백인정부를 규탄하였다. 그는 또한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자기정부가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며 전세계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새 정부구성에 뒤이어 5월 10일 국민의회선거에서는 앙드레 무야비가 의장으로 선거되였다. 이해 6월 22일 꽁고(브)공화국민족의회는 꽁고민족인민군을 창건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7일 반동계층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사촉밑에 군부와 므보쉬족청년들로써 반당, 반정부적음모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책동은 경각성높은 꽁고인민들과 마쌈바 데바를 지지하는 군인들에 의하여 저지되였다. 7월 25일 꽁고인민재판소는 이전 꽁고군부총참모장인 펠릭스 무자바카니를 비롯한 국가정변음모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일부 음모자들에게는 각이한 기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10월 10일 꽁고(브)에서 경찰및안전일군로조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11월 24일 마쌈바 데바대통령은 모부투집권 1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킨샤사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5년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7월), 정부대표단(8월), 사로청대표단(2월)이 꽁고(브)를 방문하였다.

꽁고(브)로부터 마쌈바 데바대통령(8월), 녀성대표단(7월), 민족혁명운동당청년대표단(10월), 공보및인민교육성 부상(10월) 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나라와의 관계 1966년 8월 꽁고(브)와 로므니아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11월 웰남민주공화국과 1966—1967년도 문화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으며 11월 27일 꽁고(브)와 체스꼬슬로벤스꼬간에 첫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꽁고(브)는 농업과 림업을 기본으로하는 나라로서 주민의 76%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옥수수, 바나나, 벼, 커피, 코코아 등이다. 산림은 전국면적의 58.5%를 차지하며 년간 목재생산량은 40만립방메터이다. 지하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전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있다. 현재 채굴하고있는 중요한 지하자원은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이다. 기업소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및 합영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본이 3천만아프리카프랑이상되는 기업소는 도합 62개이다. 이 기업소들의 자본총액은 약 100억아프리카프랑이다. 그중 니아리광업및농업회사의 자본은 18억 6천 933만아프리카프랑이다. 기업소들의 대부분은 외국독점회사들이 운영하여 왔다. 꽁고에 있는 프랑스회사들은 산림채벌과 목재가공, 종려생산과 농산물가공, 전력, 운수부문에, 미제, 서독, 이스라엘 등의 독점자본의 회사들은 광업, 석유채취및 탐사부문에 침투하였다.

혁명후 정부는 《자력에 의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라는 구호하에 경제건설에서 외국독점자본에 의존하는것을 극력 피하고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며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공장들을 건설하되 투자가 적게 드는 작은 공장건설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큰 공장을 건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1965년 1월 마쌈바 데바대통령은 꽁고정부의 주요과업은 민족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대한 관리를 자기수중에 장악하며 정치생활에 대한 외국자본의 간섭을 좌절시킬 권리를 예견하고있다고 강조하고 농산물의 수출로 인한 예속을 청산하기 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우리정책의 기본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8월혁명후 꽁고(브)정부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체결한 군사, 경제 및 재정에 관한 예속적인 협정을 페기하고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 및 병영을 철폐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련의 프랑스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꽁고는 1964—1968년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제1차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는 경제부문의 생산설비들을 증대하며 운수통신망을 확장할것과 생산중심지대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5개년계획기간의 투자총액 503억 4,700만아프리카프랑중 도로

건설에 45억 아프리카프랑, 철도에 16억 500만 아프리카프랑을 각각 투자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재(수출의 60%), 땅콩, 코코아, 커피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식량과 소비물자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 프랑스와 서독이다.

1966년도국가예산은 세입과 세출에서 균형을 이루고있는데 예산총액은 111억 4천 500만아프리카프랑이다.

정부는 민족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5년 8월 12일 민족의회 특별회의에서는 교육제도의 기본원칙들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령은 국립학교들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민족적특성에 맞게, 무료로 실시하며 교회와 개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국유화할것을 규정하였다.

1차5개년계획기간에 교육분야의 시설비에 대한 총투자액으로써 19억 3,900만 아프리카프랑을 예견하고있다. 1966년에 꽁고(브)의 포트 루쎄시에서 첫기술대학이 개교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브) 통신사.

신문 에둠바(민족혁명운동당기관지), 디팡다(민족운동청년부기관지).

방송 꽁고혁명의 소리.

카 빈 다

(뽀르뚜갈식민지)

꽁고와 앙골라의 접경지대인 대서양연안에 있다.

【면적】 7,770km$_2$

【인구】 4만 6,277명

최근년간 카빈다에서는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 카빈다인민들은 뽀르뚜갈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대시위를 진행하였다. 1963년초에는 카빈다의 무장한 폭동군과 뽀르뚜갈 침략군대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일하고있다. 주요 생산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등이다.

꽁고 (킨)

(꽁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꽁고강 류역에 있다. 꽁고강하류지방에서는 10월말부터 이듬해 6월말까지는 우기이며 6월부터 10월초까지는 건조기로서 평균기온은 26~27°C이다. 상류의 카탕가지방에서는 11월부터 4월중순까지가 우기이고 10월말경까지 건조기가 계속되며 평균기온은 20~25°C이다.

【면적】 234만 4,932km²

【인구】 1,530만명(1964년)

주민은 200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약 900만명이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킨샤사(주민 40만명)

1966년 5월에 나라이름을 꽁고민주공화국으로, 수도 레오뽈드빌을 킨샤사로 고쳤다.

정 치

꽁고는 1908년 11월 15일 벨지끄의 식민지로 되였다. 50여년간의 완강한 투쟁끝에 꽁고인민은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후에도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꽁고와의 일련의 협정들에 빙자하여 꽁고의 정치, 경제, 군사령역을 의연히 장악하고있었으며 자기의 주구 쏨베를 사촉하여 카탕가주를 장악케하였다.

1960년 7월 8일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벨지끄침략군 장교들을 반대하는 꽁고정부군병사들의 폭동(7월 6일)을 구실로 꽁고에 대한 무장간섭을 개시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유엔군》을 파견하여 꽁고에 대한 무장간섭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는 9월 14일 반동적인 꽁고 륙군참모장 모부투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합법적인 루뭄바정부를 전복케하였으며 1961년 1월 18일 루뭄바수상과 그의 전우들을 학살케 하였다.

1960년 12월 루뭄바정부의 부수상 안뚜완 기젱가는 키산가니를 림시수도로 하고 자신이 수상직을 담당하였다.

1961년 8월 미제의 조종하에 발족한 아둘라정부는 《유엔군》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합법적인 기젱가정부를 해산시키고 기젱가를 연금하였다.

꽁고애국력량은 굴하지 않았다. 1964년 1월 월루주에서 반미반정부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애국적무장부대는 불과 몇달동안에 전국의 3분의 1을 해방(민족리사회의 발표)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1964년 7월 아둘라를 내쫓고 쏨베를 《수상》자리에 앉혀 《민족화해》의 기만극을 벌리게 하였다. 한편 쏨베도당은 미제의 무기 원조를 받으면서 국내 애국력량을 탄압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로데시아 등에서 백인고용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18일 루뭄바를 살해한 쏨베의 정체가 날날이 폭로되여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들로부터 배척, 고립되고 그가 벨지끄식민주의자들에게 적극 복무하며 애국력량의 투쟁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자 미제는 1965년 10월 18일 쏨베대신 킴바를 《수상》으로 하는 새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그도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받지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쏨베가 또다시 집권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괴뢰들간의 권력쟁탈전이 심화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11월 25일 미제는 꽁고괴뢰

군 《사령관》 모부투로 하여금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모부투는 카사부부와 김바를 해임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괴뢰군참모장 물람바에게 조각을 위임하였다.

1966년에 들어서 모부투는 대내적으로는 인민들과 민족해방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진보적인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시도하였다.

1966년 12월 내각을 개편하여 자기가 수상겸국방상을 담당하였다. 그는 또한 12개의 주를 8개주로 줄이고 주지사를 중앙정부의 임명제로 개편하였으며 주청부를 해체하고 그 관리들은 내상의 통제를 받게하였다.

모부투는 집권이후 자기와 쫌베세력간에 재발된 무장충돌을 계기로 미제와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의 대내외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위해 적극 책동하였다.

그는 《경제적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인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독립전에 외국회사들에 《양보》하였거나 특허권을 준 땅, 산림 및 광물자원의 관리권을 꽁고가 소유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모부투괴뢰정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1966년 9월 26일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같은 해 9월 26일과 30일 꽁고(킨)는 쏘련, 알제리, 기네, 말리와의 관계를 정상화한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모부투는 주동적으로 에티오피아, 나이제리아, 우간다, 부룬디, 케니아 등에 특사들을 파견하여 국가관계회복을 제기하였으며 모부투자신이 1966년 11월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자회의에 참가한후 탄자니아, 잠비아, 중앙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모부투가 이와같이 기만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제적인 중립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자기정권에 환상을 갖고 꽁고(킨) 인민무장부대를 지원하지 못하게하기 위한 것이였다.

한편 그는 안뚜완 기젱가를 석방하였으며 벨지끄로 도망친 쫌베의 결석재판을 벌려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또한 파트리스 루뭄바를 《추모》하는 일련의 조치와 행사들을 진행함으로써 마치도 자신을 애국자인듯이 가장하는 등 기만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늘 꽁고인민의 무장투쟁은 3개전선 즉 동부주, 키부주 및 북부 카탕가를 포괄하는 동부전선과 퀼루주를 중심으로하는 서남 전선 그리고 적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적도전선에서 적들을 족치고 있다. 무장부대는 특히 가스톤 수미알로가 지도하는 동부전선과 물레레가 지도하는 서남전선에서 맹렬히 활약하고있다.

인민무장부대는 꽁고 (킨) 령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평방키로메터의 지대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고있다.

1965년 4월 꽁고인민해방운동에 참가하고있는 각이한 군사 및 정치단체 대표들의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서 꽁고의 민족해방력량들은 꽁고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추진시키기 위하여 수미알로를 수반으로 하는 꽁고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대통령】 죠세프 모부투

【국회】 상, 하 량원으로 구성, 임기는 5년, 1967년 6월 29일 국회를 1원제로 하며 정당을 2개까지만 인정하는 새 헌법을 발포.

【정부】 1966년 12월 17일 내각개조. 수상 겸 국방상 죠세프 모부투, 외상 쥬스탱 봄보코.

【정당, 사회단체】 **꽁고최고혁명리사회** 민족리사회 지도기관을 대신하여 1965년 4월에 조직,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꽁고애국력량을 단합시키며 그들의 투쟁을 지도. **꽁고인민혁명운동당** 모부투가 조직. **꽁고민주전선** 친미정당. **꽁고전국로조총평의회**.

경제, 사회 꽁고의 지하자원은 우라늄, 금강석, 철, 아연, 주석, 은,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이다.

금강석과 광물들은 모두 벨지끄, 미국,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체들이 운영하는 《유니온 미니에르》회사가 장악하고있다. 꽁고에 대한 투자에서 벨지끄는 첫자리를 차지하는바 그것은 무려 40억딸라에 달하며 꽁고경제의 70%이상을 통제하고있다. 1963년 꽁고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12억딸라이다. 미제는 《유니온 미니에르》 회사주권의 20%를 장악하고있다.

전령토의 절반이상이 산림이며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종려, 야자,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밖에 차, 삼, 옥수수, 나무감자, 벼 등이 있다.

농업총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1964년에 비해서 1965년에 32%나 떨어졌다. 한때 수출하던 밀은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광물이며 주요수입품은 광산기계설비, 소비품 및 미제의 《잉여농산물》이다.

미제는 꽁고에서 해마다 막대한 전략 원료를 략탈해가고 있다.

꽁고의 재정적형편은 악화되여 가고있는바 1960년부터 1965년까지의 꽁고의 재정적자는 750억 꽁고프랑에 달한다. 1965년의 세출은 50%나 증가하고 세입은 겨우 7% 증가하였다.

1960년이래 물가는 평균 6배 이상으로 올랐다. 많은 도시들에서 주민의 반수가 실업자이다. 꽁고에는 약 94만명의 마라리아환자와 약 4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다. 젖먹이 사망률은 50%나 된다. 원주민의 97%가 문맹자이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Republic of Brundi

르완다의 남쪽에 있으며 탄가니카호에 면하고있다.

【면적】 2만 7,834km²

【인구】 300만명(1964년)

주민의 대다수는 키룬디어로 말하는 바룬디족이다. 바룬디족은 크게 두개의 종족집단 즉 바후투족 (주민의 75%)과 와투치족 (평균 신장이 2메터로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으로 구분된다.

주민의 5%는 피그미족(평균 신장이 1.3메터로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다)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부숨부라 (주민 4만 5,000명)

정 치

16세기에 《므와미》라고 부르는 세습적인 봉전왕국으로 형성된 이 나라는 독립전까지 《르완다 부룬디》로 불리워왔다. 1890년에 독일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22년에 벨지끄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6년 12월에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1957년에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르완다부룬디민족동맹》이 창설되고 인민들의 기세가 고조되자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11월 와투치족과 바후투족간에 리간을 조성시켜 대규모의 충돌을 일으켜놓고 《질서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1961년 1월 미제와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꽁고(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는 구실로 국왕 키겔리를 내쫓고 벨지끄신탁통치의 존속을 주장하는 기독교민주당의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부룬디인민의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해 9월에 진행된 립법회의선거에서 르와가소르왕자가 지도하는 통일민족진보당이 승리하여 그가 수상으로 되였으나 그후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반동들을 사촉하여 르와가소르수상을 암살하였다.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1962년 7월 1일 부룬디는 르완다와 분리되여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6월 므히르와수상이 국왕과 대립되여 사임한후 느겐단둠베부수상이 수상으로 취임하였다가 1964년 4월 종족문제로 사임하였다. 그후 통일민족진보당의 모야가 수상으로 되였으나 1965년 1월 해임되였다. 느겐단둠베가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였다가 1965년 1월 15일 미제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

3월 3일 국왕은 민족의회를 해산하고 5월 10일 새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10월에는 1960년이래 계속되던 바후투족과 지배종족인 와투치족간의 투쟁이 재발되였다.

10월 19일 무장한 바후투족병사들이 궁전과 수상관저를 무장공격한 반정부운동이 있었으며 10월 23일 부숨부라의 교외에서 량민족간의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수상이 중상을 입고 바후투족출신의 많은 군사 및 정치활동가들이 체포되였다. 통일민족진보당대표가 반란자들에게서 거액의 미국딸라가 발견되였다고 발표하였다.

1966년 1월 10일 부룬디왕국정부는 자기나라에 와있는 미제대사 도날드 도몬과 대사관관원 2명을 부룬디내정에 간섭하였다는 리유로 추방하였다.

1966년 7월 8일 황태자 샤를 느지제이에가 자기 아버지인 국왕 므왐부짜 4세를 퇴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다음 륙군대위 미쉘 미촘베로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수상미촘베로는 같은해 11월 28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세습적인 왕정을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은후 부룬디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오늘 부룬디인민은 부룬디정부의 령도밑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각종 분렬 및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화목과 통일을 이룩하며 자주자립을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부룬디공화국은 대외정책에서 중립을 내세우면서 반제기치를 들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하고있다.

윁남에 대한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 책동을 규탄하고 윁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벨지끄 등 제국주의자들과 경제적관계를 가지고있다.

아프리카의 진보적나라들 특히 린접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하고있다.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부룬디공화국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있다.

【정부】 현정부는 1966년 12월 6일 구성. 대통령 겸 수상, 국방상 미쉘 미촘베로, 외상 니온가보가

【정당】 **통일민족진보당** 새정부가 구성되기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었다. 1957년에 창립. 사회단체로서 **부룬디로동자련맹**, **부룬디전국학생동맹**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이 나라는 경제정책에서 나라의 경제가 외국자본에 의하여 예속되는것을 경계하면서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농업에서는 수출공예작물생산과 목축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주요수출공예작물로 커피(수출품의 80%이상

을 차지함), 차, 목화 등이 재배되며 알곡작물로 수수, 옥수수, 밀 등이 생산된다. 1966년에 1만 4천 670톤의 커피가 생산되였다.

부룬디에는 좋은 자연목장이 많다. 뿔난집짐승은 41만 5천마리, 양과 염소는 약 100만마리에 달한다. 탄가니카호에서는 담수어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지하자원은 금, 주석 등이 있으나 벨지크독점체들이 채굴권을 쥐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외국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금강석구매소들의 경영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관계자들을 축출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부숨부라에는 세멘트공장, 맥주공장, 방직공장이 있다.

화폐단위는 부룬디프랑. 1부룬디프랑은 1벨지크프랑과 같다.

소학교 2천 960개, 중학교 11개, 부숨부라에 대학이 하나 있다.

르 완 다

(르완다공화국)

Republic of Ruanda

콩고(킨)의 동쪽에 자리잡고있으며 북쪽은 우간다, 동쪽은 탄자니아, 남쪽은 부룬디와 경계를 이루고있다.

【면적】 2만 6,383km²

【인구】 301만 8,000명(1964년) 인구의 84%가 반투계의 바후투족이다. 기타는 이전의 지배계급이였던 니토로계의 와투치족과 소수의 피그미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키갈리(주민 1만명)

르완다는 1896년에 부룬디와 함께 독일령동아프리카의 일부로 되였다. 제1차대전후 벨지크의 《위임통치령》으로, 1946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행정상 콩고(킨)에 속해있었다. 1957년에 독립을 주장하는 《르완다부룬디민족동맹》이 창설되였고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고조되자 불안을 느낀 벨지크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11월 《민주화》라는 간판밑에 피지배종족이던 바후투족의 정당인 파르메후투당(바후투해방당)을 사촉하여 와투치족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르완다국왕 키게리는 해외에 망명하였으며 바후투족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수만명의 와투치족이 우간다 등에 피난하였다. 1960년 9월 총선거에서 파르메후투당이 승리하였으며 동시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83%가 왕권제도폐지에 찬성하였다. 1961년 1월 국왕을 내쫓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62년 7월 르완다부룬디는 르완다공화국과 부룬디왕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하였다.

1963년 1월—1964년 1월에 바후투족과 와투치족간에 큰 충돌이 있었다. 1965년 10월초에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있었다.

【국회】 최고립법기관이다. 1965년 10월 선거에서 파르메후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의원수는 44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수상이다. 대통령 그레고와르 카이반다(1965년 10월 —), 외상 라자레느 파카니예.

【정당】 **파르메후투당** 바후투족을 대표하며 벨지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당, 당수 카이반다 **아프르소마**(사회진보협회). **르완다민족동맹** 와투치족을 대표한다.

경 제 농업국가로서 목축업을 주로하고있으며 주요농산물은 커피, 목화, 차, 담배 등이다.

중부와 서부지방에서 주석, 탄타르광도 채굴된다. 그러나 이것도 벨지크독점자본이 장악하고있다. 전후에 미제자본도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원주민의 식량은 옥수수 및 고구마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집짐승, 제충국, 주석, 탄타르광 등인데 거의다 벨지크에 수출되고있다.

우 간 다

Uganda

동부아프리카고원지대의 중앙에 위치하고있으며 적도가 나라의 하단을 지나가고있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빅토리아호의 절반이 이 나라에 속해있다. 기후는 열대에 속하나 고원지대임으로 최고기온은 23.4°C이고 최저기온은 20°C이다.

강우량은 년평균 1,000—1,200 mm이다.

【면적】 24만 3,410km²

【인구】 755만 1,000명(1966년 현재)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프리카인들이며 기타는 인도인, 파키스탄인, 아랍인, 구라파인들이다.

아프리카종족들로는 크게 반투계, 함티계, 나로함티계, 수단계종족으로 나눌수있다.

종족에 따라 여러가지 언어가 사용되나 스와힐리어가 공통적인 언어로 널리 사용된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캄팔라 (주민 5만명)

정 치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94년에 부간다(우간다의 한 왕국)를 강점하고 1896년에는 우간다의 전령토를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독립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는 1961년 10월에 있은 우간다제헌회의에서 내부자치를 거쳐 우간다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 1일 내부자치정부가 수립되였고 1962년 10월 9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우간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목적으로 부간다왕국과 분요로왕국간에 령토분쟁을 조장하였다. 또한 종족

간에 불화를 조성하여 놓았으며 다른한편 우간다를 통치하고있는 1천 200명의 영국식민주의관리들을 몰아내는 경우에는 우간다정부가 1천 200만영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협정을 강압체결케 하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우간다에서 총독 및 기타 정부기관의 요직을 계속 차지하고 군대의 장비와 훈련을 비롯한 일체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독립후 우간다정부는 영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 있는 외국인(주로 영국인)들을 점차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하는 《아프리카인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3년 9월 민족의회에서 영국놈 총독을 우간다인 대통령으로 바꿀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영국인상과 성들에 있는 외국인 상설서기, 경찰총감, 군사령관들을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하였으며 군대내의 구라파인장교들을 축소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권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1966년 2월 22일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국내봉건세력들의 반정부음모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밀론 오보테는 반동적인 5명의 각료들을 체포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모든 정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 1962년에 채택된 헌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직을 폐지하였다. 1966년 4월 15일 우간다민족회의는 새 헌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오보테를 대통령으로 하였다. 이때로부터 우간다는 개별적인 왕국의 련방으로부터 새 헌법에 따라 단일한 국가로 되였다.

1966년 4월 콩고(킨)모부투의 우간다방문을 계기로 썀베집권시기 긴장되였던 량국간의 관계가 완화되였다.

1966년 5월 25일 우간다정부는 미제의 방송회사에서 근무하던 3명의 기자들을 쫓아냈다.

1966년 8월 25일 《우간다로동조합대회》와 《우간다로조련맹》을 통합하여 《우간다로동련맹》을 창설하였다.

1966년 11월 10일 오보테는 부간다왕국에 대한 계엄령을 철회하였다.

1966년 12월 30일 우간다정부는 영국회사소속 비행기의 비법적인 우간다 비행장의 착륙과 관련하여 비행기와 승무원들을 억류하였다.

우간다는 대외정책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와는 1963년 3월 2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민족의회】 1원제이며 의석은 91석이다. 민족의회는 헌법에 따라 최고립법기관으로 되고있다.

【정부】 1963년 10월에 초대대통령으로 부간다국왕 무테사 2세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무테사 2세가 축출된후 1966년 4월 15일 민족의회는 밀론 오보테를 정식 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1966년 4월 30일 밀톤 오보테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대통령 아폴로 밀론 오보테.
외상 에스 오다까.
국방상 펠릭스 오나마와

【정당, 사회단체】 **인민대회당**(집권당) 1960년 3월 9일 창건, 당수 밀론 오보테. **카바카예카당** 1961년 10월에 창건, 부간다왕의 이름을 가진 당으로서 부간다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전통주의자들로 조직되였다. **우간다민주당**(야당) 1956년에 창건. 영제국주의자들과 카톨릭교회와 련계를 가진 국내부르조아지와 봉건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이다. **우간다로동련맹**(1966년 8월 25일 창건), **우간다전국청년단체**(1966년 2월 창건)

경제, 사회 농업이 우간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이며 농산물이 우간다수출에서 90%(그중 커피와 목화가 70% 이상)를 차지한다.

주민의 압도적 다수(90~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간다정부는 농촌경리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작경리로부터 다각적경리로 전환하며 1968년에 가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목화, 커피를 위주로 하면서 사탕, 담배, 바나나, 기장, 수수, 콩, 땅콩, 옥수수, 마니오크, 감자 등을 재배하고있다.

축산업은 북부의 반유목 및 유목종족들이 주로 한다. 1963년 아프리카인들이 소유한 뿔난집짐승은 350만마리, 양, 염소는 200만마리였다.

우간다는 수산업이 발전하였는데 어획고는 1964년의 6만 9천 424톤으로부터 1966년에는 7만 4천 156톤으로 증가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탕그스텐, 주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등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못하고있다.

1964년 11월말현재 우간다에서 등록된 공업기업소는 1천 654개에 달하였다.

우간다는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전력생산은 1963년에 4억 9천 700만 키로와트시(그중 1억 9천만 키로와트시는 케니아로 송전)였으며 경제에서 지배적지위는 외국자본 주로 영제국주의자본이 차지하고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1966년 6월까지)을 끝내고 총투자액 2억 3천만파운드를 예견하는 제2차 5개년계획(1966년 7~1971년 6월)실행에 착수하였다. 계획기간농업생산을 계속 장성시키면서 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발전을 더 촉진시키게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배로 장성하게된다. 현재의 40개농장으로부터 100개의 농장으로 확대되게된다. 현재 약 400대의 뜨락또르가 진야에서 작업하고있는데 2차 5개년계획말에 가서는 1천 250대로 증가될것이 예견되고있으며 4개대상의 관개공사를 완공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2차5개년계획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진보를 위하여 일하자》라는 구호하에 전체 인민을 동원시키고있다.

무역은 커피와 목화에 기본을 두고 있다. 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일본, 서독, 이딸리아, 케니아, 탄자니아 등이다.

최근 무역액을 보면 1966년도에 수입액은 4천 294만 6천 851파운드였고 수출액은 6천 593만 5천 785파운드였다.

우간다는 1966년 7월 20일 동아프리카공동화폐를 대신하여 자국의 화폐인 우간다 쉴링을 발행하였다.

교육에서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만이 확장되고 있다. 1965년에 54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2차 5개년계획기간에 중학교학생수를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수도 캄팔라에는 동아프리카종합대학의 부속대학이 있다.

정부는 보건부문발전을 위하여 2차 5개년계획기간 1천 300만파운드(총투자액의 10%이상)를 지출할 예정이며 그 기간에 22개소의 새 병원들을 지방들에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종교로서는 카톨릭교, 회교 등이 있으나 주민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왕국)
Empire of Ethiopia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하고있으며 소말리아, 케니아,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전령토가 고원지대이다.

【면적】 118만 4,320km²

【인구】 2,259만명(1965년)

주요민족은 함족계의 암하라족(주민의 반수를 차지)과 가라족이 있으며 남서부에는 니그로계의 샹카러족, 동부에는 다나키르족, 소말리아족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디스 아베바 (주민 56만명)

정 치

기원전 1천년대에 아크숨왕국으로 있다가 4세기경에 기독교국으로 되였다.

2차에 걸치는 회교도침입이 있었으나 1855년에 테오돌왕이 전국을 완정하였다.

1869년부터 이딸리아침략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935년 10월에는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되였다. 1940—1941년에 영국제국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딸리아침략자들을 몰아내고 1942년 1월에 에티오피아에 《주권》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2년 9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관리하였던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여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2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한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조선인민의 원쑤이다.

1966년 9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군사대표단을 철수하였다. 1954년 5월 미제와 90년간의 《군사기지대여협정》을 체결하였다. 에티오피아는 마싸와항의 해공군기지를 미제에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500만딸라의 미제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다.

국가의 요직은 왕족일파가 독점하고있으며 정부의 주요기관과 군대에는 미제의 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립헌군주국이다. 이 나라에는 정당도 없고 황제가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1960년 12월에 국내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부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였다. 1960년 12월이래 소말리아와의 령토분쟁으로 국경충돌이 있었으나 1964년 4월 량국은 정화를 실시하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1965년 10월에는 방송, 출판물들을 통한 적대적인 선전을 서로 중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케니아와는 소말리아의 국경분쟁으로하여 호상방위협정(1963년 12월)을 맺고있다.

에티오피아는 1957년 7월이후 적극적인 중립정책을 내세우면서 국내회의들에서 아프리카나라들과의 통일단결을 주장하고있다.

경제분야에서 미제, 서독과 관계를 맺고있다.

【국왕】 하일레 셀라시에(1930년 1월—) 국왕은 행정, 립법, 군사, 외교분야의 최고결정권을 가지고있으며 국가의 최고원수이다. 왕위는 세습적이다.

【의회】 량원제.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129명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25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1966년 3월 24일에 에티오피아력사상 처음으로 국왕 하일레 셀라시에가 수상에게 신내각을 조각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상 테샤피 테자즈 아크릴루 하브테 웰드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경지면적의 90%는 왕족, 봉건지주, 교회 등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밀, 보리,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광물자원은 개발되지 않고있으며 공업도 뒤떨어져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3%를

차지하며 중공업은 없다. 에티오피아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있는바 1963년에는 외국투자에 대하여 첫 5개년간은 세금을 면제한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커피, 가죽, 곡물 등을 수출한다.

화페는 에티오피아딸라이다.

주민의 60%가 기독교도이며 3분의 1이 회교를 믿는다. 교육은 아프리카에서 뒤떨어진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취학률은 20%정도이다.

소 말 리 아

(소말리아공화국)
Republic of Somalia

소말리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아라비아반도에 면해있다.

평균기온은 25~30°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300mm이다.

【면적】 63만 7,593km

【인구】 231만명(1964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인(95%)이다.

공용어는 소말리아어이며 기타 아랍어, 영어, 이딸리아어를 사용한다.

【수도】 모가디쇼(주민 13만명)

정 치 기원 12—13세기에 소말리아는 통일적인 국가였으나 1449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여 수개의 소공국들로 분할하였다. 17세기에 뽀르뚜갈침략자들은 아랍인민들에 의하여 쫓겨났다.

14세기부터 소말리아는 아랍지역과 아세아지역나라들을 대상하여 경제,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1827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소말리아에 침입하여 각 부락추장들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1887년에는 점령한 지대를 정식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1889년에 이딸리아침략자들은 영국《보호령》동쪽연해지대의 추장들에게 예속적인 협정을 강요하여 이 지역을 이딸리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8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강점한 소말리아지역에서 하우드주와 오가덴주를 에티오피아에 넘겨주었다. 또한 일부지역(케니아의 북부국경지역)을 자기들의 식민지인 케니아에 편입시켰다.

소말리아인민들은 19세기말부터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동북아프리카인민들과 함께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1959년 2월부터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60년 6월 26일 영령소말리아가, 6월 30일에는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각각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7월 1일에는 70여년동안 분할되였던 두 지역이 통합되여 단일한 소말리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소말리아지역은 아직도 식민지통치하에 있다.

소말리아가 독립한후에도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예속적인 소위 《우호조약》, 《령사권리협정》, 《재정원조협정》, 《항공 및 항해원조협정》 등을 강요하였다.

최근년간 미제는 동부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창설하기 위해 침투하려고하였으나 소말리아인민의 항거에 부딪치고있다.

독립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니아는 령토권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상이가 있다.

1966년 5월 11일 소말리아민족회의는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여 강한 제재를 가할것을 예견한 정부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남로데시아로 가거나 남로데시아에서 들어오는 일체 상품을 금지하며 남로데시아 선박들이 소말리아항구에 들어오며 비행기들이 비행장에 내리는것을 금지하였다.

소말리아는 적극적이며 독자적인 중립 및 쁠럭불가담정책을 자기의 내외정책으로 내놓고있으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립장을 취하였다.

정부는 세계의 모든 분쟁문제를 《민족자립의 원칙》에서 해결할것을 주장하며 린접국인 에티오피아, 케니아와의 령토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 청산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외국군사기지설치를 반대규탄하고있다. 중근동사태와 관련하여 소말리아는 아랍과 수리아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폭로규탄하였다.

소말리아는 령토문제와 관련하여 1963년 3월에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2년에 우리 나라와 소말리아간에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67년 4월 12일에는 두 나라간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되였다.

일련의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외교 및 경제관계를 맺고있다.

【국민의회】 민족회의이다. 현 민족회의는 1964년 총선거의 결과 구성되였으며 의원수는 123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민족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 해임하며 대사령을 공포하며 국제조약과 협정을 비준하며 무장력을 지휘한다.

아브디라쉬드 알리 쉐르마르크(1967년 6월 11일피선)

【정부】 1967년 7월 13일 구성.

수상 겸 외무상 모하메드 하지 이브라힘 에갈, 외무담당국무상 알리 오마르 쉐고, 국방상 론하지 유수프 굴라이드.

【정당, 사회단체】 청년련맹당

(집권당) 1943년에 이딸리아령소말리아에서 지주, 상인 및 상층인테리들로 구성되였다. 이 당은 소말리아 각지역을 통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며 사회개혁을 실시할것을 주장한다. 당원수 약 6만명, 당수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민주련맹단** 1960년 9월 27일 소말리아민족동맹과 통일당이 통합하여 민족동맹통일당으로 되였다가 1962년 2월에 대소말리아련맹과 합당하였다. 전 이딸리아령지역의 소부르죠아지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을 대표한다. 이 당은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윁남에서의 미제침략군철거를 요구하는 등 반제립장이 강하며 야당중에서 진보적인 당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며 인민들의 신임을 받고있다. **전국사회주의대회당** 이 당은 소말리아에 기여들어온 미제의 《평화군》을 미중앙정보국의 간첩들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타 진보적인 야당으로서 **독립헌당**, **민족통일전선** 등이 있다.

사회단체로서는 **로동자련합회**, (남부지역), **로조련합회**(북부지역), **소말리아로동총련맹**, **소말리아민주학생련합회** 등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초원으로 되여있다. 인구의 80%가 목축, 반농업에 종사하고있으며 순농사군은 10%이다. 경지면적은 약 80만헥터이며 주요농산물은 수출작물인 바나나, 사탕수수, 땅콩, 목화인데 이딸리아독점체들이 그 생산을 장악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정부는 농업을 단작경리로부터 다각경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벼, 밀을 시험재배하고있다.

1963년에 알곡은 10만톤, 땅콩은 2천톤 생산되였다.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향료는 세계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있다.

목축업은 이 나라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소, 양, 염소이다. 집짐승마리수는 2천 500만마리, 그중 염소와 양은 1천350만마리, 락타는 500만마리, 뿔난집짐승은 200만마리이다.

지하자원으로로는 망간, 연, 동, 석, 록주석, 석유, 운모 등이 있다. 공업은 육류, 수산물, 가축가공공업과 사탕, 면방직공업이 위주이다.

지금 소말리아는 농업과 목축업발전을 중시하는 1차 5개년계획(1963—1967년)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후 소말리아정부는 장기간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하였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일부 외국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964년 12월 3일에는 외국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상업허가증을 취소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화폐단위는 소말리아쉴링(1쉴링은 0.14딸라이다)

소말리아는 통일된 민족어를 가지고있었으나 문자는 없었다. 독립후 정부는 언어위원회를 창설하고 문자를 제정하였다.

5년제의 소학교, 3년제의 전기중학교, 3년제의 후기 중학교가 있다. 최고학부로서 모가디쇼종합대학이 있다. 1964년에 학교는 296개가 있었다. 교육은 이딸리아어, 아랍어, 영어 등으로 한다.

또한 소말리아 각지에 많은 병원들이 건설되였다. 지금 20여개의 병원과 35개의 진료소, 8개의 건강진단소가 있다. 뿐만아니라 160개의 아동의료단이 정상적으로 궁벽한 농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 정부는 결핵치료 및 예방사업을 선행하고있다.

전국적으로 1천 800여명의 준의, 80여명의 의사들이 있다.

프랑스령소말리아

아프리카의 동북에 위치하며 아덴만에 면해있다.

【면적】 2만 3,000km²

【인구】 8만 1,000명(1961년)

다나크족, 소말리아족, 아랍족, 구라파인이 산다.

【행정중심지】 지부티(주민 4만 1,000명, 1961년)

프랑스령소말리아는 원래 소말리아의 일부였다. 1882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지부티에서 거주권을 얻은후 이 지역(현재의 프랑스령소말리아)을 자기의 《보호령》으로, 1958년 9월에는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최근년간 소말리아민주동맹을 중심으로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다.

특히 1966년 8월하순 프랑스식민주의 두목 드 골의 이 지역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프랑스령소말리아인민의 투쟁이 더욱 강력히 전개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못이겨 1966년 9월 21일에 다음해 7월 1일전으로 프랑스령소말리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되였다.

소말리아공화국은 프랑스령소말리아가 자기나라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고있다. 지부티에는 프랑스침략군의 해군기지와 국제민용공항이 있다.

주민의 태반은 반목축업에 종사하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도 한다. 과일, 남새 등도 재배하며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도 채취한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Republic of Kenya

케니아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 인도양과 소말리아, 서쪽은 우간다, 남쪽은 탄자니아, 북쪽은 에티오피아와 접경하고있다. 년평균 기온은 20°C이며 강우량은 750~1,000mm이다. 해안지대는 습하고 무더우며 고원지대는 년중 가을철 날씨이다.

【면적】 58만 2,600km²

【인구】 964만 3,000명(1966년)

주민의 절대다수는 아프리카인(키쿠유, 루오, 캄바, 마사이 등 100여개의 부족)이고 기타 구라파인, 아세아인, 아랍인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나 스와힐리어를 널리 사용한다.

【수도】 나이로비(주민 약 35만 5,000명, 1966년)

정 치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20년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특별거주지》를 설정하고 600여만의 아프리카인들을 전령토의 5분의 1밖에 못되는 가장 척박한 지대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인구의 1%도 못되는 백인들은 전경지면적의 24%의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였다.

케니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22년 키쿠유중앙협회가 설립된이후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제2차대전후 케니아아프리카인민족동맹이 창설되였으며 또한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위한 《마우마우》(반식민주의적인 애국적농민조직)의 투쟁이 장기간 완강하게 진행되였다.

특히 케니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1952년 《마우마우》의 지도하에 케니아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적인 무장투쟁이 있은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였다.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떠선 이 농민투쟁은 케니아지역에서 3년간(1953—1956년) 계속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52년 10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기간에 1만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을 학살하고 수만명을 체포, 구금하였으며 1억 5천200만파운드를 탕진하면서 탄압하였으나 결국 케니아는 독립하였다.

1963년 6월 조모 케니아타를 초대수상으로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1963년 12월 12일 케니아는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독립하였으며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12월 12일 케니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케니아타수상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케니아는 대외정책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표방하고있다.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인 케니아는 아프리카의 통일을 주장하고있다. 특히 조모 케니아타대통령은 케니아,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으로 형성되는 동아프리카 련방창설을 제창하고있다.

【민족의회】 량원제이며 하원은 129석, 그중 12명은 민족의회대표들이 선거한다. 상원은 41석이다.

1966년 12월 20일 케니아민족의회 상원의원들은 다수표로서 상원과 하원을 통합하며 1970년 6월 7일까지 민족의회총선거를 연기할데 대한 법안을 찬동하였다.

7개의 주들에는 각각 자기의 의회를 가지고있다.

【정부】 현정부는 1967년 1월 5일에 구성.

대통령 조모 케니아타, 대통령관방 외무담당국무상 제임스 니암웨야, 국방상 느조로게 문가이

【정당】 케니아아프리카인민족동맹(집권당) 1960년 4월에 키쿠유족과 루오족 등 큰 종족들을 지반으로 결성되였다. 당은 《아프리카식 사회—민주주의적인 케니아》의 창설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케니아인민동맹 야당으로서 1966년 5월 21일 창건되였다. 이 당은 1966년 4월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부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오깅가 오딩가가 조직하였다. 이러하여 케니아에는 2개의 정당이 존재하고있다.

경제, 사회

케니아는 농업을 위주로하는 나라이다.

외국독점자본 특히 영국독점자본이 경제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농산물의 대부분은 구라파인들의 재배원에서 생산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밀, 보리, 옥수수, 담배, 목화 등이다.

축산업이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고있다.

공업은 남부고원지대에 집중되고있으며 전력생산, 화학공업, 세멘트 및 제지공업이 발전하였다. 커피가공, 육류통졸임을 비롯하여 제탕, 제분, 양주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외국인소유토지 및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업기업소들의 전설에 착수하였다.

1964년에 케니아는 구라파인들이 차지하고있던 토지 800만에이커중에서 100만에이커를 국유화하였으며 새로운 공업기업소들도 건설하였다.

수출에서 농업 및 축산제품은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총수출액의 30%), 사이잘삼, 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서독, 미국, 화란, 일본 등이다.

1967년 4월 10일부터 케니아에서는 5센트로부터 2쉴링까지의

자기의 금속화폐를 사용하기시 작하였다.

1964년 현재 4천 3개의 초등학교에서 89만 1천553명, 143개의 중등학교에서 2만 6천87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파트리스루뭄바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신설되였다. 나이로비에 동아프리카종합대학의 일부를 이루는 공과대학이 있다.

종교로는 배물교, 기독교, 회교가 있다.

【출판】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 네이슌, 타이파 레오》 (스와힐리어) 등이 있다.

탄 자 니 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United Republic of Tanzania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잔지바르로 구성되여있다. 탄가니카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 인도양에 면하고, 서쪽은 콩고(킨)와 접하고있다.

연해지역의 기후는 습하고 중부고원지대는 무덥고 건조하며 서부고원지대는 온화하다.

잔지바르는 동부아프리카대륙에서 36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잔지바르섬과 펨바섬으로 구성되여있다. 최고기온은 33°C이며 최저기온은 22°C이다.

【면적】 93만 9,719km²(탄가니카 93만 7,062km², 잔지바르 2,657km²)

【인구】 1,017만 9,000명(1965년, 잔지바르는 포함하지 않음)

주민의 70%이상이 아프리카인(122개의 종족으로 구성)이고 그외에 인도인, 아랍인, 구라파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15만명, 1964년)

정 치 탄가니카는 1890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후 1920년에 영식민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1946년에는 유엔《후견령》으로 영식민주의의 《보호》하에 있었다.

제2차 대전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에 걸친 인민대중의 강력한 투쟁으로 1961년 12월 9일 탄가니카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잔지바르는 고대로부터 아프리카동해안의 무역중심지로 번영하였다. 16세기초부터 뽀르뚜갈(1508년)을 비롯한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1890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들의 투쟁으로 1961년 1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1963년 12월 10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영련방》내에서의 잔지바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봉건군주제도를 통하여 대외, 국방, 경제 등 중요한 부문의 실권을 계속 틀어쥐고있다.

1964년 1월 12일 잔지바르인민은 무장폭동으로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 4월 24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간에 두 나라를 련합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해 4월 26일 상기 협정에 관한 비준(4월 25일 탄가니카민족의회와 잔지바르혁명리사회에서 각각 비준) 문건교환의식이 진행되고 탄가니카—잔지바르련합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0월 29일 나라 이름을 탄자니아련합공화국으로 고치였다. 비준문건교환의식에서 발표된 법안에 의하면 련합공화국 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시민권, 이민, 대외무역, 공공사업, 세금, 관세, 항구, 항행, 체신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잔지바르는 지역적립법기구와 행정기구를 가지며 대내정치에서 자치권을 가지게 되여 있다.

1964년 7월 8일 련합공화국정부는 하나의 공동적인 새 국기를 제정하였다.

1965년 7월 5일 민족의회는 유일당국가제도를 규정한 새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민족의회】 1원제이다. 민족의회 의석수는 204석이며 그중 107석은 탄가니카지역에서, 32석은 잔지바르지역에서 직접 선거되며, 탄가니카사회단체대표15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석의 의원 등 기타 의석으로 구성된다.

혁명리사회는 잔지바르의 최고립법기관이며 그의 성원은 32명이다.

【정부】 현정부는 1965년 9월 30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이며 군최고사령관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쥴리어스 캄바라데 니에레레(탄가니카인), 제1 부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잔지바르인), 제2부대통령 라쉬디 므파우메 카와와 (탄가니카인), 외상직은 대통령이 겸함.

잔지바르에서는 1964년 1월 15일에 구성된 혁명정부가 이 지역에서 계속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인민족동맹** 탄가니카의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1954년 7월에 창건되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있는 통일전선체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 당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며 나라의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원칙에 립각한 사회주의》를 《탄자니아의 경제적목적에 부합되는 유일한 제도》로 내세우고있으며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위원장 쥴리어스 캄바라데 니에레레.

아프리카시라지당 잔지바르의 집

권당이며 유일당이다. 1957년 2월에 창건, 잔지바르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혁명후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을 제거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이 당은 1964년 2월에 아브둘 라흐만 모함메드 바부가 지도하던 《움마당》(인민당)과 합당하였다. 위원장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사회단체로서는 탄가니카에 **전국로조련맹, 탄가니카아프리카인민족동맹의청년련맹, 전국녀성동맹**이 있으며 잔지바르에는 **혁명로조련맹, 혁명학생련맹, 잔지바르및 펨바아프리카시라지동맹**이 있다.

【국내주요사건】 1966년 1월 잔지바르정부는 현 국영회사들의 사업질서를 확정하며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발표하였다. 새 법령에 따라 잔지바르정부수반은 공업, 산업 및 기타 경제부문에서 활동하는 국영회사들이나 공공기업소들을 창설, 통합, 분리시키며 해체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1966년 2월 25일 민족의회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안은 탄자니아인민방위군이 정규군, 정규 및 지원예비군, 국방 및 경찰들과 기타 훈련부대로 구성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월 19일 탄자니아인민방위군 항공대가 조직되였다.

10월 4일 민족의회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할데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6월 14일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자체화페를 발행하였으며 탄자니아 중앙은행을 창설하였다.

10월 17일 혁명리사회는 양키소유의 자동차수출입회사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외관계】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나라들을 지지성원하고있다.

1966년 4월 5일 잔지바르정부는 미제공보원이 경영하던 《미국도서관》을 페쇄하였으며 5월 6일에는 잔지바르주재 미제령사관일군이며 미제공보원인 쿨레만을 파괴 암해활동을 하였다는 리유로 추방하였다.

4월 22일 잔지바르정부는 《비도덕적이며 나쁜 영향을 주는》 미제영화 상영을 금지시켰다.

1966년 5월 탄자니아정부는 《평화군》, 《려행자》, 《교원》, 《고문》의 탈을 쓰고 파괴활동과 류언비어를 류포시킨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17명을 체포하였다.

6월 23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 제9차회의가 개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아프리카대륙에서 인종주의 및 식민주의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토의하였다.

11월 29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모잠비크로부터 탄자니아령토에 침입하여 4명의 탄자니아인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30일 탄자니아 제2부대통령 라쉬디 카와와는 방송연설에서 뽀르뚜갈 식민주의군대의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12월 3일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예비병등록사업을 지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우리 나라 친선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으며 1월 13일에는 두 나라간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6월에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으며 6월19일 두 나라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11월에 탄자니아 제2부대통령 라쉬디 카와와를 단장으로하는 탄자니아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2일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6년 7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탄자니아를 친선방문하였으며 7월 5일 두 나라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되였다.

경제, 사회 탄가니카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이다.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으며 총수출액의 75%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고있다. 1965년에 탄가니카에서 주요 농산물인 사이잘삼은 21만 4천톤(세계 총생산량의 36%), 목화는 6만 5천톤, 커피는 3만 3천톤, 차는 5천 600톤 생산되였다

경제에서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바 1965년말 현재 1천100만마리의 소, 450만마리의 염소, 280만마리의 양들을 기르고있다.

1965년에 광업분야에서는 금강석 82만 8천카라트, 금 2톤 830키로그람이 생산되였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주요생산수단(철로, 항만, 전력, 체신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새로운 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착수하였다. 1965년 한해 동안에 40여개의 대중소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1965년에 주요수출품인 사이잘삼 20만톤(총수출액의 4분의 1), 목화 5만 5천톤, 커피는 2만 6천톤, 금강석 82만 8천카라트를 수출하였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인도, 일본, 중국 등이다.

탄가니카는 3개년계획(1962—1964년)을 끝내고 제1차 5개년계획(1964년 7월—1969년 6월)을 수행하고있다. 이 기간에 정부는 2억 4천 600만파운드를 지출하게 된다.

독립후 탄가니카는 교육, 문화부문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독립전인 1961년에 비하여 1966년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1.7배로, 중학교 학생수는 2배로, 대학생수는 4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성

인들에 대한 문맹퇴치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다르 에스살람에는 동아프리카종합대학의 본부 가있다. 탄자니아정부는 영어대신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를 정부공용어로 쓰고 있다.

잔지바르는 혁명전에 주로 정향(향료)을 재배하는 락후한 농업국가였다. 전국토지의 80%이상이 소수의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고 현대적인 공업은 거의 없었으며 농산물가공공장이 몇개 있었을뿐이다.

1964년 1월 혁명후 외국인들과 지주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정부는 주요공장, 기업소들과 수출입회사, 운수회사, 건설회사, 광업 및 전력회사들을 국유화하고 통제하고 있다.

혁명후 잔지바르정부는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노력을 하고있다. 1964년 9월부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혁명후 27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수는 33%, 중학교 학생수는 2배로 증가되였다. 한편 방방곡곡에서 성인들의 문맹퇴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농촌지역에 27개의 진료소와 5개의 병원들을 건설하였다.

탄자니아에는 배물교, 회교, 기독교가 있다.

【출판】 신문 우후르 (스와힐리어), 느구루모 (스와힐리어) 내슈널리스트(영문), 스탠다드(영문) 등이 있다.

모 잠 비 크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하고있으며 탄자니아, 스워질랜드, 남아프리카와 접경하고 있다. 평지대가 비교적 많고 해안선에는 항만들이 많다. 북쪽 해안지대의 년평균기온은 25°C, 12—4월간의 강우량은 1,000～1,500mm이다.

【면적】 79만 3,030km²

【인구】 695만 6,000명(1966년)

주민은 구라파인 약 9만명(뽀르뚜갈인이 80%), 아세아인 1만 3,000명이다. 원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행정중심지】 로렌소 마르케스 (주민 18만 3,800명)

정 치

16세기초에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이 모잠비크에 기여들었다. 1700년부터 뽀르뚜갈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899년에 선포된 《로동법》으로 원주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이나 건설장들에서 강제로동을 당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09년에 남아프리카, 그후에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과 《모잠비크 협정》을 체결하고 해마다 10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수출》하였다. 이것으로 뽀르뚜갈침략자들은 매년 100만파운드의 수입을 얻었다. 지금 해외에 나가있는 모잠비크주민수는 60만명에 달한다.

1930년대말에 있은 로렌소 마르케스항만로동자들의 항의운동, 1948년 이 지구 인민들의 봉기, 1963년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부두로동자들의 파업 등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잠비크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여왔다.

모잠비크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62년 2월 로렌소 마르케스에서 일어난 첫 무장봉기후 급격히 앙양되였다. 이 해 5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반제해방전선이 결성되였으며 1963년 9월 전선은 해방을 위한 투쟁방도로서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담판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장투쟁로선을 채택하였다.

이때로부터 전국각지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였다.

1964년 9월 25일 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독재자 살라자르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전인민적폭동은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였다. 10월에 모잠비크해방전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뽀르뚜갈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전면적이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모잠비크인민의 무장봉기》를 선포하였다.

무장투쟁개시후 인민무장부대는 이미 5천여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살상하였다. 또한 400여대의 군용차를 파괴하고 수많은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적통치지역에서는 경제가 마비상태에 있다. 1966년초에 모잠비크무장력의 전투부대의 수는 약 30개에 달하였으며 무장력은 초기의 6배나 되는 4천명으로 확대되였다. 모잠비크인민무장대오는 지금 북부 즉 델라루와 니아사루를 장악하고있으며 기타 2개주들에서도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인민무장대가 해방시킨 령토의 3분의 1의 지역들에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창설되여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하여지고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모잠비크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군대를 계속 증파하고 있다. 1966년 5월에도 약 5천명의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가 모잠비크에 기여들었다.

1964—1965년기간에 미제는 뽀르뚜갈에 많은 최신무기들을 제공하였는바 미제의 차관은 4천만딸라를 훨씬 넘는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뽀르뚜갈에 1만정의 자동총과 20대의 비행기를 제공하였다.

모잠비크의 베이라, 테라 및 나칼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은 나토의 군사체계망에 속해 있다.

【립법회의】 23명의 의원으로 구성, 그중 15명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8명은 총독이 임명한다.

【행정기구】 뽀르뚜갈정부가 임명하는 6명의 상이 있다. 총독의 감독을 받는다. 각주 행정관들은 모두 뽀르뚜갈침략군 장교들이다.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민족동맹**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으로서 1962년 2월 케니아에서 창건되였다. 본부는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 두고있다. **민족민주동맹** 1960년 12월에 모잠비크 망명자들이 남로데시아에서 창건. **모잠비크해방전선** 1962년 6월에 모잠비크아프리카인민족동맹과 모잠비크민족민주동맹, 모잠비크아프리카인동맹이 합당하여 결성, 광범한 당조직망을 가진 대중적인 정당, 모잠비크의 무장투쟁을 지도, 아프리카통일기구와 그 해방위원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있다. 전선은 약 4천명의 정규군을 가지고있으며 탄자니아에 본부와 훈련소를 가지고있다. 위원장 에두아르도 몬들라네. **아프리카인반제통일전선** 1963년 5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모잠비크해방전선에서 제명된 자들로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모잠비크민족해방운동에서 분파행동을 일삼으면서 통일행동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구라파인농장주들은 159만 2천헥터의 좋은 토지를 가지고있으나 아프리카인농민들은 49만 4천헥터의 토지밖에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사이잘삼, 목화, 야자, 옥수수 등이다. 거의 모든 큰 사탕수수농장과 사탕원료생산의 95%는 영국 및 뽀르뚜갈침략자들이 장악하고있다.

외국자본은 사탕원료외에 사이잘삼, 차, 벼, 바나나, 파인애플, 귤, 커피의 생산을 장악하고있다. 아프리카인농민들은 주로 옥수수, 목화 등을 심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보크사이트, 석유, 월프람, 주석, 우라늄 등이 있다.

채광업은 뽀르뚜갈, 영국, 미제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다. 미제는 우라늄생산을 독점하고있다.

로렌소 마르케스는 아프리카동해안에서 손꼽히는 항구의 하나이다. 모잠비크는 유람지로 알려져 있다.

언어는 뽀르뚜갈어가 공용어로 되여있으나 원주민들은 스와힐리어를 쓴다. 상업에서는 영어를 쓰고있다.

카톨릭교(66만명), 기독교, 회교, 원시 종교 등이 있다.

말라위

(말라위공화국)
Republic of Malawi

중부아프리카에 위치하며 탄자니아의 남쪽, 니아사호 서쪽에 있다. 전령토에 걸쳐 남북으로 길고 좁은 지구대가 뻗어있으며 그의 높이는 200～500m이다. 그러나 북부(니아사호호반)는 바다의 표면보다 200m정도 낮다.

말라위의 기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과 건조한 겨울이 바뀌는 적도무역풍기후에 속한다. 가장 추울때 (7월)의 평균기온은 14～19°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저지대에서는 750～1,000mm, 고원지대에서는 1,000～2,500mm이다.

【면적】 12만 4,000km²

【인구】 375만 3,000명(1963년) 300만명이상이 아프리카인이며 기타는 구라파인과 아세아인이다. 인구의 약 70%가 이 나라의 남부에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좀바 (주민 2만 2,000명 1966년)

정 치 19세기말부터 영국, 독일, 뽀르뚜갈 등 식민주의자들의침략을 받아온 말라위는 1891년 5월 15일 영식민주의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에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말라위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특히 《련방》의 해체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9년 2월 16일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11명의 아프리카인애국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한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70일간이나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인민대중의 강력한 투쟁앞에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7월에 이 나라에서 립법회의를 선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1년 8월에 실시한 선거에서는 말라위대회당이 28석중 23석을 차지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11월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회의에서 1963년 2월에 종래의 행정회의대신에 자치정부를 수립하며 1963년 3—4월에 새 헌법을 제정하고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독립하는데 동의하였다.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는 말라위인민들의 계속되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2월 말라위에서는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여 말라위대회당 위원장인 반다를 수상으로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1963년 12월 말라위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말라위의 정치, 경제적실권은 여전히 영국총독놈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으며 인민들의 무권리한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말라위인민은 첫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의 파업, 시위, 집회 등이 부단히 전개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으로 말라위정부는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하고 1891년이래 니아살랜드로 불리워오던 나라이름을 본명대로 말라위(불길이라는 뜻)로 고쳤다.

1964년 8월 17일 수상 반다는 《아프리칸콤무니스트》(공산주의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9월에는 정부내에 대립이 발생하여 영국총독놈의 지시하에 외상을 포함한 6명의 국민대회당내 좌과 각료들을 해임하였다.

1966년 5월 20일 말라위에서 첫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여 수상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966년 7월 6일 말라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정부는 중립을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선포하고있으나 남로데시아의 일방적독립선포를 배격하지 않고 있다.

1967년 3월에 말라위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종주의자들과 통상협정을 체결하였다.

【립법의회】 1원제이며 의원수는 55명.

【정부】 1966년 5월 20일 말라위 수상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를 초대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966년 헌법에 의하면 국가 및 정부수반은 대통령이다. 그의 임기는 5년이다. 부대통령과 수상지위는 두지 않기로 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 1959년 9월 30일에 창건. 집권당이다. 영제국주의자들과 밀접한 협조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민족경제의 앙양과 적극적인 중립을 주장하며 아프리카출신의 말라위인민들만이 당원으로 될수 있다. 위원장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전국로동련맹 정부를 반대하여 친아프리카로조련맹을 지지하고있다. 말라위로조대회.

경제, 사회 말라위는 농업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자들이 차, 담배, 땅콩, 커피 등 공예작물의 재배만 강요한 결과 농업은 극히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쌀과 식료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독립전에는 인구의 0.3%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지면적의 85%이상의 비옥한 땅을 독점하고있었다.

중부와 북부 주민들은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차이며 그외에 목화 옥수수, 마니오크, 땅콩, 커피, 쌀 등이 생산된다. 주요농산물의 수매, 가공 및 수출도 외국독점회사들이 차지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돌솜, 보크사이트, 석탄, 동, 철, 망간, 흑연, 백금, 금, 석유, 석회석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공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판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제재소 및 조선소 등이 있을 뿐이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인 농업로동자들에게 매월 평균 1파운드(구라파이주민들에게는 60파운드이상을 지불) 밖에 안되는 기아임금을 지불하고있다. 약 15만명의 말라위인들이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등에서 품팔이를 하고있으며 학령아동의 3분의 2가 학교에 가지못하고있다.

화폐단위는 말라위파운드이며 그 가치는 영국파운드와 같다.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Republic of Zambia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은 콩고(킨), 남쪽은 잠베지강을 사이에 두고 짐바브웨와 경계를 이루고있다.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에 남부에서는 평균 650~750mm의 비가 내리며 서부에서는 평균 1,500mm 내린다. 5—8월간에는 신선한 바람이 분다.

【면적】 75만 2,000km²

【인구】 361만명 (1965년)

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고 기타 구라파인(약 8만명), 인도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루사카(주민 13만 8,000명)

정 치 잠비아 (북로데시아)는 19세기후반기부터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왔다.

1890년에 이 나라에서 독일, 뽀르뚜갈 침략자들을 대신하여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잠비아를 남아프리카회사의 관할하에 넣었으며 1891년에는 저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24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잠비아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953년 10월 23일에는 이 나라를 《중앙아프리카련방》 (일명《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련방》)에 강압 편입시켰다.

잠비아인민은 민족통일독립당의 령도하에 《련방》을 해체하며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61년 8월에 무장투쟁이 일어났고 1962년 3월에는 전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적인 시위와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63년 12월 31일 《중앙아프리카련방》이 해체되고 잠비아는 1964년 1월 내부자치권을 쟁취(1964년 1월 23일 카운다를 수상으로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64년 10월 24일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시급히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락후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로선을 취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특히 남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인

종주의자들을 견결히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4년에 정부는 잠비아가 독립하기 전에 북로데시아가 뽀르뚜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하였던 협정들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4월 1일 정부는 14명의 상임서기관들 가운데서 11명을 잠비아사람들로 교체(잠비아화)하였다. 1965년 8월현재 정권기관의 주요요직의 88%, 기관들에서는 35%가 《잠비아화》 되였다. 1965년 11월 12일 잠비아정부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이 저들의 일방적인《독립》을 인정할것을 요구하여 국경을 봉쇄하는 등 적대행동을 감행한데 대처하여 남로데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자기군대를 파견하였다.

또한 잠비아정부는 남로데시아의 돈을 쓰지 말것과 남로데시아로 보내는 우편물과 송금의 접수, 솔스베리주식취인소를 중계로하는 계약체결 및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남로데시아로 가는 항공로를 폐쇄하였다.

1966년 1월에 잠비아정부는 잠비아주재 영국고등판무관대리를 추방한데 뒤이어 7월에 15명의 백인안전관계관리들을 잠비아인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잠비아재정상은 의회에서 파운드화폐 대신에 1968년부터 십진법화폐체계를 도입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새 화폐는 크와챠(《려명》 또는 《자유》)와 느그웨(《광명》)로 불리우게 된다.

8월 잠비아는 웽그리아인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 카운다대통령은 스미스인종주의도당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립장에 항의하여 9월 6일 런던에서 열린 영련방국가정부수반회의의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잠비아외상 카프웨프웨는 이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잠비아정부는 또한 9월에 미영기자들의 자기나라 입국을 거절하였다.

1966년 9월에 잠비아에서 지방자치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10월 잠비아에서 25명의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추방되였다.

【민족의회】 1원제이다. 의회의석은 선거되는 75명의 의원(그중 민족통일독립당 55석, 아프리카인민족대회당 10석, 민족진보당 10석)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의원으로 구성, 의장 니렌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정부수반, 현정부는 1964년 10월 24일 구성.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외상 시몬 므완사 까프웨프웨.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으로서 1959년 11월에 성립, 이 당은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주장하고있다. 당원수 30만명(1960년), 위원장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아프리카인민족대회당** 1947년 성립, 헌법개혁과 비폭력적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할것을 주장하여 왔다. **민족진보당** 구라파이주민들의 정당, **로조대회** 1965년 창건.

경제, 사회

잠비아는 채광업이 비교적발전한 나라이며 그밖에 전기, 제련과 중소규모의 담배, 식료, 제재, 목재가공공장이 있을뿐이다. 국민소득의 80%는 채광업에서 들어온다.

주요광물자원으로는 동, 철, 코발트, 연과 아연이 많다. 우라늄, 크롬, 은, 금강석, 망간 등 기타 지하자원이 있다. 특히 동은 국민총생산액의 40~55%, 수출의 90~94%를 차지한다.

동을 비롯한 광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2대회사에 독점되여있다.

1963년에 동생산량은 56만 5천톤이였으나 독립후 1965년에는 76만 1천톤에 달하였다.

농촌경리발전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적지않은 농경지는 토양침식을 받고있으며 옥토들은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였었다 경지면적중 가장 비옥한 400만헥터의 땅은 인구의 3% 밖에 안되는 백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으며 아프리카인들은 1천 400만헥터의 메마른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독립후 농업분야에서는 커다란 전진을 보고있다. 옥수수와 담배를 위주로 하여오던 단작경리가 오늘에는 점차 다각적경리로 바뀌여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옥수수, 담배, 땅콩, 조, 마니오크, 콩, 남새, 육류 등이다.

일련의 지방들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좋은 방목지도 있으나 목축업은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있다. 집짐승으로는 주로 소, 면양, 염소, 돼지 등이다. 하천들과 호수들에서는 고기잡이가 진행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동, 아연, 코발트, 담배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장설비품, 원유제품, 일용품, 식량 등이다.

독립전 잠비아에는 약 8만명의 실업자가 있었으며 아프리카인기사와 법률가는 각각 1명, 아프리카인 의사는 2명이 있었고 학령아동의 93%가 학교에 못다녔다.

독립후 정부는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정부는 1964년에 외국독점체들의 광산개발권을 박탈하였으며 공업, 도시건설을 확장하여 실업을 퇴치할데 대한 비상조치를 강구한데 뒤이어 1965년에는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회사, 출판기관들을 국유화하였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경영하던 332개의 학교를 국유화하고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교육망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1965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41만 150명(그중 아프리카인어린이가 40만명), 중등학교학

생수는 1만 7천명(그중 아프리카인학생수는 1만 3천명)에 달하였다.

교육의 해로 정한 1966년에 잠비아에서 민족간부양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첫 잠비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14개의 중학교가 건설되였다. 의료기관수도 많이 붙었는데 1966년에 잠비아에서는 400명의 의사를 가지게 되였다.

잠비아인민은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경제적자립을 위한 첫조치로서 1년반을 기간으로하는 경제발전계획을 이미 수행하고 1966—1970년도 경제발전계획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잠비아정부는 자체의 동력기지와 독자적인 운수체계를 창설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다. 1966년 1월에 느깐다브웨탄전을 조업한데 뒤이어 이 탄전의 서북쪽 신칸도바에 또 대석탄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짐바브웨

(남로데시아)

Zimbabwe

중부아프리카의 잠베지강이남에 있다. 북쪽은 잠비아, 서쪽은 보쯔와나, 남쪽은 남아프리카, 동쪽은 뽀르뚜갈령모잠비크와 접하고있다. 계절은 크게 우기와 건조기로 구분된다. 우기는 11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계속된다. 남로데시아전역의 년평균강우량은 762mm이다. 기온은 최고(10—11월) 38°C이상에 달한다.

【면적】 38만 9,400km²

【인구】 433만명(그중 백인 20여만명, 1965년)

【수도】 솔스베리(주민 약 31만명)

정 치 짐바브웨는 영국, 독일, 뽀르뚜갈 등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짐바브웨인민들은 1893—1896년에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제2차대전후 이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앙양되는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통치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3년 1월에 《중앙아프리카련방》(일명《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련방》)을 조작하였다. 반동적인 《련방헌법》이 선포된이래 《사회질서유지법》, 《전복활동진압법》, 《아프리카인류동제한법》등 수십종의 악법을 조작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의 투쟁은 1961년 12월 짐바브웨아프리카인인민동맹당의 창건과 함께 더욱 고조되였다.

1962년 8월 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9월에 인민동맹당을 비법화하고 느코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하였으나 인민들의 진출을 막을수 없었다.

짐바브웨인민들과 잠비아 및 말라위인민들의 투쟁으로 《중앙아프리카련방》은 1963년 12월 21일에 해체되였다.

그러나 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백인정권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1만 1천명의 백인 《경찰예비대》를 포함한 방대한 탄압기구를 만들어놓고 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한편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하려고 서둘렀다. 그 첫 조치로서 1964년 11월 《국민투표》의 기만극을 벌리였으며 1965년 3월 립법의회를 해산하고 5월에 허위적이며 인종주의적인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진행함으로써 의회내에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스미스도당은 영제국주의자들과 《독립》에 대한 밀담을 벌려놓았다. 1965년 10월초부터 말까지 스미스와 영국수상 윌슨이 런던과 솔스베리에서 일련의 밀담을 가진데 뒤이어 스미스도당은 11월 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11일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하였다.

11월 11일 아프리카인 인민동맹당과 아프리카인민족동맹당 대표들은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짐바브웨아프리카인들은 비법적인 스미스《정부》를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유격투쟁을 포함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스미스도당과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로데시아 각지의 아프리카인들은 대중적인 시위와 파업 등으로 스미스도당의 일방적인 《독립》선포를 반대 항의하였다.

12월 3—4일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비상회의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965년 12월 15일까지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영제국주의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고 아프리카나라들이 로데시아에 대하여 완전한 경제 봉쇄를 실시하며 이 나라와의 온갖 련계를 단절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2월에 기네, 탄자니아, 아련, 가나, 말리, 콩고(브), 모리따니, 수단, 알제리가 영제국주의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세네갈과 시에라 레온은 남로데시아에 대한 경제적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정부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스미스도당의 일방적인 《독립선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1966년에 들어서면서 스미스도당은 인종주의백인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3개월간의 비상사태선포기간을 세번이나 연장하였다. 그리고 150여개의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11월 현재 5만 5천명의 애국자들을 투옥하였다. 국회는 국내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않고 어느 때나 재판도 없이 저들의 정치적반대파를 투옥할수 있는 권한을 스미스인종주의도당에게 부여하도록 되여있는 헌법수정안을

1966년 9월 6일에 통과시켰다.

스미스도당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전개되고있다.

3월 17일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족동맹당은 짐바브웨인민이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짐바브웨인민은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리고있으며 각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스미스도당의 괴뢰경찰과 군대를 살상하고있다. 짐바브웨애국자들은 1966년에 스미스괴뢰군과 경찰 200여명을 소멸하였다.

【립법의회】 립법의회는 영제국주의자들의 1961년 6월 13일에 발표한 《신헌법》에 기초하여 1965년 5월 7일에 진행된 선거로 조작되였다. 총의석 65석중 《로데시아전선》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현정부는 1964년 4월 14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이완 스미스.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인민동맹당** 1961년 12월에 조직, 아프리카인 정당들중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서 나라의 완전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의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1962년 9월에 비법화되였다. 1964년 이 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원장 조누아 느코모 (감금중).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족동맹당** 1963년 8월 짐바브웨아프리카인인민동맹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프리카인들로 정부를 구성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인종주의당국의 일방적인 《독립》을 반대하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로데시아전선** 극단적인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짐바브웨아프리카인로조대회.**

경제, 사회 농업을 위주로하고 있으며 채광업과 제철공업 이외에 방직, 식료품가공, 세멘트, 제지 및 제염공업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옥수수, 목화, 땅콩, 사탕이다.

구라파제국주의자들의 독점체들은 약 6천개의 농장들에서 매년 7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1930년에 발표된 토지분배법에 의하여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전국경작지의 53.5%를, 식민지당국이 12%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4.5%가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원주민들에게 차례지고있다. 스미스도당의 새 토지 략탈계획에 의하면 아프리카인들의 토지는 총경지면적의 30%로 줄어들고 백인들의 토지는 70%로 확장되게 된다.

서부지방에 있는 웡키탄광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탄광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철광, 돌솜, 크롬, 동, 리듐, 니켈 등이 있다.

1960년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채취되는 크롬의 70%, 리듐의 90%를 미제국주의자들이 략탈하여갔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영제국주의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 총액은 약 3억~3억 7천 500만 파운드로 평가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영제국주의독점자본이다.

2차대전후 미제의 자본의 침투가 증대되였다.

화폐단위는 로데시아파운드이며 영국의 파운드와 같다.

1965년에 아프리카인 고용로동자수는 65만 4천명이였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14시간이나 일을 해도 임금은 백인로동자의 20분의 1밖에 안되며 《인두세》,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가렴잡세를 물고있다. 인구의 80%가 문맹자이다. 백인은 기독교를, 아프리카인들은 주로 원시종교를 믿는다.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앙골라는 뽀르뚜갈침략자들의 제일 큰 식민지이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하고있으며 꽁고(킨),잠비아, 보쯔와나, 서남아프리카와 접경하고 있다.

【면적】 124만 6,700km²

【인구】 515만 4,000명(1966년) 반투족이 97%, 구라파인이 약 20만명

【행정중심지】 루안다(주민 22만 6,000명)

정 치 앙골라는 1885년부터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법안》에 따라 앙골라를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1957년에 파쑈기구인 《국가정보 및 치안경찰》을 설치하고 인민들을 체포학살하고 있으며 1961년 3월에는 2만 5천명의 침략군을 투입하여 앙골라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

식민주의자들은 1961—1964년간에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지원밑에 20만명이상의 앙골라인민을 학살하였다.

앙골라인민의 무장투쟁은 1961년 2월 4일 루안다에서 식민주의자들의 감옥과 헌병대본부를 습격한 봉기로부터 시작되였다. 이해 3월 24일 시에라다감바산악지대에서 앙골라의 첫무장대오가 조직된후 애국자들은 북부산림지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였다.

1962년 12월 인민해방운동 제1차대회는 정식 《민족해방군》을 창건할것을 결정하였다.

민족해방군은 창건당시의 20명으로부터 약 4만명이상으로 장성

하였다.

1966년과 1967년초에 앙골라의 무장투쟁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사변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동남부의 모수고주에 새 전선이 펼쳐진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부전선의 룰로다지역에서 무장투쟁이 적극화된것이다. 지금 앙골라해방투사들은 투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여온 카빈다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3개전선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싸우고있다.

앙골라인민무장대는 1966년 5월부터 1967년 4월에 이르는 기간에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 약 1천 800명을 죽이고 2천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기간에 인민무장대는 뽀르뚜갈비행기 6대를 격멸구었으며 군용차 35대를 파괴하였다.

인민해방운동은 해방지역에 행정기관을 설치하였으며 농업생산과 교육 및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앙골라인민들의 무장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뽀르뚜갈에 군사재정적지원을 주고있다. 1964—1965년기간에 미제는 최신무기들과 함께 4천만딸라의 차관을 뽀르뚜갈에 제공하였다. 미제는 지금 앙골라에 군사기지와 수십개의 군용비행장을 건설하고있다.

서독은 뽀르뚜갈에 1만정의 자동총, 약 20대의 비행기 및 많은 수송수단들을 제공하였다. 서독군국주의 군사전문가들은 뽀르뚜갈침략군의 군사간부들을 훈련시키고있으며 그들의 군사행동계획을 방조하고있다. 서독의 군국주의장교들 특히 비행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앙골라인민무장대를 반대하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고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의 대렬속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용병들도 끼여있다.

미제는 앙골라애국력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인민련맹위원장 로베르트와 같은 앞잡이를 내세워 앙골라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을 반대하여 싸우게 하고있다.

1965년 8월 인민해방운동은 성명에서 로베르트의 《림시망명정부》는 앙골라의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며 앙골라에서 식민주의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미제가 직접 만들어낸것이며 로베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동포들을 살륙하며 자기의 정치적반대파들을 죽이며 뢰물행위를 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아프리카나라들이 앙골라투사들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횡취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앙골라인민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신앙의 차이를 리용하여 종족간의 분렬과 반목을 조성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 1956년 12월에 성립된 진보적인 민족주의정당이며 앙골라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하고있다. 본부는 꽁고(브)에 있으며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승인을 받고있다. 등록된 당원수 7만명(1965년), 지도자 안토니오 아고스티노 네토. **인민련맹** 1954년에 북부앙골라인민련맹으로 창설되였다가 1958년에 인민련맹으로 고침, 앙골라민족주의정당들 중 가장 큰 조직으로서 한때 인민해방운동과 공동으로 무장투쟁을 하였으나 그후 로베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혁명을 배반하고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전락됨으로써 이 단체는 인민해방운동을 반대하는 길로 나아가고있었다. 인민련맹은 1962년에 킨샤사에 《망명》하여 앙골라 《림시정부》를 수립하였었다. 그러나 1964년—1965년에 일부 상들이 로베르트의 로선(1964년 꽁고유격투쟁이 앙양되였을 때 인민련맹의 산하부대들이 로베르트의 강요에 의해서 숌베에게 지원을 주었었다.)에 항의하여 《정부》에서 탈퇴함으로써 《림시정부》는 위기를 겪게 되였다. 또한 일부 지도적인 활동가들의 탈퇴로 인민련맹은 사실상 분렬상태에 있다. 본부는 꽁고(킨)에 있다. **통일전선당** 선진적인 뽀르뚜갈인, 혼혈인들로 구성, 강령에 의하면 앙골라의 모든 민족주의운동을 《통합하는 민족해방전선의 창건》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로동자련합회** 1962년에 성립.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이다. 150만헥터의 좋은 땅을 뽀르뚜갈침략자들이 차지하고있으며 앙골라인민들은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유이며 이외에도 사탕수수, 땅콩, 옥수수, 바나나, 나무감자등이 생산된다.

영국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 수산업을 통제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석유, 동, 망간, 갈탄, 석고, 운모, 연, 아연, 철광, 우라늄, 월프람 등이 있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세멘트공장, 석유정제공장, 물고기통졸임공장, 방직공장 등이 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를 《뽀르뚜갈화》할 목적으로 1970년중엽까지 뽀르뚜갈인주민으로써 앙골라인구를 1천만명에 달하게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1950—1960년간에 매년 평균 1만명의 뽀르뚜갈인이 앙골라로 이주하였다.

앙골라에는 약 150만의 카톨릭교신자와 약 200만명의 기타 종교인들이 있다. 반투어를 사용한다. 사망률은 출생률을 릉가한다.

서남아프리카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단에 자리잡고있으며 남아프리카, 앙골라,

잠비아와 접경하고있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며 년평균 강우량은 250~500mm이다.

【면적】 82만 3,876km²

【인구】 55만 4,000명(1963년) 1962년에 아프리카인 44만 1,000명(오밤보, 부쉬멘, 로텐로트헤레로 등 종족으로 구성), 구라파인 7만 8,000명, 혼혈인 2만 5,000명.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4만 3,000명, 1962년)

정 치 서남아프리카는 15~16세기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독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15년 7월에 남아련방(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강점되였고 1920년 12월 17일 《국제련맹》의 결정으로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그후 남아련방은 1949년 4월에 《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채택하고 서남아프리카를 자기의 령토에 포함시켰다. 서남아프리카원주민들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을 받고있으며 완전한 정치적무권리상태에 있다. 원주민들은 척박한 《보류지》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통행증》 없이는 외출도 할수 없다. 서남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은 제2차세계대전후 앙양되였으며 특히 반동회의후 민족동맹과 인민단체의 결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1959년 10월 윈드후크로동자들의 《거주지》에로의 강제이주반대파업, 1962년 7월 300명아프리카인들의 인종차별정책반대시위 등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이 있었다. 1963년 11월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민주단체들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였다. 1965년 7월 서남아프리카인민단체 위원장 삼 누죠마를 비롯한 인민단체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서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장관이 위임통치한다.

【립법회의】 1961년 3월에 18명의 백인들로 구성, 서남아프리카국민당이 16석을, 통일당이 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 1958년에 전국적인 민족주의정당으로 조직되였으며 서남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고있다. 1960년에 남아프리카 통일전선에 가입하였다. 1962년부터 아련에 대표부를 설치하고있으나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있다. 위원장 파넬 야리레툰두 코존귀지(1964년 3월 알제에서 있은 아.아 인민단결기구 제6차리사회에 참가). **인민단체** 1958년에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을 요구하여 조직, 지하에 민족지도위원회집행부를 두고 각지방에 지부를 가지고 활동한다. 창건초기에는 미제와 유엔의 방조하에 독립하려 하였으나 점차 유엔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를 규탄하고있다. 까히라와 다르 에스 살람에 대표부를 설치하고있으며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승인을 받았다. **오밤보인민당** 오밤보족을 대표하고있으며 민족동맹과 련계를 가지고있다. **서남아프리카로동자련맹** 전아프리카로조련맹에 가입하고 있다. 기타 남아프리카반동정당들의 지부들인 **국민당,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소수의 백인들이 목축업에 쓸수 있는 토지의 87%를 차지하고있으며 대농장과 600여개의 재배원을 경영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바나듐, 연, 동, 망간, 아연, 우라늄, 탕그스텐, 철, 석, 금, 은 등이 있다.

광업의 대부분은 남아프리카, 영국,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는데 미영제국주의독점 자본의 《통일금강석회사》는 금강석채취의 99.6%를 쥐고있으며 매년 1천 500만 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이 나라에는 통일적인 언어가 없다.

쎈트헬레나도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남대서양상에 있는 작은 섬이다.

【면적】 122km²

【인구】 4,760명(1958년)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1633년에 화란침략자들에게 점령되였다가 1651년이후는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점령되였다. 1673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자기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대마, 아마, 남새, 과일 등이다.

보쯔와나

(보쯔와나공화국)

아프리카남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는데 동남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부는 서남아프리카, 북동부는 짐바브웨, 북부는 잠비아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열대초원지대로서 기후는 아열대성에 속하며 항상 건조하다.

【면적】 71만 2,000km²

【인구】 55만 9,000명(1966년) 주민의 99%는 아프리카인, 주로 베추아인이며 구라파인이 약 3천 500명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가베로네스(주민 8,000명)

정 치 19세기초부터 베추아날랜드에 침입한 영제국주의자들은 1885년에 이 나라의 북부지역을 저들의 《보호령》으로, 남부지역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895년에는 베추

아날랜드를 케이프타운식민지에 편입시켰다. 그후 북부추장들의 반대로 1896년에 북부지역은 다시 《보호령》으로 되여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하게 되였다. 남부는 케이프타운이 1910년에 남아프리카련방에 편입됨에 따라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주로 되였다. 남아프리카식민지당국은 베추아날랜드《보호령》을 저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책동하였으나 이 나라 인민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1961년 보쯔와나인민들은 마페키에서의 인종차별과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헌법》을 반대하여 군중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2년 로바위군중들은 독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일떠섰다. 1963년 이 나라 인민들은 베추아날랜드를 집어삼키려는 남아프리카식민지당국의 음모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못이겨 1963년 11월 베추아날랜드의 각 정당, 부락추장대표들과의 회담에서 1965년 3월에 립법회의선거를 실시하고 《내부자치권》을 이 나라에 주는데 동의하였다.

1965년 3월 1일에 진행된 총선거결과 영식민주의자들과 추장들의 전통적인 세력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표를 얻어 민주당 당수 세레즈 크하마가 정부를 조직하였다. 1965년 12월에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베추아날랜드는 1966년 9월 30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으며 《내부자치정부》수상이 초대대통령 겸 군사령관으로되였다. 보쯔와나정부는 독립후 대외적관계에서 조심스럽고 온건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1967년 2월에 학교들에서 영어대신에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 1966년 10월 31일 보쯔와나는 아프리카통일기구에 가입하였다.

【민족의회】 1965년 3월 1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였다. 31명의 의원중 민주당이 28석, 인민당이 3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5년 3월 2일 1명의 부수상과 5명의 상들로 구성. 대통령 세레즈 크하마.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61년에 창건)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이다. 지도자 필리프 마탄테. **민주당** 1961년에 창건, 영식민주의자들을 지지하며 부유한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세레즈 크하마. **보쯔와나독립당** 1964년에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왔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 **베추아날랜드로조대회.**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축산물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하며 개인소생산자총수의 95%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경작할수 있는 땅은 약 800만헥터인데 그중 5%만이 파종된다. 주요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콩 등이다. 식량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에서 수입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면, 망간, 동, 연, 철, 금 등이 매장되여있으나 그것은 모두 영국, 남아프리카 및 남로데시아독점체들에 략탈당하고있다.

축산물로는 뿔난집짐승, 염소, 양, 등이 있다.

수출품은 축산물과 석면이다.

보쯔와나의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절반이상과 수입의 약 3분의 2를 남아프리카가 차지하며 나머지는 영국과 남로데시아독점체가 차지하고있다.

1964년, 1965년도 국가예산에서 수입은 323만 9천파운드, 지출은 421만 7천파운드에 달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로데시아에 품팔이로 간다. 1962년에만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8만 5천명(전국 성년남자의 절반)이 갔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아프리카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해발평균 1천200메터의 고원지대이다. 중부고원지대는 강우량이 많고 기온의 차가 적다.

【면적】 122만 3,000km²

【인구】 1,800여만명(1965년)

아프리카인 1,366만명, 백인 350만명, 혼혈인 152만명이 있으며 기타 아세아인, 아랍인 등이 있다.

【수도】 프레토리아 (주민 41만 6,000명, 1960년)

정 치 1652년에 화란의 식민지였으며 1814년에는 영식민주의자들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영국침략자들은 1909년 《남아련방법안》을 제정하여 케이프타운, 나타르를 합병하고 1910년 5월 자치령인 남아련방을 형성하였다.

1948년 국민당정권발족이래 원주민에 대한 극단적인 인종격리정책이 실시되고있다. 1961년 3월 영련방수상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대표들로부터 인종격리정책에 대한 비난을 받자 버워드도당은 영련방에서 탈퇴하고 1961년 5월 31일 나라이름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백인통치집단은 《통행증법》, 《배더금지법》(흑인이 백인과 결혼하면 8년형을 받음), 《공산주의 진압법》, 《파괴활동금지법》, 《반루권한법》, 《반로동법》 등 70여종의 악법들을 만들어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체포, 구금, 학살하고있

다. 1959년에 채택한 《반투자치법》에 의하면 버워드도당은 1973년에 총인구의 70%나 차지하는 원주민들을 총면적의 13% 밖에 안되는 7개지역의 메마른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 그곳에 《자치정부》를 만들것을 꾀하였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립법회의선거》 등을 실시하고있다. 1965년 버워드도당은 아프리카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과 뽀르뚜갈인종주의도당과 한짝이 되여 군사경제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연안에는 나토국가들이 리용하는 해군기지가 있으며 버워드도당은 군사적지원을 받고있다. 버워드가 죽은 뒤에 집권한 보스터는 버워드가 작성한 인종격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면서 서방제국주의자들과 더욱 긴밀히 결탁하고있다. 1967년 3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서부독일파쑈단체가 창설되였다.

보스터도당은 1967년 3월 말라위정부와 통상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아프리카로조련맹은 말라위—남아프리카통상협정을 규탄하였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모집된 백인고용병들이 꽁고(킨)와 남로데시아에서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동원되고있다. 진보적인 아프리카나라들은 남아프리카의 이러한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계속 규탄하고있으며 경제 및 외교관계까지 단절하였다.

【의회】 모두 백인들로 구성되여있으며 상원은 54명, 하원은 156명, 임기는 각각 5년이다.

【대통령】 레오필루스 돈게스 (1967년 2월) 수상 존 보스터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정당은 일체 비법화되고있다. **공산당** 1921년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창건되였다. 1950년에 《공산주의진압법》에 의하여 해산되였다가 1960년에 다시 조직되였다. **국민당** 집권당, 화란침략자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1913년에 조직된 가장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정당이다. **통일당** 1934년에 조직되였으며 영국침략자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남아프리카통일전선** 1960년 3월 샤프빌사건후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아프리카인민족대회당, 남아프리카인도인대회, 범아프리카대회당, 서남아프리카민족련맹 등이 련합하여 형성. **자유당, 진보당, 민족동맹당, 남아프리카로조 대회.**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농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금강석, 우란광, 석탄, 동, 철, 연, 망간, 크롬 등이 있다.

농토의 87.5%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은 중앙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하고있는데 주로 양털이 생산된다.

경제명맥은 미, 영, 프랑스, 서독의 독점체들이 쥐고있다. 《통행증법》에 의하여 16세이상의 원주민들은 시민증, 납세증, 직업증 등 27종의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가지지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백인농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다.

남아프리카에는 노예로동장소가 26개소나 있으며 매년 100만명이 이 악법에 의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다. 아프리카인로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일하면서도 백인로동자로임의 20분의 1밖에 받지못한다.

실업자는 약 50만명 있으며 아동사망률은 평균 20~30%나 된다.

스워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북부에 있는데 뽀르뚜갈령모잠비크와도 국경을 접하고있다.

【면적】 1만 7,366km²

【인구】 30만명 (1965년)

인구의 98%가 스워지준민족출신의 아프리카인들이다.

【행정중심지】 므바반 (주민 3,000명)

정 치

1906년에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 있는 영국고등판무관이 통치하고 있었다. 1964년 1월에 립법회의창설을 예견한 헌법(1963년 6월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요) 이 효력을 내여 같은해 6월에 립법회의(24석) 선거가 진행되였다.

1966년 4월 국왕 사브후자 2세와 영국왕실대표 프렌시스 로이드간에 새로운 헌법실시에 대한 공식협정이 조인되여 같은해 4월 25일부터 새 헌법이 실시되였다. 그리하여 스워질랜드는 내부자치권을 가지게되였다.

【의회】 1966년 4월 19일과 20일에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임코드워민족운동당(지도자 마코쉬니 들라머니)이 30석중에서 24석을 차지하였다. 기타 의석은 헌법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상원은 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6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8명의 상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정당들인 **진보당**(위원장 느쿠쿠), **민주당, 느그와네민족해방대회당**은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립법회의 선거결과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임보코드워민족운동당**(집권당) 지도자 마코쉬니 들라머니. **범아프리카단결대회** 1962년 2월 므바반에서 스워질랜드, 베추아날랜드, 바수톨랜드의 정당들이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을 목적으로하고 통일전선으로 결성하였다.

경 제

60년이상 식민주의자들의 통치하에 있은 결과 뒤떨어진 농업국가로 남아있다. 경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백인들이 토지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은 쌀, 사탕수수,

옥수수, 땅콩, 감자 등이다. 집짐승으로는 뿔난집짐승, 염소를 기른다. 석면, 철광, 금 등이 채굴된다.

주민의 약 6분의 1이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에 고용되여있거나 남아프리카의 광산들에서 품팔이하고있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령토내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다.

【면적】 3만 344km²

【인구】 88만명(1965년)

주민의 99.5%가 아프리카인(주로 바수토인과 줄인)이다.

【수도】 마세루 (주민 9,500명)

정 치 1818년에 최고추장 모쉐슈가 신생국가를 지도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43년에 모쉐슈에게 불평등조약을 강박하여 《보호통치》를 접수케하였으며 1868년에 이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78—1881년에 바수톨랜드에서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있었다. 이 봉기를 진압한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84년 바수톨랜드를 저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레소토인민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으로 1959년 9월에 《내부자치권》을 획득하였다.

1961년 3월에 수도 마세루에서 벌어진 력사적인 총파업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정당들과 로조단체들이 출현하였다.

1965년 4월 29일선거에서 민족당이 다수표를 얻어 이 당 당수 레브아 조나탄이 정권을 잡았다.

1966년 5월 레소토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레소토인민의 독립을 형식적인것으로 만들고 이 나라에서 저들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독립선포전에 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진보적력량의 요구를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통제하에 두려 하였다.

진보적력량과 식민주의자들간의 이러한 대립은 《내부자치》 정부내에도 반영되였다. 독립을 앞두고 최고추장 모쉐슈2세와 수상 조나탄간에 커다란 의견상이가 발로되였다.

1965년에 정권을 잡은 조나탄정부는 모쉐슈 2세가 독립후 국가관리에서 광범한 권한을 가지는것을 반대하였으며 그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바수톨랜드는 식민주의자들의 책동과 국내정치세력들간의 대립이 있는가운데 1966년 10월 4일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나라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쳤다.

독립후 조나탄정부에 불만을 품어오던 레소토의 진보적인민들은 조나탄정부에 항거해나섰다.

1966년 12월 반동적인 조나탄정부는 국왕 모쉐슈 2세를 연금하고 1967년 1월에는 바수톨랜드대회당 위원장 모크헬레와 총비서 콜리상을 비롯한 정당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반동적인 레소토정부수상 조나탄은 1966년 12월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제가 시키는대로 《반공》나발을 불어댔으며 1967년초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 두목 보스터를 찾아가 그의 인종주의정책을 찬양하였다.

【국왕】 모쉐슈 2세

【국회】 1965년 4월 29일에 선거되였다. 총의석 60석중 민족당이 31석, 바수톨랜드대회당이 25석, 마레마틀로우자유당이 4석.

【정부】 1965년 4월 29일 선거후 조직되였다. 수상 레브아 조나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 조직, 총비서 모틀로헬로아, **바수톨랜드대회당** 1952년에 창건, 가장 영향력있는 당이다. 추장들의 권리와 특권의 청산, 토지개혁실시, 공업발전을 위하여 투쟁,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치경제적련계를 반대,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관계발전, 아프리카에서 진보적운동을 지지. **민족당** 1959년에 창건, 추장들과 반동적인 소부르조아계층들로 구성. **마레마틀로우자유당** 1962년 창건, 모쉐슈 2세의 립장을 지지, **레소토로조대회** 1961년에 창건.

경 제 레소토의 경제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락후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공업은 거의 없다. 철도도 없다. 주민들은 주로 목축업과 농업을 한다. 양, 말, 등 집짐승을 기른다. 축산물의 털, 가죽 등을 수출하고있다. 주요알곡작물은 옥수수인바 그밖에 수수, 밀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지리적조건과 그리고 근 1세기동안의 영국의 식민지통치와 아프리카독점체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레소토는 사실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료공급지로, 남아프리카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값싼 로동력 원천지로 되였다.

매년 수많은 레소토인민들이 남아프리카의 대농장과 광산으로 끌려가고있다.

화폐단위는 남아프리카의 랜드이다.

말 가 슈

(말가슈공화국)

Malgasy Republic

말가슈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 인도양상에 있으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 59만 4,244km²

【인구】 626만 2,000명(1965년)

주민구성이 복잡한데 말라이계족인 메룬족이 많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타나나리브 (주민 25만 4,000명)

정치 말가슈는 1896년 8월 6일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0월 14일 말가슈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체결된 《협조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국방, 외교, 재정,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특권과 군사기지의 리용, 군대의 주둔권을 계속 가지게 되였다. 말가슈는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 (1961년 8월 11일에 조직된 아프리카—말가슈동맹의 해소후 1966년 1월에 발족)성원국이다. 1962년 7월 말가슈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경제적및기술적원조협정》, 《장기재정원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아프리카국가들중 가장 친서방적인 나라이다.

【의회】 량원제. 국민의회(하원)의원은 107명, 임기는 5년, 상원의원은 54명, 임기는 6년, 1965년 8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은 대통령, 그의 임기는 7년, 1965년 8월 28일 독립후 두번째로 내각구성, 대통령겸수상 필리베르 치라나나, 외상 알베르실라.

【정당, 사회단체】 **사회민주당** (집권당) 1956년에 창설, 프랑스사회당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의 협조를 주장, 위원장 필리베르 치라나나. **독립대회당** 1958년 5월에 성립, 프랑스 《공동체》에서의 탈퇴, 식민주의잔재 청산, 적극적인 중립정책의 실시, 기본생산부문의 국유화, 토지의 재분배 등을 주장. **인민전선**, **민족부흥운동**, **통일당**, **로조련합회**(세계직련가입), **민주청년동맹** (세계민청에 가입)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2%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경지면적은 약 300만헥터(1964년)이나 비옥한 땅은 프랑스침략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쌀, 마니오크, 커피, 사탕수수 등이다.

소와 돼지를 기른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약 10%를 차지하며 공업로동자는 약 3만명이다. 공업은 채광업과 농산물가공공업으로서 프랑스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흑연, 크롬광, 베릴륨을 생산한다.

커피, 가죽, 쌀, 담배 등을 수출하며 주로 프랑스와 거래한다.

모리샤스도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상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다.

【면적】 $2,090km^2$

【인구】 74만 1,000명(1965년)

인구의 3분의 2는 인도계인이다.

【행정중심지】 포트루이스(주민 10만 4,106명)

1511년 뽀르뚜갈인침략자들에게 발견된후 화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 였다가 1903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모리샤스도는 영국 총독정치로부터 벗어나 1967년 8월 12일 독립하였다. 1967년 8월 7일의 총선거에서 승리한 독립당의 당수 람고람이 새정부의 수상으로 임명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이며 공업은 제탕업뿐이다. 사탕은 수출하고 식량은 수입한다.

세이쉘제도

서부인도양상의 92개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404km^2$

【인구】 4만 3,750명(1962년)

【행정중심지】 빅토리아(주민 약 1만명)

1756년에 프랑스침략자들에게 점령되였다가 1794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03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정식식민지로 만들고 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민족적독립을 주장하는 세이쉘제도 인민통일당(위원장 레네)이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주산물은 야자, 바닐라(향료), 계자이다. 농산물은 인도에 수출된다.

레유니옹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상에 있는 섬이다.

【면적】 $2,511km^2$

【인구】 37만 5,000명(1964년)

대부분은 흑인과 혼혈인이다.

【행정중심지】 쌍 데니스(주민 4만 2,000명),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행정권은 프랑스정부가 임명한 지사가 가지고있다.

정당으로는 공산당 (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성립, 제1비서 베르제스)과 프랑스정당들의 지부가있다.

경지면적은 7～8만 헥터이다. 사탕수수재배와 제탕공업이 위주로되고 있으며 프랑스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인구의 2.4%의 지주들이 땅의 60%를 차지하고있다. 반면에 72%의 농민은 겨우 6.9%의 경지를 가지고있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원주민의 평균수명은 24세이고 젖먹이사망률은 1천명에 165명이나 된다.

구라파주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쏘련은 구라파주의 동부와 아세아주의 중앙 및 북부에 위치하고있다. 지구 륙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있는 쏘련은 12개 나라들과 국경을 이루고있다. 국경선의 길이는 6만키로메터이다.

쏘련의 기후는 다양한바 북부는 한대 (전 령토의 16%), 중부는 온대 (80%), 남부는 아열대 (4%)이다.

최저기온은 씨비리의 동북부(웨르호얀쓰크)에서 령하 약 70°C이고 최고기온은 우즈베크남부(쩨르메즈)에서 약 50°C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깝까즈산맥일대에서2천 500mm이며 구라파부분의 서부지역에서는 500～600mm, 중앙아세아지역에서는 80mm이다.

【면적】 2,240만km²(구라파지역 560만km², 아세아지역 1,680만km²)

【인구】 2억 3,400만명(1967년 1월 1일)

다민족국가인 쏘련에는 100여개의 민족이 살고있다. 그중 인구수에 따르는 5대 민족은 로씨야인(전체 인구의 약 55%),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우즈베크인, 따따르인이다.

쏘련에서는 100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있는데 그중 로씨야어가 공용어로 되고있다.

【수도】 모스크바(주민 641만 2,000명, 1966년 7월 1일)

정 치 10월혁명전 로씨야는 군사봉건적—농노적제관계를 완전히 극복못하고 자본주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제국주의국가였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1917년 11월 7일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 형성되였다.

1922년 12월 30일 로씨야련방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과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1917년 12월 11일 창건), 백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1919년 1월 1일 창건)및 자깝까즈련방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1922년 3월 12일 창건, 1936년에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련맹의 가맹공화국으로 망라됨으로써 자깝까즈련방은 해체됨) 이 련합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형성하였다.

1925년에 우즈베크 및 뚜르크메니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들이, 1929년과 1936년에는 따쥐크스딴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과 끼르끼즈 및 까자흐스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들이, 그리고 1940년에 라뜨비야, 리뜨바, 에쓰또니야, 몰다비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들이 련맹에 망라되였다. 현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는 15개의 가맹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가 망라되여있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의 첫헌법은 1924년 1월 31일에 제정되였고 1936년 12월 5일에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최고쏘베트】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 임기는 각각 4년, 현 최고쏘베트는 제7기로서 1966년 6월 12일에 선거, 련맹쏘베트대의원은 767명, 민족쏘베트대의원은 750명.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의 권한은 동등하며 동등한 립법발의권을 가진다. 량원제도는 근로자들의 공동의 리익과 함께 각 민족근로자들의 특수한 리익과 요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 련맹쏘베트 의장 이. 웨. 쓰삐리도노브, 민족쏘베트 의장 유. 이. 빨레즈끼쓰.

【내각】 현 내각은 1966년 4월 3일에 구성.

수상 아. 엔. 꼬씌긴
외무상 아. 아. 그로믜꼬
국방상 아. 이. 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쏘련공산당1903년 7월 30일 창건, 당원 및 후보당원수 1천 268만 4천여명(1967년 1월 1일), 1966년 3월에 열린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국 성원들을 선거하였다.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쏘련직업동맹(1918년 1월 창립). 레닌공산청년동맹(1918년 10월 19일 창립). 쏘련청년단체위원회, 쏘련녀성위원회, 쏘련대외친선및문화련락협회련맹, 쏘련평화옹호위원회,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쏘련적십자및 적반월협회련맹, 쏘조친선협회 위원장 엔. 엔. 따라쏘브.

【주요국내사건】 1965년 3월 24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농촌경리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조치들에 대하여》 로의하였다.

1965년 9월 27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소집에 대하여》 로의하고 1966년 3월 29일에 제23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6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66년도 쏘련의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보고 및 1966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와 당 및 국가검열기관을 인민검열기관으로 개편할데 대한 문제가 로의되였다.

1966년 3월 29일—4월 8일에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와 쏘련공산당 중앙검사위원회사업을 총화하였다. 또한 1966—1970년도 쏘련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새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966년 5월 25—27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및 기타 농작물의 높고 안정된 수확을 얻기 위해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로의하였다.

12월 12—13일에 열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67년도 쏘련인민경제발전국가계획 그리고 1967년도 쏘련국가예산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65년 3월에 쏘련에서는 지방근로자쏘베트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1966년 6월 12일에는 쏘련최고쏘베트 제7기 대의원선거가 있었다. 동년 8월 2—3일에 있은 쏘련최고쏘베트 제7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들을 선거하였으며 쏘련정부를 새로 구성하였다. 12월 15—19일의 쏘련최고쏘베트 제7기 제2차회의는 196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과 1965년도 국가예산집행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1966년 5월 17—21일에 레닌공산청년동맹 제15차대회가 있었다.

대기상층부와 우주공간의 연구를 위하여 쏘련은 1965년 2월 18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인공지구위성 《코쓰모쓰》54호로부터 101호까지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1965년 5월 8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우주공간과 태양계의 위성연구를 위하여 《루나》5, 6, 7호가 발사되였다.

1965년 11월 16일 쏘련에서 발사한 자동관측소 《웨네라—3》호가 1966년 3월 1일 오후 3시 56분에 금성표면에 도달하였다. 1966년 12월 21일에는 쏘련에서 자동정류소 《루나—13호》를 발사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5월에 대독전승 20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정치 및 사회활동가 대표단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3월에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 23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5월에 정부경제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5년 2월 11—15일에 내각수상 아. 엔. 꼬씌긴을 단장으로하는 쏘련대표단, 8월에 쏘련 친선대표단과 로병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쏘련정부통상대표단 (3월), 인민소비품전람회대표단(3월), 쏘조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7차회의에 참가할 대표단 (5월), 쏘조친선협회대표단 (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5년 3월에 조쏘량국간의 1965년도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서, 7월에 조쏘국경철도대표단간의 공동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6년에는 조쏘량국간의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4월), 조쏘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7차회의 의정서와 1966년도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서(5월), 조쏘간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 조쏘간의 1967—1970년간의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과 어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 (6월),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12월)가 각각 조인되였다.

이 외에 1966년 9월에 쏘련녀자배구종합선수단이, 11월에 우크라이나국립공훈인민합창단이, 12월에 쏘련남녀탁구선수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8월에 우리 나라 체조선수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4월 엘. 이. 브레쥬네브와 아. 엔. 꼬씌긴을 비롯한 쏘련 당 및 정부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고 1945년 량국간에 체결한 조약의 연장으로 되는 친선협조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20년기한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1966년에 쏘련당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 (6월), 몽골인민혁명당제15차대회(6월),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11월)및 웽그리아사회통일당 제 9차대회(11월)에 각각 참가하였다.

동년 7월에 브레쥬네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대표단이 부꾸레슈띠에서 진행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1965년 5월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 9월 챠우쉐쓰꾸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 11월 라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산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10월에 당및정부수뇌자들이 인솔하는 뽈스까, 웽그리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몽골의 당및 정부대표단들과 꾸바의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대통령과 라울 까스뜨로가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수상 윌리 슈토프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4월 베이징에서 쏘련과 중국간에 1966년도 통상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5년 5월 4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각국 국회들에 보낸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의 4월 8일부 호소문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4개항목의 립장을 밝힘)을 지지하여 회답서한을 보냈다.

1966년 6월 30일 쏘련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의 하노이, 하이퐁시의 교외를 폭격한 미제를 규

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2월 1일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는 각국 국회들에 보낸 1966년 1월 24일부 호지명주석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회답서한을 보냈다. 아. 엔. 꼬씌긴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대표단 (1965. 2)과 셸레삔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정부대표단(1966. 1)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웰남측에서는 려순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로동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1966.3—4)에 참가하였으며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 1965년 4월과 6월, 1966년 8월과 10월에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1965년 4월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모스크바에 설치되였다. 동년 6월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8월에 남부웰남청년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10월 3일 모스크바에서 쏘련이 민주웰남에 무상원조와 새로운 추가적인 차관을 제공할데 관한 협정, 1967년 통상액에 관한 협정 및 기타 문건들이 조인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1월에는 꼬씌긴이 인도를 방문하였다. 또한 꼬씌긴의 참가하에 따슈껜트에서 카슈미르분쟁문제해결을 위한 인도—파키스탄수뇌자회담이 있었다.

1965년에 끼쁘로스와 통상협정(2월), 이라크와 경제 및 기술협정(3월), 파키스탄과 통상협정, 수리아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였다.

꼬씌긴이 1966년 1월에 아프가니스탄을, 5월에 아련을, 12월에 토이기를 방문하였다.

1965년 4월에 부메디엔을 단장으로하는 알제리정부대표단, 파키스탄대통령 아유브 한, 6월에 이란왕 모하메드 레자, 7월에 기네대통령 세쿠 투레, 우간다수상 밀톤 오보테, 소말리아대통령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8월에 아프가니스탄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 꽁고(브)대통령 마쌈바 데바, 9월에 아련대통령 나쎄르, 네윈을 단장으로 하는 버마정부대표단, 손산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대표단, 10월에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쏘련공산당대표단이 칠레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66년에는 아프가니스탄수상 마이완드왈(2월), 가나대통령 느쿠루마(3월), 수리아수상 유세프 자인(4월, 7월), 라오스왕 사방바타나(5월), 인도수상 인디라 간디 (7월), 이라크 수상 바자즈(7월), 소말리아대통령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9월), 마로끄왕 하싼 2세 (10월)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4월 26일 쏘련정부는 서독하원이 나치스전범자들에 대해 면죄하려는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에 아. 엔. 꼬씌긴이 핀란드(6월)와 프랑스(12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쏘련은 유용광물이 풍부한 나라이다. 탐사된 매장량에 있어서 석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철, 망간, 크롬, 동, 연, 아연, 니켈, 보크사이트, 카리염, 린산염 등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며 수력자원에서는 세계 제1위이다.

수력자원은 씨비리와 원동지방의 쏘련의 총수력자원의 85%를 차지한다. 산림면적은 10억정보이며 목재자원은 500억립방메터로서 세계산림자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경작할수 있는 토지면적은 5억 4천280만정보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대마 등이다.

제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66년에 공업총생산액은 계획보다 1.9% 더 초과수행하였다.

1966년에 전력은 5천 450억키로와트시, 석탄은 5억 8천 500만톤, 원유는 2억 6천 500만톤, 선철은 7천만톤, 강철은 9천 690만톤, 가스는 145억 립방메터 생산되였다.

1966년 알곡수확량은 1억 7천 80만톤이였다.

1966년 국가알곡수매량은 7천 490만톤이였다.

1967년도 예산수입은 1천102억 4천992만 5천루블, 지출은 1천100억 1천520만 1천루블이였다.

1966년도 쏘련의 대외무역액은 1965년보다 5% 늘었다. 1965년에 대외무역총액은 약 150억 루블이였다.

사회, 문화 1966년에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 사무원수는 7천 970만명으로서 전년보다 280만명이 늘었다.

1966년에 학생수는 7천 200만명, 그중 초등학교 학생수는 4천 800만명, 중등전문학교 학생수는 400만명, 고등학교학생수는 410만명이였다.

1966년말 현재 과학기관, 고등교육기관, 기타 기관들에서 일하고있는 과학일군수는 약 7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쏘련통신사), 아. 뻬. 엔(《노보쓰찌》보도사).

주요신문 쁘라우다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기관지), 이즈베쓰찌야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 (레닌공청중앙위원회기관지), 뜨루드(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기관지), 끄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기관지), 에꼬노미체쓰까야가제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주간지).

주요잡지 꼼무니스트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 리론잡지), 빠르찌나야쥐즌(공산당중앙위원회 당생활리론잡지), 꼼쏘몰쓰까야 꼼무니쓰트(레닌공청중앙위원회 리론잡지), 메쥬드나로드나야쥐즌 (과학지식보급협회 리론잡지), 노보예브레먀, 과학원공보.

뽈스까
(뽈스까인민공화국)
Poland Peoplés Republic

뽈스까는 구라파동북쪽, 쏘련과 민주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사이에 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지대 (평균높이 173메터)이고 남쪽에 까르빠찌야산맥과 수데트산맥이 있다.

기후는 동북구라파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의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변화가 심하나 대체로 온화하다. 년평균기온은 7~9°C이고 년평균 강우량은 500~700mm이다.

【면적】 31만 2,520km²

【인구】 3,181만명(1966년 12월 31일) 그중 도시인구 1,591만명, 농촌인구 1,590만명.

주민은 슬라브족의 뽈스까인이고 언어는 서슬라브어에 속하는 뽈스까어이다.

【수도】와르샤와(주민 126만 7,800명, 1966년 12월 31일)

정치 뽈스까국가의 기원은 약 1천년전으로 알려져있다. 9세기부터 뽈스까의 령토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14—16세기에는 발찍해로부터 흑해연안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1572년 야겔론왕조의 몰락과 함께 뽈스까의 령토는 련방 대지주들의 령지로 분할되였으며 18세기말엽에는 프로씨야, 짜리로씨야, 오지리 등 3국에 의하여 분할되였다.

뽈스까는 1918년 11월 7일 부르죠아민족국가로 재생되기까지 약 130년간 외국의 예속하에 있었다. 사회주의 10월혁명은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뽈스까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1918년에 뽈스까는 정식 독립하였으며 공산당이 창건되고 1920년에는 림시혁명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39년 9월에 뽈스까는 히틀러독일의 침략을 받았다. 쏘련군대와 뽈스까 제1군의 진격으로 히틀러독일의 강점에서 나라의 일부가 해방되자 1944년 7월 21일 루블린에서 첫 인민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가 창건되였다. 이 위원회는 1944년 7월 22일 《7월선언》을 발표하였다. (뽈스까인민은 이 날을 해방과 재생의 날로 기념한다)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뽈스까림시정부로 재조직되였으며 1947년 1월 19일 립법기관이 선거될때까지 토지개혁(1944년 9월 6일), 산업국유화(1946년 1월 2일)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현행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회의(세임)에서 채택되였으며 그후 일부 수정되였다.

【세임】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대의원은 460명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세임은 제4기로서 1965년 5월 30일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는 세임휴회기간에는 최고주권기관으로 된다.

국가쏘베트위원장 에드와르드 오하브 (1965년 6월 24일 재선)

세임의장 체슬라브 비쩨흐

【내각】현 내각은 1965년 6월에 구성, 그후 일부 변동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

민족보위상 마리안 씌삐할쓰끼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1942년 1월 5일 조직)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 당원 및 후보당원수 187만명(1966년 9월 30일). 제1비서 블라지슬라브 고물까. **통일농민당** 1949년 11월 27일 농민당과 뽈스까농민당이 합당하여 성립, 당원수 약 40만명(1967년 4월). **민주당** 1939년 10월 16일 성립. 당원수 6만 9천명 (1965년 말). **인민통일전선**, **직업총동맹** 맹원 731만 9천명 (1964년 12월). **사회주의청년동맹** 1947년 4월 25일 성립, 맹원 100만명 (1967년 3월). **농촌청년동맹** 맹원 90만명 (1967년 1월). **녀성련맹** 맹원 525만명(1966년 6월). **뽈스까아. 아인민단결위원회.**

【주요국내사건】1965년 3월 16—17일에 있은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세임 및 인민쏘베트 선거와 당단체들의 과업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7월 27—28일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계획작성 및 1966—1970년 인민경제관리체계개편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6년 4월 25—26일에 있은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기본건설투자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5년 5월 30일 전국 각지에서 세임 및 각급 인민쏘베트 선거가 진행되였다. 6월 24일 세임 제4기 제1차회의에서는 세임상임위원회와 국가쏘베트위원장이 선거되였으며 유제프 찌란께비치를 수상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6년 3월 1—2일에 있은 세임 제4기 제6차회의에서는 학교개혁실행정형에 대한 교육상의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년 11월 9—11일에 있은 세임회의는 인민경제 발전 5개년 (1966—1970) 계획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는 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을 통합할데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에 뽈스까는 우리 나라와의 1965년 문화교류계획보충의정서(4월 24일), 조선—뽈스까해운회사조직에 관한 협정 (11월 19일), 1966년도 과학기술교류의정서 (11월 25일), 1966—1967년 통상협정과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의정서 (12월 27일)

를 각각 조인하였다.

1966년 12월 8—11일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1966년 7월 11일에 와르샤와에서 뽈스까와 우리 나라사이의 1966—1967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1월 7일에 조선—뽈스까해운회사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으며 조선—뽈스까해운회사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 1967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브레쥬네브와 꼬씌긴을 비롯한 쏘련공산당 및 정부대표단 (4월 5—9일)이 뽈스까를 방문하고 1945년에 량국간에 체결한 조약의 연장으로 되는 친선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20년 기한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블라지쓸라브 고물까를 비롯한 뽈스까통일로동당 지도자들은 브레쥬네브를 비롯한 쏘련공산당 지도자들과 동년 9월 11—12일 뽈스까에서, 10월 29—30일에는 백로씨야에서 각각 회담하였다.

1966년에는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고물까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23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고물까와 찌란께비치수상이 인솔하는 뽈스까당및정부대표단이 10월 12—15일에 쏘련을, 1월 18—19일에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뽈스까당대표단은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 (1965. 7), 웽그리아사회통일당 제9차대회(1966. 11—12월),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 (1966.11),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 (1966.5—6월)에 참가하였다.

고물까와 찌란께비치를 비롯한 뽈스까대표단은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966년 7월 4—6일간에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비서 안또닌 노보뜨느이와 수상 레나르뜨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1966. 1)과 꾸바혁명정부 부수상 라울 까스뜨로 (1965. 3)가 각각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뽈스까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과 관련하여 1965년 2월 12일에,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정책을 규탄하여 1966년 12월 16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며칭의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웰남정부대표단이 1965년 6월과 1966년 1월 및 10월에뽈스까를 방문하고 경제협조및원조에 관한 협정, 1967년도 상품 호상교류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 10월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으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상설대표부가 와르샤와에 개설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뽈스까정부는 1965년 5월 12일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미니카로부터의 모든 미제침략군의 즉시적인 철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주권 및 독립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1966년 4월 28일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의 3월 24일부 각서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37년도 독일의 국경이 계속 존재한다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데르—나이쎄—루쥐쯔강국경이 최종적인 국경이라고 강조하였다.

1965년에 유제프 찌란께비치수상이 프랑스 (9월 9—16일)와 오지리 (9월 20—23일)를 방문하였다.

뽈스까는 1965년 12월 5일에 모리따니와, 1966년 7월 1일에는 잠비아와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경제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철, 아연, 동, 니켈, 류황, 소금, 카리염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면적은 령토의 25.3%를 차지한다.

1966년에 상품생산계획은 101.5%로 수행되였다.

1966년에 제철, 기계, 화학, 전재, 식료 공업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대상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1966년에 전력은 474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1억 2천 200만톤, 선철은 585만톤, 강철은 985만톤 생산되였다.

1966년도 농산물생산은 1965년에 비하여 5.8%, 축산물생산은 5.2% 장성하였다.

1966년에 4대작물인 밀, 보리, 쌀보리, 귀밀은 1천 550만톤 생산되였다.

1966년에 소는 1천40만마리(전년도보다 4.4%장성), 돼지는 1천430만마리 (전년도보다 3.4% 장성)였다.

1966년말현재 농업협동조합수는 1천 214개, 농업크루쇼크수는 3만 3천600개였다.

1966년도 대외무역 수출계획은 101.2%, 수입계획은 103.4%로 수행되였다.

사회, 문화 1966년에 뽈스까사회계는 학교와 기술학교를 짓는데 18억 1천 800만 즐로띄를 바쳤다. 그리하여 1966년에 152개의 학교 (교실수 1천 553개)와 440개의 실습장이 건설되였다.

1967년도부터 초등학교 학제가 7년제로부터 8년제로 되였다.

1967—1968학년도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555만 6천600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32만 2천700명, 직업학교 학생수는 162만 9천200명, 대학생수는 27만 3천300명이였다.

1966년말 현재 의사수는 4만 1천800명, 병원침대수는 15만 9천700대이다. 1966년에 107개의 농촌진료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뽈스까통신) 1966년에 새로운 통신사 《뽈스까 아겐찌야 인떼르쁘레스》가 생겼다. 이 통신사는 해외구독자들, 주로는 재외에 있는 뽈스까사람들을 위하여 서적, 잡지

등도 출판한다.

신문 르리부나 류두 (통일로동당기관지), 젠니끄 루도븨(통일농민당기관지), 글로스쁘라쉬(직업동맹중앙평의회기관지), 졸베쥬월노스찌 (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베드로기 (통일로동당 월간잡지), 쥐쩨 빠르찌이 (통일로동당 월간잡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Czechoslovakia Socialist Republic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지역으로 형성된 구라파중심부의 내륙국으로서 쏘련, 뽈스까, 민주독일, 서독, 오지리, 웽그리아와 접경하고있으며 북부와 서북 및 서남부국경선을 따라 산맥들이 둘러싸고있다.

북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약 10 °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약 720 mm(450~1,500mm)이다.

【면적】 12만 7, 869km²

【인구】 1,427만 4,000명 (1966년말)그중 체스꼬인이 약 66.2% 슬로벤스꼬인이 29%이며 이밖에 웽그리아인, 독일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다.

【수도】 쁘라하(인구 102만 5,000명. 1965년말 현재)

정 치 기원 7세기에 첫왕국이 건립되였으며 11세기 전반기에 오늘의 슬로벤스꼬지역이 웽그리아에 병합되고 체스꼬는 1620년에 오지리제국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오흥제국이 붕괴됨에 따라 1918년 10월 28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1939년부터 파쑈독일의 강점하에 있다가 1945년 5월 9일 히틀러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 2월 공산당의 령도하에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복귀를 위한 반동세력의 반혁명적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60년 7월 11일 민족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의 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대의원수는 300명, 현민족회의는 1964년에 선거되였으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 보구슬라브 라슈또위츠까 (1964년 6월 24일)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민족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5년.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1957년 11월 27일—)

【내각】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그 성원을 임명한다. 정부는 1965년 11월 10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요제프 레나르뜨
외무상 와쯜라브 다위드
민족보위상 보구미르 롬스끼

【정당, 사회단체】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6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 당원수 169만 8천명 (1966년 1월 1일 현재) 제1비서 안또닌 노보뜨느이.

사회당, 인민당, 슬로벤스꼬부흥당, 직업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평화옹호위원회.

【주요국내사건】 1965년 1월 27—29일에 있은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66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인민경제계획화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원칙들이 토의결정되였다. 8월 31일에 열린 전원회의는 1966년도 및 제4차 5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들의 준비, 13차당대회의 의정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1966년 5월에 정기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966년 3월 22—23일 전원회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위원회의 지위와 과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4월 20—21일전원회의는 장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제4차 5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1966—1970)의 기본과업을 토의하였으며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에 내놓을 당규약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66년 5월 31일—6월 4일에 제13차당대회가 있었다.

1966년 10월 6—7일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13차당대회결정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1967년말까지의 통일적사업절차계획》,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초안, 1966년도인민경제발전정형과 1967년도 경제발전방향초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20—21일 전원회의는 1965년 11월 전원회의결정의 실행정형, 대외경제관계발전문제, 당검열 및 검사사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외관계】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우리나라와 문화교류계획서 (6월 2[illegible]일), 1966년도 상품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월 30일),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회의 의정서 (12월 10일)를 각각 조인하였다.

1966년에는 1966년도 문화교류계획서 (4월 23일), 1966년도 통상추가의정서 (7월 5일), 1967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10월 12일), 1967년도 상품교류 상납입에 관한 협정서 (12월 1[illegible]일)가 조인되였다.

1965년에 제7차 브르노국제시장개막식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9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5월 26일—[illegible]월 7일) 과 직맹대표단 (4월 2[illegible]일—5월 20일) 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한편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통상대표단(1965. 11월)과 체스꼬슬로벤스꼬가무단 (1966. 9—10). 조선—체스꼬슬로

벤스꼬과학기술위원회 제11차회의대표단 (1966.10)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대표단이 뽈스까(1월)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쏘련 (9월)을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정부대표단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하는 당대표단 (1월, 10월)이 쏘련을, 당및정부대표단 (1월)이 뽈스까와 벌가리아 (9월)를 방문하였다.

1965년 7월에 당대표단이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66년 4월에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하는 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에 참가한것을 비롯하여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 (11월)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 (12월)에 각각 참가하였다.

1966년 7월 부꾸레슈띠에서 있은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한편 1965년에 브레쥬네브 (10월), 마우레르를 단장으로하는 로므니아 당및정부대표단 (5월), 쩨덴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당및정부대표단 (6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6년 6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에 쏘련공산당, 독일사회통일당 및 기타 형제당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966년 9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족보위상 롬스끼의 지휘하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남부지역에서 와르샤와조약기구 4개성원국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 민주독일, 웽그리아)군대들의 합동군사연습 《블따바》가 있었다.

1966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66—1970년간의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뽈스까 (1월), 벌가리아 (1월), 알바니아 (12월)와 맺었으며 쏘련과는 원유채취에서의 협조협정 (9월), 뽈스까와는 인원, 물품및 교통수단에 대한 국경검사사업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9월)을 맺었다.

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과 관련하여 1965년 2월 10일과 1966년 12월 16일에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65년 4월 10일에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물질적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1965년 6월 퍼청의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고 경제협조문제를 토의하였다. 1966년 9월에는 레나르트 수상을 단장으로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고 경제기술원조에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1966년 11월에 노보뜨느이가 아련, 에티오피아, 인도를 방문하였으며 1965년 3월에는 레나르트수상이 인도와 아련을 방문하였다.

한편 1965년에 인도 대통령 라다크리쉬난 (10월), 프랑스 공산당 (5월), 이딸리아공산당(5월과 11월), 오지리공산당(5월), 이스라엘공산당 (11월), 에스빠냐공산당 (12월) 대표들이 각각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싱가포르수상 리관유(5월), 버마혁명리사회 의장 네 윈 (6월), 수리아수상 유세프자인 (11월), 그리고 오지리공산당(4월), 오스트랄리아공산당, 미국공산당, 핀란드공산당(9월) 대표들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아련과 과학기술협조협정(2월), 파키스탄과 차관제공에 관한 협정(7월) 및 상품 교류협정(11월) 가나와 무역및지불협정(11월) 및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서의 협조협정(11월), 수리아 및 콩고(브)와 문화협조협정(11월)을 각각 맺었다.

경제 주요자원은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석, 동, 우라늄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맥류, 감자, 사탕무우, 옥수수, 아마 등이다.

1966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3차당대회가 제시한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에 따라 제4차 5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첫해과업을 실행하였다.

인민경제 각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총수는 1966년에 564만 5천명이였다.

1966년에 공업생산계획은 102.5%로 넘쳐수행하였다.

1966년에 석탄은 2천 686만 4천톤, 강철은 912만 8천톤 생산되였다.

1966년도에 알곡은 178만 9천 600톤 수매되였으며, 1961—1965년 기간의 알곡 평균 생산량은 161만 7천톤이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주로 기계와 설비를 비롯한 공업제품들을 수출하고 공업원료와 식료품을 수입하고있다.

1966년도 무역액은 1965년도보다 2.2% 늘었으며 8억 6천만크론의 수출초과를 내였다.

사회, 문화 1966년 7월 1일부터 전체 주민들에 대한 무상예방치료제가 실시되였다. 1966년말 현재 의사수는 약 3만명, 9년제초등학교 학생수는 210만 4천명, 대학생수는 13만 9천명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체스꼬슬로벤스꼬통신사).

신문 루데 쁘라보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기관지), 쁘라우다(슬로벤스꼬공산당기관지), 스워보드네 슬로보 (사회당기관지), 리도바 제모크라찌에 (인민당기관지), 브라쩨(직맹중앙평의회기관지), 믈라다 프론따 (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노바 미슬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쥐보뜨 스뜨라느이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잡지).

웽그리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Hungary Peoples Republic

구라파동부에 위치하며 쏘련,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오지리와 접경하고 있다. 북부산지를 제외하고 두나이강의 동반부는 평야이고 서북쪽에 작은 평야지대가 있으며 서남부는 산지와 구릉지대이다.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10—11°C이며 최저기온은 —34°C (1942년 1월 24일), 최고는 43°C (1950년 7월 5일)이다. 년평균강우량은 600mm이며 강우량이 가장 많은 달은 일반적으로 5, 6, 7월이다.

【면적】 9만 3,030km²

【인구】 1,019만 7,000명(1967년말)

【수도】 부다뻬슈뜨 (주민195만명)

주민의 절대다수는 웽그리아인(마쟈르족)이고 그밖에 로므니아, 슬로벤스꼬, 쎄르비아, 독일인 등이 있다.

정치 9세기말에 아세아로부터 이동한 마쟈르족이 11세기초에 웽그리아국가를 형성하였다. 1241년에 몽골의 침습을 받았고 1526—1699년간에는 토이기의 기반하에 있었으며 1867년에는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홍제국이 패망한후 1918년에 웽그리아는 부르죠아공화국으로 되였다. 1944년에는 독일침략군대에 강점당하였다.

웽그리아인민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1944년 3월 독립민족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이해 12월에는 림시민족정부를 수립하고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45년 4월 4일 웽그리아는 히틀러파시즘의 기반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20일 국가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웽그리아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이날을 헌법절로 기념)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현 국가회의는 1967년 3월 19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수는 349명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순찌 빨

의장 깔라이 지울라

【로농혁명정부】 현정부는 1967년 4월 15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포크 예네

국방상 찌네게 라이오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56년 11월 1일에 창건되였다. 전신은 1948년 6월 14일 공산당(1918년 11월 24일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당원수 56만 5천명 (1966년 11월 현재)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1948년 창립, 맹원 약 290만명), **녀성전국리사회** (1948년 4월 창립), **공산청년동맹** (1950년 6월 18일 창립, 맹원 80만명, 1965년초)

【주요국내사건】 1965년 11월 11일 국가회의에서 교육개편에 관한 법령리행정형과 이와 관련한 과업을 토의하였으며 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와 에르베이 페렌쯔 (애국인민전선전국리사회 총비서)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1966년 6월 23—25일 국가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3차 5개년계획 (1966—1970)을 승인하였으며 11월 국가회의에서는 새로운 유일적인 선거법을 채택하였다.

1965년 6월 25일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1964년 12월 전원회의 결정집행에 대하여, 현 국제문제, 당중앙위원회 하반년도 사업계획과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까다르 야노쉬가 당제1비서의 직책만 책임지고 내각수상으로 깔라이 지울라를, 기타 일부 당 및 정부성원들을 조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1월 18—20일 확대전원회의에서는 당대표단의 우리나라, 몽골, 웰남방문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였다.

1966년 7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는 부꾸레슈띠에서 있은 와르샤와조약성원국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웽그리아대표단의 사업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를 위한 정치조직적준비대책 (초급당단체들이 토의한 제9차당대회 지도서와 규약수정안을 토의 찬동)을 토의하였고 1966년 11월 28일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13일 전원회의에서는 현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9월에 부다뻬슈뜨에서 있은 웽그리아—웰남회담에 관한 통보를 찬동하였으며 웰남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및 군사적원조를 강화할것을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서독군국주의침략군을 원자무기로 장비하려는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국가회의대의원선거제도와 새로운 유일적선거법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제안을 심의하였고 농촌경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제안을 찬동하고 9차당대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11월 18일 전원회의에서는 당대회에 제출할 총화보고초안과 규약개정안을 심의하였다.

1966년 11월 28일—12월 3일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제2차5개년계획을 총화하고 제3차5개년계획(1966—1970)을 승인하였으며 후보당원년한을 없앨데 관해서와 검사위원회들을 없앨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당규약을 개정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에 웽그리아와 우리 나라간에 1965—1966년도 문화교류계획서와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5월)가 조인되였고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 (11월)을 체결하였다.

1966년에는 문화및보건부문사업계획서 (4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5월)가 조인되였으며 1967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12월)이 맺어졌다.

우리 나라로부터 1965년 5월에 정부대표단, 11월에 정부통상대표단, 조선녀성대표단, 12월에 직맹대표단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11—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 직맹대표단 (5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웽그리아로부터는 1965년 9월에 외무상 뻬떼르 야노쉬, 10월에 포크 예네 (사회로동당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부수상)를 단장으로 하는 사회로동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웽그리아직맹대표단(3월), 군사대표단(4월), 정부통상대표단 (12월)이 우리 나라에 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1965년 5월과 12월, 1966년 3월 (쏘련공산당 23차대회에 참가)에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 6월에는 당및정부대표단이, 10월에는 까다르 야노쉬와 깔라이 지율라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5년 7월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대표단이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다. 5월에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1966년 7월에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대표단이 부꾸레슈띠에서 있은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한편 1965년에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와 뽀드고르느이 (1월), 로므니아수상 마우레르 (6월), 꾸바부수상 라울 까스뜨로 (3월)가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고물까를 단장으로하는 뽈스까당대표단(1월)과 로므니아수상 마우레르(1월),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9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회통일당 제1비서 울브리히트 (10월)와 쏘련공산당대표단, 벌가리아당대표단(11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5년 3월 13일에 있은 내각회의에서는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관련한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10월에 부수상 포크 예네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민주웰남을 방문하였으며 량국대표단간에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한편 며칭의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1965년 6월, 1966년 9월)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5년 9월 22일 부다뻬슈뜨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세쿠 투레를 단장으로하는 기네 당및정부대표단과 캄보쟈정부대표단 및 가나 정부대표단(12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8월),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 (9월), 칠레공산당총비서(7월), 스위스로동당대표단(10월), 프랑스공산당대표단(9월), 말리정부경제대표단(10월) 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싱가포르수상 (5월), 이란왕 (9월), 말리정부경제대표단(10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오지리공산당 위원장 (4월), 독일공산당 제1비서(5월), 프랑스공산당 총비서 (7월), 미국공산당총비서(9월), 에스빠냐공산당위원장 (9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5년에 당 및 정부대표단 (9월)이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1966년 2월에 깔라이 지율라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정부대표단이 아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쿠웨이트, 인도, 끼쁘로스를 방문하였다.

웽그리아는 1965년에 모리따니, 우간다, 칠레, 레바논 등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화란, 노르웨이 등과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1966년 11월 18일에는 수단, 잠비아, 이슬란드, 룩셈부르그와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경 제 주요자원은 보크사이트 (세계매장량의 6분의 1), 석탄, 원유, 망간, 철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국토의 93%가 경지, 목장, 초원, 과수원이다.

해방전 웽그리아는 락후한 농업—공업국가였다. 공업은 외국자본에 많이 예속되였고 공업구조에서도 경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해방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공업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제1차 5개년계획 (1950—1954)의 마지막해까지의 기간에 제철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부문이 새로 창설되여 공업수준은 전쟁전수준의 3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결과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그후 2차 5개년계획 (1961—1965)을 수행하고 1966년부터 제3차 5개년계획 (1966—1970)을 수행하고 있다.

1966년에 공업생산은 전년도보다 7% 늘었다.

1966년에 전력은 118억키로와트시, 석탄은 3천 34만톤, 보크사이트는 142만 9천톤, 강철은 264만

8천톤 생산되였다.

1966년도 농업총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약 6% 장성하였다.

화페단위는 포린트이다. 1966년도 예산총액은 약 1천억포린트였다. 수입총액의 80%는 국가기업소, 6.7%는 협동조합에서 들어온다.

1966년에 전년에 비하여 수입은 3%, 수출은 6%장성하였다.

사회, 문화 1966년에는 수많은 주택이 새로 건설되였다.

1966년말현재 인구 1만명에 의사는 약 20명, 침대수는 78대였다.

1966—1967학년도에 중등학교 학생수는 37만 5천여명, 대학생수는 8만 9천여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 (웽그리아통신사).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 (사회로동당 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 넴 제뜨(애국인민전선 기관지), 에쓰띠 히르라쁘(부다뻬슈뜨석간 신문).

잡지 따르샤달미 쎼므레(사회로동당 정치리론잡지), 빠르뜨엘레뜨 (당생활잡지).

로므니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Rumania Socialist Republic

구라파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쏘련, 웽그리아,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와 접경하고있으며 동쪽은 흑해에 면하고있다.

동구라파의 대륙성기후와 중구라파의 해양성기후가 심히 결합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북부는 발찍해기후, 남서부는 지중해기후의 영향을 받고있다. 기온은 45°C로부터 령하 35°C까지의 심한 변화를 일으키고있으며 년평균기온은 10°C (부꾸레슈띠는 11°C), 년평균강우량은 635mm이다.

【면적】 23만 7,500km²

【인구】 1,920만명 (1967년 1월 1일)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인이며 웽그리아인, 독일인 등 소수민족도 있다.

【수도】 부꾸레슈띠 (주민 약 150만명)

정치 로므니아는 기원전1세기경에 다치아국가로 형성되였으나 2세기초에 로마제국에 강점되였다. 그후 10—14세기사이에 여러개의 봉건령주국가들이 형성되였으나 4세기 동안이나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었다.

1859년 1월 24일 몰도바와 발라히야가 통합하여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1862년부터 로므니아로 불렀다.

1878년 로씨야—토이기전쟁에서 토이기가 패배한후 로므니아는 토이기기반에서 벗어나 1881년에 왕국을 선포하였다.

1916년 8월에 로므니아반동들은 안딴뜨편에 가담하여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1921년 5월 8일 로므니아공산당이 창건되였으나 1924년에 비법화되였다.

1938년에 군주독재가, 1940년에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로므니아는 1940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1941년 6월에는 히틀러독일의 편에 서서 반쏘전쟁에 참가하였다.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하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나라를 파쑈기반으로부터 해방하였다.

1945년 3월 6일 첫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7년 12월 30일 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5년 8월 2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 대민족회의는 1965년 3월 7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은 465명이다.

의장 슈쩨판 보이떼고 (1965년 3월 18일 재선)

【국가쏘베트】 대민족회의 휴회기간에 국가최고주권을 행사한다. 현 국가쏘베트는 19명으로 구성되여있으며 1965년 8월 21일에 선거되였다.

위원장 끼부 쓰또이까

【내각】 현 내각은 1965년 8월 21일 대민족회의에서 구성되였다.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외무상 꼬르넬리우 머네쓰꾸

무력상 이온 이오니쩌 (상장)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된 공산당은 1948년 2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다.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개칭하였으며 로동당 제4차대회를 공산당 제9차대회로 규정하고 새규약을 채택하였다. 당원수 145만명 (1965년 7월).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직업총동맹 1945년 1월 30일 성립, 맹원 410만명. **공산청년동맹** 1949년 3월 성립, 1965년 8월 4일 근로청년동맹을 공산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맹원 225만명이상. **전국녀성리사회** 1948년 2월 성립.

【주요국내사건】 1965년 7월 19—24일에 공산당 제9차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로동당을 공산당으로 개칭하고 이 대회 (로동당 제4차대회)를 공산당 제9차대회 (1921년 5월에 있은 당대회로부터)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후보당원년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121명,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75명을 선거하고 새규약을 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 11월전원회의는 농촌의 지도사업과 계획화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12월전원회의는 과학연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1966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을 심의하였다.

제5기 제1차대민족회의 (3월 18—19일)에서는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를 국가쏘베트위원장

으로 선거하였으며 마우레르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성원을 승인하였다. 3월 19일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의 서거와 관련하여 3월 24일 대민족회의에서는 끼부쓰또이까를 국가쏘베트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제5기 제3차대민족회의 (8월 20—21일)는 1952년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헌법에 의하여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19명으로 되는 국가쏘베트가 선거되였으며 내각이 구성되였다.

6월 27—28일 확대전원회의는 1966—1970년 인민경제계획초안을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조직문제를 취급하였다.

10월 전원회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초안을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대외활동정형을 청취하였다.

1967년 3월 7—9일에 있은 전국농업생산협동조합련맹 창립대회에서는 농업생산협동조합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사회경제적조직인 전국농업생산협동조합련맹을 창설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에는 로므니아문화대표단 (2월), 축구단(4월),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1965년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이 3월 22—26일과 7월 17—26일 간에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이밖에 일련의 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11월), 사로청대표단 (3월), 직맹대표단(5월), 녀맹대표단 (6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 량국간에는 1966년 통상협정 (1월 8일), 1966—1967년문화교류계획서 (3월 2일), 방송협정 (3월 23일), 1967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 (11월 10일)이 체결되였으며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 의정서 (7월 5일),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와 로므니아국가국제출하및 운수회사부꾸레슈띠 《롬뜨란스》간에 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서 (11월 20일)가 각각 조인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 (5월, 9월), 웽그리아(4월),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주독일 (5월), 벌가리아 (9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정부대표단 (8월), 당일군대표단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3월)이 쏘련을,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웽그리아 (1월)를, 니꼴라에 챠우쉐쓰꾸와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벌가리아 (2월)를, 당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몽골(6월), 알바니아 (11월), 웽그리아(12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1965년 7월에 쏘련, 중국, 웰남, 알바니아, 꾸바, 웽그리아, 뽈스까, 민주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몽골 당대표단들이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1965년에 벌가리아정부대표단(8월), 중국정부대표단(9월), 웽그리아당일군대표단(5월) 베이징시당대표단(8월),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당일군대표단 (10월)들이 로므니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 7월에 부꾸레슈띠에서 열린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벌가리아, 몽골의 당및정부대표단들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브레쥬네브 (5월), 중국당및정부대표단 (6월), 까다르 야노쉬와 깔라이 지율라 (3월) 등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로므니아정부는 1965년 2월 12일과 8월 13일에 미제의 웰남침략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고 로므니아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966년 5월에 에밀 보드나라슈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례청의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6월 30일 대민족회의에서 마우레르수상이 정부의 이름으로 미제의 하노이 및 하이퐁폭격과 관련하여 성명을, 12월 17일에 로므니아정부는 하노이에 대한 미제의 폭격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10월과 11월에 마우레르수상이 이란과 오지리를 방문하였다.

1965년에 당대표단이 인도네시아 (5월), 프랑스(9월), 이딸리아(10월), 단마르크 (11월)를 방문하였다.

한편 소말리아수상 (7월), 인도대통령 (10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 마우레르수상이 스위스(5월), 이란 (7월), 토이기 (7월), 단마르크 (8월), 희랍(9월)을 방문하였으며 정부대표단이 영국(2월), 토이기(9월)를, 당및정부대표단이 알제리 (7월과 10월), 꽁고(브) (8월), 기네 (11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당대표단이 이딸리아 (1월), 핀란드 (1월), 일본(11월)을 방문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수상(5월), 이란왕(5월), 버마혁명리사회 의장 (6월), 이란수상(10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일본공산당대표단 (6월)을 비롯하여 10여개 자본주의국가 공산당대표들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5년에 로므니아는 레바논, 쟈마이카, 칠레, 요르단, 수리아, 모리따니, 르완다, 소말리아, 세네갈과 새로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란, 단마르크와는 공사

급으로부터 대사급으로 외교관계를 승격시켰다. 1966년에는 콩고(브), 나이제리아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쎄일론, 화란, 에티오피아와는 공사급으로부터 대사급으로 외교관계를 승격시켰다.

경제 주요자원은 원유(매장량과 채취량에서 구라파 제2위), 천연가스(세계에서 제4위, 그 순결도는 99.8%),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등이다.

1966년에 인민경제 각 부문의 종업원수는 약 450만명, 그중 로동자수는 325만여명이였다.

1966년에 공업생산계획은 102.1%로 수행되였다.

1966년에 농업생산계획은 107.2%로 초과수행되였다.

1966년에 로므니아는 100개나라들과 무역하였다. 1965년에 비하여 대외무역총액은 10.1% 장성하였다.

1966년 각급학교 학생수는 376만 9천명, 그중 대학생수는 13만 4천명이였다.

·1966—1967학년도부터 공업, 농업, 경제 및 사범 등 부문별 전문고급중학교가 새로 조직운영되었다.

새로운 병원들이 건설되였으며 병원침대수는 14만 6천500대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쁘레쓰(로므니아통신)

신문 쓰끈떼야(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라(정부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야 띠네레뚤루이(공청기관지), 인포르마찌아 부꾸레슈띠 울루이(수도석간신문).

잡지 룹따 데 클라쎄(공산당정치리론잡지)

벌가리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Bulgaria Peoples Republic

벌가리아는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로므니아, 토이기, 희랍, 유고슬라비아 등과 접경하고 있다.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1만 1,030km²

【인구】 822만 7,000명(1965년 12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이 남슬라브계의 벌가리아인이다.

공용어는 벌가리아어이다.

【수도】 쏘피아

정치 벌가리아는 약 5세기동안 토이기봉건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다. 1878년 토이기—로씨야전쟁에서 토이기가 패배한 후 1878년 2월 19일 벌가리아는 독립되였다. 그러나 1878년 6월 영국, 독일, 오흥제국의 간섭으로 3개지역으로 분렬되였다가 1908년 9월 22일 독립국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는 독일과 오흥제국의 편에 가담하였으며 제2차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4년 9월 9일 해방되였다. 1945년 11월 인민회의선거가 있었으며 1946년 9월 15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7년 12월 4일 헌법이 채택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인민회의는 1966년 2월 27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수는 416명이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사업을 대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1966년 3월 11일 제5기 제1차 인민회의에서 재선)

의장 싸와가놉쓰끼

【내각】 현 내각은 1966년 3월 1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또도르 쉽꼬브

외무상 이완 바쉐브

인민보위상 도브리 쥬로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이후 사회민주당으로 불리워오다가 1919년 5월 25일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및후보당원수 61만 179명(1966년 11월현재), 제1비서 또도르 쉽꼬브

인민농민동맹 1899년에 조직, 맹원 412만명. **조국전선** 1942년 7월17일 결성, 맹원 358만 2천654명 **직업동맹** 1904년 성립, **공산청년동맹** 1947년 12월 21일 성립, 맹원 110만명. **민주녀성동맹** 1944년 9월 9일 성립. **대외친선및문화련락위원회.**

【국내주요사건】 1965년 2월 22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66년 2월 27일에 제5기 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 있었다. 3월 11일 제5기 제1차인민회의에서는 인민회의뷰로,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을 선거하였고 3월 12일에는 새정부를 구성하였다.

3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제9차당대회 의정을 토의하였다. 4월 15일 전원회의는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벌가리아당대표단의 활동정형을 청취하였다.

6월 28—29일 량일간에 있은 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내각직속 중앙위원회들을 성으로 개편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14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7월 13일 당및내각공동회의는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벌가리아대표단의 활동정형을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제5차 5개년계획(1966—1970)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5개년계획 지령초안을 발표(7월 30일)하였다.

11월 3일 전원회의는 제9차당대회에 제출할 총화보고와 제5차 5개년계획을 토의하였다.

11월 14일에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가 열렸다.

12월 13일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와 12월 16일 제5기 제3차 인민회의에서는 1967년 인민경제발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에 있은 벌가리아공

산당 제9차대회에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1월 19일 또도르 집프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대표단이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였다. 1965년에 벌가리아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대표단 (5월), 당대표단 (5월, 2월)이 쏘련을, 정부대표단 (2월)이 민주독일을, 당및정부대표단 (3월, 5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벌가리아정부대표단 (1월), 당일군대표단 (2월), 또도르 집프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3월)과 또도르 집프브 (10월)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또한 정부대표단 (2월)이 꾸바를, 인민회의대표단 (4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정부대표단 (5월)이 뽈스까를, 당대표단 (6월)이 몽골을, 인민회의대표단 (6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또도르 집프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대표단이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한편 1965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민족회의대표단 (3월), 라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대표단 (3월), 쏘련당대표단 (5월), 쏘련최고쏘베트대표단 (7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 (9월)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려청의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1월과 9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2월), 몽골당일군대표단 (5월), 쏘련당일군대표단 (6월) 체스꼬슬로벤스꼬당일군대표단(6월),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 (9월)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벌가리아는 미제의 북부웰남침략책동과 관련하여 1965년 2월 9일 정부성명을, 5월 6일에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성명을 발표하였다. 동년 9월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미제의 하노이 및 하이퐁폭격과 관련하여 정부는 1966년 7월에, 인민회의는 12월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또도르 집프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1월에 아련, 에티오피아, 레바논을 방문하였다. 벌가리아정부대표단이 에티오피아 (3월), 이딸리아(4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또도르 집프브가 프랑스 (10월)를 방문하였으며 인민회의대표단이 핀란드(4월), 이딸리아(5월), 오지리(6월)를 방문하였다.

한편 1965년에 소말리아대통령 오스만 (8월)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수리아수상 유세프 자인 (4월), 프랑스외상 뮤르빌 (4월), 싱가포르수상 리관유(5월), 이란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9월)가 각각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벌가리아는 1965년에 파키스탄 (6월), 모리따니(12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칠레 (2월), 화란(6월)과 각각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 제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매장량 43억 4천만톤), 철광석(매장량 3억톤), 연 및 아연(매장량1억1천200만톤), 동, 망간, 은, 금, 원유, 자연가스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벌가리아는 해방후 인민정권하에서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65년에 국민소득에서 공업은 45%, 건설은 7%, 농림업은 33%, 상업은 8%를 차지하였다.

1966년에 소비폰드는 전년에 비하여 약 8%, 자본투하는 24% 장성하였다.

1966년도 공업제품생산계획은 104.6%로 수행되였다.

1966년에 선철은 72만톤, 강철은 69만 9천톤, 각종 탄은 2천 640만톤 생산되였다.

1966년에 알곡생산량은 692만톤이였다.

1966년에 수출계획은 108.3%, 수입계획은 101.4%로 수행되였다.

사회, 문화 1965—1966학년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160만 6천 784명이였다. 1966년에 병원 침대수는 2천500대가 더 늘었다.

【출판보도】 **통신** 벌가리아통신

신문 라보뜨니체쓰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떼체쓰뜨벤 프론뜨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조국전선기관지), 나로드나 물라데쥬 (공청기관지), 제메델츠꼬즈나메 (농민동맹기관지), 나로드나 아르미아 (인민군잡지).

잡지 노보 브레메 (공산당리론잡지).

알바니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Albania Peoples Republic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에서 아드리해에 면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접경하고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로서 온화하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비가 많이 오며 여름은 메마르고 무덥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5～26°C이고 1월의 평균기온은 6～8°C이다. 구라파에서 강우량이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하며 여름철의 강우량은 년중강우량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달은 11월이다.

【면적】 2만 8,738km²

【인구】 193만 8,500명 (1966년말).

【수도】 티라나(주민 15만 6,950명, 1964년).

정 치 알바니아는 15세기부터 5세기동안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27년에 이

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고 총독제가 실시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알바니아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1943년 9월에 이딸리아강점자들은 구축되였으나 뒤이어 독일파시스트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44년 11월 29일에 알바니아는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에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6년 4월 14일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사업을 대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1966년 9월 제6기 제1차인민회의에서 재선).

의장 레프떼르 고가(1966년말).

【내각】 현 내각은 1966년 9월 제6기 제1차인민회의에서 구성되였다.

수상 메흐메트 쉐후

부수상겸민족보위상 베키르 발루쿠

외무상 네스띠 나쎄

【정당, 사회단체】 알바니아로동당 1941년 11월 8일에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 제1차당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당원수 6만 6천 327명 (1966년 11월 현재)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직업동맹**(1945년 2월 11일 창건). **로동청년동맹**(1941년 11월 23일창립, 맹원수 13만명). **녀성동맹** (1943년 9월 창립, 맹원수 24만명).

【주요국내사건】 1965년 6월 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는 국내정세와 대외정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2월 27일 제5기 제8차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제의에 따라 림업수리성과 대외무역성을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로동법과 사회보험법을 일부 수정하였다.

1966년 당중앙위원회 17차전원회의 (7월 12—13일)는 알바니아로동당 제15차대회를 11월 1일에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차 5개년계획 (1966—1970년)에 관한 로동당 제5차대회지시초안을 채택하였다.

알바니아로동당 제5차대회(1966년 11월 1—8일)에서는 중앙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 중앙검사위원회 보고, 1966—1970년 제4차5개년계획에 관한 지시문에 관한 보고, 규약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인민회의 제5기 제9차회의 (1966년 3월 16—17일)에서는 1966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인민회의선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내각구성을 일부 변경하였다.

1966년 7월 10일에 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 있었고 9월 9—14일에 제6기 제1차인민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정부와 인민회의 상설위원회들을 구성하였고 로동법규와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66년 12월 22일에 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제4차5개년계획 (1966—1970년)과 1967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초안을 심의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에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6차회의 의정서(11월), 령사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약(12월)이 체결되였다.

1965년 3월 17일 알바니아에서 우리 나라 교육문화발전에 관한 전람회가 열렸다.

1966년 11월 1—8일에 있은 알바니아로동당 제5차대회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 4월 27일 티라나에서 1967년 통상의정서와 1966—1967년 문화교류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알바니아정부경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이 알바니아에 차관을 제공할데 관한 협정, 1966—1970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중국과 알바니아정부간의 경제협조에 관한 두개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6년에는 메흐메트 쉐후를 단장으로 하는 알바니아당및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고(4월—5월) 주은래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당및정부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 (6월)하였다.

1966년 10월에 중국이 알바니아에 차관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알바니아는 미제의 웰남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을 지지하여 1965년 2월 9일, 3월 5일, 8월 10일에 각각 정부성명을, 5월 3일에는 인민회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알바니아인민군협주단 (1965년 11월)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1966년 10월)하였다. 1965년 6월에 알바니아당대표단이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알바니아정부는 1965년 7월에 파키스탄, 8월에 인도네시아, 9월에 모리따니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6년 1월에는 토이기와, 3월에는 오지리와 공사급관계를 대사급외교관계로 각각 승격시켰으며 5월에는 탄자니아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사회 석유, 피취, 크롬광, 동, 석탄, 천연가스, 철—니켈 등 지하자원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올리브, 포도, 귤, 담배 등이다.

1966년도 공업총생산계획은 104%로 수행되였다.

전해에 비하여 1966년에 알곡파종면적은 7% 확장되였다.

1966년의 수출계획은 103%로 수행되였는데 이것은 1965년에 비하여 5% 장성한것이다.

알바니아에서는 8년제의무교육

을 실시하고있다. 1965—1966학년도에 전학년도보다 2.8%나 더많은 학생이 공부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아 (알바니아통신사).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 (로동당기관지), 바슈끼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뿌나(직맹기관지), 제리 이 리니씨(로동청년동맹기관지), 루프떠따르(인민군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티씨 (로동당리론잡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구라파의 중심부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뽈스까와 체스꼬슬로벤스꼬, 서쪽으로는 화란, 프랑스등과 접경하고있다.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평야지대이고 남부와 서부지역은 평균해발 700메터나 되는 고산지대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기후이나 바다를 끼고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년평균기온은 약 7°C, 최고기온은 33.4°C, 최저기온은 령하 21.9°C이며 년평균 강우량은 600~700mm이다.

【면적】 10만 8,174km²(1956년)

【인구】 1,707만 9,691명(1966년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주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대부분이 독일인이다. 다만 코트부스와 드레즈덴주에 약 10만명의 조르비아족이 살고있다.

【수도】 베를린 (면적은 403km², 인구는 107만 7,000명, 서부베를린제외)

정치 888년 프랑크제국이 완전히 분렬된후 슈와벤, 바이에른, 프랑킨, 작센 종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왕국으로부터 독일제국이 분리되였다. 독일은 오래동안 소국들로 분렬되여있었으며 1871년에 이르러 나라의 정치적통일을 이룩하였다. 1890년 이후 공업의 급속한 장성과 함께 제국주의에로 이행한 독일은 1914년에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1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으나 패망하고 1919년 베르사이유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 1918년 11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군주제도는 전복되고 부르죠아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18년 12월 31일 독일공산당이 창건되였다. 1933년 히틀러를 두목으로하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으며 1936—1937년에 일제, 파쑈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1939년 쏘련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였으나 쏘련군대의 결정적타격에 의해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독일은 패망하였다.

전후 독일은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대표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의 포츠담협정은 독일에서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협정을 파괴하고 독일을 분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1949년 9월에 서독에 단독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의 길로 나갔다.

독일인민은 서부렬강에 의한 독일분렬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49년 5월 30일 동부독일에서 진행된 제3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였고 10월 7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6—1949년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부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착수하였다. 현재 민주독일은 1970년까지의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있다. 민주독일은 1955년부터 와르샤와조약에 참가하였으며 쏘련과 《친선, 호상원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1964년 6월)하였다.

【인민의원】 최고국가주권기관으로서 434명의 대의원들과 66명의 협의권을 가진 베를린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제4기인민의원은 1967년 7월 13—14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요한네스 디크만

【국가쏘베트】 인민의원회의 사이에 법령과 결정실행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는 상설기관으로서 그의 임기는 4년이나. 현재의 국가쏘베트는 1967년 7월 13—14일에 있은 회의에서 선출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 수상 윌리 슈토프

민족보위상 칼 하인쯔 호프만

외무상 오토 윈쩨르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나. 당원수 176만 9천 912명(1966년)

제1비서 발테르 울브리히트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민족민주당, 자유민주당, 자유독일직업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주요국내사건】1965년 2월 11—12일에 있은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의는 《통일적인 교육체계에 대한 법령초안》을 토의하였다. 제9차전원회의(4월 26—28일)는 독일 《해방20주년선언초안》을, 제11차전원회의(12월 15—18일)는 《1970년까지의 전망계획》과 1966년도인민경제계획을 토의하였다. 제11차전원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내각은 인민경제쏘베트를 해산하고 12월 22일 새로운 성 기관들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4월 4일 민주독일정부는 민주독일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각종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항의각서를 미, 영, 프랑스정

부에 보냈으며 4월 8일 국가쏘베트회의에서는 도발적인 서부베를린에서의 서독하원의 회의 (4월 7일)를 규탄하였다. 1966년 4월 27—28일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12차전원회의에서 쏘련공산당 23차대회에 참가했던 대표단의 사업을 총화하고 민주독일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및 독일사회통일당과 서독사회민주당간의 의견교환문제를, 9월 15—17일 13차전원회의에서는 구라파안전 및 두독일국가간의 긴장상태완화문제, 1966—1970년도 당결산선거와 관련한 문제, 17차당대회 소집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15—17일 14차전원회의에서는 서독에서 키징게르도당이 《정권》을 잡은것과 관련한 문제, 1970년까지의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에 관한 법령초안을 토의하였다. 1966년 1월 21일 인민의원은 19차회의에서 1966년도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법령과 1966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인민의원 21차회의(9월)는 1961년 4월 12일 채택된 로동법을 보충하였으며 22차회의(10월 23일)는 구라파안전문제를 토의하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공민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인민의원 23차회의(11월 23일)는 《로동법변경, 보충에 관한 두번째 법령》을 채택하였다.

12월에 있은 인민의원회의는 1967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1966년 10월 21일 민주독일외무성은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서독주둔 영제국주의군대와 함께 엘바강에서 감행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도당에게 항의각서를 보냈다.

【대외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5년에 조—독과학기술위원회 제7차회의의정서(2월 20일), 조—독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연기할데 대한 의정서(2월 20일), 1965년도 조—독문화교류계획서(4월 13일), 조—독보건협조협정(7월 27일)이 각각 조인되였다. 12월 26일 민주독일 외무성대변인은 12월 18일 서울에서 《한일조약비준서》를 교환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5월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통상의정서(2월 5일), 두나라 과학원간의 과학교류사업계획서(2월 25일),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4월 16일)가 조인되였다.

1966년에 우리 나라 당대표단(12월)과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으며 독일정부통상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9월)과 로므니아(7월)를, 정부통상대표단이 중국 (1월)을, 정부대표단이 민주웰남(11월)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독일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3—4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6월),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9월),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11월)에 각각 참가하였다. 7월에는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부꾸레슈띠에서 있은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한편 1965년에 꼬씨긴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정부대표단 (3월, 5월), 쏘련군사대표단(4월),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 (11월), 뽈스까당대표단 (5월), 꾸바부수상 라울 까스뜨로(10월), 로므니아 당대표단(11월), 민주웰남 당및정부대표단(5월), 민주웰남정부대표단(6월, 12월)이 각각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웽그리아당및정부대표단(6월), 쏘련당대표단(11월), 쏘련정부대표단(9월), 웰남정부대표단(10월)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여 1965년 2월 13일과 3월 3일, 1966년 12월 15일에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6월에는 민주독일외무성이, 9월 1일에는 인민의원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10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웰남민주공화국간에 1967년도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 1967—1970년기간의 상품공급과 지불을 위한 경제원조및장기차관제공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2월), 정부통상대표단(1월)이 아랍련합공화국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독일 당및정부대표단이 꽁고(브) (8월)를, 정부대표단이 알제리(2월), 아련(5월), 기네(8월), 수리아, 이라크(11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5년에 민주독일과 수리아간에 통상및지불협정이 체결되였으며 수리아총령사관이 베를린에 개설되였다.

1966년에 알제리와 기술자양성협정 및 알제리공민교육에 관한 조약(6월), 아련과 농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9월) 이 체결되였으며 경제및기술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의정서(10월) 가 조인되였다. 수리아와 문화협정(9월)이 체결되였고 기네와 1967년도 통상협정리행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기네와 1967년도 상품교류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10월)가 조인되였다.

알제리와는 경제,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정부급위원회를 조직(5월)하였으며 12월에는 무역, 문화 및 항공업무에 관한 3개의 새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66년에 다마스커스, 알제, 비마코, 코나크리간의 항공로가 개통되였다.

미국공산당 총비서 (9월), 오

지리공산당 위원장 (12월), 영국공산당 총비서(12월), 핀란드국회대표단(11월)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1월 4일에 베를린에 예멘아랍공화국 총령사관이 개설되였고 스웨리예에 무역촉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 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주요자원으로서는 갈탄, 카리염, 우라늄 및 유리와 도자기원료들이 풍부하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유지작물이다.

1965년에 전력은 536억키로왓트시, 갈탄은 2억 5천 100만톤, 선철은 233만 8천톤, 강철은 389만톤이 생산되였다.

1966년에 알곡생산은 그 전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감자, 사탕무우생산은 장성하였다.

1966년에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9% 장성한 265억마르크였다.

사회, 문화 1966년에 4만 9천명의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그중 1만 3천명은 통신학생들이다. 또한 6만 7천명이 새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1966년에 의사수는 2만 1천명(주민 800명당 의사 1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찌알리쓰티쎈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나찌오날 짜이퉁 (민족민주당기관지), 노이에 짜이퉁 (기독교민주동맹기관지), 트리뷰네 (자유독일직업총동맹기관지), 베를린네르 짜이퉁(베를린신문).

잡지 아인하이트 (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 웨크 (사회통일당 당생활잡지).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German Federal Republic

【면적】 24만 8,000km²

【인구】 5천 609만 7,000명 (1966년말)

【행정중심지】 본 (주민 15만명 1966년말)

정 치 **【대통령】** 하인리히 류브케 (1964년 7월 1일 재선, 임기 5년)

【국회】 하원과 상원의 량원제이다. 하원은 련방의회로서 임기는 4년, 1965년 9월 19일 선거에서 496명으로 구성, 상원인 련방참의원은 각 주정부대표들로서 구성되는 단순한 협의기관, 의장의 임기는 1년, 의원수는 41명 (결의권없는 서부베를린대표 4명 포함).

【내각】 1963년부터 수상 자리에 있은 에르하르트가 심각한 정부위기로 말미암아 1966년 11월 30일 사임하게 되자 련방의회는 12월 1일 새 수상을 선거하고 이어 기독교민주동맹, 기독교사회동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수상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게르(기독교민주동맹), 부수상 겸 외상 빌리 브란트 (사회민주당), 국방상 게르하르트 슈뢰데르 (기독교민주동맹).

【정당, 사회단체】 **독일공산당** 1918년 12월 31일 창건, 1956년 8월 17일 서부독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비법화,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막스 라이만. **기독교민주동맹** 집권당, 1945년 7월 23일에 창건, 독점자본가, 대토지 소유자, 관료 및 군국주의세력을 대표하는 극반동정당, 위원장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게르. **기독교사회동맹** 1945년에 성립, 바바리아주에서만 당조직을 가지고있다. 기독교민주동맹의 《자매당》으로서 국회내외에서 공동행동을 취함. **사회민주당** 1946년 5월에 성립, 서독 최대의 야당으로서 당지도부는 반동화한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단. **자유민주당** 1948년에 성립된 부르조아정당. **전독일당** 1961년에 성립된 우익반동정당. **독일평화동맹** 1960년 12월에 성립된 부르조아평화주의단체. **로동총동맹** 반동어용로조련합.

【주요국내사건】 1965년과 1966년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의 군국화와 핵무장화를 강화하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1965년에 서독복수주의자들은 징병년령을 20세로부터 18세로 범위를 넓히였으며 종전의 지원제원칙을 징집제로 고쳤다. 1966년에는 년초부터 5만명의 청년들을 련방군에 새로 징집하였으며 4월에는 《후방방위》라는 간판하에 예비역징모선풍을 일으킴으로써 더욱더 군국화의 길로 나갔다.

서독복수주의자들은 전시 체제에로의 이행과 군국화의 촉진을 노린 《비상법》 조작책동을 추진하는 한편 1965년 6월에는 20만의 《민간방위군창설법》, 《경제보장법》 등 일련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파쑈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또한 군국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나치스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나섰다.

1965년 3월 25일 하원은 서독에서 나치스전범자들에 대한 법적추궁을 1969년말로서 끝마친다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또한 1966년 11월 서독의 헤쎈주와 바바리아주에서 각각 진행된 주의회선거에서 신나치스정당인 《국가민주당》이 공공연히 정치무대에 진출하였다. 《국가민주당》 이외에도 서독에서는 《자유독일인행동협회》, 《독일협회》, 《자유독

일당》, 《흰장미》 등과 같은 파쑈정당과 단체들이 무려 120개나 활동하고있으며 7천명의 히틀러전범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다.

서독에서의 군사화의 강화는 히틀러시기의 나치스당원이였으며 《립벤트로프의 련락원》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키징게르가 기독교민주동맹과 기독교사회동맹에 의하여 수상으로 올라앉음으로써 더욱 촉진되게 되였다.

반동지배층의 반동정책이 더욱 로골화됨에따라 군사파쑈제도의 전면적인 확립과 나치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65년에는 1월 29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일어난 《비상법》반대군중시위를 비롯하여 4월과 5월 및 6월에는 서부독일의 거의 모든 주들에서 《비상법을 집어치우라!》, 《1933년을 기억하라!》 등의 구호밑에 군중시위와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10월에는 200만을 망라한 서부독일금속로조대회에서 《비상법》과 련방군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66년에는 《비상법》과 나치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더 조직성을 띠고 앙양되였다. 6월 17일 바덴—뷰르템부르그주에서는 1만 7천명의 로조원들이 신나치스정당인 《국가민주당》의 당대회 개최계획을 파탄시켰으며 5월 13일 서부독일로조련맹대회는 련방군의 핵무장을 규탄하고 《비상법》을 포기할것을 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군축운동》단체, 독일대학생동맹, 군대복무반대자동맹, 《자연의 벗》 등 서부독일의 여러 사회디 ᅦ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의 《비상법》이 서부독일에
주의적권리를 직접 위협
ㄴ 규탄하였다. 《비상
하여 서독 각계인사들
ᅥ부가 본에 설치되
베르그시 등 지방
도시들에도 《비상반대투쟁위원회》들이 창설되였다.

【대외관계】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추종하면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삼켜버리며 동구라파로 팽창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에르하르트도당은 1937년 12월 31일의 국경이 독일의 국경으로 되여야한다고 고아대면서 령토적야망을 다시금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또한 나토의 군사기구를 통하여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계속 날뛰였다.

에르하르트도당은 미제의 괴수 존슨에게서 나토핵기구내에서의 본의 역할을 높여줄데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대신 친미추종로선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에르하르트집권시기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는 에르하르트도당의 일관한 친미로선강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였다.

1965년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드골도당과 《구라파통합》, 《구라파방위문제》, 《공동시장》의 농산물 가격문제 등에서의 의견상이를 완화하여보려 하였으나 어느 하나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1966년에도 2월과 7월에 《구라파문제》, 《나토문제》, 서부독일에 있는 프랑스군대의 지위문제 등을 토의하였으나 모든 문제들에서 쌍방간에 심화되는 리해관계의 대립을 조금도 완화하지 못하였다. 에르하르트도당은 나토에 참가한 서구라파나라들 속에서 지도적인 군사외교적지위를 확보하려는 기도밑에 《구라파정치통합》을 또다시 요구하였으나 드골도당은 서독의 이러한 야심을 배척하고 서독복수주의자들이 나토의 핵관리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였다.

1966년 12월 새로 수상자리에 들어앉은 키징게르는 날로 악화되는 서독—프랑스관계를 완화하고 1963년에 이루어졌던 《본—빠리축》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과 영제국주의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였다. 에르하르트도당은 1965년 3월과 1966년 5월에 윌슨도당과 나토위기문제, 서독주둔 영국군의 유지비분담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흥정했으나 본질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한편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들에서 서독의 정치, 경제적지반을 더욱 강화하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다. 류브케도당이 2—3월에 3주일여에 걸쳐 말가슈, 까메룬, 또고 등 아프리카나라들과 11월말에 메히코에 기여든 것은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965년 5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1965년까지 3억마르크의 무기를 줄데 대한 비밀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에 무기원조를 계속 주었다.

키징게르도당의 이러한 반아랍정책은 아랍세계의 격분을 불러일으켰으며 1965년 5월 13일 아랍련합공화국을 비롯한 9개 아랍국가들이 서독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주요지하자원은 자르와 루르지방에 매장되여 있는 철과 석탄이다. 연, 아연, 원유는 적다.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집중화되였고 독점체들의 지배력이 일층 강화되였다. 1966년에 자본주의세계 시장에서 독점체들간의 치렬한 경쟁으로 인한 판매난으로 말미암아 공업생산은 줄어들고 수많은 로동자들이 해고당하였다. 인플레와 물가등귀가 현저하였으며 국제수지의 적자가 늘고 재정난이 심하였다. 서부독일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더한층 강화되였다. 1966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서독경제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직접투자액은 1957년의 4배이상에 해당하

는 25억딸라에 달하였으며 서부독일에서 지반을 닦은 미제독점체회사수는 1천 200개나 되였다.

1966년에 공업생산지수는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였다. 야금공업과 건설공업 및 채취공업과 같은 중요한 기간공업의 장성률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특히 자동차공업, 선박공업, 방직공업 등의 부문들에서는 위기가 조성되였다. 1966년에 선철은 그전 해에 비하여 6%, 강철은 4.1% 적게 생산되였으며 년말에 강철공업은 생산능력의 60%밖에 조업하지 못하였다. 방직 및 피복공장들의 생산도 거의 4%나 줄었다.

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아 4만 5천명의 탄부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야금공업부문에서도 2만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약 69%이고 농업인구는 전인구의 20%이다. 주요생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이다. 경지면적의 근 30%가 농가호수의 0.7%에 해당하는 대토지소유자들의 수중에 있다. 농업은국내식량수요의 60~7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1965—1966농업년도의 농산물생산은 그전 농업년도에 비하여 9%나 떨어지고 농민들이 걸머진 부채는 211억마르크에 달하였으며 2만 7천여명의 농민들이 파산하였다.

군국주의자들이 촉진한 군국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가예산의 적자는 1966년에 47억마르크에 달하였고 년말현재 국가채무액은 810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자본의 해외류출이 급격히 증가된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는 증대되였는데 1966년 1.4분기에만 하여도 국제수지적자는 29억 1천 800만마르크에 달하였다.

사회, 문화 서독복수주의자들의 군국화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강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더라도 실업자수는 32만 7천 300명을 헤아렸다. 1966년에 물가는 전년에 비하여 평균 2.6% 올랐다. 특히 집세는 9.5%나 뛰여올랐으며 4명의 식솔을 가진 로동자가정의 최저생계비지수는 3.5%가 올라갔다. 1966년 첫 여섯달동안에 서독의 기업소들에서 일어난 사고건수는 126만 4천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196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만 2천건이나 더 많은것이다. 1966년에 불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965년보다 6.7%나 더 많은 1만 6천 813명에 달하였다. 범죄건수는 전년보다 7% 늘었다. 총범죄건수중에서 도적질이 58%를 차지하였으며 소년범죄가 24.6%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 (독일공산당 비합법기관지), 디 벨트 (정부계의 견해를 반영),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푸르 도이췰란트 (공상업계의 리익을 대변), 쥬드 도이췌 짜이퉁 (독점체신문)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 (독일사회민주당에 가까운 일간신문), 한델스블라트 (공업, 금융 및 상업계의 대변지).

잡지 비쎈 운트 타트 (독일공산당리론잡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발칸반도의 북서부에 있으며 아드리아해에 면해있다. 아드리아해 연안은 대체로 온화한 지중해성기후이며 내륙지대는 대륙성 또는 고산성기후이다.

【면적】 25만 5, 804km²

【인구】 1,975만명 (1966년 7월)

주민은 주로 세르비아, 크로아찌아, 슬로베니아, 마께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남슬라브민족들이다. 이외에 알바니아계 웽그리아계, 토이기계 사람도 살고있다.

언어는 세르비아어, 크로아찌아어가 대표적이고 슬로베니아어, 마께도니아어도 공용어로 쓰고있다.

【수도】 베오그라드 (주민 99만 2,000명, 1966년초)

정치 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5월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이해 11월 29일 련방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1948년 6월 20일 《유고슬라비아공산당사태에 관하여》라는 공산당 및 로동당보도국 결의에 지적된바와같이 찌또도당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갔으며 미제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찌또도당은 국내적으로는 《특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적극적인 공존》과 《쁠럭불가담》이라는 간판밑에 《사회주의진영과 세계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파괴공작을 감행하고있다.

1950년 9월 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외상이였던 까르젤리는 미제의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미제를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찌또수정주의자들은 1951년에 미제와 호상방위조약을, 1954년 8월 9일에는 아랍 및 토이기와 침략적나토의 부속물인 발칸조약을 맺었다.

찌또도당은 저들의 수정주의적로선을 1958년 4월 공산주의자동맹 제7차대회에서 강령으로 성문화하였으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선언 (1957년)과 성명(1960년)을 반대하였다. 찌또도당은 1963년 4월 7일 공산주의자동맹의 수정주의적강령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성문화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여 나라이름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이라고 고쳤다. 1964년 12월 7—13일에 진행된 공산주의자동맹 제8차대회는 수정주의로선을 재확인하였다. 찌또는 또한 대회에서 유엔기구를 《국가들간의 화해를 위한 바꿀수 없는 도구》라고 하면서 미제의 침략에 복무하는 유엔을 적극 미화하였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45년 11월 —)

【련방인민의회(쓰꿉쉬나)】 5개의 의원(련방, 경제, 교육문화, 보건, 사회복리 및 행정정치)으로 구성되여있다. 이외에 련방의원 대의원 70명으로 구성되는 민족의원이 있다. 각 의원의 대의원은 120명씩이며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의장 밀렌찌예 뽀뽀비치 (1967년 5월 17일)

【련방정부집행위원회 (정부)】 위원장 (수상)미까 쓰삘야크, 외무관계국무상 마르꼬 니께지치, 국방관계국무상 이반 고슈냐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본래의 《인민전선》을 1953년 2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직업동맹, 인민청년동맹, 녀성동맹.

【주요사건】 《적극적공존》과《쁠력불가담》이라는 간판밑에 찌또도당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적극 도와나섰다.

유고슬라비아수정주의도당은 1966년 1월 3—15일에 아바나에서 열린 3대륙인민단결대회의 결의들을 반대하는 선전깜빠니야를 감행하고 3대륙인민단결대회가 다른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정책을 찬동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편을 들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음으로양으로 지지하여 온 유고슬라비아수정주의도당들은 미제가 남부웰남에서 정치군사적패배를 거듭하면서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되자 그들의 기만적인 《평화협상》제안을 쁠력불가담국가들에 팔아먹을 임무를 자진하여 맡아나섰으며 유엔이 웰남문제에 간섭할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1966년 3월에 유고슬라비아련방집행위원회 위원장 쓰땀볼리치는 인도,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을 싸다니면서 이 나라들에서 웰남문제에 대한 이른바 《평화협상》 제안에 대한 지지를 긁어 모아보려고 하였다.

찌또는 1966년 6월 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두목 죤슨의 본을 딴 자기의 소위 《평화협상》제안을 웰남측이 거부한것을 악랄하게 비난하였다.

찌또도당은 또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는 자국내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66년 12월 20일 자그레브시의 중학교 및 대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1만 5천명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일을 기념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수천명의 시민들과 함께 미제령사관으로 밀려가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찌또도당은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시위군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령사관으로 밀려들어가려는 시위자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그들을 곤봉으로 때리면서 시위자들이 들고있던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는 구호와 프랑카드들을 빼앗아냈으며 종이로 만든 전쟁두목 죤슨의 허수아비를 불사르지 못하게하였다.

이어 12월 23일에는 베오그라드종합대학 학생들이 반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찌또도당은 비상경계망을 치고 소방호스로 물을 내쏘는 등 야수적탄압을 가하여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게 하였다.

찌또도당은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 비호하여나섰다.

1965년 5월 12일 베오그라드에서 라틴아메리카, 아세아, 아프리카 학생들이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 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을때 찌또도당은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탄압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시위에 참가하였던 칠레, 꼴롬비아, 팔레스티나의 류학생 4명을 15일간 감금형에 처하였다.

찌또도당은 또한 미국흑인운동에 대한 양키들의 야수적탄압도 비호하여나섰다.

1965년 8월 16일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보르바》는 억압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미국의 로스안젤스흑인들의 투쟁을 《만행》과 《비법행위》로 묘사하고 정당한 자기권리를 옹호해나선 흑인들을 《천민》이며 《파괴적악당》이라고 중상하였다.

1966년 7월 1일 소집되였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4차전원회의에서 찌또는 자신의 통치를 위협하는 제2인자이며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부대통령인 란꼬비치와 그의 심복이며 련방집행위원회 내무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쓰떼바노비치를 숙청하였다.

란꼬비치와 그의 심복자들은 이를 전후하여 당과 행정의 모든 직위에서 몰려났으며 공산주의자동맹내에서 쫓겨났다. 전원회의 이후 찌또도당은 란꼬비치의 졸개들과 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숙청깜빠니야를 벌렸는데 숙청의 주요예봉은 란꼬비치가 오래동안 틀어쥐고있던 내무관계부문과 그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국가기관들에 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숙청은 찌또집단내부에서의 정권쟁탈을 위한 모순과 알륵이 심화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찌또도당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

난때로부터 1963년 1월까지에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54억 6천만딸라의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중 미제의 《원조》는 약 35억딸라나 된다.

경제 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연, 안티몬, 수은, 동, 아연, 크롬, 몰리브덴, 찌딴, 베릴리움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있으며 1965년에는 우란광도 발견되였다.

찌또도당은 전인민적소유는 《간접적공유제》라느니 《사회주의와 국가적소유는 두개의 량립할수 없는 개념》이라느니 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을 《근로단체》 (기업소)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거부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철페하고 소위 《자본분권화》를 실시하고있다. 《로동자자치제》의 미명하에 기업소들이 생산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결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을 결정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리윤추구가 경제활동의 최고법칙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경제에서의 자유경쟁과 자본주의적 및 투기적 요소들의 장성, 물가등귀와 실업의 장성 등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지역적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더우기 헌법에는 착취에 기초한 개인기업이 허용되고있다.

(《자기수단을 가지고 하는 영업부문에서…타인의 보충적로동의 리용이 허용될수 있다》—헌법 제2조)

유고슬라비아에는 약 20만의 기업주들과 그들의 고용인원들이 야금, 화학, 건축, 목재업, 려관업, 지어 수출입무역 등의 작은 기업들, 상점 혹은 작은 공장들을 경영하고있다. 이 외에도 식당, 호텔, 미장원, 양복점, 가구점, 휘발유판매점으로부터 텔레비존수리소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인기업들이 장려되고있다.

1966년 4월 현재로 베오그라드에만도 5천여개의 개인작업장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그것이 근 15만개에 달한다.

기업소들간의 자유경쟁의 결과 기업소의 파산이나 로동조합의 파산도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1961년에 618개, 1962년의 첫 5개월동안에는 295개소의 기업소가 파산당하였다.

자본주의 추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찌또도당은 1965년 7월하순에 진행된 련방인민의회에서 일련의 《경제개혁》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파산이 더욱 많아지고있으며 물가가 급격히 뛰여오르고있다.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감자, 담배, 실과 등이다.

1953년의 소위 《농촌로력협동조합재산관계 및 그 개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로력협동조합》의 대부분은 해산되였으며 그후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로동의 사용까지 허용 (1960년 《농지사용법》)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이 결과 261만 845개의 개인농장이 총경지면적의 86.9%를 차지하고있다.

찌또도당은 대외무역에서 국가통제를 철페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고있다. 그 결과 대외무역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무역결손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1965년에 무역결손액은 2억 3천만딸라에 달하였는데 그중 미제와의 무역에서의 결손액이 1억 800만딸라였다. 1966년에 무역결손액은 3억 5천만딸라로 더욱 늘어났다.

사회, 문화 자본주의추세의 강화에 따라 자본주의체제의 고유한 고질인 실업자군도 증가하고있다. 등록된 실업자수는 1966년에 26만 5천명에 달하였다. 1966년 6월 현재 취업자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만 5천명이 감소되였다.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생활고에 모대기다 일자리를 구하려 외국에 떠나간 로동자는 1966년말 현재로 그 전년보다 11만명이나 늘어나 30만명으로 되였다.

또한 자유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디나르백만장자》들이 새로 생겨나고있는 반면에 대다수 소기업주들이나 소토지소유자들은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수입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경제 형편의 악화와 물가의 폭등으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됨으로써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강력한 불만과 반항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파업이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유고슬라비아통신).

신문 뽈리찌까, 꼼무니스뜨 (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보르바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잡지 쏘찌알리잠 (공산주의자동맹리론잡지).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오지리는 구라파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며 동부는 웽그리아, 남부는 유고슬라비아와 이딸리아, 서부는 스위스, 서북은 독일, 북동은 체스꼬슬로벤스꼬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국토의 약 60%가 산악지대이고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뻗어있으며 두나이강이 동서로 흐르고있다. 지방에따라 기후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있다.

【면적】 8만 3,900km²

【인구】 721만 5,000명 (1965년 10월)

주민의 대부분은 독일인이고

그외에 슬라브인, 마쟐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언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윈 (주민 165만 6,000명)

정 치 1867년에 형성된 오홍제국은 제1차대전에서 패배하여 무너지고 1918년에 오지리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19년 윈조약으로 국경선이 확정되여 웽그리아가 떨어져나갔다.

1939년 3월 히틀러독일에 병합되였다가 1945년 그 기반에서 해방된후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대오국가조약에 따라 오지리는 원자무기 무선유도무기, 독가스, 세균무기, 장거리포의 보유 및 제조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설계한 항공기의 구입은 금지되여있다. 또한 군사동맹에 가맹할수 없으며 국내에 외국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오지리반동지배층은 이에 배치되게 1956년에 미제와 소위 《우호통상및항해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침략적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입하였다. 또한 1957년 6월 15일에는 서부독일 복수주의자들과 《법적재산관계의 규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 5월에는 《구라파자유통상련맹》에 가입하였다.

오지리는 9개의 주로 구성되여있는 련방공화국으로서 각각 자기의 헌법, 국회 및 정부를 가지고있다.

【대통령】 1965년 2월 28일 아돌프 쉐르프가 죽은후 5월 23일 사회당원인 프란쯔 요나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국회】 국회는 상원인 련방의회 (각주의 인구수에 따라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인원은 50명)와 하원인 국민의회 (의원은 165명, 임기는 4년)로 구성된다. 최종결의권은 국민의회에 있으며 현 국민의회는 1966년 3월 6일에 선거되였다.

【내각】 1965년 10월에 1966년도예산을 토의할때 인민당과 사회당간의 의견대립으로 내각은 총사직, 1966년 3월 선거결과 4월 19일에 인민당의 단독내각이 성립되였다.

수상 요세프 클라우스, 외상 론치츠즈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3일에 창건, 1956년 7월 15일 사회로동당과 합당하였다. 위원장 프란쯔 뮤러. **인민당** 1945년 창건, 독점자본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표하며 천주교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사회당** 1945년 창건, 전신은 사회민주당이다. **자유당** 1956년에 창건, 오지리의 중립을 반대하는 파쑈정당. **《국가민주당》** 1967년 2월창건, 신파쑈적인 정당. **로조련맹** 사회당의 영향하에 있다. **평화옹호위원회**, **민주녀성동맹**

경제, 사회 갈탄, 철, 흑연, 석유 등 지하자원이 있다. 경제에서 국가자본주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외국독점자본 특히 서독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1952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오지리에 4억 3천 900만마르크의 서독독점자본이 들어왔으며 1965년에는 1억 3천 200만마르크이상이 침투되였다.

경지는 약 160만 8천헥터이며 인구의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위주로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화페단위는 쉴링, 1쉴링은 100그로쉔, 재정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주요수출품은 선철, 기계, 목재, 종이, 섬유 등이고 수입품은 식량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서독, 이딸리아, 스위스이다.

서독복수주의자들과 밀접히 결탁한 파쑈분자들의 활동이 점차로 공화되고있는데 이들은 출판물들과 학교들을 통하여 오지리에 범게르만민족주의와 나치스전통을 부식하고있다.

친나치스분자들은 1965년 3월 31일 그들에 항의하여 시위하는 로동자들을 공격하여 반파쑈투사인 키르히베게르를 살해하였다.

1965년에 물가는 전년보다 6.1% 그중 식료품은 8.9% 올랐다.

1965년에 14만 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파업의 97.1%가 로조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외스테르라이히쉐 폴크스 슈팀메 (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 (정부기관지), 외스테르라이히쉐 노이에 타게스 짜이퉁(인민당기관지), 아르바이테르 짜이퉁 (사회당기관지).

희 랍

(희랍왕국)
Kingdom of Hellas

희랍은 발칸반도의 동남단과 에게해 및 지중해에 널려있는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 및 토이기와 접하고있다.

【면적】 13만 9,000 km² (도데카네스 섬 포함)

【인구】 851만명 (1966년)

희랍인 (94%이상), 토이기인, 유태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벌가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이다.

【수도】 아테네 (185만여명)

정 치 희랍은 로마, 토이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24년 공화제로 되였다가 1935년 왕제로 다시 돌아갔다. 제2차대전시기 독일에 점령되자 국왕은 영국에 망명하였다.

1944년말 왕당파는 파쑈를 반대하여 싸운 민족해방군과 애국자들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1947년 3월 미제는 《트루맨주의》를 선포하고 희랍내정에 직접 간섭하여 민주력량을 탄압하였다. 희랍은 1948년 3월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1952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3년에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희랍에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였으며 군사고문단이 들어갔다. 그 대가로 희랍은 미제의 군사원조를 받고있다.

희랍은 구라파 《공동시장》준가맹국이다.

희랍은 립헌왕국이다. 희랍지배계층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렬한 권력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1963년말과 1964년초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친미반동적이며 왕당파인 카라만리스(급진련맹당)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중앙동맹당을 중심으로 하는 파판드레우정부가 수립된때로부터 특히 첨예화되였다. 정권을 잡은 중앙동맹당은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왕당파세력을 정부내에서 제거하고 자기지지파들로서 세력권을 확장하며 카라만리스독재시기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비상조치법》을 폐기하였으며 10개의 극우파쑈단체들을 해산시켰다. 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왕을 비롯한 극우익분자들은 미제의 배후조종하에 파판드레우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고의적으로 정부위기를 조성하여오다가 1965년 7월 14일에는 《왕실정변》으로 파판드레우정부를 전복하였다.

인민대중은 금융과두들과 내외의 반동세력에 충실히 복무할 새 정부를 만들어내려는 국왕과 우익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희랍력사상 드문 대규모적인 시위와 파업투쟁을 련일 전개하였다. 7월 16일 국왕이 임명한 노바스정부는 인민들의 항거와 국회에서의 불신임으로 3주일이 못되여 (8월 5일) 붕괴되였으며 그에 뒤이어 8월 18일 국왕이 수상으로 임명한 찌리모코스 역시 국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8월 28일) 물러나고 9월 17일 스테파노풀로스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희랍인민들은 9월 17일, 22일, 10월 4일, 11월 5일 새 정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여 군중대회와 시위들을 전개하였다. 또한 1965년에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그후 스테파노풀로스정부도 집권세력내부의 모순으로 1966년 12월 21일에 사직하고 왕의 위임에 의하여 국립은행총재 파라스케보풀로스를 수상으로 하는 과두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부의 사명은 1967년 5월에 진행되기로 되였던 총선거를 준비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집권세력내부의 알륵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고있는 사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면 자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것을 타산한 왕당파와 국왕은 총선거를 앞둔 1967년 4월 20일 미제의 적극적인 배후조정밑에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국왕은 4월 21일 검찰총장 콜리아스를 새 정부의 수상으로 임명하였으며 군사정변의 주모자인 륙군참모총장 그레그리오스 스판디이다키스를 부수상겸 국방상으로, 그외 고급장교들과 최고재판소판사들을 각료로 임명함으로써 새정부를 구성하였다.

군사정권은 국회활동을 계속 금지시키고있으며 국내진보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정변이래 륙군은 국왕을 반대하여온 일부 각료들과 공산당원들, 통일민주좌익당 지도자 마놀리스 글레소스, 이전 수상 파판드레우와 야당지도자들을 포함한 8천명(그중 공산당원 5천명)을 체포구금하였으며 각지에 군사재판소들을 설치해놓고 체포한 사람들을 처형하고있으며 《좌익인사들 또는 믿을수 없는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구실을 붙여 통일민주좌익당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81개의 지방구락부 및 단체들을 해산시켰다.

새 정부는 왕당파와 우익군부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적이며 친미적인 정권이다. 수상은 자기 정책연설에서 《희랍은 서방동맹》속에서 《나토를 고수할것》이라고 하였다. 희랍에는 군국화와 파쑈화의 위협이 조성되였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1964년 3월 6일—)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 의원수는 300명.

【내각】 현정부는 1967년 4월 20일 군사정변 이후 륙군장교들과 고등재판소 판사들로 구성. 1967년 4월 22일 개조.

수상 콘스탄틴 콜리아스, 부수상겸국방상 그레그리오스 스판디이다키스, 외상 에코노무 구라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 1947년 10월에 비법화.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제1비서 코스토스 콜리얀니스. **통일민주좌익당** (진보적정당) 1951년에 창건되였다가 1963년 5월에 해산됨. **중앙동맹** 1961년초에 수개의 정당들로 창건된 부르죠아정당. **국민급진당** 미제와 결탁한 독점자본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동적정당. **로동총련맹, 전국청년 통일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나 경지는 국토의 20%에 지나지않는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등이다. 희랍은 매년 약 30만—40만톤의 알곡과 고기, 우유제품을 수입한다.

기본공업부문은 방직, 식료, 화학,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대리석 등이다. 채취공업에서는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독점자본이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해마다 수만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간다. 화페단위는 드라크마다.

종교는 희랍정교이다.

핀란드

(핀란드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있다. 호수가 6만여개나 있으며 기후는 겨울에 몹시 춥다.

【면적】 33만 7,009km²

【인구】 461만 200명 (1965년) 주민은 핀족 (96%), 스웨리예족 등이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

【수도】 헬싱키(주민 49만 6,000 1965)

정치

사회주의10월혁명의 결과 핀란드는 1917년 12월 짜리로씨야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을 침공하였으나 패배하고 1947년 2월 쏘련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48년에는 쏘련과 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1956년에 북구리사회에, 1961년에 준가맹국으로 《구라파자유통상련합》에 참가하였고 1962년 3월 《북구라파협력조약》에 망라되였다. 2차 대전후부터 1964년까지 21차의 내각교체가 있었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 투표에서 선출되는 선거인 300명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

우르호 케코넨 (1962년 3월에 재선)

【내각】 1966년 5월 27일 사회민주당, 중앙당, 인민민주동맹, 사회민주련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라파엘 파시오(사회민주당), 외상 아호티 카르야라이넨(중앙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사아리넨, 총비서 빌레 페씨(1966년 1월 14차대회에서 선출). **인민민주동맹** 1944년 공산당과 좌익사회당원들의 발기로 조직된 대중적인 사회정치조직, 성원 15만명 **중앙당** 1906년에 조직. 1965년 10월까지 농민련맹이라고 불렀다. 농촌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 성원 27만 8천명(1964년). **사회민주당** 1899년에 성립. **사회민주련맹** 1959년에 성립. **스웨리예인민당, 핀란드인민당, 민족 련합당, 로조총련합.**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은 철, 동, 연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공업은 제재, 제지공업이다. 국토의 70%이상이 산림지대이다. 주민의 60%가 림업에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약 70%가 여기에서 들어온다.

축산업으로는 뿔난집짐승, 말, 돼지, 양 등이 있다.

통화는 마르까 (100펜니)이고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Kingdom of Sweden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에 있으며 산림, 하천, 호수가 많다.

【면적】 44만 9,200km²

【인구】 777만 3,000명 (1966년 1월 1일)

주민의 대반은 스웨드족이고 기타 렙족, 고드족, 핀족들이 있다. 언어는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스톡홀름 (주민 112만 4,900명, 1965년 1월)

정치

스웨리예는 1906년 노르웨이와의 련합왕국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한 립헌군주제국가이다.

스웨리예는 《구라파자유무역련합》참가국이며 1961년에 구라파 《공동시장》준가맹국으로 가입할것을 신청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세 (1950년 10월—)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151명, 임기는 8년, 간접선거로 매년 8분의 1씩 개선. 하원의원은 233명,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현하원은 1964년 9월 20일에 선거.

【내각】 수상 타게 에르란데르, 외상 토르스텐 보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7년에 창건, 위원장 헤르만쑨. **사회민주당** 집권당, 19세기 80년대에 조직, 국제사회당에 참가하고있다. 당원 약 80만명, 위원장 타게 에르란데르.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중앙련맹**(사회민주당의 영향아래 있다), **민주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광물 및 림산자원이 풍부하며 기계, 금속, 제재, 제지공업 등이 발전되여있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은 40%, 농업은 4%, 림업은 3%, 운수는 9%, 무역은 13%를 차지한다.

1964년에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직접투자는 9억 4천 400만딸라였다.

경지면적은 330만헥타이며 밀, 보리, 귀밀 등이 생산된다.

뿔난집짐승, 양, 말을 기른다.

통화는 크로나이다(1크로나는 100에레).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

주요수출품은 기계류, 금속, 팔프, 목재 등이며 기계, 연료, 식료품, 섬유제품을 수입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Kingdom of Norway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쪽에 있다. 국토의 약 72%가 산지, 하천, 호수, 섬들이며 빙하작용으로 해안의 굴곡이 심하다. 부속섬들은 약 15만개이상이나 되며 강수량이 많고 해양성기후로서 연해는 북쪽끝까지 얼지않는다.

【면적】 32만 3,917km²

【인구】 370만 9,000명 (1965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노르드족이고 그외에 스웨드족, 핀족들이 있다. 언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수도】 오슬로 (주민 48만 5,000명, 1964년 1월 1일)

정 치 노르웨이는 14세기이래 단마르크, 스웨리예의 예속하에 있다가 1905년에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때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제2차대전후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인 나토, 《구라파자유통상지대》, 《경제협력개발기구》(1962년 7월)에 가입하였다. 오슬로에 《나토북부군사령부》가 있다.

【국왕】 올라프 5세 (1957년—)

【국회】 량원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 150명으로 구성, 그중 38명은 상원을, 112명은 하원을 구성, 임기는 4년.

【내각】 1965년 9월 12—13일에 있은 선거에서 30년간 집권하여온 로동당(우익사회민주주의정당)이 패배하고 이해 10월 12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의 련립내각이 성립되였다.

수상 페르 보르텐 (중앙당), 외상 욘룽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라르세. **사회주의인민당** 1961년 4월 16일에 이전 로동당원들로 결성, 핵무장반대, 나토탈퇴 등을 주장. **로동당** 1887년에 성립, 우익사회민주주의 정당. **중앙당** 1920년에 조직, 대지주들의 리익을 대표, 위원장 페르 보르텐.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 로조련합,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경 제 산지가 많기때문에 농경지는 적고 산림이 많다. 근해가 세계적인 어장으로 되고있으며 수산업이 발전되여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철광, 알루미니움 등이 있으며 주요공업은 식료품, 기계, 금속, 제재, 제지, 화학공업이다. 해운업도 주요 경제부문으로 되고있다. 노르웨이의 주식자본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이 약 15%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크로네 (1크로네는 100에레). 재정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슬란드

(이슬란드공화국)
Republic of Iceland

북대서양상의 섬나라이다. 북쪽끝은 북극권에 속하며 여름에는 밤이 없고 낮이 계속된다.

화산과 온천이 많다.

【면적】 10만 3,000km²

【인구】 19만 6,549명 (1966년 12월 1일)

주민은 노르드족과 덴족.

언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통용된다.

【수도】 레이캬비크 (주민 7만 7,000명 1964년말)

정 치 이슬란드는 1951년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고 1944년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정이외에 군대는 없다. 1951년 5월 5일 미제와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케플라비크의 호발피오르두르에 미제침략군의 기지가 있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아스게이르 아스게이르쏜 (1964년 8월—)

【내각】 수상 야르니 베네직트쏜 (독립당 당수), 외상 구드문두르 구드문드쏜(사회민주당)

【정당, 사회단체】 **통일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파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르나르 올케이르쏜. **독립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경 제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0.5%이다.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한다. 주요경제부문은 어업이다. 어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25%를 차지한다.

수출에서 수산물은 95%를 차지하고있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구라파대륙의 서북해상에 있는 섬나라로서 잉글랜드, 웰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 및 기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서북부는 북대서양에, 동부는 북해에 각각 면하고있으며 동남부는 도바해협을 거쳐 프랑스와 접하고있다. 잉글랜드동남부의 평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지와 고원지대로 되여있고 북아일랜드에는 호수가 많다. 영국본토는 모두 북위 50도 이북에 있지만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다.

잉글랜드와 웰즈의 년평균기온은 대체로 10°C이며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은 5°C이고 가장 더운 7월은 16°C이다.

【면적】 24만 4,100km²

【인구】 5,450만명 (1965년)

주민의 80%가 도시에 살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앵글로색손족이고 스코트랜드에는 켈트족이 산다.

【수도】 런던 (주민 834만 6,000

명)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2월 6일—)

【의회】 량원제로서 1911년의 《의회법》에 의하여 상원의 권한은 현저히 축소되고 립법상의 권한은 대부분 하원이 가지고있다.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하는 왕족, 귀족, 승려 등으로 도합 90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하원은 임기 5년으로 선거되는 6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66년 3월 31일 총선거 결과 레이버당 361석, 보수당 249석, 자유당 9석.

【내각】 행정부의 최고권한은 형식상으로 추밀원이 가지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밀원의 핵심인 내각이 그것을 대행한다. 내각성원의 임면권도 형식상 국왕이 가지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실제상으로 하원에서 제1당으로 된 정당의 지도자가 수상으로 되고 상들은 제1당 당원인 국회의원들중에서 수상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다른 정당과 련합하여 련립내각을 세울수도 있다. 내각은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받지 못하면 사직해야한다. 1966년 3월의 총선거 결과 4월 5일 또다시 레이버당의 윌슨정부가 수립되였다.

수상 해롤드 윌슨, 외상 죠지 브라운, 국방상 데니스 힐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 30일 창건, 위원장 프랜크 스탠리. 레이버당 집권당, 로동조합, 협동조합 및 일련의 자칭사회주의단체들의 련합체로서 1900년에 조직된 전형적인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정당, 당수 해롤드 윌슨. 보수당 17세기 후반기에 조직된 토리당의 후신으로서 독점자본가와 대지주들의 정당으로 1832년에 창건되였다. 자유당 19세기 중엽에 조직된 중소부르죠아지의 정당. 공산청년동맹, 로동조합콩그레스 전형적인 로동귀족의 지도하에 있다.

【주요국내사건】 1964년 10월의 총선거에서 약간의 의석차이로 정권을 잡은 레이버당은 보수당의 반인민적대내외정책을 답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 배격당하였다.

보수당은 이러한 형세에 편승하여 레이버당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권력쟁탈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레이버당반동정부는 령락된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수습하며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66년 3월 10일에 하원을 해산하고 3월 31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지배계급의 권력쟁탈전인 《선거》를 배격하였는바 전국 3천 600만명의 유권자중에서 800만명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레이버당반동정부는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와 증대되는 군사비지출의 중하를 광범한 근로인민들에게 들씌우기 위한 반인민적인 《긴축》조치로서 1966년 2월 24일 《물가 및 수입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하원은 7월 14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악법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일체 금지하고 간접세를 올리는 한편 이미 약속된 일부 로동자들의 임금인상마저 6개월간 연기할것을 예견하였다.

레이버당반동정부의《긴축정책》은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전국적인 항의와 임금동결을 반대하는 파업에 부딪쳤다. 레이버당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독점체들의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규모로 앙양되였다.

1965년 1월 런던을 비롯한 주요항구들을 마비시킨 2만 5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투쟁은 완강성과 조직성을 강화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앙양되였다.

1966년 5월 16일에는 임금인상과 로동시간단축을 요구하여 전국해운로조산하 6만 2천명의 해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40일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파업으로 838척의 선박이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식량과 원료의 수입에 위기를 조성하였다.

윌슨도당은 해원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6월 22일 《비상조치》를 실시하여 항구들에 비상위원회들을 설치하고 파업자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 파업에는 부두로동자들이 호응하여 동정파업을 일으킨 외에 영국의 광범한 사회계가 파업자들을 지지성원하는 군중집회를 가졌다.

9월말에 개시된 롱브리지자동차공장로동자들의 파업은 9주일이상 계속되였으며 미들랜드자동차공장로동자들의 파업에는 4만명이 참가하였다.

1966년에 로동자들이 일으킨 2천여건의 파업을 통하여 자본가들은 350만 로동일을 잃었다. (1964년에는 파업으로 228만 로동일을 잃었다.)

영국근로자들은 또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이것을 지지하는 윌슨도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광범한 운동을 일으켰다. 1965년 11월 21일 영국에서는 영웅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지지성원하는 전국적인 《웰남주간》이 시작되였으며 1966년 11월 7일에는 버밍감에서 40개단체대표들이 웰남의 평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미제의 북부웰남폭격에 항의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윌슨도당을 규탄하였다.

【대외관계】 전쟁과 침략정책을 추구하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말살을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윌슨도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간 자국의 경제를 미제의 딸라원조로 수습해보려는 목적밑에 미제와 침략적결탁을 강화하면서 미제의 웰남전쟁 《계단식확대》책동을 적극 비호하였을뿐만 아니라 웰남문제에 대한 존슨도당의 기만적인 《평화협상》책동의 거간군으로서 앞장섰다.

1965년 4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윌슨도당은 미제의 두목 존슨

과의 회담에서 미제의 윁남전쟁확대책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자국내의 재정 및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그리고 중동 및 《말레이시아련방》에서 붕괴과정에 있는 저들의 식민지체계에 대한 미제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1966년 7월 윌슨은 미제의 세계전략집행을 적극 지지한다는것을 다짐한 대가로 얼마간의 재정적원조를 받을것과 특히 극동에 대한 영국의 군사비지출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미제의 두목 죤슨에게서 받았다.

이와 같은 결탁에 따라 윌슨도당은 홍콩을 미제의 윁남침략기지로 제공하였으며 홍콩의 군항과 비행장을 미제의 군함과 군용기가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였다. 레이버당 반동정부는 또한 사이공에 유격전고문을 파견하여 괴뢰경찰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한편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침략군의 군사훈련소에서는 남부윁남괴뢰군을 받아들여 훈련시키고있다.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하려는 윌슨도당의 시도는 프랑스의 반대로 계속 난관에 부딪쳐 실현되지 않았다.

윌슨은 1965년 4월 프랑스에서 드골과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문제를 토의하였으며 1966년에는 드골과 두차례나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벌렸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드골은 영국이 영련방성원국들과 맺고있는 《특혜관세제》를 철폐하고 미제와의 《친밀한 특수관계》를 끊어야 《공동시장》에 들어올수 있다고 하면서 윌슨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않았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영련방을 간신히 유지하는 유일한 뉴대로 되고있는 《특혜관세제》를 버린다면 영련방은 붕괴될것이며 또한 미제와의 《특수관계》도 끊을수 없기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도저히 조건을 수락할수가 없었다.

윌슨도당은 1966년 8월 19일 서구 동맹리사회에서 외화부족 때문에 서독주둔자국군대의 일부를 철수하지 않을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나토내에서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조성하였다.

한편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말살을 대외정책의 기본로선으로 삼고있는 영국반동정부는 《수에즈이동방위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근동에서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광분하였으며 아덴, 남부예멘, 오만, 바레인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강화하고 예멘아랍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과 침략책동을 계속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미제와 공모하여 뒤흔들리는 식민지체계를 수습하기위한 책동에 골몰하였다.

윌슨도당은 남로데시아에서 자기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5년 11월 11일 남로데시아인민들과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소수 백인식민주의자들인 스미스도당을 추겨서 일방적으로 비법적인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66년 1월 나이제리아수도 라고스에서 있은 소위 영련방수상회의에서까지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받은 윌슨도당은 스미스정권에 《경제적 및 재정적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겉으로는 스미스도당의 《일방적독립》을 마치 반대라도 하는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지는 《스미스정권》을 계속 비호하고있다.

윌슨도당과 스미스도당의 파렴치한 처사에 격분한 탄자니아, 가나, 기네, 말리, 아련, 콩고(브), 모리따니, 수단, 알제리 등 일련의 아프리카나라들은 아프리카통일기구비상회의 (1965년 12월 3일)의 결의에 따라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자연부원은 석탄, 철광 등이며 기타 공업원료는 그 대부분(80%)을 식민지들에서 략탈하여가져온다. 농산물은 보잘것이 없으며 식량의 6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5대은행인 버클레이스은행, 미들랜드은행, 로이드은행, 웨스트민스터은행, 내슈널프로빈셜은행이 영국금융자본의 5분의 4이상을 장악하고있으며 극소수독점체들에로의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고도로 촉진되고있다.

영국경제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1966년에도 계속 강화되였다. 1965—1966년의 영국제조공업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이 부문 총투자액의 16%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의 비행기제작공업을 비롯한 제조공업의 10%가 미제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영국자동차공업의 52%를 미국독점자본이 장악하고있다.

1966년에 영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태에서 계속 추서지 못하였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공업생산은 줄어들었으며 국가재정상태와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였다.

공업생산도 계속 침체상태에 있다. 영국에서 경쟁능력이 비교적으로 강하다고 자랑하여온 강철공업도 1966년에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0%나 떨어졌으며 석탄생산은 거의 1천 300만톤이나 줄었다. 선박건조역시 10%이상 줄어들었다.

농촌인구는 주민의 20%정도이다. 농업생산은 국민총생산의 약 4%에 불과하다. 북부지방이 주로 농업지대이다.

1965년 6월현재 경지는 1천858만 3에이커(1에이커는 약 0.4정보), 목초지는 1천211만 3천에이커이다.

중요농산물은 밀,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66년에 알곡생산도 침체상태를 계속하였다.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영국공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결과 영제국주의자들은 대외무역에서 해마다 막대한 결손을 보고있다.

1965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대외무역에서 8억 6천600만 파운드의 결손을, 1966년에는 7억 1천800만파운드의 결손을 보았다. 1966—1967회계년도에 국가예산은 7억 4천만파운드의 적자를 냈으며 정부의 공채발행액은 30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레이버당반동정부가 군비경쟁과 군사비지출을 계속 증대시킨것과 관련되였다.

영국은 해마다 거듭되는 방대한 무역결손과 해외군사비지출의 증대로 말미암아 국제수지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있으며 심각한 파운드위기를 겪었다. 윌슨도당은 파운드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30억딸라에 달하는 대외단기차관의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1965년 5월에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0억딸라의 차관을 새로 받는 한편 《긴축》정책을 강화하였으나 파운드위기는 의연 계속되고있다.

1966년 5월 3일 윌슨도당은 1966—1967회계년도예산안에서 21억 7천 200만파운드 (전해보다 5천만파운드가 증가)를 군사비에 할당하고 농업 및 인민생활과 관련된 지출은 현저히 축감시켰다. 군사비의 충당을 위해 윌슨도당은 1억 5천만 내지 2억파운드의 추가적인 세금징수를 예산안에서 예견하였다.

윌슨도당은 해외주둔침략군에 대한 지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영국의 해외군사지출액은 1958년의 1억 8천만 파운드로부터 1963년에는 3억 4천 400만파운드로, 1965년에는 5억 6천만파운드, 1966년에는 5억 8천500만파운드로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영국의 해외주둔침략군은 현재 수에즈이동지역에 약 7만 1천명, 서독에 5만 1천명, 지중해에 2만 3천명이 각각 주둔하고있는데 해외주둔침략군수는 영국총무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966년 2월 윌슨도당은 중근동주둔 영국침략군사령부를 1968년에 아덴으로부터 바레인제도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군사기지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자기의 중근동침략에 대한 세계여론의 규탄을 피하면서 아랍인민들의 반제식민주의투쟁을 저지해보려는 윌슨도당의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사회 로동자총수 2천 500만중에서 1천만 이상이 최저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있다. 녀성로동자들은 1887년부터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으나 임금은 아직 남성로동자의 60%에 불과하다. 로동조건의 악화로 수많은 로동자가 죽고있으며 매년 수십만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영국로동성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영국실업자수는 60만 1천 700명에 달하고 있다.

범죄건수는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데 한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남자가 450만명이며 녀자는 100만명인데 이는 영국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다.

【출판보도】 통신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 타임스 (무소속), 데일리 텔레그라프 (보수당계) 가디언 (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무소속), 데일리 미러 (레이버당계).

잡지 막시즘 투데이 (공산당월간리론잡지), 에코노미스트(보수계 경제잡지).

방송 비비씨 (영국방송협회)가 독점하고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Irish Republic

대서양상 아일랜드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많은 반도들과 도서들을 가지고있으며 서부와 남서해안은 굴곡이 심하다.

기후는 온대해양성기후이나 바람이 심하고 일기가 고르롭지못하다. 7월 평균기온은 서부에서 13°C, 남부에서 15~16°C, 1월 평균기온은 동부에서 5°C, 서부에서는 7°C이다.

특징으로는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이 끼며 찬비가 내린다.

년평균강수량이 서부와 남서지방에서 1,500~2,500미리메터, 중앙과 동부지방에서는 750~1,000미리메터이다.

가장 큰 강인 샨논강 (384km)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하천들은 수량이 많고 류속이 완만하므로 운하로 많이 사용된다.

【면적】 7만 8,283km²

【인구】 284만 4,000명 (1965년 9월)

주민의 대부분은 아일랜드 (켈트계 민족)인이다. 언어는 아일랜드어이다.

【수도】 더블린 (주민 66만 3,000명)

정치 12세기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되였다. 164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첫 식민지로 되였다. 1905년 독립당이 창건되여 독립운동을 지도하였으며 1919—1921년까지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21년 자치령으로, 1937년에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제2차대전시기 중립적태도를 취하였다. 1947년 4월 영련방에서 탈퇴하고 《아일랜드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60명, 하원의원은 144명, 임기 5년 현하원은 1965년 4월 7일에 선거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1966년 6월 재선)

수상 쟈크린취 (1966년 11월 10일—).

부수상겸 외상 프란크 에이켄, 국방상 마이클 할라드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총비서 마이클올러르렌. **자유당** (집권당) 지도자 신 레마스. **통일당, 레이버당, 《아이레공화군》, 신페인, 아이레로동련맹.**

경제, 사회 농업국가이며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한다. 1963년 국민소득에서 농업, 어업, 림업은 21%, 공업은 31%를 차지하였다. 주요농산물은 귀밀, 보리, 감자, 밀, 아마, 사탕무우이다. 방목지 47%, 목초재배지 11.6%, 농경지는 10%이다.

대각가축, 돼지, 양, 가금 등을 친다.

공업의 기본은 식료품가공공업이다.

맥주, 위스끼, 흑맥주, 우유 및 육류제품, 사탕가루, 담배 등이 생산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육류, 가금류, 뻐터, 쪼꼬레트, 맥주, 양모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자동차, 비료, 전기기구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이다.

종교는 카톨릭교도가 지배적이다.

통화는 아일랜드파운드 (영파운드가치와 같다)

1963년에 실업자수는 6만 1천명이였다.

【출판】 신문 아이리쉬 프레스 (정부기관지), 아이리쉬 타임스.

단마르크

(단마르크왕국)

Kingdom of Denmark

구라파북부의 유틀랜드반도와 부근의 섬들 약 500개로 이루어지고있다. 국토는 평탄 (최고지점이 해발 173m)하고 비옥하며 기후는 해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비교적 선선하며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다.

【면적】 4만 3,042km²

속령으로 그린랜드 (217만 5,600km²)와 페레르네제도 (1,400 km²)가 있다.

【인구】 471만 8,000명 (1964년 7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

언어는 단마르크어.

【수도】 코펜하겐 (주민 137만 7,000명, 1964년 7월 1일)

정치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그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나또와 서구동맹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 3월 구라파 《자유통상지대》에 참가하였으며 1961년 12월 서독과 《발띡해합동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국왕】 프리데리크 9세(1947년 4월—)

【의회】 1원제, 의원은 179명, 임기는 4년, 현 의회는 1964년 9월 22일에 선거.

【내각】 1964년 9월 25일 사회민주당이 단독내각을 조직.

수상 옌스 오토크라그

외상 페르 헤케루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에 창건,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 **사회민주당**(집권당), **온건자유당, 보수당, 급진당, 로조련맹, 공산청년동맹.**

경제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목축업이며 지하자원은 적다. 경지면적은 276만 3천헥터 (1963년). 토지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으며 농업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로동자와 소농들은 토지의 겨우 15.7%를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맥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대각가축, 돼지 등을 기른다.

주되는 공업은 식료, 금속, 조선, 제지 공업이다.

발띡해, 북해를 중심으로 어업도 많이 한다. 통화는 크로네(1크로네=100에레).

재정년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다.

1957—1964년간에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투자액은 4배이상으로 격증하였다.

1965—1966년도의 군사비는 1946년의 10배이상인 17억 900만크로네였다.

1965년에 생계비는 1960년에 비하여 31%, 전년보다는 7.4%나 올랐다.

화 란

(화란왕국)

kingdom of Netherland

구라파대륙의 북서부에 있으며 나라의 북서부는 북해에 면해있다. 령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으며 기후는 온화한 해양성기후이다.

【면적】 3만 2,400km².

화란은 본토외에 남아메리카의 화란령기아나와 안찔제도의 큐라사오 아루바도 등 일련의 식민지를 가지고있다. 식민지면적은 약 14만 4,000km²

【인구】 1,253만 5,307명 (1967년 7월 1일).

본토주민의 기본은 화란인이며 그밖에 언어문화에 있어서 화란인계통에 속하는 프라만드인 약 150만명과 프리스인 약 20만~25만명이 있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다.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87만 2,428명). 왕궁과 정부는 헤그 (주민 약 61만명—1964년) 에 있다.

정치 화란은 립헌왕국이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또에 가담하였으며《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서구동맹》, 《경제협력개발기구》, 구라파 《공동시장》, 《구라파원자력공동체》 등 제국주의기구에 참가하고있다.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4년 6월 미제와 《원자무기의 축적 및 생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화란은 1962년 8월 15일 서부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1963년 1월 19일에는 서부독일 복수주의자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서독침략군 3천명의 화란 주둔을 허용하였다. 1966년에 화란은 나토 중구라파군 참모부를 자기나라의 림부르그주로 옮기는데 동의한다고 정식 선포하였다.

【국왕】 율리아나녀왕 (1948년 7월—).

【국회】 량원제, 립법권은 국왕과 국회에 속한다. 상원의원은 75명, 임기는 6년, 3년마다 주의회에서 절반씩 개선, 하원의원은 150명, 임기는 4년, 현재의 하원은 1967년 2월 15일에 선거.

【내각】 1967년 4월 3일에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드 용 (카톨릭인민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로동당** 1946년에 사회민주당에 기초하여 창건. **카톨릭인민당** 1895년에 창건된 로마—카톨릭국가당에 기초하여 1945년에 창건, 바티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반동정당. **평화사회당**, **반혁명당** 1957년에 창건. 자국 령토내의 외국군사기지의 철폐와 화란의 일방적인 군비축소 및 나토탈퇴를 주장. **기독교련사동맹**.

경 제 이 나라의 공업부문에는 1965년말에 787개의 외국기업소가 있었다. 그중 301개는 미제기업소였다.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의 44%가 공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공업은 선박건조, 전기기계, 제철, 식료공업 등이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위주로되고있다. 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수중에 전농토의 70%가 집중되고있다. 전 농토의 절반이상은 소작제에 의하여 경작되고있다.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의 13%가 농업과 어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경지의 58%는 방목지와 목초재배지이며 주요농작물은 밀과 감자이다.

대각가축, 돼지, 양, 말을 많이 친다.

화란은 하천, 운하를 통한 내륙수상운수를 리용하고있다.

통화는 길다 (일명 플로린), 1길다는 100쎈트이다.

1966년에 생활필수품생산이 전해에 비하여 4%나 줄었으며 물가는 6%나 올라갔다.

1966년에 전체 남성로동력의 근 5%에 달하는 8만 5천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Kingdom of Belgium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으며 지세는 동남부의 고지를 제외하고는 평지이다. 기후는 따뜻하나 눈이 많이 온다.

【면적】 3만 507km²

【인구】 949만 9,234명 (1966년 초)

주민은 화란계의 프라망인 약 55%, 프랑스계의 왈롱인 약 45%.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프라망어이나 독일어도 쓴다.

【수도】 브류쎌 (주민 약 145만명)

정 치 벨지끄는 나토 (륙군 현역병력과 전체 해공군을 나토에 편입),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서구동맹》, 구라파 《공동시장》 및 《유라톰》 등 제국주의기구에 가입하고있다.

린접한 화란, 룩셈부르그와 관세동맹, 경제동맹 (1958년)을 체결하였다. 벨지끄는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우리의 원쑤이다. 1964년 7월 군사협조문제에 관한 국방상들간의 회담의 결과 1965년 4월 서독침략군이 벨지끄—화란국경지역의 아레돈크에 주둔하였다.

1966년 2월에 벨지끄 반동정부는 콩고(킨) 인민무장대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자 이 투쟁을 탄압할데 대하여 쏨베와 밀의를 거듭한 후 쏨베를 군사적 및 기술적으로 원조할것을 약속하였으며 쏨베도당과 재정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년 7월 20일 벨지끄반동정부는 프랑스에서 쫓겨나는 나토 구라파통합군사령부 참모부를 자기 나라 남쪽지방에 있는 카스로에 둘데 대한 결정에 찬동하였으며 1967년에 10억 벨지끄프랑 이상의 자금을 내여 이 나토통합군 최고사령부를 유지하려하고있다.

1966년 2월 4일 벨지끄에서 수상 아르멜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근 40일간 정부위기가 계속되였다가 3월 19일 기독교사회당과 자유진보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1월 17일—).

【국회】 량원제, 립법권은 국왕과 국회에 있다. 상원의원은 175명, 하원의원은 212명, 임기는 각각 4년이다. 선거권은 21세이상, 피선거권은 25세이상으로 제한되여있다.

【내각】 1966년 3월 19일 련립정부로 구성되였다.

수상 포울 반덴 베이난츠 (기독교사회당), 외상 피에르 아르멜 (기독교사회당), 국방상 샤를 포스비크(자유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 위원장 에. 뷰르넬. **기독교사회당** 벨지끄에서 가장 큰 부르죠아당. 위원장 포울 반덴 베이난츠. **사회당** 1885년에 창건. **왈롱근로자당** 1965년 2월에 사회당우익지도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사회당원들이 조직. **해방및진보당**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 **벨지끄공산주의청년동맹** 1964년 4월 19일이래 분렬되

여있다. 로동총련맹 사회당의 영향하에 있다.

경제, 사회 석탄, 철, 아연 등 국내자원과 식민지략탈에 기초하여 경제가 운영되고있다. 로력자의 약 절반이 공업에 종사한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석탄공업, 흑색및유색금속공업, 기계공업과 제판공업 등이 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소농경리가 지배적이다. 농토와 가축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고있으며 전농경지의 67%는 소작제에 의하여 경작되고있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60%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통화는 벨지그프랑, 벨지그프랑은 100쌍팀이다. 벨지고에서는 경제가 계속 파탄되고있으며 생활필수품가격과 각종세금, 집세 등이 뛰여오르고있으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1966년말현재 실업자수는 16만 3천 950명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지고에서 군비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1966년도 군사비는 173억 70만벨지고프랑이였다.

모 나 코

프랑스의 동남부, 이딸리아와의 국경근방의 지중해연안에 면해있다. 년중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세계적인 유람지이다.

이 나라의 전 령토가 건물로 차있는것이 특징이다.

【면적】 1.5km²

【인구】 2만 3,000명 (1964년)

모나코인이 약 3천명이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이딸리아의 량국적을 가진 민족들이다.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모나코 (주민 3,500명)

【국왕】 레니에 3세 (1949년 5월 9일—).

【의회】 1원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 임기는 4년.

【정부】 국왕 아래에 국무원이 있고 국무원은 국무상 (수상에 해당)이 책임진다. 1963년 9월 국무상으로 프랑스인장 레이몽이 임명되였다.

모나코는 10세기에 독립, 1793년 프랑스에 병합, 1861년 프랑스의 《보호》하에 왕국을 재건,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해 《독립국》으로 되였으나 실제적으로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다. 몬테카를로에는 《국제해수욕장주식회사》, 카지노에는 《공설도박장》이 있다. 국가수입의 주되는 원천은 관광업과 도박장이다.

주요생산품은 향수, 화장품, 전기기재 및 약품 등이다.

통화는 프랑. 천주교가 국교이다.

【출판】 신문 저널 데 모나코 (정부계).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Krand Duchy of Luxembourg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으며 벨지고, 프랑스 및 독일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면적】 2,586km²

【인구】 32만 8,000명 (1965년 9월)

주민은 대부분이 룩셈부르그인이고 기타 독일인, 프랑스인이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를 쓴다.

【수도】 룩셈부르그 (주민 8만명)

정 치 립헌군주제국가이다. 1948년에 비무장중립을 폐기하고 《서구동맹》, 침략적나토(전체 병력을 나토에 편입), 구라파 《공동시장》, 《유라톰》,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에 가담하였다. 룩셈부르그는 1950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우리의 원쑤이다.

【국왕】 쟌 (1964년 11월—)

【국회】 1원제. 의원은 56명, 임기는 5년. 현 국회는 1964년 6월 7일에 선거.

【내각】 1964년 6월 선거결과 기독교사회당과 사회로동당의 련립정부가 성립.

수상겸외상 피에르 베르네르 (기독교 사회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6일 창건, 총비서 도미니키 우르바니. **기독교사회당, 사회로동당, 민주당** (이전의 자유당). **《인민독립운동》당.**

경제, 사회 강철이 공업생산액의 70%,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1963년에 경지면적은 13만 6천헥타 (령토의 절반 이상)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통화는 프랑 (100쌍팀) 이다.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이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Republic French

구라파대륙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에스빠냐, 동쪽은 벨지고, 룩셈부르그, 서부독일, 스위스 및 이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북쪽은 대서양에 면하고있고 남쪽은 지중해에 면하고있는데 북쪽의 도바해협을 전너 영국을 바라보고있다. 지형은 동남부가 산악지대이고 서북부가 평야로되여있으며 비레네산맥이 서부의 에스빠냐와의 국경을 이루고있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춘하추동의 구분이 뚜렷하다. 지중해안은 준열대성 기후이다.

【면적】 55만 1,208km²

【인구】 4,915만 1,000명 (1966년 2월 7일).

주민의 90%는 프랑스인이고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오늘의 프랑스민족은 켈트족을 주체로 하여 리그리아족, 이베리아족, 로마족, 게르만족 및 노르만족과도 혼합되였다.

【수도】 빠리 (주민 303만 5,000명)

정치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족이 오늘의 프랑스를 세웠다.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프랑스에서는 봉건제도가 확립되였다. 1789년 7월 14일의 바스티유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부르조아혁명으로 부르봉왕조가 전복되고 1791년에 제1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804년에 나폴레옹제국이 수립되여 1814년에 부르봉왕조가 일시 부활되였으나 1848년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였다. 1852년 이후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실시되였으나 프로씨야—프랑스전쟁에서 패전하여 1870년에 제3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871년 3월 18일 프랑스의 로동계급은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부패한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빠리콤뮨을 선포하였으나 프랑스반동부르조아지의 류혈적탄압으로 진압되였다. 제3공화국은 제2차대전시 히틀러독일에 대한 페단정부의 항복으로써 끝장났다. 1944년 8월 빠리가 해방되고 1946년 12월 새 헌법이 효력을 가짐과 함께 제4공화국이 시작되였다.

전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49년에 침략적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담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4년에는《구라파경제공동체》(《공동시장》) 창설에 관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8년 6월 1일 수상으로 된 드골의 지시로 새헌법이 조작되였고 이 해 9월 28일 국민투표로 채택되였다. 1958년 12월 21일의 선거에서 드 골이 당선되여 1958년 1월 8일 그는 제5공화국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헌법에 따라 제4공화국의 《프랑스련합》을 《프랑스공동체》로 개조하였다.

【대통령】 종전에는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나 1962년 10월 28일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였다. 임기는 7년이다. 제5공화국으로 되면서 국회의 권한은 현저히 축소되였으며 반면에 대통령은 프랑스공화국과 공동체의 원수이다.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사령관이며 비상시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독재권을 행사할수 있다.

샤를르 드 골 (1965년 12월 19일 —).

【국회】 국민의회 (하원)와 참의원 (상원)의 량원제로서 국민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참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의회의 정원은 482명 (본국465명, 해외주들 10명, 해외령토 7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 참의원은 정부법안을 심의하고 법률을 발의하나 주로 지방자치체의 리익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공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정원은 301명이고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3분의 1을 개선한다. 1965년 9월 26일에 선거가 있었다. 공산당은 국민의회에서 73석, 참의원에서 14석을 차지하고있다.

【내각】 드 골이 대통령에 재선된후 1966년 1월 8일 제3차 퐁피듀내각이 조직되였다.

수상 조르쥬 퐁피듀, 외상 모리스 쿠브 드 뮤르빌, 국방상 피에르 메스메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 사회당에서 분리되여 창건, 2차대전후 제1당으로서 입각하였으나 1947년 5월 라마디에내각에서 배제된 이래 야당, 당원수 약 42만, 총비서 발데크 로쉐. **새공화국옹호동맹—로동민주련합** 1963년 12월에 새공화국옹호동맹 (1958년 9월 28일 조직)과 드골주의자들의 좌파인 로동민주련합 (1959년 4월 21일 조직) 이 합당한 현재의 집권당이다. 국민의회에서 244석을 차지하고있다. 당원수 약 8만명, 서기장 쟈크 보멜. **사회당** 1905년에 조직, 우익사회주의정당으로서 나토의 강화를 주장하며 《구라파통합론》을 지지한다. **통일사회당** 독립사회당 (1958년 9월 조직)과 사회주의좌익련합 등이 련합하여 1960년 4월에 창건. **급진사회당** 1901년 창립. **인민공화당** 1944년에 창립된 부르조아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천주교 계통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및사회주의항쟁동맹 1945년 여러 단체의 련합으로 창립되였고 사회당과 류사한 정강을 내걸고 있다. **로동총련맹**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프랑스에서 제일 큰 로조단체. **공산청년동맹, 전국학생련맹, 녀성동맹.**

【주요국내사건】 1965년에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에 따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치렬한 정권쟁탈전이 벌어졌다. 12월 5일에 있은 선거에서 드 골을 포함한 6명의 립후보자들중 어느 한사람도 대통령당선에 필요한 과반수표를 얻지 못하였다. 헌법에 따라 12월 19일 드 골과 좌익의 공동립후보자인 《민주주의및사회주의항쟁동맹》의 미테랑간에 진행된 《결전투표》에서 드 골은 54.5%의 지지표를 얻어 겨우 대통령으로 되였다.

드골도당은 서구라파에서의 군사적지도권을 쥐기 위하여 《독자적핵무력》을 창설하여 군비를 확장하는데 미쳐 날뛰였다.

1966년 4월 7일에 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였다.

1965년과 1966년은 정부의 략탈적인 경제정책과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광범한 파업투쟁으로 특징지어졌다.

1965년에 근로자들은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에 따르는 임금동결과 해고를 반대하며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단체계약의 갱신, 로조의 자유를 요구하여 년초부터 완강히 싸웠다. 1월 27—28일 빠리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250만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단행한 48시간 총파업을 비롯하여 년중을 통하여 파업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66년 5월 17일 약 700만명의 각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단행한 전국적인 총파업은 드 골 집권이래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였으며 프랑스의 경제를 일시 마비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영웅적웰남인민들을 지지성원하는 프랑스인민들의 련대성도 강력히 표시되였다.

빠리, 마르세이유를 비롯한 전국 각지 근로자들은 《양키는 웰남에서 물러가라!》, 《죤슨은 살인자다!》, 《웰남에 평화를!》이라는 구호밑에 시위, 군중집회, 항의문, 서명운동 등 각종 형식으로 미제침략자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1965년에는 많은 지방들에서 《웰남인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였고 1966년에는 《웰남을 위한 10억프랑운동》이 조직되여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보낼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비롯한 각종 원호물자들과 자금수집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대외관계】 드 골은 그가 대통령으로 된 1959년 이후 견지하고 있는 《구라파인의 구라파》로선에서서 서구라파에서 미제의 세력을 배제하고 프랑스의 주도권을 세우려는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65년 7월 1일 남조선강점 《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 대표를 철수하였다.

미제와의 관계 드골도당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미제의 지배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여 나섰다.

1965년 5월 28일 프랑스외무성은 세아토본부에 상주하던 자기 군사대표의 철수를 발표하였으며 세아토리사회에 정식대표를 보내는것을 거부하였다.

프랑스와 미제와의 관계는 특히 나토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되였다.

1965년에 드 골은 4월 27일의 방송연설에서 《프랑스의 국방과 경제와 공약이 미제의 무기와 물질적지배 및 정책에 예속될 대서양동맹과 같은 기구에 흡수되는것을 거부한다》고 도전하였으며 프랑스외상 뮤르빌은 5월 20일 국민의회 외교위원회에서 《나토는 시끄럽고 돈이 드는 기구이며 프랑스자신의 방위에 대한 프랑스의 책임과 모순되는 존재로 되여있》기때문에 나토의 기한이 끝나는 1969년에 나토를 개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정부는 1965년 8월 4일 나토산하에 있는 프랑스전술공군을 소환하여 자기의 국방성관하에 넘겼으며 1966년 6월에 나토중구라파통합군사령부휘하에 있었던 프랑스군 전체를 철수하였고 7월 1일에는 나토군최고사령부 참모부에 소속된 프랑스장교와 기타 군사인원들까지 정식으로 떼여냈다.

미제는 프랑스령토로부터의 나토본부와 기지들의 철수비용을 프랑스에 부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프랑스정부는 이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죤슨은 저들의 군대와 기지들이 프랑스령토로부터 철수하는데 2년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드 골은 죤슨의 요구를 일축하고 《1967년 4월 1일이라는 마감날자는 고수되여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군사령부(1967년 3월 14일)와 나토최고사령부 (1967년 3월 30일)는 프랑스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프랑스는 또한 1966년 5월 4일 미제에게 보낸 각서에서 미국비행기와 나토성원국비행기들의 프랑스령공비행과 프랑스령토 착륙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경제면에서도 프랑스는 미제의 딸라와 자본의 패권에 정면으로 맞서나갔다.

1965년 1월 12일 프랑스재정상 데스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딸라가 차지하고있는 지배적지위를 철폐할것을 요구하였으며 1965년 2월 4일 드 골은 기자회견에서 딸라와 영파운드를 기준으로 하는 현국제통화제도를 금본위제로 개혁할것을 주장하면서 딸라의 패권에 맞서나섰다. 그 후 드골도당은 프랑스가 가지고있는 딸라를 미제의 금과 바꾸어냄으로써 딸라위기에 허덕이는 죤슨도당을 더욱 곤난한 처지에 몰아넣었으며 미제자본의 침투를 막기위한 특별위원회를 내각에 설치하면서 미제자본의 지배에 맞서나갔다.

서독과의 관계 드 골과 서독수상 에르하르트는 1965년(1월과 6월)과 1966년 (2월과 7월)에 네차례에 걸친 호상방문회담에서 웰남문제, 구라파《공동시장》문제, 나토문제, 서독주둔프랑스군대의 지위문제 등 광범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나 량국간의 리해관계의 대립과 에르하르트의 친미로선강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간에 날로 커가는 모순을 더욱 드러내놓았다. 웰남문제에서는 미제의 웰남침략정책에 도전적태도를 견지하는 드 골의 립장과 전쟁두목 죤슨의 웰남 침략을 로골적으로 지지하는 에르하르트의 립장이 대립되였다.

나토문제토의에서 에르하르트는 나토의 군사기구를 통하여 핵무기를 손에 넣음으로써 서구라파에서 지도적인 군사적지위를 확보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으나 드골은 서독의 이러한 야심을 배척하고 서독의 핵관리참가를 반대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 4월 25—30일에 쏘련외무상 그로미꼬가 프랑스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8일—11월 12일에는 프랑스외상 뮤르빌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6년에는 드 골이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지도자들과 회담하였다. 회담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량국간의 경제, 과학, 문화적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966년 12월에는 쏘련수상 꼬씌긴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프랑스지도자들과 회담하였으며 방문기간에 량국간의 령사협정을 조인하였다.

프랑스정부는 1965년 4월 27일 몽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기타나라들과의 관계 영제국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프랑스반동정부는 1965년 4월 영국의 《대서양핵무력》창설안에 반대하여나섰다. 1966년 7월 런던에서 있은 량국간의 회담에서도 영제국주의자들은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가입희망을 거듭 표시하면서 프랑스의 지지를 요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프랑스측은 영제국주의의 《로마조약》준수를 전제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언질을 피하였다.

드 골은 1966년 8월말부터 9월초의 19일간에 걸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캄보쟈를 방문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며 태평양지역의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를 강화하려고 애썼다.

경 제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 암염, 석유, 연 및 아연 등이다.

중요공업부문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전체 공업기업소수의 0.065%에 해당하는 대기업소가 전체공업의 년간거래액의 37%, 국민총생산의 34%, 전체 로동력의 15%를 차지하고있다. 대기업소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대독점자본가들이 큰 기업소 자본의 55%, 류통액의 48%, 로동자, 사무원의 41%를 차지하고있다.

1966년에 석탄채굴, 철광채굴, 흑색야금부문들에서는 불경기가 지속되였으며 금속가공공업과 강철생산은 1965년의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의 45%가 경작할수 있는 지대이며 그중 3%는 포도원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사탕무우, 귀밀, 옥수수, 감자 등이다.

전체 인구의 28%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는데 그중 4.2%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 (50헥타이상)가 전체 경지의 30%를 가지고 있다.

1955년 이후 프랑스의 농업에서는 자본주의적집중화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졌다. 1955—1963년 기간에만도 소농경리의 18%에 해당하는 38만 5천호가 파산당했다. 이 기간에 매년 감소된 평균 농호수는 1919—1928년 기간의 3배이상에 해당하였다. 이 기간에 중농경리도 많이 파산하였다.

이리하여 1955년이후 10년동안에 농촌경리의 자본주의적집중화로 파산된 중소농가호수는 70만호에 달하였다.

1966년에 농산물생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본알곡인 밀의 수확량은 1965년에 비하여 21%나 줄어들었으며 감자와 사탕무우 생산도 줄어들었다. 포도주생산도 약 10% 감소되였다.

1966년에 프랑스의 수입이 수출보다도 더욱 증대되여 17억프랑의 무역적자를 냈다. 이것은 프랑스무역액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구라파시장에서 상품판로를 위한 렬강간의 경쟁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있는 사정을 반영하고있다.

사회 재정 및 경제성의 보고에 의하면 1966년에 물가는 현저히 올라갔다. 현재 440만의 프랑스근로자들이 한달에 보통 361프랑 내지 600프랑의 임금을 받는데 이것은 최저생활비도 되지 못한다. 집 한간을 세내려면 매달 250—360프랑을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은 포함되여있지 않다.

드골도당의 1966—1970년의 5개년계획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욱 동결시키고 대중소비를 축소하며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앞으로 더욱 촉진될것이 예견된다.

실업자는 1966년말현재 32만 8천명에 달하였다.

학교교육형편도 한심한 처지에 있다. 교원과 교실의 부족, 교육비지출의 축감 등으로 100여만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사회의 부패상이 해마다 심해가고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알콜중독으로 죽는 수가 1년평균 2만명을 넘는다.

종교신자의 80%는 천주교도이다.

【출판】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아방가르드 (공청기관지), 뚜르퓨레르 (사회당기관지), 콩바(드골계).

스위스

(스위스련방)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구라파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다. 기후는 온화하나 지대의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면적】 4만 1,288km²

【인구】 594만 5,000명 (1965년)

주민은 독일계통 69.3%, 프랑스계통 18.9%, 이딸리아계통 9.5%이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를 쓴다.

【수도】 베른 (주민 16만 7,000명, 1963년)

정치 스위스는 1815년 윈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된 련방공화국이다. 제2차대전후 스위스는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구라파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제와 《원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중립국이라하여 유엔에는 가입하지않고있다.

1960년 10월 국민의회는 1천명이상의 상비군을 확장하며 핵무

장화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대통령】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내각성원 7명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선출.

대통령 로제 본벤 (1966년 12월 —)

【국회】 량원제. 상원인 주평의회는 44명 (매주에서 2명씩), 그 선출방법과 임기는 각주에서 결정, 하원인 국민의회는 200명, 임기는 4년, 현국민의회는 1963년 10월에 선거되였다.

한개주를 빼놓고는 녀성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에서 채택된 법안이라도 90일이내에 주민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받아야 실시할수 있게되여있다.

【내각】 내각인 련방평의회는 국회 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각주는 2명이상의 내각성원을 내놓을수 없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에 조직. **천주교보수당**, **급진민주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사회민주당의 영향하에 있다).

경 제 지하자원은 적으나 1962년에 여러지방에서 우란광이 발견되였다. 주민의 49.5%가 공업에 종사하고있다. 특히 시계 (생산의 95—97%는 수출), 치차를 비롯한 정밀기계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산지가 많고 경지는 전국면적의 6%에 불과하며 알곡생산량은 국내수요의 60%밖에 안된다.

축산업이 농업수입의 75%이상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시계, 레스, 자수품이다. 관광업도 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화폐는 스위스프랑이다.

1964년 8월현재 72만명의 외국인로동자들이 있다.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Republic of Italy

구라파남부에 위치하며 지중해에 돌출하고있는 이딸리아반도와 사르디니아도, 시칠리아도를 포함한 7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지고있다.

기후는 온화하나 겨울에 추위가 심하며 남부는 여름에 몹시 무덥다.

【면적】 30만 1,226㎢

【인구】 5,317만 1,000명 (1966년 8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인이고 북부에 독일, 프랑스, 슬라브족이 살고있다.

언어는 이딸리아어를 쓴다.

【수도】 로마 (주민 312만 9,000명, 1965년 8월).

정 치 기원 476년부터 외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세기에 접어 들면서 통일운동이 일어나 1870년에 통일을 완성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는 련합국측에 가담했다가 패전하였으며 1924년 무쏠리니의 파쑈정권이 수립되였다.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였고 1937년에는 일제와 파쑈독일의 《반공협정》에 참가하였으며 이해에 국제련맹에서 탈퇴하였다.

1940년 6월 쏘련, 영국, 프랑스에, 동년 12월에는 미제에 선전포고하였다.

1943년 7월 쿠데타로 무쏠리니 파쑈정권이 전복되고 같은 해 9월 련합국에 무조건항복한후 이딸리아는 이해 10월 독일에, 1945년 7월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

제2차대전후 1946년 6월 국민투표에 의하여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1947년 12월 제헌의회에서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948년 1월 1일부터 실시).

이딸리아는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나토(1949년),《서구동맹》 (1955년), 구라파 《공동시장》과 《유라톰》 (1957년) 등 제국주의기구에 가담하였다.

이딸리아는 영제국주의자들의 구라파 《공동시장》가입을 지지하고있으며 《미제와의 뉴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구실밑에 미제의 침략책동에 추종하고있다.

【대통령】 18개 지방대표 (각지방에서 3명씩)가 참가한 상하량원 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의 다수가결로 선출한다. 3회의 투표로서 결정할수 없을 때에는 절대과반수로 선출한다. 임기는 7년, 1964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통령 류제페 사라가트 (사회민주당)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315명, 하원의원은 630명, 임기는 다 같이 5년, 1963년 4월의 선거에서 공산당은 상원에서 85석, 하원에서 166석을 차지하여 제2당으로 되였다.

【내각】1966년 2월 23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사회당 및 공화당으로 구성된 련립내각이 조직되였다.

수상 알도 모로 (기독교민주당), 외상 아민토레 판파니 (기독교민주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당원 154만 2천명 (1966년 6월), 총비서 루이지 롱고. **사회당** 1892년 창건, 1943년 재조직, 당원 42만 7천명 (1965년).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1964년 1월 11일 넨니의 사회당지도부의 우경화와 모로정부에의 참가를 반대하여나선 사회당내의 좌파가 조직, 당원 16만 4천명 (1965년) **기독교민주당** 1943년에 성립, 당원 164만명 (1964년), 대독점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 **사회민주당** 사회당내 우익분자들이 떨어져나와 1947년에 조직. **자유당** 1929년에 조직된 반공정당. **공화당** 1892년에 성립, 왕제를 반대하는 보수당. **사회운동당** (네오파시스트

당) 1947년에 파쑈잔당들이 조직한 정당. **로동총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극히 적으며 철과 석탄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자원은 아연, 연, 망간, 보크사이트, 수은, 대리석 등이다.

이딸리아경제에는 미제독점자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자본이 침투하고있다. 196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이딸리아에 침투한 외국자본은 무려 314억 리라에 달하였다. 외국자본은 주로 원유가공공업, 화학 및 제약공업 기계제작공업, 야금공업 등에 침투하고있다.

1962—1964년간에 이딸리아에 대한 미제의 직접투자는 8억딸라에 이르렀으며 이 나라에 있는 미제회사들은 주로 화학, 전기기계, 석유 및 기타 중요공업부문에 침투하고있다.

1962년에 이딸리아에 들어온 서독독점자본이 이딸리아정부자체의 투자액의 2.4배였다면 1965년에는 3.3배로 늘었다.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1961—1964년에 농업인구는 20%이상이 줄었으며 1963년 7월—1964년 7월에 40만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고 농민부채는 1954년말의 1천 912억리라로부터 1965년말에는 9천 380억리라로 늘었다. 농민의 90%이상이 로동자들의 평균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농업위기는 이딸리아가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한 후부터 더 심하다. 《공동시장》에 가입한 결과 경지면적이 줄어 들고 농업생산이 떨어졌다. 따라서 서구라파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도 줄어들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올리브, 옥수수 등이다.

대외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66년 1월부터 10월까지에만도 대외무역적자는 2천 560억리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196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천 50억리라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화폐단위는 리라, 1리라는 100 센티시미.

재정년도는 1965년부터 력년제(1월—12월)로 바뀌였다.

1965년에 군사비는 1조 2천 397억 5천 300만리라, 경찰유지비는 2천억리라 이상이였다. 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경제의 쇠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은 령락되였다.

이딸리아로동성의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6년에 완전실업자는 125만여명, 반실업자는 217만 4천여명이나 되였다. 1965년 4월—1966년 4월까지의 기간에 19만 7천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1965년 4월부터 1966년 4월까지의 기간에 소매가격이 2.7%, 생계비는 2.4% 높아졌다. 특히 식료품값과 집세가 올랐다.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1966년 한해동안에 31만 2천명의 이딸리아인이 자기나라를 등지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1966년 12월말 현재 외국에서 떠돌아다니고있는 이딸리아공민은 480만명이나 된다.

1966년에 근로자들은 민주주의적자유와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 (아젠찌아 나찌오날라스탐파 아쏘치아따)

신문 우니타 (공산당기관지), 아반티 (사회당계), 코리에레 데라 세라 (밀라노), 메싸 젤로(로마), 파에제 쥬스티찌아 (사회민주당계).

바 티 칸

이딸리아의 로마시내 바티칸언덕우 (성안)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도시 국가이며 로마천주교의 근거지이다.

【면적】 0.44km²

【인구】 1,000명 (1964년)

공용어는 이딸리아어이나 일반적으로 라틴어를 쓴다.

【법왕】 파울 6세 (1963년 6월 21일)립법, 사법, 행정권 장악.

법왕아래에 법왕청 이 있다.

1377년부터 존재하던 로마법왕청이 1870년 이딸리아의 통일과 함께 이딸리아에 병합. 1929년 2월 11일 이딸리아정부와 체결한 소위 《라테라노》조약에 의해 바티칸이 성립. 법왕청의 주요사업은 세계도처에 종교대표를 파견하며 그 나라들에서 반공,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도록책동하는 것이다.

바티칸은 교회들 (승려만도 약 40만명), 자기 《외교사절》들, 천주교정당 등을 비롯한 조직들과 출판물, 자체의 방송을 통하여 천주교를 전파하고있다. 특히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행위들을 감행하고있다.

산 마리노

(산 마리노공화국)

산 마리노는 (산 마리노공화국 창건자의 이름) 아페닌산맥을 끼고있으며 아드리아해협으로부터 18키로메터 떨어져있다.

【면적】 61km²

【인구】 1만 6,000명 (1964년)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다. 언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수도】 산 마리노 (주민 3,000명).

산마리노는 기원전 4세기에 창건되였다.

이딸리아와 1862년 《관세동맹》을, 1897년에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1945—1957년간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이딸리아반동의 책동으로 련립정부는 전복되고 1957년 10월 이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1958년 9월 우익정부는 공산당과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 박해하고 모든 정치집회를 금지시켰다.

【의회】 1원제, 의원 60명 (임기 5년, 1964년 9월 13일 선거).

【정부】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수반인 2명의 섭정 (임기 6년)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정당】 **공산당** 1959년 의회선거에서 공산당은 26%의 투표를 받아 16석을 차지. 총비서 에르벵길 가스페르니.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업은 매우 락후하며 농업이 기본이다. 비교적발전된 경제부문은 축산업, 포도재배, 원예이다. 주산물은 밀, 포도 및 포도주, 축산품, 석재 등이다.

주요수입원천은 우표발행과 관광업이다. 통화는 이딸리아화폐.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오지리와 스위스사이에 있다. 평원은 전국토의 25%, 기후가 온화하며 6,7월 평균기온은 18°C 이다. 산악지대는 12°C, 년평균강수량 700~1,200mm.

【면적】 157km²

【인구】 1만 8,000명 (1964년)

주민은 게르만족 (독일계)이며 언어는 독일어.

【수도】 바두쯔 (주민 3,700명)

【국왕】 프란쯔 요세프 2세 (1938년 7월 25일—)

【의회】 의원은 15명으로 구성 (임기 4년).

【정부】 의회를 책임진 4명의 상들로 구성.

수상 제라르드 바트리나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1867년에 영구중립국으로 되였다. 제1, 2차세계대전시기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전후에 해방되였다. 군사, 외교, 재정은 스위스가 대행한다. 정규군이 없고 14명의 경찰과 40명의 보조경찰이 있을 뿐이다.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등 정당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 (주로 소)이다.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주요농산물은 옥수수, 보리, 밀, 과일 등이다.

중요한 수입원천은 석탄이다.

방직, 금속, 피혁, 토기, 철기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적인 공장이 있다. 현미경과 쌍안경 등 정밀한 기계가 생산된다. 최근 미제의 자본이 침투하고있다. 목재가공공업이 발전, 전국적으로 인민학교가 14개, 성인학교 5개가 있다.

주민의 약 99%가 천주교도이다.

【출판】 **신문** 리히텐슈타인(정부기관지).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프랑스와 에스빠냐사이, 피레네산맥에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좁은 골짜기와 높은 산으로 되여있으므로 주민들은 6개의 부락에 흩어져 살고있다.

【면적】 453km²

【인구】 1만 5,000명 (1964년)

주민은 주로 카탈로니아어를 쓰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사용한다.

【수도】 안도라 (주민 1,500명)

프랑스와 에스빠냐가 안도라의 령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가 공동으로 이 나라의 종주권을 가지고 상주대표부를 파견하여 관리하고있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우르젤주교 (에스빠냐)의 예속하에 있는 공국이다. 립법권은 총참사회 (24명, 임기 4년)에 있고 행정권은 총참사회가 임명하는 장관 (대통령)에게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목축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포도, 알곡, 담배 등이다.

유람객들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한다. 2개의 자동차도로가 있을뿐이다. 카톨릭교도가 많다.

에 스 빠 냐

Estado Espanol

구라파대륙의 서남쪽, 이베리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뽀르뚜갈,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면서 대서양,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국토의 대부분 (전령토의 3분의 2이상)은 고원지대 (해발 500메터이상)이며 기후는 건조하다. 1월 평균기온은 북부와 중부에서 8~10°C, 남부에서 10~12°C, 7월평균기온은 중부와 남부에서 24~26°C, 남동지방에서 28~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500~2,000mm, 내륙지방에서 500mm이하이다.

【면적】 50만 3,500km² (발레아르, 카나리아 두 군도를 포함)

【인구】 3,160만 4,000명 (1965년 6월). 에스빠냐인이 대다수이고 카탈로니아인, 갈리아인, 바스키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드리드 (주민 263만 4,619명, 1965년 10월 31일)

정 치 1479년에 회교국가가 멸망하고 에스빠냐통일국가가 형성되였다. 16세기에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에스빠냐는 17세기이래 영국, 화란, 프

랑스,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식민지를 빼앗기고 식민지였던 중남미국가들이 독립함에 따라 점차 쇠퇴하였다.

1923년 군사파쑈독재가 수립되였으나 1931년 인민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통해 군주제를 전복하고 다시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36년 7월 프랑코가 내란을 일으키고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 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1939년 8월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프랑코는 1947년 왕위계승법을 발표하고 자신의 종신대통령제를 법문화하였으며 자기가 죽거나 총통의 직무를 볼수 없게 될 경우에 군주정체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프랑코도당은 1953년 9월에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9월 26일에는 이 협정의 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였다. 이 나라에는 5개의 미제공군기지와 2개의 미제해군기지가 있고 약1만명의 미제침략군이 주둔하고있다. 사라고사에는 미제 16전략공군사령부가 있고 로따항에는 미제6함대와 폴라리스원자력잠수함의 기지가 있다. 1964년 6월 영제국주의자들과도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프랑코도당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1965년 12월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을 지지하여 《의료부대》를 남부윁남에 보낼것을 미제와 언약하였다.

1966년에 미제와 프랑코독재반동정권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처지개선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핵폭탄과 《신형핵탄두를 가진 2개의 유도탄》을 실은 미제의《비52》 폭격기가 에스빠냐상공에서 추락 (1월17일)된것과 관련하여 1월 21일에 팔로마레스시 주민들이 시위를 진행하였다.

2월 4일과 11일에 2천여명의 로동자들과 대학생들이 미제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자국주재 미제대사관앞에서 시위하였다.

3월에 《데 드 나쇼날 데 젤로 카릴레스 델 에스타도》회사 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해고를 반대하여 파업하였다. 이러한 투쟁들은 빌바오, 바르쎌로나, 산세바스띠얀, 마드리드, 빌리야레알, 수마다가시에서 특히 많이 전개되였다.

청년학생들도 학원의 정치적자유, 교육의 민주화 등 프랑코도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441명, 절반이상은 총통이 올려놓고 일부는 선거한다.

【정부】 1965년 7월 내각개조와 때를 같이하여 부총통을 임명, 총통겸수상 프랑시스코 프랑코, 외상 페르난도 마리아 카스티엘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팔랑헤당 (집권당), 파쑈정당으로서 1937년 창건, 지도자 프랑코.

경제, 사회 철, 석탄, 동, 수은 등 지하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농업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농경지는 150만헥터 (전 령토의 40%)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올리브, 포도, 감, 귤 등이다.

1959—1963년간에 5억딸라의 외국자본이 들어왔는데 그중 54%가 미제독점자본이였다.

인구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1964년 현재 250만이상의 농민이 5헥터이하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반면에 1%의 대토지소유자들은 약 230만헥터 즉 경지의 약 55%를 소유하고있었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 (약 60%), 광물원료 (약 7%)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약 20%), 화학제품 (약 17%), 원유 (약 25%) 등이다.

통화는 뻬세따, 1뻬세따는 100산티모.

1965년 1—11월 사이에 생계비는 12%, 농산물가격은 30—70% 올랐다. 일반로동자의 한달임금은 최저생활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생계비는 1965년 한해동안에만도 16.8%나 올랐다. 163만세대의 약 700여만명이 기아에서 허덕이고있다.

1965년에 113만건의 로동사고로 6천 500명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출판보도】 통신 이 이프 이 통신.

신문 문도 오브레로 (공산당기관지), 마드리드(팔랑헤당계).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Republic of Portugal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있다.

동쪽과 북쪽은 에스빠냐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대서양에 면해있다. 산지가 많으며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9만 2,200km² (아조레스마데이라군도 포함)

【인구】 917만명 (1965년)

주민의 99.5%가 뽀르뚜갈인, 공용어는 뽀르뚜갈어.

【수도】 리스본 (주민 90만명, 1965년).

정 치 1910년 혁명으로 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25년에는 군사독재정권이 출현하였다. 1932년 독재자 살라자르가 내각을 구성하고 1933년 새 헌법을 조작하여 《조합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1949년에 침략적나토에 가입하였다. 아조레스군도와 본토에 나토의 군사기지가 있다.

1965년 8월 베쟈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주의자들과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과 비밀군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살라자르독재정권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10만의 군대를 투입하여 앙골라, 뽀르뚜갈령기네, 모잠비크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여 식민지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뽀르뚜갈은 구라파제국주의자들과 미제의 지원하에 아프리카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하고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빈번한 국경침범과 학살만행으로 많은 아프리카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있는데 그 수는 1966년 10월현재 85만명에 달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전쟁에 필요한 무력증강에 더욱 골몰하고있는바 1966년에 군사비는 예견했던것의 2배나 되는 45억에스쿠도였는데 이것은 이해 국가예산의 87%를 차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인플레가 증대되였고 세금이 올랐으며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간 사람의 수는 1966년 현재 30여만에 달하였다.

최근시기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발전되여 살라자르독재정권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 넣고있다.

【대통령】 1959년 6월부터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제로 되였다. 그의 임기는 7년.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

【의회】 2원제, 국민의회는 130명, 직접선거로서 선출된다. 조합의회는 135명으로 구성, 조합대표가운데서 선출된다. 임기는 각각 4년.

【정부】 내각 성원은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하나 실권은 수상이 쥐고있다.

수상 안토니오 데 올리베리아 살라자르

외상 알베르트 프랑코 데 노게이라.

【정당, 사회단체】 파쑈정당인 **국민동맹** (1930년 성립, 지도자 살라자르)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비법화되여있다. **공산당** 1921년 3월 31일 창건, 1926년부터 비합법적으로 활동, 총비서 알바로 쿤할. **뽀르뚜갈민족해방전선** 1962년에 모든 야당이 망라되여 성립, 지도부는 알제에 있다. 정부 감독하의 어용로조만 허용되고 기타 로조의 조직은 금지되여있다.

경제 구라파에서 가장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대지주들이 경지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포도, 맥류, 옥수수 등이다.

이 나라에서 수산업은 주요산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코르크를 많이 생산한다. 석탄, 동, 주석, 망간이 매장되여있으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공업은 보잘것 없으며 미, 영, 프랑스, 서독독점체의 수중에 있다.

화페는 에스쿠도 (1에스쿠도는 100센타보).

말　　타
Republic of Malta

지중해중부에 있으며 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개섬으로 이루어지고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개이다.

그중 제일 큰것이 말타도 (면적 246km²)이다.

【면적】 316km²

【인구】 32만 4,000명 (1965년)

말타인외에 소수의 이딸리아인과 기타 구라파인이 있다.

말타어외에 이딸리아어와 영어도 쓴다.

【수도】 발레타 (주민 1만 8,348명 1963년)

정치 말타는 1798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강점되였다가 1800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7년에 말타는 내부자치를 획득하였다. 1955년 2월 로동당의 민토프내각이 수립되여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실시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59년 3월 24일에 말타의 내부자치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말타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1961년 11월 다시 내부자치가 실시되였다.

말타는 1964년 9월 2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7월 말타에 《군사조약》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제국주의자들은 말타독립후에도 10년간 군대주둔권과 어느때든지 말타를 강점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말타에 침략적인 나토지중해사령부가 계속 남아있게 되였다. 그 대신 말타는 5천만파운드를 받기로 하였다. (1965년말 현재 4천명의 영국침략군이 주둔)

로마카톨릭교가 이 나라에서 큰 정치적영향력을 가지고있다.

【립법회의】 정원은 50명, 임기는 5년.

【정부】 수상 지. 올리비에

【정당】 **국민당** 현 집권당으로서 천주교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하며 영국과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 지도자 지. 올리비에 **로동당** 1921년에 조직, 소부르죠아지, 지식인들로 구성된 부르죠아정당, 천주교의 정치적간섭반대, 군사기지의 철페를 요구.

경제 경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경작지는 1만 4천 500헥터, 주산물은 밀, 목화, 올리브, 포도(년 생산량 2천톤)등이다.

공업은 파일, 남새 등을 가공하는 수공업공장이 있는 정도이다. 통화는 말타파운드.

미 주

꾸 바

(꾸바공화국)

La Republica de Cuba

메히꼬만에 있는 서인도제도중 제일 큰 꾸바본토섬을 포함하여 1천 6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덥고 습기가 많은 열대성이며 낮과 밤의 기온의 차는 1~2°C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기온은 겨울에 20°C, 여름에 28°C이다. 5—10월까지의 습도는 77%이며 년평균습도는 79%이다.

【면적】 11만 4,524km

【인구】 793만 7,200명 (1967년 7월)

【수도】 아바나 (주민 168만명)

정 치 꾸바는 1492년에 꼴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16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꾸바인민은 장기간에 걸쳐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해방투쟁을 전개하였다.

1868—1878년에 제1차독립전쟁을 전개하였으며 1895년에는 호세 마르띠의 지도하에 제2차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1898년 4월 25일 미국—에스빠냐전쟁이 개시되였으며 전쟁에서 에스빠냐가 패배한 결과 꾸바는 미제의 예속하에 들어가게 되였다.

꾸바를 강점한 미제는 1902년 5월 20일에 주구 파르마를 시켜 괴뢰정부를 조작하고 《꾸바공화국》을 선포케하였다.

미제는 괴뢰파르마를 강박하여 1903년에 관타나모를 《조계지》라는 명목하에 강점하고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꾸바인민은 1906년 8월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파르마괴뢰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미제는 인민봉기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1909년까지 꾸바에 대한 가혹한 군정통치를 실시하였으며 1912년, 1917년에는 직접 무력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1934년 1월 15일 미제의 주구 바띠스따는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꾸바인민은 미제의 예속과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의 지휘하에 165명의 꾸바의 애국자들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의 군사요새인 몬까다병영을 습격함으로써 무장투쟁의 첫봉화를 올렸다.

이 습격에서 피델 까스뜨로를 비롯한 수십명의 꾸바애국자들이 체포되여 15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피델 까스뜨로와 그의 전우들은 옥중에서도 바띠스따도당의 폭압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바띠스따도당은 1955년 5월 15일에 피델 까스뜨로와 그의 전우들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석방된 피델 까스뜨로와 애국자들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메히꼬로 망명하였다.

피델 까스뜨로의 지휘하에 82명으로 구성된 혁명군은 메히꼬에서 범선 《그란마》호를 타고 국내에로 진격하여 1956년 12월 2일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이 상륙전에서 대다수가 희생되고 살아남은 12명은 7정의 총을 가지고 피델 까스뜨로의 지도하에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개시하였으며 점차 대오를 확대하여갔다. 6천명의 무장대오로 장성한 혁명군은 1958년 8월부터 총공세로 넘어갔으며 드디여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독재정권을 전복하고 1월 3일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낡은 독재기구를 청산하고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도시개혁 등 혁명적인 사회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혁명무력을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꾸바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미제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영웅적꾸바인민은 1961년 4월 19일 플라야 히론에 침공한 미제고용병들을 72시간 동안에 소탕하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10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전반적《무력봉쇄》로 인하여 조성된 《카리브위기》시에 꾸바혁명정부와 인민은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카리브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5개조항의 요구조건을 제기하였으며 미제가 요구하는 《꾸바에 대한 시찰》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꾸바인민은 미제의 《봉쇄》를 파탄시키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1963년 11월 28일 의무병역법 (징집대상자 17—45세의 남자)을 발표하였다.

1964년 10월에는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1959년 2월 16일 —)

부수상 겸 혁명무력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외무상 라울 로아 가르씨아

【정당, 사회단체】 **꾸바공산당** 1962년 3월 8일에 《7월 26일 운동》, 《3월 13일 혁명지도부》, 《인민사회당》이 통합하여 조직된 통일혁명조직을 1963년초에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쳤다가 1965년 10월 2일 꾸바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혁명근로자중앙,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 1962년 3월 30일 《꾸바청년봉기협회》를 현재 이름으로 고쳤다. **꾸바녀성련맹** 1960년 8월 23일 창설. **꾸바혁명위원회** 1960년 9월 28일 창설.

【주요국내사건】 1965년 1월 1일 혁명승리 6주년 기념군중대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1965년을 《농업의 해》로 규정하고 사탕증산과 《더많은 우유, 더많은 육류, 더많은 닭알》을 생산할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4월 17일 플라야 히론전투승리 4주년 기념행사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제기하였으며 5월 18일 내무성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적을 경시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부단히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전국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직비서를 임명하고 혁명무력 및 국가안전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종전의 사회주의혁명통일당을 공산당으로 고치기로 하였다. 회의는 또한 신문《오이》와 《레보루씨온》을 통합하여 당기관지 《그란마》를 창간하기로 하였다.

1966년 1월 2일 혁명승리 7주년기념군중대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1966년을 《련대성의 해》로 규정하였다.

2월 새로운 헌법작성을 위한 《헌법제정위원회》가 조직되였다.

3월 5일 《그란마》지는 반혁명분자들이 피델 까스뜨로수상에 대한 암살음모를 기도하였다는 국가안전국의 공보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에 잠입한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적발숙청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당 및 국가기관을 혁명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였다.

8월 25일 꾸바혁명근로자중앙 제1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직맹의 과업과 목적을 규정하는 새 규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25개의 산별직맹을 14개로 축소하였으며 새 지도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직맹활동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였다.

12월에 꾸바 녀성련맹 제5차전국대회가 진행되였는바 여기서는 생산활동에 녀성들을 적극 인입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

7월 13일 혁명정부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있을수 있는 미제의 침략에 대처하여 전시에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들을 민간보위과업수행에 동원시킬 목적으로 민간보위전국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가 임명되였다.

이때부터 예비역군인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외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꾸바국경절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이 밖에 직맹대표단 (4월), 가극대표단 (6월), 친선대표단 (7—8월), 사로청대표단 (10월)이 각각 꾸바를 방문하였다.

한편 꾸바에서는 의학대표단 (3—4월), 몽골주재 꾸바대사 (4월), 가극대표단(4—5월), 기자대표단(6—7월), 군사대표단 (7—8월), 친선대표단(8—9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6년 10월 25—29일에는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당 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 기회에 량국 당 및 정부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10월 28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꾸바대통령과 라울 까스뜨로부수상에게 국기훈장 제 1급, 기타 단원들과 수원들에게 자유독립훈장 및 국기훈장 제3급을 수여하였으며 조선주재 꾸바대사에게 국기훈장 제2급을 수여하였다.

한편 1965년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철거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월간 (6월 25일—7월 27일)에는 꾸바수도 아바나와 오리엔떼주 및 까마궤이주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꾸바인민들의 대중적집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966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의학대표단(2월), 군사대표단 (4월), 직맹대표단 (4월), 가극대표단 (5월), 친선대표단(7월), 학생대표단 (7월), 녀맹대표단 (7월), 직맹대표단 (8월), 과학원대표단 (11월), 사로청대표단 (12월), 문화대표단 (12월)등이 각각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평양가무단이 꾸바를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다.

한편 꾸바에서는 가극대표단 (5월), 음악단 (6월), 과학원대표단 (7월), 가극대표단 (8월), 정부친선대표단 (9월), 무역대표단 (9월), 축산대표단 (9월), 정부통상대표단 (10월), 공청대표단 (12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 6일부터 꾸바신문과 방송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상세히 보도하였는바 《그란마》지는 1면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은 경제건

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데 있다.》 2면에는 《공산당들은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라는 표제밑에서 김일성동지의 사진과 함께 당대표자회의 보고를 련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또한 라지오는 물론 텔레비죤방송에서도 계속 사진들을 배합하여 방송하였다.

6.25를 계기로 개시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는 조선과의 련대성 꾸바조직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6월 23일과 27일 2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의 련대성으로 조선의 통일을 촉진시키자!》라는 구호하에 전국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 1965년에는 3월과 10월에 꾸바혁명정부 부수상 겸 혁명무력상인 라울 까스뜨로가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3월에는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10월에는 쏘련외무상 그로미꼬가 꾸바를 방문하였다.

1965년 5.1절 경축집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미제의 윁남침략을 규탄하고 사회주의진영이 윁남인민을 지원하여 윁남을 미제비행기의 《공동묘지》로 만들것을 호소하였다. 7월에 꾸바인민들은 제네바협정체결 11주년과 관련하여 반미투쟁을 진행하고있는 윁남인민들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깜빠니야를 전개하였다.

꾸바정부는 12월에 자기나라에 와있는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대표를 공식적인 외교대표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1966년 10월 17일 오스발도 도르띠꼬스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윁남을 방문하였다.

2월 2일 쏘련무역상이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10월혁명 49주년을 계기로 꾸바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2월 6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자기연설에서 《우리는 윁남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줄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 원조가 무장과 인원의 원조가 될것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윁남에 보다 적극적인 원조를 줄것을 호소하였다.

7월 26일 무장봉기 13주년기념연설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윁남문제는 전체 인류의 문제》로 전변되였다고 하면서 만약 윁남이 원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잘 훈련된 우리의 군부대를 파견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0월 9일 꾸바와 윁남간에 경제협정이 체결되여 꾸바는 윁남에 경제원조를 줄것을 약속하였다.

11월 23일 아바나에서 꾸바사회계대표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윁남에 대한 미제의 전쟁범죄반대투쟁꾸바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꾸바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65년 4월 30일 꾸바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각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냈다.

1965년 11월 13일 반혁명분자들의 해적선들이 아바나해안과 꾸바대통령사택에서 멀지않은 지역을 사격한 범죄행동과 관련하여 11월 14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이 범죄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미제에 있다는것을 폭로규탄하면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며 제국주의에 의하여 인민들이 희생되고있는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5년 8월 꾸바는 수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6년 5월 21일 미제는 꽌따나모기지에서 꾸바병사를 살해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7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범죄적인 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과 혁명무력이 경계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였다.

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꾸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수차에 걸쳐 사설을 통하여 유고슬라비아 찌또도당을 미제국주의정책의 도구, 미제의 앞잡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여 1966년 1월 15일 3대륙인민단결대회 폐막식연설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우리 꾸바혁명가들의 반제전투장은 전세계를 포괄한다》고 하면서 민족혁명투쟁에 대한 꾸바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혁명투쟁의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또한 3월 13일의 대통령궁전습격 9주년기념행사와 그리고 8월 29일의 꾸바근로자중앙 제12차대회 등에서 한 연설들에서 라틴아메리카민족해방투쟁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라틴미주에있는 친미괴뢰정권들을 규탄하였다.

국제기구, 국제회의 1966년 1월 3—15일까지 아바나에서는 제1차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가 진행되였으며 1월 16일에는 아바나에서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가 창설되였다.

7월 18일부터 아바나에서 라틴미주 27개국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7월 29일—8월 9일에는 아바나에서 제4차라틴아메리카대학생대회가 진행되였다.

11월 25일 3대륙인민단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꾸바에 《3대륙학교》가 설치되였다.

경 제

꾸바는 장기간에 걸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결과로 사탕만을 생산하는 단작경리를 강요당하였으며 민족경제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당하였다.

그리하여 꾸바는 사탕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목축국가로 남아 있게 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하여 꾸바는 경제건설의 방침을 현단계에 있어서는 사탕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목축업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농업에 봉사하는 공업적토대를 축성하며 이를 밑천으로 하여 장차 공업화를 실현시키려 하고있다.

혁명전에 전경지면적의 71%는 극소수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으며 가장 비옥한 토지의 4분의 1은 미제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었다. 혁명정부는 1959년과 1963년의 2차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67.1헥터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며 과거 지주들의 토지를 소작하던 10만명의 농민들에게 그가 소작하던 토지를 26.8헥터까지는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결과 농촌경리에서 전경지면적의 70%는 국영으로 되였으며 나머지 30%는 20만명의 소농들이 경작하고있다.

1964년에 정부는 국유화된 67만까발레리아 (1까발레리아—13.4헥터)의 방대한 면적을 포괄하여 국영농목축경리를 조직하고 유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에 있던 세개형태의 농장 (사탕농장, 인민농장, 국유화된 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농업기구체계개편사업을 끝냈다.

꾸바정부는 234만여헥터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소농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예비적조치로서 《농민협회》, 《신용및봉사협동조합》, 《농목축협회》를 광범히 조직하였다.

꾸바는 사탕생산에서 세계 제2위, 인구 1인당 소비량에서는 1위 (65.8키로그람)이며 세계최대의 사탕 수출국이다.

사탕생산은 1966년에 445만 5천톤, 사탕수수밭 면적은 1만 5천 100까발레리아였다. 1970년에 가서는 1천만톤의 사탕생산을 계획하고있으며 1965—1969년기간에 사탕공업분야에 4억 5천 160만페소를 투자할것을 예견하고있다.

꾸바는 농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66년에 사탕수수작업에 동원된 기계수는 콤바인이 1천대, 적재기는 4천 500대였으며 1968년에 기계화를 거의 끝낼것을 계획하고있다.

기타 주요농산물은 옥수수, 벼, 저류 등이며 그 외에 담배, 커피, 코코아, 헤네겐, 남방과일 등이다.

축산업에서 기본은 소인바 1966년에 678만마리, 육류생산량은 34만 4천톤에 달하였으며 우유생산량은 3억 7천 200리터에 달하였다. 1970년에 소는 8백만마리, 젖소는 330만마리를 계획하고있다. 가금분야에서 닭 총수는 1966년에 650만마리, 닭알생산은 월 6천만개에 달하였다.

꾸바는 농업생산을 1970년에 혁명전 1959년의 2배로 증대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꾸바혁명정부는 1960년 8월 6일과 10월 25일 국유화법을 공포하고 미제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12억딸라에 달하는 8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 결과 꾸바인민경제에서 오늘 사회주의경제형태는 공업부문에서 95%, 건설부문에서 98%, 운수부문에서 95%, 도매상업부문에서 100%, 소매상업부문에서 75%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공업총생산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90%이상에 달한다.

꾸바는 혁명승리직후부터 1964년 상반년까지 70개의 현대적공장에 4억 8천 800만페소를 투자하였다.

공업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사탕, 전력, 세멘트, 비료공업 등이다. 전력생산은 54만 5천 200키로와트이다.

꾸바에는 철, 크롬, 석유, 동,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미제의 식민지적지배하에서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혁명후에 대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꾸바는 1970년에 세멘트 250만톤, 전력 90만키로와트, 비료 100만톤을 생산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꾸바의 중요수출품은 사탕 (88.5%), 광석 (5.5%), 담배 (4.1%)이며 수입은 공장설비, 선박, 농업 및 공업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다.

사회, 문화

1964년에 사회총생산물은 1962년에 비하여 115%, 국민소득은 118%로, 1인당 수입은 112%로 늘었다. 1961년에 꾸바는 70만 7천여명의 문맹자를 퇴치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없는 나라로 되였다. 교육은 전반적으로 무료교육이며 초등(6년)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966년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수는 15만명이며 1967년초에는 20만명으로 장성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1965년 사회문화과학시책비는 6억 9천 564만 9천 246페소였다.

1965—1966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133만 2천명(혁명전 1948년의 2배)이였으며 중등학교 학생수는 16만 2천 722명이였다.

1966년에 꾸바에서는 21개의 공업기술학교와 11개의 공업기술전문학교, 6개의 농목축기술전문학교들이 운영되였다.

1965—1966학년도에 성인학교 학생수는 90여만명에 달하였다.

꾸바에서는 전국적으로 6학년 졸업자격획득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1965—1966학년도에 꾸바에서는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개의 단과 대학에서 3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1959—1963년간에 꾸바에서는 8만 5천 447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그중 5만 5천 447세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건설하였다. 1970년도부터는 매년 1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할것을 예견하고 있다.

1957년에 병원총수는 87개였다면 1965년에는 159개로 늘어났으며 의사의총수는 1958년의 1천 375명으로부터 1965년에는 6천 79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국가예산에서 보건부문에 돌려진 지출액은 2천 247만 945페소로부터 1억 4천 5만 1천 페소로 증가하였다. 사망률은 혁명전에 주민 10만명당 59.2명이였다면 혁명후에는 25.7명으로 줄어들었다.

1966년에 7만키로메터의 도로를 건설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프렌사 라티나(혁명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통신사로서 아바나에 본부를 두고있다.)

신문 그란마 (꾸바공산당기관지), 엘 문도 (일간 아바나신문, 무소속시민 대상), 후벤뚜드 레벨레 (꾸바공청기관지)

잡지 꾸바 소씨알리스따 (꾸바공산당정치리론잡지), 베르데 오리브 (혁명군기관지), 뜨라바호 (로동성기관지), 무헤르 (꾸바녀성련맹기관지).

카 나 다

Canada

카나다는 북미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에 면하고 있으며 서북쪽은 미국의 알라스카주, 남쪽은 미국본토와 접경하고있다. 북쪽은 북극권에까지 닿고있다. 지형은 크게 동북산지, 중부평원, 서부고원 지역으로 구분된다. 카나다의 령토는 넓지만 령토의 절반이상이 북극권내에 속해있음으로 기후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춥다. 그러나 대서양 남쪽연안과 태평양 남쪽연안의 기후는 온화하다.

【면적】 996만 547km²

【인구】 2,000만명 (1966년말) 주민은 영국인계통이 43.8%, 프랑스인계통이 30.4%, 독일인계통이 6.8%,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족이 1.1%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오타와 (주민 50만명 1966년)

정 치

1497년 카나다가 발견된후부터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의 침략자들이 토착주민인 인디안을 구축하면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756—176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식민지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결과 카나다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지배를 반대하는 카나다 인민들의 독립운동이 세차게 일어났다. 1867년 7월 1일 《영령북미조례》에 의하여 카나다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자치령으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세력이 카나다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국가생활전반에 걸쳐 미제가 영국식민주의자들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카나다는 1949년에 침략적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1년 12월 나라이름을 카나다로 고쳤다. (종전에는 카나다자치령) 1965년 9월 카나다 지배층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추종하면서 남부웰남괴뢰경찰구분대를 훈련, 무장시켜주었다.

1966년 3월 카나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민들은 정부의 미제웰남침략 추종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는 카나다 30여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발기한 《카나다—웰남주간》행사로 진행되였으며 정부에 《미제의 침략전쟁과 관계를 끊을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카나다의 군수공업독점체들은 미제침략군이 웰남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들을 생산공급하였다. 이에 격분한 카나다인민들은 5월에 토론토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웰남은 웰남사람들에게!》 《카나다는 웰남전쟁을 위하여 미제에게 군수품을 수출하는것을 중지하라!》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시위하였다.

12월 카나다의 부두로동자들이 3주일 이상의 파업을 통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할 로조를 성과적으로 조직하였다.

또한 많은 미제침략군이 프랑스에서 쫓겨난데 뒤이어 카나다도 자기의 2개공군기지를 서독으로 옮기지 않을수 없었다.

【총독】 카나다는 법적으로 영련방에 속하는 자치령이며 형식상 영국왕이 국가원수로 되고있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은 총독이다. 총독 죠지 바니에 (1959년 9월—)

【의회】 량원제.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의원 102명,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265명으로 구성, 현 하원은 1966년 1월 1일에 구성되였다. 하원선거에서 자유당이 제1당으로 되였으나 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내각】 현내각은 1963년 4월 22일에 구성, 수상 레스터 피어손, 외상 파울 마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6월에 창건, 1943년부터 로동진보당이라고 부르다가 1959년 10월에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위원장 팀 버크, 총비서 윌리암 카슈란(1966년 5월 재선). **자유당** (집권당)독점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레스터 피어손. **진보보수당** 1845년 조직, 친미독점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사회신용당** 1935년에 조직,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신민주당** 1961년 8월 카나다로동회의와 협동련방당 (사회민주주의적정당)이 합동하여 창립.

경제, 사회

카나다에는 석탄, 니켈, 알루미니움, 금, 은, 동, 석유,

철, 아연, 연, 우란 등 지하자원이 있다. 전국 면적의 49%는 산림으로 되여있다. 이 나라의 경지면적은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1965년에 카나다에 대한 외국투자액은 300억딸라 (카나다에서 외국자본의 몫은 77~98%에 달함)였는데 그중 미제독점자본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나라 공업분야에서 3분의 2이상을 미제가 차지하였다. 수많은 미제독점체들이 카나다에 지사와 자매기업소들을 두고 략탈해간다. 미제독점자본은 카나다의 기간공업인 자동차공업의 약 95%, 석유 및 가스공업의 69%, 고무공업의 약 80%, 채굴 및 가공공업의 60%, 식료공업의 70%를 틀어쥐고있다.

미제가 카나다에 대한 자본투자에서 긁어낸 수입총액은 1965년 한해동안에만도 11억 5천 400만딸라에 달하였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8%이며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들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등이다.

화폐단위는 카나다딸라이다.

카나다의 재정경제형편은 악화되고있는바 1965년 3월 31일현재 정부의 채무총액은 189억 8천 300만 딸라였다. 1967년 1월말현재 실업자수는 38만명에 달하였다.

1965년 첫 11개월동안에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25만 4천 932명의 로동자들이 529건의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4년 한해동안 파업자수의 154%나되며 이로 인하여 224만 3천 980일의 로동일을 상실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 카나디안 트리뷴 (공산당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 (진보보수당계통), 토론토 데일리 스타 (자유당계통).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북미대륙의 중앙부에 있다. 동부는 아팔라치아산맥이 남서로 뻗어있는 고원지대이고 중부는 큰 평원이며 서부에는 록키산맥과 세라네바다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미국은 온대에 속하나 지역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심하다. 대서양연안과 중부지방은 대륙성기후이고 메히코만은 아열대성기후이다.

【면적】 936만 4,000km²

【인구】 1억 9,893만 8,000명 (1967년 6월 1일 현재)

【수도】 워싱톤

정치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이후 에스빠냐, 영국, 프랑스, 화란 등에서 이곳에 이주해 온 해적의 무리들은 인디안원주민을 대량적으로 죽이면서 식민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을 벌렸다.

인디안원주민에 대한 대량살륙과 식민지략탈전쟁의 피바다속에서 1787년에 아메리카합중국이 생겨났다. 1823년 라틴아메리카침략을 위한 《몬로선언》이 발표되였다.

1861년 4월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1865년 4월에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흑인들은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인종차별과 학대를 받았다.

남북전쟁후 미제는 대외팽창의 길에 나섰다. 미제는 1846—1848년의 메히코침략전쟁에서 메히코령토를 빼앗았고 1867년에는 제정로씨야로부터 알라스카를 강탈하였다.

해적의 후예인 미제국주의자들은 100여년간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한 극악한 범죄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지난 세기 40년대에 《유리한 전략적위치》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탐내여 이른바 《조선개방안》을 《국회》에서까지 모의하고 1860년때부터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해적의 무리들은 1866년 해적선 《샤만호》의 대동강침입, 1868년 해적선 《챠이나호》의 아산만침략, 1871년 미아세아함대의 강화도침략, 1882년 조선봉건정부를 무력으로 강박하여 얻어낸 침략적불평등조약의 체결 등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

이 해적의 무리들은 조선강토에 기여들 때마다 우리 인민을 살륙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는 온갖 악착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무력침공이 거듭 실패하게되자 일제의 조선강점을 비호해주고 조선에서 많은 경제적리권을 차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략탈하였다.

1898년에는 에스빠냐와의 전쟁에서 필리핀, 괌도, 뿌에르또리꼬를 빼앗았고 또한 하와이를 합병하였으며 1903년에는 빠나마운하지대를 강점하고 이를 빼앗았다. 이와같이 미제는 20세기초까지에만도 실로 100여차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제국주의렬강간의 세계식민지재분할을 위한 2차의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었으며 전후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더욱 광분해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반공》을 총전략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적군사쁠럭인 나토를 만들어놓았고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기지망을 늘어놓았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독복수주의를 재생시켰다. 미제는 앙양되는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며 서구라파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1947년에

《트루맨주의》와 《마샬안》을 들고 나왔다.

미제는 1950년에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안쥬스(1951년), 세아토 (1954년), 쎈토(1955년) 등 침략적군사쁠럭을 만들어놓는 한편 필리핀, 남조선, 대만의 괴뢰도당 및 일본군국주의와 쌍무군사협정을 맺고 사회주의진영을 포위하기 위한 침략적군사망을 완성하기에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2년이래 《대량핵보복》전략을 내세우고 전면적핵전쟁준비에 날뛰는 한편 1956년에는 서남아세아를 침략하였고 웽그리아사건을 조작하였으며 1958년에는 레바논, 요르단 등 도처에서 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1960년이후 미제는 《전면적핵전쟁》, 《국부전쟁》, 《특수전쟁》으로써 사회주의진영과 개별적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식민지인민들의 해방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세계전략》을 내세우고 《전략적 핵무력》과 《상용무력》 및 《반게리라특수무력》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1961년의 베를린위기조작을 비롯하여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 남부웰남에서의 《선전포고없는 전쟁》도발, 꽁고 (킨)침략, 플라야 히론침공과 《꾸바위기》의 조작, 조선정전협정의 계통적인 위반 등은 미제의 침략성을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다른 한편 미제는 《평화전략》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을 분렬시키며 개별적사회주의나라들을 이 진영에서 떼내려고 날뛰였다.

1963년 11월 침략자의 두목으로 등장한 죤슨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고 《계단식전쟁확대》전략을 추진하면서 웰남에 대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확대하였다.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100명,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의원은 435명, 임기는 2년이다.

1966년 11월 8일 국회 중간선거가 진행되였다. 이 선거에서 상원의석 100석 중 35석과 하원의 전체의석인 435석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에서도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정당들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맹렬한 자리다툼싸움이 벌어졌으며 인민의 의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 공화당의석이 상원에서 3석, 하원에서 47석 늘고 민주당의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상원에서 민주당은 65석, 공화당은 35석, 하원에서 민주당은 248석, 공화당은 187석을 각각 차지하게 되였다.

상원의장(부대통령이 겸임) 하버트 험프리

하원의장 죤 맥코맥크

【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린든 죤슨, 국무장관 딘 러스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아메리카공산당과 공산주의로동당이 1921년 5월에 통합하여 창건, 총비서 거스 홀. **민주당**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죠아정당, 당수 린든 죤슨 (대통령으로 추천된 자가 자동적으로 당수로 된다). **공화당**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죠아정당. **에이에프엘—씨아이오합동로조** 독점자본에 매수된 자들이 지도부를 차지하고있다. 독립적인 로조로서 **국제부두및창고로조**, **국제광산제련및용해공로조** 등 50개 (1963년말)가 있다.

【국내주요사건】 미제는 1965년 2월 7일 북부웰남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대대적으로 개시한이래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인민수탈과 탄압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미제가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웰남침략전쟁은 국내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에게 머나먼 이국땅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운명을 강요함으로써 청년들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그들과 인연을 가진 수천만의 광범한 주민들속에서 사회적 및 계급적모순을 일층 격화시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1965년과 1966년에 국내에서 반전운동이 더욱 세차게 앙양되였다. 반전운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투쟁에서 하나의 줄기찬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면서 웰남침략전쟁이 《계단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더 앙양되였다.

1965년 2월 19일과 20일의 량일간에 30여개 도시에서 대규모적인 반전시위가 진행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국제적성원하에 전국적규모의 반전운동이 힘차게 진행되였다.

1966년에도 3월 25—26일에 진행된 《국제항의의 날》에는 워싱톤, 뉴욕, 시카고, 쌘프랜씨스코, 보스톤 등 근 100개의 도시들에서 10여만의 인민들이 죤슨도당의 전쟁정책에 항의와 분노를 표시하는 시위투쟁을 진행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침략자의 두목 죤슨이 《마닐라회의》와 아세아일주를 싸다니고 돌아온것을 계기로 전국 50개의 도시들에서 대규모적인 반전시위가 진행되였다.

이러한 반전운동은 비단 군중집회와 시위뿐만아니라 파업, 삐라살포, 가두연설, 성토대회, 항의서한, 반전서명수집, 단식투쟁, 군용차량의 운행방해, 군대소집장의 소각과 징모의 기피, 분신자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하였다.

1966년 1월 1일과 14일에는 로스안젤스와 오크랜드에서 비행기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삐라를 뿌렸는가하면 2월말에는 헐리우드의 화가들이 웰남전쟁을 반대하는 1천매의 그림을 붙인 높이 20메터의 《반전탑》을 세웠으며 7월에는 미씨시피주에서 3주일간에 걸쳐 근 400키로메터를 행진하는 《반전자유행진》이 진행되였다. 12월에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대학생 대표들의 회의에 모인 100개 대학생단체지도자들이 침략자의 두목인 죤슨

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여 웰남침략전쟁과 이 전쟁의 《계단식》확대를 규탄하면서 만약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청년들은 《무기를 잡느니보다 차라리 감옥으로 갈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반전운동은 그 규모의 크기와 투쟁형태의 다양성에서뿐만아니라 운동의 조직성도 일층 제고되였다. 수많은 반전단체들이 계속 출현하여 도처에서 분산된 투쟁을 조직화하면서 점차 통일행동을 취하였하. 반전단체들과 민권옹호단체들이 망라되여 새로 구성된 《새정치를 위한 전국협의회》를 비롯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대학생기구》, 《5월 2일운동》, 《미국인들은 알기를 원한다》,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들》 등 각이한 명칭을 가진 반전대중단체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죤슨도당의 전쟁확대정책에 따르는 인민수탈의 강화는 삶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로동운동의 앙양을 더욱더 불러일으켰다.

죤슨도당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1965년에 미국에서는 148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참가한 3천 860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2천 310만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이것은 1964년에 비하여 파업건수에서는 200여건, 로동일상실에서는 20만 로동일이 더 많은것이다. 1966년에는 1-10월기간에만도 165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5년 한해동안의 파업참가자수보다도 17만명이나 더 많은것이다. 그리하여 1966년은 1955년 이래 그 어느해보다도 더 많은 파업들이 일어난 해로 되였다.

2천만 미국흑인들의 투쟁도 새로운 단계에로 더욱 발전하였다.

1965년 1월 셀마시에서 폭발한 흑인들의 투쟁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워싱톤, 뉴욕, 데트로이트, 보스톤 등 거의 전국에 번져나갔다.

흑인운동은 지난시기의 단순한 인종차별반대와 민권쟁취를 위한 투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배층의 반동정책과 전쟁정책자체를 반대하는데로 더욱 급속히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 광범한 흑인대중은 《비폭력저항》의 오랜 인습을 타파하고 폭력투쟁으로 자신을 해방하려는데로 가일층 전진하였다.

1965년 8월 11일 태평양연안의 큰 도시 로스안젤스의 흑인들이 자기들의 동료를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한데 격분하여 일으킨 봉기의 불길은 삽시에 시카고, 뉴욕 등 미국의 주요한 큰 도시들과 여러 지방에 타번져 《최근 20년래 미국에서 가장 큰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흑인들은 죤슨도당의 기만적인 《민권법》을 배격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는 웰남에서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흑인들의 이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죤슨도당은 수만명의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흑인구역을 포위하고 흑인들에게 야수적탄압을 가했다. 이로 말미암아 로스안젤스는 《전쟁마당》으로 화하였으며 흑인 33명이 죽고 2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천여명이 체포구금당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미제의 잔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미제지배층의 소위 《민권옹호》의 허위성을 낱낱이 까밝혀주었다.

그러나 흑인들의 투쟁은 1966년에 더욱 세차게 전개되였다.

1966년 3월에 흑인들은 로스안젤스의 왓쯔구역에서 또다시 봉기를 일으켰으며 투쟁의 불길은 뉴욕, 시카고, 워싱톤 등의 주요 도시들과 전국 각주들에 급속히 파급되였다.

1966년 7월에 있은 《인종평등회의》년차대회에서는 죤슨도당의 기만적인 립법조치에 기대를 거는 《비폭력주의》를 버리고 힘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수호하며 반격할 권리를 선언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미제 지배층의 로골적인 침략 및 전쟁정책과 반인민적정책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그들로하여금 온갖 사회적재난의 근원인 독점자본의 착취제도자체를 반대하는데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였다.

【대외관계】 1965년과 1966년에 죤슨도당은 웰남침략전쟁을 더욱 발광적으로 확대하였다.

침략과 전쟁의 두목 죤슨의 대외정책은 그의 모든 선임자들의 그것에 비하여 한층더 모험적이고 호전적이며 교활하고 음흉하였다. 죤슨도당은 《아세아제1주의》를 로골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더욱 집중하였다.

침략자의 괴수인 죤슨은 1966년 7월 12일 미국은 《태평양국가》라고 떠버리고 《아세아제1주의》를 들고나왔으며 10월 7일에는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구라파정세를 일시 완화하려는 교활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이리하여 미제는 더욱더 많은 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였다.

미제는 해외주둔 침략무력의 근 70%를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집중하면서 1965년 2월 7일부터 북부웰남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였다. 한편 남부웰남주둔 침략군수를 1964년말의 2만 2천명으로부터 1965년말에는 18만 2천명으로, 1966년말에는 약 40만명으로 대폭 늘이면서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야수적인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웰남 전체 지역과 그 주변 100마일의 해역을 미제침략군의 《전투구역》으로 선포하였다.

웰남침략전쟁확대를 위하여 미제는 괴뢰들을 긁어모아 1966년 6월에는 《아세아및태평양지역각

표회의》, 10월에는 마닐라에서 《웰남전쟁참가국회의》 등을 조작하여 웰남침략전쟁의 국제화와 아세아《반공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침략음모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한편 살인자의 두목인 죤슨은 《마닐라회의》를 전후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에 걸쳐 남조선,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의 추종국가들을 싸다니면서 아세아지역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수습하여 웰남침략전쟁확대에 괴뢰들의 병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침략자의 두목 죤슨은 《남부웰남지원문제》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도발계획을 박정희괴뢰도당과 모의하였으며 분계선일대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시찰》하면서 전쟁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였다.

그러나 웰남전선에서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전략은 영웅적웰남인민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패배의 궁지에 빠지게되였다.

영웅적웰남인민은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매 전투마다에서 미제침략군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건조기공세》와 《공중우세》를 성과적으로 분쇄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였다. 영웅적웰남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전과는 죤슨도당의 《계단식전쟁확대》전략이 승산없는 망상이며 패배자의 부질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또한 꾸바에 대한 침략책동을 일층 악랄화하였다 .

미제는 5월 21일 관타나모의 미제침략군기지에 있는 해병대들로하여금 경계선을 넘어 꾸바의 초소를 공격하고 꾸바병사를 살해하는 범죄적도발사건을 일으키게한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마치도 꾸바병사들이 관타나모의 미제침략군 기지에 불법침입한듯이 사태를 꾸며대여 꾸바를 반대하는 일대소동을 벌리면서 꾸바를 침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실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꾸바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기도는 영웅적꾸바인민의 단호한 항거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견결한 규탄에 의하여 파탄되였다.

민족해방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도처에서 일층 강화되였다. 미제는 1965년 4월 24일에 폭발한 도미니카인민의 애국적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3만여명의 침략군을 도미니카에 파견하여 도미니카인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는 범죄적행동을 감행하였으며 도미니카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횡포하게 유린하였다. 미제는 또한 앞으로도 도미니카에서와 같은 무장간섭을 《합법적으로》감행하기 위하여 1965년 9월 20일 국회에서 미제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하여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며 반제력량을 분렬약화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공개적인 무장간섭과 함께 은밀한 막후책동과 교활한 수법을 이에 배합하였다.

미제는 타이와 남부웰남괴뢰군들을 동원하여 캄보쟈에 대한 침략책동을 감행하였으며 라오스우파도당을 사촉하여 이 나라 해방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콩고(브)에서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파괴활동을 강화하였고 인도-파키스탄, 중-인국경분쟁을 격화시키려고 발광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우익반동세력을 극력 추동하여 반공공세에로 내몰았으며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도발책동을 사촉하였으며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백인인종주의자들의 반아프리카적이며 인종주의적정책을 로골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 모든 책동들은 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식민주의의 아성으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더욱더 들어내놓았으며 세계인민들에게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겠다는것을 더욱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더욱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동맹국》들을 계속 틀어쥐려는 미제의 책동과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동맹국》들의 반격은 미제와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1966년 3월 30일 프랑스제국주의는 1967년 4월 1일까지 프랑스령토상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기타 외국군대 및 군사기지들을 철거, 철폐시키며 나토군최고사령부를 비롯한 나토의 군사기관들을 프랑스령토밖으로 이동시켜야한다고 미제와 기타 나토성원국들에 통고하였다. 또한 1966년 5월 4일에는 미제와 기타 나토성원국들의 비행기들이 프랑스상공을 날거나 프랑스령토에 내릴수 있는 권한을 6월 1일부터 취소한다고 통고하였다. 1966년 9월 7일 빠리에서 열린 나토상설리사회 회의에서 프랑스대표는 자기나라가 1967년부터 나토의 일체 군사비를 물지 않겠다고 미제에게 도전하였으며 10월 1일 드골도당은 나토군사위원회에서 자기대표를 소환하였다.

드골도당은 또한 딸라를 중심으로 한 현행 자본주의국제통화제도의 근본적개편을 요구하면서 딸라의 패권에 대해서도 도전하여나섰다.

한편 파키스탄을 비롯한 토이기, 단마르크, 노르웨이 등 기타 여러 《동맹국》들도 각이한 문제에서 미제의 고압적태도와 명령정책에 더욱더 빈번히 반대하여 나섰다.

제반사실은 2차대전후 만들어진 미제의 《지휘체계》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여 미제가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제 1965－1966년 미제국주의경제는 침략과 전쟁정책 특히는 웰남침략전쟁의 발광적인 확대로 대내외적모순에 부닥쳐 그들 자신이 말한것처럼 《1929년의 대경제공황》을 예견하게 하는 《심상치않은 징조》를 보이면서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그것은 군사예산의 방대한 지출과 침략적인 《원조》액의 증대에 의한 재정파탄, 산업의 군수화를 다그친데서 온 주요산업(강철, 자동차, 건설 등)생산의 감소와 민간산업의 파탄, 국제수지균형의 파탄, 통화의 팽창, 인플레, 딸라의 해외류출에 의한 화폐위기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는 이러한 혹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밖으로는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발광적으로 확대하며 안으로는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쳤다.

죤슨도당은 해마다 군사예산지출을 증대하고 군수산업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골몰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났다.

군수산업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민간산업은 파탄되고 산업과 시장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였으며 인민들의 구매력은 급격히 저하되여 체화현상은 극도에 달하였다.

죤슨반동정부는 침략과 전쟁예산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채와 통화를 람발하였으며 인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조세를 수탈하였다. 그우에 독점체들의 《전쟁리윤》추구에서 온 《경기과열》이 겹쳐 전례없는 통화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미국의 통화량은 1964－1965년간에 16.2%나 늘어났다.

통화팽창은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하였으며 물가는 더욱 뛰여올랐다. 이리하여 《전쟁경기》를 노린 전쟁상인들은 더욱 비대해진 반면에 인민들의 생활은 가속도로 령락되여갔다.

미제는 또한 국내경제의 파탄을 국제수지면에서 극복해보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본래부터 추진시켜오던 강압적인 대외무역정책을 더욱 강다짐으로 밀고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수지면에서 막대한 적자 (1966년말 16억딸라)를 가져왔으며 동맹국들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일으켰을뿐이였다. 여기에 독점체들의 한정없는 《해외투자》가 겹쳐 딸라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국제준비통화》로서의 금보유량 (1966년말 현재 132억 3천만딸라－1949년 대비 54%)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에 자본주의나라들의 딸라소유액이 늘어나 딸라의 신용은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세계자본주의국가들은 더는 미제의 경제에 의거하려하지 않을뿐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한 일련의 자본주의국가들은 정면으로 이에 도전해나서는데까지 이르렀다.

1965－1966년간에 미제의 경제에서는 그 위기가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그 국제적지위는 계속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졌다.

1965－1966년에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공업의 군사화를 더욱 다그쳤다. 미제의 군사비지출은 1961년이후 년평균 70억딸라씩 증가되여 1966년에는 605억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군수산업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되였는바 전쟁리윤에 이골이 난 독점체들은 앞을 다투어 이 부문에 투자하여 《전쟁경기》를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1965년에 이러한 산업투자는 근 100억딸라나 증대되여 총액 520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독점체들의 설비투자는 화학공업과 전기시설공업 및 특수금속공업부문 등 군사장비와 관련된 일련의 공업부문에 침투되였다. 그리하여 원자로케트공업의 100%, 비행기 및 그 부속품공업의 94%, 조선업의 62%이상이 직접 무기 및 군수품 생산에 복무하고있다. 특히 1965년 6월까지 12억 2천600만딸라의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공급한 화학부문독점체들은 나팜탄, 독가스, 백린폭탄과 같은 살인무기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저들의 배를 불리였다. 미제독점체들이 1965년 한해동안에 웰남전쟁에서 얻은 순리윤만해도 450억딸라에 달하였다.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설비투자는 미제공업을 더한층 기형화하였으며 재생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살륙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한편 군수공업에로의 편중은 민간공업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그것은 설비리용률의 저하와 생산자체의 침체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동시에 수많은 실업자군을 새로 조성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압박하였으며 그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체화현상》에 부채질을 하였다.

미제독점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여보려고 신용판매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공장과 상업망의 상품체화액은 1965년 5월말의 1천 120억딸라로부터 1966년 12월말에는 1천 354억딸라로 늘었다. 특히 1966년에 들어서면서 미제경제의 《세 기둥》이라고 하는 자동차, 강철, 건설 공업에서 생산과 수요간의 모순은 심각한 새로운 침체현상을 초래하였다. 1966년 5월이래 자동차독점체들의 승용차생산은 7월과 8월에 196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각각 38%와 49% 떨어졌다. 자동차생산의 이러한 형편은 다른 공

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는바 강철은 1966년 6월중순부터 생산이 저락되고있으며 7월에 강철공장들의 조업률은 5월에 비하여 거의 26%나 낮아졌다. 1966년 7월의 주택건설 착공수는 1960－1961년의 경제위기이래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업전반에 걸친 조업단축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있는바 특히 방직공업과 전기시설품, 제조공업부문에서 그것은 현저하여 심한 가동률의 저하를 보이고있다.

1965－1966년간에 미제의 농업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가렴잡세의 증대와 물가등귀로 근로자들의 농산물소비는 부단히 감소되고있으며 농산물원료에 대한 공업수요의 부단한 감소 특히 구라파 《공동시장》참가국들의 미제의《잉여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등으로 농산물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미제는 이 만성적인 농업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지면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며 농산물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대농장주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고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인위적으로 강행하였다. 1965년에 밀과 쌀은 생산량의 50%, 담배는 25%를 해외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은 더 격화되였으며 대농업자본가들이 막대한 리윤을 얻어 치부하고있는 반면에 중소농장주들은 파산당하고 특히 농민들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다. 농장수는 줄었고 농장들의 취업자수는 계속 줄어들어 1965년 8월에는 그전해 같은 달에 비하여 60만명이 줄어들었다.

【재정예산】 윁남침략전쟁으로 인한 군사비의 증가로 국가예산의 적자는 걷잡을수 없이 늘어났다. 1958년이후 매년 30억딸라를 넘고있던 예산적자는 1965－1966회계년도에는 64억딸라(예비적자료)에 달하였으며 1966－1967회계년도에는 또다시 110억딸라로 늘어나 제2차세계대전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죤슨도당은 이러한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화폐와 국채를 많이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재정의 파탄을 더욱 촉진시켰다. 1965년 10월현재 화폐류통량은 최소한 40억딸라,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만도 3천 189억딸라나 되였는데 이 채권의 리자를 물기 위하여서만도 예산에서 다시 120억딸라를 지출해야 했다.

국가채무는 1965－1966회계년도에 3천 200억딸라, 1966－1967회계년도에는 3천 270억딸라로 계속 늘어났다.

1965년초의 국가 및 개인의 부채총액은 1945년에 비해 170%나 더많은 1조 2천 600억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2년간의 국민총생산액에 해당한다.

사회, 문화 윁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 따르는 죤슨도당의 인민수탈 강화와 물가등귀로 말미암아 근로인민들의 빈궁은 더욱 촉진되였다.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인구1인당 년간세금납부액은 1953년의 450딸라로부터 1965년에는 850딸라로, 1967년에는 1천 436딸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1966년에 소비품물가는 2.9%, 도매물가는 3.2% 각각 올랐다. 특히 병원입원비는 1966년에 23%나 뛰여올라서 워싱톤의 병원들에서 하루의 입원비는 31딸라로부터 38딸라로 되였다. 구매능력이 없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외상구매로 걸머진 빚은 1965년말의 861억딸라로부터 1966년말에는 948억딸라로 10%이상 늘어났다.

줄여서 발표된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완전 및 불완전실업자수는 700만명, 《최저기준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 《빈곤주민》은 미국인구의 거의 5분의 2에 가까운 7천 700만명에 달하고있다. 1천 450만명의 어린이들이 극빈가정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백인거주지역에서 살수도 없고 백인들과 함께 공부할수도 없는 극심한 인종적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무권리와 빈궁에서 헤메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흑인들의 실업률은 백인들보다 2배나 높으며 흑인들의 수입은 백인들보다 40%나 낮다. 25개의 주요 흑인 중심지들에서의 실업률은 30～38%에 달하고있다. 또한 흑인들의 56%가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고있으며 흑인어린이들의 사망률은 백인어린이들보다 40%나 높다.

그러나 한편 독점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윁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 따르는 살륙무기의 판매로 더욱 더 비대해지고있다. 독점회사들의 리윤은 1964년의 397억딸라로부터 1965년에는 450억딸라로, 1966년에는 480억딸라로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다.

미국에서 범죄의 장성은 인구의 장성을 훨씬 앞서고있는바 1966년에 범죄건수는 1965년에 비하여 11%나 더 늘어났다.

특히 소년의 56%가 각종 범죄《조직》에 망라되여 있으며 뉴욕에만도 무려 800여개의 소년강도단이 있다.

이 모든것은 부패한 《미국식생활양식》이 빚어낸 후과가 날로 심각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1966년에 로동재해, 교통사고 등의 사고건수는 미제 국가안전회의가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65년에 비하여 3%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1966년에 246만 9천 500여명이 죽었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의 대부분은 로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

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존슨도당의 공식통신).

신문 데일리 워커 (공산당기관지), 뉴욕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

잡지 폴리티칼 어페어즈 (공산당기관지), 포츈,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라이프, 룩크, 타임스, 뉴스 위크.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Estados Unidos Mexicanos

북미대륙남단에 위치하면서 동쪽은 카리브해의 메히꼬만을 끼고 서쪽은 태평양에 면하고있다. 해안선에는 70개의 크고작은 항구들이있다.

메히꼬는 지형의 굴곡이 심한 나라로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해발 2~3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고원들이 길게 자리잡고있는데 산악과 산이 전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해안을 따라 얼마 안되는 평야가 있을뿐이다.

메히꼬의기후는 열대로부터 아열대 지대에 속하나 대부분의 지역은 열대성기후이고 북부가 아열대성기후이다.

【면적】 196만 9,000km²

【인구】 4,414만 5,000명 (1966년 11월 현재)

주민은 55%가 혼혈인 (백인과 인디안), 29%가 인디안, 15%가 백인, 1%가 기타 종족들이며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메히꼬 (주민 464만명)

정 치

메히꼬는 1521년이래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1824년에 련방공화국을 세웠다.

1846-1948년에 미제의 침략으로 텍사스, 칼리포니아, 뉴메히꼬 등 메히꼬의 절반 (140만평방키로메터)명을 잃었다.

그후 천주교반동들과 보수세력들간에 정권쟁취를 위한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국내가 혼란된 형편에서 1861-1867년에 영국, 에스빠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916-1917년에 미제가 다시 무력으로 침략하였으나 인민들의 항거로 실패하였다. 10월혁명의 영향하에 메히꼬에서 로동운동이 앙양되여 1934-1940년간에 집정한 라싸로 까르데나스대통령 (민족부르죠아대표)은 인민들의 압력으로 1천 800만헥타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여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자본이 경영하는 철도, 미영독점체들의 석유 및 광업회사 등을 국유화하였다.

1940년에 마누엘 아버라 까마쵸, 1946년에 미겔 알레만의 반동정권이 집권하면서 미제의 자본이 급속히 침투하였다.

1958년에 국내 경제적위기와 반미반정부적운동이 고조되고있는 시기 립헌혁명당의 비서인 로뻬스 마떼오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1961년 4월에 메히꼬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관련하여 불간섭원칙을 견지하면서 꾸바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였다. 1962년 9월 마떼오스는 인민들의 압력으로 국내회사와 외국인 소유회사의 리윤의 일부를 로동자들에게 분배하여준다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964년 7월 대통령선거에서 립헌혁명당립후보자 디아스 오르다스가 제7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디아스대통령은 《내정불간섭》과 《민족자결권》옹호를 기본원칙으로 제기하면서 마떼오스정책을 계승하고있다.

메히꼬는 미제의 꾸바봉쇄정책을 반대하여 꾸바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의석은 60석, 임기는 6년. 하원의석은 178석, 임기는 3년이다. 상원의 전체 의석과 하원의 175석을 립헌혁명당이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 구스따보 디아스 오르다스(1964년 12월—임기 6년), 외상 안또니오 까릴리오 플로레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사회당에서 분리되여 창건되였다. **립헌혁명당** 1928년에 조직되여 1938년 메히꼬혁명당으로 재조직 되였다가 1946년 다시 립헌혁명당으로 되였다. 현재집권당이다. **국민행동당** 카톨릭교회를 대표하는 반동정당. **메히꼬민족해방운동, 인민사회당, 평화옹호전국위원회.**

【주요사건】 1965년에 메히꼬 인민들은 웰남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략에 항의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1월과 4월 메히꼬시를 비롯한 도시들에서 대대적인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6월에는 집권당인 립헌혁명당을 비롯한 42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과 이 나라에서의 《미주통합군》의 행동을 반대 항의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3월 12일부터 메히꼬 인민들은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설정하여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를 비난하는 삐라를 각처에서 뿌렸다. 이 주간에 1만명의 시민들은 미제를 상징하는 허수아비와 미제의 기발을 불태웠고 각대학들과 로동자조직들에서는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고 미제침략군철수를 요구하는 집회와 강연회가 있었다.

1966년 8월 1일에 메히꼬의 로동자, 농민 및 기타 단체들이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상설전국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10월에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민들의 반미투쟁과 반제감정이 앙양되자 메히꼬정부는 10월

2일 미주국가기구성원국들의 대통령회의를 메히끄에서 여는것을 반대했으며 7월 28일 메히끄 외상은 라틴아메리카에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를 규탄하면서 메히끄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떤공동군사계획에도 결코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계속 일어났다. 10월에 항공운수회사로동자 3천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하였으며 그후 6천명의 의료일군들이 해고당한 로동자들의 복직과 생활개선을 요구하여 1개월이상 파업하였다.

4월 15일에 침략의 두목 존슨과 러스크가 메히끄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더많은 《잉여상품》을 투매할 방도를 찾아보려고 메히끄에 기여들자 이를 반대하여 4월 17일에 《양키들에게 죽음을 주라!》는 구호밑에 존슨도당의 메히끄방문을 규탄하는 시위와 군중집회들이 있었으며 16일에는 미제의상품이 은밀히 국내에 들어오는것을 막기위해 북부국경을 폐쇄하였다.

경제, 사회 메히끄는 농업—공업국이며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 채굴공업, 가공공업이다.

경지면적은 전면적의 15%이다. 인구의 5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귀밀, 보리, 땅콩, 커피, 담배, 목화 등이다.

메히끄의 자연부원은 대부분이 외국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특히 미제는 광업의 90%, 화학공업의 40%, 전력생산의 약 70%를 장악하고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전체무역의 65%), 서독, 일본, 영국, 카나다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커피, 사탕, 은, 연, 아연, 석유, 류황, 면직물 등이며 수입품은 자동차부속품, 기계설비, 철, 연료 등이다.

메히끄에서는 130만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으며 1천 200만명의 메히끄인민들이 굶주리고있으며 500만명의 아동은 신발을 신지못하고있다.

【출판】 신문 엑쎌씨오르 (보수계),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파쑈적성격을 띤 반동신문), 엘 우니베르쌀, 노베다데스 (비교적 진보적신문), 라 쁘렌사, 엘 나씨오날(정부기관지).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Republica de Guatemala

중미대륙 서부에 위치하여 메히끄, 옹두라스, 살바도르와 접경하고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전국의 3분의 2는 산악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5~30°C이다.

【면적】 10만 8,900km²

【인구】 456만 7,000명(1966년)

주민의 60%가 인디안, 35%는 인디안과 에스빠냐혼혈인, 기타는 에스빠냐계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과떼말라 (60만명이상, 1966년)

정 치 과떼말라는 1524년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여 다음 해에 메히끄에 합병당하였다가 1824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 1839년에는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1년 3월 국내민주력량의 지지하에 집권한 아르벤즈정부가 1952년 6월 《유나이티드과일회사》와 대지주들의 토지, 정부소유지 등을 농민들에게 분배할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자 미제는 국내반동을 사촉하여 정변을 일으켜 아르벤즈정권을 전복하고 아르마스파쑈정권을 조작하였다.

1957년 7월에 아르마스가 암살되고 같은 해 10월의 군사정변을 거쳐 1958년 1월 이디고라스가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1959년에는 꾸바혁명승리에 고무된 과떼말라인민의 반독재 파업과 시위가 련달아 일어났으며 미제는 카리브해에 군대를 출동시켜 과떼말라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였다.

이디고라스독재정권은 1960년 4월에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끊고 자국령토를 미제의 반꾸바책동의 근거지로 내맡겼다.

1963년 3월에 미제의 조종하에 국방상 페랄타 아주르디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림시대통령으로 되였다.

1966년 3월 6일 13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선거에 50%의 유권자가 기권하였으며 3명의 대통령립후보자중 1명도 절대다수표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과떼말라선거법에 의하여 5월 10일 열린 새 국회회의에서 많은 표수를 얻은 2명의 립후보자들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였는바 혁명당출신 멘데스가 신대통령으로 되였다.

대통령선거에 항의하여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파쑈정권은 5월 10일부터 30일간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당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민권을 정지시키고 4명이상의 군중모임을 금지시켰으며 계엄령을 다시 30일간 연장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5월에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독재의 탄압을 반대항의하는 표시로 국회의원 신임장을 내놓은것과 관련하여 8월 10일에 보충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10분의 1이 참가하였고 게다가 투표수의 60%이상이 무효로 되였다.

11월 인민들의 반정부무장투쟁을 리용하여 국방부상을 포함한

여러 우익반동분자들이 친미주구 몬떼그르정권을 뒤집어엎고 보다 반동적인 페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정권쟁탈음모를 꾸미였다.

과떼말라인민들은 미제의 간섭과 미제에 추종하는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무장투쟁은 마르꼬 안또니오 온 소사가 지도하는 《11월 13일 혁명운동》조직에 의하여 1962년에 시작되였다.

한편 뚜이스 뚜르시오스가 지도하는 《4월 12일 운동》이 조직되였다.

1965년 3월 《에드가르 이바라》유격전선과 로동당 및 공청을 망라하는 《혁명지도림시중앙》이 결성되였다.

1965년에 유격투쟁은 활발히 전개되였다. 1월 31일 유격대는 수도에 있는 미제대사관과 《미국제개발처》를 습격하고 자동차 29대를 파괴하였으며 5월에는 국방부상을 처단하였다.

인민유격대의 활동에 당황한 친미도당은 2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수도와 기타 도시를 수색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66년에 유격투쟁은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5월에는 미국놈소유의 석유회사와 자동차들을 습격하였으며 공보상과 최고재판소 소장을 체포하였다.

유격대는 10월부터 맹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1월에는 파라구나에 있는 미국놈소유의 발전소를 습격하여 연유저장고를 폭파시켰다.

11월말에 유격대는 수도 과떼말라시에서 20키로메터 떨어진 산간지역을 습격하여 《누에보 문도》라는 방송국을 점령하고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방송을 하였다. 12월에는 메히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뚬바도르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전화선을 단절하고 은행을 접거하였다.

11월에 유격대는 미제군사고문단의 지휘하에 1만명으로 조작된 《유격대소탕작전》을 분쇄하였다.

【국민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66명, 임기는 4년, 2년마다 절반을 개선한다.

1966년 3월 6일 선거결과 혁명당이 30석, 민주제도당이 20석, 국민혁명운동이 5석, 기타가 1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멘데스 몬떼네그로 (1966년 7월 1일—), 외상 에밀리오 아레날레쓰.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이 1952년에 로동당으로 개칭, 1954년에 비법화됨,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손.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민족해방당, 국민혁명운동, 민주제도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혁명당, 혁명민주동맹** 등이 있다. **자치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지주들이 전국토지의 70.5%를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 옥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미제를 비롯한 외국의 26개 회사가 거의 독점),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바나나, 기름류, 목재이며 대상국은 미제와 서독인데 미제는 과떼말라수출총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과떼말라의 경제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의 《유나이티드과일회사》에서만도 년평균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대학은 하나이며 14세이상의 주민중 약 70%가 문맹자이다. 군인들가운데서 문맹자비률은 83%에 달한다. 주민의 97%가 카톨릭교도이며 3%가 신교도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콩과 바나나가 주식으로 되고있다.

【출판】 신문 프렌사 리브레, 라 오라, 베르다드 (로동당기관지).

살 바 도 르

(살바도르공화국)

Republica de Salvador

중미국가들중 제일 작은나라로서 태평양에 면해있다. 나라의 대부분은 산악과 고원지대이다.

【면적】 3만 4,258km²

【인구】 302만 8,000명 (1966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혼혈인이고 인디안은 18%, 백인은 8%이며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살바도르 (주민 28만명, 1965년)

정 치

1524년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39년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내전과 군사정변이 잦아 정치정세는 불안정하였다.

1961년 1월 25일 미제침략군의 직접적지휘하에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수립된 친미적인 군사정권은 이 해 3월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2년 4월 기만적인 선거에서 1961년 1월의 군사정변의 주모자의 한 사람인 훌리오 리베라 카르바요중좌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독재정권은 이 해 9월에 《반공법》을 조작하였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1965년에 살바도르친미도당은 미제가 조작한 《중미합동군》에 참가하는 등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면서 인민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살바도르인민들은 미제

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6년 4월 11일 살바도르 대학생단체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여 군중집회를 가지고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장간섭, 웰남민주공화국 령토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5월 21일 살바도르대학생총련맹은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도미니카인민에 대한 미제의 간섭은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로 된다고 지적하고 산또 도밍고에서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도미니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의회】 1원제. 의원수는 4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부】 대통령 및 부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훌리오 아달베르토 리베라 카르바요 (1962년 7월－), 외상 엑또르 에노교바르 쎄르라노.

【정당】 공산당 1930년 창건, 1932년에 비법화되였다. 국민화해당(집권당), 혁신행동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66년에 미제독점체는 이 나라에 새로운 기업소들과 상사들의 분점을 차려 략탈의 지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다. 토지는 비옥하나 인구의 4%에 지나지않는 대지주들이 커피재배원의 53%를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목화, 사탕수수, 옥수수, 벼, 콩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철, 석탄, 연 등이 있으나 미개발상태에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밀, 밀가루, 연유, 세멘트, 비료 등이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 화란, 영국이다.

화페단위는 콜론, 1콜론은 100센타보.

도시와 농촌들에서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실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목화재배농장들에서만도 근 10만명의 실업자가 헤매고있으며 농촌주민의 40%가 완전실업자이다. 주민의 평균수명은 30세이며 인구의 50%이상이 심한 영양부족으로 쓰러지고있다.

10세이상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대다수가 천주교도이다.

온두라스

(온드라스공화국)

RePublica de Honduras

중미에 있다. 북쪽은 과떼말라, 남쪽은 니까라과, 서쪽은 살바도르와 접경하고있다. 카리브해안의 평지는 기온이 높으나 산악지대에서는 기후가 온화하다. 령토의 4분의 3이 고원지대이다.

【면적】 11만 2,088km²

【인구】 236만 3,000명(1966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 (90%)이고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떼구시갈빠 (주민 15만 4,000명, 1964년)

정 치 1520년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822년에 메히꼬에 병합되였고 그후 중미련방을 거쳐 1839년에 독립공화국으로 되였다. 1956년 7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된 로사노의 정권은 이해 10월 륙군이 일으킨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1957년 11월 모라레스가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1963년 10월 3일 로페스 아렐라노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자신이 림시대통령으로 되였다. 군사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반공을 자기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나라를 파쑈화하였다. 이 해 10월 13일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5년 2월 16일 친미군사독재정권은 극단적인 테로의 분위기속에서 《제헌회의선거》를 실시하고 로페스 아렐라노를 두목으로 하는 국민당의 《승리》를 날조하였다.

가혹한 탄압밑에서 1966년에 친미군사정권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났다.

1966년 8월 4일 많은 농민들이 착취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일부 지주의 땅을 빼앗자 이에 당황한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

이로 말미암아 지주와 농민들간의 긴장된 투쟁이 여러날 계속되였다.

10월 온두라스사회계는 당국이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진보적교원들을 《공산주의사상에 동감했다》는 구실로 감옥에 감금한 사실을 규탄하며 탄압행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정부에 들이댔다.

【국회】 1원제. 의원은 64명 (그중 국민당 35명, 자유당 29명)이다. (1965년 2월 16일 선거)

【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오스왈도 로페스 아렐라노, 외상 호세 앙헬 우요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되여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 다시 창건, 1956년에 다시 비법화되였다. 국민당 (미제의 《유나이티드파일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친미적집권당). 자유당 (1963년 군사정변시기까지 집권당). 민족개량운동당.

경제, 사회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토지는 전

체 인구의 5.2%밖에 안되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고 75%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며 마호가니 등 목재자원도 많다.

1965년에 미제독점체들의 직접투자는 1억 1천만딸라였다. 미제의《유나이티드과일회사》와 《스탠다드과일회사》가 농업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뿐만아니라 이 회사들은 온두라스의 대외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들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있으며 라지오방송국, 철도, 은행 등도 소유하고있다.

공업발전수준에서 이 나라는 중미지역 국가들중에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제의 독점자본은 이나라 수출의 60~70%와 수입의 30%를 쥐고있다. 1966년 2월에 미독점회사 《텍사코카리비안》은 온두라스에 압력을 가하여 이 나라에 정유소를 설치할 권리를 장악하였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미국이며 수출의 90%는 농산물 (바나나, 커피는 53%)이다. 통화는 렘삐라, 렘삐라는 100센타보이다.

미제독점체들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의 침투와 국내지배층들의 착취로 인하여 인민생활은 령락되였다. 온두라스대학생련맹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1966년 10월 현재 온두라스에서 주민의 73.8%가 빈민굴에서 살고있으며 18만세대의 농민이 땅을 빼앗겼으며 아동들의 취학률은 40%, 약 64만명이 문맹자이다.

영령온두라스

중미에 있다. 메히꼬 및 과떼말라와 접경하고있다. 전국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이다. 평균기온은 24~27°C이며 년강우량은 2,000mm이다.

【면적】 2만 2,957km²

【인구】 10만 6,000명 (1965년)

주민의 약 50%가 흑인과 혼혈인이고 기타 인디안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벨리제 (주민 4만명).

16세기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2년 5월 12일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7월 22일 런던제헌회의의 결과 196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된 새헌법에 따라 자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국방, 외교, 국내치안, 기타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된 《내부자치》가 실시되였다. 과떼말라와 영제국주의간에 온두라스의 령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있다.

1966년 6월 인민들의 반정부적 정치폭동과 정부관리들에 대한 습격이 더욱더 강화되자 피더 스토라드총독놈은 6월 28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정부】 수상 죠지 프라이스 (1964년 1월 7일—)

【정당】 **인민통일당** 1950년에 성립, 나라의 독립과 경제사회개혁을 주장, 지도자 죠지 프라이스.

민족독립당 1958년에 성립, 영련방내에서의 독립과 영국과의 밀접한 련계유지를 주장하는 야당.

경 제 기본은 림산업이다. 목재는 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20만헥터이고 사탕, 야자, 바나나, 쌀, 콩 등을 생산하나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북부에서 석유가 발견되였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과 미국이다.

니 까 라 과

(니까라과공화국)

Republica de Nicaragua

북쪽은 온두라스, 남쪽은 꼬스따리까와 접경하고있는 중미국가이다. 기후의 변화가 많고 국토의 절반이상은 밀림이다. 고원지대는 땅이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해안저지대는 열대성이고 화산이 많다.

【면적】 14만 8,000km²

【인구】 170만 8,000명 (1966년).

주민의 70%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주민의 80%가 서부에 살고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나과 (주민 27만 4,900명, 1964년)

정 치 1524년이래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년에 에스빠냐의 기반에서 벗어나 《중미련방》에 참가하였다. 1838년 련방해산과 동시에 독립하였다. 1936년 대통령으로 된 아나스타시오 소모사가 20년간 파쑈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1956년 9월 소모사가 피살되고 그의 아들 루이스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반독재투쟁이 앙양되자 소모사는 표면상 물러나고 1963년 2월 폭압속에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자기의 충복인 르네 쉬크 구테레스의 대통령당선을 날조하였다.

1964년에 미제에 예속적조약인 브라이언—챠모로운하조약 (1914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대되였다.

1965년에 니까라과는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의 도구인 《범미주군》에 150명의 군대를 보냈다.

니까라과는 친미반공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꾸바반혁명분자들의 훈련중심지로 되고있다. 온두라스, 꼬스따리까와 국경분쟁이 계속되고있다.

1966년 6월 8일 니까라과대통령 르네 쉬크는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니까라과는 꾸바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위해 자기 령토를 임의의 시각에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있다고 떠벌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무장간섭을 옹호하였다.

인민들은 독재정권의 반인민적 테로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

다. 7월 29일 니까라과에서는 초동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학교 학생들이 악질적친미분자인 경비대 사령관 아나스 따시오 소모사를 대통령립후보로 내세운것을 반대항의하여 시위, 동맹휴학과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11월에는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청년정치단체들이 조직되였다.

5월 12일 2만 5천명의 마나과 시민들은 웰남민주공화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 항의하고 미제국주의 기발을 불살라버렸으며 웰남과 도미니카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8월 3일 대통령 르네 쉬크가 사망한후 니까라과 상하량원은 부대통령 로렌소 게레로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국회】 량원제. 상원은 임기 6년인 의원 16명과 종신의원인 이전대통령 2명으로 구성, 하원의원은 42명, 임기는 6년.

【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대통령 로렌소 게레로, 외상 카를로스 마누엘 페레스 알론소.

【정당, 사회단체】 **사회주의당**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성립되였고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 **국민자유당** 집권당. 친미부르죠아지와 농장주들의 정당, 지도자 루이스 소모사. **전통보수당** 지주와 천주교회의 세력을 대표하는 친미반동정당. **공화동원당** 1958년에 성립된 야당이며 소부르죠아정당.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가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은 근 30%, 공업은 약 13%)이다.

경제는 소모사일가와 미제에 장악되여있다. 1963년에 미제의 직접투자총액은 4천만딸라이상이였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옥수수, 콩, 목화, 쌀, 사탕수수 등이다.

화페단위는 코르도바, 1코르도바는 100센타보. 문맹자는 주민의 65%이다.

농촌에서는 의료상방조를 받지 못하여 아동사망률이 높다. 로동자들은 낮은 로임을 받는데다가 30%이상을 주택사용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빈궁과 기아가항시 로동자와 농민들을 위협하고있다.

꼬스따리까

(꼬스따리까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

니까라과와 빠나마사이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지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강우량은 3,000mm이상이다.

【면적】 5만 1,000km²

【인구】 148만 6,000명 (1966년) 주민의 대부분은 백인, 에스빠냐인, 인디안의 혼혈족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호세 (주민 16만 6,000명, 1964년)

정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824년에 《중미련맹》성원국으로 되였으나 1938년 련맹이 해산되자 1939년에 독립하였다. 1948년 헌법 개정으로 군대는 페지되고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있다. 1963년 9월 정부는 《중미통합에 관한 일반조약》을 비준하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하였다.

1965년 1월 중미에서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존슨도당의 국무차관보 토마스 맨이 기여드는것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산 호세에 있는 미제대사가 인민들의 반대로 추방되였다.

인민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7월에 정부는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남아프리카정부와 명사관계를 끊었으며 10월 19일에는 영국놈이 경영하는 철도회사에 빌려준 리몬항의 한 잔교를 돌려 받기로 결정하였다. 니까라과와는 국경분쟁이 계속되였다.

1966년 2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친미적인 민족통일당의 립후보자 호쎄 호아낀 뜨레호스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꼬스따리까인민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여 3월 12–16일까지를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으로 기념하였으며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였다. 이 기간에 수도 산 호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진보적사회단체들이 군중집회를 가지고 미제를 규탄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호소문에 대한 서명수집운동을 조직하였다.

사회당과 인민전위당은 4월 28일과 29일에 도미니카인민의 무장봉기 1주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도미니카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주통합군》에 속해있는 꼬스따리까군대를 도미니카에서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민족적리익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꼬스따리까정부는 4월 2일 영국놈철도회사에 푸에또 리몬항의 관리권을 제공하고있던 조약을 페기하였다. 또한 4월 11일 미제어선들이 자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수산자원을 략탈하여가는데 대처하여 령해의 범위를 해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확장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6월 30일 의회자문위원회는 미제가 차관을 주는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150만딸라의 미제차관을 거부한다는것을 놈들에게 통고하였다.

9월 15일 독립일에 수도시민들은 《중미지역방위리사회》와 중미《련합군》이 중미지역에서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온 《니까라오작전》에 꼬스따리까가 참가하지 말것을 요구하여 큰 시위를 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앞에서 국가안전성은 《니까라오작전》에 참가하지않을

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정식 발표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꼬스따리까민간근위대는 이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10월에 미제의 초청하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군사지도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국회】 1원제. 의원수는 57명 (1962년),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40%이상의 투표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호쎄 호아낀 뜨레호스 (1966년 2월 6일 피선, 5월 8일 ─).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성립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현재이름으로 고침, 1948년부터 지하에서 투쟁, 위원장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통일당(집권당). 민족공화당, 민족련맹당이 합당하고 파쑈단체인 《자유꼬스따리까운동》의 성원까지 망라하여 1966년에 결성된 친미반동정당이다. 지도자 호아낀 뜨레호스. 민족해방당 1945년에 성립된 부르죠아정당. 자유당, 꾸바혁명의벗꼬스따리까협회, 근로자련맹.

경제, 사회

인구의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석유, 망간, 류황 등이 있으나 거의 개발되지 못하였다.

주요경제명맥인 바나나생산의 95% (수출의 전부), 코코아생산의 40%, 철도망의 65%는 미제의 자본에 예속되여있다.

미제의 《유나이티드파일회사》는 이 나라 토지면적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며 철도와 무역도 통제하고있다.

화폐단위는 콜론, 1콜론은 100센티모.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과 서독이다.

꼬스따리까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빈궁과 교실의 부족으로 학교에 못다니고있으며 학교에 가는 어린이의 80%가 신발을 벗고 다닌다. 이러한 형편에서 소학교마저 다니지못하고 중퇴하는 어린이가 해마다 3만 5천여명에 달한다.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Republica de Panama

빠나마는 중미와 남미주를 련결하는 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며 꼴롬비아, 꼬스따리까와 접경하고 남쪽은 태평양, 북쪽은 카리브해에 면해있다. 중앙에 빠나마운하가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 (년평균기온이 25～28°C)이다. 특히 해안과 저지대에서는 기온이 높으며 비가 많이 온다. (년평균 강우량은 2,500～3,700mm)

1─5월까지는 건조기이며 6─12월까지는 장마철이다. 장마철이 비교적 길고 대체로 매일 우뢰와 함께 열대성 소나기가 내리며 특히 카리브해안은 우량이 많다. 이것은 운하운영에 큰 도움을 준다.

【면적】 7만 4,470km² (운하지대제외)

【인구】 128만 9,000명 (운하지대제외, 1966년)

주민의 25%가 빠나마시와 꼴론시에 집중되여있다. 인디안과 구라파인의 혼혈인이 65%, 흑인이 13%, 백인이 11%, 인디안이 10%,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빠나마 (33만 8,000명, 1965년)

정 치

빠나마는 1501년 꼴럼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 11월 28일 꼴롬비아에 편입되였다.

20세기초부터 이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미제는 1903년 8월 꼴롬비아가 운하건설조건을 거부하자 이른바 《혁명》을 조작하여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를 독립케하고 그해 11월에 예속적인 《빠나마─미국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와 그 량안 각각 8키로메터 너비의 지대를 《영구조차지》로 빼앗았다. 그리하여 미제는 1904─1914년 8월까지에 운하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해마다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으며 운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 지역에 36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1만명이상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민족적독립과 운하지대의 귀속을 위하여 투쟁하는 빠나마인민들의 압력으로 미제는 1936년에 《미국─빠나마조약》을 수정하고 운하사용료를 올리며 저들이 리용하는 운하지구 이외의 토지를 빠나마정부에 반환하였으며 1947년에는 또일부 군사기지를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55년 1월에 미제가 운하사용료를 년 43만딸라로부터 193만딸라로 올리는 대신 빠나마는 군사훈련기지 2만에이커를 미제에게 무상대여하기로 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의 반미애국투쟁은 꾸바혁명의 승리와 수에즈운하의 국유화이후 더욱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로동자들과 학생들은 빠나마운하의 국유화를 요구하여 1959년 11월에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리고 미제대사관을 습격하였다.

미제는 1960년 9월 운하지대에 대한 빠나마의 명목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운하지대 끝쪽에 미제와 빠나마의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데 동의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운하지대에서 미제국주의기발이 게양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빠나마국기를 함께 게양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1964년 1월 운하지대내의 제놈의 학교에 미제국

주의기발만을 게양하였다. 이에 격분한 빠나마학생들은 반미폭동을 일으켰다.

미제는 류혈적인 탄압으로 빠나마인 300여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치아리정부는 미제를 침략자로 규탄하고 1월 10일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빠나마—미국운하조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미주국가기구의 《조정위원단》을 통하여 운하지대의 계속 강점을 고집하고 경제《원조》의 중지 등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4월 3일 빠나마는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분쟁근원을 조속히 제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과 1966년에도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요구하는 빠나마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였다.

1965년에는 7만 5천명의 빠나마인민들이 5일간 계속 반미시위를 단행한바도 있다. 1966년 1월 9일 3만여명의 빠나마인민들은 1964년 1월 9일 반미폭동시에 미제에 의하여 희생된 애국자들을 추모하는 반미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미제의 기발을 땅에 질질끌고다니다가 불태워버렸다. 이 반미시위는 그후 4일간이나 계속되였다.

2월 18일 빠나마인민당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확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웰남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다. 3월 23일에도 빠나마학생련맹과 빠나마종합대학학생련맹의 주최하에 많은 학생들이 웰남인민과 도미니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빠나마주재 미제의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였다.

2월 25일 빠나마시에서 미주국가기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있을 때 빠나마인민들은 미제의 《미주상설군》조작음모를 폭로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6년에도 미제와 빠나마괴뢰간에 빠나마운하조약의 개정 그리고 새로운 운하건설을 위한 음모가 극비밀리에 진행되였다. 이 새로운 《운하조약》에 의하면 이전 운하와 그 지역을 빠나마에 넘겨주는 대가로 미제는 이미 빠나마운하지대에 설치되여있는 15개의 군사기지 외에 2개를 더 설치하며 이 기지에는 미국놈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국—빠나마》 군부대를 주둔시키게 되였다. 이것은 빠나마인병사들을 빠나마인민의 반미투쟁을 탄압하는데로 내몰려는 술책이다. 이에 격분한 빠나마 인민들은 《양키들은 빠나마에서 물러가라!》, 《우리는 존슨이 계획하고있는 신운하조약을 결코 접수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리였다. 빠나마인민들은 무장을 든 경찰들과 맞서 돌멩이와 몽둥이를 무기로 삼아 용감히 싸웠다.

빠나마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에 미주각국과 국제기구들에서는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빠나마는 꾸바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다. 빠나마에는 미제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대중적인 진출을 탄압하며 꾸바를 침공하기 위한 전문부대들을 양성하는 병영이 있다.

【국민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의원수는 53명.

【정부】 대통령 마르코스 아우렐리오 로블레스 (1964년 10월 1일—), 외상 페르난도 엘따 알마란.

【정당, 사회단체】 1964년에 25개의 정당이 있었다. 그중 민족자유당, 공화당, 민족해방당 등 8개의 정당이 **전국민족애국련합당** (금융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 6개의 정당이 **민족동맹 야당파** (상업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를 형성하였다. **인민당**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1943년 공산당에 기초하여 창건. **사회당**, **선봉인민운동** 등이 있다. **로동조합총련맹**, **인민청년련맹**, **전국평화옹호위원회**.

경제, 사회

경제의 주도적 부문이 미제독점체의 106개의 기업체에 장악되여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개발된 땅은 국토의 15.4%이며 식량수요의 60%를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파인애플, 옥수수, 코코아, 커피 등이다.

주요 지하자원은 금, 철, 수은, 류황, 석유 등이다. 공업의 주요부문은 채굴업 (원유, 보크사이트)과 약간의 농산물가공공업이다.

【출판】 신문 에스트렐라 데 빠나마 엘 빠나마 아메리카, 라오라, 아발란떠끄 마소(인민당기관지)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의 량측 8km의 지대를 말한다. (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면적은 1,432km², 그중 륙지면적이 952km².

인구는 4만 8,700명 (그중 미국인 3만 5,700명, 1963년말)

행정중심지는 발보아 하이츠.

【빠나마운하】 남북미주대륙의 중앙부에 있으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갑문식운하 (2중의 벽과 수도관을 사용하여 배를 통과시키는 운하)이다. 길이64km, 너비 90—300m이다.

하 이 티

(하이티공화국)
Republique Haiti

카리브해상에 있는 하이티도의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동쪽은 도미니카와 접경하고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 (년평균기온이 24~26°C)이다. 산지가 많은 산악국이다.

【면적】 2만 7,800km²

【인구】 448만 5,000명 (1966년 현재)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나머지는 혼혈종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토 프랑스 (주민 25만명, 1964년)

정 치 하이티는 1492년 꼴럼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697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말부터 독립운동이 앙양되여 1803년에 프랑스침략군을 격파하고 독립하였으며 1806년에는 첫 흑인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하이티는 1822년에 도미니카를 정복하고 22년간 지배하였다. 독립후 정치정세는 불안정하였는데 1847－1915년의 근 70년간에 82차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15년 7월 수도 포르토프랑스에서 반정부쿠데타가 일어나자 미제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구실밑에 무장간섭을 감행하고 하이티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하이티인민의 반미투쟁에 못이겨 1934년에 미제침략군은 쫓겨났다.

제2차대전후 미제는 하이티에 친미독재정권을 수립하였고 1957년 9월에는 친미분자 듀발리에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게하였다.

하이티괴뢰정부는 미제의 압력으로 1961년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듀발리에의 대통령임기는 1963년 5월 15일에 끝나기로 되여있었으나 그는 1961년 국회선거에서 1967년까지 임기가 연장되였다고 주장하면서 1963년 5월선거를 거부하고 대통령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를 반대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해 5월에 《통일혁명군》의 반정부투쟁사건, 7월 23일 정부군을 반대하는 무장충돌사건들이 일어났다.

4월 28일 경찰은 하이티《정치범》이 피신하였다하여 자국주재 도미니카대사관을 습격하였다. 하이티괴뢰정권은 저들의 반대파를 감싸주고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미제대사관도 수색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제는 하이티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하고 군사적위협을 가하였으며 미주국가기구로 하여금 《조사단》을 파견케하여 하이티에 압력을 가하였다. 하이티정부는 미제대사놈과 미 《군사사절단》을 추방하는것으로 이에 대답하였다. 이어 8월 6일 하이티정부는 동북국경지대를 전쟁지대로 선포하였다.

그후 하이티가 외국대사관에 숨어있던 도피자들의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도미니카와의 분쟁을 일단 결말지었으며 1966년 7월 7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한편 해외망명자들로 조직된 《하이티혁명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통일전선체인 하이티전국해방운동은 자기의 혁명강령에서 국내의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하여 폭정을 뒤엎고 민족적리익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민족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1964년 6월 듀발리에는 자신의 종신 대통령을 선포하고 8월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966년에 하이티민주력량들의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정치단체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을 조직화하였다. 또한 녀성, 학생들의 정치적조직들이 새로 꾸려지기 시작하였다.

1965년 12월에 미제의 《꼴롬비아방송회사》는 《무장부대들이 듀발리에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 하이티에 들어왔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유격활동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않았다. 인민들은 전횡과 폭압정치를 반대하여 무장을 잡고 싸우는것이 민족적비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인식하고 독재정권을 뒤집어엎을 그날을 위해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립법회의에서 선출하기로 되여있으나 1964년 5월 25일 립법회의에서 《승인》된 새헌법에 따라 듀발리에가 종신대통령으로 되였다.

대통령 프랑소와 듀발리에

【립법회의】 1961년 4월부터 량원제를 폐지하고 1원제로 되였다. 의원수는 58명, 임기는 6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으로서 1951년에 비법화되였다. 혁명행동통일당 (집권당), 사회민주당, 하이티혁명해방전선, 하이티전국해방운동, 학생동맹, 전국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반식민지, 반봉건적농업국가이다.

이 나라 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 (이나라 공업, 농업, 상업에서 총투자액의 70%를 차지함)이 장악하고있다.

미제독점체의 하나인 《하이네이회사》는 이 나라 철도, 조선소 및 제탕공장들과 2만 3천헥타의 사탕수수농장들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의 중요부문은 채굴업 (보크사이트, 아연)과 농산물가공업이다. 공업은 보잘것 없는 몇개의 방직공장과 제철소, 소형세멘트공장들이 있을뿐이다.

경지면적은 전국면적의 3분의 1이다. 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 목화 및 담배 등이다.

미제독점체들과 국내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하여 근로자들의 1인당 소득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주민의 약 85%가 문맹자이다.

화폐단위는 구르드. 1구르드는 100쌍팀이며 0.2딸라와 같다.

【출판】 신문 하이티저널, 레나티오날, 라팔랑게.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Republica de Dominica

카리브해 가운데 있는 하이티도의 동부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4만 8,700km²

【인구】 375만명 (1966년)

주민은 인디안-구라파혼혈인(60%), 백인 (28%), 흑인 (12%)이다. 에스빠냐어를 사용한다.

【수도】 산토 도밍고 (주민 46만 7,780명)

정 치

1492년부터 하이티와 함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고 1795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809년에 흑인들의 봉기의 결과 섬전체가 독립하였고 1844년에는 도미니카가 하이티와 분리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정치정세의 혼란이 계속되였으며 1916-1924년에 걸쳐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에 미제의 원료공급지로 전변되였다.

1930년 정변이후 22년간 라파엘 트루힐로의 테로독재가 계속되였으며 1952년 5월에는 그의 동생이 집권하였다. 인민들의 반미투쟁에 의하여 1962년 1월 16일에는 발라게르가 사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해 1월 16일과 18일에 군사정변이 련속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후안 보슈가 선거되여 1963년 2월에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9월 미제의 사촉하에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보수정권은 전복되고 카브랄군사정권이 수립되였다. 군사정권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모든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1964년 6월에는 자국내정에 미제침략군을 끌어들일수 있는 매국적인 협정을 미제와 체결하였다.

이 해에 활동한 유격대들은 북부, 남부, 서부, 동부에서 6개의 유격전선을 창설하였다.

【정부】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1일-), 외상 길 헤르레라 바에스

【국회】 량원제. 1966년 6월 1일 총선거의 결과 상원의석 27석중 혁신당이 22석, 혁명당이 5석, 하원의석 74석중 혁신당이 48석, 혁명당이 26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사회당** 1942년에 창건된 공산당을 1946년에 인민사회당으로 개칭, 1947년에 비법화되였다. **《6월14일혁명운동》** 1959년 6월 14일에 있은 반독재무장봉기를 두고 이름지은 정당이다. **도미니카해방운동**(1959년 3월 아바나에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도미니카애국동맹》, 꾸바에 있는 《도미니카통일민주전선》, 《도미니카통일전선》 등 애국력량으로 조직됨. **도미니카혁명당** 1939년에 창건. **도미니카애국인민당, 도미니카민족주의당, 기독교민주당, 민주혁명민족당, 도미니카로동련맹, 로동자련합전선.**

【주요사건】 1965년 4월 24일 반동적인 카브랄군사정부를 반대하며 립헌제도의 복귀를 위한 무장봉기가 일어나 국가궁전을 점령하게되자 카브랄은 25일에 사임하였다. 4월 26일 미제는 카브랄의 반동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봉기를 진압하려고 해병대를 도미니카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봉기군은 수도의 많은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5월 4일 봉기군지도자 프랑시쓰꼬 까아마니오가 헌법에 기초하여 소집된 국회 회의에서 립헌정부 림시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선거된 림시대통령은 재 정부구성을 위한 조치로서 3명의 각료를 임명하였다.

6월 10일에는 도미니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립헌정부의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립헌군대의 유지, 1963년 헌법의 유지, 1963년에 선거된 국회의 전권회복, 민주주의적민간정부 구성.

도미니카인민과 봉기군의 억센 항거에 부딪쳐 미제는 군사적간섭과 함께 까아마니오대좌의 림시정부에 대치시켜 5월 7일 안토니오 임베르트 바르레라를 두목으로 하는 친미적인 반동정부군들로서 《국가재건정부》라는 반동적인 《군사-민간 정부》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6월 2일에 저들이 조작한 미주국가기구《3개국위원회》를 통하여 8월 31일 도미니카인민들에게 이른바 《화해안》을 강요하였으며 까아마니오는 이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9월 3일 이전 보슈정부의 외상인 가르시아 고도이를 괴수로하는 《림시정부》가 수립되고 까아마니오는 사표를 제출하였다.

1966년 1월 10일에 60여개 로조단체들은 미제가 통제하는 《미주통합군》을 철수시키며 지난해 12월에 이전 봉기군을 공격한 우익군대장교들을 징벌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지지하여 반미시위와 총파업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로동자의 80%가 시위와 폭동에 참가하였다.

2월 9-17일까지 산토 도밍고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미주통합군》의 가면을 쓴 미제의 침략군을 반대하여 총파업, 시위, 무장투쟁이 계속되였다. 이 투쟁은 그 후에도 계속되였다.

미제는 경찰은 물론 《미주통합군》을 풀어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미 제82락하산사단 소속부대들로 하여금 산토 도밍고를 점령케 하고 시위자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수십명을 희생시켰다. 미제의 무력간섭에 항거해 나선 애국자들은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미제침략군과 괴뢰경찰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미제침략군 짚차 2대를 까부셨다.

27일 산토 도밍고의 대광장에서 도미니카인민의 민족적독립

122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집회가 강력한 반미시위로 넘어갔다.

3월 11일 도미니카의 11개의 항구 1만 8천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이 미국놈의 선박회사가 로동자들을 해고하는 처사에 항의하여 파업하였으며 4월 24일 산토 도밍고에서는 카브랄친미독재정권을 타도한 도미니카인민봉기 1주년에 즈음하여 6만여명의 시위자들이 대규모의 반미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28일에도 미제의 무력간섭을 반대항의하는 격렬한 반미시위가 있었다.

도미니카인민들의 억센 항거에 부딪친 미제는 6월 1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 진보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도미니카에서 인민들의 증오를 받고있는 미제대사 멘네트를 끌어갔으며 또한 저들의 주구인 반동적개혁당출신 호아낀 발라게르를 대통령자리에 앉히기 위한 사전공작에 날뛰였다. 이러하여 미제는 1만 2천명의 군대와 경찰들을 풀어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고 부정선거를 벌려 발라게르를 대통령자리에 앉히였다. 미제가 꾸며낸 부정선거에 격분한 군중들의 반미시위가 폭발하였다.

9월에 《6월 14일 혁명운동》은 《애국주간》을 설정하고 친미적발라게르괴뢰정부의 반역적인 탄압정책과 미제의 무력간섭을 규탄하며 윁남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여 군중집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강화되자 미제의 사촉하에 발라게르는 새 악법을 조작하여 국회에 제기하였으나 진보적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무기한》연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 사회 보크사이트, 석탄, 석유, 철광석, 동, 유색금속 및 희유금속등의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나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인구의 70%이상이 농사를 하고있으며 농업로동자는 154만명이나 된다.

주되는 농산물인 사탕수수는 국민소득에서 60%를 차지하며 그밖에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옥수수 등이 생산된다.

미제에 의하여 강점된후 1년(1965년) 동안에 도미니카는 2억딸라의 손실을 보았다.

1965년에 수출액은 1964년의 1억 8천만딸라로부터 1억 2천 200만딸라로 즉 30%가 감소되였으며 수입액은 1억 4천 400만딸라에 달하였다. 그리고 사탕생산도 심히 줄어들었다.

공업생산도 심히 떨어졌다. 수출액과 사탕생산이 줄어든 결과 정부의 예산수입계획은 40%밖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1965년에 미제의 투자액은 1억 7천 200만딸라에 달하였다. 미제독점체회사들은 이 나라 공업과 농업부문에 투자된 외국자본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이밖에 미제는 대외무역류통의 60%를 장악하고있다.

화폐단위는 페소 (미국딸라와 같음)이다.

1964년에 약 50만명이 실업자였다. 1964년에 생계비는 70%나 올랐다.

주민의 63%가 문맹자이며 학령아동의 절반이상이 공부를 못하고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리베르따드 (도미니카인민운동당기관지), 엘 이헤4 (《6월 14일 혁명운동》기관지).

쟈 마 이 카
Jamaica

꾸바의 남쪽 카리브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쟈마이카란 말은 이 나라 원주민의 말로 《산림과 난류의 나라》라는 뜻이다.

【면적】 1만 1,400km²

【인구】 172만 8,000명 (1964년 말)

주민은 흑인 (76%), 혼혈인 (17%), 인디안 (2%), 백인 (1%) 등이다.

언어는 영어이다.

정 치 1494년 콜럼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령으로 되였다가 1655년에 영식민주의 침략군에 의하여 점령되였고 1670년에 와서는 영식민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원주민인 아라와크 인디안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16세기에 전멸되였고 현주민의 태반은 아프리카흑인노예들의 후손이다. 1958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쟈마이카와 기타 서인도제도로서 《서인도련방》을 조작하였다. 쟈마이카는 1961년 10월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여 1962년 8월 6일 독립하고 영련방에 가입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제와 《방위협정》을 맺고 미제의 군사《원조》를 받기로 하였다.

【국회】 량원제. 상원은 수상의 추천 (13명)과 야당지도자의 추천 (8명)을 받아 총독이 임명하는 21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원은 45명, 임기는 5년, 1962년 4월의 선거에서 로동당이 26석, 대중국민당이 19석을 차지했다.

【정부】 수상 알렉산더 부스타멘테

【정당】 **로동당** 1943년에 성립. 대산업자본가와 농촌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표하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동맹을 주장하고있다. 1962년 4월이래 집권당, 지도자 알렉산더 부스타멘테. **대중국민당** 1948년에 성립, 영제국주의와의 협조를 주장한다. **자유인민운동** 사회주의건설, 군사기지철폐, 평화및 중립정책의 실시를 주장한다.

경 제 경제의 주요부문인 보크사이트 채굴은 미국—카나다계 회사에 쥐여져 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통화는 쟈마이카파운드 (영국파운드와 가치가 같다)이다.

트리니다드-도바고

Dominion of Trinidad and Tobago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이다. 해양성 열대기후로서 기온은 높고 습기가 많다. 6-12월은 우기이다.

【면적】 5,128km² (그중 트리니다드섬은 4,828km²)

【인구】 94만 7,000명 (1964년)

주민은 흑인 (43%), 인도인 (36%), 혼혈인 (16%), 백인 등이며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 (주민 10여만명)

정 치 1498년 콜럼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1797년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958년에 쟈마이카 및 기타 섬들과 함께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 편입되였다가 1962년 8월 31일 독립하고 영련방에 가입하였다.

1965년 7월 16일 수상 에리크 윌리암스는 영련방수상회의에서 《웰남에 관한 평화사절단》을 구성할것을 제의한 영제국주의자들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국회】 량원제.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며 의원수는 24명, 하원은 30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 하원에서 인민민족운동당이 20석, 민주로동당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수상 에리크 윌리암스, 외상 패트리크 솔로몬

【정당】 **인민민족운동당** 1958년에 성립, 현집권당이다. 지도자 에리크 윌리암스. **민주로동당** 1956년에 성립.

경 제 경제발전은 뒤떨어져있다. 경제의 기본은 석유와 피치이다. 석유채굴의 90%와 석유가공공업은 미영제국주의 독점체회사가 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카나다이다. 화폐단위는 서인도딸라이다.

뿌에르또 리꼬

(뿌에르또 리꼬자유련방)

Common Wealth of Puerto Rico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기후는 온화하다.

【면적】 8,900km²

【인구】 286만명 (1966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의 후손과 인디안인이다. 언어는 영어와 에스빠냐어이다.

【행정중심지】 산 후안 (주민 46만 8,000명)

정 치 1493년 콜럼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1898년에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되고있다. 1952년 7월 25일 《내부자치령》으로 되고 총독의 통치밑에 있다.

이 섬에는 미륙군카리브해파견대와 카리브해지구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다.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 특히는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기지로 되여있다.

1965년에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년중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8월 아구아질리아시에서 학생들과 로동자들은 남부웰남침략전쟁을 위하여 강요한 반동적인 《의무병역법》을 반대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10월 31일과 11월초에도 산 후안교외에 있는 《포르트 부챠남》 미제군사기지앞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총독】 루이스 무뇨스 마린 (1964년 5선)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2… 명. 하원의원은 51명, 임기는 4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 년에 창건되고 1944년에 해산되였다가 1946년에 재건되였다. **인민민주당** 집권당, 1938년에 창립되였다. 미제독점체와 련결된 대부르죠아정당이다. **국가공화당** 뿌에르또 리꼬를 미제의 한개 주로 편입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독립운동** 진보적인 인테리, 학생, 소부르죠아대표들로 련합된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단체.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담배, 과일 등이다.

금, 은, 주석, 연, 동, 대리석 등 지하자원이 있다.

미제독점체들은 이 나라 토지의 80%와 가공공업 및 채굴공업을 독점하고있다. 미제독점자본은 이 나라에서 매년 1억 2천 600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로동자들의 평균수입은 미국인로동자수입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32만명의 도시주민들이 집이 없다.

1963년에 실업자는 10만명이였다. 매년 5~6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난다.

바 바 도 스

카리브해의 동쪽끝에 있다. 6-12월은 우기이다.

【면적】 431km²

【인구】 24만 5,000명

주민은 흑인 77%, 혼혈인 1… %, 백인 5% 등이다.

【수도】 브리지타운 (주민 1만여명)

바바도스는 1627년에 영국침략자들이 기여든이래 339년간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었다. 노예상인들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쇠사슬로 묶이여 노예로 팔리여왔다. 바바도스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다.

1966년 1월에 바바도스립헌회의는 년내에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가 있었다. 11월 30일 바바도스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바바도스는 독립하였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있다.

런던에서 작성된 이 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가원수는 영국왕이며 영국왕이 임명하는 상원 (15명)과 선거로서 선출되는 하원 (24명)이 있다.

총독은 영국왕을 대표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있다. 총독 존 스토

바바도스는 락후한 농업국이며 주산물은 사탕, 럼술, 당밀이다.

경제는 외국 특히 영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쥐여져있다. 수출의 90%는 영국과 영련방성원국이 차지한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Republica de Venezuela

남미대륙의 북부에 위치하며 콜롬비아, 브라질, 기아나와 접경하고 북쪽은 카리브해에 면하고있다. 서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동남부는 광활한 밀림지대이며 나머지는 평원지대이다. 기후는 열대에 속하며 낮은 지대는 무덥고 고원지대는 온화하다. 계절은 우기 (6-11월)와 건조기 (12-5월)로 나뉜다.

【면적】 91만 2,000km²

【인구】 903만명 (1966년말)

주민구성은 혼혈인 66%, 백인 20%, 흑인 10%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까라까스 (주민 150여만명)

정 치 1498년 8월에 콜럼부스에 의해 발견되고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811년 7월 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821년에 콜롬비아의 일부로 되였다가 1830년에 콜롬비아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고 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1950년까지 련방공화국으로 부름)

1948년 총참모장이였던 히메네스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고 1953년 1월에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 1월에 공군반란으로 히메네스독재정권이 전복되고 1958년 12월 선거에서 베탕쿠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1년 11월에 쿠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혁명운동》당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0월에는 헌법상 권리의 담보마저 폐지하고 탄압을 강화하였다.

베탕쿠르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심화발전되여 1961년말에는 유격투쟁으로 발전되였다. 1962년 5월과 6월에 까르빠노의 병영과 까베요해군기지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6월에는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들과 단체들로 민족해방전선이 조직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진보적인 로동자, 농민, 학생, 애국적인 군인들과 광범한 계층들로 구성된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였다.

1964년 3월에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라울 레오니는 친미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라울 레오니 (1964년 3월 11일 -), 외상 이그나시오 이리바렌 보르헤스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52명, 하원의원은 168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상원의원은 주, 변강구, 련방직할구에서 각각 2명씩 직접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하원의원은 4만명에 1명의 비률로 선거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 1958년 합법화되였다가 1962년 5월에 다시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헤수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 1960년 4월에 민주행동당내 좌익분자들로 조직되였으며 1962년 5월에 비법화되였다. **민주행동당** (집권당)1941년 창건, 부르죠아정당이다. 지도자 라울 레오니. **공화민주련맹** 1946년에 창건, 부르죠아중간파의 정당이다. **기독교사회당** 지주, 대상업가, 고리대금업자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민족인민전위당** 공화민주련맹에서 분리되여 1964년 2월에 조직, **전국민주전선** 1964년 2월에 조직, 지도자 오스라르 뻬에뜨리. **민족해방전선 및 민족해방군** 1962년 6월에 공산당, 《좌익혁명운동》과 일부 애국적력량으로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 이 산하에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주요사건】 1965년에 친미적인 레오니독재정권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무장투쟁은 6개전선을 형성하여 10여개의 주에서 진행되였다. 《씨몬 볼리바르》전선 유격부대들은 2월부터 6월까지 안쏘아떼끼의 시청과 모탄지역 등을 습격하여 130여명의 정부군을 살상하였고 5대의 군용렬차를 파괴하고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11월초 아라구아주의 유격부대들은 아라구아공군기지와 병영을 습격하였다.

레오니독재정권은 도처에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로벌작전》을 벌리는 한편 인민탄압과 학살에 분주하였다.

4월초에 까라까스에서 30만명의 학생이 물가등귀와 학생들에 대한 박해를 반대하여 반정부시위를 하였으며 7일간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농민들은 9월에 400여개 농민단체의 제2차대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35만세대에 토지를 나누어줄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과 웰남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무장간섭과 침략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1966년에 베네수엘라인민은 무장투쟁만이 진정한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는 길이라는것을 자신들의 투쟁을 통하여 체험하고 무장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였다.

민족해방전선 및 민족해방군은 무장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농민대중을 투쟁에 인입하였다.

2월에 민족해방군은 라라주에서만도 유격대를 반대하는《토벌작전》에 참가하였던 정부군 170여명을 살상하였으며 꾸차론지역에서는 2대의 자동차를 폭파하여 적군 25명을 살상하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4월에는 라라주에서 정부군을 공격하여 6명을 살상하고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른 유격대들은 라라주 나이르구아시의 오리쏜떼라지오방송국을 점령하고 나라의 전체 애국적인민들에게 현 독재자 라울 레오니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것을 호소하는 민족해방군의 호소문을 전국에 방송하였다.

9월에 까라까스에서는 경찰총국장 호세 가브리엘을 포함한 세놈의 경찰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또한 베네수엘라경찰총국의 가장 악질적이며 친미분자인 재판관 알프레도를 처단하였다.

10월에 라라주에서 활동하고있는 유격대원들은 정부군 해병대의 한 순찰대를 공격하여 1명의 장교와 수명의 병사를 살상하였으며 다른 유격대원들은 정부군의 후방사령관의 집을 습격하였다.

11월에 유격대원들은 뽀르뚜게스주의 오스빼그지역에서 정부군 10여명을 소멸하였으며 한편 꾸아지끄주의 짜오와 그란데부락의 지방정권기관들과 전화국을 점령하였다. 또한 그 부락에 있던 반동주구들을 처단한후 중앙광장에서 부락주민들의 반정부집회를 조직하였다.

이 집회에서 유격대원들은 레오니독재정권을 쳐부시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며 유격대를 적극 지원할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유격대원들은 베네수엘라주둔 미제사절단놈들의 집을 습격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수도에 있는 미국놈들이 경영하는 백화점을 습격하여 불을 질렀으며 25일에는 친미반동두목 레오니가 《미국공업박람회》의 개관식을 사회할때 박람회장을 습격하여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또한 미제대독점체인 록펠러재단이 운영하는 시장을 습격하여 폭탄과 수류탄 벼락을 안기였다.

한편 까라까스의 유격부대들은 정부군 총참모장 알베르또 모레이우 쏘또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반유격대 대장 프란씨쓰꼬를 처단하였고 정부군 군관학교 교장 사택을 습격하였다.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레오니 정부는 1천여명의 정치범들을 감금하였으며 5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라울 레오니독재 정권은 5천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중앙대학을 점령하고 수백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학생들은 정부의 학원에 대한 폭압조치를 규탄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라울 레오니독재정권은 상시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헌법상 권리정지를 선포하였다.

5월에 베네수엘라 인민은 도미니카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설정하고 《도미니카인민과 함께》라는 구호를들고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와같이 민족해방투쟁과 인민들의 앙양된 반미반정부 투쟁은 레오니정부를 더욱더 공포에 떨게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석유공업과 광업이다.

석유와 철광석을 비롯하여 금강석,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 지하자원이 있다.

국가예산수입의 약 60%, 외화수입의 약 98%를 석유에서 얻고 있다.

석유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완전히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4년에 베네수엘라에는 라틴아메리카에 투하된 미제독점자본의 31.4%가 집중되여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제는 석유의 70%, 광업의 89%, 전력의 70%, 건축업의 27%, 상업의 15%를 장악하고 있다.

철광석채굴도 미제독점체들이 70%를 점유하고 매년 1천 600만~1천 700만톤을 채굴할수 있는 5만 7천헥터의 철매장지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극히 락후하며 주민의 34%가 이에 종사한다.

주민의 1.5%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경지면적의 78.7%를 차지하고있다.

농업은 국내식량수요의 5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철광석, 코코아, 커피 등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 미국 (34%), 카나다 (9%), 영국, 화란 등이다.

그밖에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국가들과 약간의 무역이 진행되였다.

수입은 경공업제품, 식료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수입국은 미국 (53%), 서독 (9%), 화란 (9%), 이딸리아 등이다.

1966－1967학년도에 200만명의 학령아동이 학비난과 교실부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1966년도에 실업자는 80만명에 달하였으며 수도 까라까스에서만도 주택이 없어 약 5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았다.

화폐는 볼리바르이다.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있는바 1963년에 대내채무는 13억 3천600만 볼리바르이며, 대외채무는 4억 2천 800만 볼리바르였다.

【출판】 신문 라 레뿌브리까 (정부기관지), 트리브나 포쁘라르 (공산당기관지), 이쓰끼에르다 (좌익혁명운동기관지), 뿌에블로이 레보루시온 (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 아 나
Guiana

라틴아메리카의 동북쪽에 있으며 동쪽은 화란령기아나, 서쪽은 베네수엘라, 남쪽은 브라질과 접경하고 북쪽은 카리브해에 면하고있다. 기후는 온화한 열대성기후이다.

【면적】 21만 4,970km²

【인구】 64만 1,000명 (1965년초)

주민중 인도인이 49.2%, 흑인이 31.7%, 혼혈인이 12.2%, 아메리카인디안이 4.6%이고 기타 뽀르뚜갈인, 중국인, 구라파인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조지타운 (주민 16만 2,000명)

정 치 15세기말 에스빠냐 항행자들에 의하여 발견된 기아나는 16세기 말에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격렬한 식민지쟁탈전의 무대로 되였다.

1596－1626년기간에 기아나는 구라파식민주자들의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여러번 옮겨지다가 1814－1817년에 3개 식민지로 분할되면서 1814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에 체결된 영, 미조약에 의해 미제는 영령기아나령토의 일부를 군사기지로서 99년간 조차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독립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53년에 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수립된 인민진보당의 자간정부가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자 이에 당황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해 10월에 무력으로 자간정부를 전복하였다. 1957년 8월에 있은 선거에서 인민진보당이 다시 승리하였다.

1960년 3월 《헌법제정회의》에서 영제국주의자들은 기아나의 독립을 거부하고 극히 제한된 《내부자치》만을 허용하는 새 헌법에 동의하였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61년 8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진보당이 자치정부를 조직하였다.

자간정부는 민족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적개혁의실시,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계획 등 민족적리익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독자적외교정책, 각국인민들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주장하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요구하였다.

새 헌법 (1961년 7월 18일 발포)은 2년이내에 영령기아나에 완전독립을 줄것을 규정하고 1962년 1월에 영국은 영령기아나의 독립날자를 제정하기 위한 회담을 이 해 5월에 런던에서 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영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진보당에 정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력량》당을 리용하여 기아나에서 불안을 조성하였다.

1962년 2월에 자간정부의 새 예산안을 반대하여 반동적인 《통일력량》당은 미제의 적극적인 재정적지원밑에 반정부폭동을 일으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법과 질서확립》이라는 구실밑에 기아나에 군대를 파견하여 반동들을 비호하는 한편 폭동을 구실로 영령기아나의 독립을 지연시켰다.

1963년 4월 22일 반동적인 인민민족대회당의 영향하에 있는 로동자총동맹은 로동관계법을 반대하여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제는 《파업자》들에게 재정적원조를 주는 한편 기아나에 대한 경제봉쇄를 실시하였다 .

영식민주의자들은 7월 2일 기아나의 흑인과 기아나인도인간의 종족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자간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의 지지밑에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하였다.

영국총독놈은 1964년 2월에 있는 흑인과 인도인간의 종족충돌을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5월 2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6일에는 320여명의 영국침략군을 기아나에 끌어들였으며 (기아나주둔 영국침략군 총수는 1천 300명) 영국침략군장교가 통제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하였다. 6월 13일 영국총독놈은 출판물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실시할것을 공포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미제와 공모하여 자간정부를 내쫓고 반동정권을 수립할 목적밑에 1964년 7월 25일 립법회의를 해산시키고 12월 7일 비법적으로 립법회의선거를 강행하였다.

영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책동에도 불구하고 인민진보당은 선거에서 45.8% (24석)의 지지를 얻어 반동적인 정당들을 제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영국총독놈은 12월 14일 반동적인 인민민족

대회당과 《통일력량》당의 련립정부를 비법적으로 조작하였다.

이 반동적인 련립정부는 수입세와 모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리윤세를 폐지하고 보크사이트, 석유의 채굴권과 바나나, 담배의 재배권을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등 경제를 외국자본에 예속시켰으며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금지하고 인민탄압을 강화하였다. 탄압속에서도 인민들은 나라의 즉시적인 독립과 새로운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이에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1965년 11월 2일 런던에서 기아나반동정부와 《독립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1966년 5월 26일에 영령기아나가 총독과 영국침략군대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영련방에 가입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독립하고 나라이름을 기아나로 부르기로 하였다.

독립후 기아나당국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미제와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12월 8일 국회는 《국가안전》법이라는 악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1964년 5월에 선포된 비상사태를 12월 31일에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총독】 리챠드 에드몬드 라이트

【립법회의】 1원제. 의석은 53석, 그중 인민진보당은 24석, 인민민족대회당은 22석, 《통일력량》당은 7석 (1964년 12월 7일에 선거).

【정부】 수상 포베스 버남. (1964년 12월 14일 ─, 인민민족대회당).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에 성립, 민주주의력량을 집결한 이 나라의 최대정당 총비서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 지도자 포베스 버남. **《통일력량》당** 1961년에 성립, 부르죠아—지주들에 의거하고있는 극단적인 우익정당. **로동총련맹** 인민민족대회당의 영향하에 있는 반동적인 로조단체. **진보청년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은 농민이며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쌀, 야자, 커피, 코코아 등인바 그 재배면적은 전체 경작지 (전령토의 9%)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자원은 보크사이트, 금강석, 망간, 금, 철, 운모 등이다. 사탕생산과 보크사이트, 망간 채굴은 거의나 영국, 카나다, 미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65년에 미제국주의 독점체인 《레이놀드》금속회사가 영령기아나정부와 75년간의 보크사이트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텍사스》, 《쉘》및 《콘티넨털》석유회사들은 기아나에서 석유채취권을 략탈하였다.

사탕과 보크사이트는 이 나라 수출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75%를 차지한다.

문맹자는 주민의 80%나 된다.

화란령 기아나
(수리남)

남미대륙의 북쪽끝에 있으며 기아나와 프랑스령기아나사이에 있다. 기후는 덥고 비가 많이 온다.

【면적】 14만 2,822km²

【인구】 33만명 (1962년추정)

주민은 크리올인, 인디안, 구라파인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 (주민 10만 7,000명, 1958년)

1667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미제는 이 나라에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공군기지를 설치하였다. 1962년 4월 미제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제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냈다.

령토의 90%는 사람이 없는 지대이며 주민의 70%가 농사를 하고있다.

주산물은 보크사이트, 금, 사탕, 커피, 바나나, 목재 등이다. 보크사이트의 채굴은 미국—카나다회사와 화란회사가 쥐고있다.

프랑스령 기아나

남미대륙의 북쪽끝에 있다.

【면적】 9만 1,000km²

【인구】 3만 5,000명 (1963년평가)

주민은 인디안, 크리올린, 혼혈인

【행정중심지】 카이엔느 (주민 2만 8,500명)

1815년에 프랑스식민주의의 식민지로 되였고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식민주의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며 금도 생산된다.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Estados Unidosdo Brasil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동북부에 놓여있으며 칠레, 에꽈도르를 제외한 남미의 모든 나라들과 접경하고있는 가장 큰 나라이다.

남미에서 제일 큰 아마존강 (5,570km)이 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중남부의 고원지대에 살고있다. 아르헨띠나와의 국경가까이에는 높이 80m의 이구아쓰폭포가 있다.

기후는 열대, 아열대, 온대의 3기온에 속하여있고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아마존강의 중류지대 기온은 27°C, 강우량은 1,995mm에 달한다.

【면적】 851만 6,037km² (남미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구】 8,467만 9,000명 (1966년 11월 현재)

주민은 주로 백인 (63.46%), 흑인 (14.64%), 갈색인 (21.1

%), 기타 일본인, 이딸리아인, 중국인 등 이주민이 많다.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18만명)

정 치 16세기초에 뽀르뚜갈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2년에 독립하여 돈베뜨로왕국을 선포하였다. 1889년 11월에 쿠데타에 의하여 군주제가 철폐되고 1891년 제헌회의가 소집되여 신헌법을 채택하고 공화제가 발족되였다. 1930년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대체로 평온한 국가로서 발전하였다. 바르가스대통령은 1937년에 《공산주의위협》의 구실하에 의회를 해산하고 반동적인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제2차대전시기인 1942년에 독일과 이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1944년에 이딸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기지를 제공하였다.

1945년 10월에 군사정변에 의하여 바르가스정부가 전복되여 1946년 9월에 바르가스독재헌법이 폐지되고 신헌법이 제정되였다. 1950년 대통령선거에서 바르가스가 다시 집권하였으나 1954년 8월 군부에 의하여 추방되자 자살하였다.

1955년 10월 선거에서 바르가스파인 쥬세리오 꾸비체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꾸비체크는 국내에서 인민들과 진보적인 사회계의 강력한 반미투쟁의 압력밑에 1956년 8월 미제에 대한 우라늄수출을 금지하고 우라늄공동개발에 대한 미제와의 협정을 폐기하였다.

1960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쟈니오 과드로스가 당선되였으며 부대통령역시 로동당의 립후보자 굴라르트가 되였다.

과드로스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것과 꾸바에 대한 외국의 어떠한 간섭도 반대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지위의 회복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부대통령 굴라르트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미제는 반동적인 군부를 사촉하여 부대통령이 중국방문중인 1961년 8월에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과드로스는 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하고 헌법상요구로 부대통령인 굴라르트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굴라르트는 과드로스의 대내외정책을 견지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자주, 불간섭》, 《자주적경제발전》로선을 취하였다. 1964년 3월에 우익분자들과 군부세력들이 미제의 사촉을 받아 미나스제라스주에서 반정부반란을 일으켰다. 굴라르트에 의해 철직되였던 전륙군참모장 까스뗄로 브랑꼬가 이 반란에 합세하여 굴라르트정부를 전복하였다. 브랑꼬는 군사독재통치로 넘어가 브라질의 진보적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구금하거나 해외로 추방하였으며 진보적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법화하였다. 5월 13일에는 미제의 사촉하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외국자본도입제한법, 외국자본의 리윤반출제한법 등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국내자원채굴권을 외국회사들에 넘겨주었다.

【대통령】 꼬스따 에실바 (1967년 3월—), 외상 브라시 마갈하에스.

【국회】 량원제. 상원은 66석, 각 주 및 련방구역에서 각각 3명씩 선거된다. 임기는 8년. 4년만에 4분의 1, 다음 4년째에는 4분의 3을 개선한다. 하원의원은 409명,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5일 창건, 1947년 비법화. **로동당** 상공업자들을 비롯한 민족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1945년에 창건. **전국민주련맹당** 1935년에 창건, 예속부르죠아지, 대지주, 중소부르죠아지 및 대학생들을 대표. **사회민주당** 1933년에 창건, 신흥부르죠아지를 대변. **사회진보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브라질민주주의운동, 공화당, 인민대표당, 로동총련맹.**

【주요사건】 1965년 브랑꼬군사독재정권은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반인민적탄압에 광분하였다. 3월에 《선거자격법》을 채택하고 일체 다른 당들에서 대통령립후보자로 나서는것을 금지시켰으며 거의 60%나 되는 전국의 유권자들에게서 문맹자라는 구실로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9월에는 인민운동을 공동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아르헨띠나와 쌍무적군사협정을 맺었으며 10월에는 《기본법2호》와 그 보충안에 따라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하며 전국에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헌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자신이 가진다고 선포하였다. 정부의 탄압정책에 항거하여 3월에는 리오그란데 도 술주 남부에 있는 2개 도시에서 반독재무장투쟁이 일어났다. 무장한 애국자들은 정부군으로부터 군수품을 빼앗고 방송국을 점령한후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설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66년에 브랑꼬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법조작에 힘썼다. 2월에는 《새로운 선거법안》을 조작하여 대통령선거를 457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간접선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정부내 정치세력호상간의 의견대립과 정부와 국회간, 군부내에 갈등이 전례없이 격화되였다. 브라질의 고급장교들은 브랑꼬군사정부의 종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새로운 선거의 실시와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였다. 제2군관구사령관 아마우리 크루엘은 브랑꼬를 반대하여 사임하였으며 브라질을 《전제주의》통치에 빠뜨린다고 항의하는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국회는 브랑꼬정부가 야당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야당들

의 국회의석수를 박탈하는 법령을 채택하게 되자 브랑꼬를 반대하는 강경한 립장을 취하였다.

위기에 처한 브랑꼬는 10월에 국회직능을 중지시켰다가 11월에 진행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립법행정권을 직접 틀어쥐고 자기 지지자들로 국회를 구성하려고까지 하였다. 야당세력들의 완강한 반대와 군부내 우익계층의 지지를 받지못한 브랑꼬는 대통령립후보로조차 나설수 없었다.

국회는 꼬스따 에실바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여 브랑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또한 야당세력들은 《통일전선》을 구성하고 강령을 채택하였다.

브라질은 6월 13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항공수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1969년 기간에 쏘련과 1억딸라에 달하는 기계와 설비를 브라질에 제공할데 대한 의정서를 8월 10일 조인하였다.

12월 브라질에서 사탕부문로동자 10만여명이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과 밀린임금을 내줄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진행하였다.

브라질의 대학생들은 10여차에 걸쳐 브랑꼬정부와 국회선거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은 단결하여 독재정권을 타파하자고 호소하였다. 브라질의 망명객들은 브라질민족주의군사저항전선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여 웰남, 도미니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군사정권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경제, 사회 브라질은 반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던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점차 외국자본에 예속된 공업국가로 되여가고있다. 2차대전후 미국,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일본, 서독 등 제국주의독점재벌들의 급속한 침투로 공업이 더욱 예속화되였다. 굴라르트 집권시기 민족공업을 보호육성하며 원료수출로부터 공업제품수출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하여지고 토지개혁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군사정변후 굴라르트가 실시한 경제정책들을 폐기하고 미제의 전쟁정책에 추종하는 군수산업에 력량이 집중되였다.

석탄, 망간, 우라늄, 철, 금, 원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흑색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및 기타 일련의 공업부문에서 생산의 80%이상을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1966년 6월현재 30억 7만 5천딸라의 미제자본이 브라질공업과 기타 경제부문에 투자되였다. 1966년 한해동안에 《미국제개발처》가 브라질에 준 차관은 2억 4천 300만딸라이다. 브라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은 폐쇄되였다. 싼빠울로에서 346개의 기업소와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22개의 야금공장이 문을 닫았다.

브라질에서는 국토의 39%가 경작되고있으며 0.98%에 해당되는 대지주들이 경작지의 47.3%를 차지하고있다.

주산물은 커피, 코코아, 옥수수, 담배, 콩, 목화 등이다.

브랑꼬는 존슨도당의 농업성과《브라질－미국농업기술기관》을 창설하였다. 미제는 이 기구를 통해 아마존류역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66년에 식료품과 필수품 가격을 평균 40～50%이상 인상시켰으며 집세, 음료수세를 비롯한 각종 잡세를 새로 개정하였다.

어린이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서 1천명당 사망자는 136명이며 인구의 약 60%가 문맹자이다. 실업자는 75%나 된다. 하루에 평균 100명의 아동이 굶어죽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싸 쁘레쓰(브라질통신사). 신문 클라쎄오페라티아 (브라질공산당기관지), 노부스루무스 (브라질의공산당기관지), 울티마오라 (로동당기관지),

콜롬비아

(콜롬비아공화국)
RePublica de Colombia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동부는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성이다.

【면적】 113만 9,200km²

【인구】 1,861만 8,000명 (1966년 11월).

주민은 주로 혼혈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보고따 (주민 148만 7,920명, 1964년).

정 치 16세기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10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1819년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빠나마와 대콜롬비아련방을 형성하였었으나 1829－1831년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가 떨어져나가 독립하였고 1903년에는 빠나마가 떨어져나갔다. 1886년 나라의 이름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고쳤다.

1930－1946년까지 정권을 쥐고있던 자유당이 분렬되였다. 1946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 보수당정부는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반대파인 자유당과 인민에 대한 탄압에 날뛰였다. 이시기 약 20여만명의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1948년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봉기와 토지를 위한 농민운동이 앙양되였다. 1950년에 대통령으로 된 보수당 고메스정부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고 1952년에는 미제와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1957년 5월의 인민투쟁으로 로하스독재정권이 전복되였다. 독립이래 정권쟁탈전을 벌려온 보수당과 자유당은 1957년 12월 헌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12년간 (1958년에 16년으로 수정) 량당이 대통령자리는 4년간씩 륜번제로, 의회의석과 각료직은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962년 11월 의회는 인민혁명운동을 탄압할데 대한 《특별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미제의 원조와 지휘하에 마르께딸리아의 유격대에 대한 《토벌전》을 대대적으로 벌렸으나 실패하고말았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자유, 보수 량당에서 륜번제로 선출된다. 대통령 까를로스 레라스 레스뜨레뽀 (자유당 1966년 8월 7일—).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106명,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190명, 임기는 2년이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자유당**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보수당** 지주, 교회, 대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며 미제의 대독점자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자유혁명운동당** 1960년에 자유당에서 떨어져나왔다. 이 당은 중소부르죠아지들과 일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로 구성되였다. **로동련맹, 근로자로조련맹** 1964년 5월에 조직된 진보적단체이다. **전국농업로동자련맹. 공산청년동맹, 웰남인민단결위원회** 1962년 12월 18일에 창립.

【주요사건】 1965년에 반미반정부유격투쟁이 앙양되였다. 수도이북 산쩬데르주에서 활동하는 유격부대들은 1월 7일에 꼴롬비아 민족해방군을 조직하고 그의 지도자로서 파비오 까스게스 까스따냐를 선출하였다. 수도이남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들은 마르께딸리아, 과야베로, 쑤마빠스, 엘 빠또, 싼 따데르에 5개의 유격전선을 펴고 활동하였다.

5월에 미제침략군의 지휘하에 약 2만명의 병력과 《비29》를 비롯한 많은 비행기, 대포, 땅크까지 동원하여 5개의 유격지구에 대한 《토벌작전》을 진행하였다. 유격대는 민첩한 이동유격전술로써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켰다.

1965년에 결성된 꼴롬비아인민통일전선은 각계각층인민들을 유격투쟁에 망라시켰다. 9월에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들이 남부유격련맹을 결성하였다.

정부군자신이 전국의 《54개 지대중 46개 지대는 공산지대로서 맑스-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고무를 받고있는》 유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대라는것을 인정하였다.

반동정부는 5월 21일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미반독재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나 세차게 전개되는 인민들의 투쟁과 국내의 위기로 내각은 8월에 총사직하였다.

1966년 3월 20일 꼴롬비아에서 립법기관총선거가 진행되였다. 106명의 상원의원과 190명의 하원의원이 새로 선거되였다. 700만의 유권자중 36%가 선거에 참가하였다. 5월 대통령선거가 군대의 총검밑에 진행되였는바 까를로스 레라스 레스뜨레뽀가 유권자의 30%만이 투표에 참가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8월에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까를로스 레라스 레스뜨레뽀는 반인민적인 세개의 악법을 조작하였다. 이 법령에는 언론, 집회, 시위, 결사가 금지되였으며 대학의 자치제가 취소되였다. 또한 일체 진보적인 활동이 금지되였다. 이것을 반대하여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동시에 교원들의 파업투쟁이 강화되고 빈번한 무장충돌로 인한 1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자 대통령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66년에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앙양되였다. 유격투쟁은 10여개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있었다. 유격부대들은 수도 보고따를 중심으로하여 그 이북에서는 꼴롬비아 민족해방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수도 이남지역에서는 꼴롬비아무장군이 활동하고있었다. 민족해방군은 호세 안또니오 가란전선과 라메로전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혁명무장군은 마르께딸리아, 과야베로, 엘 빠또 리이오 찌끼또, 쑤마빠스의 기본전선이 있었다. 1월 똘리마와 우일라 등 중부주들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는 반동적인 정부군에 여러 차례의 공격을 가하여 적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꼴롬비아인민통일전선 위원장 까밀로 또레스는 전국인민들에게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자신도 직접 민족해방군에 입대하여 투쟁하다가 2월 5일의 전투에서 희생되였다.

2월에 민족해방군과 남부유격부대들이 까밀로 또레스의 희생을 계기로 무장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자 이에 겁을 먹은 적들은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유격투쟁은 더욱 앙양되여 5월말에는 수도이남에서 활동하고있던 지역유격대 책임자 57명이 모여서 꼴롬비아혁명무력을 창설하였으며 투쟁강령을 작성하였다. 8월과 9월에 마르께딸리아, 과야베로 지역과 우일라주, 똘리마주에서 활동하고있던 유격부대들은 전문적인 반유격전술훈련을 받았으며 비행기와 포까지 동원한 정부군과의 수십차의 대소전투를 통하여 100여명이상의 적군을 소멸하였다. 한편 친미괴뢰정권은 19개의 지방과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제침략군 장교들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유격활동구역에 대한 소위《특수계획》을 수립하고 200여명의 간첩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반미반정부유격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시위와 파업투쟁도 계속 일어났다. 4월에 9만명의 꼴롬비아교원들이 임금인상과 교육조건의 개선을 위한 27일간의 완강한 파업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였으며 또한 전국 대학생들은 감금된 1천 500명의 정치범들의 즉시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로조련맹도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고따시민 6만명이 7월에 파업을 선포하고 9월 24일부터 4주간에 걸친 교원들의 《기아행진》을 지지하는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국회청사앞에 모여 교육조건의 개선과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호총수의 3%에 불과한 지주가 농경지의 55%를 차지하고있으며 농민의 61%가 토지의 겨우 3%를 가지고 있을뿐이다.

주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유, 석탄, 금, 백금 등이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다.

미제는 이 나라의 경제에서 커피 70%, 석유 80%, 기타는 90%를 장악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의 직접적투자액은 1964년말에 5억 2천만딸라였으며 그중 석유공업에 2억 7천만딸라, 가공공업에 1억 4천 500만딸라가 투자되였다. 외국독점체들은 매년 1억 2천 500만딸라의 리윤을 짜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석유, 바나나, 목화 등이다.

화폐단위는 페소이며 화폐비률은 13.5페소 대 1딸라이다.

1965년도 대내부채는 60억 8천 550만페소이며 대외부채는 13억딸라이다. 실업자는 50여만명이며 반실업자는 190여만명이나 된다. 생계비는 1965년 첫 7개월동안에 70%나 올랐다. 문맹자는 주민의 50%이며 학령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출판】 신문 보스 프로레타리아(공산당 기관지), 레볼루시온 (공산당리론잡지), 라 레뿌블리까, 보스 델라 데모그라시아, 엘 씨글로.

에 꽈 도 르

(에꽈도르공화국)
Republica de Ecuador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부는 뻬루, 북부는 꼴롬비아와 접경하고 있다.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적도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후는 무덥다.

【면적】 27만 700km²

【인구】 524만 8,000명 (1966년 평가)

주민의 약 80%는 인디안과 혼혈인이고 10%는 구라파인이며 15만명 이상의 흑인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다.

【수도】 끼또(주민 37만 5,000명)정치, 경제생활의 중심지는 과야낄(주민 60만명)이다.

정 치 1532년부터 3세기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30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정변이 빈번하여 1949년까지 헌법을 열번이나 개정하고 44회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자기 임기를 맞춘 대통령은 10명뿐)

미제는 벨라스코친미독재정권에 강요하여 1952년에 《군사협정》과 《농업협정》을 맺고 군사《고문》들과 이른바 《기술자》들을 많이 침투시켰다. 1961년 11월 7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정부투쟁으로 벨라스코정권이 타도되고 아로세메나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2년 3월 미제의 사촉을 받은 군부의 압력으로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4월 13일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와도 외교관계를 끊었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에 불안을 느낀 군부내의 친미분자들은 미제의 사촉을 받아 1963년 7월 11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로세메나 정권을 뒤엎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작해냈다.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체포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탄압속에서도 1964년 1월 끼또와 기타 중요도시들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떠섰으며 9월에 과야낄에서 있은 시위는 폭동으로 넘어갔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1967년 에꽈도르 최고립법기관인 민족회의는 림시대통령으로 있는 오또 아로세메나 고메스가(1966년 11월 16일 선거됨)1968년 9월 2일 대통령선거때까지 대통령직능을 수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민족회의】 량원제. 상원은 32명, 임기는 4년, 하원은 71명, 임기는 2년으로 되여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조직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 1963년 7월 군사정권에 의해 비법화됨, 총비서 뻬드로 사이드. **보수당** 미제독점체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가장 반동적인 부르죠아-지주의 정당. **사회기독교운동** 반동적인 기독교인들의 정당. **자유급진당** 주요상공업자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군사정권을 지지하고있다. **사회혁명당** (1960년까지는 사회당). **인민혁명운동** 진보적인 민주주의 정당들과 단체들로 조직.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주요사건】 1965년에 친미반동군사정권은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인민들과 반대파세력에 대한 테로와 탄압을 강화하였으나 군사정권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였다. 1월 29일 끼또에서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폭발되여 《리오

데 자네이로조약》의 페기를 요구하였다.

5월에는 파야낄에서 친미독재정권의 사임과 미국놈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수입하는 설비와 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의 철페를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들이 진행되였으며 상점과 은행들은 10여일간이나 문을 열지 못하였다.

군사정권이 1966년 9월까지 군사통치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7월 5일부터 수도 끼또, 파야낄 및 기타 도시들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인민들이 군사독재의 즉시 종식과 립헌정부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적인 시위들을 진행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군사내각은 7월 17일 총사직하지 않을수 없었다. 7월 29일 군사위원회는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무마해 보려고 7명의 민간인과 1명의 장교로 새 내각을 만들어놓았다.

1966년에 반미 반독재 투쟁은 끼또를 포함한 대도시들과 7개 주에로 파급되였다. 로동자, 학생 및 기타 각계층주민들은 미제의 억압과 략탈 그리고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미제를 타도하라!》,《독재정권을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미국-에꽈도르문화회관과 미제대사관을 습격파괴하고 에꽈도르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며 독재정권의 종식과 진정한 헌법을 요구하였다. 시위자들의 강력한 진출로 말미암아 전국의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고 끼또, 파야낄을 비롯한 기타도시들에서 모든 업무활동이 마비되였다.

1월과 2월에 대규모의 반미반독재시위투쟁이 있은데 뒤이어 3월 18일 수도 끼또, 꾸엔까, 로하, 마나비, 뚤깐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파업과 시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강력한 반미반독재투쟁에 겁을 먹은 군사통치자들은 수많은 군대와 경찰들을 인민탄압에 동원시켰다. 시위자들은 이에 항거하여 용감히 싸웠다. 인민들의 계속되는 반독재투쟁에 의하여 3월 29일 친미《군사정권》의 두목들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망쳤다. 군대의 사령부와 정당대표들의 협상의 결과 클레멘떼 예로비 인다부로가 림시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어떠한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공정한 민간인정치가》라는 딱지가 붙은 이 《림시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된 30일 수도 끼또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반정부시위가 폭발되였다. 시위자들은 인다부로를 《림시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웨쳤다.

8월 24일 에꽈도르 과일수송로동자 1만 1천여명은 친미정부의 억압을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된 정세하에서 9월 23일 파야낄에서 로동자, 농민, 학생, 녀성 및 인테리 단체들로 구성된 에꽈도르좌익인민전선이 창설되였다. 이 전선의 강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며 인민의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진정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적억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10월 16일 에꽈도르민족제헌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전국 19개 주와 갈라빠고스 섬에서 67명의 의원들을 선거하였다.

11월 16일부터 에꽈도르는 군사독재를 끝내고 립헌정부로 되돌아가고 헌법개정회의에서 79명의 위원들이 오또 아로세메나를 림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며 로동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170만명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전국토의 75%가 산림지대이며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약 10%에 불과하다. 농업은 봉건적 및 반봉건적잔재가 지배적이다. 369명의 지주(그중 160명은 천주교회)가 경지면적의 41%를 소유하고 있으며 25만명의 농민은 토지의 7%를 소유하고있다. 농민의 반수이상은 전혀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코코아이며 이것들은 수출에서 85%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석탄, 철광, 금, 은, 동 등이 있다.

공업은 보잘것없으며 방직공업, 제약공업 및 소규모식료공장이 있을뿐이다.

나라의 경제명맥은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65년에 미제는 에꽈도르에 4천 150만딸라의 추가투자를 하였으며 《미주개발은행》을 통하여 독재정권에 준 차관은 1억딸라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미제독점체들은 바나나의 수매를 비롯한 생산물수출의 거의 전체를 독점하고있으며 금과 백금의 채굴권, 목재채벌권, 석유채취권을 쥐고있다. 최근년간에 서독과 일본군국주의, 프랑스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1965년에 수출은 전년보다 100만딸라가 줄은 1억 3천 310만딸라, 수입액은 1천 180만딸라가 늘은 1억 4천 970만딸라였다. 주민 1인당소득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적은 나라이다.

1964년에 실업자는 100만명이였다. 문맹자는 주민의 44%이상에 달한다.

【출판】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1966년 4월 30일부터 합법적으로 인쇄)

뻬 루

(뻬루공화국)
Republica de Peru

남미대륙의 서쪽, 태평양연안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나라이다

뻬루는 에콰도르, 꼴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및 칠레와 접경하고있다. 해안지방과 아마존강 상류의 밀림지대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고원이다. 기후는 평지에서 열대성이고 산악지대는 춥다.

【면적】 124만 9,000km²

【인구】 1,201만 2,000명 (1966년)

주민의 60%가 인디안인이며 기타는 혼혈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리마 (주민 171만 5,000명)

정 치 인카제국의 일부였던 뻬루는 1531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에 완전 독립을 쟁취하였다.

1948년 10월에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빼앗은 마누엘 오드리아는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을 비법화하였으며 1952년에는 미제와 《군사협정》을 맺었다.

1956년 6월의 총선거에서 1939－1945년간의 대통령이였던 프라도가 인민당의 합법적지위회복을 교환조건으로 인민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이 정부는 인민당의 합법화, 정치범에 대한 대사, 토지개혁실시 등 일련의 사회적요구를 반영한 기만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 11월 4일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였다. 1962년 9월 18일 미제의 사촉하에 군부는 6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엄중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정변을 일으켜 프라도정부를 뒤엎고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은 1963년 1월 15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체포구금하였다.

군사정권내부의 알륵으로 3월 3일 뻬레스 고도이가 내쫓기고 륙군상인 린들레이가 림시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다. 같은 해 6월 9일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의 페르난도 벨라운데 떼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새 정부를 세웠다.

1964년 7월 9일에 중부농촌지대에서 개시된 무장투쟁에 련이어 2개의 유격부대가 결성되였으며 1개월후에는 남부에서, 9월에는 중부에서 다른 유격대가 제3전선을 폈으며 10월에는 북부유격대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은 6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 페르난도 벨라운데 떼리 (1963년 7월 28일－)

【국회】 량원제. 상원은 45명, 하원은 14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내각】 1967년 9월에 에드가르 도세오아네 코랄레스를 수상 겸 외상으로하는 새 내각이 성립.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 1948년 10월에 비법화, 총비서 싸뚜르니노 빠레데스. **인민행동당** 민족부르죠아지, 인테리, 소부르죠아지들로 구성되였고 1963년 6월 이래 집권당이다. **인민당** 1924년에 조직된 반공적정당. **프라티스트민족운동당, 좌익민족해방운동당, 민족혁명운동당, 민족해방전선, 로동총련맹**

【주요사건】 1965년에 뻬루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이 전개되였다.

유격대들은 전국의 24개주중 9개주에서 활동하면서 군대와 경찰, 미국놈의 회사들을 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유격투쟁의 앙양에 당황한 정부는 6월에 국회에서 유격대 《소탕작전추가비》로 740만딸라를 통과시키고 7월중순에 약 2천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후닌, 우안까벨리까에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리였다. 8월에는 유격대와 련계를 맺고있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것을 예견하는 악법을 만들어내였다.

그러나 유격투쟁은 10월초에 리마동쪽 275키로메터 지점에 있는 정부군비행장을 습격하는 등 더욱 앙양되였다.

인민투쟁이 계속 앙양되자 지배층내부에서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9월 13일 슈왈브내각이 사임하고 16일 인민행동당의 베쎄라내각이 성립되였다.

1966년에도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이 앙양되였다.

1월 12만명의 건설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1주일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승리하였다.

3월 24일 리마에서 10만명의 로동자들이 동료들의 해고에 항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24시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9월 중순에 아야꾸초주 농민 6천여명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땅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9월말에 전화회사종업원 20만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수일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파업으로 말미암아 수도와 전국각지와의 전화련락이 마비되였었다.

11월초에는 3만명의 어부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43일간의 파업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뻬루인민의 유격투쟁이 더욱더 장성하였다.

대중적무장투쟁은 안데스산맥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중부의 《로바고 아마르기》유격전선과 북부의 《시살발레호》유격전선은 《좌익혁명운동》당의 직접적지도하에, 남부의 《하빌에로드》유격전선은 민족해방군의 직접적지도하에 무장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리마에서는 《로미스테라프스뜨》유격전선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유격대들은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다.

유격대는 4월초 꾸스꼬주에서 《토벌작전》에 참가하고있는 정부군의 식량을 싣고 가던 군용화물자동차를 습격하여 식량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동시에

유격대는 군중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유격투쟁의 목적을 알려주었다.

아뿌리마끄주에서도 새로운 유격전선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경찰과 정부군을 여러번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농업과 광업으로서 주민의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23%, 공업은 19.5%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169만 5천 723헥타인데 농호의 겨우 2%인 지주들이 경지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없는 농민은 86%나 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사탕수수, 커피, 양털, 가죽, 쌀 등이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광물은 연, 아연, 동, 철광석, 은, 석유, 바나듐 등이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독점체들은 채광공업의 거의 전부와 대부분의 방직공업, 석유공업의 90%, 석탄공업의 90%, 바나듐 생산의 100%를 장악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광물, 수산물, 석유, 목화, 사탕, 양털 등이다.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난하다. 근로자들은 매일 1딸라 혹은 1딸라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뻬루는 영양부족, 폐결핵 기타 질병 등으로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특히 밀림지대주민의 7%가 문둥병을 앓고있다. 어린이의 사망률은 51%나 된다.

도시주민의 60%, 농촌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50%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못가고있다.

【출판】 신문 라쁘렌싸(보수계 기관지), 보스 델 레벨데(좌익혁명운동당기관지), 일리아 리차스까(좌익혁명당과 민족해방군이 공동으로 조직한 《전국최고지휘부》의 기관지).

볼리비아

(볼리비아공화국)

Republica de Bolivia

남미대륙중부에 있는 내륙국인 볼리비아는 뻬루, 브라질, 빠라과이, 아르헨띠나,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고원지대로서 기후가 온화하나 낮은 지대는 매우 덥다. 주민의 37%가 도시에서 살며 대부분의 주민은 서부고원지대에 집중되여있다.

【면적】 110만km²

【인구】 374만 8,000명(1966년)

주민의 60%이상이 인디안이고 기타는 인디안-구라파혼혈인, 백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라 파스 (정부소재지, 주민 35만 5,000명) 법적수도는 수크레 (주민 5만 4,270명)

정 치 볼리비아는 인카제국의 일부로서 1532년부터 약 300년동안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에 독립하였다. 정치적불안정이 심하여 독립이래 60여회의 정변이 있었다.

1952년 4월의 정변결과 수립된 민족혁명운동당의 에스텐소로정부는 미영제국주의 자본과 국내매판자본가의 삼대주석광산을 국유화하였으며 녀성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56년의 수아소정부를 거쳐 1960년 6월, 1964년 5월에 에스텐소로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1964년 8월 22일 친미반동정부는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11월 부대통령 바리엔또스를 비롯한 친미반동군벌들을 사촉하여 에스텐소로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위원회》를 조작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 임기는 4년, 레네 바리엔또스 (1966년 7월 3일 재선)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 27명,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의원은 111명, 임기는 4년.

【정부】 1967년 8월 세개의 정당대표들로 련립정부를 구성, 외상 발메로 게바라 아르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 (1950년 1월에 재건). 제1비서 오스까르 싸모라. 민족혁명운동당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 진정민족혁명운동당 대자본가의 리익을 대표. 사회주의팔랑헤당 자본가, 지주, 천주교신부의 친파쑈정당. 사회기독교당, 친미정당, 로동총련맹, 볼리비아-조선친선위원회 1962년 5월 9일에 성립.

1964년 6월 9일-7월 2일에 볼리비아-조선친선위원회 위원인 마리오꽤레티가, 10월에는 볼리비아 경제성 고문이며 청년운동 지도자인 알베르또 무노스를 단장으로 하는 볼리비아친선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주요사건】 1965년에 볼리비아 인민들의 치렬한 반정부투쟁으로 군사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5월 17일 라 파스에서 로동총련맹과 광산협회가 조직한 반정부시위는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넘어가 각 공장, 기관들에서 작업이 멎었다. 로동자들은 바리케트를 쌓고 정부군과 싸웠으며 광산로동자들은 무장을 하고 광산을 점거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에 당황한 바리엔또스군사집단은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무력으로써 파업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한편 고위급장교들의 비밀회의에서 19-50세의 모든 남자들을 징모할데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륙군 및 공군련합부대까지 파업을 진압하는데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류혈적인 무장충돌이 벌어졌고 수

도 라 파스에서도 시가전이 벌어졌다. 남부지역에서도 광부들과 농민들은 공격해오는 정부군과 싸우면서 4개의 철교를 폭파하였다.

이렇게 되자 군사당국은 5월 24일 정부군이 물러가며 기타 광산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것을 예견한 정화협정 (로조총련맹이 제기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묵살한 《국가안전법》을 만들어내여 탄압에 날뛰였다.

1966년에도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각종 투쟁은 앙양되였다.

4월 1일 산따 끄루스에서 독재정권의 두목인 바리엔또스의 대통령립후보를 반대하여 무장대가 정부군초소와 신문사를 습격하였다. 습격전투에서 무장대는 바리엔또스독재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4월 9일 수도 라 파스에서 인민들이 1952년의 인민무장봉기 14주년을 기념하며 바리엔또스의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가두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5일에도 산따 끄루스에서 친미적인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2만명의 인민들이 시위를 진행하였다.

4월 26일 민족해방전선 총비서는 이 전선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애국력량과 인민이 단결하여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제국주의는 모든 인민의 주되는 원쑤이라고 지적하고 피착취계급들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5월초에 민족혁명운동당 지도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6월초 오루로시에서 대학생들이 군사정권의 정책과 대통령선거를 반대하여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자들은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경찰과 싸웠다. 시위자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하여 선거전군중집회에서 연설하려던 바리엔또스는 직승기를 타고 달아나버렸다.

7월 3일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부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이 선거는 반동적군사정권에 《합법적정부》라는 외피를 씌워 반인민적테로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군사독재당국은 전투준비를 갖춘 군대들을 각선거지구에 파견하는 한편 주민들중 가장 조직되고 각성이 높은 광산지구주민들에게는 유권자명부에 등록하지도 않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결과에 반동적우익정당들을 규합한 이른바 《볼리비아혁명전선》출신 립후보인 군부두목 레네 바리엔또스가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았다. 선거이후 군사당국은 사실상 국내에서 행정권뿐만아니라 립법권까지 틀어쥐였다. 이 자들은 국회에서 의석수의 5분의 4를 차지하였다.

9월 25일에 《야누니》광산지역에서 광부들은 기아와 실업을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키고 경찰과 맞서서 싸웠으며 또한 그들은 광산을 점령하였다.

11월초 의료일군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파업을 15일이상 진행하였다.

12월 7일 《야누니》광산에서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미제는 물러가라!》, 《독재정권은 물러가라!》,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시위자들앞에서 연설하려던 바리엔또스는 자기를 규탄하는 광부들의 웨침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광업과 농업이다. 주요한 광물은 주석, 창연, 탕그스텐 등이다. 나라의 경제는 주석광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주철과 탕그스텐의 주요 구매국인 미제는 투매정책을 통하여 볼리비아에 경제적압력을 가하여 폭리를 짜내고있다.

주민의 80%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촌인구의 8~10%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토지의 70~8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농업총생산액중 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아르헨띠나, 영국이다.

화폐단위는 1963년 1월부터 페소이다.

인민의 생활형편은 곤난하다. 1966년 1—5월에 생계비가 18.4%올랐다. 주민 1인당 소득과 문화수준은 남미에서 제일 낮으며 주민의 66.8%가 문맹자이다.

【출판】신문우니다드 (공산당기관지), 엘 뿌에블로 (공산당주간잡지), 에스빠르따고, 스비다가스, 쁘레쎈시아, 엘 문도, 라빠스.

빠라과이

(빠라과이공화국)

Republica de paraguay

남미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북쪽은 볼리비아, 동쪽은 브라질, 서남쪽은 아르헨띠나와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동부지역의 대부분은 온대에 속하지만 기후는 아열대에 가까우며 서부지역은 열대권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열대성기후이다. 7월 평균기온은 17~19°C, 1월평균기온은 27~29°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000~2,000mm이다.

【면적】40만 6,800km²

【인구】209만 4,000명 (1966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이주민과 인디안의 혼혈족이며 기타 챠꼬족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고 국어는 파라니어이다.

【수도】 아순시온 (주민 약 30만 5,000명, 1963년)

정 치

1535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에 독립하였다. 1864—1870년에 빠라과이는 린접국인 브라질, 아르헨띠나 및 우루과이를 상대로 3국동맹전쟁을 진행하였다. 전쟁에서 빠라과이는 인구의 절반을 잃었다.

1932—1935년에는 볼리비아와 챠꼬전쟁을 하였다. 이 전쟁을 계기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였고 대통령도 군인들속에서 나오게 되였으며 그후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

1954년 5월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챠베스정권을 전복하고 7월에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2월 10일, 34년만에 야당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으나 독재자인 스뜨로에스네르가 세번째로 련이어 당선되였다.

빠라과이는 대내적으로 파쑈정책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미제에 추종하는 반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5년 6월 24일에는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 추종하여 《미주통합군》에 200명을 파병하였다.

빠라과이혁명조직들은 제국주의와 파쑈정권을 분쇄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무장투쟁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무장투쟁을 부단히 준비하여 왔다. 1959년부터 전개된 인민들의 무장투쟁은 1965년에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다. 6월에 2월당은 제국주의와 독재를 반대하는 광범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빠라과이민족해방통일전선대렬에 단합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6월에는 독재를 반대하며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유격대들이 싸파쭈소재지 끄로넬 오비에도를 습격하여 은행지배인을 생포하고 지주들에게 대부하려던 600여만과라니를 압수하였으며 전리품을 가지고 도시에서 철수하였다. 독재정권은 이와 관련하여 100여명의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체포학살하였다.

한편 5월에는 방직공, 운수로동자, 미국농기업소에 종사하는 로동자들 수천명이 임금인상과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여 파업하였으며 육류랭동공장 로동자 1천 800명은 23일간의 파업끝에 요구조건을 관철하였다.

1966년 생활상처지개선을 위한 로동자, 농민의 투쟁과 함께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자들에 대한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8월 6—13일까지의 빠라과이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련대성주간에 제하여 신문 《우니다드 빠라과이》는 빠라과이에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의 모든 력량이 단합하여 투쟁할것과 빠라과이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해줄것을 전세계에 호소하였다.

8월 11일 빠라과이녀성동맹은 경찰당국이 수백명의 애국적농민들을 체포하여 그중 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학살하였으며 녀성투사들을 포함한 많은 정치범들을 가혹하게 고문한것과 관련하여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8월에 빠라과이국립종합대학 학생들은 진보적교수들을 체포한 당국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 우루과이에 있는 빠라과이종합대학 학생련맹지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빠라과이독재정권이 미제침략자들의 충실한 졸개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빠라과이의 진보적사회계는 정치범석방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애국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의회】 1원제. 의원은 6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수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소수당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타 정부가 직접 지명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가회의가 상원의 기능을 대행하고있다.

【정부】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 (1963년 2월 세번째로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47년초에 비법화, 총비서 오스칼 크레테. **국가공화당** (콜로라도당, 집권당)유일한 합법적정당으로서 친미부르죠아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민족해방통일전선** 1959년 4월 우루과이에 망명한 빠라과이인들이 조직한것인데 공산당, 2월당, 자유당, 《5월 14일 혁명운동》, 기타 민족주의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지도자 파트리시오 로페스. **빠라과이근로자련맹** 유일한 로조련합이며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 목축업 및 림업이다. 주민의 2.4%밖에 안되는 지주들과 미국농회사들이 전체 경지의 93%를 장악하고있다. 70%의 농민이 농경지의 1%를 경작하고있다.

농업에서 주되는것은 축산업이다. 집짐승은 소, 돼지, 말, 면양 등이다. 주요생산물은 목화, 담배, 사탕수수, 옥수수, 콩, 과일, 목재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철, 망간,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육류공장과 방직공장 등 몇개의 공장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을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1965년에 외국의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었다. 미제독점자본가들은 이 나라 석유산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가죽, 목화, 육류 등이다.

화폐는 과라니이다. 126과라니는 1딸라.

이 나라의 로동자는 2만 5천명인데 경찰과 군대는 3만 5천명이나 된다.

1966년에 생계비는 약 19% 올랐으며 특히 식료품값과 의복값이 많이 올랐다. 인민들은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매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난다. 1966년현재 약 80만명이 외국에서 류랑생활을 하고있다. 인민생활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낮다. 주민 1만명에 의사 1명이 겨우 차례지고있으며 아동사망률은 63%이다. 종교는 로마카톨릭교이다.

【출판】신문 라 방가르데아, 플라따, 아델란떼(공산당기관지).

우루과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Republica Oriental del Uruguay

남미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브라질, 서쪽은 라 쁠라따강을 사이에 두고 아르헨띠나와 린접하고있다.

기후는 아열대성이며 년평균기온은 17°C이다. 평균강우량은 1,000mm이며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비가 온다.

【면적】18만 6,900km²

【인구】274만 9,000명 (1966년 11월)

주민의 90%가 백인종이고 인디안-구라파 혼혈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몬떼비데오 (주민 117만 3,114명, 1963년 12월)

정치 1516년 에스빠냐인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가 발견한후 300여년간 에스빠냐, 뽀르뚜갈, 아르헨띠나, 브라질의 식민지로 있었다. 1825년 8월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1830년 7월에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865-1958년까지 꼴로라도당이 집권하였다. 집권한 오르도네스는 1903-1907년, 1911-1915년에 은행 및 보험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전력의 국유화 등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1951년에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체적지배형태인 국가회의제로 넘어갔다. 1958년 선거에서 꼴로라도당은 패하고 브랑꼬당이 처음으로 승리하여 1958년 3월 1일부터 집권하였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얻기 위하여 1959년말에 《화폐개혁법》을 공포하였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상품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되고 민족공업의 발전을 저애하게 되였다.

1963년 3월에 정부는 재정경제적 난관으로 임금을 동결시키고 수입원료와 공업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3-4월에는 사회주의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설정하였다. 1963년 5월 17일 몬떼비데오에서 우루과이와 우리 나라 정부간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4년 11월에는 당시 우루과이 국회 상원의원이며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루이스 뜨로꼴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루과이는 미제의 압력으로 1964년 9월 8일에 꾸바와 외교, 령사 및 무역관계를 끊었다.

【의회】량원제. 상원의원은 31명, 하원의원은 99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대통령】1966년 11월에 있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결과 국가회의제가 철폐되고 다시 대통령제가 회복되였다. 임기는 5년, 대통령 오스까르 헤스띠도 (1967년 3월 1일-, 꼴로라도당), 외상 엑또르 루이씨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0년 9월 21일 창건,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1966년 8월 제19차 당대회에서 개선). **브랑꼬당** 1835년 창건, 대목장주와 대지주, 대은행가 및 천주교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주의적인 부르죠아정당이다. 당내부는 크게 3개의 분파로 분렬되여있다. 1959년초부터 1967년초까지 집권하였다. **꼴로라도당** 1835년 창건,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적부르죠아정당이다. 당내부는 3개파로 분렬되여 있으며 1958년 이전에 93년간 집권하였다. 1967년 3월 1일부터 다시 집권당으로 되였다. **사회당, 동방혁명운동당, 공민련맹, 기독교민주당, 좌익해방전선** 좌익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전선체, 1962년에 조직되였으며 공산당이 지도. **공산청년동맹, 꾸바옹호우루과이전국위원회**

【주요사건】1965년에 우루과이는 심각한 재정 경제적위기에 빠졌으며 생활상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였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10월 7일과 12월 7일 2차에 걸쳐 《특별안전조치》를 선포하고 집회, 시위, 파업을 금지하고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재판없이 근로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야수적인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1965년에 우루과이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도미니카인민과 웰남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압력에 의하여 우루과이는 5월 6일 《미주국가기구》회의에서 미제가 도미니카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작한 《범미주군》의 조직을 반대하였다.

9월초순에 우루과이기자협회 지도부성원이며 국제부장인 쌀로

몸 쑤추아르쓰를 단장으로 하는 우루과이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1월에 정부의 매국적인 정책에 항의하여 2만 5천명의 수도 근로자들이 반미반정부시위를 진행하였다.

3월에 미국무차관보 린컨 고든이라는 자가 우루과이에 기여들었는바 수도의 학생들과 로동자들은 《고든은 돌아가라!》, 《웰남은 좋고 양키는 나쁘다!》는 구호하에 일대 반미시위를 벌렸다. 고든은 우루과이인민의 반미투쟁에 의하여 예정했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황급히 돌아갔다.

8월초에 이른바 국가회의 의장의 《5일파업》사건이 있었다.

국가회의 내부에서의 격화된 모순으로 하여 의장 에메르가 자기의 사임을 선포하였다가 5일후에 다시 들어 앉았었다. 이 기간 우루과이는 국가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국가 수반도 없는 혼란된 정세하에 놓여있었다. 이 사건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깜빠니야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브랑꼬당과 뽈로라도당간에 존재하고있던 의견상이에도 불구하고 량당간에 헌법개정을 위한 타협안이 이루어졌으며 8월 24일 국회에서 이 타협안이 비준되고 11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되였다.

9월 15일 철도, 공장, 항만 및 기타 부문 20여만의 로동자들이 임금법, 사회보장법, 년금개선법 등을 즉시 채택할것을 요구하여 24시간 총파업이 진행되였다. 이로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경제, 교통, 교육활동이 마비되였다.

11월 27일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16개 정당과 단체들이 참가한 선거는 미제의 간섭과 그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진출로 긴장된 정세하에서 진행되였다.

투표결과에 15년간 존재하여오던 국가회의제도를 철페하고 대통령제를 복귀하였으며 뽈로라도당 우파출신인 오스까르 헤스띠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으며 국회상하원에서 뽈로라도당이 다수를 차지하게되였다. 또한 선거에서 민주력량들이 망라된 좌익해방전선이 세번째로 많은 표수를 받았다. 결과 1962년 선거에서 하원에 3명대신 5명을, 상원에 1명의 자기대표를 파견하게되였다.

12월말 새로 당선된 헤스띠도 대통령은 1967년 3월 1일부터 집권하게 될 내각성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우루과이정부는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립장을 표방하면서 일부문제들(《미주상설군》《미주국가기구》헌장개정문제 등)에서 미제에 맞서고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적인 혼란을 3대륙인민단결대회와 외부로부터의 《공산주의침투》에 기인하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면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가이다. 600세대의 지주들이 경작지의 66%를 소유하고있으며 모직물생산의 50%와 집짐승의 70%(이 두가지는 이 나라의 주요한 부원이다.)를 점유하고있다. 총경지면적중 92%가 목축업에 리용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 옥수수, 보리 등이다.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화강암, 대리석 등 건축자재가 많다.

공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23%를 차지하며 그중 17%는 축산물과 농산물의 가공공업이다. 공업에서는 육류가공, 방직, 원유가공, 제화공업이 기본이다. 원료부족과 판로난으로 1964년말—1965년초에 공장능력의 50%, 로동력의 60%밖에 가동하지 못하였다.

우루과이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랭동육류 및 육류통졸임과 양털, 가죽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자동차, 연료, 전기기구, 약품 등이다. 최근년간 계속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재정형편은 불안정하다. 막대한 대외채무와 예산적자가 계속 증가하고있다.

화페단위는 페소. 1페소는 100센따보, 딸라와 페소의 시장환률은 1965년말에 1대 60으로부터 1966년말에는 1대 75로 떨어졌다.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곤난하다. 생계비는 1965년에 91%, 1966년에 50% 올랐다. 실업자수는 1966년말에 20만(로동인구의 약 20%)명 있었다.

우루과이에는 1개의 종합대학과 6개의 단과대학, 165개의 중학교와 1만 2천 94개의 소학교가 있다.

문맹자수는 총인구의 41%나 된다.

【출판】 신문 엘 쁘쁠라르(공산당기관지) 엘 빠이스, 라 뿔라따, 엘 데바떼(브랑꼬당계), 악씨온, 엘디아, 라 마냐나(뽈로라도당계), 쏠리(사회당기관지)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Republica de Argentina

남미대륙의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북부는 협곡이 심한 지대이며 기후는 아열대성에 속한다. 중부는 온화한(여름평균기온이 25°C)초원지대로서 이 나라 경제의 중심지이다.

【면적】 280만 8,000km²

【인구】 2,269만 1,000명 (1966

년말 현재)

주민의 97%가 에스빠냐, 이딸리아계통의 구라파이민이며 인디안과 기타주민은 3%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760만 2,000명, 1965년 1월 1일)

정 치 1516년이래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에 독립하고 1826년에 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1835—1852년까지 독재자 후안 마누엘 데 로싸스가 통치하였으며 1853년에 그를 추방하고 후스또 호세 데 우루끼사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군사정변을 통하여 빈번히 정권을 교체하였다. 1955년 9월 정변으로 뻬론독재정권이 전복되고 로나르디 아람부르가 림시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 2월 선거에서 좌파급진당의 아르뚜로 프론디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그후 민주세력이 광범히 진출하게 되자 미제와 친미반동분자들은 이를 탄압할 목적밑에 1962년 3월에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상원의장 호세 마리아 귀도를 대통령자리에 앉히였다.

반동적인 귀도정부는 1962년 7월에 공산당을 비롯한 30개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시켰으며 그해 9월에는 국회를 해산시켰다. 1963년 7월 선거결과 급진공민동맹의 아르뚜로 일리아가 집권하게 되였다. 일리아정권은 집권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외국석유회사들과의 계약파기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탈퇴 등을 약속하였으나 로조의 활동을 금지하는 악법을 발표하고 많은 인민들을 구금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천주교도만이 대통령, 부대통령으로 될수있다.

대통령 카르로스 옹가니아(1966년 6월 27일—)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46명, 임기는 9년인데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하원의원은 192명,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2분의 1씩 개선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사회당 좌파가 조직한 국제사회주의당이 1920년에 공산당으로 되였다. 1962년 7월에 비법화되였다가 1964년 10월 합법화되였으며 1966년 6월 군사정변이후 다시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빅또리도 꼬도빌랴. **《인민급진공민동맹》당** 1957년 창건, 대금융부르죠아지와 대토지소유자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다.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중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다. **뻬론당, 인민운동당, 진보민주당, 사회민주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주요사건】 1965년에 아르헨띠나정세는 일리아반동정권의 파쑈통치와 이를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불안정하였다.

3월 14일 일리아정권은 공산당의 립후보를 금지하고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국회(하원의 절반)선거를 진행하였다.

10월 18일 일리아도당은 로조단체들의 정치적권리를 억제하기 위한 악법을 발표하였다. 이를 반대하여 22일에 250만명의 근로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렸으며 이로 인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항과 전국의 철도망이 마비되고 체신련락이 끊어졌다.

아르헨띠나인민들은 윁남과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이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각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상원은 10월에 미제의 항공회사 《코베이》에 속해있던 면도자주의 80만헥터의 토지를 몰수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는 등 일련의 기만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인민들의 항거를 면할수 없었다.

1966년 일리아정부는 반동군부세력의 압력에 점차 굴복하면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상 처지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더욱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반대하여 3월에 22만명의 철도로동자들, 5월에 20만명의 제탕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결과 전국의 철도와 제탕부문이 마비되였다.

5월에 들어서면서 아르헨띠나에서 거대한 정치적세력으로 되고있는 로조단체들이 1943년이래 처음으로 자기들의 활동을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아 6월 7일의 24시간 총파업에는 400만명이상의 각 부문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 파업은 일리아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군부세력가운데서 심한 불안을 야기시켜 군부들의 정변음모가 보다 적극화되였다.

이에 대처하여 진보적세력은 정부로 하여금 자기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다가오는 군사정변을 좌절시키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리아정부는 단독으로 군사정변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며 륙군사령관 빠스따리니를 해임하는것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빠스따리니는 6월 27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일리아를 추방하였다. 군사정변은 일리아정부의 일부 대내외정책이 저들의 리해관계를 침범하고있는데 불만을 품고있던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륙해공군사령관들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이전 륙해공군사령관 옹가니아를 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군사정권은 《근본적개혁》을 실행하기 위하여 8~10년간 집권할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헌법을 폐지하고 정부대통령, 내각, 지사, 최고재판소의 판사들을 파면하였

으며 국회와 모든 정당, 정치적 조직들을 해산하고 많은 진보적인 신문들과 잡지들을 폐간하였다.

사탕공업로조는 정부의 반동적인 사회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로조들의 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호소하였다.

이를 지지하여 12월 4일 전국의 로동자, 봉사일군, 사무원들이 참가한 총파업이 있었다.

12월말 증대되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과 재정 및 로동문제의 모순의 격화로 외상 멘데스 및 재정상, 내상, 사회복리상 등이 쫓겨나고 내각개조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되는 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경지면적은 3천만헥타이다. 총경지면적의 80%는 농업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있으며 80%의 농민은 토지를 못가지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축산물로서 양털이 유명하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 및 연 등이 풍부하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외국자본에 매여있다. 미제독점자본의 직접투자액은 1960년의 4억 7천 200만딸라로부터 1963에는 8억 2천 800만딸라로 늘었다.

미제독점자본은 전력의 75%와 강철, 자동차, 방직, 야금, 금융, 보험, 상업, 농업부문을 통제하고있다. 1959년부터 5년간에 외국석유회사들은 이 나라 석유공업부문에 2억 1천 100만딸라를 투자하고 3억 7천 600만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화폐단위는 페소, 1페소는 100센타보.

1965년 재정적자는 1천 711억페소였다. 화폐류통고는 1965년 12월에 26%나 늘어나 5천 810억페소였다.

생계비는 1966년 첫 10개월간에 36.4% 뛰여올랐다. 11월 7일 정부는 외환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페소의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였다. 1965년말에 딸라와의 환률이 188~191페소였다면 1966년말에는 260페소로 되였다. 1966년도 대외채무는 35억딸라로 늘었다. 실업자수는 1965년 4월에 97만 468명이였다. 122만 1천여명의 문맹자가 있다.

국교는 천주교이다.

【출판】 **통신** 뗄쁘레쓰 (아르헨띠나통신사)

신문 라오라 (공산당기관지), 반과르디아 (사회당기관지), 프렐떼아르헨띠노 (인민행동당 기관지), 라 나시온 (중립계)

칠 레

(칠레공화국)
Republica de Chile

남미대륙의 서남부인 태평양연안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칠레는 북쪽은 뻬루, 동쪽은 안데스산맥을 사이에 두고 아르헨띠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서쪽은 태평양에 면하고있다. 칠레기후는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관계로 지대에 따라 다른바 북부는 열대성기후로서 평균기온이 19°C이며 중부는 아열대성기후이며 남부는 한랭한 기후이다.

【면적】 74만 1,767km²

【인구】 874만 6,000명 (1966년 11월 현재)

주민은 혼혈인이 65~75%, 백인이 20~30%, 인디안인이 약 5%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띠아고 (주민 188만명)

정 치 인카제국의 일부였던 칠레는 154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그후 300년간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810년 9월 18일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18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세기말부터 칠레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1879—1883년에 칠레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하에 초석산지쟁탈문제를 가지고 뻬루 및 볼리비아를 반대하여 전쟁을 진행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뻬루와 볼리비아의 남부 초석산지를 강점하였다.

1930년대 칠레지배층들은 미국, 독일, 이딸리아와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침투가 점차 강화되자 영제국주의세력이 구축되였다.

1936년경에 민주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1938년에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망라한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여 약간의 사회경제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46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급진당출신 가브리엘 곤사레스 비이데라의 정부는 1948년 5월 미제의 압력하에서 소위 《민주주의수호법》을 채택하고 공산당원들을 정부에서 배제하였으며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

1952년 4월에는 미제와 《군사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2년 9월에 정권을 장악한 까를로스 이바녜스는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56년에는 미제의 클레인 쌕스사절단이 권고한 임금 및 물가의 동결과 세금증가로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소위 《클레인 쌕스안》을 채택하여 국가의 재정경제형편을 더욱 악화시켰다.

1956년에는 인민전선의 계승으로 인민행동전선이 조직되여 민주세력을 결속시키기 시작하였다.

1958년 11월에 호세알렉산드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그는 집권한 이후 4차의 임금동결, 3차의 딸라환산인하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1964년 8월 칠레는 《미주국가기구》의 결정과 미제의 압력하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4년 11월 우익반동들과 중간세력

들의 지지를 받은 기독교민주당 출신 에두아르드 프레이가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프레이는 동서접근정책과 《제3로선》을 주장하며 개량주의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통합, 《공동시장》의 창설 등을 주장함으로써 미제의 《진보를 위한동맹》의 충실한 구현자로 나서고있다.

칠레는 침략적 《미주국가기구》와 《미주공동방위조약》에 가담하고있으며 미제가 조작한 반공적인 1951년의 《워싱톤선언》및 《집단방위계획》, 1954년 3월의 《반공산주의결의안》, 1960년의 《산호세선언》 등에 찬성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에두아르드 프레이 몬딸바 (1964년 11월 3일—)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45명, 임기는 8년, 4년마다 절반이 개선된다. 하원의원은 147명, 임기는 4년, 전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1965년 3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내각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외상 가브리엘 발데스 수베루까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1월 2일에 창건된후 수차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1965년 10월 제13차당대회에서 재선). **사회당** 1932년에 창립, 지식인들과 자산계층들로 구성. **기독민주당** (집권당)도시와 농촌의 천주교도인 중류부르죠아지들로 구성. **급진당, 자유당, 보수당, 민족당, 칠레맑스주의인민선봉당, 좌익혁명운동당, 사회주의혁명운동당, 혁명공산당, 칠레근로자통일로조, 평화옹호위원회, 공산주의청년동맹, 기독교청년동맹, 작가협회,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아바르주아.

【주요사건】 1965년에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칠레인민들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칠레로동성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첫 6개월간 84건의 파업과 80건의 쟁의가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1만 5천 500명의 로동자와 2천 241명의 사무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3천 355로동일시간을 상실하였다.

1965년 2월에 칠레는 웽그리아,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벌가리아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5년 4월 2—8일에 칠레의 사회활동가가, 10월 12—21일에는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한편 5월 5—19일에 우리 나라 친선문화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하였다.

1966년에 칠레에서 총 688건의 로동운동이 있었으며 파업을 선포하지않고 기업주와 로동자간에 있은 충돌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1천 693건에 달한다. 칠레로동자들은 주로 통화팽창과 물가등귀를 반대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들을 진행하였다. 로동운동은 1966년 첫3개월간에 거의 전국을 휩쓴 광산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교육, 보건부문일군들과 건설금속부문로동자들 지어 농민들속에서 광범히 일어났다. 1월 3일 미국농소유 《엘떼니엔떼》동광회사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한것에 뒤이어 일련의 회사로동자들이 동정파업을 진행하였다. 10월에는 처음으로 2천 200여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하여 16일간, 11월에는 《안디나》방직로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장주를 반대하여 29일간, 12월에는 5만명의 보건일군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2주야이상 투쟁하였다. 금속로동자들의 파업, 각지방건설 및 농업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전국 교원들의 80%이상이 참가한 총파업 등 큰 파업들이 있었다. 칠레에서 대학생들의 반미투쟁이 강화되여 미제의 국제간첩집단인 《평화군》을 반대하며 미제륙전대를 실은 미륙함대의 칠레정박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들을 단행하였다.

칠레인민들은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8월에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11월에는 《웰남에서의 양키의 범죄적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전국항의의 날》을 설정하고 투쟁하였으며 9월에는 대학생들이 미제령사관에 돌을 던져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칠레종합대학, 녀성련맹, 국립공업대학학생련맹이 《전국항의의 날》에 제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칠레정부는 반미투쟁과 반정부로동운동이 앙양되자 경찰과 군대를 동원시켜 파업자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였다. 8월에는 로동운동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채택하였다.

프레이는 8월에 안데스산맥을 낀 5개국대통령회의를 소집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통합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미주국가수뇌자회의》소집문제들을 제기한 《보고타선언》을 채택하였다. 칠레정부는 미제의 《아나콘다동회사》와 동생산증가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년 11월에는 잠비아대통령이 칠레를 방문하여 동생산을 위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에 앞서 8월 30일—9월 13일에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훼르난도 무릴료 비이나, 10월 11—20일까지 상원의원 또마쓰 챠드위고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광업, 농업 및 목축업이다.

칠레에는 초석, 동, 철광, 석탄, 금, 은, 연, 망간 등 자연부원이 있다.

그러나 칠레경제는 미제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서독, 프랑스, 이딸리아, 영국, 일본의 독점자

본들도 침투하고있다.

1966년에 칠레는 20억딸라이상의(리자만 하여도 년 1억딸라)막대한 대외부채를 걸머지고있었다. 1966년 예산적자액은 10억에스쿠도 (2천 500만딸라)에 달하였다.

농업은 계속 침체되고있다. 농민 34만호중에서 30만호가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있다.

물가는 1965년에 25.9%, 1966년에 15.2% 올랐다.

생계비는 1958년을 100으로 하여 1963년에 274, 1964년에 339로 뛰여올랐으며 1965년에는 전년도보다 25.9% 올랐다.

칠레의 부원으로서 4천만명의 인구를 먹여살릴수 있으나 주민의 77% (660만명)가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아동들의 70%는 구루병으로 앓고있다.

1966년 6월현재 수도 산띠아고와 그 주변에서만 실업자수는 6만 1천 500명에 달한다. 1965년 현재 문맹자수는 132만명이며 주민의 90%가 천주교도이다.

【출판】 신문 그라리오(기독교민주당과 련계를 맺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신문), 라 나시온(정부기관지), 라 떼르쎄라(급진당소속), 엘시글로(공산당기관지), 크라스, 울띠마스 노띠까스, 라스노띠까스데, 울띠마오라

그린랜드

북빙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며 단마르크의 식민지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북극권내에 있고 80%는 빙원으로서 사람이 살수 없는 지대이다.

7월의 평균기온은 령하 28°C이다.

【면적】 217만 5,600km²

【인구】 3만 4,312명 (1961년)주민의 태반은 그린랜드인이며 에스키모인도 있다.

【행정중심지】 고드자브

1814년에 단마르크는 그린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953년의 헌법개정에 의하여 단마르크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 1951년 4월 27일 단마르크와 미제가 체결한 《공동방위조약》으로 미제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여있다.

경제의 기본은 수렵, 어로이며 지하자원은 알루미니움제조에 쓰이는 크리오라이트와 우란광 등이다.

산 피에르군도, 미켈롱군도

카나다령 뉴 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면적】 산 피에르군도 26km², 미켈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 (1962년)

【수도】 산 피에르

1960년이래 프랑스식민지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마르티니크도

카리브해의 소안틸제도 가운데 있다.

【면적】 1,090km²

【인구】 30만 3,000명 (1963년)

주민은 흑인과 그 혼혈종이 대부분이다.

【수도】 포르드 프랑스 (주민 6만 648명)

1935년 프랑스령으로 되였고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으로 공산당(1957년에 성립), 소부르죠아정당들인 진보당과 통일사회당이 있고 사회단체로 녀성동맹, 공산청년동맹 등이 있다.

주산물은 사탕 (사탕수수재배면적은 경지면적의 절반), 바나나 등이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인 10개가족이 토지의 75%, 사탕공장, 은행들을 가지고있으며 경제를 지배하고있다.

버뮤다군도

뉴욕동남방 1,080km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대부분은 산호초이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20여개이다.

【면적】 53km²

【인구】 4만 7,230명 (미영침략군 제외, 1963년말)

【행정중심지】 하밀톤 (주민 2,800명)

1684년이래 영국의 식민지이다. 1940년 영미협정에 의하여 미제의 해공군기지가 설치되여있다, 관광지로서 유명하며 주산물은 바나나, 감자 등이다.

버진군도

(미국식민지)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틸제도 사이에 있는 버진군도중 동부의 약 46개의 섬이 미제의 식민지이다.

【면적】 344km²

【인구】 3만 5,430명 (1962년),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고 기타는 혼혈인, 백인이다.

【행정중심지】 샤로트 아말리 (주민 1만 5,000명, 1962년)

본래 단마르크령이였으나 1917년 3월 미제가 2천 500만딸라를 주고 샀다.

주산업은 사탕수수재배 및 목축업이다.

과들루프도

카리브해의 소안틸제도에 있는 과들루프본도와 그랑드테르섬, 기타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적】 1,777km²

【인구】 30만 6,000명 (1964년)

【행정중심지】 바스 테르 (주민 1만 3,078명)

1964년에 프랑스의 한개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으로는 1958년 독립적인 당으로 성립된 공산당과 프랑스 사회당을 비롯한 일련의 정당들의 조직들이 있다.

경지의 절반이상은 사탕수수재배지이고 그중 약 3분의 2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이 직접 쥐고있다.

년중 7~8개월간 일자리를 얻지못하는 계절실업자가 많다.

대양주 및 량극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남태평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남회귀선이 대륙중앙을 통과하므로 북반부는 열대, 남반부는 온대지방에 속한다. 서부는 대부분이 사막이다.

【면적】 770만 4,300km²

【인구】 1,150만명 (1965년말) 영국계주민이 약 90%를 차지하며 원주민인 아보리젠족은 약 4만명이다. 국어는 영어이다.

【수도】 캔베라(주민 8만 5,000명)

정치 오스트랄리아는 1770년 영국인 쿠크가 발견하였고 1778년 영국에서 800명의 죄수를 포함한 제1차이민이 이 대륙에 도착한이래 이민들이 개척한 나라이다. 영련방내의 독립국으로서 영국녀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통치한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들인 《안쥬스동맹》 (1951년)과 세아토(1954년)의 성원국이며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우리의 원쑤이다.

오스트랄리아정부는 1965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1966년 8월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사는 외국인들까지 자기 나라 군대에 강제로 징집할데 대한 비법적 결정과 서부오스트랄리아의 프리맨틀 부근에 미제의 핵잠수함들을 위한 해군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오스트랄리아정부는 남부웰남 (1966년 6월현재 4천500명)과 《말레이시아》에 침략군을 파견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1936년에 인민들은 정부의 웰남파병을 반대하여 시위와 군중집회, 파업들을 단행하였다. 5월 해원로조는 미제의 웰남전쟁용 군수물자를 수송하기로 된 화물선 《부나르》호에 근무하는것을 거부하였으며 10월 12일 캔베라에서는 뉴사우스 웰스, 빅토리아, 남부오스트랄리아주의 30개 로조단체 대표들의 발기로 오스트랄리아의 웰남전쟁참가를 반대하는 군중집회가 있었다. 특히 10월 20일 전쟁 두목 존슨이 오스트랄리아에 기여들자 캔베라, 멜보른, 시드니 등 주요도시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항의시위가 있었다.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의원은 60명, 임기는 6년이다.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은 각주의 인구비례로 선거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66년 11월 26일에 하원선거가 있었다.

【정부】 수상은 총독이 임명한다. 현 정부은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정부로서 1966년 12월 14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해롤드 홀드, 외상 폴 해즐럭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에 창건. **자유당** (집권당)1931년에 레이버당우익과 국민당이 통일당을 결성하였다가 1944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쳤다. 금융 및 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방당** 1916년에 성립, 대지주 및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로동당** 1890년대에 성립된 개량주의적정당이다. **민주로동당**, **로동자동맹** (맹원 25만명), **로조련맹** (자유로련가맹), **유레카청년동맹** 1941년에 성립된 진보적인 청년조직, **녀성동맹**, **평화위원회**.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목축업이다. 양털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10%, 수출액의 45~6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사탕수수이다.

주요자원은 석탄, 은, 철, 연, 아연, 주석, 중석, 우란 등이며 1964년에 석유가 발견되였다.

공업은 주로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이 쥐고있는데 석유 및 자동차공업의 95%는 외국자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밀, 육류, 사탕, 가죽, 연, 흑색금속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구라파 《공동시장》가맹국들이다.

정부는 주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1966—1967회계년도에 국방비지출을 34% 늘였다.

1966년 2월부터 화폐단위를 종전의 파운드로부터 딸라로 바꾸었다.

원주민들은 공민권도 없으며 비옥한 땅에서 황막한 《거주구역》으로 쫓겨나고있다.

1967년 2월 현재 완전실업자는 8만 9천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도이다.

뉴질랜드

Dominion of New Zealand

오스트랄리아의 동쪽에 있는 남북 2개의 섬과 기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가 적다.

【면적】 26만 8,700km² (부근의 섬들과 후견령을 제외)

【인구】 267만 7,000명 (1965년 12월)

주민의 대다수는 영국계인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인은 19만 7,600명,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웰링톤 (주민 25만 5,700명)

정 치 영련방내의 자치국이며 총독이 통치한다. 뉴질랜드는 침략적군사쁠럭인 《안쥬스동맹》(1951년 가입)과 세아토(1954년 가입)의 성원국이며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의 원쑤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보병, 경폭격기, 수송기 등을 보내여 말라이애국자들의 탄압에 내몰고있다. 뉴질랜드는 남부윁남에 1천 500명의 침략군을 파견하여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 직접 참가하고있다.

뉴질랜드인민들은 미제의 윁남침략전쟁과 정부의 파병책동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는바 3월 27일과 11월 16일에 오클랜드에서, 4월 17일 웰링톤에서 반미반정부시위들이 있었으며 10월 19일에는 미제침략자의 두목인 죤슨의 《방문》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의 각 도시들에서 벌어졌다. 웰링톤시민들은 《양키는 윁남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하였다.

【국회】 1원제. 의원은 80명, 임기는 3년이다. 현국회는 1966년 11월 26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1966년 11월 선거후 국민당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케이트 홀리오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1966년 4월 8—11일에 오클랜드에서 제21차 대회가 있었다. **국민당**(집권당)1921년에 성립된 자본가와 목장주들의 정당, 당수 홀리오크. **로동당** 1916년에 성립, 로조원, 소농, 자유업자, 지식분자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우익분자들이 령도권을 쥐고있다. **사회신용당** 중소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자유당** 1963년에 조직. **로동련맹**(자유로련에 가맹). **진보청년동맹** 로동청년과 진보적인 청년지식인들의 단체. **녀성동맹, 평화리사회**

경제, 사회 농목축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취업인구의 약 14%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생산은 총생산액의 50% (1960—1961년)를 차지한다. 전체 농장수의 1%에 불과한 대규모의 농장 (2천헥터이상)들이 토지의 40%를 차지한다.

석탄, 금, 은, 산림자원 등이 있다. 공업은 주로 경공업인데 그중 축산물가공업이 위주로되고있다. 그밖에 팔프, 전력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투자 총액중 영국이 64%, 오스트랄리아 20%, 미제가 12%를 차지한다. 1966년 10월에 외국자본은 6억 5천만딸라였다. 1966년 군사비는 1965년에 비하여 720만파운드 더 많았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빠터, 육류, 치즈 등이며 영국과의 무역이 약 50%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뉴질랜드파운드.

서부 사모아

Western Samoa

서태평양상 (남위 13°—15°, 서경171°—174°)의 9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면적】 2,946km² (그중 우포르도는 1,113km², 사바이도는 1,820km²)

【인구】 1만 9,000명 (1963년)

【수도】 아피아 (주민 2만 3,000명. 우포루도)대부분의 주민들은 포리네시아어를 쓰고있다. 공식용어는 사모아어와 영어이다.

1772년 화란인 로제휀이 발견, 1919년에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에 대중적인 반제해방투쟁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5월 국민투표가 진행되여 1962년 1월 1일 독립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동부사모아는 계속 미제의 강점하에 있다. 사모아인들은 나라의 인공적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아피아항은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여있다.

【국가원수】 말리에또아 타누마필리 2세.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45명으로 구성

【정부】 수상 피아메 파이므이나 마따파 물리누우 2세

경제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영국인들의 코코아농장으로 되고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프라, 코코아 등이다.

남 극

【개관】 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국대표회의에서 남위 60°이남을 남극권으로 결정하였다. 남극대륙이 군도인가, 단일한 섬인가는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천키로메터 이상이며 면적은 약 1천 401만 평방키로메터인바 이는 구라파대륙과 미국의 면적을 합한것과 같다. 남극대륙은 해발평균 2천~3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구릉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약 500~6천메터의 높이를 갖인 산들이 솟아있다. 남극의 83%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으며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메터, 최고는 4천 480메터나 된다. 세계의 눈과 얼음총량의 10분의 9가 남극에 있다.

1958년 1월에 관측된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메터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메터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0메터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계절 (11—1월)에는 기온이 령하 5°C, 가장 추운 계절 (6—7월)에는 령하 60°C까지 내려간다. 1962년에 대륙동부의 쏘련워스또고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90°C까지 내려갔다는것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최저기온이다. 1년에 1차의 주야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남의 전지역은 거의 년중 폭풍이 불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메터이상 되는 날이 년간을 통하여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않는 지대 (약 500평방키로메터)가 있으며 맥마드 부근에는 최고기온 8.3°C, 최저령하 5.5°C되는 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떠늄,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다. 조류로는 펭긴, 바다제비, 남극종달새 등이 있으며 300종이상의 식물이 있다. 고래를 비롯한 해수가 있는데 세계포경량의 약 4분의 3이 남극에서 난다. 최근 년간 고래 자원이 고갈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포경위원회는 엄격한 어획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남극조약】 1959년 10월에 쏘련, 벨지끄,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남아프리카 등 12개국이 남극조약에 조인하였다. 조약에서는 남극의 평화적리용, 과학조사의 자유, 령유권의 동결, 핵폭발의 금지, 시찰의 자유, 가입의 자유 등을 규정하였다.

【관측 및 개발】 남극대륙에는 쏘련, 뽈스까, 칠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벨지끄, 노르웨이 등 12개국이 기지를 가지고있다.

1952년 2월에 첫 쏘련관측소인 《미르노이》가 남극에 설치되였다. 《미르노이》관측소에는 600kw의 출력을 가진 발전소와 대형비행기가 뜰수 있는 비행장 등이 있다. 쏘련은 이외에도 7개의 상설기지를 설치하고있으며 1960년에는 떠다니는 얼음우에 3개의 림시기상관측소를, 1962년에는 자동관측소를 설치하였다. 미국은 맥마드기지를, 프랑스는 듀몬기지를 설치하고 관측사업을 하고있다.

북 극

【개관】 북위 66°30′이북을 북극지방이라고한다. 면적은 2천500평방키로메터인데 그중 약 1천 435평방키로메터는 해면이다. 아세아, 구라파, 미주 3대륙의 북쪽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3메터 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메터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 (1—3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은 령하 30°C이다. 여름 (7—8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에서 0°C, 대륙연안에서는 5°C~9°C이다.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된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mm에 불과한데 저온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최근년간 온도가 높아지고있는바 이슬랜드, 그린랜드의 평균기온은 수년간에 10°C나 높아졌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15년전보다 40%나 얇아졌으며 북극해의 수위는 년간 100mm 높아진다고한다.

【주민】 북극에는 약 12만명의 주민이 살고있다. 주요민족의 거주지역과 인구를 보면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앙게바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 (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에드족 (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듀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인디안족, 구라파주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있다. 그외에 소수의 백인이 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풍부하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있다. 남쪽바다에는 어류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 짐승이 살고있다. 1960년봄에 쏘련과학아까데미야 고생대학조사단은 1억년이상으로 추산되는 화석식물표본을 약 400종 수집하였다.

【관측】 북극권내에 령토를 가진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 등 나라가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쏘련은 1937년에 북극중앙지대에 《북극1호》표류과학관측소를 설치하고 274일간에 걸쳐 표류하는 얼음우에서 북극탐사를 개시한 이래 1964년 4월까지에《북극 13호》를 설치하였다.

쏘련과학자들은 지구의 북부기상에 주는 북극권기상의 결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북극해에 난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베링해협에 원자력댐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 바이칼호와 북극해를 련결하는 수리건설문제, 북극해의 북동항로의 개설문제들을 연구하고있다. 1963년 1월 쏘련의 원자력잠수함 《레닌쓰끼 꼼쏘몰》호가 얼음밑을 항행하여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세계민주청년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WFDY

〔성립〕 1945년 10월 31일—11월 10일 63개나라의 청년대표 437명의 참가하에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민청대회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세계 115개나라의 1억 500만명(1964년말)

〔기구〕 대회(최고기관이며 3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로돌프 메키니(1966년 재선, 이딸리아)

서기장 프란시스 레갈리로 (1966년 재선, 프랑스)

본부소재지 부다뻬슈트

기관지 《세계민청》 (11개어로 출판)

〔사업〕 1965년 4월 15—20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120명의 대표 및 옵써버들의 참가하에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회의는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청년들의 투쟁에 대한 세계민주청년련맹의 련대성에 관한 련맹부위원장 엔. 바바카르의 보고,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웰남인민의 투쟁에 관한 남부웰남청년대표의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 2개 보고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과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6월 련맹서기국은 6. 25 15주년에 제하여 전세계청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서한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전개할것을 전세계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7월 23일 련맹뷰로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12주년에 제하여 남조선을 핵잠수함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6월 6—17일 쏘피아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99개 나라의 193개 단체 대표의 참가하에 세계민주청년련맹 제7차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에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 문제, 젊은 세대의 절박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과업, 제6차대회이후 세계 민주청년련맹의 활동과 개선대책, 검사위원회 총화에 대하여 보고들이 있었으며 여러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웰남에 관한 문제에서는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영웅적웰남청년들의 투쟁에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 조치들에 관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59개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우리 나라를 비롯한 32개국으로 구성되는 뷰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1월 20--24일 니코시아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50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민주청년련맹 집행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웰남인민 및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3개의 보고가 있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제7차대회 준비문제 등을 토의하고 결정과 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결의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통일의 기본 장애로 됨을 지적하고 특히 미제의 비호하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은 극동과 아세아에서 위험한 전쟁의 근원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결의에서는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이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전개할것을 전세계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에 호소하였다.

3월 21일 세계민청뷰로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하고있는 사또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련맹뷰로는 6. 25 16주년에 즈음하여 전세계 성원단체들과 진보적청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서한은 6월 25일—7월 27일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 월간으로 정하였다.

이 월간에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며 《한일조약》의 철폐를 요구하고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반대하며 남조선괴뢰군의 남부웰남증파를 반대하며 이미 파병된 괴뢰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선전깜빠니야, 군중대회, 집회, 시위 등을 조직전개하여 남북조선청년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고무할것

을 호소하였다.

11월 10일 련맹 뷰로는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위한 전쟁광란자 죤슨의 남조선 《방문》을 전후하여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공격과 각종 군사도발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

〔성립〕 1945년 11월 25일—12월 1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제1차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였던 40개국 녀성대표들이 12월 1일 자기 조직들을 국제민주녀성련맹에 련합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창립되였다.

〔성원〕 89개나라의 2억이상 녀성들을 망라하고있다.

〔기구〕 대회(최고지도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리사회(매년 1차 소집),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유제니 코통(프랑스, 1967년 6월 16일 사망)

서기장 로자 야소비치 빤젤레온 (아르헨띠나)

본부소재지 베를린

기관지 《세계녀성》 (월간)

〔사업〕 1965년 9월 국제민주녀성련맹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2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전쟁두목 죤슨에게 항의전문을 보냈다. 전문은 남조선녀성들과 인민들의 처지에 격분을 표시하고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20년간의 미제통치의 후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으로부터 철수하며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나라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0월 26—29일 오지리의 잘쯔부르그에서 국제민주녀성련맹창립 20주년과 관련하여 련맹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성원국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966년 7월 국제민주녀성련맹 서기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철거를 위한 투쟁월간과 관련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자기 산하단체들에 호소하였다.

6월 2—6일 국제민주녀성련맹 뷰로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세계 녀성들에게 웰남부녀자들과 아동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항의운동을 조직하는데서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며 웰남인민에게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하였다.

10월에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녀성운동 제2차국제회의가 있었다.

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제민주녀성련맹 서기국은 죤슨도당에게 항의전문을 보내여 하노이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을 항의규탄하였다.

2월 14—25일까지 우리 나라를 포함한 8개국성원으로된 민주녀성련맹 대표단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세계직업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

〔성립〕 1945년 9월 25일—10월 9일에 빠리에서 57개국의 65개 민족직맹(맹원 6천700만명)을 대표하는 215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창립대회 10월 3일회의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57개국의 98개 민족직맹단체 1억 3천 800만명 망라(1966년 현재)

〔기구〕 대회(최고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총리사회 (대회 휴회기간의 지도기관으로서 성원국대표들로 구성되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총리사회 휴회기간의 지도기관으로서 매년 2차 소집), 집행뷰로(세계직련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 휴회기간의 사업을 담당), 서기국(1명의 서기장과 9명의 서기로 구성)이 있다.

위원장 레나로 비토씨(이딸리아)

서기장 루이 싸이앙(프랑스)

본부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세계직맹운동》

〔산하 산별직맹〕 11개의 산별직맹이 있다.

국제금속및기계로동자직맹

국제광산로동자직맹

국제화학및섬유로동자직맹

국제농업및 림업 로동자직맹

국제건축목재및건재로동자직맹

국제운수항만및어업로동자직맹

국제방직피복피혁및모피로동자직맹

국제식료담배음료공업및 호텔카페레스트랑로동자직맹

국제상업일군직맹

국제공무원직맹

국제교원직맹

〔사업〕 1965년 10월 8—22일 와르샤와에서 제6차세계직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직맹운동 및 그의 통일을 강화할데 대한 보고,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발전도상에 있는 직맹단체들의 새로운 과업에 대한 보고, 웰남정세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보고, 그리고 일련의 조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폐막회의에서는 조선정세에 관한 결의, 웰남에 대한 결의, 녀성근로자문제에 관한 결의, 청년근로자문제에 관한 결의, 교육에 관한 결의, 사회적관광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정세에 관한 결의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는 조선로동계급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세계직련총리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세계직련은 6. 25 15주년에 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간섭과 침략이 조선인민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966년 12월 6—9일 쏘피아에서 세계직련 총리사회 제16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총리사회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45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직련 제6차대회후의 세계직련의 활동과 과업, 규약개정위원회사업에 관한 보고, 재정검사위원회 보고, 신가맹비준문제를 토의하였다.

의정 첫째문제토의에서는 세계직련이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한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국제적지원을 조직함으로써 웰남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음을 지적하고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고 단합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총리사회의 일반결의가 채택되였는바 12월 20일을 웰남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로 선포하였다.

5월 26—28일 니코시아에서 세계 직련집행위원회 제32차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세계직련의 활동과 제6차 세계직맹대회후 그의 성과, 직맹국제련합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29개나라 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자본주의적착취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에 관한 성명과 12월 쏘피아에서 세계직련 총리사회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세계근로자 및 로조단체들의 련대성을 발전시킬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0월 세계직련 부서기장 피에르 장쑤스는 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을 1년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데 항의하여 사또도당에게 항의문을 보냈다.

세계평화리사회

The World Council of peace

〔성립〕 1948년 8월 25일 뽈스까의 브로쯜라브에서 진행된 평화옹호문화일군세계대회에서 평화옹호문화일군국제련락위원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 등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1949년 4월 20—25일 빠리와 쁘라하에서 제1차 세계평화옹호대회를 열고 세계평화옹호운동을 지도하기 위한 상설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50년 11월 16—22일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2차 세계평화옹호대회는 상설위원회를 해체하고 세계평화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성원〕 1966년 6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0여개의 각국 평화단체와 사회활동가들 및 15개의 국제기구대표들이 망라되여있다.

〔기구〕 리사회 (2년에 1차소집), 상무위원회(1년에 1차소집, 리사회휴회기간에 그의 사업을 책임지는 지도기관이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45명의 위원들이 있다)집행위원회, 서기국(집행기관이며 수시로 소집된다. 1명의 서기장과 12명의 서기들이 있다).

위원장 이자벨 불룸(벨지끄)
서기장 로메쉬 찬드라(인도)
본부소재지 윈(오지리)

기관지 《평화옹호》, 《세계평화옹호리사회통보》.

〔사업〕 1965년 5월 28—30일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집행위원회 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기만적인 《평화협상》을 운운하면서 민주웰남령토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는 미제침략자를 규탄하였다.

7월 10—15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평화와 민족적독립 및 전반적군비철폐를 위한 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8개국 평화옹호단체들과 18개 국제기구로부터 온 1천 400여명의 대표들의 참가하에 웰남문제를 주요하게 토의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를 포함한 압도적다수 토론자들이 미제를 인민의 원쑤로 락인하고 규탄하였으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대회는 웰남에 관한 결의와 일반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일반결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한일회담》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 재생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결탁시킴으로써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의 조작을 촉진시키고있으며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대회는 이외의 일련의 국제문제들을 7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새 리사회성원을 선거하였다.

1966년 3월 17—21일 부다뻬슈뜨에서 집행위원회 회의와 민족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문건들과 세계사회계에 보내는 특별호소문 등을 채택하였다.

특별호소문은 특히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평

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영웅적남부웰남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을 즉시 중지하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준수하고 남부웰남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인정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6월 13—16일 제네바에서 리사회회의가 있었다. 회의에는 70여개나라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리사회회의에서는 웰남문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문제, 세계평화리사회의 목적과 기구조직문제 등을 토의하고 《웰남문제에 관한 호소문》과 민족적독립에 관한 일반결의를 비롯하여 로데시아, 뽀르뚜갈령식민지들, 꾸바,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별결의들,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기구조직구조문제에 관한 결의 등이 채택되였다.

웰남에 관한 호소문에서 세계평화리사회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 성명의 합법적요구에 기탄없는 지지를 줄것을 호소하면서 웰남문제는 1954년 제네바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학생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IUS

〔성립〕 1946년 8월 18—27일 쁘라하에서 48개국 학생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제1차 세계학생대회에서 창설되였다.

동맹은 학생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평화,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적교육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적학생조직들이 단합할것을 목적하고있다.

〔성원〕 80개의 민족학생단체 (1966년 현재)

〔기구〕 대회 (최고지도기관으로서 2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매년 2차 소집) 및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즈보메츠 보고로우글리쯔끼(체스꼬슬로벤스꼬)

서기장 누리 아브델 라자크 후세인(이라크)

본부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세계대학생소식》 (월간)

〔사업〕 1965년 12월 10—14일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까를로비 와리에서 진행된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학생동맹의 활동과 웰남문제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웰남문제에 관한 결의, 남조선에 관한 결의, 60만 재일조선공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할데 관한 결의 등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는 남조선괴뢰들을 일제와 결탁시켜 침략적인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의 조작을 시도하며 남부 웰남침략전쟁에 수많은 남조선괴뢰군을 내몰고있는 미제를 강력히 규탄하였고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월 16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은 남조선인민의 4. 19봉기 5주년에 제하여 남조선괴뢰들에게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며 남조선학생들에게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1966년 7월 11—20일 까히라에서 국제학생동맹 집행위원회가 있었다. 회의는 50개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웰남문제, 국제학생운동의 20년간의 활동경험, 세계학생들의 단결과 통일의 강화발전에서의 동맹의 역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종국적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프리카, 중동 및 아랍제국인민들의 투쟁문제들을 토의하고 웰남문제에 관한 결의, 구라파안전에 관한 결의, 국제학생대회와의 단결과 협조에 관한 결의 등 많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웰남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국제학생동맹 집행위원회 회의는 웰남민주공화국 령토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을 규탄하면서 이 야만적인 행위는 웰남전쟁확대의 길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취한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결의는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급히 중지하고 남부웰남으로부터 모든 군대를 철거시키며 그곳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철폐하며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폭격과 기타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하는 동시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국제기자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성립〕 1941년 런던에서 성립된 반파쑈진보적인 기자의 조직에 기초하여 1946년 6월 코펜하겐대회에서 조직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76개나라 기자단체와 개인이 망라, 약 13만명(1966년말)

〔기구〕 대회(최고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매년에 1차 소집) 및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장 모리스 에르망(프랑스, 1966년 10월 재선)

서기장 꾸브까(체스꼬슬로벤스꼬 1966년 10월 피선).

본부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민주기자》

〔사업〕 1965년 9월 23—25일 칠레수도 산띠아고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알제에서 있었던 회의 이후의 동맹의 활동과 국제기자동맹 제6차대회 소집과 관련된 문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적출판물과 녀성기자들의 발전을 방조하는 문제, 전세계기자들과 라틴아메리카기자들과의 협조문제 등을 토의하고 총결의와 웰남문제에 관한 결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결의 등이 채택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수리아와 아련기자단체들과 베네수엘라와 빠나마기자그루빠들을 동맹에 가입시켰으며 국제기자동맹창립 20주년과 관련한 행사계획을 채택하였다.

국제기자동맹서기국은 미제의 조선전쟁도발 15주년에 즈음하여 6월 25일에,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2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9월 7일에 미제를 규탄하는 선언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10월 10—15일 사이에 베를린에서 국제기자동맹 제6차대회가 있었다. 대회에는 우리나라 기자대표단을 포함하여 70여개나라에서 온 250여명의 대표와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국제기자동맹창립 20주년 및 제6차대회와 관련하여 에르망위원장이 《국제기자동맹과 민주주의기자운동의 단결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대회에서 국제기자동맹 서기장 메이즈네르는 《국제기자동맹은 세계사변의 소극적방관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현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는 또한 웰남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침략을 견결히 규탄하고 웰남인민과 기자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아세아정세에 언급하면서 보고자는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에 미제는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침략적인 《한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였다. 전세계 민주기자들은 정의를 위하여 자기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와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비법적결정취소와 토의의 중지를 요구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위한 조선인민과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조선문제가 조선사람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을 지지한다.

대회에서는 웰남정세와 관련하여 웰남민주공화국 기자대표단과 남부웰남애국민주기자협회대표단이 각각 보고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아세아에서의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고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할데 대한 조선기자대표단 단장의 보충보고를 비롯한 각대륙대표들의 보충보고가 있었다.

보충보고가 있은다음 대회는 정치륜리, 사회 및 직업의 3개분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회 마지막날에는 대회공보와 웰남에 관한 결의, 일반 정치결의 등 4개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였다.

대회는 재일조선인 언론출판인협회 등 18개 민족기자단체 및 집단을 국제기자동맹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1967년 국제기자동맹 집행위원회를 몽골의 수도 울란바따르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는 국제기자동맹의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다. 위원장으로 에르망이 재선되였으며 서기장으로는 체스꼬슬로벤스꼬 기자동맹의 꾸브까가 새로 선거되였다.

대회는 또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을 국제기자동맹 상무위원으로 선거하였다.

대회는 끝으로 남부웰남애국민주기자협회 집단과 3명의 기자들에게 1966년도 국제기자동맹상을 수여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성립〕 1946년 10월 빠리에서 이전 항쟁단(프랑스법률가운동) 성원들인 프랑스법률가들의 발기에 의하여 국제적조직으로서 성립되였다.

협회는 법을 평화옹호에 복무케 하며 법률학의 발전, 각국 법률가들 및 법률단체들간의 접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70여개 나라 법률가단체(1967년 4월 현재)

〔기구〕 대회(최고기관, 3년에 1차 소집), 리사회(매해 1회 소집), 집행국.

집행국위원장 피에르 코드(프랑스)

본부소재지 브류쎌

〔사업〕 1965년 3월 26—27일 에르푸르트에서 진행된 서기국회의에서는 동 협회의 1965년도 행동계획을 토의하고 비준하였다. 계획에는 제국주의국가들 특히 미제의 침략행위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서기국은 버워드의 인종주의적범죄행동을 조사하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두목들에 대하여 사회적재판을 진행할데 대한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완수하도록 적극 협조할것 등을 결정하였다.

1966년 7월에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 열두돐을 맞이하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을 표시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민족위원회들과 조직들 및 법률가들에게 호소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Organization for the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성립〕 1955년 4월 6—10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제국회의에서 창설된 《아세아단결위원회》를 전신으로하여 1957년 12월 26—1958년 1월 1일간에 까히라에서 열렸던 제1차 아. 아인민회의에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60년 4월 11—15일에 꼬나크리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대회에서 《아. 아인민단결기구》로 개칭되였다.

이 기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 아인민들간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싸우는 대중적인 단체이다.

〔성원〕 77개나라의 아. 아단결위원회와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1966년말).

〔기구〕 아. 아인민단결대회(최고 기관이며 2년에 1회 소집), 리사회(성원국들의 대표로 구성, 매년 1회이상 소집), 집행위원회(우리 나라를 포함한 30개국 대표 30명), 상설서기국(15개나라) 등이 있다.

서기장 유세프 세바이

본부소재지 까히라

〔사업〕 1965년 5월 9—16일 윈네바(가나)에서 제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60개 나라에서 온 400여명의 대표들과 방청자들의 참가하에 전원회의(5월 9—12일), 분과위원회비공개회의(5월 13—14일) 등으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웰남인민들의 투쟁, 콩고,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및 뽀르뚜갈식민지들에서의 해방운동을 지지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총정치결의, 총선언, 국제적인 조미의 문제들에 관한 특별결의들, 우리 나라에 관한 결의 등 일련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대회는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날인 6월 25일부터 1개월간을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 철거를 위한 투쟁월간으로 설정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광범한 운동을 조직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

1966년 1월 꾸바의 아바나에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

Afro—Asian Journalists Association

〔성립〕 1963년 4월 24—30일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1차 아. 아기자대회에서 창립되였다.

협회는 아. 아나라 기자들, 인민들간의 련대성과 친선관계 및 두 대륙에서 출판물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업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호적인 조직체이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 아 52개국의 53개 기자단체

〔기구〕 대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서기국(매년 1회이상의 전원회의 진행)

서기장 쟈워또(인도네시아)

상설서기국 림시소재지 베이징

기관지 《아세아-아프리카기자》

〔사업〕 1965년 12월 22일 상설서기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9월 30일 운동》 이후 서기국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였으며 11월에 인도네시아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유수프를 아. 아기자협회 서기장 대리직무에서 해임하고 그 직책에 아리핀 베이(인도네시아기자협회 국제부장)를 임명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진행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협회 전체 성원국들에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서기국은 11월 총회를 열고 유수프의 직무를 서기국집단이 공동으로 리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30일 서기국은 자기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곳에 림시로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966년 1월초 상설서기국을 베이징에 옮기였다.

1966년 4월 20—24일에 걸쳐 아. 아기자협회서기국 제4차 확대전원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아. 아기자협회 서기국의 성원국들과 비성원국들에서 온 19개의 아. 아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서기장 쟈워또가 진술한 총보고와 쟈까르따로부터의 서기국의 철수에 관한 보고 그리고 정치 및 조직문제들을 토의하고 회의 호소문, 조선에 관한 결의, 웰남에 관한 결의, 인도네시아에 관한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기자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결의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미제의 남부웰남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을 계속 증파하고있는것을 견결히 규탄하고 조선인민과 기자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광범한 사회여론을 환기시킬것을 아세아, 아프리카기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원회의는 재일본조선인 언론출판협회를 비롯한 콩고(킨), 라오스, 모잠비크, 팔레스티나, 아련의 기자단체들을 아. 아 기자협회에 가입시킬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제2차 아.아기자회의를 1년내로 알제리에서 소집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서기국의 쟈까르따로부터의 림시철수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고 제2차 아. 아기자회의가 소집될때까지 서기국이 베이징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 법률가회의

Afro—Asian Lawyers Conference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는 1955년 1월 25—31일까지 인도의 캘커타에서 진행된 아세아법률가회의에서 발족하였다.

아세아지역만을 포괄하고있던 아세아법률가회의는 1957년 11월 7—10일에 수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처음으로 제1차 아. 아법률가회의를 소집하였다.

1962년 10월 15—22일에 기네의 꼬나크리에서 열렸던 제2차 아. 아법률가회의에서는 아.아법률가협회조직준비위원회가 선출되였다. (성원국은 14개나라)

1963년 11월 꼬나크리에서 열린 14개국집행위원회에서 6개국 상설서기국을 결성하고 기네에 상주하면서 기구를 창설할것을 서기국에 위임하였다.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 방송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IRTO

〔성립〕 1946년 6월 28일 브류쎌에서 성립. 이 기구는 세계평화와 인민들간의 친선과 문화적련계를 강화하는데 라지오, 텔레비죤 및 방송수단들이 리용되도록 하며 선진 방송기술을 보급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의 방송기관

〔기구〕 총회(2년에 1차 소집), 집행리사회, 4개의 위원회, 총서기처가 있다.

행정리사회 위원장 블로지메쥬쓰끄르쓰끼(뽈스까 1965년 12월 선거)

〔사업〕 1966년 12월 1—7일에 와르샤와에서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 제20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행정리사회, 기술위원회, 방송프로그람위원회, 재정예산위원회 등의 사업총화보고들을 토의하였으며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도 토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나라의 기구들과의 유익한 련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6년 10월 11—13일에 리뜨바의 윌뉴스에서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 제39차 행정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제38차 행정리사회 상설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 1967년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 예산에 대한 보고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제40차 행정리사회 회의를 1967년 10월 베를린에서 소집하며 동년 10월에 소집하기로 하였던 제21차총회를 1968년 1월로 연기할것을 결정하였다.

1966년 우리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아바나에서의 제2연구분과위원회(1월), 부다페슈트에서의 대외방송국회의(3월)를 비롯한 15차에 걸치는 회의를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들과의 유익한 련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국제건축가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성립〕 1948년 국제건축가상설위원회와 국제건축가 협의회가 련합하여 성립되였다. 이 동맹은 건축가들간의 국제적협조와 련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73개국

〔기구〕 총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사무국,

기관지 《국제건축가동맹》(격월간)

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젠 보두엔(프랑스)

본부소재지 빠리

〔사업〕 1965년 7월 2—3일에 제9차총회가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총회는 신가맹민족분과위원회사업총화보고, 규약 및 내부규정개정, 조직문제, 국제단체들과의 관계, 1967년 총회에 관한 문제, 집행위원회 개선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7월 5—9일에 빠리에서 진행된 제8차세계대회에서는 《건축과 교육》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회의 각 분과회의에서는 일반건축교육, 기술교육, 조형예술에 관한 문제들을 각각 토의하였다.

1966년 3월에 열렸던 국제건축가동맹 집행위원회는 1967년 쁘라하에서 열리게될 국제건축가동맹 제10차총회 준비사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The Afro—Asian Housing Organization—AHHO

〔성립〕 1963년 12월 까히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27개나라대표들이 아.아주택건설자대회를 진행하고 아.아나라들간에 주택건축경험과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친선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영구적인 상설기구를 창설할데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그후 1965년 12월 까히라에서 20개국대표들의 참가하에 이 기구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 기구는 아.아나라들의 주택건축 및 설계에 대한 잠재력을 탐구동원하며 이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성과를 호상 교환하며 주택문제해결에서 자립적인 원칙과 이 지역나라들간의 친선협조정신에 기초하여 자국인민들의 생활과 기호에 맞는 주택계획 및 구조를 해결한다. 또한 주택분야에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적잔재를 청산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온갖 경제적 및 기술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20개국

〔기구〕 총회 (최고지도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비서처.

총비서 아브델 하미트 엘 젠헬리(아련)

본부소재지 까히라

련합원자핵연구소

Объедин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성립〕 1956년 3월 모스크바에서 11개의 사회주의국가정부대표들이 모여 원자핵분야의 연구기구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련합원자핵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내며 그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적용하는데서 참가국들의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

〔기구〕 전권대표위원회(최고기관으로서 각 성원국의 대표들로 조직되며 1년에 1차이상 소집한다.) 과학평의회(학자리사회, 성원국들에서 3명이하의 성원들로 구성하며 1년에 2차이상씩 소집한다.), 재정위원회.

소재지 두브나(모스크바주)

소장 엔.엔.보골류보브(쏘련)

〔사업〕 1965년 1월 11—12일 두브나에서 전권대표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1964년도 사업총화와 1965년도 과업, 련합원자핵연구소전망, 연구소소장선거 조직기구개선 등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월 5—9일에 두브나에서 진행된 과학평의회 제17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국가 물리학자들이 1964년에 진행한 양성자방사능의 발견, 새로운 104번 화학원소의 발견 및 실험장치(액체수소기 포함, 중성자편극장치들) 등 연구소의 실험연구사업총화에 관한 보고들을 심의하고 1965년도 연구계획을 비준하였다.

1966년 1월 10일 두브나에서 전권대표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1965년도 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총화와 1966년도 계획에 관한 보고, 재정문제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월 두브나에서 련합원자핵연구소 학자리사회 제19차회의와 제20차과학평의회를 진행하였다.

12월 21일에 벌가리아, 민주독일, 뽈스까, 쏘련 및 체스꼬슬로벤스꼬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두브나에 모여 량자력학에서의 공간 및 시간에 관한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철도협조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ОСЖД

〔성립〕 1956년 쏘피아에서 열렸던 제1차 사회주의국가철도상회의에서 성립되였고 1957년부터 자기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기구의 목적은 국제적수송과 철도, 자동차운수 및 도로분야에서 과학기술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있다.

〔성원〕 조선, 쏘련, 중국, 민주독일, 로므니아, 몽골, 벌가리아, 민주웰남,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 뽈스까, 꾸바(1966년에 가입)

〔기구〕 최고기관은 상회의이다. 상회의는 매년 1차씩 성원국들중 차례로 소집한다. 상회의 집행기관인 철도운수위원회가 있으며 그 밑에 11개의 상설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헨리크 드톤쥐께비치(뽈스까)

본부소재지 와르샤와

〔사업〕 1965년 3월 23—29일에 하노이에서 제10차철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64년도 철도협조기구의 사업에 관한 총화보고, 국제려객 및 화물수송협정적용과 관련한 문제, 철도운임, 철도운영, 철도과학기술협조, 철도전기화, 국제자동차도로 및 기타 일련의 경제기술문제들과 조직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6년 5월 베를린에서 제11차철도상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기구의 문헌수정문제, 규정변경문제, 유일통과운임문제, 기구의 앞으로의 전망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꾸바를 이 기구의 성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사회주의국가체신 협조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ической и почтовой Связи—ОСС

〔성립〕 1957년 12월 3—17일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국가 체신상회의가 소집되였으며 사회주의국가체신 협조기구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1958년 6월 쁘라하에서 진행된 사회주의국가체신상회의에서는 본협정이 1958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것을 결정함으로써 본 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였다.

기구의 목적은 체신분야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협조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진영 각국의 체신사업을 발전시키는데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국가들.

〔기구〕 상회의 (최고기관으로서 매년 1차씩 소집한다. 상회의와 상회의 기간의 기구의 활동은 상회의소집을 위임받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다.)

기구의 상설조직체계 및 소재지는 따로 없으며 그의 활동은 상회의가 지도한다.

〔사업〕 1965년 7월 4—15일 베이징에서 제6차체신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간의 전신, 우편 련락문제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협조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는 꾸바공화국 체신기관을 이 기구성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6년 5월 17일 쏘피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전기 및 체신협조기구전문가들의 정기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라지오 및 텔레비존장애물과의 투쟁방법과 기술수단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아세아아프리카 경제협조기구

The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성립〕 1955년 4월 18—24일에 반둥에서 열렸던 아세아, 아프리카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1957년 12월 아.아인민단결기구는 아세아, 아프리카지역에 있는 각 국가들간의 경제협조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1958년 12월 까히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38개국의 참가하에 아세아, 아프리카경제회의가 소집되였다. 이 회의에서 기구를 창설할것을 결정하였다.

1960년 4월 30일—5월 3일에 까히라에서 열린 제2차 아.아경제회의는 이 기구의 규약과 세칙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는 정식 성립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47개국, 준성원 카타르

〔기구〕 대회 (최고기관이다. 대회는 성원국과 준성원국이 임명한 대표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2년에 1차씩 소집된다), 리사회 (리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그리고 12명의 성원으로 구성된다. 리사회는 년1차 소집된다.), 서기국 (본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서기국은 서기장과 그 성원들로 구성되며 서기장은 4년을 임기로 대회에서 임명된다).

위원장 모함메드 엘 가자위(마로꼬)

서기장 모함메드 알리 리파트(아련)

본부소재지 까히라

〔사업〕 1966년 5월 16—19일 마로꼬의 카사블랑카에서 제5차 아.아경제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경제협조의 결과와 전망, 아세아 및 아프리카경제발전에서 기구성원국들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회의참가자들은 매개성원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문 및 기술간부들의 양성과 숙련을 보장하여 줄 상설기구를 창설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해운회의를 소집하여 해상운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결정하였다. 성원국들간의 앞으로의 긴밀한 협조가 토의되였다.

아세아경제뷰로

Asian Economic Bureau—AEB

〔조직경위 및 목적〕 아세아경제토론회를 조직할데 대한 테자 구나와르다나(쎄일론 아.아 단결위원회위원장)의 발기에 의하여 1962년 9월 25일 콜롬보에서 쎄일론, 중국, 일본 등 5개국 대표들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1962년 10월 25일—11월 1일까지 콜롬보에서 제1차 아세아경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64년 6월 16—23일까지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의 34개나라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하에 평양에서 제2차 아세아경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동년 6월 24일 평양에서 성원국들이 회의를 열고 아세아경제뷰로 림시헌장을 채택하였다.

아세아경제뷰로는 반둥의 원칙에 기초하여 아세아국가들간의 경제협조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촉진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간의 경제분야에서의 친선관계의 촉진을 목적으로한다.

뷰로는 정기적인 토론회를 조직하며 경제분야에 관한 연구조

사, 토론회에서 채택된 결의들과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성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쎄일론,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민주웰남, 남부웰남

〔기구〕 상설서기국

위원장 태자 구나와르다나(쎄일론)

서기국소재지 콜롬보

국제규격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OS

〔성립〕 1926년 창설된 민족규격협회국제련맹의 사업을 계승하여 1946년 10월 24일 런던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창설. 이 기구는 국제권고규격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국제적교류와 봉사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규격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문화,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분야에서 호상협조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56개국(1967년 1월)

〔기구〕 총회(최고기관, 3년에 1차 소집), 리사회(14개나라, 1년에 1차 소집), 기술위원회(119개)

위원장 제항길 제이깐디(인도)

본부소재지 제네바

국제전기공학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성립〕 1904년 9월 미국 쎈루루이스에서 열렸던 국제전기회의결정에 의하여 1906년 창설, 이 기구는 국제권고규격들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전기부문 민족규격들을 통일시키며 호상교류와 편리를 목적으로 한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40개국(1967년 1월)

〔기구〕 리사회(최고기관이며 년1차소집),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67개의 분과별 기술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아르. 라둘리르(로므니아).

본부소재지 제네바

〔사업〕 1965년 10월 11일 도꾜에서 진행된 국제전기공학위원회 제30차총회에서는 전기기구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기로 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사촉하에 일본반동정부는 이 기구의 당당한 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공학위원회대표단의 입국을 정치문제에 걸고 한편으로는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관계정상화를 표방하면서 입국을 거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국제전기공학위원회 제30차총회 림시총회(10월 13일)에서는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일본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중지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일본반동정부가 끝내 우리 나라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기때문에 22일에 진행할 예정이였던 정기총회를 중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의 부당한 립장에 대하여 일본공산당, 일본사회당, 일본로동조합평의회 등 일본의 20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항의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진보적인민들과 사회계인사들을 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공학위원회의 입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공학위원회는 9일 일본반동정부가 국제전기공학위원회를 저들의 정치적롱락물로 리용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음흉하고도 횡포한 행위에 대하여서와 초보적인 국제관례에 대한 란폭한 유린에 대하여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보험및재보험련맹

Federation of Afro—Asian Insurance and Reinsurance—FAIR

〔성립〕 1964년 9월 3—5일에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아 보험회의(아.아 경제협조기구 주최)에서 아.아 나라들이 자체의 보험자금을 관리하며 자체의 리익에 맞게 생산과 대외무역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보험 분야에서 아.아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기 위한 아세아아프리카보험및재보험련맹을 창설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0개나라의 보험기관

〔기구〕 총회(최고기관이며 년1차소집), 집행위원회(15개나라)

위원장 자히루신 아흐메드(파키스탄)

본부소재지 까히라

세계과학자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WFSW

〔성립〕 1946년 7월에 성립

세계과학자들의 단결을 보장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과학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이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40개나라 및 기구의 약 20만명의 과학자들

〔기구〕 총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리사회, 집행국

위원장 에쓰. 에프. 포웰(영국)

본부소재지 런던

〔사업〕 1965년 9월 24—26일에 부다페슈트에서 제8차총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웰남문제와 군비철페문제를 토의하고 웰남을 지지할데 대한 결의와 군비를 철페할데 대

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9월 20—23일에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1965년도 과학토론회에서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6년 8월 28일—9월 2일 벌가리아의 와르나에서 세계과학자련맹 제28차 집행리사회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련맹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과학자들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과학기관들에 대한 원조상설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과학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였다.

회의는 미제의 《계단식확대》 전쟁을 반대하여 웰남인민의 투쟁과 웰남과학자들에게 련대성을 보낼데 대한 결의 등을 채택하고 1967년에 까히라에서 세계과학자련맹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6—17일에 제네바에서 세계과학자련맹 제24차 집행국회의가 열렸다.

적십자사련맹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LRCS

〔성립〕 1919년 5월 5일에 창설되였다. 련맹은 민족협회들을 합한 국제적조직체로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며 특히 건강증진, 질환방지 및 피해경감 등 분야에서 민족협회들을 방조하고 그들간의 정보교환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하고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104개국 적십자단체가 망라되고 있다.

〔기구〕 련맹 리사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각국적십자대표 1명씩으로 구성), 집행위원회(리사회에서 선거된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였으며 매년 1차씩 소집된다. 임기 4년, 27개국 망라)

련맹위원장 조세 바르르소(메히꼬)

부위원장 6명

본부소재지 제네바

〔사업〕 1965년 9월 28일—10월 1일간에 적십자사련맹 제28차 리사회가 윈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제27차 리사회후 서기국, 련맹사업 및 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규약을 개정하고 지도기관을 선거하였으며 웰남과 기타 지역에서의 제네바협약위반행위와 관련한 적십자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제29차리사회를 1967년에 헤그(화란)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1966년 10월 4일부터 련맹 제86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동남아세아에서 나라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련맹의 실천적조치 및 전쟁희생자들을 보호할데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실시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성립〕 1894년 6월 23일 프랑스 빠리에서 34개나라의 47개단체에서 온 대표들의 참가하에 열린 국제체육단체회의(후에 이 회의를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차총회라고 부름)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123개나라 민족올림픽단체(1966년)

〔기구〕 위원회(최고기관이며 위원 74명으로 총회를 구성), 집행위원회(8명)

위원장 애버리 브란데지 (미국), 부위원장 3명, 서기장

본부소재지 로잔느(스위스)

〔사업〕 1965년 9월 30일—10월 2일에 로마에서 올림픽 각 민족위원회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민족올림픽위원회의 자립성에 관한 문제, 민족올림픽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문제, 지역별 경기조직진행,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의 공동사업 등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이 자기 나라의 정치기구로부터 무조건적인 독자성을 유지할데 대한 문제와 올림픽경기조직위원회가 모든 나라를 신입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기와 구락파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경기들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것이 강조되였다.

1966년 4월 25—28일 로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제64차총회(위원회)가 있었다.

회의는 집행위원회와 국제련맹대표들과의 련합회의 정형에 대한 보고, 20차올림픽경기장문제, 위원회의 선거, 집행위원회 선거, 신가맹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가네포련맹

Federation of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성립〕 1963년 2월 13일 당시 인도네시아대통령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재조치(1962년 8월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4차아세아경기대회에 장개석도당과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한것과 관련하여)에 대처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신흥세력경기대회(가네포)의 조직을 발기하였다. 1963년 4월 27—29일에 쟈까르따에서 12개나라 대표들이 진행한 가네포창설준비회의의 결정에 따라 1963년 11월 10—22일

에 제1차신흥세력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 49개 나라 및 지역을 대표하는 3천여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이 참가).

1963년 11월 24—25일에 48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제1차가네포대표자회의 (총회)에서는 상설적인 신흥세력체육경기기구인 가네포련맹을 창설할데 대한 결정과 가네포헌장이 채택되였다. 헌장은 신흥세력체육경기대회를 4년에 한번씩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련맹창설의 목적은 신흥세력을 대표하는 나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자립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체육사업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독점을 반대배격하고 전세계인민들의 지향에 기초하여 세계체육스포츠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52개국 (1965년 9월)

〔기구〕 총회(최고기관), 집행국 (14명), 상설서기국

명예위원장 수카르노(인도네시아)

집행국위원장 말라디(인도네시아)

본부소재지 쟈까르따

〔사업〕 1965년 9월 21—23일간에 진행된 가네포련맹리사회 제2차회의에서는 가네포창전일인 11월 25일을 《신흥세력체육인들간의 친선과 단결의 날》로 결정하고 매년 이날을 경축할것을 결정하였다.

1965년 9월 24일에 진행된 가네포아세아대륙위원회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월 25일 베이징에서 신흥세력경기대회(가네포) 아세아대륙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66년 12월 8—9일에 프놈뻰에서 가네포련맹집행위원회 제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2차가네포준비에 관한 진행보고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1967년에 까히라에서 조직하기로 되였던 제2차가네포를 9월에 베이징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중국에 위임하였다.

1966년 11월 23—27일에는 프놈뻰에서 진행된 가네포아세아대륙위원회 제1차총회에서는 제1차아세아 가네포 캄보쟈전국위원회의 경기준비 및 조직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회의에서는 아세아나라들에서 체육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며 친선, 호상전진, 공동발전 및 반제적단결을 도모하는 정신에서 체육의 교류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1966년 11월 25일—12월 6일에 캄보쟈의 수도 프놈 뻰에서 제1차아세아가네포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7개 나라 및 지역에서 온 2천여명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여 20여개의 종목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였다.

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와르샤와조약)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аршавский Договор)

〔성립〕 서부독일을 재무장시킬데 대한 《빠리협정》이 조인(1954년 10월) 됨으로써 구라파의 정세가 긴장되고 전쟁위협이 증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54년 11월 29일—12월 2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구라파제국회의》는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빠리협정》이 비준되는 경우에 회의참가국은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하여 방위력강화에 필요한 《제반공동조치》를 취할것을 선언하였다.

1955년 5월 5일 침략적 《빠리협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되자 그해 5월 11—14일까지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2차 구라파제국회의(《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구라파 제국회의》)는 《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방위조약으로서 구라파의 평화와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며 그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한은 20년이다. 조약의 유효기한이 끝나기 1년전에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한 조약은 10년간 자동적으로 더 연장하게 되여있다.

〔성원〕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벌가리아, 웽그리아, 알바니아

〔기구〕 지도기관으로서 정치협상위원회가 있으며 참가국 정부성원이나 특별히 임명된 대표들로서 구성된다.

보조기관으로서는 상설위원회와 합동서기국이 있으며 정치협상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합동군 사령부가 있다.

합동군 총사령관 쏘련원수 아. 아. 야꾸볼쓰끼, 부사령관은 참가국 국방상 또는 군사대표들로서 임명된다.

본부소재지 모스크바

〔사업〕 1965년 1월 19—20일 정치협상위원회 대표들의 회의가 와르샤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침략적《나토》내에 《다각적핵무력》을 창설하려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특히 서독군국주의자들에게 핵무기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침략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려고 하는 《나토》 참가국들을 규탄하였다.

1965년 11월 24—25일에 와르샤와조약참가국군대지도부 대표자들의 회의가 와르샤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합동군에 망라

된 군대들의 전투준비 및 전투훈련에 대한 문제와 일련의 방위적 조치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66년 7월 4—6일 정치협상위원회 회의가 부꾸레슈띠에서 있었다.

회의에는 성원국들의 당제1비서 또는 총비서, 수상, 외무상, 보위상들이 참가하였다. (알바니아는 참가하지 않음)

회의에서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화할데 대한 문제 윁남문제와 기타 기구조직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구라파의 안전과 평화의 공고화에 관한 선언과 윁남민주공화국 령토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을 규탄하며 남부윁남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두나이강위원회

Дунайская Комиссия

〔성립〕 1948년 8월에 조인된 두나이강항행규정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창립되였다. 이 협약은 1949년 5월 11일부터 효력을 내기시작하였다.

〔성원〕 벌가리아, 웽그리아, 로므니아, 쏘련, 우크라이나, 체스꼬슬로벤스꼬, 유고슬라비아, 오지리

두나이강위원회의 목적은 두나이강연안 국가들의 자주권과 리익에 부합되도록 두나이강항행을 보장하는데 있다.

〔기구〕 총회(성원국대표들로 구성되며 1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상설행정부 (집행기관으로서 서기국과 사업기관들로 구성되여 있다).

위원장 게.아.제니쏘브(쏘련)

본부소재지 부다뻬슈뜨

경제호상원조리사회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СЭВ

〔성립〕 1949년 1월 모스크바에서 벌가리아, 웽그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대표들의 참가하에 열린 경제회의결정에 따라 창립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성원〕 벌가리아, 웽그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1949년 2월 가입),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1950년 가입), 몽골(1962년 가입).

〔기구〕 총회(최고기관, 성원국 수도에서 륜번제로 1년에 한번씩 열린다), 집행위원회(성원국 내각부수상들로 구성, 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 부문별 상설위원회들(23개), 서기국 및 기타 보조기관들이 있다.

본부소재지 모스크바

〔사업〕 1965년 1월 28일—2월 2일 쁘라하에서 리사회 제19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제18차와 제19차 총회기간의 쎄브의 활동에 관한 집행위원회보고, 쎄브참가국들의 인민경제계획의 조절과 성원국들간의 1966—1970년 장기통상협정조절문제 등을 심의하고 화학공업, 기계공업, 방직공업제품의 호상납입과 일련의 중요제품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에 관한 권고안 등을 채택하였다.

1965년에 5차에 걸쳐 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집행위원회회의에서는 부문별 상설위원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66년 7월 7일 부꾸레슈띠에서 쎄브성원국들의 당 및 국가수반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간의 호상경제적협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6년 12월 8—10일 쏘피아에서 리사회 제20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제19차총회이후 쎄브의 사업을 총화하였으며 7월에 열렸던 당 및 국가수반회의에서 토의결정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고 1970년이후시기 성원국들의 인민경제계획조절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66년 7차에 걸쳐 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집행위원회회의에서는 부문별 상설위원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아랍련맹

League of Arab States

〔성립〕 1944년 9월 아련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아랍국가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알렉산드리아의정서》의 원칙에 기초하여 1945년 3월 22일에 성립되였다.

〔성원〕 13개국—아랍련합공화국, 수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 리비아, 수단, 마로꼬, 뜌니지(1965년 5월 탈퇴), 쿠웨이트, 알제리(1962년 8월 가맹). 팔레스티나와 오만대표들은 옵써버로서 련맹의 각종 회의에 참가한다.

〔기구〕 리사회(최고지도기관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에 정기회의 소집), 5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제, 재정), 서기국

서기장 모함메드 아브델 할레크 하수나(아련)

본부소재지 까히라

〔사업〕 1965년 3월 20일 까히라에서 아랍련맹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도당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통일적인 아랍계획을 작성하고 아랍의 집단안전조약을 체결하며 아랍국가수뇌자회의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해당한 결정들을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수리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모든 아랍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이스라엘도당이 수리아를 공격하는 경우 모든 아랍국가들은 《아랍공동방위조약》에 따라 통일적으로 행동할데 대한 결정과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3월 14일 까히라에서 진행된 외상회의는 이스라엘도당을 지지하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기타 서방나라들과의 경제적관계를 끊으며 만약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도당과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전아랍국가들이 본당국과 외교관계를 끊음과 동시에 서독으로부터 모든 아랍국가대사들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966년 9월 10—13일기간에 제46차리사회에서는 남부예멘에서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들의 혁명투쟁, 이스라엘도당에 대한 미제의 무기공급과 수리아를 반대하는 이스라엘도당의 군사도발사건, 아랍국가들간의 경제협정의 리행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결의들은 이스라엘도당에 대한 무기공급을 정당화하려고 미제가 내놓은 이스라엘과 아랍나라들간의 《세력균형》 리론을 배격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남아라비아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략행위들을 규탄하고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곳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아프리카통일기구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OAU

〔성립〕 1963년 5월 21—26일에 진행된 아프리카독립국가수뇌자 회의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을 채택하고 성립하였다.

이 기구는 아프리카독립국가들의 통일과 단결을 촉진시키고 자주권과 령토완정 및 독립을 수호하며 아프리카대륙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며 정치, 경제, 문화, 보건, 과학, 기술 및 국방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것을 목적하고있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매개 아프리카국가는 이 기구의 성원국으로 될 권리를 가진다.

〔성원〕 35개국(1964년 12월)

1966년에 보츠와나와 레소트가 가입.

〔기구〕 국가 및 정부 수뇌자총회(최고기관으로서 1년에 1차 소집), 각료리사회(성원국 외상 또는 기타 각료들로 구성되며 년 2차소집, 리사회는 수뇌자총회를 준비하며 총회의 결정수행을 위임받는다), 총사무국, 《조정화해 및 중재위원회》, 경제및사회위원회, 교육및문화위원회, 보건위생 및 급양위원회, 방위위원회, 과학기술연구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들이 있다.

총사무국 사무장 디알리 텔리(기네)

본부소재지 아디스 아베바(에티오피아)

〔사업〕 1965년 10월 21—26일 아크라에서 제3차수뇌자총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완전한 해방, 남로데시아사태, 아프리카국가들간의 협조의 확대 등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들에 대한 파괴활동 금지, 남로데시아스미스도당의 일방적《독립》 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의 리용,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무기공급의 금지 등을 각국에 호소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12월 3—5일 아디스 아베바에서 남로데시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각료리사회 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2월 14일까지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분쇄하지 않는 경우 모든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들이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며 남로데시아와는 일체 관계를 단절할것을 결정하였다.

1966년 11월 5—9일 제4차수뇌자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대륙에서의 정치,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관련한 문제,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관련한 문제 등 아프리카의 절박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남로데시아에 관한 결의, 인종격리 및 인종차별에 관한 결의, 서남아프리카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쓰빠냐 및 뽀르뚜갈식민지들에 관한 결의와 기타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인종격리 및 인종차별에 관한 결의에서 아프리카 수뇌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 도당과 정치, 경제 및 군사적련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고 이와 같은 련계를 즉시 끊을것을 이 국가들에 요구하였다.

서남아프리카에 관한 결의에서는 자결권과 자유 및 독립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불가분리의 권리를 확인하고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계속되는 지배를 군사적강점으로 평가하였다.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결의에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주요한 목표들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제6차각료리사회 (2월 28일—3월 6일)에서는 남로데시아에 관한 결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인종격리 및 인종차별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들은 8개국 대표 (말리,

(기네, 탄자니아, 케니아, 콩고(브) 및 아련)대표단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에 채택되었다.

즉 회의에서 남로데시아문제의 해결에 아프리카통일기구가 군사적으로 지원할데 대한 알제리의 결의안을 부결하고 스미스도당에 대한 경제적제재만을 요구한 뉴니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알제리와 소말리아는 퇴장하였으며 기타 6개나라들은 가나군사정권의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데 항의하여 퇴장하였다.

국제련합기구

(유엔)

United Nations—UN

〔창설〕 유엔은 원래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공고화, 모든 국제적 분쟁문제들의 평화적조정,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1945년 4월 25일 창설되였다.

그러나 유엔은 그의 헌장(1945년 10월 25일 발효)에서 규정한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리탈하여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리용되고있다.

특히 유엔은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비법적으로 개입하여 조선인민과의 교전일방으로 나섬으로써 자체의 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으며 전세계인민들 앞에서 그 권위와 위신은 여지없이 떨어졌다.

〔성원〕 122개국 (1966년 12월 현재)

〔기구〕 총회(전체 성원국으로 구성), 안전보장리사회(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상임리사국과 10개 비상임리사국으로 구성), 경제사회리사회(27개국으로 구성), 후견리사회(14개국으로 구성), 사무국(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14명으로 구성), 국제사법재판소(소재지 헤그), 총회보조기관 제1(정치)위원회, 특별정치위원회, 제2(경제, 재정)위원회, 제3(사회, 인도, 문화)위원회, 제4(후견)위원회, 제5(행정, 예산)위원회, 제6(법률)위원회,

사무총장 우 탄트(버마인, 1966년, 제21차총회에서 재선)

본부소재지 뉴욕

〔사업〕 1965년 9월 21일—12월 22일기간에 유엔총회 제20차회의가 진행되였으며 1966년 9월 20일—12월 20일 기간에는 유엔총회 제2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유엔총회 제20차 및 제21차회의에서는 그의 헌장과는 위반되는 《조선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취급하고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의 본래의 사명을 또다시 란폭하게 위반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리용되고있다.

조선문제—미제의 음흉한 책동과 강요에 의하여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965년 9월 24일 성명을 통하여 유엔은 그의 헌장 제107조와 제2조 7항에 비추어 조선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더우기 유엔은 미제에 의하여 그의 기발을 도용당함으로써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교전일방으로 된 조건하에서 조선문제에 관여할 도의적권위마저 상실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범죄적흉책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또한 11월 23일 성명을 통하여 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상정된 《조선문제》 토의를 앞두고 발표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의 허위와 기만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또한 조선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조선인민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 그리고 쏘련, 웽그리아, 알바니아, 탄자니아대표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제20차회의 정치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미제의 흉책과 강요에 따라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였으며 미제와 그 추종국들이 조작한 소위 12개국의 《결의안》을 강압통과시켰다.

이와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1965년 12월 23일 성명을 통하여 그 《결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그것을 무효로 선언하는 동시에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비법적인 결정들은 취소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조선문제》 토의 전과정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으로 하여 유엔을 자기의 침략도구로 리용하려는 미제의 책동이 세계인민들로부터 규탄배격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더욱더 정치도덕적으로 고립되여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여러나라 대표들이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 토의를 거부해 나선 사실과 미제와 그의 추종국가들이 조작해낸 소위 《12개국결의안》의 표결결과가 똑똑히 실증하였다. 표결결과를 보면 19차총회때에 비하여 찬성에서 4표가 줄고 반대에서 2표가 늘었으며 기권에서는 10표가 늘었다. 오직 남조선에 대한 재침에 눈이 어두워 미제에게 아부굴종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같은

무리들만이 미제에 동조하였을뿐이다.

1966년 7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려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비망록을 통하여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재천명하면서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 토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례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조선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선침략전쟁 참전국들과 추종국가들을 긁어모아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계속 주둔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존속을 합법화하기 위한 《14개국결의안》을 내놓았으며 남조선괴뢰만의 일방적회의참가를 주장한 《8개국결의안》을 들고나왔다.

사회주의국가들은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문제를 하나의 회의의정으로 상정시키는 동시에 반제적인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과 함께 미제침략군의 철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14개국결의안(사회주의국가들과 캄보쟈, 꽁고(브), 수리아, 말리)과 남북조선대표 동시초청결의안, 미제의 《14개국결의안》에 대한 수정안(10개 사회주의국가)을 제출하였다.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 토의 특히 남북조선대표 동시초청문제는 사회주의국가들과 반제적인 중립주의국가들을 일방으로 하고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타방으로 하는 두 세력간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선대표의 동시초청안이 다수표로 결정되였으나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그후 회의에서 부결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66년 12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통하여 있지도않은 《문제토의의 절차위반》이라느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협잡과 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이미 다수표로 결정된 남북조선대표동시초청안을 부결시킨 미제침략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규탄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과 반제적인 중립주의국가들은 일치하게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없이 《조선문제》가 토의되는것은 비법적이라는것,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과 외래제국주의군대의 무조건철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를 영원히 중지할것 등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가 저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되자 일제를 비롯한 저들의 철저한 주구들을 규합하는 한편 조선현실에 암둔한 나라들을 기만과 강요, 교활한 유인술을 다 써가면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와관련하여 1966년 12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가 또다시 날조해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활동을 합리화하려는 소위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비법적결의를 규탄하고 그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 토의과정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례년보다 더욱 불리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제의 추종하에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토이기가 미제의 공동결의안 발기성원국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중립주의국가들이 현저히 늘었다는것, 남북조선대표동시초청안이 일단 가결되였다는 사실, 12월 1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회주의국가들과 중립주의국가들의 10개국제안을 긴급히 토의결정하자는 제의가 가결(38표 대 37표, 기권 21표)되였다는 사실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유엔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미제가 유엔을 리용하여 저들의 조선침략을 합법화하려는 책동이 날이 갈수록 파탄되여 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윁남문제—유엔총회 제21차회의 일반토의과정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윁남문제를 총회의정으로 상정시켜 윁남에 대한 저들의 침략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이를 반대하고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동의 무조건중지, 남부윁남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윁남문제 해결에 대한 윁남민주공화국과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기만적인 《평화공세》를 규탄하였다.

특히 꾸바외상 라울 로아는 윁남에 군대와 군사기술원조를 포함한 백방의 원조를 줄데 대한 꾸바정부의 립장을 재확인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지위회복에 관한 문제—유엔총회 제20차회의(1965년 11월 8—17일)와 제21차회의(1966년 11월 18—29일)에서 토의되였다.

제20차, 제21차회의에서는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의석을 회복하며 장개석도당을 유엔과 그의 관계기구에서 즉시 내쫓을데 대한 결의안이 토의되였으며 과반수의 대표들이 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중국의 대표권회복문제를 3분의 2의 다수표로 결정되는 《중요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철면피한 《결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저들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아세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

1966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제1차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대표단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82개 나라에서 온 570여명의 대표들과 옵써버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문제, 3대륙의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반제 투쟁의 구체적형태와 관련한 문제,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적단결》문제, 《민족적해방, 재건, 번영 및 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조직정치적인 노력의 단합》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회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비롯하여 총선언과 일반정치결의, 경제 및 사회문화문제들에 관한 결의, 신식민주의에 관한 결의, 웰남에 관한 결의 등 일련의 개별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미제국주의가 반동세력의 주되는 아성이며 국제헌병이며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첫째가는 원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미제국주의의 통치를 뒤집어엎는것은 3대륙에서의 반제투쟁의 종국적인 완전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로 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대회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표시로서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회는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 침략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침략을 저지시키는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과업으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조약》을 배격하며 《동북아세아군사동맹》 조작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회는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에게 무장지원병을 파견하는것을 비롯하여 온갖 형태의 지원을 줄것을 호소하였으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3대륙웰남련대성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대회는 또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투쟁, 뽀르뚜갈령기네를 비롯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 반미반독재 투쟁에 궐기한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도미니카, 과떼말라, 에꽈도르, 뻬루,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 기타 3대륙의 도처에서 진행되고있는 반제 반식민주의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3대륙민족해방투쟁지지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대회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뿌에르또 리꼬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9월 23일을 《뿌에르또 리꼬 인민과의 련대성의날》로 선포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는 또한 13명으로 되는 집행서기국을 구성하였다.

집행서기국은 서기장 1명과 4명의 3대륙 대표로 구성되였다. 아세아에서는 조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수리아, 파키스탄, 아프리카에서는 아랍련합공화국, 기네, 꽁고(킨), 뽀르뚜갈령기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뿌에르또 리꼬가 성원국으로 되였다.

집행서기국의 사명은 제1차대회의 결의들을 집행하고 제2차 3대륙인민단결대회를 준비하며 상설기관조직과 관련된 규약초안을 작성하여 제2차대회에 제출하는것이다.

서기장 오쓰마니 씨엔뿌에고스(꾸바)

본부소재지 아바나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를 1968년에 아랍련합공화국의 수도 까히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16일 아바나에서 진행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회의에서는 서울에서 있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이 회의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 집행을 위한 침략회의이며 아세아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였다.

7월 12일 아바나에서 열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과 웰남과의 련대성을 위한 3대륙위원회의 련합회의에서는 미제를 침략자로서, 세계 인류의 원쑤로서 재판할것과 웰남인민을 돕기 위한 재원병부대를 편성할것을 호소하고 모든 나라들에서 《웰남인민과의 련대성 및 투쟁지지주간》을 조직할것을 제의하였다. 회의는 각종 형태의 대중적행사들 즉 군중대회와 시위를 진행하며 자금과 의약품을 수집하며 웰남인민에게 무기원조를 주며 지원병부대를 구성하며 미제를 위한 군수물자 생산을 거부하며 미제의 웰남침

략을 위하여 기지를 제공하는것을 반대하는 등 각종 형태의 조치들을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7월 25일 아바나에서 진행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회의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정세를 토의하고 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제국주의의 반혁명폭력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무장투쟁을 포함한 혁명적폭력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11월 12일 아바나에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전쟁 도발을 위해 미제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하고있는 무장침략행위를 견결히 규탄하고 자기조국의 령토완정과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며 침략자들에게 최후의 섬멸적타격을 가할 결의에 충만된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월남지지 3대륙위원회는 1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남부월남 파병을 규탄하고 파병책동은 월남인민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용허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였다.

3월 30일 아세아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도미니카인민과의 련대성주간으로 설정할것을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싸우는 도미니카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확대강화하며 도미니카인민들에게 정치적, 도덕적 및 물질적원조를 주며 미제의 침략을 반대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며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의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할것을 호소하였다.

서기국은 또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침략행동을 규탄하며 자기조국을 해방하기위해 싸우는 팔레스티나 해방기구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기국은 산하 각국 위원회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전세계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침략을 규탄함으로써 아랍인민 특히 팔레스티나인민, 수리아인민들과 정부들에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호소문을 발표하여 1967년 1월 3—10일까지의 기간에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을 기념할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3대륙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추진시키며 혁명적폭력으로써 제국주의 폭력에 대답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제11차 및 제12차원자및 수소탄금지세계대회

1954년 미제의 비끼니수소탄시험을 계기로 하여 시작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은 일본력사상 처음으로 3천만명의 서명을 수집하고 1955년의 제1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거쳐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의 창설에로 발전하였다.

원자및수소탄금지세계대회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의 호소에 의하여 1955년 제1차대회후 해마다 일본에서 진행된다.

대회는 핵전쟁저지, 핵무기의 완전금지, 원자탄피해자구원을 기본과제로 하여 정세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목적을 정하고 운동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인 통일행동을 추진시킨다.

제11차원자및수소탄금지세계대회는 1965년 7월 27일—8월8일간에 국제회의(7월 27일—30일), 총회(7월 31일—8월 2일), 히로시마대회(8월 5일), 나가사끼대회(8월 8일) 등으로 진행되였다.

국제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포함한 41개 나라와 8개 국제기구들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미제의 월남침략을 규탄하고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 투쟁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결의와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며 호상지원을 강화하자》라는 결의, 《국제적 공동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총회에서는《원자 및 수소탄 반대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동행동을 강화하자》라는 결의와 《〈일한조약〉을 분쇄하며 〈동북아세아군사동맹〉 조작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즉시 공동행동에 궐기하자》는 결의를 비롯한 4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제12차원자및수소탄금지세계대회는 1966년 7월 30일—8월7일간에 국제예비회의(7월 30일—8월 3일), 도쿄대회(7월 31일), 본회의(8월 5—7일)등으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의 월남침략전쟁반대, 핵전쟁의 방지와 핵무기의 완전금지, 핵무기의 일본반입과 일본《자위대》의 핵무장 및 해외파병반대, 원수폭피해자구원사업의 강화, 국제적련대성 강화 등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일반결의》와 《미제의 월남침략확대와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월남인민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원할데 대한 결의》가 각각 채택되였다.

부록



자주성을 옹호하자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는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해방후 여러곳에서 모여 온 사람들이 혁명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구성도 복잡하였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수양이 낮고 혁명투쟁의 경험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내에 교조주의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계속 당의 정확한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 전후시기에 들어와 교조주의의 해독적작용은 더욱 혹심하게 나타났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1955년에 우리 당은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종파주의자들의 맹렬한 반항에 부딪쳤다. 1956년에 그들은 당의 자주로선에 정면으로 항거하여 나섰다. 종파분자들의 반당적활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혁명도 건설도 더 전진시킬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수정주의자들이며 교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또한 사대주의자들이며 민족허무주의자들이였다. 이리하여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였다.

우리 당은 종파분자들의 반당적진출을 단호히 물리쳤다.

결과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원들 속에서는 주체사상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서 당의 자주로선이 관철되였다. 주체의 확립은 당내에서 실로 새로운 사상해방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제반 사실은 우리 당이 취한 모든 방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확증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의 결실이다.

1, 자기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간고하고 복잡하고 창조적인 사업이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모든 낡은 세력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게 되며 허다한 난관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에 누구도 당하여보지 못한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부단히 생겨난다.

이 모든 경우에 써먹을수 있는 미리 준비된 처방이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자기의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의 실정은 그 나라 당이 잘 안다. 남이 더 잘 알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똑똑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 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맑스-레닌주의서적을 보고 리해할수 있다. 그들은 능히 자체로 맑스-레닌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혁명수행의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대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바로 처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두뇌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경우에 쓸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나 혹은 그러한 일반적통칙…을 만들어내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개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판별할줄 알자면 독자적인 두뇌를 가져야 한다.»

독자적인 두뇌를 가진다는것은 사물과 현상을 자기 머리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자주적으로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매여살수 없다. 사상적으로 남에게 매여있어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사상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또한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아무런 주견과 신념도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다.

자주성을 잃은 당은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다. 그러한 당은 오늘은 이랬다 래일은 저랬다 한다. 그리고 부단히 한 편향으로부터 다른 편향으로 왔다갔다 하게 된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할수 없다.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 옳고 그른것을 식별할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탈리는 될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그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좌우경적 기회주의를**

다 범할수 있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사업을 망쳐버릴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결과 손해를 보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혁명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도 해로운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자기정신으로 활동하지 않았기때문에 혁명에 큰 손실을 끼친 쓰라린 경험들이 적지않다.

물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수 없다. 혁명을 헐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것이다.

자주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로 되는것은 사대주의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떠받드는 노예적굴종의 사상이다. 그것은 대국주의를 끌어들이며 교조주의를 낳게 한다.

지난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대국에 아부굴종하며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한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작고 락후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을 사대주의에 물젖게 하였다.

물론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가 나올수 있는 사회계급적조건은 없어졌다. 그러나 사대주의사상잔재는 의연히 남아있었다.

사대주의자들은 한때 혁명위업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사고할 대신에 우선 남을 쳐다보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것만 기다렸다. 그리하여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으며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 이런자들은 큰 나라의것이라면 무조건 숭배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남을 모방하는데만 골몰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서부터 혁명을 하고있다.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주견없이 남에게 맹종맹동할수 있겠는가. 사대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수 없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없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주적립장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다. 또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련결되여있다. 만약 우리 당이 모든 문제를 자기의 정신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립장을 견지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오늘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정확히 처리해야만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하며 자주정신을 가지고 주체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2,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이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인민이다. 따라서 혁명을 수행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공산주의자들은 주인된 립장에 서야 하며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으며 수입할수도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내부력량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 당과 인민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물론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국제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요인의 작용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 로동계급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것은 그 나라 내부요인이다.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오늘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승리는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웰남인민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원을 받고있다. 이것은 물론 웰남인민에게 도움으로 되고있으며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북웰남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거두고있는 위대한 승리의 주되는 요인은 외부의 원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자신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에 있다.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은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자기 인민의 힘에 확고히 의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문제는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창발성과 적극성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대할수도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만 앉아기다린다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혁명의 전취물도 고수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은 남에게 의존하여 남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려는 태도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디까지나 자기 힘을 첫자리에 놓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는 다음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주인이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

는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정당한것이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한다는것은 다른 나라의 지지와 원조를 배척하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지지와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커다란 힘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인이 똑똑하여야 그 원조를 옳게 리용할수 있다. 외부의 원조가 어느 정도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원조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원조라해도 원조 받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면 원조가 큰 도움을 줄수 없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것은 다른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자는것이다. 이것이 곧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이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의 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장애들을 뚫고 나아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진과 함께 후퇴도 있을수 있으며 승리와 함께 실패도 있을수 있다. 혁명과 건설과정에서는 예견치 않던 난관도 생기며 희생도 나오게 된다.

모든 일에서 자기 힘에 의거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사소한 곤난앞에서도 동요하고 주저앉게 된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용감성과 인내성을 발휘하여 투쟁할수 있다. 그리하여 곤난을 타개하고 불리한 정황을 유리한 것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전후복구건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재더미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들었다. 모든것이 부족하였으며 어려웠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있었다. 특히 종파분자들은 복구건설이 우리 인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믿지 않았으며 모든것은 남의 원조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힘에 의거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할수 있다는 깊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물론 우리는 형제나라들로부터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남의 원조만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창조력과 국내자원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도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일떠섰다. 그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짧은 기간내에 전후복구건설을 완성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대중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로력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대중은 당주위에 단결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아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다. 숨어있던 수많은 예비들이 동원되여 도처에서 기적들이 창조되였으며 나라의 경제형편도 풀리기시작하였다. 우리는 당당히 제발로 걸어갈수 있게 되였으며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매개 당이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의 혁명력량이 튼튼하여야 한다. 주체적혁명력량이 강해야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지원도 줄수 있다.

혁명적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특히 혁명을 먼저하였거나 앞서 발전한 나라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있는 인민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을 각방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상에 포로되여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할수 없으며 계급적형제들을 잊을수 없다.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 혁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혁명력량과 단결하여 공동위업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자막대기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로동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일반화한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이 명시되여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의 모든 선진적사상의 최고봉이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백전백승의 무기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혁명에서 전위투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방향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주관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멋대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고 비속화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분자들이 한때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종파주의목적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명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본질을 외곡하였다. 또한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것처럼 자처하

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권리를 독점하고있는듯이 행동하였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으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보잘것없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의 몇개 명제를 교조적으로 외우기나 하였지 그의 알맹이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갖 행세식 맑스-레닌주의자에 불과하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쓰딸린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념불쟁이들과 독경주의자들은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의 개별적결론 및 정의들을 사회발전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교조의 집합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들은 만일 이 결론과 정의를 암기하여 제멋대로 인용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암기한 결론과 정의가 모든 시기와 모든 나라 및 생활상 모든 경우에 다 그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자는 맑스주의의 문자는 보나 그 본질은 보지 못하며 맑스주의의 결론과 정의는 암기하나 그 내용은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뿐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리해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맑스-레닌주의의 매개 명제들을 력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는것이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명제들은 우선 그 당시의 혁명투쟁과 결부되여있다. 우리는 그 명제가 어떤 구체적조건과 어떤 계급투쟁의 환경에서 나왔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며 그 기본사상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옳은 대답을 줄수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실천속에서 검증되며, 보충되며, 풍부화되여 나간다.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옳게 령도하자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명제를 제시하고있을뿐이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 없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며 발전하여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언제나 리론보다 풍부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맑스-레닌주의명제들은 매개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결부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동원할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는데서 나라의 민족적 및 력사적특성을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는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처하여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수행방도도 똑같을수 없다.

원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전술의 통일은 결코 민족적다양성의 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민족적 및 국가적차이에 옳게 맞추어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보장케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각국 당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는것이라면 이미 있는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지도리론이 있어야 정확한 전략과 전술이 나올수 있다. 다른 당의 지도리론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나라의 혁명을 령도하여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지도리론을 확립하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다.

매개 당의 지도리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범위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느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혁명의 요구와 정세가 나라마다 다른 조건에서 그것이 모든 당들에 통용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는데서 어느 한 편향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특수성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경기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정세의 변화》,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외곡하고 수정하였다.

력사적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수정주의진탕속에 빠지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고 그 보편적진리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낡은 제도의 혁명적전복이 아니라 그 개량을 주장한다. 수정주의자들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들을 미화하면서 로동계급을 혁명의 길에서 리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리익을 위해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저버린다.

유고슬라비아의 실례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른 편향도 경계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만 강조하면서 변천된 정세와 나라의 구체적특성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이다.

시기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기계적으로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교조주의적편향을 낳게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맑스-레닌주의는 생기를 잃게 되며 죽은 교리로 되고말것이다. 또한 당은 대중과 현실로부터 리탈될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온갖 그릇된 편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여 나아갈수 있다.

4,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각이한 실정과 특수성으로부터 오는것이다. 앞

으로 많은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설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될것이다.

큰 당이나 혁명한지 오랜 당만이 좋은 경험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작은 당이나 청소한 당도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서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간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유익한 경험들을 창조할수 있다.

모든 당들이 이룩한 긍정적경험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더한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개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 힘하게 더 빨리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형제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을 다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특정된 어느 한 당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당들의 경험이 다 귀중하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한 당의 경험만이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모범으로 될수는 없다.

어떤 당이 창조한 경험이든지 다 실천속에서 검증되여야 한다. 만일 어떤 당의 경험이 리론적으로 옳고 실천적으로 유익한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하게 평가될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큰 당의것이든 작은 당의 것이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리로운 경험이라면 다 존중하고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형제당의 경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것은 자체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당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형제당의 경험을 배운다는것은 결코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당들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지 말아야 한다. 통째로 삼켜서는 아무리 좋은 경험도 혁명과 건설에서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해를 가져올수 있다.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경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추어서 혁명에 유익하게 그것을 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은 있을수 없다. 매개 당들이 활동하고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형편에서 비록 한 나라에서는 적합하고 유익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수 있다.

이러저러한 경험은 매개 나라에서의 구체적인 혁명적실천속에서 창조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조건이 다른 나라에 그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을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발전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계급적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것이다.》**

형제당들의 경험을 도입하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가를 옳게 가려내는 문제이다.

주체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하면 남의 경험을 환상적으로 대하게 되며 덮어놓고 숭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것이 배울가치가 있고 없는지도 전혀 분간할수 없게 된다.

형제당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그 경험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형제당들 사이의 국제주의적친선관계는 그들 사이에 그 어떤 맹종맹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서도 항상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또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고귀한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지만 그것을 항상 비판적으로 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에 도움이 될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일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경험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을 맹렬히 반대하여나섰다.

그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태도가 형제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이단시》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대내외활동에서 다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계적으로 모방할것을 요구하였다.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한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정책에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당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나라 당정책과 일치하는가 하는것부터 따지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외국의 본대로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시비하여나섰다. 여기에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그 어떤 문헌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현대적농기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정책을 제기하는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농업협동화의 력사적필연성을 부정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자 또한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상공업을 리용하지 왜 개조하는가 하면서 당의 방침에 도전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정책에 대하여 당을 《우경화》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오랜 인테리가《자본주의분자》이기때문에 숙청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이 유산계급의 출신이며 과거에 착취계급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외래 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을 체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혁명성도 있는것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오랜 인테리의 부정적측면만 보고 그들의 긍정적측면은 보지 못하였다.

당은 오랜 인테리들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배격하고 그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랜 인테리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붉은인테리로 개조되여 일을 잘하고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

자들의 온갖 그릇된 주장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외국의 경험도 참작하였지만 우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체의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로선상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착오를 면할수 있었다.

현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우리는 자기가 이룩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당들이 이룩하는 고귀한 경험들로 하여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될것이다.

5,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혁명을 하고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는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한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잘 투쟁할수 있다.

인민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하에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정신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를 잘 아는데서만 배양될수 있는것이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오늘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고서는 애국심도 민족적긍지도 자주정신도 생길수 없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없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 필연코 민족허무주의에 빠진다.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나라의 모든 우수한것을 부정하고 남의것을 떠여놓고 례찬하며 우상화하는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이다.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주성도 가질수 없고 민족적자주권도 보존할수 없으며 혁명을 수행할수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에게 아부굴종하며 자기 나라 인민의 영예와 리익을 저버리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허무주의를 허용할수 없다.

민족허무주의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취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을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적리해관계를 배반하도록 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허무주의사상에 빠져들어갈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 한때 민족허무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조선사람이며 따라서 조선혁명을 하여야한다는 기본립장을 잊어버리고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똑똑한 자기 정신을 가질수 없었다.

민족허무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당의 정책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다른 나라 당의 정책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혁명전통을 다 부인하였으며 우리의 고귀한 과학문화유산들을 모조리 묵살하였다.

후대들을 교육하는데서도 당의 정책, 조선의 력사, 지리, 문화, 풍습 등 우리 나라를 더 잘 알고 우리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할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하였다. 그보다도 외국의것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로력을 돌리게 하였다.

문학예술도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노래와 춤도 우리의 것은 집어던지고 서양본을 따게 하였다. 심지어는 그림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외국의 것을 더 많이 그리게 하였다.

민족허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민의것은 다 보잘것없고 유치한 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것을 내세우는것을 못마땅해 하였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그리고 외국의 흉내를 내는것은 고상한 일로 생각하였다.

민족허무주의는 우리의 혁명사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이룩하여 놓은 혁명적업적들을 부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전개하여왔다.

무엇보다도 대중들로 하여금 남의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잘 알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인민이 이룩한 업적들과 자기 나라의 성과를 긍지를 가지고 대하며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조선혁명에 복무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며 주체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민족적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결코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로동계급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계급이다.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애국적이며, 인민적이며 선진적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 사회의 유산이 착취계급과 이러저러하게 관련되여있다고 하여 그것을 모조리 부정해버려서는 안될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급적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며 량자를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문화는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문화의 모든 진보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창조될수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어디선가 알지 못할 곳에서 뛰여나온것도, 프로레타리아문화의 전문가로 자칭하는자들에 의하여 안출된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잠꼬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자본가의 사회, 지주의 사회, 관료의 사회의 압박밑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합법칙적발전이여야 할것이다》

만일 과거의것을 다 부정한다면 무엇을 밑천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겠는가.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계승할만한 민족적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력사적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유물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긍정적인것들을 다 뽑아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문화는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다른 극단에 흘러 복고주의적편향을 범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편향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과거를 잘 알뿐만아니라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만을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현실을 모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것도 현실을 정확히 리해하고 파악하며 혁명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량자는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있다. 자기 조국을 진심로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국제주의자로 될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적긍지도 자주성도 가질수 없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주정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주체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될것이다.

6,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정권을 잡은이후 공산당 및 로동당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을 계속 추진시킬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경제건설을 결코 소홀히 할수없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경제건설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혁명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혁명의 정치적과업과 경제적과업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본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하고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며 경제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수 없다면 그 나라를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있는 민족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의존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경제적의존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의존을 가져오며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지난 시기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시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식민지적편파성을 제거할수 없으며 나라의 기형적발전을 면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락후한 상태에서 빠져나올수 없으며 완전히 자주적인 나라로 될수도 없다.

물론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많은 자금과 로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허다한 곤난도 겪게 된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을수 있으며 제품의 원가도 높고 질도 낮을수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시일을 경과하면서 간부들이 양성되고 로동자들이 숙련되며 경험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결되는 문제이다. 곤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발로 걸어가자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만일 어렵다고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수호할수 없으며 자주권을 고수할수 없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왔다. 우리는 오늘도 이 로선을 계속 견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1947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형편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다.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도 부족하였다. 경제건설의 경험이 없었으며 기술수준도 심히 뒤떨어져있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종파분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종파분자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민족주의》니 《폐쇄적경제》니 《국제적협조에 배치된다》느니 하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확고하게 동요없이 전진하였다. 우리 당은 곤난을 극복하면서 한걸음한걸음 걸어나갔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우리는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로부터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력사에서의 위대한 전변을 의미한다.

과거에 우리는 뒤떨어진 탓으로 하여 기계설비들과 소비품들,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공업품들과 농산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직 풍부하지 못하며 질도 높지 못하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기계와 설비들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니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밑천으로 될뿐만아니라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주의식을 크게 높여주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아직 질은 좀 낮지만 자기 나라의 제품을 사랑하고 아껴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자기 나라 제품을 무시하고 외국의 상품들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민들이 경제생활에서도 자주의식을 발양하여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습관화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야 하며 좋은것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자립적으로 살아간다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 기풍을 세워야만 인민들의 사상생활도 건전할수 있으며 자주성도 더 강화될수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하루빨리 자기나라를 선진국가의 대렬에 올려세워야 한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모든면에서 세계선진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에서나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현대사회의 문명한 민족으로 떳떳이 나설수 있으며 사대주의도 완전히 극복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국제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누릴수 있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평등이란 빈말공부에 불과하다. 제발로 걸어가지 못하면 남의 눈치를 보며 남에게 구걸하는 처지를 면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부인하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이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짐으로써만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호상협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을 닫아 걸고 남의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쇄국주의도, 관문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호상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서로 유무상통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의 호상협조는 매개 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형제나라들 사이에서는 협조를 구실로 매개 나라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의 자립성을 무시하면서 경제적협조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나라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것은 불피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립적경제건설만이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7,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한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큰 당도 있고 작은 당도 있으며 오랜 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비교적 청소한 당도 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 당도 있고 자본주의나라 당도 있다.

매개 당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혁명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형제당들 사이에서 호상관계를 옳게 맺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과 자본주의나라 당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경험은 흔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과 자본주의나라 당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옳게 처리하려면 형제당들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 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권적당도 있을수 없다.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 받는 당은 있을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지시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허용될수 없다. 그들은 다 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들이다.

매개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접촉과 협의를 가지며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다.

이러한 호상관계의 원칙은 1957년과 1960년에 있은 각국 당대표들의 회의에서 확인되였다.

형제당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모든 당들에 있어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이 의무에는 큰 당이나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이나 자본주의나라 당이 모두 다 충실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단일한 국제당산하에 결속되여 활동한 시기가 있었다. 그때에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원칙에 따라 국제당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필요하였던것이다.

제3국제당이 조직될 당시만 하여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직 공산당이 창건되지 못하였었다. 그때 전세계공산당원수는 약 40만에 불과하였다. 제3국제당 창립대회에는 공산당 및 공산주의적 조직들과 사회당좌파들까지 포함하여 30개나라의 대표 51명이 참가하였을뿐이였다. 창건된 당들도 아직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하지 못하였다.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때보다 비할바 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되였다.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약 90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활동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약 5천만의 당원들이 망라되여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으나 현시대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되고있다. 각국 인민들의 혁명운동도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다.

오늘과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 발전하고있는 세계혁명운동을 그 어떤 단일한 중앙이 유일적으로 지도할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띠든간에 모든 당들을 지도할수 있는 국제적중앙은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실적요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어느 한 당이 모든 형제당들을 지도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당이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수 없다.

만약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당의 특권적지위를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명령하고 지시할수 있으며 다른 당들은 그밑에서 복종하여야만 할것이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지도할수도 없게 될것이다.

형제당들 사이에 있어서는 다른 당들의 정책에 대하여 간섭하며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의 국제관계이다. 매개 당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호상리해와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년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국주의는 원래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그것은 작은 나라를 멸시하고 압박하던 낡은 사회통치배들의 사상이다. 대국주의가 허용된다면 형제당들 호상간에 동지적이며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수 없다.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결정은 다른 당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성이나 구속력도 가질수 없다. 그 어느 당이 아무리 오랜 력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하더라도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반적로선으로 내려먹일수 없다. 한 당의 결정은 어데까지나 그 당내에서만 의무적인것으로 된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당들이 자기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따를것을 강요할수 없다. 특히 큰 당이나 사회주의나라 당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작은 당이나 자본주의나라 당에 자기 정책을 내려먹이거나 또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일관하게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혁명운동을 정확히 령도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에 기여하고있는 일본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정책을 규정할수 있으며 또 규정하여야 한다.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그 투쟁방법과 형식은 매개 당이 처한 실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각국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임무가 각이한 형편에서 이것은 의례히 있을수 있는 일이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모든 당들의 활동을 그 어떤 한개의 틀에다 얽매여 놓을수는 없다. 어떤 방식을 택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매개 당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다.

형제당들의 자주적립장이 어느 개별적인 당의 립장과 같지 않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말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자주적태도가 《기회주의》나 《중립주의》나 《절충주의》로 될수도 없다.

다른 당들의 정책이 자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틀렸다고하며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의견상이가 있는 조건밑에서 형제당들 사이에 련계와 접촉을 가지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결정할수 없다. 이 문제도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지시에 추종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한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자로서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환경의 지시에 반하여, 외부의 〈지령에 의하여〉 활동할것을 승낙할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곳에 있다면 이런 자들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자들일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가치는, 특히, 그들이 자기 신념을 고수할줄 아는데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자주적활동에 대하여 선입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급하게 속단하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형제당들의 자주적인 태도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서로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여야 한다. 매개 당들은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행동에서 언제나 다른 형제당들의 정책과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의 신중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 있을수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의 견해와 방법상의 차이가 그들의 친선과 단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형제당들을 모욕하며 그 자주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오직 형제당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해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형제당들 사이의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자주성은 단결의 전제이며 기초이다. 자주적권리가 침해당하면 단결은 약화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형제당들 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혁명적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밑에서만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친선단결이 진실로 강화될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도 가일층 증대될것이다.

8,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자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의 원칙은 고립주의로 나가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반제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과 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도 아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도 잘하고 세계혁명도 잘하자는것이다.

혁명의 민족적과업과 국제적과업은 서로 통일되여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투쟁할뿐만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위업을 위해서도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임무이다.

미제국주의는 가장 큰 국제적착취자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다.

최근년간의 모든 정세발전은 이 명제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부단히 감행하고있다. 또한 민족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거리낌없이 진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으며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하고있다. 그들은 웰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런식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동시에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의 강도적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발광적으로 침략과 전쟁의 수단에 매여달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달성해 보려고 제멋대로 날뛰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되여 있지 못한것은 세계정세발전에 일정한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만일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마음대로 침략과 전쟁을 일삼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헤아릴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여야 하며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웰남문제는 오늘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웰남문제에서 전세계 진보적력량과 반동적력량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세계의 규모에서 조직화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정황밑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투쟁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심지어 미국내부에서도 지배층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력량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다고 말할수 없다.

반제력량은 강력한 단결된 힘을 가지고 미제와 맞서야 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한다면 능히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미제를 패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힘을 몇배로 증대시킬것이다. 또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할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단결에로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오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반제투쟁의 선두에 서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심각한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조성된 난관은 저절로 해결될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의견상이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정세는 우리들에게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선차적이며 절박한 혁명과업이다.

의견상이에서 주되는것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가 하지않는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가 하지않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개 당들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물론 의견상이문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반제투쟁문제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오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또한 웰남인민에게 일정한 물질적원조를 주고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보적기초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은 실제 투쟁속에서 검열될것이며 명백하여질것이다. 실천은 진실성여하를 밝혀 줄것이며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사이의 계선도 더 똑똑하게 보여줄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야 한다.

불철저하고 동요한다고하더라도 더 많은 동맹자를 쟁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비록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며 불견고하며 신임치 못할》 사람들이라하더라도 사소한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반제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겠다고 하면 그러

한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이끌어넣어야 한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반제투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혁명의 전반적리익에 부합되는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무원칙하게 타협하자는것도 아니며 덮어놓고 단결하자는것도 아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의 의견상이는 심각하며 원칙적성격을 띠고있다. 이 의견상이는 어물어물 덮어둘수 없다. 그것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반제공동행동을 취하면서도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기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는 조건에서 행동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기회주의적요소는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은 지지하고 조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통일전선정책에서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더 주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곧 현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충실한 길이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지금은 모든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발 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고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한다.

모든 력량이 반제통일전선에 결속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제국주의는 마침내 꺼꾸러질것이며 세계혁명은 승리할것이다.

* *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의 큰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이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여 자기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형제당들 호상간에 심각하고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것이며 자주로선을 관철하여나갈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을 준수할것이며 세계혁명수행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에 항상 충실할것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 당은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갈것이다.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한 나라(1966년 7월말현재)

나라이름	설정날자		
1.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1948.	10.	12
2. 몽골인민공화국	1948.	10.	15
3. 뽈스까인민공화국	1948.	10.	16
4.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1948.	10.	21
5.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1948.	11.	3
6. 웽그리아인민공화국	1948.	11.	11
7. 벌가리아인민공화국	1948.	11.	29
8. 알바니아인민공화국	1949.	5.	17
9. 중화인민공화국	1949.	10.	16
10.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949.	11.	7
11. 웰남민주공화국	1950.	1.	31
12.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1958.	9.	25
13. 기네공화국	1958.	10.	8
14. 꾸바공화국	1960.	8.	29
15. 말리공화국	1960.	10.	31
16. 우간다	1963.	3.	2
17. 예멘아랍공화국	1963.	3.	9
18. 아랍련합공화국	1963.	8.	24

19. 인도네시아공화국	1964.	4.	16
20. 모리따니회교공화국	1964.	11.	12
21. 캄보쟈왕국	1964.	12.	20
22. 꽁고(브)공화국	1964.	12.	24
23. 가나공화국	1964.	12.	28
24. 탄자니아련합공화국	1965.	1.	13
25. 수리아아랍공화국	1966.	7.	25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설정한 나라(1966년 7월말현재)

나라이름	설정날자		
1. 버마련방	1961.	5.	15
2. 인도공화국	1962.	3.	1
3. 쎄일론	1964.	1.	25
4. 이라크공화국	1966.	7.	21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관계만을 설정한 나라(1966년 7월말현재)

나라이름	설정날자		
1. 오지리공화국	1960.	11.	23
2. 소말리아	1962.	12.	17
3. 우루과이	1963.	5.	17
4. 핀란드	1964.	7.	30

1965년에 우리 나라와 외국간에 체결한 협정일람

협정문건명칭	조인날자	조인장소
△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1965년도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3. 20	평양
조쏘친선협회와 쏘련대외친선 및 문화련락협회련맹, 쏘조친선협회간의 1965년도 협조계획서	4. 16	평양
조쏘국경철도대표단의 공동의정서	7. 14	주을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와 쏘련국영기선회사간의 선박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서	12. 27	평양
△ 몽골인민공화국		
조선몽골영화보급사간의 영화교류 계획서	5. 3	울란바따르
△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11. 30	평양
△ 웽그리아인민공화국		
1965—1966년도 문화교류 계획서	5. 26	평양
1965—1966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6. 1	평양
△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식물보호 및 검역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약	1. 2	평양
세관협정	6. 23	평양
1965—1966년도 과학기술협조사업을 위한 의정서	10. 21	평양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2. 2	평양
령사협약	12. 29	평양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교류 계획서	6. 18	평양
과학원간의 1965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7. 30	평양
1965—1966년도 보건협조에 관한 계획서	11. 9	평양

조중국경철도공동위원회 의정서	11. 18	신의주
1966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12. 14	평양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965—1966년도 보건협조에 관한 계획서	7. 27	평양
△ 웰남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웰남민주공화국에 경제적 및 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협정	7. 16	평양
1965년도 문화협정집행계획서	7. 29	하노이
과학원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1965—1966년도 사업계획서와 조웰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회의 의정서	9. 28	평양
△ 아랍련합공화국		
1965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통상의정서	6. 4	까히라
1966년도 상품납입에 관한 의정서	11. 23	평양
△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통상협정	6. 20	다르에스살람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1. 22	평양
△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9. 28	평양

1966년에 우리 나라와 외국간에 체결한 협정일람

협정문건명칭	조인날자	조인장소
△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	4. 4	평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의정서	5. 16	평양
1966년도 문화협조계획서	5. 16	평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리행을 위한 1966년도 사업계획서 조인	5. 19	모스크바
경제적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6. 20	모스크바
1967—1970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	6. 20	모스크바
어업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6. 20	모스크바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12. 10	모스크바
1959년 11월 24일부 용선계약에 관한 보충서	12. 28	평양
△ 몽골인민공화국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사업계획서	4. 8	평양
1966—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0. 20	평양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0. 20	평양
△ 뽈스까인민공화국		
1966—1967년도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계획서	6. 29	와르샤와
△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년도 사업계획서	4. 22	평양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	12. 19	쁘라하
△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 7	평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사업계획서	3. 2	평양
방송위원회간의 방송협정	3. 23	부꾸레슈띠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정서	7. 5	평양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10	부꾸레슈띠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와 로므니아국가제출하 및 운수회사		

부꾸레슈띠 《롬뜨란스》간에 대리업무에 관한 계획서	11. 21	평양
△웽그리아인민공화국		
1965－1966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실행을 위한 보충계획서	4. 19	평양
1966년도 보건 및 의학부문의 협조계획서	4. 19	평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6차회의 의정서	6. 4	부다뻬슈뜨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2. 13	평양
△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문화협조협정	4. 27	티라나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4. 27	티라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의정서	6. 14	티라나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집행계획서	2. 25	평양
수의방역 및 검역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6. 1	평양
1966년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9차회의 의정서	7. 5	베이징
과학원간의 1966—1967년도 과학협조계획서	7. 30	베이징
1967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12. 3	베이징
방송국간의 방송협정	12. 30	베이징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무역성간의 일반설비 납입에 관한 협정	2. 5	베를린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 5	베를린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사업계획서	4. 16	평양
과학원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4. 25	베를린
△ 월남민주공화국		
월남정부에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경제협정	1. 17	평양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 17	평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6. 9	평양
항공운수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7. 13	하노이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9. 3	평양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	12. 19	하노이
△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	7. 18	알제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7. 18	알제
△ 기네공화국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5. 11	꼬나크리
△ 꾸바공화국		
통상협정	1. 12	평양
지불협정	1. 12	평양
1966년도 상품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1. 12	평양
무역성간의 상품호상납입 일반조건에 관한 의정서	1. 15	평양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1. 15	아바나
당 및 정부대표단간의 공동성명	10. 29	평양
비무역지불에 관한 협정	11. 14	평양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11. 14	평양
1967—1968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12. 12	아바나
△ 말리공화국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6. 6	바마코
△ 아랍련합공화국		
우편업무에 관한 의정서	8. 21	평양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12. 27	까히라

△ 캄보자왕국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	1. 6	프놈펜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1. 6	프놈펜
1966년도 문화교류계획서	9. 17	프놈펜
△ 꽁고(브)공화국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2. 16	브라자빌
△ 가나공화국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 20	아크라
△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문화 및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7. 5	다르에스살람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	7. 25	다마스커스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4. 27	다마스커스
△ 버마련방		
중앙통신사와 버마통신사간에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7. 23	랑군
무역협정	9. 7	랑군
△ 인도공화국		
무역협정	10. 7	뉴델리
△ 이라크공화국		
총령사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	7. 21	바그다드
△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8	라왈핀디
△ 일본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와 일본과학기술협력위원회간의 과학기술교류에 관한 합의서	8. 3	평양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와 일본과학기술협력위원회간의 1966—1967년 상반년도과학기술교류 계획서	8. 3	평양

남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

(1965년 1월—1966년 12월)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식민지 파쑈통치에 의거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 날뛰면서 살인과 폭행, 략탈과 파괴 등 귀축같은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피는 계속 흐르고있으며 귀중한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사람의 피를 보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여기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삼으며 오직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만을 일삼고 있는 미제야수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포악무도한 범죄행위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아래의 자료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인 보도관제와 언론출판인들에 대한 탄압,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출판물들과 통신보도들에 극히 제한되여 발표된것중의 일부이다.

1965년 2월 7일밤 9시 5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20마일 해상에서 미제의 상선은 그곳에서 어로작업중이던 려수 부용수산회사소속 13부용호 (30톤)를 들이받아 선원 10명을 익사케 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5년 2월 8일)

1965년 2월 13일 밤 9시 30분경 찌프차를 몰고 시내를 달리던 미제침략군 제508통신대소속 미제침략군상병 마트는 영등포구 시흥동 산 65번지에 있는 점포를 들이받아 점포안에 있던 김천주(44세)를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라지오서울방송》 1965년 2월 14일)

1965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포천군에서 한미공지합동훈련을 진행하던 미제침략군 에프 105제트기 조종사는 로케트탄을 퍼부어 지상에서 일하던 리해영(23세)을 즉사케 하고 리원수(25세), 박덕만(24세), 김홍선(24세)등 3명에게 각각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경향신문》 1965년 5월

18일).

1965년 5월 25일밤 11시 30분경 서울시 퇴계로 입구 수도녀자사범대학부속중학교앞에서 미제침략군 8군 헌병사령부소속 미제침략군 대보슨은 고속으로 트럭을 몰다가 서울 0372호 빠스를 들이받아 운전수 김병래(35세)외 승객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서울방송》1965년 5월 26일).

1965년 5월 27일 12시 30분경 미제침략군 제1기갑사단 제9련대 제1수색대대 비중대 근방에서 보초를 서고있던 미제침략군 1명은 부대주변을 지나가던 김수명(32세)에게 리유없이 총탄을 퍼부어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경향신문》 1965년 5월 27일).

1965년 5월 31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4구에서 미제침략군 제1기갑사단소속 미제침략군운전수는 트럭으로 대성운수소속 경기영 3216호 빠스를 들이받아 깊이 3메터의 웅덩이에 굴러떨어뜨리고 승객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도망쳤다. (남조선 《동아방송》1965년 6월 1일).

1965년 6월 12일 밤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에 주둔하고있는 《터키》부대소속 게로긴하사를 비롯한 미제침략군 3명은 이곳 《고향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다방녀주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망치던 도중 길가에서 놀던 이마을 리영숙(9세)소녀를 돌로 때려 그자리에서 졸도케 하였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1965년 6월 13일).

1965년 6월 16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도 시흥군과 서울시의 경계선에서 트럭을 과속으로 몰고 달리던 미제침략군운전수는 맞은편에서 오는 경기영 922호 빠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장세일 (60세)등 8명에게 중상을, 13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5년 6월 17일).

1965년 7월 9일밤 10시 4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돈암동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제8보급창소속 미제침략군운전수는 김인덕 (65세, 서대문구 랭천동 37번지 거주)로인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찌프차를 내몰아 무참하게 깔아죽였다.(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5년 7월 10일).

1965년 7월 14일 새벽 3시 35분경 미제침략군 제2보병사단 39련대 씨중대소속 미제침략군 보초병은 감시초소를 떠났다가 돌아오던 남조선 《국군》사병에게 고의적으로 총탄을 퍼부어 즉사케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5년 7월 14일).

1965년 8월 17일 대전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자동차를 몰고 평택군쪽으로 달리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리경옥(25세, 천안시 영성동 50번지 거주) 녀성을 도락삼아 떠받아 현장에서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대전일보》 1965년 8월 19일).

1965년 8월 23일 충청남도 아산군령인면 아산리에서 미제침략군통신부대소속 미제침략군 트럭운전수는 자동차를 마구 몰고가다가 길가에서 놀고있던 박치영 (3세, 온양읍 온천리 4구 박창식의 장녀)을 고의적으로 깔아 그자리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대전일보》 1965년 8월 25일)

1965년 8월 27일 밤 11시 30분경 서울시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앞길에서 미제공군소속 80756호《세단차》 운전수 토라이스 로버트(35세)는 서울영 6798호 《새나라》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박명화 (27세, 대흥동 28번지 거주) 등 4명에게 각각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5년 8월 28일).

1965년 9월 19일 오후 6시경 미제침략군 제2사단 37련대 2대대소속 상등병 볼르윌리는 술을 마시고 란잡하게 노는 저들의 행위를 나무랬다하여 동부대에서 일하는 조선인로무자를 마구 때려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0월 6일).

1965년 9월 29일 오후 2시 45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서정리 앞길에서 미제륙군 제2보병사단 제2의무대대소속 자동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운전수는 길가던 리종상 (51세, 송탄읍 이충리 거주)로인을 고의적으로 깔아 절명케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5년 10월 1일).

196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1가 1124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던 제2군단 포병사령부소속 미제침략군운전수는 자전거를 탄 전용순 (28세, 마포구 아현동 1083번지 거주)을 도락삼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0월 29일).

1965년 11월 8일 오후 5시 8분경 경기도 소사읍 앞길에서 인천을 향해 트럭을 몰고 가던 미제침략군운전수는 서울로 오던 서울영 1245호 빠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7명에게 중상을, 16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11월 9일).

1965년 11월 30일 밤 7시 30분경 서울시내 영등포구 동촌동 아동병원 앞길에서 김포쪽을 향해 대형트럭을 몰고가던 미제침략군운전수는 김영태 (45세, 영등포구 공항동 48번지 거주)를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하고 도망쳐버렸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2월 1일).

1965년 12월 8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화성군상공에서 폭격연습을 진행하던 오산주둔 미제공군제트기조종사는 해변가에서 굴을 따던 리영자(33세, 화성군우정면 매향리 거주) 녀성을 목표삼아 그에게 폭탄을 퍼부어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5년 12월 9일).

1966년 2월 5일 오전 미제제2보병사단 지원공병대대 대대장 중령 섀터즈와 동사단 헌병참모부 차장 소령 텍스포드의 지휘하에 무장한 미제침략군헌병 32명은 동대대 (경기도 파주군 소재)정문앞에서 부당해고에 반발하여 파업하려던 이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로무자 800여명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총창으로 찔러 그중 최만복 (31세), 박병모 (54세), 조풍행, 김진회 (38세), 김두윤(29세), 조재훈(35세), 리용완(30세)리수근 등에게 심한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한국일보》 1966년 2월 6일).

1966년 2월 13일 미제침략군 헬리콥터 순찰대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강부근에서 헌 쇠부치를 캐고있던 파주군 림진면 사목리에 거주하는 7명의 주민들에게 마구 총질하여 그들중 강아무개(26세)의 오른쪽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동아방송》 1966년 2월 14일).

1966년 3월 1일밤 9시 10분경 미제침략군 728헌병대소속 에이 6찜차 운전수는 경기도 부평역전에서《동아일보》 부평주재기자 정연철을 고의로 치여 심한 중상을 입혔다.(남조선《경기매일신문》 1966년 3월 2일).

1966년 3월 3일 오후 7시경 미제침략군 36공병단 512공병대 소속 미제침략군운전수는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빠스정류소에서 빠스를 기다리고있던 박정연 (17세) 소년을 화물자동차로 깔아 현장에서 즉사케하였다. (《중앙라지오방송》 1966년 3월 10일).

1966년 3월 14일 오전 8시 35분경 케이 55오산 미제공군기지 소속 미제침략군은 동기지 3호 건물부근 인도를 지

나가던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현기 (39세)를 무턱대고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동아방송》 1966년 3월 14일)

1966년 3월 20일 낮 12시 40분경 미제침략군 제2보병사단 제9련대 2대대 씨중대 소속 미제침략군 보초병 병장 바니조라는놈은 이중대 철조망 바깥에서 빈깡통을 줏고있던 경기도 천현면 웅당리에 사는 림숙하(17세) 소년을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동아방송》 1966년 3월 21일)

1966년 5월 11일 오전 11시 1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536번지 앞길에서 오산으로부터 안양쪽으로 차를 몰던 미제침략군 제38미싸일련단 소속 상등병 디 (23세)는 길옆에 피해서있던 김아무개 (14세, 안양읍 536번지 거주)를 깔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다. (《동아방송》 1966년 5월 11일)

1966년 6월 15일 오후 3시경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앞길에서 인천소재 미제침략군유류창 소속 《아이. 피 디》본부 45호화물자동차 미제침략군운전수는 그곳을 지나가던 60세가량되는 로인을 고의로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하였다. (《대전일보》 1966년 6월 17일)

1966년 6월 29일 낮 12시경 미제침략군 제7사단 31련대 1대대소속 미제침략군 상등병 소프린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서 철조망부근 인도를 지나가던 동두천읍에 사는 강철훈을 권총으로 쏘아 중태에 빠뜨렸다. (《동아방송》 1966년 6월 30일)

1966년 7월 5일, 경상북도 대구시 칠성동 앞길을 미친듯이 달리던 미제침략군 화물자동차운전수 윌리암은 길옆으로 지나가는 체아무개를 고의로 깔아죽였다. (《동아방송》 1966년 7월 5일)

1966년 8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에서 화물자동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38병기창소속 상등병 로스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쪽으로 가는 정우조 (38세)를 일부러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케하였다. (《중앙라지오방송》 1966년 8월 29일)

1966년 9월 3일 오전 미제침략군제88공병대대소속 자동차운전수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한국농업회사》 앞길에서 동회사 림시직공 염승헌(36세)을 깔아 절명케하였다. (《한국문화방송》 1966년 9월 3일)

1966년 9월 23일 오전 10시경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 사령부소속 화물차운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도로주변에서 놀고 있던 김경일(47세)의 아들 김아무개소년을 고의로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김소년은 이튿날 12시경에 끝내 절명하였다. (남조선신문《강원일보》1966년 12월 23일)

1966년 10월 29일 11시 50분경 미제침략군 304통신대대소속 86호화물자동차운전수 상등병 로날드 더블류 호퍼 (22세)은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 원창리 새술막고개에서 결혼식차를 뒤늦게 뒤로 들이받아 신랑 리대섭(31세), 신부 박춘자(23세), 신부동行리 리정자 (22세)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신부의 사촌동생 박창록을 절명케하였다. (《강원일보》 1966년 10월 31일)

1966년 10월 30일 오후 4시경 짚차를 몰던 한 미제침략군은 서울시내 성북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황아무개(17세)학생을 고의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동양라지오방송》 1966년 10월 30일)

1966년 11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미제침략군부대 공병수송대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수는 경기도 수원시 남수동 매향교에서 놀고있던 리의성 (3세 수원시 북수동 302번지에 거주) 어린이를 장난삼아 치여죽이고 달아났다. (《경기매일신문》 1966년 11월 4일)

1966년 11월 19일 새벽 6시 서울시 성동구 문화동 상거리에서 미제8군 통근 빠스를 몰던 미제침략군운전수는 목판을 이고 인도로 가는 두부장사 로인을 고의로 깔아 현장에서 즉사케하였다. (《한국일보》 1966년 11월 20일)

1966년 12월 12일 오후 6시 4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서 미제해병사단 소속 상등병 헌만드는 화물자동차를 몰고가다가 길옆에서 노는 최봉형 (19세 림진면 거주)소년과 다른 1명에게 권총을 마구쏘아 최봉형의 왼쪽 팔과 배에 심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동양라지오 방송》 1966년 12월 13일)

남조선녀성들에 대한 만행

1965년 1월 13일 밤 미제침략군 제168의무대소속 대위 조지 브라이어와 운전수 1등병 스트로이트 맥브라이드는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리랑》 음식점앞에서 임신 6개월의 김수미(21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9번지에 거주) 녀성을 찌프차에 싣고 남방리 부대 앞산까지 끌고가 발가벗긴 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고 마구 구타하여 락태시켰으며 그후 저들의 죄행이 폭로되자 2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또다시 김수미녀성의 집에 나타나 변소에서 나오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가위로 머리를 깎은다음 어깨와 가슴 등에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5년 2월 27일, 《서울신문》 1965년 2월 26일)

1965년 2월 22일 밤 7시경 미제침략군 상병 헤리 모로스는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 사는 석모 (22세)녀성을 릉욕하려다가 그 녀성이 반항한다하여 그를 무참하게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전주방송》 1965년 2월 23일)

1965년 4월 11일 밤 8시 30분경 경상북도 왜관읍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44공병대대소속중사 윌리암은 왜관읍 석전동에 사는 김경옥소녀(14세)를 랍치하여 집에서 약 500메터 떨어져있는 과수원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고 릉욕하였다. (남조선신문 《서울신문》 1965년 4월 14일)

1965년 5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앞산 《벙커》를 경비하던 미제침략군 제1기병사단 제5련대 씨중대소속 1등병 플레이지즈는 파주군 림진면 답동 2리에 사는 김미숙 (24세)녀성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응하지 않는다하여 《엠 14》소총으로 그의 앞이마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5년 5월 4일)

1965년 5월 15일 미제침략군 제304통신대대소속 미제침략군병사 1명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에 사는 오미숙녀성과의 시비끝에 자기의 비위를 거슬린다하여 그의 얼굴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라지오서울방송》 1965년 5월 18일)

1965년 5월 15일 밤 10시경에 왜관주둔 미제헌병대소속 하사 카스텔로는 왜관읍 석전 2동 산의 1에 사는 김옥분 (23세)녀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의 가재도구까지 파괴해 버렸으며 5월 16일 오전 11시경 다시 동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병중인 그의 귀에 맥주를 들이붓고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신문 《매일신문》 1965년 5월 29일, 《령남일보》 1965년 5월 23일)

1965년 8월 14일 밤 10시경 케이—6기지대 미제침략군 제728헌병대소속 20여명의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대사리 산지골에서 배순희 (23세) 등 10여명의 조선녀성을 2대의 찌프차에 강제로 싣어 남산리훈련

장 숲속에 끌고가 배순희, 배옥란(21세), 김경자(21세), 리은숙(23세), 김정애(21세) 녀성 등 5명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집단란행을 감행한 후 손발을 비틀고 라체촬영까지 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8월 18일)

1965년 10월 3일밤 7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능담리 미제침략군 제2오락장 앞길에서 미제침략군병장 헤머튼은 동 마을에 사는 박해림 (22세)녀성에게 시비를 걸던 끝에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하여 그를 때려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10월 6일)

1965년 10월 12일 밤 11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앞길에서 미제침략군 제55비행대소속 병장 로렌스는 길가던 서아무개 (38세)녀성을 찌프차에 태워 강제로 릉욕한후 라체로 길가에 버리고 도주했다. (남조선신문 《한국문화방송》 1965년 10월 13일)

1965년 10월 17일 오후 6시경 강원도 춘천지구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부대소속일등병 미제침략군 렌지는 춘천시 소양로에 사는 김영희녀성(23세)의 집문을 짓부시고 방안에 뛰여들어 그가 저들이 조직한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하여 마구 때리다가 한시간후 이 녀성을 마당에 끌어내여 구두발로 허리, 머리 등 닥치는대로 차고 나중에는 이 녀성의 량손을 비틀며 머리태를 틀어쥐고 벽에다가 머리를 짓쪼아 그를 실신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강원일보》 1965년 10월 21일)

1965년 10월 19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병기대대 제7중대소속 3등병 헤선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에서 이곳에 사는 강수남(23세)녀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하여 칼로 그의 배를 마구 찔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0월 21일)

1965년 10월 21일 밤 10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캠프 캐롤》 미제침략군부대앞에서 미제침략군 2명은 그앞을 지나가는 리금선(23세, 왜관읍 석정동 2동 432번지에 거주) 녀성에게 달려들어 추태를 부리다가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동녀성을 란타하고 발길로 차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실신시키는 등 만행을 가하고 도주했다. (남조선신문 《매일신문》 1965년 10월 24일)

1965년 10월 22일 밤 11시경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2구에서 미제침략군 명은 어린애를 업고가는 리은주(30세)에게 달려들어 추태를 부리려다 동녀성이 자기집으로 뛰여들어가자 쫓아들어가 문간에서 맞다든 그의 아버지 리모 (55세)로인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며 30여분이나 마을로 끌고 돌아다니면서 《처녀, 색시》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였으며 나중에는 이 로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중상을 입혔다.

또한 미제침략군은 이 마을 리선근의 집앞에서 남편을 살리려고 뛰여 나온 리모로인의 부인 서모 (50세)녀성의 손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신문 《매일신문》 1965년 10월 24일, 《대한일보》 1965년 10월 25일)

1965년 11월 6일 밤 12시경 미제침략군 하사 보카는 파주군 림진면 운천2리에 사는 김영자(22세)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그 녀성이 응하지 않는다하여 그를 마구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집까지 부시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11월 8일)

1965년 11월 6일 오후 7시경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에서 미제침략군병장 1명은 김영희(22세)녀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를 말리려은 우영숙(33세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 거주) 녀성의 엎구리를 구두발로 차서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11월 8일)

1965년 11월 7일 오후 7시 35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있는 조창만의 집에 뛰여든 미제침략군제 7사단 79포대 일등병 존슨은 김명애(21세)녀성이 자기의 추잡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하여 동녀성의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라지오, 침구 등 1만 7천여원분의 손해를 입혔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1965년 12월 8일 오후 5시경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제침략군 제7사단 31련대 소속 2등병 엘리스패스는 동두천읍 동두천 1리 205번지에 사는 신미경 (23세)녀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하여 가위와 식도로 그를 위협하고 머리를 깎은 다음 가산을 부시고 도망쳤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12월 11일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2월 10일)

1966년 3월 2일밤 9시 30분 경상남도 부산시 부산 제3부두 미제침략군항만 수송대소속 상사 레인쓰는 시내동구 좌천동 274번지에 사는 리아무개(17세) 구두닦기소녀를 시내 외딴골목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도주하였다. (《마산일보》 1966년 3월 16일)

1966년 5월 26일밤 11시 30분경 경기도 부평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애스컴》 사령부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사병은 녀자종업원 정순자를 희롱하려다 이에 불응하자 면도칼로 머리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한국일보》 1966년 5월 28일)

1966년 7월 17일 오후 6시경 미제침략군 군산비행장 소속 중사 로벨말 카벳트와 찰스데이비스, 하사 칼치스 이르이스는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서 박정숙 (22세), 송금자(30세), 권미자 (30세) 녀성 등을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심한 중상을 입혔다. (《전북일보》 1966년 7월 19일)

1966년 8월 12일밤 11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서 미제공군 상등병 구린은 김련심녀성을 강간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쳐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되자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2대의 이발을 부러뜨리고 높이 2메터의 계단에서 굴러떨어뜨려 중태에 빠뜨렸다. (《전북일보 1966년 8월 16일)

1966년 9월 8일밤 8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9번지에서 미제공군 대위 로버트 래임버즈는 김남순 녀성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밖으로 끌고나와 앞가슴과 배를 발길로 마구차서 중태에 빠뜨렸다. (《전북일보》1966년 9월 10일)

행패와 폭행

1965년 3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지구에 있는 미제침략군첩보기관 《씨. 아이. 디》소속 중사 하버드는 자동차를 타고 그 근처를 싸다니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평택군 마두리에 사는 강모외 1명에게 달려들어 까닭없이 쇠고랑을 채우고 폭행을 가하였다. (남조선신문 《경기매일신문》 1965년 3월 9일)

1965년 3월 28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법원리에서 미제침략군1기갑사단소속 상등병 테리서와 1등병 아이세스터는 조선인식당에 뛰여들어 아무런 리유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2회에 걸쳐 최루탄을 터뜨려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3월 30일)

1965년 5월 1일밤 두명의 미제침략군 헌병놈은 들놀이갔다돌아오는 인천시

부평동 276번지에 거주하는 송백기(36세)를 아무 까닭없이 마구때려 머리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을뿐만아니라 몸을 뒤지고 손에 수갑을 채워 류치장에 감금하였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5월 7일)

1965년 5월 1일밤 9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순화동에서 미제야수 죤슨은 서울영택시 (4499호)를 불러타고가다가 운전수 손진학 (33세)에게 택시료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던 끝에 택시를 파괴하고 운전수를 마구 때렸다.

또한 죤슨은 이 사실을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폭언을 가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목을 조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5년 5월 3일)

1965년 5월 29일밤 10시 30분경 경기도 부평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8057부대소속 미제침략군 수명은 저들의 부대근처에 있는 부평동 276번지에 사는 김제숙녀성의 집뜰안에 최루탄을 던져 이 집 문짝을 부셔뜨리고 이집에 동거하는 주영옥 (29세)녀성의 젖먹이 어린애를 질식시켜 정신을 잃게 하였으며 주변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남조선신문 《경기매일신문》 1965년 6월 1일)

1965년 6월 25일밤 10시 40분경 미제침략군제7사단헌병대소속 병장 프래본, 하사 보일, 하사 말스코 등 3명의 미제침략군은 순찰을 하다가 아무런 리유없이 오지영 (34세,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거주)에게 달려들어 마구 구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이 마을 주민 리중석 (30세)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상기 피해자 오지영과 함께 헌병대로 끌고가 그들에게 보일하사를 비롯한 4명의 헌병이 무려 1시간 30분간이나 찬물을 끼얹고 뭇매질을 가하여 오지영, 리중석을 실신케 하였다. (남조선 《라지오서울방송》 1965년 6월 29일 《동아일보》 1965년 7월 13일)

1965년 7월 4일 오후 1시경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사정리앞행길에서 군용트럭에 탄 미제침략군제44포병대 제4유도탄 대대소속 1등병 파슨스와 알리온은 지나가던 권옥환 (27세,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거주)에게 고무올가미를 던져 목을 졸라맨후 10메터나 질질 끌고감으로써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5년 7월 6일 《합동통신》 1965년 7월 31일)

1965년 7월 12일 새벽 2시경 미제침략군 제2포병사단 비중대 698피엑처에 있는 미제침략군 5명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원리에 사는 리순희 (45세) 녀성의 집을 비롯한 조선인가옥들에 뛰여들어 아무런 리유없이 폭언과 행패를 부린다음 기물을 부시고 주민들을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서울방송》 1965년 7월 13일)

1965년 7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2구 앞길에서 스리코타를 타고 달리던 미제침략군제2포병사단 제2헌병대소속 미제침략군 1명은 심심풀이로 길을 걷던 조선인 하시명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남조선 《라지오서울방송》 1965년 7월 13일)

1965년 7월 15일 밤 10시 30분경 미제침략군 304통신대 비중대소속 미킨스 등 3명의 미제침략군은 남산공원아래 광장에서 중구 도동 2가에 사는 강리석 등에게 아무런 리유없이 칼부림을 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또한 그들은 지나가던 《새나라》 택시에 올라 운전수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후 택시를 빼앗아타고 달아났다. (남조선 《서울방송》 1965년 7월 16일)

1965년 8월 1일밤 11시경 서울룡산구역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7명은 걸어가던 조선녀성을 희롱하였으며 이를 말린 행인에게 칼부림을 하였고 돌을 마구 던져 박우섭 (27세, 한강로 2가 42번지 거주)을 비롯한 조선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5년 8월 3일)

1965년 9월 4일밤 11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서 미제침략군 세명은 조선 청년 허율석 (31세)이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신끈을 매고있는것을 보고 덤벼들어 마구 때리고 행패를 부린끝에 그를 높이 5메터나 되는 벼랑밑으로 떠밀어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5년 9월 7일)

1965년 10월 27일 밤 11시경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 82번지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제8군특무대소속 사병 윌리암과 아피로베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하여 서울시경 기동대 김인수를 때려 머리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남영동파출소 형사 김정업의 앞이 한대를 부러뜨렸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0월 28일)

1965년 11월 6일밤 12시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2리에서 미제침략군 제2보병사단 23련대3대대 하사 부커는 김영자 (22세) 에게 무조건 시비를 걸고 구타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고 가구를 파괴하였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1965년 11월 6일 오후 7시경 미제침략군제3려단소속 병장 1명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 산 49번지에서 조선인 우학수 (38세)를 까닭없이 마구 구타하여 심한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1965년 11월 7일 밤 10시 5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405번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미제침략군제7사단 79포대일등병 카미널은 맥주를 마시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식당종업원 리호기(24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4센치메터 가량의 파렬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1965년 12월 8일 새벽 1시 30분경 미제침략군 제7사단 32련대 2대대 보초4명은 동부대에 고용된 박석기 (51세)등 3명이 작업을 하고 나오는것을 도적이라는 루명을 씌워 막사로 끌고가 권총자루와 주먹으로 마구때려 상처를 입혔을뿐만아니라 5시간동안이나 감금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5년 12월 11일)

1966년 1월 15일밤 10시경 미제침략군 2명은 서울시 성동구 신양동에 거주하는 한봉학(39세)이 운전하는 서울영 9090호《새나라》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만성리 앞길에 이르러 불의에 맥주병으로 운전수를 때려 실신케한후 차밖으로 굴러떨어뜨리고 그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대전일보》1966년 1월 17일)

1966년 2월 3일 10시 10분경에 미제침략군 축항대 보병 46중대소속 1등병 캐자드 등 미제침략군 3명은 경기도 인천시 인현동 27번지에 있는 료정에서 음주하고 맥영하 (29세)외 1명을 무덕대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그들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을뿐만아니라 부근에 있던 택시 (경기영 3421호)의 유리까지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인천신문》 1966년 2월 24일)

1966년 2월 18일 밤 《캠프캐롤》본부중대소속 하사 윌슨은 경상북도 왜관읍 석전 2동에서 이곳에 사는 전남옥 (30세)을 리유없이 목을 조른끝에 200메터가량 끌고다니며 마구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평남일보》 1966년 3월 22일)

1966년 4월 22일 낮 미제침략군제2보병사단 17보병대대 씨 중대소속 미제침략군 하사는 동 미제침략군 부

대에 고용되여 일하는 김아무개를 소위 《도적》으로 몰아 감금해놓고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중앙라지오방송》 1966년 4월 22일)

1961년 4월 30일 10시 30분경 경기도 부평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 보급창 에이중대 소속 1등병 등 4명의 미제침략군은 이날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들이 피해달아나자 그곳을 지나가던 김순복 (경기도 인천시 룡현동에 거주) 청년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들고 그의 얼굴과 머리를 무수히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동아 방송》 1966년 5월 1일)

1966년 5월 19일밤 10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미제공군 야전병원소속 1등병 제임스 실버스트(19세)등 5명의 미제침략군은 길가던 홍아무개를 부뜨대고 때리고 달아나려다가 이 광경을 본 주변사람들이 격분하여 달려들자 장성규 (18세)학생 등 8명을 또다시 때려 중경상을 입혔다. (《중앙라지오방송》 1966년 5월 20일)

1966년 5월 23일 경기도 오산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 수송대소속 병장 데이비스조셉(37세)등 7명의 미제침략군은 백주에 경기도 송탄면 지산리 유원지에서 노는 손경영(17세), 강상호 (21세)등 3명에게 아무 리유없이 집단폭행을 가하여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일을 요하는 중경상을 입혔다. (《한국일보》 1966년 5월 24일)

1966년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미제화물선 《자판메일》호 선원 죤 조로락 (64세)은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에서 손칼로 정태조 (32세)의 앞가슴을 찔러 중태에 빠뜨린 다음 도주하려다가 손방우 (31세)청년의 추격을 받게 되자 그의 옆구리를 찔러 또 중상을 입혔다. (《마산 일보》 1966년 6월 3일)

1966년 8월 28일 밤 10시 10분경 경상남도 부산시 동구범일 제5동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142보급창안에서 미제침략군들은 심심풀이로 부근에 있는 민가에 100여개의 돌을 던져 리봉구 (33세)등 주민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동아방송》 1966년 8월 29일)

1966년 9월 15일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제2보병사단 제9련대 훈련장에서 군견을 훈련주던 미제침략군은 그곳에 사는 윤호일(21세)에게 개를 추겨 허벅다리를 물게하였으며 아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그의 아버지 윤기우 (52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중상을 입혔다. (《동아방송》 1966년 9월 16일)

1966년 11월 21일 5시 30분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소속 상등병 그레이 하우스 (22세)는 부대앞길을 지나가는 이담면 보산리에 사는 조헌식(48세)을 아무 리유없이 곤봉으로 후려쳐 중상을 입혔다. (《경기매일신문》 1966년 11월 22일)

1966년 11월 21일 9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에 주둔한 미제침략군부대 상등병 톰스하미스는 부대정문앞길에서 전선매(25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보산리에 거주)녀성을 부뜨대고 칼로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경기매일신문》 1966년 11월 22일)

재 물 략 탈

1965년 1월 17일 밤 9시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에서 미제침략군제6314보급중대소속 미제침략군 3명은 동리 820번지에 사는 김인상 (52세)이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주인을 때리고 상품과 가재를 마구 부시는 등 약 8만 5천원의 손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남조선 《동아방송》 1965년 1월 18일)

1965년 1월 24일 밤 7시 30분경 인천시 부두앞 700메터 해상에서 미제침략군용선박은 배양석유회사소속 110톤급 유조선 제2진행호의 곁을 과속으로 지나감으로써 심한 파도를 들씌워 동 유조선을 침몰시켰으며 1천드람의 중유조를 물속에 처넣은 손해를 입혔다. (남조선《동아방송》 1965년 1월 25일)

1965년 2월 20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파주군에서 미제침략군제12련대 씨중대소속 1등병 윌리암은 파주군 파평면 누문리에 사는 김변화 (29세)녀성의 집 (김주문소유, 8간)에 까닭없이 방화하여 가구, 의류 등 50만원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남조선신문 《경기매일신문》 1965년 2월 22일),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2월 22일)

1965년 3월 31일밤 10시 30분경 미제침략군제1기병사단 7련대소속 미제침략군 2명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누문리로상에서 서울영 9037 《새나라》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도중 운전수 리상돈(26세)의 목을 졸라 실신케한후 그를 택시밖으로 밀어던지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였다. (남조선신문《경향신문》 1965년 4월 2일)

1965년 5월 19일 《씨. 아이. 디》 소속 미제침략군 수명은 공모하여 경상북도 왜관읍 석전동에 있는 한 양화점에 들어가 물건을 보관시키는것처럼 주인을 기만하고 수분후에 다시 그 양화점에 달려들어 도적의 루명을 씌우고 라지오 기타 가재를 강탈하였다. (남조선신문 《매일신문》 1965년 5월 23일)

1965년 9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에서 미제침략군 3명은 동리에 거주하는 김희용(48세) 녀성에게 리유없이 집단폭행을 가하고 손목시계 1개를 강탈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5년 9월 8일)

《자유수호의용단》 고문겸 《케네디기념사업회》 특별회원인 미제침략군 죤피. 라이더(44세)는 조선인 한용복 (36세, 광업)에게 미66의무대 영내에 있는 비행장활주로용 철판 1천장을 기증받아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6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김포, 평택 등 비행장에 있는 철판도 동일한 방법으로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125만원을 사취하였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5년 10월 26일)

1965년 11월 7일 오후 6시 29분경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서 미제침략군 제2사단 2대대소속 일등병 크리폴드도브(18세)와 2등병 크레난테니스트(18세)는 영기영 3708호 《아리랑》택시를 타고 파주군 림진면 용주골 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운전수 김영국(24세,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420번지 거주)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한후 차밖으로 그를 떠밀어던지고 택시를 강탈도주하였다. (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경향신문》 1965년 11월 8일)

1966년 2월 4일밤 11시경 미제침략군 에이비스 죠세프외 2명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에 거주하는 로봉호의 집에 침입하여 이 집에서 놀고있던 주송지 (43세), 김남호(45세), 김원진(60세), 차재호 (58세), 로봉호 (44세)등을 권총과 단도로 위협하면서 라이터, 장갑 등 1천 400원어치의 돈과 물건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매일신문》1966년 2월 8일)

1966년 2월 15일밤 10시 30분경 미제침략군제702병기대소속 1등병 윌림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거주하는 리동수의 집에 불법침입하여 창문과 벽 지어 구멍탄난로까지 파괴하는 등 시가 5천원 이상의 피해를 입

혔다. 이놈은 다시 《파주고양기자단》 사무실에 뛰여들어 갖은 행패를 부려 3천원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신문》 1966년 2월 24일)

1966년 2월 15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부근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 통신대소속 미제침략군놈들은 속초시내 《등대맥주홀》이라는 술집에서 음주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도망쳤다. (《강원일보》 1966년 2월 28일)

1966년 2월 27일밤 10시경 미제침략군 제2사단 23보병련대 1대대 에이중대소속 한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서 아무 리유없이 두채의 초가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한국일보》 1966년 3월 1일)

1966년 2월 28일 오전 9시경 《케이아이 6》 험프레스판구사령부산하 운전수 병장 존은 경기도 평택군 평택면 평택리 도로연변에 있는 민가 2채를 고의로 들이받아 파괴하였다. (《중도일보》 1966년 3월 4일)

1966년 3월 7일 오후 7시반경 미제침략군 제7사단 2대대 10기갑중대소속 1등병 칼리처드와 2등병 니엘 소렁슨은 서울시 중구 남신동 룩쿄빌에서 지나가는 승용차를 잡아타고 인적이 드문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삼정리 앞길에까지 와서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운전수 송주용 (36세)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위협하면서 그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2천 300원을 강탈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놈들은 운전수를 차밖으로 내쫓고 저들끼리 차를 몰고가다가 논두렁에 처박았다. 그들은 다시 서울방면으로 가는 경기영 52호 택시를 잡아타고 가다가 밤 10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도림교 옆길에 이르러 돌연 운전수 정석정(26세)과 같이 타고가던 그의 친구 리종오(33세)를 위협하여 현금 6천 200원을 강탈하였다. 다음날인 3월 4일에도 역시 그놈들은 서울영 9008호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가던도중 차안에서 운전수 조만수(37세)를 위협하여 현금 500원을 강탈하였다.(《경향신문》 1966년 3월 4일)

1966년 3월 3일밤 10시 50분경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대소속 양키 3명은 강원영170호 택시를 타고 료금을 달라는 운전수 김철원(36세)을 부조건 집단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도망쳤다. 이때 사건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미제침략군 2명은 운전수가 중태에 빠져있는 틈을타서 그에게서 현금 600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강원일보》 1966년 3월 5일)

1966년 4월 3일 오후 미제침략군 제76땅크부대 2대대 2중대소속 1등병 패기란놈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웅당리에 사는 변아무개(22세)의 집에 아무런 리유없이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 (《동아방송》 1966년 4월 4일)

1966년 4월 12일 새벽 남조선에 끌려와있는 토이기 부대 16중대소속 2등병 모스터바는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식현리에 사는 강춘식 (40세)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칼을 빼들고 집주인을 위협하면서 방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파괴하고 이불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 (《중앙라지오방송》 1966년 4월 12일)

1966년 12월 24일 저녁 6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부락앞길에서 한 미제침략군은 땅크를 몰고나와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쪽에서 림진면 문산쪽으로 달리던 경기영 4251호 택시를 들이받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동양라지오방송》 1966년 12월 24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인간도살자이며 가장 횡포한 침략자이며 조선인민의 가장 악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야수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못하면서 그에 항거하여 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의 일환이다.

오늘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이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 더이상 머물러있을 그 어떠한 리유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조국땅에 남아있는한 그와의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않을것이며 양키침략자들이 우리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죄과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이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일념에 불타고있는 4천만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의이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은 이땅에서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1965—1966년도 기상개관

1965년도 우리 나라 기상조건은 기온이 낮고 강수량은 많은편이였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낮은 온도, 가물과 장마, 태풍과 폭우 등 불리한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966년의 기상조건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매우 많았으며 (110~150%정도) 일조률이 낮았던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기온〕 1965년도 기온은 년간을 통하여 평년보다 약간 낮은편이였으며 3~4월과 7~8월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서해안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지역에서 1~2월은 비교적 따뜻하였다.

3~5월의 기온은 서해안북부를 제외한 전반적지역에서 낮은편이였으며 6월에 들어서면서 가물이 계속되여 기온은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7~8월의 기온은 전반적지역에서 례년에 보기드물정도인 0.5~2.0도가 낮았으며 다만 10~11월에 온도조건이 유리했고 다시 12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은 급격히 낮아졌다.

하루 평균기온이 10도이상되는 날씨는 평년보다 5~7일간 늦었으나 가을날씨가 따뜻했기때문에 마감날자가 10일정도 늦어져 그 지속기간은 평년보다 3~5일간 길었다.

이 기간의 적산온도는 벼, 옥수수

등 호온성작물의 성숙에 필요한 일평균기온 15도이상의 적산온도는 례년보다 50~100도가 적었다.

1966년에 우리 나라의 년평균기온은 1°C~11°C범위로서 평년에 비하면 0.0°C~0.3°C정도 낮은편이였다.

농작물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6—9월까지의 사이에는 8월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기온이 낮았다.

1966년도 온도변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북부내륙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지역에서 7월에 비하여 8월의 기온이 더 높았던것인데 그 기온의 차를 보면 평양 +1.7°C, 혜산 1.8°C, 김책 2.1°C였다.

10—11월은 기온이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편이였으나 12월에 들어서면서 례년에 보기드물 정도로 급격히 낮아져 12월의 평균기온은 혜산 —16.6°C, 평양 —7.1°C, 원산 —2.0°C로 이는 평년보다 1.0~3.7°C 낮은것으로 된다.

1966년도 온도조건에서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들면 다음과 같다.

2—3월의 높은 온도—2월과 3월은 비교적 따뜻한 날이였다.

2—3월의 고온현상은 그 포괄하는 지역이 전국적이였으며 그 정도도 컸다.

2—3월의 평균기온을 평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년과의 기온의 차

지점	2월	3월
평양	+2.3	+1.1
중강	+3.8	+2.2
원산	+1.7	+0.3

이와같이 1966년도 2—3월과 평균기온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북부내륙지방에서 그러하였다.

여름철의 낮은온도—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여름철기온이 비교적높은것이 특징이나 1966년도 여름철은 9월까지 포함하여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낮았다.

이 기간의 평균기온을 평년에 비하여 보면 다음표와 같다.

기온의 평년과의 차

지점＼월	6월	7월	8월	9월
평양	—1.1	—1.1	+0.4	—1.7
중강	—0.7	—1.9	+0.9	—1.7
김책	—0.8	—0.4	—0.4	—1.5
원산	—1.3	—0.5	—0.4	—2.5

6—9월기간의 이러한 낮은 온도는 농작물성장에 불리하였으며 동해안과 북부내륙지방에서는 약간의 랭해가 있었다.

12월의 낮은 온도—우리 나라 겨울의 본격적인 추위는 대체로 12월중순이후에 시작되나 1966년에는 12월초에 시작되여 이듬해까지 계속되였다.

이리하여 12월의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하면 평양 —3.0°C, 중강 —1.7°C, 김책 —2.2°C, 원산 —3.7°C였다.

이와같이 1966년도 온도조건은 평년에 비하여 대체로 나빴으며 농촌경리운영에 매우 불리한편이였다.

〔**강수**〕 1965년의 강수량은 서해안지방에서 1,000~2,000mm, 북부내륙지방에서 600~1,000mm, 동해안지방에서 700~1,400mm로서 거의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많았다. 강수량이 많았던 서해안지방에서는 평년의 1.2~1.5배의 비가 내렸으며 동해안과 북부내륙지방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1965년에는 비내리기가 7~8월기간에 집중되였으며 11월에도 례년보다 많은편이였으나 그외달에는 매우 적은것이 특징이다.

강수일수는 강수량과는 달리 평년과 비슷하여 가장 많은 자강도에서 130일정도, 함경남도에서 80일정도, 강원도 해안지방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90일정도였다.

1966년도 강수량은 함경북도의 일부지방을 제외하면 례년에 비해서 매우 많았다.

특히 서해안에서 1,300~2,000mm로서 이것은 평년의 120~170%, 북부내륙지방에서는 800~1,300mm로서 평년의 120~140%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함경북도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간 많은 편이였으나 함경남도이남의 동해안지방은 1,500~2,300mm로서 평년에 비하여 140~160%에 달하였다.

이렇게 많은 강수량은 20여년에 한번이나 있을정도로서 최근년간에 보기드문 현상이였다.

이와같이 년간을 통해서 많은 비가 내렸으나 그의 대부분이 6~9월기간에 내림으로써 우리 나라가 속한 동부아세아계절풍기후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몇개 지점에 대한 6~9월 강수량과 그것의 년강수량 및 평년강수량과의 비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월—9월 강수량과 년 및 평년강수량의 비

지점＼월	6월	7월	8월	9월	계	년강수량 (mm)	비 (%)	평년강수량 (mm)	비 (%)
신의주	257	378	394	54	1083	1310	83	1090	100
평양	112	425	219	275	1031	1274	81	958	108
해주	289	867	311	188	1655	1877	89	1102	150
강계	91	504	210	110	915	1254	73	945	96
김책	135	125	139	125	524	771	68	704	74
함흥	143	330	341	331	1145	1525	74	964	130
원산	250	307	630	390	1577	2031	78	1348	117

〔**일조**〕 1965년도 일조조건은 비교적 유리한 편이였다. 일조률이 평년보다 높았던 달은 3—6월과 9—10월이였으며 낮았던 달은 1월과 11월이였다. 일조률이 가장 낮았던 (25~45%)달은 8월이였으며 가장 높았던 달은 9월(사리원, 원산, 개성들에서 각각 77%)이였다.

한편 1966년도 일조조건은 구름이 자주 끼고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매우 불리한 편이였다.

일조률은 봄철에 40~60%, 여름철에는 20~40%, 가을철에는 40~50%였다.

이것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반적지역에서 일조률이 평년에 비하여 3~15% 낮은것으로 된다.

일조률이 낮았던 달은 비가 많이 내린 6—10월기간이였다.

이 기간의 일조률을 평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조률의 평년과의 차

지점＼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의주	—14	—5	—5	—1	+1
평양	—9	—12	—4	—8	—4
해주	—4	—13	—5	—9	—11
강계	—13	—7	—4	—11	—15
함흥	—9	—8	—6	—13	—18
원산	—18	—7	—3	—12	—12

〔**가물**〕 1965년 봄철과 가을철에 있은 심한 가물은 그 정도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례년에 보기드문편이였다. 가물은 북부내륙지방을 제외한 거의 전반적지역에서 있었으며 황해남도와 동해안지방은 특히 심했다.

봄철가물의 정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4—6월기간의 강수량을 평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6월 강수량(mm)

지점 \ 월	4월	5월	6월	계	평년	(비률 %)
평양	27.4	61.2	34.5	120	201	60
해주	11.3	37.4	34.1	83	254	32
개성	16.0	20.5	26.7	63	303	21
청진	13.2	20.1	19.6	52	134	39
함흥	26.5	38.8	10.2	75	220	35
원산	32.3	38.0	12.4	83	272	30

1965년에는 4—6월기간의 강수량이 황해남도와 동해안지방에서 평년의 20~30%, 평안남북도지방에서 60%정도였다. 그리고 가물의 지속시간이 이른봄부터 7월초에 이르는 100여일간이였으며 기온이 비교적 높은 6월에 가장 심했으므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우리 나라에서 가을철가물은 흔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1965년도 가을철의 가물도 그 정도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봄철과 비슷하였다.

가을철가물이 심했던 지역은 평안남도이남의 서해안지방과 동해안의 전반적지역이였다.

9—10월 기간의 강수량을 평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10월 강수량(mm)

지점 \ 월	9월	10월	계	평년	비률
평양	6.4	29.1	35	158	22
개성	32.4	23.4	55	187	30
김책	21.6	20.4	42	158	27
함흥	13.2	22.5	35	155	23
원산	37.1	17.7	54	258	22

〔**장마와 폭우**〕 1965년에 장마철이 시작된것은 례년보다 약간 늦은 7월상순이였으며 끝난것은 례년보다 이른 8월말이였으므로 장마기간은 평년에 비해 15일정도 짧았다.

그러나 장마철인 7~8월 강우량이 년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부내륙지방을 제외한 전반적지방에서 70%이상, 개성지방에서는 86%로서 례년에 비하여 10~20%높았다.

한달동안에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것은 개성의 1,113mm로서 이렇게 많은 강우량은 최근년간에 처음보는 현상이였다.

이해의 폭우현상은 전반적으로 심한편이 아니였으나 일부지방에서는 수십년만에 처음보는 심한 폭우가 있었다.

1966년도 장마철은 례년보다 약간 일찍 시작(6월하순초)되여 9월 12일에 끝났으나 마지막 장마는 거의 전국적인 범위에서 폭우를 동반하였다.

7월에는 대부분지방에서 많은 비(300~1,000mm)가 내렸으며 동서해안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부산지대와 황해남도 및 강원도 지방에서는 600mm이상의 비가 내렸다. 강수량이 특별히 많았던 7월을 보면 세포 1,075mm, 개성 944mm, 해주 867mm, 구성 627mm, 양덕 609mm로서 한달동안에 1000mm이상의 비가 내린것은 우리 나라에서 극히 드문 현상이다.

9월에도 강원도에서는 300mm이상의 비가 내렸는바 이는 8월의 강수량과 류사한 량으로서 평년의 1.5~2배에 달한다.

강수일도 우리 나라 전반적지방에서 100일이상이였으며 이는 평년의 1.5배에 달하는 많은 량이다.

1966년에는 우리 나라 대부분지방에서 폭우가 있었다.

1일간, 2일간, 3일간에 내린 강수량을 합하여 몇개 지점에 대한 폭우 정도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폭 우

지점 \ 구분	1일간 강수량(mm)	1일간 날 자	2일간 강수량(mm)	2일간 날 자	3일간 강수량(mm)	3일간 날 자
해 주	323.4	7.15	404.8	7.14~15	406.9	7.14~16
금 천	206.8	7.15	304.0	7.14~15	340.8	7.14~16
개 성	228.5	7.15	275.1	7.14~15	311.2	7.15~17
세 포	180.8	7.18	251.5	7.14~15	317.4	7.18~20
향 산	233.4	7.28	271.9	7.27~28	291.3	7.27~29
북 창	291.3	8.4	292.2	8.4 ~5	292.2	8.4 ~5

오래 계속된 비 —1966년도는 폭우현상이 많았을뿐만아니라 계속하여 비가 내린것도 특이하였다. 비교적 오래동안 비가 내린 현상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계속되는 강우

지점	지속날자	날수	그기간의 강우량(mm)
강계	6 30~7.21	22	293
금천	7.14~8.2	20	893
혜산	7.6~7.22	17	119
원산	9.1~9.12	12	387
원산	7.11~7.21	11	195
원산	6.23~7.2	10	221
신평	9.3~9.11	9	333
평양	7.14~21	8	255
해주	7.14~21	8	653
세포	7.14~21	8	639
세포	9.1~12	12	309

비내리기가 가장 오래 계속된 곳은 북부내륙지방이였으며 그중 강계 22일, 혜산 17일이였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있은 곳은 강원도였으며 계속하여 비가 많이 내린 곳은 강수량이 많았던 황해남도와 강원도로서 해주 8일간 653mm, 세포 8일간 639mm였다.

이상과 같이 1965년도의 온도조건은 농작물 생육기간인 4~9월기간중에서 6월을 제외하면 거의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계속 낮았으며 특히 3~5월과 7~9월기간의 낮은 온도는 그 정도와 지속성에서 최근년간에 류례가 드문 현상이였다.

한편 1966년도 우리 나라 기상조건은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례년에 보기드물 정도로 매우 많았으며 일조률도 매우 낮은것이 특징적이였다.

1965—1966년도 주요지점의 월평균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및 일조률은 다음표와 같다.

1965년도 주요지점의 평균기온(°C)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신의주	−7.7	−5.3	0.8	7.5	15 4	20.8	23.9	22.8	18.7	12.8	3.4	−6.5	8.9
평양	−8.3	−4.5	1.1	8.2	16.3	21.2	23.5	22.5	19.2	12.9	4.9	−4.8	9.4
사리원	−7.0	−3.5	1.3	8.5	16.8	21.5	23.9	22.8	19.4	13.4	5.6	−3.6	9.9
해주	−5.1	−2.5	1.9	8.8	15.4	21.2	23.1	22.8	19.8	14.2	6.3	−2.5	10.3
강계	−13.3	−11.0	−2.3	6.0	14.2	19.9	22.8	21.1	15.4	9.5	0.4	−10.1	6.0
혜산	−16.7	−13.3	−6.2	2.2	10.8	16.9	19.6	18.9	12.3	6.0	−4.0	−15.4	2.6
청진	−5.3	−5.1	−0.5	5.1	11.3	16.5	18.8	20.3	16.8	11.0	−2.9	−5.2	7.2
김책	−4.0	−3.8	−0.0	5.4	11.4	16.2	19.1	20.9	17.9	11.8	4.6	−3.6	8.0
함흥	−4.0	−2.6	−1.7	7.4	14.5	19.7	21.1	21.9	18.0	12.6	4.9	−3.3	9.3
원산	−3.4	−1.5	−2.9	8.2	15.7	20.3	21.3	22.2	19.4	13.5	7.3	−1.3	10.4

1966년도 주요지점의 평균기온(°C)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신의주	−9.5	−3.6	2.2	8.3	15.8	18.8	22.7	24.4	17.8	11.8	3.8	−7.1	8.8
평양	−8.0	−2.1	3.0	9.8	16.9	19.7	23.3	25.0	17.4	12.3	4.2	−7.1	9.5
사리원	−7.1	−1.8	3.3	10.2	17.1	19.9	23.5	25.4	17.6	12.7	4.7	−5.5	10.0
해주	−5.5	−1.2	3.9	10.0	17.0	19.1	22.3	25.4	19.0	13.6	5.8	−3.6	10.5
강계	−15.5	−7.5	0.4	7.9	15.2	18.8	21.7	23.3	14.9	8.7	0.5	−12.7	6.3
혜산	−18.4	−11.8	−3.3	5.1	12.3	16.0	19.0	20.8	11.6	6.3	−3.7	−16.6	3.1
김책	−5.0	−2.8	−1.7	5.7	12.3	14.5	19.4	21.5	15.7	12.4	−4.7	−4.0	8.0
함흥	−5.9	−1.6	2.7	8.3	16.1	17.0	21.6	23.0	16.3	12.1	4.7	−3.9	9.2
원산	−3.4	−0.1	3.2	9.1	16.5	17.5	22.1	23.1	16.5	13.0	6.6	−2.0	10.2

1965년도 주요지점의 강수량(mm)및 강수일수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강수일수
신의주	37.8	47.7	14.0	25.5	46.9	56.6	229.6	128.6	41.6	29.2	44.9	9.9	712.3	85
평양	21.4	13.8	15.0	24.7	61.2	34.5	354.4	381.0	6.4	29.1	74.4	14.4	1 033.3	92
사리원	23.5	2.2	10.5	14.1	49.4	51.4	437.6	593.5	44.2	19.5	61.3	3.5	1 301.7	81
해주	42.7	5.2	13.1	11.3	37.4	34.1	569.7	648.8	61.7	16.3	54.8	8.8	1 503.9	
강계	21.0	17.7	17.9	34.4	77.8	92.5	226.1	374.6	85.7	44.8	55.6	5.6	1 058.7	134
혜산	9.0	11.1	5.0	28.3	52.4	45.0	207.8	287.6	28.0	15.6	25.9	6.4	722.1	115
청진	9.1	6.7	35.8	13.2	20.1	19.6	181.5	280.1	63.7	15.5	12.6	16.5	674.4	105
김책	33.2	16.9	74.1	11.2	27.4	16.0	198.2	288.6	21.0	20.4	44.8	21.5	773.3	102
함흥	8.1	9.8	67.3	26.5	38.8	10.2	296.2	427.5	13.2	22.5	32.4	23.7	976.2	79
원산	5.0	15.1	71.5	32.3	38.0	12.4	469.9	556.4	37.1	17.7	116.8	17.3	1 389.5	92

1966년도 주요지점이 강수량(mm)및 강수일수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년강수일수
신의주	12.5	12.2	29.1	35.9	41.5	256.8	378.3	393.8	54.2	49.2	39.8	7.1	1310.4	114
평양	7.4	27.9	42.2	42.4	39.8	112.3	425.3	219.2	275.2	35.1	29.4	18.1	1274.3	140
사리원	5.5	23.0	31.2	25.3	27.2	170.3	375.9	294.1	244.5	92.5	23.2	11.8	1324.5	99
해주	5.4	30.2	34.6	35.0	24.0	289.4	867.8	311.2	187.5	37.2	39.4	15.1	1876.7	110
강계	17.2	22.9	34.6	52.3	83.7	91.1	503.6	210.5	109.8	81.7	32.1	14.7	1254.2	140
혜산	3.2	13.9	31.3	17.0	91.5	131.3	222.3	182.7	85.0	62.2	14.3	7.8	808.7	181
김책	1.2	12.5	27.4	22.4	10.3	135.4	125.3	139.4	124.9	107.8	17.9	46.8	771.3	112
함흥	4.2	10.4	37.5	39.7	54.7	143	330.3	340.8	330.8	208.9	14.5	10.4	1525.2	108
원산	8.6	32.8	99.2	49.1	48.9	249.5	307.4	630.2	390.2	171.1	29.9	14.9	2031.8	116

우리 나라(정부, 정부기관, 사회단체)가 가입한 국제기구 및 회의

국제민주단체기구

세계민주청년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WFDY
Federation Mondiale des jeunesses Democratiques—FMJD
창설 1945. 11.10, 가입 1946. 6. 24, 소재지 웽그리아 부다뻬슈뜨

국제민주녀성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Federation Democratique Internationale des Femmes—FDIF
창설 1945. 11. 19, 가입 1946. 10. 15, 소재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베를린

세계직업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
Federation Syndicale Mondiale—FSM
창설 1945. 10.3, 가입 1947.5.2,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세계평화리사회
World Council of Peace
Conseil Mondial de la Paix
창설1949. 4.25, 가입 1949. 4.25, 소재지 스웨리예 스똑홀름

국제금속및기계공업로동자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Met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Industries Metallurgiques et Mecaniques—UISMM
창설 1949. 6. 20, 가입 1949.6.21,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광산로동자직업련맹
Miners' Trade Unions International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Mineurs—UISM
창설 1949.7.15, 가입 1949. 7.15,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건축, 목재및건재공업로동자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Workers of the Building, Wood and Building Materiaist Industries—UIBWM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u Batiment, du Bois et des Materiaux de Construction—UITBB
창설 1949.7.16, 가입 1949.7.16, 소재지 핀란드 헬싱키

국제교육일군직업련맹
World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
Federation Internationale Syndicale de l' Enseignement—FISE
창설 1946, 가입 1949. 3. 12,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학생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IUS
Union Internationale des Etudiants—UIE
창설 1946.8.27, 가입 1949.9.15,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식료, 담배, 음료, 려관, 카페및식당일군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Workers of the Food Tobacco and Beverte Industries and Hotel, Cafe and Restaurant Workers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e l'Alimentation et du Tabac, de la Boisson, et des Travailleurs des Hotels, Cafes, et Restaurants
창설 1949.11.가입 1949. 11.3, 소재지 벌가리아 쏘피아

국제농업및림업로동자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ers—TUIAFW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Agricoles et Forestiers—UISTAF
창설 1949.11.17, 가입 1949.12.17,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화학및석유공업로동자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Chemical, Petroleum and Allied Workers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es Industries Chimiques
창설 1950.3.15, 가입 1950.3.15, 소재지 웽그리아 부다뻬슈뜨

국제기자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Journalistes—OIJ
창설 1946.6.3, 가입 1950.9.17,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아세아및태평양지역 평화옹호련락위원회
Peace Liaison Committee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s
창설 1952.10.2, 가입 1952.10.2, 소재지 중국 베이징

국제운수, 항만및어업로동자직업련맹
Transport, Port and Fishery Workers Trade Unions International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es Transports, des ports et de la peche
창설 1953.3.18, 가입 1955. 3. 18,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Juristes Democrates—AIJD
창설 1946.10, 가입 1955. 4.23, 소재지 벨지끄 브류쎌

국제공무원및종업원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Public and—Allied Employees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e la Fonction publique et Assimiles
창설 1949.10.29, 가입 1955.5.15, 소재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베를린

국제모성상설위원회
Perman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Mothers
창설 1955.7.10, 가입 1955.7.10, 소재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베를린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Organization for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창설 1958.1.1, 가입 1958.1.1, 소재지 아랍련합공화국 까히라

국제방직, 피복, 피혁및모피로동자직업련맹
Textile, Clothing, Leather and for Workers Trade Union International
Unions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 uTextile, de l'habillement et des Cuirs et Peaux
창설 1958.7.30, 가입 1958.7.30,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Workers in Commerce
Un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du Commerce—UISTC
창설 1959.6.4, 가입 1959.6.4,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
Afro-Asian Journalists Association
창설 1963.4.24, 가입 1963. 4.30, 소재지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전아세아및태평양지역부두련락위원회
All Asian And pacific Dockworker's Liaison Committee
창설 1959, 가입 1963.10.4, 소재지 일본 도꾜

아세아아프리카작가대회
Asian-Afro Writers Conference
창설 1958.10.7, 가입 1958.10.7, 소재지 쎄일론 콜롬보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창설과정)
Asian-Afro Jurists Association
Conference des Juristes Afro—Asiatiques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The Organization of Solidarity with the Peoples of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창설 1966. 1. 15, 가입 1966. 1. 15, 소재지 꾸바 아바나

국제경제, 과학기술

국제라지오텔레비죤방송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OIRT
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 Radiodiffusionet Television—OTRT
창설 1946.6.28, 가입 1954.11.29,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국제건축가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IUA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UIA
창설 1948. 6, 가입 1955. 7. 11, 소재지 프랑스 빠리

련합원자핵연구소
Union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Institut Unifie des Recherches Nucleaires
Объедин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창설 1956.3.26, 가입1956. 12. 3, 소재지 쏘련 두브나

사회주의국가규격기관대표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ций по Стандартиазц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по—Вопросам Унификации Стандартов и Обмена Опытом Работы
창설 1956.5.22, 가입 1956. 5.26, 소재지(순회)

식물보호및검역에 관한 국제회의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Карантину и Защите Растений
창설 1959.5, 가입 1956.8.1, 소재지(순회, 정부적기구)

사회주의국가농업및림업부문 과학사업조정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4.12, 가입 1956.10.5, 소재지 벌가리아 쏘피아

국제지구물리학년도 특설위원회
International Geophysical Committee
Comite International de Geophysique
Международный Геофиз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창설 1959. 7.1, 가입 1959. 7. 1, 소재지 프랑스 빠리

철도협조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창설 1957.9.1, 가입 1957.9.1, 소재지 뽈스까 와르샤와(정부적기구)

사회주의국가관광려행단체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ист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5, 가입 1957. 10.4, 소재지(순회)

사회주의국가체신협조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ической и Почтовой Связи
창설 1957. 12.16, 가입 1957. 12.16, 소재지(순회, 정부적기구)

사회주의국가검사기관대표자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аможенных Контрольных Органо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6.5, 가입 1959.5.26, 소재지(순회)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창설 1960. 5.3, 가입 1960. 5. 3, 소재지 아랍련합공화국 까히라

사회주의국가측지학자회의
Конференция Геодезических Служб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창설 1962.10.11, 가입 1962.10.11, 소재지(순회)

사회주의국가민용항공기관대표자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5, 가입 1961.2.11, 소재지(순회)

사회주의국가재정상회의
Совещание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9, 가입 1961.9.18, 소재지(순회)

사회주의국가보험기관대표자회의
Совещание Страх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9, 가입 1962.6.15, 소재지(순회)

아세아경제뷰로
Asian Economic Bureau
창설 1962.11.1, 가입 1962.11.1, 소재지 쎄일론 콜롬보

국제자연및자연부원보호동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et de ses Ressources
창설 1948.10.5, 가입 1963.5.17, 소재지 벨지끄 브류쎌

국제규격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창설 1946. 10.14, 가입 1963. 6.21,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공학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Commission Elecrtrotechnique Internationa-le—CEI
창설 1906.6, 가입 1963. 10.25,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토양학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il Science-IASS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la Science du Sol—AISS
창설 1962. 5. 19, 가입 1964. 8.31, 소재지 화란 암스테르담

아세아아프리카보험및재보험련맹
Federation of Afro-Asian Insurance and Reinsurance—FAIR
창설 1964.9.5, 가입 1964. 9.5, 소재지 아랍련합공화국 까히라

국제수학자동맹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IMU
Union Mathematique Internationale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оюз Математиков
창설 1951.9, 가입 1964, 소재지 벨지끄 브류쎌

세계과학자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WFSW
Federation Mondiale des Travailleurs Scientifiques—FWTS
창설 1949.7, 가입 1957,9,2, 소재지 영국 런던

국제천문학동맹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IAU
Union Astronomique Internationale—UAI
창설 1919, 가입 1961. 8. 24, 소재지 영국 그리니치천문대

국제과학동맹리사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ICSU
Conseil International des Unions Scientifiques—CIUS
창설 1919.10.3, 가입 1959.4.28, 소재지 영국 런던

사회주의국가과학원장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зидентов Академи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62.3.14, 가입 1962.3.14, 소재지(순회)

국제자동화련맹
가입 1965.7,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양봉가협회
가입 1965. 8, 소재지 이딸리아 로마

국제우표수집가련맹
International Union of Philatelist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Philatelie

창설 1962, 가입 1965.6.15, 소재지 프랑스 빠리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The Afro—Asian Housing Organization —AAHO
창설 1965. 12. 15, 가입 1965. 12. 15, 소재지 아랍 까히라

국제지질학동맹
International Geological science
창설 1961. 5. 9 가입 1966. 7. 11. 소재지 스위스 쮸리히

세계가금과학협회
Worlds Poultry scieuce Associciation
창설 1963. 7. 18, 가입 1966. 8, 소재지 영국 런던

국제사회보건문화예술기구

사회주의국가보건상회의
Совещание Министр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6.4.9, 가입 1956.4.9, 소재지(순회,정부적기구)

적십자사련맹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Ligue des Societes de la Croix-Rouge
창설 1919.5.5, 가입 1956.5.26,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적십자
The Red Cross
Croix-Rouge Internationale
창설 1919.5.5, 가입 1957.10.26,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인형극련맹
International Marionetee union
가입 1957.12.14, 소재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세계평화운동에스페란토협회
Mondpaca Esperantista Movado
창설 1953.9.6, 가입 1959.5, 소재지 오지리 플렌

국제항결핵동맹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IUAT
Union Internationale Contre la Tuberculose—UICT
창설 1920.10.7, 가입 1960. 9. 8,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영화필림보존동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rchives du Film
창설 1938. 7, 가입 1960. 10. 11,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과학영화협회
International Scientific Fim Association-ISFA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Cinema Scientifique—AICS
가입 1961.9.16,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화기영술협회동맹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Techniques Cinematographiques
창설 1957, 가입 1961.9.29, 소재지 프랑스 빠리

아세아산업보건대회
Asi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창설 1964.5.21, 가입 1964.5.21, 소재지(순회)

아세아아프리카의학자대회
Afro-Asian Medical Congress
창설 1964.10.30, 가입 1964.10.30, 소재지 아랍 까히라

아세아아프리카소아과대회
Afro-Asian Congress of pediatrics
창설 1961.1.16, 가입 1964.8.25, 소재지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국제체육기구

국제배구련맹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IVB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FIVB
창설 1947.4.20, 가입 1956.12.11,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사격련맹
International Shooting Union
Union Internationale de Tir
창설 1956. 10.24, 가입 1956. 10.24, 소재지 서부독일 와이스바덴

국제롱구애호가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asketball Feder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Basketball Amateur—FIBA
창설 1956.12.3, 가입 1956.12.3, 소재지 서부독일 뮨헨

국제탁구련맹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ITT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Tennis de Table—FITT
창설 1926.10, 가입 1957.3.7, 소재지 영국 웰즈

국제권투애호가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oxing Association—AIBA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Boxe Amateur—AIBA
창설 1946.11.28, 가입 1957.4.7, 소재지 영국 런던

국제빙상련맹
International Skating Union—ISU.
Union Internationale de Patinage—UTP
창설 1892.7.23, 가입 1957.6.8, 소재지 스위스 다보스

국제항공련맹
International Aeronautical Feder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Aeronautique
창설 1905.10.14, 가입 1957.9.28, 소재지 프랑스 빠리

친선군대체육위원회
Спортивный Комитет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рмии
창설 1958.3, 가입 1958.3, 소재지 쏘련 모스크바

국제축구련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s—FIFA
창설 1904.5.21, 가입 1957.6.5, 소재지 스위스 쮸리히

국제체조련맹
International Gymnastic Federation—IG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Gymnastique-FIG
창설 1881, 가입 1958. 7. 5, 소재지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국제레스링애호가련맹
International Amateur Wrestling Feder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utte Amateur—FILA
창설— 가입 1959.5.28, 소재지 프랑스 빠리

사회주의국가체육기관대표자회의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58.9, 가입 1959.9.24, 소재지(순회)

국제력기련맹
International Federation Weightlift
창설 1920, 가입 1959.9.28,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자전거동맹
International Cyclists Union
Union Cycliste Internationale—UCI
창설 1900.4.14, 가입 1959.3.5, 소재지 프랑스 빠리

국제궁술련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rchery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Tirae'Arc-FITA
창설 1931, 가입 1961.8.14, 소재지 영국 런던

사회주의국가안전일군체육대표자회의
Каренда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гa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창설 1962.5, 가입 1962.5, 소재지(순회)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Comite International Olympique—CIO
창설 1894.6.23, 가입 1962.6.5, 소재지 스위스 로잔느

국제륙상경기애호가련맹
Inte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FIAA
Federation Internationald' Athletisme Amateur—FIAA
창설 1912, 가입 1962.9.17, 소재지 영국 런던

국제빙상호케이련맹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Ligue Internationale de Hockey sur Glace—LIHG
창설 1908, 가입 1963.8.14, 소재지 영국 런던

가네포(신흥세력경기)련맹
Ganefo Federation
창설 1963. 11. 25, 가입 1964. 7.1, 소재지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국제요트련맹
International Yacht Racing Union—IYRU
Union Internationale de Courses de Yacht
창설 1907, 가입 1963.12.12, 소재지 영국 런던

국제수영애호가련맹
International Amateur Swimming Feder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FINA
창설 1908, 가입 1963.12, 소재지 일본 도꾜

국제스키협회
International Ski Associ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FIS
창설 1924, 가입 1964.1, 소재지 스위스 베른

국제조정련맹
International Rowing Federation—IR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etes d, Aviron—FISA
창설 1892, 가입 1964.4.25, 소재지 스위스 몬뜨르

국제까노예련맹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IC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Canoe
창설 1924, 가입 1964.4.26, 소재지 스웨리예 스톡홀름

국제유술련맹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Judo—FIJ
창설 1951, 가입 1964.7.1, 소재지 일본 도꾜

국제대학생체육련맹
가입 1965.8, 소재지 벨지끄 브류셀

가네포아세아대륙위원회
가입 1965, 8. 소재지 중국 베이징

국제베이징탁구초청경기련락위원회
창설 1964.10, 가입 1964.10, 소재지 중국 베이징

신흥세력력기련락위원회
Riason Committee Weight lifting Tournament of the new Emergiug Forces
창설 1966. 5. 25. 가입 1966. 5. 25 소재지 중국 베이징

국내 주요일지

(1965—1966)

1965년

1월.

1일. 김일성수상께서 신년사

김일성수상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신년축전.

3일. 김일성수상께서 버마독립 17주년에 즈음하여 네윈수상에게 축전.

4일. 김일성동지의 참가하에 조선인민군 각급군사학교교원대회 6일까지 진행.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꽁고(브)공화국 정부대표단간의 회담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께 평양에서 조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애국전선당창건 9주년에 즈음하여 동당중앙위원회에 축전.

7일. 김일성수상께서 모함메드 아유브 한이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데 대하여 축전.

8일. 김일성수상께서 조선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의 1964년 11월 22일부 서한에 회답 ▲국가학위학직및인민상수여위원회에서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 한덕수학장을 비롯한 대학 및 간부양성기관 교육일군들에게 교수 및 부교수 학직을 수여하기로 결정.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남조선괴뢰군 2천여명을 남부웰남에 끌어가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11일.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침략전쟁에 내몰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각지에서도 계속 진행.

15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탄자니아 쥴리어스 캄바라데 니에레레대통령에게 축전 ▲최용건동지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내각및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련석회의에서 아프리카, 아세아 제국가 친선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 ▲1964년 인민경제발전계획실행총화에 관한 중앙통계국의 보도발표.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남부웰남파병음모를 분쇄할것을 남조선애국적인민들에게 호소하여 호소문 발표.

18일.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웰남민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레 뎃훙을 만나시였다. ▲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여 남조선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9일. 사로청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파병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전세계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1일. 꾸바해방 6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조선로동당대표단 귀국.

22일. 공화국정부에서 남조선괴뢰정권이 남부웰남에 괴뢰군대를 파견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비망록을 발표.

27일. 알제리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알제리의 지진피해자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보내는 원호금을 전달.

28일. 김일성수상께서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를 접견.

31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인도지나지역에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 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웰남로동당창건 35주년에 즈음하여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축전.

3일. 김일성수상께서 쎄일론독립 17주년에 즈음하여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수상에게 축전 ▲해주시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열성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농촌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전국에 호소.

5일.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블라지슬라브 고물까동지의 탄생 60주년에 즈음하여 축전.

6일. 집단체조 《천리마조선》창조성원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선물전달식과 인민상수여식 진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이 일본국제법률가 련락협회 회장을 접견 ▲조선민주법률가 협회에서 서독군국주의자들이 나치스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한것을 반대배격하여 성명 발표.

8일. 조선인민군창건 17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시경축대회 진행.

9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공중비적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폭격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전쟁도발행위를 항의규탄하는 군중대회들이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광범히 진행.

11일. 조쏘량국 대표단간의 공동성명 평양에서 조인.

15일. 공화국내각에서 체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결정 채택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련석회의 진행, 회의에서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것을 호소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16일. 김일성수상께서 네팔국경절에 즈음하여 네팔수상 수리아 바하두르 타파에게 축전, 최용건위원장이 네팔왕국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에게 축전.

17일. 알제에서 열리는 아세아아프리카경제토론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출발 (3월 9일 귀국).

18일. 김일성수상께서 감비아독립선포에 즈음하여 수상 다비드크웨씨쟈와라에게 축전.

20일. 《한일회담》을 반대배격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각지에서도 계속 진행.

24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지나인민회의를 축하하여 전문 (2월 27일 답전) ▲라이프찌히춘기국제시장에 참가할 정부대표단 출발 (3월 23일 귀국)

25일. 공화국외무성에서 《한일회담》의 최종결속을 서두르고있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일본로동계급의 춘기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일본로동조합 총평의회에 전문.

26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유엔총회 제19차회의가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못하고 장기휴회에 들어가게 되

자 이제는 종전의 유엔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고까지 최후발악하는 미제를 폭로 규탄하여 성명 발표.

28일. 3.1운동 46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3 월.

1일. 최용건동지 마로끄독립 9주년에 즈음하여 국왕 라이 하싼 2세에게 축전.

2일. 직총 중앙위원회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이 《한일기본관계조약》에 가조인한것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4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일제와 박정희도당이 《한일기본관계조약》에 가조인한것을 반대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호소문 발표.

5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비행기들이 또다시 웰남민주공화국을 폭격한것을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이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박성철외무상이 미제의 사촉하에 쏨베도당이 콩고(브)에 대한 도발행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며 콩고(브)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여 콩고(브)공화국 외무상에게 서한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서 미제의 사촉하에 쏨베도당이 우간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8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일제와 박정희도당의 《한일회담》조속타결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농민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호소문 발표.

9일. 불굴의 공산주의자들인 권영벽, 리제순, 리동걸, 지태환동지들의 서거 20주년추모회를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진행.

10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일제와 박정희도당의 《한일회담》을 분쇄하며 일제의 재침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한 구국투쟁에 떨쳐나서라고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2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수여식 진행.

13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한일회담》결속하려는 일제와 박정희도당의 발악적책동을 폭로분쇄할것을 호소하여 남조선 기자,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7일. 조선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8일. 김일성수상께서 가말 아브델 나쎄르가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것과 관련하여 축전 (4월 1일 답전).

19일. 김일성수상께서 뜌니지공화국독립 9주년에 즈음하여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에게 축전 (3월 30일 답전) ▲15만여명의 근로자들의 참가하에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각지에서도 광범히 진행.

20일.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로므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동지의 서거에 제하여 로므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로므니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및 내각에 조전, 공화국내각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동지의 장례일인 3월 24일을 전국애도일로 결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산부문로동자 11명에게 공훈어부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에서 웰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21일. 당과 정부지도간부들이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동지의 서거에 제하여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대사관을 방문하고 조의 표시, 우리 나라 당 및정부대표단이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동지의 장의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3월 28일 귀국).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주비행선 (워쓰호드—2호)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수상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씨긴에게 축전 (4월 7일 답전). ▲ 김일성수상께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함메드 아유브 한대통령에게 축전.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노르웨이공산당 제11차대회에 축전.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로므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국가쏘베트위원장으로 끼부 쓰또이까, 내각수상으로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선거 및 재임된데 대하여 축전 (4월 21일 답전)▲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대회 27일까지 진행.

26일. 공화국정부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3월 2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7일. 15만여명의 참가하에 평양시에서 《한일회담》을 반대배격하는 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각지에서 계속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신문 《농업근로자》 첫호 발간.

26일.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 노사까 산조 탄생 73주년에 즈음하여 축전. (4월 17일 답전)

30일. 평양시에서 조쏘량국간의 1955년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31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영국 화폐로 30만파운드)을 보냄.

4 월.

2일. 김일성수상께서 세네갈공화국독립 5주년에 즈음하여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에게 축전 (4월 7일 답전) ▲웽그리아해방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웽그리아해방 20주년에 즈음하여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내각수상인 까다르 야노쉬, 상임위원회 위원장 도비 이슈트반에게 축전 (4월 21일 답전) ▲10여만 군중의 참가하에 수도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평양시궐기대회 진행.

4일. 김일성수상과 당과 정부지도간부들이 릉라도에서 식수.

5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박정희도당과 일본정부가 범죄적《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속하는 길에 들어서

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폭로규탄하는 성명 발표.

6일. 조선남부월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더욱 적극 지지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7일. 공화국외무성은 일본반동정부가 범죄적인 《한일회담》의 결속을 서두르면서 재일조선공민들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음흉한 탄압과 모략적파괴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의 즉시중지를 강경히 요구하여 성명 발표.

9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국가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부총리인 가경시동지의 서거에 제하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 조전 (4월 22일 답전).

11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일본반동정부의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탄압과파괴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4일.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강의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청년학생군중대회 진행,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15일. 쟈까르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공동성명 조인 ▲평양시내 소년단원들이 만경대에서 련합단체대회 진행.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독립절에 즈음하여 아민 엘하페즈 수상에게 축전(4월 22일 답전) ▲15만여명 근로자들의 참가하에《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군중대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17일. 김일성수상께서 플라야 히론전투승리 4주년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피델 까스뜨로 루쓰수상에게 축전 ▲제1차 아세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1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18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5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19일. 김일성수상께서 일본교도통신사 전무리사 이와모도 기요시와 《니홍케이자이신붕》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

21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방문을 끝마치시고 귀국 ▲웨. 이 레닌탄생 95주년 평양시 기념대회 진행.

23일. 김일성수상께서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창립 2주년에 즈음하여 동 협회 서기국에 축전.

24일. 김일성수상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1주년에 즈음하여 쥴리어스 캄바라게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축전.

25일. 김일성수상께서 시에라레온독립 4주년에 즈음하여 알버트 마르가이수상에게 축전.

28일. 조선인민군항공대가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미침략군의 《아르 비 47》형 정찰기 1대를 격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5 월.

2일. 기네공화국 대통령부인 앙드레 투레녀사를 환영하는 평양시녀성군중대회 진행.

3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쏘련특명전권대사와 말리공화국특명전권대사를 접견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 박중국소장이 남조선에서 발광적으로 무력을 증강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4일. 김일성동지께서 뉴질랜드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메르빈 하레이윌리암스부부를 접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로청중앙학교창립 15주년에 즈음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침략행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5일. 독일해방 20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출발 (5월 18일 귀국)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무장간섭을 반대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아랍련합공화국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출발 (7월 20일 귀국).

6일. 김일성수상께서 미제의 새로운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캄보쟈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여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전문. ▲영어신문 《평양타임스》첫호를 발간.

7일.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독일인민의 해방 20주년에 즈음하여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5월 21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제4차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대회에 축전.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20주년에 즈음하여 평양시기념회 진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부월남에 끌려간 남조선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대독전승 20주년에 즈음하여 쏘련 당과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5월 21일 답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20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5월 18일 답전) ▲쏘련의 대독전승 20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11일. 국가학위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에서 6명의 과학자, 교육일군들에게 박사, 교수 학위학직을 수여하기로 결정.

14일. 평양에서 전국체육일군회의 진행.

15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17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중국에서 두번째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과 관련하여 중국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석이며 월남민주공화국 주석인 호지명동지탄생 75주년에 즈음하여 축전(5월 29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동부파키스탄의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 모함메드 아유브 한 대통령에게 전문 ▲조선인민군고사포부대가 우리측 령공에 불법침입한 미제침략군 《엘—19》형 정찰기 1대를 격추.

19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인도네시아공산당창건 45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6월 8일 귀국).

20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 개막.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공산당창건 45주년에 즈음하여 축전.

24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에 즈음하여 한덕수의장에게 축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각지에서도 광범히 진행 ▲최용건위원장이 요르단왕국독립절에 즈음하여 국왕 후쎄인1세에게 축전 (6월 1일 답전).

25일. 15만여군중의 참가하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6일. 최용건위원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이 아프카니스탄독립절에 즈음하여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에게 축전 ▲조선과 웽그리아간의 1965—1966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 ▲도미니카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8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업및소년운동지도일군대표단과 일본상품전시회 회장 및 그 일행을 각각 접견.

29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간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조인.

6 월.

1일. 김일성수상께서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로동자 및 인민과 련대성을 위한 국제직맹위원회 제2차회의에 축전.

2일. 김일성수상께서 말리공화국 모디보 케이타대통령탄생 50주년에 즈음하여 축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항쟁 1주년기념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4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대통령문화사절단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에게 조선주재 쏘련신임 특명전권대사 아. 이. 고르챠꼬브가 신임장을 봉정.

6일.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수여하며 조선소년단창립 19주년을 기념하는 평양시소년단원들의 련합단체대회 진행.

7일. 김일성수상께서 알제리대통령 특사를 접견.

9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범죄적 테로행위의 즉시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성명 발표 ▲제34차 뽀즈난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

10일. 청진—라진간 철도개통.

12일. 김일성수상께서 알제리군사대표단을 접견.

1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10주년에 즈음하여 김일성수상께 재일동포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와 선물들을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수단공화국 수상으로 취임한 모함메드 아흐메드 마흐주브에게 축전(9월 20일 답전).

17일. 박성철외무상이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 외상회의 (알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7월 1일 귀국).

18일. 공화국정부에서 《한일회담》의 범죄적내막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발표.

▲ 김일동지가 일본반동참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까하다》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집회 진행, 각 대학에서도 계속 진행.

19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간에 세관협정 체결.

22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 15주년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즉시 철거를 강경히 요구하여 공동성명 발표.

23일. 공화국정부에서 일본반동정부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 《한일회담》을 결속하고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에 정식 조인한것과 관련하여 《조약》과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에 의한 조선침략전쟁도발 15주년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즉시 철거를 다시 한번 강경히 요구하는 비망록 발표.

24일. 6.25 15주년에 즈음하여 30만군중의 참가하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며 매국적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26일. 최용건위원장이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즈. 삼부위원장의 탄생 70주년에 즈음하여 축전. (7월 10일 답전)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구원한 남조선어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발표.

27일. 김일성수상께서 뿔스까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유제프 찌란께비치가 재선된데 대하여 축전. ▲최용건위원장이 뿔스까국가쏘베트 위원장으로 에드와르드 오하브가 재선된데 대하여 축전.

28일. 김일성수상께서 꾸바기자대표단을 접견.

29일.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열 및 전력관리사업과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 채택.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였다.

30일. 김일성수상께서 소말리아독립 5주년에 즈음하여 아덴 아브둘라흐 오스만대통령에게 축전. (7월 10일답전) ▲최용건위원장이 부룬디독립 3주년에 즈음하여 국왕 므와미 므왐부짜 4세에게 축전 (7월 5일 답전).

7 월.

4일. 김일성수상께서 깔라이 지울라가 웽그리아로농혁명정부수상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축전. (7월 9일 답전).

6일. 김일성수상께서 꾸바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에서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의 언론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8일. 공화국정부에서 남조선 박정희도당이 또다시 괴뢰군 1개사단을 남부웰남에 파견하기로 한 매국적결정을 규탄하고 증파하는 괴뢰병력수에 해당하게 무기와 장비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제공할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10일. 김일성수상께서와 최용건위원장이 몽골인민혁명 44주년에 즈음하여 몽골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유. 쩨덴발,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즈. 삼부에게 축전(7월 20일 답전).

13일. 김일성수상께서 이라크공화국혁명 7주년에 즈음하여 아브델 살람 모하메드 아레프대통령에게 축전 (7월 19일 답전).

14일. 김일성수상께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을 접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남부웰남파병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5일. 김일성수상께 남부웰남인민에게 지지를 계속 주고있는데 대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원우수위원장으로부터 감사전문 ▲1965년 상반년인민경제발전계획실행총화에 관한 중앙통계국의 보도 발표. ▲사회단체들에서 남조선에 핵잠수함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제의 새로운 음모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 발표.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후아리 부메디엔이 임명된데 대하여 축전(7월 19일 답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웰남민주공화국에 경제적및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간에 협정을 평양에서 맺음. ▲로므니아 로동당 제4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7월 28일 귀국).

17일.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경축 전국예술축전 개막 ▲민족보위성산하 체육일군들에 대한 내각수상표창장 및 선물전달식과 공화국훈장 및 메달수여식 진행.

20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진행.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최용건위원장이 뽈스까재생 21주년에 즈음하여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블라지슬라브 고물까,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드와르드 오하브,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에게 축전 (8월 3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아랍련합공화국 국경절 13주년에 즈음하여 가말 아브뎰나쎄르대통령에게 축전 (8월 7일 답전)▲ 꽁고(브) 방문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8월 10일 귀국).

22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꾸바인민의 《7.26》무장봉기 12주년에 즈음하여 피델 까스뜨로 루쓰수상과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대통령에게 축전(8월 26일 답전).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시공로자들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2주년 평양시 기념회 진행.

27일. 김일성수상께서 제11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축전 (8월 17일 답전)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정부간의 1965—1966년도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29일. 김일성동지께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을 접견.

30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협정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1년간 연장할데 대하여 일본적십자사에 전문, 이에 동의하여 7월 31일 일본적십자사에서 회전 ▲평양에서 조선과 중국 과학원간의 1965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31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10주년 평양시청년학생기념대회 진행.

8 월.

1일. 아세아축구가네포 (조선, 중국, 웰남, 캄보쟈, 기네,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참가)평양에서 개막, (8월 11일 폐막)우리 나라가 제1위를 쟁취

2일. 국가학위학직및 인민상수여위원회에서 과학자, 교육일군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7일. 공화국정부에서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침략자의 두목 죤슨의 결정을 규탄하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8월 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기념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경연 9일까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9일.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군사대표단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에게 조선주재 캄보쟈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 트루옹 캉이 신임장을 드림.

10일. 김일성수상께서 예멘아랍공화국 수상으로 하싼 알 암리가 취임한데 대하여 축전 (8월 18일 답전) ▲최용건위원장에게 조선주재 가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죠피오 니인 메이어가 신임장을 드림.

11일. 김일성수상께서 캄보쟈왕국대표단을 접견 ▲ 최용건위원장이 아세아축구가네포에 참가한 가네포련맹 및 각국 대표들을 접견.

12일. 공화국북반부 어로공들이 구원한 남조선 어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발표.

13일. 김일성수상께서 쏘련친선대표단과 기네교육대표단을 각각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꽁고(브)혁명 2주년에 즈음하여 알퐁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에게 축전. ▲도시건설사업에서 위훈을 세운 일군들에 대한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선물전달식, 공화국훈장및메달수여식 진행. ▲제련 및 세멘트공업부문공장 개건확장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일군들에 대한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선물전달식을 현지에서 각각 진행. ▲아세아축구가네포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의 협의회 진행, 공동콤뮤니께 발표.

15일. 김일성동지와 당과 정부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8.15해방 20주년경축 원산시군중대회 진행 ▲공화국내각이 원산시에서 경축연을 차림, 연회에서 김일성수상께서 연설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에게 8.15해방 20주년에 즈음하여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축전.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아세아축구가네포에 참가하였던 가네포련맹 및 각국 대표들을 접견.

18일. 김일성수상께서 쏘련친선대표단 단장 아. 엔. 쉘레삔동지를 접견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포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20일. 김일성수상께서 중국친선대표단, 웰남친선대표단, 몽골친선대표단, 가나친선대표단을 접견.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이 쎄일론—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접견.

22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로므니아해방 21주년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국가쏘베트위원장 끼부 쓰또이까,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에게 축전 (9월 8일 답전).

23일.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위원 하까마다 사또미를 접견.

24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 채택된것과 국가쏘베트위원장으로 끼부 쓰또이까, 내각수상으로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선거 및 임명된것과 관련하여 로므니아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김일성동지께서 독일기술자친선대표단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이 네팔친선대표단을 접견. ▲매국적《한일협정》을 분쇄하기위한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평양시내 2만명학생들의 참가하에 군중대회 진행, 각지에서도 계속 진행.

26일. 꽁고(브)공화국 대통령이며 꽁고(브) 민족혁명운동당 총비서인 알퐁스 마쌈바 데바와 그의 부인이 평양에 도착 (8월 29일 귀국). ▲김일성수상과 부인이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

의 부인을 위하여 연회를 차림.

27일. 김일성수상과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간에 회담 진행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조선—월남친선주간 시작 ▲조선—월남친선협회 창립대회 진행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남조선애국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8일. 김일성수상과 부인이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위하여 환송연을 베품 ▲김일성동지께서 아련기자대표단을 접견.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콩고(브)공화국 정부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남조선애국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학생군중성토대회 진행.

31일. 꾸바친선대표단 도착 (9월 23일 귀국)▲우리 나라 정부와 버마련방 혁명정부간에 전신업무협정과 소포우편업무협정을 랑군에서 조인.

9 월.

1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월남민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지명주석, 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쟝정위원장, 범문동수상에게 전문 (9월 17일 답전) ▲월남민주공화국창건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개막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대회에 축하문을 보냄, 대회는 9월 4일까지 동맹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 규약개정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지도기관을 선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강계농업대학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알제리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출발(10월 29일 귀국).

5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서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후 감행하여 온 군사적침략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단죄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7일. 김일성수상께서 모하메드 아민 엘 하패즈수상이 수리아아랍공화국대통령리사회 위원장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축전을 보냄 (9월 9일 답전).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7주년 평양시경축대회 진행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벌가리아해방 21주년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내각수상인 또도르 쥡꼬브,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에게 축전 ▲체스꼬슬로벤스꼬 브르노국제시장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9월 28일 귀국) ▲《로동신문》이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20년간의 죄행에 대하여》를 발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7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내각에서 경축연을 베품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에게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축전.

12일. 최용건위원장에게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아헴 에르닝 뻬라쟈가 신임장을 드림.

13일. 김일성수상께서 아련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 ▲김일성수상께서 제3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에 축전(9월 16일 동 회의 의장인 가말 아브델 나쎄르로부터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아레프 아브델 라자크가 이라크공화국수상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축전.

14일. 최용건위원장이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을 접견 ▲조선기자동맹과 우루과이기자협회간에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15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미제가 월남침략전쟁에서 또다시 독가스를 사용하는 야수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우리 나라와 캄보쟈간의 196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프놈뻰에서 조인.

18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특명전권대사를 접견.

20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월남《인민》지 대표단과 월남방송대표단을 접견.

21일. 김일성수상께서 말리공화국선포 5주년에 즈음하여 모디보 케이타대통령에게 축전 (10월 14일 답전).

22일. 최용건위원장이 꾸바친선대표단을 접견.

24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인민협상회의대표단을 접견 ▲공화국외무성이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유엔의 그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인민협상회의대표단간의 공동성명을 평양에서 조인.

27일. 김일성수상께서 기네공화국 독립 7주년에 즈음하여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에게 축전 ▲최용건위원장이 월남국가과학위원회대표단을 접견.

28일. 김일성수상께서 모리따니친선문화대표단을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유제프 자인의 수리아아랍공화국 수상취임을 축하하여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정부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우리 나라 과학원과 월남민주공화국 국가과학위원회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1965—1966년도 사업계획서와 조선월남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회의의정서를 조인 ▲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남조선애국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30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접견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16주년에 즈음하여 중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 (10월 18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끼쁘로스독립절에 즈음하여 마카리오스대통령에게 축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6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10 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탁아소, 육아원 일군들에게 공훈보육원칭호를, 림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운재공, 공훈류벌공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각각 채택.

2일. 김일성수상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쥴리어스 캄바라데 니에레레에게 축전.

3일. 모란봉경기장에서 모범학생들에 대한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 및 선물수여식과 학생절기념 평양시 학생군중대회 진행 ▲국가학위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에서 과학자, 대학교원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4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의 초청으로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평양에 도착(10월 10일 귀국) ▲김일성수상과 부인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을 위하여

연회를 베품.

5일.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간에 회담 진행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문학박사 수여식 진행.

6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명예시민칭호를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16주년에 즈음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수상 윌리 슈토프에게 축전.(10월 19일 답전) ▲김일성동지께서 꾸바사회주의혁명통일당을 꾸바공산당으로 개칭하고 제1비서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추대된것과 관련하여 축전 (10월 12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아랍련합공화국 수상취임을 축하하여 자카리아 모히에딘에게 전문 (10월 14일 답전)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남부윁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더 야수적방법으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 사회정치활동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김일성수상과 우리 나라 지도간부들에게 캄보쟈왕국훈장을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간의 공동성명 조인,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이 연회를 차림. ▲조선경비대 박인빈소속구분대 군인들에 대한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선물전달식, 로력영웅칭호와 공화국훈장및메달수여식 진행. ▲《갱생 64호》승용차를 생산한 사회안전성산하 변태준동무가 일하는 단위의 전체 사회안전원과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전달식, 로력영웅칭호와 공화국훈장및메달수여식 진행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 ▲우리 나라 전기공학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국제전기공학위원회 제30차총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 발표.

10일.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 진행, 경축대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를 보고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축하하여 집단체조 《혁명의 시대》,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축하하여 형제당들로부터 축전.

11일. 김일성동지와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참가하에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을 기념하는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경축행사 진행.

13일. 김일성수상께서 콩고(브)전국혁명운동청년동맹대표단을 접견▲칠레공화국국회대표단이 평양에 도착(10월 21일 귀국).

15일. 김일성수상께서 외국군사기지철폐국제회의에 축전.

16일. 조선과 알바니아간의 1965—1966년도 과학기술협조사업을 위한 의정서 조인.

18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일본반동정부가 《한일조약》을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9일. 최용건위원장이 칠레국회대표단을 접견.

20일. 김일성수상께서 칠레국회대표단을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제3차아프리카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

21일. 최용건위원장이 중국인민대표단을 접견 ▲우리 나라와 말리간에 체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바마코에서 체결.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산하 예술부문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 및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 채택.

23일.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사회로동당대표단을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잠비아공화국독립 1주년에 즈음하여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에게 축전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과학원간의 1965—1966년도 과학협조계획서를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25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일본정부가 《한일조약》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파괴책동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살상, 폭행을 일층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15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중국인민대표단성원들에게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

27일. 김일성수상께서 제2차아프리카 아세아회의 연기문제와 관련하여 보내온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주은래의 10월 22일부 서한에 회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 제2차아프리카아세아회의와 관련하여 성명발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제1부수상이 평양에 도착 (11월 5일 귀국).

28일. 김일성수상께서 중국인민대표단을 접견.

31일. 김일성수상께서 알제리혁명개시 11주년에 즈음하여 후아리 부메디엔수상에게 축전 (11월 5일 답전).

11 월.

1일. 《로동신문》창간 20주년기념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기자, 편집원들에게 축하문 ▲평양에서 조선과 중국간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채택.

2일.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제1부수상 게오르게 아뽀쓰똘을 접견 ▲광주학생운동 36주년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 진행.

5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려는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8주년에 즈음하여 쏘련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 (11월 30일 답전) ▲김일성수상께서 아프가니스탄왕국수상으로 모함메드 하쉼 마이왇드왈이 취임한데 대하여 축전.

7일. 김일성수상께서 캄보쟈왕국독립 12주년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축전 (11월 13일 답전).

8일. 조선중앙통신사와 아련 메통신사간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까히라에서 조인.

9일. 최용건위원장이 중국정부위생대표단과 중국문화대표단을 접견 ▲우리 나라 정부와 중국정부간의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체결.

10일. 몽골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출발, 11월 18일에 1966년도 상품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

11일. 최용건위원장이 윁남 남녀배구선수단을 접견.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에게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국적선택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성명 발표.

13일. 김일성수상께서 알바니아인민군협주단을 접견.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17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군당위원회사업과 인민경제 각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 ▲아랍련합공화국정부통상대표단 도착, 23일에 량국간의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조인(11월 25일 귀국).

16일. 공화국정부에서 침략적 《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파쑈적으로 날조한 일본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 우리 나라에 도착, 12월 2일 량국간의 1966년도상품 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12월 8일 귀국).

17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 도착(단장 제2부대통령이며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련맹 부위원장 아르. 엠. 카와와), 김일성수상께서 동 대표단을 접견 ▲강건종합군관학교 창립 20주년기념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에서 강건종합군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하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강건종합군관학교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채택 ▲공화국정부에서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이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18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조중국경철도공동위원회의정서 신의주에서 조인.

19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일본반동정부가 《한일조약》의 국회통과를 날조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0일. 김일성수상께서 레바논독립절에 즈음하여 촬스헬로우대통령에게 축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남반부어민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발표 ▲남조선어민들 판문점을 통하여 자기 고향으로 떠남.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의 공동콤뮤니케와 량국간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3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년례보고》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의 허위성을 폭로규탄하는 성명 발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일화 3억 245만원을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에 보냄.

24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가 웰남 침략전쟁확대에 광분하고있는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웰남인민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5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간의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부다페슈뜨에서 조인.

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 우리 나라에 도착, 30일 량국간의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조인 (12월 1일 귀국).

27일. 김일성수상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독립 5주년에 즈음하여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에게 축전 (12월 9일 답전).

28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알바니아해방 21주년에 즈음하여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내각 수상 메흐메트 쉐후에게 축전 (12월 14일 답전).

30일. 조선직업총동맹창립 20주년 기념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로동계급과 직업총동맹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보냄.

12 월.

3일. 최용건위원장에게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드림.

6일. 최용건위원장이 쿠웨이트추장에 취임한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에게 축전.

10일. 중국정부통상대표단 도착, 14일 조중간의 1966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2월 18일 귀국).

11일. 김일성수상께서 케니아독립 및 공화국 선포일에 즈음하여 조모 케니아타대통령에게 축전.

12일. 최용건위원장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된 니꼴라이 윅또르비치 뽀드고르느이에게 축전.

16일. 평양에서 집단체조 《혁명의 시대》창조에서 모범을 보인 단체들에 대한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선물전달식, 공훈체육인칭호, 공화국훈장 및 메달수여식 진행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지지주간 22일까지 진행▲조선—라틴아메리카친선협회창립대회 진행.

1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일조약》의 《비준서》 《교환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한일조약》을 분쇄하고 박정희도당을 타도하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9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5주년에 즈음하여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외교관계설정 1주년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노로돔 깐똘수상에게 축전(12월 20일 답전) ▲매국적 《한일조약》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0일. 남부웰남 민족해방전선창건 5주년 평양시 기념회 진행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범죄적 《한일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한것을 규탄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녀성동맹 중앙위원회들에서도 남조선 로동자, 농민,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들을 발표.

21일. 공화국정부에서 일본사또반동정부와 박정희괴뢰도당간에 침략적 《한일조약비준서》를 교환하고 《한일국교정상화》의 개시를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한일조약》은 무효이라는 성명 발표 ▲조선-아프리카친선협회창립대회 진행.

22일. 김일성수상께서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를 수호한 아랍인민들의 《승리의날》9주년에 즈음하여 아랍련합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에게 축전(12월 26일 답전)▲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농업근로자동맹열성자회의에서 전국협동농장내 농업근로자동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알곡 정당 500키

로그람 증수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3일. 김일성수상께서 외교관계설정 1주년에 즈음하여 콩고(브)공화국 알폰스 마쌈바 데바대통령에게 축전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22—23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녀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24일까지 진행.

27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전세계인민들에게 고함—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대의 만행에 대하여》발표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진행(26—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28일. 국가학위학직및인민상수여위원회에서 수십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경축 전국예술축전 (연극부문)및 국가미술전람회 총화회의 진행.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인민공화국간의 령사협약 체결.

30일. 꾸바인민의 민족적명절인 혁명승리 7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31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1966년.

1 월.

2일. 김일성수상께서 버마독립 18주년에 제하여 축전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동포들인 리인수와 리광훈이 남포항에 도착 (2월 4일 일본으로 돌아감).

4일. 꾸바와 로므니아의 정부통상대표단이 각각 평양에 도착 (1월 8일과 12일에 각각 귀국).

5일.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애국전선당창건 10주년에 제하여 수파누봉에게 축전.

6일. 프놈뻰에서 우리 나라와 캄보쟈간에 체신협정 조인.

7일. 김일성수상께서 살라흐 에딘 바타르가 수리아수상으로 취임된것과 관련하여 축전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간의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서 평양에서 조인.

8일.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미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서 조인.

10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알바니아인민공화국선포 20주년에 제하여 축전. ▲로동신문이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라는 표제의 글을 발표.

11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미제가 웰남문제에서 벌려놓은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2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탄자니아간의 외교관계설정 1주년에 제하여 축전 ▲우리 나라와 꾸바간의 장기통상협정과 지불협정 및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5일. 김일성수상께서 웰남경제대표단을 접견 ▲우리 나라와 꾸바간에 상품호상납입일반조건에 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이 평양에 도착(1월 18일귀국), 김일성수상께서 동 대표단을 접견.

16일. 사로청창립 20주년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 개막 (23일 폐막).

17일. 우리 나라 정부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에 무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경제협정과 두 나라 정부간의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남부웰남에 끌려간 남조선괴뢰군이 미제침략군의 지휘하에 남부웰남의 마을을 습격하고 평화적주민을 학살한 만행을 항의규탄하여 성명 발표 ▲사로청창립 20주년 기념회 진행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수여식 진행.

18일. 1965년 인민경제발전계획실행총화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발표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인 《초토화》작전과 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19일.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생존과 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20일. 아크라에서 우리 나라와 가나간에 문화협정 조인.

22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디라 간디가 인도공화국 수상으로 취임한데 대하여 축전.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딸리아공산당 제11차대회에 축전.

25일. 김일성수상께서 인도공화국창건 16주년에 제하여 축전 ▲우리 나라 외무성이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전쟁확대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26일. 전국철도운수부문 청년열성자회의 진행 (28일폐막).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9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은 정전협정을 유린하는 적측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 규탄.

2 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웰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의 1월 24일부 서한을 토의하고 최용건위원장이 호지명주석에게 회답서한을 보냄.

2일. 김일성수상께서 쎄일론독립 18주년에 제하여 축전 ▲전국학생스키경기대회 강계에서 개막 (17일에 폐막).

3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가 1월 31일에 웰남민주공화국 령토에대한 폭격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항의규탄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4일. 최용건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주재 로므니아신임대사가 신임장을 드림.

5일. 우리 나라와 민주독일간의 1966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베를린에서 조인 ▲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 박중국소장이 남조선에서 발광적으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6일.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투적인 성원을 보내는 성명 발표 ▲2. 8절기념 종목별 체육경기대회 개막 (2월 15일에 끝남).

7일. 김일성수상께서 쏘련자동관측소《루나—9》호가 달표면에 계획대로 착륙한것을 축하하여 꼬씨긴수상에게 축전 ▲조선인민군창건 18주년 평양시경축대회 진행.

8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일본반동정부가 비법적인 《영주권신청접수

업무>를 시작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0일. 제1차 전국농촌의학술보고회 (11일까지)진행.

15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윁남에서 침략전쟁확대에 광분하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와 꾸바간의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아바나에서 조인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일조우호국민사절단간에 공동성명 발표.

16일. 김일성수상께서 감비아독립 1주년에 제하여 축전.

21일. 황남도 청단군 산림부문일군열성자회의에서 전국산림부문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2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남조선애국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폭로규탄하여 성토대회 진행.

25일. 우리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집행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일화로 3억 357만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스무번째로 보냄. ▲황주에서 전국농촌건설부문관계자회의 26일까지 진행.

28일. 김일성수상께서 윁남민주공화국 범문동수상의 탄생 60주년에 제하여 축전.

3 월.

1일. 김일성수상께서 《비키니의 날》 전국대회에 전문 ▲김일성수상께서 마로끄독립 10주년에 제하여 마로끄국왕에게 축전 ▲쏘련정부통상대표단 평양에 도착.

2일.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사업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4일. 토지개혁법령발포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7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또 남부윁남에 남조선괴뢰군을 내몰려는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3.8국제부녀절 56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윁남민주공화국의 해상을 봉쇄하려는 미제의 해적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일. 조선기자동맹창립 20주년기념회 진행.

11일. 김일성수상께서 중국에서의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주은래총리에게 전문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미야모또 겐지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우리 나라 주재 웽그리아신임대사가 최용건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드림.

13일. 개성에서 전국춘기마라손경기대회 진행.

15일. 일본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6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 진행 ▲쏘련인민소비품전람회개관식에 참가할 쏘련 정부대표단이 평양에 도착(23일귀국).

19일. 김일성수상께서 뜌니지독립 10주년에 제하여 축전 ▲윁남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1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공산당대표단간의 공동성명 발표.

22일. 김일성수상께서 파키스탄회교공화국창건 10주년에 제하여 축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부윁남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국군》증파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3일.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간의 방송협조에 관한 협정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26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주재 말리대사를 접견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평양을 출발.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 실천정형 중간총화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소집에 대하여 토의 (4월 4일 폐막)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조선소년단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4 월.

3일. 김일성수상과 최용건위원장이 웽그리아해방 21주년에 제하여 축전.

4일. 우리 나라와 쏘련간에 1966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 조인.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뉴질랜드공산당 제21차대회에 축전 ▲조선지질협회를 결성.

8일. 조선과 몽골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1967년도 사업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

10일. 플라야 히론전투승리 5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꾸바로 출발.

11일. 우리 나라와 수리아간의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비준서 까히라에서 교환.

12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캄보쟈에 대한 침략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는 타이반동들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전국보건일군회의 진행 (21일까지).

13일. 쏘련공산당 제23차대회에 참가했던 조선로동당대표단 귀국.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수리아독립 20주년에 제하여 축전 ▲공화국외무성에서 일본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하여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하려는 책동을 각방으로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조독간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년도 사업계획서 조인 ▲춘기륙상경기대회 시작 (18일에 끝남).

17일. 김일성수상께서 아브달라흐 알 야피가 레바논수상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축전 ▲5.1절기념축구대회 시작.

18일. 김일성수상께서 플라야 히론전투승리 5주년에 제하여 피델 까스뜨로수상에게 축전 ▲남조선인민의 4월봉기 6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19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간의 1965—1966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실행을 위한 보충의정서와 량국 보건성들간의 1966년도 보건및의학부문의 협조계획서 조인.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독일사회통일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축전 ▲김일성수상께서 아브델 라흐만 모하메드 아레프가 이라크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축전 ▲신문《로동청년》창간 20주년을 기념.

21일. 레닌탄생 96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사회주의국가친선군대체육위원회 제10차전원회의 평양에서 (5월 3일까지)진행. ▲원산에서 전국창의고안일군경험교환회 진행.

22일. 전국상업류통부문 천리마작업반참가자들의 경험교환회를(4월 25일까지)진행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년도사업계

획서 조인 ▲우리 나라에 주재할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 평양에 도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폭격과 유독성화학물질살포를 규탄하며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전문

23일. 김일성수상께서 아뚤로 릴튼 오보테가 우간다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축전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측의 발광적인 무력증강행위를 감행하는데 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아.아기자협회창립 3주년과 《아세아아프리카기자의 날》에 제하여 아.아기자협회 서기국에 서한.

25일. 김일성수상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창건 2주년에 제하여 니에레레대통령에게 축전 ▲최용건위원장이 우리 나라주재 팔레스티나해방 조직대표 라쉬드 제루부를 접견 ▲도미니카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진행.

26일. 김일성수상께서 시에라 레온독립 5주년에 제하여 알버트 마르가이수상에게 축전.

27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 개막 (4월 29일 폐막) ▲조선과 알바니아간의 문화협조협정과 협정리행을 위한 1966—1967년도계획서 조인.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령과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공산당창건 35주년에 제하여 축전.

5 월.

1일. 김일성동지께서 강건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하시고 군인들과 함께 5.1절을 기념 ▲5.1절기념 체육대회 시작.

3일. 조국광복회창건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 진행.

4일. 조국광복회창건 30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조선대학창립 10주년에 제하여 공화국내각에서 일본에있는 조선대학에 축기를 보냄.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므니아공산당창건 45주년에 제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 ▲조선과 기네간에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12일. 김일성동지의 표창장 및 선물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을 근위 1급군칭호를 쟁취한 철산군과 선천군에 전달.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창건 45주년에 제하여 축전.

17일. 김일성수상께서 호세 디아스를 단장으로하는 꾸바기술대표단을 접견.

18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

19일. 우리 나라와 쏘련간의 1966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25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직총중앙위원회 제14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2차 및 13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위한 대책을 26일까지 토의 ▲전국천해양식부문일군들의 협의회 진행.

26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 박중국소장이 미제침략자들의 발광적인 무력증강행위와 관련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28일. 조쏘친선협회와 쏘조친선협회간의 협조계획서를 모스크바에서 조인.

31일.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창립 20주년기념대회 진행,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 김일성수상께서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 교직원들을 표창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으로 랄미암아 카리브해역에 또다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됨과 관련하여 꾸바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 발표.

6 월.

1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꾸며지고있는 《아세아및태평양지역각료회의》 소집음모를 폭로하여 비망록을 발표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수의방역 및 검역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관한 협정을 체결.

3일. 꾸바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소년신문》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

4일. 김일성수상께서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받들고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건설자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범이된 조선소년단 지도일군들을 표창 ▲ 《민주조선》창간 20주년기념회진행 ▲조선—웽그리아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6차회의의정서 부다뻬슈뜨에서 조인.

5일. 김일성수상을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20주년기념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6월 15일 귀국).

6일. 《소년신문》창간 20주년을 기념 ▲조선—말리간에 1966—1967년도 문화교류계획서 바마코에서 조인.

8일.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쏘련을 방문(6월 22일귀국) ▲뽀즈난국제시장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

9일. 반일 6.10만세시위투쟁 40주년 평양시 기념대회 진행 ▲조선과 웰남민주공화국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6년도 사업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0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의 직접적인 조정하에 꾸며지고있는 《아세아및태평양지역각료회의》소집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발표.

15일. 김일성수상께서 조선주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신임대사를 접견.

21일. 미제반대투쟁월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공동성명 발표.

22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아련, 탄자니아, 이라크, 수리아를 방문 (8월 2일 귀국).

24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5일. 아. 아작가비상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작가대표단 출발.

27일. 김일성수상께서 아. 아작가비상회의에 축전 ▲우리 나라에 주재할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초대특명전권대사 평양에 도착.

29일. 알제리독립 4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출발.

30일.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인민

경제대학창립 20주년을 기념, 김일성수상께서 인민경제대학 교직원들을 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창건 45주년에 제하여 축전.

7 월.

1일. 공화국외무성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와 하이퐁시 주변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에 주재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가 평양에 도착 ▲조선기록영화촬영소창립 20주년을 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인민방송원, 공훈방송원 칭호를 제정.

4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초대특명전권대사를 접견.

5일.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9차 회의의정서를 베이징에서 조인.

7일. 몽골인민혁명 45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몽골을 방문 (7월29일 귀국)

8일. 몽골인민혁명 45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전국농업부문과학토론회 진행.

11일. 조중 량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간의 1966—1967년도 과학기술협조계획서 와르샤와에서 조인.

13일. 우리 나라와 웰남간에 항공운수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하노이에서 체결.

15일.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주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를 접견.

16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도당이 《한미행정협정》을 조작해낸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8일. 김일성수상께서 미제의 새로운 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호지명동지에게 전문.

20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진행.

21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려는 시도를 폭로규탄하며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재천명하는 비망록을 발표. ▲뽈스까국가창건 1천주년 및 뽈스까재생 22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22일. 미제측의 발광적인 무력증강행위에 대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조중측 수석위원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공동보도를 발표.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3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26일. 김일성수상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 간에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가수반 누레딘 아따씨에게 축전.

29일. 김일성수상께서 일본에서 열리는 제12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축전 ▲남녀평등권법령발포 20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우리 나라 과학원과 중국과학원간에 1966—1967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베이징에서 조인.

8 월.

3일. 콩고(브)혁명승리 3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

5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를 결성. ▲우리 나라주재 말리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평양에 도착.

6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꾸바과학원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서 평양에서 조인.

9일. 공화국외무성이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로 하여금 캄보쟈의 평화적 주민지대를 야만적으로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며 그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여 성명.

12일. 《로동신문》이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론설을 게재.

13일. 우리 나라 주재 기네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까마라 쎄꾸가 평양에 도착.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아련, 탄자니아, 이라크, 수리아 방문 결과에 대하여 청취.

18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일본측이 부당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귀국협정을 파괴하려는 술책을 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1일. 우리 나라 정부와 아련정부간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을 까히라에서 조인.

25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파의 공모하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6일.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증파책동을 폭로규탄하여 평양시청년학생성토대회 진행.

27일.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정부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다마스커스에서 조인.

29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인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방조하기 위하여 21차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냄.

31일. 김일성동지께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을 접견.

9 월.

2일. 미제의 침략선 《샤만호》격침 100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웰남민주공화국창건 21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에 무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협정과 두 나라 정부간의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5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국대안》반대투쟁 2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6일. 영웅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조선과학자문화인대회 진행.

7일. 조선과 버마간에 무역협정을 랑군에서 체결.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8주년기념 평양시경축대회 진행.

11일. 최용건위원장이 쏘조친선협회대표단을 접견.

12일. 최용건위원장이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이 우리 나라 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초대대사를 접견.

14일. 김일성수상께서 압록강관개건설자들을 표창.

16일. 김일성수상께서 웰남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접견.

17일. 조선과 캄보쟈간의 1966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프놈펜에서 조인.

20일. 김일성수상께서 꾸바혁명정부친선대표단을 접견▲김일성수상께서 아련 《알굼후리아》신문주필을 접견.

21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일본반동정부가 신의주수산사업소의 《평신지4-034》호 저예망선을 억류하고 일부 선원들에 대한 부당한 책동을 감행하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2일. 《조선녀성》창간 20주년을 기념.

24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일본반동정부가 《평신 지4-034》호 어선과 선원들을 속히 우리 나라에 돌려보낼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28일. 조선과 뽈스까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의 기한을 연장할데 대한 의정서를 평양에서 조인.

29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선인 《평신지4—034》호 선원들을 부당하게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넘겨준 일본반동정부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30일. 김일성수상의 참석하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20주년기념회 진행,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을 전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에게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 ▲중화인민공화국창건 17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검열성을 설치

10 월.

1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접견. ▲최용건위원장이 우리 나라주재 알바니아인민공화국대사를 접견 ▲남조선인민들의 10월항쟁 20주년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2일. 김일성수상께서 학생절을 맞으며 모범학생들을 표창 ▲학생절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3일. 김일성수상께서 꾸바축산기술대표단을 접견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주재 알바니아인민공화국대사를 접견.

4일. 최용건위원장이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막(10월 12일 폐막). 김일성동지께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보고.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칭호를 제정. ▲수리아에 우리 나라의 대사관을 개설 ▲《평신지 4—034》호 선원들이 일본반동당국의 악랄한 음모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에 돌아왔다.

10일. 김일성수상께서 소말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줄일데 대한 내각결정 채택.

11일. 칠레국회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20일귀국) ▲몽골정부통상대표단 평양에 도착.

12일.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전원회의 진행, 회의에서 당대표자회결정비준에 대하여와 조직문제에 대하여 토의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간의 1967년도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3일. 이라크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을 개설.

14일. 우리 나라 주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최용건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드림.

15일. 공화국외무성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와 남부웰남 및 타이 괴뢰도당의 엄중한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17일. 최용건위원장이 칠레공화국국회대표단을 접견.

19일. 웰남인민이 1천 500여대의 미제 공중비적을 박살낸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사회 단체들에서 웰남의 해당 사회단체들에 축전▲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학살만행에 의하여 남부웰남애국민주기자협회위원장 부퉁이 피살된것과 관련하여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남부웰남애국민주기자협회에 조전.

20일. 전국보육원교양원대회 진행(10월 22일 폐막) ▲조몽간의 1967—1970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를 평양에서 조인 ▲《파떼말라인민과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제하여 사로청 중앙위원회,조선학생위원회에서 파떼말라애국로동청년과 파떼말라종합대학생협회에 전문.

22일.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보육원, 교양원, 녀맹일군들에게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로력영웅, 공훈보육원, 공훈교원 칭호와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알바니아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1월 15일 귀국).

23일. 김일성수상께서 꾸바축산기술대표단을 위하여 오찬회를 베픔. ▲우리 나라 정부친선및 경제대표단이 버마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

24일. 《근로자》창간 20주년 기념회 진행.

25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세우는데 공훈이있는 일군들에게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측의 또다시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비법반입하고있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26일. 꾸바공화국 대통령이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동지를 단장으로 한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도착. (10월 29일 귀국)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대양주의 추종국가 및 괴뢰들과 함께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웰남침략전쟁 참가국 《수뇌자》들의 소위 《마닐라회의》를 벌려놓고 일련의 침략적계획들을 《토의》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알제리혁명개시 12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

27일.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간에 회담 진행.

28일.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 ▲강원도내 전시공로자들에게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공동성명을 발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사로청대표단이 알제리 혁명개시 12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31일. 몽골에서 물질적피해를 끼친 홍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에 형제적원조를 준데 대하여 김일성수상께 몽골인민공화국 유제덴발 수상으로부터 전문을 보내옴.

11 월.

1일. 꾸바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11월 25일 귀국).

2일. 로므니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출발. ▲광주학생운동 37주년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 진행.

3일. 조선건설협회 결성 ▲전국공장대학 교원, 학생들 과학기술론문발표회 진행.

4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창립 20주년기념회진행 ▲청진교원대학창립 20주년기념회 진행.

5일. 김일성수상께서 제4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공격과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일층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고하는 성명 발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9주년 평양시기념회 진행.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알바니아로동당창건 25주년에 제하여 축전 ▲조선—뽈스까해운회사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정서를 평양에서 조인.

8일. 조선과 빠키스탄간의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라왈핀디에서 체결

10일.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11월 29일 귀국) ▲조선과 로므니아간에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꾸레슈띠에서 체결.

13일. 김일성수상께서 미제의 도발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수호한 기네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기네공화국 아흐메드 세쿠투레대통령에게 전문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웰남미제전쟁범죄행위조사위원회의 10월 31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 전문.

14일. 조선과 꾸바간의 비무역지불에 관한 협정과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5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미제가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끌어가면서 제7함대의 군함들을 동원하여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해안일대의 평화적주민지역을 폭격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함흥의학대학창립 20주년기념회 진행.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국측의 범죄적인 무력증강행위에 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18일. 제5차전국동의학학술토론회와 제3차전국내과학술보고회 (11월 20일까지)진행▲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일본아세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제10차대회 축전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일본의 《우다고에》축전을 축하하여 축전.

21일. 박성철외무상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침략전쟁에서 유엔기발을 도용하고있는 행위에 대하여 세계각국 외무상들에게 서한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와 로므니아국가국제출하 및 운수회사 부꾸레슈띠 《롬뜨란스》간에 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평양에서조인.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 진행,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 ▲공화국외무성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발표.

24일. 김일성수상께서 제1차아세아가네포에 축전.

25일.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스물두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

26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9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8일. 김일성수상께서 조선주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신임대사를 접견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출발.

29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청장년들을 더욱 대량적으로 남부웰남전쟁터에 내몰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발표.

30일. 《3.1월간》창간 30주년기념보고회 진행.

12 월.

1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또다시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4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유엔총회 제21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앞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와 남조선대표를 동시에 초청할데 대한 제안이 가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결정을 뒤집어엎으려는 미제의 책동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5일. 조선중앙통신사창립 20주년을 기념.

6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하노이시와 교외주민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항의규탄하여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꾸바공청대표단을 환영하여 평양시청년학생들이 집회를 가짐 ▲조선배구협회에서 일본배구협회가 제5차세계녀자배구 선수권대회를 조직하면서 일정한 정치적세력의 조종밑에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이협회에 서한.

10일. 조쏘간의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안악군내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앞장서며 앞으로 3년간 토끼치기, 유지림조성, 나무심기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전개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농촌부문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에게 호소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6주년에 제하여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를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

13일. 조선과 웽그리아 간의 1967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16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측의 발광적인 무력증강행위에 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조선과 꽁고(브)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브라자빌에서 조인.

17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가 유엔총회 제21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또다시 날조해 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활동을 합리화하는 이른바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결의를 규탄하고 그의 무효를 선언하여 성명 발표 ▲웰남민주공화국 수도 하노이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항의규탄하여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일제의 남조선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토문 발표.

18일.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동지탄생 6 0주년에 제하여 축전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웽그리아

인민공화국, 뽈스까인민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19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6주년 평양시 기념회 진행▲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간의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서 쁘라하에서조인 ▲조선과 웰남간의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 하노이에서 조인.

20일.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을 접견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무수정연장을 위한 청진시군중집회 진행.

21일. 우리 나라 친선대표단이 꾸바를 방문 (1967년 1월 17일 귀국) ▲조선석탄공업회 결성.

22일. 김일성수상께서 아랍련합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에게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한 《승리의 날》10주년에 제하여 축전 ▲조선용접협회 결성.

27일. 우리 나라와 아련간의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까히라에서 조인

28일. 국립무용극장창립 20주년을 기념.

30일. 우리 나라 과학원대표단이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방문을 마치고 귀국 ▲국립교향악단창립 20주년을 기념 ▲꾸바혁명승리 8주년을 맞이하여 평양시기념회 진행.

남조선주요일지

(1965—1966년)

1965년

1월

16일. 《반미구국동맹》에서 남조선《국군》의 남부웰남파견을 반대규탄하는 삐라를 서울시내에 뿌림, (17일에도뿌림).

26일. 매국노박정희도당이 괴뢰국회에서 남부웰남《파병동의안》(2,400명)을 강압 통과.

2 월

17일. 서울시내 애국적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일본반동정부외상 시이나가 남조선에 기어드는것과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를 탄압하기 위해 20일까지 《준비상경계태세》를 선포.

18일. 서울시내 학생들이 《이등박문망령성토학생대회》를 열고 결의문과 선언서를 채택.

19일. 서울에서 매국적 《한일기본관계조약》을 가조인.

21일. 서울시내 2천여명의 청소부들이 임금을 올릴것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총파업.

25일. 한양공과대학생들이 《등록금》인상을 반대하여 시위, 서울대학교(3.2), 동국대학교 (3.4)학생들도 투쟁.

3 월

8일. 서울대학교학생들이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전개, 10일에는 성토대회를 가짐 ▲경상북도 영일군 의창면내 300여명의 농민들이 괴뢰통치배들의 부당한 《하천부지개간허가》를 반대하여 면민대회를 가진후 시위.

12일. 서울의 문성녀자중학교와 문성녀자상업학교 학생 800여명이 괴뢰도당의 폐교조치를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 ▲괴뢰문교부에서 끼니를 굶는 어린이가 111만명이라고 발표.

13일. 박정희도당이 세금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와 주세의 《개정법률안》을 괴뢰국회에서 통과.

20일. 서울의 4만명시민들, 서울운동장에서 박정희도당의 매국적인《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를 전개 ▲대구 청구대학 학생들이 왜놈의 종교인 《창가학회》를 배격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

26일. 서울 동국대학교학생들이 박정희매국도당을 규탄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열고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

27일. 부산시민들이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을 규탄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가진후 가두시위 ▲서울대학교의 《민족민주주의비교연구회》주최로 《한일회담》의 범죄적정체를 폭로하는 학술강연회를 가짐. ▲부산의 경남녀자고등학교학생 1,400여명이 학교장을 갈아치우려는 박정희도당의 파쑈적인사조치를 반대하여 시위.

28일. 마산, 광주, 속초에서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단행 ▲부산종합어시장의 부두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단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29일까지 파업.

29일. 려수, 진주, 강릉에서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림.

31일.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 800여명이 《매국외교결사규탄성토대회》를 가지고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전주, 울산, 삼척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 단행.

4 월

1일. 대구, 군산, 원주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펼침 ▲서울시내 대학교학생들이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련합투쟁위원회》를 결성 ▲경남 한양중학교학생들이《공납금》을 내릴것을 요구하여 동맹휴학.

2일. 원주시내 고등학교학생들이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대전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함.

4일. 청주에서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 펼침.

7일.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서울시내《학생련합투쟁위원회》에서 구국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남조선 전체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발표.

9일. 서울 동국대학교학생들이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와 가장행렬을 펼침 ▲매국적 《한일회담》을 다그치기 위해 박정희도당이 전체 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림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인천시와 제주시에서도 시위와 집회들이 열림.

12일. 서울 경희대학, 동국대학, 연세대학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13일. 서울시내 9개 종합대학교 학생들이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펼침.

14일. 서울시내 학생들의 투쟁계속, 리리시민들도 성토대회와 시위를 펼침.

15일. 서울대학교학생들의 투쟁계속, 대구와 제주도의 학생들도 투쟁에 일떠섬 ▲박정희반역도당이 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군 《수도경비사령부》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임.

16일. 서울의 건국, 한양,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괴뢰경찰과 격전 ▲괴뢰문교부에서 학생들의 애국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 및 고등학교에 강제로 휴교를 명령.

19일. 4. 19인민봉기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기념추도식을 올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학생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선언문과 결의문채택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제주대학생들이 성토대회를 열고 시위에 나섬, 남제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에 합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위 ▲괴뢰도당이 《위수령》을 내리고 탄압에 더욱 광분.

20일.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학생들도 성토대회를 가짐.

21일.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부산수산대학,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학생들이 시위, 서울카톨릭대학, 대구 청구대학 학생들 성토대회를 벌림 ▲인천 인하 공과대학 학생들이 매국역적박정희도당의 파쑈적 《휴교조치》를 즉시 걷어치울것을 요구.

22일.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23일. 대구대학과 청구대학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24일. 대구의 계성, 경남고등학교 학생들이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26일. 서울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규탄하여 성토대회를 가짐.

27일. 서울의 《한국신학대학》, 전북 익산의 함열중학교와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서울 단국대학 학생들은 성토대회를 가짐.

26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30일.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 문리과대학과 수도의과대학, 한양대학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짐, 대전 감리교신학대학생들도 성토대회를 가지고 앉아버티기투쟁을 전개.

5월

1일. 서울 흥국고등학생들이 5명의 학생을 부당하게 퇴학시킨 학교당국의 처사에 항거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3일. 광주제1고등학교학생 1,500명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침략기구인 《주한미경제협조처》에 고용된 조선인종업원들이 민족적인 모욕에 격분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펌

4일.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신제국주의박살식》을 벌리고 왜놈의 국기가 그려진 《게다짝》을 불태움, 성균관대학학생들도 성토대회와 김중배학생추도식을 가짐,

6일. 광주고등학교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전남대학교, 시레지오와 숭일고등학교학생들도 시위에 나섬.

9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 3천여명이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기본권수호궐기대회》를 가짐

17일. 서울의 《보록원》기업체로동자들이 임금을 깎아내린데 항의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서울시 산림동내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괴뢰경찰 및 집달리와 투쟁.

12일. 목포고등학교학생 1천여명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시위

14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 로동자들이 《로동기본권수호궐기대회》를 펼쳐나섬.

18일.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2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학교당국의 탄압을 반대하여 23일까지 동맹휴학, 24일부터는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감

29일.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 남조선 각지의 19개대학 학생대표들이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학술토론회》를 가짐.

6월

1일. 경기도 부천에서 남조선 《국군》병사가 민족적모욕과 학대에 항거하여 미제침략군 3명을 까눕힘.

3일. 《6.3 동지회》에 망라된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짐.

8일. 남조선의 《한국판유리공장주식회사》 인천 공장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 10일에는 가족 3천여명도 합세.

9일. 서울시내 9개종합대학 학생대표들이 《민족수호학생련맹》을 결성하고 《한일협정》의 정식조인과 《한미행정협정》체결을 반대하여 각 대학이 련합전선을 펴서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릴것을 결의 ▲고려대학교학생들이 《한일회담》과 괴뢰도당의 학원사찰을 반대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짐.

11일. 수원에있는 《직업재활원》의 《상이군인》 300여명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서울을 향해 시위에 나섬 ▲서울의 대동상업고등학교학생 600여명이 학교당국의 모리행위를 반대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이 《한일회담》과 《한미행정협정》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진다음 시위.

1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단식투쟁을 펌 (19일까지).

15일.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궐기대회를 가짐.

18일. 서울의 고려대학교 1천여명 학생들이 《한일회담》과 《한미행정협

정》및 남부월남파병책동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500여명의 경찰과 투석전을 하면서 시위, 서울대학교의 상과대학, 사범대학, 문리과대학생들도 시위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이 괴뢰국회에서 괴뢰군의 남부월남증파에 관한《동의안》을 통과

19일.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의 4개 단과대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48시간 단식투쟁▲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민족주체성확립궐기대회》를 가짐

21일. 서울시내 15개 대학, 4개고등학교학생 1만여명이 《한일회담》반대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괴뢰경찰들과 싸우면서 시위를 벌침, 수원, 광주, 부산의 대학생들도 투쟁에 일떠섬▲박정희역적무리들이 오후 5시를 기해 남조선 전체 경찰에 《비상경계령 갑호》를 내리고 탄압에 광분 ▲괴뢰문교부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보려고 13개 대학과 서울의 58개 고등학교에 강제로 방학 및 휴교를 명령.

22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제주도 등 남조선 각지의 대학, 고등학교 학생들과 서울시민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 ▲박정희파쑈도당이 괴뢰군의 《수도사단》소속 병력까지 끌어들여 탄압에 동원▲도꾜에서 매국역적 박정희도당과 일본 사또반동도당간에 범죄적《한일협정》에 정식 조인.

23일. 서울, 대구, 제주도의 대학생들과 제주시민들이 매국적《한일조약》을 반대하여 성토대회, 시위, 단식투쟁 등을 펼쳐나섬.

24일. 서울, 대전, 대구의 대학학생들과 전문학교학생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여 시위, 11개 대학 학생들이 단식투쟁을 계속.

25일. 서울, 대구, 청주, 충주, 전주의 대학생들과 고등학교학생들이《한일조약》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감행.

26일. 서울, 청주, 리리의 대학생들과 고등학교학생들이 《한일조약》반대투쟁을 계속.

27일. 서울의 연세, 리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규탄하여 괴뢰도당에게 항의문을 들이댐 ▲박정희도당이 각급 학교에 강요했던 휴교조처를 다시금 연장.

28일. 서울, 부산, 강릉, 대전에서 대학생 및 고등학교학생들과 시민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여 경찰과 싸우면서 시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왜놈의 상품 안사기운동을 벌리기로 결의, 30일부터 서명수집에 착수.

29일. 서울, 대구, 군산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여 시위, 성토대회를 펌 ▲광주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괴뢰당국의 반동적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 ▲남조선의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에 항의.

30일. 서울의 7개 대학에서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벌리고 2개 대학학생들이 시위.

7 월

1일. 서울의 연세, 전국 두 대학교학생들이 《일본제상품화형식》을 가짐 ▲부산, 대구, 려수, 제천, 강릉의 고등학교학생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며 잡아가둔 학생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시위.

2일. 서울, 부산의 대학생들과 고등학교학생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여 투쟁 ▲박정희역적들이 남부월남에 괴뢰군 1개사단을 더 내몰기로 흉모 ▲《한국기자협회》에서 긴급보도자유위원회를 열고 박정희도당의 악법조작책동을 때려부시기 위해 투쟁할것을 결정.

5일. 서울, 제주도의 학생들이 《한일조약》반대투쟁 계속.

8일. 대구대학생들이 매국적《한일협정》을 반대하여 시위.

9일. 광주, 인천, 부산, 대전의 7만여명 시민들이 박정희도당의 매국협정 비준책동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림.

10일. 대구, 전주, 청주, 춘천의 시민들이 매국조약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림, 속초고등학교학생들이 시위.

12일. 서울시내 각 대학교수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선언대회》를 가짐.

13일. 서울시내 6개 종합대학교 총학생회장단회의에서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각 대학 련합회》를 결성

14일. 남조선의 《한국학사청년련맹》, 《6.3동지회》, 《민족수호위원회》 등 3개 학생단체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 각 대학련합회》와 련합전선을 펴기로 결정.

15일.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각 대학련합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을 무릅쓰고 대학생궐기대회를 열고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

16일. 《한국대학생정치학회》에서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여 성명.

22일. 남조선의 학생들과 각계 대표들이 매국협정을 분쇄하기 위한 련합전선을 펴기로 합의

31일.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박정희도당의 《한일협정》비준 놀음을 까부시기 위해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 ▲남조선의《한국학사청년련맹》에서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하여 성명 발표.

8 월

8일. 대구의 대학교수들이 《한일협정비준》을 반대하여 성명.

12일. 서울시내 9개 대학교 학생들이 《매국국회해산촉구궐기대회》를 가짐.

13일. 제주대학생들이 매국협정의 비준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진후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박정희역도들이 괴뢰국회에서 한개 전투사단병력의 《남부월남증파안》을 강압 통과.

14일.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여《조국수호국민협의회》주최로 《비상국민대회》를 열고 시위를 펌, 경남 충무시민들이 시위, 고려대학교학생들이 궐기대회를 가짐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각 대학련합회》에서 매국문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언서 발표 ▲제주학생들이 《한일협정》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가짐 ▲박정희매국역도들이 괴뢰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저희들끼리 통과.

15일. 서울에서 애국적학생들이 박정희역적무리들의 《한일협정비준》놀음을 반대하여 시위.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이 범죄적 《한일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토대회에서 박정희매국역적들을 반대하여 《실력》으로써 싸울것을 결의 ▲서울시내 6개 종합대학교 학생간부들이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20일의 개학과 함께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결의 ▲미제침략군부대에 배속되어있는 《국군》병사 60여명이 미제의

민족적모욕을 반대하여 단식투쟁

20일. 서울의 경희대학교학생 1천 500여명과 부산의 동아대학교학생 2천여명이 《한일협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시위, 경기대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가짐 ▲서울의 《무궁화애호대학생총련합회》위원들이 왜색종교인 《창가학회 서울지부》를 들이침.

21일.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한일협정비준》의 무효를 선언하고 시위에 떨쳐나섬 ▲서울시내 각 종합대학교 학생회장들이 학교단위로 펴온 《한일협정비준》무효화투쟁을 하나의 단결된 투쟁으로 펼치기로 합의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생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서울의 경찰들에게《특별비상령》을 내림.

22일. 서울중앙대학교학생들이 매국적《한일협정》비준의 무효를 선언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앉아버티기투쟁 전개.

23일. 서울, 광주, 대전, 수원, 제주 등 남조선 각지 청년학생들 1만 7천여명이 매국적《한일협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위.

24일. 1만 5천명의 서울시내 학생들이 항쟁을 계속, 4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합류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군을 학생탄압에 동원.

25일. 1만 7천명의 서울시내청년학생들이 항쟁을 계속. ▲박정희도당이 완전무장한 2개 대대의 괴뢰군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을 탄압 ▲괴뢰군이 고려대학교에 침입, 고려대학교학생들이 《무장군인학원 란입규탄회》를 벌리고 항거 ▲왜적 어선 65척이 남조선 근해에 침입.

26일. 1만 5천여명의 서울시내 학생들이 시위투쟁을 계속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괴뢰군 제6사단 병력과 비행기까지 서울에 끌어들임 ▲무장괴뢰군이 연세대학교에 침입 ▲제주도와 거문도 근해에 일제의 건착어선단 400여척이 쓸어듬.

27일. 서울시내 각 대학교 학생대표들이 학원방위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일적인 투쟁 조직체인 《학원방위총본부》를 구성.

28일. 박정희역적무리들이 애국적학생들과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수사력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

29일. 서울대학교학생들이 《학원방위단결성식》을 가짐.

9월

2일. 서울시내에 반미구국투쟁을 호소하는 삐라들이 뿌려짐.

3일. 광주에서 《한일협정》의 《비준》을 규탄하는 《성토국민궐기대회》진행.

4일. 괴뢰문교부에서 애국적학생들과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고려, 연세 두 대학교를 무기한으로 강제 휴교시킴.

6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학생들이 《한일협정》을 배격하며 학원을 방위하기 위한 궐기대회에서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군화화형식》을 가짐, 법과대학생들도 동맹휴학 ▲서울시내 13개 대학의 《학원방위단》대표들의 모임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하는 《학원방위단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

17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서울문리과대학생들의 학술단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강제로 해체하고 학생 5명을 잡아가둠.

18일. 괴뢰 문교부에서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기위한 《대학교육정상화방안》을 꾸며냄.

21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3만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28일. 충주공과대학 학생들이 애국적학생들을 탄압하는 학장을 반대하여 동맹휴학.

10월

1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 있는 남조선로동자 5천 500여명이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여 투쟁 ▲박정희괴뢰도당이 전신, 전화, 우편료금을 50~200% 끌어올림.

2일. 서울의 한국신학대학학생들이 교수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을 반대하여 동맹휴학.

4일. 박정희괴뢰도당이 13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

16일.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상리에서 미제침략군의 폭탄이 터져 15명이 죽고 12명이 중상.

18일. 경기도 부평지구의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50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11월.

2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5천여명의 로동자들이 대우개선과 권익의 옹호를 위해 쟁의에 들어감.

5일. 서울대학교 11개 단과대학 총학생회에서 잡아가둔 학생들을 내놓을것과 《정치교수》로 내쫓은 교수들을 복직시킬것을 주장하는 결의문 채택.

11일. 광주의 《남조선련탄회사》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13일. 부산의 목재회사로동자들이 로조의 결성을 인정할것을 요구하여 실력투쟁에 들어감.

15일. 미제침략군부대의 청소작업을 맡아하는 부산지구의 《신한건설회사》로동자들이 단체협약체결 등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

16일. 인천부두로동자 650여명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착취 행위를 반대하여 작업을 거부▲박정희괴뢰도당이 언론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법률》을 뜯어고침,

17일. 박정희괴뢰도당이 15개의 출판물을 폐간.

19일. 광주시에 1천여명의 운수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20일. 고려대학교총학생회 대표들이 《한일협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23일. 부산의 해양대학 학생들이 박정희 괴뢰도당의 차별대우를 반대하여 동맹휴학.

24일. 서울시 룡산구내에서 수해리재민 약 7천명이 자기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는 괴뢰기동경찰대와 괴뢰구청직원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투쟁 ▲박정희 괴뢰도당이 21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

26일. 춘천역에서 100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집단도주.

27일. 군산지구의 비료공장로동자 약 100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12월

8일. 미제침략군이 동두천에서 조선녀성의 머리를 깎고 로동자들에게 매질을 하는 만행을 감행.

10일. 남조선어민 330여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해상파업

12일. 서울시내에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는 삐라들이 뿌려짐.

13일. 강원도 춘천군내 농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의암토목공사장에서 앉아버티기 투쟁 계속.

15일. 10만명의 자동차운수로동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12월 30일까지 임금을 2배로 올리지 않으면 파업 등 실력투쟁을 벌리겠다고 선언.

16일. 박정희괴뢰도당이 《한일협정비준서교환》과 관련하여 서울시괴뢰경찰들에게 《비상경계태세》를 내림.

17일. 서울에서 《한일회담비준서교환》을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열림. ▲서울시내 11개 종합대학총학생회장들과 4.19당시의 각 대학학생회장들 및 애국적단체 책임자들이 매국적《한일협정비준서교환》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서 발표.

18일. 서울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한일협정비준서교환》을 반대하여 시위 ▲매국역적박정희도당과 일본사또 반동도당사이에 매국적 《한일협정비준서》를 교환.

1966년

1 월

1일. 전쟁상인 험프리가 서울에 기여듦, 괴뢰정부 우두머리들과 《웰남파병》문제를 쑥덕대고 군사분계선을 싸다닌후 2일에 떠남 ▲박정희괴뢰도당이 우편료금을 2배로 올림.

4일. 괴뢰문교부가 대학의 수업료를 50%, 입학금을 100% 끌어 올림

7일. 파업중인 인천지구 미제침략군기관고용 조선인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부대와 충돌하여 투석전을 벌림. ▲부평지구 미제침략군기관의 종업원 1천 200여명이 동정파업

13일. 미제 해병대사령관 그린이 남부웰남을 싸다니고 서울에 기여듦, 박정희역도와 밀담.

15일. 일제에게 팔아넘긴 상어어장을 돌려보내라고 남조선어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요구.

20일. 전남대학교 동창회와 리사회 련석회의에서 괴뢰정부 문교부의 국립대학불하방침을 반대하여 투쟁위원회를 결성.

23일. 미제의 두목 존슨이 주구 박정희역도에게 남조선괴뢰군의 《웰남증파》를 지시

25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 3만여명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을 상대로 쟁의에 들어감.

26일. 서울시 남산동 리재민 2,900여명이 괴뢰당국의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폄 ▲《서울방송국》소속 배우들이 출연료를 70% 올리라고 파업.

2 월

2일. 왜놈의 상사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3일. 괴뢰공보부에서 30종의 정기간행물을 강제로 폐간.

5일. 파주지구 미제침략군고용조선인로동자 1천 100여명이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여 미제침략군 24사단 정문앞에서 시위, 미제침략군헌병놈들이 로동자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총창질을 하는만행을 감행.

6일. 인천 《대한통운회사》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라고 시위 ▲부산시내 뻐스로동자들이 괴뢰경찰의 박해를 반대하여 파업.

14일. 대전시내 1만여명 로동자들이 구두짓는 로동자들의 임금올려받기 투쟁을 지원하여 구두안사기동맹을 무음.

16일. 괴뢰내무부장관이라는 놈이 서울시내에 2개의 경찰서와 60개이상의 지서, 파출소, 지방에 110개 정도의 지서 및 파출소를 더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떠벌임.

22일. 미제의 전쟁상인 험프리가 이해 두번째로 서울에 기여들어 주구 박정희역도에게 괴뢰군 1개사단과 1개 련대를 웰남에 《증파》하라고 지시.

3 월

3일. 괴뢰공보부에서 124개 정기간행물에 강제폐간 또는 경고처분을 내림.

7일. 《석탄공사》소속 석탄부리기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라고 파업.

10일. 괴뢰해병 1개 공병중대가 남부웰남에 끌려감

20일. 박정희역적무리들이 괴뢰국회에서 《국군》의 《남부웰남증파안》 (1개 보충련대)을 강압통과.

4 월

1일. 강원도 괴뢰경찰국이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사기자 5명을 《허위보도》를 했다는 구실을 붙여 잡아가둠.

6일.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2만 5천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이 총파업,

10일. 전라북도 김제읍 신풍리주민들이 소년을 깔아죽인 미제침략군차에 돌벼락을 들씌워 파괴.

18일. 괴뢰경찰이 강원도 속초에 있는 《중앙일보》기자 2명을 《허위보도》를 했다고 꾸며서 잡아가둠.

19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려놓은 《기념식》을 반대하여 독자적인 4.19 6주년기념식을 가짐 ▲미제침략군 8군 21병기단 63탄약중대소속 조선인병사들이 민족차별대우를 반대하여 집단탈주.

26일. 《동아일보》정치부기자가 박정희괴뢰도당이 추켜보낸 《정치테로》에 습격당함.

27일. 한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냈다고 시험을 안보인 학교당국을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5 월

3일. 인천 제물포고등학교학생들이 악질교장은 물러가라고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8일.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주민들이 미제의 고용병 토이기병사의 만행에 격분하여 돌벼락으로 맞서싸움.

11일. 경기도 광주, 고양군과 경상북도 왜관 등지의 미제침략군기관에 종사하는 조선인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라고 파업 ▲인천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을 상대로 투쟁하고있는 서울의 로동자들을 지지하여 지원단을 보냄.

19일. 《경성궤도주식회사》 종업원들이 운행권을 서울시괴뢰당국에 넘기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남부웰남주둔 미제의 대사룻지란놈이 서울에 기여듦, 20일 주구

박정희역도와 《국군증파》문제를 쑥덕댐.

29일. 서울시 숭인동 화재리재민 3천여명이 강제철거에 출동한 괴뢰경찰을 맞받아 싸움을 벌림.

6 월

3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파쑈적《정보교육》을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0일. 미제침략군산하 《한국로무단》로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료의 복직과 《로무단》관리 악질장교의 파면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감.

11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조선인 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8군 로무처정문앞에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3일. 《경흥산업회사》 로동자들이 소년로동자들에게 자극제를 먹여가면서 강제로 밤일을 시키는 기업주를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킴 ▲《경성궤도주식회사》 종업원들이 임금을 올리고 밀린임금을 내줄것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

14일. 미제와 그주구들이 서울에서 《반공군사동맹》을 꾸미기 위한《아세아및태평양지역각료 회담》을 벌림.

24일. 전라남도 광주, 목포, 순천 등지의 택시업자들이 괴뢰도당의 과중한 세금부과를 반대하여 택시를 세우고 시위.

7 월

1일. 서울, 룡산, 영등포, 김포, 부평, 인천, 등지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조선인경비원 천여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무기한파업에 들어감.

8일. 미제의 전쟁상인 러스크가 서울에 기어들어 괴뢰우두머리들과 《조선의 군사정세》문제 등을 쑥덕거림.

18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남부웰남에 미제침략군기지건설을 위해 제대군인, 기술자 및 로동자 3~5만명을 새로 끌어갈것을 흥책

19일. 외국기관 (주로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3만 5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서울과 인천지구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조선인경비원들의 파업을 지원하여 25일부터 무기한파업을 하기로 결정.

21일. 외국기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대표들과의 담판을 거부한 미제침략군의 부당한 태도에 격분하여 조선인로동자대표들이 현장에서 단식, 앉아버티기투쟁에 들어감.

27일. 미제침략군은행의 조선인종업원들이 임금을 올리며 대우를 개선할것 등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

8 월

3일. 부산부두로동자들이 8일에 24시간파업을 하기로 결정 ▲서울시내 빠스운전수들이 기업주측의 부당한 해고를 반대하여 파업.

8일. 미제의 사촉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제1군수지원단》을 남부웰남에 파견. ▲진해에서 괴뢰군 해병들과 공군장병들간에 패싸움이 벌어져 해병장교 1명이 죽고 쌍방에서 50여명의 중상자를 냄.

15일. 미제의 서북항공소속의 조선인종업원들이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

17일. 《대한영업》회사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31일. 새 《유엔》군사령관 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챠르쓰. 에취. 본스틸이란놈이 서울에 기어듬.

9 월

21일. 서울시민들이 괴뢰국회 의사당앞에서 《밀수재벌화형식》을 벌리고 시위.

23일. 《삼성재벌사카린밀수사건》을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막기위해 괴뢰서울시경찰국이 《정비상경계》를 폄.

10월

7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의 《반밀수재벌학생투쟁위원회》에서 《민족의 피를 빤 리병철을 즉각 구속하고 악덕재산을 몰수하라, 일제상사들을 즉시 추방하라》는 선언문과 결의문을 뿌림.

11일. 박정희괴뢰도당이 폭력패거리를 추기어 《령남일보》사를 습격한것을 규탄하여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발표.

12일. 괴뢰군 1,700여명이 남부웰남으로 끌려감.

13일. 화순탄광로동자들이 임금을 50% 올릴것 등을 요구하여 파업.

15일. 대구에서 3만 5천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박정희괴뢰도당의 밀수규탄대회가 열림.

27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학원자유수호궐기대회》를 가지고 《학원자유수호투쟁위원회》를 무음

31일.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이 서울에 기어들어 박정희괴뢰도당과 새전쟁 도발을 위한 모의를 벌림

11월.

4일. 고려대학교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재벌밀수규탄대회를 가짐

7일. 서울시내 빠스녀차장들이 근무시간단축과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8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파쑈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여 《성토대회》를 가진후 단식투쟁에 들어감.

11일. 고려대학교학생들이 《삼성재벌밀수규탄성토대회》를 가짐. 괴뢰경찰 1,500여명이 대회현장에 출동. ▲부평지구외국기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이 《배고파 못살겠다》, 《임금을 달라》고 웨치면서 파업에 들어감.

16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이 임금을 30% 올릴것과 상여금을 100% 줄것 등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22일. 서울에 있는 성북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회장을 때린 악질 교장놈을 반대하여 동맹휴학.

23일. 《4.19동지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밀수행위를 규탄하는 《밀수규탄시국선언문》을 발표.

12월

28일. 괴뢰군 《방첩대》원놈이 취재중의 기자를 칼로 찔러 중상.

29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상이군인》들을 추겨 《동아일보》를 습격.

조선중앙년감 (1966—1967년판)

발행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67년 11월 30일	발 행	1967년 12월 20일

ㄱ—83515 값 5원 50전

고 칠 것

페지	단	행	틀림	옳음
89	3	21	일제침자들	일제침략자들
111	2	42	공업을	공업이 농업을
145	3	29	조선인민의	조선인민이
164	3	6	내각국영축산총국	내각축산총국
332	1	8	제국주주	제국주의
381	2	9	1939	1941
436	1	5	영제국자들	영제국주의자들
467	1	3	아담편지	담아 편지